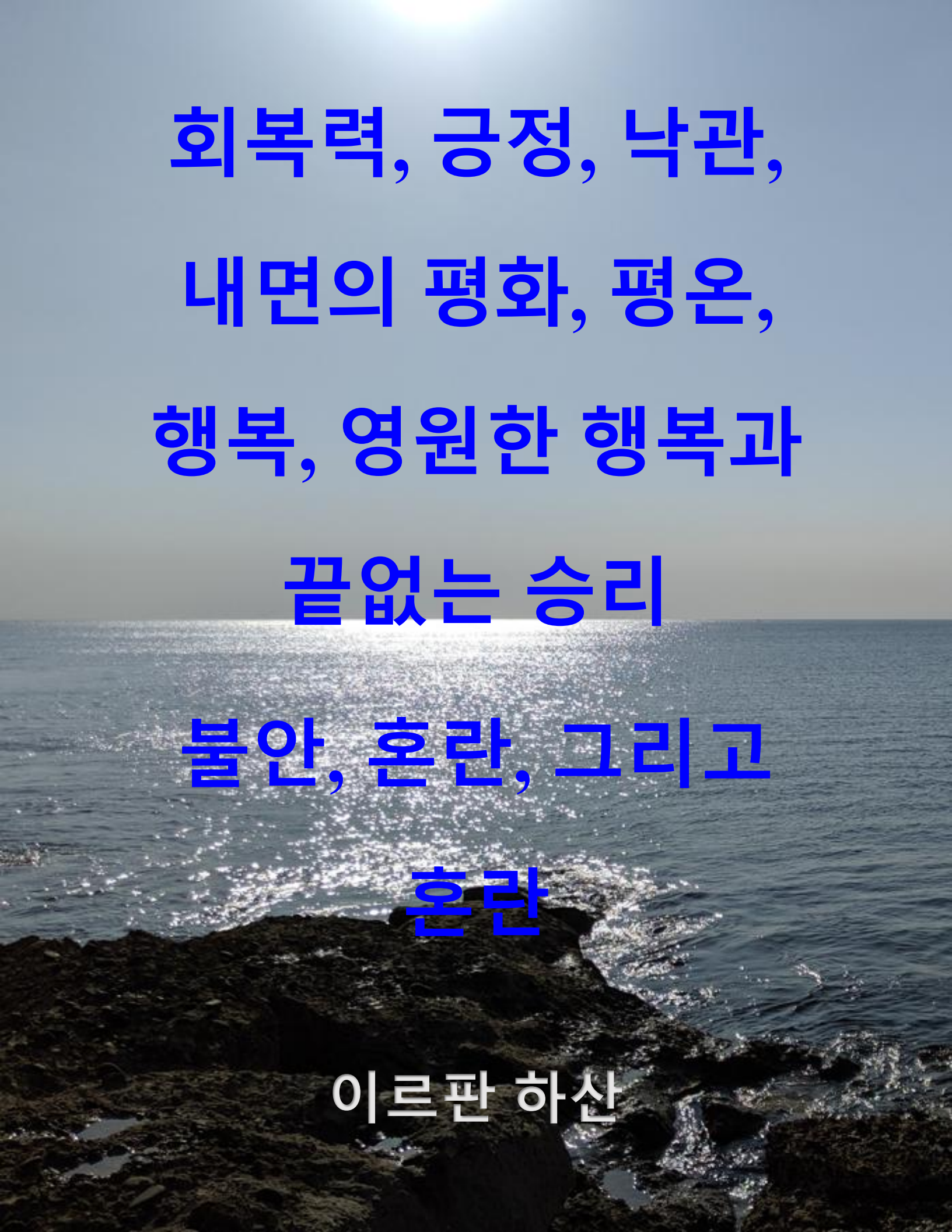

회복력, 긍정, 낙관,
내면의 평화, 평온,
행복,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승리
불안, 혼란, 그리고
혼란
이르판 하산

회복력, 긍정, 낙관, 내면의 평화, 평온함, 행복, 영원한 행복 그리고 끝없는 승리

불안, 난기류 그리고 혼란

인류 문명 전체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자 부흥자 중 한 명인 이맘 아부 하미드 무함마드 알-가잘리(1058-1111년)의 시대를 초월한 저작에서 편집, 번역, 설명

© 2021년 이르판 하산

미국 의회 도서관 등록 번호: TXu 2-273-620

ISBN: 9798543692042

판권 소유. 이 책의 어떠한 부분도 저자나 출판사의 서면 허가 없이 전자적, 기계적, 복사, 녹음 등 어떤 형태로든 복제, 저장 또는 전송될 수 없습니다.

이 저작은 이맘 아부 하미드 무함마드 알-가잘리(1058-1111년)의 시대를 초월한 저작들과 어느 정도 마울라나 잘랄루딘 루미(1207-1273년)의 저작들을 편집, 요약, 번역, 해설한 것이다. 완전한 출처 참고문헌은 참고문헌에 제공되어 있다. 저자는 중요한 내용과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모든 설명을 괄호와 괄호 안에 추가했습니다. 모든 아랍어 단어와 용어는 영어로 음역, 이탤릭체,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قُل لَّوْ كَانَ ٱلْبَحْرُ مِدَادًا لِّكَلِمَٰتِ رَبِّى لَنَفِدَ ٱلْبَحْرُ

قَبْلَ أَن تَنفَدَ كَلِمَٰتُ رَبِّى وَلَوْ جِئْنَا بِمِثْلِهِۦ مَدَدًا

"말하라, '만약 바다가 나의 주님의
말씀을 쓰기 위해 먹이 된다면,
우리가 보충으로 가져왔다 해도
바다가 나의 주님의 말씀이 다 빠지기
전에 고갈될 것이다.'"

(수상한 영적 지식과 경험의 무한한 바다에 관한 꾸란. 18장 109절)

목차

추상적인 9

머리말 15

1부: 내면의 현실을 아는 것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위기, 갈등, 도전을 해결하는 길을 닦는다 16

자기 자신을 아는 것 26

하나님을 아는 48

당신 안에 있는 우주 53

세상을 아는 것 66

사후 세계를 알다 76

2부: 내면의 파괴적 특성 –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 전체를 해치고 위험에 빠뜨리는 부정적 내면 특성 95

1장 - 영혼의 신비를 아는 것은 자기 인식, 깨달음, 깨달음의 영적 여정의 필수 과제입니다 97

자아**(Nafs)**, *영혼(***Ruh***)*, *마음(***Qalb***)*, *지성(***'Aql***)*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목적 97

마음의 군단 (*칼브*) 103

마음의 내면의 종들(***Qalb***)과 그들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들 107

인간 심장(***Qalb***) 의 특성 110

심장의 종합적 특성(***Qalb***)과 그 예시 118

지식과 관련된 마음의 유사성 – 마음의 다듬어진 거울과 그 안에 비친 진리의 빛 126

공개된 지식과 획득된 지식의 차이에 대한 설명과 익숙한 예시들 142

암시(Waswaas)*를 통한 사탄의 마음 지배* - 암시의 의미와 사탄의 지배 이유 148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사탄의 입구 163

마음의 암시, 미신, 위험, 그리고 의도 188

심장과 심장 유형에 대한 급격한 변화 194

2장 - 영혼의 정화를 위한 영적 투쟁, 깨달음 나는 내면의 특성 획득과 영혼의 내면의 어둠과 병을 치유하기 204

선한 고귀한 인격의 탁월함과 악한 혐오스러운 인격의 해악 206

선한 고귀한 성격과 악한 혐오스러운 성격의 현실 212

영적 노력과 투쟁을 통한 성격과 내면의 특성 변화 218

아름다운 내면의 성격, 성향, 자질(*후스른 울-쿨크*)의 수단이자 근원은 절제이며, 모든 극단을 거부하는 것이다 224

도덕, 예절, 내면적 성격 및 성향의 문명 획득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 232

영혼의 질병과 건강의 징후 237

자신의 결점을 찾는 방법 241

욕망과 정욕, 그리고 신의 법에서 전해진 증거와 근거를 거부함으로써 심장병을 치료하다 245

좋은 도덕성, 예절, 인격, 내면적 성향 및 자질의 징후 255

아동의 교육과 양육, 그리고 그들의 도덕성, 예절, 성격, 내면적 성향과 자질을 문명화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 261

영적 여정을 시작하는 조건, 영적 투쟁의 시작, 그리고 영적 길에서 영적 탐구자의 점진적 진화에 관한 세부 사항들 269

3장 - 하위 자아로부터 나오는 두 가지 압도적인 근본적 욕망의 지배를 깨기 284

굶주림의 탁월함과 탐식의 비난 286

굶주림의 이점과 폭식의 해악 291

기아와 관련된 판결, 우수성, 인간 국가의 차이점 303

덜 먹고 욕망을 버리는 해로움 307

사적인 부분에 대한 욕망 309

4장 - 무제한 발언의 돌이킬 수 없는 해악 313

혀의 큰 위험과 침묵의 탁월함 315

혀나 언어 오용의 해악 320

5장 - 분노, 격노, 원한, 질투로 인한 재앙 377

분노와 분노에 대한 비난 378

분노는 영적 노력을 통해 없애거나 완화할 수 있을까요? 381

분노의 원인 384

선동 후 분노의 치료법 386

인내의 탁월함 391

원한의 현실과 결과, 그리고 용서와 온화함의 탁월함 394

용서의 탁월함과 선함 한턱 넘는 행위 397

온화함과 관용의 탁월함 399
질투의 비난, 그 현실과 치유 방법 400
질투의 원인 405
질투 치료의 약 414
6장 - 세속적 삶, 소유물, 권력에 대한 집착과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다 419
세상의 해악에 빠져든 후 보호하기 430
인간에게 존재하는 세상의 현실과 본질 435
세상의 현실과 인간이 우주의 창조자이자 자신의 종말을 잊게 만드는 사치들 440
7장 - 인색함과 물질적 소유에 대한 사랑의 해악 451
부의 해로움과 그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반대 453
부에 대한 칭찬과 비판 간의 갈등 해결 455
부의 해와 이익 457
탐욕의 치료와 만족을 키우는 약법 461
인색함에 대한 비난 469
이타주의의 현실과 그 탁월함 471
비참함의 치료법 475
8장 - 명성과 찬사를 추구하는 해악 487
명성과 인기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비난 489
진정한 완벽함 502
낮은 자아의 칭찬에 대한 사랑과 비판에 대한 증오 505
명성을 사랑하는 치료법 508
칭찬을 위한 치료법 512
비판과 비난에 대한 혐오를 치료하는 법 515
9장 - 과시와 과시의 해악 520
과시에 대한 비난 520
과시의 현실과 그 발생 문제들 528
과시의 약과 이 병에 걸린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 533
행동을 통한 과시의 치유 537
진실성과 진실성의 징후 541
10장 - 오만함과 자만심의 해악 546
오만함의 해악 547

겸손의 탁월함 549
오만함이 드러나는 것들 554
오만함의 치료법과 겸손을 얻는 방법 565
자만심과 그 해악에 대한 비난 581
자기 의로움의 원인과 그 치유 584
교만과 경솔함에 대한 비난 592
3부: 내면의 건설적이고 회복력 있는 특성 - 회복력, 긍정, 낙관, 내면의 평화, 행복, 영원한 행복, 끝없는 성공을 포함시키는 긍정적 내면 특성들이 개인과 집단의 영원한 성공을 이끈다 599
11장 – 자신의 잘못과 과잉을 깨닫고 회개와 용서를 구하며 저지른 잘못에 대한 보상 600
회개의 현실과 정의 602
회개의 수용은 그 조건의 충족에 달려 있습니다 608
사소한 죄가 어떻게 중죄가 될 수 있나요? 617
회개의 약과 죄에 대한 고집 치유법 625
12장 – 역경과 시련, 고난 앞에서 인내를 통한 회복력, 그리고 축복과 모든 선함에 대한 감사 633
인내심의 설명 634
인내의 현실과 의미 638
모든 상태에서 하인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643
인내의 약과 도움을 받는 방법 648
감사의 설명 653
감사할 만한 축복 665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 676
13장 – 하나님을 모든 잘못에 대한 단호한 자제로 두려움을 가지고, 긍정과 낙관주의의 도구로서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다 688
희망의 현실, 그 탁월함, 희망을 위한 약과 그것을 얻는 방법 689
공포의 현실 699
두려움의 지배, 희망의 지배, 혹은 둘 다의 중간 정도 수준이 더 우수한가? 706
불길한 결말에 대한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두려움 711
14장 –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필요를 담는 겸손, 가난 견습, 세속적 및 물질적 집착으로부터의 금욕 716
신 앞에서의 가난 또는 물질적·영적 절대적 결핍의 현실과 영적 여행자의 내면 상태 717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영적 가난의 탁월함 또는 절대적 필요 722
세속성으로부터의 금욕에 대한 설명 729
금욕의 우수성 731
제15장 – 인간이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통일성, 전능함, 절대적 권능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발전시키다 742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탁월함 744
마음을 가진 자와 펜의 대화 749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상태와 행동 758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사건 전염병에서 신에 대한 신뢰에 관한 이야기 764
16장 – 사랑, 그리움, 신성과의 친밀함, 그리고 신의 뜻과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면의 평화, 평온, 행복을 키우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769
사랑의 현실, 그 원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을 사랑하시는 의미 774
하나님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783
신성한 영지와 신성한 비전의 기쁨 798
신성함에 대한 갈망 810
제17장 – 이기적인 동기가 없는 순수한 의도를 주입하고, 모든 일에 진실하며, 진리에 대한 헌신 820
탁월함과 의도의 현실 822
탁월함, 현실성, 그리고 진정성의 정도 828
탁월함과 진실성의 현실 840
18장 – 모든 결점, 부정성, 악덕에 대해 스스로를 책임지기 위한 자기 성찰과 자기 평가 850
자기 성찰(*무라카바*)과 자기 평가(*무하사바*) 설명 850
관상의 현실과 그 정도 860
19장 – 깊은 내면 성찰과 숙고는 내면의 평화와 영적 변화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872
깊은 내면 성찰(*타파쿠르*)과 숙고(*타다부르*) 872
다섯 차원의 성찰 877
20장 – 자신의 죽음과 세상의 종말을 결코 잊지 않고 숙고하며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다 890
세계 여행의 결말을 준비하며 892
책의 결말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확장성을 기쁜 소식으로 언급하는 것들 906
21장 – 시간, 장소, 상황에 상관없이 내면의 평화와 평온, 행복을 찾기 위한 해방의 지혜 912
4부: 루미의 세 왕자 우화를 통한 내면의 완성과 삶의 목적 실현으로 가는 영적 길 921

결론..... 1002
추가 학습을 위해 추천하는 도서 1004
서지학..... 1009

추상적인

인류는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긍정적 영향과 표현으로 내면과 외면의 평화를 찾고 있으며, 불안과 혼란에 잠겨 엄청난 도전과 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내, 인도, 진실, 지혜가 오늘날의 위기와 도전이라는 위험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개인이 직면하는 모든 수준에서 수많은 도전들은 너무 지치고 집어삼키기 때문에, 지적, 심리적, 영적 자원이 남아 있지 않아 탈출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터널 끝의 빛을 보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안내는 많은 이들에게 제공되지 않거나, 이 "정보 시대"가 역설적으로 가져온 대규모 혼란, 히스테리, 부정적 정보, 허위 정보에 의해 흐려지고 있습니다. 정보 시대는 오늘날 만연한 그 반대가 아니라 계몽의 시대를 열어야 했다.

현재 상황과 상황을 보면, 우리는 경제적·기술 발전으로 물질적 번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거나, 계속되는 정치적·사회적 갈등과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굶주림, 질병, 불의, 빈곤, 경제적 어려움, 혹은 불안과 혼란의 경계 상태에 머무르는 것, 즉 모두에게 제한된 경제적 기회와 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결합된 상태, 그러나 대규모 격변과 갈등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현재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지리적, 문화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긍정, 낙관, 내면의 평화, 평온, 행복, 성공과 함께 살 수 있는 균형 상태를 찾고 있습니다. 불안, 난기류, 혹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이 긍정적인 내면 상태에

도달하려면 이러한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를 극복하는 실제 요인들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부정적인 것, 절망, 우울, 절망에 대한 대안을 회복력, 낙관, 긍정적 태도, 생각, 감정, 말, 행동, 존재 형태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면과 외면의 태도가 변화한 결과는 내면의 평화, 고요함, 행복, 그리고 삶과 그 도전에 대한 영원한 시각을 가져와, 이 지상적인 존재에서 시작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해 인간을 영원히 남기는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승리를 불어넣습니다.

생각, 감정, 말, 행동의 부정성은 적대감, 갈등, 무분별한 파괴, 전쟁, 불안, 우울증, 내면의 영적·신체적 병으로 이어지지만, 긍정적인 내면의 상태, 생각, 감정, 말과 행동은 내면의 평화와 평온을 가져와 모두에게 생명, 자유, 번영, 건강, 행복을 증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혼 깊숙이 내재된 긍정적인 에너지의 저장소를 끌어내어 먼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영향을 미치기로 결정한 모든 것의 이익을 위해 긍정적인 채널로 전환할 때 일어납니다. 이러한 자기 권한 부여는 개인과 집단의 내면 평화, 번영, 행복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결국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내면의 원재료를 엄청난 가치와 광채, 빛을 지닌 귀중한 보석으로 변모시키는 연금술입니다. 그렇다면 왜 진정한 인간의 잠재력과 가치를 가진 이 유일한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놓친 기회와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에 대한 영원한 후회와 절망에 빠집니다.

이 논문은 자기 인식과 영적 깨달음의 길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여, 자기 인식과 영적 깨달음을 방해하는 내면의 파괴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서 우리 영혼 깊숙이 내장된 긍정적 에너지의 저장소를 해방시키고, 각 개인이 인간 성취의 정점에 도달하도록 이끄는 요인들을 설명합니다. 이 책은 모두가 '나쁘다'거나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재고하고, 대신 '좋은' 혹은 긍정적으로 행동해 그로 인한 해와 이익을 직접 보라고 초대합니다. 이 책은 모두가 내면의 보물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자신의 안녕에 대한 무지함을 피하고, 긍정적이고, 쾌적하며, 낙관적이고, 선한 사람이 되면서 이 둘의 차이를 보고 인간 성취의 정점에 도달하는 법을 배우도록 초대합니다. 이 논문은 완벽함, 깨달음, 영원한 행복, 끝없는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며, 그 결과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차단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 삶이 제공하는 최고의 것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이 논문은 먼저 그 길을 설명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도록 도전함으로써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불안과 격동의 시대의 병폐를 치료하기 위해, 우리는 영성, 자기 인식, 내면 개혁, 내면 변화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 중 한 명의 지혜와 영원한 보물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 변화는 이슬람 문명뿐 아니라 인류 전체 문명의 외적 갱신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이맘 아부 하미드 무함마드 알-가잘리(1058-1111년) 그는 인류의 이익을 위해 영원히 설교한 가잘리(Ghazali)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설명은 가잘리의 뛰어난 통찰과 지혜에 의해 이끌려,

인간의 내면적 현실과 삶의 진정한 목적, 그리고 그것들이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깊이 갈망하고 소중히 여기는 목표입니다. 그 지식과 통찰을 갖추면, 이 책은 근대 시대의 불안, 격동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면의 파괴적 특성과 깊숙이 주입해야 할 내면의 덕목과 고귀한 자질들을 설명하며, 그 결과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승리를 이루고, 그 과정에서 세속적 삶에 회복력을 부여합니다. 긍정, 낙관, 내면의 평화, 평온, 진정한 행복, 그리고 변함없는 영원한 성공.

이 책은 무력한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처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며, 절망, 우울, 슬픔, 좌절, 내면의 공허함 같은 내면의 고통에 빠진 이들에게 안도감이 될 것이며, 어둠에 둘러싸인 이들에게 빛이 되고, 삶의 진실과 목적, 의미를 찾는 이들에게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지고자 하는 이들이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세상을 위해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논문은 가잘리의 영원한 지혜와 영원한 진리의 보물을 바탕으로 인류 전체를 위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에서 부정적인 성향을 모두 제거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평화와 영원한 행복, 끝없는 성공의 상태를 가져다줌으로써 내면의 평화와 행복으로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의 파장에 대해 노력하는 것은 세속적인 고난과

고난에서 벗어나 영적인 영적 영역으로 이끌어 영원한 행복과 모든 역경을 극복하는 끝없는 승리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도 인간이 내외부에서 파괴를 일으키는 가장 어두운 충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종교는 신성한 빛 대신 그 어두운 충동에 이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평화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가잘리의 "*Ihya al-Uloom ad-Deen*" 또는 "신으로 가는 길에 대한 지식의 부흥"은 이 논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엄청난 저작으로, 인류 문명 전체에서 가장 획기적인 작품일 것입니다. 이 책은 인간의 숨겨진 어두운 충동을 드러내고 도전하며, 종교가 그 어두운 충동을 만족시키고 만족시키는 데 사용되는 방식을 도전합니다. 신성한 빛을 종교와 인간의 마음에 불어넣어 내면과 보편적인 평화를 알립니다.

모든 인간이 자신의 내면의 현실과 자신이 여기 있는 삶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변의 모든 상황과 사건들—좋든 나쁘든, 즐겁든 불쾌하든, 쉽든 어렵든—을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현실을 이해한 뒤, 어떤 상황에 처하든 상관없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보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회복력, 내면의 평화, 평온, 행복을 촉진합니다. 자기 인식과 내면의 깨달음을 추구하고, 개인적으로 해로운 내면의 병폐를 버리고 개인적으로 유익한 내면의 특성을 심어주는 보상은 이 세속 삶에서 시작하여 노력하는 자를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승리로 영원히 영입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첫 세 부분에서 사용하는 접근법은 첫 번째로, 첫 번째 부분은 인간의

현실과 삶의 진정한 목적을 아는 것을, 두 번째 부분은 내면의 파괴적 특성과 어두운 내면의 충동을 이해하고 이를 제거하는 방법을 다루며, 세 번째 부분은 선만을 전하는 가장 순수하고 긍정적이고 숭고한 내면의 특성들을 다루며, 이를 심어 모든 것을 몰아내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내면의 어둠. 이 글들에 스며든 지혜의 빛은 어둠, 부정적인 감정, 해로운 충동, 깊은 절망을 몰아내고, 대신 삶을 개선하거나 산산조각난 삶을 재건하려는 열망으로 대체하여 회복력, 긍정, 낙관, 내면의 평화, 평온, 행복, 영원한 행복, 끝없는 성공을 심어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둘러싼 모든 것을 감쌀 것입니다. 이 빛이 점점 강해지고 퍼질수록, 주변의 어둠은 점점 사라져 우리 내면의 존재들, 공동체, 국가들, 그리고 세상을 밝히고, 모두를 위해 신비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책은 가능한 것의 예술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에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현자이자 스승 중 한 명의 영원한 지혜의 보물을 통해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밝힙니다.

지혜와 인도의 신성한 빛이 당신의 존재의 배를 항해하여, 이 덧없고 덧없는 세속적 존재의 폭풍우 속에서 평화와 안전을 찾아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승리의 불멸의 존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머리말

가장 자비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논문을 인간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를 알면 사물을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통찰을 갖게 되고, 이는 내면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고 내면의 공허함을 긍정적인 태도와 성향으로 채워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합니다. 이 변화는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서 시작되며, 이 내면의 빛이 강해지면 밖으로 나가 전체 공동체와 국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전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자신의 존재의 현실과 삶의 목적,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승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소중한 목표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요인과 그 달성을 촉진하는 요인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피해야 할 장애물과 고귀한 내면의 자질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하며, 현재의 불안, 혼란 상태와 상관없이 회복력, 긍정, 낙관, 내면의 평화, 평온, 영원한 행복, 끝없는 승리의 여정을 완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1부: 내면의 현실을 아는 것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위기, 갈등, 도전을 해결하는 길을 닦는다

가잘리는 페르시아어로 쓴 저서 『*키미야에사아닷*』 또는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을 위한 변화의 연금술 또는 변혁적 주체』에서 영원한 행복과 삶의 현실,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하늘의 별, 빗방울, 나무의 잎, 사막의 모래 입자, 하늘과 땅의 원자에 필적하는 무수하고 끝없는 감사와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며, 그 본질적 속성은 하나님의 유일성이며, 위엄, 위대함, 고귀함, 탁월함은 그분의 독특한 특성이자 숭고한 속성이다. 어떤 인간도 폐하의 완전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영지의 현실에서 길을 가진 사람은 오직 그분뿐입니다. 오히려 그분의 영지(그니시스)의 실재에 도달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이 그분의 친근과 친구들의 영지의 절정이며, 그분의 찬양과 찬송가에서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천사들과 예언자들에 의한 신성한 영광의 절정이다. 폐하의 첫 빛에 놀라움을 느끼는 것은 지적인 자들의 지성의 절정이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찾아 경이로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신비로운 길을 떠나는 이들과 영적 여행자들의 절정입니다. 그 근간은 영지의 희망을 버리고 자신의 근본적인 자아의 욕망을 떠나는 것이다. 그분의 영지에 대한 완벽함을 주장하는 것은 유사성과 유사성을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눈은 그분의 존재의 아름다움을 목격하는 데 있어 반짝임에 비몄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업적과 창조물을 보면서, 필요한 영지성은 모든 지성이 맺는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존재의 위대함을 묵상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서는 안 된다. 어떤 마음도 그분의 놀라운 업적에 잠시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 행위가 무엇인지, 누구의 힘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말이다. 이는 모든 것이 분명히 그분의 능력의 징조이자 위대함의

빛임을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경이로움과 경이로움은 그분의 지혜에서 나왔으며, 모든 아름다움의 반영은 오직 그분의 창조물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그리고 그분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은 그분입니다. 현실과 마찬가지로, 그분만이 존재합니다. 오히려 모든 존재의 존재는 그분의 존재의 빛을 반영한 것이다.

오, 사랑하는 이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놀이, 허영, 한가한 활동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책임과 그 안에 내재된 위험은 모두 엄청나며, 마치 영원한 존재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즉, 영원히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면, 영원히 살아온 존재가 아니라면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몸은 점토로 이루어진 구조물로서 하찮지만, 신성한 존재로서 영혼의 현실은 엄청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 기원은 동물, 짐승, 악마 및 그 불순물의 특성과 섞여 있지만, 고난을 겪으면 불순물이 정화되어 신성한 근접 능력을 얻는다. 그 역할은 최악 중의 최악이자 최고 중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동물, 야수, 악마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분노와 욕망의 함정에 얽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정점은 (영혼이) 천사의 지위[즉, 영적 영역으로] 도달하여 욕망과 분노의 얽힘[그리고 그들에 나타나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벗어던지고 그들을 포로로 삼으며, 그들의 주인이자 왕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왕권의 지위를 얻으면 신성한 예배와 종속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이 예배 능력은 천사의 속성이며 인간 지위의 완전함이다. 신성한 아름다움의 사랑을 맛보면, 신성한 시야를 단 한 순간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끝없는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보는 것은 사람의 천국이 됩니다. 눈과 위, 육체적 쾌락의 낙원은 개인에게 하찮고 무가치해진다. 인간의 기초는 태어날 때 불완전하고 하찮기 때문에, 완전함에 도달하려면 고난과 치료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황동과 구리를 정화해 금으로 만드는 연금술은 매우 어렵다. 누구나 그것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초를 야수적이고 동물적인 습관의 불순물로부터 정화하고, 인간이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하는 천사적 [영적] 정화를 가져다주는 이 연금술도 있다. 이 변화의 변혁적

주체인 연금술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렵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논문을 쓰는 목적은 이 연금술의 요소들을 진술하는 데 있으며, 사실 그것은 영원한 행복의 연금술이다. 이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을 "*Kimiya-e-Sa'adat*" 또는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을 위한 연금술 또는 변화의 변혁적 주체"라고 명명했습니다. "연금술"이라는 이름은 이 책에 매우 어울립니다. 그 이유는 구리와 금에는 노란색과 무게 외에는 차이가 없고, 이 연금술(구리를 금으로 바꾸는)으로써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삶은 며칠 동안 지속됩니다. 세속적 부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의 습성과 천사의 특성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연금술의 열매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입니다. 그 지속 기간에는 끝이 없으며, 영원히 존재하며 한 인간을 영원히 영원히 남길 것입니다. 그 축복의 종류는 끝이 없습니다. 어떤 불순물도 그 순수함과 명료함에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은 실제로 연금술입니다. 이 외에는(즉, "*Kimiya-e-Sa'adat*" 또는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을 위한 연금술 또는 변화의 변혁적 주체"라는 책에서 제시된 가르침과 설명들), 다른 무엇이든 연금술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우화에 불과하다.

오, 사랑하는 이여! 구리와 기타 원소를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은 모든 노부인의 오두막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과 왕들의 보물에서 발견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승리의 연금술도 어디에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성한 보물에서 발견됩니다. 이 하늘의 신성한 보물은 천사들의 존재이며, 땅에는 [참된] 예언자들의 정화된 마음입니다. 이 연금술을 예언자의 법정 외 어디서든 찾으려는 자는 길을 잃고 결국 속고 속일 것입니다. 그저 허영심만 남게 될 것이다. 심판의 날에 자신의 가난이 드러나고, 온 피조물이 그 사람의 위조(가짜) 동전을 알게 되며, 모두의 잘못된 지성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깨닫지 못했던 현실과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성한] 선언의 부름을 들을 것입니다:

لَّقَدْ كُنتَ فِي غَفْلَةٍ مِّنْ هَٰذَا فَكَشَفْنَا عَنكَ غِطَآءَكَ فَبَصَرُكَ ٱلْيَوْمَ حَدِيدٌ

"당신은 분명히 이 일에 대해 무심하고 무심했군요. 우리는 너에게서 장막을 벗겼으니, 오늘 네 시야는 예리해졌어 [이전에 너에게 숨겨졌던 것이 이제 네 선명한 초점에 들어왔으니까]." (꾸란 50장 22절)

가장 자비로우신 자비와 축복 중 가장 큰 자비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124,000명의 예언자(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를 보내 이 연금술의 처방(재료와 제조법)을 하나님의 창조물(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의 현금을 고난의 모루에 넣고, 마음을 굳고 흐릿하게 만드는 나쁜 도덕에서 마음을 개혁하는 길과 좋은 도덕과 숭고한 자질로 마음을 장식하는 길을 가르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주권(자신의 지배)을 칭송하셨고, 예언자들을 보내신 속성을 선언하셨으며(특히 사도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라고 선언하시고, 이를 창조물에 대한 은총으로 표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يُسَبِّحُ لِلَّهِ مَا فِي ٱلسَّمَٰوَٰتِ وَمَا فِي ٱلْأَرْضِ ٱلْمَلِكِ ٱلْقُدُّوسِ ٱلْعَزِيزِ ٱلْحَكِيمِ ﴿١﴾

هُوَ ٱلَّذِي بَعَثَ فِي ٱلْأُمِّيِّـۧنَ رَسُولًا مِّنْهُمْ يَتْلُوا۟ عَلَيْهِمْ ءَايَٰتِهِۦ وَيُزَكِّيهِمْ وَيُعَلِّمُهُمُ ٱلْكِتَٰبَ وَٱلْحِكْمَةَ وَإِن كَانُوا۟ مِن قَبْلُ لَفِي ضَلَٰلٍ مُّبِينٍ ﴿٢﴾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왕이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운 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은 무식한 자들 사이에 사도[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를 보내 그들에게 계시를 낭독하고 [내면의 영혼 정화로] 정화시키며, 그들에게 성경과 지혜를 가르치는 분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무지의 현현에 있었다." (꾸란 62장 1-2절)

[아랍어] 단어 "*유자키함*"(뜻: "모든 불순물과 혼란함으로부터,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내면의 정화로 정화하라"는 뜻) [위 구절에서]는 동물들의 본질인 동일한 비난받아 마땅한 특성과 특성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사도[무함마드 선지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가 그것들로부터 해방시키거나 정화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 동물들을 해방시키는, 그의 숭고한 가르침과 영적 완전함을 통해 내면의 정화와 영적 변화를 이루는 것]. 위 구절의 [아랍어] 단어 "*Yu'allimuhumul kitaaba wal-hikmata*"는 "그들에게 책과 지혜를 가르친다"는 뜻으로, 그가 천사의 속성을 가진 옷으로 장식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이 바로 이 연금술(즉, 완전한 내면과 영적 변화의 변형 주체)의 객관적이고 목적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복지에 해로운 모든 해롭고 부당한 것들(즉, 영혼의 모든 내적 결함과 해로운 부정적 성향)을 정화하고 정화되고, [내면의 영적] 완전함의 속성으로 장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연금술 중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것은 세상(세속, 물질주의, 이기적인 욕망, 그리고 모든 비난받거나 낮고 부정적인 성격)에서 얼굴을 돌려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연금술입니다(하나님의 사도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

وَٱذۡكُرِ ٱسۡمَ رَبِّكَ وَتَبَتَّلۡ إِلَيۡهِ تَبۡتِيلٗا

"*와드쿠루스마 랍비카 와 타바탈 일라이히 타브틸랴*"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온전한 헌신으로 [그분께] 헌신하라." (꾸란 73장 8절)

[아랍어 단어] "*Tabteela*" [위 구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과의 분리를 의미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을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권에 자신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고 모든 일을 그분께 맡기며]. 이것이 이 연금술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그 세부 내용은 매우 길고 무한합니다. 하지만 그 제목은 네 가지를 아는 것이고, 본질적인

요소는 네 가지 거래를 아는 것이며, 각 필수 요소는 열 가지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의 연금술의 네 가지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 자신을 아는 것,

(2) 하나님을 아는 것,

(3) 세상의 현실을 아는 것, 그리고

(4) 내세의 현실을 아는 것.

위의 네 가지를 아는 것은 사실 상 *이슬람*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의 명칭입니다. 하지만 이슬람의 본질적인 요소들은 네 가지다.

두 가지 본질적 요소는 외적 자아("*자히르*")와 관련되며, 두 요소는 내면의 자아("*바틴*")*와 관련이* 있습니다.

외부 자아와 관련된 두 가지 필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들은 [외부] 예배 행위("*이바다*")*라고 불*립니다.

(2) 자신의 이동과 생계에 있어 이를 시야에 두는 것. 이를 [사회] 거래("*무아말라트*")*라고 부른*다.

내면의 자아("바틴")와 관련된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노, 구색함, 오만, 교만, 자기 의로 충만함 등 모든 나쁜 [내면] 도덕으로부터 마음[또는 영혼]을 정화하는 것. 이러한 [나쁘고 낮은 내면의 성격 특성] 또는 도덕은 신앙의 길에서 '*무흘리카트*'(부정적인 면, 내면의 악덕, 파괴적인 특성)와 '*아카바트*'(사람들이 강도의 희생자가 되는 어둡고 좁은 곳)라고 불립니다.

(2) 인내, 감사, 사랑, 희망, 하나님에 대한 신뢰 등과 같은 좋은 [내면의] 도덕으로 마음[또는 영혼]을 장식하는 것. 이러한 도덕을 '*무나지야트*'(영혼에 구원, 행복, 진정한 [영원한] 행복, 그리고 [영원한] 성공을 가져다주는 긍정적 특성 또는 영혼의 모든 고귀한 내적 성격 특성)이라고 불립니다.

신 숭배에 관한 네 가지 필수 요소 중 첫 번째는 열 가지 기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흘 알순나* (즉,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를 통해 전승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든 수준에서 끊임없는 전승과 인증된 학문에 의존하는 진정한 전통 방법론에 따르는 자들,

(2) 지식을 추구하는 문제에 있어,

(3) 청결(또는 외적 순수함) 문제에 관해서는,

(4) 기도(하나님께) 관한 문제에서,

(5) 자카트(또는 의무적 부채 또는 자선) 문제에 관해서는,

(6) 금식에 관해서는,

(7) 하즈(또는 메카의 *카바* 순례, 신 과 그분의 자비를 상징하는 것)에 관해서는,

(8) 꾸란 낭송과 관련하여,

(9)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기도와 간구에 관하여

(10) 연도기도를 준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물질적, 영적 모든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부르는 것].

두 번째 필수 요소는 [모든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것으로, 열 가지 기초[또는 원칙]를 가집니다:

(1) 식사 예절,

(2) 결혼 예행,

(3) 직업 양식과 직업,

(4) 합법적인 행위를 구하는 [그리고 불법을 피하는 방법],

(5) 교류의 예절,

(6) 은둔 방식,

(7) 여행과 이동의 예절,

(8) 낭송 방식("*사마*" 또는 신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과 관련된 헌신 낭송) 및 [그로 인한 영적] 황홀경,

(9) 선을 명령하고 악을 금지하는 예절, 그리고

(10) 통치자와 피지배자의 예절.

"무흘리카트"(영혼의 파괴적 악)*와 관련된 세 번째 필수 요소*도 열 가지 기초[또는 원칙]를 가지고 있다:

(1) [내면] 자기 절제의 습관과 하위 자아의 저속한 욕망("***Nafs***")을 억제하기 위한 영적 수련,

(2) 과도한 음식과 육체적 쾌락에 대한 치료 방법,

(3) 과도한 말과 혀의 해악을 치료하는 방법,

(4) 분노, 오만, 거짓된 존경을 치유하는 방식,

(5) 세상을 사랑하는 치유 관습,

(6) 재산[및 부]에 대한 사랑의 치유 방식,

(7) 화려함과 존경의 치유 방식(자기 과시와 자기 과시),

(8) 허세와 위선을 치유하는 방식,

(9) 오만함과 자기 의로움을 고치는 태도, 그리고

(10) 교만과 경솔함의 치유 방식.

네 번째 필수 요소인 '*문지야트*'(영혼에 구원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고귀한 내적 특성)도 열 가지 기초[또는 원칙]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2) 역경에 대한 인내와 신성한 축복과 은총에 대한 감사,

(3)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희망],

(4) 가난[또는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 필요 상태]와 금욕주의,

(5) [선함] 의도, 진실, 그리고 진실성,

(6) 헌신과 자기 책임,

(7) [영적] 관조(또는 "*무라카비*", 즉 하나님의 시선이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 자기 성찰과 비판적 자기 평가),

(8) 하나님의 일치[또는 하나됨]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9)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10) 죽음과 그 기억(또는 자신의 불가피한 죽음과 세속적 존재의 끝을 성찰하여 사물을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이것은 "Kimiya-e-Sa'adat" 또는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을 위한 연금술 또는 변화의 변혁적 주체"라는 *책의 필수 요소와 기본 원리의 목록입니다*. 네 가지 제목과 네 가지 원칙을 명확히 설명하며, 어려운 구절이나 복잡한 내용에 빠지지 않도록 자제하여 이 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연구를 하거나 복잡성을 깊이 파고들고자 하는 누구나 "*이히야 알-울룸 앗-딘*", "하나님의 길에 대한 지식의 부흥", "*자와히르 알꾸*란" 또는 "꾸란의 보석" 등 이 학문 분야의 다른 편집본들과 같은 아랍어 서적을 참고하고 공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승리의 연금술]을 일반 대중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잘리는 이어서 이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승리의 변혁적 수단인 이 연금술의 네 가지 제목(또는 요구사항)과 네 가지 원칙을 훌륭하게 설명한다. 이 40가지 원칙에 대한 영원한 행복의 연금술 원칙을 상세히 설명한 가잘리는 그의 4권짜리 지혜 모음집 『*이흐야 알울룸 앗딘*』('신의 길에 대한 지식의 부흥')에서 매우 상세하게 제공되어 있다. 가잘리는 그의 저서 "*Kimiya-e-Sa'adat*" 또는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을 위한 연금술 또는 변화의 변형 행위자"의 소개 이후, 연금술 또는 영원한 행복의 변혁적 행위자의 네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을 얻기 위한 첫 번째 제목 또는 조건인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한 설명에서 가잘리는 [2]: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사랑하는 이여! 자신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깨닫는 열쇠임을 조심하세요. 따라서 그분께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셨습니다:

مَنْ عَرَفَ نَفْسَهُ فَقَدْ عَرَفَ رَبَّهُ

"자기 자신을 인식한 자는 자신의 주님을 인식한 것이다."

سَنُرِيهِمْ ءَايَٰتِنَا فِى ٱلْءَافَاقِ وَفِىٓ أَنفُسِهِمْ حَتَّىٰ يَتَبَيَّنَ لَهُمْ أَنَّهُ ٱلْحَقُّ

"우리는 우주의 가장 먼 곳과 그들 자신의 영혼(자아들) 안에 우리의 징조를 보여줄 것이며, 이것이 진리임을 분명히 드러낼 때까지." (꾸란 41장 53절).

사랑하는 이여! 이 세상에서 당신과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자아'(*Nafs*)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자신의 존재, 즉 자신에 대해 인지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헛되이 찾으려 하겠습니까? 만약 '우리는 스스로를 계산하고 인식한다'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오해입니다. 그런 지식은 결코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영지('*마리파*'), 즉 인간이 우주의 최고 주님이자 주인(즉, 신)을 인식하려는 시도의 열쇠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동물들조차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도 머리, 입, 손, 발, 살 등 자신의 몸의 눈에 보이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지만, 당신은 배고플 때 식사를 하거나, 화가 난 상대와 싸우거나, 육체적 욕망에 이질할 때 자신의 다른 자아를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을 시작하죠. 그렇다면 당신과 이 동물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입니다. 왜 이 세상에 오셨나요? 주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나요? 요컨대, 당신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무엇인가요?

새와 짐승조차도 당신이 가진 특성들을 지니고 있으며, 사탄의 일부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천사들이 동등한 성격의 특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일시적이고 영구적인 특징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기원, 본질은 무엇인가요? 따라서 자신에 관한 이러한 중요한 '기본'을 파악하지 못하면 축복받은 자의 지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각각의 특성은 고유한 '음식'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양육하고 유지하며 성장을 촉진하여 선함과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촉진합니다. 동물들의 발전은 먹고 마시며 건강하고 강해지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도 동물이라면 매일 그들의 방식을 따르며 배를 가득 채우고 육체적 욕망을 최대한 충족시켜야 합니다.

공격과 살해는 정글 동물들의 주요 특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악과 그 파장, 악행, 배신은 악마의 징표이자 상징이다. 그러니 당신도 이런 악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마음을 달래야 합니다. 반면, 동물과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위대함을 추구하는 것은 천사들의 영혼에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천사들 출신이라면, 그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래야 비도덕적이고 감각적인 쾌락과 오만한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 안에 영을 심어 자신 안에서 진리를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물, 맹금류, 짐승들 사이에 만들어주신 균일한 성질들이 공공선을 위한 것임을 깨닫도록 헌신적으로 하십시오. 당신들도 짐승처럼 끔찍해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동물, 새, 짐승들은 당신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신을 분별하고 아는 이들은 이 상태를 '신의 길에 있고 신 앞에 있는 것'을 '*자니브-에-일라히야*'라고 부른다. 사람들(즉, 일반인)은 이곳을 '파라다이스'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심하신 크고 덕 높은 내재적 가치에 완전히 살아 있으여, 그분의 영지('*마리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신으로 가는 길)의 가치를 알면서도 그 길에서 멀리하게 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만약 진심으로 내면의 자아에 대한 통찰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외부 구조인 몸과 '*나프스*'(자아), '*칼브*'(마음), 또는 '*루*'(영혼)라 불리는 내면의 자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틴*'(내면의 존재), 즉 다른 보이고 명백하지 않은 자아의 눈을 통해 볼 수 있다. 이 진리성이야말로 존재의 주된 것, 불가침의 근간,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에 종속되어 있습니다(즉, 마음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말할 때, 진실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영혼'("*Ruh*")이라고도 불립니다. 때때로 이를 '*나프스(Naf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칼브*', 즉 심장은 동물들이나 심지어 죽은 자들도 가진 인간 몸 왼쪽에 있는 살덩어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칼브*', 즉 심장은 인류에게 부인할 수 없는 진정한 사실이다. 그것은 독특하고 진실하며 최고의 진리로, 비록 드러나더라도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는 '샤하다'라고 불리는 [보이거나 보이는] 영역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높은 영역입니다. 그 안에서 선함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이 살덩어리, 심장은 몸의 기사 기수다. 나머지 부대는 부대이거나 지휘에 복종한다. 심장은 이 군대의 왕이자 지휘관이다. 그 주요 임무는 '*마리파*' 또는 신의 영지(Gnosis)를 획득하는 것이며, 이는 인간의 마음에 부여하신 고귀한 특성들로 인해 하나님의 숭고한 은혜를 인식하고 획득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맥동한다. 항상 목소리로 그분의 찬양을 외우며, 오직 그분만이 경배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비를 베풀거나 그분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실 수 있는 권능을 계속

읊조린다. 보복과 보상은 오직 그분의 특권일 뿐이며, 오직 그분만이 축복하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파*' 또는 신의 영지를 온전히 소유하려는 노력이 이 목표의 열쇠입니다.

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그것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은 최고의 귀중한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천사와 친족 관계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정점은 그 천국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고귀한 목표를 향한 길을 걷는 고귀한 여행자입니다. 이 짧은 인생 여정 속에서 무역, 농업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면서도 항상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하여] 계속 나아갑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자신 안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지 않으면 마음("*Qalb*")에 대한 진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 군대, 즉 무적의 힘을 찾아야 합니다. 그다음 "*마리파*"(신의 영지)와 "*사아다*"(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 사이의 연결을 인식하려고 노력하세요. 심장의 웅장함은 나무 틀과 같은 피상적인 몸과 비교하면 부정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야. 죽은 사람과 같아. "*칼브*", 즉 마음이란 영혼의 진실성을 의미합니다("*루*"). 영혼이 없으면 몸은 죽고 시체가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과거에는 완전히 보이던 육체적 존재에 대한 모든 생각을 떨쳐내고, 자아와 영혼을 찾는 데 몰두한다면, 그 탐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진짜 가치 있는 탐구는 마음에 관한 것이다. 또한 저승 중 한 명에게 알릴 것이다. 반대되는 것이 없다면, 동시에 마음의 내재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심장'이란 무엇일까요? 심장의 특별한 특징은 무엇인가요? 신성한 법은 학문적 논쟁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와 그의 고귀한 동료들은 하나님께서 꾸란에서 선포하신 다음 구절들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وَيَسْـَٔلُونَكَ عَنِ ٱلرُّوحِ ۖ قُلِ ٱلرُّوحُ مِنْ أَمْرِ رَبِّى

"그리고 그들은 영혼에 대해 묻는다. 말해봐, 영혼은 내 주인의 명령이야." (꾸란 17장 [이스라엘 자손들], 85절)

أَلَا لَهُ ٱلْخَلْقُ وَٱلْأَمْ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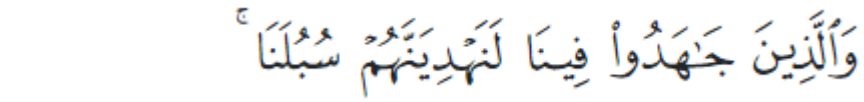
"보라, 창조물('*칼크*')는 그분이시고, 명령은 그분(*암르*)이시다." (꾸란 7장 54절)

"칼크*", 즉 창조와 "*암르" *영역에서는* 서품이 완전히 다릅니다. "*칼크*"(창조), 차원 측정의 요소, 양과 질량이 임박했다. 사전에서 '*칼크*'(또는 창조)라는 의미는 추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분열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시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다면, 그 전제는 잘 맞을 수 있어서, 한 번에 현자일 수도 있고 완전한 초보자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알림*'(학자 또는 지식의 사람)과 '*자할*'(무지한 자)이 동시에 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반대로, 영혼("*Ruh*")은 신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그것은 완전히 분리될 수 없으며, 질량의 코드, 측정, 수량화와도 관련이 없다. "*암르*"(명령)는 하나님의 뜻으로, 명백하고 최우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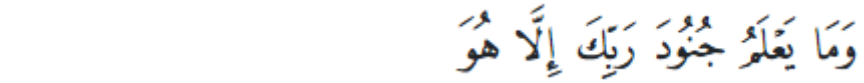
또한, 영혼을 멀고 먼 존재이며 고대의 것으로 여기며 스팬으로 보는 사람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제한된 경간이 어떻게 제한과 권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영혼이 진실하고 압도적일 때, 어떻게 육체, 즉 몸이 영혼을 압도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영혼이 어떻게 "*Ard*"나 span(스팬)일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영혼을 육체라고 부르는 자들은 자기모순적이며 속임수에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몸은 조각조각 나눌 수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분할할 수 없는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세세한 점을 제기하자면, 동물 안의 영혼은 마지막 고민 때 사라져야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라 부르는 진정한 영혼은 하나님의 영지가 펼쳐지는 웅장한

장소입니다 ("*마리파*") 하지만 동물들은 이 [두 번째 영혼]이 결여되어 있다. 영혼은 육체도, 스팬도 아니며, 평가하기 어려운 순수한 천사의 보석입니다. 그 평가는 꺼내거나 증폭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공정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여, 반드시 그들을 우리의 길로 인도하리라." (꾸란 29장 69절)



"당신 주군의 군대를 아는 사람은 그뿐입니다." (꾸란 74장 31절)

위의 꾸란 구절들은 심장이 내세를 위해 특별히 지정되었음을 명확히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이 축복들은 신의 영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제품을 통해 어떤 것의 저자나 제작자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예리한 감각은 그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숭고한 창조주가 세계의 경이로움을 만들어낸 작품들은 각각이 독창적이고 독특하지만, 인간 내면의 외적 및 내적 분별 능력의 통찰력을 통해서만 그 섬세한 매력으로 감상되고 감탄할 수 있다. 지각과 침투의 겉보기적 특성은 주로 신체 기능에 해당하지만, 마음의 실제 목적은 피상적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마리파*' 또는 신의 영지(Gnosis)이다. 따라서 신체의 감각 능력은 올가미(즉, '동물의 영혼')이고, 몸은 올가미와 기수(즉, 진정한 영혼 또는 '인간의 영혼')를 지탱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결합 프레임(즉, 몸)은 물, 점토, 열로 이루어진 심장의 전제 조건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내면(바 *틴*)과 외면('자 *히르*') 존재의 필수 음식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불과 물 같은 야수 같은 원소들이 인간의 기본 진화 요소로 인해 내면과 외면의 욕구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갈망합니다. 이 두 힘이 한편으로는 인간의 생명과 복지를 위협하는 물리적 적과, 다른 한편으로는 탐욕과

분노에 맞서야 한다고 느껴온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영혼의 생명과 복지를 위협하는 내면의 악덕들입니다. 이것들은 내면의 힘입니다. 따라서 먼저 영혼의 본질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그 군대가 나타나며, 그 다음에는 이 내면의 악한 세력들에 맞서 '투쟁'(즉, 하나님의 길을 따라 영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먼저 영혼의 본질[인간 영혼이라고도 불리며, 인간의 신체 기관과 감각에만 기여하는 "동물적 영혼"과는 구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군대나 군대가 이어지며, 그 다음에는 이러한 악과 부정적 성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이 이어진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신체와 내면 모두의 보이지 않는 적을 쫓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체의 감각 기관과 내면의 감각이 필요해졌습니다. [인간의 감각] 보기, 냄새 맡기, 맛보기, 만지기, 청각은 신체의 기본 감각 기관입니다. 각자 고유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 세상(즉, 세속 삶)과 내세의 일에 지장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과 외면의 [인간 능력]의 힘들은 심장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지혜로 그들을 마음에 복종시키셨고, 그분의 숭고한 기쁨에 따라 인간의 몸을 돌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마음이 보상을 받고, 먹잇감을 얻고, 신성한 영지의 축복을 받고, 그 결과 내세를 위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이 선한 세력들은 천사들처럼 매우 헌신적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분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심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꽤 길다.

사랑하는 이여! 예를 들어, 몸은 도시와 같고, 손과 발은 이 도시의 노동자와 같습니다. 욕망이 그 원동력(즉, 선동자)이다. 분노는 마치 도시 경찰서장 같다. 마음이 그 왕이고, 그 이유는 그 총리다. 왕은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 모두가 필요하지만, 강력한 동기인 욕망은 악하고 도발적입니다. 반면, 현명한 총리와 같은 지성은 정부 자금이 횡령되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반대합니다. 분노는 경찰서장과 비슷하며 항상 불안정하고 반동적이며 한계를 넘나든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 위에 있는 왕은 모든 것을 단호히 점검하고, 총리(즉, 지성)와 상의하며, 사태가 통제 불능이 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는

욕망과 분노가 각자의 역할을 [한계 내에서], 악을 싹에 제거하는 것이 왕의 최우선 의무임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것이 바로 심장의 위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 음식과 물을 제공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몸의 종입니다. 몸은 감각, 즉 감각의 분별력을 지탱하고 감각의 짐을 견디도록 만들어졌으며, 따라서 몸의 하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감각이나 감각 능력은 하나님의 놀랍고 경외심 어린 창조물을 분별하고 진정으로 감사하기 위해 사실을 배우고 흡수하는 이유를 감시하는 감시견입니다. 지성은 그들의 횃불을 들고 빛나는 길잡이 역할을 하며, 인간이 신성한 아름다움의 독특한 아름다움, 즉 신의 아름다움을 행복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주에서 무(無)에서 진화하고 설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것이 (즉, 신성한 아름다움을 목격하는 것)이 "마음의 에덴"이라면, 지성(또는 "*아클*")은 그 종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런 방식으로 매혹되고 그분의 영광에 매료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된 종이 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성스러운 구절(꾸란 발췌)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وَمَا خَلَقْتُ ٱلْجِنَّ وَٱلْإِنسَ إِلَّا لِيَعْبُدُونِ

"나(즉, 신)는 *지*상에 존재하는 초자연적이고 보이지 않는 존재인 진(Jinns)과 인간을 창조하여 오직 나를 숭배하기 위해서였다." (꾸란 51장 56절)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스릴 마음과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는 군대를 제공했다 - 그렇게 할 힘과 말을 탈 수 있는 능력, 즉 더 높은 위대한 영역에 오르게 하는 수단을 제공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고귀한 지위의 고귀한 은총에 부응하고자 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서약을 지키고자 한다면, 겸손한 종처럼 그분을 예배하고 정해진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왕의 왕좌에 앉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따르고, 선행을 하며, 내세를 진정한 영원한 거주지로 여겨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일시적인 인생 여정,

하나님과의 최종 만남을 위한 일시적인 통로로 대해야 합니다. 몸을 승마 말로, 손과 발은 하인, 지성, 총리, 세속 사안의 감시자로 생각해야 한다. 분노를 엄격한 심판자로 받아들이고, 신이 주신 오감을 정보 요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얻은 증거를 신중히 분석하고, 자신을 지키는 모든 악한 함정과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총리인 지성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자신의 영역 내에서 잘 이루어지고, 군대와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자신이 맡은 곳이 평화의 안식처로 남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행복한 풍요와 풍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장합니다. 그렇게, 곧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성공의 왕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명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 중 하나로 간주될 것이다. 그런 비참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고, 보복을 치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개인은 내면의 존재, 즉 영혼의 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추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한 자질과 특성을 부여받는다. 나쁜 성격과 특성은 사람을 망치지만, 좋은 성격은 운 좋은 자의 높은 지대로 올려놓는다. 비록 다양하지만, 이 중 네 가지 성향(또는 내적 특성)은 인간의 주요 범주로 간주될 수 있다:

1) [야생 야수] 동물들의 특성,

2) 천사적 특성,

3) 사탄의 악덕들,

4) 동물의 특성.

예를 들어, 인간의 탐욕은 불경한 충동에 노출되지만, 먹고 마시고 자연스러운 성적 본능을 충족하려는 정상적인 충동은 동물이 가진 것과 같은 것들(즉,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반면, 적을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찢어버리는 인간의

야수 같은 특성은 통제할 수 없는 분노에 의해 자극되어 심각한 다툼, 사소한 다툼, 참을 수 없는 이들을 비방하고 학대하는 결과를 낳는다.

반대로, 인간의 지성, 지혜는 선을 행하고 악을 미리 막아 신을 기쁘게 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천사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의 교육(인식과 깨달음)을 촉진하고, 여러 방면에서 그들을 돕으며, 일반적으로 동료 인간을 위한 섬김의 천사 역할을 합니다. 신성한 진리를 감사히 여기며, 무지와 나쁜 행동을 [누구에게도] 잘못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성향은 악당처럼 사냥개와 같은 경향, 돼지 같은 행동, 사탄적 악덕, 천사적 습관으로 크게 상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는 보기 흉하지 않지만, 습관적으로 다루기 힘들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동류에게 짖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돼지는 가장 못생긴 생물은 아니지만, 더럽고 더럽혀진 것에 대한 잠재적 열광 때문에 일반적으로 혐오받는다. '돼지'라는 단어 자체가 엄격하고 저주받는 단어입니다. 사탄과 개도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인간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적 특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반대는 '천사적 특성'입니다. 이 용어들은 각각 사탄적이거나 천사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악마는 사실상 각 사람 안에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저를 그분보다 위로하고 압도하셨습니다. 그분(즉, 악마)은 [나에게 무력하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욕망과 방탕함의 돼지, 학살과 격분의 악마를 극복하라는 명령과 의무를 받는다. 따라서 인간은 모든 사악하고 사악한 것을 반박해야 한다. 분명히,

그렇게 하는 사람은 뛰어난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성격의 추악한 습관은 불운과 신의 [순전한 정의로] 당연한 벌을 받게 한다.

그런 사람의 상태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개, 돼지, 혹은 사탄 앞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서 있을 것이다. 믿는 자가 불신자에게 넘겨진다면, 그에게 가해질 대우는 명백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천사가 돼지, 개자, 악마에게 넘겨진다면, 그의 처지는 믿는 자보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세상의 분노라는 저주받은 인간은 끔찍한 사냥개나 늑대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욕망에 빠진 자는 심판의 날에 돼지의 모습으로 자신을 보게 된다. 만약 누군가가 꿈에서 늑대를 본다면, 그 사람은 폭군임을 의미합니다. 돼지의 경우, 더럽고 부패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들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사람의 전반적인 태도와 내면의 자아는 자신을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더 많이 부합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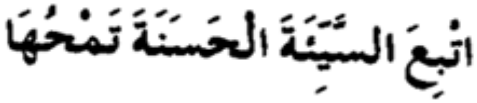
이제 내면의 질서를 부여하는 존재들을 알게 되었으니, 내면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당신의 행동과 행동이 당신에게 상응하는 성격 특성을 만들어내어 당신을 만들거나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하세요. 실제로, 선에서 선한 것만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욕망의 돼지에게 순종한다면, 욕설, 부끄러움, 탐욕, 아첨, 더러움, 그리고 타인의 악행보다 행복해하는 습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내면의 돼지 같은 특성을 억누르고 그것을 이겨내면, 만족, 은혜, 지혜, 경건, 이타심 등의 자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공포와 두려움의 사냥개에 사로잡힌다면, 당신 안에 생길 해로운 [내면] 특성은 성급하고 결과에 신경 쓰지 않는 성격, 부정함, 자랑, 오만함, 자신의 결점을 무분별하게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고문하며,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괴의 개를 이기면 인내, 품위, 용서, 안정, 용기, 평온, 그리고 성스러움(내면의 순수함)이라는 추가적인 자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마의 주된 임무가 악마와 돼지를 돕고 도우며, 사악한 계획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부정직하며, 불륜 행위에 의존한다면, 당신 자신도 그로부터 이러한 악마 같은 성품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교활함에 속지 않고 지성과 선의 힘을 계속 강화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지혜, 영지('*마리파*'), 지식, 깊은 지혜, 능력, 그리고 아름다운 내면과 외면('*후스 울 쿨크*' 또는 '*후스 알-이클라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고귀한 특성들은 당신의 끊임없는 동반자이자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운의 씨앗을 뿌려 당신에 대한 좋은 추억을 영원히 뿌려줄 것입니다.

반면, 나쁜 행위는 죄악이나 악덕이라고 불립니다. 이와 구분되는 선행은 "'*이바다*"('*Ibadah*)' 즉 신에 대한 숭배라고 불립니다. 마음은 빛나는 거울이나 닦인 거울과 같습니다. 악한 길은 구름과 어둠과 같다. 나쁜 인물은 마음의 거울을 더럽히고 어둡게 만듭니다.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목격이라는 자비로운 축복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분의 자비에 대한 숭고한 관점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고귀한 성격의 진정성은 빛("*누르*")과 같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행 후에 선행을 해야 그 나쁜 영향을 사라진다."

즉, 나쁜 일을 한 직후에 선행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지, 부주의, 잘못된 영향으로 인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행한 일]. 악에서 정화되어 오는 자만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심판의 날에는 인간의 마음이 밝거나 어둡습니다. 오직 빛나는 얼굴(마음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사람)만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إِلَّا مَنْ أَتَى ٱللَّهَ بِقَلْبٍ سَلِيمٍ

"건강한 마음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꾸란 26장 89절)

창조의 시작부터 인간의 마음은 강철처럼 단단하며, 반투명한 심장은 그 강철로 만들어졌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지고 더럽혀지지 않는 한, 우주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كَلَّا ۖ بَلْ ۜ رَانَ عَلَىٰ قُلُوبِهِم مَّا كَانُوا يَكْسِبُونَ

"아니, 그들이 벌어들인 돈이 그들의 마음에 녹슬게 만들었다". (꾸란 83장 14절)

사랑하는 이여! 인간도 짐승, 악마, 동물의 특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왜 천사 같은 특성은 자산이고 다른 것들은 일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간이 천사의 성격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고, 실제로는 다른 것들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인간이 "*아슈라풀 마흘루캇*", 즉 신의 모든 창조물 중 가장 뛰어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한 존재는 동물과 짐승보다 우월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 것에 부여하신 위엄은 그분의 자비의 정점입니다. 예를 들어, 말은 당나귀보다 우월한데, 당나귀는 무게만 지니기 때문이다. 반면 말은 전투에서 용감하게 달려 기사 기수의 완벽한 지휘를 받는다. 하지만 말은 자신의 강점으로 당나귀처럼 무게를 지을 수도 있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말이 이러한 특성과 더 우아한 태도를 갖추지 못했다면, 그 체격도 사실상 당나귀 수준으로 낮아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먹고 마시며 육체적 쾌락에 대한 욕구를 채우도록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을 허비하며 그런 불운한 일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자신들이 오직 적과 동료 인간을 깎아내리고 굴욕하며 압도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승자든 패배자든, 아랍인, 터키인, 쿠르드인[혹은 다른 인종이나 민족]이든, 그들에 대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불가항력이 적용됩니다. 분명히, 이 두 이념 모두 잘못되었는데, 앞서 언급한 먹고 마시고 성적 활용만을 하는 삶은 욕망의 요소에 대해 낙담하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조차도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타는 많은 양의 음식과 물을 섭취하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돼지는 육체적 능력을 매우 강하게 지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이 그들에게 더 높은 지위로 여겨지는 걸까요?

또한, 타인을 극복하고 지배하려는 동기는 점점 커지는 분노와 성격에서 비롯됩니다. 이 자연 현상은 숲의 방목 동물과 야생 동물에게도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 왜 인간이 그들보다 우월한가? 인간과 동물의 차이와 구분은 어디에 있나요? 그 답은 자명하자면, 인간이 동물과 공유하는 저급한 기본 특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진 구원받는 점은 모든 창조물 중에서 인간이 지성을 축복받았다는 점이며, 이는 자신의 최고 주인인 신을 인식한다는 점이다. 또한 그분의 손길과 창조적 천재성을 자발적으로 감사하고 감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자신의 숙적인 분노와 탐욕을 물리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들(즉, 분노, 탐욕, 기타 하위 자아의 저속한 특성이 없다는 점)은 천사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특성 자체가 새, 짐승, 동물의 수준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인간은 모든 창조물보다 우월하며, 그들보다 뚜렷한 우위를 가진다. 모두 언제든 부름에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우월한 존재("*아슈라프 알-마흘루캇*")입니다.

وَسَخَّرَ لَكُم مَّا فِي ٱلسَّمَٰوَٰتِ وَمَا فِي ٱلۡأَرۡضِ جَمِيعٗا مِّنۡهُۚ

"그분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다. 모두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이니라." (꾸란 45장 13절)

따라서 인간의 위대함은 정해진 덕목에서 뛰어나는, 즉 '*마리파*' 또는 신의 영지(Gnosis)에 있는 진실성에 있습니다. 나머지 특성들은 비교가 안 되지만, 수많은 고귀한 동기부여 힘(능력)은 영광을 위해 인간에게 부여되었다. 따라서 인간이 죽으면 [저기준] 욕망과 분노 같은 악의 특징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은 생각할 거리가 됩니다. 인간이 죽었을 때와 그 이후에 남은 것은 신의 영지(*Ma'rifa*) 또는 영지(Gnosis)가 세라피처럼 장식된 고품질 '보석'입니다. 그것은 항상 곁에 있는 동반자입니다. 이 보석은 또한 항상 겸손하게 엎드려 그분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는 천사들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فِي مَقۡعَدِ صِدۡقٍ عِندَ مَلِيكٖ مُّقۡتَدِ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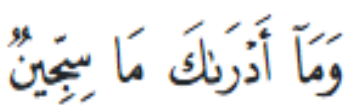
"진실의 자리에서, 전능한 왕의 앞에서." (꾸란 54장 55절)

또는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의 유해는 어둡고 눈먼 존재가 됩니다 - 자신의 악덕 때문에 어둡고 오염되었지만, 세속적인 삶에서 한 자아를 달래고 만족시키던 분노와 오만함이 없어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전 지역에서 물려받은 이 천한 영역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وَلَوۡ تَرَىٰٓ إِذِ ٱلۡمُجۡرِمُونَ نَاكِسُواْ رُءُوسِهِمۡ عِندَ رَبِّهِمۡ

"범죄자들이 주인 앞에 고개를 숙인 모습을 보게 될 거야." (꾸란 32장 12절)

이는 그 결과로 사탄과 함께 '시진'(사후 세계에서 가장 낮고 가장 중대한 영역)*으로 보내질 때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시진"이라는 용어의 해석은 모두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시진*'이 뭔지 알아 ?" (꾸란 83장 8절)

마음의 세계의 경이로움은 무한합니다. 심장이 신체의 모든 기관에 비해 갖는 숭고함, 즉 경건함의 진정한 지위는 심장 자체가 새롭기 때문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위대함과 경건함은 두 가지 주요 이유 때문입니다:

1) "'*일름*"또는 지식, 그리고

2) "*쿠드라*"또는 힘과 능력.

지식의 위대함은 두 가지 원인 때문입니다: 하나는 모두에게 알려져 자명하며, 다른 하나는 숨겨져 미묘합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지식의 모든 복잡함을 동화시키는 마음의 능력과 힘은 그 범위 내에 있습니다. 비록 나눌 수 없지만, 수비학, 산수학, 의학, 점성술, 신법 등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사막의 모래처럼 마음속에 담겨 있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포괄합니다. 순식간에 지구에서 하늘까지, 동쪽에서 서쪽으로 거리를 이동하며 끊임없는 움직임과 현명함 덕분에 이동합니다. 비록 지상에 있지만, 광활한 지평선의 먼 끝까지 측정하고 은하계의 모든 별과 별자리, 그리고 그 사이의 거리를 인지합니다. 물속에서 낚싯대를 잡아 물고기를 잡고, 하늘에서 새를 땅으로 쏘아 떨어뜨리며, 낙타, 말, 코끼리 같은 동물들이 명령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신체에 대한 다섯 가지 감각이 그 직업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영적 영역(영혼의 영역)에서 분별의 문이며, 마음 한구석에 열린 문이 [영혼의 영역으로 향한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 세계(물리적 영역)에만 관심이 있고, 이러한 물리적 감수성이 지식 획득의 유일한 길이라고 여깁니다.

사실 이 두 문은 다소 작지만, 마음속에는 다양한 지식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많은 문들이 열려 있습니다. 두 전제 중 첫 번째를 생각하자. 즉, 잠들고 꿈을 꾸면 이 감각 기관들은 잠들어 있지만 마음의 문이 열리며, 그 결과 영혼과 '*로 마흐푸드*' 또는 '보존된 석판'(즉, 과거의 지식을 담은 하나님의 기록서)의 영역에서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예정된 일들을 보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게 됩니다. 때때로 해석을 구해야 할 부분에 대한 징후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마리파*'(그노시스)에 더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 이러한 감각 기관들 덕분에 '*알람 알-가이브*'(보이지 않는 영역)의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꿈들에 대해 가볍게 다룰 수는 없지만, 마음은 깨끗하게 닦인 거울과 같고, 보존된 석판("*Loh Mahfoodh*")은 물리적 존재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의 그림("*Alam Maujoodat*")이 담긴 거울과 같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가 있는 영역이 보여. 깨끗하게 닦인 심장 거울을 이 모조품들을 마주보면 분명히 보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깨끗하게 닦인 거울과 같고, 이러한 감각의 자극을 물리적 영역에서 차단하는 것을 분리할 때, 보존된 석판("*Loh Mahfoodh*")과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이런 진짜 감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영적 영역("*알람 루하니*")에서 황홀경 속을 거닐게 됩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는 이러한 감각이 사라지고, 그 이미지나 생각은 남아 있습니다. 반면 '*알람 미탈*'(상상의 영역)에서는 감정이나 생각이 상상될 수 있지만, 때로는 다소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인간이 죽으면 마침내 장막이 걷혀집니다. 물리적 영역에서 오는 지각이나 감각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물질(즉, 진리, 현실, 그리고 사물의 실제 본질)은 투명해진다. 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줍니다:

فَكَشَفْنَا عَنكَ غِطَآءَكَ فَبَصَرُكَ ٱلْيَوْمَ حَدِيدٌ

"이제 우리는 너의 베일을 벗겼고 오늘 너의 시야는 예리하다." (꾸란 50장 22절)

한 명이 이렇게 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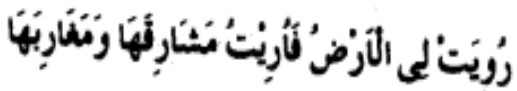
رَبَّنَآ أَبْصَرْنَا وَسَمِعْنَا فَٱرْجِعْنَا نَعْمَلْ صَٰلِحًا إِنَّا مُوقِنُونَ

"우리 주님! 우리는 보고 들었고; 우리를 [세상에] 돌려보내 주시면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물질의 실재에 대해 확신을 가지며]." (꾸란 32장 12절)

마음의 문이 '*알람 알-말라쿳*' 또는 천사의 영역으로 향한다는 두 번째 증거는, 신중한 사고와 경건한 의심, 앞으로의 예상되는 역경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감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예상되는 위험의 기원과 출처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분석은 모든 지식이 감각 기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줍니다. 더 나아가, 심장은 실제로 이 [물질적] 세계가 아니라 "*알람 루하니*" 즉 영혼의 영역에 속한다. 분명히 이 감각 기관들은 이 세계를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이 이 세계의 일상적인 고려를 없애지 않는 한, 다음 세계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없으며, 그곳에서는 이 감각 기관들이 전혀 쓸모없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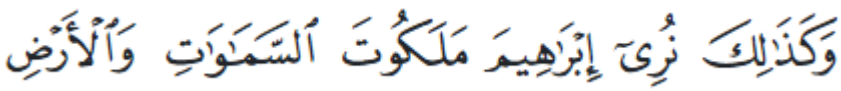
그러므로 인간이 깊은 잠에 들거나 죽지 않는 한, 영혼의 영역으로 가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오만한 분노를 이겨내며, 자신, 즉 자신의 영혼을 악에서 정화하고, 눈을 감고, 외딴 곳에 앉아 세속적인 생각을 모두 없애고, 영혼의 영역에 마음과 영혼을 가장 헌신적으로 몰두하여 혀로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온몸의 섬유가 "*알라, 알라*"(즉, 하나님의 유일한 개인 이름, 반면 '하나님'은 그분이 존재하게 한 모든 것의 주인이자 창조자, 유지자이자 제공자인 최고신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언어 특유의 표현입니다)이 심장 박동마다 계속해서 자신과 세상 전체를 완전히 모르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속의 축복의 문이 열리며 계속 열릴 것입니다. 깨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잠든 상태에서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있다. 아름다운 천사들의 영혼들이 그림 같은 모습으로 한 천사에게 내려왔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들로부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계와 다음 세계의 천상의 존재들, 즉 초월적인 천사들이 그에게 보일 것이다. 운 좋은 이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환상과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무함마드 예언자의 말씀(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은 바로 그런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글은 그런 것들이 잠들거나 죽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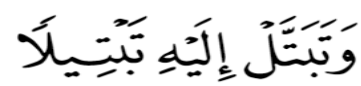
"온 지구가 나에게 보였고, 나는 동쪽과 서쪽을 보았다."

다음 꾸란의 구절도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언자] 아브라함에게 하늘과 땅의 왕국(지배권)을 보여주었다." (꾸란 6장 75절)

확신에 찬 믿음과 예언자들의 건전한 판단도 비슷했습니다. 감각과는 무관했고, 오히려 신을 위한 그들의 노력의 결실이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성하게 (가장 진실한 헌신으로)에 헌신하라." (꾸란 73장 8절)

실제로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잡으십니다. 그만이 모든 능력이 있다:

رَّبُّ ٱلْمَشْرِقِ وَٱلْمَغْرِبِ لَآ إِلَٰهَ إِلَّا هُوَ فَٱتَّخِذْهُ وَكِيلًا

"동서방의 주인; 그분을 제외한 신은 없으니, 그분을 [너희 모든 일의 돌봄자]로 받아들이라." (꾸란 73장 9절)

그러므로 당신이 그분에게만 의지할 때, 그분을 제외한 모든 것과의 모든 연결을 끊으세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모든 일을 가장 잘 처리하시기 때문입니다]:

وَٱصْبِرْ عَلَىٰ مَا يَقُولُونَ وَٱهْجُرْهُمْ هَجْرًا جَمِيلًا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들[거짓말, 상처 주는 말, 공격, 혐의, 학대, 비판에 관한]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고, 관대하게 버리라." (꾸란 73장 10절)

이러한 탁월한 덕목은 지칠 줄 모르는 노동과 강인함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원히 충실히 봉사하는 데 드러난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정화합니다. 사람들은 백성의 적대감과 세속적인 걱정과 갈망의 유혹 덫을 극복한다. 이런 지식을 얻은 자부심을 가진 자는 이 지식은 유일하게 축복받은 자, 즉 '*왈리*' 또는 하나님의 친구이자 친밀한 이에게 부러울 만한 행운이다. 하나는 높은 받침대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지위는 명백한 이유로 그들에게 더 높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귀한 영적] 상태의 획득이 오직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권리로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은 존재하지 않는데, 철은 그 자체의 본질상 세상 어떤 것의 얼굴도 볼 수 있는 반려나는 거울로 빚어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이미지가 훼손되고 더럽혀질 수도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연스럽게 세속적인 탐욕과 유혹이 그것을 많이 훼손하고 [광택 나은] 마음의 거울을 훼손합니다. 악은 너무 큰 위협이다 [더 이상 진리와 하나님의 빛을 반영할 수 없는 반짝이는 마음의 반짝이는 거울을 가리고 변형시킨다].

인간은 현실과 진리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신,] 자신의 소명과 학문 속에 하나님의 '*마리파*' 또는 영지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한] 지식의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 자체는 마음보다 더 좁고 작다. 마음은 몸의 기수이며, 그 반대가 아닙니다. 하트의 목적은 기수가 그 탈것을 타는 것입니다. 말(즉, 몸)은 기수(즉, 심장)를 위한 것이지, 기수(즉, 심장)를 위한 것이지 말(즉, 몸)을 위한 것이다.

당신 자신보다 더 가까운 것은 없다는 것을 이해하되, 당신은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모르면서도 타인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을 먹이지 못하면서도 가난하고 빈곤한 이들을 식탁에 앉히는 거지와 같다. 그런 주장은 터무니없다.

이 담론의 목적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특권적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지만 숨겨두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탐구하지 않고, 낭비하며, 무주의하게 남는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큰 손실과 애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신의 선물의 덕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일상적인 추구에서 그 추구를 잃기보다는, 그 결말과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여 이 세상과 저세상에서 존경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즉, 신께서 당신에게 그런 지위와 안정을 주셔서 그 이후에도 불안정함이 없을 것이며, 그 이후에도 약점이 없을 만큼 강한 힘을 얻게 하시며, 신성한 아름다움의 가까움이 당신의 부러움을 누릴 수 있는

'*마리파*나 그노시스와 함께 성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축복을 받아 그것을 방해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달성할 수 있는 진정한 지위는 당신의 성과와 그에 걸릴 자격이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물을 분석해 보면, 더위, 추위, 굶주림, 갈증, 병, 고통의 겸손 속에 있는 것보다 더 큰 비참함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즐기는 일들이 때로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걱정과 스트레스,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지식, 권력, 성취, 강한 의지, 투지, 그리고 좋은 신분 덕분에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동시에, 개인의 지식, 학습, 교육에 관해서는, 명상적인 시선을 던지면 가장 무지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즉, 뇌의 한 혈관이라도 왜곡되면, 미쳐버리거나 심지어 죽을 위험이 있습니다. 원인이나 치료법은 알 수 없습니다. 더불어, 치료용 약이 눈앞에 있어도 이 약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 약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힘에 관해서는, 때로는 파리 한 마리조차 죽이지 못할 정도로 무력하다. 마찬가지로, 사자가 신에 의해 그렇게 정해졌다면, 그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다. 말벌이 쏘이면, 사람은 안절부절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손을 놓치면 은이 조금이라도 잃어도 크게 걱정하고 불안해한다. 그렇다면 한동안 음식을 한 입도 없이 지내야 한다면 균형을 잃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누가 인간보다 약할 수 있겠는가? 사람의 잘생김과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자면, 진흙더미 위에 가죽 텐트를 과도하게 펴는 것과 비슷하다. 또한 이틀 동안 목욕하지 않으면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피당하고 공공장소에서 전반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간보다 더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더러운 물질은 항상 몸 안에 남아 있고, 하루에도 여러 번 씻습니다.

한 우화로, 한때 존경받는 성인이자 영지주의자인 셰이크 아부 사이드(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가 수*피*들(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들과 함께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인용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도착했고, 그곳 사람들이 인간 배설물을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길에는 악취 나는 흙이 널려 있었다. 모두가 그 광경에 놀라 코를 찡그리며 여기저기 비켜섰지만, *샤이크*(영적 안내자)는 그 자리에 남아 "들으세요, 여러분! 이 더러운 더미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그들은 물었다, "뭐?" 그는 "어제까지도 과일과 과자 같은 형태로 시장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아낌없이 썼어. 나는 밤새 그들의 배 속에 있었고, 그러다 나는 이 역겨운 썩은 존재로 변했다. 내가 너한테서 도망가야 할까, 아니면 네가 나에게서 도망가야 할까?"

사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약하고, 불완전하며, 무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날에는 한창 진행 중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누군가가 '*키미야 아스-사아다*' 또는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승리의 연금술 또는 변형 행위자'를 하나와 함께 유지한다면, 동물의 지위를 넘어 천사의 위상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세상과 세속적 욕망에 빠진다면, 개와 돼지는 그보다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라지고 영원히 사라지지만, 인간은 세속에서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 신의 징벌과 고통에 잠겨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이 자신의 지위가 얼마나 크고 고귀한지 인식했다면, 그 지위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손실을 동시에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황 점검을 하는 것이 바로 '*마리파*', 즉 하나님의 영지(Gnosis)의 열쇠입니다. 이 모든 것만으로도 자신의 [스스] 자신을 인식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잘리는 그의 저서 『Kimiya-e-Sa'adat』(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을 위한 연금술 또는 변화의 변형 행위자)에서 영*원한 행복과 진정한 영원한 성공의 연금술(또는 변형 행위*자)에 대한 놀라운 설명을 이어가며, 이 영원한 행복의 연금술(또는 변형 행위자) 중 두 번째 제목(또는 조건)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설명합니다. 영원한 행복의 변혁적 행위자에 대한 두 번째 요구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는 [3]:

사랑하는 이여! 이전 예언자들 앞에서 [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신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اَعْرِفْ نَفْسَكَ تَعْرِفْ رَبَّكَ

"네 자신을 인식하라, 그러면 네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이 격언은 하디스(예언적 이야기)와 무함마드 예언자의 동료들(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의 시대와 논문들 사이에서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مَنْ عَرَفَ نَفْسَهُ فَقَدْ عَرَفَ رَبَّهُ

"자기 자신을 인식한 자는 자신의 주님을 인정한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광택 난]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에 쌓인 먼지가 제거되고 표면이 닦여 있는 거울로서의 기능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했다면]. 그것에 시선과 주의를 집중하는 자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요점은, 이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고 자신을 헛되이 감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답은 이 마음의 거울을 보는 데 있다. *마리파*"(영지)의 올바른 자음으로

하나님의 영지. 따라서 마음의 현실을 올바른 관점에서 아는 것은 두 가지 두드러진 측면에 필수적입니다. 하나는 [일반인]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꺼내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은, 자신 안에 내재된 특별한 특성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그 최고 주님의 은혜와 우주 전역에 퍼진 창조물들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마음, 즉 자신의 육체와 장기에 은혜롭게 부여하신 것들을 연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기원을 완전히 숙고해야 한다. 처음에는 단순한 무존재였고 이제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꾸란)에 다음과 같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هَلْ أَتَىٰ عَلَى ٱلْإِنسَٰنِ حِينٌ مِّنَ ٱلدَّهْرِ لَمْ يَكُن شَيْـًٔا مَّذْكُورًا ﴿١﴾

إِنَّا خَلَقْنَا ٱلْإِنسَٰنَ مِن نُّطْفَةٍ أَمْشَاجٍ نَّبْتَلِيهِ فَجَعَلْنَٰهُ سَمِيعًۢا بَصِيرًا ﴿٢﴾

"인간이 언급조차 할 수 없는 존재였던 시절이 있었던 적이 있을까? 우리는 섞인 정자 방울에서 인간을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를 시도해보면서, 우리는 듣고 보는 것을 만들었다." (꾸란 76장 1-2절)

겸손한 출신에서 자신이 지성, 청각, 시각, 미각, 촉각, 언어 같은 특성조차 포함하지 않은 불순한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귀, 눈, 혀, 손과 발, 머리, 정맥, 조직, 뼈, 척추 등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요컨대, 유전적 존재는 이 희끄무레한 물방울, 초기 형태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색하는 것은 인간이 그런 높은 경지에 오를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의지하거나 진화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 알려준다. 스스로를 내놓지 않았다. 하나는 다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는 단 한 올의 머리카락조차 만들 수 없다. 한 명은 완전히 무력하다. 결국 사람은 본질의 일부일 뿐, 부정한 물 한 방울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자기 창조의 질이

어떻게 자신에게 부여될 수 있을까요? 이런 내성은 자신의 존재와 창조주에 대한 현실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주에서 그분의 창조물들의 우아한 화려함을 제쳐두고, 자신의 몸이라는 뛰어난 유기체와 그 각기 고유한 특성과 기능을 들여다볼 때,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위대함과 비할 데 없는 민첩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에게 뛰어난 영혼과 잘생긴 몸매를 선물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옆모습만으로도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분 앞에 절해야 한다. 따라서 오직 신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자말*'(아름다움)과 '*카말*'(탁월함), 그리고 은혜를 모두 받은 것은 행운이다. 결국, 그렇지 않다면 뭐가 있겠는가? 먼지 한 줌뿐이야! 하나님은 목적 없이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 해부학의 모든 부위는 필수적이며, 규정된 대로 수행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 구성 요소들은 각각 전문적으로 제작, 계획, 프로그래밍되었으며 [특정 기능에 맞춰] 이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하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헌법 전체가 너무나 완벽해서 어떤 면에서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턱의 이빨을 보세요. 앞쪽 칼은 뾰족하고 날카로워서 식용 식물을 적절히 자르고 찌르기 쉽습니다. 그 근처의 다른 조각들은 꽤 넓고 홈이 있으며, 납작하게 납작해서 곱게 소화할 수 있는 입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혀 아래 아래쪽 부분은 이렇게 형성된 음식 조각을 촉촉하게 만들어 목을 통과하기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유연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손바닥에도 다섯 개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네 손가락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엄지는 그들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보다 키가 작고 약간 두꺼워요. 각 손가락과 협력하고 협력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으며, 모든 손가락과 함께 잘 잡고 다루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각 손가락에는 세 개의 구멍이 있지만, 엄지는 두 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모공들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비틀 수 있습니다. 손바닥을 한 손으로 구부리면 손바닥을 감쌀 수 있습니다. 양손의 모공을 합치고 비틀어 빈 판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공과 손바닥을 막으면 일종의 권투

글러브로 변신시켜 적과 싸울 수 있습니다. 반면, 손바닥을 곧게 펴서 접시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손가락들의 위치, 크기, 양자에 관한 어떤 논쟁도 무의미한 연습일 것이다. 정말 훌륭하게 만들어졌어요! 이 모든 것과 우주의 최고 설계자가 최고의 판사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진화한 모든 것에 대해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필요와 욕구는 무한합니다. 창조주의 창조물도 무한합니다. 인간은 입을 옷, 살 집, 그리고 수많은 다른 것들이 필요합니다. 비, 공기, 열, 추위, 그리고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땅과 같은 자연 요소들도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주석, 철, 청동 등과 같은 필수 금속들도 인간에게 공급되어 다양한 목적과 산업에 맞는 도구와 도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과 그 밖의 많은 것들은 한 사람이 취하고, 이득을 누리며,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궁극적으로 전능하신 그분의 존재를 충분히 호기심 갖게 되지 않을까요? 그분은 최고의 자비로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을 위해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요청하지 않게도] 인간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과 예배로 풍요로워져야 하지 않는가? *하디스 쿠드시*(신에게 귀속된 예언적 서사)에 따르면, 무함마드 예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سَبَقَتْ رَحْمَتِي عَلَى غَضَبِي

"나의 자비가 내 진노를 이겼다."

무함마드 선지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에 따르면: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자비와 자비는 젖 아기를 다정하게 돌보는 어머니보다 훨씬 더 크다."

비교적 낮은 차원에서, 단순하지만 선한 인간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서 '*마리파*' 또는 하나님의 영지(Gnosis)를 봅니다:

일. 한 방울의 작은 물방울에서 자신의 창조물.
이. 몸의 장기들이 가진 기묘한 특성들 속에서.
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욕구와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사. 자신의 신체적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안에 창조하신 미적 요소들이 매력적이고 매력적인 외관을 부여합니다.

신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에게 '*마리파*' 또는 영지(Gnosis)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러한 자기 평가는 하나님의 영지('*마리파*')의 열쇠가 된다.

당신 안에 있는 우주

인간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내면과 외적 특성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노력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아무리 높은 지위라도 인간의 이해와 능력은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은 분명히 인생에서의 위상을 높일 것이다; 마음이 점점 더 정련되고 '*나프*'(자아)가 이 과정에 몰입할수록, 그분에 대한 큰 사랑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그분과 가까워지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아는" 진리를 이해하게 되며, 그분은 포괄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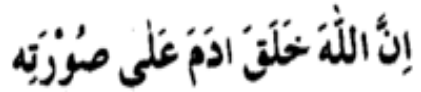
예를 들어, 인간의 마음인 '*나프스*(Nafs)' 또는 자아는 현실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습니다. 크기가 없어. 그것은 분할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 대한 양화, 한계, 한계 위에 있다. 색이 없어. 요컨대, 무엇보다도 이러한 고려사항들입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그런 것의 형태를 알 수 있을까요? 형태나 방위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것을 어떻게 시각화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이는 인간의 어떤 특성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인간에게는 느끼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과 고통은 느낄 수 있지만, 마음속에서 볼 수 없거나 떠올릴 수 없으며, 형태나 색깔, 크기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꽤 복잡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다양한 분별력과 조건은 각자의 감각의 다양한 구성 요소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목소리가 귀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색깔은 눈으로 보고 감상됩니다. 혀는 맛을 인식하고 코는 그 냄새를 맡습니다. 구원의 공통점인 지성이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납 논리학 책이 어느 정도 이 문제에 관련될 수는 있겠지만, 마음과 그 특별한 특성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은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하는 주제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그러나 그분의 임재는 특정 장소에만 국한되어 나머지를 배제할 수 없다. 그의 존재와 명령은 어디서나 느껴진다. 영혼은 신체의 어떤 기관과도 단독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손, 발, 머리, 또는 신체의 다른 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신체 기관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나눌 수 있지만, 심장과 영혼은 나눌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은 나눌 수 있는 어떤 것에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영혼이 신체의 어떤 기관과도 관련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신체의 모든 부분은 그것에 종속되어 있으며, 마음, 영혼, 즉 인간의 자아인 '*나프스(Nafs)*'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인간의 영혼은 왕이며, 우주 전체가 전능하신 하나님, 즉 우주와 모든 존재의 왕의 직접 통제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라는 주제는 매우 섬세하고 미묘합니다. 모든 논의와 담론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독특하고 철저히 지켜진 비밀입니다. 따라서 일정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진실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로부터 나온 온 인류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의 위대한 신성한 자질, 즉 최고의 탁월함이 그분 안에 드러납니다.
이. 그는 편재적이지만, 존재가 어느 한 장소에만 국한되어 다른 장소나 장소를 배제할 수는 없다.
삼. 자아를 아는 것이 그분의 영지(Gnosis) 또는 '*마리파(Ma'rifa*)'의 열쇠입니다.
사. 인간의 진정한 목적과 목적은 그분의 영지(그노시스) 또는 '*마리파*'를 얻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그런지 이해하고 싶다. 그는 인간 왕국의 최고 통치자, 최고 왕이다.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많습니다:

일.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들의 겸손한 복종을 보여주는 것.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의 서품과 아래에서 땅에 대한 간청하는 복종.
삼. 별과 별자리의 끊임없는 움직임.
사.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그분의 생명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양육하신 것.

이것들은 그분의 영지와 관련된 설득력 있는 질문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분의 은혜의 행위'라고 불리는 범주에 속합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그분의 영지('마리파')로 이끄는 여러 경로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행위("아프알")의 영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육체의 왕국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알지 못한다면, 모든 주인의 주인인 그가 어떻게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인간이 자신의 '자아'를 알고, 그 관점에서 모든 행동을 인도하지 않는 한 신비를 풀 수 없다는 불가피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스밀라*"(아랍어로 "가장 자비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를 종이에 적으려 할 때, 당신의 마음은 먼저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심장(즉, 신체 왼쪽에 있는 물리적 기관이 아닌 진짜 심장)이 움직이며 뇌에 그것을 실행하도록 명령합니다. 인간의 '*카알*'이 있는 뇌의 첫 번째 민감한 방, 즉 그 생각을 떠올리는 곳이 그것을 수행합니다. 생각의 개념이 고안됩니다. 뇌에서 뇌의 근육에 전달되어 근육이 몸으로 퍼지고 확장됩니다; 필기 손가락이 방향을 잡고, 정맥과 조직이 메시지를 받으며, 다시 펜을 들고 받은 자극에 따라 단어를 새깁니다. 다른 감각 기관들도 도움을 주고 돕으며, "*비스밀라*"가 기록된다. 따라서 전체 거래가 기본적인 '의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추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의 시작이나 시작에서, 이 '의지' 또는 '*이라다*'가 본질을 지닙니다. 하나님께 귀속될 때, 이 '의지'는 '하나님의 최고 의지'라고 불립니다.

인간의 의지가 먼저 마음에서 비난되어 그 이후로 신체의 다른 부분까지 도달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최고 의지와 그 영향력은 처음에는 '*아르슈*', 즉 신의 전능함의 지배에서 시작해 다른 위치와 사람들에게 도달한다. 더 나아가, 이 의지 개념이 인간의 마음과 영혼의 섬세한 섬유를 통해 인간의 뇌에 도달하는 기발한 방식; 마찬가지로, 신의 뜻의 불가침의 보석인 '*이라다*' 또는 '의지'는 그분에 의해 '*아르슈*'(또는 '신성한 전능의 지배')에서 '*쿠르시*', 즉 '최고의 신성한 탁월함의 천상의 자리'로 전달됩니다. 이 최고의 보석은 그의 천사, 즉 '*루흐 알-쿠드스*'(성령)에서 드러납니다.

뇌의 지배가 인간의 마음에 종속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의 영향력은 즉각적인 복종과 순종을 위해 '*쿠르시*'에게 전달된다. 앞서 설명한 전체 과정, 즉 마음에 "*비스밀라*"("가장 자비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를 쓰는 생각의 시작부터 최종 실행까지, 마찬가지로는 "*자우하르 탈리프*" 또는 "신의 기이한 의지"에 의해 장엄하게 시작되어 은하의 별들과 다른 별자리들을 작동시킵니다. 원하는 역할을 배정하는 것. 따라서 이들의 방사선(광선)에 의해 고유 잠재 잠재력에 따라 대기를 교반하여 더위, 추위, 가을 등 기상 조건을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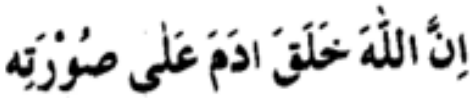
또한, 펜이 잉크를 움직이게 하여 흩어진 단어들을 동화시키고 모아 '*비스밀라*'라는 통합된 형태를 만드는 것처럼, 열, 차가움, 물, 먼지가 이들의 화합물을 움직이게 하여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유효한 형태를 모아 물질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고, 열과 먼지가 그들을 합치며, 건조함이 이들을 응집시키도록 한다.

펜이 움직이면서 쓰려는 것이 무엇이든, 그 비전이 형성되고, 결국 글로 적힌 단어들에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언급한 화합물들의 내재적 가치가 작동하면, 천사들의 대리를 통해 동물과 다른 식물들의 형태가 위에 언급된 '*로 마흐푸드*'(모든 창조물과 존재,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완전한 기록으로 담은 보존된 석판)에 따라 시각화된다. "*아르쉬*"(단순히 "왕좌"라 불리지만 실제로는 전능한 지배), "*로 마흐푸데*"(보존된 석판), "*쿠르시*"(최고의 신성함의 천상의 자리)의 고상함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들은 태고부터 신이 "*아르쉬*"에 천국에 거주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꾸란의 [예언자] 요나(*수라 유누스*) 장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ثُمَّ ٱسْتَوَىٰ عَلَى ٱلْعَرْشِ ۖ يُدَبِّرُ ٱلْأَمْرَ ۖ

"그때 [하나님이] 왕좌 위에 세우고 일을 관리하셨다." (꾸란 10장 3절)

"카슈프"(영적 발신)를 *받은 자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의 말씀에는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아담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니 속담처럼 '왕만이 진정한 왕의 가치를 안다'는 점을 조심해야 한다. 만약 당신 자신이 자신의 영역에서 왕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자비의 일종의 축복을 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결코 그분의 영지('마리파')에 가까이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창조하고 네 왕국의 왕위를 주신 전능하신 왕께 감사하라.

당신의 '*아르쉬*'(왕좌)는 동물의 영혼입니다('동물의 영혼'은 인간 존재의 가장 우월한 부분인 '인간 영혼'과는 별개입니다). 그 근원은 마음에 있다. 당신의 "*이스라필*"(심판의 날에 나팔을 불어 모두를 다시 살려줄 천사; 영혼이 다시 살아나면 인간 존재의 모든 측면을 되살리고, 부활시키며, 활력을 불어넣을 잠재력을 가진다) 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당신의 "*쿠르시*"(의자)도 생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눈, 귀, 감각 요소는 천사와 같습니다. 뇌는 캐노피와 같습니다. 당신의 통찰력 있는 구성원들로 만들어진 그 돔은 당신의 하늘입니다. 마음속 모든 기본 개념을 제거한 후, 그것은 몸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는 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너를 위해 많은 것을 받은 후, 너는 단 한 순간도 자신이나 왕국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방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당신의 지위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فَإِنَّ اللّٰهَ خَلَقَ آدَمَ عَلٰى صُوْرَته فَاعْرِفْ نَفْسَكَ يَا اِنْسَانُ
تَعْرِفْ رَبَّكَ

"그러자 하나님은 아담(인류 전체의 아버지, 따라서 모든 인간의 아버지)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니 자신을 알아, 인간이여! 그때 너희는 네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의 왕국 개념은 전능하신 우주 전체의 왕국과 왕국에서 축소화되어 파생되었다. 이 개념 자체는 다음과 같은 강조를 포함합니다:

일.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즉 자신의 왕국을 구성하는 신체의 다양한 기관의 생명 있는 자질과 소명을 배우는 것.
이. 하나님의 영지, 그분의 왕국, 그리고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관심, 그리고 천사들 간의 관계, 그리고 고귀하신 '*아르슈*'(신성한 보좌), 하늘, 그리고 '*쿠르시*'(최고의 신성한 탁월함의 천상의 자리)와의 관계에 대한 지식은 또한 독특한 지식의 한 측면이다.

영리한 사람은 결코 그들을 무심하거나 부주의하게 남지 않을 것이며, 무지함의 수확만 거두는 무책임한 바보와 비교할 수 있다. '자연주의자'와 '점성가' 중 일부는 제한된 교육에 의존해 너무 미흡해져서, 결국 모든 것의 결과가 별의 효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독단적이고 평범해서, 이 착상 측면에서 그들의 상태는 종이 위를 기어 다니는 개미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종이 위에 펜이 종이 표면에 검은 자국을 남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며, 펜이 무기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이 위를 기어 다니는 또 다른 개미는 더 높은 시력을 가지고 있어, 펜을 든 손이 종이에 자국을 남기고 있다는 믿음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주의자들의 예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믿음의 명백한 오류는, 신조에서 너무 지나치게 전해졌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은 다른 모든 사실과 무관하게 별에 의해 돌이킬 수 없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의 반대어는 'fancy' 또는 'farce'입니다. 그러면 점성가들은 이 별들도 천사들에게 복종하며, 하늘과 별, 그리고 우주와 그 너머의 모든 것의 최고 주인인 신이 정한 것임을 쉽게 잊어버린다. 그들의 손아귀는 오직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육체적 세계적 고려보다 우월한 영적 영역에서 완전한 초보입니다. 물질적(또는 물질적) 영역의 별들은 영적 영역("*알람 루하니*")의 찬란한 빛보다 빛이 덜하다. 그들은 영혼이 몸을 지배한다는 것을 모른다. 그 반대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하우와 지식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 부조리함 속에서 영혼의 영적 영역의 많은 빛나는 별들("*바틴*")이 하나님의 여정에서 이정표를 표시하는 곳, 즉 "메*라즈*"(영적 상승 또는 하나님의 길로 올라가는 영광)의 길에서 축복을 받지 못한다.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내려진 것들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신은 이에 따라 성경(꾸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وَكَذَٰلِكَ نُرِىٓ إِبْرَٰهِيمَ مَلَكُوتَ ٱلسَّمَٰوَٰتِ وَٱلْأَرْضِ

"그리하여 우리는 [예언자] 아브라함에게 하늘과 땅의 나라를 보여주었소." (꾸란 6장 75절)

예언자 아브라함(하나님의 평화가 그에게 있기를)은 이에 대해 외쳤습니다:

إِنِّى وَجَّهْتُ وَجْهِىَ لِلَّذِى فَطَرَ ٱلسَّمَٰوَٰتِ وَٱلْأَرْضَ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께 내 얼굴(즉, 내 온몸 - 내면과 외면 모두)을 돌린다." (꾸란 6장 79절)

무함마드 예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إِنَّ لِلّٰهِ سَبْعِيْنَ اَلْفَ حِجَابٍ مِنْ نُوْرٍ لَوْ كَشَفَهَا لَاَحْرَقَتْ
سُبْحَاتُ وَجْهِهٖ كُلَّ مَنْ اَدْرَكَ بَصَرُهٗ

"진실로, 하나님을 위한 순수한 빛의 장막이 일만 개나 있다. 그분이 그것을 드러냈다면, 그분의 얼굴빛이 그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을 태웠을 것이다."

의학 지식을 가진 사람들 역시 많은 실천을 사물의 뜨거운 영향이나 차가운 효과에 기반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들이 직업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태양을 밝고 뜨겁게, 토성을 건조하고 차갑게, 수성을 더 뜨겁게 만드는 창조주의 구원적인 성격은 그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불쌍한 점성가라도, 천문학적 예지력으로는 창조주가 태양을 지구에 가장 가까이 배치하거나, 낮과 밤의 변화, 혹은 하늘의 모든 별과 별자리가 그의 최고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복종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들은 그들의 물리적 존재와 알려진 속성에 관한 영적 덕목에 신빙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만약 반구의 이 모든 별들이 하나님의 의지와 명령에 복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물리적 측면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ٱلشَّمْسُ وَٱلْقَمَرُ بِحُسْبَانٍ

"[그의 명령에 따라] 태양과 달은 정해진 길을 간다." (꾸란 55장 5절)

وَٱلشَّمْسَ وَٱلْقَمَرَ وَٱلنُّجُومَ مُسَخَّرَٰتٍۭ بِأَمْرِهِۦٓ

"그리고 태양과 달과 별들은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느니라." (꾸란 7장 54절)

어떤 사물을 통제하고 통제하며 일하게 된 것은 복종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인간의 장기가 인간에게 하는 것처럼요. 각자 수행할 임무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별들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명령을 완수합니다. 마찬가지로, 뇌가 인간의 다른 기관들을 그분께서 부여하신 분별 능력과 함께 행동하도록 지시하듯, 별들도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배정한 천사들을 통해 정해진 연기에 몰두하며, 그들의 지휘자이자 주된 추진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실, 이 천사들은 각자의 영역 내에서 많은 것들의 살아있는 전령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원인과 결과, 즉 결과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우연의 일치들은 사람들이 믿게 만들기 위함이며, 그들의 위치가 전설적인 맹인들이 코끼리를 부분별로 더듬었던 것과 비교될 수 있게 만들었고,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잘못된 판단에 따라 각각에게 다른 이름을 붙였다. 이 점성가, 즉 예지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노예를 주인, 즉 왕으로 잘못 여깁니다. 이 점이 성스러운 꾸란에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언자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하나님의 평화가 그에게 있기를)]:

لَآ أُحِبُّ ٱلْآفِلِينَ

"나는 [해가 지는 것처럼 [해가 지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다." (꾸란 6장 76절)

무지한 자들은 달과 태양을 신으로 추측한다. 지휘받는 이들은 정신이 회복될 때까지 지휘관으로 불린다. 천구에는 열두 개의 '*부루즈*', 즉 천구에 있는 마운트가 있습니다. 이는 '*와지르*'(대신)와 함께 영광스러운 은총의 방에 앉아 있는 고귀한 왕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와지르*'(왕의 신하)의 엘리트 보좌관들이 앉아 있으며, 각각 한 개의 문이 있는 평화의 하늘에 앉아 있다. 일곱 명의 순종적이지만 민첩한 기병들이 각 문 주변에 '*와지르*'의 조수들의 부름에 따라 맴돌며 받은 소환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 즉각적인 실행을 위해, 이 기병들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 보병 네 명이 서서 활을 들고 기병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특정 무리를 묶어 고위 지휘부 앞에 데려오는 지시를 이행한다. 그 후 벌을 받거나 보상을 받습니다.

따라서 "*아르쉬*"("전능한 신성의 지배")는 사무를 담당하는 저명한 대신("*와지르*")의 영광의 거처이며, 이는 하늘에서 가장 사랑받는 천사입니다. 이는 점성가가 상상하는 별 반구의 마운트와는 대조적입니다. 이 투시자들은 의사가 증상을 통해 다양한 질병을 해독하듯, 하늘의 체스판 위의 폰과 도구들의 위치에 대해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ذَٰلِكَ مَبْلَغُهُم مِّنَ ٱلْعِلْمِ ۚ

"이것이 그들의 완전한 지식 획득이다." (꾸란 53장 30절)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그런 병든 사람을 감싸면, 앞서 언급한 시종들이 돌보고 한 명이 구원받습니다. 예언자의 길도 마찬가지로 별들이 빛나며, '*왈리*'(성인, 영지주의자, 신의 가까운 자)도 치유의 기적을 행합니다.

اِنَّ الْبَلَاءَ مُوَكَّلٌ بِالْاَنْبِيَاءِ ثُمَّ الْاَوْلِيَاءِ ثُمَّ الْاَمْثَلُ فَا الْاَمْثَلُ
مَرِضْتُ فَلَمْ تُعِدْنِىْ

"진실로 예언자들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가까운 자들('*왈리*')과 같은 자들[그러나 계급은 낮으며, 모두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계급에 따라]을 겪는다. 그러니 내가 몸이 안 좋을 때는 내 건강을 묻지 마라." (무함마드 예언자의 *하디스* 또는 전통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또한 매우 아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프지 않은 사람들도 보입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며, 너무 숭배해서 병들어 보일 정도입니다. 정말 사랑은 자기 자신을 소모하는 거야!

이제 여러분은 "수반 알라"*(모든 결점과 결점 위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며]), "알함둘릴라"*(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라 일라하 일랄라() لَا إِلَٰهَ إِلَّا اللَّهُ "*(하나님 외에*

*신은 없다), "*알라후 아크바*르"(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어떤 창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마리파*"의 불가분의 결합체이기 때문입니다"또는 신의 영지.

파생적으로, 당신이 자신의 '자아'(나*프스*), 즉 내면의 경건함과 덕을 인식하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경건함과 덕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수바알라*"(하나님께 영광을)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역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식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우월성의 진리를 동화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알함둘릴라*"(모든 찬양은 하나님께 있는)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모든 찬양과 감사는 오직 그분께 드릴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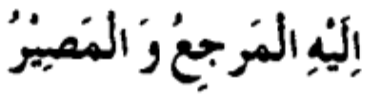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알라후 아크바*르"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다른 이들보다 위대하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십니다. 그는 무한히 최고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뛰어넘고 포괄합니다. 그는 전능하고 전지하며 편재하며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창조적 천재성과 거룩한 이름들로부터 그분의 독특하고 찬란한 여러 특성과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고 비할 데 없으셔서 우리는 그분을 설명하거나 축복을 나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건함은 인간의 경건함과 다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의 위대한 속성을 묘사할 말조차 찾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모든 창조물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말이나 표현을 그분께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그분과 닮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우리가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할 때, 우리는 두 나라가 비슷하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부적합한지,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국가를 다스리는 매력에 대해 묻고 이해시키기 위해 우리는 그것이 방망이와 공을 가지고 놀면서 느끼는 것과 같다고 답합니다. 진실과 얼마나 가까운지 멀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그렇게 말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 누구도 모른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 상황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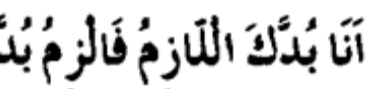
일. 자신의 능력껏 그의 영지('*마리파*')를 찾는 데 몰입하세요.
이. 그분의 선하심에 집중하고, 그분의 빛("*누르*"), 아름다움("*자말*"), 권능("*쿠드라*")을 신성한 특성과 창조물 속에서 찾으려 합니다.
삼. 그분의 친절에 감사하는 것.
사. 마음과 영혼의 모든 섬유로 그분을 예배하는 것.
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 돌아갈 것입니다.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귀환이자 최후의 수단이다."

그분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며, 경배할수록 [그분에게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진실되고, 헌신적이며,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고귀한 행위는 반드시 [그분께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즉, 하나님)의 필연적인 필연성이니, 당신의 필연성을 굳게 붙잡으라."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의 기억("*디크르*")은 모든 [원한] 욕망을 영혼에서 떼어내고, [모든 악한 행위]를 포기하며, 그분의 예배에 완전히 잠수함으로써만 강화될 수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은 평화롭고 깨끗합니다. 신자("*모민*")의 위대함은 그 안에 있다:

قَدْ أَفْلَحَ ٱلْمُؤْمِنُونَ

"신자들은 [진정하고 궁극적이며 영원한 성공]으로 성공하였습니다." (꾸란 23장 1절)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명시하셨습니다:

قَدْ أَفْلَحَ مَن تَزَكَّىٰ ﴿١٤﴾ وَذَكَرَ ٱسْمَ رَبِّهِۦ فَصَلَّىٰ ﴿١٥﴾

"진실로 성공한 자는 자신을 정화하고, 즉 영혼을 정화하며,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꾸란 87장 14-15절)

세상을 아는 것

알-가잘리는 그의 저서 『Kimiya-e-Sa'adat』(*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을 위한 변화의 연금술 또는 변화의 변혁적 행위자*)에서 영원한 행복과 진정한 *영원한 성공의 연금술(또는 변형*적 행위자)에 대한 놀라운 설명을 이어가며, 이 영원한 행복의 연금술(또는 변형적 행위자)의 네 가지 제목(또는 요구사항) 중 세 번째인 "세속적 삶의 세계와 현실을 아는 것"을 설명한다. 영원한 행복의 변혁적 주체의 세 번째 조건인 "세속적 삶의 세계와 현실을 아는 것"을 설명하며, 그는 다음과 같이 썼 다 [4]:

사랑하는 이여! 이 세상은 인간이 다음 세상으로 가는 여정에서 걷는 길입니다. 이곳은 '*마리파*' 또는 신의 영지(Gnosis)의 광활한 사막 끝에 위치한 오아시스이자 발판입니다. 이 세상("*둔야*")과 다음 세상("*아키라*") 또는 저승은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한 상태는 인간의 삶과 시대에 관한 것이며 [매우 가까운 시기] 죽기 전까지 지속됩니다. 저세는 죽음 직후에 시작됩니다. 이 세상과 세속 삶은 인간이 내세('*아키라*')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삶의 목적은 이곳에서의 머물기 대가로 선행의 보물을 모아 내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 과정에서 다소 약하고 불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카말*'(완전함)과 탁월함을 이루고, 천사적인 자질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천재성(독특한 능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존재의 총합입니다. 이것이 약속된 '낙원'입니다.

그분의 영지('*마리파*')의 핵심은 인간이 그분의 큰 자비에 감사하는 마음과 그분의 수많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분의 창조물들의 그림 같은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지각은 그분이 만들어낸 매혹적인 것들을 맛보고 즐기게 하며, 자연 속에 퍼져 있는 거대한 아름다움의 독특한 장관을 보게 합니다. 귀는 자연의 부드러운 소리와 음악을 감상하게 만들고, 손은 사랑스러운 손길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인간이 살아 있는 한, 이 모든 것을 즐기며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정보 수집 요원(즉, 감각)의 자유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잃게 되며, 이 서비스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인생에서 두 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1. 마음을 죽이는 것들로부터 마음을 보호하는 것. 마음에 음식과 영양을 제공해야 합니다.

2. 몸을 해치거나 죽이는 것들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 또한 먹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앞서 논의한 내용에서 우리는 마음의 음식이 하나님의 사랑과 영지('*마리파*')임을 확립했는데, 이는 각 사물의 음식이 그 내면의 자연스러운 특성에 따라 진정으로 좋아하고 갈망하는 것이라는 격언에 기반합니다. 또한 영양을 주고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게다가 몸의 관리도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몸은 결국 멸망하지만 마음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살아남는다. 이와 관련해 간단한 예를 들자면, 몸은 마음을 위한 것이고, 낙타(옛 교통수단)는 '*하지*' 또는 순례자(신의 자비를 상징하는 신의 집 으로 순례하는 자)를 위한 것처럼요. 이 자전거를 타면 메카의 신성한 집인 '*카바*'에 도착합니다. 반대는 사실이 아니며, 즉 순례자는 낙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례자를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순례자는 낙타가 '*카바*'(순례자의 목표이자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먹이를 줍니다. 이 계정에서 어떤 지연이나 방치, 소홀한 행동도 목표 달성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인체는 세 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a) 음식

b) 옷

c) 집.

다시 말해, 식사는 음식이 필요하고, 몸을 가려야 할 필요는 옷이 필요하며, 집은 몸이 해를 입지 않도록 무더위와 추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요컨대, 이 세 가지는 신체, 즉 신체 존재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과식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집과 옷에 대한 욕구도 인간의 생계에 대한 욕구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요구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논리와 상식이 구원을 주어 신체의 요구에 과도하게 빠져들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모든 도덕적 가치가 포함되거나 그 근원이 되는 선의 원리, 즉 그것들을 초래하는 최고 선은 바로 마음이다.

음식은 고귀합니다. 심장이 더 많이 먹을수록 영혼에 더 좋다. 그 결과 마음은 사랑과 신의 탐구로 잘 자라, 자신의 자리를 찾아 마치 말의 고삐를 쥔 기사처럼 몸을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 친구의 말을 잘 듣고 고삐를 놓치지 마세요. 몸의 욕망을 완전히 통제할 때, 탐욕, 부정행위, 불경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충동은 억제될 것입니다.

세상은 세 가지 주요 범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광산, 동물 등 다양한 것들. 이 땅의 표면 자체가 인간의 거주, 농업 등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2) 철, 강철, 청동 등과 같은 광물은 인간이 다양한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도구, 도구 및 기타 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3) 인간은 동물을 타고 그들의 살을 먹으며, 다른 음식을 먹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한다.

그 외에도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손과 발,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바쁘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음의 전적인 몰두는 것은 매우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악은 심장의 진정한 목적을 잊고 세속적 탐욕, 뒷담화, 분노 등 악한 행위에 관여하여 심장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세공인(금속), 직조, 건축 등 세 가지 직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직업들은 어떤 형태로든 서로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수적인 직업과도 적극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화 수확업자들이 목화 농장에서 목화 꽃을 따는 것처럼요. 캐스터들은 그 부풀음을 걸러내고; 면방적공들은 그것들을 실로 잣고, 결국 면직물 직조공들이 다양한 종류의 직물로 짜서 짜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옷들은 그 후

바느질되고 재단됩니다. 철장인은 재단, 바느질, 재봉을 수행하는 도구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합니다.

각각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복잡함과 직업적 질투가 생겼다. 재단사는 직조공에게 직조공과 방적공에게 의존하게 되며, 방적공은 목수나 철장공이 제작한 기계 장치로 방적합니다. 또한 재단사는 자신의 도구와 기구를 필요로 하며, 이 역시 철장공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 복잡한 주고받음의 시스템은 복잡성과 경쟁을 초래하며,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주요 요소와 기타 요인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즉, 정치적 통찰력과 정치적 수완입니다.

2) 감시 장비와 정부.

3) "*일름 알-피크*"또는 종교에 정해진 규칙과 규정에 따른 법과 행동 강령에 대한 지식.

궁극적으로 이 인프라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인간의 전제 조건, 즉 음식, 의복, 주택 또는 거주지를 실현하고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들을 따른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의 요구는 신체에 관한 것입니다. 몸은 다시 마음과 영혼을 위한 것이다. 영혼은 순례자('*하지*')가 낙타를 타 고 카*아바*(순례자의 궁극적 목적지인 메카의 상징적인 하나님의 집, 즉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곳)에 도달하는 것처럼 몸에 올라타야 합니다. 인간의 경우, 목표는 그것과 동의어이며, 즉 '*마리파*'(하나님의 영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카아바의 [궁극적 목적지] 도달이라는 목표를 염 두에 두는 대신 , 앞서 언급한 순례자가 여행 중에 낙타를 돌보고 돌보는 데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 결과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 심각한 부주의에 대해 오직 자신 탓이 됩니다. 사랑하는 이여! 여기서 교훈을 얻으세요. 세속적인 일에 관여하여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목적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쓸데없는 일과 쓸모없는 활동에

낭비하는 시간은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이 인생의 여정은 사실 내세('아키라')를 향한 여정임을 기억하세요. 이 세계의 카리스마는 매우 매력적이다. 속지 마세요. 인생의 유혹을 극복하세요. 무함마드 예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세상은 '*하루트*와 *마루트*'(유명한 전설적 마법사들)보다 더 위대한 마법사"라고 올바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현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 이 세계가 당신에게 걸어주는 첫 번째 마법은 이 세계와 그 모든 매력이 항상 존재할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시간은 덧없고, 행복한 순간들 속에서 시간을 셀 수 없어 다소 느릿느릿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흐르는 시간, 그 발걸음은 그림자 같다. 항상 가만히 있는 그림자처럼 잠들어 있는 듯하다.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그림자는 원래 있던 자리에 있지 않고, 오히려 천천히, 그리고 미묘하게 원래 위치에서 멀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상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과 조수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니 조심하고 발밑에 풀이 자라지 않도록 하세요. 얻은 순간은 잃지 않지만, 잃은 순간은 결코 얻지 못합니다. 현실은 인생이 짧다. 그렇다면 왜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 세상의 마법의 두 번째 예는, 당신을 소중한 친구로 대하며, 마치 충실한 동지처럼 항상 곁에 있을 것처럼, 세속적인 사랑과 우호의 선물을 아낌없이 아낌없이 주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모든 매혹적인 교활함으로 당신을 매혹시키려 하며, 당신이 유일하게 가장 사랑받는 대상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상황이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면, 당신은 버리고 길을 잃게 됩니다. 인생 최고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마치 방황하는 자연의 아름다운 연인처럼, 갑자기 당신을 떠나고, 그 부드러운 족쇄를 다른 사람에게 엮고, 쉬운 먹잇감을 위험한 응접실로 데려가 죽음과 황폐함을 맛보게 한다.

한 번은 예수(*이사*(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현실을 구현한 그런 자주 결혼한 여성을 '*카슈프*'(영적 영역의 현실이 깨어 있는 상태로 보여주는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몇 명의 남편과 결혼했느냐고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셀 수 없다고

대답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죽었나요, 아니면 이혼을 했나요?" 그녀는 모두를 죽였다고 답했다! 예수님은 이 슬픈 대답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주문에 빠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 그들은 선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았지만, 당신의 아름다움의 마법에 걸려 죽음을 맞이했고, 제때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삼. 세 번째 예는 매력적인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화려한 옷으로 자신을 꾸미며, 옆모습을 화려하게 꾸미고, 희귀하고 귀중한 보석을 착용해 누구든 그녀를 보면 즉시 사랑에 빠지게 하는 노파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인간에게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그 매력적인 아름다움과 황홀함으로 마법을 걸어 정신을 잃고 갑옷에 멍해질 정도로 만들려 한다. 그 고된 생각과 고된 생각을 모두 산산조각 낸다. 인간은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진지한지 잊는다. 때로는 너무 늦게, 팜므파탈로 가장한 노파가 베일을 벗고 대신 끔찍한 얼굴을 보는 충격을 받아 깨닫기도 한다.

사. 네 번째 예는, 우주가 진화한 이후 경과한 시간, 즉 이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와 지금부터 끝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하려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며,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정신의 경계를 넘는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아는 것은 자신의 세계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것뿐입니다. 즉, 요람은 인생의 여정의 시작이며, 이 세상을 통과하는 여정의 시작이며, 무덤이 그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몇 번의 정거점이 있는데, 수년, 몇 달, 며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을 쉬는 시간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것은 먼 거리를 다루고, 어떤 것은 작은 거리를 다룹니다. 인간의 삶이 길든 짧든, 실제로는 수명이 짧지만 이 중요한 점을 완전히 잊게 됩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 다음 숨결조차 확신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10년간 자신의 욕망을 느끼거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그날을 보지도 못할 수도 있다!

오. 삶의 즐거움에 과도하게 빠지는 것은 인간의 저승(*'아키라'*)에게 탐욕스러운 탐식자에게 과식이 미치는 해만큼이나 해롭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진하고 달거나 뜨겁고 매운 기름진 음식을 집어삼키며, 무겁고 불필요한 음식으로 배를 무겁게 먹는 결과를 신경 쓰지 않고 탐닉한다. 그 결과 구토가 시작되고 느슨한 움직임이 생깁니다. 순간적인 맛과 쾌락을 위해 과도함은 굴욕과 고통, 수치심을 초래한다.

이렇게 무겁게 먹은 식사 후 나오는 배설물조차도 역겹고 불쾌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욕망과 방탕함에 빠질수록 내세에서 더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숨이 막힐 때, 인간이 집 안의 돈, 금, 은, 정원, 하인과 하녀를 더 많이 측정할수록, 그들과의 이별에 대한 고통은 더욱 심해진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이미 악화되는 상태에 더해져 결국 악행에 대한 '*아드합*' 즉 신의 응징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육. 삶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이 세상의 일들이 임박하다는 것이다. 평범한 집안일처럼 보이며, 일상적이고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다른 모든 개념과 고려사항을 무시한 채, 인간은 그것들에 완전히 몰입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바퀴 안의 바퀴가 있고, 그 안에는 바퀴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한 가지가 다른 일로 이어지고, 결국 삶이 낭비된다. 예수(*이사* 또는 예수 크리스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 세상을 찾는 자는 바닷가에 입술을 붙여 끊임없이 갈증을 해소하는 사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갈증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 술을 많이 마시면 마시면 할수록 그렇게 하고 싶어진다. 결국 그는 이 무의미한 추구에서 목이 마르고 만족하지 못한 채 죽는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과 그 소유물에 대한 욕망의 저주입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그런 사람에 대해 "물에 잠겨도 젖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 이 세상에 대한 열광이 뚜렷한 사람은 분명히 그 세계에 더럽혀질 것이다.

칠. 이 세계에 관한 일곱 번째 예는, 매우 부유한 주최자에게 가는 손님과 비슷하며, 그 손님들은 대거 방문한 손님들을 호화롭게 대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는 환영의 [훌륭한] 질 때문이죠. 한 명은 은으로 불타는 흑단과 호박의 향기로운 분위기 속에서 정교한 디자인과 장식이 담긴 금과 은 쟁반에 담긴 호화로운 음식을 제공한다. 당신의 본성을 이해하는 현명한 손님이 감사하게 그것을 마시고, 자신만의 향수를 조금 뿌리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도록 우아하게 손님을 떠난다. 반면, 욕심 많은 손님이 환대 후 귀중한 물건을 훔치려 하다가 주인의 하인들에게 붙잡혀 망신을 당한다. 인간의 욕망과 타락한 욕망은 음탕하다. 이 세상을 여행하는 동안, 자신이 정당하게 획득한 소유물은 자신의 진정한 소유물이며, 이를 짐으로 지닐 수 있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현대에는 호텔)에서는 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것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탐욕은 아무 소용이 없다.

팔. 다음 세계의 예, 즉 그 몰입감의 본질은 인간이 그 안에 빠져들 정도로 [매혹된 상태에서]입니다. 너무 심해서 저승을 완전히 잊게 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배에 탄 사람들 무리가 있습니다. 가는 길에 섬에 도착해 잠시 밖에 나와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개인 위생을 하며, 세면을 한다. 선장은 곧 배를 떠나야 하니 모든 필요를 신속히 처리하고 배에 다시 탑승하라고 알린다. 현명한 이들은 신속히 떠나고, 나른한 무리는 여기저기 흩어져 시야에서 사라져 섬을 불필요하게 둘러보며, 이곳의 경치와 식물, 동물, 다채로운 조개껍데기를 즐긴다.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함선에서 편안히 앉던 자리들이 모두 차지된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어둡고 음침한 구석에 앉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이 소라껍데기를 무겁게 싣고 다닙니다. 비슷한 낭비적인 여행들 때문에 이전 세대보다 더 나쁜 곳을 얻는다. 그들은 너무 당황해서 배 안에서 앉을 자리를 거의 찾지 못한다. 게다가 목에 묶인 이 아름다운 조개껍데기를 짊어져야 합니다. 이틀 후면 이 껍데기는 더러워지고 악취가 납니다. 더 나쁜 건, 공간이 부족해 이 짐을 해소조차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수치심과 회개도 똑같이 무겁다. 마지막 게으른 무리들은 섬을 탐험하는 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선장의 신속한 집결 명령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배를 놓치고 황야에서 죽는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 그룹은 신자들과 같고, 마지막은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예언자(그분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와 심판의 날을 잊은 사람들과 같은 불신자들입니다:

استحبوا الحياة الدنيا على الآخرة

"그들은 저승보다 이 세상의 사랑을 더 좋아했다."

중개자 두 그룹은 자신의 판단과 정해진 행동 방침에 반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과 내세에서 고통받는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신의 응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비난하는 것이 아님을 조심하십시오. 결국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니, 목적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름*(지식 자체)과 '*아말*'(규정된 행위에 따른 행동 수행)은 각각 중요한 덕목이다. 두 사람 모두 겉으로는 이 세상에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과 함께 저승으로 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리파*'(신의 영지)에 대한 지식과 그 획득은 인간 존재의 정점이다. '아*말*' 또는 개인의 행동과 선행은 나름의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가지는데, 이는 악을 버리고 신에 대한 헌신적인 예배로 영혼을 양육함으로써 영혼의 순수함과 경건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은 인간에게 영원한 보상입니다:

وَٱلْبَٰقِيَٰتُ ٱلصَّٰلِحَٰتُ خَيْرٌ عِندَ رَبِّكَ

"그러나 영원한 정의의 행위는 주님께 보답하는 것이 더 낫다." (꾸란 18장 46절)

"디크르", 즉 신을 기억*하는 것의 풍미와 기쁨*은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이 세상에서 그 마법을 누리지만, 사실 그것은 이 세상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세의 축복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끝나는 이 세상의 기쁨도 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과 예배의 기쁨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الدنيا ملعونة وملعون مافيها الاذكر الله وما والاه

"세상과 세속적 자산은 부정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고 돕는 것들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이 세계와 그 다양한 특성에 관한 논문은 본 담론의 목적에 충분하다. 그 부관과 관련 사항들은 신의 뜻이라면, 적절한 시기에 논의될 것입니다.

사후 세계를 알다

알-가잘리는 그의 저서 『Kimiya-e-Sa'adat』*(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을 위한 변화의 연금술 또는 변화의 도구)*에서 영원한 행복과 진정한 성공의 *연금술(또는 변형*적 행위자)에 대한 놀라운 설명을 이어가며, 이 영원한 행복의 연금술(또는 변형적 행위자)의 네 가지 제목(또는 조건)인 "사후 세계의 현실을 아는 것"을 설명한다. 영원한 행복의 변형적 행위자에 대한 네 번째 조건인 "사후 세계의 실재를 아는 것"을 설명하며,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5]:

사랑하는 이여! 죽음의 현실을 알지 못하면 내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죽음의 현실성은 다시 삶에 직접적인 참조와 영향을 미친다. 삶의 진실성은 영혼("Ruh")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에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해 자아에 대한 지식("*Nafs*")과 같다. 사실상 영혼과 자아는 동의어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간이 완전한 인프라와 영혼("Ruh")을 갖춘 물리적 틀의 형태로 창조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영혼은 기수이고, 몸은 그것이 타는 탈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가치가 있습니다.

영혼은 그 형태와 가치에 따라 천국이나 지옥에 있을 것이며, 몸과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축성되거나 정죄될 것이다. 신의 은총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마음의 귀중한 자산들은 몸 없이 '영혼의 낙원'이라고 불립니다. 그런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축복받은 분은 내세에 아름다운 궁전, 정원, 그리고 꾸란과 예언적 가르침에 따라 아무도 본 적도,

마음도 상상하지 못한 수많은 기쁨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몸 없이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고통과 고난을 겪는 영혼을 '영혼의 불'이라고 부른다. 그 거처는 지옥이 될 것이다. 가시 울타리와 전갈이 그곳에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저서에 수록된 동반 권 "*Ihya al-Uloom ad-Deen*" 또는 "하나님으로 가는 길의 지식의 부흥"에서 제공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언급한 죽음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람들은 죽음에 관한 주제보다는 천국과 지옥에 더 집중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디스 쿠드시*"(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의 전통)에서 그는 신으로부터 전해준 내용입니다:

اعدت لعبادی الصالحین ما لا عین رأت ولا اذن سمعت

ولا شکر علی قلب بشر

"의로운 종들이여, 나는 어떤 눈에도 보이지도, 듣지도 못한 기쁨을 준비하였으며, 어떤 인간의 마음에도 일어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인간의 마음에는 천상(또는 영적) 영역으로 열린 창이 있어 보이지 않는 신비('*가이브*')를 볼 수 있다. 소문으로 그들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보고 내세에서 복된 상태나 내세에서 정죄받는 상태를 본다. 건강과 아픈 두 상태 사이의 뚜렷한 차이를 의사가 판단할 때 생생하게 분별합니다. 병에 걸렸을 때 적절한 약을 복용하고 의사가 정한 예방법을 따르는 덕을 완전히 깨닫게 되어, 그분이 금지한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몸의 축복("*사아다 바다니야*")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과식과 의사 말을 무시하는 과도한 방치는 나쁘며 몸의 병("*Shaqawatu badania*")이라고 불립니다. 실천적 관찰은 아담의 후손, 즉 인간의 영혼인 마음이 덕과 악함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게 한다. 덕의 보상을 얻는 '치유'는 신의 숭배와 영지('*마리파*')에 있으며, 저주와 악행의 독은 무지의 어리석음과 비열한 행위에 담겨 있습니다 [고귀한 목적은 고귀한 수단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비악한 목적만이 비정한 수단의 유일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곧 위대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울레마*' 또는 학자라 칭한 많은 사람들은 이 지식에 대해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반대자이자 부정자이기도 하다. 분명히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모른다는 이유로 '*알림*'과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기 있다. 그들은 물리적 낙원이나 지옥만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후'는 전해들은 말이나 '자주 따르는' 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덧붙일 필요도 없이, 우리는 타당한 논거에 기반해 이 주제에 대한 연구와 연구의 사실들을 아랍어로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면('*바틴*') 즉 영혼이 순수하고 편견 없는 지적이고 예리한 사람이라면, 내면의 심판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그 초기 진리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만 덧붙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전혀 모르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말입니다.

죽음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려면, 인간은 두 종류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루 하이와니*"는 육체적이고 동물적인 영혼을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는 '*루 인사니(Ruh Insani*)'라 불리며, 이는 인간 안에서 천사의 영혼이 시작된 영혼입니다. 동물의 영혼의 근원, 즉 델타, 즉 '심장'이라 불리는 살덩어리가 인간의 왼쪽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 이는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진 섬세하고 순진한 물리적 활용의 열기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발열이나 가벼운 열은 그 자체로 비교적 적은 기원으로, [신체적] 심장의 정맥에서 시작해 뇌와 신체의 다른 부위로 퍼집니다.
삼. 맥동하고 있어.

간단히 말해, 이것은 매체와 움직임의 짐을 지고 지휘하는 동물의 영혼입니다. 뇌에 도달하면 그 열기가 줄어들어 온화해집니다. 눈은 그 안을 통해 볼 수 있고, 귀는 듣습니다. 점차 모든 감각으로 확장됩니다. 영혼은 등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설치된 벽이 밝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램프가 집 안의 주변을 밝히듯, 하나님은 최고의 자비로 빛을 부여하십니다. 이 영혼과 모든 감각 기관은 빛,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 귀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반면, 어떤 정맥이 영향을 받아 꼬이거나 매듭이 생기면 마비되고 무기력하며 휴면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의사는 이 매듭이 풀리고 어떻게든 제거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다시 말해, 영혼은 등불의 불꽃과 같고, 마음은 심지이며, 음식은 기름과 같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램프가 다우는 상태입니다. 음식, 즉 기름이 없으면 영혼의 온화한 기질이 멈추고 결국 죽음으로 이어진다. 기름이 있는데 심지에 많은 오일이 사용된다면, 불량이 발생해 전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심장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 마음은 자신의 음식을 받아들이고 동화할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등지와 기름이 있어도 램프가 덮여 있으면 꺼집니다. 마찬가지로, 동물은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 죽는다.

광택 나는 거울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정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면, 투영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매우 만족스럽게 반영합니다. 하지만 더럽거나 변색되거나 먼지로 덮이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림과 사물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거울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울이 너무 더러워져 이미지를 반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체가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과 동물 영혼의 사지의 감성은 본질적으로 절제된 기질과 섬세하고 순진한 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온화한 성격의 특성, 즉 절제가 사라지고, 주된 동력으로서 작동하는 힘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독특한 축복은 상실됩니다. 신체 기관이 기능을 멈추고 인간은 죽음으로 선언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한 천사, 즉 우리에게 '*말릭 울-마우트*' 또는 '죽음의 천사'로 알려진 이 임무가 시작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은

그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우리는 그를 소문으로 '*말릭 울 마우트*', 즉 '죽음의 천사'로 알지만, 그의 진정한 진실성은 소수의 사람들만을 아는 데 있다.

하지만 인간의 죽음에 관한 문제는 다릅니다. 위에서 설명한 동물적 영혼 외에도, 인간은 또 다른 영혼("*루*")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루 인사니" *또는 "인간의 영혼" 또는 "마음"이라고 불린*다. 이 영혼은 앞서 언급한 물리적 또는 유기적 영혼과 달리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분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중요성과 중요성은 '*마리파*'(신의 영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유일무이이십니다. 그분의 '*마리파*' 또는 그노시스의 분할도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그의 "*마리파*" 또는 영지가 어떤 형태로든 제한된다는 개념은 신성모독과 다름없다.

사랑하는 이여! 논의를 위해 심지, 그 불꽃, 그리고 인간 안에 빛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램프의 물리적 구성 요소, 즉 구조와 심지만을 동물의 형태에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그 빛도 동물 형태로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인간 영혼'과 일치한다. 이는 전자가 일시적이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명백합니다. 즉, 물리적 램프의 빛이 램프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램프가 깨지면 빛이 꺼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진정한 영혼(즉, '인간의 영혼')은 결코 사라지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다만 '동물적 영혼'은 멸망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의 동물적 영혼은 자신의 진짜 영혼이 안장을 얹고 달릴 수 있는 탈것이다. 또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자 장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산(즉, 동물의 영혼)이 죽으면 인간은 그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없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감이 생기고 더 독립적이며 자립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인간이 너무 열심히 노력해 이미 어느 정도 인정받고 주목할 만한 인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영광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죽음은 신자에게 주는 선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은 사냥 장비와 도구를 들고 현장에 있는 사냥꾼과 비슷합니다. 논의를 위해, 자신이 먼 길을 온 먹잇감을 얻는 데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장비를 잃는다면, 여전히 더 나은 상황입니다. 또는 사냥감을 잡기 전에 사냥 장비를 잃어버리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상태가 더 악화되어 불쾌해질 것입니다. 이 일에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스스로 맞이한다. 내세의 응징이 한 사람을 압도하며 셀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한다.

특정 팔다리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손과 발이 기능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 도구들을 막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칠 수 없는 것은 견뎌야 한다. 따라서 인간, 즉 주된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이 기관들의 중요성은 부차적입니다. 따라서 진실, 즉 현실은 그들 안에 있지 않다. 뒤에도, 위에도, 머리에도 없다. 마찬가지로, 몸의 모든 기관이 기능을 멈추고 하인이 되지 않으며 통제하지 않더라도, 내재성은 가능하다. 동물의 영혼은 인간의 영혼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강조해야 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 한 형태의 존재[삶]에서는 신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배고픔, 갈증, 수면 등은 물리적 형태 없이는 발생하거나 기능하지 않으며, 인간이 죽으면 사라지는 현상들입니다.

이. 다른 존재(오직 '인간 영혼' 또는 '*루 인사*니'만)에서는 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존재는 신의 영지('*마리파*')의 대장례이며, 신성한 아름다움('*자말 일라히*')을 추구하는 것, 즉 그분의 뛰어난 영광과 영광을 추구하는 것; 아름답고, 당황스럽고, 너무나도 즐겁게 매혹적이어서, 블리스는 최고의 황홀경 속에서 멍해져 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성경(꾸란)에 언급하신 영원한 축복("*Baqiyat us-Salihaat*")입니다. 이 '복된 자의 영원한 축복, 검증된 선'은 하나님의 비할 데 없는 보상이며, 인간 영혼이 영원히 만족해야 할 점입니다. 하나님의 엘리트인 선택받은 자들은 자신 안에 이 자질("*나프*")을 가장 먼저 지니고 있어 자동으로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반대로, 방치, 무지, 어리석음은 그 반대편이며, 이는 영혼의 망명과 다름없습니다:

وَمَن كَانَ فِي هَٰذِهِۦٓ أَعۡمَىٰ فَهُوَ فِي ٱلۡأٓخِرَةِ أَعۡمَىٰ وَأَضَلُّ سَبِيلٗا ٧٢

"이 세상에서 눈이 먼 자는 내세에도 눈이 멀고 진리의 길에서 더 멀어질 것이다." (꾸란 17장 72절)

인간의 이 두 종류의 영혼을 구분하지 않는 한, 죽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물의 영혼은 물리적 과정의 순서에 있으며, 원초적인 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다소 희미한 유전학에 주로 관여한다. 담즙, 섬유증 및 기타 배설물이 결합하여 그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기본 원소는 물, 불, 먼지, 공기입니다. 따라서 이들 상호작용으로 인한 균일성 또는 변동은 관련된 열, 냉기, 습기, 건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의학 지식이나 그 실무자인 의사는 그 중요성을 온전히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환자의 몸을 치료할 때, 본능적으로 '인간 영혼', 즉 인간의 진정한 영혼이 몸을 지나칠 수 있도록 신체의 물리적 틀을 맞추려 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천사적 성격을 지닌 "*나프스 알-무트마인나*" 즉, 내면의 평화와 완전한 만족의 수준에 도달한 인간의 정제된 영혼은 위대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생 여정은 자신의 의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 함정의 길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고, 훌륭하게 골대에 도달하며, 이 험난한 세상의 여정에서 용감하게 맞서며 노력과 시련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قُلۡنَا ٱهۡبِطُواْ مِنۡهَا جَمِيعٗاۖ فَإِمَّا يَأۡتِيَنَّكُم مِّنِّي هُدٗى فَمَن تَبِعَ هُدَايَ فَلَا خَوۡفٌ عَلَيۡهِمۡ وَلَا هُمۡ يَحۡزَنُونَ ٣٨

"우리가 말했지: '너희 모두를 여기서 내려라(즉, 하나님의 임재 아래 천국에서); 이 편지는 아담과 이브에게 함께 보내졌다; 그러니 나의 인도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 두려움이 없고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꾸란 2장 28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إِذْ قَالَ رَبُّكَ لِلْمَلَٰٓئِكَةِ إِنِّي خَٰلِقٌۢ بَشَرًا مِّن طِينٍ ﴿٧١﴾

فَإِذَا سَوَّيْتُهُۥ وَنَفَخْتُ فِيهِ مِن رُّوحِى فَقَعُوا۟ لَهُۥ سَٰجِدِينَ ﴿٧٢﴾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점토로 인간을 창조하리니, 인간을 만들고 하나로 숨을 불어넣으면, 나가 창조한 영혼이...'" (꾸란 38장 71-72절)

이 구절에는 두 영혼("*루*")의 차이를 미묘하게 언급합니다. 하나는 먼지와 관련이 있으며, 그곳이라는 단어는 자연 속에서 그 절제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고, 반면 "*나파크투 페헤 민 루히*" 또는 "나는 내 영혼에 숨을 불어넣었다"는 섬세한 가리키는 '그분의 자아'를 섬세하게 가리키는 말이다. 이는 솜으로 횃불을 만들어 불을 붙여 병의 세균을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주요 요소는 "인간을 위한 신성한 법과 행동 강령"으로, 이는 개인의 길잡이이자 중재자, 감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같은 문제, 즉 인간의 존재의 본질, 즉 자신의 자아를 깨닫고 신의 '*마리파*'(영지)를 얻는 과정에 도달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리파'(영지)를 얻으려는 열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혼들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려면 내세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는 시도입니다.

신앙의 기본 토대("*딘*" 또는 하나님으로 가는 길)는 여러 전제 조건 중 하나님과 그분이 정한 '심판의 날'에 대한 명확한 믿음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언급할 수 없는 은밀한 비밀의 미안함이 있다. 또한 그 깊은 곳에는 '*마리파 툴 하크*'와 '*아키라*', 즉 지극히 최고의 주님과 내세에 약속된 그의 진실성이 숨겨져 있어 쉽게 이해하거나 다루지 못한다. 그래서 당신은 그 지식과 이해를 얻으려 노력하며 지혜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그 연구는 너무나 섬뜩하고, 섬뜩하며, 너무 정교해서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에 대해 가장 적게 들어본 이들조차도 경외심에 빠져 멍해졌고, 알파와 오메가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의 불경과 전혀 가치 없는 허공의 행위에 근거해 불가능하다고 외쳤다. 예언 전통이나 꾸란 모두 이 문제에 [명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겠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كلموا الناس على قدر عقولهم

"사람들의 지능 [및 정신 능력]에 따라 말을 걸어라."

그래서 일부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알리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 언급하지 말았는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믿지 않으려 하여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영혼('인간의 영혼')에 대한 진실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영혼'은 인간의 몸의 팔다리가 무기력하고 생명을 잃을 때 죽는다. '인간의 영혼'은 [생사]와 상관없이 여전히 드러난다. 따라서 인간의 부활, 심판의 날, 부활이라는 용어는 '무(無)' 이후 인간이 다시 존재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이전에 그랬던 방식의 형태, 새로운 몸을 주고, 다시 필요한 특성과 특성으로 재정비된다는 뜻입니다. 신에게는 매우 쉬울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모두 창조된 첫 창조와 비교하면 말이죠].

선행이 영혼의 순수함과 위대함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런 비순응자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성인들(영지주의자), 즉 하나님의 엘리트들이 이 세상을 여행하는 데 자신을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 길을 따라 여행하며, 이익을 위해 물건을 거래하고 모으고, 손실을 막기 위해 비이익 물질을 얻는 것은, 결국 자신의 최종 목적지인 내세로 가는 길에 맺은 좋은 거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

إِنَّا لِلَّهِ وَإِنَّآ إِلَيْهِ رَٰجِعُونَ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분께 우리의 최종 귀환(목적지와 귀향)이 있다." (꾸란 2장 156절)

따라서 사람은 항상 이동 중이라는 자신의 상태를 온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은 이 길을 따라 여러 중간 지점(정거장)과 이정표에서 마지막 상품을 수집하며, 목표에 도달했을 때 지금까지 얻은 것에 대해 정당한 가격에 맞춰 영구 거주지인 저승에서 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혼의 여정에는 네 개의 뚜렷한 역이나 이정표가 있습니다. 영혼은 인간의 현실이지만, 육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에는 안식처가 있습니다 – 그것이 기원한 곳은 진짜 고향이나 나라이며, 여행 중에 이 세계에 오게 되었고, 원원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많은 이정표를 거칩니다. 영혼의 여정에서 모든 이정표는 철학적 사색으로 본다면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번째 이정표는 "*알람 마흐수사트*" 또는 "감각과 감성의 영역"입니다.

2. 두 번째 이정표는 "*알람 타카유랏*" 또는 "개념의 영역[사상과 사상]"의 이정표입니다.

3. 세 번째 이정표는 "알*람 마우후마트*" 또는 "미분별자의 분별의 영역"이다.

4. 네 번째 이정표는 '*알람 마쿨라트*' 또는 '질서, 성취, 자기 인식의 영역'이다. 이 이정표에서 사람은 자아나 자신의 현실과 진실에 대한 자각을 얻게 됩니다.

다음 예를 들어 그들의 상태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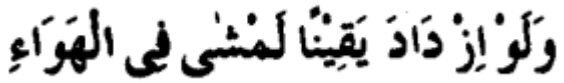
일. "'*알람 마흐수사얏*", 즉 "감각과 감성의 영역"에 머무르거나 있는 한, 본능적으로 불꽃 주위를 맴도는 나방과 같습니다. 나방은 눈을 가졌지만 생각하고 기억할 지능은 없습니다. 나방이 타오르는 불꽃에 끌리는 것은 어둠을 피하고 빛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는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비유적입니다. 균형 잡힌 사고와 안전함의 힘을 갖추지 못했기에, 빛 속에서 출구를 찾으려다 타오르는 불꽃을 그 구멍으로 잘못 인식하고, 결국 그 불꽃 위에 떨어져 죽는다. 만약 나방이 추론 능력을 지녔다면, 깃털에 닿은 첫 번째 따뜻한 빛을 받은 후 불꽃 근처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 [지성] 부족 때문에 나방은 어떤 심판의 지위에 오르지 못한다. 예를 들어, 다른 동물들은 다쳤을 때 어떤 것에서 피하려고 합니다. 막대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위험에서 도망칩니다.

이. "알람 타카유랏" *또는 "개념[생각과 사상]의 영역'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인간이 가축과 지적 지각 없는 동물의 영역에 거주한다.*

삼. 세 번째 영역은 앞서 언급한 '*알람 마우후마트*' 또는 '분별되지 않은 자들의 분별의 영역'이다. 이 단계에서 인간은 염소와 말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즉 두 번째 단계의 지적 둔한 동물과 대조적으로, 이 단계에서 적을 인식하고 자연스러운 충동, 즉 늑대나 사자를 발견하는 순간 목숨을 구하려는 시도로 위험을 피하려 한다. 비록 이전에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무언가가 거대한 소, 낙타, 기린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주지만, 그들은 그들보다 더 크다. 이 본능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고 내재적으로 내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물들은 네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사. 네 번째 단계는 앞서 언급한 '*알람 마쿨라트*' 또는 '질서, 성취, 자기 인식의 영역'입니다. 세 번째 단계까지 인간은 여전히 무명에 머물러 있다. 사실 인간은 여기서 인간의 지위에 들어서며, 즉 인간의 영광의 영역에 들어섭니다. 이 단계에서 추측과 미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람 마수사얏*" 즉 "감각과 감성의 영역"에서는 인간이 다가올 일들을 피하고 올바른 관점에서 사물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사물을 보는 그대로 요약한다. 사물에는 실체, 즉 동일성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분류하려고 노력하면 대체로 성공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흐수사트*' 즉 '감각과 감각의 영역'의 세계에서 인간의 집중은 지상을 걷는 것처럼 분별력을 통해 전달되는 감정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물 위를 걷는 것처럼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승 단계, 즉 '*알람 마쿨라트*' 또는 '질서, 성취, 자기 인식의 영역'이다. 여기서 명확히 비교하면, 걷는 것은 영혼이 받아들이는 다른 성격의 사실에 기반할 수 있고, 따라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왈리스*', 즉 공중을 걷는 것과 같은 친밀한 친구나 성인들의 높은 지위입니다. 사람들은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에게 물었고, 예수(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나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예수는 물 위를 걸었지만,] 만약 그의 확신이 더 확고했다면, 그는 공중에 걸었을 것이다."

이는 그러한 것들이 "'*알람 이드락*" 또는 "상상 가능하거나 가능한 영역"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인간은 첫 번째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위상의 사다리를 오르며 천사적인 특성을 얻어 인간을 '*메라즈*', 즉 성취와 영광의 정점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상승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며, 꾸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스팔루스 사필렌'*(가장 낮은 곳의 최저층)에서* '아알라 일리예인'(높은 곳의 최고점)의 정점까지 이어집니다:

إِنَّا عَرَضْنَا ٱلْأَمَانَةَ عَلَى ٱلسَّمَٰوَٰتِ وَٱلْأَرْضِ وَٱلْجِبَالِ فَأَبَيْنَ أَن يَحْمِلْنَهَا وَأَشْفَقْنَ مِنْهَا
وَحَمَلَهَا ٱلْإِنسَٰنُ ۖ إِنَّهُۥ كَانَ ظَلُومًا جَهُولًا ﴿٧٢﴾

"우리는 하늘과 땅과 산에 신뢰를 바쳤으나, 그들은 그것을 지니기를 거부하고 두려워하였다; 분명히 부당하고 무지한 인간이 그것을 지니고 있었다." (꾸란 33장 72절)

인간이 동물과 돌의 최저 지위에서 천사의 받침대에 오르는 단계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이는 '*자마다트*'에 있는 땅 위의 돌, 성장, 식물 등 위험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른다. 반대로, "*아알라 일리인*" 즉 가장 높은 존재들은 영광의 절정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내려올 수 없다는 것은 꾸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وَمَا مِنَّآ إِلَّا لَهُۥ مَقَامٌ مَّعْلُومٌ

"우리 모두는 그곳에 알려진 기지가 있어." (꾸란 37장 164절)

동물들은 '*아스팔루스 사필렌*', 즉 가장 낮은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진전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 사다리의 중간 단계에 있는 인간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동물의 깊은 곳, 가장 낮은 층까지 가라앉아 [그들처럼 되려고]. 또한 천사(*'말라이카*') 높이까지 높이 날아올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슈라풀 마흘루카트*' 즉 모든 창조물 중 최고라는 중대한 책임을 짊어질 능력과 능력은 인간의 [진정] 본질의 문제이다. 이는 오직 최고의 인간, 즉 '*아슈라풀 마흘루카트*' 또는 모든 창조물 중 최고라는 위상을 가진 인간만이 이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이 논문의 의미와 목적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것을 피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삶 여정의 목적에 관한 담론은 지혜의 말씀을 집어 들고 그 내재적 가치를 집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깊은 생각거리가 됩니다. 이런 성격의 작품은 많지 않고, 이해하고 싶어 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논의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현명하지도 않고 신성한 법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키라*' 즉 내세의 상태에 대해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사실, 세속적인 욕망이 그들을 이길 때, 그들은 내세에 맞서 싸우는 것이 유리하다.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자신을 방어할 변명을 한다. 악마는 악행과 모든 부적, 도구로 그들을 부추기고, 심판의 날의 벌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환상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의로운 자들에게 낙원이 있다는 약속에 관해서도, 그들은 그것을 단순한 카리스마적 쇼맨십, 인간에게 건조하고 지루한 삶의 고난을 주기 위해 진화한 정신적 환상으로 낙인찍는다. 따라서 그들은 신성한 법을 따르는 자들을 얕잡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더기(겸손 한 *수피*, 영적 여행자, 영적 성취의 길을 걷는 이들의 옷)를 입고 그런 모든 고려를 우선시하는 척합니다. 그런 허세는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공로의 지위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사기꾼들은 자신들을 어떤 영적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다른 바보들에게도 해를 끼치는데, 그들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뒷받침할 논리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진짜 숨겨진 가치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들은 아무런 비장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 12만 4천 명의 예언자, 당시의 모든 현자들, 모든 학식 있는 학자들('*울레마*'), 성인들(하나님의 친구이자 측근 또는 '*아울리야*')이 모두 틀렸고

오직 그들만이 옳다면, 그들의 무지와 오만함에 비추어 이 주제에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누군가는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세와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진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아합*"), 영혼의 고문, 즉 감각적 지각의 지배로 인해 '영혼'의 원칙이 되는 것, 다섯 감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허술한 근거에서 잘못되었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실체화할 수 없다. 그런 자만심을 가진 사람은 즉시 자신이 올바른 요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진단받아야 한다. 특히 "내가 두 가지가 하나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듯이, 나는 '영혼'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영원함은 없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육체적 기쁨이나 고통은 영혼의 기쁨이나 고통과 함께 고려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وَإِن تَدْعُهُمْ إِلَى ٱلْهُدَىٰ فَلَن يَهْتَدُوٓا۟ إِذًا أَبَدًا

"그러니까, 그들을 인도로 부른다 해도, 그때조차도 결코 인도받지 못할 거야." (꾸란 18장 57절)

"왜 내가 경건함의 오두막에서 평생을 보내고, 세상이 주는 기쁨을 불필요하게 억제해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 영혼과 내세의 진실성에 대해 말하려는 단서가 전혀 없는데, 그것들이 나에게는 다소 터무니없어 보인다. 어쨌든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답은 "이제 이 정도를 받아들였으니 왜 신성한 법과 인도를 따르지 않느냐?"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합니다. 만약 접시에서 손을 내밀어 음식을 먹으려 했는데 뱀이 방금 입을 넣었다고 들으면 즉시 식사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이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당신 안의 신중함은 아무리 맛있어도 음식을 먹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아프고 생명이 위태롭다고 해도, 치유 부적을 쓰는 사람이 부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소량의 은화를 달라고 요청한다면, 당신은 의심과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구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또한, 투시자가 달이 어떤 단계에 도달하면 쓴 약을 복용하라고 말한다면, 그 환상과는 달리, 당신은 아마도 건강을 위해 누군가의 조언을 따를 것이며, 그 조언이 옳을 수도 있다는 근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12만 4천 명의 예언자, 수십 명의 현자, 학식적인 학자들("*울레마*"), 그리고 성인이나 하나님의 측근들("*아울리야*")이 틀리고 소문일 수 있는데, 돌팔이나 점쟁이가 옳을 수 있을까?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입장을 재고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옳다면, 왜 내세를 부정해야 하는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세속적 쾌락에 맹목적으로 빠져 내세에서 돌이킬 수 없이 타폐될 수 있다는 생각에 영감을 받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지속할 수 없는 내 버틸 수 없는 입장에서] 물러나지 말아야 합니까?

가정적으로, 전 세계가 호밀옥수수로 가득 차 있고 참새가 1,000년에 한 알씩 호밀옥수수를 주워야 한다고 해도, 호밀옥수수가 영원을 맞이할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부터 심판일까지 내세의 벌을 감수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배와 배를 타고 항해하며 생계를 위해 고난을 겪으며 상품을 판매합니다. 왜 인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가? 경건함, 끈기, 인내는 노력하는 이들에게 좋은 보상을 준다.

알리(신의 뜻이 그에게 있기를) [무함마드 예언자의 위대한 동료이자 사촌(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은 종교 토론에서 무신론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옳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고 [당신이 말하는 것이 틀리면]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며, 당신은 영원한 신의 응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알리(신의 기쁨이 그에게 있기를)는 현자였다. 그는 이 주장을 이보다 더 강력하게 펼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것에 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신론자의 사고방식을 고려해 자신의 진술 전제를 너무 강하게 포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일에 시간을 낭비하며 내세를 희생하는 사람("*아키라*"), 내세가 위기에 처해 있다. 여기서 제시된 강력한 논증과 제시된 예시들을 고려할 때, 반대자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확실한 기반(terra firma)에 서는 것이 적절하다.

وَالسَّلَامُ عَلٰى مَنِ اتَّبَعَ الْهُدٰى

"인도를 따르는 자에게 평화가 있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영지('마리파'), *자아('*나프스'), *이 세상과 내세에 관한 담론을 요약했습니다.* 신의 뜻이 있다면 이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을 위한* 40가지 필수 요소("아라칸" 또는 단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잘리는 그의 위대한 저서 『키미야에사아닷』(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을 위한 연금술 또는 변화의 변혁적 행위자)의 *네 가지 명칭(또는 요구사항)을 훌륭하게 설명하며 마무*리했다. 그는 이어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의 40가지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6]:

우리는 이미 다음 주제에 대해 꽤 길게 다뤘습니다:

일. 하나님의 *영지(*'마리파'),
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Nafs*"),
삼. 세상의 현실을 아는 것("*두냐*"), 그리고
사. 내세의 실재('*아키라*')를 아는 것.

하나님의 승인과 축복을 얻는 비밀은 진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예배하며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겸손하고 순종하는 종이 되어 예배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인간의 태도, 성격, 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개인의 일반적인 행동은 [인종, 종교, 피부색, 국적, 문화, 신념 등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종인 모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둘.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는 게 전부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자신의 행동이 신의 법과 인도의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인정받게 됩니다.

셋. 앞서 언급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외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영혼[또는 내면의 현실]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악과 그 파괴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악은 내면에 가해지고 외면에도 불길한 결과를 초래한다].

넷. 위에서 언급한 '하지 말아야 할 일'뿐만 아니라 그 '해야 할 일'도 철저히 챙겨야 한다. 즉, 마음과 영혼을 악으로부터 지킨 후 동시에 영혼을 선하고 덕 있고 고귀한 내면의 자질로 장식하고 장식해야 한다.

따라서 영혼에 악하고 해로운 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따르고, 선하고 순수한 모든 것을 하며 영혼의 아름다운 내면의 특성을 발전시키는 '해야 할 일'을 추구함으로써, 영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영혼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물리캇*' 또는 내면의 악(모든 부정적이고 해로운 경향, 특성, 성향, 내면의 상태)의 치명적인 영향으로부터 구원받으며, 영혼을 정화하고 아름답게 하며 장식하는 '*문지야트*' 또는 영혼의 내면[숭고한] 특성들로 강화되어 자신의 영혼이 정당하게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필수 요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을 가져오는 변화의 연금술 또는 변형 주체]는 각각 열 부분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가잘리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의 40가지 원칙(또는 단계)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40가지 원칙 중 20가지는 외적 삶을 이끄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20가지는 내면의 삶과 관련되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켜 삶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설명의 다음 두 부분에서는 가잘리가 그의 지혜 모음집 『*이히야 알울룸 앗딘*』('하나님의 길에 대한 지식의 부흥')에서 훌륭한 해설을 통해 우리 내면의 삶과 내면의 변화와 관련된 20가지 원칙을 간결하게 제시합니다.

인간의 현실과 인간 삶의 진정한 목적,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의 달성을 설명하는 이 논문의 첫 부분은 이제 마무리됩니다. 이제 이 논문의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됩니다.

2부: 내면의 파괴적 특성 –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 전체를 해치고 위험에 빠뜨리는 부정적 내면 특성

앞서 논의에서 인간의 내면적 존재와 삶의 진정한 목적을 설명한 후, 이제 우리는 영혼 깊숙이 내면에 내면의 파괴적 특성, 즉 하위 자아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내면 특성에 대해 설명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개인, 사회, 국가 전체, 그리고 전 세계의 복지에 명백히 파괴적이며, 오늘날 우리 내면의 존재, 사회, 공동체, 국가, 그리고 세상을 괴롭히는 고통을 초래합니다. 다음 두 장에서는 인간의 내면 현실을 더 깊이 탐구한 후, 다음 8장에서는 이러한 내면의 파괴적 특성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근절할 치료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가잘리는 마지막 저서에서 깊은 진리를 밝히며,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일어난 모든 고난, 혼란, 파괴, 재앙이 인간의 낮은 자아(*민하지 알-아비딘*)에 의해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썼다 또는 "숭배자를 위한 최선의 길", 3장 제목 "내면의 완성의 길에 있는 네 협곡의 장애물") 이 때문에 하위 자아의 파괴성을 내면에서 최대한 진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이 책의 두 번째 부분은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괴성을 물리치기 위해

택해야 할 길을 밝히며, 그 안에 내재된 긍정적인 힘들이 번성하고 개인과 사회, 그리고 전 세계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1장- 영혼의 신비를 아는 것은 자기 인식, 깨달음, 깨달음의 영적 여정의 필수 과제입니다

가잘리의 대표작 *『*Ihya al-Uloom ad-Deen*』 또는 "하나님의 길에 대한 지식의 부흥" 중 3권 또는 4분의 1의 첫 번째 책*은 마음과 영혼의 경이로움과 신비, 그들이 부정적인 생각에 갇히는 과정,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보호되고 양육되어 선함과 긍정의 길을 생각 속에서 걸을 수 있는지를 다룬다. 감정, 말, 행동, 존재. 이 놀랍고 눈을 뜨게 하는 설명은 모두가 내면의 평화, 평온, 진정한 행복을 얻는 방법을 안내할 것입니다. 가잘리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제시된다 [7]:

자아(Nafs*), 영혼(*Ruh*), 마음(*Qalb*), 지성(*'Aql)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목적

이 네 가지 용어는 내면의 파괴적 특성과 건설적 특성, 특성, 성향, 성향, 기질과 관련된 논의에서 풍부하게 사용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용어의 진정한 의미를 잘 알고 그 의미의 차이, 한계, 함의를 올바르게 아는 학자들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의도에서 실수가 발생합니다. 이 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도와 목적(영혼의 경이로움과 신비를 설명하려는 목적)과 관련하여 설명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용어 – 심장(*Qalb*): '심장'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슴 왼쪽에 있는 살 조각입니다. 이 살은 중앙에 검은 피가 흐르는 틈이 있는 특이한 종류의 살로, 영혼과 삶의 수단의 샘입니다. 그러나 그 형태, 형태, 상태에 대한 설명은 논의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사들이 다룰 주제입니다. 종교적, 영적 문제는 인간을 제외하면 동물도 이 피가 없지 않으며, 죽은 몸과 살아있는 몸 모두 이 염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심장'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사용되든, 그것은 물리적 형태, 형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의 조각이며 가시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눈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의 두 번째 의미는 '마음'이 신체 안의 물리적 심장과 관련된 신성한 영적 미묘함이며, 바로 이 미묘함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식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신성하게] 다루어지고 징계와 결과를 받는 사람입니다. 지성은 이 미묘함["마음"]이 물리적 심장과 맺는 연결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결은 차원이 신체와 같고, [내면] 특성이 그 특성을 가진 자와 도구를 가진 사람, 도구 사용자와 거주자와 맺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유사성, 관계, 연결은 두 가지 이유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첫째, 이 책은 영적으로 드러난 지식(*울룸 알-무카샤파*)과 관련이 있고, 이 책의 목적은 계시된 지식(*울룸 알-무암라*)의 설명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영혼의 비밀에서 막을 걷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비밀은 너무 심해서 예언자의 언어에서 아무런 언급이나 계시도 없었다 [즉,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를 포함한 어떤 예언자들도 영혼의 비밀에 대해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비예언자가 [성인이나 영적으로 완성된 개인일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이 책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든, 이는 앞서 언급한 신성한 영적 미묘함을 가리키는 것이며 [인간 몸의 물리적 심장이 아님]을 의미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미묘함['heart'이라 불리는)의 상태와 특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 현실성과 구성에 대한 논의는 제 목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용어 – 영혼(*Ruh*):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영혼'이란 물리적 심장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미묘한 물질의 이름입니다. 이 중심에서 영혼은 정맥과 동맥을 통해 온몸으로 퍼집니다. 영혼이 몸 안으로 퍼지고 신체 부위에 생명의 빛을 부여하며 오감에만 특유의 감각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집에 설치된 등불과 그 빛이 집 안으로 퍼지는 것과 비슷하다. 이 유사성은 '영혼'이 등불의 역할을 하며, 생명은 빛과 비슷하며, 몸을 흐르는 영혼은 주변에 빛을 퍼뜨리고 스며드는 등불과 비슷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영혼"이라는 용어의 이 의미는 의사들의 용어와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 영혼은 미묘한 열병 또는 가벼운 열병으로, 그 자체의 기원은 비교적 온건하며, [육체적] 심장의 정맥에서 비롯되며 자신의 열기에서 형성된다. 이 [영혼]의 의미는 이 논의와는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신체 질환에 대한 치료를 제공하는 의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입니다. 마음의 질병(즉, 내면의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종교 의사들(영적 스승)들은 이 의미에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영혼은 인간 안에 있는 지각적 미묘함이라고 말한다. 이 미묘함에 대한 설명은 심장에 대한 설명에서도 제공되었다. 다음 구절들은 같은 의미를 가리킵니다:

قُلِ ٱلرُّوحُ مِنْ أَمْرِ رَبِّى

"그들에게 전하라(오 예언자 무함마드여) 영혼이 나의 주님의 명령에서 왔음을." (꾸란 17장 8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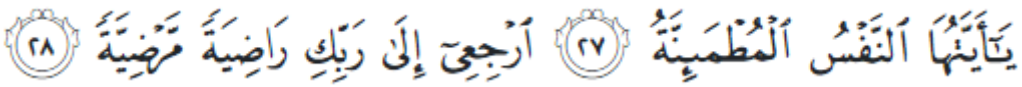
그것은 너무나 신비롭고 신성한 미묘한 존재라 대부분의 지성은 그 현실성과 구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용어 – 자아(*Nafs*): 이 용어의 의미는 여러 다른 용어와도 공유됩니다. 이 용어의 두 가지 의미는 이 설명의 목적과 가깝습니다. 첫째, '자아'(*Nafs*)는 인간 안에 분노, 진노, 육체적 쾌락의 힘들이 모인 존재입니다. 이 의미는 영 적 완성, 깨달음, 그리고 결과적으로 신의 친밀함과 영지(Gnosis)를 추구하는 수피들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아와의 내면의 영적 투쟁(*무자하다*, 나프스)과 그로부터 나오는 육체적 쾌락의 욕망을 통제하고 길들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무함마드 선지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다음과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적은 당신 안에 있는 사람(즉, 당신 자신)입니다." (하디스 [예언적 가르침] 모음집에서 발췌 *이븐 압바스의 권위에 따른* 바이하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자아의 두 번째 의미(*Nafs*)는 앞서 언급한 신성한 영적 미묘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의미에 따르면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자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자아는 상황에 따라 다른 내면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성한 순종과 평화를 이루고 반대와 의심이 사라질 때, 이를 '자아 평온'(*Nafs al-Mutma-inna*)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로운 자아"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 평화로운 자아여! 주님께 돌아가 그분과 그분께 기뻐하시는 상태로." (꾸란 89장 27-28절)

앞서 언급한 자아의 의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즉 하나님께 봉사하는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서 우리는 사탄에 의해 영감을 받고 부추기는 신성한 인도에 대한 반항과 거부를 발견합니다. 또 다른 자아 상태는 완전함, 복종, 신에 대한 숭배가 결여되어 있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꾸짖는 것이다. 이 상태의 자아를 '자아'라고 불린다(*Nafs al-Lawwama*).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وَلَآ أُقۡسِمُ بِٱلنَّفۡسِ ٱللَّوَّامَةِ

"나는 자신의 부족함과 악을 자책하는 자기 자신을 맹세한다, 즉, *나프스 알-라와마*]." (꾸란 75장 2절)

또 다른 자아 상태는 근본적인 저속한 욕망의 흐름과 압력을 막는 데 무력하며, 그것에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다. 그 상태의 자아는 '악한 영감을 주는 자아'(*Nafs al-Ammaratu bi as-Su*)라고 불린다. 꾸란은 예언자 요셉(유수프)(하나님의 평화가 그에게 있기를)과 이집트 통치자와의 사건에서 그 상태의 자아를 언급합니다:

وَمَآ أُبَرِّئُ نَفۡسِيٓۚ إِنَّ ٱلنَّفۡسَ لَأَمَّارَةُۢ بِٱلسُّوٓءِ

"나는 순수함을 부여하지 않으며, 내 '자아'를 순수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낮은 자아는 오직 [인간의 마음속에] 악을 부추길 뿐이기 때문이다." (꾸란 12장 53절)

본질적으로 '자아'(*나프스*)는 악에 빠지고, 저급한 욕망과 육체적 쾌락에 대한 성향(*나프스 알-아마라투 비 아스-수*)일 때는 나쁘고, 평화롭고 신성한 계명과 인도에 만족하며 모든 형태의 악과 부정을 피할 때는 선하고 칭송받을 만하다(*나프스 알-무트마-인나*).

네 번째 용어 – 지성(*'Aql*): 이 용어 역시 여러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중 두 가지 의미는 이 책의 목적과 가깝습니다. 첫 번째는 '지성'이 사물과 사물에 대한 현실에 대한 지식이라는 점입니다. 이 경우 지성은 지식의 [내면] 특성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거처는 마음이다. 때때로 '지성'은 마음의 특성인 지식(*무드릭 알-울룸*)을 가리킵니다. 이 의미의 경우, '지성'은 앞서 세 용어에 대해 설명한 신성한 영적 미묘함과 동일하다. '지성'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한 설명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이나

지식 있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며 명백하고 가시적이라는 현실을 알고 있으며, 지식의 특성이 그러한 자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성이나 특성은 소유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지성'은 때로는 지식이라 불리는 특성을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 특성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언적 서사(예언자 무함마드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것은 지성이었습니다 (*'아클*)".

여기서 언급된 특성은 지식이 될 수 없는데, 지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신체(span)이다. 왜 몸이 먼저 창조되는가? 먼저 이해의 거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창조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이 거주지의 특징인가, 아니면 둘 다 함께 창조되어야 하는가? 또한, 지식의 특성에 대해서는 다룰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중요한 용어에 대한 논의]의 결론은, 이 네 용어의 의미가 유사하면서도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 용어의 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용어들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안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네 용어의 의미 차이와 유사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꾸란과 하디스(예언자 무함마드의 예언적 이야기)에서 '마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곳에서, 그들은 사물의 현실을 인식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 능력은 인간 안에 존재합니다. '심장'이라는 단어는 이 지각 능력이 물리적 심장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 능력을 지칭하고 암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능력은 몸 전체와 관련되어 있고 신체의 모든 부위를 이용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신체 부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고 오직 신체 심장을 통해서만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 몸의 육체적 심장이 이 신성한 영적 미묘함의 거처이며, 지식이 풍부한 수도이자 이 산의 기수임을

의미합니다.... 즉, 육체적 마음은 이 신성한 영적 미묘함['심장' 또는 '영혼'이라 불림)의 왕국이며, 그 위에 앉아 몸의 왕국 전체를 다스리는 왕좌입니다. 물리적 심장은 이 미묘함의 지배의 출발점이다. 결론적으로, 신성한 영적 미묘함인 '마음'이 육체와 육체와 맺는 연결은 하나님이 '*아르쉬*'(또는 '신성한 전능의 지배')와 '*쿠르시*'*(또는 신성한 보좌, 또는* '최고의 신성한 탁월함의 천상의 자리')와 맺는 연결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군단 (*칼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وَمَا يَعْلَمُ جُنُودَ رَبِّكَ إِلَّا هُوَ

"주님의 군대를 아는 사람은 그분뿐이다." (꾸란 74장 31절)

이 구절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군대를 언급합니다. 이 군대들은 하트, 영혼, 그리고 수많은 다른 우주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논의 주제가 하트이기 때문에, 하트의 군대들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마음에는 두 개의 군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눈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지성(*'Aql*)'의 눈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왕과 같고, 그 군대는 왕의 신하이자 종과 같다. 외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군대에는 손, 발, 눈, 귀, 혀 및 신체의 모든 다른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신체 기관들은 외부든 내부든 마음의 종이며, 마음의 명령에 복종하고 섬기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그들의 의무는 마음에 대한 봉사와 복종이며, 반항하거나 마음의 욕망과 바람에 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눈이 열리라고 명령받으면 열리고, 닫으라고 명령하면 닫힙니다. 발이 움직이라고

명령받으면 움직이고, 혀가 말하라고 명령받으면 말합니다. 모든 장기가 그렇습니다. 그들의 복종은 몇 가지 이유로 천사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천사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들의 창조의 목적이 [신성한] 복종이기 때문에 이 목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 현재 있는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لَّا يَعْصُونَ ٱللَّهَ مَآ أَمَرَهُمْ وَيَفْعَلُونَ مَا يُؤْمَرُونَ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들은 대로 행동한다." (꾸란 66장 6절)

하지만 천사의 복종과 신체 기관의 복종 사이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천사는 자신의 복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신체 기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열라고 하면 열리지만, 자신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며, 왕과 그 통치인 마음에 복종하며 열리고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마음이 탈 말과 신성한 실재로의 영적 여정(*술룩*, 즉 가잘리가 이전에 말한 '마리파' *또는 하나님의 영지에 도달하기 위한 영적 투쟁*, 즉 삶의 목적을 가진 것)를 위한 준비물이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도움을 주는 이와 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도시가 만들어진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وَمَا خَلَقْتُ ٱلْجِنَّ وَٱلْإِنسَ إِلَّا لِيَعْبُدُونِ

"그리고 나는 *지*상에 존재하는 초자연적이고 보이지 않는 존재인 진과 인간을 내 숭배를 위해 창조했다." (꾸란 51장 56절)

마음의 승리는 몸이고, 지식은 이 [영적] 여정을 위한 공급이며, 이 준비를 얻는 방법은 의로운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즉, 인간)도 이 세상에 머물며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가장 가까운 목적지의 이정표에 도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저승의 농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향한 인도의 목적지 중 하나입니다. 이 도시는 근접 목적지이기 때문에 '세계'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이 [가장 가는] 목적지에서 식량을 챙겨야 합니다. 몸은 신성한 현존 또는 신의 영지에 도달하는 [궁극적] 목적지에 도달하는 승마 말의 지위를 가지므로, 몸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체의 보존과 보호는 건강과 웰빙에 유리한 음식을 주고, 해롭거나 치명적일 수 있는 음식을 피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음식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개의 군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내면의 식욕(욕구, 배고픔)이고, 두 번째는 손이나 음식을 얻는 데 사용되는 다른 신체 기관과 같은 외부 군대이다.

바로 이 이유로 마음속에 욕망이 창조되었고, 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외부 신체 기관들이 부여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괴적인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인간에게 두 개의 군대가 부여되었다. 첫 번째는 내면의 존재, 즉 '분노'에 있고, 두 번째는 손과 발로 이루어진 외면에 있습니다. 인간은 분노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이 장기들이 몸에 존재하는 것은 군인이 무기와 전쟁 도구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음식에 대한 욕구와 필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인간은 음식의 상태를 알아야 하며, 그래서 내면과 외부 군대가 필요합니다. 외면군에는 청각, 시각, 후각, 촉각, 맛과 같은 오감이 포함되며, 내면군에는 이 다섯 감각의 지각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종과 도우미에 대해 많은 논의가 가능합니다. 이 논의는 너무 세밀해서 책 한 권 분량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감사의 책(현재 책 『하나님으로 가는 길의 지식의 부흥』) (12장)에 이에 대해 글을 쓰려고 시도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자(*살릭*)는 그것에 만족해야 한다.

마음의 종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익을 얻거나 해를 막기 위해 무언가에 대한 욕망을 심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예는 욕망(예: 배고픔)이고, 두 번째 예는 분노입니다. 이 유형의 하인은 '의도(intent)'라고도 불립니다. 두 번째 유형은

목적 달성이나 의도 완수를 위해 사지(또는 신체 기관)를 움직이게 하는 하인들이다. 이것은 '힘' 또는 '능력'(Qudra)이라 불리며, 모든 장기와 신체의 모든 동맥과 정맥에 퍼져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스파이와 같은 존재의 현실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지식을 얻는 하인들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능력도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힘들은 각자의 기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유형을 '지식과 지각'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내면의 하인들과 함께, 손가락으로 움켜쥐는 힘이나 눈으로 보는 능력 등 도구이자 원인의 역할을 하는 외적 하인들이 있습니다. 다른 힘과 기관들도 비슷하게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논의의 초점은 물리적 영역과 관련된 외부 기관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고 관찰할 수 없는 내면의 조력자와 하인들, 즉 '지각과 이해의 힘'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 지각의 힘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부는 외부 기관에 위치하며, 청각, 시각, 미각, 촉각, 후각의 다섯 감각이고, 일부는 뇌의 정맥에 존재하며 역시 다섯 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보고 눈을 감으면, 본 것의 그림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는데, 이를 '상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후 이 이미지는 그 대상을 기억하는 것과 연관되고, 이를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기억 속에 남은 것을 숙고하고, 어떤 것들을 다른 것들과 연결하며 잊혀진 것을 기억하며, 그 사물의 그림이나 이미지가 다시 마음속에 떠올라 모든 감각 지각을 그의 생각에 모을 때, 그것을 기억, 명상, 그리고 공유된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암기, 관상, 기억, 상상, 사고의 힘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뇌도 손과 발이 의도된 힘 외에는 다른 힘이 없는 것처럼 이런 힘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힘들이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 안식처도 내면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심장의 여러 종류의 군단입니다. 이해하고 이해하는 데는 원지력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부족한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세부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유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예시를 사용할 것입니다.

마음의 내면의 종들(*Qalb*)과 그들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들

분노와 욕망, 두 마음의 종이 마음에 완전히 복종하고 복종할 때 그것은 영적 길에서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하트는 그들을 영적 여정에서 최고의 동반자이자 이타적이고 진실된 도우미로 여깁니다. 때때로 이 두 하인은 불복종과 반항에 집착하여 마음을 따르기보다는 마음을 억지로 복종하게 하여 마음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게 한다. 하지만 마음에는 이들 외에도 다른 종과 조력자가 있으며, 욕망과 분노가 반항으로 기울면 마음은 실망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마음의 다른 종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분노와 욕망이 사탄의 무리에 합류하기도 합니다. 만약 마음이 신성한 군단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분노와 욕망의 군대가 자아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나프스*), 그것은 파멸과 엄청난 상실로 가는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 있으며, 그들의 지성은 욕망과 갈망에 복종하며 그 충족을 위한 변명을 찾습니다. 오히려 욕망과 바람이 그들의 지성에 종속되었어야 했다. 이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통해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첫 번째 비유: 앞서 여러 차례 언급된 신성한 영적 미묘함 같은 인간 자아가 그 나라와 수도의 왕과 유사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바디는 그 지배권의 중심지이자 수도입니다. 신체 기관은 왕실 지팡이와 유사합니다. 지성의 힘은 그 진실한 조언자이자 지적이고 충성스러운 목사입니다. 분노는 그 보조원이자 도시 판사 역할을 하며, 왕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왕실 의무에 포함된다. 욕망(또는 욕망)은 도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책임이 있는 그 말썽 있고 성격이 급한 하인이다. 이 사람은 상습적인 거짓말쟁이고, 속임수이며, 악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진심처럼 보이지만 그 진심이라는 겉모습 뒤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어 있습니다. 진심 어린 조언자이자 목사(즉,

지성)의 의견과 계획에 반대하는 것은 그 본질이자 습관이며, 지성을 반대하지 않는 순간이 단 한 순간도 없다. 이 경우, 왕이 장관의 제안과 계획에 따라 행동하고, 상의하여 이 악한 하인을 피함으로써 통치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이 하인과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임을 보여준다면, 또한 도시 판사(즉, 분노)에게 이 악한 하인과 그 추종자들을 주시하고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면 처벌하라고 지시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 하인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고 왕에게 복종하며 복종하며 정부가 정의와 규율 속에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자아(*나프스*)가 계속해서 지성의 도움을 구하고 때때로 분노의 경호를 통해 욕망에 타격을 가한다면; 때로는 욕망(또는 욕망)으로부터 도움을 구해 분노의 힘과 지배를 줄이려 한다. 그러면 모든 힘과 능력이 균형 상태를 유지하며, 버릇과 성격은 선하게 유지된다. 만약 그것이 이 [절제된] 길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أَفَرَءَيْتَ مَنِ ٱتَّخَذَ إِلَٰهَهُۥ هَوَىٰهُ وَأَضَلَّهُ ٱللَّهُ عَلَىٰ عِلْمٍ

"당신은 하층 자아로부터 욕망을 신으로 삼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오도했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꾸란 45장 23절)

وَٱتَّبَعَ هَوَىٰهُ ۚ فَمَثَلُهُۥ كَمَثَلِ ٱلْكَلْبِ إِن تَحْمِلْ عَلَيْهِ يَلْهَثْ أَوْ تَتْرُكْهُ يَلْهَث

"그는 자신의 저급한 욕망과 정망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의 상태는 마치 공격하면 숨을 헐떡이고, 그냥 내버려 두면 여전히 헐떡이는 개와 같아졌다." (꾸란 7장 176절)

꾸란은 욕망의 속임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자에 대해 말합니다:

وَأَمَّا مَنْ خَافَ مَقَامَ رَبِّهِۦ وَنَهَى ٱلنَّفْسَ عَنِ ٱلْهَوَىٰ ﴿٤٠﴾

فَإِنَّ ٱلْجَنَّةَ هِىَ ٱلْمَأْوَىٰ ﴿٤١﴾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며 자기 자신을 막으신 자(*나프스*저급한 욕망과 욕망에서 벗어나 천국이 당신의 거처가 될 것이다." (꾸란 79장 40-41절)

서로에게 분노와 욕망을 가하는 상태와 이 [내적 투쟁]로 얻은 이익은 신의 뜻이라면 자기 자신을 훈육하기 위한 영적 투쟁 장에 명시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 신체가 도시이고, 지성, 즉 인간의 지각력이 지배자이며, 외부와 내부 감각이 그 조력자이자 병사이며, 신체 기관이 주체라고 가정해 봅시다. 하등 자아는 악에 기울어져 있는(*나프스 알-아마라*), 욕망과 분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적이며 지성의 정부를 장악해 모든 주체를 죽이려 합니다. 이 경우 몸은 도시 통치자가 직접 적과 싸우는 전장에 해당합니다. 만약 전투를 지배해 적을 도망치게 한다면, 이 싸움은 왕실에서 찬사와 찬사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فَضَّلَ ٱللَّهُ ٱلْمُجَٰهِدِينَ بِأَمْوَٰلِهِمْ وَأَنفُسِهِمْ عَلَى ٱلْقَٰعِدِينَ دَرَجَةً

"하나님께서는 집에만 앉아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자신과 부로 노력하는 이들의 계급을 높이고 높여주셨습니다." (꾸란 4장 95절)

하지만 만약 그것(즉, 지성)이 용감하게 행동하지 않고 적(즉, 하등자아)에게 패배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행위가 되어 부주의로 인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언적 전술(*하디스*)은 다음과 같이 같은 노력을 언급한다:

رجعنا من الجهاد الاصغر الى الجهاد الاكبر

"우리는 작은 노력(침략군에 맞서 정당한 자기방어와 자기보존을 위해 싸운 싸움)에서 더 큰 노력(자신의 악한 성향을 물리치기 위한 영적 투쟁)으로 돌아오고 있다."

세 번째 비유: 지성을 사냥을 목적으로 출발하는 라이더라고 가정해 봅시다. 욕망과 욕망은 그 말이고, 분노는 그 개다. 만약 기수가 사냥 전문성, 말 훈련, 개를 길들였다면 목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수가 사냥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환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기수가 이 기술을 모르는 경우, 말은 반항적이고 개는 미친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공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무사히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기수의 지식과 전문성 부족은 인간의 무지와 같고, 말의 반항은 욕망의 지배와 같으며, 개의 광기는 분노의 지배와 같습니다.

인간 심장(*Qalb*) 의 특성

지금까지 언급된 것들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욕망, 분노, 내외적 감각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에게도 존재합니다. 염소가 늑대를 바라보면 공격하려는 의도를 이해하고, 마음에서 그것을 감지하면 도망칩니다. 이것은 인간에만 국한되지 않는 내면의 인식이며, 지성이 없는 동물들조차도 이 능력을 사용하며 이를 통해 이익과 해를 인식합니다. 여기서 목적은 인간만의 특유한 사안을 모으고, 그 때문에 인간은 다른 창조물보다 우월하고 탁월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친밀함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관련된 문제는 단 두 가지뿐임을 알리고자 한다: 첫째는 지식이고 둘째는 의도다. 여기서 지식이란 세속적, 다음 세계적, 지적 현실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와 현실은 감각을 통해 인지되지 않으며,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논리와 이성도 지성에만 특유하는데, 오직 인간만이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들만 봤지만, 이 원칙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이 원리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지성과만 관련된 추가 문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획득된 지식과 외부 지식이 있을 때, 개인적 관찰을 통해 얻은 지식이 그 원칙에 더 합당하다. 인간이 어떤 사물의 최종 결과를 보고 그 안에서 선함을 발견하면, 그것은 그것에 대한 유사성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열정이 생깁니다. 이 의도는 동물에게도 존재하는 '욕망'이나 '정욕'과는 반대입니다. 욕망과 의도의 차이는 한 예에서 명확할 수 있는데, 욕망이 병들 때 모든 종류의 맛있는 음식에 기울어지지만, 지성은 그것을 해롭다고 판단해 이 탐닉을 멈추게 합니다. 이 금지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성과 인간에 호소하는 의도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지성 창조의 목적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지식과 의도가 동물이나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발견되지 않는 두 가지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대신, 이 [옳고 그름, 해롭고 유익한 것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과 지성]은 사춘기 이후에 주입되는데, 욕망, 분노, 외감과 내면의 감각이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 습득의 두 단계: 우리는 아이가 사춘기 이후에 이 [지식과 지성]의 특성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취득 또는 취득은 두 가지 학위로 구성됩니다. 1등급은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었을 때, 즉 불가능을 불가능으로 생각하고 가능한 한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본은 알고 있지만 관찰된 지식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지식과 관련하여 관찰된 지식을 습득하는 데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서예에 익숙하지 않지만 잉크, 펜, 글자 같은 서예의 도구에는 익숙한

서예가와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서예가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예술과 가까워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경험, 사색, 능동적 학습을 통해 이러한 지식의 풍부함을 얻고, 언제든지 이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억의 저장소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글을 쓰지 않는 전문가 서예가와 같지만, 서예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언제든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이 등급에는 무수한 계급이 있습니다. 지식의 양, 더 많든 적든, 노력, 조사 방식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른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마음은 영적 각성이나 영감(*일함*), 영적 드러남(*카쉬프*)을 통해 이러한 지식을 인식합니다. 어떤 마음은 교육과 학습을 통해 그것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똑똑하고 빠르게 학습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도 몇 초 만에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둔하고 학습이 느려서 반복과 숙고, 숙고 없이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학자, 현명자, 예언자, 성인들의 계급은 이 지식에서 모두 다르다. 최고 계급에 관해서는 지식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한계나 끝이 없습니다. 그 중 가장 높은 계급은 전능하신 분의 은총으로 대부분의 또는 모든 현실을 아무런 노력이나 배움 없이 계시하는 예언자에게 있습니다. 이 행운과 진정한 성공(*사아다*)은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이 친밀함은 장소와 거리의 근접성이 아니라, 영적 의미, 현실, 내면의 특성 측면에서 가까운 관계입니다. 신성한 존재와의 친밀함 속에서 계급을 올라가고 영적 여정의 한 정거장에 머무르는 것은 영적 여행자들에게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 영적 여정에는 계급, 학위, 지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여행자는 지나간 이정표는 알지만, 미래의 이정표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들을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언자와 예언자를 믿는 것처럼, 예언자의 실재는 예언자들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마치 태아가 젖을 먹이는 아기의 상태를 모르고, 젖을 먹이는 아기가 이해하기 시작한 나이 든 아이의 상태를 모르는 것과 같으며, 그런 아이는 다시 성인이 된 지적인 사람의 상태나 자신이 얻은 지식을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분별력 있거나 지적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인들과 예언자들에게

어떤 축복과 영적 은총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비밀(보지 않는 영역에서 온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현실)이 그들에게 드러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مَّا يَفْتَحِ ٱللَّهُ لِلنَّاسِ مِن رَّحْمَةٍ فَلَا مُمْسِكَ لَهَا

"하나님께서 자비와 축복의 문을 열실 때, 그 문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꾸란 35장 2절)

이 신성한 자비와 축복은 신의 관대함과 은총에서 비롯된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이며, 인색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디스*(예언자 무함마드의 전승 또는 전통)에 언급된 대로 신의 자비와 관대함의 바람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마음 속에서 드러난다(예언자 무함마드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ان لربكم في ايام دهركم لنفحات الا فتعرضوا لها

"너희 생애의 날들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이 많은 바람이 있다. "그것들을 주시해야 합니다 [준비가 되고 받을 수 있을 때 받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을 기다리며 경계하라"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악한 성격과 예절로 인해 마음과 영혼에 쌓인 탁함, 불순물, 더러움을 정화하고 정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곧 자세히 설명될 예정입니다. 이 신성한 관대함과 관대 함은 다음 *하디스*(예언자 무함마드의 이야기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에서 언급되었습니다:

ينزل الله كل ليلة الى سماء الدنيا فيقول هل من داع فاستجيب له

"하나님은 매일 밤 지상 하늘(즉, 일곱 하늘 중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허락해 주려고 구하는 자가 있습니까?'" (내레이션 *하디스* 컬렉션 *부카리*

그리고 *무슬림* 아부 후라이라와 아부 사이드의 권위에 따라 [신께서 두 사람 모두에게 기쁨이 있기를])

하*디스 쿠드시*(예언자 무함마드의 전통에 따르며, 그가 인용한 신의 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의 자비를 선포합니다:

لقد طال شوق الابرار الى لقائي وانا الى لقاءهم اشد شوقا

"경건한 의인들은 나를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그들을 만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내레이션 *아부 알다르다의 권위에 따른* 하디스 *모음 집* 마스나드 알-피르다우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من تقرب الى شبرا تقربت اليه ذراعا

"나에게 한 스팬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자는 나도 손으로 가까이 다가간다." (내레이션 *하디스*는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부카리*와* 무슬림*을 모으고* 있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이 전통들에서 배운 것은, 마음이 [영적] 지식과 지혜의 [내면] 빛이 결여된 것은 창조주와 하나님의 방해나 인색함 때문이 아니라, 악, 탁함, 더러움, 그리고 하나님 이외의 집착 때문에 마음이 이 [내면의 영적] 빛을 잃는 것임을 배웁니다. 심장은 그릇과 같아서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공기가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지(*마리파*)의 빛은 하나님 외에 빠져드는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لولا ان الشياطين يحومون على قلوب بني آدم لنظروا إلى ملكوت السماء

"만약 악마가 아담의 자손들(즉, 모든 인간)의 마음 주변에 떠 있지 않다면, 그들은 [그들의 내면의 순수함, 명료함, 영적 탁월함 때문에 하늘의 지배를 목격했을 것이다]." (내레이션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른* 무스나드 아흐메드 *하디스* 모음 집)

요약하자면, 인간의 특수성과 독특한 특성은 지식과 지혜에 기인하며, 가장 뛰어난 지식은 신의 존재(*Dhat*), 특성(*Sifat*), 행동(*Af'aal*)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 속에 인간 완전함의 비밀이 있으며, 이 완전함은 최고의 행복, 끝없는 승리, 그리고 영원한 행복(*사아다 아바디야*)에 달려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이 살며 신성한 임재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몸은 자아(나프스)의 탈것(또는 수송 수단)이며, 자아는 지식의 거처이며, [신성한] 지식(신의 영지(Gnosis of God 또는 *Ma'rifa*)은 인간 삶의 진정한 목적이자 그 사람의 구별되는 특성이다. 하나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말이 당나귀와 함께 엄청난 무게를 나눌 수 있는 힘과 강인함을 공유하면서도, 웅장함, 아름다움, 속도 면에서 훨씬 우월하듯, 인간이 당나귀나 말보다 우월하게 만드는 특정한 특성들이 있는데, 이 구별되는 특성들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천사의 특성에 속합니다. 인간은 천사와 동물 사이의 창조물이다. 음식과 영양 측면에서 하나는 식물이기 때문이다; 감각, 움직임, 능력, 행동 면에서 사람은 동물이다; 외관과 구조 면에서는 벽에 걸린 이미지와 같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사물에 대한 현실 인식의 특성이 동물과 구별된다. 자신의 신체 기관과 감각을 지식과 행동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며[그 지식에 따라 [가장 우월한 지식은 영지의 상태를 부여하는 신성한 지식임을 염두에 두고], 천사와 닮을 뿐만 아니라 천사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천사"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말락 라바니*)와 마치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셉(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의 아름다움을 목격하는 여성들을 만드셨듯이, 고백하신다:

مَا هَٰذَا بَشَرًا إِنْ هَٰذَآ إِلَّا مَلَكٌ كَرِيمٌ

"이것은 사람이 될 수 없으며, [대신] 하나님의 천사이다." (꾸란 12장 31절)

신체적 즐거움을 생각과 행동(즉, 삶의 목적)의 중심으로 삼고 완전히 몰입하는 사람은 마치 방목과 먹는 것 외에는 아무 목적도 없는 소와 같아 동물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럴 경우, 사람은 황소처럼 어리석거나, 돼지처럼 탐욕스럽거나, 개처럼 화가 많거나, 낙타처럼 신랄하거나, 치타처럼 오만하거나, 여우처럼 교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특성과 동물적 특성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악마(*샤이탄 알-라짐*)가 될 것입니다.

감사와 감사의 책에서 설명하듯,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친밀함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외부 기관이나 감각(또는 능력)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장기를 올바르게 (올바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자는 성공을 거두고, [신의 계명]을 어기는 자는 큰 손실을 입고 굴욕을 당합니다. 행복과 성공의 완전함, 그리고 복지의 완전함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며, 이후에는 진정한 집으로, 현재의 세상을 일시적인 이정표나 정거점으로, 몸은 승마로, [신체적] 장기와 감각을 종으로, 그리고 지각과 이해의 능력이 [육체적] 심장의 중간 부분에 머무르는 것이다, 왕으로서 뇌의 앞부분에 있는 사고와 상상력을 고려하며, 감각에서 온 소식이 하나에 전해지고 기억, 기억, 기억의 능력에 머무르며, 재무관처럼 그것들을 보호합니다(즉, 감각으로부터의 소식). 혀는 그 표현이자 대변인이고, 활동하는 기관은 그 행위자이며, 오감각은 그 왕국의 스파이이며, 이 각각의 감각은 뉴스 탐색과 공급을 위해 지정된다. 눈의 책임 영역은 색의 세계와 관련되어 있고, 귀는 소리의 세계에, 코는 냄새의 세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감각은 각자의 세계에서 소식을 축적하여 사유와 숙고의 능력에 제공합니다. 사상과 사상의 능력, 즉 전달자는 이 소식을 왕국의 재무관, 즉 기억의 능력에게 전달한다. 기억 능력(인식과 숙고의 능력)은 왕에게 소식을 전달하고, 국가 업무를 운영하고 여정을 완수하며 국가의 적을 물리치고 도적을 처리하는 데 유용한 뉴스를 선택합니다. 장기와 감각에 그들의 책임을 알리고 분비에 집중하게 하는 것은 큰 행운이자 성공이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장기와 감각을 책임

다하지 못하게 두는 자는 불운하고 굴욕적인 패배자다. 그런 자는 신의 은혜를 부정하는 자이며, 적에 맞서 신성한 군단이나 군대를 낭비하고, 적을 존중하며, 신성한 군단을 모욕했다. 결국, 한 사람은 저세에서 엄한 벌과 수치를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내세의 수치와 그분의 응징으로부터 하나님의 피난을 구합니다. 아멘.

위에서 언급한 비유는 카압 알-아흐바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전통을 통해 확인된다 [그는 무함마드 예언자의 동료이자 조력자였다. [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그는 아이샤(신께서 그녀를 기뻐하시길)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의 아내이자 예언자 전통의 위대한 전승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눈은 길잡이이고, 귀는 보호자이며, 혀는 대변인이자 전달자이며, 손은 군대, 발은 전령, 마음은 왕이다. 왕이 선하다면 그의 신하들도 좋을 거야." 그녀는 "맞아요. 나는 무함마드 예언자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이 전통 은 *아부 나이임*은 『예언적 의학』에서, 아*트-타바라니*는 『*마스나드 앗-타신*』에서, *바이하키*는 『*샤압 알-이만*』에서 예언자 동료이자 조력자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알리(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그는 무함마드 예언자의 동반자이자 도우미(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마음을 비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그들 중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사랑받는 분은 가장 부드럽고 순수하며 단단한 분입니다. 마음의 부드러움, 순수함, 단단함은 형제들에게 부드럽고, 확신 속에서 맑고 순수하며, 신성한 길(*딘*) 에서 확고하다."

우바이 빈 카압(신께서 그를 기쁘시길)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의 동반자이자 도우자였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설명했다:

مَثَلُ نُورِهِۦ كَمِشْكَوٰةٍ فِيهَا مِصْبَاحٌ

"하나님의 빛의 비유는 마치 벽감이 있고 그 안에 등불이 있는 것과 같다." (꾸란 24장 35절)

그는 말했다: "이것은 믿는 자의 내면의 빛과 그의 마음의 비유이며, 이 비유입니다:

أَوْ كَظُلُمَٰتٍ فِى بَحْرٍ لُّجِّىٍّ

'혹은 거대한 깊은 바다 속 어둠의 심연과 같다.' (꾸란 24장 40절)

위선자의 심장과 같다"고 말했다.

자이드 빈 아슬람은 이 석판을 "보존된 석판"("*Loh Mahfoodh*"; 보존된 석판에는 꾸란에서 신자의 심장으로 언급된 모든 창조물과 존재,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사건의 완전한 기록이 담겨 있으며, [유명한 성인이자 영지주의자] 살 알-투스타리는 심장을 "*아르슈*"(단순히 "왕좌"이지만 실제로는 전능한 지배)와 "*쿠르시*"(최고 신성의 천상의 자리)에 비유했습니다.

심장의 종합적 특성(*Qalb*)과 그 예시

인간의 창조와 구성은 네 가지의 집합체임을 알리고자 한다. 따라서 한 사람은 짐승적, 동물적, 사탄적, 신성한 네 가지 유형의 특성과 특성을 가진다. 분노와 격렬함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적대감, 원한, 구타, 언어폭력, 욕설 같은 야수적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욕망과 육체적 욕망이 지배하는 경우, 탐욕, 탐욕, 방탕, 질투 같은 동물적 행위를 저지른다. 꾸란에 명시된 신의 명령이라는 관점에서:

قُلِ ٱلرُّوحُ مِنْ أَمْرِ رَبِّى

"말하라(오 무함마드여!) 영혼은 나의 주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꾸란 17장 85절)

한 사람은 주권을 주장하며 오만함, 타인에 대한 우월감, 특이한 특성과 개성을 좋아하고, [신에게는] 복종, 겸손, 복종을 싫어한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모든 지식을 인식하고 싶어하며, 지식과의 연관은 사랑받고 무지와의 연관은 싫어합니다. 한 사람은 사안의 현실을 이해하고 지식과 영지(영지)를 획득했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현실을 이해하는 특성과 모든 창조물에 대한 우월함은 주권의 특성일 뿐(인간에게 어울리지 않고 오직 신에게만 해당됨)의 특성일 뿐, 신에게 종역할과 노예 상태의 특성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야수와 동물과 분노와 욕망의 특성을 공유하지만, 인간은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사탄적 특성이 추가로 존재합니다. 사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하며, 인간은 자신의 분별력을 악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기와 기만을 사용하며, 선의 집(즉, 인간 존재)에 악의 씨앗을 뿌린다. 이것이 악마의 특성이며, 그 사람들조차도 신성, 사탄적, 야수적, 동물적 특성을 가진 악마의 특성을 공유합니다. 이 네 가지 특성의 중심은 마음으로, 인간의 피부 안에 돼지, 개, 악마, 지혜가 모두 모여 있다. 돼지는 욕망과 방탕함의 상징이다. 내면의 나쁜 특성을 가진 이 불순한 동물은 색과 외모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라, 탐욕과 욕망 때문에 나쁜 존재입니다. 그것은 분노의 화신인 개의 상태이기도 하다. 어떤 동물들은 동물이기 때문에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수간과 적대감 같은 극단적인 동물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내면(*바틴*)은 짐승의 수간, 적대감, 분노, 돼지의 탐욕과 욕망을 지니고 있다. 야생 짐승은 학살을 저지르기 위해 분노를 일으키고, 돼지는 탐욕을 일으켜 방탕함을 저지르며, 사탄은 이 두 [악한 특성]을 끊임없이 서로 싸우게 한다. 때로는 분노에 대한 탐욕을 부추기고, 때로는

탐욕에 맞서기 위해 분노를 부추기며, 동시에 이 성질들로부터 나오는 타고난 본능을 찬양한다.

지성은 현명한 사람으로 해석됩니다. 그 임무는 사탄의 속임수와 사기를 물리치고, 깊은 통찰과 명확한 빛(이성, 품위, 이해의 빛)을 사용하여 사탄의 암시를 없애고, 개의 분노로 돼지의 욕망을 물리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욕망은 분노로 끝나기 때문이다 [욕망의 해로운 결과에 맞서서]. 마찬가지로, 지성은 돼지를 개 위에 강요하여 동물 간의 수간성을 끝내고, 지혜와 전략을 통해 개(분노/격노)를 억제하고 순종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지성이 그렇게 한다면, 신체의 왕국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스템을 유지하며 장기들은 의도된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지성)이 노력에 실패하고 사탄과 돼지, 개를 굴복시키지 못한다면, 이 세 존재가 한 사람을 단단히 사슬에 묶어 노력에도 풀려나지 않고 평생 그들의 종이자 복종자가 되도록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감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는 거리가 멀고] 그들의 모든 투쟁이 위와 성기에 대한 욕망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 조롱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두꺼운 방임과 부주의의 장막이 그들의 눈에서 벗겨지면,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이를 숭배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돼지 앞에서 절하고, 때로는 손을 모으고 개 앞에서 절하며 경의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신념이고, 그들의 부름에 따라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행동입니다. 만약 현실이 그런 사람들 앞에 물리적으로 구현된다면, 그들은 자신과 우상숭배자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동물(하위 자아의 악한 성향과 요구)을 숭배함으로써 사탄의 승인을 얻는다. 사탄이 돼지와 개를 자극해 인간에게 자신을 위한 봉사를 강요하게 합니다. 사실 돼지와 개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은 사탄의 속임수망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즉, 인간)은 자신의 움직임과 정지, 말과 침묵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내면의 통찰의 눈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내면 상태에서 정의와 공정함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면, 하루를 하나님의 순종 속에 보내는지, 아니면 하위 자아를 숭배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억압이 얼마나 큰가, 하한 자아를 숭배하는 이들이 주인을 노예로, 지배자를 지배당하게 만들었다는 것! 지배와 지도력의 권리는 지성의 것이었지만, 돼지와 개, 사탄이 그 권리를 빼앗아 지성을 억압하고 감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성이 리더십을 잃으면 이 세 가지 [악랄한] 특성의 복종이 결실을 맺게 되고, 이러한 특성들은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결국 파괴와 굴욕만을 초래한다.

욕망과 방탕한 돼지에게 복종하는 것은 부끄러움 없고, 비열하며, 낭비하고, 인색함, 과시, 명예훼손, 부도덕함, 탐욕, 욕망, 아첨, 질투, 적대감, 증오 등 다른 악랄한[부정적] 특성들로 이어진다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서]. 분노와 화난 개에게 복종하는 것은 과도한 원한, 자기 자만, 자기 의로움, 자기중심적, 오만, 자기 과시, 조롱, 깎아내리기, 악의와 잔혹함에 대한 욕망 등 악한 성격에서 비롯된다. 분노와 욕망의 신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사실상 사탄에 대한 복종이며, 이는 앞서 언급한 부정적이고 악랄한 내면의 본질을 낳고, 동시에 사기, 속임수, 변명, 고집, 부정직, 외설 등 나쁜 내면의 본질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만약 상황이 그와 반대로 이루어져서 이 모든 악과 그 원인의 근원이 신성한 특성의 지혜와 빛나는 영향력에 복종한다면, 신성한 특성인 지식, 지혜, 확신, 사물의 현실에 대한 이해, 사안에 대한 깊은 통찰, 예지력과 지혜의 힘으로 인한 타인보다 두드러지는 성격, 지식의 완성과 마음의 다른 [숭고하고 긍정적인] 내면의 특성들로 인해 타인에 대한 구별권이 마음을 감싸고 있다. 더 이상 욕망과 분노에 복종하고 복종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 욕망이라는 돼지를 그 한계[품위와 신성한 법칙] 안에 가두면 순수함, 품위, 만족, 평온, 세속적 욕심과 물질적 탐욕 같은 위대한 내적 자질을 얻게 된다(*주드*단순함, 경건한 경외심, 경외와 신에 대한 경외심, 내면의 만족과 행복, 겸손과 수줍음, 아름다운 외모, 아름다운 내면의 성품, 성격과 태도가 마음에 스며든다. 분노의 개를 사슬에 묶어두는 것은 용기, 친절, 위대함, 인내, 하위 자아의 억제(난동을 부리고

자신과 타인에게 해와 고난을 초래하지 않음), 인내, 인내, 모든 행동에서의 품위 등 이와 유사한 숭고한 내면의 자질을 마음에서 태어나게 합니다. 마음은 [닦이는] 거울과 같아요 [먼지에 덮이거나 영혼 속 내면의 악과 부정성에 오염되기 전의 원래 형태] 분노, 욕망, 그리고 악한 설득의 형태로 마음에 깃든 복종은 이 거울의 아름다움과 명료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명확히 볼 수 없습니다. 영혼의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내면의 특성들은 이 거울의 광택과 찬란함을 더욱 높여, 심지어 신성한 아름다움(하나님의 아름다움)조차도 그 영광과 함께 그 안에 드러난다(이것이 바로 "라고 불리는 것이다"*마리파*"또는 신의 영지(Gnosis), 그 획득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다)와 [진리와 영원한 진리를 드러내는 관점에서], 내면의 영적 투쟁의 목표로서 추구하는 물질의 실재성. 다음 *하디스* (예언자 무함마드의 예언적 전통 또는 말씀 [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는 이러한 깨끗하고 맑으며 빛나는 마음을 암시합니다:

اذا اراد الله لعبد خيرا جعل له واعظا من قلبه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에게 선하려 하실 때, 마음속에 [옳은 일과 모든 일에 선을 이루도록 영감을 주는 자]를 창조하십니다." (내레이션 *하디스* 수집 *아부 만수르 앗-다이라미* 예언자 무함마드의 아내의 권위에 따라 [그에게 평화가 있기를] 움 살라마 [신께서 그녀를 기뻐하시길])

또 다른 예언적 이야기(*하디스*)는 마음에 경고자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호할 수호자를 임명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기억의 중심이며, 그러한 신성한 기억을 통해 평온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أَلَا بِذِكْرِ ٱللَّهِ تَطْمَئِنُّ ٱلْقُلُوبُ

"진실로, 마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평화와 평온을 찾는다." (꾸란 13장 28절)

비난받아 마땅하고 악한 도덕과 예절은 연기와 먼지가 거울의 맑음과 빛을 흐리듯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의 거울은 죄의 어둠으로 어두워진다. 이 어둠은 종(즉,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드리워지는 일종의 장막입니다. 이 장막을 '봉인'(*Taba*)과 '녹'(*Raan*)이라 불립니다. 꾸란은 그런 마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كَلَّا ۖ بَلْ ۜ رَانَ عَلَىٰ قُلُوبِهِم مَّا كَانُوا يَكْسِبُونَ

"물질의 현실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잘못되고 악한] 행동 때문에 녹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 (꾸란 83장 14절)

أَن لَّوْ نَشَاءُ أَصَبْنَاهُم بِذُنُوبِهِمْ ۚ وَنَطْبَعُ عَلَىٰ قُلُوبِهِمْ فَهُمْ لَا يَسْمَعُونَ

"우리가 원했다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파괴했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봉인을 하여 그들이 듣지 못하게 했다(마음으로 현실을 이해하고 인식하라)." (꾸란 7장 100절)

또 다른 구절에서는 진리와 자신의 안녕을 위한 조언을 듣지 않는 것이 마음을 봉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경청이 경건한 경외심,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타크와)을 갖는 것이 조건부로 지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وَٱتَّقُوا۟ ٱللَّهَ وَٱسْمَعُوا۟ ۗ

"경건한 경외와 경외, 경외심을 가지고 경청하라." (꾸란 5장 108절)

وَٱتَّقُوا۟ ٱللَّهَ ۖ وَيُعَلِّمُكُمُ ٱللَّهُ ۗ

"경건한 경외와 경외, 경외심을 가지라; 그리고 그분은 당신에게 지식을 전하시며, 당신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물질적·비물질적 이익에 대해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꾸란 2장 282절)

죄(악, 부도덕, 해악, 부정적, 자해성 행위)가 증가하면, 마음은 봉인되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내면의 부정적] 상태를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이 박탈됩니다. 내세의 일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고, 세속적인 화려함과 화려함이 전부가 되며, 세속적 재산과 부를 탐욕스럽게 되어 모든 에너지를 그 취득에 쏟아붓는다. 내세에 관한 권고는 바람처럼 귀를 스치며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실수를 고칠 능력과 죄를 회개하는 능력이 빼앗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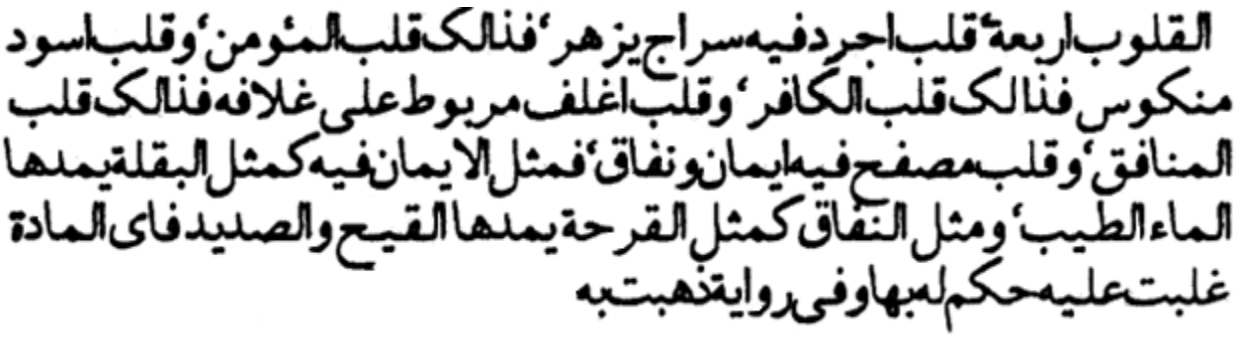
꾸란과 하디스(예언적 이야기)*에 언급된 마음의 어둠* 은 사실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킨다. 마이문 이븐 무흐란(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 (유명한 현자이자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죄를 지으면, 마음에 검은 점이 나타납니다. 만약 그 이후에도 그것을 참고 진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이 점이 지워지고 마음은 [그 죄를 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죄로 돌아가거나 다른 [종류의] 죄를 지으면, 그 점의 어둠과 크기가 모두 커져서 [어느 시점] 이 검은 점이 심장 전체를 감싸게 됩니다. 이 어둠 자체가 바로 마음의 녹이며, 그 결과 어떤 긍정과 빛도 닿지 못하게 봉인된다."고 말했다. 무함마드 선지자(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قَلْبُ الْمُؤْمِنِ أَجْرَدُ فِيهِ سِرَاجٌ يَزْهَرُ وَقَلْبُ الْكَافِرِ أَسْوَدُ مَنْكُوسٌ

"신자의 마음은 깨끗하고 빛나며 깨달음을 얻었으며, 그 안에 밝은 등불이 켜져 있으며[그 등불은 영적으로 긍정적인 모든 것을 향한 모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맑고 찬란하게 빛을 내뿜는다]. 반면, 불신자의 마음은 어둡고 뒤집혀 있다 [영적 노력과 부정적인 만족의 부족 때문에, 하향 성향]." (내레이션 *하디스는 예언자 아부 사이드의 권위에 따라* 무스나드 아흐마드*와* 앗-타바라니 *를 모았* 다 [신께서 그에게 기뻐하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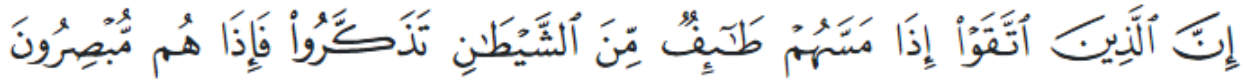
신의 계명을 따르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낮은 자아(*나프*)의 욕망에 맞서는 것은 마음을 닦는 역할을 하며, 죄는 마음을 어두운 밤처럼 어둡게 만듭니다. 죄를 지은 후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해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거울이 뜨거운 숨결에 노출되었다가 닦이고, 다시 뜨거운 숨결에 노출되어 표면에 흠집이 생기듯 빛이 줄어들고, 그 빛은 어느 정도 줄어들며 이 얼룩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는 네 가지 종류의 심장을 언급했습니다:


القلوب اربعة قلب اجرد فيه سراج يزهر فذالك قلب المؤمن وقلب اسود منكوس فذالك قلب الكافر وقلب اغلف مربوط على غلافه فذالك قلب المنافق وقلب مصفح فيه ايمان ونفاق فمثل الايمان فيه كمثل البقلة يمدها الماء الطيب ومثل النفاق كمثل القرحة يمدها القيح والصديد فاى المادة غلبت عليه حكم لها وفى رواية ذهبت به

"심장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한 종류의 심장은 깨끗하고 맑고 맑고, 그 안에는 램프가 켜져 있어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마음입니다. 한 유형은 마음이 어둡고 뒤집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마음입니다. 한 종류의 심장은 덮개에 싸여 있고 그 구멍은 닫혀 있습니다. 이것이 위선자의 심장이다. 한 종류의 마음은 믿음과 위선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대한 믿음의 비유는 맑은 물을 통해 자라는 푸른 잎과 식물과 같고, 위선에 대한 비유는 분비물과 더러운 물질로 인해 점점 곪아가는 상처와 같습니다. 어떤 실체든 지배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지배할 것이다." (내레이션 *하디스*는 예언자 동료 아부 사이드 알-쿠드리의 권위에 따라 *무스나드 아흐마드*와 *알-타바라니 사기르* 를 모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إِنَّ ٱلَّذِينَ ٱتَّقَوْا۟ إِذَا مَسَّهُمْ طَٰٓئِفٌ مِّنَ ٱلشَّيْطَٰنِ تَذَكَّرُوا۟ فَإِذَا هُم مُّبْصِرُونَ

"정말로 경건한 경외심과 경외심, 의식과 경외심을 가진 자들은, 사탄으로부터 [마음속에] 악랄한 설득을 받으면 하나님의 기억에 참여하고 즉시 놀란다 [사탄이 자신들을 악한 일을 하도록 설득하려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단 한 순간도 그런 생각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꾸란 7장 201절)

이 구절은 마음의 생명, 지혜, 신중함, 그리고 높은 수준의 의식과 인식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오직 *타크와*(경건한 경외, 경외, 의식,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의식, 경외심)의 [내면] 특성을 가진 사람들만이 신성한 기억에 참여함을 보여줍니다. 신성한 기억은 영적 드러남(*카쉬프*)으로 이어지며, 이는 엄청난 성공이자 주님과의 만남(즉, 영지(그노시스 또는 '*마리파*')을 만나는 수단이며, 이를 이루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지식과 관련된 마음의 유사성 – 마음의 다듬어진 거울과 그 안에 비친 진리의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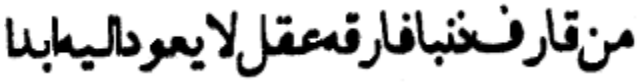
지식의 자리이자 안식처는 심장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모든 기관과 능력의 체계를 이끄는 것은 신성한 영적 미묘함이다. 모든 기관은 이 미묘함을 수행하며 이에 복종합니다. 사물과 지식의 실제 본성과 관련해, 마음의 유사성은 가시적인 대상이나 이해 가능한 사물에 대한 거울과 같다. 모든 가시적인 대상과 모습의 이미지는 거울(심장)에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알려진 대상의 현실성은 마음에 각인된다. 거울이 별개의 물체인 것처럼, 보이는 물체의 외관은 별개의 물체이며 거울에 비친 반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심장도 같은 구분이 존재하며, 거울과 마찬가지로 심장과 관련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 둘째는 사물의 현실 또는 진정한 본질, 셋째는 마음에 나타나는 사물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인식자이다; 현실과 사물의 진정한 본성이 그 안에 들어옵니다. 알려진 사실은 객체이며, 지식은 이러한 알려진 사실들이 마음속에 반영된 이름이다. 검을 잡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한 것과 같다: 손처럼 잡는 것; 검과 같이 쥐는 것; 검과 손을 손에 넣어 결합하는 행위를 잡는 행위라고

하며, 이해 가능한 것의 형상이 마음에 존재하는 것도 이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이해 가능하거나 알려진 것의 이미지를 마음에 반영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부른다. 때로는 현실과 사실이 존재하고 마음도 존재하지만 지식과 이해의 습득은 없다. 이는 지식이 현실이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검과 손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처럼, 손이 검에 닿아 잡아야 하므로 잡거나 잡는 것은 없습니다. 집움과 지식의 차이는 집어쥔 때는 검이 손에 들어가지만 현실은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은 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불 자체가 마음에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신 불의 실재는 그 외적 존재와 외형을 닮은 마음에 있다고 말할 것이다. 따라서 심장은 거울에 비유되었는데, 이는 아무것도 거울에 [물리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대신 물체의 반영이나 이미지가 실제 존재와 조화를 이루며 거울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거울과의 마음의 유사성과 유사성: 심장과 미러를 비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이유로 인해 [물체의 이미지]가 거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상황에서는 마음의 거울이 사물의 현실에 대한 지식을 박탈당한다. 물체의 이미지가 거울에 반사되지 않는 데에는 다섯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형성에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단지 성형되고 연마되지 않은 조잡한 철 조각일 수도 있고, 그 물질에 결함이 있을 수도 있으며, 형태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결함이 생겼거나 녹슬었거나, 표면에 먼지가 쌓여 빛과 선명도가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반사되어야 할 물체의 방향에서 멀리 떨어져 돌려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반사되어야 할 물체가 거울 뒤로 이동했습니다. 넷째, 거울과 물체 사이에 베일이나 커튼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섯째, 거울에 비친 물체의 방향을 모르는 경우, 거울의 위치와 방향 앞에 물체를 배치해 그 모습을 반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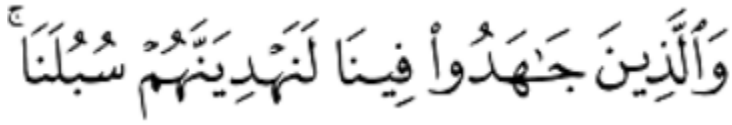
이것이 바로 마음의 거울의 상태입니다. 진리와 현실의 모든 문제는 그 안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마음들은 이런 지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다섯 가지가

같습니다. 첫째, 심장은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심장은 이러한 현실을 드러낼 능력이 없습니다. 둘째, 마음은 죄(잘못되고 부정적이며 비난받아 마땅한 생각, 감정, 말, 행동)의 탁한 물과 욕망의 더러움으로 더럽혀지며, 그 결과 명료함과 명료함, 순수함, 빛남을 잃게 됩니다. 진실은 어두운 마음 속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 안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그 안에 쌓인 어둠과 더러움에 비례한다. 예언적 서사(예언 자 무함마드 [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는 같은 현실을 가리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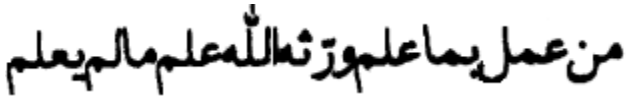
"죄를 짓는 자의 지성은 돌아오지 않는 자와 분리되어 [따라서 사안의 현실을 인식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죄로 인해 마음속에 흐릿함과 악이 나타날 것이며, 이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지은 후 의롭고 선한 행위를 하면 마음에 대한 죄의 영향이 사라진다는 말이 맞지만, 심장이 죄를 짓기 전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 현실은 그 사람이 오직 의로운 행위만 했다면 심장은 빛과 맑음을 더했을 것입니다. 광도 증가의 손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보상할 수 없는 손실입니다. 녹슨 거울을 처리하고 광내면 다시 빛나지만, 녹슬지 않은 거울과 선명함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하나님께 순종하고 욕망이나 하위 자아의 저속한 욕망을 따르려는 경향에 반대하는 것은 마음의 명료함과 명료함을 가져오며 죄의 흐릿함과 결과물을 제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여,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우리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꾸란 29장 69절)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는 지식에 따라 행동하는 자에게 자신이 모르는 지식을 부여하신다." (이 이야기는 예언 전통 모음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부 나임 필 홀리야*는 예언자 동료이자 조력자 아나스의 권위에 따라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세 번째 이유는 마음이 원하는 현실을 마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신성한 계명을 따르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을 때, 그 마음은 명료하지만 진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진리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육체적 예배 행위와 세속적 안락함을 위한 경제적 수단 축적에 쏟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루부비야*), 지배, 숨겨진 신성한 진리와 실재를 묵상하는 것은 익숙하거나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신성한 실재는 그런 마음에 나타나거나 반영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것들을 찾지도 않고 다른 물질적, 세속적, 비영적인 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 오히려 그런 문제들만 일반적으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행동과 행동의 결점, 하위 자아의 부족함에 대해 숙고할 때, 그와 관련된 현실이 마음속에 드러난다. 생계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의 복잡함을 숙고할 때, 그 복잡함은 마음속에서 드러난다. 그렇다면 생각해보라, 자신을 의로운 행위와 육체적 예배 행위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진리(영적 영역에서 오는 영원한 진리, 진리, 현실)의 엿보기 가로의 장막이나 장애물이 된다면, 왜 하층 자아의 욕망과 욕망, 세상과 세속성에 얽히고 얽히는 것이 현실의 드러나기에 장애물이 되지 않겠는가?

네 번째 이유는 진실을 드러내는 길에 장애물이 되는 장막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욕망과 열정을 통제하는 사람이 순종적이고 경배하는 종이라 해도, 숙고와 묵상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박탈은 어린 시절부터 조상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어떤 믿음 때문이며,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교리의 엄격한 해석에 반대하는 어떤 것도 마음에 드러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믿음은 이제 그것과 반대되거나 정면으로 반대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완고한 장애물이 되었다. 이러한 장막은 많은 스콜라 신학자, 지식인, 종교적 편견과 편견을 가진 지식인들, 심지어 천지의 지배에 집중하는 개혁파(*솔라하*)들조차도 현실과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가립니다. 그들은 마음과 정신에 깊이 뿌리내려 자신들과 반대되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능력을 잃게 되어, 맹목적으로 신념을 따르는 탓에 가려져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진실이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교리적 신념은 진리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길에 장애물과 장막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원하는 지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초보자나 초보] 학생이 미지의 지식을 얻으려면 먼저 찾는 것과 관련된 알려진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관련 지식만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특별한 순서로 배열해야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도록]. 미지의 지식에 대한 탐구하는 지식을 포획하는 것은 알려진 지식 위에 던진 그물망을 통해 가능하다 [연역 과정을 통해 일정한 방식으로 배열됨]. 모든 지식은 일정한 순서로 두 개의 지식이 먼저 나타나야 하며, 이 지식들이 결합되어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세 번째 지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의 결합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지식들이 서로 자연스러운 친화력으로 호환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말과 낙타의 결합에서 망아지를 얻고 싶다면, 그 과정에서 수컷과 암컷 말이 필요하고, 낙타는 [다른 종이기 때문에]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실망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지식에는 두 가지 특별한 원리가 있고, 그 결합을 위한 특별한 방법론이 있으며, 올바른 방법론을 따르는 것만이 원하는 지식을 얻는다. 이 원칙들과 이를 결합하는 방법에 대한 무지가 지식과 이해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앞서 거울에 비유한 것처럼, 거울에서 원하는 대상의 방향을 모르면 이미지가 거울에 표시되지 않고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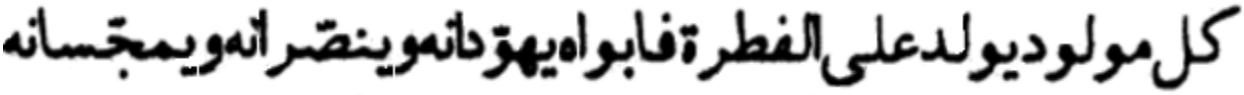
누군가가 거울에서 목을 보고 싶어 하지만 거울을 얼굴 앞에 놓았다면, 당연히 목은 원하는 거울에 보이지 않습니다; 찾지 않았던 얼굴의 이미지가 그 안에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거울이 목 뒤에 놓여도 목은 보이지 않고, 대신 거울이 시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목을 보려면 두 번째 거울이 필요하며, 눈 앞에 두어 목 뒤에 있는 다른 거울이 그 안에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목의 반사가 첫 번째 거울에 비추고, 그 반사가 두 번째 거울에 떨어져 목이 보이기 때문에 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지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것이지만,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래서 많은 현실과 지식이 인식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진리와 [영원한 영] 실재를 마음에 의해 이해하는 데 장애물이 되는 몇 가지 이유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마음[또는 영혼]은 신성한 명령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현실을 인식할 수 있으며, 신성한 기원으로 인해 고귀하고 고귀하며, 우주와 그 너머의 모든 실체와 명확히 구별된다 [그 특별한 속성과 고귀한 특성 때문에]. 마음[또는 영혼]의 탁월함, 구별, 우월함은 신성한 말씀 아래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إِنَّا عَرَضْنَا ٱلْأَمَانَةَ عَلَى ٱلسَّمَٰوَٰتِ وَٱلْأَرْضِ وَٱلْجِبَالِ فَأَبَيْنَ أَن يَحْمِلْنَهَا وَأَشْفَقْنَ مِنْهَا وَحَمَلَهَا
ٱلْإِنسَٰنُ ۖ إِنَّهُۥ كَانَ ظَلُومًا جَهُولًا ﴿٧٢﴾

"진실로 하늘과 땅과 산에 신뢰를 드렸으나, 그들은 그것을 견디지 않고 두려워했으나, 인간이 그 신뢰를 감당하였다. 실제로 한 인간은 부당하고 무지했다." (꾸란 33장 7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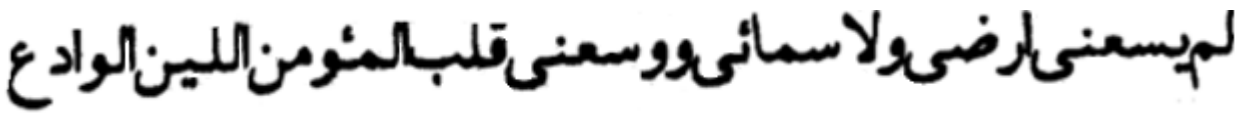
이 구절은 하늘, 땅, 산과 같은 높고 넓으며 강한 [신성한] 창조물과 뚜렷이 구별되는 인간의 특별한 특성을 가리키며, 다른 모든 창조물이 신의 신뢰를 맡을 자격이 있는 자임을 의미합니다. 이 [신성한] 신뢰는 일신교 또는 일체성(*타우히드*)과 신의 영지(경험적 영적 지식, *마리파*)입니다. 모든 사람은 본질적이고 본질적으로 이 [위대한 신성한] 신뢰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이유로 이 신뢰를 실현할 용기를

잃고 더 이상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나님의 사도인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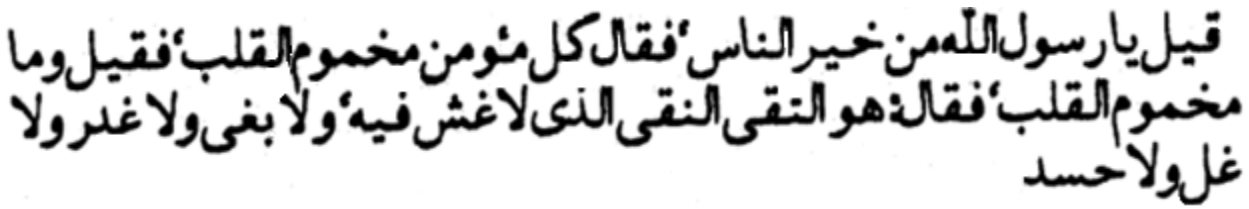
"모든 아이는 '*피트라*'(인간의 진정한 타고난 본질적 본성으로, 신의 뜻, 신적 실재, 영원한 보편적 진리에 완전히 부합하며, 인간이 명확히 부여받았다고 믿는 성향, 즉 일신교와 신성한 영지에 전향하는 태도로 태어난다), 그 후 부모는 한 사람을 유대인, 즉 기독교인으로 만든다, 또는 마기안(Magian)으로,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교적·이념적 전통을 암시하여 자신만의 종교적, 이념적, 문화적, 지리적, 지적 맥락에 맞게 형성한다). (이 이야기는 예언적 이야기 모음으로 전 해집니다*사히히 부카리*와 *사히흐 무슬림*은 예 언자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더 말했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즉, 인간)의 마음 위에 악마들이 떠다니지 않았다면, 그들은 천국의 지배를 목격했을 것이다." 이는 마음과 [천상의] 지배 사이의 장막이 되는 많은 장애물들을 가리킵니다. 누군가가 압둘라 빈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예언자이자 동반자였던]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길]에게 하나님과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계신지, 지상에 계신지 물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믿는 종들의 마음속에 계십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무 *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의 하디스(전승 또는 전승)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땅도 내 하늘도 나를 담을 수 없으나, 나의 종의 다정하고 평온한 마음이 나를 담을 능력이 있다."

또 다른 예언적 전승(*하디스*)은 다음과 같습니다:


قيل يارسول الله من خير الناس فقال كل مؤمن مخموم القلب فقيل وما مخموم القلب فقال هو التقى النقى الذى لاغش فيه ولا بغى ولا غدر ولا غل ولا حسد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가장 좋은 사람입니까?" 그는 "'*마흐무움 알-칼브*'인 모든 신자들이라"고 답했다. 그는 "*마흐무움 알-칼브*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화되어 [모든 내면의 더러움과 부정, 악으로부터 정화된] 거짓과 속임수, 배신이나 반역, 부정직함이나 불신, 원한이나 질투의 더러움이 없는 마음 [그러므로 마음은 순수하고 모든 악, 부정, 흠집이 없다]."

그래서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볼 때마다, '*타크와*'(경건함과 경건함, 경외와 경외심)로 인해 장막이 걷혀졌다." 하나님과 마음 사이에 장막이 걷히면, 가시적인 물질 세계와 천상의 지배 또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목격하고, 천국의 넓은 부분이 하늘과 땅의 영역인 낙원을 보게 됩니다. 다른 천국에 관해서는, 광범위하고 광범위한 나침반 때문에 하늘과 땅의 광활함에 맞지 않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 그러나 마음이 목격하는 낙원은 길이와 너비에 한계가 없으며, 보이지 않는 신성한 왕국(*알람 알-물크*)과 천사들의 영역('*알람 알-말라쿳*)의 지배 천국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신성한 지식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무한하고 거대한 영역입니다. 신성한 왕국('*알람 알-물크*)'과 천사의 영역('*알람 알-말라쿠트*)의 두 영역이 함께 언급된다면, 이들은 모든 존재하는 것을 아우르는 주님의 존재라고 불립니다. 이는 신성한 주권이 모든 것을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행위이거나 지배, 종들입니다. 이러한 존재에서 인간의 마음에 나타나는 것은 일부에게는 낙원이지만, 진리의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단이며, 천국에서

인간의 지배가 존재하는 것은 지식의 정도에 비례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행위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도 낙원은 그에게 넓어질 것입니다. 순종과 예배의 목적은 마음의 표면이 거울처럼 정화되고 정화되어 탁함과 더러움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화의 목적은 신앙의 빛과 그노시스(*마리파*)의 빛이 마음을 가득 채우는 데 있습니다. 다음 두 구절은 영지(Ma'rifa)의 같은 믿음의 빛과 빛, 깨달음을 가리*킵니다*:

فَمَن يُرِدِ ٱللَّهُ أَن يَهۡدِيَهُۥ يَشۡرَحۡ صَدۡرَهُۥ لِلۡإِسۡلَٰ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누구든, 그는 이슬람*으로 마음을 확장하십니다* (진정한 의미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진정한 신앙의 빛과 신성한 영지가 영혼에 가져오는 순수함과 빛을 의미합니다)." (꾸란 6장 125절)

أَفَمَن شَرَحَ ٱللَّهُ صَدۡرَهُۥ لِلۡإِسۡلَٰمِ فَهُوَ عَلَىٰ نُورٖ مِّن رَّبِّهِۦۚ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기꺼이 마음을 열고 넓게 확장하신 자, 그런 자는 자신의 지지자(즉, 하나님)로부터 흐르는 빛에 의해 빛난다 [이런 사람을 마음의 눈먼 자와 귀머거리자에 비유할 수 있는가?]" (꾸란 39장 22절)

깨달음과 신앙의 정도: 이 깨달음과 신앙[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등급은 평신도의 신앙으로, 순전히 맹목적인 모방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스콜라 신학자들의 신앙으로, 논리적 추론과 혼합된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영지주의자들의 신앙으로, 확신의 빛과 확신의 빛으로 명확히 보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정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여기서] 예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이드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한 가지 방법은 거짓과 허위로 알려지지 않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그의 존재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전하는 소식에 만족하게 되고, 자이드가 실제로 집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는 평신도나 평범한 사람들의 신앙의 예로, 단순히 맹목적인 따르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평신도의 상태는 아이가 분별력을 얻고 [스스로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부모와 교사로부터 듣는 하나님의 존재, 지식, 능력 및 이와 같은 신성한 속성들, 예언자들의 사명과 그들이 가져온 신성한 계명에 대해 주저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그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자신들과 반대되는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는 부모님과 교사의 진실성에 대해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로부터 나오는 어떤 뉴스나 정보도 주저 없이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내세에서 구원의 원인이지만, 그러한 신자들은 '오른손의 사람들'("*아샤브 알-야민*" 또는 신의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 평범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의 등급과 범주에 머물며, 그들은 하나님의 친밀한 신자(*무카라빈*)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적 완전함이 최고 등급이다, 신과의 친밀함(*타카루브*)을 위해서는 신비로운 계시, 깊은 내면의 영적 통찰, 확신의 빛을 통한 마음의 확장으로 마음이 빛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귀하는] 특성들은 맹목적인 신앙에서 발견되지 않으며, 개인들로부터 듣는 교리와 관련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이드가 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두 번째 방법은 그가 집 안에 있을 때 당신이 직접 귀로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알려주는 것보다 [자이드가 집 안에 있는지] 더 확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외모와 형태를 주장하고, 마음이 그 목소리가 특정 사람의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사랑과 증거와 섞여 있지만, [이 유형의 믿음에서] 때때로 목소리가 서로 닮았고, 때로는 한 사람이 가식으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 내기도 하며, 청자는 두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해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할 것이라는 생각과 그런 모방의 목적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세 번째 방법은 [예를 들어 자이드가 집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는 방법]은 집 안으로 들어가 직접 자이드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노시스(*마리파*), 즉 확신에 찬 실제 경험적 지식과 관찰입니다. 이 그노시스(*마리파*) 또는 경험적 지식은 신의 친밀한 이들과 친구인 *무카라빈*, 성인 또는 진리의 사람들(*시디킨)의 지식과 유사하는데, 이는 그들이 [개인적] 관찰을 통해 믿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그들의 신앙은 평신도와 스콜라 신학자들(무타칼레민)의 신앙을 포괄*하지만, 관찰이 증가함에 따라 신앙은 더욱 강해져 오류가 남지 않을 정도로 강해진다. 그러나 신*의 모든 친구(*무카라빈*)와 성인 또는 진리의 사람들(*시디킨)의 영적 경험적 지식(그노시스, 마*리파*)은 같은 수준이 아니며, 오히려 [그들의 친밀함, 친밀함, 영적 드러내기, 신과의 확신]의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등급과 계급의 차이에 대한 설명도 자이드의 예에서 찾을 수 있다. 한 사람이 낮에 집 안뜰에서 자이드를 가까이서 보았다. 두 번째 사람은 방 안이나 멀리서, 혹은 해가 진 저녁에 그를 본다. 1인칭의 관찰은 2인칭보다 더 완벽하지만, 2인칭의 인식은 여전히 정확하지만, 그의 얼굴 특징의 세세한 부분이나 숨겨진 특징을 관찰하지 못한다. 신성하게 계시된 진리와 [영적] 지식을 보는 정도의 차이가 바로 이런 종류입니다. [영적] 지식의 획득 차이는 자이드, 암르, 박크르를 보는 반면, 다른 사람은 자이드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전자의 지식은 확실히 후자의 지식보다 더 크다 [전자가 아는 것이 풍부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영적 경험 지식과 관련된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학습(*타알룸*)과 영적 영감(*일함*) - 스콜라 신학자와 영적 길을 걷는 여행자 간의 차이 현실:

비전통적인 지식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여러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때로는 이 지식이 마치 눈에 띄지 않게 담긴 것처럼 마음속에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논쟁과 배움을 통해 얻기도 합니다. 전자의 지식은 "영적 각성 또는 영감"(*일함*)이라 불리며, 후자는 "획득된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이전 지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받는

사람이 이 지식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이며, 이를 영적 각성 또는 영감(*일함*) 또는 "마음에 부여"(*누피카 필 칼브*)라고 부릅니다. 둘째, 이 지식이 전달되는 매개체가 알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즉, 그 지식을 마음에 담는 천사가 나타나며, 이를 '신성한 계시'(*와히*)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성인과 영지주의자와 연관되어 있고, 두 번째는 예언자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학습과 증명을 통해 얻은 지식은 학자들만의 독특한 것입니다.

현실은 인간의 마음이 사물의 현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이 능력을 잃는다면,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원인 때문입니다. 이 원인들은 마음의 거울과 영원히 결정된 모든 사안이 새겨진 '보존된 석판'(*Loh Mahfoodh*) 사이의 장막이 됩니다. 보존된 태블릿의 거울에서 마음의 거울에 진리가 나타나는 것은 한 거울에서 다른 거울로 나타난 이미지와 같다. 이러한 장애물로 인해 마음이 현실로부터 빼앗기는 것은 두 거울 사이에 장막이 끼는 것과 같습니다. 손 같은 것으로 장막을 벗길 수 있듯이, 보존된 석판(*Loh Mahfoodh*)과 마음의 거울 사이의 장막은 신성한 자비의 바람에 의해 벗겨지고, 보존된 석판(*Loh Mahfoodh*)에 있는 현실들이 그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은 꿈에서 가끔 일어나고, 미래의 사건들이 그 꿈 앞에 오기도 합니다. 베일이 완전히 벗겨지는 것은 죽음 때 일어납니다. 죽음은 너무나 현실이기 때문에 모든 숨겨진 문제들이 명확해지고 현실을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됩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지식의 복잡한 점이 드러난다; 때로는 잠시 번개처럼 치고, 때로는 계속적이고 영구적으로 그런데 그런 경우는 드물다. 지식과 지식이 존재하는 장소(즉, 마음) 측면에서 학습(*타알룸*)과 영적 각성이나 영감(*일함*)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 각성이나 영감(일함)에서 장막이 벗겨지고, 학습에서는 지식을 습득하는 수단이 필요하며, 장막을 걷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의 계시(*와히*)와 영적 각성이나

영감(*일함*)의 유일한 차이는 영감의 은혜가 후자에서는 보이지 않고 신성한 계시에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식이 신성한 계시(*와히*)를 통해 얻든, 영적 각성이나 영감(*일함*)을 통해 얻든, 모든 경우에 천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وَمَا كَانَ لِبَشَرٍ أَن يُكَلِّمَهُ ٱللَّهُ إِلَّا وَحْيًا أَوْ مِن وَرَآئِ حِجَابٍ أَوْ يُرْسِلَ رَسُولًا فَيُوحِيَ بِإِذْنِهِۦ مَا يَشَآءُ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지위를 가지지 않으며, 세 가지 방법으로 영적 각성이나 영감(*일함*), 베일 뒤에서 보내거나, 천사가 뜻하거나 원하는 대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꾸란 42장 51절)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수피*(신의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자기 개혁의 영적 길을 걷는 여행자이자 노력하는 이들)은 영적 각성이나 영감(일함)과 관련된 지식에 기울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전통적인 학습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저자들의 책을 읽거나 격언과 증거로 논쟁하지 않으며, 대신 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부정적이고 악랄한(부정적이고 낮고 비난받는) 내면의 특성을 말살해야 합니다; 영적 길에서 이런 모든 장애물을 끝낸 후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자신이 마음의 보호자이자 [영적] 지식의 빛을 제공하는 공급자가 됩니다. 신성한 자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빛이 마음을 밝히며, 마음이 확장되어 영적 빛을 이루게 되고, 마음의 거울에 드리워진 장막이 사라지고 신성한 일의 현실이 그 위에 드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즉, 평범한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일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음을 정화하는 책임만 집니다. 확고한 결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용기를 모아 신의 자비를 통한 성취를 기다릴 것입니다. 예언자와 성인들 앞에서 드러나고 그로 인해 그들이 받는 내면의 깨달음은 가르치고 배우며 책을 공부하는 데 몰두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과의 거리를 두고(*주흐드*), 악한 생각의 근원을 제거하며, 그 이유는 *주드*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것에서 멀어짐) 그리고 온전한 결의와 용기, 의도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격이 되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람이 됩니다.

수피들 *사이에는* 신 의 인격이 되려면 영적 길에서 세속적 장애물과 완전히 단절되어야 하며, 마음을 비워 영적 투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친척, 자녀, 재산, 국가, 지식, 명성, 권력에서 주의를 돌려 마음에 그런 상태를 심어주어 어떤 것의 존재와 부재가 같아지게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은둔시키고, 필수적이고 필요한 것들과 연도문에만 의지하며,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비워 꾸란과 *하디스*(예언적 전술)의 의미를 묵상하는 것조차 마음의 집중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외에는 마음에 오는 것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입에 남는 유일한 문장이 "*알라, 알라*"(알*라는* 언어와 상관없이 유일한 신의 인격 이름이며, "신"은 모든 존재의 창조주이자 유지자, 공급자인 존재를 암시하는 영어 고유의 일반용어로, 모든 언어가 "신"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를 가지고 있기 때) 사적이든 공적이든 말이죠, 이 말이 마음의 완전한 존재감과 풍부함으로 발음될 때, 혀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마음이 낭송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가 [내면의 영적] 상태에 도달하여 이 말의 효과가 혀에서 사라지고 마음이 [신성한] 기억 속에서 [확고하고 영구적으로] 확립되는 상태에 도달한다.
마음에서조차도 글자와 단어의 형태는 사라지고 의미는 항상 그 자리에 남아 있는데, 마치 마음과 의미가 서로에게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종, 즉 인간은 그러한 [영적 변화]의 단계에 도달할 잠재력과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내면의 영적] 상태를 영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외의 생각과 자극을 밀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은총과 자비의 끌어당김과 흡수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신성한 은총을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이 [영적 성취]의 단계에 도달한 후, 하나님의 종은 신성한 은총의 열림을 기다려야 하며, 이 열리는 열쇠가 예언자와 성인들에게 주어졌듯이, 한 사람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이 경우, 진정한 의도, 올바른 결의, 인내의 아름다움, 욕망과 욕망(하층 자아에서부터)을 자제하고, 마음속을 지나가는 세속적 집착과 걱정에서 아무것도 없다면, 진리의 빛이 마음속에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잠시 번개처럼 빛나다가 다시 같은 방식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지연이 있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 [내면의 영적인] 빛들은 마음속에 머무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때로는 머문 시간이 너무 짧아 그들을 갈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더 오래

머무르기도 하고; 때때로 영적 빛의 빛들이 차례로 마음을 비추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영지주의자들은 너무나 다양한 정도와 수준을 가지고 있어 상상조차 할 수 없으며, 마치 창조물과 그들의 성격 특성(*이흘락*) 사이의 차이를 상상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이 논의의 결론은, 마음을 생명에 불어넣고 그것을 정화하는 일(모든 탁함, 흐릿함, 부정성에서)은 종(즉, 모든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량을 늘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도 개인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외부 가르침의 종교 학자들(울*레마 알-자히르*)도 대부분의 예언자, 성인, 영지주의자들이 동일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이 경로와 방법을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들의 의견으로는, 이 길을 따라 결과와 열매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고 봅니다. 이 경로에 설정된 조건들은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첫째, 세속적인 책임, 집착, 문제를 무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영적 엄격함과 훈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해도, 마음속의 작은 의심과 [사탄적] 설득이 평화와 평온을 망치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قلب المؤمن اشد قدرا في غلياتها

"신자의 마음은 [요리] 냄비의 끓는 것보다 더 끓는다(즉,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며 변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예언적 이야기 모음으로 전 해집니다*무스나드 아흐메드*와 *하킴*은 예언자 동료 미크다드 빈 알-아스와드의 권위에 따라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예언자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قلب المؤمن بين اصبعين من اصابع الرحمٰن

"신자의 마음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들의 손가락 사이에 머문다(즉, 하나님은 항상 마음의 상태를 주관하시고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예언자 동료 압둘라 빈 우마르가 전합니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이 영적 투쟁 동안 기질은 불쾌해지고, 지능은 떨어지며, 건강은 악화되고 다양한 신체 질환이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지식을 먼저 추구하지 않고 [하하인] 자아의 영적 엄격함을 얻기 전에, 마음은 수많은 종류의 악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자아는 평생 동안 그 안에 얽혀 있지만 영적 길에서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수피*들(영적 길에서 노력하는 이들)은 이 길을 택했고, 나중에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은 [악하고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생각에 얽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만약 지식을 얻었다면 20년이 헛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생각의 여파가 [이 암울한 영적 진보 상태의 원인이라] 첫날부터 드러났을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는 지식의 길을 통해 영적 갈망의 계곡에 발을 들이는 것이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목표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적 지식 연구자들(스콜라 신학자들)은 *수피의 유사성이 피*크(외적, 가시적, 신체적 예배 행위에 대한 지식)를 *배우지 않는 사람들과 같* 으며, 예 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가 이 외적 지식을 얻지 못해 *파키흐*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다고 봅니다 (외부 종교 지식의 학자이자 실천자)는 신성한 계시와 영감을 통해 그들(즉, *수피들*)도 영적 수련에 대한 끈기와 영적 수행, 그리고 같은 신성한 계시와 영감의 근원을 통해 같은 외적 지식(*피크*)을 얻게 됩니다). 같은 터무니없고 혐오스러운 생각에 얽힌 사람은 자신을 억압하며 소중한 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피*(즉, 진짜 *수피*가 아니라 영적 길을 걷고 있다고 잘못 믿는 자기망만적인 사람)은 땅을 경작하지 않고, 생 계를 위해 어떤 일이나 직업도 하지 않고도 보물을 얻을 희망을 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결과는 확실할 뿐 성공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낮았어. 결론 적으로, *수피*(영적 길을 걷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학자들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얻고 이해해야 하며, 그 다음에 [그들은]종교의 외적 가르침을 연구하는 학자들(스콜라 신학자들)이 갖지 못한 [내면의 영적] 지식을 기다리는 것이

정당하다. 이러한 지식이 [지속적이고 끈질긴] 영적 노력과 엄격함 후에 드러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외적 예배 행위와 신성한 순종의 지식을 획득하고 진심으로 행동한 후]

공개된 지식과 획득된 지식의 차이에 대한 설명과 익숙한 예시들

마음의 경이로움과 신비를 인지하는 것은 인간의 감각을 벗어난 일입니다. 심지어 심장조차도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감각으로 인지되지 않은 것은 본질적으로 약한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지성은 감각의 영역에서 예시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여기서는 감각의 영역에서 나온 예시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 땅 에 물 저장소가 파여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을 끌어들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저수지 주변에 수로를 만들고 수원에서 물의 게이트를 열어 저수지에 물이 고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저수지의 얕은 부분을 너무 깊이 파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얻은 물은 더 순수하고 오래 지속되며 풍부하고 풍부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를 고려하면, 마음은 물의 저장소로, 지식은 물로, 오감은 물의 통로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지식에 접근하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관찰한 모든 것이 지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은둔을 통해 이 수로들을 닫아 오감이 지식 습득에 사용되지 않게 하고, 마음의 물 저장소가 더 깊어져 지식의 샘이 내면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세심하게 정화되고 정화되어, 그 장막이 벗겨져 [영적 실재를 드러내는]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식은 마음 안에도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에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 답은 마음의 경이로움과 신비에 속한다. 외적 지식의 관점에서 이 질문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뿐입니다. [보이는 영역에서]의 현실은 보존된 석판(*Loh Mahfoodh*)에 새겨져 있으며, 신성한 실재에 가까운 천사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집을 짓기 전과 마찬가지로, 엔지니어는 설계도와 상세 설계를 준비하고 그에 따라 집을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의 창조주도 처음부터 끝없는 영원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설계도와 상세한 설계도를 준비했습니다. 이 마스터 플랜은 보존된 석판(*Loh Mahfoodh*)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에 따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마스터 플랜이 누군가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도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한 번 존재했지만 나중에 사라지더라도 지각과 상상을 통해 그 형태와 외관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시적인 영역을 보고 눈을 감으면 땅과 하늘의 형태와 모습이 지각과 상상 속에 존재하며, 마치 그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만약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그것을 본 사람만 남는다면, 상상과 생각 속에서 그 모습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생각은 계속해서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사물의 현실은 [이전에] 생각과 지각에 존재했던 것들도 마음속에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보존된 석판(*Loh Mahfoodh*)에 표시된 지도와 일치하는 상상의 형태와 모습에 부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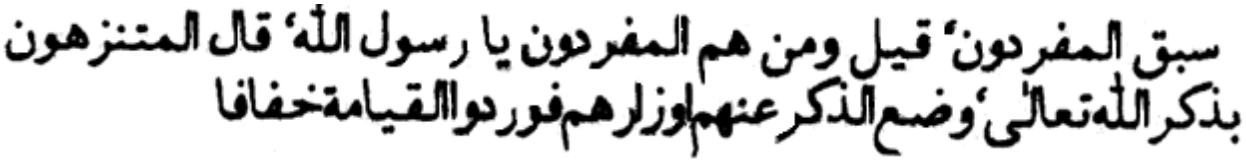
존재의 유형: 위에서 네 가지 존재 단계가 있음을 배웁니다. 첫 번째 존재 단계는 보존된 석판(*Loh Mahfoodh*)에 있는 것입니다. 이 존재는 물리적 존재보다 우월하다. 두 번째 존재의 수준은 실제 존재, 즉 이 [세속] 삶에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존재 수준은 상상의 것이며, 생각과 지각 속에 있습니다. 이는 실제 존재 이후 사고와 상상 속에 나타나는 존재를 가리킨다. 네 번째 존재 단계는 지적 존재로, 상상 속 존재 이후 마음에 나타나는 형태와 현상입니다. 이 네 가지 존재 중 일부는 영적이고, 일부는 육체적입니다. 영적 존재 내에서도 어떤 것은 더 영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경이로움과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아주 작게

창조하셨지만,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의 광활한 광활함을 그 안에 담을 수 있음을 보라. 어떤 사안이 도달하지 않으면 인지하지 못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물들의 본보기, 형태, 모습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그것들을 알거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능력과 절대적 지배를 보여주신 작은 예시로, 그분께서 눈과 마음에 이 경이로움의 거대한 보물을 내려주셨습니다. 경고를 받기 위해 어떤 마음은 통찰력을 잃게 되었고, 어떤 눈은 시각을 잃어 어떤 마음은 자신의 [내면] 결점을 알지 못하거나, 마음이 가져야 할 영적 영역에서 온 경이로움과 신비의 소식을 받지 못할 정도로 무지해졌습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 알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이제 이 개회 발언 후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논의된 것은 마음속에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이 감각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보존된 석판(***Loh Mahfoodh***)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태양의 형상이 때로는 그것을 바라보거나 때로는 물에 비친 태양의 반사를 보고 실제 태양과 닮아 보이듯이, 마음과 보존된 주석(***Loh Mahfoodh***) 사이에 장막이 걷히면 현실이 그 안에 반영되기 시작하고 그들의 지식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 마음은 더 이상 [지식]을 추론하거나 감각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방법으로 지식의 출현과 해명은 땅에서 물이 샘에서 나와 저수지를 채우는 것과 비슷하다. 때때로 마음은 감각을 통해 얻는 그런 생각들로 인해 분주하다. 이러한 생각들은 보존된 비판(***Loh Mahfoodh***)의 장애물이 되므로, 이런 생각들이 물 저장고를 채우고 하부를 채우면 바닥에서 제거되지 않습니다.

두 개의 마음의 문: 마음은 두 개의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문은 천사의 영역(*'알람 알-말라쿳*)으로 열리고, 두 번째 문은 물질 영역 또는 가시적 영역(*'알람 알-물크 와 아스-샤하다*, 신성한 전능과 능력의 출현의 영역으로도 알려짐)에서 소식을 접하는 다섯 감각으로 향한다. 두 영역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오감으로 가는 문을 여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천사의 영역(*'알람 알-말라쿠트*)'이나 보존된 석판(*로흐*

마흐푸데)으로 가는 문을 여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꿈의 상태를 살펴보고, 그 상태에서 경이로움을 목격하는 모습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꿈에서 미래의 사건과 과거의 사건을 보지만, 감각은 꿈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 문은 신성한 기억에 있어 독특한 이들에게만 열립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몰두하고 몰입하여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이나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예언 전통에서 무함마드 선지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سبق المفردون' قيل ومن هم المفردون يا رسول الله' قال المتنزهون
بذكر الله تعالى' وضع الذكر عنهم اوزارهم فوردوا القيامة خفافا

"한마음에 찬 사람들(*무파리둔*)은 신에 이르는 영적 길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발전했습니다."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오 하나님의 사도여! "어떤 사람들은 한결심을 가진 사람들인가?" 그는 이렇게 답했다: "[하나님의 진실하고 경건한 기억(*디크르*)을 통해 [내면의 영적 정화]를 통해 정화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그들의 죄의 무게를 가볍게 했고, 심판의 날에는 그들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잘못의 짐이 그들에게서 덜어졌기 때문에]." (이 내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보도되었습니다 하*디스*는 예언자 동료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사히흐 무슬림*과 *하킴* 을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이후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하디*스 쿠드시*로부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향해 내 얼굴을 돌리며; 내가 내 얼굴을 누구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고 싶은지 아시나요? 내가 그들에게 처음 내리는 것은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내 빛을 심어주고, 그들이 나에 대해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그들의 상태를 알고 있다." 이 소식은 방금 언급한 바로 그 내면문에서 들어온다. [신성한 전능과 능력의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마주하는 마음의 문]. 예언자와 성인의 지식과 학자와 지혜로운 지식의 차이는, 예언적 지식은 천사의 영역(*'알람 알-말라쿠트*)을 마주하는 마음으로 열리는 문에서 오고, 지혜의 지식은 물질 영역으로 열린 감각의 문을 통해 들어온다는 점이다(*'알람 자히르*). 이 예시를 통해

두 영역의 차이가 명확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알람 알-가이브 와 아스-샤하다*, 신성한 전능과 능력의 현현의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도 알려짐)의 신비와 경이로움은 너무 많아 인간의 평가 범위 내에서도 측정할 수 없다.

두 번째 예: 이 예시를 통해 학자들의 지식과 영지주의자들(또는 성인들, 하나님의 가까운 이들, *아울리야*라고도 불림)의 지식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학자들은 지식의 실체를 획득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끌어 들이려 노력하며, *아울리야*(영지주의자, 성인 또는 신의 가까운 이들)는 마음의 정화, 개혁, 다듬기, 활기를 위해 바쁘게 움직인다. 전통에 따르면, 로마인과 중국인은 그들의 건축과 예술적 능력을 화려하게 칭송했고, 각 집단은 왕 앞에서 서로를 능가한다고 주장했다. 왕은 양쪽 전문가들에게 재능을 뽐낼 기회를 주려 했다. 두 사람 모두 예술적 능력을 표현할 수 있도록 건물의 일부를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한쪽은 중국인이 작품을, 다른 쪽에서는 로마인들이 공연합니다. 두 부분 사이에는 커튼이 있어 각 그룹이 서로의 작업을 인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임무를 맡았다. 로마인들은 수많은 놀라운 색을 들여왔고, 중국인들은 색깔 없이 건물 구역에 들어와 맡겨진 부분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인들이 그들의 사역을 완수했다고 발표했을 때, 중국인들도 자신들의 사역이 완성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색이나 물감이 전혀 필요 없는 중국 예술 작품의 유형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건물 두 부분 사이의 커튼을 올리라고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커튼이 올라가면서 로마 예술의 색채가 빛나기 시작했고,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구역 벽을 광택 내어 벽이 깨끗하게 닦인 거울처럼 아름답게 닦아지면서 그 빛과 빛나는 빛은 배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로마 예술의 아름다움을 반영]. 이것이 *바로 아울리야*(성인, 영지주의자, 하나님의 가까운 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중국인들처럼 [이 비유에서], 마음의 모든 부정성, 악랄하고 사악한 성향, 성향과 성향으로부터 정화, 부흥, 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신성한 진리의 빛으로 빛나게 되고, 학자들과 현명한 이들은 전통적인 학습 방식을 통해 지식과 인상을 얻는 데 더 집중합니다.

지식을 얻는 수단이 무엇이든, [신성한] 지식의 빛을 가진 마음에는 소멸이 없다 [마음은 그것에 의해 불멸화됨]. 지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며, 죽음이 마음의 순수함과 명료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 안에 흐림이 들어오지도 않는다. 따라서 하산 알-바스리(신의 자비가 그를 이루길) [가장 위대한 *아울리야*와 영지주의자 중 한 명]은 신앙의 거처(즉, 마음)는 토양에 의해 삼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즉, 신성한 실재를 믿는 마음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식,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능력, 그리고 마음의 순수함과 맑음은 신자(*모민*)에게 필수적입니다. 영원한 행복과 사후 세계에서의 끝없는 성공(*사아다*)은 그것 없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에는 다양한 정도가 있습니다. 부를 가진 모든 사람이 부자라고 불리듯, *사아다*(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를 가진 자는 "*사이드*"(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의 엄청난 풍요를 가진 자)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10만 *디르함*(과거의 금화 형태의 옛 화폐)을 가진 사람이 백만 *디르함*을 가진 사람과 동등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청난 풍요를 가진 모든 소유자가 같은 정도를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극도에 도달하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낮으며, 어떤 사람은 더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행복의 정도는 각기 다른 정도의 영지(*마리파*)와 신앙(*이만*)*에 기인*합니다.

과거의 위대한 영지주의자 아부 술레이만 알-다라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유사성은 많은 닫힌 문이 둘러싸인 돔과 같다. 그들 사이에 열리는 문, 마음이 그 문을 통해 움직인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문 중 하나가 천사의 영역(*'알람 알-말라쿳*)과 더 높은 영적 영역으로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문은 열리지 않고는 힘차고 지속적인 영적 투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위 자아의 욕망과 방치를 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지휘관들에게 신의 경건한 노예들이 들은 말을 기억하라고 편지에서 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더 높은[보편적이고 영원한] 진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그들에게 계시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현명한 자들[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입에 닿아 있으며, 그들은 오직

진리만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한 영지주의자는 하나님께서 겸손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몇 가지 비밀을 드러내신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암시(Waswaas)*를 통한 사탄의 마음 지배* - 암시의 의미와 사탄의 지배 이유

마음은 많은 문이 있는 돔과 비슷했고, 각 문을 통해 내면의 상태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사라집니다. 그런 예는 많아요. 예를 들어, 하트는 사방에서 화살표가 계속 쏘아지는 목표물과 같거나, 여러 이미지가 연이어 반사되어 한가하지 않는 거울과도 같으며, 주변에 설치된 여러 연결된 수로에서 물을 받는 저수지와 같습니다. 심장에 미치는 다양한 충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외부 감각과 내부 감각 모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생각, 욕망, 분노 등 [내면의] 성격 특성들이 이런 영향과 상태를 나타내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변화가 항상 일어납니다. 만약 어떤 물체가 감각을 통해 인지된다면, 그 충격이 심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음식의 풍부함과 성격의 강함이 욕망을 자극한다면 마음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음에 대한 생각은 계속 변하고, 한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계속 옮겨가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변화라는 의미입니다. 숙고와 기억의 결과로 마음에 파생되는 충격을 '위험'(카*와티르*)이라고 부른다. 마음이 인지하는 지식은 '숙고'와 '기억'으로 지칭되며, 이는 새롭거나 이전에 알고 지금까지 언급되는 것이라면 됩니다. [인지됨] 위험(*카와티르*)은 인간이 이를 소홀히 할 때 마음에 가해진다는 이유로 그렇게 불립니다. 이러한 위험은 의도를 촉발하고 [인간] 결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이유는 생각이 마음을 스친 후에야 의도, 결단력, 행동 계획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행동은 이러한 위험에서 시작되고 그로부터 시작된다(*카와티르*). 위험은 욕망을 자극하고, 욕망은 결의를, 결의는 의도나 행동 계획을 일으키며, 의도는 신체 팔다리를 자극한다 [마음속에서 생각이나 인지된 위험에 따라 행동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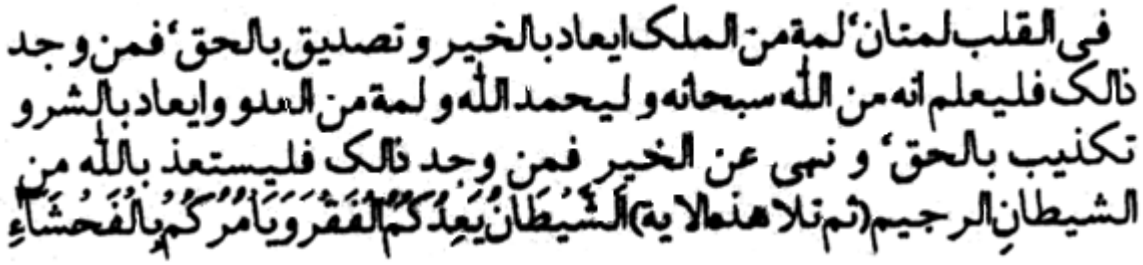
두 가지 위험 유형 - 신성한 영감(*일함*)과 암시(*와스와스*): 욕망을 유발하는 위험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위험은 악한 일(*샤르*), 즉 삶의 최종 결과와 영원한 생명(*'아키바*)에 해로운 일로 초대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사후 세계에서 선과 선의 원천인 선하고 고귀한 일(*카이르*)로 초대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위험(*카와티르*)이 존재하며, 두 가지 모두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다. 선한 위험(*카티르 마흐무다*)은 "신의 영감"(*일함*)이라 불리며, 비난받을 위험(*카티르 마드무마*)은 "암시"(*와스와사*)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위험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하와디스*)이며, 그들에게 창조자(우발적 존재 또는 *하디스*)가 필수적입니다. 위험은 서로 다른 유형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원인과 근원도 다를 것임을 알려줍니다. 신의 지혜와 길(*순나*)은 끊임없이 스며들어 원인과 결과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원인이 있는 그러니까, 결과도 그와 비슷할 거야. 따라서 방에 불을 붙이고 그 빛을 통해 벽이 밝아지고 천장이 연기로 검게 변한다면, 천장의 검은색은 빛 때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어둠과 빛나는 원인도 다양합니다. [두 번째] 위험의 원인은 선을 초대하는 "천사"라고 하며, [첫 번째] 위험의 원인은 악을 초대하는 "사탄"이라고 불립니다. 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마음에 만들어내는 섬세함과 겸손은 '*타우피크*'(선을 행할 수 있는 신의 능력)라고 하며, 사탄적 암시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카들란*'(불운의 심연과 영적 하락 경로로 가라앉는 것)라고 불립니다. 의미의 차이는 서로 다른 용어를 낳습니다.

천사와 사탄: "천사"는 하나님께서 선을 퍼뜨리기 위해 창조하신 존재, 지식의 빛, 진리를 드러내고 선을 약속하며 선하고 고귀한 존재를 명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엔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정해진 임무들에 매료됩니다. "사탄"(*샤이탄*)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면에서 천사와 정반대인 창조물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사탄은 악을 약속하고, 악과 악을 초대하며, 선을 행하려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암시(*와스와사*)는 신의 영감(일함)과 대조되고, 사탄은 천사와 대조되며, 불운의 심연과 영적 하락 하락(*카들란*)은 신의 선한 행하기 권한(*타우피크*)과 대조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다음 구절은 같은 내용을 가리킵니다:

وَمِن كُلِّ شَيْءٍ خَلَقْنَا زَوْجَيْ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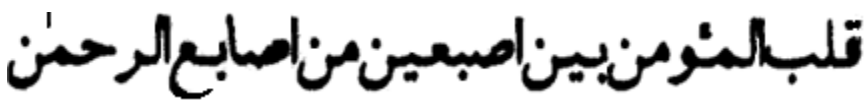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두 쌍으로 만들어냈다." (꾸란 51장 49절)

즉, 모든 창조물은 쌍으로 존재하지만, 위대한 위엄 주님만은 하나이자 유일무이이시며, 아무도 그분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리이며 모든 쌍의 창조주입니다. 천사와 사탄 모두 마음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느라 분주하다. 따라서 전통에 따르면,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في القلب لمتان لمة من الملك ايعاد بالخير و تصديق بالحق فمن وجد
ذالك فليعلم انه من الله سبحانه و ليحمد الله و لمة من العدو وايعاد بالشر و
تكنيب بالحق و نهى عن الخير فمن وجد ذالك فليستعذ بالله من
الشيطان الرجيم (ثم تلا هذه الاية) الشيطان يعدكم الفقر ويأمركم بالفحشاء

"'마음에는 두 가지 친밀함이 있다: 하나는 선을 약속하고 진리를 밝히는 천사와의 친밀함이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친밀함은 진리를 거부하고 선을 막는 사탄의 가까움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사탄, 저주받은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피난처를 구해야 한다.' 그 후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낭송하셨습니다: '사탄은 너희를 가난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악과 부끄러운 [음탕한] 행위를 저지르라고 명령하신다'". (이 내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보도되었습니다 *하디스*는 예언자 동료 압둘라 이븐 마수드의 권위에 따라 *티르미디*와 *나사이*를 모 았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하산 알-바스리(위대한 영지주의자)는 두 가지 생각(의도와 결의)이 마음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는 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생각에 잠시 멈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행동해야 하며, 적(즉,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팔로우] *하디스* (예언적 전통)은 이러한 [경쟁적인, 상반된] 생각들 사이의 갈등을 지적합니다:


قلب المؤمن بين اصبعين من اصابع الرحمٰن

"신자의 마음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가락 사이에 있다".

하나님은 살과 피, 뼈로 이루어진 손가락을 가졌다는 점에서 더 높이 평가받으십니다. 여기서의 손가락은 인간이 손가락을 통해 빠르게 움직이며 물건을 돌리고 움직인 것처럼, 하나님도 천사와 사탄을 복종시키고 각각의 일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천사와 사탄 모두 하트를 돌리고 뒤집는 데 복종하는데, 마치 손가락이 의지에 따라 물체를 움직이고 뒤집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은 본질적으로 천사와 사탄의 영향력을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으며, 어느 쪽이 더 선호됩니다. 하지만 하위 자아의 욕망을 따르거나 반대하는 것은 한쪽(천사나 사탄)을 선호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인간이 분노와 욕망의 함의에 따라 행동한다면, 사탄은 하위 자아에서 나오는 욕망을 통해 사탄을 지배하게 되고, 마음의 거처이자 인큐베이터, 지지자가 될 것입니다. 이는 하위 자아의 욕망이 사탄의 방목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욕망에 맞서 용감하게 싸우고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으며 천사의 성격을 채택한다면, 그런 천사의 마음은 천사의 안식처이자 목적지가 될 것이다. 욕망, 분노, 탐욕, 탐욕, 그리고 장기적인(끊임없는) 욕망에 깃든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탄적 암시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예언적인 서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ما منكم من احد الا وله شيطان' قالوا وانت يارسول الله؟ قال وانا الا ان الله اعاننى عليه فاسلم فلا يامرالا بخير

"'너희 각자에게 악마(*샤이탄*)가 임명된다'. 예언자들이 물었다: '너에게도 있는가?'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대답하셨습니다: '네,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고, 그는 신의 뜻과 명령에 복종하는 *무슬림*이 되었습니다 . 그는 나에게 좋은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내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보도되었습니다 *예 언자 동료 압둘라 이븐 마수드의 권위에 따라* 무슬림 사히흐 하*디스* 모음 집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사탄은 욕망을 통제와 조작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신의 도움으로 욕망이 어느 정도 복종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다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악을 부르는 자가 아니며, 사탄도 그것을 자신의 [사악한]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사탄은 세상과 세속적 기억, 그리고 낮은 자아(Nafs)의 욕망에 지배당할 때 마음에 암시를 심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기억으로 향한다면, 사탄은 [신성한 기억이

우세한 이 사람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암시를 퍼뜨릴 능력(*와스와스*)을 잃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선하라고 명령합니다. 천사와 악마의 군대가 이렇게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 전투 상태는 심장이 정복되어 두 [군대] 중 하나에 복종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럴 때, 마음은 천사와 사탄 중 승자의 안식처이자 자리가 됩니다. 패배한 적이 그 지나가면, 그것은 소유자이자 승자가 아니라 공격자로 지나간다. 슬프게도, 그리고 다시 한 번 큰 슬픔과 함께 말하자면, 대부분의 인류의 마음이 악마들의 조작과 음모로 정복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복당하고, 노예로 묶이고, 복종당한 마음들 [대다수 인간에 속하는] [사악하고 사악한] 사탄적 암시(와스와스)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내세보다 세상(세속적 삶과 야망)을 우선시했습니다. 사탄 군대가 마음을 지배하는 이유는 하위 자아로부터 오는 욕망 때문입니다. 그것(즉,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사탄의 지배와 통제가 제거되고 하층 자아로부터 욕망이 모두 비워지고, 대신 하나님의 기억으로 가득 차게 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신성한 기억을 통해 마음의 골짜기에 내려오고, 사탄은 군대와 동료들과 함께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비르 이븐 주바이다투 알-아드비는 "나는 알라 이븐 지야드(신께서 그를 자비하소서)(위대한 영지주의자)에게 마음속에 태어난 악한 생각(사탄적 암시)에 대해 불평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과 비슷한 것은 마치 도둑이 집에 침입하는 것과 같다. 집에 무언가가 있으면 도둑들이 그것을 가져가고, 아무것도 없으면 빈손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예를 통해 알라 이븐 지야드는 사탄이 하위 자아로부터 욕망이 없는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إِنَّ عِبَادِى لَيْسَ لَكَ عَلَيْهِمْ سُلْطَٰنٌ

"[하나님께서 사탄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특별한 종들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꾸란 17장 65절)

하위 자아의 욕망에 종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등 자아로부터 온 욕망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꾸란에서]에 말씀하셨습니다:

أَفَرَءَيْتَ مَنِ ٱتَّخَذَ إِلَٰهَهُۥ هَوَىٰهُ

"하층 자아의 욕망으로 신이 된 사람의 상태를 본 적 있나?" (꾸란 45장 2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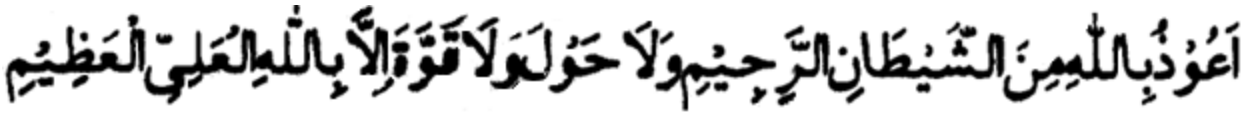
이 구절에서 우리는 매우 명확하게 알게 되었는데, 하위 자아로부터 욕망에 복종하는 자들은 그 욕망을 신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즉,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신인 것처럼 숭배합니다).

사탄에 대한 보호의 길: 암르 빈 알-아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에게 말했다: "오, 신의 사도여! 사탄은 나와 내 기도 사이에 끼어들고 [하나님께] (즉, 내가 기도할 때 꾸란을 암송할 때, 사탄은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이외의 것들과 얽어놓는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ذالک شیطان یقال له خنزب' فاذا احسسته فتعوذ بالله منه واتفل عن یسارک ثلاث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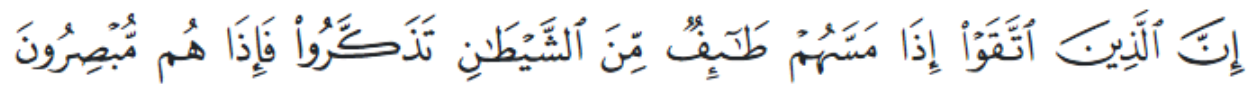
"저건 '힌자브'라고 불리는 사탄이야. 느낄 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구하고 왼쪽에 세 번 침을 뱉으라." (이 이야기는 *예 언자 동료 암르 이븐 알-아스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 집* 『사히흐 무슬림』에 기록되어 있다.)

'암르 이븐 알-'아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이 방법을 따랐을 때 불만이 해결되었다고 말했다. 이 전통들에서 배운 것은 사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 즉 신성한 기억(*디크르*)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억으로 사탄의 영혼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그는 모든 계략에서 실패한다. 하나님의 기억으로 인해 사탄이 도망치는 지적 이유는, 다른 무언가가 마음에 들어올 때만 사탄의 암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면, 이전에 있던 것은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른 것으로 점유하면 사탄적 암시가 끝나지만, 암시가 마음속에서 새로운 생각의 형태로 태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성한 기억만이 사탄이 그 존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모든 것의 치료는 그 반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규칙입니다. 사탄적 암시의 반대는 신(*이스티아다*)과 신성한 기억을 통해 자신의 권능과 권력을 가장하는 가식을 버리며 피난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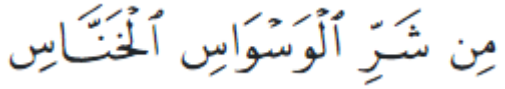
"나는 저주받은 사탄으로부터 신의 피난처를 구한다. 하나님, 숭고하신 분, 최고하신 것 외에는 힘과 힘이 없다."

오직 경건한 경외심과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성한 기억이 우세한 자들만이 사탄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계략으로 그들을 압도하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기억의 힘으로 그를 물리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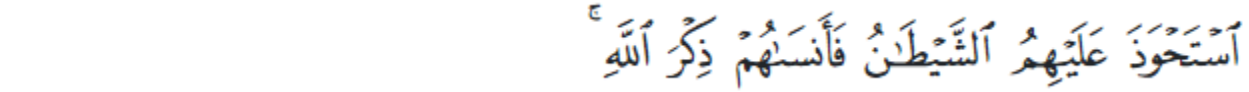
"경건한 경외심과 경외심, 경외심을 가진 자들은 사탄으로부터 암시가 내려오면 즉시 신성한 기억에 빠져 이 악한 일에 놀라며 행동하게 됩니다." (꾸란 7장 201절)

아래 구절에 대한 설명: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사탄적 암시의 악으로부터 피신하노라." (꾸란 114장 4절)

무자히드(예언자 동료 압둘라 빈 압바스의 위대한 제 자로, 꾸란 해석을 전문으로 한 신의 기쁨이 있기를)는 사탄이 자신의 그림자를 마음에 드리운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알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개인적 이름이고, "하나님"은 그분을 지칭하는 언어 특유의 일반명이며, 모든 인간 언어는 각각 동등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일반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탄)는 물러나 몸을 움츠러들게 앉고, 인간이 그를 무시하고 무관심할 때 그(사탄)는 계속해서 심장 위에 퍼진다.
하나님의 기억과 사탄의 암시 사이의 모순은 낮과 어둠 사이, 혹은 낮과 밤 사이처럼 매우 커서 한쪽이 오면 다른 쪽은 존재를 잃게 됩니다. 다음 성스러운 [신성한] 구절은 같은 모순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잊게 만들었다." (꾸란 58장 19절)

아나스 빈 말릭(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은 무함마드 선지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로부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합니다:

ان الشيطان واضع خرطومه على قلب ابن آدم، فان هو ذكر الله تعالى قنس وان نسي الله تعالى التقم قلبه

"사탄이 아담(인간)의 아들의 심장에 자신의 꼬리를 올렸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사탄)는 떠나고, 하나님을 잊으면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삼킨다." (이 이야기는 *하디스* 모음집인 *이븐 아비 앗-두냐, 아부 야라*, *이븐 아디에 기록되어 있다*.)

이븐 와다(신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길)는 마흔이 된 사람이 죄에서 회개하지 않을 때, 사탄이 손을 얼굴 위에 올리며 말한다: "구원을 운명으로 삼지 못할 이 아름다운 얼굴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욕망과 유혹이 [인간] 살과 피에 섞여 있는 것처럼, 사탄도 피를 타고 흐르며 심장을 사방에서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ان الشيطان يجري من بني آدم مجرى الدم فضيقوا مجاريه بالجوع

"사탄은 인간의 몸에 피를 돌고 있다; 따라서 그의 구절을 배고픔(즉, 금식과 과도한 음식과 술에 대한 욕망 없는 것)을 통해 좁혀라."

[사탄의] 구절을 좁히라는 조언은 굶주림이 욕망을 끝내고, 사탄이 욕망을 통해 몸에 들어가 특히 심장 주변에서 사방(모든 방향)에서 혈액을 순환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중심은 오직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사방에서 공격한다는 증거는 이 구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존경하신 하나님이 사탄의 혀를 통해 전하셨으며, 사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لَأَقْعُدَنَّ لَهُمْ صِرَٰطَكَ ٱلْمُسْتَقِيمَ ﴿١٦﴾

ثُمَّ لَءَاتِيَنَّهُم مِّنۢ بَيْنِ أَيْدِيهِمْ وَمِنْ خَلْفِهِمْ وَعَنْ أَيْمَٰنِهِمْ وَعَن شَمَآئِلِهِمْ ۖ

"나는 당신 (오 하나님!) 내가 그들(인간)을 위해 주님의 곧은 길(올바른 인도)에 앉아 있을 것이며, 그들을 앞에서, 뒤에서, 오른쪽과 왼쪽에서 공격하리라." (꾸란 7장 16-17절)

무함마드 선지자의 말씀(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에 따르면, [사탄적] 암시는 그의 설득을 통해 마음에 생기는 불안감입니다. 예언적 이야기(*하디스*)에서 모든 인간에게는 악마가 있다고 언급되어, 누구도 이러한 불안감에서 자유롭지 않다; 만약 인간들이 사탄을 대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사탄에 반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복종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사탄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일부 사람들은 사탄의 본질에 대해 "그가 미묘한 몸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몸이 없는가?", "만약 그가 몸이라면 어떻게 인간의 몸에 들어가 혈관을 통해 혈관을 통해 순환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본성과 현실은 외부 지식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비슷함은 뱀이 몸을 뚫고 들어가 뱀을 빼내는 대신 그 모양, 색깔, 길이, 너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같다. 이건 순전히 무지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적이며, 그의 적대감은 열린 책처럼 명확합니다. 용감한 투쟁을 벌이며 그와 싸우는 데 바빴어야 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 혈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를 꺼내는 데 신경 써야 해. 존경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책(꾸란)에서 인간에 대한 적대감을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إِنَّ ٱلشَّيْطَٰنَ لَكُمْ عَدُوٌّ فَٱتَّخِذُوهُ عَدُوًّا ۚ إِنَّمَا يَدْعُوا۟ حِزْبَهُۥ لِيَكُونُوا۟ مِنْ أَصْحَٰبِ ٱلسَّعِيرِ

"진실로, 사탄은 너희의 원수니, 그를 네 원수로 삼아라.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악과 악으로 부르며 사람들이 지옥의 주민이 되도록 한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임무이다, 가능한 한 많은 인간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꾸란 35장 6절)

أَلَمْ أَعْهَدْ إِلَيْكُمْ يَٰبَنِىٓ ءَادَمَ أَن لَّا تَعْبُدُوا۟ ٱلشَّيْطَٰنَ ۖ إِنَّهُۥ لَكُمْ عَدُوٌّ مُّبِينٌ

"아담의 자손들이여! (즉, 시작부터 끝까지의 인류 전체) 내가 당신에게 사탄을 숭배하지 말라고 꾸짖지 않았던가요? [그의 명령, 악한 부인, 개인과 집단의 복지에 해로운 모든

것에 대한 악한 부정적 신호와 암시에 복종하라]. 정말로, 그는 당신의 공개적이고 공개적인 적입니다." (꾸란 36장 60절)

인간은 이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하며, 이 적이 어디서 왔는지, 혈통과 피부색이 무엇인지 묻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묻는다면, 이 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적(모든 인류)을 굴복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이는 이전에 적(사탄)의 무기가 하위 자아에서 나온 저급한 욕망이며, 이 욕망을 통해 주입된 힘을 통해 그는 왕국과 육체의 통치에 깊이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암시와 악한 부추김의 전략을 통해 그는 신앙과 결의가 약한 사람들을 물리친다. 사탄의 공격을 막는 전략도 설명되었고, 사탄의 영혼과 야망을 좌절시켜 전장에서 도망치게 만드는 무기도 언급되었다. 평민은 평민일 뿐이며, 학자(학문 신학자)조차도 그 이상을 알 수 없습니다. 사탄의 존재와 본질을 인식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아리판*', 즉 성인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몫이다. 이 사람들은 신비로운 지식("*일름 알-무카샤파*" 또는 영적 드러남에 관한 지식)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스쳐가는 생각(*카와티르)의 유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선한 것을 초대하고 부르는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주저함 없이 일함(Ilham) 또는 신성한 영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둘째, 악으로 [또는 부정적이고 우울하며 해로운 것들]로 초대하는 스쳐가는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탄적 암시와 설득(*Waswasa*)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셋째, 신의 영감과 사탄적 암시 사이에 있는 것들로, 이들이 천사에게서 온 것인지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속임수의 한 형태가 악을 선으로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구분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속임수에 빠져 파괴됩니다. 예를 들어, 사탄은 학자(스콜라 신학자)에게 조언하듯 "사람들을 보라! 무지는 그들을 멸종으로 몰아넣고, 부주의함은 그들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 그들은 지옥 가장자리에 거의 다다랐고 신의 분노가 그들을 감싸려 하고 있다. 당신은 이 하나님의 종들을 자비로 여기지 않으니, 귀중한 조언과 학문적 설연으로 그들을 파괴에서 구하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통찰, 깊은 이해,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 같은 [위대한] 자질을 부여하셨습니다. 당신의 연설은 매력적이고, 전달 방식은

인기가 있으며, 당신의 말은 믿음의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에 감사하지 않는 거야?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벌을 받아 하나님의 불쾌함을 사며, 지식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초대하는 능력이 처벌로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이와 비슷한 조언들을 너무나 자주 꾸짖어, 학자의 마음은 그 말들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결국 설교의 영역으로 나아가 고독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모임에 나서게 됩니다. 이 요새에서 사탄은 조언을 하고 사람들을 유교화하는 사람이 잘생기고 옷을 잘 입으며 말도 잘할 때까지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며 더 속인다. 이 [사탄적] 속임수에 빠지면 점차 과시, 오만, 자기 의, 명성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태어나고, 그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낮고 열등하게 보인다. 사탄이 선의 위장을 한 수많은 악의 근원을 창조했고, 이 모든 조언이 학자에게 진심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자가 몰래 파멸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난한 [아무것도 모르는] 학자나 설교자는 말로 지혜의 진주를 전하며, 자신의 목적이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대중 사이에서] 명성과 인기를 얻기 위해 바쁘다.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내세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통에 따르면, 저주받은 사탄이 예수에게 남자의 모습으로 와서 "*라 일라하 알 알라*" 즉 "신 외에 신은 없다"고 말하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예수님(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은 대답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에 관한 증언]이 진리일지라도, 단지 당신이 말하라고 해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절하는 이유는 사탄이 선한 일을 하도록 설득하는 데에도 함정과 함정이 없지 않으며, 선을 통한 사탄의 함정이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 모든 학자(학문 신학자와 설교자), 예배자, 세속적 절제자, 영적 여행자, 관대한 이들이 모든 상황에서 노골적인 악을 싫어하고 더욱이 죄를 짓는 데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파괴됩니다. 사탄의 속임수의 몇 가지 예시는 가잘리의 *대작* "*Ihya al-Uloom ad-Deen*" 또는 "하나님으로 가는 길의 지식의 부흥"의 세 번째 권에 소개될 예정이며, 오만과 자만에 관한 책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다면, 저는 같은 주제로 "*Talbees Iblis*"라는 제목의 책을 쓸 계획입니다" (악마의 설득과 함정). 모든 지역, 나라, 국가에서 모든 사람은 악마의 설득과 함정의 희생자입니다. 특히 그(사탄)는 [종교적] 신념과 신학적 사상(마다히브)에 대해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데 모든 한계를 넘어섰다. 이제 선과 의로움은 단지 의례적인 문제가

되었다. 인간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의도에 대해 잠시 멈추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선과 악을 검토한 후 [행동하기 전에], 그 생각과 의도가 사탄의 암시인지 신의 영감인지 판단해야 하며, 가능한 한 잠시 멈추고 묵상과 평가(정신적, 지적 능력)의 모든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는 폭넓은 지식 없이는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깊은 통찰과 경외, 경외와 경외(타크와)입니다:

إِنَّ ٱلَّذِينَ ٱتَّقَوْا۟ إِذَا مَسَّهُمْ طَٰٓئِفٌ مِّنَ ٱلشَّيْطَٰنِ تَذَكَّرُوا۟ فَإِذَا هُم مُّبْصِرُونَ

"사탄에게서 생각이나 암시가 일어날 때마다, [의로운 하나님의 종들]은 신성한 기억에 참여하고 놀라며, 그로 인해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눈을 뜨게 된다]." (꾸란 7장 20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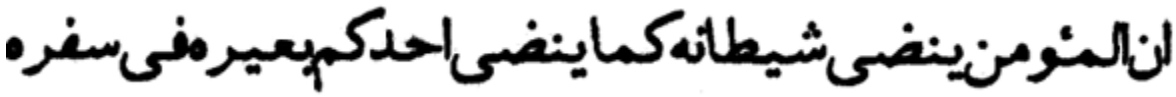
즉, 이런 상황에서 의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면의 빛이 그들을 무지의 어둠에서 끌어낸다. "*카슈프*"(깨어 있는 상태에서의 영적 드러남)와 통찰(*베이스라*)을 통해 모든 복잡함과 비밀이 풀려난다. 경건한 경외심, 경외심, 신에 대한 두려움(*타크와*)이 결여된 사람은 낮은 자아로부터 욕망에 압박받아 사탄의 속임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하다고 여기는 카이르(*Khair*)하고 무의식적으로 파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꾸란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وَبَدَا لَهُم مِّنَ ٱللَّهِ مَا لَمْ يَكُونُوا۟ يَحْتَسِبُونَ

"그들은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문제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꾸란 39장 47절)

사탄의 속임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은 모든 개인에게 의무입니다: 외부 지식(외적 지식 또는 "*일름 무암라*")*에 대한 지식에서는 하위 자아*(나프스)의 속임수와 사탄의 교활함을 *인지하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모든 개인에게 의무이지만, 사람들은 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주의하며 지식을 얻는 데 바쁩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계속 통제할 기회를 제공할 암시와 자극(사탄의 *와스와스*)을 선동하세요 . 그들은 그의 적대감과 그런 지식을 얻는 데 관여함으로써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수많은 암시와 자극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생각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나 인지된 위험(또는 인간이 내면의 방어를 무력화하고 이를 소홀히 할 때 마음에

부과되는 '*카와티르*'라 불리는 문)의 문은 외면의 다섯 감각과 내면의 욕망과 세속적 얽힘이다. 작은 집에서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섯 가지 [외부] 감각의 통로를 차단합니다. 친척과 부와 거리를 두는 것은 욕망과 세속적인 사랑을 줄여줍니다. 이 상황에서는 [모든 내외의 문이 닫혀 있을 때], 오직 생각의 문만이 열려 있지만,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수호로 지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들이 경비를 뚫고 마음속으로 스며들기도 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이 '도둑'과 치열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 [강렬한 내면의 영적] 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고 오히려 생의 마지막 숨결까지 계속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매복 상태에서 [집중하게] 지켜보고 기회가 생기면 공격하는 사탄으로부터 결코 면역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적(사탄)에 대해 항상 경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때로는 영적 투쟁을 통해 이 적을 굴복시키고 타격을 입힐 수 있지만, 이 패배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일 뿐입니다. 사탄이 기회를 잡으면 다시 공격합니다. 혈관에 피가 흐르는 한, 사탄과의 투쟁을 계속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음의 '성소 도시'의 문은 평생 사탄을 위해 항상 열려 있으며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이 문들은 곧 설명될 욕망, 분노, 질투, 탐욕, 탐욕의 문이다. 도시 입구가 열려 있고 적이 경계할 때, 도시는 [영적] 투쟁과 경계를 통해서만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산 알-바스리(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에게 물었다: "오 아부 사이드! 사탄은 잠을 자나요?" 그는 "그가 잠들면 잠들 수 있겠습니까?" 믿는 종은 사탄에게서 도망칠 수 없지만, 그를 이길 수 있고 사탄의 힘을 약화시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종은 사탄을 야위고 약하게 만드는데, 네가 네 낙타와 함께 여행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예 언자 동료 아부 후라이라(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집 무스나드 아흐마드에 기록되어 있다.)

압둘라 빈 마수드(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신자의 사탄(평생 그림자와 함께하는 사탄)은 약하다고 말했다. 위대한 영지주의자 카이스 빈 알-하자즈는 "내 사탄이 말하길, 내가 너 안에 들어갔을 때 나는 낙타 크기와 힘 같았고 지금은 새와 같다"고 했다.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는 "당신은 하나님의 기억을 통해 내 몸을 계속 녹여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어쨌든, 경건한 경외심과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타크와*)에게는 사탄의 문을 닫고 경계심 있게 지켜보는 일, 즉 외부 문을 닫고 죄와 악을 초대하는 명백한 길을 완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사탄의 복잡한 수법에 속아 그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지 못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학자들(학문 신학자)과 설교자들에 대해 설명되었듯이, 사탄이 은밀히 선행의 문을 통해 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도전의 엄청난 점은 사탄이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많지만, 천사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은 단 하나뿐이라는 점입니다. 이 초월적인 천사의 문[마음의 문]은 수많은 사탄의 문 앞에서 의심스러워집니다. 이 문들(마음으로 들어가는 입구)과 관련하면, 인간은 어두운 밤 정글을 여행하는 여행자와 같다. 그는 특정 장소에 멈춰 수많은 어렵고 고된 길이 나타나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한다. 수많은 불분명한 길 중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성과 통찰로; 두 번째는 햇빛 쪽이었다. 이 문제에서 경건한 경외심, 경외심, 경외심, 지성과 통찰력, [신성한] 책에 대한 지식과 예언적 길(*순나*)을 가진 마음은 햇빛과 동등하다. 태양의 빛이 목적지로 가는 올바른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신성한] 책과 예언의 길(*순나*)의 지식의 빛도 목적지로 인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길은 무수히 많아 그것들로부터 보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압둘라 이븐 마수우드(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가 막대기로 땅에 선을 긋고 "이것이 신의 길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그 후 그는 그 [첫 번째] 선의 오른쪽과 왼쪽에 여러 선을 그리며 말했다: "이 길들도 길이지만, 각 길마다 악마가 있어 사람들을 그 길로 초대한다." 그 후 그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낭송했다:

وَأَنَّ هَٰذَا صِرَٰطِى مُسْتَقِيمًا فَٱتَّبِعُوهُ ۖ وَلَا تَتَّبِعُوا۟ ٱلسُّبُلَ

"이것이 곧고 단단한 나의 길이다 [결점이 없고 곧게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러니 이 길을 걸으며 다른 길은 걷지 마세요." (꾸란 6장 153절)

그분(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은 여러 선을 곧은 길(*시랏 알-무스타킴*)을 중심으로 그려진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예언적 이야기를 통해 사탄의 길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이 길들 중에서, 사탄은 학자(스콜라 신학자), 경건한 자아, 낮은

자아로부터 욕망을 통제한 자, 그리고 죄의 삶을 속여 죄의 삶을 자제하는 이들을 초대하는 길이 있다. 이제 이 [속임수] 경로 중 한 경로가 언급될 것입니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미세하게 걷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예언적 전술(*하디스*)에 언급됩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스라엘 자손 출신의 한 수도승(모든 세속적 욕망을 부정하며 고독 상태에서 신성한 숭배를 하는 사람)을 언급했는데, 그 도시에서 사탄이 한 소녀를 목졸라 죽였고, 그 가족들에게 그 수도승이 그 수도승에게서 치료가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녀를 수도승에게 데려갔고, 수도사는 그 상황을 다루기를 단호히 거부했지만 끈질기게 고집하여 수도사가 그녀를 치료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사탄은 수도승의 마음속에 간음의 생각을 심어주고 그를 부추기게 하여 그가 간음을 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임신하게 되었다. 사탄은 수도승의 마음에 불명예와 불명예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자신의 죄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그녀의 살인을 암시한 뒤, 어떻게든 그녀의 가족에게 자연사를 확신시킬 수 있었다. 그가 한 일은 바로 그거였다. 사탄은 그 수도승에 대한 행동을 계속하며, 수도승이 수치심을 두려워해 그녀를 임신시킨 후 그녀를 죽였다는 소녀 가족의 마음에 심어주었다. 그들은 수도승에게 와서 그녀에 대해 물었다. 몽크는 사탄이 그의 마음에 심어준 것과 같은 답변을 했는데, 그 소녀는 병으로 인해 죽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고 그를 체포하려 했습니다. 사탄은 승려에게 모든 일이 자신의 꾸민 결과라고 말했다. 자신이 그녀를 목 졸랐고, 그녀의 부모를 설득해 그녀를 자신에게 보내게 했으며, 자신(수도승)을 선동해 그녀를 죽이게 했고, 이제 그가 그(수도승)를 그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몽크는 그에게 어떻게 그(사탄)에게 복종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탄은 그에게 두 번 엎드려야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몽크는 사탄 앞에 엎드렸다. 사탄은 떠나며 말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내가 너에 대해 뭘 안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كَمَثَلِ ٱلشَّيْطَٰنِ إِذْ قَالَ لِلْإِنسَٰنِ ٱكْفُرْ فَلَمَّا كَفَرَ قَالَ إِنِّى بَرِىٓءٌ مِّنكَ

"사탄의 유사성은 그가 먼저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불신자가 되면, 사탄은 '나는 그 사람(인간)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꾸란 59장 16절)

사탄이 그의 속임수로 승려를 강제로 그의 명령에 복종하여 엄청난 죄(카바이르*)를 저지르게 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사탄의] 조언과 설득에 따라 치유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간음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치료라는 조언이 옳았고, 그 안에 악이 내재되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전략은 선하고 고귀한 길을 통해 악을 찾는 것이며, 한 사람을 악의 길로 이끌면 한 악에서 다른 악으로 끌어당겨 모든 구원의 길이 닫히고, 인간은 원하지 않아도 악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من حام حول الحمى يوشك ان يقع في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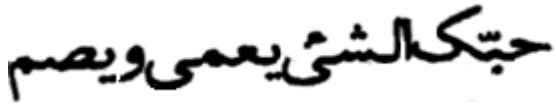
"목초지(목초지)를 돌아다니는 사람은 [무심코] 그 땅에 들어갈 위험에 처해 있으며, [따라서 악에 빠질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악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는 *예 언자 동료 나우만 빈 바시르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집* 『사히흐 부카리』*와* 『사히흐 무슬림』에 기록되어 있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사탄의 입구

마음은 요새와 같고, 사탄은 그 안에 들어가 점령하고 소유하려는 적과 같습니다. 요새를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요새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입구와 통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 입구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그곳을 지키고 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이를 통해 심장을 사탄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의무이며, 오히려 모든 정상적인 성인에게 개인적으로 의무(*파르드 아인*)이며, 개인적으로 의무에 도달하는 모든 수단도 의무적임을 배웁니다. 이는 사탄이 자신의 입장 경로를 알지 못하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입구와 경로는 외부 감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내면적 성격 특성이나 특성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특성들을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수가 많아 사탄의 군대가 대규모 집결한 일부 입구만 다음과 같이 언급할 것이다:

분노와 욕망: 지성은 마음의 두 큰 입구, 즉 분노와 욕망을 통해 소멸됩니다. 사탄의 군대는 지성의 군대가 약해질 때 [심장]을 공격한다. 사람이 분노에 빠질 때, 사탄은 아이가 공을 가지고 놀듯이 한 사람을 가지고 놀아줍니다. 전통에 따르면, 사탄은 예언자 모세(무사라고도 불림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오 모세여! 하나님께서 너를 예언자의 자리에 임명하셨고, 그분과 대화할 영광을 허락하셨다. 저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아담 앞에 엎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으며(평화가 그에게 있기를) 회개하고자 합니다. 내 회개를 받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중재해 주시길." 모세(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는 그를 위해 중재하겠다고 약속했다(사탄). 모세는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그가 산에서 내려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모세여! 신뢰를 되돌려줘!" 모세(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는 말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종 이블리스(사탄)는 자신이 지은 죄를 후회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회개를 받아주소서." 모세에게 신성한 계시가 왔다(하나님의 평화가 그에게 있기를). "오 모세여! 당신의 간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블리스(사탄)에게 아담(그에게 평화이 있기를)의 무덤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후회하라고 전하라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회개의 진실성의 표시]." 모세(하나님의 평화가 그에게 있기를)는 이 신성한 명령을 사탄에게 전했습니다. 사탄은 그 말을 듣고 분노에 휩싸여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담이 살아 있을 때 절하지 않았는데, 그가 죽었을 때 절하겠느냐? 하지만 저를 위해 하나님께 중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그 [은혜] 덕분에 이제 저에 대한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세 번이라도 나를 기억한다면 나는 너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첫째, 분노할 때, 내 영혼이 네 영혼 안에 있고 내 눈이 네 눈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몸의 모든 혈관을 피처럼 순환하니, 화가 났을 때는 꼭 내 말에 집중해야 해. 사람이 분노를 가질 때, 나는 코에 불어넣으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깨닫게 된다. 둘째, 전쟁 중일 때는 전쟁 전선에서 적과 싸우고 싶어 할 때, 저는 전쟁에 참여할 생각을 버리고 도망치게 하기 위해 집, 아내, 자녀를 떠올리게 합니다. 셋째, 마*흐렘*이 아닌 여성(어 머니, 시어머니, 할머니, 딸, 손녀, 자매, 조카, 이모 등 그의 금지된 친척 중 하나가 아니며 결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여성)와 단둘이 앉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남녀의 마음 사이에 메신저가 되어 서로의 마음에 대해 슬며시 들여다준다. 나는 그들이 죄의 환난(핏나)에 휘말릴 때까지 계속 그렇게 했다."

탐욕과 질투: 사탄은 세 가지 상황을 통해 분노, 욕망, 탐욕이라는 세 가지 내면의 특성을 가리켰습니다. 이는 전쟁에서 벗어나는 것이 세속적 재산과 부의 탐욕 때문이고, 죽은 아담(하나님의 평화가 그에게 있기를)에게 엎드리지 않는 것은 질투 때문이며, 질투는 사탄에게 큰 마음속 침입이기도 합니다. 한 성인(영지주의자)은 사탄에게 인간에 대한 지배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나는 인간을 분노와 욕망의 상태에 가두고 그들을 완전히 통제한다"고 말했다. 사탄은 수도승 앞에 나타나 그에게 물었다: "아담의 자손들(인간)의 어떤 자질이 너에게 더 도움이 되는가?" 그는 이렇게 답했다: "분노의 강도. 그래서 인간이 분노의 강도로 휘몰아칠 때, 나는 아이가 발로 공을 차듯 돌려서 발로 차버린다." 이것은 사탄의 말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자손들(인간)이 어떻게 나를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할 때 나는 마음에 머물고, 화가 났을 때는 내 머리로 날아간다." 탐욕이나 탐욕은 사탄의 큰 등장이기도 하는데, 이는 사람을 눈멀게 하고 귀를 멀게 만듭니다. 그 이후로는 좋은 조언을 들을 수 없고, 선의 길을 볼 수 없습니다. 예언적인 내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네가 어떤 것에 대한 사랑을 너를 눈멀고 귀가 멀게 만든다." (이 내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보도되었습니다 *하디스* 수집 *아부 다우드* 예언자 동료 아부 알-다르다의 권위에 따라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통찰의 빛을 통해서만 인간은 사탄의 등장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탐욕과 탐욕의 어둠이 통찰의 빛을 지배할 때, 사탄은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해롭고 치명적인 모든 것에 대한 욕망과 탐욕을 마음에 심어둡니다. 전통에 따르면, 거대한 홍수가 왔을 때 예언자 노아(누흐(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는 자신의 나라에서 온 모든 신앙인과 모든 동물 쌍을 태우고 배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는 배 안에 앉아 있는 낯선 노인을 보았다. 그는 그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네 동료들의 심장을 빼앗으러 왔다. 그들의 몸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나와 함께할 것이다." 예언자 노아(하나님의 평화가 그에게 있기를)는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의 적이여! 여기서 나와! 여기엔 네가 설 자리가 없어." 그는 이렇게 답했다: "내가 사람들을 파괴하는 데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 세 개는 말해주겠지만 두 개는 말하지 않을 거야." 신성한 계시가 [노아

예언자(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에게 왔다: "오 노아! 그가 말하고 싶은 세 가지는 필요 없어. 그가 당신에게 숨기고 있는 것을 알아내라." 예언자 노아(하나님의 평화가 그에게 있기를)는 그에게 두 가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탐욕과 질투. 이 두 가지는 결코 나를 속이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을 파괴하는 데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저주받은 것은 질투 때문이다 [신의 자비에서 제외됨] '저주받은 사탄'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그것은 탐욕이다. 아담은 천국의 모든 것이 허용되었으나 단 한 그루의 나무만은 허용되었고, 나는 그 욕망을 그의 마음에 심어 그를 그곳에서 벗어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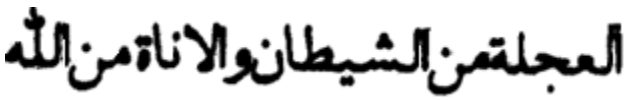
포만감: 허용되는 할*랄* 음식이고 순수한 음식이라 해도 마음속으로 사탄이 큰 침입 역할을 합니다. 욕망에 에너지를 주고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사탄의 무기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사탄은 예언자 자카리아(자카리야의 아들 야히야로도 알려짐)의 아들 요한 앞에 나타났으며, 밧줄로 만든 함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언자 요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이 그에게 물었다: "이 함정들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것들은 욕망과 방탕함의 함정이다. 나는 이것들로 아담(인간)의 자녀들을 붙잡는다."고 말했다. 그는 물었다: "나도 함정에 빠진 건가요?" 그는 "네. 배불리 먹을 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리네요." 그가 물었다: "나한테 더 필요한 게 있나?" 그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오늘 이후로는 신께 맹세코 배부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탄은 "나는 또한 무*슬림* [당신](즉,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완전한 복종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상태인 자)에게 어떤 유익한 말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고 말했다. 배불리 먹는 데에는 여섯 가지 해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마음에 남아 있지 않고; 둘째, 타인을 자신(자신처럼 만족한 존재)으로 생각하며 배고픔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동료 인간과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 연민을 느끼지 않는다; 셋째, 예배가 부담스럽다고 느껴지는데; 넷째,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겸손으로 녹지 않고 듣고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집니다; 다섯째, 누군가가 지혜와 조언을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 여섯째, 그로부터 다양한 [신체적, 영적] 질병이 발생합니다.

화려함과 반짝임: 화려함, 화려함 , 과시적인 소비, 부를 매력적으로 과시하는 것은 사탄의 입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시, 화려함, 그리고 반짝이는 것은 옷차림, 물질적 소지품, 그리고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사탄이 인간의 마음속에 화려함과 반짝임을

보여주려는 욕망을 보면, 그것을 더욱 부추겨 큰 건물의 꿈을 보여주며, 집 주변 벽은 높어야 하고, 집은 눈부시고 잘 꾸며져야 하며, 옷은 아름다워야 하며, 이동 수단은 비싸고 화려해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이런 욕망이 마음속에 완전히 뿌리내리면, 사탄은 이 욕망들이 결코 마음에서 분리되지 않으며, 한 욕망이 또 다른 욕망을 낳으며, 한 가지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얻는 것에 대한 걱정이 끝없는 사슬(한 가지씩 얻으려는 욕망)으로 이어지고, 결국 죽음이 오고 세상을 떠나야 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사탄이 하위 자아로부터 원하는 방식을 가져오는 것도 신앙에 위험합니다. 때로는 욕망의 불꽃이 신앙을 불신하는 길(*'쿠프르'*, 즉 신에 대한 거부)로 이끌기도 합니다. 신께서 우리를 하위 자아의 욕망으로부터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탐욕과 기대: 탐욕과 타인의 기대는 사탄이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입구이기도 합니다. 탐욕과 타인에 대한 기대가 마음을 지배할 때, 사탄은 계속해서 인위적이고 과시하며 과시하라고 설득합니다. 기대와 탐욕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요. 기대를 품고 신이 되며, 기대를 품는 사람은 거짓말, 속임수, 허세, 설득을 통해서라도 항상 자신이 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한다. 가장 낮은 수준은 자신이 기대하는 사람을 과장해서 칭찬하고, 선을 권면하고 악을 막는 일을 꺼리는 것입니다. 한 번은 사탄이 압둘라 이븐 한잘라 앞에 나타나 말했다: "오 한잘라의 아들이여! 내가 조언할게, 그러니까 기억해." 압둘라 이븐 한잘라는 "나는 당신에게서 조언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사탄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들어라. 좋으면 받아들이고, 나쁘면 거부하라. 오 한잘라의 아들이여! 하나님 외에는 탐욕과 탐욕이 내재된 질문을 절대 하지 마세요. 또한 분노를 억제하라. 하인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면 내가 그 하인을 통제할 수 있다."

성급함과 인내심 부족: 이 두 가지 특성 또는 성격 특성은 사탄의 입구이기도 합니다. 무함마드 예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급함(또는 신중한 숙고 없이 서두르는 것)은 사탄의 것이고, 잠시 멈춰 숙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내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보도되었습니다 *하디스* 수집 *티르미디* 예언자 동료 살 빈 사아드의 권위에 따라(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خُلِقَ ٱلْإِنسَٰنُ مِنْ عَجَلٍ ۚ

"인간은 [성급히] 창조되었다." (꾸란 21장 37절)

وَكَانَ ٱلْإِنسَٰنُ عَجُولًا

"인간은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 (꾸란 17장 11절)

하나님께서 무함마드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وَلَا تَعْجَلْ بِٱلْقُرْءَانِ مِن قَبْلِ أَن يُقْضَىٰٓ إِلَيْكَ وَحْيُهُۥ ۖ

"신성한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꾸란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꾸란 20장 114절)

신이 서두르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지식과 연구,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를 위해서는 잠시 멈추고 숙고가 필요하지만, 서두름은 멈추고 조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두르는 시기에 사탄은 인간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악을 강요합니다. 전통에 따르면, 예수(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가 태어났을 때, 모든 악마(*샤야틴*)가 그들의 지도자 이블리스에게 가서 "오늘 지구상의 모든 우상들이 쓰러진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블리스는 "확실히 새로운 무언가가 일어났다. 나는 지상으로 가서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블리스는 지구를 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못했다. 한 곳에서는 신생아를 둘러싼 천사들을 보았다. 이블리스는 자신의 [악마들]의 나라로 가서 말했다: "오늘 밤 예언자가 태어났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임신들은 제가 인지하고 있었고, 출산도 제 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이 여성의 임신 사실도, 출산 사실도 몰랐습니다. 이제 우상 숭배에 절망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인간)을 급한 순간에 암시하면 [그들을 지나치게 할 것이다]."

부와 물질적 소유: *디르함*과 *디나르*(금과 은 화폐), 물질적 소유, 부동산, 소유한 토지 조각 모두 사탄이 인간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큰 통로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질적

소유를 가진 사람의 마음은 사탄의 거처이며, 필요한 물질만을 소유한 자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집니다. 사람이 백 *디나르*를 받으면 여러 가지 욕망이 마음속에 태어납니다. 가장 큰 것은 수백 명을 더 얻는 것이며, 이는 끝없는 악순환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욕망도, 탐욕도, 필요도 없다. 백 *디나르*를 얻으면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900디나르가 더 필요해졌다. 백 *디나르*를 얻으면서 만약 900디나르가 더 있었다면 집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을 사는 후에는 생활용품 구하는 욕구가 떠오르고, 그 다음으로 옷 입기와 생활의 편안함 문제로 이어지며, 이 요구의 사슬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필수적이 됩니다. 걱정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되고, 이 욕구의 연쇄는 지옥으로 끝납니다. 타빗 알-바나니(유명한 영지주의자이자 성인, 신의 자비가 그에게 가하길)는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가 [40세의 나이에], 예언자로 임명되었을 때, 악마들의 지도자 이블리스는 자신의 일행에게 말했다: '오늘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다.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러 가. 모든 악마들은 지구 곳곳에 흩어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결국 실패한 채 돌아왔다. 이블리스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기 있어! 내가 가서 볼게.' 그는 돌아와 제자들에게 말했다: '신께서 무함마드에게 예언자직을 주셨다. 이제 그의 친구들과 동료들을 쫓아가 [신의 인도를 거만하게 하라]'. 악마들은 땅을 향해 돌아왔지만 실패하며 말했다: '우리는 오늘까지 이런 민족을 본 적이 없다. 우리가 그들에게 실수를 하게 하면, 그들은 기도를 위해 일어나고, 그것이 그들의 실수에 대한 [신성한] 용서를 가져옵니다.' 이블리스는 말했다: '기다리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곧 그들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이 [땅에 누워 머리를 바위에 얹고 베개로 사용하며 가난과 겸손의 상태를 보여주며]. 사탄이 지나가며 농담했습니다: "오 예수님! 세상에 너무 집착하는 거야?" 예수님은 머리 밑에서 돌을 집어 사탄에게 던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돌조차도 세상에서 온 물질적 소유물이며, 사탄은 여전히 돌로 [인류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새벽 일찍 타*하주드* 기도(영 적 발전에 매우 공로가 있고 도움이 되는 새벽 전

기도로, 해질과 새벽 사이의 밤이 세 부분으로 나뉘는 밤의 세 번째 부분에 행진됨)을 위해 일어나서, 기도 중에 절하는 장소 근처에서 돌을 발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탄은 분명히 마음에 잠시 누워 돌에 머리를 기대라는 생각을 심어줄 것입니다. 이 누워 있는 것은 잠의 전조가 되어 *타하주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 만약 돌이 없었다면 베개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누워 잠들 필요도 없었을 것이며, *타하주드* 기도를 빼앗겼을 것입니다 . [앞서 언급한 것들에서처럼,] 이 돌 하나로 인해 너무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는 편안한 침대와 비단으로 만든 베개를 가지고 집에 안락함을 추구하는 모든 물품을 가진 사람들의 상태를 살펴봐 교훈을 얻으려 했다. 그런 사람이 신성한 예배의 맛을 즐길 수 있을까? 마음속에는 항상 위로를 바라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가난과 인색함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 혐오스럽고 부정적인 특성은 사탄이 인간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큰 입구이기도 합니다. 비참함과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선 행위를 방해하고, 재산을 쌓아 붙잡도록 설득하는 두 가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내면의 특성입니다. 꾸란은 이들에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예언합니다:

وَٱلَّذِينَ يَكْنِزُونَ ٱلذَّهَبَ وَٱلْفِضَّةَ وَلَا يُنفِقُونَهَا فِى سَبِيلِ ٱللَّهِ فَبَشِّرْهُم بِعَذَابٍ أَلِيمٍ

"금과 은을 쌓아두고도 하나님의 길에서(인류 사회의 경제적 복지를 증진하는 자선과 유익한 일에 쓰지 않는 자들은,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징계의 소식을 전하라." (꾸란 9장 34절)

카이타마 빈 압두르 라흐만(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 위대한 예언자 동료)은 사탄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말했다: "인간이 나를 지배하는 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문제들에 대해 결코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부당하게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는 것; 둘째, 적절한 기회와 필요 없이 지출하는 것; 셋째, 필요한 곳에 지출하지 말라는 것". 수피얀 알-타우리(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 - 위대한 성인이자 영지주의자)은 이렇게 말했다: "사탄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효과적인 전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람이 가난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거짓과 잘못에 대한 성향이 생깁니다. 진리에서 벗어나고, 하위 자아의 욕망을 선호하며, 주님에 대한 낮은 평가를 가진 죄가 있습니다. 비참함은 탐욕을 낳고, 탐욕은 인간의 발에 사슬처럼 얽혀 시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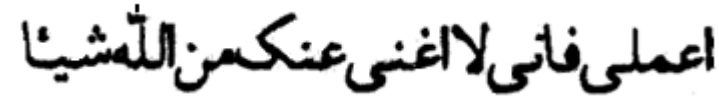
물건을 벌 수 있는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이 시장들은 사탄의 둥지이자 휴식처입니다 [물질주의적이고 영적인 고려나 고귀하고 이타적인 행위에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부 우마마(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 예언자 같은 동반자)는 이렇게 말했다: "악마의 지도자 이블리스가 세상에 왔을 때, 그는 신에게 간청했다: '오 신이시여! 당신은 나를 자비에서 내쫓고 이 땅에 내던졌다. 여기서 나를 위한 집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실이 너의 집이다'. 그는 '나에게 손님이 있을 곳을 마련해 주세요'라고 물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장과 거리는 너희의 교함의 장소다'. 그는 '나를 위해 음식과 영양분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음식은 네 양식이니, 내 이름을 먹는 자들이 거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음식이 준비되었고; 물도 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취한 물질과 약물은 네 술이다'. 그는 '초대자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목적을 악기로 이루라'. 그는 '읽기와 쓰기에 대한 당신의 능력은 무엇인가요?'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선을 초대하지 않는 시를 읽고 몸에 문신을 새기라'. 그는 '내게 이야기를 허락해 달라'고 물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거짓말은 너의 이야기다'. 그는 '사냥을 위한 그물(덫)을 허락해 주소서'라고 요청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성을 탐내는 것은 너의 이익이다 [즉,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추구한다면]'"

종교적 편견: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 편견은 서로 다른 사상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갖는 오만함과 편견을 말합니다. 이 모든 근거는 진리가 아니라 하위 자아의 욕망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적, 이념적 차이 문제에서] 상대를 미워하고 그들을 깔봅니다. 이것은 너무 악해서 모든 신도(또는 종교인)와 죄인 모두를 파괴합니다. 사람들을 비판하고 결점을 찾는 것은 여러 동물적 특성 중 하나인 동물적 특성에 속합니다. 사탄이 이 비난받아야 할 특성을 선한 것으로 제시하면, 이미 그것과 가까운 인간의 기질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탄에게 복종하면서도 종교적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성한 것으로 생각]. 종교적·종파적 차이의 상태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아부 바크르(그를 기뻐하시길 바라며, 위대한 예언자 동반자)에 대한 사랑에 편견을 갖게 되었지만, 이 사랑은 순수하지 않고 오히 려 불량한 *하람*(금지된 것), 거짓말, 적대감, 그리고 격렬한 불화와 섞여 있어

혼란을 초래합니다. 만약 아부 바크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가 오늘날 그런 사람을 본다면, 그는 그를 친구가 아닌 적으로 선언할 것이다. 이는 그의 (아부 바크르의) 친구가 그의 길을 따르고 고귀한 품격과 성격을 받아들이며, 쓸데없는 말을 막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아부 바크르의 방식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조약돌을 입에 물어 넣곤 했다. 쓸데없고 불필요한 말을 하는 이 사람 [아부 바크르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아부 바크르를 사랑하고 우정을 주장할 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사람들의 종교를 근거로 한 갈등, 싸움, 증오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두 번째 인물은 알리에 대한 사랑(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 위대한 예언자 동반자)에 대한 사랑을 과장한 적이 있다. 비록 그 사람이 알리의 행동과 고귀한 성격과는 전혀 가까이 있지 않음에도 말이다. 알리(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통치 기간(*칼라파*) 동안 1*디르함*도 안 되는 옷을 입었고, 그의 사랑을 거짓으로 주장하는 자는 종교 규범에 따라 남성에게 금지된 비단 옷을 입고 돌아다니며, 그 옷은 금지된(하람) 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심판의 날, 알리(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그런 자를 친구가 아니라 적으로 여길 것입니다. 친구의 사랑하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몸을 다치게 하면서도 아이의 부모에게 진심 어린 친구이며 사랑한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진실하다고 선언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네 명의 올바른 지도를 받은 칼리프(아부 바크르, 우마르, 우스만, 알리 [신께서 모두에게 기쁨이 있기를])와 고귀한 예언자 동료들(신께서 모두에게 기쁨이 있기를)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상태이며, 종교가 자신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칼리프와 다른 고귀한 예언자 동료들) 자신의 삶보다 종교를 더 우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를 파괴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소유물, 가족, 친척들. 이 사람들은 욕망의 가위로 법을 조각내고, 예언자 동료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과 그의 친구들의 공동 적인 사탄, 저주받은 자들을 순종하는 신의 법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 현실은 심판의 날에 그들이 '친구들' 앞에서 벌을 받을 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잊어라. 만약 그들이 예언자 동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알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의

처지를 보며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 위대한 경건한 사람들의 이름을 더러운 입에 꺼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은 또한 이 [여러 예언자 동료들]의 추종자들에게 아부 바크르와 우마르(신께서 두 분 모두에게 기뻐하시길)를 사랑하다가 죽으면 지옥의 불길이 그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사탄은 다른 이들에게 우스만과 알리를 사랑하며 목숨을 바친다면(신께서 두 분 모두에게 기뻐하시길)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날에는 누구의 사랑과 친밀함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만이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한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사랑하는 딸 파티마에게 말했습니다(하나님께서 그녀를 기뻐하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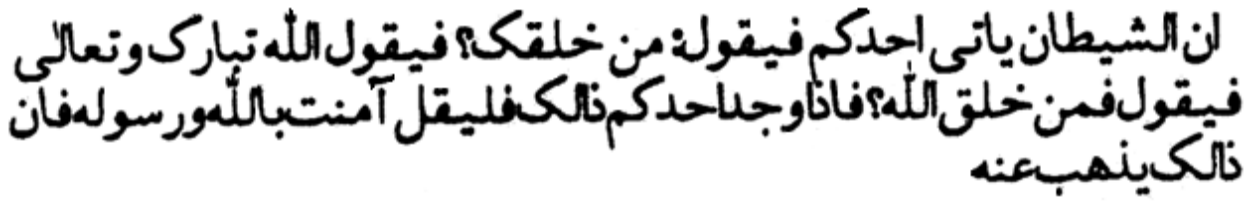


"행동을 하라(선하고 고귀하며 의로운 행위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전술은 *예 언자 동료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 집* 『사히흐 부카리』*와* 『사히흐 무슬림』에 기록되어 있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이것은 여기서 언급된 하위 자아의 욕망을 따르는 예입니다. 이맘 샤파이, 아부 하니파, 말릭, 아흐메드(신께서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길)의 전통적 사상(천 년 이상 공동체 일반적 합의에서 널리 받아들여져 온 이슬람 방법론의 일부로 받아들여져 전통적 이해에 부응하여 온건함을 보장하는 것)에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학파에서는 확실해집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맘의 진실성을 주장하지만 , 그들의 고귀한 인격을 따르지 않는다. 심판의 날, 이 위대한 *이맘들은* 추 종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사상은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말씀이 아니었고, 행동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에 중시하고 행동을 피하며 우리의 방법론과 성격에 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사상의 신봉자라고 거짓 주장하십니까?" 이것은 사탄에게 큰 입장이며, 그가 마음속으로 도착하는 큰 길입니다. 많은 학자들(스콜라 신학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탄의 손에 의해 파멸에 이르렀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탐욕과 세상에 대한 성향을 품고 있으며, 종교에 대한 통찰력이 약하고, 그들이 종교 가르침을 따르는 원동력은 진실성과 신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헌신과 존경을 얻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 편견에 관여했고 이 편견을 선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편견이 사탄의 행위임을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사탄의 속임수와 계략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관여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학자들(학문 신학자)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종교 원칙은 잊혀졌으며, 종교법(피크)의 복잡한 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중요해졌다. 이 스콜라 신학자들은 다른 이들과 함께 스스로를 파멸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하산 알-바스리(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 - 위대한 영지주의자이자 성인)는 사탄의 이 인용구를 언급했습니다: "나는 무함마드의 민족과 추종자들에게 죄를 과장되고 장식했으나, 그들은 회개로 내 등을 부러뜨렸다. 그 후, 나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죄를 그들 앞에서 꾸며냈다. 이 죄들은 하위 자아(*Nafs*)에서 오는 욕망이다." 사탄은 [이 문제에 대해]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이 죄로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큰 속임수는 자신의 의무를 잊고 대신 스콜라 신학과 신념의 복잡성과 관련된 의견 차이에 휘말린다는 점입니다. 압둘라 이븐 마수드(예언자인 그를 기뻐하시길)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억(*디크르*)으로 바쁘게 지나가다가 사탄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신성한 기억의 모임]을 떠나 그들을 막으려 했으나 그의 야망을 이루지 못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은 그의 모든 전략을 좌절시켰다. 그는 근처에 앉아 세속적인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을 부추겨 문제를 일으켜야 했다. 대화 중에 서로 싸우기 시작해 서로 때리고 다치게 만들었다. 신성한 기억의 모임에서 일부 사람들이 일어나 다른 무리를 막고 싸우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사탄의 목적은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을 멈추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떠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민간과 철학적 논쟁: 사탄의 방법 중 하나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이 약한 지식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숙고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존재와 신성한 특성에 대한 지식 등, 약한 지성이 인지하지 못하는 유사한 문제들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의 약하고 제한된 지성도, 지식 부족도 못하고, 오히려 종교를 의심하기 시작하며, 신에 관한 생각들이 마음속에 태어나 종교의 영역에서 배제되고 대신 종교의 신념과 혁신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비다*), 즉 종교 내 새로움과 이질적인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이라는 귀중한 가치를 잃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오히려 그것에 만족하며, 마음속에 일어난 모든 일이 진정한 이해와 통찰이며, 그것은 자신의 지성과 과도한 지성을 통해 이뤄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은 가장 무분별한 사람이 자신의 지성을 많이 신뢰하는 사람이고, 가장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지성을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학자들과 학자들에게 계속 묻는 사람이라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아이샤(예언자의 아내이자 저명한 학자이자 스승인 그녀에게 신이 기뻐하시길)는 무함마드 예언자의 말을 인용합니다(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


ان الشيطان ياتي احدكم فيقول: من خلقك؟ فيقول الله تبارك وتعالى
فيقول فمن خلق الله؟ فاذا وجد احدكم ذالك فليقل آمنت بالله ورسوله فان
ذالك يذهب عنه

"사탄이 너희 중 한 명에게 와서 묻는다. '누가 너희를 창조했느냐?' 한 명이 '신'이라고 답합니다. 그는 이어서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창조했느냐?'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가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예언자를 믿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탄적] 암시는 끝날 것이다."라고 말했다.(이 이야기는 하디스 *모음 집* 아흐메드, 바자르, 아부 야알리, 사히흐 부카리, *사*히흐 무슬림*에 기록되어 있다*)

무함마드 예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암시를 치유하는 지적 논쟁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암시는 학자들에게가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리디니셔널 사람들은 신앙을 새롭게 하고 예배와 경제 활동에 참여하며

지식을 학자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과 그분의 길에 대해 근거 없는 말을 하면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지식의 깊이를 얻지 못한 채 무언가를 말하는 것은 수영을 모른 채 파도 앞에 자신을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 자신의 파멸일 것이다. 사탄이 신념과 종교에 대해 저지른 속임수는 너무 많아 측정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 대해 언급된 것은 이러한 속임수의 한 예입니다.

부정적이고 나쁜 의견을 품기: 사탄의 속임수의 문 중 하나는 [동료] 무슬림[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 나쁜 의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يَٰٓأَيُّهَا ٱلَّذِينَ ءَامَنُواْ ٱجْتَنِبُواْ كَثِيرًا مِّنَ ٱلظَّنِّ إِنَّ بَعْضَ ٱلظَّنِّ إِثْمٌ

"믿는 이들이여! 나쁜 의견 중 일부는 죄이기 때문에 많은 나쁜 의견을 피하세요." (꾸란 49장 12절)

형제(또는 자매)에 대해 나쁜 감정을 품는 사람은 분명히 사탄의 속임수의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품고 있는 나쁜 의견을 부추기고, 그를 험담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게 하거나, 그에 대한 존중을 게으르게 하거나, 그를 깔보며 자신이 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조건은 스스로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법이 [사람들이] 비난받는 곳을 피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اتقوا مواضع التهم

"책임의 대상을 피하라[잘못된 인식을 피하기 위해서], 오해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인식도 관리되어야 내면과 외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무함마드 예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비난과 의심을 피하려 애썼다. 그래서 알리 빈 후세인은 사피야 빈트 하이 빈 악타브(신께서 그녀를 기뻐하시길 - 예언자의 아내이자 지역 유대인 부족장의 딸)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언자는 모스크 안에서 이 *티카프*(신성한 예배를 위한 은둔)에 있었다. 그를 만나러 왔어요. 우연히도 생리를 시작했어요. 저녁이 되자 저는 [집으로]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도 저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길에 메디나 시민인 *안사르(Ansars*) 출신의 두 남자를 만났 습니다. 그들은 평화의 인사(살람)로 예언자를 맞이하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예언자는 그들을 불러 '이것이 사피야 빈트 하이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 하나님의 예언자여! 우리는 당신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즉, 당신에 대해 나쁜 점이 전혀 생각나지 않아서 당신이 아내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언자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사탄은 인간의 혈관 속을 흐르며, [피 속에서 누군가를 탓하고 의심하게 하여 불화와 갈등을 심어내게 한다]. 그가 당신 마음속에 의심과 비난 같은 나쁜 감정을 암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보도되었습니다 *하디스* 모음집: *사히흐 부카리*와 *사히흐 무슬림*)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가 자신의 종교를 지키고 내세의 발전을 위해 [마음속에 잘못된 의심과 비난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얼마나 신경 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그는 추종자들에게 의심과 비난을 불러일으키는 곳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심지어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 게으름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경건한 경외심, 경외심, 신에 대한 경외심(*타크와*)으로 알려진 사람, 그리고 신성한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나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갖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좋은 의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지식과 경외심이 뛰어나도, 사람들은 한 가지 시선으로만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중 하나를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한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보다 많습니다. 타인에 대한 나쁜 의견과 악한 사람들의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들에게서 나쁜 의견은 당연히 예상된다. 누군가가 타인에 대해 나쁜 의견을 가지고 그들에게서 흠을 찾느라 바쁘다면, 그 사람이 내면의 악과 부정적인 면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나쁜 의견은 자신의 내면의 악과 부정적인 성향을 반영하며, 모두를 자신의 [악하고 부정적인] 존재의 모습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신자는 형제(또는 자매)의 행동에 대해 변명을 찾는다. 위선자는 뒷담화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자의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깨끗하고 맑으며, 그들을 만나고 마음을 열어 생각합니다.

이 토론은 사탄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에 관한 짧은 토론이었습니다. 이 입구들은 너무 많아 정확히 추정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언급된 모든 다른 입구들 [사탄의 인간 마음 침입]도 그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정적인 내면의 특성들, 이 모든 특성은 사탄의 무기이자 사탄의 문 중 하나인 인간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사탄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이 질문은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치료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라 하울라 와 라 쿠와타 일라 빌라*' 또는 '하나님 외에는 권능과 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그를 막는 보호가 될 수 있을까?"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모든 입구가 차단되어 사탄이 마음에 들어와 오염시킬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마음은 모든 부정적이고 악랄하며 파괴적인 내면의 특성에서 정화되어야 합니다. 내면의 파괴적인 것으로부터 마음을 정화하는 것은 광범위한 주제입니다. [현재] 책 "*Ihya Uloom ad-Deen*" 또는 "하나님으로 가는 길의 지식 부흥"의 세 번째 권 또는 4분의 1의 유일한 목적은 인간 마음 속 내면의 파괴적 특성에 대한 치유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파괴적 특성들은 각각 별도의 장이 필요하므로(자세한 설명을 위해), 여기서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마음이 이러한 내면의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악의 성질에서 정화되고 정화된다면, 사탄은

마음에 발을 단단히 세울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지나가다 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경건한 경외심, 경외심, 경외심(*타크와*)의 빛으로 마음을 깨우치고, 부정적이고 비난받을 만한 내면의 오염에서 정화될 때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기억은 단지 마음속의 생각이나 순간적인 상태로만 간주될 것이며, 그것에 대한 통치와 지배권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체스판을 쉽게 장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إِنَّ ٱلَّذِينَ ٱتَّقَوْا۟ إِذَا مَسَّهُمْ طَٰٓئِفٌ مِّنَ ٱلشَّيْطَٰنِ تَذَكَّرُوا۟ فَإِذَا هُم مُّبْصِرُونَ

"경건한 경외심과 경외심, 경외심과 두려움(*타크와*)을 가진 자들은 사탄으로부터 위험(부정적인 악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면, 즉시 하나님의 기억에 몰입하고 눈을 즉시 뜨게 됩니다 [그들은 그 통로에 놀라고,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에 즉시 그것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꾸란 7장 121절)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특별히 구분하였습니다. 사탄의 본보기는 배고픈 개와 같습니다. 빵이나 고기가 없다면 밀어낼 수 있지만, 손에 고기가 있고 개도 배고프면 밀어내는 게 아니라 고기 위로 뛰어다니게 돼요. 사탄은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꾸짖음을 듣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그의 음식이 있는 심장에는 분명히 공격하며, 단순히 혀로 꾸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욕망에 지배당한 마음은 하나님의 기억의 현실을 허락하지 않고, 그 마음은 사탄의 안식처가 됩니다. 그는 욕망과 욕망 때문에 내면의 파괴적 특성이 없는 신을 두려워하는 이들의 문을 두드리지 않지만, 신성한 기억을 무시하고 무관심한 모습을 보면 그들을 두드린다.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기억으로 돌아오자 그는 도망친다. 신의 기억을 통해 그가 탈출했다는 증거는 사탄의 암시가 있을 때 하나님의 피난을 구하라고 권고하는 꾸란 구절과 *하디스(예*언적 전통)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فَٱسْتَعِذْ بِٱللَّهِ مِنَ ٱلشَّيْطَٰنِ ٱلرَّجِيمِ

"저주받은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피난처를 찾아라." (꾸란 16장 98절)

아부 후라이라(예언자 같은 동료,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말했다: "한 번에 악마들(사탄의 추종자들)이 믿는 자와 불신자와 함께 만났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불신자의 사탄은 과체중에 몸에 과도한 지방이 있었지만, 믿는 자의 사탄은 연약하고 약하며 걱정이 많고 집이 없었습니다. 불신자의 사탄이 그에게 물었다: '왜 그런 상황을 만들었느냐? 왜 이렇게 약하고 말랐어?' 그는 대답했다: '나는 먹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그 결과 저는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데, 나는 갈증과 두려움이 있다. 옷을 입으면 신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내 몸이 노출된 상태가 되는 거야. 머리카락에 [머리카락] 오일을 바르면 [많은 문화에서 관습처럼 머리카락 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의 이름을 얻게 되니, 내 머리카락은 여전히 건조하고 흐트러진 상태입니다.' 불신자의 사탄은 그에게 유감을 표하며 말했다: '나는 네 동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강요당하고 있다. 먹고, 마시고, 옷 입는 모든 과정에서 나는 동등한 파트너이다'라고 말했다. 무함마드 빈 알-와사이(위대한 영지주의자이자 성인, 신의 자비가 그를 비우시길)는 매일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이렇게 간청하곤 했습니다:

اَللّٰهُمَّ اِنَّكَ سَلَّطْتَ عَلَيْنَا عَدُوًّا بَصِيرًا لِعُيُوبِنَا يَرَانَا هُوَ وَقَبِيلُهُ مِنْ حَيْثُ لَا نَرَاهُمْ اَللّٰهُمَّ فَاٰيِسْهُ مِنَّا كَمَا اٰيَسْتَهُ مِنْ رَحْمَتِكَ وَقَنِّطْهُ مِنَّا كَمَا قَنَّطْتَهُ مِنْ عَفْوِكَ وَبَاعِدْ بَيْنَنَا وَبَيْنَهُ كَمَا بَاعَدْتَ بَيْنَهُ وَبَيْنَ رَحْمَتِكَ اِنَّكَ عَلٰى كُلِّ شَيْءٍ قَدِيرٌ

"오 신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잘못을 잘 아는 그런 적을 우리에게 강요했습니다. 그와 그의 무리는 우리가 볼 수 없도록 우리를 지켜봅니다. 오 신이시여!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자비를 절망하게 한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절망하게 하소서. 그가 우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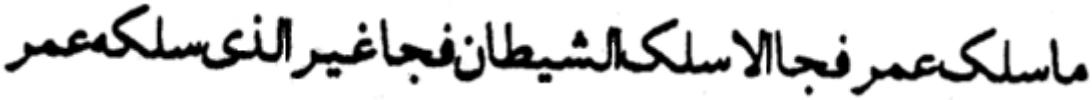
너무나도 절망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당신의 용서에 희망을 잃게 하소서. 주님께서 그들과 주님의 자비 사이에 만드신 것처럼 그와 우리 사이에 많은 거리와 거리를 만들어 주시길. 진실로,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무함마드 알-와사이(신께서 그를 자비롭게 하소서)는 "한 번은 *모스크* (신을 숭배하고 영광시키는 장소)로 가는 길에 사탄을 만났는데, 그는 나에게 '나를 아느냐?'라고 물었다.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는 '나는 *이블리스* (악마의 지도자)'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왜 그렇게 나를 만난 것인지 물었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바람은 당신이 이 간청을 다른 누구에게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저항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대답했다: '누군가 이 간구를 배우고 싶어 한다면, 나는 배우는 것을 막지 않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말했다. 압두르 라흐만 이븐 아비 라이라(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 예언자 동료)는 이렇게 말했다: "사탄은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 앞에서 불꽃을 들고 기도할 때 나타나곤 했다. 그는 간구와 하나님께 피신하는 것을 떠나지 않았다. 한 번 대천사 가브리엘(*지브라엘* [하나님의 평화가 그에게 있기를])이 와서 그에게 다음과 같은 간구를 암송하라고 말했다:

"나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땅에 들어가는 것과 그 안에서 나와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낮과 밤의 시련과 고난으로부터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피난을 구한다, 밤과 낮의 우여와 고난에서 벗어나 [밤과 낮]이 선함으로 가득 찬 일이 오는 것만은 오지 않소, 자비로운 자여 있는 이여!" (이 전통은 이븐 아비 앗-둔야가 그의 저서에서 베껴 썼다"*마카-이드 아쉬-샤이탄"은 [*하디스 *모음집]* 무왓타 *에서 [예언자 동료] 야히야 이븐 사이드의 권위에 따라 이맘 말릭이 쓴 것으로, 그리고 [예언자 동료] 이븐 마수드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가 이 말씀을 외우자, 사탄의 불꽃이 꺼졌고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졌다. 하산 알-바스리(위대한 영지주의자이자 성인, 신의 자비가 그에게 가시길)는 대천사 가브리엘이 예언자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말했다: "진이 너를 속이려 하니, 잠자리에 들 때 [신성한] 왕좌의 구절(꾸 란 2장 255절이라 불림)을 암송하라"고 말했다.

예언 전통에 따르면:



"우마르가 가는 어떤 길을 가든, 사탄은 그 길에서 도망쳐 다른 길로 간다."

그 이유는 이 저명한 인물들의 마음에는 사탄에게 먹을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며, 즉 욕망이 그들의 마음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마르에게서 떠난 하나님의 기억(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을 통해 사탄이 떠나길 바란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기대를 가진 사람은 약을 먹으면서도 약을 복용하는 데 역효과를 내는 해로운 것들로부터 예방을 피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위가 해롭고 건강에 해로운 음식으로 가득 찬 상황에서 약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약물이 신체의 여러 부위로 옮겨져 유익하게 만들어도 이런 음식의 해로운 영향을 제거할 시간은 없습니다. 신성한 기억은 약과 같으며, *타크와*(내면이든 외면이든 잘못되고 악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경외심, 경외심, 경외심)은 예방입니다. 이 예방의 결과는 마음이 하위 자아의 욕망과 정욕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마음에서 신성한 기억이 일어날 때, 사탄은 그 [마음]에서 도망칠 것입니다. 마치 약이 빈 배에 들어가면 병과 병이 그 마음에서 빠져나가듯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إِنَّ فِي ذَٰلِكَ لَذِكْرَىٰ لِمَن كَانَ لَهُۥ قَلْبٌ

"그 안에는 [통찰력 있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다." (꾸란 50장 37절)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كُتِبَ عَلَيْهِ أَنَّهُۥ مَن تَوَلَّاهُ فَأَنَّهُۥ يُضِلُّهُۥ وَيَهْدِيهِ إِلَىٰ عَذَابِ ٱلسَّعِيرِ

"하나님께서 누구(즉, 사탄)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 그와 관계를 유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한 사람을 길로 이끌고 지옥의 벌을 보여줄 것이다." (꾸란 22장 4절)

사탄의 [잘못된, 부정적이고 악한] 행동을 돕는 사람은 하나님을 혀로 기억하고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음에도], 그의 친구이자 동맹으로 불립니다.

혀로 신의 기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만약 *하디스*(예언적 이야기)가 신의 기억(*디크르*)이 사탄을 쫓아낸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제한이나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은 스콜라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며, 예언적 서술이 그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혀를 통한 신의 기억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그 반대에 대한 답은, 외부의 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당신 자신을 돌아보라고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전달되는 뉴스와 정보는 직접 목격하는 것과는 다르며, 제 주장이 타당한지 아닌지 알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신성한 기억과 예배의 목적은 기도(*예배*, 즉 매일 필수 기도와 선택적 초과 의뢰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는 마음의 상태를 한 번 살펴보세요. 사탄은 당신의 마음을 수많은 곳으로 데려가요 - 도로, 골목, 시장, 오락 센터 등,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통해 당신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며, 수많은 것들을 상기시켜 주어 당신이 완전히 잊고 있던 것들까지도 상기시켜 줍니다 [모두 기도 중에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해야 할 때, 그로부터 진정한 영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를

위해,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내적 연결을 심어주고 그로 인한 신성한 영지의 영지(Gnosis)입니다.

사탄은 분명히 기도 중에 당신의 마음을 공격할 것입니다. [도중에 일어나는 일] 기도 중에 마주하는 상황에서 신성한 기억과 예배의 다른 행위들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칭찬받을 만한 특성과 결점을 드러내는 기준입니다. 세속적 욕망의 중심이 된 마음의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사탄을 쫓아내지 않으며, 오히려 예방 없는 약물이 해가 되는 것처럼 암시와 설득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촉진합니다. 사탄을 없애고 싶다면, 먼저 *타크와*(신에 대한 경외심 , 경외심, 두려움을 통해 내면이든 외면이든 악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막는 것)을 취한 다음, 신성한 기억(*디크르*)의 약을 사용하세요. 사탄은 우마르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길). 와합 빈 무나비(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 - 성인이자 영지주의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겉으로는 사탄을 나쁘다고 부르지 말라. 속으로는 그분의 친구로서 그분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성인은 "사람들이 은혜를 알면서도 은혜를 베풀고 있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저주받은 사탄의 반역을 알면서도 복종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라, 내가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간구를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사탄도 당신의 신성한 기억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간청의 조건이 없었고, 신성한 기억의 조건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브라힘 빈 아담(위대한 성인이자 영지주의자이여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꾸란에서 그 청원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성하게] 우리의 간청이 [신성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그는 "너희 심장이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물었다: "우리 마음이 죽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는 대답했다: "네 여덟 가지 덕목이 마음을 죽게 만들었다: 첫째, 너는 하나님의 권리를 알게 되었으나 그분의 권리를 다하지 못했다; 둘째, 꾸란을 읽지만 그 한계[허용 가능한 행동과 불허용 행위의 경계]를 행동하지

않는다; 셋째, 당신은 하나님의 사도(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를 사랑한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길[의와 신에 대한 헌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넷째, 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준비하지 않는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إِنَّ ٱلشَّيْطَٰنَ لَكُمْ عَدُوٌّ فَٱتَّخِذُوهُ عَدُوًّا

'진실로 사탄이 너희의 [진짜] 적이니 그를 적으로 삼아라.' (꾸란 35장 6절)

하지만 당신은 죄를 지으면서(신성한 경계에 어긋난 죄)를 저지름으로써 그에게 우정의 손길을 내밀었고; 여섯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면서도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한 행동을 한다; 일곱째, 너는 천국을 원하지만 그곳에 가는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여덟째, 침대에서 일어나면 자신의 잘못을 뒤로 미루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찾는 데 관여하게 됩니다. 이 모든 특성들이 신의 불쾌감의 원인입니다. 그들 앞에서 당신의 간청을 받아들이길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우하이브 이븐 알-워드(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 영지주의자이자 성인)는 "우리는 사탄이 예언자 야히야(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요한으로도 알려짐) 앞에 나타나 '조언을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네 조언이 필요 없다. 그런데 인간들에 대해 뭔가 말해줘(즉, 어떤 인간들을 다루는지 말해줘)?" 그는 말했다: '인간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매우 엄격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죄 많은 상황에 끌어들이고 통제하면, 그들은 죄를 지은 후 즉시 회개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망쳐버립니다. 우리는 다시 열심히 일하고, 그들은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즉, 잘못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 이상해서 그들에게 절망하지도,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인간은 아이 손에 든 공과 같아서 원하는 대로 돌릴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노력에 대해 전액 보상을 해줍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당신과 비슷합니다 – 경건하고 순수하며 죄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탄이 인간 앞에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 여기서 질문이 제기됩니다: "사탄이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물리적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나타날 때 그것은 그의 실제 모습인가, 아니면 은유적인 모습인가? 만약 그게 그의 진짜 모습이라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두 곳에서 두 가지 다른 모습으로 보여서 두 사람이 그를 두 가지 다른 모습으로 보는 거야?" 악마와 천사는 실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신 예언자의 빛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함마드 선지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대천사 가브리엘을 진짜 모습으로 본 것은 단 두 번뿐인데, 한 번은 그가 직접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고, 가브리엘은 약속하여 메카의 히라 산에 원래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평선 전체가 그의 존재로 가득 찼다; 두 번째로는 예언자의 천상 승천(*미라즈*) 밤에 시드라트 알문타하 (이슬람 신앙에 따라 어떤 창조물도 통과할 수 없는 경계인 일곱 번째 천국의 끝을 표시하는 로테 나무)에서 원래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가 그를 보았다. 일반적으로 예언자는 그를 인간 모습으로 본 적이 있다. 가브리엘은 종종 다흐야 칼비(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 잘생긴 예언자 동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사히흐 부카리*와 *사히흐 무슬림* 선집의 *예언적 전승 또는 하디스*에 따르면].

마음(영성)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카슈파*(영적 드러남)를 통해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탄은 깨어 있는 상태로 그들 앞에 나타난다. 그들은 그를 보고 듣는다. 이 실제 형태의 예는 실제 형태의 대체물이 된다.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깨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꿈에서 이런 상황을 마주합니다. 영적 드러나는 사람(*카슈프*)은 외부 감각의 사용이 영적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꿈을 통해 다른 이들이 아는 것을 깨어 있을 때도 그것이 본다는 뜻입니다. 우마르 빈 압둘아지즈(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한 남자가 사탄이 머무는 인간 마음속 곳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꿈에서 인간의 몸을 투명한 유리로 보았고, 그 안의 것을 외부에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깨 관절과 귀 사이 왼쪽 어깨에 앉아 있는 개구리 형태의 사탄을 보았다. 그는 인간의 심장에 깊게 넣은 가늘고 긴 코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 암시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올리면, 사탄은 심장에서 차를 떼어냈습니다. 이 관찰은 때때로 깨어 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 드러내는 일부 사람들은 사탄이 시체 위에 누워 있는 개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체는 세상의 한 예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증인은 원래 형식의 대체 형태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말한 바 있다. 심장에는 양면이 있다. 한쪽은 '*알람 알-말라쿠트*' 또는 천사의 영역을 마주하고 있는데, 이 면은 신성한 계시(*와히*), 신의 영감(*일함*), 영적 징조와 암시(*이샤라트*)의 입구입니다. 심장의 두 번째 면은 "*알람 알-자히르*" 즉 보이는 영역을 향합니다. 하지만 양쪽이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천사의 영역을 향한 쪽의 영향이 가시적 영역을 향한 쪽에서도 나타납니다.

가시적 영역에 있는 사물들은 전체 가시 영역이 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인지된 형태와 모습으로 보입니다. 외부 감각을 통해 마음에 들어오는 형태가 그들의 진정한 [내재적] 본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람은 겉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외면의 아름다움이 내면의 아름다움과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내면에서 못생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시적 영역은 현실에 대한 인식일 뿐입니다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그러나 천사의 영역의 빛나고 찬란함을 통해 사상에 나타나는 형태와 외관은 [항상] 그 진정한 내재적 본질에 복종하고 그에 부합한다. 따라서 내부가 못생긴 것이 외관에서는 나쁘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개, 개구리, 돼지 형태로 나타나고, 천사들은 좋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아름답은] 형태는 [내면] 의미 때문이며, 내면의 진정한 그림이다. 그래서 꿈에서 누군가를 개나 원숭이로 보는 것은 내면의 악에 대해 논쟁하고, 염소로 보는 것은 선한 성격에 대해 논쟁하는 이유입니다. 꿈 해석의 상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마음의 비밀과 관련이 있으며, 실천적 영성에 대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주제를 여기서 꺼내는 유일한 이유는

사탄과 천사가 때때로 마음의 사람들에게 잠에서 예시와 비유로 나타나고, 때로는 그들의 진정한 실재로 나타난다는 확신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내면 현실과 닮은 예시나 유사한 형태가 자주 등장합니다. 형태가 예시나 비유일 뿐 눈으로 보는 것은 실제이지만, 영적 공개를 하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볼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잠든 사람은 꿈을 볼 수 있지만, 잠들지 않은 주변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암시, 미신, 위험, 그리고 의도

심장의 행동은 신체 기관에 의해 작용하기 전에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마음에 처음 떠오르는 것은 '*카티르*' 즉 생각이라고 불린다. 예를 들어, 마음은 누군가가 원한다면 돌아서서 볼 수 있는 존재를 생각한다. 둘째, 보고 싶은 욕구가 자극되어, 즉 기질의 욕망이 활성화됩니다. 이 욕망은 처음에 기울어짐(마음이나 기질)이라 불리는 생각에서 비롯되며, 첫 번째 생각은 '하위 자아의 이야기'(*하디트 알-나프스*)라고 불린다. 셋째, 마음이 그 사람을 보라는 명령에 대한 허락입니다. 때로는 마음의 경향이 있지만 수치심과 두려움 같은 장애물이 마음이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은 망설임을 통해 제거되고 지성은 결정을 내립니다. 이 행위를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넷째, 결의와 의도 중 어느 것이 무엇인지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도의 기반은 때때로 약하지만, 마음이 첫 생각에 완전히 집중할 때 이 결심은 확고해지고, 의도는 강하며, 결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의도가 굳어도 후회 때문에 행동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부주의하여 행동에 집중하지 못하며, 때로는 의도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데 장애물이 생기기도 합니다.

행동을 하기 전 마음의 네 가지 상태: 결론은 행동 전에 네 가지 마음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부 자아(*하디트 알-나프스*)의 내레이션, 마음의 기울기, 믿음, 결단력. [첫 번째] 생각이나 '하위 자아의 내레이션'에 관해서는, 인간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습니다. 마음의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두 상태는

무함마드 예언자의 말씀(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에서 나의 민족을 위한 마음의 문제가 용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위 자아로부터의 내레이션"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 즉 행동할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도와 결정은 '하위 자아로부터의 내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세 번째 상태는 '믿음'이라고 불리며, 즉 마음이 특정 행동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의식적(의도적으로 받아들여짐)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자신의 욕망 없이 무의식적으로 마음속에 들어오는)일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것에는 [신성한] 계산과 책임이 있지만, 무의식적인 것에는 없습니다. 마음의 네 번째 조건은 책임과 심판을 받아야 할 행동을 하려는 의도와 결의입니다. 어떤 이유로 행동을 할 수 없다면, 그 행동을 중단한 것이 수치심 때문인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수치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의도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했다면, 한 의로운 행위가 그 사람을 위해 기록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행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죄이고, 죄 있는 의도를 그만두고 낮은 자아의 욕망과 싸우는 것은 신의 수용에 합당한 의로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죄를 지으려 했고, 하위 자아의 강요에 의해 굴복당했다면, 이는 하나님의 회피나 무심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의도를 저버리고 하위 자아와 싸우는 것이 분명히 위대한 일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사탄을 따르며 죄를 의도했다면, 자신의 [내면의] 성향에 반대하여 악과 악에 맞서 내면의 영적 투쟁을 벌이는 것이야말로 선한 의로운 행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어떤 장애물로 인해 [하한 자아를 그만두지 않고도 악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 없이] 악행을 할 수 없다면, 마음의 의도가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악행이 기록된다. 이에 대해 주장하는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قالت الملائكة عليهم السلام، رب ذاك عبدك يريد ان يعمل سيئة و هو ابصر به
فقال: ارقبوه فان هو عملها فاكتبوها له بمثلها و ان تركها فاكتبوها له حسنة و انما
تركها من جرائي

"천사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이 당신의 종은 죄를 짓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자신의 상태를 잘 아시지만,] 그가 말하길: '한 명을 지켜라. 자신의 의도를 실행한다면, 행위에 해당하는 악행을 기록하라.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악의] 의도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그 죄를 나 때문에 이 죄를 남겼기 때문에 그 기록에 선한 행위를 기록하라'"고 말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사히흐 무슬림* [예언자 동료]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또 다른 예언적 서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انما يحشر الناس على نياتهم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그들의 의도에 따라 일어날 것이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사히흐 무슬림* 움 살마와 아이샤의 권위에 따라 [신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길])

이 전통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실행하기 전에 죽었다면, 그 의도로 죽은 것이며 그 죄를 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의도로 부활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문제는 무함마드 예언자의 전통(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에 의해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اذا التقى المسلمان بسيفيهما فالقاتل والمقتول في النار، فقيل يا رسول الله هذا القاتل فما بال المقتول، قال لانه اراد قتل صاحبه

"'두 무슬림이 칼을 뽑고 서로 맞서며 [서로를 죽이기 위해 싸우면] 살인자와 살해된 자 모두 지옥에 간다'. 예언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 하나님의 예언자여! 살인자가 지옥에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왜 살해당한 (피해자)가 지옥에 가야 하는가?' 그는 '그도 다른 사람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는 [예언자 동료] 아부 바크라의 권위에 따라 *사히흐 부카리*와 *사히흐 무슬림* 을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이 설명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마음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억해야 할 원칙은 모든 의도와 결심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또한 인간의 통제와 능력을 벗어난 문제에 대해 심판과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다양한 행동을 구분하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낮은 자아의 내레이션'이나 '생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만, 자기 의로움(또는 자기 과시), 과시, 질투 등은 [개인과 집단의 복지에 극도로 해롭다]가 마음의 행동이며, 꾸란의 구절과 예언적 서사는 그것에 대한 심판과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데, [다양한] 마음의 행동에 대해 심판이 없을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신의 종(즉, 인간)의 능력 내에 있는 모든 행위는 심판과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의도치 않게 비*마흐렘*(신의 법에 따라 결혼 가능한) 여성에게 시선이 떨어진다면, 그 시선은 계산 할 수 없지만, 두 번째 시선이 의도적이고 의도적으로 던져진 것이라면 그것은 [신성한] 계산의 대상이 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생각의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 계산은 마음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마음은 진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은 인간의 근간이자 현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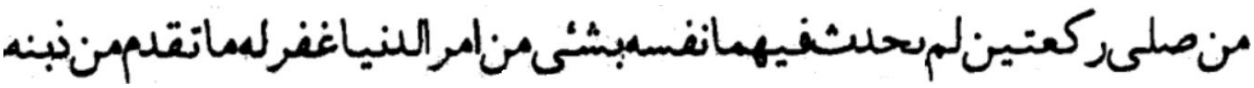
암시의 유형: 암시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 – 진리와 옳음에 대한 초대: 한 가지 [암시]는 사탄이 그것을 [마음에] 심어서 진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적인 쾌락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길고, 오랫동안 소망을 억누르는 것은 많은 인내가 필요한 고된 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종(즉, 인간)이 하나님의 엄청난 권리, 높은 보상, 고통스러운 벌을 고려하고, 삶이 길어도 사후 세계에 비하면 정말로 하찮으며, 모든 세속적 즐거움은 덧없고 덧없음을 이해한다면, 겉으로는 인내하기 어렵지만 지옥불과 비교하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 중 하나는 필수적이다: 세속적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인내하는 고난을 견디면 지옥의 고난을 견딜 필요가 없고, 세상에 인내를 하지 않으면 내세의 고난을 마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상기시키며, 경고와 믿음과 확신의 부활은 사탄을 도망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지옥불이 죄에 대한 인내보다 쉽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며, 죄를 지는 것이 지옥으로 이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런 주장을 한다 해도, 믿는 종은 하나님의 책(신의 명령과 이성의 빛)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사탄에게서] 그런 약속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자신보다 더 신의 영지를 가진 사람은 없고, 당신 숭배와 같은 예도 없으며, 당신이 신 앞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자만심을 풍긴다면, 이 시점에서 종은 그노시스, 숭배, 신 앞에서의 높은 영적 지위, 모든 기관과 그노시스를 얻은 모든 행위가 신의 창조물이며 부를

부여받은 것이며 개인적 탁월함이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생각 이후로는 자기 의, 자기 자만, 자기 칭찬과 허영심이 설 자리가 없고, 사탄은 이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 굴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설령 그가 그렇게 주장한다 해도, 하인의 영지와 신앙은 결코 그런 믿음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암시는 신의 기억을 통해 신앙의 빛과 그노시스를 가진 자들, 그리고 신을 아는 자들(영지주의자들)의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두 번째 종류 – 열정과 욕망을 자극하기: 두 번째 암시는 사탄이 욕망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종은 욕망이 죄임을 확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지배적인 추측을 통해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확실하다면 사탄은 욕망을 부추기는 것을 멈추지 않겠지만, 이 부동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확실하지 않고 추측이라면, 사탄의 선동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적 투쟁이 필요하다. 이러한 암시는 신의 기억 시점에 완전히 끝나지 않지만, 지배적이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종류 – 스쳐 지나가는 생각: 세 번째 종류의 암시는 기도 중에 일어나는 잠시 떠오르는 생각과 숨겨진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성한 기억(*디/크르*)을 할 때, 이 지나가는 생각들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끝나게 됩니다. 때로는 지나가는 생각의 도래가 끊임없고 연속적이어서, 생각과 신성한 기억이 같은 사슬의 두 고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 심해서 때로는 지나가는 생각들이 동시에 [꾸란 낭송]의 의미와 동시에 나타나는데, 마치 마음이 두 가지 공간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두 가지 모두 공존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암시는 완전히 끊기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의 기도 주기를 수행하여 자신의 하위 자아(*나프스*)가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한다면, 이전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만약 마음속에 암시가 없을 수 없었다면, 예언자(평화가 그분께 있기를)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마음이 [암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여 다른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마음으로만 상상할 수 있다. 진정한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마음에 다른 생각이 없듯이,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적을 걱정할 때도 그 생각과 적이 자신을 해칠까 하는 생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기도 중에도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기도 주기마다 몇 주기 동안 무엇을 암송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몰입과 몰입]은 눈을 뜨고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봐도 누군가가 지나가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입니다. 세속적인 일에 몰두하면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천국에 대한 갈망이 그런 몰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성한 사랑이 얼마나 몰입할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약함으로 인해 이러한 상태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 논의의 결론은, 잠시 동안은 사탄을 없앨 수 있지만 평생 내내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사탄의 암시와 선동으로부터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예언자 무함마드(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의 고귀한 인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통에 따르면 기도 중에 그의 시선이 옷에 새겨진 무늬와 무늬에 닿았을 때, 기도 후 그는 그 옷들을 버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شغلنی عن الصلاة، اذهبوا به الی ابی جهم

"이 [드레스]는 기도로 나를 사로잡았으니, 드레스를 선물한 예언자 아부 자흠에게 다시 가져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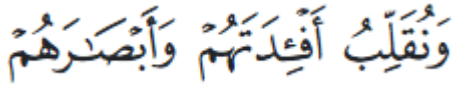
비슷한 사건이 금반지에 있었는데, 예언자(그에게 평화가 있기를)가 그것을 버렸습니다(*나사이*가 압 둘라 이븐 압바스의 권위를 바탕으로 전한 *하디스*입니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예언자(평화가 그에게 있기를)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기도 중에 의상과 금반지의 디자인 패턴 때문에 분산된 주의와 집중은 사탄의 암시였습니다. 금반지와 관련된 사건은 남성에게 금을 금지하기 전에 일어났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는 금반지를 착용했는데, 이는 당시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금지되기 전]. 그는 그것이 세속적 재산과 소유물에 관한 암시를 낳았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냈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다면, 사탄은 그 추가 소유가 단 지 디*르함*이나 *디나르*(각각 옛 금화와 은화)뿐이라 해도 반드시 그 사람을 암시할 것입니다. 이 경우 암시의 형태는 사탄이 자신의 보호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하게 만들며, 그 보호를 어디에 써야 하고 어떻게 숨길지 조언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게 하거나, 사람들이 자신의 우월함을 받아들이도록 드러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암시들과 비슷한 다른 암시들은 걱정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탐욕의 발톱으로 물질적 부의 시체를 움켜쥐고 사탄으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는 자는 꿀에 빠져 파리가 그 위에 앉지 않을 거라 기대하는 사람과 같다. 이것은 단지 한 문이 아니라, 암시의 무게를 싣고 끊임없이 사탄의 군대가 들락날락하는 수많은 문들이다. 한 현명한 사람(현자)은 사탄이 죄의 길을 통해 사람에게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길이 닫히면, 그는 조언의 길을 택하여 신의 인도(*비다*)에서 벗어나는 일에 관여하게 한다. 그 길이 닫히면, 사탄은 스스로 부과한 고난과 협박, 극단주의의 길로 이끌어 금지되지 않은 것조차 스스로 금지하게 만듭니다(*하람*). 그 길도 닫으면 사탄은 정면(*우두*, 즉 공식적인 기도의 영적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신체적 정화)과 기도에 대한 의심과 불안을 초래하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길조차도 막아버려 [사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사탄은 선한 의로운 행위를 쉽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경건하고 인내심 있고 순수하고 도덕적 올바름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그 사람을 자기 의로움, 자기 과시, 자기 과시와 허영(*'우주브*)'에 빠뜨려 그것을 파괴합니다. 여기서 사탄은 자신의 모든 힘과 힘을 쏟아붓는데, 이것이 그가 놓치고 싶지 않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놓치면 먹잇감이 그의 [사냥] 그물에 갇히지 않고 곧장 하늘로 갈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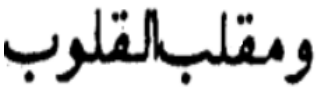
심장과 심장 유형에 대한 급격한 변화

앞서 언급했듯이, 심장은 서로 다른 상반된 특성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치 사방에서 화살이 쏟아지는 표적과 같습니다. 한 가지가 그 영향력을 행사하면 다른 무언가가 와서 그 영향을 약화시킵니다. 사탄은 그것을 하위 자아의 욕망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엔젤은 반대 방향으로 당긴다. 한 사탄이 그것을 한 악으로 끌어당기고, 또 다른 사탄이 그것을 다른 악으로 끌어당긴다. 마찬가지로, 한 천사는 선행을 부르고, 또 다른 천사는 다른 선행을 부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마음이 두 천사 사이의 투쟁에 관여하고, 때로는 두 사탄 사이, 때로는 천사와 사탄 사이의 투쟁에 관여합니다. 평화로운 순간이 없고, 조용한 순간도 없습니다. 다음 구절은 마음의 같은 상태를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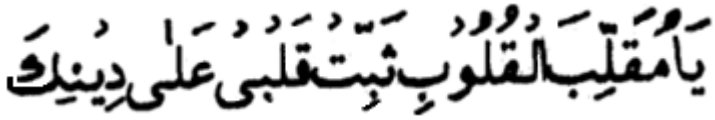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마음과 시선을 돌릴 것이다." (꾸란 6장 110절)

그것은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가 마음의 경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을 인지하고 이 육체가 항상 덧없고 덧없으며 끊임없이 변하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욕을 하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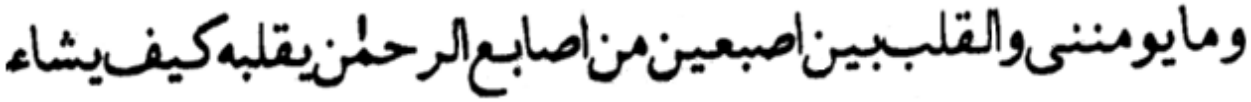
"나는 마음을 바꾸는 자(즉, 신)를 맹세한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예언자 동료] 압둘라 이븐 우마르의 권위에 따른* 사히흐 부카리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그는 다음과 같은 간구를 풍부하게 하곤 했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당신이여! 내 마음이 주님의 길에 굳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다: "오, 하나님의 사도여! 심장에 대한 걱정도 있나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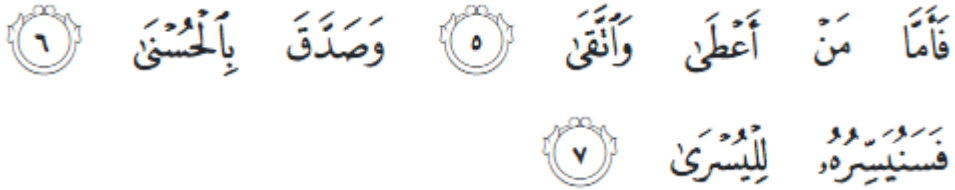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두 손가락 사이에 심장이 있는데 내가 두려움 없이 행동해야 하느냐?"

마음의 변덕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는 그것을 항상 지켜보고 끊임없이 묵상하는 사람들만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세 가지 유형은 변화와 안정성 측면에서 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안정성 또는 두 가지 사이에 머뭇거리는 마음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건한 경외, 경외, 경외의 빛으로 가득 찬 마음(*타크와*): 한 마음은 경건한 경외, 경외, 경외, 신에 대한 두려움의 빛으로 가득 차 있으며(*타크와*), 모든 낮고 악한 내면의 특성들이 정화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의 보물창고와 천사의 영역('*알람 알-말라쿳*)'에서 좋은 생각을 받습니다. 지능은 그 미묘함, 복잡함, 비밀, 그리고 이점을 파악하기 위해 그들을 숙고합니다. 통찰의 빛(*바세라*)이 선한 것을 드러낼 때, 지성은 그 중요성을 결정하고 마음을 설득해 행동하게 한다. 천사가 [신성한 빛을 마음에 들여오는 책임자]가 마음의 본질이 정화되고 정화된 것을 볼 때, 지성과 건전한 이성의 빛이 그것을 밝히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빛줄기가 [자신과 타인에게 부정적이고 악랄하며 해로운 모든 것에 대한 도덕적 제약 역할을 하는] 사방에 떨어지고 신성한 영지의 등불이 타오르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런 마음은 천사들이 내려와 머무르는 거처일 것이다. 천사는 보이지 않는 자들의 군대를 돕고 많은 선한 행위를 행하도록 돕는다. 의와 그것을 키우는 행위가 하나님이 말씀하듯 타고난 제2의 본성이 될 때까지:



"그러므로 [자비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경건한 경외와 경외,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올바른 것의 진리를 믿은 자가 그런 분에게 안락함을 주리라." (꾸란 92장 5-7절)

이런 마음들은 신성한 주권의 법정에서 풍부한 빛을 받아, 숨겨진 다신교 같은 미묘한 악조차도 눈앞에서 숨겨지지 않는다. 이는 어두운 검은 밤을 기어 다니는 검은 개미보다 더 미묘하다 [따라서 사소한 수준의 악하거나 부정적인 것에 대한 민감함이 증가하여 그것에 대한 선봉 역할을 한다]. 사탄의 속임수는 그런 마음들에게는 효과가 없다. 그는 교묘한 말로 최선을 다해 속이고 속이려 하지만, 하나님의 종(즉, 의인)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은 *내면의 파괴적 특성(*무흘리카트, 즉 마음과 영혼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내면의 특성)을 제거한 후 구원적이고 길조의 내면의 특성(*문지야트*)으로 장식된다 . 이러한 구원적인 내면의 자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요청하지 않아도 모두에게 주신 수많은 축복에 대해), 인내(모든 역경에 맞서 더 높은 영적 자각의 단계로 이끌며), 경건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경외(*타크와*), 하나님으로부터의 낙관과 희망(*리자*), 영적 빈곤(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필요함 또는 *Faqr*) 등이 포함됩니다 . 물질주의 절제(*주흐드*), 신에 대한 사랑(*마하바*), 신의 명령에 대한 만족(*리다*), 신에 대한 열망과 애정, 그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샤우크*), 신에 대한 신뢰(*타왁쿨*), 신성한 깊은 묵상은 신성한 사랑을 심어주기 위해 물질적·영적 모두에서 경이로움과 신비를 창조했다(*타팍쿠르*신성한 예배, 순종,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흐티사브)을 이루기 위한 영적 길에서의 노력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마음에 있으며, 바로 아래 구절에 언급된 마음입니다:

أَلَا بِذِكْرِ ٱللَّهِ تَطْمَئِنُّ ٱلْقُلُوبُ

"진실로, 마음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평온과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 (꾸란 13장 28절)

يَٰٓأَيَّتُهَا ٱلنَّفْسُ ٱلْمُطْمَئِنَّةُ ﴿٢٧﴾ ٱرْجِعِىٓ إِلَىٰ رَبِّكِ رَاضِيَةً مَّرْضِيَّةً ﴿٢٨﴾

"오, 영원한 평화와 고요 속에 머무는 안식한 영혼이여! 주님께 돌아가셔서 [그분의 자비와 관대함의 거대함 속에서] 네가 그분을 기뻐하시고 그분도 너를 기뻐하신다." (꾸란 89장 27-28절)

하층 자아로부터 오는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 두 번째 유형의 마음은 첫 번째 유형과 반대입니다. 즉, 하위 자아에서 나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비난받아 마땅한 습관과 성향으로 오염되어 있다. 이 마음의 문은 사탄에게는 열려 있고 천사들에게는 닫혀

있습니다. 이 유형의 마음에서 악의 시작은 하위 자아의 욕망을 상상하면서 일어나고, 이어서 죄와 악에 빠지는 것을 망설이게 됩니다. 마음은 지성인 지성과 상의합니다. 지성은 이미 하위 자아의 노예였고 매우 무감각하고 집착했기 때문에, 지성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하고 [잘못된 것, 악랄하고 해로운 사안을 생각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의 수단]을 제공한다. 이렇게 하층 기본 자아(*Nafs*)가 마음을 포획하여 완전히 통제하여 죄를 다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위 자아의 욕망에 열리고, 탐욕의 어둠이 어디에나 퍼지기 시작한다. 지성의 군대는 이미 저항력을 잃고 하위 기본 자아(본질적으로 잘못과 악에 기울어짐)에게 완전한 통제권을 넘겼기 때문이다. 사탄의 원은 더 확장되어, 외적 사치에 얽히고 마음을 얽히고 가두는 [과시적 소비], 속임수와 사기, 거짓된 희망, 그리고 그런 다른 일들을 암시한다. 결과적으로, 신과 신의 인도에 대한 지배는 모든 과잉에 맞서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도덕적 올바르함에 대한 지배가 약해지고, 의로 인도하는 신의 인도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의 등불은 꺼집니다. 다시 말해, 신성한 약속, 천국과 지옥, 그리고 내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끝난다는 뜻입니다. 낮은 자아의 욕망은 연기처럼 마음을 사방에서 감싸며 믿음과 확신의 등불을 꺼버립니다. 지성은 마치 눈이 연기로 가득 찬 상태에 빠져 볼 능력을 잃는 상태에 빠집니다. 물질적, 비물질적, 육체적 욕망의 지배는 마음의 사고와 숙찰 능력, 통찰을 빼앗아 가며, (마음)은 올바른 삶의 길에 관한 인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 설령 충고자가 좋은 것에 대해 조언하려 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다음 구절들은 같은 마음을 암시합니다:

أَرَءَيْتَ مَنِ ٱتَّخَذَ إِلَٰهَهُۥ هَوَىٰهُ أَفَأَنتَ تَكُونُ عَلَيْهِ وَكِيلًا ﴿٤٣﴾

أَمْ تَحْسَبُ أَنَّ أَكْثَرَهُمْ يَسْمَعُونَ أَوْ يَعْقِلُونَ ۚ إِنْ هُمْ إِلَّا كَٱلْأَنْعَٰمِ ۖ بَلْ هُمْ أَضَلُّ سَبِيلًا ﴿٤٤﴾

"오 예언자여! 하층 자아로부터 욕망을 신으로 만든 사람의 상태를 본 적 있나요 [마치 그런 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지켜볼 수 있나요 [자해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듣고 이해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 오히려] 그들은 마치 가축과 같으며, 오히려 [옳은] 길에서 더 벗어난 존재입니다 [옳고 그름, 유익과 해로움, 행운과 파괴, 해롭고 유익한 것을 구별할 능력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꾸란 25장 43-44절)

لَقَدْ حَقَّ ٱلْقَوْلُ عَلَىٰٓ أَكْثَرِهِمْ فَهُمْ لَا يُؤْمِنُونَ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믿지 않을 것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꾸란 36장 7절)

سَوَآءٌ عَلَيْهِمْ ءَأَنذَرْتَهُمْ أَمْ لَمْ تُنذِرْهُمْ لَا يُؤْمِنُونَ

"[오 예언자여! "잘못된 행동에 빠졌을 때의 결과에 대해 경고하든 안 하든, 그들은 [진실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꾸란 2장 6절)

어떤 마음은 모든 종류의 욕망에서 같은 상태를 가지고, 어떤 마음은 특정 욕망에 관여하며, 어떤 마음은 전혀 욕망에 가깝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흔한 죄를 피하지만, 아름다운 얼굴을 보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지성을 뒤로하고 그와 관련된 잘못된 일에 휘말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 명성, 그리고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위를 갈망해서, 기회가 생기면 미친 듯이 쫓아다닌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듣지 못하고 모욕을 참지 못합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한 마디라도 하면 분노에 휩싸여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에 대한 두려움(*타크와*)과 청결(*타하라*)을 지키지만, 돈 문제에 있어서는 신을 두려워하고 신의 고양이라는 옷차림을 산산조각 내고, 부와 재산에 개가 뼈를 덮치듯 떨어집니다. 이 모든 죄는 *낮은 자아(나프스)에서 나오는* 완고하고 잘못된 어리석음(*하와*)의 연기에 휩싸인 마음에 의해 저지르며, 내면의 통찰의 빛이 줄어들고, 수줍음[또는 모든 형태의 방탕함과 악함에 대한 도덕적 제약 역할을 하는 겸손함]이 사라지며, 이들은 사탄의 목적과 목표를 완수하는 데 몰두하게 됩니다.

욕망과 믿음 사이의 마음: 세 번째 유형의 마음은 고집스럽고 잘못된 어리석음에서 태어난 생각이나 낮은 자아의 욕망에서 태어나 악으로 초대합니다. 동시에, 영원한 진리에 대한 신앙의 생각들이 도착하여 선과 의로움으로 초대합니다. 모든 욕망을 가진 하위 자아는 악한 생각에 기울어져 욕망을 자극하고, 쾌락과 위안을 추구하는 탁월함을 서술한다. 지성은 의의 생각을 돕고, 욕망을 비판하며, 하등 자아에게 이 [사색하는 것]이 무지의 행위이며,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악에 넘어간 동물과 야수들의 행동과 닮았다고 말한다. 자아가 지성의 조언에 기울어진다면, 사탄은 낮은 자아를 쫓는 것을 포기하고 지성을 쫓으며, 이것이 욕망과 연결된 요인들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지성에게

말합니다: "왜 이유 없이 스스로를 조이느냐? 왜 욕망을 접었나요? 동시대 인사 중에 자신의 욕망에 반대하고 필요를 저버리는 사람이 있나요? 그들은 세속적인 쾌락을 누리고 있고, 당신 집안에는 오직 제약과 좋은 삶으로부터의 제약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운이 좋은 반면, 당신은 부족하고 불행하며 고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놀리고, 제가 말한 길을 따라 훌륭한 지위와 명성을 얻은 다른 이들의 예를 들기도 합니다. 왜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나요? 이런 학자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못하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나쁜 일이었다면, 왜 그들(성스럽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이러한 강력하고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는 설득의 결과로,] 하위 자아는 사탄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천사는 하위 자아의 길을 막으며 말한다: "현재의 쾌락을 얻기 위해 모든 일의 최종 결과와 결론을 모르는 사람은 파괴된다. 며칠만 지속될 이 덧없는 세속적 즐거움에 의지함으로써 하늘의 영원한 축복과 기쁨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욕망을 억제하는 것보다 지옥의 고통이 더 쉽다고 생각하나요?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죄는 당신의 벌의 고통을 줄일 수 없습니다. 만약 강렬한 여름과 폭염 시기에 편안하고 시원한 집을 얻는다면, 덧없는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까요, 아니면 태양의 강한 열기로 몸이 녹지 않고 뜨거운 바람이 몸을 자극하지 않는 집을 선호할까요? 당신의 세상 상태(지상 존재)는 태양의 열을 견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안에 설 수도 없는데, 그럼 무엇이 당신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막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옥의 열기가 태양의 열보다 적은가?" 이 조언을 통해 자아는 천사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요컨대, 천사와 사탄 사이의 싸움과 투쟁은 계속되며, 이 싸움 속에서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들을 다루게 됩니다. 때로는 사탄적인 특성이 지배적이고, 하위 자아가 완전히 사탄에게 기울어 그의 동료이자 조수가 됩니다. 자비로운 분(하나님)의 집단을 피하며, 그 모든 행위는 미리 정해진 운명에 의해 봉인된 신체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천사 영역의 [고귀한] 특성이 지배할 때, 자아는 사탄의 함정에 빠져 그의 속임수를 없애지 않습니다. 내세의 일에서 게으름을 보이지 않고, 자비로우신 분(하나님)의 집단에 경의를 표하며, 그러한 행위는 신성한 수용과 승인을 가져오는 신체 기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또한 미리 정해진 운명에 따라 일어납니다. 앞서 언급한 예언적 내레이션, 즉 "믿는 자의 마음이 자비로운 분(하나님)의 두 손가락 사이에 있다"는 말은 두 적대 세력 사이에

벌어지는 동일한 다툼을 암시합니다. 이런 마음들은 영구적으로 어느 한 집단에 기울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혁명과 변화의 행위가 계속된다 [선과 악의 세력 간의 고된 투쟁과 전투의 전장이기 때문에].

복종과 신성한 계명에 대한 위반 행위는 모두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물창고에서 물리적 존재의 영역에 나타나며, 마음은 보이지 않는 천사의 영역에서 나오는 보물이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마음의 사람들은 이 모습을 통해 [신성하게 정해진 운명] 깊이 이해합니다. 천국을 위해 창조된 자들은 [신성한] 복종의 수단을 제공받고, 지옥을 위해 창조된 자들은 불순종의 수단을 받으며 나쁜 친구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으며,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탄적 암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사탄은 신의 자비와 관대함을 언급하며 사람들을 지나치게 어리석게 만듭니다. 또한 생명이 많이 남아 있으니 죄를 계속 지었다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긴 삶의 끝에]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으며, 그들의 방식을 반대하면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꾸란은 그의 [거짓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약속들을 정확하게 묘사했다:

يَعِدُهُمْ وَيُمَنِّيهِمْ ۖ وَمَا يَعِدُهُمُ ٱلشَّيْطَٰنُ إِلَّا غُرُورًا

"사탄은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들을 탐욕스럽게 하시며[장수하기를 바라며] 사탄은 오직 거짓 약속만 하시네요." (꾸란 4장 120절)

즉, 그는 회개를 약속하고 용서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키며, 그런 변명과 계략으로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탄의 속임수에 영향을 받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운명의 지침에 마음이 조여지게 됩니다:

فَمَن يُرِدِ ٱللَّهُ أَن يَهْدِيَهُۥ يَشْرَحْ صَدْرَهُۥ لِلْإِسْلَٰمِ ۖ وَمَن يُرِدْ أَن يُضِلَّهُۥ
يَجْعَلْ صَدْرَهُۥ ضَيِّقًا حَرَجًا كَأَنَّمَا يَصَّعَّدُ فِى ٱلسَّمَآءِ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은 신의 뜻(이슬람)*에 복종하도록 마음을 확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의 인도와 영원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은 마치 하늘로 오르는 것처럼 마음을 심하게 조이게 하신다." (꾸란 6장 125절)

إِن يَنصُرۡكُمُ ٱللَّهُ فَلَا غَالِبَ لَكُمۡۖ وَإِن يَخۡذُلۡكُمۡ فَمَن ذَا ٱلَّذِي يَنصُرُكُم مِّنۢ بَعۡدِهِۦۗ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신다면 아무도 너를 지배할 수 없고, 만약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누가 너를 도울 수 있느냐?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신자들은 신뢰를 가져야 한다." (꾸란 3장 160절)

이 구절들로부터 오직 하나님만이 인도를 주시며, 오히려 하나님만이 잘못 인도하시는 분임을 배웁니다(따라서 신이 한 사람과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신의 불쾌함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을 피해야 한다는 필요성):

يَفۡعَلُ مَا يَشَآءُ وَ يَحۡكُمُ مَا يُرِيدُ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고 결정하신다."

누구도 그분의 명령을 피할 수 없으며, 그분의 결정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천국과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신성한] 순종의 길로 걷게 하셨습니다. 또한 지옥과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신성한] 불순종의 길로 걷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에 갈 자격이 있는 자들의 징조를 종들에게 말씀하시며 다음과 같은 선포를 하셨습니다:

إِنَّ ٱلۡأَبۡرَارَ لَفِي نَعِيمٖ ١٣ وَإِنَّ ٱلۡفُجَّارَ لَفِي جَحِيمٖ ١٤

"경건하고 의로운 자는 축복과 위로를 받고, 악한 자는 지옥에 있을 것이다." (꾸란 82장 13-14절)

하나님은 고귀하시고 최고하신다:

لَا يُسْئَلُ عَمَّا يَفْعَلُ وَهُمْ يُسْئَلُونَ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의심받을 수 없고, 다른 이들도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질문받을 수 있다." (꾸란 21장 23절)

마음의 경이로움에 관한 이 간단한 설명은 충분하며,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이 말하는 것은 외적 지식(외적 지식 또는 *일름 알-무암라*)과 관련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여기서 언급된 내용의 목적은 외부적 지식(*울룸 알-무암라*)의 비밀과 복잡함을 익히는 데도 있다. 외부적 지식(이 지식의 외부 의미)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고, 겉껍질보다 내면(본질)을 선호하며 현실의 [내면] 복잡성에 열망하는 이들이다. 이 짧은 해설이 그들의 [영원한 진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2장- 영혼의 정화를 위한 영적 투쟁, 깨달음 나는 내면의 특성 획득과 영혼의 내면의 어둠과 병을 치유하기

가잘리의 두 번째 책은 그의 *대표작 『이히야 알울룸 앗딘』*('하나님의 길에 대한 지식의 부흥')의 세 번째 권, 즉 '하나님의 길에 대한 지식의 부흥'에 해당하며, 영혼의 병을 치유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영적 엄격함을 통해 노력하는 과정을 다룬다. 이는 다시 영혼을 더 높은 수준의 정제, 인식, 영적 상승, 그리고 영적 상승과 영지(*Ma'rifa*)로 이끌며, 개인과 집단 차원에서 재앙을 막고 인류를 개인과 집단 차원에서 다시 고양하는 데 필요한 변화를 이루기 위한 개인적 의무로 삼습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8]:

성격의 아름다움은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의 [내재적·타고난적인] 특성과 특성이며, 영적으로 완성된 성인들, 영지주의자, 신비가들(싯디킨)의 가장 뛰어난 행위임을 알리자. 실제로는 종교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는 경외하는 이들과 독실한 예배자들의 영적 노력의 열매입니다. 나쁜 도덕, 예절, 인격은 치명적인 독이며, 그 안에는 굴욕, 낙담, 명예 불명성이 따른다. 그들은 한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한 사람을 사탄에게 더 가깝게 만듭니다. 여기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야.

아름다운 도덕, 예절, 내면의 성향, 기질, 존재 상태, 그리고 인격(*이흘락 알-하사나*)은 천국으로 열린 문이며 신성한 친밀함과 친밀함을 위한 수단입니다. 나쁜 도덕, 예절,

인격(*이흘라크 알-카비타*)은 마음의 병과 병입니다. 신체 질병은 세속적인 생명을 빼앗고, 마음과 영혼의 병은 내세의 [영원한] 생명을 끝내게 합니다. 신체 질환과 심장 및 영혼 질환 사이에 명백한 연관성은 없지만, 의사들이 신체 질환을 치료하고 수많은 규칙과 규정을 제정했으며, 그에 따라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진다. 인간이 이 육체의 병을 치유하려고 노력할 때, 마음과 영혼의 병을 고치는 데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또한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방법론과 지식이 있으며, 이는 모든 인간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심장에는 어떤 질병이 있고, 치료되지 않으면 파괴적이 되어 그 결과로 많은 다른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병에 대한 지식을 얻고, 원인을 밝혀내며, 치료 방법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란의 다음 구절에서:

قَدْ أَفْلَحَ مَن زَكَّىٰهَا

"정말로, 그 모든 병을 정화한 자는 행운과 진정한 성공에 이르렀다." (꾸란 91장 9절)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심장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وَقَدْ خَابَ مَن دَسَّىٰهَ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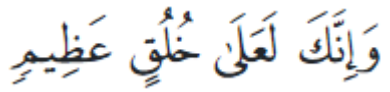
"그리고 영혼을 망가뜨린 자는 [신의 인도에 대한 위반, 도덕적 타락, 내면의 부패, 부정과 악덕으로]." (꾸란 91장 10절)

이 구절은 [심장의 질병과 병]을 치유하지 못한 것을 가리킨다. 이 책에서는 심장 질환과 그 치료 상태를 간략히 설명할 것입니다. 모든 질병은 이 [3] 권의 나머지 책들에서 별도로 설명될 것이다 [가잘리의 "*이히야 알-울룸 앗-딘*" 또는 "신으로 가는 길의 지식의 부흥", 오로지 영혼의 파괴적 특성만을 다루는]. 여기서 목적은 도덕, 예절, 내면의 인격 우수성을 습득하고 이를 얻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비추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신체적 병의 치료법을 예시(또는 영적 병을 치유하는 비유)로 언급하겠습니다. 이 논의 사이사이에서 아름다운 도덕, 예절, 인격의 탁월함과 그 현실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단호한 [영적] 노력을 통해 좋은 도덕, 예절, 성격 특성을 채택(주입하고 습득)할 수 있음을 설명할 것입니다. 좋은 성격 특성을 얻는 방법과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문명화와 성격의 정교화, 영적 노력 방법과 함께, 심장 질환을 인식하는 징후와 징후들이 언급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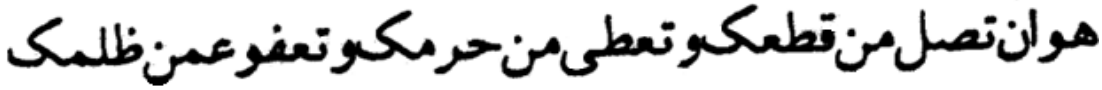
선한 고귀한 인격의 탁월함과 악한 혐오스러운 인격의 해악

구절과 예언적 이야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무 함마드 선지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를 찬양하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당신은 고귀하고 숭고한 인격의 높은 경지에 서 있습니다." (꾸란 68장 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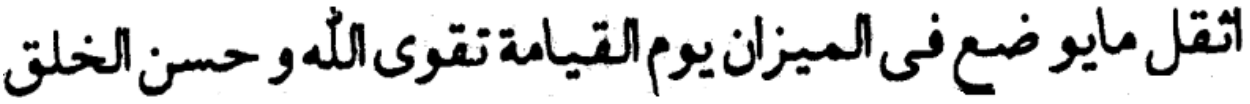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격의 아름다움은 당신과 친척과 관계를 끊는 이들과 연결되고, 친절하고 자비로우며, 당신을 빼앗는 이에게 베풀고, 억압하는 이에게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이븐 마르다위야* 는 [예언적 동료] 자비르, 아나스, 카이스 빈 사아드 빈 '우바다 [신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길])의 권위에 따라 말한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신성하게] 좋은 인품, 도덕, 예절의 완전함과 완성을 위해 서품받았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무스나드 아흐마드*, *하킴* 그리고 *바이하키* [예언자 동료]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심판의 날에 행위(미잔)*의 저울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선한 인격, 도덕, 예절, 내면의 성향과 기질일 것이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아부*

*다우드*와 *티르미디* 는 [예언자 동료] 아부 알-다르다의 권위에 따라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한 남자가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에게 물었습니다: "오, 하나님의 사도여! 나쁜 징조(즉, 모든 선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는 무엇인가?" 그는 "인격, 도덕, 예절이 나쁘다"고 답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무스나드 아흐마드는* [예언자의 아내] 아이샤의 권위에 따라 [신께서 그녀를 기뻐하시길])

한 남자가 예언자지에 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اتق الله حيث كنت، قال: زدني، قال اتبع السيئة الحسنة تمحها، قال: زدني
قال: خالق الناس بخلق حسن

"어디에 살든 경건한 경외와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는 더 많은 조언을 요청했다. 예언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었다면, 선한 행위가 죄를 지우듯 선하고 고귀한 일을 하라." 그는 더 많은 조언을 요청했다. 예언자는 "사람들을 좋은 도덕과 예의, 인격으로 대하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다: "오 하나님의 사도여! 모든 액션 중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는 "아름다운 도덕성, 예절, 인격"이라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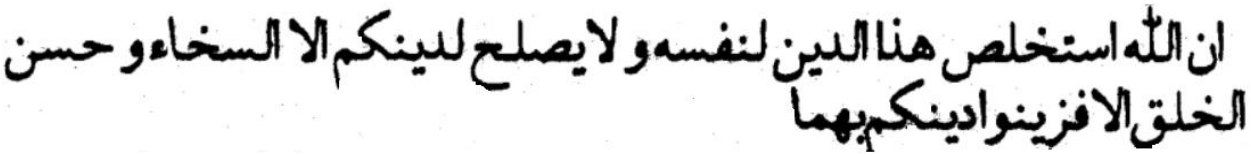
아부 알다르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اول ما يوضع في الميزان حسن الخلق والسخاء، ولما خلق الله الايمان قال:
اللهم قوني، فقواه بحسن الخلق والسخاء ولما خلق الله الكفر قال اللهم
قوني، فقواه بالبخل وسوء الخلق

"행위의 척도(*미잔*) [심판의 날]에서는 아름다운 도덕, 예절과 인격(*후스른 울-쿨크*)과 관대함(*사카*)이 최우선으로 여겨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창조하셨을 때, '오 하나님! 나를 힘 있게 하고 강하게 해줘!' 신은 아름다운 도덕, 예절, 인격(*후스른 울-쿨크*)과 관대함(*사카*)으로 그것을 강화하셨습니다. 그분이 신에 대한 불신과 거부(*쿠프르*)를 창조했을 때, 그것은 이렇게 물었다: '오 하나님! 나를 힘 있게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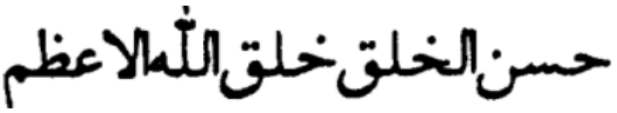
강하게 해줘!' 신은 그것에게 인색함(*부쿨*)과 끔찍한 도덕, 예절, 성격(*수 울쿨*크)의 권력을 주셨다. (하피즈 이라키, 위대한 학자, 하*디스* 또는 예언적 전술자들은 *이 책 『이맘 가잘리의 『신에 이르는 길의 지식 부흥』에서* 하디스의 출처를 연구하고 출처를 제공했으나, 이 *하디스*의 출처 참고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디스는* 아부 다우드*와* 티르미디를 모았다 같은 화자(아부 알다르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로부터 예언적 전통을 전했다: "행위의 척도에서 아름다운 도덕, 예절, 인격보다 무거운 것은 없을 것이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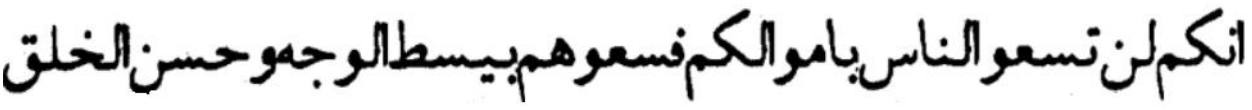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자신과 여러분의 종교(딘 *또는 신으로 가는 길)를 위해 이 종교를 정화하셨*습니다 . 관대함과 아름다운 도덕, 예절, 인격보다 더 적합한 것은 없습니다. 조심하다! 이 두 가지 두 가지 특성으로 당신의 종교를 아름답게 꾸미세요."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다르 카트니*와 *카라에티* 는 [예언자 동료] 아부 사이드 알-쿠드리의 권위에 따라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예언적인 서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름다운 도덕, 예절, 인격은 신의 [신성한] 특성이며, 최고하신 하나님이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타바라니 아우삿* [예언자 동료] 암마르 빈 야시르의 권위에 따라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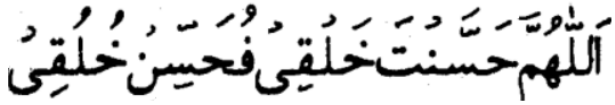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부와 재산을 통해 사람들에게 확장할 수 없다면(즉, 당신의 관대함으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재정적 여유가 없다면), 그들과 넓게 지내라(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미소 짓고 아름다운 도덕관, 예절, 성격을 보여라."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예언자 동료]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바자르, 아부 야라, 타바라니 *하디스* 모음 집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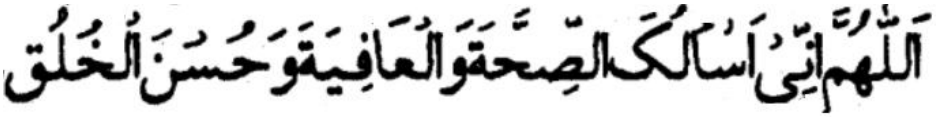
바라 빈 아지브(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는 가장 잘생기고 잘생겼으며, 도덕성과 예절, 성격, 태도가 가장 뛰어났다"고 말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 *집 카라에티*)

아부 마수드(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무함마드 예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가 다음과 같은 간청을 하곤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 신이시여! 당신은 내 외모를 좋게 만들었으니, 내 내면도 좋게 만들어 주세요 (다시 말해, 외모가 좋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아요. 외모가 좋고 악하고 비열한 내면이 결합된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람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아름다운 외모와 함께 아름다운 도덕, 예절, 성격, 내면의 성향입니다. 즉, 아름다운 마음과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수집 *카라-에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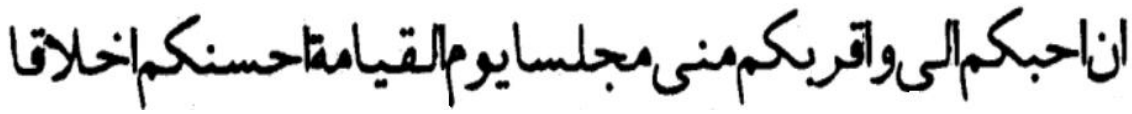
압둘라 빈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예언자 무함마드(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가 다음과 같은 간청을 풍성하고 풍부하게 하셨다고 말했다:



"오 신이시여! 저는 저에게 건강과 평화, 안전을 [이 세상과 저승의 모든 해로부터], 그리고 아름다운 도덕과 예절, 인격을 허락해 주시길 간청합니다(이 모든 축복의 조합은 신성하게서 주신 축복의 완성입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 *집 카라에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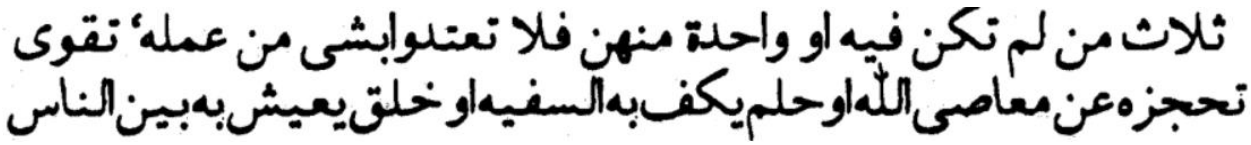
우사마 빈 샤리크(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한 번은 무함마드 선지자를 방문했는데, 그때 사막의 아랍인들이 하나님의 종이 받은 최고의 선물에 대해 묻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도덕, 예절, 성격, 내면의 성품(*후스 울-쿨크*)'이라고 답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집 *이븐 마자*)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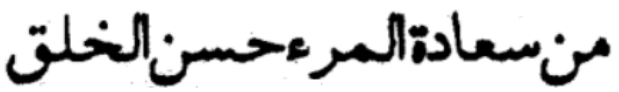
"심판의 날에, 그 사람들은 도덕성, 예의, 성격, 내면의 성향이 뛰어나고 가장 사랑받고 가까운 이들일 것이다."

압둘라 빈 압바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무함마드 선지자의 말씀을 전합니다(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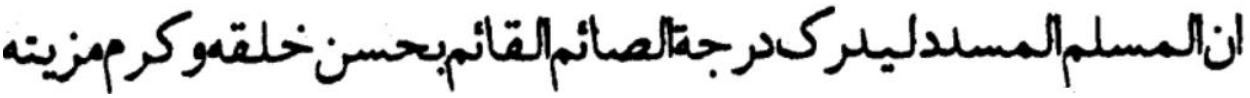
"이 세 가지, 혹은 그 중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지 못한다: 경건함, 경외심, 경외심, 경외심(*타크와*)이 신을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는 것; 어리석은 사람과 싸우지 않도록 하는 인내, 관용, 자제(*힐름*);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살아가는 좋은 도덕, 예절, 인격, 내면의 성향(*쿨크*)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에는 *움 살라마의 권위에 따라* 카라에티*와* 타바라니 카비르가 모아져 있다 [신께서 그녀를 기뻐하시길])

예언자 무함마드(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아름다운 도덕성, 예절, 성격, 내면의 성품의 질을 다음과 같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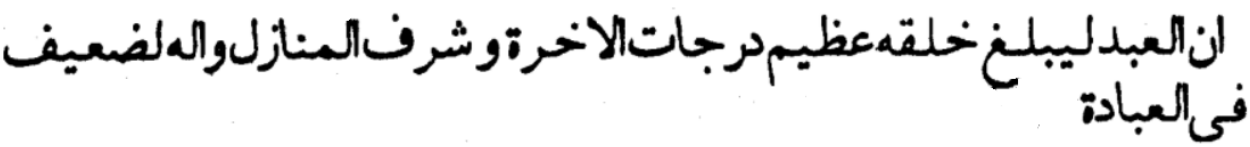
"아름다운 도덕성, 예절, 인격과 내면적 성품 (*후스 울-쿨크*)는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을 위한 변화의 변혁적 주체 중 하나입니다(*사아다*개인에 대해 말이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수집 *카라-에티*)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한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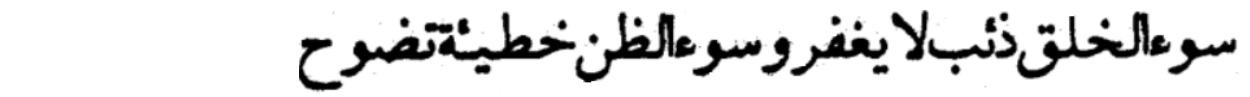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능력을 부여하신 무슬림은, 아름다운 도덕성, 예절, 성품과 친절한 내면의 성품을 통해 밤새 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숭배자의 지위에 오른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압둘라 빈 암르의 권위에 따른* 무스나드 아흐메드 *하디스* 모음 집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한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즉 인간은 [신성한] 예배에서 약할 수 있더라도 좋은 도덕, 예절, 성격, 내면의 성향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높은 [영적] 지위와 계급을 얻는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는 아나스 빈 말릭의 권위에 따라 *카라에티*와 *타바라니* 를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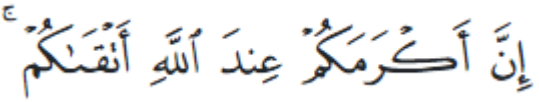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도덕, 예절, 성격, 그리고 비열한 내면의 성품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며, 타인에 대한 나쁜 평가는 다른 죄를 낳는 죄이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예언자의 아내*] *아이샤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 집* 타바라니 사기르 [신께서 그녀를 기뻐하시길])

주나이드 바그다디(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과 [의로운] 행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매우 영적인 수준으로 이끄는 네 가지 자질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내, 둘째는 겸손, 셋째는 관대함, 넷째는 아름다운 도덕, 예절,

성격, 내면의 성품입니다. 이 네 가지 특성이 바로 믿음의 완전함이다." 카타니(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사우프*(지식, 실천적 방법론, 영성의 상태)는 *아클라크*(아름다운 도덕, 예절, 성격, 내면적 성향)의 이름입니다. *아클락에서 더 큰 자는* 타사우우프*에서도 더 위대* 하다."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아름다운 도덕성, 예절, 성격, 내면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행동으로 그들에게서 멀리하라"고 말했다. 야히야 빈 무아드(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이렇게 말했다: "나쁜 도덕, 예절, 성격은 선행이 많아도 이롭지 않은 악이다. 좋은 도덕, 예절, 인격은 그러한 미덕이며, 그 존재 속에서는 부족함이 풍부해도 해롭지 않다"고 말했다. 압둘라 빈 압바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귀족(*카람*) *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꾸란에서 귀족은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진실로 너희 중 하나님 앞에서 더 고귀한 자는 경건한 경외와 경외, 경외심을 가진 자이다 (*타크와*)'". (꾸란 49장 13절)

압둘라 빈 아바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모든 건물에는 기초가 있으며, 이슬람의 기초는 아름다운 도덕, 예절, 인격, 내면의 성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타(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말했습니다: "[영적] 경지에 도달한 자는 아름다운 도덕, 예절, 인격, 내면의 성품을 통해 이룬다.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만이 아름다운 도덕성, 예절, 인격, 내면적 성품에서 완성을 이룬 이는 없었다. 이들은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의 발자취를 따르며 아름다운 도덕, 예절, 성격, 내면의 성향(*후스른 울-쿨크*)을 가꾸는 신과 더 가까워집니다.

선한 고귀한 성격과 악한 혐오스러운 성격의 현실

아름다운 도덕, 예절, 성격, 내면적 성향의 현실: 두 가지 [관련된] 단어가 있습니다 - *칼크*(좋은 외모)와 *쿨크*(좋은 내면의 성격과 성향). 이 두 단어는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인격도 좋다고 합니다. 즉, 외모는 좋고, 도덕성, 예절, 태도, 성격, 내면도 좋습니다. 이 사람은 내면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외면의 아름다움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에서 *칼크*는 외관을, *쿨크는* 내면을 의미하는데, 이는 인간이 몸과 영혼의 결합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눈으로 관찰할 수 있고, 영혼은 통찰(*바세라*) 또는 내면의 눈으로 인식됩니다. 몸과 영혼 모두 조건과 외모가 있습니다. 이 외모는 보기 좋기도 하고 보기 싫기도 합니다. 통찰(*Baseerah*) 또는 내면의 눈을 통해 인지되는 영혼은 눈이 인지하는 몸보다 우월하고 더 높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며 그 위대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إِنِّي خَٰلِقُۢ بَشَرًا مِّن صَلْصَٰلٍ مِّنْ حَمَإٍ مَّسْنُونٍ ﴿٢٨﴾

فَإِذَا سَوَّيْتُهُۥ وَنَفَخْتُ فِيهِ مِن رُّوحِى فَقَعُوا۟ لَهُۥ سَٰجِدِينَ ﴿٢٩﴾

"나는 소리 나는 점토에서 인간을 창조하려 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창조하고 그 안에 (즉, 인간의 외형인 육체)을 내로부터 영혼을 넣을 때, 너희 모두(오 천사들)는 그 전에 엎드려 [내 명령에 따라](내 뜻과 인간을 창조하는 신성한 목적에 순종하고 자신의 영혼의 고귀함에 순종하라), 신성한 비밀과 그 안에 내재된 신성한 영지(Gnosis)의 형태로 영적 성취의 정점에 도달할 잠재력 때문이다)." (꾸란 15장 28-29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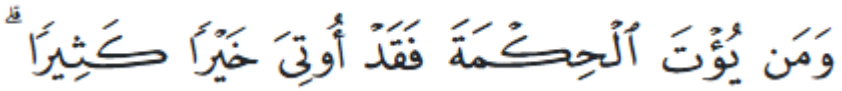
이 구절에서 몸은 점토에, 영혼은 하나님께 귀속됩니다. 여기서 soul(*Ruh*)과 self(*Nafs*)는 같은 의미이며, soul 대신 self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혼동이 없어야 합니다. 이제 *쿨크*(내면의 성격과 성향)에 대한 설명을 들어봅시다. *쿨크*는 행위가 쉽게 수행될 수 있는 내재된 자아 상태를 뜻하는 이름이다. 이 자아의 조건에서 태어난 행위가 신성한 법(*샤리아*)과 지성에 따라 선하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도덕, 예절, 성격, 내면의 성향이라고 불리며, 행위가 나쁘다면 나쁜 도덕, 예절, 성격, 내면의 성격이라고 불립니다.

이 정의에서, 행위가 쉽고 수월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내재된 자아의 내적 상태가 설정된 것은 [자선 행위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 쓰려는 노력, 힘과 투쟁으로 분노를 통제하는 노력은 참음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가 아니다. 쿨 *크* (내면의 성격과 성향)는 노력 없이 행동(선악)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네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행위가 선한지 악한지; 둘째,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셋째, 그 행위의 실재성을 아는 것(즉, 선이든 악이든 행위인지); 넷째, 자기 안에 내재된 상태가 존재하여 아름다움이나 추악함 쪽으로 기울어져 어느 쪽이든 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쿨크* (내면의 성격과 성향)는 네 번째 의미와 관련이 있는데, 즉 인간이 구두심이나 관대함 같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내재적 상태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의 네 가지 요소: 외면의 아름다움이 단순히 아름다운 눈을 가졌다는 이름이 아니라, 눈, 코, 귀, 입술, 뺨 등 모든 장기의 균형과 비율을 아름다움이라고 하며, 이 모든 아름다움을 통해 아름다움의 완성과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내면의 아름다움도 네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며,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기 위해서는 네 가지 구성 요소 모두에 아름다움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균형 잡히고 비례를 유지한다면, 인간은 내면의 아름다움 측면에서 완전하다고 불릴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지식의 힘, 분노의 힘, 욕망의 힘, 정의의 힘, 즉 앞의 세 가지 힘을 균형과 절제의 상태로 유지하는 힘이다.

지식의 힘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은, 이를 통해 인간이 진술의 거짓과 진리, 믿음의 진실과 거짓, 행동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 힘이 그런 수준에 이르면, 그 열매는 지혜(*히크마*)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아름다운 도덕, 예절, 성격, 내면의 성향(*이흘락*)의 실재는 신이 말씀하신 지혜입니다:



"지혜를 받은 자는 [그가] 큰 선의 근원을 받았다." (꾸란 2장 269절)

분노와 욕망의 능력의 탁월함은 이 두 가지가 지혜, 즉 지성과 신의 법의 지휘에 따라 작용한다는 점이다. 균형과 정의의 힘의 목적은 분노와 욕망의 힘을 지혜에 복종시키고 복종시키는 데 있습니다. 지성은 조언자이자 친절한 조력자와 같으며, 균형과 정의의 힘은 지성으로부터 조언을 실행하는 자입니다. 분노는 지성의 방향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가진 힘입니다. 그 비슷함은 훈련이 필요한 사냥개와 같고, 사냥꾼의 신호 없이는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다. 욕망은 사냥을 위해 말을 타고 나가는 것과 같다. 말은 때로는 훈련되고 문명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야생적이고 반항적이기도 합니다. 균형과 정의의 힘을 통해 욕망이 통제되며, 그렇지 않으면 사냥하는 대신(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 인간 자신이 사냥당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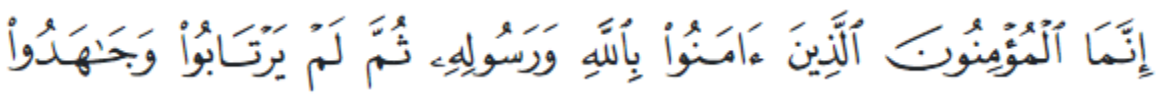
이 네 가지 [내면의 아름다움]을 [균형 잡힌] 절제의 수준에서 모두 갖춘 사람은 아름다운 도덕성, 예절, 인격, 내면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내면의 아름다움의 일부 요소를 적당히 가지고 있고, 일부 불균형하고 절제적이면(즉, 이 요소들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을 수 있음) 극단적인 면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건한 성격에 비해 선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그 예시는 얼굴에 아름다운 눈을 가졌지만 다른 면이 좋지 않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 경우, 눈을 기준으로 아름답다고 불리고, 다른 장기에 대해 못생겼다고 합니다. 분노의 아름다움과 균형 잡힌 절제는 용기라고 불린다; 욕망의 힘이 균형 잡힌 절제와 아름다움을 순수함(*'Iffa*)'이라고 부른다. 분노의 힘이 균형 잡힌 절제의 수준을 넘어설 경우, 이를 과도한 분노(*타후르*)라고 부릅니다; 균형 잡힌 절제 수준 이하라면 비겁함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균형 잡힌 절제 수준 위의 욕망의 힘은 '악의 선동자'(*샤르*)라고 불리고, 균형 잡힌 절제 수준 이하의 욕망은 정체(*Jamood*)라고 합니다. 이 두 극단 사이에 필요한 균형 잡힌 절제의 수준은 용기와 순수함이다. 즉, 스펙트럼의 양 끝, 즉 부족이나 과잉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들(극단)은 정죄되어 탁월함(*파다일*) 대신 기형(*라다일*)으로 불립니다. 정의의 힘(*'Adl*)은 결핍이나 과잉이 없으며, [균형 잡힌 절제의 수준에서], 그 반대는 억압이다. 정의가 없으면 억압이

사라집니다. 지식의 균형 잡힌 절제 수준을 지혜(*Hikmah*)라고 하며, 잘못된 목적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균형 잡힌 절제의 수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과잉에 대한 사용이라면 악과 속임수라고 하며, 빈곤에 사용된다면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극단을 피하는 중간 수준의 지식은 지혜라고 불립니다. 이 세부 사항들은 선한 인격(Ikhlaq)의 기본 원칙과 구성 요소가 네 가지임을 드러냅니다: 지혜, 용기, 순수함, 그리고 정의.

지혜란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자아의 상태(*Nafs*)를 의미하며, 이는 자신의 능력 내에 있는 모든 문제입니다. 정의란 분노와 욕망을 지배하고 지혜에 복종시키는 자아(*Nafs*) 상태를 의미합니다. 용기는 분노의 힘이 지성의 힘에 복종하고 복종하며, 그들의 허락 없이는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순수함은 욕망과 성욕을 지성과 신성한 법에 종속시키고 규율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모든 선한 자질과 성격 특성의 기원과 근원은 이 네 가지 원칙이다. 예를 들어, 칭찬받을 만한 내면의 자질은 지성의 균형 잡힌 절제에서 비롯됩니다: 사안을 깊이 생각하는 현명한 결정, 날카로운 마음, 현명한 관점, 하위 자아의 숨겨진 해악과 사안과 행동의 미묘함에 대한 인식. 이 지성의 과도한 능력은 부정한 성향을 내면에 불러일으키며, 타인을 해치려는 계획, 기만과 교활함을 낳는다. 지성의 힘의 부족은 경험 부족(전문성과 노하우), 어리석음, 어리석음,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 집착(강박적 행동) 같은 질병을 낳습니다. 경험 부족은 상상력의 타당한 사고 과정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어떤 사람들은 한 분야에서는 경험이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전혀 경험이 없습니다. 어리석음과 집착의 차이는 어리석은 사람의 목적은 옳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집착이란 자신과 타인에게 완전히 해가 되는 것을 채택할 가치가 없는 것을 입양하는 것입니다. 용기의 균형 잡힌 절제는 고귀함, 대담함, 자신을 엄격히 감시하는 것, 인내, 인내, 분노 억제, 존엄, 절제 등 아름다운 내면의 자질을 키워줍니다. 용기의 부족은 모욕, 굴욕, 두려움, 싸움, 열등감, 용기 부족, 사기 저하를 낳습니다. 순수함의 균형 잡힌 절제는 관대함, 겸손과 수줍음, 인내, 타인의

결점을 무시하는 인내, 만족,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 섬세함, 높은 용기와 사기, 넓은 마음과 관대함, 탐욕 없음 등 아름다운 내면의 자질과 탁월함을 키워줍니다. 순수함의 균형 잡힌 절제를 넘는 것은 내면의 병과 탐욕, 탐욕, 부끄러움 없음, 악에 대한 내면적 성향, 낭비와 낭비, 과시, 타인을 모욕하는 것, 수다, 아첨, 질투,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모욕하고 모욕하는 등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특성을 낳는다.

그 결과 아름다운 성격, 자질, 내면의 성향에는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지혜, 용기, 순수함, 정의. 다른 모든 도덕, 예절, 내면의 성격 특성과 자질은 이 네 가지 주요 자질의 분기입니다. 이 네 가지 원칙[도덕, 예절, 내면적 성격 특성과 자질]에서 균형 잡힌 절제의 완성은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만이 허락받았다. 그 이후의 사람들은 이 탁월함과 완벽함에서 그와 가깝지 않습니다. 이 특성들에서 예언자를 닮고 본받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 특성들에서 예언자와 거리가 먼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상태가 됩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도덕, 예절, 내면의 성격 특성과 특성을 구현한 사람은 모든 행동에서 다른 이들에게 복종받고, 언급되며, 따를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여되어 그들의 반대되는 성격의 화신인 사람은 마을에서 추방당하고 사람들에게 보이콧당할 만하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인간성이 남아 있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대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악과 잘못을 피함으로써 사탄과 거리를 두듯, 그런 사람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도덕, 예절, 내면의 성격 특성과 자질의 탁월함을 구현하고 천사적 자질과 가까운 사람이 리더십과 모방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사탄적 특성과 연관된 사람도 신성한 자비에서 쫓겨나 피해야 마땅합니다. 예언자 무함마드(신의 평화와 축복 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흘라크*(아름다운 도덕, 예절, 내면의 성격, 자질)의 완성과 완성을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이 특성들은 꾸란이 신자들의 자질의 일부로 언급한 것들입니다:



بِأَمْوَٰلِهِمْ وَأَنفُسِهِمْ فِى سَبِيلِ ٱللَّهِ ۚ أُو۟لَٰٓئِكَ هُمُ ٱلصَّٰدِقُونَ

"완전한 신자는 하나님과 그의 예언자를 믿었고, [신성한 인도]를 의심하지 않고 [물질적] 소유물과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가까이에 도달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 자들이다. 이들은 진실한 자들(*사디큰,* 즉 하나님의 영지, 우정, 친밀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꾸란 49장 15절)

하나님과 그의 사자를 의심과 망설임 없이 믿는 것은 확신의 힘의 행위이며, 확신의 힘은 지성과 지혜의 완성의 열매입니다. 물질적 소유로 갈구하는 것은 관대함이며, 욕망과 정욕이 통제될 때 이 노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노력하는 것은 용기이며, 이 노력은 지성의 조건과 균형 잡힌 절제의 한계 내에서 분노의 힘을 사용하는 데 이루어진다.

영적 노력과 투쟁을 통한 성격과 내면의 특성 변화

[잘못된]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진 사람들은 노력(마음과 영혼에서 모든 부정적이고 해로운 성향과 특성을 제거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영적 변화를 이루려는 영적 노력)을 부담스럽고 어렵거나 심지어 불가능하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내면의 정화와 변화, 인격 형성, 문명화에 몰두하기를 꺼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격의 결점과 해를 끼치는 경향이 자신의 개인적 결점, 결핍, 부정적 성향 때문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성격, 도덕, 예절이 그대로 유지되며, 내면의 본성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주장을 제시했다. 첫째, *쿨크*는 내면의 형태와 외모의 이름이고, *칼크*는 외면의 형태와 외모의 이름입니다. 외모와 형태는 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키가 작은 사람은 키를 키워서 키가 클 수 없고,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작아질 수 없습니다. 못생긴 사람은 아름답게

변할 수 없고, 아름답고 못생긴 사람은 못생길 수 없다. 내면의 형태와 외모는 외면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장은 아름다운 성격이 욕망과 분노를 없애려 한다는 것이지만, 우리는 경험과 시련을 통해 욕망과 분노가 인간 본성의 일부이며 결코 끝나지 않으며, 그것들을 쫓는 것은 헛된 노력이고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아의 정화의 목적은 마음이 덧없는 쾌락에 끌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다. 아래에서는 이 두 주장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한 답변: 만 약 성격의 변화와 변화가 불가능했다면 설교, 조언, 훈련, 교육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며,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도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덕, 예절, 인격, 그리고 자격을 좋게 하라."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아*부 바크르 빈 랄 피 마카림 알-이클라크* 의 하디스 *모음* 집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도덕, 예절, 성격, 내면의 성향, 특성의 변화와 변형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동물의 특성조차도 변한다. 매를 봐, 야생이지만 인간에게 익숙해지는 거야. 훈련을 받은 사냥개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먹잇감을 쫓아 먹지 않고 주인에게 바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야생마도 훈련 후에 순종적으로 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격 변화의 예가 아닌가요? 이와 관련된 현실은 두 종류의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완성된 존재와 결핍된 존재. 완성된 존재란 그 존재 면에서 완전한 존재로, 인간이 그것을 줄이거나 늘릴 힘이 없으므로 감소나 증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 별, 신체의 바깥과 내면, 동물과 그 [내외] 부위 등이 있습니다. 결함 있는 존재는 아직 존재가 완전하지 않은 존재들이다. 완벽에 도달할 조건만 충족하면 완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추 씨앗은 과일도 나무도 아니지만, 심어지고 물을 주면 이 씨앗이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 씨앗을 직접 열매로 바꾸려 한다면, 열매가 될 잠재력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씨앗의 상태가 인간의 특권에 의해 영향을 받고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할 때, 분노와 욕망의 힘이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러한 힘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우리의 통제 밖입니다. 영적 엄격함과 수련, 영적 노력을 통해 우리는 이 권능들을 통제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성하게]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것이 바로 사후 생애와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의 수단입니다(*우술 알라,* 즉 영지와 신성한 친밀함). 하지만 [인간] 기질은 다양하거나 다릅니다 - 어떤 기질은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어떤 기질은 늦게 받아들입니다. 기질의 차이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변화를 원하는 특성은 살아온 한 기질에 깊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 분노, 오만함의 특성은 모두 변형될 수 있지만, 가장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욕망과 갈망의 특성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에요. 분노는 보통 7살 이후에 태어나며, 그 이후에야 분별력이 태어난다. 둘째, 특정 성격 특성은 그것에 대해 충분히 행동하고 그 함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선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변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네 단계: 이와 관련된 인간의 네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태어난 상태와 같은 상태에서 살면서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진정한 본성 측면에서는 모든 종류의 신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치유는 쉽고, 짧은 시간 안에 [영적인 의미에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는 영적 지도자(*무르시드*)와 내면의 촉매제, 그리고 추진력이 필요하며, 그런 촉매제가 영적 노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도덕성, 예절, 내면의 성격, 그리고 인격은 빠르게 선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악을 악으로 생각하지만 선한 행위를 하는 습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사탄은 사람을 악행에 얽매게 하며, 그런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정욕에 복종하지만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점을 인지한다. 이런 사람의 변화는 1단계에 있는 사람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에는 두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나쁜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둘째, 선행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개혁은 영적 엄격함과 노력에 적극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3단계는 나쁜 도덕과 성격 특성에 대해 선하다고 생각하고, 나쁜 행동과 악한 행동은 인생의 일부이며, 그런 도덕과 행동으로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런 사람의 [내면의 영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해의 이유가 하나만 있다면 그것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기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어서 어떤 이유가 제거될 수 있는지 보는 것이 당황스럽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신이 악에 연루되어 있고, [게다가 다른 이들도 자신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며, 타인을 파괴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도덕적, 영적으로 결국 모든 면에서 완전한 파멸로 이어진다]. 그런 사람은 매우 어려운 수준에 있으며, 오해는 여러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개혁은 불가능하며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 범주에서 1인칭은 단순히 무지, 2인칭은 무지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된 사람, 3인칭은 무지하고 잘못 인도되며 악에 빠지기 쉬운 사람(*파식*), 네 번째는 무지하고 잘못 인도되며 악에 빠지기 쉽고 해악과 고난을 초대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답변: 적대자들은 영적 수련의 목적이 욕망과 분노의 힘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러한 힘의 근절이 목표가 아니며, 욕망의 힘을 창조하는 것이 유리하며 인간 안에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싶은 욕구가 없으면 죽게 된다. 만약 교미 욕구가 남아 있지 않으면 인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분노가 사라지면, 해로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고 멸망하게 됩니다. 목표는 이러한 권력을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과잉과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고 균형 잡힌 온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의 목적은 과도한 분노가 무모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비겁함이 없어야 하며, 대신 분노의 힘이 지성과 신의 법에 종속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وَٱلْكَٰظِمِينَ ٱلْغَيْظَ وَٱلْعَافِينَ عَنِ ٱلنَّاسِ ۗ

"그리고 그들은 분노를 억누르고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들이다." (꾸란 3장 134절)

이 구절에서는 분노를 억제한 사람들이 칭찬받았습니다. 처음부터 화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분노와 욕망을 없애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일이며, 신성한 법의 목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신성한 법의 목적은 두 권력(분노와 욕망)을 균형 잡힌 절제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성이 그들을 지배하고 지배하기 시작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지성이 지성을 지배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면의 성격 특성과 성향을 변화시키는 목적입니다. 때로는 욕망[또는 갈망]이 인간을 너무 강렬하게 공격하여 지성으로는 그것을 막을 수 없을 때가 있다. 하지만 영적 노력을 통해 균형 잡힌 절제로 이룰 수 있습니다. 테스트와 경험이 증명하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도덕, 예절, 내면의 성격 특성에 있어 균형 잡힌 절제가 필요하며, 과잉이나 빈곤의 극단이 아님을 꾸란의 증거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وَٱلَّذِينَ إِذَآ أَنفَقُوا۟ لَمْ يُسْرِفُوا۟ وَلَمْ يَقْتُرُوا۟ وَكَانَ بَيْنَ ذَٰلِكَ قَوَامًا

"그리고 그들이 쓸 때, 그들은 낭비하거나 인색하지 않으며, 오히려 두 극단 사이(즉, 적당한 수준)에 머무른다." (꾸란 25장 67절)

이 구절은 관대함을 가리키며, 이는 [극단적인] 무모한 지출과 인색함 사이의 수준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وَلَا تَجْعَلْ يَدَكَ مَغْلُولَةً إِلَىٰ عُنُقِكَ وَلَا تَبْسُطْهَا كُلَّ ٱلْبَسْطِ

"손을 목에 묶거나 완전히 벌리지 말라(즉, 구두쇠나 낭비자가 되지 말고 두 극단의 중간에 머물러라)." (꾸란 17장 29절)

식사 욕구에 대해서도 적당한 섭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وَكُلُوا۟ وَٱشْرَبُوا۟ وَلَا تُسْرِفُوٓا۟ ۚ إِنَّهُۥ لَا يُحِبُّ ٱلْمُسْرِفِينَ

"먹고 마시며 [절제]의 경계와 한계를 넘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은 절제의 경계를 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꾸란 7장 31절)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문제는 중간에 있다 [모든 형태의 극단과 극단주의를 피하는 균형 잡힌 온건함의 형태로]."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무트라프 빈 압둘라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수집* 바이하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칭찬받을 만한 사안, 선호, 그리고 균형 잡힌 절제 수준에서의 추구에는 [신성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탐구하는 것은 내세의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사아다*)이 신이 말씀하신 대로 세속의 모든 집착과 불순에서 마음을 정화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إِلَّا مَنْ أَتَى ٱللَّهَ بِقَلْبٍ سَلِيمٍ

"[구원과 영원한 행복과 성공은] 하나님께 건전한 마음(즉, 세속의 집착과 불순을 포함한 모든 더러움에서 정화된 마음)을 가져오는 자에게 있을 것이다." (꾸란 26장 89절)

비참함과 무모한 소비는 모두 불순물과 세속에 대한 집착에 속합니다. 심장에는 이 두 가지 말단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즉, 마음은 물질적 소유를 축적하려 하거나, 모두 소비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집중과 집착을 그것에 집중하게 되고, 물질적 재산, 돈이 어디서 올지, 어디서 지출할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구두쇠의 마음은 오로지 저장에만 집중됩니다. 마음의 안전은 양쪽 [극단]이 모두 없는

상태여야 하며, 이를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극단]이 모두 없는 상태가 결정되었고, 그것이 균형과 절제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이 두 가지 [부정적인] 특성이 모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이 나오고 차갑지 않은 열을 '미지근함'이라고 부릅니다. 이 관대함은 과도한 지출과 구두쇠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용기는 과도한 공격성(폭력)과 비남성다움(비겁함) 사이의 절제의 질입니다. 순수함은 탐욕(욕망)과 정체의 균형점이다. 다른 모든 내면적 특성과 성격 특성은 이 [설명]에서 추론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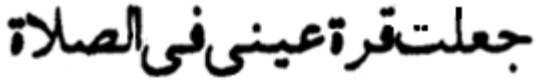
모든 성격 특성과 [인간] 특성에서 과잉과 빈곤은 모두 비난받으며, 객관적으로는 균형 잡힌 절제가 필요합니다. 교사이자 영적 지도자는 학생들 앞에서 분노와 구색함의 해악을 드러내야 하며,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파괴적인] 특성의 일부라도 허용하면 더 많은 변명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량이라도 허용하지 않으면 적은 양에 만족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해서 균형 잡힌 절제 수준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적은 것에 대한 허락은 더 많은 것을 위한 변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길을 찾는 학생들과 탐구자들에게 이 두 힘을 남겨두지 말고, 대신 근절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이 비밀은 여기 적어서는 안 됩니다. 지적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속아 분노가 자신의 권리이고 구두쇠도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논의는 모든 인간 내면의 성격과 특성에 대한 폭넓은 논의이기 때문에 다른 인간 특성과 내면적 성격 특성의 균형과 절제의 필요성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내면의 성격, 성향, 자질(*후스른 울-쿨크*)의 수단이자 근원은 절제이며, 모든 극단을 거부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제 아주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아름다운 내면의 성격과 특성의 핵심은 지성의 힘이 온화해야 하고, 지혜(적당한 수준의 지성)는 완성되어야 하며, 욕망과 분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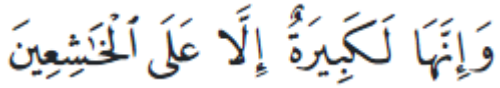
힘은 절제의 수준일 뿐만 아니라 신성한 법과 지성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절제는 두 가지 이유로 얻어졌습니다. 첫 번째 이유(또는 수단)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개인에게 주시며, 태어난 날부터 선한 성품을 지녔으며 지성이 완성되었다는 깨달음입니다. 욕망과 분노는 한쪽을 지배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성과 신성한 법칙에 종속된다. 그런 사람은 학자가 되기 위해 외부 교육이 필요하지 않고, 문명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 외적 매너리즘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런 사람은 타고난 학자이자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 요한(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본성과 기질에 학습과 노력을 통해 얻은 [고귀한 내면] 자질이 있다는 것은 결코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다. 어떤 아이들은 처음부터 진실하고 대담하며 베푸는 편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겁쟁이, 속임수적이고 인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들은 때로는 그것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태어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보는 것을 모방하는 등 다양한 학습 방식을 사용하며] 배우면서 태어납니다. 두 번째 이유(또는 수단)는 영적 엄격함, 노력, 연습을 통해 아름다운 내면의 성격, 성향, 자질을 얻기 때문입니다. 즉, 하위 자아로부터 원하는 내면의 성격이나 특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대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관대한 사람들을 따라 그들이 하는 대로 부를 써야 합니다. 비록 하위 자아(*Nafs*)에 인내심을 가져야 하더라도(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노력은 하위 자아가 습관으로 들일 때까지, 그리고 관대함이 기질과 내면의 성향의 일부가 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만함에 지배당하고 겸손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겸손의 행동을 따르며 노력하고 영적 투쟁을 계속하며 내면의 성격 특성이 습관이 되고 겸손이 쉬워질 때까지 낮은 자아를 겸손으로 기울이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선하고 칭찬받을 만한 내면의 성격과 특성을 얻는 동일한 방법입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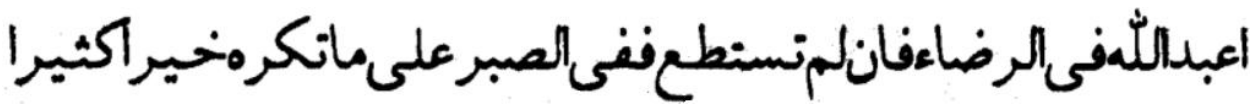
"내 눈의 차가움은 기도 속에 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수집 *나사이* 아나스의 권위에 따라 [신께서 그에게 기뻐하시길])

예언자는 기도할 때 눈빛의 차가움을 느꼈는데, 이 의로운 행위가 그의 습관이자 제2의 본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위 자아가 예배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금기를 버리는 데 어려움을 겪기 전까지는 해악이 남아 영원한 행복의 완성은 달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을 안고 선한 의로운 행위를 인내하는 것이 인내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욕망과 내면의 성향으로 행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기도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제외하면 어렵다." (꾸란 2장 45절)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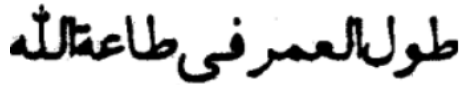


"하나님을 예배하라(*리다*(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여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모든 것에 기뻐하는 상태)로. 만약 [이 영적 상태의 고상함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싫어하는 것에 인내하는 것은 엄청난 선이 있습니다 [영적 보물의 저장소이기 때문]."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 집 *타바라니 카비르*)

사아다(*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승리를 예고하는 행* 운)의 완전 함은 아니며, 때로는 *리다*와 함께 [의로운] 행위 (신의 명령에 완전한 수용과 기쁨)를 하여 그것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 매 순간, 매 순간 모두

같은 상태여야 한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욕망과 애정, 내면의 성향, 신성한 사랑과 갈망, 신의 명령에 대한 수용이 증가해야 합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사아다*(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승리를 예고하는 행운)에 대해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며 긴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압둘라 빈 우마르의 권위에 따라* 아부 만수르 아-다일라미 *하디스* 모음 집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이것이 예언자들(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과 성인들이 죽음을 싫어했던 이유입니다. 예언적 서화에 따르면 "세상은 내세의 경작지(농경지)"라고 합니다. 생명이 있는 만큼, 그만큼 신성한 예배의 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과 보상도 있을 것입니다. 자아는 깨끗함에서 정화된 것으로 변하며, 내면의 성격과 특성은 강해지는 것에서 강해지는 것, 좋은 것에서 뛰어난 것으로도 발전합니다. 그 외에도, 예배의 목적은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신성한 예배는 단지 예배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양육하여 신성한 실재의 문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고 힘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끊임없는 인내와 끈기가 예배에 있을 때 일어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도덕, 예절, 내면의 성격 특성과 성향의 목적은 세속적인 사랑이 마음에 남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며, 귀향과 하나님과의 만남만이 사랑받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물질적 재산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욕망은 모두 인간에게 [복종 상태에서] 신성한 법칙에 따라 사용되고, 영지와 신성한 친밀함 상태에서 신에게 다가가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그런 행위에 만족하고 즐거움을 느껴야 합니다. 누군가가 기도에서 위안을 찾거나, 그 안에서 시원함을 느끼거나, 신성한 예배가 좋게 느껴진다면,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의 [좋은] 습관이 더 놀랍고 기이한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과 부유한 사람들은 항상 슬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지고도 행복을 느끼는 가난한 도박꾼을 보세요. 그것이 없으면 삶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도박은 부의 손실을 초래하고, 집과 가족을 파괴하며, 삶의 안락함을 빼앗기고, 법 집행기관에 대한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칼처럼 그들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시도해도 벗어날 수 없게 되니 이 중독을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비둘기를 타는 사람은 이 스포츠에 매료되어 하루 종일 햇볕 아래 서 있어도 태양의 강렬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비둘기에 대한 사랑과 비둘기가 탁 트인 공간에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내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입니다. 악한 성격의 사람들도 밤낮으로 끔찍한 처벌을 받고 투옥의 고난을 겪지만, 잘못된 행동을 멈추지 않고 범죄적 성격의 취미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모든 처벌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열정과 광기가 너무 커서, 도둑들이 죽어도 훔친 물건을 숨긴 곳을 밝히지 않고 범죄 공범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일을 인간의 노력의 탁월함과 완성으로 여기고, 과도한 폭력을 용기로 여기며, 이러한 활동에 너무 익숙해져 체포, 재판, 처벌을 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처벌들은 그들에게 위안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주에 몰두하며 바쁘고 자신의 노력과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통치자나 지도자, 청소부와 이발사이든요. 이 모든 문제는 같은 일에 대한 끈기와 인내의 결과로 드러나며, 같은 기질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같은 문제가 관찰될 때 더욱 깊이 뿌리내려진다.

인간 자아가 거짓[그리고 잘못]에서 쾌감을 느끼고 악으로 기울 수 있다면, 왜 진리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선과 의로움에 기울지 못하겠는가? 현실은 타고난 [인간] 본성은 나쁜 일이나 내면의 파괴적인 성향에 기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흙을 먹고 싶은 욕구와 성향을 가진 사람과 같습니다. 이 성향을 자연스러운 성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지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성한 영지, 숭배에 대한 성향은 먹고 마시는 경향과 비슷합니다 [이는 순수한 자연 현상]입니다. 음식을 먹는 경향이 타고난 [인간] 본성의 일부인 것처럼, 하나님, 영지, 숭배에 대한 사랑에 대한 성향도 마음의 본성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는 마음[또는 영혼]이 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욕망과 정욕의 함의에 대한 경향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영원하고 본질적으로 자연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마음[또는 영혼]의 진정한 영양분은 지혜, 신성한 영지, 그리고 신성한 사랑입니다. 만약 장애로 인해 본래의 진정한 본성에서 벗어난다면, 위장에 문제가 생겨 음식에 대한 욕구가 사라진 것과 같다. 위장은 음식을 통해 공급되고 인간의 생명이 그것에 달려 있음에도 말이다. 이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음이 하나님 이외의 [사물과 사물]에 기울어질 정도로, 그 정도(마음이나 영혼)는 병들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 이외의 사랑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런 사랑도 진정한 타고난 [인간] 본성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 설명은 영적 노력과 투쟁을 통해 아름다운 도덕성, 예절, 내면의 성격 특성과 성향을 [명시적으로] 습득할 수 있음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한다. 즉, 노력과 노력을 통해 이런 특성을 얻고 계속 지키면, 결국 이러한 내면의 특성과 성격 특성은 타고난 제2의 천성이 된다. 이것은 심장과 신체 팔다리 사이의 이상한 연결고리인데, 심장에서 태어나는 특성들은 반드시 팔다리에 영향을 미치고, 심장으로부터 신호를 받으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지가 수행하는 동작도 심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마음과 팔다리의 [상호적인] 영향의 사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예시를 통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서예 예술에 전문성을 쌓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를 습득하는 방법은 전문 서예가들의 본보기를 따라 그들이 쓰는 글자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오랫동안 반복해야 서예가 습관이 되고, 예전에는 많은 노력으로 아름다운 글자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쉽게 글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스콜라 신학자(*Faqeeh*)가 되고 싶다면 스콜라 신학자들을 따라야 합니다. 즉, 스콜라 신학(Fiqh)과 관련된 문제(사안이나 지식의

쟁점)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연습하여 암기하여 그 영향력이 마음에 닿고, 배운 것을 진정으로 따르는 스콜라 신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관대하고, 경건하며, 관용적이고, 관대하고, 겸손해지고자 하는 자는 관대함, 경외, 관용, 인내, 겸손이라는 장식품을 진정으로 갖춘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추종은 처음에는 큰 노력으로 이루어지지만, 나중에는 따르는 행동들이 습관이 되어 자신의 기질과 내면의 성향에 확고히 뿌리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도덕성, 예절, 내면의 성격, 특성, 성향을 얻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스콜라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하루 쉬었다고 해서 목표에 실패하지 않는 것처럼, 하루 동안 공부하고 반복해서 [스콜라 신학의 지식을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스콜라 신학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의로운 행위를 통해 정화와 완성, 마음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는 하루의 노력만으로는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며, 죄의 날이 이 목표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학자들이 한 가지 큰 죄가 영원한 손실의 원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회개, 회개, 그리고 속죄를 통한 신의 용서의 문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루의 휴식이 다음 날의 휴식의 이유가 될 수 있고, 계속되면 기질이 게으르게 되어 하위 자아가 무행동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게으름이 영적 상태를 개선하는 데 있어 무행동으로 이어지는 결과는 영원한 상실, 결핍, 슬픔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소한 죄에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것을 작게 여기며, 자신의 낮은 자아를 미래의 회개로 속이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너무 심해서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죽음의 철권에 사로잡힙니다. 그때쯤 그들의 마음은 죄에 대한 고집으로 인해 어두워졌고,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어 [속죄할 것]. 알리(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 무함마드 선지자의 동료 [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말했다: "마음속 신앙의 시작은 흰 점[신성한 빛의 입자]에서 시작된다. 신앙이 커질수록 이 점의 빛과 크기도 커져서 온 마음이 [신성한 빛의 빛으로 빛나는]. 위선은 심장의 어두운 점(어두운 점)에서 시작됩니다. 위선이 커질수록, 이 입자의

어둠과 그 존재가 인지할 수 있는 존재 속에 존재하는 것도 함께 커져서 결국 온 마음[그리고 영혼]이 어두워진다."

이 상세한 설명을 통해 아름다운 예절, 도덕성, 내면의 성격 특성 및 성향(*이흘락*)은 때로는 [본성에 내재된] 그리고 인간 자신에게서 자연스럽게 발견되기도 하며[신의 선물과 은혜로서] 때로는 노력을 통해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 증명된다. 이 습득은 처음에는 노력과 고통으로 이루어지지만, 나중에는 같은 아름다운 예절, 도덕, 내면의 성격 특성과 성향이 습관이 되어 기질의 일부가 된다. 이것들은 또한 좋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습득되는데, 기질은 모방에 능숙하고 선악을 막론하고 모든 사물(기질)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성격, 습관, 교육이 모두 좋은 인격을 가진 개인은 매우 높은 수준의 우수성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기질이 결함이 있고, 내면의 성향과 악에 대한 성향 때문에 악을 좋아하며, 나쁜 친구와 동료를 가진 극도의 굴욕과 신과의 소외감에 처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사이 [스펙트럼의 양 끝]에 있는 [영적] 단계에 있습니다.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فَمَن يَعْمَلْ مِثْقَالَ ذَرَّةٍ خَيْرًا يَرَهُۥ ﴿٧﴾

وَمَن يَعْمَلْ مِثْقَالَ ذَرَّةٍ شَرًّا يَرَهُۥ ﴿٨﴾

"원자 무게만큼의 선을 행하는 자는 [내세에서] 그것을 보리리라며, 원자 무게만큼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또한 그것을 보리라." (꾸란 99장 7-8절)

وَمَا ظَلَمَهُمُ ٱللَّهُ وَلَٰكِن كَانُوٓا۟ أَنفُسَهُمْ يَظْلِمُونَ

"하나님은 그들을 [조금도] 억압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이 세속에서 저지른 불의하고 악하며 잘못된 행위로 인해 스스로를 억압하셨다." (꾸란 16장 33절)

도덕, 예절, 내면적 성격 및 성향의 문명 획득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

몸과 자아: 내면의 성격 특성에서 절제되는 것은 건강의 지표이고, 절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질병의 징후라는 것을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는 신체의 기질이 절제되고 균형이 건강의 징후이고, 그 일탈이 질병의 징후인 것과 비슷합니다. 논의 중인 주제와 관련해서는 신체의 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신체적 웰빙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신체 질환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면의 파괴적 특성(영적, 심리적, 감정적, 지적 안녕에 해로운 성격, 내면의 특성, 성향 및 성향)도 자아(*Nafs*)에서 제거되고, 아름다운 도덕, 예절, 내면의 성격 특성과 성향으로 장식됩니다. 신체적 신체 시스템에서 진정한 목표는 균형과 절제입니다. 음식의 결함과 그에 따른 욕구는 위장에 결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내면의 진정한 목표도 균형과 절제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균형과 절제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유명한 전통(*하디스*)에서 암시되는데, 모든 아이는 온화한 기질과 진정한 타고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나중에 부모가 그들을 자신만의 틀에 맞게 형성한다고 한다. 하디스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كل مولود يولد على الفطرة وانما ابواه يهودانه او ينصرانه او يمجسانه

"모든 아이는 진정한 타고난 본성에 태어난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셨으며,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진리와 의에 대한 헌신, 모든 선하고 긍정적인 것, 모두와의 평화와 조화, 그리고 영원한 진리의 깨달음으로 이끄는 영지의 상태를 통해 천상의 기원에 도달하고자 하는 갈망]에서 태어나지만, 부모는 그 사람을 유대인으로 개종시킨다. 기독교인과 마기안(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교적·이념적 전통을 암시하며, 자신만의 종교적, 이념적, 문화적, 지리적, 지적 맥락에 맞게 형성됨)".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는 예언자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사히흐 부카리*와 *사히흐 무슬림*을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몸이 건강하면 의사가 건강을 유지할 방법을 고민하고, 몸이 아프면 건강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마찬가지로, 정화되고 예의 바르며 문명화된 자아를 지키려 노력해야 하며, 탁월함과 순수함이 결여된 자아에게 탁월함과 순수함의 특성을 심어주려 노력해야 합니다. 신체 시스템의 균형 잡힌 조절을 약화시키고 파괴하는 요인들의 치료가 그 반대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기 질환의 치료도 그 반대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무지는 교육을 통해 치유되고, 인색함의 병은 관대함으로, 오만함은 겸손으로, 욕망은 욕망의 홍수 앞에 장애물을 세우는 것이 고통과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신체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약물의 쓴맛을 견디고 자아의 욕망을 억누르는 것처럼, 자아(또는 영혼)의 병도 영적 투쟁(무자하다)의 쓴맛과 고통을 인내심 있게 견뎌내지 않고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대신 심장병은 이 투쟁을 더욱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신체의 질병이 인간의 영혼이 몸을 떠날 때 죽음에 이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혼의 질병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영혼은 결코 죽지 않기 때문에]. 발정으로 인한 질병은 차가운 성질의 약으로 치료되지 않으며, 질병의 강도와 약도를 적절한 양으로 신중히 고려하여 처방됩니다. 의사들은 다양한 약물의 양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질병에 상응하는 적절하고 유익한 양으로 처방합니다. 이 기준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질병은 줄어들기보다는 증가할 것입니다.

영혼(또는 자아)의 질병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영혼의 질병을 치료할 때 유사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의학의 기준은 질병의 [수준과 성격] 에 따라 정해집니다. 영적 지도자는 영적 환자들에게 견딜 수 없을 만큼 많은 영적 훈련과 엄격함을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영적 지도자는 질병의 본질이 정확히 밝혀질 때까지 치료법을 처방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는 질병 평가에 따라 치료와 약물을 처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모든 병을 같은 약으로 치료하려 한다면, 결국 환자가 죽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결과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지도자가 영적 길의 모든 학생들을 개혁하는 데 같은 방법을 채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영적 환자들의

마음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먼저 제자(영적 완성의 길을 찾는 자)의 병을 진단하고, 학생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며, 나이와 현재 상태를 고려하고, 영적 투쟁의 엄격함과 강도를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항을 신중히 고려한 후, 영적 지도자는 영적 수련을 처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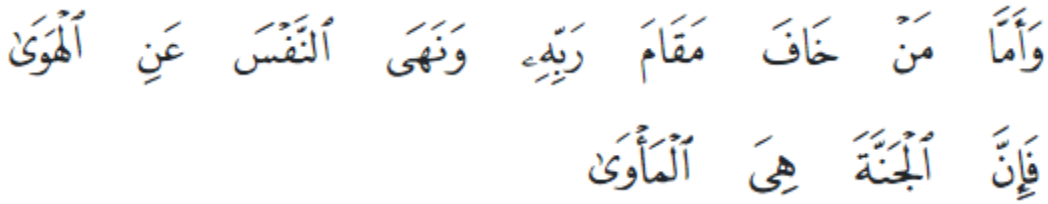
만약 제자(영적 완전함의 길을 찾는 자)가 신성한 법칙의 [허용되는 인간 행위와 행동]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외부 [신체] 청결(개인 위생과 정화), 기도 및 외부 예배 행위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불법(*하람*) 물질적 소유를 취득하고 소유하며 죄를 지었다면, 스승이나 영적 지도자에 의해 제지되고 죄의 삶을 사는 것을 금지하고 막아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해로운 생각, 감정, 성향의 내면의 죄 포함]. 외적 존재가 외적 죄의 불순과 더러움에서 정화되고 [신성한] 예배의 행위의 빛으로 깨달음을 얻을 때, 영적 지도자는 외적 상태의 징후를 통해 학생의 내면을 살펴보고 도덕, 예절, 성격, 성향, 습관, 마음의 병을 분석해야 한다. 학생이 필요 이상으로 물질적 소유를 가지고 있다면, 영적 지도자는 그것을 받아 자선으로 나누어 주어 마음속에 물질적 소유에 대한 의지가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완성의 길을 찾는 학생이 자존심, 오만함, 우월감을 지니고 있다면, 시장으로 보내져 구걸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파괴적 특성]은 굴욕 없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걸보다 더 굴욕적인 것은 없으며, 이 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구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만과 오만함은 마음의 최악의 병 중 하나입니다. 만약 학생이 신체와 옷차림의 극도의 청결(*나자파*)을 지배적으로 생각한다면, 집안을 청소하고 더러운 곳을 빗자루질로 치우거나, 가스레인지에서 나는 연기를 다루는 주방 일을 맡아야 하며, 따라서 극도의 청결에 대한 자부심과 까다로운 태도는 사라져야 합니다. 옷을 과시적으로 소비하고 끊임없이 아름다운 옷을 찾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자신을 꾸미느라 분주하기 때문에 [곧 신부가 될] 사람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숭배하는 것과 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노예(즉, 인간)가 하나님 이외의 [무언가] 또는 누구를 숭배할 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려지게 됩니다(하나님과 사이에 장벽이나 장벽이 쳐집니다). 옷의 청결함과 허용 여부 이상을 위해 신경 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이다(*Nafs*). 영적 고난의 미묘한 점 중 하나는 제자나 영적 길을 찾는 자가 내면의 파괴적인 악 중 하나를 자제하지 않으면, 그 부정적인 성질에서 더 낮은 수준의 다른 부정적 성으로 집중과 방향이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는 처음에 학교에서 배트와 공놀이를 즐기고, 그 후 스포츠에서 좋은 옷으로, 그리고 좋은 옷과 자기 과시에 대한 자부심에서 정치적 직책과 명성을 추구하고, 결국 내세의 삶으로 향하게 됩니다. 만약 마음이 명성과 권력에 대한 욕망을 갑자기 버리려 하지 않는다면, 명성과 권력을 낮추도록 설득되어야 하며, 점차 이 [내면의 파괴적인] 성질에서 벗어나도록 설득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지도자가 학생의 음식에 대한 탐욕을 발견한다면, 금식과 섭취 감소를 지키도록 해야 하며,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타인에게 먹이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하지만, 자신(*나프스*)이 익숙해지고 인내의 힘이 태어나 탐욕이 끝날 정도로 자신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학생이 젊고 결혼을 원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부양해야 하므로 결혼 생활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없으면] 금식을 시켜야 합니다. 때로는 단식한다고 해서 강렬한 욕망이 줄어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찾도자(영적 여행자)는 정해진 시간에 금식을 물만으로(다른 음식은 없이) 깨고 빵을 먹지 말라고 요청받아야 합니다. 둘째 날에는 빵으로 금식을 깨야 하지만, 욕망의 강도가 사라질 정도로 고기나 다른 카레, 요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배고픔만큼 좋은 치료법은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구도자에게서 분노의 지배를 본다면, 인내와 인내, 침묵을 지키도록 명령받아야 하며, 무례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도록 요청받아야 하며, 그들에게 가해진 고통에 인내를 연습함으로써 인내에 익숙해져야 한다. 한 성인(영적 스승)에 대해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는 대부분 예의 없고 거칠고 무례한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 밑에서 육체노동자로 일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가하는 모든 고통을 인내심으로 견디고, 그들의 나쁜 행동에 대한 분노를 자제했다. 처음에는 그에게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인내심이 그의 제2의 본성으로 깊이 배어졌고, 그의 이름은 평민들 사이에서 인내의 본보기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어떤 성인들은 자신 안에서 약함과 비겁함을 발견했다. 그들은 날씨가 추울 때 바다 표면에서 항해하며 파도가 흔들리고 난폭할 때 스스로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을 치료했다. 어떤 성인들은 처음에는 느렸고, 밤새 머리를 숙이고 서 있다가 그 강렬함에 자신이 동요되어 [예배 중에] 발로 서기로 동의할 때까지 스스로 치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강에 넣어 마음에서 부와 물질적 소유에 대한 사랑을 없애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선에 돈을 나눠주기보다는 강에 돈을 넣는 것을 선호했는데, 자선에는 과시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시들은 심장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목적이 모든 질병에 대한 약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물과 치료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목적은 모든 [영적] 질병의 치료가 그 반대 방향에 작용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책에서 단 한 문장으로 치유 방법을 설명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음]: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위 자아의 모든 욕망을 억제한 자는 (*하와* 또는 개인과 집단의 물질적·비물질적(영적) 삶에 해로운 완고한 잘못된 어리석음)을 제외하면, 천국은 그러한 자의 [최종적] 목적지가 될 것이다." (꾸란 79장 40-41절)

영적 투쟁에서 진짜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기로 결심한 일을 완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욕망을 거부하기로 결심하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할 용기를 유지하며, 이러한 어려움에 맞서 싸워 결심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영적 투쟁이다. 만약 누군가가 [모든 역경에 맞서 영적 길을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이루지 못한다면, 자아는 그것에 익숙해질 것이고(즉, 결심을 저버리며) 결국 자신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영원한 행복과 영적 상승을 통한 영적 승리를 놓치는 의미에서 파괴될 것입니다. 대신 그로 인해 영원한 상실과 슬픔으로 이어지는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만약 신이 금지하길, 결단을 저버린다면, "자기 성찰과 자신의 결점과 악덕에 대해 책임을 지기"(18장)에서 설명한 대로 자신을 벌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나태함과 영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려는 결심을 저버린 자아를 벌주지 않는다면, 하위 자아가 [그런 사람]을 지배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영적 투쟁이 헛되이 될 것입니다.

영혼의 질병과 건강의 징후

모든 신체 기관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알리라. 만약 그 장기가 만들어진 행동을 수행하지 않거나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며 수행된다면, 그 장기가 건강을 잃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손의 병(또는 변형)은 손이 잡는 능력을 잃는 것입니다. 눈의 병은 시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또는 영혼)의 병은 자신이 창조된 특정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며, [마음의 특정 임무]는 신성한 지식, 지혜, 신성한 영지, 신성한 사랑, 신성한 예배, 신성한 기억에서 기쁨을 찾고, 모든 사람의 모든 욕망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자신의 모든 욕망과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وَمَا خَلَقْتُ ٱلْجِنَّ وَٱلْإِنسَ إِلَّا لِيَعْبُدُونِ

"나는 창조하지 않았다 *진(Jinns)* 그리고 나의 경배를 제외한 인간들이다." (꾸란 51장 5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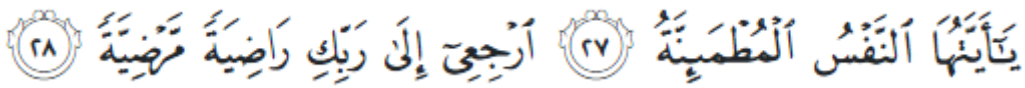
어쨌든 모든 장기는 고유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독특한 행위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지입니다. 인간의 특별한 특성은 동물과 구별되는 점으로, 먹고, 마시고, 보고, 교미할 수 있는 능력이 동물 역시 존재한다. 인간의 특징은 사물의 현실을 인식한다는 점이며, 이는 모든 것의 기원, 그 발명자이자 창조자가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어떤 것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 발명자를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존재가 그 사물의 현실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는 것의 표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분도 사랑하실 것이며, 사랑의 표시는 세상 어떤 것도 그분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무언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마음은 병들었고, 그것은 빵을 먹는 대신 흙을 먹는 데 익숙해진 위와 같습니다. 이런 위장은 '아픈'이라고 불립니다. 이것들은 심장병의 징후이며, 이 설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심장을 제외한 모든 심장은 병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은 너무 은밀해서 환자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심장 질환 상황도 비슷한데, 환자들은 이런 질병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과실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병의 상태를 알게 되면, 그 약물의 쓴맛에 인내심을 발휘할 용기를 잃게 됩니다. 심장병 치료제가 욕망과 욕망에 맞서기 때문이며, 그 고통은 죽음의 고뇌보다 더 심합니다.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영혼의 병을 올바르게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의사를 찾기 어렵습니다. 심장 질환의 의사나 치료자는 [종교적] 학자일 수 있지만, 그들의 심장은 [그] 질병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치료하지 못할 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심장 질환은 악화되어 불치가 되었다. 심장 질환을 치료하는 지식은 이 질병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치료하려는

사람들도 남아 있지 않아 사라졌다.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랑에 완전히 잠겨 있으며, 겉으로는 숭배이고, 내면은 과시와 과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제 질병의 징후들이 언급되어 왔다. 이제 치료로 인해 얻은 건강의 징후들을 들어보세요.

이와 관련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항상 눈앞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병이 인색함이라면, 이는 영성, 영적 길, 영적 야망을 파괴하는 내재적 능력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들어내며, 그 치유는 부와 물질적 소유를 소비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지출의 한계를 넘으면 낭비적인 지출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원하는 수준은 [모든 극단 사이에서]의 절제입니다. 지출에서 중간 수준은 낭비적 지출과 인색함의 두 극단 사이에 위치한 목표입니다. 절제의 지점과 두 가지의 중간을 찾고자 한다면, 그 방법은 내면의 특성에 의해 존재한 행동들을 한 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쉽고 즐거워 보인다면, 그 행동과 연결된 내면의 특성이 자아(Nafs)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를 필요하고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 부를 축적하고 쌓아두는 것보다 더 혐오스러운 일이라면, 인색함이라는 내면의 특성이 자아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경우 권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지출과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하등] 자아가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지출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고, 이 지출이 저축보다 더 쉬워 보인다면, 이로부터 낭비적인 지출이 자아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축하고 부의 낭비적 지출을 막는 데 의존해야 합니다. 자아(*Nafs*)는 그런 식으로 감시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어떤 행동이 자아에게 어렵고 어떤 것이 쉬운지 관찰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계와 보호는 부와 물질적 소유에 대한 욕망과 성향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며, 그래야 자아가 소비에 관심이 없거나 저장 강박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대신 필요할 때 멈추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물처럼 변합니다. 더 나아가, 저축보다 지출을 선호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 [모든 일에 균형 잡힌 절제, 모든 극단을 피하는 마음]에 도달한 마음은 모든 파괴적인 악과 부정적인 내면의 성격에서 정화되고 정화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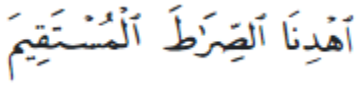
신성한 영지의 상태에서 신께 도달하려면, 마음을 세상의 모든 얽힘과 얽힘에서 분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신성한] 명령이 이 세상(즉, 죽음)에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할 때 마음은 어떤 물질적인 것에도 기울지 않고, [물질주의의 어떤 수단에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떠나는 여정은 비물질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성한 존재와의 집착] 상태에서, 자아가 신성한 현존으로 돌아오는 것은 미묘한 [자아의 존재](*나프스*)가 돌아오는 것이며, 그 자아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도 그것을 기뻐한다. 이들은 예언자(*안비야*), 성인과 영지주의자(*싯디킨*), 순교자(*슈하다*), 의인(*술라하*) 계급에 속하며, 이들은 비물질적이고 초월적인 영적 영역에서의 업적 면에서 인간의 네 가지 최상위 범주에 속하며,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승리의 최고 수준을 이룬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평화로운 자아여! 주님께 돌아가 그분과 그분께 기뻐하시는 상태로." (꾸란 89장 27-28절)

두 극단의 중간 단계는 매우 미묘합니다. 대신 머리카락보다 가늘고 칼보다 날카롭다고 말하는 게 더 낫다. 이 세상 삶에서 이 어려운 길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들은 *시랏* 다리(지옥 위의 좁은 다리로, 그 반대편에는 천국이 있는데, 머리카락보다 가늘고 칼보다 날카로우며, 예언적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심판의 날에 그 다리를 건너야 한다)을 안전하게 건널 것이다. 이는 인간이 균형 잡힌 절제의 중간 길(*시랏 알-무스타킴*)의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기울어지는 쪽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경외심과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무타킨*)은 균형 잡힌 절제의 중간 길(*시랏 알-무스타킴*)에 더 가까이 머무르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가깝습니다. 균형 잡힌 절제의 중간 길(*시랏 알-무스타킴*)에서 인내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매일 17회 의무 기도로 낭송되는 *꾸란의 첫 장 인* 수라 알-파티하(Surah al-Fatiha)는 이 기도를 의무화했습니다:



"[오 신이시여!] 우리를 올바른 길(균형 잡힌 절제의 중간 길)으로 인도해 주세요 (*시랏 알-무스타킴*)." (꾸란 1장 6절)

균형 잡힌 절제의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가능한 한 그 길에 가까이 머무르는 데 있어 어떤 부주의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정확히 균형 잡힌 절제를 이룰 수 없다면, 영원한 구원은 오직 의로운 행위에만 의존하며, 의로운 행위는 아름다운 도덕, 예절, 내면의 자질, 성격 특성과 성향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모든 신의 종은 자신의 자질, 도덕, 예절, 내면의 성격 특성과 성향을 끊임없이 점검하여 결점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결점을 찾는 방법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려는 누구든, 그 사람의 잘못을 알려주신다. 깊은 [내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숨겨진 결점이 없으며, 결점을 인식하면 고치기가 쉬워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상황은 다른 사람의 미세한 결점은 볼 수 있지만, 자신 안의 큰 결점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결점을 인식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자아의 결함과 숨겨진 파괴적 가능성을 인지하는 영적 안내자의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런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고 영적 투쟁에 관한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지도자(*무르시드)와 함께하는 탐구자(*무*리드)와 스승과 함께하는

제자의 상태입니다. 영적 안내자는 탐구자에게 정보를 주고, 스승은 학생에게 내면의 결점과 부족함을 알려주고 이를 없앨 방법을 제안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방식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을 찾기 매우 드뭅니다.

두 번째 방법: 진실되고 충성스럽고 지적이며 신을 의식하는 친구를 찾아 자신을 감시하는 자로 임명해야 하며, 그런 친구가 내면의 상태와 행동을 감시하며, 내면의 결점이 보이면 경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연구한 위대한 선조 학자들도 이 방법을 따랐습니다.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 무함마드 예언자와 두 번째 칼리프의 조력자이자 동료)는 "내 잘못을 알려줄 자에게 신께서 자비를 베푸시길"이라고 말하곤 했다. 한 번은 살만 알-파르시(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 또 다른 예언자 동료)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다: "나에 대해 나쁜 소식을 들으면 알려줘, 내가 스스로를 개혁할 수 있도록 말해줘." 살만(신께서 그에게 기뻐하시길)은 답변을 피하려 했으나,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길)가 고집하자 그는 "네 식탁 매트 위에 두 개의 접시(음식)가 있고, 밤에 한 벌, 낮에 입을 옷 두 벌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가 물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까?" 살만(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은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이 두 가지에 대해 만족하라[나는 식사로 단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옷도 한 벌뿐이니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후다이파(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에게 그의 잘못에 대해 묻고 이렇게 물었다: "너는 위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비밀을 예언자와 함께 공유하는구나. 나에게도 위선의 기미가 보이니?"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위엄 있고 [세계의 광대한 지역을 다스린 두려움 없는 지도자로서]와 높은 지위[위대한 영적 성취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점을 알려달라고 압박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성이 더 크고 [영적]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은 자기 의로움이나 자기과만함(*'우주브'* 즉 자기 과시와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것)의 병에 감염되지 않는다. 다만 어느 정도는 [영적 투쟁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자아를 잘못되었고 그 잘못을 지켜봐야 한다고 계속 생각하며, 선하고 순수한 자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쁘시길)의 예가 그 예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아무런 양보 없이 자신의 결점을 알려줄 친구를 찾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첨하는 것을 좋아하고, 결점을 전문가(또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좋은 것)라고 부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그것을 우정의 권리를 충족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친구가 됨으로서] 어떤 친구들은 질투심이 강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데 단점을 과장하기도 합니다. 진실되고 이타적이며 진정한 친구의 존재는 드물다. 그래서 영지주의자 다우드 타이(신의 자비가 그에게 가득하길)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다: "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느냐?" 그는 "내 잘못을 알려주지 않는 친구들을 만난다면 내가 뭘 하겠는가?"라고 답했다.

딘(신으로 가는 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결점을 지적해주길 가장 바란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된 결과로] [인지된] 굴욕은 [내세의 실제 굴욕] [영혼 깊은 곳에 이 결점을 품는 것에 대한 결과]에 비하면 매우 작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과의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결점을 알려주고 조언할 적들 중 최상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이 지적될 때 기분이 상하고 화를 내는 것은 신앙의 약함의 표시입니다. 나쁜 도덕성, 예절, 내면의 성격 특성, 자질과 성향의 유사성은 뱀과 전갈과 같다. 만약 이 치명적인 생물들이 당신의 옷에 들어오고 누군가가 그들의 해악에 대해 알려주고 자신을 보호하라고 조언하거나 그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알려준다면, 그 사람이 당신의 적이 될까요? 절대로 안 돼!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감사해야 하며, 전갈 독의 영향이 하루 이틀 정도는 지속되더라도 나쁜 도덕성, 예절, 내면의 성격, 성질, 성향의 영향은 죽은 후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언자이자 선의를 가진 사람을 적으로 여기고, 그런 사람이 지적한

결점을 없애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신 우리는 그 사람의 결점을 찾아내기 시작해, 그런 사람이 앞으로 우리에게 조언할 용기를 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잘못을 알려주는 선의의 이를 적으로 여기는 것은 과도한 죄와 잘못으로 인해 마음이 어둡고 단단해진 이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믿음의 약함의 행위입니다. 오 신이시여! 우리에게 올바른 길과 인도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결점을 알리며, 그것을 없앨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우리의 결점을 알려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아민*! (아멘!)

세 번째 방법: 적의 눈은 오직 결점만 보고, 그들의 혀는 [그들의 인식된 적의 결점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적을 통해 자신의 결점을 얻어야 한다. 제 생각은, 아첨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비교하면, 결점을 지적하고, 결점을 보며, 결점을 말하는 적들로부터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보통 칭찬을 하고, 그들의 눈은 좋은 것만 보고, 말은 잘 말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적을 거부하고, 적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을 질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은 적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방법: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에게서 보이는 결점이 있으면 그들을 앞에 내세우고, 자기 자신(*Nafs*)을 문제 삼으세요. 믿는 자는 [예언적 이야기에서 진술되고 확인된 믿음]의 거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무슬림 형제나 자매의 거울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결점을 통해 자신의 결점을 발견하고, 다음 욕망에 있어 기질이 대체로 서로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쪽에 존재하는 무언가, 그 부분 또는 전체가 다른 쪽에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 원칙들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마음에서 정화해야 합니다. 이 방법이 좋은 예절과 내면 정화를 심어주기 위해 채택된다면, 모든 사람의 개혁은 예절의 안내자와 교사가 필요 없으므로 저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그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누가 당신 에게 *아답*(도덕, 예절, 예절)을 가르쳤습니까?" 그는 "아무도 나 에게 *아답*(도덕, 예절,

예절)을 가르쳐주지 않았 다. 무지한 자들의 무지함이 나쁘게 느껴져서 나는 그것과 거리를 두었다"고 답했다. 이는 탁월함, 통찰력, 신성한 영지, 지성과 같은 자질을 가진 스승(영적 안내자)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 스승은 자신의 문명화와 정화를 마친 후 하나님의 종들(즉, 동료 인간)의 교육과 문명화에 몰두하며, 자비로 조언하며 선한 길로 인도한다. 이런 [영적] 스승과 함께 있는 사람은 마치 모든 [내면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걸어 다니는 병원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내면의 병을 치유하고 파멸로부터 구해줄 그런 스승과 계속 교류해야 합니다.

욕망과 정욕, 그리고 신의 법에서 전해진 증거와 근거를 거부함으로써 심장병을 치료하다

위의 세부 사항들을 숙고하면 통찰의 문이 열릴 것이고, 지식과 확신의 빛과 함께 영혼의 병과 치유 방법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명상을 통해 질병과 그 치료법을 알 수 없다면, 여전히 이 길을 따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만 비 알-가이브*)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정도와 지식의 정도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믿음 후에 얻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과 지식을 부여받은 자들의 [존귀와 신성한 친밀함과 친밀함]의 계열을 높이 세우실 것이다." (꾸란 58장 11절)

그러므로, 신의 현존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욕망과 욕망에 맞서는 것임을 정당화를 구하지 않고 이를 확인한 자는 믿음을 믿는 자의 지위에 오른 자이며, 이 [신성한] 비밀의 실재에 도달한 자는 믿음과 함께 지식을 부여받은 자 중 하나이다. 하나님은 신앙의 사람들과 지식의 사람들 모두에게 선함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وَكُلًّا وَعَدَ ٱللَّهُ ٱلْحُسْنَىٰ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선함을 약속하셨습니다." (꾸란 4장 95절)

신성한 법칙의 증거: 욕망을 버리는 것이 신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신성한 임재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현실은 신성한 책인 꾸란의 구절, 예언 전통(*하디스*), 학자들의 말씀에 의해 입증되고 입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وَأَمَّا مَنْ خَافَ مَقَامَ رَبِّهِۦ وَنَهَى ٱلنَّفْسَ عَنِ ٱلْهَوَىٰ ﴿٤٠﴾

فَإِنَّ ٱلْجَنَّةَ هِىَ ٱلْمَأْوَىٰ ﴿٤١﴾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저속한 욕망과 완고한 잘못된 어리석음에서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자(*하와*)그런 자의 최종 거처는 천국일 것이다." (꾸란 79장 40-41절)

أُو۟لَٰٓئِكَ ٱلَّذِينَ ٱمْتَحَنَ ٱللَّهُ قُلُوبَهُمْ لِلتَّقْوَىٰ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경외심과 경외심, 경외심을 위해 정화하신 사람들입니다 (*타크와*)." (꾸란 49장 3절)

그 설명은 하나님께서 하층 자아로부터 욕망에 대한 사랑을 그들의 마음에서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المؤمن بين خمس شدائد، مؤمن يحسده، ومنافق يبغضه، وكافر يقاتله، وشيطان يضله، ونفس تنازعه

"신자는 다섯 가지 고난 한가운데 있다: 다른 신자는 한 고난을 질투하고, 위선자는 한 사람에게 적대감을 품으며, 불신자는 한 고난과 싸우고, 사탄은 한 사람을 오히려 인도하며, 자아(*나프스*)는 한 고난과 다툰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아나스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 집* 마카림 알-이흘락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이 예언적 전통은 자아가 논쟁의 적이며, 그에 맞서 [영적] 투쟁이 필수적임을 알려줍니다.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 다우드(다우드)에게 계시하셨다(하나님께서 그에게 있기를): "오 다윗! 동료들이 낮은 자아로부터 나오는 욕망을 쉽게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지성은 욕망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들(마음은) 나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하나님의 평화가 그분께 있기를)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이 현재의 욕망과 욕망을 떠나 미래에 약속된 것들을 위해(즉, 낙원)를 위해 이루어지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المجاهدمن جاهدنفسه في طاعة الله عزوج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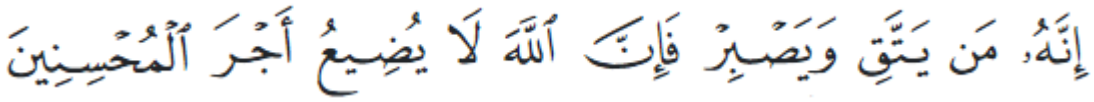
"하나님의 길에서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위 자아와 그 욕망에 맞서 [영적] 투쟁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는 파달라 빈 사이드의 권위에 *따라 티르미디*와 *이븐 마자를*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성인들과 영지주의자들의 말씀: 수피안 알-타우리(신께서 그를 자비로 여기시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기 자신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치료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아는 때로는 유익하고 때로는 해롭다"고 말했다. 아부 알-압바스 무살리(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너는 왕자처럼 세상을 즐기지도, 숭배자처럼 영적 투쟁을 하지도 않는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나를 감옥에 가두려는 거야? 부끄러움도 없니?" 하산 알-바스리(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는 "야생마와 비교하면, 자아는 더 말이 필요하다 [야생의 길들여지지 않은 말보다 더 날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야히야 빈 무아드(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말했습니다: "영적 투쟁의 칼로 자기 자신과 싸우라. 그 칼은 먹는 것을 줄이고, 잠을 덜 자며, 필요할 때만 말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받는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다. 욕망과 욕망은 덜 먹고, 덜 자면 의도의 순수함이 되고, 말을 적게 하면 시련과

고난을 피하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고통과 고난에 인내심을 가지면 목표와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성공한다. 가장 어려운 것은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의 인내와 역경 때의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욕망과 정욕이 자기 안에 태어나거나 쓸데없는 대화의 즐거움과 달콤함이 커질 때, 그때는 덜 자는 칼집에서 덜 먹는 칼을 꺼내 침묵의 손길을 통해 치명적인 일격을 가해 자기 자신이 그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로부터 오는 고난은 식고, 마음은 욕망과 음망의 더러움에서 정화되고 정화된다. 만약 그런 대우가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정화되고 정화되며 빛나고 가벼워질 것이며, 의의 들판이 그 길이 될 것이며, [신성한] 순종의 골짜기가 그 통로가 될 것이며, 이 들판과 골짜기를 평원에서 멈추지 않고 달리듯 달리거나 정원의 왕처럼 걷게 될 것이다."

야흐야 빈 무아드(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도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인간에게는 세 개의 적이 있다: 세상, 사탄, 그리고 자아. 절제(또는 세속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사탄과 그 설교와 설득에 맞서 지배하며, 욕망과 정욕을 버림으로써 자기 자신을 복종하라." 한 현명한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아에 지배당한 자는 욕망의 죄수이며, 발은 욕망에 묶여 더 이상 지성에 의해 인도되지 않으며, 욕망과 욕망이 자신을 붙잡아 원하는 곳으로 가져가며, 마음에는 어떤 이익도 주지 못한다.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내세(즉, 천국)의 축복이 이 세상의 [물질적] 축복과 작별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동의한다 [반면 이 세상의 비물질적(영적) 축복은 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다]." 아부 야히야 와라크(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욕망과 정욕에 빠져 장기를 기쁘게 하는 자는 마음의 땅에 수치의 씨앗을 뿌린다"고 말했다. 워하이브 이븐 알-워드(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는 말했다: "빵 외에는 모두 하위 자아의 욕망에서 나온다." 그는 또한 "이 세상의 욕망과 정욕을 사랑하는 자는 내세의 굴욕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언자 요셉(유수프)(하나님의 평화가 그와 함께하길)이 이집트의 보물을 책임지게 되었고, 1만 2천 명의 이집트 엘리트들이 웅장한 행렬을 이끌고 그 길을 이끌었을 때, 줄라이카(이집트 목사의 아내로, 젊었을 때 예언자 요셉과 사랑에 빠져 수십 년간 수감 생활을 마친 후 그와 결혼하였다) 석방과 이집트 보물 책임자로 임명된 이들이

그에게 말했다: "오 요셉! 탐욕과 욕망은 왕을 노예로 만들었고, 인내와 경건한 경외, 경외심과 신에 대한 경외심(*타크와*)은 노예들을 왕으로 만들었다." 예언자 요셉(그에게 평화이 있기를)은 이것이 하나님의 다음 말씀에 따라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경건한 경외와 경외, 경외심과 경외심으로 죄를 버리고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런 선행과 진실된 노력이 그런 선행자들을 위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꾸란 12장 90절)

주나이드 바그다디(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밤 나는 깨어 기도에 빠져들려 했지만, 내가 익숙했던 [내면의] 기쁨을 얻을 수 없었다. 잠을 자려고 했지만 잠들지 못했고, 앉으려 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이런 말에 억지로 나가보니, 담요에 싸인 남자가 길가에 누워 있었다. 내 발걸음 소리를 듣고 나에게 오라고 했어. 나는 그에게 말했다: '네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내게 알리지 않았잖아!' 그는 '나는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이 내게 향하도록 기도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말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이제 당신이 여기 온 이유를 말해 주세요.' 그는 말했다: '오 아부 알-카심! 말해줘, [하하] 자아의 치료법이 뭐야?' 나는 이렇게 말했다: '욕망에 반대하면 자기 자신은 그로 인해 고통과 고문을 느끼지만, 이것이 바로 그 고치와 약이다.' 그는 말했다: '오, 자기 자신이여! 들어봐! 나는 같은 대답을 일곱 번이나 했지만,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 주나이드도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그 사람 말도 안 들을 거야?'" 누군가 우마르 빈 압둘 아지즈(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에게 물었다: "언제 말씀드려야 합니까?" 그는 "조용히 있고 싶을 때"라고 답했다. 그가 물었다: "언제 조용히 있어야 하지?" 그는 "말하고 싶을 때"라고 답했다. 알리(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말했다: "천국에 가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의 욕망을 멀리해야 한다." 말릭 빈 디나르(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시장에 가곤 했고, 좋은 것을 보고 마음이 생기면 스스로를 위로하며 인내하라고 훈계하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신의 앞에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의 위대함과 위대함 때문에 [당신이 가진 최고의 영적 경지에 오를 잠재력 때문에]"

학자들의 만장일치 결정: 모든 학자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내세에서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승리(*사아다*)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 있으며, 그것은 자아가 완고한 잘못된 어리석음(*하와(Hawa* - 모든 것에 대해 옳다고 믿는 자기망만에서 비롯됨)과 탐욕, 그리고 욕망과 정욕을 따르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는 만장일치의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낮은 자아. 이 점에서 이 결정을 믿고 행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적 투쟁의 결론과 요약은, 자아가 무덤에서 복수, 결혼, 먹고 마시고 거주하는 등 삶에 필수적인 것들만 필요할 때만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건들의 필요한 양의 한계를 넘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 물건들을 사랑하게 되고, 죽은 후에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며, 오직 내세의 보상과 보상에 아무런 몫도 없는 사람만이 세상으로 돌아가길 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과의 동반자는 병이며, 이 병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영지, 기억과 관조에 마음을 온전히 몰입하고, 세속적인 것들(수단)에 만족하는 것이지만, 그것들이 이 방치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 한에서만 그것입니다. 이 상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능력과 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 진정한 영적 연습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에 더 가까이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사람들은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마음을 완전히 몰입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적 필요를 제외하면, 그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시*디킨(Siddiqeen*) 범주에 속하는데, 이는 예언자들 다음으로 높은 범주로, 영리에 헌신하며 영적 투쟁의 결과로 신성한 영지(Gnosis), 우정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높은 영성] 지위는 오랜 시간 고귀한 영적 투쟁과 욕망과 욕망을 버린 후에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세상에 매 순간 마음이 잠겨 있는 사람들(세속적 또는 물질적 존재)을 포함합니다. 설령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한다 해도, 그것은 입 위에서만 있을 뿐이고 마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멸망으로 향하는 이들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일하지 않았고 오로지 이 세상의 물질적 생명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세 번째 유형은 딘(*신*으로 가는 길)과 세상 모두에 관여하지만 *딘*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신의 응징을

받게 되지만, 곧 신성한 관심사가 마음을 지배하는 정도에 따라 그것을 없앨 것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신 (Deen)과 세상 모두에 관여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세속적인 관심이 신성한 관심사보다 우선하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이 사람들은 비교적 오랜 기간 신성한 벌을 받지만, 결국 세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 음에도 불구하고 신(*Deen*)(신으로 가는 길)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마주한 후 벗어날 것입니다. 신성한 기억의 힘이 그들의 구원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허용되는 것들로부터 오는 즐거움: 어떤 사람들은 허용되는 것들로부터 쾌락을 얻는 것이 용인되며, 그것이 신과의 거리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틀렸다. 진실(또는 진실)은 세속적인 사랑을 모든 죄의 근원으로 여기며,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모든 의로운 행위가 이 사랑 속에서 헛되이 된다고 여긴 사람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필요를 초과하는 허용된 것을 가지는 것은 허용되더라도 세속적이며 창조주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브라힘 알-카와스(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했다: "한 번 나는 리캄 산에 머물렀는데 나무에 석류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먹고 싶어서 나무에서 하나를 꺾었는데 시큼했어요. 나는 그것을 버리고 내 길을 돌아갔다. 길가에 누워 있는 남자가 벌들에게 계속 쏘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내게 외쳤다: '오 이브라힘이여!' 나는 놀라서 대답했다: '당신은 누구고, 어떻게 나를 아는 거죠?' 그는 '신을 아는 자(신성한 영지)를 가진 자에게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말했다: '당신은 경건한 성인이십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나요?' 당신이 당신과 그 벌들이 주는 고통을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대답했다: '당신도 경건한 성인이십니다. 왜 하나님께 석류에 대한 욕망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나요? 벌에 쏘인 고통은 이 세상에만 있어. 욕망과 욕망으로 인한 고통은 죽음 이후에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 답장을 떠올릴 수 없어서 그냥 진행했습니다." 사리 알-사카티(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40년 동안 내 마음은 대추 꿀에 빵을 찍어 먹고 싶어 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허용되는 사안을 자제하기: 허용되는 사안의 쾌락을 사로잡지 못할 때까지는 자 아의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허용되는 일의 쾌락을 넘어설 위험이 있고, 허용되지 않는 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욕설과 쓸데없는 말에 혀가 휘둘리지 않길 원한다면, 신성한 기억의 말씀과 영적 필요와 관련된 말만 해야 합니다. 남은 사안에서는

허용될 수 있더라도 침묵을 지켜야 하며(*무바다*), 말욕(말)이 끝나고 혀가 진리에 익숙해질 때까지(도덕, 윤리, 정직함을 준수하는 감수성). 이 경우 말하는 것조차 [신성한] 예배가 되고, 침묵도 예배가 될 것입니다. 눈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보는 데 익숙하다면, 언젠가는 나쁜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합법적이고 허용되는 것에 대한 욕망을 일으키는 것이 동시에 금지되고 잘못된 것에 대한 욕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욕망은 하나이며, 금지(하람)에서 그것을 멈추는 것이 의무입니다. 필요한 것만으로 만족하는 데 익숙해지지 않으면, 욕망이 사람을 압도하게 되고, 처음에는 허용되던 욕망이 한계를 넘어 금지된 것(하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허용된 무*바다(Mubah*)의 해악 중 가장 작은 부분이며, 그 외에도 수많은 다른 해악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해악 중 하나는 자아(*나프스*)가 세속적 쾌락에 만족하고 평화와 평온을 스스로 찾으며, 그 취한 상태(즉, 세속적 쾌락)에 취해 자신을 잊고 잊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행복과 그로 인한 취기는 치명적인 독과 같아, 온몸과 존재에 퍼져 하나님의 기억, 사후 삶에 대한 책임에 대한 두려움, 심판의 날의 끔찍한 사건들을 마음에서 빼앗아 갑니다. 이 상태를 '심장의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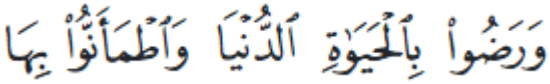
자기 훈육: 마음의 일부 사람들은 세속적 쾌락에 행복을 느끼는 동안 마음이 반항적이고 [신의 인도]에 불순종하며 신의 기억에서 벗어난 반면, 슬픔의 상태에서는 순종하고 맑으며 신성한 기억에 감동받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로부터 그들은 영원한 슬픔과 [세속적] 외적 행복의 수단[음식, 음료, 의복, 부, 명성, 사회생활, 물질주의, 과시적 소비 등]과의 거리가 구원의 원인임을 결론지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누푸스*)가 허용되었든(할랄) *금지되었든(*하람) *모든 형태의 욕망과 정욕에 대해 인내*심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허용되는 욕망에 대해서도 [신성한] 책임이 있을 것이고, 허용되지 않는 욕망에 대해서는 [신성한] 보복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허용되는 욕망과 허용되지 않는 것 사이의 회색지대에 있는 의심스러운 욕망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보복은 명백한 보복이며, 책임과 비난도 숨겨진 보복의 한 형태입니다. 이 정화된 영혼들은 허용된 자들(할랄)조차 멀리함으로써 [신성한] 책임의 응징으로부터 자신을 구하려 했고, 욕망의 감금과 구속에서 해방되어 두 세계(이 세계와 그 다음 세계)에 대한 영원한 해방과 지배를 스스로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기억과 함께 내면의 평화와 만족, 적응을 찾았고, [신성한] 복종에 익숙해지기 위해 매를 다루듯

자신을 다루었습니다. 즉, 매는 처음에 어두운 방에 두고, 눈을 꿰매어 공중에 익숙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 후 고기를 먹여 주인에게 익숙해지게 하고, 주인을 인식하고 부르면 달려가게 합니다. 자아(*Nafs*)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는 고독과 금욕을 통해 불필요한 말을 듣는 귀, 불필요한 것을 보는 눈, 불필요한 말을 듣는 혀의 불필요한 말을 내뱉으며 장기를 보호하는 등 잘못된 습관들을 무시할 때까지 주님(하나님)에게 익숙해지지 못한다. 이 단계를 거친 후, 자아는 신성한 기억과 영광의 양육으로 양육받아 주님과 주인에게 매료되고 익숙해지며, 모든 세속적 얽힘과 집착이 끊어집니다. 이것은 영적 여행자(무리드)에게 힘든 일이지만, 끊임없는 영적 노력을 통해 익숙해지면 같은 고독이 자아에게 즐거움을 주고, 같은 분리가 자아의 유혹과 풍요로움의 원천이 된다. 이 점에서 영적 여행자는 젖을 끊은 아기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2년 동안 우유만 먹었는데 갑자기 아기가 우유를 끊었기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울고, 떼를 쓰며,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고 점차 다른 영양분을 섭취하기 시작해 결국 우유 생각조차 사라집니다. 아기가 싫어했던 음식이 점점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

기승 동물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안장을 고정하고, 고삐를 조이고, 장착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승마 동물은 기수를 괴롭히지만, 기수가 지능적으로 행동하고 승마 장비에 익숙해지면 반항이 복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슬과 밧줄로 묶여 포획되지만, 점차 너무 엄격해져서 기수가 어디를 두고 가든 묶었든 아니든 움직이지 않습니다. 새와 가축이 규율되고 통제되는 것처럼, 자기 역시 규율을 받습니다. 자기 훈육은 세속적 축복과 쾌락으로 행복을 억제하고, 그것을 보고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죽음 이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으로부터도 억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에서 도움을 줄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말을 듣고, 이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의 최종 목적지로 가는 길에 고립된 역에 남게 됩니다. 자아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랑받는 것이라도 반드시 분리가 있을 것이라는 현실에 확신을 갖게 되면, 이 덧없고 일시적인 것들에 집착하는 대신, 무덤 속에서도 남아 공포를 없애줄 신성한 기억과 같은 영원하고 영원한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아는 며칠간의 인내심을 가지고 (즉, 짧은 세속 생활) 후에 이 확신을 키운다. 영생에 비하면 세속적인 삶은 며칠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며칠간의 여행의 고난을 영원한 안도와 위안을 위해 견디지 못하는 지적인 사람을 찾지 못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 몇 달 또는 몇 년간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는 지적인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영원과 비교하면 세속적인 삶은 하루도 아닌 평생 전체에 비하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삶을 위해 며칠과 같은 고난과 고난을 견뎌야 한다면(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과 비교하면), 왜 그것들을 영원한 삶을 위해 견딜 수 없는가?

영적 투쟁 및 수련 방법: 이 방법은 개인마다 별도로 적용되며, 오히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기질(내면 상태)에 따라 영적 투쟁과 수련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 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세속적인 의미에서 행복을 가져오는 어떤 것이든 그것에서 벗어나야 한다(즉, 마음의 내면적 분리를 통해). 예를 들어, 물질적 소유, 부, 명성에서 행복을 얻는 사람들은 마음에서 사랑을 버려야 하며, 유쾌한 말투와 강연의 인상적인 표현으로 행복을 얻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하며, 정치적 권력, 통제, 통치, 명성, 학생의 풍요에서 행복을 얻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서 마음을 떼어내야 한다. 만약 그들이 이런 것들을 잃어 불행하고 슬프고 걱정한다면, 꾸란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선언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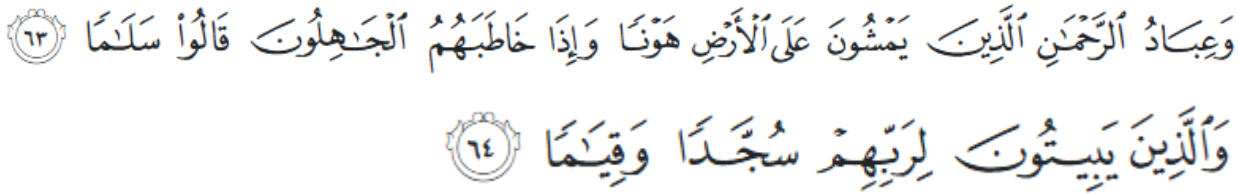


"그리고 그들은 세속적인 삶과 경쟁하게 되었고, [전체적으로 해롭긴 해롭지만 그것이 그들의 만족의 원천이 될 정도로 빠져들었다]." (꾸란 10장 7절)

이러한 세속적 수단들은 영적 여행자(무리드)에게 치명적인 독이 된다. 사람은 그들과 분리되고 사람들과 분리된 후 고독을 받아들여야 하며, 마음을 지켜 매 순간 하나님의 기억과 묵상에 몰두하게 해야 하며, 이 [신성한] 기억과 관조에 침범하는 모든 욕망, 욕망, 암시를 주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욕망, 욕망, 암시는 뿌리를 제거하거나 이러한 암시와 욕망을 낳는 수단을 근절하여 제거해야 합니다. 평생 동안 이러한 자기 책임과 성찰을 계속하며 이 과정을 계속해서 제거하고 근절해야 합니다. [영적] 투쟁과 자아 정화의 노력은 [이 영적 투쟁을 진정으로 신경 쓰는 진정한 영적 여행자에게는 죽음 때문에야 끝난다. 이 투쟁은 모든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고 모든 긍정으로 가득 차 이 삶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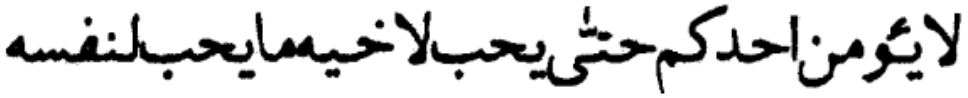
좋은 도덕성, 예절, 인격, 내면적 성향 및 자질의 징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결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찮은 영적 투쟁을 [영적]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로 여기며, 음탕함을 멀리하는 것을 영적 투쟁의 정점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을 절제하고 도덕, 예절, 내면의 성격과 성품을 선하게 만들었으며, 영적 투쟁이나 영적 길에서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사람들의 안일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좋은 도덕성, 예절, 내면의 성격, 성격의 징후를 나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요컨대, 좋은 도덕성, 예절, 내면의 성격, 성향은 신앙이고, 나쁜 도덕성, 예절, 내면의 성격, 성향은 위선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꾸란은 신자와 위선자의 특성을 나열했다. 이들은 모두 좋은 도덕적 또는 나쁜 도덕성, 예절, 내면의 성격, 성향의 결과와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꾸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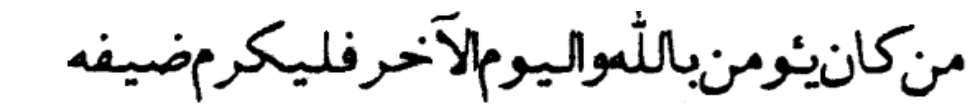


"자비로우신 분의 특별한 종들은 겸손하게 이 땅을 걷는 자들이며, 무지한 사람들이 무지하다고 말할 때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빠지지 않는 무지와 악을 없애고, 그런 모든 설득과 유혹에 맞서 싸우기 위해] [더 나아가,] 그들은 밤마다 엎드려 주님 앞에 서서 경외와 경외, 헌신의 상태에서 그의 얼굴과 가까이 가까이 있고 친밀함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꾸란 25장 63-64절)

이 구절들이 기준입니다: 내면의 상태가 의심스러워지는 사람은 이 구절들 [꾸란에서]에 비추어 자신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의 존재는 좋은 도덕성, 예절, 내면의 성격과 성향의 징표이며, 부재는 나쁜 도덕성, 예절, 내면의 성격, 성향의 징표입니다. 이 중 일부 자질과 일부 자질이 없다면, 존재하는 자질을 보호하고 없는 자질을 성취하고 심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무함마드 예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신의 신념을 믿는 종들의 셀 수 없이 많은 자질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좋은 도덕, 예절, 내면의 성격, 성품의 탁월함을 지적했다. 그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수 없으니, 형제나 자매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컬렉션 *사히흐 부카리* 그리고 *사히흐 무슬림* 아나스의 권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여기서 '형제'라는 용어는 모든 인간이 자신의 관심에 전적으로 참여하여 보살핌과 연민을 받을 만한 존재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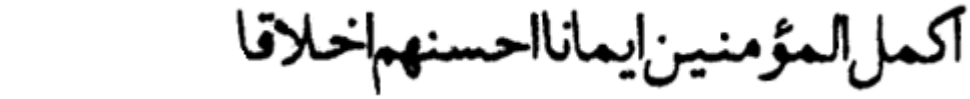
"하나님을 믿고 심판의 날에 손님을 존중해야 한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컬렉션 *사히흐 부카리* 그리고 *사히흐 무슬림* 아부 샤리에 알-카자이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의 권위에 따라)

또 다른 전통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심판의 날에 이웃을 공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와 사 히흐 *무 슬림 하디스를*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또 다른 전통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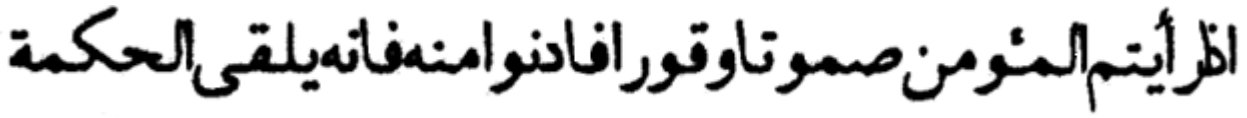
"[하나님을 믿고 심판의 날에 말하는 자는] 좋은 말을 하거나 조용히 있어야 한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컬렉션 *사히흐 부카리* 그리고 *사히흐 무슬림*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한 곳에서는 그는 도덕성과 예절, 내면의 성격과 성격(*이흘락*)을 가진 신자라고 선언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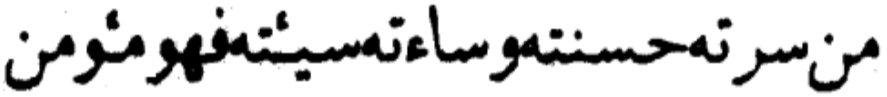
"신자들 중에서 가장 완성된 신앙을 가진 자는 가장 좋은 도덕, 예절, 내면의 성격과 성품에서 가장 뛰어납니다(*이흘락*)."

그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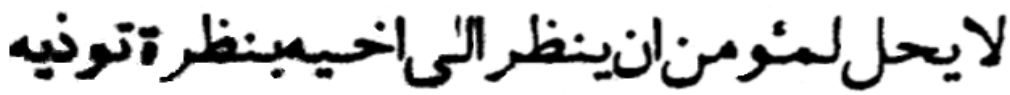


"만약 당신이 신자를 조용하고 위엄 있다고 본다면, 그 신자에게 가까워지십시오. 왜냐하면 그 신성한 지혜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아부 칼라드의 권위에 따라* 이븐 마자 하*디스* 수집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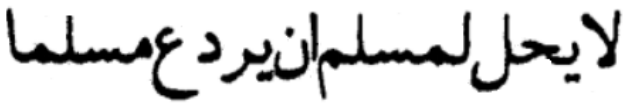


"자신의 선행이 악과 선을 모두 악으로 여기는 자는 신앙인이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컬렉션 *무스나드 아흐메드, 앗-타바라니* 그리고 *하킴* 아부 무사 알-아샤리의 권위에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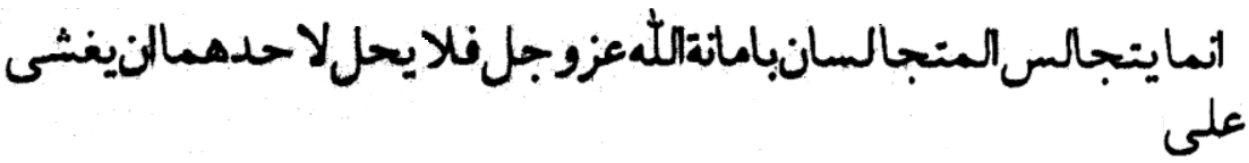


"신자(즉, 금지된) 형제를 해를 끼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은 [심지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이*븐 알-무바라크 피 아즈-주흐드* 하디스 *모음*집)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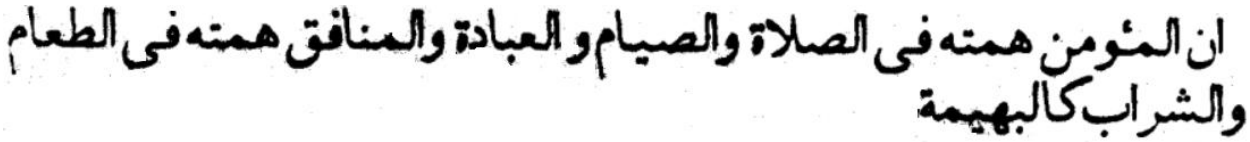


"무슬림이 무슬림을 꾸짖는 것은 금지된 행위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두 사람이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함께 앉는다. 그래서 형에 대해 자신이 원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사실도 다른 사람에게 밝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현명하고 학자적인 사람들]은 수줍음과 겸손함(*하야*)을 지니며, 누구에게도(즉, 다른 인간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의롭고 정화되어 [마음과 영혼의 내면의 순수함으로], 진실하고, 선행을 풍부하게 하며, 실수를 적게 하는 것을 등으로 나열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피하고, 품위를 지키며, 인내심 많고, 감사하고, 관용적이며, 친절하고, 자비롭고, 친근하다; 욕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하며, 뒤에서 불평하지 않고, 성급하며, 원한을 품고, 구두쇠와 질투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랑하고 반대합니다. 한 번은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가 신자와 위선자의 징조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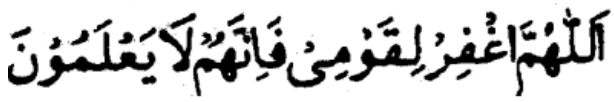


"신자의 열망과 노력은 기도, 금식, 그리고 [신성한] 예배에 있으며, 불신자의 열망과 노력은 가축처럼 먹고 마시는 데 있다."

선배들의 말씀: 하팀 알-아스므(하팀 알-아스므,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는 온전히 묵상하고 교훈을 얻으며[주변의 사건과 과거의 자신이나 타인에게 일어난 일들로부터 얻고] 위선자는 탐욕과 장수에 대한 희망에 빠져 [옳은 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되는]; 신자는 하나님 외의 모든 사람을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익과 해를 끼칠 수 있는 분이고,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신의 뜻에 복종하며, 우리 삶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성한 목적을 위해 엄격히 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지혜가 대부분 혹은 모든 사람이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면 불신자는 하나님 외의 모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신자는 신앙을 [하찮은 물질적·세속적 이익을 위해 팔지 않고] 오히려 물질적 재산과 생명을 [신성한 봉사에 바쳐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 하지만], 위선자는 부를 앞에서 신앙에 중요성을 두지 않는다. 신자는 선행을 한 후에도 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행에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위선자는 죄를 지은 후에도 미소를 짓습니다. [이는 자신의 악행이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의 입장에 해가 되는 부정적 결과가 없다고 잘못 믿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선함의

씨앗을 뿌리지만, 신의 수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행동의 결점 때문에 그 결과가 두려워하는 반면, 불신자는 선함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낭비하며 좋은 기대를 품습니다. 신자는 옳은 것을 꾸짖고 그름을 막으며 하나님의 창조물을 개선하고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위선자는 악을 퍼뜨립니다.

좋은 도덕성, 예절, 내면의 성격, 성격을 갖추는 첫 번째 시험은 타인의 나쁜 행동, 태도, 예절에 인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 타인의 나쁜 도덕, 예절, 내면의 성격, 성향을 의심한다면, 그 자신이 바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좋은 도덕성, 예절, 내면의 성격, 그리고 성향은 타인이 가하는 고통 앞에서도 인내심을 유지하고, 누군가가 한 번 힘들게 할 때는 관대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 예언자 무함마드(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나즈란에서 온 두꺼운 숄을 두르고 아나스 빈 말릭(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과 함께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베두인(일반적으로 무례하고 거칠며 미개하다고 여겨지는 사막 아랍인)을 만났는데, 그는 숄 끝을 잡아당겨 목에 걸린 숄이 조여 그를 질식시켰다. 베두인이 물었다: "오 무함마드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내게 줘!"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베두인에게 무언가를 주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는 아나스 빈 말릭의 권위에 따라 사*히흐 부카리*와 *사히흐 무슬림* 을 모았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가 속한 쿠라이시 부족이 그를 괴롭히고 때렸을 때, 그는 불평 대신 다음과 같은 간청을 했습니다:



"오 신이시여! 나의 민족을 용서하소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컬렉션 *이븐 히반* 그리고 *바이하키* 사흘 빈 사아드의 권위에 따라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이처럼 훌륭한 도덕성, 예절, 내면적 성격과 성품 덕분에 꾸란은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를 다음과 같이 찬양했습니다:

وَإِنَّكَ لَعَلَىٰ خُلُقٍ عَظِيمٍ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은 훌륭한 도덕성, 예절, 내면의 성격과 성품의 위대함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유수프 빈 아스바트(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 [위대한 성인이자 영지주의자]는 이렇게 말했다: "좋은 도덕, 예절, 내면적 성격과 성향의 열 가지 징후가 있다: [타인]을 가끔 대하지 않고, 사람과 대할 때 정의의 아름다움을 사용하며, 복수하지 않고, 악한 것을 혐오하며, 사과와 변명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규탄하며, 타인의 결점과 자신의 결점을 경계한다, 젊은이든 노이든 모두를 따뜻하고 애정 어린 태도로 대하며, 사회적 스펙트럼이 낮든 높든 부드럽고 부드러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위대한 성인이자 영지주의자인 사흘 알투스타리(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에게 물었습니다: "아름다운 도덕성, 예절, 내면의 성격과 성품이란 무엇인가요?" 그는 이렇게 답했다: "가장 낮은 단계는 복수를 하지 않고 타인이 준 고통을 인내하며 억압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과 말씀들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성인들의 자아는 끊임없는 영적 엄격함을 통해 절제의 수준에 도달했고, 속임수, 부정직함, 적대감, 질투 같은 특성에서 정화되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정해진] 운명에 만족하고 감사했다. 자아가 이 정도에 도달하는 것은 아름다운 도덕, 예절, 내면의 성격, 그리고 성향의 최고의 기준이다. 나쁜 도덕성, 예절, 내면의 성격과 성격의 극치는 하나님의 명령과 결정에 분노하며 신이 정한 운명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즉,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자신이 처한 나쁜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인내심과 감사함을 가지지 말고 신의 명령에 대한 불만이나 불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아름다운 도덕성, 예절, 내면의 성격, 그리고 성향의 몇 가지 징후입니다. 내면에 이러한 징후가 없는 사람은 자신이 좋은 도덕, 예절, 내면의 성격, 성향을 지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아(*나프스*)는 병들었으며, 영적 노력과 엄격한 노력을 통해 치유되어야 하며, 이는 신의 친밀한 존재(무카라빈)와 진리에 전적으로 헌신한 자들이 가진 아름다운 도덕성, 예절, 내면적 성격과 성향의 높은 수준에 도달해야 하며, 이는 신성한 영지(*시디킨*)*를 이룹니다*.

아동의 교육과 양육, 그리고 그들의 도덕성, 예절, 성격, 내면적 성향과 자질을 문명화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아이가 부모의 손에 맡겨진 하나님의 신뢰이기 때문이며, 아이의 마음은 아름답고 깨끗하며 단순한 거울과 같아서, 어떤 인상이나 형태도 없지만 모든 종류의 인상과 영향의 영향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무엇이든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좋은 습관이 심어지고 지식을 가르침받는다면, 훌륭한 양육(양육)을 받은 아이는 이 생과 내세의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성공]에서 부모와 교사는 [아이의 좋은 양육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의 일부를 누릴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이 아이에게 심어지고(양육) 그리고 [아이가] 동물처럼 방해받지 않고(돌봄 없이 자유롭게) 방치된다면, 아이는 무례해진 후 파괴됩니다. 그러한 과실의 죄의 짐은 (자녀의) 보호자이자 보호자에게 떨어집니다. 존경받는 신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يَٰٓأَيُّهَا ٱلَّذِينَ ءَامَنُواْ قُوٓاْ أَنفُسَكُمۡ وَأَهۡلِيكُمۡ نَارٗا

"믿는 이들이여! 지옥의 불길에서 자신과 가족을 구하라." (꾸란 66장 6절)

그리고 아버지가 이 세상의 불에서 자녀를 구할 때, 우선순위로 자녀를 저승의 불(지옥불)에서 구하는 것이 의무이며, 이를 수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에게 예절과 문명을 가르치고, 최고의 도덕을 교육하며, 나쁜 동료와 친구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신체적 미용, 고운 옷, 장식, 신체적 편안함, 편안함 추구가 마음에 자리 잡으면, 아이는 자란 후 이런 천한 것들을 갈망하고 추구하며 소중한 생명을 낭비하고 영원히 파괴될 것입니다. 대신, 아버지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아이를 엄격히 지켜보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허용되는 (할랄) 음식의 필요성과 중요성: 아이 양육과 수유를 위해, [어머니가 없거나 별도의 목적이 있는 문화에서] 품격과 종교성을 갖춘 여성이 임명되어야 하며, 불법 식품에서 나오는 우유를 먹는 합법적(*할랄*)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 안에 더 나은 것이나 축복이 없으며, 만약 아이가 불법(하람) 출처에서 나온 우유와 함께 자라면, 악이 아이의 가장 깊은 섬유(의식/심리/내면)에 스며들어 아이의 기질이 사탄적(악한) 행위에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고 느낄 때, 아이의 완전한 양육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아이의 인생 단계]는 수줍음(*Haya*/겸손함)의 초기 징후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이가 자신의 존경과 명예를 깨닫고 수줍음을 느끼기 시작하고, 수줍음 때문에 특정 행동을 하러 떠나기 시작할 때, 이는 오직 지능의 빛이 그 안에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다. 이 [지성의 빛의 출현]은 어떤 것을 선으로 생각하고 어떤 것을 나쁘게 생각하기 시작하며, 특정 행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수줍음(*하야*)의 깨달음은 신, 존귀하신 아이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덕적 가치와 마음의 순수함을 절제하는 그의 명확한 표시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 아이의 선과 악을 깨달았다는 의식이 자연(즉, 신)으로부터 온 기쁜 신호로 생각해야 한다. 이 아이가 사춘기에 도달하면 완전한 지능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수줍음이 많은 아이(*하야*겸손함)는 결코 자유롭게 두어서는 안 되며, 대신 수줍음(*하야*)과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활용해 완전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식사 예절 설명: 아이를 지배하는 첫 번째 나쁜 욕구는 더 많이 먹으려는 욕심입니다; 따라서 식사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절은] 오른손으로만 음식을 먹고, 처음에 "*비스밀라*"("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다")를 낭송하며, 접시 앞에서 먹고, 다른 사람이 먼저 먹기 전에 기다리며, [다른 사람이 먼저 시작할 때]에 음식을 쳐다보지 말고, 먹는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서두르지 말고, 음식을 제대로 씹으며, 계속해서 [또는 서두르게] 음식을 입에 넣지 말고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음식을 떨어뜨려 손과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 때로는 빵만 먹여서 빵과 함께 카레를 필수품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빵 없이는 못 먹을 수도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명(부모나 보호자)이 아이 앞에서 너무 많이 먹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아이는 너무 많이 먹는 아이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해야 하며, 적게 먹고 잘 훈련된 아이들은 아이 앞에서 칭찬받아야 합니다. 아이의 관심을 다른 사람들(덜 운이 좋은 이들)을 위해 음식을 희생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기본적인 삶의 필수품이 더 필요한 친구들의 필요를 돌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아이가 [맛있는] 음식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단순한 음식에 만족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옷 입는 예절에 대한 설명: 마찬가지로, 화려하고 실크 옷 대신, 단순하고 평범한 옷에 대한 사랑과 욕구가 아이의 마음속에 길러져야 합니다. 그런 옷을 입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경건한 사람들은 그런 옷차림을 혐오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경고)은 때때로 아이에게 일반화된 방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가 실키하거나 화려한 색상의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을 보면, 아이 앞에서 그런 옷차림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아이의 마음속에 그 드레스에 대한 불쾌함을 심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는 번영에 익숙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며(편안한 생활 방식), 당당하게 옷을 입는 아이들과 만나지 않도록 아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부모는 또한 아이에게 그런 방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예: 위안을 구하거나 당당하게 옷을 입는 것 등)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초기 성장(성장 과정) 동안 방치된 아이는 성장 후 흔히 무례하고, 거짓말쟁이이며, 도둑질하고, 말을 전하는 사람, 완고하고, 악랄한 말쟁이, 비꼬고, 교활하며, 속임수꾼이고, 어리석음이 됩니다. 이 모든 악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좋은 교육과 훈련입니다. 그 후에는 학교에 입학하여 꾸란과 *하디스*(예언자 무함마드의 전통,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를 공부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노예들의 조건, 전기, 전통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어린 시절부터 성인들의 사랑(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길)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더 나아가, 낭만주의 시와 낭만적 시인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그런 시가 마음의 생명과 지각(또는 표현)의 미묘함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작가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아이들의 마음에 타락(*파사드*)과 악의 씨앗을 뿌린다.

선을 설득하고 악을 막는 방법: 아이가 좋은 자질을 보이거나 칭찬할 만한 행동을 보일 때, 아버지는 아이를 칭찬하고 아이를 행복하게 할 선물을 주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이를 칭찬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그 사람의 칭찬할 만한 성격이나 행동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적절하며, [아버지]는 아이를 모욕하거나 굴욕감을 주거나 잘못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아버지나 부모는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할 용기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조차 아이에게 알리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아이 스스로 잘못을 숨기고 숨기려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때로는 아이의 실수를 드러내는 것이 아이가 점점 더 대담해지게 만들어, 점차 자신의 결점이 드러나는 것에 신경 쓰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명한 예방책을 취한 후에도, 아이가 같은 [나쁜] 행동을 다시 한다면, 사적으로 그 아이를 꾸짖는 것이 적절하며, 그

잘못을 그에게 밝히고 "조심하라! 다시는 이런 나쁜 짓을 하지 마세요. 만약 누군가가 이걸 발견한다면, 국민 앞에서 굴욕을 당할 것이다", [기타 등등] 그리고 이로부터 다른 발언들도 추론할 수 있다.

과도한 꾸중의 해로움: 하지만 아이가 과도하게 꾸중을 듣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아이에게 꾸중과 꾸중을 듣는 습관을 심어주고, 잘못을 저지를 용기를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점차적으로, 아이의 마음속에서 꾸중의 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아이와 대화할 때 아이의 마음속에 경외와 경외심을 유지하고, 아이를 거의 꾸짖지 않아야 하며, 아이가 고집을 부릴 때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아이가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엄격히 막아야 합니다.

수면 예절: 낮에는 자면 게으름을 유발하므로 낮에는 말라고 알려야 하지만, 밤에 잠드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부드러운 침대에서 자는 것은 금지해야 하며, 그래야 아이의 신체 장기가 강해지고 몸이 변형되지 않아 아이가 편안함 없이 살 수 없게 됩니다. 대신 딱딱한 침대에서 자고, 단순한 옷을 입고, 간단한 음식을 먹는 습관을 아이에게 심어야 합니다. 아이가 몰래 행동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가 숨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시하면 아이가 나쁜 행동을 하는 습관이 생길 거예요.

마찬가지로, 낮에 걷고 운동하는 습관을 아이에게 심어주어 무기력하고 게으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머리, 무릎, 허벅지 등을 노출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아이는 너무 빨리 걷거나 손을 느슨하게 두지 말아야 합니다(이는 게으름의 징후입니다). 대신 손을 몸 가까이에 두고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오만함과 자존심 금지: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 음식, 옷, 심지어 필기용 태블릿이나 잉크 같은 것에 대해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대신, 동료 아이들을 겸손하고 존중하며 존중하며 대하는 습관과 순수하고 문명화된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심어야 하며, 다른 아이들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부유한 부모 밑에서 자란 경우, 명예와 지위는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 있으며, 대신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는 것에는 낮은 면, 굴욕, 굴욕이라는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라면, 탐욕을 품고 남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것은 자신의 모욕과 굴욕의 원인이며, 개가 꼬리를 흔들며 기다리고 한 조각의 음식을 탐욕스럽게 찾는 특성도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는 금과 은을 싫어하게 만들어야 하며, 이 물건들의 사랑을 뱀이나 전갈에 대한 사랑보다 더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금과 은에 대한 사랑과 탐욕이 독(뱀과 전갈)으로 인한 해악보다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훨씬 더 큰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모이거나 대화할 때의 예절: 아이는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지 말고, 코를 파지 말고, 누구 앞에서도 하품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등을 돌리지 말고, 다리를 꼬고 앉지 않으며, 턱 밑에 손바닥을 대거나 머리를 손으로 받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무기력과 게으름의 징후입니다. 즉, 아이는 올바른 앉기 예절도 배워야 합니다. 아이는 너무 많이 말하지 않도록 자제되어야 하며, 이 모든 것이 부끄러운 일이며 예의 바른 아이들의 저작물이 아님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욕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도록 진실이든 거짓이든 욕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가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만 말해야 하며, 그 역시 질문에 비례하는 습관을 심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아이와 대화할 때는 매우 주의 깊게 듣고, 나이가 많은 아이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고, 그들 앞에 예의를 갖춰 앉아야 합니다. 아이는 쓸데없는 말, 더러운 말, 욕설, 비난, 언어적 학대를 막아야 하며,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료 아이들의 악한 특성이 반드시 아이에게 [나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제대로 훈련시키는 진짜 비결은 나쁜 동반자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인내와 인내: 교사가 아이를 훈육할 때, 아이는 소리를 지르거나 소리치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인내와 인내를 발휘해야 합니다. 아이가 이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인내를 발휘하는 것이 용감한 자의 길이며,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며 울지는 존엄이 없는 자의 저작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신체 운동의 중요성과 이점: 학업을 마친 후, 아이는 좋은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학교에서의 피로를 해소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 많이 놀아서 놀이 자체로 인해 피곤해져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완전히 놀지 못하게 하고 공부에 압박을 가하게 하는 것은 마음을 죽게 하고, 지능을 무효화하고 쓸모없게 하며, 삶을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이는 공부를 포기할 핑계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른 존경의 예절: 자녀가 부모, 교사, 그리고 친척이든 아니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 앞에서 놀이를 포기하라고 말해야 한다. 사춘기에 접어들면 청결(개인 위생)과 순결에 게으름을 가져서는 안 되며, 기도를 빠져도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마단*(금식의 달)의 특정 요일에는 사춘기 전의 아이를 며칠 동안 금식시키고 비단과 금은 착용을 멀리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아이는 신성한 경계(경계)와 신의 법을 설명받아야 하며, 청소년기에 도둑질, 불법 수입과 음식, 신뢰 위반, 부정직함, 부끄러움 없음, 그리고 아이의 성격(성격)에서 태어난 모든 악한 것들을 두려워하게 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가 이런 식으로 성장할 때, 사춘기에 이르면 그 비밀과 지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어린 시절 또는 청소년기) 동안에는 허용되는 (*할랄*) 음식이 모두 약과 같으며, 그 유일한 목적은 인간이 그것을 먹은 후 숭고하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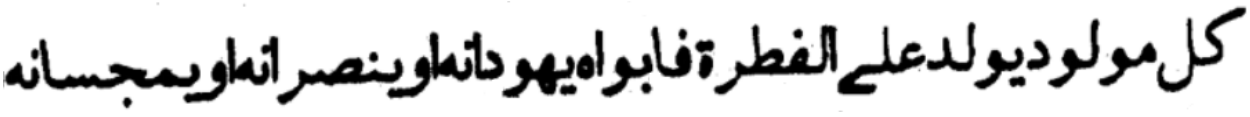
세상의 무상함: 또한 세상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며, [세상]은 비현실적이고 영원하지 않으며 끝이 있음을 명확히 각인해야 한다. 죽음은 이러한 [물질적] 축복을 끝내고, 세상은 우리가 지나가는 장소일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 이곳은 만족을 위한 곳도 아니고, 정착할 곳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승의 세계는 진정한 평화와 고요의 자리이며, 고요함과 만족의 장소이며, 죽음은 언제나 매복하여 세속 생명을 끝내기 위해 도망치고 있다.

누가 지능적인가? 실제로 지성은 이 필멸의 세계로부터 의지의 자본(내세로 가는 여정에 필요한 공급)과 선행을 내세의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는 자이며, 이를 통해 신, 숭고하신 분, 그리고 천국의 무한한 축복 앞에서 높은 인정의 지위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아이의 초기 양육이 좋았다면, 청소년기에 이 대화는 자기 자신(*Nafs*)에게 즐겁고

효과적이며, 돌에 [지울 수 없는] 새김처럼 마음에 새겨져 아이에게 좋은 징조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아이의 정신적(지적) 발달이 잘못된 방향이었다면, 악, 부끄러움, 과식욕, 고급 옷에 대한 탐욕, 과시와 장식, 화려함, 오만함, 교만함 같은 특성들이 태어났을 것이고, 마음은 이 사실(즉, 세속 삶의 무상함과 내세의 삶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석고보드처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른 흙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즉, 그런 가르침은 아이의 마음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것들이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초기 사항들입니다.

아이의 본성과 부모의 의무: 아이의 마음이 선과 악, 의와 악의 영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이의 마음을 선하거나 악으로 기울이도록 책임이 있습니다(가잘리는 이 문제에 대해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부모가 아이를 선한 쪽으로 기울이도록 권장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부주의로 인해 아이가 자동으로 악으로 기울게 됩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아이는 진정한 타고난 본성[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신 본성에 따라 태어나며,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진리와 의로움에 대한 헌신, 모든 선과 긍정적인 것, 평화와 모두와의 조화, 그리고 영원한 진리의 깨달음과 영원한 진리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영지의 상태를 통해 천상의 기원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부모는 한 사람을 개종시킨다 유대교, 기독교, 마기아 등으로 분류되며(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교적·이념적 전통을 암시하며, 따라서 자신만의 종교적, 이념적, 문화적, 지리적, 지적 맥락에 맞게 형성된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는 예언자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사히흐 부카리*와 *사히흐 무슬림*을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좋은 양육으로 최고의 결과를 얻었다는 역사적 증거: 샤이크 사흘 빈 압둘라 투스타리(신의 자비가 그에게 가득하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 살 때, 밤마다 일어나 나서 모의 삼촌 무함마드 빈 사와르(신의 길에서 영적 발전을 위해 매우 권장되는 밤 마지막 시간에 하는 기도)의 영성을 보곤 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고 있다). 한 번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참여하지 않느냐?'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죠?'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말하길, '밤에 잠들기 전 침대에서 옆을 바꿀 때, 혀를 움직이지 않고 오직 마음속으로만 세 번 암송하라:

알라후 마이야, 알라후 나지룬 일라에야, 알라후 샤히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다.'

며칠 밤 동안 그렇게 했고, 그에게 알려주니 '이제 매일 밤마다 같은 일을 일곱 번 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했고 그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그는 '이제 이걸 11번 해봐'라고 했어요. 저도 똑같이 했고, 그 결과 마음속에서 그 맛과 달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매일 밤 행동으로 옮기며 말하길, '내가 가르쳐준 기억을 잘 기억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 행동해야 한다. 이것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너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다.' 몇 년간 계속 그렇게 하다가, 내 내면 깊은 곳에서 그 맛(깊은 충격)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오 사흘!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함께 계시고, 매 순간 그 사람을 지켜보시며, 그 사람 앞에 계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즉 존귀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조심하다! 결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불순종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나를 학교에 보내려 했지만, 나는 '내 관심(하나님에 대한)이 분산될 위험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잠시 공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으신다면 저는 곧 돌아가 하나님의 기억에 참여하겠습니다.'

그 후에 선생님께 갔고, 여섯, 일곱 살쯤에는 꾸란 전체를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금식했고, 열두 살이 될 때까지 보리 빵이 주된 음식(식단)이었습니다. 이 시기, 제가 열세 살 때, 특정 종교 문제에 대해 배우고 싶었고, 가족에게 부스라(이라크)에 가서 그곳 학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물어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스라에 가서 그곳 학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도 저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후 나는 아바단으로 가서 샤이크 하빕 훔자 빈 압둘라 '아바다니(신의

자비가 그에게 가호가 있기를)와 같은 종교적 문제에 대해 물었고, 그는 만족스러운 답변을 해주었다. 그 후 저는 그의 [책] '*물푸자트 알-쿠드시야*'로부터 영적 혜택을 얻기 위해 오랫동안 그의 곁에 머물렀고, 그에게서 [영적] 예절을 계속 배웠습니다. 그 후 나는 [내 고향] 투스타로 돌아와 식단을 배분하여 1*디르함*(옛 통화) 상당의 보리를 갈아주고, 그것으로 빵을 준비했다. 매일 밤, *수후르*(금식 시작 전 새벽 식사)에는 빵에서 카레를 넣지 않고 아*오키아*(오늘날 1온스에 해당하는 옛 단위)를 먹곤 했습니다. 그래서 1 디*르함*(아주 적은 양)이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데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진전을 이루었고, 저는 3일 밤 후에 금식을 깨곤 했습니다(즉, 그는 3일 밤낮으로 연속 금식했습니다). 그다음 5박, 7일 밤, 점차 25일 밤까지 금식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런 식으로 계속 생활했습니다. 그 후 수년간 전 세계를 순회하다가 다시 투스타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거의 밤새 예배하고 기도하곤 했어."

이맘 아흐마드(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는 "그가(즉, 셰이크 살 투스타리[신의 자비를]) 식사할 때 빵과 함께 카레를 사용한 증거를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가잘리(신의 자비가 그에게 가득하길)는 이 전통을 언급하지 않아 우리 아이들도 셰이크 살(신의 자비가 있기를)이 어린 시절부터 수행한 강도 높은 영적 훈련과 비범한 신체적 인내의 위업을 통해 자라도록 했습니다. 가잘리가 이 점을 언급하는 목적은 부모가 아이의 적절한 양육을 위해 적절한 준비를 한다면, 아이는 인간 잠재력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이처럼 강도 높은 영적·육체적 훈련과 엄격함이 모두에게 필요하거나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영적 여정을 시작하는 조건, 영적 투쟁의 시작, 그리고 영적 길에서 영적 탐구자의 점진적 진화에 관한 세부 사항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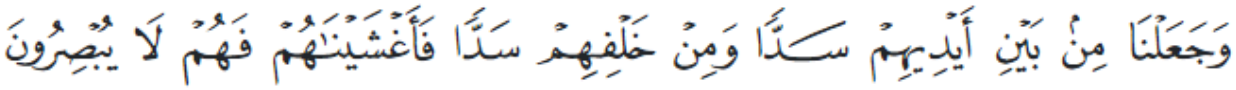
마음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내세를 지키는 자는 내세에 속하고, 그것을 위해 투쟁하며, 의지하며, 그 길을 걷고, 세속적 쾌락과 축복에 대한 중요성이 마음에 남아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진주를 가지고 있고 그 시선이 귀중한 보석에 떨어지면, 진주는 마음에서 떠나고 진주 대신 보석을 얻고 싶어 합니다. 내세도, 하나님과의 만남도 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 작은 진주를 귀한 보석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자와 같다. 이 어리석음은 보석만 보고 보석의 현실을 않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작은 진주를 값진 것으로 여기며 보석의 중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투쟁과 영적 길(술룩)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으며, 이는 의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의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억하는 분(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와 [올바르게 인도된] 종교 학자들은 진리의 길을 보여주고, 이 세상이 소중하며 영원하지 않으며, 내세의 생명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영원함과 영원함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야 하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길에 대해 무심코 빠져 있음을 말해야 합니다. 욕망과 갈망에 잠겨 그것들이 진짜 이익과 해를 끼치는 것도 모른 채, 완전히 취한 채 꿈꾸는 상태였다. 그런 학식 있는 학자들은 그들을 잠에서 깨우고, 욕망과 갈망에서 멀어지게 하며, 그들의 부주의와 무심함[진정한 목적, 삶의 의미,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으로 가는 길]을 미리 경고해 줄 수 없다.

만약 누군가가 무심한 잠에서 깨어난다면, 그런 사람은 불신과 위선의 어둠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며, 자신의 행복과 진정한 성공에 대한 지식 때문에 인생의 모든 순간과 장소에서 비틀거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학자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어둠에서 벗어나 진정한 내면의 빛과 평화의 삶으로 가는 길]에 대해 묻는다면, 그들은 스스로 저급한 욕망과 욕망의 노예이며 하위 자아(나프)로부터 욕망의 죄수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 의도의 약점, 길에 대한 낯설음, 그리고 [이른바] 학자들의 잘못된 인도가 하나님으로 가는 길에 여행자, 영적 여행자, 노력하는 이들이 없는 원인입니다. 객관적인 [그리고 삶의 의미와 그것을 이루는 길]이 시야에서 숨겨지고, 자신의 [진정] 목적과 삶의 목적을 이끄는 인도자가 사라지며, [내면] 자아가 완고하고 잘못된 어리석음(*하와*)과 욕망에 지배당하고, 진리와 인도, 내면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가 무심코 빠져들면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겠는가? 만약 그 길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다면, 길을 걷는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여정을 시작하는 조건: 만약 누군가가 지적이고 혼자 있거나 누군가의 설득에 따라 내세에 대한 의도를 한다면, 그 첫걸음을 내딛기 전에 영적 여정을 시작할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여정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은 자신과 진리 사이에 있는 어떤 장막(숨기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과 진리 사이에 깊이 둘러싸인 수많은 장막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들 앞에, 뒤에 장벽을 쳤으며, 그로 인해 사방에서 그들을 둘러싸게 하여 그들이 진리의 빛을 볼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그들이 진리를 추구하지 못한 무심함과 잘못된 행동 때문이었다." (꾸란 36장 9절)

베일의 종류: 영적 탐구자와 진리 사이에는 네 가지 베일(진리를 방해하고 인생의 올바른 길을 가리게 하여 진정한 삶의 목적, 내면의 깨달음, 영원한 행복, 끝없는 성공으로 이끄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부, 명성에 대한 욕망, 다양한 이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그리고 죄입니다. 부의 장막은 영적 길을 찾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면 사라지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야 할 정도만 남는다. 비록 구하는 이에게 필요한 디*르함*(옛 화폐)이 남아 있더라도, 마음은 그것에 집중하게 되고, *디르함*이 마음을 지배하여 하나님께 기울일 수 없게 됩니다. 명성의 장막은 추구자가 명성과 권위의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겸손과 겸손을 습관으로 삼으며, 익명의 삶을 선호하고, 명성의 원인에 얽매이지 않고, 신성한 법과 품위의 한계 내에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할 때 벗겨진다. 맹목적인 따르는 장막은 신성한 법과 논증에 대한 편견을 제쳐두고(마찬가지로, 다른 종교 전통에 반대하는) 신 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확신함으로써 벗겨진다. 이 말씀들의 진실성과 진리성을 실질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숭배할 가치가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존재와의 관계를 끊어야 하며, 특히 [자신의 자아] 신(*나프스* 또는 에고)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 이 "신"은 매우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며, 그 모든 명령이 복종하고 모든 제스처에 머리를

숙여 복종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치와 일치에 대한 이 진술이 그렇게 증언된다면, 맹목적으로 따르는 [다양한 이념]에서 비롯된 모든 신념은 무효화될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과의 논증과 토론이 아니라 영적 투쟁과 투쟁(*무자하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편견과 편협함이 한 사람을 지배하고, 그 결과로 자신의 [오랜 소중한] 신념에 반하는 어떤 것도 듣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따르기의 조여 상태이며, 이 조여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탐구자가 된다는 조건은 특정 사상의 엄격한 신봉자가 아니라, 어떤 학파든 존경하고 신봉하는 사람은 영적 여정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죄의 장막은 자신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해 후회와 후회를 표현하며, 억압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되돌려줄 때까지 벗겨지지 않는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영*적 깨달음과 계시*(무카샤파)를 통해 하나님께 가는 길(*딘*)의 비밀과 내면의 지혜를 알리고자 하는 사람은, 아랍어를 배우지 않고 꾸란의 의미와 의도를 이해하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꾸란의 한 구절의 의미조차도 아랍어를 배우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으며, 그 비밀과 미묘함, 지혜를 이해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갈망의 골짜기에 들어가기 전에 신성한 법의 가르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신성한 예배와 모든 인간과의 사회적 교류를 통해 외적 삶을 살아가는]. 외적 삶을 위해 신성한 법을 완전히 준수하면 신성한 비밀의 문이 열리고 영원한 진리의 샘이 쏟아져 나옵니다.

완성된 영적 안내자의 필요성: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부와 명예에 대한 욕망을 피하는 사람은 더럽혀진 후 정화(*우두*, 기도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신체 정화 행위)를 행한 후 정화를 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격만으로는 기도를 집전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때로는 기도를 수행할 수 있는 회중의 지도자(*이맘*)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행동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부정함과 일탈, 함정이 없는 올바른 길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스승이나 영적 안내자(*스카이크*)가 필요합니다. 신(딘)으로 가는 길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으며, 사방이 수많은 사탄적(악한) 길들로 둘러싸여 있어 자기파괴로 이어집니다. 만약 영적 안내자가 없다면, 사탄이 지도와 인도를 위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인도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로 인도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안내자 없이 위험한 길을 걷는 것은 [영적] 죽음의 여정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스스로 길을 걷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마치 길 위에 자라는 식물과 같습니다. 그들의 삶은 짧을 수 있고, [인생에서 잠재적으로 해로운 잘못된 길을 택하면서] 언제든지 끝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살아남는다면, 영적 길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이는 외부 삶에서 긍정적이고 유익한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된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완성된 영적 안내자(*샤이크 알-카말*)의 존재입니다. 그의 존재는 맹인이 동반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길의 함정을 신경 쓰지 않고 따르는 것처럼 신뢰를 줍니다. 이것이 영적 탐구자(*무리드*)의 상태여야 하며, 영적 안내자에게 자신을 맡기고 안내자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며[신성한 법의 범위 내에서 - 진정한 영적 안내자는 두려운 법의 신성한 명령에 결코 거스르지 않으며 그것을 가장 높이 존중할 것이다], 그리고 영적 안내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확신을 갖는 상태여야 한다.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유익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영적 안내자의 실수는 [영적 안내자가 자신의 추측과 생각을 안내자로 삼지 않고] 올바른 [영적] 길을 선택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완벽한 영적 안내자가 있으면 영적 길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여러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영적 안내자의 의무: 영적 탐구자가 누군가를 자신의 안내자이자 영적 길에서 지도자로 삼을 때, 안내자는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강도와 도적의 발자국이 닿지 않는 견고한 요새에서 영적 탐구자를 보호할 준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안전한 성소와 요새는 네 가지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고독, 고요함, 배고픔, 깨어 있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끊임없이 바쁘고 움직임이 가득한 상태, 배부르고 배가 부르며 영적 길의 주요 장애물인 오랜 시간 잠자는 것과는 대조적]. 영적 탐구자의 목적은 마음의 재형성입니다 [영혼의 정화와 정화라고도 함으로, 마음을 묶는 족쇄를 깨고 더 높은 존재의 영역으로 올라가게 하여 탁함에서 맑음으로, 물질 영역에서의 평범하고 인식된 실패의 스트레스로부터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승리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신성한 시야는 [눈으로 영혼이 가능해지고 신성한 가까움에 이르게 된다.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요소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배고픔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류를 줄이고, 그 혈액이 심장에 명료함을 더해주며, 이 명료함이 바로 마음의 빛입니다. 굶주림은 마음의 단단함을 줄이고 겸손, 연민, 부드러움이 그 안에서 태어나는데, 이것이 영적 드러나는 열쇠(*무카샤파*)이며, 단단함은 그것에 대한 장막입니다. 혈류가 줄어들면

[인류의 진짜] 적(즉, 사탄)의 통로가 좁아지는데, 욕망과 정맥이 가득한 정맥이 그 통로이기 때문이다. 이 혈관을 통해 혈관이 온몸으로 순환하기 때문이다. 예수(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동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굶주리라 하라. 아마도 너희 주님의 환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흘 빈 압둘라 투스타리(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는 "*압달*(성인과 영지주의자 중 가장 높은 범주 중 하나)은 네 가지에 의해 만들어진다: 배고픔, 각성, 침묵, 고독"이라고 말했다. 배고픔이 깨달음과 마음의 깨달음에 미치는 영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경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 가지 욕망을 깨기" 장(3장)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각성은 또한 마음에 명확함, 빛남, 그리고 빛을 가져옵니다. 이 빛이 굶주림으로 만들어진 빛에 더해져 빛 위에 빛이 더해질 때, 마음은 밝은 별이나 닦인 거울처럼 신성한 아름다움을 반영하며, 그 안에서 내세의 높은 차원을 증언하며, 하찮음, 굴욕, 세속 존재의 함정이 일어납니다. 이 증언 이후에는 영적 탐구자의 눈에는 세속적 중요성이 사라지고, 인간 영혼이 한 존재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이어지는 여정에서 영원과 영원의 최종 목적지인 내세에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과도한 수면은 마음을 단단하고 죽게 만들지만, 필요에 따라 하면 숨겨진 영역의 비밀이 그 안에서 드러난다. *압달*(매우 높은 영적 수준의 성인과 영지주의자들)의 특성에는 그들의 영양이 배고픔이며, 가장 필요할 때만 잠을 자고, 신성한 기억과 묵상에서 얻는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필요에 따라 말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요함과 침묵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꼼꼼함(*Wara'*)과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Taqwa)으로 이끈*다.

고독의 온전한 유익은 마음의 문인 눈과 귀가 닫히고, 아무것도 마음의 참여를 방해하지 않을 때 이루어집니다 [신성한 기억과 관상에서]. 심장이 몸에 있는 것과 같은데, 사방에서 더러운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투쟁과 노력의 목적은 더러운 물을 저수지, 즉 심장으로 운반하는 모든 통로를 닫고, 외부 수원이 필요 없도록 물 저수지를 깊게 파는 것입니다. 대신 물이 저수지 바닥에서 솟아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저수지를 물로 자급자족시키려면 저수지의 오염된 물을 완전히 비워야 하며, 이는 저수지로 이어지는 모든 수로가 폐쇄될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저수지로 오염된 물이 흐르도록 수로를 열어두고 순수하고 담수한 물을 저수지에 저장하고 싶다면, 그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마음의 통로[불순물과 오염물을 그 안으로 이끄는 것]은 감각입니다.

감각을 멈추는 방법은 어두운 집에서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어두운 방이 없다면 천을 머리에 씌운 채 앉아 있어야 합니다. 고독 속에서 진리의 목소리를 듣고 신의 섭리의 위엄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 무함마드(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바로 이 진리의 목소리에 의해 [예언자가 되기 전 고독과 영적 묵상의 상태]에서 만나고 말을 거두었습니다. 이 설명의 결론은, 배고픔, 각성, 고요, 고독이라는 네 가지 특성이 영적 여행자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방법으로 도적과 [영적] 길 [신으로 이끄는] 도둑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영적 길(*술룩*)*에서의 노력의 시작*: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에는 영적 길(*술룩*)에서 노력하는 길로 들어서야 하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건너야 할 많은 어려운 협곡(협곡)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의 협곡은 다름 아닌 세속적 욕망을 심어주는 마음의 [부정적이고 악한] 내면의 특성들이다. 이 협곡들 중 일부는 건너기 어려워서 거대하고, 일부는 작아서 건너기 쉽습니다. 이 협곡들을 횡단하는 [정답] 순서는 쉬운 협곡을 통과한 다음, 첫 번째 협곡보다 약간 어려운 협곡을 통과한 뒤, 더 어려운 협곡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특성들은 영적 투쟁 초기에 넘었던 부, 명성, 창조주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물, 죄에 대한 성향과 같은 장벽의 비밀이자 징후입니다. 이러한 장벽의 징후가 외부 존재와 단절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면의 존재에서도 제거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긴 영적 투쟁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이전에 이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투쟁은 [하위 자아]의 욕망과 정욕의 대립입니다.

영적 여행자의 마음이 욕망과 정욕에서 비워지고 영적 노력에 반대하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 영적 안내자(*무르시드* 또는 *셰이크*)는 영적 여행자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과도한 외부 신심이나 기도(*아우라드*)를 막아야 합니다). 대신, 종교적 의무의 수준 이하의 예언자의 경건한 행위와 헌신을 본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종교적 의무의 행위(*파라이드*)와 예언적 행위(*수난*)에 만족하라는 권고를 받아야 한다]. 최대한, 영적 안내자는 모든 기억과 연도의 요약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즉, 마음이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비워질 때, 영적 여행자가 최고님 "알라"(즉, 하나님의 유일한 개인 이름)를 기억하도록 해야 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주인이신 최고 존재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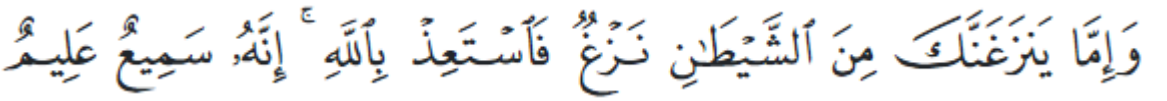
특유의 표현입니다. 창조자이자 유지자이며 그분이 존재하게 한 모든 것의 공급자)를 제공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영적 길('*알라이크*)'의 다른 장애물에 기울어 있는 한, 이 기억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블리(신의 자비가 그에게 가호하길)는 자신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번 금요일과 다음 주 사이에 신과 다른 무언가가 네 마음에 생기면, 다음 금요일에 나를 찾아오지 마라." 이러한 세심함은 영적 길을 거쳐 신성한 사랑을 얻으려는 진정한 의도의 지배 없이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마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 이외의 생각조차 마음에 일어나지 않고, 진정한 연인이 되어 한 번의 관상 외에는 다른 관상이 남지 않을 때. 영적 여행자가 그런 내면 상태에 도달하면, 영적 안내자는 그가 구석에 앉아 고독하게 앉아 허용되는 (*할랄*) 음식을 가져오도록 임명해야 합니다. 음식이 허용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딘)으로 가는 길의 근간은 허용되는 음식을 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뇌물, 갈취, 절도, 사기 등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수단으로 얻은 음식이나 불법적으로 번 돈이나 성법에서 금지된 종류를 통한 음식과는 대조적이다].

고독을 허락한 후, 영적 안내자는 마음*과 혀가 모두 온전히 탐*닉되는 신성한 기억(디크르)을 하라고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알라, 알라*"("*알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인격 이름), "*수바알라*"(모든 결점, 결점, 오류, 결핍과 부정함 위에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등. 이 기억에는 혀의 움직임이 멈추도록 인내심을 발휘해야 하며, 의도적인 움직임 없이 혀 위에서 계속 이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연도는 혀의 남은 영향력이 사라지고 오직 [최고 성의 말씀]의 형태만이 마음에 남을 정도로 계속되어야 한다. 그 후 [이 영적 노력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말의 형태조차 마음에서 지워지고 그 의미의 현실만이 남는 단계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항상 마음과 함께 남아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 존재 속에서 다른 의미에 대한 생각조차 마음에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난다.

마음이 무언가에 빠지면, 무엇이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하나님의 기억에 분주하고, 그분이 찾으실 분이자 목적이라면, 마음은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영적 여행자(*살릭* 또는 *무리드*)는 자신의 마음을 엄격히 감시하며, 자신의 존재와 관련 없이, 누구와도 관련 없는 상상조차 마음에 허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면, 잠시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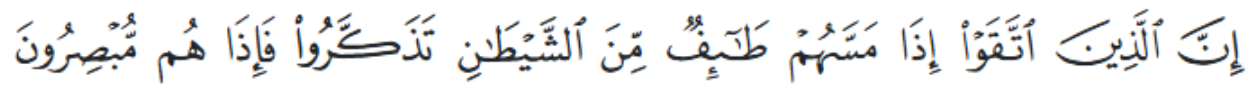
신성한 기억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손실은 피해야 합니다. 암시에 대한 마음의 상태는, 외부의 암시를 버리고 마음을 한 가지 [신의 기억] 발화에 집중하면, 그것이 "이 발화가 무엇인가?", "무슨 뜻인가?", "왜 [하나님의] 숭배인가?"와 같은 암시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암시는 걱정의 문을 열고, 사탄이 새로 고안된 암시로 [마음속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신앙의 안전지에서 불신의 파괴로, 예언자의 길(*순나*)의 빛에서 신앙의 새롭게 만들어진 문제와 혁신(*비다*, 즉 신앙의 순수하고 독창적이며 진실한 가르침에서 벗어난 일탈)의 어둠으로 이끌 암시를 포함할 것입니다. 영적 여행자가 [신앙에 대한 침해를 경계하며] 그러한 암시가 있는 길을 엄격히 감시한다면, 해를 끼칠 위험은 없습니다.

두 가지 암시: 영적 여행자가 접하는 암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암시는 신이 완전히 자유롭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신성한 위엄과 아름다움과 양립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여전히 그것들을 마음속에 심으려 합니다. 사탄의 그런 계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신성한 기억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만약 사탄에게서 악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피신하라. 진실로, 그분은 전지전지하고 듣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꾸란 7장 200절)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진정으로 경건한 경외심과 경외심, 경외심을 가진 자들이 사탄(악하고 해를 끼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위험을 마주했을 때 즉시 신성한 기억에 몰두하며 갑자기 눈을 떠집니다(내면의 영적 깨달음 상태에서, 동시에 자신에게 해로운 모든 것에 대한 장벽이자 보호가 되는 상태에서)." (꾸란 7장 201절)

두 번째 유형은 망설임과 의심이 담긴 암시를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자유로우신다는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암시를 접했을 때,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영적 여행자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기력이든 활력이든, 무언가에 대한 성향이든, 영적 길을 걷고자 하는 진실성 등 자신의 마음 상태를 영적 가이드와 공유해야 합니다. 요컨대, 마음의 모든 [내면] 상태를 영적 가이드와 공유하여 치료가 필요한 마음의 내면 상태에 대한 치료법을 처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영적 여행자(*무리드* 또는 영적 길의 제자)의 [내면] 상태를 깊이 감시 하고, [부정적이고 해로운 내면의 상태] 치유에 관해 [영적 여행자의 지성과 예지력]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영적 안내자 외에는 이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 안내자가 관상과 내면의 성찰을 허락하는 것이 영적 여행자가 자동적으로 진리를 인식하게 만든다고 본다면, 그 길로 안내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신성한 빛이 나타나 현실을 드러내도록 이 [영적] 관조를 영원히 유지하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 여행자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진리가 자동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된다면, 영적 안내자는 의심을 완화하고 견딜 수 있는 현실 중 하나를 알려주며, 조언하고 그 사람의 기준(정신적·영적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몇 가지 주장을 제시하세요. 영적 안내자는 [영적] 문제를 이해시키기 위해 과도하게 강조해서는 안 되며, 대신 말하거나 조언해야 할 모든 것은 친절하고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승천의 길]은 매우 고되고 치명적인 위험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영적 여행자들은 신성한 기억과 묵상의 영적 활동 중에 해로운 생각에 둘러싸여 현실을 영적으로 드러내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쓸모없는 길을 걷기 시작하며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는 곳]으로 점점 더 파멸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큰 손실입니다. 신성한 기억에 마음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장애물이 없더라도 때때로 비슷한 해로운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영적 여행자는 위험으로 가득한 배의 승객과 같습니다. 탈출하면 [영적] 길의 왕이 됩니다. 도망칠 수 없다면, 영적 상승을 위한 투쟁에서 패배하여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고 그로 인한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승리를 얻는 의미에서 파괴됩니다.

외부 예배 행위와 관련된 기본적인 신앙과 신념이 따름(*타클리드* 또는 지식으로 다른 이들의 따르기)을 통해 얻은 후, 신성한 예배와 타인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의로운 행위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데에는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영적 가이드가 자신의 통찰과 직관을 사용해 제자들(영적 여행자)의 [내면] 상태를 찾아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여겼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능이 없고 외적인

문제들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내면의 영적 문제와 구별되는 외적 예배 행위와 관련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신성한 기억에 관여하기보다는 외적 예배 행위와 끊임없는 *아우라드*(연도)에 참여하거나, 신성한 기억과 묵상에 헌신한 이들을 섬기는 데 참여하여 그들의 축복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신성한 기억에 몰두하는 동안, 영적 여행자는 [단순한 외적 예배나 외적 행위를 따르는 수준을 넘어선 이들]을 통해 좋은 내면 상태를 경험하고, 심지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상태와 비범한 업적은 [영적 능력이 낮고 영적 길의 초보라는 이유로] 자기 의로움, 자만심, 과시,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평가와 의견으로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행복에 빠지게 만든다. 이러한 조건과 상태가 영적 노력의 장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여행자가 그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이 이 상태에 몰입한다면, 이는 영적 길에 방해가 될 것이며, 오히려 영적 여행자가 영적 길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평생 목마른 사람처럼 머물며 바다 전체의 물조차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기 만족은 영적 발전과 완전함을 방해하고 되돌린다].

영적 여행자의 자본은 신의 창조물과의 관계(즉, 마음의 집착)를 끝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과의 관계, 즉 그들에게 집착하면 그들의 덧없음과 실질적 힘의 부재로 인해 결국 실망과 환멸을 초래하기 때문], 하나님(창조주)과의 집착, 그리고 고독을 통해 [이를 마음의 방치로 가능하게 하는 것]을 끝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영광은 모든 영적 야망을 죽인다.]. 한 [영적] 여행자 는 "나는 매우 높은 영적 성취를 가진 영지주의자인 압달에게 탐구의 길에 대해 물었다. 그는 '여행자가 어딘가에 머무는 것처럼 세상에 산다'고 답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위를 말해줘.' 그는 대답했습니다: '창조물을 말라. 그것들을 보는 것은 [영혼의 어둠]이다.' 나는 '그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마음이 굳어질 수 있으니까요.'라고 답했습니다. 나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두려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들과 어떤 거래도 하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나는 말했다: '그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과 함께 평생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들과 아무런 접촉도 하지 않을 수 있지?'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들과 함께 살지 마라.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은 파괴다'. 저는 '이 병도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심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보고, 무지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쓸모없는 사람들(영적 야망이 낮거나 전혀 없고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싶어 하십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영적 투쟁의 최고 수준: 영적 투쟁의 최고 단계는 영적 여행자(*무리드*)가 자신의 마음이 매 순간, 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느끼는 것이며, 이 단계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마음에서 비워야 달성할 수 있으며, 이는 오랜 기간의 [그리고 단호한] 영적 투쟁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인간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 신의 섭리의 위엄이 드러나고, 진리의 빛이 그 위에 비추며, 설명할 수 없는 고등 [영적] 영역의 모든 미묘한 차이가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여행자(무리드)에게 특별한 신적 은총이 내려지고 위에서 언급한 어떤 내용이 드러난다면, 그러한 영적 상태를 지켜야 합니다 [이는 매우 귀중하므로]. 이처럼 높은 영적 상태에 도달한 후, 많은 도둑들이 영적 길에서의 진보와 상승을 방해합니다. 영적 여정을 방해하는 가장 큰 도둑은 그러한 [내면의 영적] 상태를 일반 대중에게 경고와 조언으로 서술하기 시작하고, 설교와 공개 연설을 열렬히 원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잘못된 가정과 망상에 빠지면서, 영적 길의 최종 목적지가 이제 도달했고 내면의 영적 성취를 높은 내면 상태의 형태로 일반과 나눌 때가 되었다는 착각이 생기면서] 공공의. 이는 종종 그들을 돕기 위한 생각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하위 자아(*나프스*)가 위로, 명성, 명예, 명예, 그리고 그에 따른 환희와 물질적 이익을 추구합니다 [영성에 적대].

이 취미는 하위 자아(Nafs)에게 형언할 수 없는 쾌감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쾌락이 아니라 취기입니다. 인간은 이 취미에 완전히 몰두하여 자신의 이익과 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를 더 효과적이고 수용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멋지고 인상적인] 단어 선택, [다채로운 담론의 예술] 활동에 빠지고, 지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꾸란과 *하디스*(예언적 전술)에서 나온 이야기, 예시, 증거를 찾아 청중에게 제시합니다. 때때로 사탄은 이런 말을 머릿속에 심어줍니다: "당신의 이 일은 위대하고 엄청납니다. 당신의 연설은 죽은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영적 노력에 대한 무심함의 장막]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그분의 종들 사이의 중개자이며, 하나님의 창조물을 어떤 이익이나 숨은 목적을 위해 선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과

성실성의 정신으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속임수는 영적 여행자와 동시대인들 중 다른 누군가가 신에게 초대하고 가르침하는 같은 의무를 수행하면서 드러나는데, 이 사람도 웅변 능력 덕분에 대중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만약 그런 이에 대한 질투심이 영적 여행자의 마음에서 태어난다면, 설교는 순수한 쾌락을 위한 것이지 사람들의 발전이나 신의 보상과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목표가 경건했다면, 동시대 설교자에게 질투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신, 진리와 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향해 사람들을 초대하는 고귀한 일을 위해 추가적인 한 사람의 지지를 받았다면 기뻤을 것입니다. 마치 신원을 모르는 고인의 시신을 발견한 것과 같고, 매장 책임이 내 어깨에 떠오르는 것과 같다. 이 의로운 일에 협조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곳은 행복의 장소일까요, 아니면 질투의 장소일까요? 마찬가지로, 무심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실제로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들의 몸은 걷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영혼이 없습니다. 학식 있는 학자들과 [영원한] 진리에 초대하는 자들은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다. 진리를 부르는 자가 다른 초대자의 도움과 동반자를 받는다면, 그것은 슬픔의 원인이 아니라 위안이 되는 원인이지만, 세속적인 학자들과 설교자들은 그것을 위안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영토와 지배권 경계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합니다. 영적 여행자는 이를 피해야 하는데, 이는 신성한 그노시스의 계곡에 들어서는 사람들을 매복하는 사탄의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세속적인 사랑이 인간의 기질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존경받는 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بَلْ تُؤْثِرُونَ ٱلْحَيَوٰةَ ٱلدُّنْيَا

"... 대신, 당신은 세상의 생명(즉, 영원한 생명과 대조되는 덧없는 지상 존재)을 선호한다." (꾸란 87장 16절)

하나님은 또한 악과 부정적인 성향, 성향이 이전부터 인간의 기질을 지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이전 민족들의 신성하게 계시된 책과 두루마리에서도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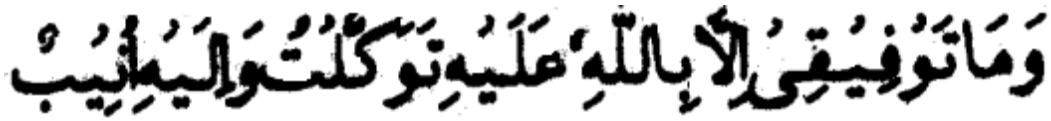
إِنَّ هَٰذَا لَفِي ٱلصُّحُفِ ٱلْأُولَىٰ ﴿١٨﴾ صُحُفِ إِبْرَٰهِيمَ وَمُوسَىٰ ﴿١٩﴾

"이것은 이전의 신성하게 계시된 책들, 즉 아브라함과 모세의 두루마리에도 존재한다." (꾸란 87장 18-19절)

이것은 영적 여행자의 영적 투쟁, 노력, 훈련에 대한 간략한 개요입니다. 이후 장에서는 어떤 [부정적이고 해로운] 내면의 특성을 제거해야 하며, 어떻게 달성하는지, 그리고 어떤 [숭고한] 내면의 특성을 마음속에 장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단계가 제공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 [내면의 성격] 특성 중 가장 지배적이고 압도적인 것은 위, 성기, 혀의 욕망이다. 그 다음에는 분노라는 특성이 그들을 지지한다. 이러한 욕망에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지면, 인간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사랑이 커지고, 부와 명성에 대한 욕망이 생겨난다. 이 욕망의 자궁을 통해 오만, 자기 의로움, 자기 과시의 세균이 태어나고, 인간은 그 안에 갇혀 해방되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습니다. 종교의 지배, 명성, 권력 수단이 있는 측면만 좋아합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과 민감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 두 장 마지막에 마음과 영혼(*Muhlikaat*)을 파괴하는 파괴적인 부정적 내면의 특성들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 논의는 다음 8권의 책 [또는 이 책의 다음 8장에 해당하는 4권 중 세 번째 권의 "*Ihya al-Uloom ad-Deen*" 또는 "하나님으로 가는 길에 대한 지식의 부흥" 장들]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첫째, 복부와 사적인 부위의 욕망; 둘째, 혀의 위험; 셋째, 분노, 원한, 질투; 넷째, 세속적인 행위와 그 속임수에 대한 비판; 다섯째, 부, 물질적 소유, 인색함에 대한 사랑; 여섯째, 과시(자기 중심적 특성 과시와 관련됨)와 명성에 대한 사랑; 일곱째, 오만과 자만심; 여덟 번째: 자기기만 상태. 이 여덟 권을 통해, 우리의 목적은 "*이히야 알-울룸 앗-딘*" 또는 "신으로 가는 길의 지식 부활" 3권에서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 책은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파괴하는 파괴적인 부정적 내면의 특성을 밝히고 이를 막는 조치를 취하는 데 관한 것입니다]. 앞선 두 장 중 첫 번째(가잘리는 이를 책이라고 부른다)에서 우리는 마음의 내면적 특성과 특성, 즉 마음의 전개를 명확히 했다. 마음은 모든 파괴적인 내면의 특성(*무흘리카트*)과 구원적이고 길한 생명과 성공을 부여하는 내적 특성(*문지야트*)의 근원이자 거주지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승리로

이끄는 것]. 두 번째 책(또는 현재 장)은 내면의 성격과 성향(*이흘락*)을 문명화하고 미화하는 방법론을 제공하며, 심장 또는 영혼의 질병과 병에 대해 완전한 회복을 위한 치료법을 처방했다. 이 논의는 짧았지만, 앞으로 다룰 장들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선한 의행을 가능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뿐이다. 나는 그분께 온 신뢰를 두고, 끊임없이 그분을 위해 모든 도움을 구한다."

3장- 하위 자아로부터 나오는 두 가지 압도적인 근본적 욕망의 지배를 깨기

가잘리의 대작 『이히야 알울룸 앗딘』 *또는 '신의 길에 대한 지식의 부흥' 중 세 번째 책* 은 음식에 대한 탐닉과 육체적 쾌락에 대한 탐닉이라는 두 가지 강압적인 욕망을 깨뜨리는 것을 다룬다. 이 두 욕망은 집착적인 성격 때문에 압도적이며, 건강을 위협하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무관심과 무관심을 심어주어 영적 노력과 노력에 대한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육체적 쾌락과 육체적 활동에 빠져들면서 영적 여정은 완전히 방해받아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긍정적인 노력을 위한 공간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육체적 쾌락 욕구는 타인에 대한 공감에 기반한 긍정적이고 이타적인 노력에 대한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집착은 이기심과 그 모든 치명적인 파장으로 이끕니다. 세계의 다양한 영적 전통에서 배고픔은 영적 행위의 도구로 사용되어 여행자들에게 길을 쉽게 만들어 왔습니다. 가잘리는 부분적 배고픔과 음식 절제의 우선성을 다시 강조하며, 이는 우리의 영적 노력을 촉진하는 도구로서 긍정적이고 이타적인 노력과 불행한 이들, 소외된 이들,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공감을 촉진합니다. 영혼의 명료함과 마음의 민감함이 저급한 욕망을 억제함으로써 발전하면, 타인의 고통과 괴로움을 자신의 모든 신경, 섬유, 원자에서 느끼게 됩니다. 타인의 병은 자신의 병이 되고, 타인의 슬픔은 자신의 슬픔이 되며, 타인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가 되고, 타인의 고통과 괴로움은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이 된다. 더 이상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며 냉혹한 태도를 유지하지 않고,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끊임없는 힘에 의해 고귀한 일에 이끌린다. 이것이 다시 영적 길에서의 상승을 촉진합니다. 가잘리의 이 책 "두 가지 [압도하는 근본] 욕망 [하층 자아에서]의 지배를 깨뜨리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됩니다 [9]:

아담의 자손들(즉, 인류 전체)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욕망은 위장의 욕망임을 알아두십시오. 이 때문에 아담과 이브[인류 전체의 아버지와 어머니](평화가 그들에게 있기를)는 천국에서 쫓겨나 이 세상으로 보내졌으며, 고난과 노력, 도전, 불쾌한 상황과 고통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한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고난, 슬픔, 굶주림, 병, 비극은 역설적으로 신성한 임재의 그늘 아래 진정한 천상의 기원으로 돌아가도록 돕습니다.]. 특정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금지되었으나 욕망이 그들을 이겨 결국 그 [금지된] 나무에서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 신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그때까지 숨겨져 있던 모든 잘못(수치심 문제)이 드러났습니다.

위장 - 모든 욕망, 정망, 압도적인 충동의 근원: 현실은 위가 모든 욕망과 기원, 그리고 모든 해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위장의 욕망은 육체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자극한다. 배가 가득 차면 과도한 육체적 쾌락에 빠지고 싶어집니다. 음식과 성관계에 대한 과도한 욕구는 명성과 물질적 소유(부)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명성과 부는 결혼 건수와 고급 식사 증가의 원천입니다. 부의 풍요와 명성의 과도함은 오만함을 낳고, [다양한 물질적 것에 대해] 경쟁에서 타인을 능가하려는 욕망을 낳으며, [물질적 소유, 명성, 권력에서 우월한 자들에 대한 질투심을 낳고, 그들의 태아에서 과시, 자랑, 교만과 같은 악행이 태어난다. 그 결과 원한, 적대감, 원한이 폭발합니다. 그 후 반역, 불순종(신의 인도와 명령에 따르면), 반란에 빠져 악과 방탕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들은 모두 위를 비우지 않은 결과이자 결과이며, 배부르게 먹는 오만함과 취취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나프스*)을 굶주림으로 굴욕 속에 두고, 사탄의 통로(혈액 순환을 위한 정맥)를 엄격히 경비하고 감시했다면, 결코 반항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의, 예의, 공익, 신의 명령에 반항].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만함, 과시(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기 과시), 신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반항의 길을 걷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속적 쾌락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았을 것이고, 영원한 사후보다 일시적(세상)을 선호하는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사냥개가 먹잇감을 노리듯 세속적 재산과 부를 덮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장욕의 해악은 매우 위험하고 치명적이어서, 하나님의 종들(모든 인간)에게 그 위험성과 방어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성적 욕망도 마찬가지로 위장의 욕망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 논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도움과 능력으로 [이 장]의 몇 부분에서 마무리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굶주림의 우수성과 폭식에 대한 비난이 설명되고, 그 후 [굶주림]의 이점에 대해 언급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식사를 줄이고 식사를 미루는 방식으로 배에 대한 욕구를 없애려는 영적 노력 방법을 설명할 것입니다. 기아의 이점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상태 차이도 언급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사적인 부위의 욕망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영적 여행자가 결혼해야 하는지 여부는 나중에 설명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위, 성기, 눈의 욕망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우수함을 언급할 것입니다.

굶주림의 탁월함과 탐식의 비난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의 굶주림에 관한 전통은 다음과 같습니다:

جاهدوا انفسكم بالجوع والعطش فان الاجر فى ذالك كاجر للمجاهد فى سبيل الله فانه ليس من عمل احب الى الله من جوع وعطش

"영적 투쟁과 갈망(*나프스*)을 배고픔과 갈증으로 수행하라. 이는 하나님의 길에 따라 [정당한] 외부 공격에 맞서 생명, 자유, 재산, 평화를 지키는 자기방어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신성한 보상을 받으니까. 그것은 굶주림과 갈증보다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행위는 없기 때문입니다."

압둘라 빈 압바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로부터 이렇게 전합니다:

لا يدخل ملكوت السموات من ملا بطنه

"천상의 천사들은 배를 채우는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는다 [이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모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나타낸다]."

البسوا وكلوا واشربوا في انصاف البطون فانه جزء من النبوة

"가려야 할 옷을 입고, 반쯤 비운 상태로 먹고 마시라. 이것이 예언자의 일환이다."

الفكر نصف العبادة وقلة الطعام هي العبادة

"관상은 숭배의 절반이고, 적은 음식을 먹는 것이 완전한 숭배입니다."

افضلكم عند الله منزلة يوم القيامة اطولكم جوعا وتفكرا في الله سبحانه وابغضكم عند الله عز وجل يوم القيامة كل نوام اكول شروب

"심판의 날에는, 가장 높은 계급의 사람이 자주 배고프고 하나님을 풍성하게 묵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판의 날, 그 사람은 자주 자고, 많이 먹고, 많이 마시던 하나님의 눈에 낮게 보일 것이다."

لا تميتوا القلب بكثرة الطعام والشراب فان القلب كالزرع يموت اذا اكثر عليه الما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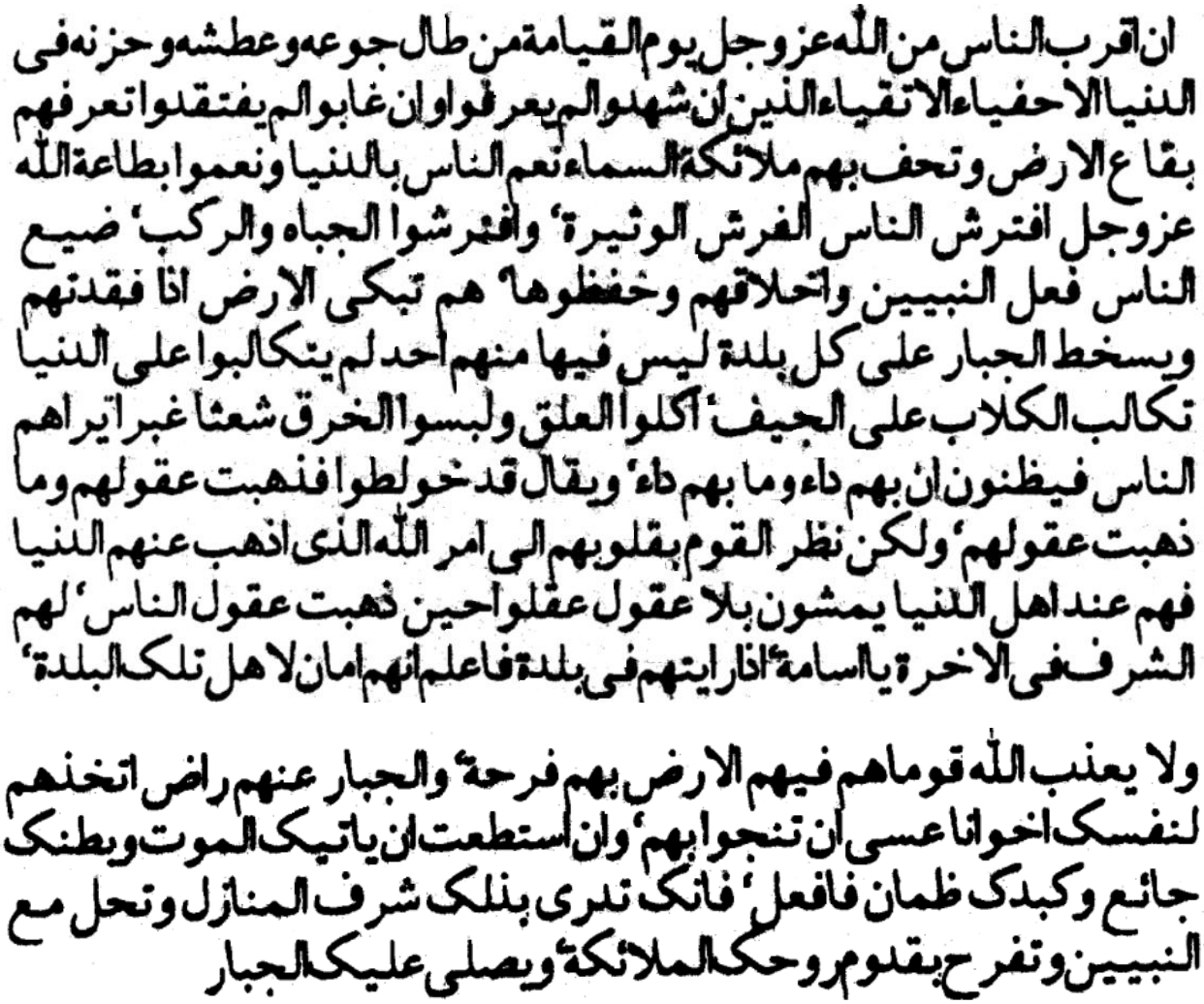
"음식과 음료를 과하게 먹어 마음을 죽게 하지 마라. 이것은 심장이 농지와 같기 때문이다. 과도한 물로 관개되면 파괴되기 때문이다."

ما ملا ابن آدم وعاء شرا من بطنه حسب ابن آدم لقيمات يقمن صلبه وان كان لا بد فاعلا فثلث لطعامه وثلث لشرابه وثلث لنفسه

"아담의 아들(즉, 인간)은 위보다 더 나쁜 식기를 채운 적이 없다. 아담의 아들에게는 몇 입 정도면 등 곧게 펴는 데 충분하다. 만약 위를 채워야 한다면, 위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 음식용으로, 위(위의 3분의 1)를 음식용으로, 1부분은 물용, 그리고

호흡용으로 1부분(즉, 위의 3분의 1은 비어 있어야 호흡이 편하고 과도한 식사와 음주를 피하여 신체 건강에 긍정적인 의학적 효과를 가져야 합니다)." (이 전통은 *예언자 동료 미크담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 집 티르미디에 전해진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우사마 빈 자이드와 아부 후라이라(신께서 그들에게 기뻐하시길)가 전한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의 오랜 전통에 따르면:


ان اقرب الناس من الله عزوجل يوم القيامة من طال جوعه وعطشه وحزنه في
الدنيا الاخفياء الاتقياء الذين ان شهدوا لم يعرفوا وان غابوا لم يفتقدوا تعرفهم
بقاع الارض وتحف بهم ملائكة السماء نعم الناس بالدنيا ونعموا بطاعة الله
عزوجل افترش الناس الفرش الوثيرة، وافترشوا الجباه والركب، ضيع
الناس فعل النبيين واخلاقهم وحفظوها هم تبكى الارض اذا فقدتهم
ويسخط الجبار على كل بلدة ليس فيها منهم احد لم يتكالبوا على الدنيا
تكالب الكلاب على الجيف، اكلوا العلق ولبسوا الخرق شعثا غبرا يراهم
الناس فيظنون ان بهم داء وما بهم داء، ويقال قد خولطوا فذهبت عقولهم وما
ذهبت عقولهم، ولكن نظر القوم بقلوبهم الى امر الله الذى اذهب عنهم الدنيا
فهم عند اهل الدنيا يمشون بلا عقول عقلوا حين ذهبت عقول الناس، لهم
الشرف في الاخرة يا اسامة اذا رايتهم في بلدة فاعلم انهم امان لاهل تلك البلدة،
ولا يعذب الله قوما هم فيهم الارض بهم فرحة والجبار عنهم راض اتخذهم
لنفسك اخوانا عسى ان تنجوا بهم، وان استطعت ان ياتيك الموت وبطنك
جائع وكبدك ظمان فافعل، فانك تدرى بذلك شرف المنازل وتحل مع
النبيين وتفرح بقدوم روحك الملائكة ويصلى عليك الجبار

"심판의 날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며, 그들은 더 굶주리고, 갈증이 들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지위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후회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 숨겨진 *무타큔*(경건한 경외심과 경외심, 신에 대한 경외심을 깊이 뿌리내리는 자들)이라 만약 그들이 존재해도 아무도 그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들이 떠나 있을

때는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을 것이다. 땅의 모든 입자가 그들을 잘 알고 천사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어도.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기타] 사람들은 부드럽고 편안한 침대에 누워 [밤새 평화롭게 잠들며] 이마를 엎드리고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헌신의 행위]를 합니다. [기타] 사람들은 예언자들의 고귀한 길과 고귀한 성품을 낭비하면서도 그들은 그들을 보호해 왔습니다 [영혼 깊숙이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지상 존재를 떠나며] 떠날 때 땅은 그들을 위해 울고, 신의 분노(불쾌)는 그들 중 누구도 없는 도시에 내려진다 [그들이 살던 곳에서 신성한 축복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개가 시체에 빠진 것처럼 세속적인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음식만 먹고, 낡고 찢어진 옷을 입으며, 흐트러진 상태로 산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 아마도 어떤 병에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병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멍청이(멍청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속 사람들이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멀리한 지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성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성은 과도한 욕망이나 감정적, 심리적, 기타 고통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멀어질 때도 유지합니다. 오 우사마! 명예와 탁월함은 내세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어느 도시에서든 그들을 보면, 그 도시에 평화를 선언하는 칙령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를 환난에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지구는 그들과 함께 행복하고 하나님도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들을 형제로 삼으세요. 어쩌면 그들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시간이 왔을 때 배가 고프고 신장이 목마르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너는 내세의 단계별로 명성을 얻게 될 것이며, 예언자들과 함께 살 것이며, 천사들은 네 영혼이 [천상의 기원으로 돌아왔음]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이 전통은 카 *티브의* 『키탑 우스-주흐드』와 이븐 알-자우지의 *『알-마우두아트』*에서 예 언자 동료 우사마 빈 자이드와 아부 후라이라[신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길]의 권위에 *따라 전해졌으며 , 이는 하피즈 이라크의 하디스 진위 확인에 따른 것입니다.* 가잘리의 저서 『신으로 가는 길의 지식 부흥』에 언급됨)

예수 그리스도(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께서 제자들과 조력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배를 고프게 하고 몸을 벌거벗게 하라[겸손함과 *샤리아*(신성한 법)에 따라

가려야 할 부분을 반드시 가리라], 그래야 마음이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힘을 키우라[육체적인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비슷한 전통은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에서 전해지며, 타우스가 전합니다. 토라(예언자 모세에게 계시된 또 다른 신성한 책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비만이 하나님의 무심함과 과도한 음식 탐닉의 표시로 보여 하나님께서 비만한 학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 학자들에게 나쁜 습관입니다. 또 다른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의 전통에는 다음과 같은 말 씀이 있습니다:

ان الشيطان يجرى من ابن آدم مجرى الدم فضيقوا مجاريه بالجوع والعطش

"사탄은 아담의 자손들(인간)의 혈관을 흐르고 있습니다 [혈액 순환을 통해] 굶주림과 갈증으로 그의 통로를 좁게 만들라." (이 전통은 *하디스* 모음집 *『이븐 아비 앗-둔야』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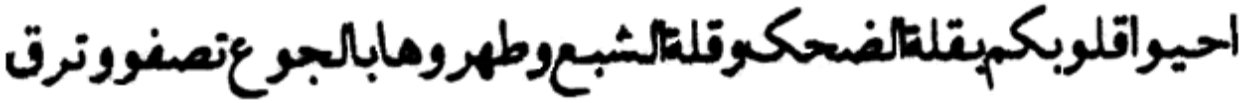
아이샤(신께서 그녀를 기뻐하시길) [예언자의 아내]는 말했다: "무함마드 예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결코 배불리게 먹지 않았다. 가끔 나는 그의 배고픔의 흔적을 보고 울었고, 그의 배에 손을 얹으며 말하곤 했다: '내 인생이 너희에게 다가가길! 최소한 힘을 주고 배고픔을 없애는 양은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오, 아이샤! 과거의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모세, 요한, 예수(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와 같은 저의 결연한 형제 예언자들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시련과 고난, 고난에도 인내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임재에 들어왔을 때, 엄청난 [신성하게] 보상과 무한한 존경, 그리고 고귀한 지위를 받았습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보다 낮은 수준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며칠 짧은 삶의 위안을 누리면서요. 내일 내일 내세에서 줄어드는 몫을 받는 것보다 며칠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고난을 견디는 것이 나아지고, 나는 친구들과 형제들(과거의 위대한 예언자들)과 함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샤(신께서 그녀를 기뻐하시길)는 "이 대화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일시적인 존재에서 신성한 임재 안의 영원한 거처로 돌아가면서]."

굶주림의 이점과 폭식의 해악

배고픔의 탁월함에 관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배를 아프게 하는 행위의 탁월함이 이렇게 많은가? 만약 고통과 고난(예: 배고픔)을 겪는 것이 좋은 일이었다면, 막대기로 자신을 때리거나 싫어하는 음식을 먹는 등 다른 형태의 행동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왜 위장에 고통을 주는 것이 선행으로 선언되고 모든 선행의 근거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배고픔이 약과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의학으로 건강해지고 의학의 쓴맛과 불쾌함 때문에 건강을 얻었다고 추측하며, 모든 쓴맛과 불쾌한 것이 유익하다고 결론 내린다면, 그 쓴맛이 건강에 효과적이지 않고 오직 의사들만 아는 특정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배고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 학자들은 그 이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성한 법칙에서 굶주림의 우수함을 믿으면서도 배고픔을 유지하는 자는 굶주림의 이점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이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신념의 수준에서 지식의 수준[그리고 그에 따른 확신]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픔의 이점이 설명될 것입니다. 여기서 따로 설명한 배고픔의 열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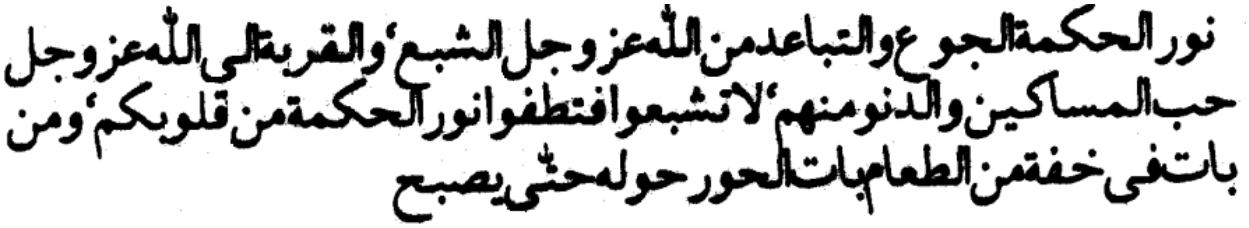
첫 번째 이점 – 마음의 순수성, 명료함, 명확함(*사파 알-칼브*): 마음의 순수함, 명료함, 명확함은 내면의 예지력과 사물의 현실을 꿰뚫어보는 능력(*바세라*)의 완성을 포함합니다. 탐식은 정신의 둔화를 일으키고, 마음의 빛은 줄어들며, 마음은 어두워지고, 취한 물질에서 나오는 증기와 같은 기체가 뇌를 통해 퍼져 사색할 여지를 남기지 않게 하며, 마음은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모든 사고와 이해 능력이 감소한다. 더 많이 먹고, 기억력이 약해지며, 정신이 흐려지고 지능이 둔해진다. 아부 술레이만 알-다라니(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 [유명한 영지주의자이자 성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굶주림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낮은 자아(*나프스*)를 굴욕스럽게 하며, [모든 저급하고 부정적이며 해롭고 사악한 성향, 성격과 내면의 특성에 기울어짐]을 모욕하게 하고, 마음에 부드러움을 만들어 [냉정함, 무정함, 오만함, 이기심과 대조적으로] 천상의 지식(신성한 영지의 상태에서 오는 지식)의 계승자가 될 수 있게

하라. *마리파*)".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웃음과 식사를 줄이고, 배고픔으로 마음을 정화하라. 그들은 깨끗하고 부드러울 것이며 [이는 영적 길에서의 상승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블리(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 (유명한 성인이자 영지주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순수하게] 배고픈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혜와 학문의 풍경이 열렸다."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신*성한 지식과 영적* 영지(마리파), 영적 *실재*(하카-이크)의 영적 드러남(*카슈프*)으로 이끄는 관상의 취득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탐식은 이 길(영적 완전함과 성취)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다. 굶주림은 신성한 지식과 영지(*마리파*)의 문을 열어주며, 그것이 다시 천상의 낙원으로 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 점에서 굶주림은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역할을 한다. 루크만(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 (예언자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 중 유명한 성인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 아들아! 배가 부르면 명상의 힘은 잠들고, 지혜는 무뎌지며, 팔다리는 [신성한] 예배를 위한 능력과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유명한 성인이자 영지주의자인 바야지드 알-부스타미(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는 "하나님의 종이 배고플 때, 지혜는 마음에서 비처럼 쏟아져 나온다"고 말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의 빛은 [허기를] 통해 얻어지며,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는 이유는 탐식이다. 하나님의 가까움과 가로 움(*꾸르브*)은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데 있습니다. 배부리게 먹지 마세요, 그러면 마음속 지혜의 촛불이 꺼질 것입니다. 위장이

가벼운 사람은 아침까지 천상의 동반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육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 전통은 *예언자 동료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 집 아부* 만수르 앗-다일라미에서 전해집니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두 번째 이점 – 마음의 부드러움과 온순함: 마음은 배고픔에 의해 부드러워지고, 신성한 기억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이 태어납니다. 많은 경우, 신성한 기억은 마음의 존재와 함께 있지만 기쁨은 없고 마음은 감동받지 못합니다. 마치 마음과 신성한 기억 사이에 '*카사와*' 또는 '마음의 단단함과 둔감화'라고 부를 수 있는 장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너무나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가득하여 신성한 기억에서 큰 기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쾌락을 얻는 가장 명백한 이유는 배고픔 상태에서 위가 텅 빈 상태입니다. 주나이드(위대한 성인이자 영지주의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은 "어떤 사람들은 음식의 탐닉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신과의 친밀한 대화의 달콤함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부 술레이만 알-다라니(위대한 성인이자 영지주의자, 신의 자비가 그에게 가득하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배고프고 목마를 때, 마음은 맑고 부드러워진다; 배가 가득 차 있으면 심장이 실명하고 탁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세부 사항에서 알 수 있듯이, 신성한 존재 또는 영지(*마리파*)에 대한 관상의 용이함과 지식과 친밀감은 한 가지 문제이며, 그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이점 – 겸손과 마음의 평온함: 배고픔의 세 번째 이점은 겸손과 평온함을 불러일으키며, 세속적 쾌락에 대한 오만함과 희열이 끝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무심함의 근원입니다. 하위 자아(*Nafs*)는 배고픔 외에는 부드럽거나 굴욕을 느끼지 않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신성한 기억의 상태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절실히 돌아가며, 순종하며 겸손하고 온유하게 지냅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하게 하여 주변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배고플 때는 힘이 약해지고, 빵 한 조각과 물 한 모금이 없으면 삶이 제한됩니다. 인간이 자신의 굴욕과 약함을 목격하지 않는 한, 자신의 주님의 위대함과 위엄, 압도적인 영향력을 고백하여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게 하지 않는다. 인간의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사아다*)은 굴욕과 무능력의 눈으로 자신의 낮은 자아(*나프스*)를 지켜보는 데 있다; 그리고 신성한 영광과 전능한 능력의 눈으로 하나님을 목격하며,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절히 바라며, 이 간접함과 동요에서 기쁨을 찾는다. 그래서 세상의 보물이

무함마드 예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신의 전능함에 따라] 앞에 놓였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لابل اجوع يوما واشبع يوما فاذا جعت صبرت و تضرعت واذا شبعت شكرت

"아니 (원하지 않아)! 대신, 하루는 [금식 상태에서] 배고픔을 유지하고, 다른 날에는 먹습니다. 배고플 때는 인내하며 주님 앞에서 울리겠습니다(오 하나님!) [전하의 완전한 간절함 속에서, 폐하와 권능에 복종하며 절하며] 그리고 [내가 식사하는 날에] 나는 당신께 깊은 감사를 표할 것이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집 *티르미디*)

위장과 성기는 모두 지옥으로 가는 문이며, 지옥으로 가는 길은 탐식을 통과합니다. 겸손과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천국으로 가는 문이며, 그 길은 굶주림을 통과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문 하나를 닫는 자는 분명히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열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동서방처럼 서로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한쪽과 거리를 두면 한쪽이 다른 쪽으로 더 가까워진다.

네 번째 이점 – 신의 응징을 기억하고 고난과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상태에서 교훈을 얻는 것: 네 번째 이점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신의 벌을 잊지 않고,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기억한다는 점입니다. 배부르면 배고픔을 잊을 수 있습니다. 지적인 사람은 누군가가 고통에 빠진 것을 보고 내세의 고통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목이 마르면 심판의 날에 사람들이 목마름에 시달리는 것을 상상해야 합니다. 배고프다면, 지옥의 주민들의 배고픔을 상상해야 한다; 배고프고 목마르면 가시나무를 먹고 고름과 피를 마신다. 내세의 벌과 그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종(즉, 인간)의 눈에서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되며, 이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며(모든 형태의 악과 잘못을 억제하는 수단이며), 따라서 신중하게 행동하여 죄로부터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굴욕이나 경제적 어려움, 어떤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내세의 벌을 무심코 하고 방치하게 된다. 또한 내일 심판의 날에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어느 곳에도 남지 않으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 어떤 걱정이나 시련에 시달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걱정과 시련은 관찰 속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고통을 일으키는 가장 큰 시련과 걱정은 배고픔에 대한 걱정입니다.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지만 배고픔은 견딜 수 없습니다. 굶주림에는 내세의 벌을 기억하는 것 외에도 무수한 이점이 있습니다. 예언자들과 성인들(영지주의자와 하나님의 가까운 이들)이 겪는 시련과 고난의 비밀은, 이러한 시련을 통해 내세가 항상 그들 앞에 머물며, 내세에 대한 끊임없는 기억과 상상이 그들의 영적 계급을 발전시켜 [신께 영적 승천을 이끌어내며]라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예언자 요셉에게 물었습니다(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이집트의 금고의 열쇠가 네 손에 있는데 왜 굶주리느냐?" 그는 "배부르게 먹다 보니 굶주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소홀히 할까 두렵다"고 답했다.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로 인해 그들을 돕게 되는 것은 또한 기아의 무수한 이점 중 하나로, 사람들에게 친절과 자비를 갖고 먹이를 주고자 하는 마음과 감정을 키워줍니다. 배부르움을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굶주린 이들의 고통을 깨달을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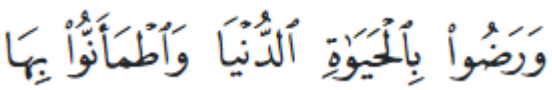
다섯 번째 이익 – 악을 부추기는 욕망의 제거와 하위 자아의 굴복(*나프스 알-아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점입니다. 모든 죄[및 잘못]의 근본은 욕망과 인간의 능력(신체 기관과 내면 기능 모두)이며, 이는 음식에 의해 도움을 받습니다. 음식 섭취가 줄어들면 욕망과 탐욕이 약해지고, 신체적 힘도 [결과적으로]약해집니다. 행운의 완성(*사아다* 또는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은 하층 자아(*나프스*)를 지배하는 것이며, 불운의 완전성(샤*카와*, 영원한 슬픔, 저주, 끝없는 실패)은 하층 자아가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다. 야생 반항적인 말이 물과 사료를 빼앗아 길들여지는 것처럼, 반항적이고 완고한 하위 자아도 굶주림에 굴복한다. 말이 반항적이고 많이 먹고 마시면 반항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합니다. 하위 자아(*나프스*)도 마찬가지로, 특히 좋아하고 원하는 음식을 먹을수록 더 반항적이고 불순종적으로 변합니다. 누군가가 현자(영지주의자이자 신과 가까운 인물)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매우 약하며 인생의 섬세한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왜 음식으로 몸을 돌보지 않나요?" 그는 대답했다: "형제여! 이 몸은 금세 자존심을 느끼고, 고삐가 조금만 느슨해지면 새로운 장난기 짓을 시작한다. 나는 음식으로 키우지 않아서 반항적으로 나를 파멸에 빠뜨리지 않도록 해. 그것 때문에 죄에 휘말리기보다는 엄격하게 대하는 편이 관용을 보이지 않는 것이 낫다." 둔 눈 알-미스리(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 유명한 이집트 성인이자 영지주의자)는 "내가 배불리 먹을 때마다 어떤

죄에 빠지거나 그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아이샤(예언자 무함마드의 아내, 신께서 기뻐하시길)는 이렇게 말했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죽은 후(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첫 번째 혁신(*비다* 또는 신앙의 확립된 원칙에 반하는 새로운 사안)은 포만감(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는 것)의 형태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 그들의 하위 자아(*누푸스*)가 반항을 일으키고, 그들의 고삐는 내세의 방향에서 세속으로 끌려 나간다." 이것이 기아의 유일한 이점은 아니며, 오히려 이 한 가지 이점 안에 수많은 잠재적 이익이 내재되어 있어 '이익의 보물창고'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것은 굶주림이 하나님의 보물에서 나온 보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의 가장 작은 이점은 사적인 부위에 대한 욕망도, 말하기의 욕망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배고픈 사람의 마음은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짓말, 뒷담화, 음란, 뒤에서 불평하는 등 발언의 해악[과잉과 욕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배가 부른 사람은 유머를 생각한다. 사람을 모욕하는 것(즉, 존엄성을 훼손함으로써)으로 유머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사람들은 혀의 수확을 거두어 지옥에 갈 것이다. 간통의 악이 드러난다. 배고픈 사람도 그 악으로부터 보호받는다. 배가 가득 차면 욕망이 떠올라 성기를 통제하지 못한다. 만약 신에 대한 두려움(*타크와*)이 그들의 욕망 성취를 방해한다면, 눈의 간통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눈을 감으면 심장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욕망] 암시들이 그것을 동요하게 만들고, 외설적이고 음란한 생각을 떨쳐내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때로는 이런 생각들이 기도와 간청으로 얻는 평화와 평온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혀와 성기의 해로움은 [탐식으로 인한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곱 기관의 죄의 원인은 탐식을 통해 얻는 동일한 권능이다.

여섯 번째 이점 – 잠 못 먹는 힘과 잠 못 이루는 능력: 덜 먹으면 잠 못 자게 됩니다. 더 많이 먹는 사람은 더 많은 물을 마시게 되고, 그것이 결국 졸음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 지도자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오, 진리를 찾는 이들의 집단이여! 많이 먹지 마! 더 많이 먹으면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마시면 더 많이 자게 되고, 더 자면 [이른 아침 예배로 얻을 수 있었던 영적 이익을 스스로 빼앗는 것과 관련해] 더 많은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70명의 영지주의자들은 더 많은 물을 마실수록 더 많이 자고, 더 많이 자면 삶이 더 낭비된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이른 아침 기도(영적

발전에 공로가 있는 *타하주드* 기도)는 [과도한 수면의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질이 게으르고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생명(또는 가진 평생)은 매우 귀중한 보석이며, 인간의 진정한 자산(자본)은 바로 이 생명이며, 이를 통해 내세를 위해 사업과 거래를 합니다. 잠은 죽음과 같다; 그 과잉은 생명의 자본을 줄여줍니다. 잠을 지배하면서도 이른 아침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 달콤함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요컨대, 과도한 수면은 많은 해를 초래하고, 탐식은 잠을 유발하며 배고픔이 그것을 끝냅니다.

일곱 번째 이점 – 예배에서의 지속 수월함: 탐식은 과도한 예배에 장애물이 되며, 식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음식을 사서 필요할 때 요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식사 후, 손 씻기, 식사 중과 식사 후에 물 마시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 모든 [소중한] 시간이 신성한 기억, 간구, 그리고 다른 예배 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면, 엄청난 이익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은 너무나 정교한 보석이라 그 가격은 시간의 시장에서 정할 수 없다. 낭비하기보다는, 그 보물로 내세에 영원하고 영원한 상태로 남을 보물을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사업 거래는 하나님의 기억과 순종에 시간을 쓰면서 마무리됩니다. 탐식에 익숙한 사람은 정결 상태(기도와 같은 특정 예배 행위에 필요한 정결 상태)에 머무르지 못할까 봐 불안하며, 자주 물을 마시고 용변을 보기 위해 예배에서 벗어나야 하므로 모든 시간을 예배에 쏟을 수 없습니다. 탐식에 익숙한 사람은 쉽게 금식할 수 없는데, 단식은 굶주림에 익숙한 사람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식, 신성한 예배를 위한 영구적인 고독, 영원한 정결(또는 많은 예배 행위의 전제 조건인 정화 상태), 음식을 구하는 데 쓰는 시간을 예배에 사용하는 것들은 부주의한 사람만이 무시할 수 있는 큰 이점들입니다. 꾸란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삶에 만족하고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물질주의적이고 쾌락적인 삶만이 존재하며, 특히 비물질적이고 더 높은 영적 영역에서는 그 너머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꾸란 10장 7절)

يَعْلَمُونَ ظَٰهِرًا مِّنَ ٱلْحَيَوٰةِ ٱلدُّنْيَا وَهُمْ عَنِ ٱلْأَخِرَةِ هُمْ غَٰفِلُونَ

"그들은 이 세상의 삶의 외면(물리적 영역)에만 알고, 내세에는 무관심하다." (꾸란 30장 7절)

아부 술레이만 알-다라니(유명한 영지주의자이자 성인, 신의 자비가 그에게 가해지길)는 탐식의 여섯 가지 해악을 언급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배를 불러 먹는 사람은 여섯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는다: 친밀한 신성한 대화의 달콤함을 잃고, 지혜의 핵심을 기억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마음속에 남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배가 배가 불렀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배가 배가 부른다고 추측하기 때문이다. [신성한] 예배는 그런 사람에게 어려워지고, 욕망이 커지며, 가장 큰 손실은 모든 신자가 신성한 예배의 거처로 끌리고, 그런 신자는 식당으로 끌린다는 점입니다."

여덟 번째 이점 – 건강: 적게 먹는 사람은 건강을 유지합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폭식의 결과로 발생하는데, 더 많이 먹으면 위와 정맥에 나쁜 음식물이 쌓이고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예배할 수도 없고, 평온하게 신성한 기억을 할 수도 없으며, 항상 불안하고 동요하여 삶의 즐거움(평화, 고요, 목적 있는 삶)이 파괴됩니다. 아픈 사람은 수술, 약, 의사가 필요하며, 이 필요는 돈 없이는 충족될 수 없습니다. 탐식은 몸과 마음 모두를 걱정스럽고 약하며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걱정은 과도한 음식 섭취로 인한 자해와 질병에 대한 의료 치료법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 이는 돈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인내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모든 종류의 음식을 과하게 먹고 싶은 충동에 충동]을 가지고 적은 양의 음식에 만족했다면, 이런 부주의로 인해 생기는 많은 걱정들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의 한 현명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이 더 이상 생길 가능성이 없는 약은 진정한 욕구가 생길 때까지 먹지 말고, 아직 먹고 싶은 욕구가 남아 있을 때는 손을 들여 먹는 것이다." 아래에서 무함마드 예언자의 조언(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이 책 속 사람들(즉, 유대교 또는 기독교 전통의 철학자)에게 언급되었습니다:

ثلث طعام، وثلث شراب، وثلث النفس

"[먹을 때, 위 공간은 3분의 1은 음식, 3분의 1은 물, 3분의 1은 호흡을 위해 비워두는 식으로 나누어야 한다."

철학자는 이에 완전히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보다 더 정확하고 유익한 음식은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현명한 자의 말이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البطنة أصل الداء والحمية أصل الدواء، وعودوا كل جسم ما اعتاد

"질병의 진짜 기원은 탐식이고, 진짜 의학은 예방이다. 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세요(즉, 과도한 음식 섭취, 건강에 해로운 음식과 음료, 약물, 중독 물질 등에 몸이 해롭게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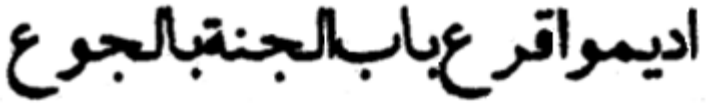
개인적으로 저는 그 철학자가 위의 예언적 서술에 더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븐 살림은 "올바른 예절로 밀빵을 먹으면 절대 아프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절을 지키며 식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배고프고 나서 먹고 배부르기 전에 멈추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부 전문가 의사들은 폭식을 비난하면서도 "위로 들어가는 가장 유익한 것은 석류이고, 가장 해로운 것은 소금이지만, 소량의 소금 섭취가 석류를 과도하게 먹는 것에 비하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의 전통에 따르면:

تصوموا تصحوا

"금식을 지키면 건강해질 것이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수집 *타바라니 아우삿* 예언자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이슬람에서 금식은 새벽(해가 뜨기 훨씬 전, 아직 어두운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모든 음식, 음료, 결혼 관계를 완전히 피하는 것을 기본적인 수준에서 말하며, 더 높은 수준에서는 거짓말, 속임수, 다툼, 욕설, 부정직함, 그리고 모든 형태의 해롭고 해로운 생각 행위 등 모든 도덕적 악습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 말,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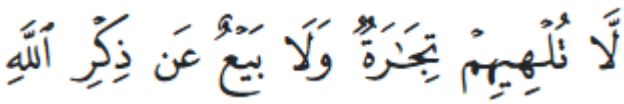
이를 통해 금식, 배고픔 유지, 식사 감소를 통해 몸에 치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에 대한 약물(부흥, 재생, 정화, 힘을 위한 약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이 [금식과 적은 식사를 통해] 억제된다면, 마음은 반항(모든 부정적이고 해롭고 해로운 행동)이나 [인류의 복지와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신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이점 – 지출 감소: 덜 먹는 사람은 적은 재산과 소유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위장은 모든 탐욕 투쟁의 중심이자 중심이며, 위장이라는 지옥을 채우기 위해 온갖 고안과 계획을 세우고, 온갖 굴욕을 쌓으며, 합*법적(*할랄) 의미(돈과 생계 창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불법적이고 금지된 (*하람*)을 채택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벌는 데에는 죄가 있으며, 허용되는 방법으로 벌 때는 굴욕, 걱정,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수입은 탐욕 없이는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수입원으로] 어디를 봐도 탐욕이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탐욕은 극도의 굴욕이다. 신자는 지출이 줄어드는 사람이다. 현명한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종종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내 욕구를 채웁니다. 이것은 마음에 큰 만족을 준다"고 말했다. 한 현명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할 때, 나는 나 자신(*Nafs*)으로부터 그 욕망을 포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대출을 받고, 내 자신이 큰 대출을 준다." 이브라힘 빈 아드함(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은 동료들에게 다양한 필수 식품의 가격을 물었고, 비싼 물건을 언급하면 그것을 버려서 싸게 만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사흘 빈 압둘라 알-투스타리(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했다: "많이 먹는 사람은 세 가지 상황에서 나쁜 것이다: 예배자들 사이에 있으면 더 많이 먹으면 게을라진다; 특정 직업에 능숙한 사람 중 하나라면, 고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으며; 수입이 있다면, 마음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정신적 열망과 국가를 보호함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탐욕(부와 물질적 소유)은 그 파괴의 실제 원인이며, 이 탐욕은 위와 성기 때문에 태어나며, 사적인 성기에 대한 욕망의 진짜 원인은 위입니다. 덜 먹으면 사적인 부분에 대한 욕망도, 세상의 탐욕도 사라진다. 세상(부와 물질적 소유)에 대한 탐욕은 지옥의 문이다. 이 문이 닫히면, 천국으로 가는 문이 열립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굶주림을 통해 천국의 문을 계속 두드리라".

한 개의 빵(오히려 얇은 피타 빵 하나)에 만족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모든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만족 속에는 자아와 의식의 해방과 자유, 사람들이 가진 것에 대한 무지함(그리고 해를 끼치거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것)에서의 무지함, 내면의 위안(마음의 평화와 평온), 하나님을 예배할 능력, 그리고 내세를 위한 거래에 참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음 구절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거래(매매, 파는 및 세속적 삶과 덧없는 삶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다른 세속적 활동)로 인해 하나님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꾸란 24장 37절)

이 사람들은 세속적인 일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을 무심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습니다(즉, 세속적인 얽힘과 정박에 마음을 붙이지 않지만, 세속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존하는 사람들(즉, 세속적인 일에 마음을 기울이고 영혼을 희생하면서까지 완전히 몰입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무심하고 무지하며, [그 목적이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승리로 이어지는 삶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 무지합니다.

열 번째 혜택 – 자선 및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지출: 덜 먹는 것의 한 가지 이점은 사용하지 않는 음식을 고아와 빈곤층에게 자선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선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출하는 데 익숙한 사람은 무함마드 예언자의 여러 고귀한 전통에 언급된 것처럼 자신의 자선의 그늘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더 많이 먹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과도함] 음식은 소비 후 인간의 배설물이 되어 폐기물의 보물창고에 보관되고, 자선으로 주어진 음식은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보관됩니다. 남은 인간의 부와 [물질적] 소유물은 오직 하나님의 길에서 사용된 것들뿐입니다. 그 외에는 소비된 모든 것이 소멸(끝나게 됨)하며, 그것이 소비되었거나 옷 형태로 입었든 마찬가지입니다. 하산 알-바스리(하나님께서 그를

자비로 여기시길 - 위대한 영지주의자이자 성인)는 꾸란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낭송했다:

إِنَّا عَرَضْنَا ٱلْأَمَانَةَ عَلَى ٱلسَّمَٰوَٰتِ وَٱلْأَرْضِ وَٱلْجِبَالِ فَأَبَيْنَ أَن يَحْمِلْنَهَا
وَأَشْفَقْنَ مِنْهَا وَحَمَلَهَا ٱلْإِنسَٰنُ ۖ إِنَّهُۥ كَانَ ظَلُومًا جَهُولًا

"우리는 이 신뢰를 하늘과 땅에 바쳤지만, 그들은 그 책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인간이 이 책임을 스스로 떠맡았어요. 한 명(즉, 인간)은 [의심할 여지없이] 억압적이고 무지하다." (꾸란 33장 72절)

그는 이어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별들로 장식된 일곱 하늘에 이 [신성한] 신뢰의 짐을 짊어지라고 하시며 말씀하셨다: '이 신뢰와 그 안에 담긴 것을 기꺼이 짊어질 의향이 있습니까?' 그들은 '이 신탁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악을 행하면 벌을 받게 되고, 선을 행하면 [훌륭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이 신뢰를 지킬 수 없다'고 했다. 그 후 이 신뢰가 지구에 제안되었지만 지구도 거부했다. 높은 산들도 요청받았고, 그들은 이 신뢰를 지키지 못하고 부족함을 표현하는 데 평화를 찾았다. 인간이 [이 세상에 오기 전 영혼의 영역에서]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을 억압하는 태도(*나프스*)를 느끼고 이 신성한 명령 뒤에 숨겨진 지혜를 알지 못해 이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맙소사! 우리는 이제 인간의 억압과 무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를 대신해 신앙을 팔고, 무덤을 좁히고 좁히는 대신에 집의 광대함과 화려함을 늘리기 위해 풍부한 수입을 벌며(즉, 내세에서의 삶을 망치는 것), 전통적으로 자부심과 명예, 사회적 지위의 원천이었던 동물(승마 탈것)을 살찌게 하여 *신앙*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과 그분과의 관계) 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침저녁 왕(명성과 권위를 가진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결과] 자신을 억압합니다. 마음속에는 물질적 소유와 부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는 명성을 갈망하는 욕망이 있다. 사람들은 [호화롭고 다양한] 식사를 갈망하며 [신성한 법에서] 허용되는 것과 금지된 것의 실현에 대한 구분을 고려하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소화불량과 장티푸스를 유발할 때는

하인들이 그런 상태를 완화할 약을 가져오라고 요구받습니다. 누군가 이 바보에게 물어야 한다: '너희 [도덕적] 의무인 고아 아이들, 과부, 빈곤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세부사항의 목적은 필요한 양만 먹어야 하며, 나머지는 자선으로 나누어 내세의 저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 번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가 뚱뚱한 남자를 보고 그의 배에 손가락을 대며 말했습니다 [비만의 바람직하지 않음을 암시하며, 그 원인은 탐식, 체력 저하, 건강과 내면의 영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음식이 가난으로 필요한 다른 사람의 위장에 있었다면 더 나았을 텐데 "너를 위해 [신체적, 영적 모두]".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는 예언자 동료 자다 알-하트미의 권위에 따라 *무스나드 아흐메드, 하킴, 바이하키를*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하산 알-바스리(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말했다: "신이시여!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먹지 않는 것을 보았고, 만약 그것만 먹었다면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그 적은 양조차 먹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그 적은 양의 음식을 먹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기아의 열 가지 이점으로, 모든 이익이 무수한 [다른] 이익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혜택의 결론은 배고픔이 내세의 보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현명한 학자들은 굶주림이 내세의 열쇠이자 세속적 금욕의 문이며, 탐식이 세속의 열쇠이자 탐욕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제는 굶주림의 우수성과 포만감[및 탐식]에 대한 비난에 관한 이야기와 전통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이러한 이점을 인식한 후, 이 주제의 세부 사항과 진정한 의미에 대한 지식은 확신(*야킨*)과 깊은 통찰(*바세라*)에 기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익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서도 굶주림을 우월하다고 여긴다면, 물질의 실재를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는 것으로 신앙의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타클리드*).

기아와 관련된 판결, 우수성, 인간 국가의 차이점

모든 사안과 아래 하디스(예언자 무함마드 전통)에서 언급된 이*흘라크*(아름다운 도덕, 예절, 내면 의 성격, 성격 및 성격 및 자질)*에서 절제나 중도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임을 알리고* 자 한다 [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خير الامور اوساطها

"가장 좋은 일은 절제가 실천되거나 중도의 길을 택하는 일이다."

양측[또는 스펙트럼의 양 끝] 또는 극단, 즉 모든 사안에서 과잉이나 부족함 모두 비난받습니다. 여기서 『The Excellence of Hunger』에 쓴 내용을 보면, 과잉의 기아가 목표임을 알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지혜로 가득 찬 신성법의 비밀들은 인간의 기질이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내면과 외면] 혼란의 씨앗을 포함하고 있을 때, 그런 문제들은 과장되게(강조하여) 금지되어 무지한 사람도 신성법의 목적이 기질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직 종교적 지식과 이해에 정통한 학자만이 [해로운 것들을] 금지하는 과장의 목적이 [모든 극단이 없는 중도의 길] 수준에 도달하는 것임을 이해한다. 이는 오직 학자만이 탐식이 인간 기질을 지배하고 사람들이 극단(과도한 음식 섭취)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굶주림의 우수성을 언급하고 과장하여 인간의 기질이 [음식 소비와 관련된 문제]의 절제 수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더 적절히 알기 때문이다. [인간] 기질을 끝낼 수는 없지만, 이를 절제나 중간 길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기질에 반하여 과도하게 지출한다면, 신의 법은 이를 정죄합니다. 예를 들어, 하*디스*(무함마드 예언자의 전통)에서 밤새 깨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하는 수많은 우수함이 언급되 지만, 무함마드 선지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가 어떤 사람들이 영원히 금식하고 밤새 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금지하셨습니다. 원칙에 관한 이 논의 후, 가장 우월하고 적당한 식사 방법은 위가 무겁거나 배고픔을 유발하지 않는 만큼만 먹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식사의 목적은 생명을 유지하고 예배를 위한 신체적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배가 무겁고 배가 없으면 예배가 방해가 되고, 배가 비어 있으면 마음이 바쁘게 지나가게 됩니다. 음식의 효과도 알려지지 않은 채 배고픔을 없애줄 정도로 먹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먹으면 인간은 배고픔과 음식의 무거움을 넘어서 천사처럼 보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것은 인간을

창조의 목적인 탁월함과 완전함의 수준으로 이끈 것뿐입니다. 이 정도의 절제의 한쪽에는 폭식이고, 다른 한쪽에는 배고픔이 있습니다. 둘 다 치명적이다. 이 두 가지 모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절제의 길을 택하는 데 삶의 생존이 있다. 그 유사성은 불의 원 한가운데 남겨진 개미와 같다. 어느 쪽으로 돌든, 원은 사방에서 뜨겁고 작은 불꽃이 그 작은 생명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다. 하지만 개미가 중심에 머물며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으면 불에서 멀리 떨어져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태다. 욕망이 사방에서 그를 둘러싸고 있다. 천사들은 욕망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의 유사성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욕망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다. 왜냐하면 절제의 수준이 모든 면에서 같은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원의 진정한 중심에 머무르기 위해] 따라서 절제(절제)가 추구되고 있으며, 절제의 수준이 모든 방향에서 균등한 거리에 있고 그 증거 가 하*디스*(무함마드 예언자 [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의 전통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일은 절제가 실천되거나 중도의 길을 택하는 것"이며, 꾸란의 이 구절이 이를 증명합니다:

وَكُلُوا۟ وَٱشْرَبُوا۟ وَلَا تُسْرِفُوٓا۟ ۚ

"먹고 마시며, 과잉을 저지르는 데 절제의 범위를 넘지 말라." (꾸란 7장 31절)

배고픔과 포만함의 절제: 인간이 배고픔과 탐식의 무거움을 느끼기 전까지는 [신성한] 예배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예배와 관상을 쉽게 하려면, 배고프거나 포만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 자아(*나프스*)는 처음에는 반항적이고 욕망을 좋아하며 절제의 한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잉과 빈곤의 중심점까지 끌어올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 처음에는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고픔과 탐식의 극단에 도달하려면 먼저 야생 반항마가 처음에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심지어 맞아 통제하려 하듯 스스로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거친 후, 말은 통제되어 주인의 뜻에 복종하게 됩니다. 말이 반항을 멈추고 순종적으로 변하면, 더 이상 배고프고 목마르거나 신체적 고통을 겪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제자들(영적 길을 걷는 수험생과 여행자)에게도 같은 대우를 제공하며, 자신이 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지시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그들에게 배고픔을 유지하고 모든 욕망을 버리라고 말하지만, 안내자 자신은 배고프지 않고 모든 욕망에서 완전히 분리하지도

않습니다(많은 욕망은 신성한 법의 범위 내에서 정당합니다). 때로는 가이드가 식사 후에 과일을 먹고 다른 맛과 욕망을 즐기기도 하는데, 이는 자신이 순종하고 신성한 명령에 복종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영적 수련과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아(*나프스*)는 탐욕, 욕망, 반항, 게으름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배고픔은 더 좋게 고통을 느끼고 겸손해지며, 이를 통해 음식 섭취의 절제, 즉 절제의 수준에 도달합니다. 영적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굶주림을 참는 사람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 영지주의자와 자기기만적인 바보입니다. 영지주의자는 자아가 인도의 곧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굶주릴 필요가 없으며, 진리의 길을 걷는 동안 굶주림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보는 자신이 영지주의자이며 영적 노력과 훈육이 필요 없다는 추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속임수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눈의 속임수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규율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의 영적 상태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상태가 그렇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옳든 아니든 상관없이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런 숭고한 영적 상태를 달성하는 수단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수단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영적 안내자는 제자들(영적 길의 시작에 있는 영적 여행자들) 앞에서 [영적 문제와 다양한 영적 가르침 뒤에 숨겨진 내적 지혜와 관련된 비밀]를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가능한 한 배고프게 지시받아야 합니다. 음식 섭취의 절제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보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많은 배고픔을 훈련하도록 교육받아야 하며, 그래야 제자들이 요구받은 것보다 적게 행동하기 때문에 절제의 수준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영적 여행자)은 영적으로 완성된 사람(영지주의자)이 영적 엄격함과 자기 훈련이 필요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쳤고 높은 영적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면, 사탄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매우 높은 영지와 영적 완전함에 도달했으며, 영적 지도자(셰이크)가 알려준 더 이상의 영적 엄격함이 필요 없다고 암시할 것입니다. 이브라힘 알-카와스(신의 자비가 그에게 가하길 - 영지주의자이자 성인, 영적 지도자)는 제자들에게 지시하는 영적 엄격한 가르침을 직접 수행한다는 일과를 가지고 있었다 [그 자신은 필요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오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 제자들이 자신이 가르침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했다 영적 지도자 자신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 이런 생각은 제자들(영적 여행자)이 영적 노력에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안내자의 위선을 오해하며, 사탄이 매 순간 올바른 인도의 길에서 사람들을 설득하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자(*셰이크* 또는 *무르시드*)는 때때로 레슬러들이 약한 척하며 심지어 제자들에게 다양한 레슬링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쓰러지기도 하듯 자신의 [영적] 계급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자기 훈련을 위해서는 신체 운동보다 부드럽고 섬세함이 더 필요합니다. 영적 노력과 엄격함은 [영적 여행자에게] 큰 시련의 땅입니다. 예언자들과 성인들도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주의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 후에 위대한 세계 지도자가 된 위대한 예언자 동료)가 아들 압둘라가 매일 빵과 함께 고기를 먹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분노하며 그에게 말했다: "오, 무가치한 사람이여! 어떤 날은 고기가 들어간 빵을 먹고, 어떤 날은 우유가 들어간 빵을 먹고, 어느 날은 기름이 들어간 빵을 먹고, 어떤 날은 소금이 들어간 빵을 먹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안 먹는다." 이로부터 이것이 바로 절제의 본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기를 영속성과 규칙적으로 먹고 매일 욕망에 빠지는 것은 과잉에 해당하며, 따라서 식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극단주의에 해당한다. 완전히 버리는 것은 부족한 것이고, 가끔 먹고 가끔 먹지 않는 것은 적당한 행동입니다.

덜 먹고 욕망을 버리는 해로움

욕망을 버리는 사람은 두 가지 해를 끼치는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해악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한 가지 해로움은 자아가 일부 욕망을 떠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영적 여행자는 그들을 떠나고 싶어 하지만 자기 자신(*Nafs*)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위 자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영적 여행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몰래 먹으며 사람들에게 숨깁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다신교(*스커크 알-카피*)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자신의 욕구를 밝혀야 합니다. 이 드러내기가 바로 자신의 [내면] 상태를 드러내는 것의 본질입니다. 자신의 결점을 숨기고 자신의 탁월함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 해로움을 초래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한, 신의 불쾌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노시스(*마리파*)의 완성은 하나님을 위해 욕망을 버리고 욕망에 관여하고 있음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눈에 자신이 낮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한 성인은 좋은 음식을 사서 집 안의 눈에 띄는 곳에 두어 사람들이 그가 그런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게 했지만, 그는 매우 단순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전시는 사람들이 그를 성인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래야 성인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주흐드* (세속적 절제)의 완전성은 금욕이 아니라 욕망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것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 즉 영적으로 완성된 개인들(*시디퀸*)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 진리를 결합하여 두 가지 짐(*나프*)을 자신에게 지었고, 두 번 인내를 발휘했습니다. 한 번은 좋아하는 것들과 작별할 때, 두 번째는 욕망과 관련된 외적 상태를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난했을 때입니다. 세속적이고 금욕하지 않는 행동으로, 성인이나 영지주의자가 될 때 오는 명성과 숭배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런 인상을 만들어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해왔다:

أُولَٰئِكَ يُؤْتَوْنَ أَجْرَهُم مَّرَّتَيْنِ

"그런 사람들은 신의 두 배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꾸란 28장 54절)

그들의 상태는 마치 모두 앞에서 선물을 받다가 나중에 몰래 돌려주는 사람과 같다. 그런 사람은 두 가지 이유로 고통받는다: 첫째, 모두 앞에서 무언가를 주어 굴욕을 당하는 것(다른 사람에게서 물건을 빼앗는 것은 천한 일이기 때문); 둘째, 같은 물건을 몰래 돌려주었기 때문이다. 비록 필요했지만 말이다. 영적 여행자(*살릭*)가 이 지위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고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그 결점을 따르게 되고, 사람들을 개혁하기 위해 자신의 결점을 숨기는 것이 낫다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 여행자나 탐구자는 자신의 [내면의 영적] 개혁이 백성의 개혁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개혁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자신의 결점을 숨기는 목적은 과시나 과시(*리야*)입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을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사탄을 따르느라 바쁩니다. 현실은,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을 피할까 두려워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고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개혁도, 타인의 개혁도 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해로움은 영적 여행자나 탐구자가 사실상 욕망을 버릴 수 있지만, 세속적인 절제자(*자히드*)로 유명해지는 것을 좋아하며, 사람들이 누군가를 '죄 없는'이라 부르면 기뻐한다는 점입니다. 이 탐구자는 음식과 관련된 약한 욕망 하나를 버렸지만, 명예와 명예, 명예 및 명예에 대한 욕망이라는 훨씬 더 큰 욕망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욕망이며, 이에 연루된 사람은 자신이 그 욕망에 연루되어 있음을 꽤 늦게 알게 됩니다. 이 욕망을 없애는 것이 음식에 대한 욕구를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 과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음식에 대한 욕망에 빠진 사람이, 음식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명성에 빠진 사람보다 낫다. 아부 술레이만(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은 말했습니다: "네가 버린 음식이 네 앞에 오면, 그 음식에서 소량만 먹으라. 그러나 더 먹어서 자기 욕구를 채워 말라. 이렇게 하면 자아의 욕망 - 음식에 대한 욕망과 명성과 명예에 대한 욕망 [세속에서 벗어나는 욕망]이 끝나게 된다." 음식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과시에 빠지는 사람은 전갈에게서 도망쳐 뱀 곁에 피신하는 사람과 같다. 다만 뱀은 전갈보다 더 치명적이다. 마찬가지로, 과시하는 것은 음식에 대한 욕구보다 더 해롭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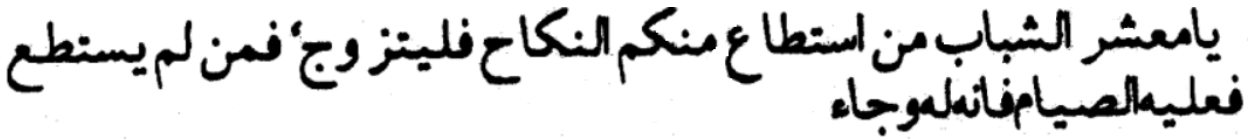
사적인 부분에 대한 욕망

성관계에 대한 욕구는 인간에게 두 가지 이익을 위해 신성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이점은 인간이 교미의 쾌락에서 내세의 쾌락을 추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쾌락이 오래 지속되었다면, 모든 육체적 쾌락 중 가장 강렬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영원한 행복을 이루기 위해 동기와 설득이 필요하며, 이 필요는 어떤 고통이나 느리고 인지할 수 있는 쾌락이 영원한 행복의 수단으로 사용될 때 완전히 충족됩니다.

교미의 두 번째 이점은 인류의 생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점이지만, 자신을 통제하지 않고 이 욕망을 절제의 수준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세속적 성공과 신앙 모두를 잃을 수 있어 많은 해악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예언자 모세(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가 모임에 앉아 있을 때 사탄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머리에 여러 색깔이 빛나는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이 모임에 도착한 후, 그는 모자를 벗고 그에게 인사했다. 예언자 모세(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는 "나는 *이블리스*(사탄)다"라고 대답했다. 예언자 모세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죽음을 주시길! 왜 여기 온 거야?" 그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높은 지위와 지위에 있으니, 나는 당신께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예언자 모세가 물었습니다: "왜 여러 색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있었느냐?" 그는 "나는 인간의 심장을 낚아채 이 모자를 통해 속인다"고 답했다. 예언자 모세가 물었습니다: "어떤 인간의 행위로 그들을 복종시킬 수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다: "오만함이 인간의 마음에 태어나고, 자신의 작은 행동(선행)을 크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죄를 잊을 때. 세 가지 사항을 미리 경고합니다: 첫째, 낯선 여성(잠재적으로 결혼 가능한) 여성과 단둘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제자들을 보내지 않고 그들 사이에 끼 어들어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시련과 고난(*Fitna*)에 휘말리게 합니다 . 둘째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 의무적이고 자발적인 자선을 위해 따로 마련한 돈을 즉시 분배해야 합니다. 또한 그런 자리에 서둘러 도착해 자선을 기부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를 바꾸는 변명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 후 사탄은 떠났다: "아, 아! 모세는 이제 인간이 겪는 고통을 [해를 끼치면서]의 일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탄의 군대의 절반은 욕망이고 절반은 분노입니다. 이 군대(욕망과 분노로 이루어짐)를 통해 사탄은 마음을 정복합니다. 가장 큰 욕망은 이성에 대한 욕망입니다.

사적인 부분의 욕망 세 단계: 음식에 대한 욕망과 마찬가지로 이 욕망도 과잉, 부족, 절제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과잉은 이 욕망이 지성을 압도하여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남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안에 몰입하면 내세의 길을 잊게 되고, 그것이 신앙을 지배하며 악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욕망의 과잉은 많은 악을 낳는다. 예를 들어, 이 능력을 강화하는 약물에 대해 걱정합니다. 마치 야생 짐승과 뱀에 둘러싸여 그들이 부주의하게 굴면 도망칠 수 있게 되면, 본능에 따라 스스로를 공격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욕망의 과잉을 채우기 위해 온갖 굴욕을 겪으며, 심지어 노예 상태까지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다른 창조물이 그들에게 복종하도록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성과 깨달음의 죽은 육체를 이 욕망의 발에 올려놓는다. 인간은 자신의 열정과 욕망에 노예가 되어 그것을 섬기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른 목적이 없는 심장의 병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욕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강해지고 [마음과 마음, 영혼 속에서] 완전히 뿌리내리면, 그것을 없애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부, 명성, 재산, 자손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사랑은 완전히 자리 잡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여러 스포츠, 여가 활동 [그리고 다른 활동, 집착, 중독]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져서, 세상과 신앙에 대한 어떤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항상 사람을 불안하고 안절부절못하게 만든다. 초기 단계에서 욕망의 불(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영적 열망을 소멸시키는 집착과 중독)을 꺼뜨리는 자는 말이 문을 통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삐가 문 쪽으로 얼굴을 돌릴 때마다, 고삐를 잡고 당겨 빼낸다.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불을 끄려는 사람은, 처음에 말이 문을 통해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면 꼬리를 잡아 빼내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럼 말은 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을까요? 두 상황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는 주의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이 심해지면 치료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고군분투가 필요합니다. 남성답지 못해지는 능력을 잃는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절제의 수준은 욕망에 복종하지 않고, 욕망이 지성과 신의 법에 복종하며 그들의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과도한 욕망[사적인 부분]은 배고픔과 결혼으로 치유할 수 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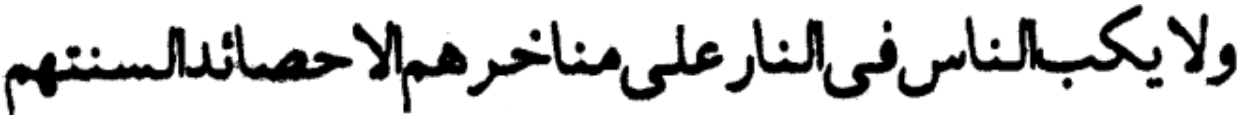
"오, 젊은이들아!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결혼해야 하며,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상황 때문에 결혼 의무를 다하지 못해] 금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단식은 신체적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잠들어 잠들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단식은 내면의 자제력을 기르며 열정과 욕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눈의 간통을 막는 탁월함: 간음을 막으려는 자와 가까이, 비록 간음의 기회를 가졌더라도 자신을 지키는 자입니다. 간음의 시작점은 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보호가 더 중요합니다. 눈이 [보면 안 되는 것]을 보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것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 죄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해악의 출발점은 눈입니다. 목적이나 의도가 전혀 없다면 첫눈에 보는 것은 [신성하게] 용서받지만, 두 번째 시선에는 [보통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계산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 시선이 마음에 욕망의 씨앗을 뿌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눈을 보호하고 [모든 종류의 부적절한 것]을 못하게 하면 심장은 많은 해로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장- 무제한 발언의 돌이킬 수 없는 해악

가잘리의 네 번째 책은 그의 *대표작『이히야 알울룸 앗딘』*('신의 길에 대한 지식의 부흥')의 세 번째 권, 즉 '신으로 가는 길의 지식의 부흥'에 속하며, 이 능력의 무제한 발언과 부도덕한 사용으로 인한 재앙을 다룬다. 개인, 사회, 국가 전체에 피해가 가해지고 갈등이 뿌려져 권위자들이 적대자로 인식되는 이들에게 입을 열어 적대감과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여러 나라가 끝없는 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무분별하고 경솔한 대화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고 단절되고, 우정이 적대감으로 변해 상호 증오로 악화되어 통제 불능 상태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제한 없는 발언은 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출판된 글로 남은 글은 해를 끼치고 내면과 외면의 평화를 파괴하는 갈등을 조장하는 데 더 강력하다. 따라서 혀의 수확은 모든 수준에서 치명적이고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가잘리는 자유분방한 발언의 해악, 자유분방한 발언에 빠지는 이유, 그리고 평화와 존중, 민족 간의 조화를 증진하기 위해 이를 고치는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영혼 안에 긍정, 조화, 평화를 심어주고 영적 완전함을 얻으려는 어떤 노력도 이 인간의 능력을 억제하는 데 크게 의존합니다. 이는 잠재적 스포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잘리가 "혀 오용의 해악"이라는 책에서 이 매우 중요한 주제를 탁월하게 다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10]:

혀 - 큰 축복: 혀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온 큰 축복이자 [신성한] 창조물의 미묘함에서 비롯된 미묘함입니다. 그 크기는 작을지 몰라도, 신의 명령에 대한 순종은 엄청나며, 죄도 엄청납니다. 믿음(*이만*)과 불신(*쿠프르*)의 현실은 혀를 통해 표현된다. 첫 번째로 언급된 것(믿음)은 [신성한] 순종의 정점이고, 두 번째로 언급된 것(불신)은 [신성한] 불순종의 극단입니다. 존재하든 없든, 창조주든 상상이든 실재든, 추측이든 미신이든 모두 입에 올라와 그것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식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것, 진실이든 거짓이든, 혀를 통해 전개된다. 이것이 혀를 다른 모든 [신체] 기관과 구별하는 특징입니다. 눈의 범위는 색과 형태에 한정되며, 귀의 관할권은 단지 소리일 뿐이며, 손은 물리적 존재를 가진 것에만 뻗을 수 있고, 모든 [신체적] 기관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중 텅만이 넓고 광범위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혀가 선의 영역에서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악의 영역에서도 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탄은 말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만들고 나쁜 결말로 이끕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뿌린 수확을 거두기 위해 코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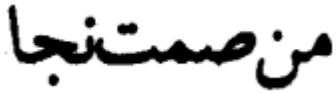
신성한 법(샤리아)*의 고삐를 혀에 쥐*고, 예언의 길(*순나*)의 족쇄를 채우며, 세상과 내세에 유익한 이야기를 할 때만 혀를 해방시키는 그 사람만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작과 끝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그것을 억제한다.

하지만 무엇에 대해 이야기해야 좋고 무엇이 나쁘거나 악한지, 어디서 혀를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좋은지, 어디가 나쁜지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설령 알려져 있더라도, 그에 따라 행동하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모든 인간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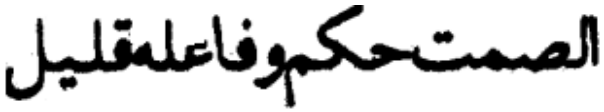
불순종은 혀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이동에 어려움이 없고, 피로나 게으름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혀의 해로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게으름을 부리며, 그 악을 하찮게 여기며 무시합니다. 비록 혀는 사탄의 무기고에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공동체, 국가 간 분열, 무질서, 혼란, 공개 전쟁을 조장하는 데 사용됨]입니다. 사탄은 혀를 통해 하나님의 종들을 이기고 그들을 오해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페이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혀의 해악을 개별적이고 상세하게 나열하고, 모든 해악의 한계와 결과, 그리고 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언급할 것입니다. 혀에는 총 20가지 해가 있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혀 사용의 위험성과 침묵의 우수성에 대해 먼저 언급할 것입니다.

혀의 큰 위험과 침묵의 탁월함

혀의 위험이 크며, 그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침묵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의 법은 침묵을 찬양하며, 그 신봉자들이 [불필요하게 말하지 않음으로써] 침묵을 지키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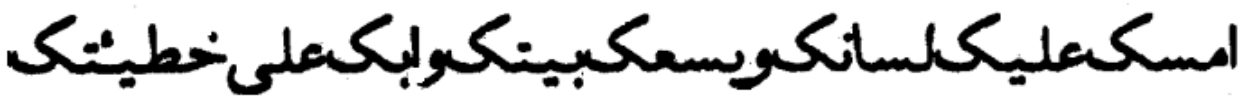
"침묵한 자는 구원(구원과 많은 해악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특히 신의 용서와 수용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얻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수집 *티르미디* 예언자 동료 압둘라 빈 우마르의 권위에 따라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침묵은 지혜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소수뿐이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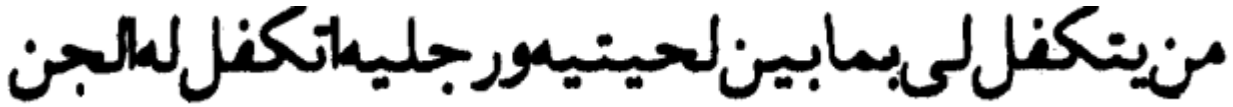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수집 *아부 만수르 앗-다이라미* 예언자 동료 압둘라 빈 우마르의 권위에 따라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우크바 빈 아미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내가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에게 물었다고 말했다: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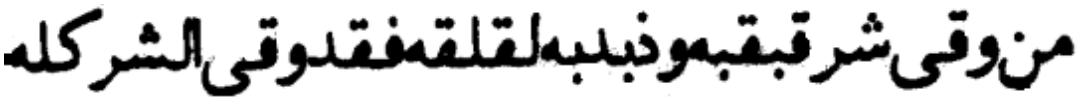


"입을 조심하고 통제하라. 집이 너에게 충분할 것이며, 실수와 잘못에 눈물을 흘려라."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집 *티르미디*)

사흘 빈 사아드 알-사아디는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의 말을 전합니다:



"두 귀(즉, 혀)와 두 다리 사이(즉, 성기)의 정결을 보장해주는 자, 나는 그런 자에게 천국을 보장하리라."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집 *사히흐 부카리*)



"위, 사적인 부위, 혀의 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자는 모든 종류의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예 *언자 동료 아나스 빈 말릭의 권위에 따라* 아부 만수르 앗-다일라미 *하디스* 모음 집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이 세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욕망은 백성의 파멸을 초래한다. 그래서 복부와 성기의 욕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후, 혀 오용의 해로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무함마드 예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تقوى الله وحسن الخلق

"[경건한 경외, 경외, 그리고 신에 대한 경외심(*타크와*)과 아름다운 도덕, 예절, 성격과 내면의 성품(*이흘락*)."

그는 "또한 어떤 것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 수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الاجوفان الفم والفرج

"두 개의 빈 것 때문이야: 입과 사적인 부위."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는 예언자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티르미디*와 *이븐 마자를*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이 *하디스* (예언적 전통)에서 '입'은 혀의 해로움을 의미하기도 하며, 입은 혀의 거처이기 때문에 위를 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무아드 빈 자발(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은 무함마드 예언자에게 (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에게 물었다: "오, 신의 예언자여!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을까요?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이든 큰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이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تكلتك امك يا ابن جبل' وهل يكب الناس فى النار على مناخرهم الاحصائد السنتهم

"오 이븐 자발! 어머니께서 당신을 위해 울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혀의 수확을 거둔 자들로 거꾸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예 언자 무아드 빈 자발의 권위에 따라 *티르미디*, *하킴*, *이븐 마자를* 모 았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압둘라 빈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의 말을 전합니다:

من كف لسانه ستر الله عورته ومن ملك غضبه وقاه الله عذابه ومن اعتذر الى الله قبل الله عذره

"자신의 혀를 [쓸모없고 악한 발언에서]로 막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결점을 숨기고, 분노를 통제하시는 자는 [정당하고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도 분노를 표출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자신의 응징으로부터 보호하시며, 하나님께 변명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는 그 변명을 받아들인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예 *언자 동료 압둘라 빈 우마르의 권위에 기반*한 이븐 아비 앗-둔야 *하디스* 모음 집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예수 그리스도(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께서 천국으로 이끄는 행동을 알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절대 말하지 마라"고 답했다. 질문자는 "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서 "말해야 한다면 좋은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했다. 한 베두인(유목 사막 아라비아 남성)이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에게 천국으로 이끄는 행동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اطعم الجائع واسق الظمان وامر بالمعروف وانه عن المنكر فان لم تطق فكف لسانك الا من خير

"굶주린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정의를 명령하고, 악을 외면하라. 그럴 수 없다면 혀가 선한 말 외에는 말하지 못하게 하라."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 *집 이븐 아비 앗-둔야*)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اذا رأيتم المئومن صموتا وقورا فادنوا منه فانه يلقن الحكمة

"신자가 조용하고 위엄 있게 보일 때는 더 가까이 다가가라. 그런 사람은 [신성하게] 지혜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예 *언자 동료 아부 칼라드의 권위에 따라* 이븐 마자 *하디스* 모음 집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예수 그리스도(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열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홉 명은 침묵과 관련이 있고, 한 명은 민중으로부터 도망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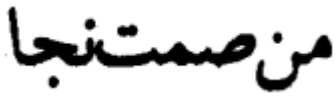
침묵의 우월성의 이유: 말하는 데는 많은 해가 있습니다. 실수, 거짓말, 뒷담화, 허세, 음란함, 과시, 자기 과시, 다툼, 쓸데없는 말, 자기 칭찬, 과장, 해를 끼치는 행위, 남의 결점 드러내기 등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름 아닌 혀와 관련이 있습니다. 혀를 움직일 때 통증, 노력, 피로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 말하는 데서 즐거움이 있다. 자신의 기질이 말을 하도록 설득하고, 사탄은 또한 마음속에서 암시를 통해 그것을 강요합니다.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말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기회가 있든 없든 혀를 멈추는 경우가 드물다. 대신 그들은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데에는 많은 위험이 있고, 침묵 속에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우수성과 우수성은 훨씬 더 큽니다. 침묵의 이점은 무수히 많습니다. 용기는 계속 모여 있고, 생각이 흩어지지 않으며, [침묵의 결과로] 품위를 유지한다. 관상, 신성한 기억, 예배를 위한 시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의 잘못된 결과와 내세에서의 책임을 없애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مَا يَلْفِظُ مِن قَوْلٍ إِلَّا لَدَيْهِ رَقِيبٌ عَتِيدٌ

"누군가가 가까이 있는 감시자가 그것을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지 말 것이다(이는 모든 인간 근처에 있는 두 천사를 가리킨다. 한 명은 모든 선행을 적고, 다른 한 명은 각자의 인간 행위 기록에 자신의 악행을 적는다. 이 기록들은 심판일에 하나님 앞에 제출되어 그 사람의 최종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꾸란 50장 18절)

침묵의 우수성에 대한 훌륭한 논거가 있습니다. 발언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해로움만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입은 오직 이점만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장점과 해가 모두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어느 쪽에도 이익도 해도 없습니다. 해로움만 주는 발언 유형에 관해서는, 반드시 그 말을 피하고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이익과 해가 모두 존재하는 발언에도 같은 지침이 적용되며, 그 해악이 이익을 초과할

경우에 한합니다. 이익도 해도 없는 유형은 쓸모없으며, 침묵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 것에 빠지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그것이 가장 큰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네 번째 타입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이 혜택을 가진 타입]입니다. 이렇게 하면 품사의 4개 중 3개만 사라지고 1개만 남으며, 그 안에는 위험과 해악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과시, 인위성, 과장, 뒷담화, 자기 과시 등 악행이 연설에 스며들어 화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스며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익한 대화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조차도 위험을 가지고 노는 사람과 같다. 입과 관련된 해악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 점에서 아래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의 말씀이 이 주제에 대한 최종 결정적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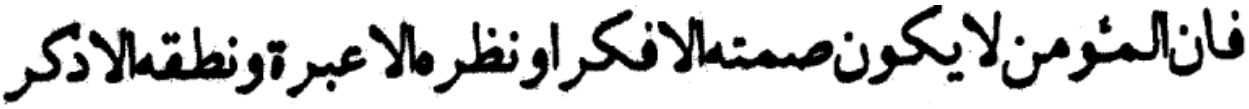


"침묵하는 자는 구원(많은 해악과 위험으로부터의 구원과 보호, 그리고 신의 용서와 수용, 친밀감을 얻기 위해 필수적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얻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수집 *티르미디* 예언자 동료 압둘라 빈 우마르의 권위에 따라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무함마드 예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신성하게] 몇 마디로 매우 의미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으며, 귀중한 지혜의 보석을 받았습니다. 그의 축복받은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는 헤아릴 수 없는 의미와 지혜의 바다가 담겨 있다. 이 끝없는 바다 밑에서 진주를 찾아내는 일은 오직 선별된 학자들만의 일이다(신을 두려워하고,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과 진실을 순수하게 따르는 진실성으로 굳건히 지식을 가진 이들). 예언적 말씀의 깊은 내면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은 모든 사람(학자이든 아니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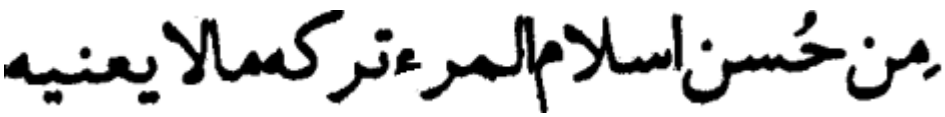
혀나 언어 오용의 해악

첫 번째 혀의 해악 – 쓸데없는 말: 방금 언급한 뒷담화, 험담, 거짓말, 논쟁 등 모든 해악으로부터 자신의 말을 보호하고, 허용되는 말만 하고 그 말이 화자나 청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혀로 발음되는 일부 허용되고 해롭지 않은 말들은 반드시 말할 필요가 없다. 이것들은 쓸모없고 비유익한 것들입니다. 그 안에는 시간 낭비뿐만 아니라 내세의 책임감과 우월한 것을 뒤에 남겨두고 열등한 것으로 바꾸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말하는 대신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의 존재(*Dhat*)와 신성한 특성(*Sifat*)에 관조하는 데 기울였다면 더 나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묵상의 결과로 신성한 축복의 문이 열리고 마음이 확장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명료함, 깨달음, 명확함). 말하는 대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신성한 기억 속에서 그분의 거룩함과 일체성을 표현했다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몇 개의 말이 그런 단어라도 단 한 단어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 하늘에 궁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 말을 하는 자를 위해] 보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돌을 모으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불운이라고밖에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신성한 기억을 버리고 대신 쓸데없고 유익하지 않은 행동에 몰두하는 사람의 예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니더라도, 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런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이 더 작은 손실일까요?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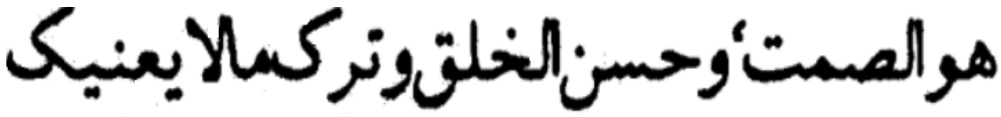
"신자의 침묵은 묵상이고, 시각은 교훈을 얻으며, 말은 신성한 기억이다."

개인의 진정한 자산은 바로 시간입니다. 만약 그 시간을 쓸데없는 일에 쓰고 이 자산을 내세의 저장고로 저장하지 않는다면, 잃는 것 외에 무엇을 얻게 될까? 그래서 무함마드 예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이슬람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표시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는 예언자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티르미디*와 *이븐 마자를*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쓸모없는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날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심판의 날도 처벌의 한 형태입니다. 아부 다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무함마드 예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가 그에게 물었다고 전했다: "몸에는 가볍고 심판의 날에는 무거운 행위를 말하지 않겠느냐?" 그는 대답했다: "오 하나님의 사도여! 네, 꼭 알려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그 행위는 침묵, 좋은 도덕, 예절과 내면의 성향, 그리고 쓸모없는 [행동이나 말]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 *집 이븐 아비 앗-둔야*)

예언자 동료 이븐 압바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쓸데없고 유익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필요하고 과도하며 항상 죄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누군가가 유익한 대화를 하더라도, 때로는 기회와 기회 없이 하는 유익한 대화조차도 고뇌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관용적인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중 누구와도 논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관용적인 사람과 논쟁하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과 논쟁하는 것은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자신이 언급받고 싶어 하는 방식으로 형제를 언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무엇을 하든 그 행위가 선하면 보상을 받지만, 악하고 악하면 [내세에] 벌을 받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한다." 쓸데없는 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화자가 불필요한 질문을 탐욕스럽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언가를 퍼뜨리는 습관이 있거나 청자를 자신에게 끌어들이려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청자에게 사랑에 빠져 대화를 오래 끌면서 청자가 자신에게 더 끌리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양한 사람들에 관한 것]의 이야기가 취미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치료법은 죽음을 그 앞에서 생각하고, 내가 말한 모든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 숨결은 내 자산이고, 혀는 [세상 이와 관련된 소중한 무언가를 잡아내는 그물]이다. 자산을 낭비하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쓸데없는 말을 지식 기반 치료법으로 해결합니다. 실질적인 치료법은 고독을

받아들이거나 때로는 유익한 일조차도 혀를 멈추게 하여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데 익숙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해 – 과도한 말: 과도한 말도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쓸데없는 말뿐만 아니라 필요를 넘어서는 유익한 말도 포함됩니다. 유익한 연설은 짧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두 단어만 사용하는 사람은 [공개] 연설이나 강조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비록 그것이 죄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아타 이븐 아비-라바흐(신의 자비가 그를 비극하소서 – 성인이자 영지주의자)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 이전에도 쓸데없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책, 예언자의 길, 옳은 것을 권고하고 악을 금지하는 이야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속적 필요에 관한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다른 대화를 과도하다고 여겼다." 어떤 대화나 대화가 과한인지, 어떤 것이 불필요한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꾸란은 신이 말씀하듯 유익하고 필요한 대화에 한계를 두었습니다:

لَّا خَيْرَ فِي كَثِيرٍ مِّن نَّجْوَاهُمْ إِلَّا مَنْ أَمَرَ بِصَدَقَةٍ أَوْ مَعْرُوفٍ أَوْ إِصْلَاحٍ بَيْنَ ٱلنَّا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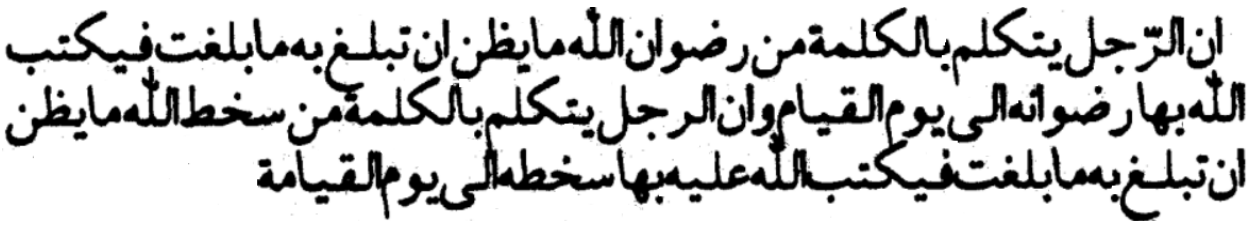
"평범한 사람들의 대화 대부분은 좋은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거나 의로운 행위를 하거나 사람들 간의 상호 화해와 개혁을 이끌어내도록 설득합니다." (꾸란 4장 114절)

수천 가지 예방책을 가진 사람을 칭찬할 때조차도, 일부 말은 사실과 반대되고 과장된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찬양이 사실이라 해도, 사탄이 불필요한 말을 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무자히드(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사람이 하는 모든 [한마디] 단어는 기록되어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것을 사주겠다고 말할 때, 실제로 그런 의도가 없었고 그것은 거짓말로 기록될 것이다." 하산 알-바스리(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말했다: "오, 인간이여! 당신의 증서 기록이 공개되어 있고, 두 명의 천사가 당신의 증서를 적도록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무엇을 할지에 따라 다르고, 더 많이 하든 적든 당신의 모든 행위는 기록될 것이며, 심판의 날에 이 기록 기록은 당신에게 유리하든 불리든 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예언자 솔로몬(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은 자신의 진 중 한 명을 어 딘가로 보내고, 그 뒤에 몇몇

다른 *진들을* 보내 그가 어디로 갔고 무엇을 했는지 알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그가 시장에 갔고, 도착한 후 하늘을 바라보다가 아래 사람들을 바라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솔로몬 예언자는 이에 놀라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천사들이 머리 위로 앉아 인간의 행위를 얼마나 빠르게 기록하는지 놀랐고, 그다음에는 인간이 얼마나 빨리 잘못된 길로 이끌어 [실수로] 빠져들는지에 놀랐습니다." 이브라힘 타야미(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는 말했습니다: "신자는 말하기 전에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한지 해로운지 본다. 유익할 때만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있으며, 악과 죄에 기울어진 사람은 생각 없이 말한다." 현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임에서 말하고 싶으면 침묵을 취하고, 침묵을 좋아한다면 말해야 한다." 자이드 이븐 아비 하빕(신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길)는 "학자의 시련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진실의 누락, 자기 이익을 염두에 둔 설득, 그리고 말의 장식(과장)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브라힘 빈 아드함(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은 "사람은 과도한 부와 말로 인해 파괴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해악 – 잘못에 대한 언급: 잘못은 죄와 관련된 대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성의 아름다움과 신체적 특징에 관한 이야기와 대화, 낭만적인 이야기, 죄의 집합, 부유층의 과잉, 통치자들의 악행 등은 모두 잘못된 것이며 이에 대한 탐닉은 금지된다(*하람*). 불필요한 말은 [신성한 법에서], 단지 싫어하고 권장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과도한 말도 금지되지 않지만,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악한 말은 금지 대상입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주제에 대해 많이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말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엔터테인먼트 토크는 특별한 취미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위해 특별한 모임을 조직합니다. 이 모임의 주제는 잘못된 점, 누군가가 조롱당하는 것,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 누군가의 잘못이 조사되는 것, 누군가가 음모를 꾸미는 등입니다. 사실, 그런 모임 어디에도 죄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들은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죄악이라 쉽게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그것들을 없애는 방법은 종교적(그리고 영적 투쟁 관련) 문제와 필요한 세속적 필요에만 자신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악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익숙해지면 [영적으로 파괴되어 물질적·외적 삶에도 영향을 미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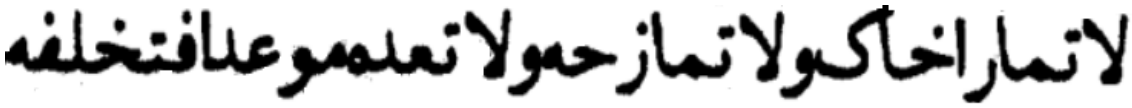
비록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그 위험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사소하다고 여겨졌던 죄가 결국 그에게 너무 많은 파괴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빌랄 빈 알-하르트(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무함마드 선지자의 전해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 이 그에게 있기를):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말씀을 하고, 그곳에서 자신이 특별한 신의 승인을 받지 못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일까지 그 말씀에 대해 신의 승인을 기록하셨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불쾌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불쾌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 한 단어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까지 신성한 불쾌함을 쓰신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이*븐 마자*와 *티르미디* 하디스 *모음*집)

악하고 잘못된 말은 뒷담화, 이야기 전개, 잘못 찾기와는 별개의 유형이며, 금지된 사안을 언급하는 것에 관한 것이고 종교적 필요성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종교적 문제에 대한 혁신, 일탈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언급, 심지어 예언자 동료들 간의 상호 차이 언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분열을 조장하고 종파주의를 조장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해악 – 사람들의 대화를 끊고 논쟁하기: 대화 중에 대화를 끊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이 말할 때 수갑을 채우지 말고, 무례한 농담을 하지 말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말라."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예 *언자 동료 압둘라 이븐 압바스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수집* 티르미디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ذروا المراء فانه لا تفهم حكمته ولا تؤمن فتنته

"대화를 끊는 것을 멈춰라. 그 안에는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없고, 그 해악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예 *언자 동료 아부 다르다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 집* 타바라니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من ترك المراء وهو مبطل بني له بيت في اعلى الجنة ومن ترك المراء وهو محق بني له بيت في ربض الجنة

"옳은(혹은 진실의 편) 사람들의 대화를 끊는 자는 그런 이를 위해 천국의 가장 높은 층에 집이 지어질 것이다; 그리고 틀렸거나 거짓 편에 서서 사람들의 대화를 끊는 자는 그런 이를 위한 집이 천국 한가운데에 지어질 것이다."

민족들이 [신성한] 인도의 빛을 받은 후 논쟁과 논박으로 인해 잘못된 길로 인도되었다고 말해집니다. 아나스 빈 말릭(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끊고 논쟁하는 것은 마음을 굳게 만들고, 그로 인해 적대감의 씨앗이 심어진다"고 말했다. 빌랄 빈 사아드(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다투며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은 내세의 상실을 운명지어졌음을 알아야 한다." 아부 알다르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항상 사람들과 싸우거나 다투는 것만으로도 그런 사람은 죄인이 된다"고 말했다.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말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로 지식을 얻지 말고, 세 가지로 인해 지식을 얻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지식을 습득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는 논증(그리고 사람들과의 논쟁), 자존심, 그리고 과시입니다. 지식을 얻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할 세 가지는 지식을 추구하는 데 있어 수줍음, 지식을 얻는 데 대한 금욕, 그리고 무지에 대한 만족이다." 예수 그리스도(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자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끝나고, 사람들과 많이 다투는 자는 자존심이 상하고, 걱정이 많으면 병들며, 도덕과 예절이 나쁜 자는 신의 벌에 휘말린다."

사람을 끊는 정의: 그 정의는 누군가의 대화에서 결함을 찾아내고, 그 이유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결함이 말이든, 의미든, 의도든 상관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떤 대화를

듣든 진실이라면 그 진실을 증명하고, 틀렸다면 종교적 문제가 아닌 한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어의 결함은 화자에게 문법 규칙에 어긋나고 올바른 단어 순서가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발견됩니다. 이러한 단어 실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언어에 익숙하지 않거나, 한 말을 하고 싶어도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단어 실수의 이유가 무엇이든, 비판할 정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어의 의미는 "당신은 이런저런 잘못한 말을 했거나, 어떤 의견에 실수를 했다거나, 당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옳지 않다" 등과 같은 이유로 이의의 대상이 됩니다. 의도는 다음과 같이 비판받는다: "당신이 말하는 이 일은 사실에 기반하지만, 당신의 의도는 사실의 표현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이다." 이런 모든 경우에는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의 목적이 적대감과 비판 기회가 아니라 지식과 이익의 획득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논증의 목적은 상대방을 침묵시키고, 그들의 무지, 결점, 부족함을 드러내어 굴욕을 당하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조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목적의 징후는, 만약 반대가 진실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대신, 상대방을 모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것이다.

분쟁에서 멀리하고 대화를 끊는 방법: 두 가지 모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허용된 문제에서도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 두 악은 상대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우월함을 확립하려는 목적에서 태어난다. 이 두 가지는 통제하기 어려운 하위 자아의 욕망입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표현하는 것은 자기 의로움의 범주에 속하며, 이는 자신을 높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반응이다. 그러나 위대함과 위대함은 오직 하나님의 속성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께 어울린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결함 있고 천천하다고 여기는 것은 야생 동물 같은 기질을 가졌다는 표시입니다. 야생 짐승은 다른 야수를 찢고 다치게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악한 특성은 매우 비난받아 마땅하고 해롭습니다. 논쟁과 대화를 끊는 것은 [타인을 결함 있고 비열하다고 여기는] [혐오스럽고 부정적인] 특성을 부추깁니다. 논란이 되는 논쟁과 비판에 계속 빠져드는 자는 이 두 파괴적인 내면의 특성에 성장의 양분을 제공할 것이다. 다툼과 대화 끊기는 행위는 모두 혐오스러운 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며, 오히려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치면 둘 다 죄가 됩니다. 논쟁이 되는 논쟁과 비판에 관해서는, 아무도 그것들이 고통을 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 명이 다투고 분노하며 똑같이 대응하려 하고, 둘 다

개처럼 싸우기 시작합니다. 각자는 상대방을 해치고 굴욕을 주려 하여, 상대방이 머리를 들거나 반응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을 설득해 상대방의 지능 부족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병이며, 그 치료법은 우월감을 갖게 하는 오만함과 그것을 표현하는 대담함을 없애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야수적인 감정은 타인을 얕보게 만드는 도발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그 치유법의 세부 사항은 오만과 자기중심에 대한 비난에 관한 장(10장)에서 설명될 것이다. 여기서는 어떤 질병도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점만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대화를 끊고 논쟁하는 이유는 오만함, 자존심, 그리고 야수 같은 성격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질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하면 습관과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어 버리기 어려워집니다. 이맘 아부 하니파(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는 다우드 알타이(신의 자비가 있기를)에게 은둔과 고독의 이유를 물었다. 그는 "나는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으려는 투쟁을 하기 위해 고독 속에 머무른다"고 답했다. 이맘 아부 하니파는 "이것은 영적 투쟁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 그들의 말을 듣고 침묵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우드 알타이는 그에 따라 행동했으며, 이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영적 노력은 없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누군가가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침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는 옳고 진실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의 대화를 끊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옳음을 알면서도 잘못된 일에 침묵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교와 신념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올바른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세합니다. 논증은 이미 기질의 일부이며, 올바른 믿음을 보여주는 데 하나님께서 보상을 준다고 생각할 때, 마음은 그 신성한 보상과 보상을 탐욕스럽게 됩니다. 이처럼 신의 법과 기질이 이러한 논증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과 논박이 신의 보상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입니다.

인간은 동료 종교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만약 누군가가 [종교적 문제, 즉 비다(*Bid'a*)]에 관여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분노와 고집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 사적으로 꾸짖어야 한다. 사람들은 공개 토론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모든 신앙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신앙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상대를 침묵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문제에 대한 혁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확고히 새겨질 것입니다. 만약 그 조언이 신앙의 문제에 관여하는 사람의 마음에 원하는 효과를 주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일 능력이 남아 있지 않다면, 자신의 개혁에 몰두하고 상대방을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토론에 익숙하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존경과 존경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파괴적인 내면의 특성들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강화되어 없애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분노, 오만, 과시, 자기 의로움, 지배욕 같은 내면의 악덕이 쌓이면, 그것들과 싸우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뿌리 뽑기 위해] 이런 특성 중 하나와 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모든 특성과 함께 싸우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려울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해악 – 적대감과 적대감: 이것 역시 비난받아야 할 [내면] 특성입니다. 적대감과 적대감도 분쟁의 의미가 있지만, 그 목적은 누군가의 재산이나 권리를 빼앗는 데 있습니다. 전통에서는 이 혐오스러운 내면의 특성이나 특성을 비난해왔습니다. 아이샤(신께서 그녀를 기뻐하시길)는 무함마드 예언자의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ان ابغض الرجال إلى الله الالد الخصام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들 중 가장 악한 자가 다투기 좋아하고 적대감과 적대감에 빠지는 자입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집 *사히흐 부카리*)

한 현자는 "적대감과 적대감은 신(딘)으로 가는 길을 파괴하니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경건하고 경건한 자는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샤르 이븐 압둘라(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적대감과 적대감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그것은 신앙과 하나님께 가는 길을 파괴하고, 품위와 존엄성을 흠집짓으며, 삶의 기쁨을 끝내고, 마음은 신성한 기억과 묵상에 참여하기보다는 적대감과 적대감의 걱정에 갇히게 된다." 여기서 말할 수 있듯이, 누군가가 타인에게 권리를 주고 있지만 그것을 주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난받을 만한 분쟁이나 적대감은

거짓에 근거하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진실이 어디인지 모른 채 당사자를 지지하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지만 합의하지 않고 최대한의 적대감과 적대감을 드러내는 경우도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권리 획득이 아니라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표현하고 주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데도 상처 주는 말을 사용하는 분쟁이나 적대감도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 분쟁이나 적대감 역시 비난받아 마땅한데, 겉으로는 권리를 얻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굴욕과 모욕하는 것이며, 그 원동력은 원한과 적대감이다. 그런 모든 분쟁이나 적대감 행위는 비난받아야 합니다. 억압받는 사람이 적대감, 과장, 원한, 해를 끼치려는 욕구 없이 신성한 법의 방식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표현한다면, 권리를 얻을 다른 방법이 없다면 이는 금지되지 않는다. 만약 이의 제기 없이 권리를 얻을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논쟁할 때 혀를 절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논쟁은 마음속에 원한을 낳고 분노의 불꽃이 더 강해지며, 화가 났을 때 신성한 법을 지키기를 기대할 수 없다. 분쟁 중에 그 이유가 마음에서 사라지고, 청구자의 마음속에 남은 유일한 목표는 상대방을 이기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전술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의 존엄을 부수는 데 만족한다. 분쟁을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이 모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매우 주의를 기울이면 이러한 범죄를 피할 수 있지만,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툼이 지속되는 동안, 마음은 걱정할 정도로 심지어 기도 중에도 상대를 어떻게든 굴복시키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쟁은 혼란과 악을 불러온다. 논쟁과 논박의 상태도 마찬가지로, 둘 다 악을 낳는다. 악의 문을 닫아서 혀와 마음 모두가 분쟁의 파장과 영향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더 낫고, 이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논쟁, 논박, 변쟁의 가장 작은 악은 서로 잘 대화하는 전통이 끝난다는 점입니다. 비록 서로 대화하는 아름다움이 아름다운 공존의 중요한 요소이며 신의 보답을 받을 만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꾸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وَقُولُوا۟ لِلنَّاسِ حُسْنًا

"그리고 [모두] 사람들과 아름답게 대화하는 것." (꾸란 2장 83절)

압둘라 빈 압바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말했습니다: "신의 창조물 중 누군가가 당신에게 인사와 인사(*살람*)를 건넨다면, 마기안이라도 그 사람에게 인사와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꾸란에서 말씀하신 때문이다:

وَإِذَا حُيِّيتُم بِتَحِيَّةٍ فَحَيُّواْ بِأَحْسَنَ مِنْهَآ

'누군가가 인사와 인사로 인사할 때, 당신도 더 좋은 말로 인사와 인사를 되돌려야 한다.'" (꾸란 4장 86절)

압둘라 빈 압바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도 말했다: "파라오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도, 나도 좋은 말로 그에게 답할 것이다."

아나스 빈 말릭(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은 무함마드 선지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로부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합니다:

ان فى الجنة لغرفا يرى ظاهرها من باطنها وباطنها من ظاهرها اعدها الله تعالى لمن اطعم الطعام والان الكلام

"천국에는 외부에서 내부를 바라보는 것과 내부에서 바라보는 외부의 모습이 매우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거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제공하는 이들을 위해 그런 집을 준비하셨고, [특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부드럽게 대화하는 이들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집 *티르미디*)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الكلمة الطيبة صدقة

"[말하며] 좋은 말은 [하나님의 길에 따르는 자선]이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수집 *사히흐 무슬림* 예언자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다른 사람과 좋은 대화를 나눌 때 인색함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한 신의 보상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논의는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연설과 대화를 나누는 것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는 싸움, 논쟁, 논장과는

정반대이며, 이 세 가지 주제에 속하는 모든 대화는 싫어하고, 고통스럽고, 선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대화로 사람들을 대하고 악한 대화를 멀리할 수 있게 하소서.

여섯 번째 해악 – 말의 장식과 인위성: 많은 대중 연설 지망생들은 말을 과장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긴 도입부와 시작을 만들어내고, 운율과 큰 단어들로 장식합니다. 이러한 인위성과 장식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의 한 예언적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انا واتقياء امتي برآء من التكلف

"나와 우리 나라의 경외하는 사람들은 인위적이고 과장된 표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또 다른 전통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ان ابغضكم الي وابعدكم مني مجلسا الثرثارون المتفيهقون المتشدقون في الكلام

"너희 중에서 가장 나쁘고 멀리 떨어진 자들은 경박한 말쟁이, 과도한 말투, 말에 장식과 인위음을 사용하는 자들이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컬렉션 *무스나드 아흐메드* 그리고 *티르미디* 예언자 동료 아부 타라바의 권위에 따라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파티마(예언자의 딸 신께서 기뻐하시길)는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가 이렇게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شرار امتي الذين غذو بالنعيم يأكلون الوان الطعام ويلبسون الوان الثياب و يتشدقون في الكلام

"내 민족 [또는 추종자들](우마)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은 안락함과 호화로움 속에서 자라났고, 온갖 종류의 음식을 먹으며, 온갖 옷을 입고(과시적인 소비의 표시), 대화에서 장식과 인위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이븐 아비 아드 둔야*와 *바이하키 피 알-슈압 하*디스 *모음*집)

한 번은 그가 세 번 반복했다:

واهلك المتنطعون

"조심해! 과장하는 사람들은 망가진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수집 *사히흐 무슬림* 예언자 동료 압둘라 이븐 마수드의 권위에 따라[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대화는 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화와 말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 외에는 쓸모없고 신성한 법이 비난한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에 포함된다. 그러나 종교 설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운율은 과잉이나 과장이 없다는 조건으로 예외로 인정됩니다. 설교와 권고의 목적은 청중들이 마음속에 의로운 행위를 하려는 동기와 열망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말의 효과는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단어, 운율, 암시, 암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에서 설교 스타일을 채택하는 것은 완전한 무지입니다. 이 인위성과 부자연스러움의 촉매제는 과시(*리야*)이며, 이 재앙에 연루된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의 웅변과 웅변에 감탄하고 그런 인물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기를 원한다.

일곱 번째 해악 – 음란, 저속함, 외설 욕설: 이것 역시 [신성한 법]에서 정죄되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음란함과 외설의 기원은 내면의 악과 천한 성향에 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اياكم والفحش فان الله تعالى لا يحب الفحش ولا التفحش

"음란함과 저속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라. 분명 하나님은 음란함, 저속함, 외설을 좋아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는 예언자 동료 압둘라 빈 우마르의 권위에 따라 *나사이* 와 *하킴*을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또 다른 전통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ليس المؤمن بالطعان ولا اللعان ولا الفاحش ولا البذى

"잘못을 찾아내는 자, 저주를 저지르는 자, 음란하고 음란한 말하는 자, 과도한 말하는 자는 신자가 될 수 없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예언자 동료 압둘라 빈 마수드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수집* 티르미디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الجنة حرام على كل فاحش يدخلها

"모든 음란한 말하는 자는 천국 출입이 금지되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수집 *이븐 아비 앗-둔야* 예언자 동료 압둘라 빈 우마르의 권위에 따라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아흐나프 빈 카이스(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말했다: "치명적인 병에 대해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음란함과 무례함, 도덕성과 내면의 성향이다."

부끄러운 일들을 노골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음란하고 저속한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성기의 이름을 붙이고 교미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는 것. 성격이 나쁘고 도덕, 예의, 인간의 일반적인 예의와 관련된 문제라도 혼란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은 그와 관련된 노골적이고 음란한 표현을 개발해 주저함과 부끄러움 없이 사용하는 반면, 경건하고 선량한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려 스스로를 경계합니다. 대신, 정당한 필요에 의해 언급되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암시와 모호한 표현으로 말합니다. 압둘라 빈 압바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이렇게 말했다: "신은 수줍음을 지니고 있다. 그분은 자비롭고, 죄를 용서하시며, 자연에서 명백한 것들을 암시로 언급하십니다." 따라서 꾸란은 접촉과 교미를 의미한다. "com", "touch", "동반자"와 같은 단어들은 [꾸란에서 결혼 관계와 관련된 규칙을 설명할 때 사용된 교미를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 안에는 음란함이나 외설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관계'라는 표현에만 제한하지 않고 해석하고 의미를 내포하며, 듣기만 해도 혐오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과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단어들 중 일부는 다른 것들보다 덜 저속합니다. 이와 관련해, 습관은 국가와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쨌든, 저속하고 외설적인 단어는 미움(*마크루*)으로 불쾌하고, 극단적인 경우는 금지(*하람*)된다.

두 단계 사이의 단어들은 [성법에서 싫어하거나 금지된다는 점에서]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어들은 성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관계와 관련 없는 말로도 나쁜 성향의 사람들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인간 배설물과 관련된 단어는 이런 성격에 해당하며 명시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병, 피부 질환 등 결함이 있거나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말고 암시적으로 언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심각한 상태나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식으로요. 질병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외설적이며, 특히 환자가 이를 공개하거나 언급하기를 꺼릴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혀의 해악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음란하고 저속한 말의 촉매제는 오랜 기간 실천한 후 마음에 새겨진 습관과, 음란하고 저속함에 익숙한 죄와 부도덕한 사람들의 교류입니다. 한 베두인이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고, 대답하길:

عليك بتقوى الله وان امرو عيرك بشي تعلمه فيه ويكن وباله عليه واجره لك ولا تسبن شيئا

"계속해서 경건한 경외심과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누군가 당신에게서 [나쁜] 점을 발견하고 당신을 맹비난한다면, 그런 사람을 보고 나서 다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책임은 그런 사람에게 남을 것이며, 당신은 신성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인내심과 절제, 그리고 보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또한 어떤 것도, 누구에게도 저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는 예언자 동료 아부 자리 안-나지미의 권위에 따라* 이븐 아흐마드*와* 타바라니 를 모았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베두인은 "이 조언 이후로 나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야드 빈 하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가 물었다: "오 신의 예언자여!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사회적 계층)이 저주를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보복해도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المتسابان شيطانان يتكاذبان ويتهاتران

"학대자 [한 명은 학대를 시작하고, 다른 한 명은 보복하는 자]는 서로를 거짓말하고 반박하며 서로에 대한 중상모략을 조작하는 두 악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집 *아부 다우드 타이알리시*와 *무스나드 아흐마드*)

여덟 번째 해악 – 신의 자비를 단절하는 소원(*라나*): 신의 자비(*La'na*)로부터 단절을 바라는 것은 인간, 동물, 돌 등 누구든지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لا يكون المؤمن لعانا

"신자는 라나(신의 자비로부터 벗어나길 바라는 자)를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다* ."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예언자 동료 압둘라 빈 우마르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 집* 티르미디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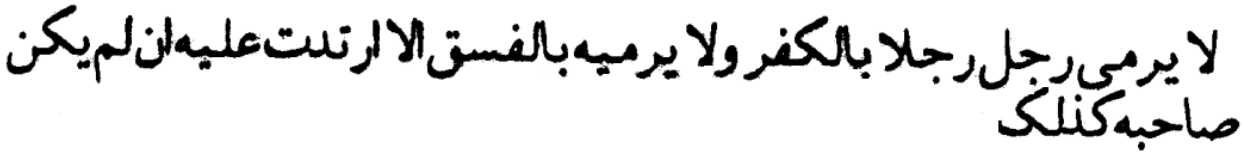
후다이파(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서로 신의 자비에서 분리되기를 바라는 민족은 신의 응징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한 전통에서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ان اللعانين لا يكونون شفعاء ولا شهداء يوم القيامة

"[습관적으로] [타인이 신의 자비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자들은 심판의 날에 중재자도, 증인이 될 수도 없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예*언자 동료 아부 알다르다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 집 사*히흐 무슬림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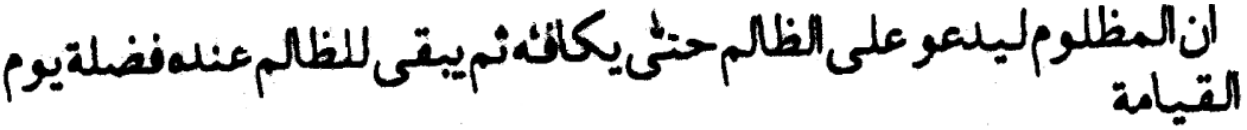
라나*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멀리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신과 억압 같은 신과 거리를 두는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이 경우 "하나님의 저주(*라나*)가 억압자들에게 내리길", "하나님의 저주가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 편에 서는 자들에게 내려지기를" 등이라고 말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누군가가 신의 자비에서 멀어지거나 멀어지길 바라는 데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감한 상태이며,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가까움을 빼앗으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숨겨진 영역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의

예언자(무함마드)께 알려주시면(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그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신의 자비로부터 거리를 두고 박탈되는 특성은 세 가지입니다: 불신(*쿠프르*), 확립된 종교 원칙과 가르침에 대한 혁신(비다), 그리고 노골적인 죄(*피스크*). 특정 죄인에게 신의 자비를 빼앗기길 바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안에는 큰 혼란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죄에 빠지는 것을 본 후에는 사탄에게 신의 자비를 빼앗기길 바라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사람들을 악으로 부추기는 자이기 때문이며, 그를 저주하는 데 해가 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슬림에게 불신(*쿠프르*)과 명백한 죄(***Fisq***)를 적절한 조사 없이 돌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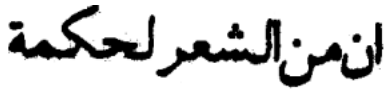
"누군가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고발하고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면, 그 불신앙과 죄에 대한 비난은 고발자에게 되돌아간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는 예언자 동료 아부 다르의 권위에 따라 *사히흐 부카리*와 *사히흐 무슬림* 을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압둘라 빈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신은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을 매우 싫어한다"고 말했다. 신을 부르고 해를 끼치게 하는 것은 신의 자비를 끊으려는 것과 비슷하다(*라나*). 또한 억압자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병들게 하거나 건강을 주지 않거나 죽게 하신다고 말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하*디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의 전통]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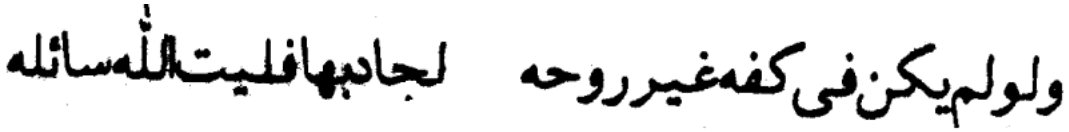
"억압받는 자는 억압자를 해치기 위해 간청을 하여 복수한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억압자에게 남는 것은 [억압받는 자들의 간청으로 인해 억압자에게 가해진 피해 중 [그 이상의 피해]뿐이다."

아홉 번째 해악 – 음악과 시: 이 주제는 『신심 연주와 영적 황홀경의 책』(*키탑 아다브 우스 사마 와 알-와즈드*)에서 철저히 논의되었다. 이 책은 그의 대작 『이히야 알울룸 앗딘』 *또는 『신으로 가는 지식의 부흥』 2 권 또는 4분의 1에 수*록되어 있다; 가잘리의 대작 중 첫 번째 권(신성한 예배 행위와 그 뒤에 숨겨진 내면의 지혜에 대해)과 두 번째 권(인간과의 사회적 교류에 관한 것)은 이 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어떤 음악이 허용되는지, 어떤 음악이 허용되지 않는지. 여기서 그 논의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에 관해서는, 좋은 [목적 있고 교훈적인] 시는 좋고, 나쁜 시는 [사람들을 부추기고 부도덕하게 부추기는 것]은 나쁘다. 하지만 시에 몰두하고 취미로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한 영지주의자가 시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시는 그만두고 신성한 기억(*디크르*)에 몰두하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를 말하거나 시를 만드는 것이 금지(*하람*)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은 신성한 법의 한계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일부 시는 지혜로 가득 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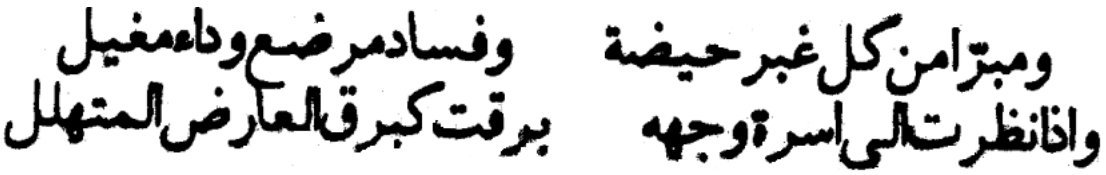
시의 구절은 보통 찬양과 비난의 주제로 구성된다. 그 안에는 거짓말을 위한 큰 공간이 있다. 하지만 노골적인 비난이나 노골적인 찬사는 반감받지 않는다. 칭찬에는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는 약간의 관대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유형의 시는 거짓말이 섞여 있어 금지된(*하람*)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가 영혼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것조차도 썼을 거야. 구하는 자는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구하는 것에 대해]."

이 시에서 찬양받는 사람이 관대하지 않다면, 이 구절은 완전한 거짓말일 뿐입니다 [신의 법에 의해 금지됨]. 그러나 찬사가 실제로 관대하다면, 이 과장은 허용되며, 시의 아름다움이라고 불리는데, [이 과장의 목적]은 현실이 아니라 찬사의 극도의 관대함을

표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장된 시구들은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 앞에서 여러 차례 낭송되었으나, 그는 이를 금지하지 않았다.
아이샤(예언자의 아내, 신께서 그녀를 기뻐하시길)는 이렇게 전합니다: "한 번은 그녀가 물레(작고 휴대가 가능한 손으로 돌리는 물레로, 면화와 기타 섬유를 방적하는 데 쓰이는 물레)를 돌리고 있었고,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는 신발을 꿰매고 있었다 [그는 극심한 가난의 화신이었기 때문에].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니, 이마에 맺힌 땀방울들이 햇빛에 반짝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에 감탄하고 어리둥절했다. 그는 내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을 보고 물었다: '오, 아이샤!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야?' 나는 말했다: '오, 하나님의 예언자여!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별처럼 반짝인다. 만약 예언자 이전 시대의 유명한 아랍 시인 부 카비르 후들리가 당신을 봤다면, 그는 당신을 자신의 시의 구현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께서 물으셨습니다: '부 카비르 후들리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두 구절을 말했다 [부 카비르 후들리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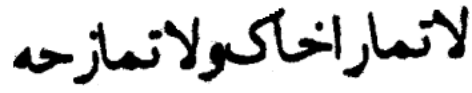
찬양받는 자는 생리의 부정함, 수유의 약함, 모든 질병의 타락에서 자유롭다.

그런 얼굴의 섬세한 부분을 보면, 구름 속 번개처럼 눈부신다.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께서 이 시적인 구절을 들으시고, 일을 멈추고 내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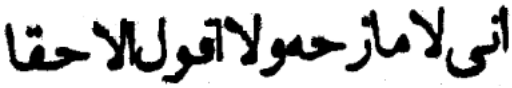
'신께서 당신에게 좋은 보상을 내리시길, 오 아이샤여! 지금 이 순간 내가 너에게 만족한 만큼 너는 나에게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 *집 바이하키 달라일 알-나부와*)

열 번째 해악 – 유머: 이것도 금지되고 싫어하지만, 소량이라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의 대화를 끊지 말고, 농담하지 마라."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집 *티르미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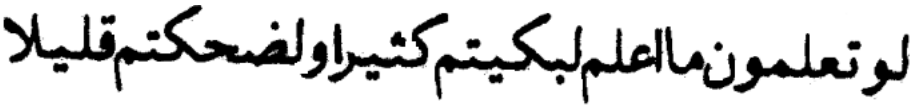
이 점에서 대화를 끊거나 끼어드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가 대화하는 사람을 모욕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반박할 수 있지만, 유머 분야에서는 누구에게도 모욕이나 불편함이 없으며, 이는 선의와 좋은 취미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왜 금지된 거죠? 답은 취미의 과잉과 인내도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 무관심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게 만듭니다]. 인내의 의미는 마음이 영원히 스포츠와 유머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스포츠는 허용되지만, 이를 계속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잉과 과장은 웃음을 증가시키고, 과도한 웃음은 심장을 죽게 하며, 그 결과 존엄한 경외심이 끝난다. 때로는 그로 인해 마음속에 적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 웃음에 이런 흠집이 없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함마드 예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유머가 있지만, 그 안에는 진실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는 유쾌한 유머와 취미가 있을 때조차도 오직 입에서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그의 특징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세속적인 절제(*주드*)와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타크와*)에도 불구하고, 유머에 들어가면 거짓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어떤 방식이든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쁘시길)는 말했다: "더 많이 웃는 자는 품위 있는 경외심을 잃는다(*하이바*); 유머에 빠지는 자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존경을 잃는다; 무언가를 많이 하면 인정받는 사람; 말이 많고 실수도 자주 하는 사람; 실수를 더 많이 하고, 수줍음과 겸손함을 잃는 자(*하야*); 수줍음과 겸손함을 잃은 자는 마음의 죽음을 초래했다; 또한, 과도한 웃음은 내세의

부주의함을 나타낸다"고 덧붙였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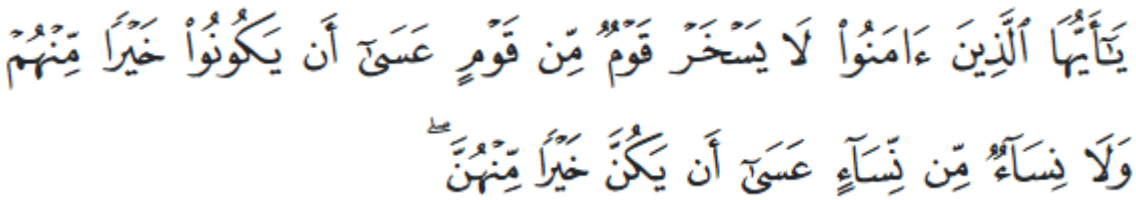


"내가 아는 것을 네가 안다면, 너는 더 많이 울고 덜 웃을 거야."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는 예언자 아나스 빈 말릭의 권위에 따라 사히흐 부카리*와* 사히흐 무슬림 *을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그는 신의 완전한 친밀한 존재로서 신성한 영지, 신의 현존 및 관련된 신성한 계시가 그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며 유머를 설 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대한 문제들이 그의 내면을 무겁게 짓누르는 가운데서도, 그는 때때로 웃음을 터뜨리고 외적으로는 인간의 정상성을 유지하여 동료 인간들이 신성한 길을 계속 밝히도록 했다는 점이 그의 특징이었다.]

아타 알술라미(신의 자비가 그에게 가득하길)는 40년 동안 웃지 않고 보냈다. 우하이브 이븐 알-워드(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이드*(금식 후 축하와 감사의 날)에 몇몇 사람들이 웃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의 길이 아니며, 신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경건한 경외심을 가진 자들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경외". 압둘라 빈 압바스(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 예언자 동료)는 "죄를 지은 후 웃는 자는 울면서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웃음에는 목소리가 있다. 목소리와 함께하지 않는 미소는 바람직하지 않거나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는 저렇게 웃곤 했습니다. 카심 마울라 무아위야는 베두인(사막의 아랍인)이 붉은 낙타를 타고 무함마드(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에게 다가와 경례했다고 전합니다. 그가 예언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무언가를 물으려 할 때마다, 낙타는 흥분해서 그를 [어느 정도 거리로] 데려갔다. 그와 함께 있던 예언자들은 이 모습을 보며 계속 웃었다. 결국 베두인들은 낙타를 제어하지 못하고 낙타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동료들은 "낙타가 기수를 떨어뜨려 죽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너희 입에는 그의 피가 가득하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이*븐 알-무바라크 피 아즈-주흐드* 하디스 *모음*집)

존엄한 분위기와 경외심을 해치는 웃음은 금지된다.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많이 웃는 자는 [신격과 위엄]에서 가벼워진다"고 말했다. 사아드 빈 알-아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아들에게 조언하며 말했다: "오, 아들아! 품위 있는 남자에게 농담하지 마, 그가 너에게 혐오감을 느낄 거야; 또한 낮은 성격과 비열한 남자를 농담하지 말아야 한다. 그가 당신에게 대담해지고 대담해질 것이다." 우마르 빈 압둘아지즈(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머를 피하라. 유머는 마음에 원한을 불러일으키고 악으로 이끈다. 꾸란을 논의 주제로 삼고 그에 대한 모임을 마련하세요. 이 점이 마음에 크게 다가오면 좋은 대화를 나누고 좋은 사람들을 언급하세요."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머(*미자*)가 왜 유머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부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는 "이 단어는 '아*자*'라는 어근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멀어지고 멀어지다'라는 뜻인데, 이는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유머'(*미자*)라고 불렸다"고 말했다.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모든 것에는 어떤 열매가 있고, 유머의 열매는 적대감이라고 말합니다. 일부 영지주의자들은 "유머 때문에 지성이 사라지고 친구들과 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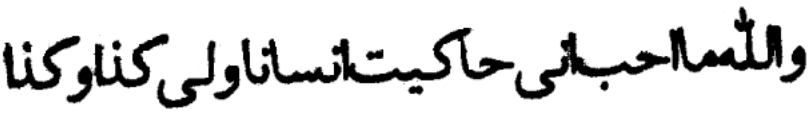
열한 번째 해악 – 조롱: 누군가를 조롱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호감 가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이들이여! 한 국가(또는 공동체, 또는 집단)는 다른 나라를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비웃는 사람들이 웃는 사람들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다른 여성을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그들(비웃음거리)이 그들(웃는 사람들)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꾸란 49장 1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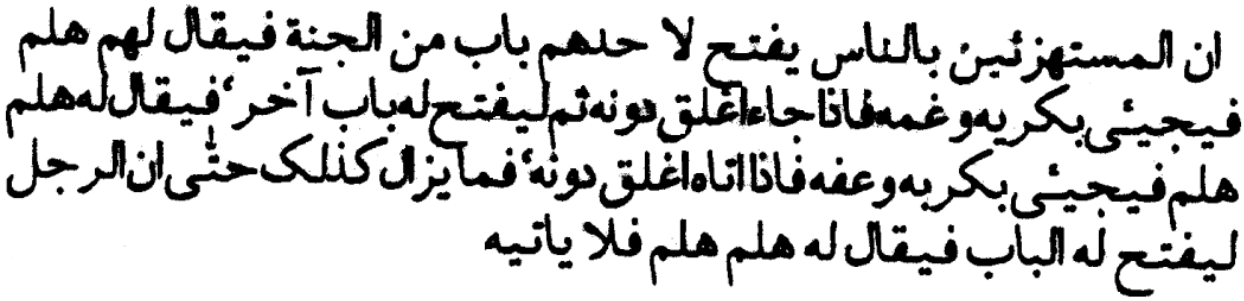
조롱의 의미는 누군가의 결점을 언급하면서도 누군가를 모욕하고 모욕하려는 의도로, 청취자가 조롱당하는 사람을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롱은 말, 몸짓, 암시, 그리고 누군가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뒤에서 그런 행동이

이루어진다면 뒷담화이고, 누군가 앞에서 하는 것은 조롱과 비꼬는 표현이지만, 이는 뒷담화는 아니지만 [범죄의 심각성 측면에서] 그 정도로 적지 않습니다. 아이샤(예언자의 아내, 신께서 그녀를 기뻐하시길)는 한 번 누군가를 조롱했다고 말했고, 무함마드 예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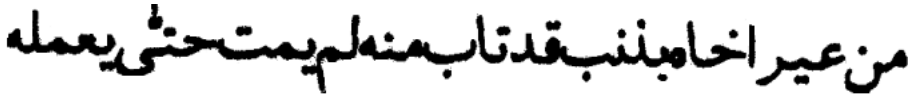
"맙소사! 나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집 *아부 다우드* 와 *티르미디*)

신자를 조롱하고 자신의 잘못이나 기형을 비웃는 것은 죄 중 하나입니다.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의 한 전통에서, 우리는 타인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사후 세계에서의 최종적인 종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들었습니다:



"[심판의 날에]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천국으로 가는 문이 열리고, 들어오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그들이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 문에 도달할 때, 그 문은 그들을 위해 닫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이 열리고, 그들이 들어오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고통과 비참함과 함께 그 문에 도달할 것이지만, 그 문은 그들에게 닫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언젠가 그들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요청을 받지만, [문이 반복적으로 닫힌 뒤 들어올 수 없다는 실망감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단계가 올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 *집 이븐 아비 앗-둔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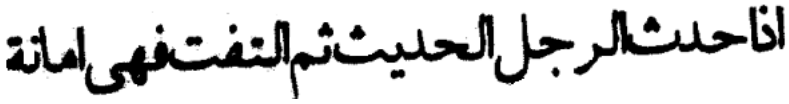
무아드 빈 자발(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은 예언자의 말을 전합니다:



"회개한 죄로 형제를 조롱하는 자는 같은 죄를 짓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집 *티르미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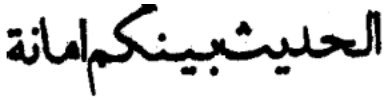
이 모든 [신성한] 전통의 결론은, 신성한 법에서 타인을 모욕하고 모욕하며 조롱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꾸란 구절은 당신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당신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이유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비웃는 것은 고통을 주는 상황에서는 금지되지만, 웃음을 받는 것이 기쁘다면 유머에 포함된다. 유머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전 페이지에서 설명되었습니다. 여기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금지된 조롱(*하람*)이 누구에게나 고통을 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누군가가 잘못된 문장이나 단어를 말하고 그 말에 웃거나, 누군가의 억양이나 대화 스타일을 조롱하거나, 글씨가 형편없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은 [비꼬는 듯이] 글씨를 잘 쓴다고 말하거나, 키 큰 사람이 짧은 문장을 보고 웃는 경우, 또는 큰 사람이 마른 사람을 비웃거나, 누군가의 상실을 보고 웃는 것, 이런 모든 조롱과 조롱은 [신성한] 법칙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열두 번째 해악 – 비밀과 비밀 폭로: 누군가의 비밀과 비밀을 폭로하는 것도 신성한 법칙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고통을 초래하고 친구와 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말하고 떠난다면, 그것은 [공유에 동의하지 않는 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예 *언자 자비르의 권위에 따라* 아부 다우드*와* 티르미디 *를 모 은* 하디스가 있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또 다른 예언 전통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들의 상호 대화와 [비밀 속에 이루어지는 사안들]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신뢰입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 *집 이븐 아비 앗-둔야*)

하산(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은 "형제(또는 자매)의 비밀을 밝히는 것은 부정직이자 횡령이다"라고 말했다. 누군가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부정직(신뢰 위반)이며,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다면 금지됩니다. 설령 아무에게도 해가 없더라도 피상적인 행동의 표시입니다.

열세 번째 해악 – 거짓 약속: 약속을 할 때 혀가 가장 중요하지만, 하위 자아(*나프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행하려는 경향이 없어 약속 위반을 초래합니다. 이는 위선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يَٰٓأَيُّهَا ٱلَّذِينَ ءَامَنُوٓاْ أَوۡفُواْ بِٱلۡعُقُودِۚ

"믿는 이들이여! 약속을 지켜." (꾸란 5장 1절)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약속을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예언자 동료 카바스 빈 아팀의 권위에 기반한 *하디스* 모음 집 *타바라니 아우사트(Tabarani Awsat*)는 다른 수집집에도 언급되어 있다. 선물이 되돌려가지 않는 것처럼, 약속을 어기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꾸란에서 예언자 이스마엘(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의 품격을 언급하셨으며, 그는 자신의 약속과 약속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아부 후라이라(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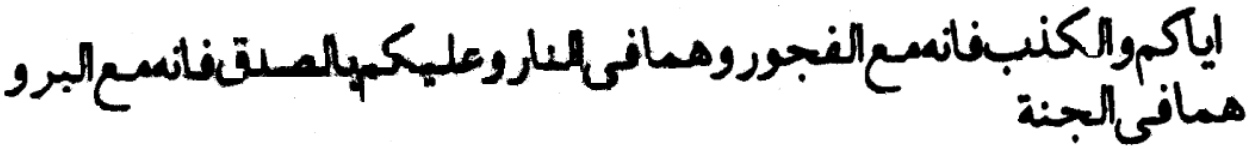
ثلاث من كن فيه فهو منافق وان صام وصلى وزعم انه مسلم اذا حدث كذب و
اذا وعد اخلف، واذا ائتمن خان

"세 가지가 존재한다면, 금식하고 기도하며 자신이 무슬림이라고 주장해도 위선자가 된다. [첫 번째는 그거야] 말하는 동안 거짓말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뢰를 맡길 때

배신적이고 부정직하다"고 말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집: *사히흐 부카리* 와 *사히흐 무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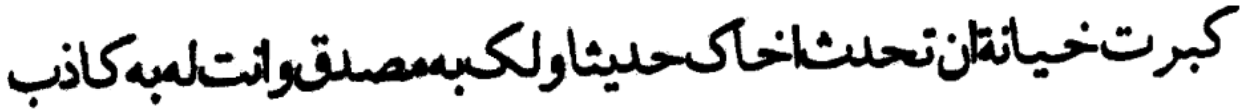
이 표현은 약속을 한 후에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려 하지만 나중에 어떤 장애물이 생겨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성격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선자라는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위선의 형태가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위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처럼, 위선의 흔적조차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합법적] 필요도 없이,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스스로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열네 번째 해악 – 거짓말과 욕설: 이것은 또한 가장 큰 잘못이자 큰 죄입니다. 아부 바크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의 전통을 전합니다:



"거짓말은 악행과 함께하니 스스로를 구하세요. 거짓말과 악한 사람 모두 지옥에 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라. 진리는 의로운 행위와 함께 있으며, 둘 다 천국에 계신다."라고 말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이*븐 마자*와 *나사이* 하디스 *모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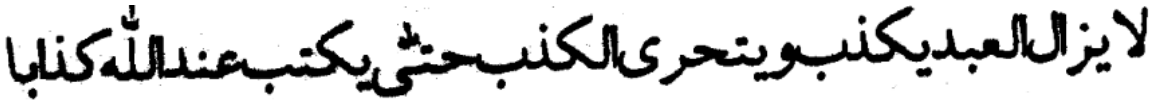
하산(하느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길)는 "외면과 내면,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의 차이는 위선이라고 하며, 이 차이와 위선의 근거는 거짓말에 있다"고 말했다. 무함마드 예언자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뢰를 저버리고 부정직한 행위(*키야나*)는 형이 진실이라고 여기는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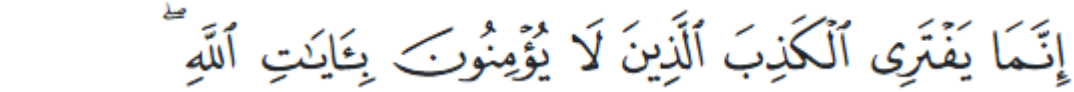
예언자 동료 수피얀 빈 오사이드의 권위에 따라 *부카리 피 알-아다브 알-무프라드*와 *아부 다우드*를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압둘라 빈 마수드(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무함마드 선지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의 말을 전합니다:



"종은 항상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퍼뜨리려 노력하다가 결국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로 기록될 때까지 노력한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집: *사히흐 부카리* 와 *사히흐 무슬림*)

하나님은 꾸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을 꾸며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절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꾸란 16장 105절)

아나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로부터 말했다고 전합니다: "나에게서 여섯 가지를 받아들이라, 나는 너에게 천국을 약속하리라."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그 여섯 가지는 무엇인가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말할 때는 거짓말하지 말라; 약속할 때는 절대 어기지 마라; 신탁을 위반하지 마십시오; 시선을 내리세요 [부적절한 것을 않게]; 사적인 부분을 보호하고; 그리고 손을 멈추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무스타드락 하킴*과 *카라에티 알라 마카림 알-이클라크*의 하디스 *모음*집)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가 한 번 거짓말을 한 증인의 증언을 거부했다는 전통이 있습니다(이 전통은 *예*언자 동료 무사 이븐 샤베흐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 *집 이븐 아비 앗-둔야*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께서 그에게 기뻐하시길]). 아이샤(신께서 그녀를 기뻐하시길)는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가 거짓말과 거짓말보다 더 싫어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과장하는 동료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흐릿한 기운이 스며들었고, 그것은 그가 자신의 죄를 새롭게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예언자 모세(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오 주님! 네 노예들 중에서 누가 더 나은 의로운 행위를 하느냐?" 대답은 "거짓말하지 않는 혀를 가진 노예, 악행을 생각하지 않는 자, 그리고 성적인 부위가 간음이나 간음에 빠지지 않는 자"였다. 루크만(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 - 예언자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현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아들에게 꾸짖으며 말했다: "거짓말이 새고기처럼 맛있어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나 작은 거짓말은 그 말자를 파괴한다." 다음 말씀은 무함마드 선지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로부터 진리를 찬양하며 전해졌습니다:

اربع اذا كن فيك فلا يضرك ما فاتك من الدنيا صدق الحديث، وحفظ الامانة، وحسن خلق وعفة طعمة

"네 가지 특성이 있다면, 세속 재산에서 얻지 못한 것은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즉, 이 특성들이 이 세상과 저세상에서 큰 높이로 오르기에 충분하다]: 말의 진실성, 타인이 맡긴 신뢰를 지키는 것, 좋은 인격과 성품, 그리고 오직 합법적인 것만을 먹는다"고 말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압둘라 빈 우마르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 집 카라에티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거짓말은 또한 완전한 조사를 하지 않은 스콜라 신학자의 종교 칙령(*파트와*, 구속력 없는 종교적 의견이나 명령)도 포함합니다. 또한 진위 인증을 받지 않은 예언 전통을 인용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이는 인용의 목적이 자신의 지식, 탁월함, 우월성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 아드리*" 또는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모욕으로 여겨집니다. 적절한 조사 없이 칙령을 내리거나 예언적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하람*).

열다섯 번째 상해 – 뒷담화: 하나님께서 꾸란에서 뒷담화를 비난하며, 이를 죽은 형제의 살을 먹는 것과 같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식인은 이미 혐오스럽고 금지된 것이고, 죽은 형제와 관련된 일이라면 혐오와 혐오감이 극도로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뒷담화를 묘사하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만연한 혐오와 혐오, 금지를 신성하게 다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وَلَا يَغْتَب بَّعْضُكُم بَعْضًا ۚ أَيُحِبُّ أَحَدُكُمْ أَن يَأْكُلَ لَحْمَ
أَخِيهِ مَيْتًا فَكَرِهْتُمُوهُ ۚ

"그리고 누구도 남을 험담해서는 안 돼. 죽은 형의 살을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 너는 그것을 혐오한다!" (꾸란 49장 12절)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كل المسلم على المسلم حرام دمه وماله وعرضه

"무슬림의 모든 것—한 사람의 혈통, 재산, 명예—은 다른 무슬림에게는 모두 금지되어 있다(이는 신성한 법에 따라 신성하고 불가침이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무슬림 사히흐 하*디스* 모음 집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뒷담화는 다른 무슬림이나 다른 인간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또 다른 예언 전통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لا تحاسد وا ولا تباغضوا ولا يغتب بعضكم بعضا وكونوا عباد الله اخوانا

"상호 질투와 적대감을 갖지 말고, 누군가가 다른 이들을 험담해서는 안 된다. [대신]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자 서로 형제가 되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상호 질투, 적대감, 뒷담화 등 유사한 부정적 성격으로 나타나는 낮은 자아의 비열하고 비열한 성격에 시선을 돌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아부 후라이라와 아나스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가 사*히흐 부카리*와* 사히흐 무슬림을 모았다 [신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길])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لا تحقرن من المعروف شيئا ولو ان تصب من دلوك في اناء المستقي، وان
تلقى اخاك ببشر حسن، وان ادبر فلا تغتابنه

"세상에 좋은 일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마라, 예를 들어 목마른 사람의 항아리에 우물에서 끌어온 물에 물을 붓고, 형제(또는 다른 사람)를 웃으며 만나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없거나 떨어져 있을 때 험담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 이 경우처럼 좋은 일은 "DID란 자신의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일이나 해를 끼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 *집 이븐 압 앗 둔야*)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은 예언자 모세에게 계시하셨습니다(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뒷담화에서 회개하고 죽는 자는 모두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며, 후회하지 않고 죽는 자가 가장 먼저 지옥에 들어간다." 예언자 같은 동료들은 예전에는 우아하게 만나곤 했지만, 위선자들은 겉으로는 잘 맞이했지만 뒤에서는 뒷담화를 퍼부었다. 하나님은 꾸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وَيْلٌ لِّكُلِّ هُمَزَةٍ لُّمَزَةٍ

"남의 잘못을 뒤에서 비난하는 자에게 재앙이 있리라." (꾸란 104장 1절)

한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금식을 [신성한] 예배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을 예배 행위로 여긴 경건한 선대 중 위대한 이들을 보았습니다." 압둘라 빈 압바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친구의 결점을 나열하려 할 때는 먼저 자신의 결점을 기억하라[그것이 친구를 험담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하산 알-바스리(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인류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오, 아담의 자녀들이여! 신앙의 현실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잘못 때문에 사람들을 나쁘다고 부르는 것을 멈추고 먼저 자신 안에서 그것을 개혁하기 전입니다. [하하인] 자아의 재형성에 몰두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집착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결점을 힐끗 볼 자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받는 종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릭 이븐 디나르(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 - 위대한 성인이자 영지주의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는 제자들과 동료들과 함께 죽은 개를 지나가셨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죠: '이 [죽은] 개에겐 너무 많은 악취가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이빨이 얼마나 하얗는가!' 따라서 그는 그들이 [죽은] 개를 험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의 선한 점을 언급하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디크르*)에 참여하라, 그 안에는 [내면의 영적] 치유가 있다; 사람을 언급하거나 기억하지 마세요. 그 안에는 [내면의 영적] 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험담하고, 비방하며, 조롱하고 증오하는 경향이 생기고], 그들과 관련된 다른 내면의 병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뒷담화의 의미와 한계: 뒷담화의 정의는, 누군가가 그것을 듣으면 나쁘다고 생각할 정도로 언급되며[그런 식으로 이야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언급이 신체적 기형이나 도덕적 악습과 관련이 있는지, 말이 표적이 되는지 행동인지, 이름이나 혈통[또는 인종]에서 잘못이 지적되는지, 신앙과 세속적인 문제와 관련된 문제인지 모두 포함됩니다. 신체의 기형은 눈이 멀었거나, 눈이 삐뚤어진 사람, 대머리, 키가 작거나, 키가 크거나, 어둡거나, 노란빛이 도는 사람이거나, 그 존재가 나쁘다고 여겨지는 내면의 특성과 연관짓는 것입니다. 자신의 혈통에서 결함을 찾으려면, 아버지를 노예, 죄인, 천한 사람, 구두 수놓는 사람, 혹은 싫어하는 (*마크루*) 직업에 속한다고 부르는 것이 있다. 도덕적 결함을 성격이 급하고, 인색하며, 오만하고, 과시하고, 성미가 급하거나, 겁쟁이, 약하거나, 겸손하거나, 거절당하거나, 그런 도덕적 악습에 빠졌다고 부르는 것. 신앙과 종교에서 잘못을 찾으려면 도둑, 거짓말쟁이, 술주정뱅이, 부정직한 자, 억압자, 기도와 금식 같은 신성한 예배 행위에서 게으르다, 정식 기도에서 절과 절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자, 또는 뒷담화나 악한 말을 자제하여 금식을 지키지 못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악덕들은 달성 행위로 여겨지는 금식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영적 정화]. 세속적인 문제에 대해 잘못을 찾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 무례하고, 무례하며, 사람들의 권리를 거부하고, 소유욕이 강하고, 수다스럽고, 식욕이 많고, 졸음이 많고, 이상한 시간에 잠을 자고, 앉아서는 안 될 자리에 앉는다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옷에 대한 흠집 찾기는 소매가 너무 넓고, 셔츠가 너무 넓으며, 옷이 더럽고 더럽다고 말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 문제에 대해 사람들에게 꾸짖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이 뒷담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에 대한 정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죄인이고 자신의 죄로 인해 그렇게 불린다면, 그들 기준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 주장은 잘못되었는데, 동료들이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에게 잘못을 찾거나 모욕하기 위해 그런 악행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문제와 명령에 익숙해지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언자 모임 외에는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계의 합의(*이즈마*)는 뒷담화의 결과가 누군가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고,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게 만든다는 것이다. 무함마드 선지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뒷담화를 그렇게 정의했으며,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언급하면 뒷담화를 하는 죄를 짓고, 주님께 불순종하는 자로 간주되며, [죽은] 형제의 살을 먹는 자가 될 것입니다 [뒷담화는 그와 같으므로].

무함마드 예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동료들에게 물었다: "'뒷담화'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예언자가 가장 잘 아십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형이 언급되는 것을 싫어하는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뒷담화다"고 말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만약 그 말이 [본질적으로 나쁘고 그가 그것을 언급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실제로 그 안에 존재한다면?" 그는 "만약 그에게 그런 면이 실제로 있다면, 그게 바로 뒷담화의 본질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없으면] 근거 없는 비난일 뿐이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무슬림 사히흐 하*디스* 모음 집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뒷담화는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모든 행위가 몸짓, 암시, 명확하거나 불명확한 신체 움직임 등 타인의 잘못을 드러내는 뒷담화에 해당합니다. 뒷담화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표현되고 모호하게 표현된 모든 것은 금지(*하람*)이며 불법입니다. 같은 [신성한] 계명(험담 금지)이 누군가를 흉내 내는 데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리 장애로 인해 절뚝거리는 사람을 흉내 내는 것이 험담보다 더 나쁩니다. 뒷담화는 글쓰기도 연설처럼 중요한 표현 수단이기 때문에 글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작가[또는 어떤 형태로든 글쓰기 매체의 작가]가 자신의 글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언급하고 결점을 나열한다면(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예외는 뒷담화입니다).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싫어할 때, 그는 누구가 저렇게 행동한다고 말하지 않고 대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했는가?"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아부 *다우드의 권위에 따른* 하디스 *모음* 집 [신께서 그녀를 기쁘시길])

학자와 스콜라 신학자들의 뒷담화: 가장 심한 뒷담화는 학자와 학문 신학자들(성직자 또는 *'울레마*)이 선한 사람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목적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성스러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와 사람들(일반인과 평신도)이 자신들(즉, 학자들은) 무지 때문에 뒤담을 하지 않는데, 이는 그러한 학자들이 동시에 두 가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는 뒷담화, 다른 하나는 자신의 죄와 실수를 깎아내리며 종교성과 경건함을 과시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실수, 죄, 도덕적 올바름과 정직함의 결여로] 앞에서 언급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이나 강력한 정치 엘리트를 방문하는 시련에 빠뜨리지 않으셔서 세상을 찾는 굴욕에서 구해주신 것에 모두 감사한다." 또는 기도의 형태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부끄러움과 굴욕에서 구원하시길." 그들의 목적은 타인의 결점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때로는 [신성한] 감사의 표현을 사용하고, 때로는 기도와 간청의 형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기도도, 신의 감사도 아닙니다. 가끔은 누군가를 칭찬한 뒤 뒷담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선하다. 그 사람은 얼마나 [신성한] 숭배를 하는지, 하지만 나쁜 성격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내심과 만족의 부족이라는 나쁜 성격에 관여하고 있다." 분명히 그들 자신도 비난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목적은 자신의 낮은 자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채택한 스타일은 청취자들에게 그들의 겸손과 진실성을 설득하여 그들이 의로운 사람 중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학자'는 세 가지 죄를 결합했다 - 뒷담화, 자랑, 그리고 자기 정화를 주장하는 것, 즉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는 것(자기망상적인 자기 의로운 오만의 상태에서 경건함을 인정하여 내면의 영적 투쟁과 변화를 방해함)과 어리석음에서 자신이 뒷담화로부터 정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아주 쉽게 사냥합니다. 이 사람들은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며, [그의] 하위 자아(*나프*)가 끊임없이 그들을 속입니다. 때로는 동료에 대한 뒷담화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완전함은 하나님께 돌리며(그분은 오류와 결함이 없으시니) 이거 정말 이상해!"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신의 위대함과 영광의 표현과 고백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의 악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때때로 뒷담화를 할 때

쓰이는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친구의 이런 [나쁜] 상태에 깊이 슬프고 슬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위로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슬픔과 간구의 나누기는 [진정한] 연민의 감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간구가 정말 의도되었다면, 그들은 공공장소가 아니라 기도 후 혼자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그들이 정말 슬펐다면,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말하죠: "안타깝네요! 어떤 사람은 큰 고난에 시달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간구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내면의 악을 잘 알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은 곳에 묻힌 비밀과 영혼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미묘한 악을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무지함 때문에 이 간구를 통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보상*(타왑) 대신 [신성한] 벌(*'아다브*)'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 뒷담화를 듣고 놀라움을 표현하는 것도 뒷담화입니다. 왜냐하면 뒷담화를 더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뒷담화를 듣는 자는 혀로 멈출 때까지 뒷담화의 공범이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것을 막을 용기와 힘이 없다면, 마음속에서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거나 일어나 모임을 떠나거나 화제를 돌려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청취자가 결코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듣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서도 그 언어를 금지한다면, 그것은 위선이다. 판단의 기준은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죄를 나쁘게 생각하면 죄로부터 보호받을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명확히 금지하고 언급된 내용을 옹호해야 합니다.

뒷담배 비방의 이유: 뒷담화에는 무수한 이유가 있지만, 모두 11가지 이유에 속합니다. 그중 [첫 번째] 여덟 명은 평신도와 관련이 있고, [마지막] 세 명은 저명한(비일반인) 인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 - 적대감과 원한: 마음속에 분노의 불꽃을 지피는 사건이 발생하며, 그 일이 일어날 때는 분노를 일으킨 자의 잘못을 언급함으로써 꺼집니다. [이 언급이 화난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때로는 겉으로는 분노를 통제하는 데 성공하지만, 마음속에는 원한이 남아 있는데, 이는 분노보다 더 나쁜데, 마음속에 남아 있는 원한과 적대감이

뒷담화의 영구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적대감과 원한이 모두 뒷담화의 원인임을 배웠다.

두 번째 원인 - 타인과 동의하기: 즉, 친구나 동료의 주장에 동의하고 검증하며,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그것에 빠져들고, 도와주고 동의하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임에서 누군가의 명예와 조롱을 가지고 놀면, 참여를 거부하거나 의견이 다르거나 주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떠나면 화가 나서 그런 사람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생각에 동의하며, 사회적 거래와 동질성의 중요한 기초로 간주된다. 때로는 동료가 분노에 휩싸여 누군가를 험담하기도 합니다. 그들처럼 화난 척 부름으로 가장하고 뒷담화에 휘말리며, 이 행동을 통해 행복, 슬픔, 불안, 편안함 등 모든 상황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원인 - 주의와 선점: 때때로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추측하며, 그런 사람이 중요하거나 권력 있는 인물 앞에서 자신을 험담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와 우려 때문에, 누군가는 그런 개인이 기대하는 말을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배신하고 표적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 올바른 말을 하여 그 사람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평판을 쌓고, 나중에는 그 사람에 대해 거짓말과 소문을 퍼뜨리며 [거짓말을 퍼뜨리는 의심 없이], "내 본성과 내가 전에 이 사람에 대해 말한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실이었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전 계획과 예방 조치 덕분에 두려움의 대상이 감히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만약 그렇게 해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으며 믿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안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원인 - 잘못 면제: 때로는 뒷담화가 죄에서 면제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되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면제가 의도였다면, 다른 사람을 언급하지 말고 자신의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포함시켜 주장이 강해지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뒷담화를 통해] 포함시킨다.

다섯 번째 원인 - 자만심과 허풍 표현: 이는 타인의 결점을 찾아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무지하거나 이해가 잘못되었으며, 말이 약하고 쓸모없다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비판의 목적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함을 보여주고, 자신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해력이 뛰어나며, 자신의 말이 좋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게 하고, 상대방이 사회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원인 - 질투: 때때로 질투는 사람들이 부러움을 칭찬하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것을 보고 뒷담화를 유발합니다.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고, 이 축복들이 부러움 받는 이들로부터 빼앗기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모욕하기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러움을 받는 이들의 결점을 지적하기 시작한다. 질투는 적대감과 원한이 아닌 상태로, 다른 사람이 과도한 행동을 할 때 나타나 복수를 상징합니다. 질투에는 복수라는 요소가 없습니다. 때로는 자비로운 친구이자 가까운 동료조차도 부러워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원인 - 농담: 즉, 누군가의 결점을 끌어내어 [사회적] 모임에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참가자들의 웃음을 유발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원인 - 모욕: 때때로 뒷담화는 타인을 모욕하고 모욕하는 행위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상대방이 참석하든 말든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자신이 얼마나 굴욕을 주는지, 그리고 만약 자신이 다른 사람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저명한 인물과 관련된 뒷담화의 원인: 이 세 가지는 매우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그들은 순수한 악이지만, 사탄은 그들에게 탐욕을 심어주어 이 모든 원인들이 선하거나 어느 정도 선이 있지만 악을 섞는다고 믿게 합니다.

첫 번째 원인 - 놀라움: 때때로 종교인이 실수를 할 때, 놀라움의 표현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그런 행동에 놀랐습니다. 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종교인의 실수는 놀라움의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놀라움을 표현할 때

어떤 이름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이 종교적 감정을 배신으로 바꾸어 이름을 언급하게 만들고, 한 사람을 죄로 끌어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말은 뒷담화에도 포함된다: "누군가가 [이성]의 못생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놀랍다, 혹은 교육받은 사람이 무지한 사람에게 가는 게 놀라운다."

두 번째 원인 – 공감과 동정의 감정: 다시 말해, 누군가의 상태에 슬퍼지고, 그 사람이 나쁜 일에 연루된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현재 상태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후회한다는 주장은 옳고 칭찬할 만하지만, 이름을 언급한 것이 나빠졌고 좋은 감정이 뒷담화의 원인이 되었다. 무슬림의 실수를 후회하고 공감과 동정을 느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사탄은 사람을 도발해 이름을 언급하게 하여 악을 선한 것으로 섞습니다.

세 번째 원인 – 하나님을 위한 분노: 누군가가 부적절한 행위에 연루된 것을 보거나 그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신앙의 추진력으로 인해 분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노가 발생해 이름을 언급하며 표현된다면, 이 행위는 신의 보상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뒷담화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선을 설득하고 악을 경고하는 데 분노하는 것은 선하지만, 특정 사람에게 표현해야 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 대상임을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름을 언급해야 한다면 분개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미묘한 차이들은 일반인뿐 아니라 학자들도 잘 모르는 것들이며, 놀라움, 자비, 분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이름을 언급해도 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는 잘못된 추측입니다.

뒷담화의 치료: 모든 해로운 내면의 성향, 특성, 악한 습관은 [습득한 지식에 따라] 지식과 행동의 조합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지식만으로는 이러한 병을 치료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행동만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질병에 대한 약물은 그 질병의 원인과 반대입니다. 우선, 뒷담화의 이유를 찾아야 하며, 이전 글들에서 많은 글이 다뤄졌습니다. 혀의 뒷담화를 막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간단한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상세한 방법입니다.

뒷담화를 고치는 간략한 방법: 뒷 담화는 신의 불쾌함을 얻는 것이며, 심판의 날에 선행이 헛되이 된다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뒷담화는 비방자의 선행을 비방당한 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선행이 충분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죄가 험담자의 계좌로 전가됩니다. 더 나아가, 사람은 식인종과 유사해져, 자신의 죽은 형제의 살을 먹는 행위를 하며, 형제를 험담하는 행위가 된다 [즉, 어떤 개인에게서든] 이 굴욕이 얼마나 큰일까? 만약 한 사람의 행위에 선행과 악행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악행의 규모가 더 무거워진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다. 사람의 두 체중계가 [무게 면에서]와 같다고 가정해 봅시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의 한 가지 죄가 뒷담화로 인해 악행의 척도를 기울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언적] 전통과 뒷담화에 대한 경고를 보면, 두려움 때문에 혀는 심지어 뒷담화조차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전략은 뒷담화를 하기 전에 자신을 한 번 살펴볼 때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는 자신의 결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완화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아 죄를 짓는 대신에요. 만약 자신 안에 결함이 있다면, 자신의 낮은 자아(*나프스*)를 정죄하고 꾸짖어야 합니다. 왜 누군가를 비난해야 할까요 [내면에 결점이 있을 때, 그리고 거의 아무도 그런 결점이 없는 경우는 없는데]? 자신 안의 결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없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그 잘못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일 때(지속되도록 허용하는 것에 의해), 그리고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존재한다면(따라서 자신의 선택이 아님) 그것을 정죄하는 것은 창조주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사람이 현자에게 "오, 못생긴 자!"라고 외쳤듯이, 그는 "오 형제여! 만약 내 힘에 아름다움이나 추함이 있었다면, 내 얼굴을 좋게 만들었을 것이다." 자신의 영혼에서 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죄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뒷담화에 휘말리지 않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는 큰 잘못 중의 큰 잘못입니다. 시체의 살을 먹는 것보다 더 나쁜 행위가 있을까요?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존재만이 결점과 흠집이 없습니다. 자신이 모든 결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수한 무지이자 어리석은 생각이며, 그 자체가 큰 잘못이다. 뒷담화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있어 유용한 한 가지는 자신을 타인으로 추론(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나를 험담하는 것에

슬퍼하듯, 다른 사람들도 내가 그들에게 험담을 하는 것에 슬퍼할 것이다. 내가 나를 험담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험담하는 걸 좋아할까?"

상세한 치료 방법: 상세한 치료법은 뒷담화가 유발되는 이유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치료는 그 [근본] 원인을 근절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배신 비방의 원인과 유발 요인은 이전에 언급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뒷담화의 원인이 [누군가에 대한] 분노라면, "내가 화를 내고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 뒷담소리 때문에 나를 불쾌하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뒷담화를 금지하셨고, 나는 그분의 계명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셨기 때문이다." 뒷담화의 두 번째 원인은 순응(즉, 동료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즉, 친구들이 뒷담화를 할 때 좋은 척하려고 뒷담화를 하는 것입니다. 창조물의 승인을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모든 것의 창조주이자 소유자)의 불쾌함을 불러일으킨다면 무슨 이익이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님 외의 기쁨을 구하면서 주님을 불쾌하게 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 번째 비방의 원인은 자신의 순수함을 자신에게 부여하는 것, 즉 죄와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고, 자신이 그들로부터 무죄를 인정하며, 자신의 순수함을 열거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불쾌함은 하나님의 불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의 불쾌감은 뒷담화로 인해 확실하지만, 자신의 무죄를 바라는 사람들의 승인은 보장되지 않는다. 이 세상의 존엄성은 누가 얻을지 못할지에 따라 추측(원함)일 뿐이지만, 뒷담화로 인해 내세의 굴욕과 상실은 반드시 겪게 될 것이다. 그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됩니다. 신성한 계명을 어기는 자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뒷담화의 이유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함을 과시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이전에 가졌던 지위가 이 험담 때문에 사라졌다는 점을 생각하며 고쳐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전히 세속적인 보상과 명예를 받는다면, 그 가치는 무엇일까요? 또한, 누군가가 누군가의 말을 믿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그 말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 남아 있는 모든 존엄성은 사라지고 거짓말쟁이로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질투로 인한 뒷담화는 신의 응징이 두 배로 작용합니다. 첫째는 사라질 세속적 축복에 질투하는 것이고, 둘째는 질투하는 사람을 험담하여 내세의 응징까지 더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 세상과 신앙의 상실을 포함합니다. 또 다른 배신 공격의 해로움은 선행이 배신당한 사람에게 전가되고, 나쁜 행위가 배신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뒷담화의 동기가 조롱이라면, 다른 사람을 굴욕스럽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굴욕을 쌓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지막 결말을 바라보며, 심판의 날에 지옥으로 향하며 조롱당한 이들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며 겪어야 할 수치와 굴욕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생겨 다른 사람을 조롱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조롱받아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리석음이 다른 사람을 조롱했고, 결국 심판의 날이라는 굴욕에 자신을 내어준다.

죄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감정이지만, 사탄은 이 의로운 행위를 질투하며, 누군가가 그 말을 하게 하여 그 의로운 행위가 자비를 베푼 사람에게 전이될 수 있도록 속이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죄와 잘못에 연루된 다른 이의 상실은 보상받고, 자신은 보상할 수 없는 손실에 연루되어 동정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위한 불만이 뒷담화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가질 때, 사탄은 뒷담화에 빠져 신성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놀라움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상태에 놀라면, 뒷담화에 휘말리게 됩니다. 둘째로, 누구도 놀라움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대신 타인의 신앙이나 세속적 문제에 놀라움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종교를 잃는 자신(*Nafs*)에 놀라움을 느껴야 하며, 이는 세속적인 보복을 받을 자격이 된다. 이는 놀라움을 핑계로 다른 사람의 숨겨진 결점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 굴욕을 당할 것입니다. 이 모든 병의 치료법은 지식과 신성한 영지(Gnosis)입니다. 신앙이 강하고 신성한 [그노시스]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가진 자에 대한 비방은 혀를 보호합니다.

마음에서 비방하는 금지: 환멸을 느끼거나 타인에 대한 낮은 평가(*Su al-Zunn*)는 신성한 법칙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나쁜 것, 악의, 무례한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결점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환멸을 느끼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환멸은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나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발생했다면 신성하게도 용서받고, 오히려 의심도 용서된다. 금지된 것은 타인에 대해 나쁘고 낮은 평가를 품는 것이며, 이는 마음의 성향과 의도[타인에 대한 나쁜 생각을 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멸은 꾸란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يَٰٓأَيُّهَا ٱلَّذِينَ ءَامَنُواْ ٱجْتَنِبُواْ كَثِيرًا مِّنَ ٱلظَّنِّ إِنَّ بَعْضَ ٱلظَّنِّ إِثْمٌ

"믿는 이들이여! 대부분의 추측은 피하세요. 어떤 추측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환멸, 부정, 증오 등으로 이끌며, 결국 물질적·영적으로 파괴적인 길로 이끕니다]." (꾸란 49장 12절)

환멸을 느끼거나 타인에 대한 낮은 평가(*수 알-준*)는 금지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의 비밀을 아는 자(즉, 신)만이 마음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종(즉, 인간)도 다른 사람에 대해 마음속에 잘못된(부정적인) 생각을 품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 반박이나 암시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해진다면, 자신의 직접적인 지식과 관찰로 인해 잘못된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할 만한 출처로부터 관찰하거나 듣지 못한 악의 생각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은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런 암시를 마음에 심는 것은 사탄이며, 이는 강력히 반박되어야 합니다. 죄인(또는 악에 성향이 있는 사람)이 전하는 소식은 신뢰할 수 없고, 사탄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이자 잘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يَٰٓأَيُّهَا ٱلَّذِينَ ءَامَنُوٓاْ إِن جَآءَكُمْ فَاسِقٌۢ بِنَبَإٍ فَتَبَيَّنُوٓاْ أَن تُصِيبُواْ قَوْمًۢا بِجَهَٰلَةٍ

"믿는 이들이여! 죄인(또는 상습적 잘못을 저지르거나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소식을 전해주면, 그 소식을 믿기 전에 철저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국가(또는 집단)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꾸란 49장 6절)

이는 사탄이 가져온 소식(타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관련된 마음속 암시)을 확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환멸이나 타인에 대한 나쁜 인식이 마음속에 스며들면, 그것을 끝낼 방법을 생각해야 하며, 자아(*Nafs*)가 상대방의 내면 상태가 숨겨져 있음을 이해하게 해야 하며, 환멸을 일으키는 일은 선과 악의 가능성을 모두 가질 수 있으며, 선의 가능성은 남겨두고 악을 선호할 필요는 없다. 환멸은 그 징후로

인식되며, 그 징후는 예전에는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사람에게 친절하고 존중했지만 지금은 그 사람을 대하는 행복이 사라집니다. 이 마음의 변화에서 자신이 상대방에게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해결책은 나쁜 추측이 마음에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머물게 하거나 몸의 팔다리를 통해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환멸이 자리 잡는 현상은 혐오와 증오를 표현하기 시작하고, 팔다리를 통한 표현은 마음의 환멸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탄은 아주 사소한 구실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환멸을 마음에 심고, 악을 인식하는 데 있어 얼마나 지적이고 현명한지 설득하며, 믿는 자가 신의 빛으로 본다고 믿게 만듭니다. 실제로는 신성한 빛으로 인식하지 않지만, 대신 사탄의 속임수의 어둠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무언가를 알려주고, 당신의 추측이 그 사람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다면,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것은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한 환멸의 표현이지 진실성 때문에 거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멸에 대한 도덕적 책임] 면제됩니다. 누군가에 대해 좋은 평가를 갖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환멸을 느끼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보원이 적대감을 갖지 않고, 전달된 소식을 전하는 이에게 질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전달된 소식이 중상모략으로 의심되어 증언을 거부할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면, 피고인을 거짓말자나 진실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보원이 전달한 그 사람의 [내면] 상태가 이전에도 숨겨져 있었고 지금도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무슬림에게 환멸을 느낀다면, 한 명에 대한 환대와 존경을 높이고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마음이 [환멸에서 벗어나고] 깨끗해지고, 사탄은 당신에게 실망하며 손을 떼며, 당신이 선을 위해 간구하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존경을 표할까 두려워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증언이나 개인적인 관찰을 통해 무슬림의 악을 알게 되면, 사탄의 영향에 넘어가 그를 비방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조언을 한다면, 다른 사람의 결점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권고자이자 설교자로 보내셨으며, 다른 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위대함이나 타인의 낮음을 마음에 품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상실을 알게 된 후 당황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상태에 대해 후회해야 합니다. 의도는 잘못이 상대방에게 남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조언 없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조언을 해주지 않고 스스로 올바른 길을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따랐다면 한 가지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조언에 대한 보상,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상태를 후회하는 것, 셋째는 다른 사람의 종교를 위해 제공한 도움에 대한 것입니다.

험담에 대한 예외: 신성법에 뒷담배 금지에는 여섯 가지 예외가 있으며, 즉 다음 여섯 가지 상황에서 험담이 허용된다:

일. 첫째는 억압의 시정을 위한 것이었다 [억압받는 이들이 당국에 억압자의 억압에 대해 고소하는 형태로],
이. 둘째, 악을 완화하고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아 죄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자신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삼. 셋째, 신학자와 법학자들로부터 실제 사건과 타인에 대한 불만을 들려주는 법적 의견을 얻는 것,
사. 넷째, 무슬림들이 다른 이들의 악을 막는 것[종교라는 외장을 입고 잘못된 이념에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면],
오. 다섯째,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이름에 대해 [불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개의치 않는다],
육.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공개적인 죄를 저지르고 자랑스러워하는 경우입니다.

열여섯 번째 해악 – 이야기 전달: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가십과 비밀 사항을 퍼뜨려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혀의 해악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짓 욕설에 익숙하고, 싸구려(품위 없는) 사람이며, 가치도 없고(경솔함에 헌신하며) 많이 조롱하고 이야기를 전하는 자의 말을 듣지 말라." (꾸란 68장 10-11절)

한 구절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عُتُلٍّ بَعْدَ ذَٰلِكَ زَنِيمٍ

"성격이 급하고 악한 사람." (꾸란 68장 13절)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لايدخل الجنّة نمّام

"이야기꾼은 천국에 가지 않는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아부 후다이파의 권위에* 따라 사히흐 부카리*와* 사히흐 무슬림 *하디스*를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아부 후라이라(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의 말씀을 전합니다:

احبكم الى الله احاسنكم اخلاقا الموطئون اكنافا يالفون ويؤلفون وان ابغضكم الى الله الحثاؤن بالنميمة المفرقون بين الاخوان الملتمسون للبراء العشرات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는 너희가 가장 잘 행동하는 자들(도덕, 예절, 내면과 외면의 성향)이고, 마음이 여리며, 사랑하고 [타인에게] 사랑받는 자들이다. 너희 중 가장 미움받는 자들은 소문을 전하는 자들이고, 형제들 사이에 분열을 심으며 무고한 사람들의 잘못을 찾으려 한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른* 하디스 *모음 집* 타바라니 아우사트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이야기하는 사람의 정의는 그 계시가 나쁜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특히 그 계시된 사람이 그것을 싫어하거나 듣는 사람이 싫어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계시가 반드시 방언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글쓰기와 암시는 방언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야기가 반드시 누군가의 나쁜 말이나 행동, 잘못과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야기는 싫어하는 모든 것을 표현(또는 드러내는)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나 상태를 발견했을 때(누군가가 그것을 드러낸 결과로) 침묵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슬림에게 이익이 되거나 죄를 없애려는 의도라면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부당하게 누군가의 소유물이나 재산을 빼앗는 것을 목격했다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증언을 해야 하며, 그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가져갔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야기 전달의 원동력은 말이나 관련 이야기가 드러난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거나, 쓸데없는 일에 관여하면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어 즐거움을 보내기 위함입니다. 누군가가 앞에서 이야기를 하며 "어떤 사람이 당신에 대해 이런 말을 한다,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 공모하고 있다, 당신의 적의 친구이거나 당신을 파괴하려 한다" 같은 말을 한다면, 당신은 여섯 가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첫째, 그런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꾼은 죄인(*파식*)이기 때문이며, 그런 사람의 증언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يَٰٓأَيُّهَا ٱلَّذِينَ ءَامَنُوٓاْ إِن جَآءَكُمۡ فَاسِقُۢ بِنَبَإٖ فَتَبَيَّنُوٓاْ أَن تُصِيبُواْ قَوۡمَۢا بِجَهَٰلَةٖ

"믿는 이들이여! 악한 사람이 소식을 전한다면, 철저히 조사하세요. 아마도, 진짜 사실을 모르고 숨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아 무지한 탓에 한 국가나 집단을 해칠 수도 있다." (꾸란 49장 6절)

둘째, [이야기꾼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말리며] 그 행위의 악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وَأۡمُرۡ بِٱلۡمَعۡرُوفِ وَٱنۡهَ عَنِ ٱلۡمُنكَرِ

"그리고 선한 행위를 꾸짖고 나쁜 행동을 경고하라." (꾸란 31장 17절)

셋째, 하나님을 위해 이야기꾼을 싫어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움을 받으며, 하나님께 미움받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의무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윤리적인 행위 때문에]. 넷째, 부재한 형제(또는 자매)에게 환멸을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يَٰٓأَيُّهَا ٱلَّذِينَ ءَامَنُواْ ٱجۡتَنِبُواْ كَثِيرٗا مِّنَ ٱلظَّنِّ إِنَّ بَعۡضَ ٱلظَّنِّ إِثۡمٞ

"믿는 이들이여! 대부분의 추측은 피하세요. 어떤 추측들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환멸, 부정, 증오 등으로 이끌고, 결국 파괴적인 길로 이끕니다]." (꾸란 49장 12절)

다섯째,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기 때문에 앞에서 연습된 내용을 듣고 더 많은 정보를 찾으려 호기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وَلَا تَجَسَّسُوا

"서로를 염탐하거나, 사람들이 드러내기를 꺼리는 사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사적인 문제를 캐묻으려는 무심한 호기심을 가지지 말라]." (꾸란 49장 12절)

여섯째, 이야기꾼이 금지하는 같은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야기꾼)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드러나는 사람)"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우마르 빈 압둘 아지즈(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는 한 남자가 다가와 다른 사람에 대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는 "원한다면 당신의 말을 조사할 수 있다. 만약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당신은 꾸란의 이 구절처럼 '죄인이 소식을 가지고 오면 철저히 조사하라'는 뜻이 될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꾸란의 구절처럼 '그런 자는 조롱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솔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내가 너를 용서할 거라는 거야." 그 남자가 말했다: "오, 신자들의 지도자여! 용서해 주세요, 제가 실수했으니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전승에 따르면, 현자의 친구가 그를 만나러 와서 다른 친구에 대해 무언가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했다: "너는 며칠 만에 왔고 오자마자 세 가지 죄를 저질렀다: 첫째, 나와 내 친구 사이에 원한을 심었고; 둘째, 당신은 내 평온하고 텅 빈 [원한과 악한 생각이 없는] 마음과 정신을 고통과 불안으로 채웠다; 셋째, 당신은 자신의 정직성과 신뢰성을 훼손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산(신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너를 불리하게 할 것이다." 이는 이야기꾼이 믿음받고 진실로 여겨질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거짓말, 뒷담화, 장난을 심기, 부정직, 기만, 위선, 질투, 무슬림[혹은 누구에게도] 사이에 불화를 심는 등 중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런

자는 신이 명령한 사랑, 우정, 조화, 평화로운 공존의 유대를 끝내려 하며, 대신 지구(세계)에 무질서와 혼란(*파사드*)을 퍼뜨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وَيَقْطَعُونَ مَآ أَمَرَ ٱللَّهُ بِهِۦٓ أَن يُوصَلَ وَيُفْسِدُونَ فِى ٱلْأَرْضِ ۙ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명령하신 [상호 사랑, 우정, 조화, 평화로운 공존의 유대]를 끊어내고, 대신 세상에 혼란을 퍼뜨린다." (꾸란 13장 25절)

또 다른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إِنَّمَا ٱلسَّبِيلُ عَلَى ٱلَّذِينَ يَظْلِمُونَ ٱلنَّاسَ وَيَبْغُونَ فِى ٱلْأَرْضِ بِغَيْرِ ٱلْحَقِّ ۚ

"책임은 오직 사람들에게 잔인함과 억압을 가하고, 세상에 반항하는 자들에게만 있다. 그들은 [그들의 해로운 행동에 대해 아무런 정당함도] 정당화될 수 없다." (꾸란 42장 42절)

설령 이야기꾼이 진실하더라도, 타인의 존엄을 고려하지 않고 사적인 문제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천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거짓, 질투, 위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세 가지 특성이 굴욕과 이야기꾼의 천한 성격의 요소라고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이야기꾼의 악은 매우 크며, 이를 막아야 합니다.

열일곱째 해악 – 이중적인 태도 또는 위선: 혀의 위선은 또한 엄청난 죄입니다. 이중 말하는 말꾼은 두 적 사이의 적대감을 많이 이용한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진심과 지지를 확신시키고, 상대방을 험담한다. 두 명의 반대자를 만나고 두 사람 모두를 위해 말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이건 정말 위선이야.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تجلون من شر عباد الله يوم القيامة ذا الوجهين الذى يأتى هؤلاء بحديث وهؤلاء بحدي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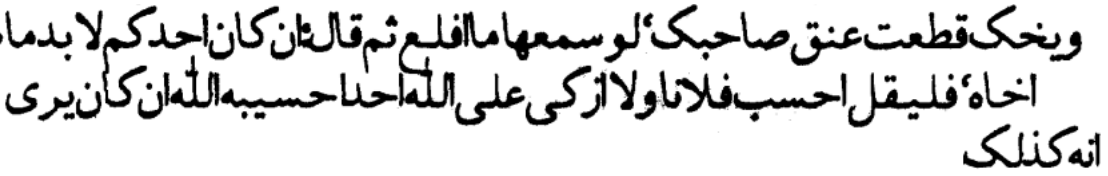
"심판의 날에 매우 나쁜 상태에 있는 이중적인 사람이 발견되는데, 그 사람은 한쪽에게는 말하고 다른 쪽에는 다른 말을 하곤 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른 *이븐 아비 앗-둔야* 하디스 *모음* 집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아부 후라이라(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중적인 사람은 신의 눈에서 신뢰할 수 없다." 모두가 두 사람과 이중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위선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만약 두 명의 상대가 서로를 지지한다고 칭찬하고, 각각 별도의 회의에서 지지를 약속한다면, 이는 이중적인 태도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겉으로는 칭찬하지만 그 사람이 없는 동안 그들의 결점을 끌어들이기 시작한다면, 이것 역시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침묵을 채택하거나 옳은 사람만 칭찬하는 것이 더 낫고, 그 칭찬은 상대 앞에서 하는 것일지라도 얼굴과 뒤에서 똑같이 해야 합니다. 압둘라 빈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사람들이 엘리트와 권위자들 앞에서 말하지 않는 말을 한다고 들었다. 그는 "우리는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의 시대에 이를 위선으로 여겼다"고 말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집 *타바라니*). 용기가 있다면 불법적인 일이나 악한 말을 멈춰야 합니다. 능력이 없다면 침묵해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열여덟 번째 해악 – 칭찬: 어떤 경우에는 칭찬조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험담 금지 명령에 해당합니다. 칭찬에는 여섯 가지 해가 있습니다. 그중 네 개는 찬양하는 사람과 관련이 있고, 두 개는 찬양받은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과 관련된 네 가지 해악: 첫 번째 해는 칭찬하는 사람이 너무 과장해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로움은 때때로 과시가 칭찬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즉, 칭찬이 진실일지라도 칭찬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도 칭찬받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하거나, 단순히 자랑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는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선자가 됩니다. 세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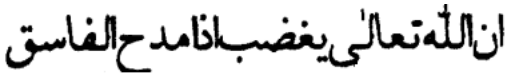
해로움은 때때로 자신이 조사하지 않았거나 특정 지식과 정보가 없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남자가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 앞에서 누군가를 칭찬했고, 그 예언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ويحك قطعت عنق صاحبك، لو سمعها ما افلح ثم قال: ان كان احدكم لا بد مادحا
اخاه، فليقل احسب فلانا ولا ازكي على الله احدا حسيبه الله ان كان يرى
انه كذلك

"당신은 동료의 목을 부러뜨렸습니다(속담적으로 말하자면, 얼굴에 칭찬하는 것이 매우 파괴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자존심을 부리게 하며, 자기 과시와 영혼의 병에 해를 끼치는 내면의 파괴적 특성에 빠지게 만듭니다)! 만약 그것을 들으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찬양 때문에 영혼에 병이 생길 것이므로]. 만약 형제를 칭찬해야 한다면, '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며(확실성보다는 추측을 암시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의 순수함을 증언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를 아는 자이시고, 하나님은 개인의 내면의 모든 섬유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내면 실재를 증명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라. 이런 [희석된] 찬양은 [진실이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때] 해야 합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아부 바크라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와 사 히흐 무슬림*을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이 해악은 증거(evidence)로 알려진 명확한 특성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세속적이지 않으며,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데 신념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특성들은 숨겨져 있고, 개인의 내면과 관련이 있어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는 새벽 기도(*타하주드*)를 하는 것을 보았거나 순례와 자선을 베푸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확실하고 직접적으로 지켜진다. 누군가를 정의롭다고 부르거나 신성한 운명(*카다*)에 동의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정의와 신이 정한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면과 관련된 문제이며, 내면과 관련된 시험(시련과 시련) 없이 이를 알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을 듣고 물었다: "그와 함께 여행한 적이 있습니까?" 그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물었다: "아침과 저녁에 당신이 그의 이웃인가요?" 그는

다시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말했다: "나는 신에게 맹세한다! 내 생각엔 너는 그를 잘 모른다. 당신은 지식과 조사 없이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행, 거래, 친밀함 속에서 항상 자신의 내면적 특성이 드러나지만, 당신은 여행 중 그의 동반자도, 이웃도 아니며, 사고파는 일과 관련된 거래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를 칭찬하는 거야?" 네 번째 해로움은, 칭찬과 찬양을 하는 사람이 억압자나 악행자에게 행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비록 신성한 법칙에 따라 불법임에도 불구하고요.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가 칭송받을 때 진실로 하나님께서 불쾌해하신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는 아나스 빈 말릭의 권위에 따라 *이븐 아비 앗-둔야*와 *바이하키를* 모 았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하산(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은 말했다: "억압자의 긴 생명을 기도한 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오랫동안 계속되길 바란다는 소망을 표현했다. 억압자와 악행자는 정죄와 부정을 받아야 하며, 그런 자는 슬퍼하며 자신의 억압과 악을 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칭찬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칭찬받는 것과 관련된 두 가지 해 로움: 첫 번째 해로움은 칭찬과 감사가 오만함(*키브르*)과 자기자만심('*우주브*', 즉 자신을 잘못 평가하거나 낮추는 것과 정반대)을 마음속에 태어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 두 내면의 특성 모두 치명적이고 파괴적이며, 이는 내면과 영성에 영향을 미쳐 외부의 신체적 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로움은 칭찬에 기뻐하게 되고, 이 오해가 "나는 착해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박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높은 평가는 [의롭고 선한] 행위를 게으르게 하며, 자기 의(또는 자기중심)의 병('*우쥬브*)"에 감염시켜 지금 [의롭고 선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을 마음속에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위 전통에서 칭찬하는 한 명에 대해 "네가 친구를 칭찬하지 못해 목이 꺾였다; 만약 그것을 들으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무트라프(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다른 사람의 말에서 칭찬을 들을 때마다 나는 내 눈에 비열해졌고 나(*나프스*)는 나에게 굴욕을 당했다"고 말했다. 지야다 이븐 아비 무슬림(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은 "자기 칭찬이나 추도사를 듣는 자는 사탄이 그런 자를 교만과 자랑으로 몰아넣으나, 신자는 그로부터 구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븐 알-무바라크(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무트라프와 지야다의 말씀은 옳지만, 지야다가 한 말은 평민들의 마음을 그려내는 그림이며, 무트라프의 말은 [영적] 엘리트(*아울리야*, 성인과 영지주의자)의 현실이다. 즉, 평민들은 그들의 칭찬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엘리트들은 겸손해진다." 찬양받는 자는 의행을 게을리하게 되거나, 찬양이 자기 의와 오만함의 탄생을 낳는데, 이 두 가지는 죽음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병이며, 살인이 몸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앞서 언급한 해로움으로부터 보호받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런 칭찬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는 그의 여러 동료들을 칭송했습니다. 예언자 동료들은 매우 높은 인품을 지니고 있어, 그런 찬양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부심, 자랑, 자기 의로움, 오만함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많은 겸손과 비참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혀로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انا سيد ولد آدم ولا فخ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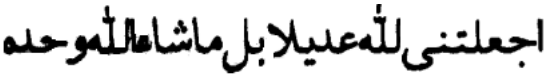
"나는 아담의 모든 자손(즉, 태초부터 끝까지, 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 인류의 지도자이며, 그 자만에 자부심이 없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는 아부 사이드 알-쿠드리의 권위에 따라 *티르미디*와 *이븐 마자를*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즉,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부심이나 자랑심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무함마드 예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의 자부심(이 문장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행복'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적이 있다)은 신과의 가까움과 친밀함에서 비롯된 것이지, 인류의 지도자이거나 무엇보다도 [신성하게] 창조된 존재 때문이 아니었다 [신이 누구를 창조하기 전에](이것은 창조의 비밀을 밝히는 신비주의적 가르침 중 하나이다). 영혼의 눈으로 이해되며, 신성한 빛으로 빛날 때 이해되며, 이는 모든 시대의 영지주의자들이 이해하는 것이다). 무자히드(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말했습니다: "천사들은 아담의 자녀들(즉, 모든 인간)과 함께한다. 무슬림이 형제를 좋은 의미로 언급하면 천사들은 '신께서 너도 그렇게 되시길!'이라고 말하지만, 나쁘게 언급되면 천사들은 '오, 인간이여! "당신의 결점은 숨겨져 있으니,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점을 드러내어 굴욕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에 감사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찬양받는 자의 책임: 칭찬받는 자는 칭찬을 자랑하지 말고, 오만함(*키브르*)과 자기 과시(*'우주브*)'의 먼지조차 마음 표면에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는 칭송받을 때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매우 섬세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만 가능하며, 과시와 다른 파괴적인 성격이 매복 속에 숨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순식간에 모든 의로운 행위가 완전히 헛수고될 수 있다. 칭찬받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결점을 성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절대 칭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아홉 번째 해악 – 언어 실수를 동반 한 과실: 말과 대화의 미묘한 실수로 인한 과실은 언어에 큰 피해를 주며, 특히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관련되어 있고 종교와 관련된 언어에 해당하며, 이러한 단어는 학자와 웅변가가 올바르게 발음할 수 있다. 지식과 웅변이 없는 이들의 말에는 실수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자의 무지 때문에 그런 실수를 용서하신다. 압둘라 빈 압바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한 남자가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에게 와서 "신과 그의 예언자가 원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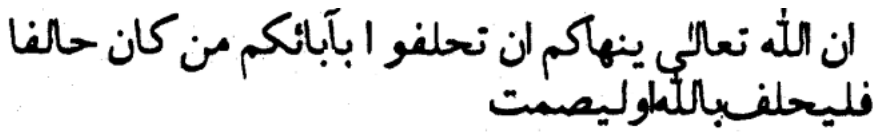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신성의 동반자로 만드는 건가요? [당신의 표현에서 암시된 것처럼]? [나는 단지 하나님의 종이자 사도일 뿐, 신성의 동반자가 아니다.] 대신 '신성에 동반자가 없는 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라'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집 *나사이*와 *이븐 마자*)

압둘라 빈 압바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여러분 중 일부는 '개가 없었다면 밤에 우리 집에서 도둑질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개를 파트너로 삼는 방식으로 신과 파트너를 연결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은 네가 조상들의 이름을 맹세하는 것을 금지하셨다. 맹세해야 하는 자는 하나님께 맹세하거나 침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집: *사히흐 부카리*와 *사히흐 무슬림*)

다음은 몇 가지 예시입니다. 말에서 저지르는 [종류] 실수는 일반인들이 않는 것들을 그들로부터 추측할 수 있지만, 그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혀의 해악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혀를 자유롭게 [수다 떨거나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무함마드 예언자의 말씀(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은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من صمت نجا

"침묵한 자는 구원을 얻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집 *티르미디*)

이는 혀를 오용하는 이 모든 해악이 치명적이며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Nafs*). 개인은 침묵함으로써 이러한 파괴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에는 위험만 있으니까요. 단, 웅변, 지식, 신에 대한 두려움, 내면의 영적 명상(*무라카바*)*이 있는 상황에서는 예외*입니다.

스물결 해악 – 평신도의 질문: 이것은 또한 큰 해로움입니다. 평신도들은 신성한 속성(하나님의 특성)에 대해 온갖 질문을 하고, 신성한 말씀과 문자, 단어에 대해 "이것들이 일시적인가(어느 시점에 생겨난) 것인가, 아니면 고대인(영원히 존재하는 것인가)"과 같은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신도가 가진 유일한 권리는 꾸란의 신성한 계명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행동과 행동이 자기 자신(*Nafs*)에게 부담을 주고, 혀와 마음은 쓸데없는 논거에서 맛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식의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목격되었는데, 지식에 조금도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즉, 지식이 있는 척하지만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그들을 자극하며 "너희는 학자이며, 축복과 지식의 탁월함을 가진 자들이며, 가치 있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공익을 위해] 표현해야 한다"고 설득한다. 때때로 사탄은 이 자칭 '학자'들로부터 순수한 불신의 말을 끌어내며, 그들이 한 말의 터무니없음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일반인에게 이러한 지적 논증은 특히 하나님의 존재(*Dhat*)와 속성(*Sifat*)과 관련된 주요 죄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꾸란에 계시된 것에 대해 논쟁이나

논박, 망설임 없이 신성한 예배에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미묘한 지식의 점에 대해 말하는 사람도 비전문가와 같으며,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말솜씨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ذرونی ما ترکتکم فانما هلک من کان قبلکم بکثرة سئوالهم
واختلافهم علی انبیاءهم ما نهیتکم عنه فاجتنبوه وما امرتکم
به فاتوا به ما استطعتم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그건 나에게 맡겨라. 네 이전 사람들은 예언자들과 의견이 다르고 질문을 많이 던져서 망가졌기 때문이다. 내가 당신에게 삼가라고 부탁한 것, 멀리하라고 한 것, 그리고 내가 명령한 것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십시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와 사 히흐 *무슬림 하디스를*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یوشک الناس یتساءلون حتّٰی یقولوا قد خلق اللّٰه الخلق،
فمن خلق اللّٰه؟ فاذا قالوا ذلک فقولوا قل هو اللّٰه احد اللّٰه الصمد
حتّٰی تختموا السورة ثم لیتفل احدکم عن یساره ثلاثا و
یستعذبا للّٰه من الشیطان الرجیم

"과도한 질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만약 신이 창조물을 창조했다면, 누가 신을 창조했느냐?'라고 말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다'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꾸란 110장에서 신성한 통일성에 대해 설명한 진실의 장을 전체적으로 읊어주고, 그들 중 한 명이 왼쪽에 세 번 침을 뱉어 사탄, 저주받은 자로부터 하나님의 피난처를 구하라."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와 사 히흐 *무 슬림 하디스를*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은 키즈르와 예언자 모세(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이야기(꾸란 18장 60-82절)에서도 강조됩니다] 키즈르(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는 예언자 모세(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에게 그를 데리고 [신비학 지식을 배우는 여정에 데려가며] 그가 직접 언급하기 전까지는 질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 예언자 모세(평화가 그분께 있기를)가 놀라서 배 밑부분에 구멍을 뚫은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예언자 모세(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는 사과했지만 그 일이 세 번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키즈르(평화가 있기를)는 예언자 모세(평화가 있기를)와의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비전문가들이 종교와 관련된 비밀(내면의 지혜)과 미묘한 문제를 묻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큰 해를 끼칩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하는 것을 중단하고 금지해야 하며, 이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신성한 계명을 따르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 필요 없는 일들(쓸데없는 질문과 논쟁으로 방해와 장애물을 일으키는)에 관여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의 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

5장- 분노, 격노, 원한, 질투로 인한 재앙

가잘리의 대작 『Ihya al-Uloom ad-Deen』 *또는 "하나님으로 가는 길의 지식의 부활"의 세 번째 권, 즉 4분의 1에 해당하는 다섯 번째 책*은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내린 하위 자아의 너무나 익숙한 병폐들, 즉 분노, 격노, 적대감, 질투의 병폐를 다룬다. 개인이 동료 인간과 국가 및 사회 간에 맺는 관계에서 영혼의 이러한 내면적 파괴적 특성이 초래하는 혼란은 모두 자명하다. 가잘리는 내면 깊숙이 내재된 이러한 부정적인 힘들의 증가 이유를 더 깊이 파고들고, 그 파괴적 본성을 궁극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가잘리의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되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11]:

분노는 빛나는 불꽃이다. 이 불에 관한 코란의 다음 구절이 드러난 것입니다:

نَارُ ٱللَّهِ ٱلْمُوقَدَةُ ٦ ٱلَّتِى تَطَّلِعُ عَلَى ٱلْأَفْـِٔدَةِ ٧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 해악을 인지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극복하려 노력하도록 시험하신 불꽃이며, 마음에 닿을 것입니다 [방치된다면]." (꾸란 104장 6-7절)

이 불꽃은 재 속의 불꽃처럼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 불돌이 서로 문질러질 때 불이 나오듯, 오만함의 화석이 조금만 문질러지면 분노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바세라*)과 영적 드러내는 자들(*무카샤파*)은 인간의 한 혈관이 사탄에게까지

뻗는다는 확신의 빛으로 이 현실을 인식해 왔습니다. 극심한 분노를 겪는 자는 사탄과의 가까움을 주장하는 자입니다. 먼지의 장엄함[겸손을 상징함]은 차분하고 침착하며 위엄 있게 유지하는 데 있으며, 불의 장엄함은 불을 붙이고 활발히 움직이는 데 있다[길을 막는 모든 것을 퍼뜨리고 태우는 데서]. 그러므로 인간이 분노에 굴복한다면, 그런 사람은 먼지가 적고 불이 더 많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적대감과 질투는 모두 분노의 결과이며, 둘 다 매우 파괴적입니다. 그들은 확산되는 파괴의 원인이며, 혼란과 소란의 원인이며, 마음은 그들의 중심이자 중심입니다. 심장은 [물리적 형태에서], 건강할 때 [인간] 신체의 전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결함이 있으면 신체 전체 시스템이 실패하는 살덩어리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파괴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저는 여행자들과 영적 길을 걷는 이들에게 그들의 본질적인 파괴성을 알리는 것이 적절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마음속에 뿌리를 두고 나쁜 특성들을 지키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악에 대해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안에 휘말리기 때문이다. 단순히 악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예방 전략을 알기 전까지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책의 다음 장들[제목: "분노, 격노, 원한, 질투의 해악"]에서는 분노, 격노, 원한, 질투의 해악을 설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할 것입니다.

분노와 분노에 대한 비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إِذْ جَعَلَ ٱلَّذِينَ كَفَرُوا۟ فِى قُلُوبِهِمُ ٱلْحَمِيَّةَ حَمِيَّةَ ٱلْجَٰهِلِيَّةِ فَأَنزَلَ ٱللَّهُ سَكِينَتَهُۥ عَلَىٰ رَسُولِهِۦ وَعَلَى ٱلْمُؤْمِنِينَ

"불신자들이 마음속에 적대감과 분노를 품고, 그 적대감과 분노 역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으로부터 평온과 인내를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와 신자들의 마음에 내려주어 적대적인 상황을

진정시키고 무지와 적대감으로 무지와 적대감에 맞서는 것을 막으려 하셨다, 이는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고 통제 불능 상태로 악화시켜 국민과 국가에 해를 끼치게 하며, 냉정한 이성과 마음이 사람과 국가 간의 적대감을 완화할 수 있는 능력이 더 강해진다]." (꾸란 48장 26절)

압둘라 빈 마수드(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가 "여러분 모두가 누구를 강하고 권능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고 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레슬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자". 그는 "그렇지 않다. 강하고 강력한 자는 분노할 때 자신의 [하층] 자아(*나프스*)를 통제하여 분노를 억제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는 사람이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집 *사히흐 무슬림*)

압둘라 빈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من كف غضبه ستر الله عورته

"분노를 억누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잘못을 숨기시며,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게 하여 수치와 굴욕을 초래하는]."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 *집 이븐 아비 앗-둔야*)

한 영지주의자가 아들에게 말했다: "오 아들아! 지성(명확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건강한 마음가짐)은 분노할 때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에게 가장 적은 분노가 온다. 만약 분노가 세상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사기와 속임수이고, 만약 내세를 위한 것이라면 인내와 지혜입니다." 분노는 지성의 적이라는 말도 있다.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너희 중에서 탐욕과 낮은 자아의 욕망, 분노를 삼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한 영지주의자는 "욕망과 분노에 복종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나쁜 내면의 특성이 그런 사람을 지옥으로 몰아넣는다"고 말했습니다.

분노의 현실: 하나님은 동물(그리고 인간과 같은 모든 생명체)을 창조하셨으며, 그 내적 및 외적 원인으로 인해 동물이 끝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의 물리적 구성에

따라 영양분을 창조하셨고, 동물이 필요에 따라 먹도록 욕구를 창조하여 멸종을 막으셨습니다. 검이나 기타 무기와 같은 외부 요인과 원인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안에 자신을 방어하고 이러한 해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에서 분노의 힘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에 반하는 일이 나타나거나 목표에서 방해받을 때마다, 그 불꽃은 타오르고 불꽃이 강해져 심장 속 혈액이 활력을 얻고 심장 위의 모든 정맥으로 퍼집니다. 불꽃이 위로 치솟거나 냄비의 끓기가 위로 올라오듯, 사람의 얼굴과 눈은 피부의 부드러움과 맑음으로 인해 붉어지며, 마치 유리 안의 물체가 전시되는 것처럼 피의 붉음을 표현합니다. 이 상태는 신체적, 정치적, 물질적, 사회경제적 권력 면에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고, 복수를 할 수 있음을 아는 상태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상급자에게 화가 나서 복수하지 못하면, 피가 퍼지지 않고 심장 속에 모여 우울과 슬픔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야. 동등한 계급의 사람에게 화가 나면, 이 두 상태가 모두 겉으로 드러납니다 - 얼굴이 때로는 붉어지고 때로는 창백해집니다. 이것이 교란 상태입니다.

분노의 가시적 징후: 분노의 징후로는 얼굴 색이 변하고, 몸이 떨리며, 팔다리의 움직임에 질서와 균형이 사라져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오고, 눈이 붉어지고, 코가 부었다가 작아지고, 얼굴이 변형되는 것이 있습니다. 화난 사람이 분노할 때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자신의 눈에 축소(굴욕감)를 느끼고 자신의 추함에 대해 너무 부끄러워서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다. 분노가 신체에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얼굴이 흉측해졌을 때, 내면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얼마나 변형되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외적 존재는 내면의 존재의 칭호이자 거울상입니다. 첫째, 내면의 존재가 쇠퇴하고, 그 후 이 쇠퇴가 외관으로 이동한다. 외부의 변화는 내부의 변화의 결과이자 결과입니다. 분노가 혀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이 욕을 하고 너무 더러운 말을 하게 만들어, 예민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듣게 되면 수치심에 휩싸인다는 점입니다. 그 자신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러울 것이다. 단, 분노 상태가 아니거나 분노가 가라앉을 때가 아니라면, 자신의 분노 상태와 터무니없는 말을 내뱉었던 기억이 있다면, 저속한 말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문장의 논리적 순서를 유지하지 못해 아무 의미도 없는 대부분의 말을 내뱉었다면.

분노의 절제도: 전혀 분노가 없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분노는 지성과 신성한 길(딘)에 종속하는 욕망으로, 단호함이 필요할 때 나타나야 하며(예: 명백한 학대, 잔혹함, 억압이 목격되는 상황에서) 인내가 필요할 때는 오지 않습니다. 절제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신 인내(*이스티카마*)가 이를 칭송하셨고, 이는 무함마드 선지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의 말씀으로 찬양받았습니다:

خير الامور اوساطها

"가장 좋은 문제들은 온건함의 범위 내에 있으며, [삶의 모든 문제에서 극단과 극단주의를 피하는 것]".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 *집 바이하키*)

비겁한 사람들이 용감해져도 [주변 잘못에 대해 양심적이기 때문에] 절대 화내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치유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분노가 [절제, 도덕, 윤리, 선량의 성격]을 넘은 사람도 과도한 분노와 적당한 분노를 구분할 수 있을 때까지 치료가 필요하다. 즉, 분노는 부재(또는 부족함)와 과잉 양쪽 모두에서 치유되어야 합니다. 좋은 상태는 꾸란에서 "인내의 직선길"(*Sirat al-Mustaqeem*)(꾸란 1장 6절)으로 묘사된 절제의 상태이다. 비록 이 "인내의 직선길"은 머리카락보다 가늘고 칼보다 날카롭다 [모든 극단 사이의 균형과 절제의 길이 섬세하고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의 기질은 온건함의 중간 경로에서 극단적인 경향과 모든 인간 존재 사안에서 입장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제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망에 굴복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그 상태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반드시 모든 것을 나쁜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악은 다른 악에 비해 가볍고, 어떤 선한 것은 다른 선한 것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가능한 한 선을 행하고 악을 예방하는 데 가까이 머물러야 합니다. 성공과 선한 행하는 능력(*타우피크*)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분노는 영적 노력을 통해 없애거나 완화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것이 빼앗기거나 도난당하거나 손상되면 반드시 화를 내게 됩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음식, 거주지, 의복, 건강 등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포함합니다. 누군가가 신체를 해치거나 다치게 하기 위해 때린다면, 그 사람에 대해 분노해야 합니다. 몸(또는 외부 존재)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물건이 파괴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며, 그런 해에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것들은 명성, 권력, 풍요로운 부, 하인, 탈 수 타는 것 등과 같이 인간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들의 습관과 무지 때문에 그들을 필수적이라고 여겼고,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 그 중 하나를 잃으면 슬픔과 슬픔의 강도가 커지고, 그 결과 그 상실과 그 상실을 초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것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책은 학자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학자는 자신의 전문 분야 때문에 책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을 찢거나 불태우거나 가라앉히면 화가 납니다.

분노를 억제하려는 영적 노력이 사랑하는 이 세 가지 유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유형에서는 영적 투쟁이 분노를 없애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분노에 복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본질적으로 신의 법과 지성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만 마음을 사용해야 한다고 본명히 말합니다. 이는 영적 투쟁(*무자하다*)을 통해, 인내와 인내를 통해 한동안 참아내와 인내를 시도해 관용과 인내가 자연스러운 태도를 갖게 됩니다. 마음에서 분노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인간의 기질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하지만, 그 강도를 끝내고 힘을 줄이는 것은 내면의 혼란이 없도록 할 수 있으며, 외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누구도 겉모습만으로는 현재 분노 상태를 알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분노에 대한 내면의 자제력 때문에]. 비록 힘든 영적 투쟁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분노 조절 상태에 도달하는 데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3의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들은 어떤 것들은 어떤 이들에게 필수적이고, 예를 들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필수적인 첫 번째 종류가 있습니다. 영적 투쟁의 결과로 두 가지 유형 모두에서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종류의 것들에 대한 분노는 영적 투쟁을 통해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마음에서 빼앗고, 고향이 무덤이고 최후의 거처가 저승이며, 이 세상은 저승의

땅에 도달하기 위해 지나가는 다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함으로써 말이죠. 또는 세상은 단지 잠시 머물며 다음 여정과 다음 영구 목적지로 향하는 데 필요한 의지(식량)를 모으는 [경유지] 역일 뿐입니다. 그 외에는(즉, 다가오는 여정을 위해 모은 식량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무덤이나 내세에서 이익이 없는 자에게 지워질 짐입니다. 사람은 세속적인 소유물에 대한 무관심과 거리를 두고, 마음에서 사랑을 떼어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개를 때렸다고 화내지 않을 것입니다. 분노가 사랑과 무언가에 대한 집착에 종속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종류의 영적 투쟁의 목적은 분노를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매우 어렵고, 오히려 분노를 약화시키거나 그 영향에 대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과 일체성(*타우히드*)에 지배당하고 모든 것을 신의 권능과 특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개인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화를 내지 않는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궁극적 처리자이시며, 선하든 나쁘든 아무것도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한], 왜냐하면 창조물 자체가 스스로 특권을 갖지 못하며, 모두 신성한 권능과 전능함에 의해 복종하고 정복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작가의 손에 펜이 지배당하는 것처럼[즉, 펜이 아니라 작가가 글을 쓰고 펜이 오직 작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이로부터 분노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전능함의 지배(*타우히드*)로 인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해 좋은 평가(*후스른 알둔*)(하나님께서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오직 선한 일만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도 이 점에서 효과적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배고프고 목마르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누군가 때문에 목숨을 잃게 하는 것이든 말입니다. 이 믿음 이후에는 분노할 이유가 사라지고, 혈액을 뽑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사람도 없어요 [건강 보존과 전달을 위한 의학적 이유로 하는 것].

이 논의의 결론은, 분노의 불길에 맞서 세상을 마음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에 대한 유일한 보호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가잘리가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인간 존재의 본질인 마음을 파괴하는 세속적 집착과 얽힘, 즉 마음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세상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잘리가 여러 차례 세상이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승리를 얻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는 진리의 길을 걷는 자(영적

여행자)가 세상의 해악(즉, 세속적 애착과 마음의 얽힘)을 인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세속적 정죄에 대한 설명은 곧 밝혀질 것이며, 그곳에서 이러한 해악이 명확히 밝혀질 것입니다. 여기서 충분한 정보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 마음을 잃으면 분노의 대부분 이유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이다.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이유들도 약화될 수 있으며, 그것을 약화시키면 분노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노력에서 올바른 성공(*타우피크*)을 이루는 능력의 아름다움을 구합니다 [분노를 없애거나 약화시키는 것].

분노의 원인

이제는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그 물질과 원인을 근절하는 것임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야히야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이 예수에게 물었습니다(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무엇이 더 어렵습니까?" 그는 "당신의 분노"라고 답했습니다. 존은 물었다: "왜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의 영양분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오만함, 성급함, 명예와 명예에 대한 욕망. 분노의 강도를 높이는 요인으로는 거만함, 조롱, 과장, 도발, 대화 방해, 강경한 집요, 물질적 소유와 명성에 대한 탐욕 등이 있다." 이 모든 것은 나쁘고 파괴적인 도덕, 예절, 기질, 내면의 성향의 범주에 속하며, 신의 법에서 정죄된다. 이런 이유들이 있으면 분노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분노의 원인 중 하나 이상이 있다면 그 반대되는 원인들을 통해 다루고 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만함은 [진정한 내면의] 겸손, 자기 의로움, 자기 과시(*'우주브*)를 심어주어 하급 자아(*나프스*)를 비난함으로써 제거되어야 하며, 오만함은 타인(분노의 대상)도 인간이며 다른 종들처럼 하나님의 종이라는 믿음을 통해 제거되어야 합니다 - [세상의 모든 사람] 실제로는 같은 아버지의 아들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즉 아담과 이브] 이들은 이후 지리적, 문화적, 언어적, 인종적, 부족적, 종교적, 민족적 경계에 따라 서로 떨어졌고, 그들 사이에 통합과 조화를 방해하는 차이의 벽이 생겼지만, 모두 인간성에서는 평등하다. 자존심(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는 개인의 내면의 행복과 기쁨을 의미하며, '자존심' 그 자체가 아님)은 내면의 탁월함에 있어야 합니다 [내면의 우수함, 즉 내면의 존재와 진정한 실재인 마음과 영혼의 특성인 예절,

기질, 내면의 성향이 있는 좋은 것, 건강하고 건강하며,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도덕성, 예절, 기질, 내면의 성향]에 있어야 합니다. 자만심, 오만함, 자존심은 파괴적인 악으로, 나쁜 내면의 악의 뿌리이자 기초이며, 만약 당신이 그것들이 없지 않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결코 나은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그리고 어떤 면에서 열등한가요? 코, 귀, 눈이 있듯이 그들도 같은 장기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아버지(아담 [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자손이며, 당신도 그 아버지의 자손이므로 [따라서 그들은 당신의 형제자매입니다]. 유머는 신앙 실천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에 관여함으로써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도덕적 올바름과 영적 투쟁을 요구하는 내면의 저급하고 비열한 성격, 성향, 성향과 성향을 없애고, 평생의 용감하고 끈질긴 투쟁이 필요한 높은 도덕성, 예절, 성향, 기질으로 대체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는 헛된 노력에 빠질 시간조차 없게 됩니다 [타인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 같은]. 무의미한 노력을 피하기 위해 내면의 탁월함(*파다일*), 좋은 도덕성, 예절과 내면의 성향(*이흘라크 알-하사나*), 그리고 종교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 몰두해야 합니다 [이들은 고귀한 목표로 이끌고 영혼의 정화와 정화를 이끌어, 먼저 인간을 조화시키고 인간화하며, 그 다음에 인간의 근접성과 영지(*Ma'rifa*)라는 인간 성취의 정점으로 이끕니다이 모든 것들이 사후 세계의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사아다*)으로 인도한다고 믿으며, 조롱에 관해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에 괴로워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저에게 조롱당하는 것에 신경 쓰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조롱당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 찾기 습관은 혀에서 나쁜 말을 하지 않으면 [나쁜 결점 찾기 방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도 혀를 유지하게 된다; 그 사람이 더 심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탐욕의 강도를 없애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만 만족함으로써 가능하다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인지된 필요와는 대개]. 만족에는 존엄성이 있고, 불필요한 것에 대한 무관심에는 존엄이 있으며, 누군가나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데에는 굴욕이 있다.

이러한 [부정적이고 비난받아야 마련한] 내면의 특성, 성향, 성향, 예절, 기질 중에서 어떤 특성도 치유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신 고난과 강렬한 내적 영적 투쟁을 견뎌야 합니다. 이 내면의 영적 투쟁의 목적은 먼저 이러한 악한 내면의 특성, 성향, 성향, 예절, 기질, 그리고 악한 습관들의 해악을 익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그것들에 혐오감을

느끼고 그들의 악을 명확히 드러내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이러한 낮고 악한 내면의 특성, 성향, 성향, 예절, 기질의 반대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그것들이 제2의 본성이 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습관이 되어 행동하기 어렵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분노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아(*Nafs*)가 이러한 내면의 악을 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분노를 키우고 키우는 [나쁜] 습관의 근원이자 기원이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또 다른 이유로 분노를 받습니다. 이 한심한 사람들은 무지와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분노를 표현하는 데에는 남성다움(대담함과 대담함)과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며, 화내지 않는 사람들은 '남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노를 자존심, 높은 열망, 존엄성으로 해석하고, [부당하게] 좋은 이름을 붙여 자기 자신이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그것을 좋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까지 말이죠. 분노를 자존감과 용기를 부르는 것은 무지이며, 오히려 마음의 병이자 지성의 결함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 주장은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보다 더 화를 내는데, 그 이유는 그런 사람이 마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의 바르고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은 예의 바르고 정의로운 사람보다 분노에 더 쉽게 휘말립니다. 따라서 한 입의 음식을 위해서의 천한 사람이, 한 알갱이를 위해 구두쇠가 화를 낸다. 이 무지한 자들을 대처하는 방법은 의인들의 관용, 인내, 용서, 관대함의 전통을 알려주고, 그들이 분노를 억제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예언자, 성인, 영지주의자, 현명한 학자, 훌륭한 지도자들로부터도 전해졌으며, 반대되는 전통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선동 후 분노의 치료법

지금까지 논의의 결론은 분노의 원인을 밀어내고, 그 본질적인 이유를 제거하여 분노가 잘못된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표는 분노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함의에 따라 행동해야 할까요, 아니면 인내심을 가지고 자아(*Nafs*)가 분노의 함의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까요?

후자는 지성의 표현이며, 위대한 영적 노력이며 그 절정은 지식과 행동을 통해서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식에 의한 분노 제거: 다음 여섯 가지 문제는 [분노 제거와 관련된]의 핵심입니다: **첫째**, 분노를 억제하는 것의 우월성과 우수성, 용서, 인내, 관용에 대해 과거의 사건과 전통을 숙고하고 숙고해야 하며, 그 결과로 모든 이들이 이러한 탁월함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깨어날 것입니다. 이 욕망은 복수를 억제하고 분노의 불꽃을 꺼뜨릴 것이다. 말리크 이븐 아우스 이븐 알-하드탄은 한때 [칼리프]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가 누군가에게 화가 나 [그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의 형을 명령했다고 전합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오, 신앙스러운 이들의 지도자여! 이 구절 [꾸란에서]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خُذِ ٱلْعَفْوَ وَأْمُرْ بِٱلْعُرْفِ وَأَعْرِضْ عَنِ ٱلْجَٰهِلِينَ

'용서를 실천하고 선한 의행을 행하며 무지한 자를 피하라고 권고하라.'" (꾸란 7장 199절)

이 전통의 화자는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가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읽으며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다고 전합니다. 그게 그의 일상이었다. 꾸란의 의미와 이해에 대한 엄청난 숙련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꾸란에 대해 계속 숙고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에게 숙고를 초대했다. 결과적으로 그 남자는 집행유예를 받고 빠져나올 수 있었다.

둘째로, 자신의 하위 자아(*나프스*)가 신의 정의로 인해 자신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의 응징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자아에 대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려 하면, 심판의 날에 [내 부당함과 과잉에 대해] 하나님의 분노를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신성한] 용서와 자비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신성하게 계시된 일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인간이여! 네가 화가 났을 때, 나를 기억하라. 나는 네 잘못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불쾌함을 느꼈을 때 너를 기억할 것이며, 너를 [그들의 과잉과 도덕과 공정성의 경계를 어긴 행위로 인해 멸망할 운명인 사람들 중

하나로 너를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다]." 현자들(현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왕들과 반드시 동행했다고 전해집니다. 왕이 화가 날 때마다, 그의 현명한 동료는 그 앞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네 죽음과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내세를 기억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양피지를 내밀어 놓았다. 킹은 이 글을 읽고 진정하곤 했다.

셋째, 적대감과 복수로 인한 결과, 그리고 적대감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 즉 내가 화낼 상대가 내 적이 되어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려 할까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나 세속적인 고려, 고난, 어려움을 위해 분노를 갖지 않는 것도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세속적인 삶을 온화하게 유지하려는 욕망과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세의 행위가 아니라, 분노보다 욕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마찬가지로 욕망도 악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세속적인 삶, 즐거운 삶)를 위해 분노를 억누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 한 번의 보상도 얻지 못합니다. 만약 세속적인 걱정이 마음과 육체의 평화를 방해한다면(영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 그것을 제거하면 분명히 신의 보상이 찾아옵니다.

넷째, 화가 날 때는 자신의 외모가 추함을 상상해야 합니다 [분노는 사람을 못생기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분노할 때 사람들의 얼굴이 왜곡되는 것처럼, 내 얼굴도 일그러졌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분노의 혐오가 마음속에 태어날 것이다. 또한 사람이 화를 내면 미친 개나 사나운 야생 짐승과 닮았고, 관용적이고 관대하며 분노에 쉽게 빠지지 않는 사람은 예언자, 성인, 그리고 지혜로운 자격을 닮았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럴 때, 자신의 하층 자아(*나프스*)에게 이 선택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개, 짐승, 악한 인물처럼 보이고 싶은지, 아니면 예언자와 학자들을 닮고 싶은지 말이죠. 자아(*나프스*)가 조금이라도 품위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학자와 예언자들을 따르는 경향이 있을 것이며, 분노의 광기에서 개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복수심을 유발하고 분노를 억제하는 이유를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히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분노는 이유 없이 오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 사탄이 복수를 부추기고 마음속에 "분노를 억누르고 복수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신을 무능하고 패배했다고 선언하며, 당신을 모욕하고 모욕하며 당신을 낮게 여길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이유라면, 자신의 하위 자아(*나프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는 세속 삶의 굴욕과 치욕을 좋아하지 않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복수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심판의 날에 누군가가 당신의 손을 잡아 복수를 빼앗을 때 너는 할 수 없는 큰 수치를 마주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당신은 사람들의 눈에 소멸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선지자와 성인, 천사들의 눈에 소멸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을 위해 제거되어야 합니다. [동료] 인간들에게 무엇을 원하나요? [분노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굴욕과 명예가 그들의 손에 달려 있는가? 누군가가 당신을 억압하더라도, 복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억압은 심판의 날에 억압자에게 큰 굴욕을 안겨줄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보수가 선포되면, 억압자들을 용서하여 그들의 관대함으로 인해 엄청난 신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일어설 것이라는 선포가 있을 때 일어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여섯째, 생각해야 한다, "나의 분노는 사실 [내 진짜 믿음은] 왜 어떤 일이 내 바람과 욕망에 따라 일어나지 않았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따라 일어났는지에 관한 것인가? 어떻게 내 목표가 하나님의 목적보다 우월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분노와 다급함의 다른 결과는 없으며, 나는 이 일로 벌을 받고 신의 응징을 받게 될 것이다."

행동을 통한 분노 유발 박멸: 만약 누군가 화가 난다면, 이렇게 말해야 한다:

أعوذ بالله من الشيطان الرجيم

"나는 저주받은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피난처를 구한다."

무함마드 예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화가 났을 때 그렇게 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술레이만 이븐 사르드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를 *모은 샤*히흐 부카리*와* 사히흐 무슬림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예언자의 아내] 아이샤(신께서 그녀를 기쁘시길)가 화를 낼 때,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그녀의 코를 잡으며 [애정의 표시로] 말씀하셨습니다: "오 오와이쉬! 이렇게 말해 보세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의미로]:

اَللّٰهُمَّ رَبَّ النَّبِيِّ مُحَمَّدٍ اغْفِرْ لِي ذَنْبِي وَاَذْهِبْ غَيْظَ قَلْبِي وَاَجِرْنِي مِنْ مُضِلَّاتِ الْفِتَنِ

오 신이시여! 무함마드의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마음의 분노를 없애주시며, 오해로 이끄는 시련과 고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소서."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집 *이븐 아스-써니 피 알-유움 와 알-라일라*)

이 기도(기도)는 분노할 때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이 후에도 분노가 남아 있다면, 모임을 바꾸고, 서 있을 때는 앉고, 앉을 때는 누워서 자신이 창조된 땅에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겸손을 심어줍니다(*나프스*). 앉아있거나 누워 있을 때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현명함(지혜)이 있는데, 분노의 원인은 열이고, 열은 움직임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이 멈추면 열이 사라지고 분노도 끝나게 됩니다. 만약 분노가 이 전략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예언 전통에 따르면 불은 물로 꺼진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씻거나 찬물로 목욕을 해야 합니다:

ان الغضب من الشيطان وان الشيطان خلق من النار وانما تطفا النار بالماء فاذا غضب احدكم فليتوضا

"분노는 사탄에게서 오고, 사탄은 불에서 창조되었으며, 불은 물을 통해 꺼진다. 누군가 화가 나면 정면(*우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아티야 알-사디*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 집 아부 다우드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또 다른 예언적 서술은 분노할 때 하나님께 절하는 것을 암시하는데, 그 상태에서는 인간이 가장 겸손한 곳(즉, 땅)에 가장 좋은 [신체] 장기(이마와 뺨)를 올려놓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절하는 지혜는 겸손과 낮음이 마음에서 태어나며, 분노를 일으키는 마음에서 자존심, 오만함, 우월감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인내의 탁월함

인내, 온화함, 온화함(*힐름*)은 분노를 억제하는 것보다 더 우수한데, 분노를 억제한다는 것은 억지로 인내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분노를 억제하는 사람이 먼저 화를 낸 사람입니다. 이 단계는 어렵고 더 가혹한 영적 연습이지만, 끊임없는 노력(분노를 억제하려면) 억지로 참는 연습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점차 화내지 않는 데 익숙해질 것입니다. 분노가 와도 그것을 떨쳐내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재적인(자연스러운) 인내이며, 이 인내는 완전한 지성을 가졌고, 지성이 지성을 지배하며, 분노의 힘도 지성에 종속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분노를 억제하는 것이 인내의 초기 단계이고, 자연스러운 인내는 그 절정임을 배웠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انما العلم بالتعلم والحلم بالتحلم ومن يتخير الخير يعطه ومن يتوق الشر يلقه

"지식은 배움을 통해 얻어지며, 인내는 의도적이고 양심적인 노력을 통해 [불쾌한 일을 참음으로써] 인내를 얻는다. 선을 의도하는 자는 [신의 은혜와 관대함으로 선을 받으며]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며,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자는 그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는 아부 알-다르다의 권위에 따라 *타바라니*와 *다락타니*를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아부 후라이라(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무함마드 예언자의 말씀을 전합니다(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اطلبوا العلم واطلبوا مع العلم السكينة والحلم، لينوا لمن تعلمون ولمن تتعلمون منه، ولا تكونوا من جبابرة العلماء، فيغلب جهلكم علمكم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과 함께 품위 있는 평온과 인내를 추구하라. 학생과 선생님을 부드럽고 부드럽게 대하세요. 무지가 지식보다 지배적으로 지배되도록 냉정하고 성급한

학자들 사이에 있지 말라."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 *집 이븐 아스-서니 피 알-리야다툴 무타알레민*)

이 과정에서 오만함과 우월감이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이러한 내면의 특성들이 인내와 온화함을 막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다음과 같은 말로 기도하셨습니다:

اَللّٰهُمَّ اَغْنِنِیْ بِالْعِلْمِ، وَزَیِّنِّیْ بِالْحِلْمِ، وَاَکْرِمْنِیْ بِالتَّقْوٰی، وَجَمِّلْنِیْ بِالْعَافِیَةِ

"오 신이시여! 지식으로 나를 풍요롭게 하시고, 인내와 온유로 나를 장식하시며, 경건한 경외와 경외, 경외심과 경외심으로 나를 존경하시고, 건강과 안전으로 나를 아름답게 하소서."

아부 후라이라(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무함마드 예언자의 말씀을 전합니다(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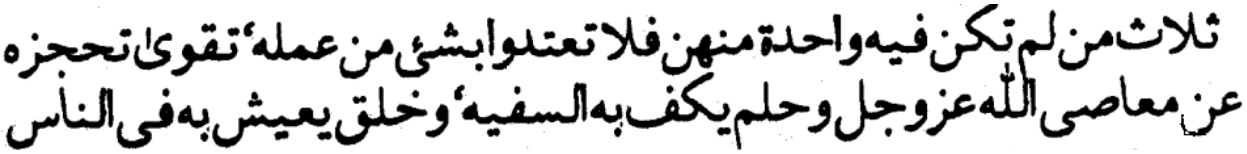
ابتغوا الرفعة عند الله، قالوا وماهي يا رسول الله! قال تصل من قطعک، وتعطی من حرمک، وتحلم عمن جهل علیک

"하나님과 함께 위대함을 찾으려 한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했다: "친족 관계를 끊는 자와 유지하라, 너희를 빼앗는 자에게 주고, 무지하게 대하는 자에게 인내와 온화함으로 대하라."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킴*과 *바이하키* 하디스 *모음*집)

한 남자가 [무함마드 예언자 시대에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라고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물질적 가난 때문에 자선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큼은 할 수 있다. 그것이 나에게 유리한 자선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에게 이 간청으로 인해 용서하셨음을 보냈습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집: *아부 나임 피 아스-사하바* 와 *바이하키 피 알-슈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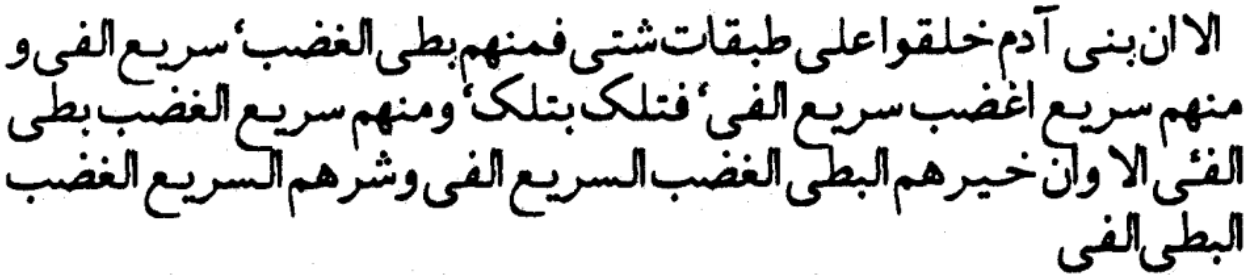
한 번은 예언자 무함마드(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가 동료들에게 물었다: "너희 중 누구도 아부 담담처럼 되지 않을 수 있느냐?" 동료들은 "아부 담담은 누구이며, 우리가 그와 다르게 가진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전 민족 출신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간청하곤 했다: '오 하나님! 오늘 나는 나를 억압하는 이들에게 내 존엄과 명예를 자비로 바칩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ثلاث من لم تكن فيه واحدة منهن فلا تعتدوا بشئ من عمله تقوى تحجزه
عن معاصي الله عز وجل وحلم يكف به السفيه وخلق يعيش به في الناس

"세 가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경건한 경외심, 신에 대한 경외와 경외(*타크와*, 신의 불순종을 막*는 것), 어리석음을 막*는 인내(힐름),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평생을 보내는 좋은 내면의 성격(*이흘락*)."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움 살마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 집* 타바라니 [신께서 그녀를 기뻐하시길])

분노의 다양한 상태: 분노의 상태는 다양합니다.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지만 곧 원래의 [평화로움] 상태로 돌아오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영원히 적대감과 원한을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분노에 관해서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풀처럼 불이 붙지만 곧 꺼지는 사람; 둘째, 석탄은 늦게 불타고 늦게 꺼지는 것과 같다; 셋째, 늦게 불이 붙었다가 곧 꺼지는 젖은 나무처럼, 무관심하지 않은 상태라면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넷째, 불이 붙으면 늦게 꺼지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꽤 악랄합니다. 전혀 화내지 않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맘 샤파이는 "분노를 유발해야 할 일로 누군가를 화나게 하려는 시도에도 화내지 않는 자는 당나귀이며, 달래려도 달래지 않는 자는 사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부 사이드 알-쿠드리(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로부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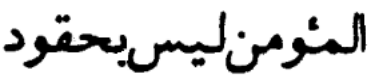

الا ان بنی آدم خلقوا علی طبقات شتی فمنهم بطی الغضب، سریع الفی و منهم سریع اغضب سریع الفی، فتلک بتلک، ومنهم سریع الغضب بطی الفئی الا وان خیرهم البطی الغضب السریع الفی وشرهم السریع الغضب البطی الفی

"기억하라, 아담의 후손들(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즉, 모든 인간)은 [내면의 성격, 기질, 성향 및 성향 면에서] 서로 다른 집단으로 창조되었다. 늦게 화를 내고 곧 진정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한 [빠르게 화를 내는 나쁜 특성]이 다른 [좋은 성격, 예를 들어 빠르게 안심하는 것]으로 보상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방 화를 내고 늦게 진정되기도 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들 중 더 나은 사람은 늦게 화를 내지만 곧 진정되는 사람이고, 가장 나쁜 사람은 늦게 화를 내고 늦게 진정되는 사람입니다."

분노가 인간의 마음과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기에, 분노 상태에서는 누구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분노할 때는 필요 한계를 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하위 자아의 만족과 쾌락을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분노 상태에서는 누군가의 분노를 표적으로 삼기 전까지는 진정되고 평화로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분노와 보복은 오직 신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개인적 자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원한의 현실과 결과, 그리고 용서와 온화함의 탁월함

약점으로 인해 복수할 수 없게 되면 화가 나면 그것을 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분노가 마음속에서 원한과 악의로 변한다. 라코르(원한)의 의미는 누군가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이 영원히 마음속에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المؤمن ليس بحقود

"신자는 마음에 원한과 악의가 없으며, 따라서 누구에게도 원한이나 악의를 품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분노는 원한과 악의를 낳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결과와 결과를 낳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질투이며, 이는 악의가 상대방이 가진 부와 축복이 빼앗기고 싶다는 욕망을 마음속에 심어준다는 뜻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는다면, 당신은 그로 인해 고통받고 슬퍼하며,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당신은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은 위선자의 행동(특징)이며, 곧 그 비난이 밝혀질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질투가 과도하게 쌓여 다른 사람의 고통을 비웃고 조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과는** 상대방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고 그 의도로 다가와도 모든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결과는** 당신이 한 명을 모욕하고 굴욕을 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결과는** 신의 법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거나, 험담하거나,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거나(대중의 눈에 띄지 않게 하고 싶은 사적인 문제들), 결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결과는** 모방하고 조 롱하는 생각으로 한 명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결과는 한 가지 신체적 상해, 즉 폭력(폭력)과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결과는 권리를 돌려주지 않고, 대출을 소유한 경우에도 상환하지 않으며, 친족 권리를 충족하지 못하고, 압수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와 결과는 신의 법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하람*). 악의와 원한에 대해 최소한 할 수 있는 일은 앞서 언급한 여덟 가지 해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불순종에 휘말리지 않고(이 여덟 가지 결과 중 하나 또는 전부에 빠져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악의를 느끼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기쁘게 대화하지 않고, 누군가의 필요를 돌보지 않으며, 모임에서 함께 앉지 말고, 신성한 추모를 하지 않으며, 그 사람을 위해 돕지 않고, 기도하거나 찬양하지 않으며, 의로운 행위를 격려하지 않고, 그와 함께 슬픔을 나누거나 동정하지 마세요, 그 작은 악의 가 당신의 신(*Deen*, 하나님으로 가는 길)에서의 등급을 낮추게 하고, 이 [악의] 수준에 대해 신의 응징을 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큰 축복과 신의 보상을 얻는 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부 바크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가 자신의 친척 미스타(예전에 재정적으로 도왔던 분)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을 때, 그는 자신의 딸(예언자 무함마드(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의 사랑받는 아내인 아이샤(신께서 그녀를

기뻐하시길)에 대한 중상모략에 연루된 사람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래 구절 [꾸란]이 [예언자께 신의 계시를 통해] 계시되었을 때:

وَلَا يَأْتَلِ أُوْلُوا۟ ٱلْفَضْلِ مِنكُمْ
وَٱلسَّعَةِ أَن يُؤْتُوٓا۟ أُو۟لِى ٱلْقُرْبَىٰ وَٱلْمَسَٰكِينَ وَٱلْمُهَٰجِرِينَ فِى
سَبِيلِ ٱللَّهِ ۖ وَلْيَعْفُوا۟ وَلْيَصْفَحُوٓا۟ ۗ أَلَا تُحِبُّونَ أَن يَغْفِرَ ٱللَّهُ لَكُمْ

"그리고 너희 중 [영적] 탁월함과 탁월함을 가진 자들은 [세속적] 재산도 [가운] 친척,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이주하는 이들에게 기부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말라. 그들은 [오히려] 그들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고 [그로 인한 상처]를 무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사랑하지 않나요? 진실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꾸란 24장 22절)

이 구절을 들은 아부 바크르(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예전처럼 미스타를 대하기 시작했고 [재정적으로 도우며]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는 아이샤의 권위에 따라 *사히흐 부카리*와 *사히흐 무슬림*을 모았 다 [신께서 그녀를 기뻐하시길])

원한과 악의로 인해 누군가에 대한 [선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더 낫다. 가능하다면 자신의 낮은 자아(나프스)와의 영적 투쟁과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 악의의 대상인 사람에 대한 아름다운 행동과 대우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성인과 영지주의자들의 계급(*시디킨*)이며, 이는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계급이며, 신자들의 더 뛰어난 행위(*무미닌*) 중 하나입니다. 악의를 품은 사람이 세 가지 상태 중 하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악의를 품은 사람의 권리를 부족하거나 과잉 없이 충족하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둘째, 악의를 품은 사람을 용서와 탁월함, 친족 관계를 유지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이 더 우월합니다. 셋째, 악의를 품은 사람에게서 잔인함으로 무언가를 빼앗는 것은 억압입니다. 이 마지막 상태와 계급은 비열하고 악한 자들의 것이고, 두 번째는 성인과 영지주의자들에게, 첫 번째는 의로운 자들의 것이다.

용서의 탁월함과 선함 한턱 넘는 행위

용서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시 말해 복수나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وَأَن تَعْفُوٓا۟ أَقْرَبُ لِلتَّقْوَىٰ ۚ

"그리고 당신의 용서[그리고 당신이 정당하게 받을 자격이 있는 것들을 놓아주는 것]은 경건한 경외심,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더 가깝습니다 (*타크와*)." (꾸란 2장 237절)

무함마드 예언자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ثلاث والذى نفسى بيده لو كنت حلافا لحلفت عليهن ما نقص مال من صدق فتصدقوا ولا عفا رجل عن مظلمة يبتغى بها وجه الله الا زاده الله بها عزا يوم القيامة ولا فتح رجل على نفسه باب مسالة الا فتح الله عليه باب فقر

"세 가지가 있어서 만약 내가 맹세하는 사람이었다면 맹세했을 것이다: 첫째, 재산은 자선으로 줄어들지 않으니 자비를 베푸는 것; 둘째, 누군가가 하나님의 승인을 얻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그러한 한 가지 영예를 주실 것입니다; 셋째, 만약 누군가가 [타인에게 자신의 필요를 채워 달라고]라는 문을 스스로 열어준다면, 하나님께서 가난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했다. (이 전통은 *아부 카브샤 알-안사리(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 집* 티르미디, 아부 다우드, 사히흐 무슬림에서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또 다른 전통(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التواضع لا يزيد العبد الا رفعة فتواضعوا يرفعكم الله والعفو لا يزيد العبد الا عزا فاعفوا يعزكم الله والصدق لا تزيد المال الا كثرة فتصدقوا يرحمكم الله

"겸손은 [이 세속적] 그리고 이세상적인(더 높은 영적 지위)을 하나님의 종에게 부여하니, 겸손을 기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용서는 종에게 명예를 주니,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명예를 주실 것입니다. 자선은 재산(물질적 소유)을 증가시키므로, 자비를 베풀어라,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집은 *아나스의 권위에 따라* 이스파하니 알-타르기브 와 알-타르히브*와* 아부 만수르 알-다일라미 를 기록했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우크바(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이렇게 전합니다: "어느 날 나는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에게 갔습니다. 내가 먼저 그의 손을 잡았는지, 그가 내 손을 잡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가 내게 말했다:

يا عقبة! الا اخبرک بافضل اخلاق اهل الدنيا والآخرة صل من قطعک
وتعطی من حرمک، وتعفو عمن ظلمک

'오 우크바! 이 세상과 저 세상 사람들의 가장 뛰어난 성격 특성에 대해 알려주지 말아야 할까요? 너와 만나지 않는 사람은 너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 너를 빼앗는 자에게 너는 주는 자라니; 너를 잘못하고 억압하는 자를 용서하라!'" (이 전통은 *하디스* 모음집인 *타바라니, 바이하키*, *이븐 아비 알-둔야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예수(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가 이렇게 물으셨다고 말했습니다:

يارب اى عبادک اعز عليک، قال الذى اذا قدر عفا
الاخلاق

"오 나의 주님! 하인 중에서 누가 더 소중하느냐?'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복수를 할 능력이 있더라도 용서하는 자'". (이 전통은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집 『카라에티 마라킴 알-이클라 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온화함과 관용의 탁월함

온화함이나 관용은 좋은 특성이며, 그에 반대되는 것은 공격성과 엄격함입니다. 후자의 두 특성 모두 분노와 나쁜 기질에서 비롯된 반면, 온화함은 아름다운 도덕성, 예절, 기질, 내면의 성격, 그리고 평화로운 성격에서 비롯됩니다. 때로는 공격성이 분노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때로는 탐욕의 강도와 지배에서 비롯됩니다. 탐욕이 심해지고 기질의 균형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사고하고 이해할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온화함은 아름다운 도덕, 예절, 기질, 내면의 성향(*후스른 울-쿨크*)의 결실이며, 분노와 욕망의 힘이 절제의 범위 내에 있을 때 [고귀한 내적 상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언적인 이야기들은 부드러움을 지나치게 찬양해왔다. 그래서 무함마드 예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يا عائشة انه من اعطى حظه من الرفق فقد اعطى حظه من خير الدنيا والآخرة
ومن حرم حظه من الرفق فقد حرم حظه من خير الدنيا والآخرة

"오, 아이샤! 신의 은혜로 온유를 받은 자는 이 세속 삶과 내세의 선함을 부여받았고, 온유를 박탈당한 자는 이 세속 삶과 내세의 선함을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이 전통은 *압두르 라흐만 빈 아비 바크르 알-말리키(신의 기쁨이 있기를)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 집 아흐메 *드와* 알-아킬리 키탑 알-두아파 에 전해졌다.)

ان الله ليعطي على الرفق مالا يعطي على الخرق واذا احب الله عبدا اعطاه
الرفق ما من اهل بيت يحرمون الرفق الا حرموا محب الله تعالى

"하나님은 [인간의 온화함과 친절의 표시(*리프크*)로 많은 것을 주시며, 무지와 엄격함으로는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종(인간)을 사랑하실 때, 그런 한 가지 온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온유함이 결여된 가정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긴다"고 말했다. (이 전통은 *자리르(Jareer)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 집* 『타바라니 카비르』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께서 그에게 기쁨이 있기를])

ان الله رفيق يحب الرفق، ويعطي عليه مالا يعطي على العنف

"하나님은 온화하고 친절하시며, 온유를 사랑하시고 온유로 많은 것을 주셔서 거칠게 주지 않으십니다." (이 전통은 아이샤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 집 *『무슬림 사히흐*』에 전해진다 [신께서 그녀를 기뻐하시길])

يا عائشة ارفقي فان الله اذا اراد باهل بيت كرامة دلهم على باب الرفق

"오, 아이샤! 하나님께서 가정(개인이나 가족)을 존중하실 의도가 있을 때, 그들에게 온화함의 길을 보여주시기 때, 온유함을 받아들이세요."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수집 *아메드* 아이샤의 권위에 따라 [신께서 그녀를 기뻐하시길])

من يحرم الرفق يحرم الخير كله

"온유를 빼앗긴 자는 모든 선한 것을 빼앗긴 것이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자리르의 권위에 따라* 무슬림 *하디스* 모음 집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ايما والى ولى فرفق ولا رفق الله تعالى به يوم القيمة

"정치 권위자가 되어 일반 대중에게 친절을 베푼 자는 심판의 날에 그런 자를 친절로 대하리라."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아이샤의 권위에 따른 *무슬림 하*디스 *모음* 집 [신께서 그녀를 기뻐하시길])

الرفق يمن والخرق شئو

"온화함은 엄청난 축복이고, 엄격함은 나쁜 징조입니다 [악한 결과만 가져올 뿐]."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압둘라 빈 마수드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 집* 타바라니 아우사트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질투의 비난, 그 현실과 치유 방법

질투는 원한과 적대감에서 비롯되며, 같은 내면의 악(부정적인 성격, 성향, 성향)에 속합니다. 대신 질투는 분노의 한 가지 분파이며, 그 자체가 분노의 한 구성 요소(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질투에서 비롯된 수많은 분기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질투를 비난하는 데에는 많은 [예언적] 전통이 있습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الحسد يأكل الحسنات كما تأكل النار الحطب

"질투는 불이 나무를 태우듯 선행을 삼킨다(즉, 신성한 예배, 자선, 사람들에 대한 봉사 등과 같은 선한 의로운 행위는 누구에게든 질투를 품고 있으면 남는 것이 없다)". (이 전통은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른* 아부 다우드 *와 아나스의 권위에* 따른 이븐 마자(아나스의 뜻에 따라 하*디*스 전 설)에서 전해지고 있다.)

한 예언적 서사에서는 질투와 그 결과, 원인이 금지되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لا تحاسدوا ولا تقاطعوا ولا تباغضوا ولا تدابروا وكونوا عباد الله اخوانا

"상호 질투하지 말고, 사소한 문제나 오해로 친족이나 우정을 끊어 만나는 것을 멈추지 말라, 상호 적대감을 갖지 말라, 서로를 외면하지 말라(서운함 때문에], 그리고 오 하나님의 종들이여! 서로 형제자매가 되어라!" (이 전통은 *하디스* 모음집인 *사히흐 부카리*와 *사히흐 무슬림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ثلاث لا ينجو منهن احد الظن والطيرة والحسد، وساحدثكم بالمخرج من ذلك اذا ظننت فلا تحقق واذا تطيرت فامض واذا حسدت فلا تبغ

"누구에게나 빠지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 추측, 타인에 대한 나쁜 생각, 그리고 질투. 그들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추측이 마음에 들어오면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면 [신경 쓰지 않고] 일에 몰두하라. 질투가 생기면 그것을 바라지 마라(즉, 질투의 결실)." (이 전통은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집 이*븐 아비 알-둔야 에서 전해지고 있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انه سيصيب امتي داء الامم قالوا وما داء الامم قال الاشر والبطر والتكاثر والتنا
فس في الدنيا والتباغض والتحاسد حتى يكون البغي ثم الهرج

"내 민족(*우마*)은 곧 다른 나라의 병에 감염될 것이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국가의 병이란 무엇인가요?" 그는 이렇게 답했다: "오만, 부의 과시, 세속적 수단(부)을 얻기 위한 상호 경쟁, 상호 적대, 상호 질투, [이 모든 것] 반란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 혼란이 번질 것이다." (이 전통은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 집* 『이븐 아비 알-둔야』*와* 『타바라니』에서 전해지고 있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ستة يدخلون النار قبل الحساب بسنة قيل يا رسول الله من هم قال الامراء
بالجور والعرب بالعصبية والدهاقين بالتكبر والتجار بالخيانة واهل
الرستاق بالجهالة والعلماء بالحسد

"여섯 종류의 사람들이 심판의 날과 책임 추궁 1년 전에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그 문구는 "오 하나님의 사도여! 저 사람들은 누구야?"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답했다: "억압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강력하고, 민족주의적 편견 아래 인종차별(*'아스비야*)으로 인해 아랍인들은 (비록 아랍인들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인류에게 전한 신성한 명령(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에서 그 사례로 제시된 바 있다), 이 전통의 주장은 모두에게 적용된다. 즉, 어떤 인종, 민족, 민족 집단이 행하는 인종차별은 지옥으로 구현된 신의 불이익을 초래한다), 오만함 때문에, 부정직함 때문에, 무지로 인한 마을 사람, 질투로 인한 종교 학자들이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압둘라 빈 우마르의 권위에 따라* 아부 만수르 알-다이랄미 *하디스* 모음 집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전통에 따르면, 예언자 모세(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시내산에 갔을 때, 신성한 보좌 그늘에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그 남자의 [신 앞에서의 높은 지위와 지위를] 부러워하며 신께 자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간청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대신 그의 행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질투하지 않았고, 부모님의 말을 어기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말하거나 알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의도치 않게 혹은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전달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예언자 스가랴(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투하는 자는 나의 축복의 적이며, 나의 결정에 분노하며,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인류에게 신성한 은혜를 분배하는 것에 불만을 품는다. 하나님의 분배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실제로 동료 인간과의 질투를 수반하는 것이다]".

질투는 [신성한] 축복과 신성한 은신을 위해 행해지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에게 상을 주실 때, 다른 사람은 그에 대해 두 가지 상태를 갖게 됩니다. 첫째, 그 축복을 싫어하고 그 몰락을 원한다. 이것이 바로 질투의 상태입니다. 이로부터 질투의 정의는 [그것을 받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주어진] 싫어하고 그 축복이 몰락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 몰락을 원하지도 않고, [그것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서] 계속되는 것을 반대하지도 않지만, 자신도 그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를 '*기브타(Ghibta*)'라고 하며, 다른 사람이 가진 축복을 자신에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축복이 상대방에게서 사라지거나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이것은 실제로 신성한 법칙에 의해 허용됩니다. 질투는 모든 상황에서 금지되어 있지만, 악한 자에게 부여되어 무질서와 혼란을 일으키고, 사람들 사이에 불화를 조장하며 해를 끼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축복의 [오용] 에 대해 싫어하고 그 몰락을 바라는 것은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축복이 축복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질서와 혼란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정부 상태와 혼란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들에 슬퍼하지 않고, 그것들이 빼앗기길 바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축복을 나쁘게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나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에서 일부 종을 다른 종보다 더 선호하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혐오와 혐오의 변명으로 사용될 수 없는 현실이며, 신성한 법도 신의 계명에 간섭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부가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는 다른 신자를 편안하게 볼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있을까요? 비록 그 부가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말이죠. 꾸란은 질투에 대해 강한 비난을 담고 있습니다:

إِن تَمْسَسْكُمْ حَسَنَةٌ تَسُؤْهُمْ وَإِن تُصِبْكُمْ سَيِّئَةٌ يَفْرَحُوا بِهَا

"좋은 상태라면 그들에게 슬픔의 원인이 되고, 고통받는 상태라면 그들에게 기쁨이 된다." (꾸란 3장 120절)

무슬림이 신성한 법에 따라 신에 대한 믿음(*이만*), 기도(*살라트*), 의무적 자선(*자카트*) 등 의무적인 축복을 받았다면, 이러한 축복을 이루기를 바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금지된 신성한 예배 행위를 하지 않는 죄(*하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선행에 부를 쓰는 일, 초월적 자선 등과 같은 탁월함(*파다일*)과 관련된다면, 그들에 대한 경쟁과 욕망은 매우 칭찬받을 만하다. 만약 어떤 축복이 [그저] 허용되는 혜택이 있다면, 그 안에 대한 경쟁과 욕망도 허용됩니다. 허용의 정당성은 평등을 원하고 그 축복을 나쁘게 여기지 않고 그 축복을 누리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을 존중하고[그 축복이 몰락하기를 바라지 않는]; 둘째로, 같은 것을 원하는 사람은 그 점에서 뒤처졌습니다. 그러나 [단지] 허용되는 것들에 대해 평등과 경쟁을 원하면, [허용되긴 해도] 이러한 행위들은 신에 대한 신뢰(*타왁쿨*)와 신의 명령(*라다*)을 받아들이는 것에 반하며, 이는 고귀한 영적 상태이며, 더 높은 영적 차원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만, 신의 불순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질투의 정도: 질투의 정도는 [심각함과 모욕의 정도 측면에서]가 있습니다. 1단계는 자신이 그 축복을 얻지 못하더라도 타인으로부터 축복이 무너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질투에는 가장 악랄한 사람들만 연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투는 다른 사람의 축복이 무너지길 바라는 것으로, 그 축복을 자신에게 얻기 위해 예: 아름다운 배우자, 웅장한 집, 큰 명성, 사회적 지위를 얻는다. 세 번째 단계는 특정 축복을 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슷한 축복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상대방이 타로를 타락시키고 두 사람이 평등해지길 바라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이 가진 축복을 원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할 경우 그 축복이 타인으로부터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정도는 축복이 세속적인 문제와 관련된다면 용서받을 수 있고, 영적인 문제와 관련되면 칭찬받을 만합니다. 3등급에는 선과 악의 양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2등급은 3등급보다 가벼워. 1급

사건은 모든 상황에서 비난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이 가진 축복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질투의 원인

질투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곱 가지 원인에 따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적대감; 둘째, 명예에 대한 욕망; 셋째, 오만함; 넷째, 놀라움; 다섯째, 목표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여섯째, 권력(통제)과 명성에 대한 사랑; 일곱째, 영혼의 내면의 악과 인색함. 때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자존심과 오만함으로 인해 축복받은 사람들에 대한 자기 과시와 자기찬이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구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참을 수 없게 되어, 질투심이 생겨 다른 사람의 축복을 빼앗아 두 사람이 동등해지게 됩니다. 때로는 질투하는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 대해 오만함을 가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가진 어떤 특별함(축복) 때문에 그것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축복이 너무 크고, 계급이 너무 높아서 그 축복과 계급을 가진 것이 놀라움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축복 때문에 자신의 목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통제와 권력을 얻지 못한 실패로 인해 타인에게 질투를 느낍니다. 때로는 이런 이유가 전혀 없지만, 자신의 내면의 악과 영혼의 인색함 때문에 타인에게 질투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제 이 [질투]의 원인 각각에 대한 세부사항을 들어보세요:

첫 번째 원인 - 적대감과 원한: 이 질투의 원인은 다른 원인들보다 더 가혹하다. 고통을 겪거나 자신의 목표에 장애물이 놓인 모든 사람은 고통을 일으키거나 장애물을 세운 사람의 반대자가 되고, 그런 장애물을 나쁘다고 여기며, 원한과 분노가 복수를 불러일으킨다. 복수할 능력이 없다면, 다른 이들이 복수하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주거나 장애물을 놓은 사람에게서]. 이 정도로, 적이 걱정과 어려움에 시달리면 그것을 자신의 높은 지위와 신과의 친밀함의 상징으로 해석하고, 적이 자신의 뜻과 달리 축복이나 [높은 사회] 지위를 얻으면 그것을 신의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여 실패와

적의 승리를 초래했다. 결론은 질투와 적대감이 서로에게 필수적이며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신에 대한 두려움과 신중함은 그런 질투가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고, [항상] 그것을 나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요구합니다. 질투는 영혼의 치명적인 [내면]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إِن تَمْسَسْكُمْ حَسَنَةٌ تَسُؤْهُمْ وَإِن تُصِبْكُمْ سَيِّئَةٌ يَفْرَحُوا۟ بِهَا ۖ

"네가 좋은 상태라면, 그들에게는 슬픔의 원인이야; 재앙이 닥치면 그들은 기뻐할 것이다." (꾸란 3장 120절)

وَدُّوا۟ مَا عَنِتُّمْ قَدْ بَدَتِ ٱلْبَغْضَآءُ مِنْ أَفْوَٰهِهِمْ وَمَا تُخْفِى صُدُورُهُمْ أَكْبَرُ

"그들은 너를 위해 해를 끼치길 원한다; 그들의 입에서 적대감이 드러나고, 그들이 마음속에 숨겨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다." (꾸란 3장 118절)

질투에서 비롯된 적대감은 [명성과 권력을 가진 국가나 집단 수준에서], 보통 유혈 사태, 전쟁,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평생은 질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축복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에 쓰여, 이야기를 퍼뜨리거나, 모욕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악행에 빠지면서 쓰입니다.

두 번째 원인 – 명예나 명예에 대한 욕망: 때때로 질투는 자신과 동등하다고 인식되는 사람의 명예나 구별을 받아들이지 않아 발생합니다. 즉, 질투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이 자신을 구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회적 지위에서 동등한 사람이 높은 지위나 부, 지식을 얻으면, 질투심은 그 사람이 자신에게 자부심과 오만함을 표현할까 두려워합니다. 비록 자신은 거만해지고 싶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거만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등에는 동의하지만 자신의 우월성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세 번째 원인 – 오만함: 때때로 질투의 원인은 질투하는 사람이 타인을 굴욕적이고 낮고 열등하다고 여기며, 그런 사람이 자신의 통제 하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연히도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면, 질투하는 사람은 그 축복 때문에 상대방이 변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명령을 거부하거나, 평등함을 주장하거나,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만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거만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한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선언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을 질투로 이끈다. 이것이 바로 메카의 불신자들이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에게 질투하는 이유, 즉 명예와 오만함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고아 소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고아와 가난에서 매우 겸손한 출신을 가진 온 인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로서]에게 복종할 수 있느냐는 말이었습니다. 꾸란은 그들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반영했다:

وَقَالُوا۟ لَوْلَا نُزِّلَ هَٰذَا ٱلْقُرْءَانُ عَلَىٰ رَجُلٍ مِّنَ ٱلْقَرْيَتَيْنِ عَظِيمٍ

"왜 이 꾸란이 이 두 도시의 위대한 인물에게 (신성하게 계시된) 내려오지 않았는가?" (꾸란 43장 31절)

즉, "만약 당신이 저명한 인물이었다면, 우리는 당신을 따르는 데 아무런 반대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라비아를 사실상 지배했던 쿠라이쉬 부족은 다음과 같이 경멸하며 말하곤 했습니다:

أَهَٰٓؤُلَآءِ مَنَّ ٱللَّهُ عَلَيْهِم مِّنۢ بَيْنِنَآ ۗ أَلَيْسَ ٱللَّهُ بِأَعْلَمَ بِٱلشَّٰكِرِينَ

"'이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고 모든 이보다 뛰어나신 [겸손하고 하찮고 가난한] 사람들(즉, 이교도 메카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초기 무슬림들)인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종들이 누군지 아시지 않나요? (즉, 영적 축복을 누구에게 내리는지는 하나님의 결정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적으로 풍부한 부와 권력으로

판단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감사하는 종들이 누구인지 아시며, 하나님께서 신성한 친밀함, 근접성, 예배, 진리에 대한 인도, 내면의 영적 깨달음이라는 영적 축복을 위해 선택하신 자들이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 보이고, 정치적 권력의 부재와 물질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꾸란 6장 53절)

네 번째 원인 – 놀라움: 누군가가 높은 [사회적·영적] 지위와 지위,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것도 질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وَلَئِنْ أَطَعْتُم بَشَرًا مِّثْلَكُمْ إِنَّكُمْ إِذًا لَّخَاسِرُونَ

"만약 여러분 같은 인간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패배할 것입니다." (꾸란 23장 34절)

다섯 번째 원인 – 목표를 잃을까 두려움: 이는 단일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축복에 대해 서로 질투하게 됩니다. [예시] 이 질투는 두 형제(또는 형제자매)가 부모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서로에게 질투를 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재산과 명예의 획득은 부모의 승인에 달려 있으며, 모두가 부모의 승인을 얻어 그 재산의 유일한 소유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교사의 두 학생도 마찬가지로, 두 학생이 최대한의 지식과 교육의 형태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 최대한의 봉사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왕(또는 정치 권위자)의 동료와 동료들 간의 상호 증오와 적대감은 모두가 왕과 가까워지길 원하기 때문이며, 이는 명성과 부를 얻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같은 도시의 설교자들은 서로를 질투하는데, 각자 혼자 인기를 얻고 싶어 최대한 많은 부를 모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원인 – 명성과 권력에 대한 욕망: 때때로 질투는 명성과 권력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예술이나 기술에서 비할 데 없는 누군가가 다른 누구도

같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인기를 유지하길 바란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칭찬하고 칭찬하며 세상에서 유일무이하다고 여기며 큰 칭호를 수여합니다. 그런 사람의 실질적인 목적은 오직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과 인기를 얻기 위한 것뿐입니다. 즉, 예술, 기술, 전문성을 통해 부를 모으거나 다른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본질적으로 아첨을 좋아하며, 사람들이 그 기술에 의존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같은 기술에 전문성을 쌓으면, 한 사람은 질투를 느끼고 다른 사람의 명성과 평등함을 고통스럽게 여기며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고, 그 축복이 무너지길 바라며 그 축복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 용기, 지식, 숭배, 기술, 아름다움, 부를 소유하면 자부심의 원인이며, 그 모든 것의 유일한 소유자라면 그 자존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질투의 원인은 명예, 오만함, 목표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욕구가 아니라, 예술이나 기술에서 가진 독특함이 다른 누구도 그 몫을 얻지 못하게 유지되길 바라는 욕망일 뿐입니다.

일곱 번째 원인 – 내면의 악 또는 타락: 하위 자아의 타락과 정의로운 행위에 대한 마음의 인색함은 질투의 큰 이유입니다. 권력을 갈망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으며, 부를 추구하지 않고, 목표를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상태가 언급되거나 누군가가 신성하게 내린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뱀들이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붙일 것입니다(즉, 그들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 걱정에 시달리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는 말을 들으면, 그런 내면의 타락한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성공하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보상이 마치 다른 이들이 재산에서 그 보상을 빼앗아 간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쏟아지는 것을 보고 매우 당황하고 괴로워합니다. "***Bakheel***"(구두쇠)은 자신의 소유물에 구두쇠를 지키는 사람이고, "***Shaheeh***"(마음이 좁은 사람)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구두쇠로 여기는 사람(즉, 자신의 주머니에서 아무것도 들지 않는데도 다른 사람을 위해 좋지 않게 바라는 사람)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구두쇠로 여기며,

적대감도, 접촉도 없는 사람들을 질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현상의 겉보기에는 [하층] 자아(*Nafs*)의 타락 때문일 뿐이다. 내면의 타락이 반작용하는 것이 이제 본능이 된 것이다. 그 치료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질투의 원인은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이 원인만은 본질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다. 그것은 일시적인 원인 때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박멸이 어렵습니다.

이것들이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원인들입니다. 때로는 이 모든 원인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면, 질투가 크고 너무 강력하게 밀려 노력과 욕망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숨길 수 없고 대신 공개적인 적대감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는 종종 본질적으로 질투하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모든 질투의 원인은 세상에 대한 사랑(세속적 또는 물질적 삶에 대한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만이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하지 않은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아무리 많아져도 그들은 그 부족함을 불평합니다. 반대로, 내세에는 부족하지 않으며, 내세와 관련된 것들에는 큰 수용력과 확장성이 있습니다. '내세'의 형상은 지식의 모습과 같아서, 그 원은 한계 없이 넓다. 수백만 명이 어떤 것을 알게 되면, 그 지식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으며, 모두가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즐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지(*마리파*, 신성한 지식과 친밀감)와 신성한 속성, 천사, 예언자, 천지의 지배에 대한 지식을 얻은 자는 이 지식과 영지에 대해 누구와도 질투하지 않는다 – 다른 사람이 같은 것을 얻는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영지주의자가 되더라도 자신의 지식과 영지가 줄어들지 않는다. 대신, 진정한 영지주의자들의 상태는 영지주의자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영적 행복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성한 길(딘)의 진정한 학자들 사이에는 질투가 전혀 없는데,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지(Gnosis)와 그에 따른 신성한 지식, 친밀함, 그리고 그로 인해 영적 수준을 높여준다. 이는 해안 없는 끝없는 바다와 같으며, 그 안에는 빈핍함이 없다. 모든 잠수부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 바닥에서 진주를 끌어올릴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영지와 하나님의 친밀함을 이루고자 하며, 그것 또한 결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얻고 나머지는 그것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근처에서 가장 즐거운 축복은 신성한 비전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이나 다음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 그것에 장애물이나 저항이 없으며, 오히려 모든 [그것을 얻는] 사람들은 신성한 비전을 똑같이 누릴 것이며, 신성한 비전의 즐거움은 [신성한 비전]의 풍요로움으로 인해 훨씬 더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적] 학자들의 목표가 지식을 통해 부와 명성을 얻는 것이라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서로에 대한 질투를 품게 될 것입니다. 부는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 한 손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의 손에는 부가 없을 것이다. 명성은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 사람의 마음이 한 학자에게 대한 존경과 헌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마음은 필연적으로 다른 학자에게 향하는 존경과 충성을 잃게 됩니다 - 설령 다른 학자에게 헌신이 있더라도 그 가치는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질투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지식과 부의 차이는, 부가 한 손에서 사라지기 전까지는 다른 손에 닿지 않는 반면, 지식은 학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교육과 교육을 통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학생들의 마음속에 전해져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부와 재산은 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끝이 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지구 전체의 주인이 된다면, 그 이후로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지식에는 한계와 끝점이 없으며, 그것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논의의 결론은, 신성한 위엄, 위엄, 위엄, 주권, 그리고 천지의 지배에 대해 숙고하고 묵상하는 데 익숙해지는 자는, 이 관상은 너무나 즐겁고 매력적이어서 이 세상의 어떤 기쁨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과 같은 수준의 신성한 영지에 있어도 누구에게도 질투하지 않는다. 그것에서 자신의 쾌락을 줄이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신의 영지, 친밀함, 즉 친밀함으로 이어지는 숙고와 명상]에 더 큰 애착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의 경이로움과 장엄함을

묵상하는 이들이 느끼는 기쁨은, 외부의 눈으로 낙원의 정원과 그 열매와 꽃을 목격하는 이들의 기쁨보다 크다. 영지주의자들의 낙원은 신의 영지(Gnosis)입니다. 이 낙원은 결코 멸종하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자는 무성한 푸른 나무에서 맛있는 열매를 따서 이 고귀하고 풍성한 영양으로 영혼을 풍요롭게 합니다. 신성한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되는 열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لَا مَقْطُوعَةٍ وَلَا مَمْنُوعَةٍ

"[신의 관대함과 관대함에서 내려진 열매들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식으로든 그것들로부터 제약받지 않을 것이다." (꾸란 56장 33절)

قُطُوفُهَا دَانِيَةٌ

"그 열매는 낮게 달려 있을 거야 [완벽하게 쉽게 따면 최고의 만족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 (꾸란 69장 23절)

영지주의자가 외부의 눈을 감아도 영혼으로 낙원을 목격하고 그 정원을 둘러볼 수 있다면, 만약 많은 영지주의자들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들 사이에 상호 질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이 그들의 [세상] 삶에서의 상태입니다. 이로부터 내세에서 장막이 걷히고 사랑하는 이를 목격하는 영광을 누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낙원에는 '질투'라는 악이 존재하지 않을 것임이 알려져 있다. 또한 천국에 거주할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낙원에는 어떤 형태의 부족이나 제약도, 방해 요소도 없기 때문이다. 천국은 신의 영지에 도달하는 수단이 될 것이며, 신성한 영지의 길에서 다른 이들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천국의 사람들이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나 다음 세상에서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투는 인간을 가장 높은 곳(*'알라 '일리엔*)'에서 가장 낮은 곳(*아스팔 우스-사필렌*)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매우 비난받기 마련인 특성입니다 [영적 수준으로, 세속 삶에 함의와 파장을 일으키며].

이러한 세부 사항들로부터 질투는 제한된 목표에 관한 것임을 증명한다 - 한 명이 그것을 달성하면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빼앗긴다. 그래서 사람들은 넓은 하늘의 장식을 즐기며 서로를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이 이 넓고 광활한 지구의 작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거닐면서 서로를 질투합니다. 그리고 그 넓은 땅은 하늘에 비하면 매우 하찮고 하찮은 존재입니다. 하늘은 훨씬 넓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시에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두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관찰력에 따라 즐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통찰(*바세라*)을 가지고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운 자비(*나프*)를 가진다면, 노력 없는 축복과 소멸되지 않는 기쁨을 찾아야 하며, 그러한 기쁨은 신의 존재나 실체(*닷*), 신성한 특성(*시파트*), 그리고 신성한 행위(*아팔*)에 속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영지를 원하지도, 맛보고 싶지도 않거나 욕구가 약하다면, 분별력이 없는 아이는 지배나 [정치적] 권위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서 면제됩니다. 오직 성인들만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지가 주는 [엄청난 영적] 기쁨은 아래 구절 [구절] 계시된 자들만이 이해한다:

رِجَالٌ لَّا تُلْهِيهِمْ تِجَارَةٌ وَلَا بَيْعٌ عَن ذِكْرِ ٱللَّهِ

"이들은 [확고한 결의와 결단력을 가진 사람들]으로, 생계나 생계 수단을 유지하거나 세속 생활에서 생존하는 모든 형태로 인해 신성한 기억을 포기하지 않는다." (꾸란 24장 37절)

강렬한 욕망의 단계(*쇼크*)는 그것을 맛본 후에 찾아옵니다. [신의 영지]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찾는 자조차 아니며,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개인은 결국 [빈손으로 진정한 출원과 고향으로 돌아와 빈손으로 돌아가 진정한 목적과 영원한 행복, 영원한 성공을 누리지 못한 채 돌아오는 극심한 결핍과 상실]에 빠지게 됩니다.

질투 치료의 약

질투는 심장의 가장 큰 질병 중 하나이며, 심장 질환의 치료는 지식과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질투라는 병에 대해 당신에게 유용한 지식은, 질투가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두에서 해롭지만, 이 해악은 질투를 품고 있는 사람에게만 가해질 것이며, 당신이 질투하는 사람(또는 집단)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계도, 종교도 파괴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런 자는 당신의 질투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찰력으로 알면, 당신은 자신(*Nafs*)의 적이 아니며, 진정한 적의 친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질투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확실히 피할 수 있습니다.

질투가 신께 가는 길에 해를 끼치는 것: 질투가 신께 가는 길(딘)에 미치는 해는,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은밀한(비밀)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지배 안에 세우신 정의를 손가락으로 들여 하나님의 불쾌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신의 분배에 반대하고 사람들이 가진 것을 질투하는 것]이라는 중대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일체성(*타우히드*)과 신성한 영원한 진리에 대한 신앙(*이만*) 범위 내에서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을 것이다. 그 외에는, 당신은 신자에게 악을 바랐지만, 당신은 잘 되길 바랐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예언자이자 하나님의 친구, 친밀한 이들(*아울리야*)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인류)과 친구이며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질투는 마음의 악으로, 불이 나무를 태우듯 의와 의로운 행위를 삼키고, 밤이 낮을 삼키듯 그것을 멸망시킵니다.

질투가 세속적인 삶에 끼치는 해: 질투가 이 세상에서 해로운 점은 질 투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내려질 때마다 끊임없이 고통에 시달린다는 점입니다. 질투의 대상이 편안한 모습을 보일 때 당신의 피가 끓고 축복의 몰락을 전략적으로 세우기 시작할 때, 뱀이

당신의 마음 위를 굴러다닙니다(증오의 비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면, 당신은 슬픔, 후회, 수치심의 화신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걱정과 고통만 쌓이고, 질투의 대상인 사람에게는 아무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죽음 후 부활, 심판의 날에 대한 책임, 신의 책임 이후의 보상과 처벌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개인적 상식과 지능은 질투를 삼가라고 요구합니다. 질투를 통해 얻는 것은 마음의 슬픔과 고통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저세상에 대한 강한 벌에 확신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지적인 사람이 물질적 이익 없이 하나님의 불쾌함을 사는 것은 다소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질투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일까요? 오히려 그 반대가 손상, 상실, 그리고 마음에 대한 끊임없는 벌과 고통의 축적이라는 형태로 일어납니다 – 신(딘)으로 가는 길과 세속적 삶(*둔야*)은 모두 파괴되고 빈손으로 남게 됩니다. 질투하는 사람을 한 번 바라보고 그의 상태를 살펴보세요! 당신의 질투가 그런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있나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정적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의 세속적인 삶(*둔야*)도 손상되지 않고, 신으로 가는 길(*딘*)도 손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진 축복은 질투 때문에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신이 정한 때까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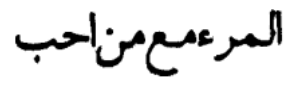
وَكُلُّ شَيْءٍ عِندَهُۥ بِمِقْدَارٍ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정한 기준으로 분배하고 정하신다." (꾸란 13장 8절)

한 예언자는 억압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황후에 대해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에게 드러났다. "영원히 신성하게 정해진 것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없으며, 그녀는 분명히 그녀에게 주어진 어떤 승진과 축복도 받을 것이다. 이 시대가 그녀에게 정해진 시기가 지나가도록 인내심을 가져 주세요 [이 시대 이후 여러분의 인내와 인내에 대한 보상으로 더 나은 시절의 전조가 되도록]." 이 [예]에서 배운 것은, 축복은 질투로 인해 사라지지 않으며, 질투의 대상이 된 사람은 아무런 손실도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질투 때문에 축복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지의 극치이며, 자기 자신과의 적대(*Nafs*)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의 축복이 사라지고, 다른 이들의 질투 때문에 당신 자신의 축복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 욕망 역시 순수한 무지입니다. 특화된 분야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선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투가 누구의 축복도 없애지 않을 만큼 위대한 신성한 축복입니다. 이 큰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자신의 행동으로는 그것을 감사히 여기지 못합니다.

당신의 질투의 대상이 된 사람의 이익에 관해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신(종교)이나 종교로 가는 길의 이점은, 질투의 대상이 된 사람이 당신 때문에 억압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질투가 마음에서 혀로 나오거나 당신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때, 예를 들어 당신이 뒷담화를 하거나 존엄성을 건드릴 때, 욕하거나 때리기(해를 끼치기)하세요. 이 모든 선물들은 당신이 질투의 대상인 사람에게 바치는 것으로, 즉 당신의 선행을 그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그를 만날 때 당신의 계좌에는 후회와 결핍만 남게 됩니다. 당신은 세속 생활에서처럼 그곳에서도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의 축복이 무너지길 바랐지만, 축복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더 나아가, 누군가는 당신의 선행에 대한 축복을 받아 그 사람의 선행에 반영되고, 그 사람은 축복을 받았고 당신은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와 함께, 당신은 인류의 적인 사탄에게 행복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는 사탄이 당신이 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 즉 지식, 경건함, 경외심,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이들을 사랑하기 시작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의 신성한 보상에 나누어 [이러한 고귀한 덕목들에 대해] 나누어 받으려 합니다. 사탄은 당신도 선을 잃었듯이, 선을 향한 사랑도 잃기를 원합니다. 사막의 아랍인이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에게 물었다: "오, 하나님의 사도여! 어떤 남자는 자신이 의로운 사람들 중 한 명이 아니지만 그 무리를 사랑한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사랑하는 사람(또는 그룹)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는 압둘라 빈 마수드의 권위에 따라 *사히흐 부카리*와 *사히흐 무슬림* 을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질투는 그 자체로 죄입니다. 그로 인해 생기는 의견 차이, 진실 거부, 그리고 적에게 복수하기 위해 저속한 언어와 손짓을 사용할 자유 같은 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병은 이전 국가들의 파괴를 초래했습니다.

질투에 대한 지식 기반 치료법은 질투의 명목에 반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된 것이든 행동이든. 따라서 질투 때문에 자신의 질투의 피해자를 비난하게 된다면, 대신 그를 칭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질투로 인해 적에게 오만해질 때, 적 앞에서는 겸손을 유지하고 필요할 때 사과할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그것이 [적으로 인식되는 사람]을 주거나 보상하게 만든다면, 마음을 억지로 삼아야 하더라도 더 많이 줘야 한다. 그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질투의 대상이 된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면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서 사랑이 생기면 질투하는 사람도 사랑에 응답하도록 강요받게 됩니다. 상호 사랑은 조화를 만들어내고, 질투를 없애게 할 것입니다. 겸손, 칭찬, [타인의] 축복에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복받은 자의 마음을 끌고 그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 기울게 만듭니다 [비록 질투는 있지만 영혼 속에서 그것을 상쇄하기 위함이지만] 하인처럼 다정하게 대하고 잘 대하기 시작합니다. 질투의 대상이었던 사람의 행동 우수성은 질투를 가진 사람에게 되돌아가, 처음에는 탁월함을 추구했지만 나중에는 습관과 기질(자연스럽고 자연스럽게 하는 두 번째 자연스러운 태도)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가 당신이 질투의 대상인 이를 겸손과 칭찬으로 대한다면 약하고 낮으며 위선적이고 두려움 많은 사람으로 여길 것이라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속입니다. 적을 잘 대하는 것은 자연스럽든 강박적이든 적대의 근거를 없애고 양측 모두 사랑으로 대체하여 질투의 고통과 처벌에서 벗어납니다.

이것들은 질투의 약이며, 그 이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맛이 쓴맛을 느끼지만, 쓴맛 있는 약이 더 유익합니다. 약의 쓴맛에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는 자는 치유의 달콤함을 찾지 못한다. 이 쓴 약을 견디는 것은 지식 기반의 실천적 치유 방법을 숙고하고, 신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신의 보상을 구하는 것이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때 쉬워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 바람에 반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내 욕망에 반하는 것은 내 자존심과 존엄성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전한 무지입니다(*Nafs*). 이 [잘못된] 생각이 마음에 깊이 박히면, 그 결과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지된] 적의 죽음을 원하게 되어 자신에 대한 저항조차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뜻에 반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내 욕망에 따라 일어나길 원하지만, 불가능하며, 실패하면 적들을 질투하게 될 것이며 결국 완전한 굴욕과 모욕을 초래할 것이다. 이 굴욕을 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원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둘째, 일어나는 일이 당신의 욕망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통제할 수 없으며, 그 안에 노력할 여지도 없지만, 두 번째 방법에는 영적 노력이 통할 것입니다. 강렬한 영적 노력을 통해 마음이 의도와 욕망을 잃고 신의 뜻에 복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을 습득하는 것은 지적이고 현명한 개인에게 필수적입니다 [내면의 평화, 평온, 행복,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승리를 얻기 위해].

6장- 세속적 삶, 소유물, 권력에 대한 집착과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다

세상의 삶에 마음을 집착하고 그것을 진짜, 혹은 가장 크거나 유일하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모든 도덕적·윤리적 제약과 고려를 제쳐두고, 사소하고 사소한 문제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러한 사고 과정은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의 집단적 차원에서도 나타납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진짜이고 중요한지에 대한 시각을 흐리게 하여 내면과 외면에 강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로 인해 쥐 경쟁, 제한된 자원을 두고 치열한 경쟁, 그리고 개인의 삶 전체를 소모하는 불필요한 투쟁이 초래되며, 이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자본인 시간만을 소모하는 헛된 노력에 빠져듭니다. 반면, 세속적 삶에 대한 분리는 모든 것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며, 자신의 마음, 몸, 지성, 영혼을 가장 큰 자본인 인생의 한정된 시간이라는 헛되고 하찮은 노력에 소비되는 것에서 해방시킵니다. 세속적인 삶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면의 평화, 고요함, 자기 자신과의 평화, 그리고 모든 인간과의 평화를 촉진합니다. 한 *수피*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과 세속 삶을 위대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우주 속의 단지 원자일 뿐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세속적인 삶을 작게 생각하면, 세상은 우주의 원자이고, 나는 이 우주의 주인임을 알게 됩니다!" 이 분리는 해방의 힘으로, 내면과 외부 모두에 평화를 불어넣는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이끕니다. 인색함 대신 나누는 법, 무지함보다는 배려, 이기심 대신 이타심을 배우게 됩니다. 가잘리는 세속적인 삶에 집착하는 이유, 그로 인한

해악, 그리고 마음, 몸, 지성, 영혼을 해방시켜 더 높은 의식을 추구하는 이 병의 치료법을 설명합니다. 가잘리의 대*작 『이히야 알울룸 앗딘』* 또는 '하나님의 길에 대한 지식의 부흥' 3권 또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여섯 번째 책은 이 문제를 다루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가잘리의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되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12]:

세속성은 하나님의 적수이자, 하나님의 친구들과도 적대적이며, 하나님의 부정자와 반대자들과도 적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즉, 모든 인간)이 올바른 인도의 길을 걷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수입니다. 이 신은 친구이자 신의 가까운 사람들(영지주의자와 성인들)의 적수로, 그들 앞에 나타나 생명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어 그들을 속임수의 그물에 빠뜨린다. 그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쓴 인내심을 삼켜야 한다. 하나님의 부정자와 적대적인 자들과의 적대감은 그들을 속임수의 그물에 가두었기 때문이다. 그들을 친구로 만들고, 푸른 초원을 보여주어 그들이 단단히 그 손아귀에 들어오게 하고, 그들이 확신을 갖게 되면 굴욕에 휩싸인다 - 만약 그들이 이 세상에서 굴욕을 피할 수 있다면, 그들은 내세의 굴욕과 수치를 없앨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승리를 빼앗기고, 그 이별의 고통에 괴로워할 것이다; 그들이 내세의 고통을 겪게 될 때, 그들은 유감스러운 도움의 외침을 외치지만, 이 책에서 '세상'은 '세상'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집착이나 세속적 집착을 의미하며, 이는 이후 논의를 위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가 그들을 구해주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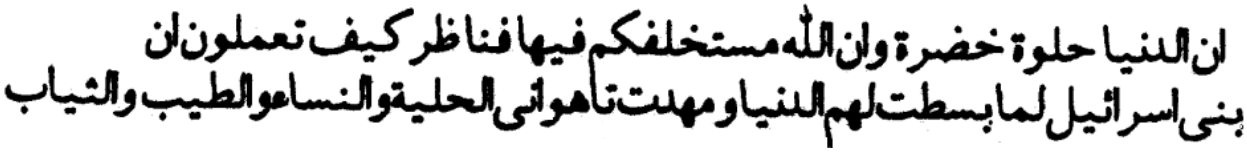
세상(세속적 집착)의 악과 고난이 이토록 심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친구도, 하나님의 친구(영지주의자, 성인, 하나님의 친밀한 자들)의 친구도 아니라면, 더 혼란스러운 것은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적들과도 친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때는 그 현실을 인식하고 창조를 위한 [신성한] 지혜를 찾아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비록 창조주와 창조물의 적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 악이 어떻게 속이고 악을 퍼뜨리는 방법(불안, 혼란, 혼란)을 사용하는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의 진입구를 인지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안에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장들에서는 먼저 세속적 행위의 해악을 신성한 구절, 예언적 서사, 전통에서 설명하고 그 현실성을 예시를 통해 명확히 합니다. 이어서 세속적 행위에 관여하면 왜 신성한 기억을 무시하고 무관심해지는지에 대한 세부 설명과 세속적 집착의 치유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꾸란은 수많은 곳에서 세속성을 비난했으며, 청중은 이를 피하고 대신 자비로운 주님께 향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평화가 있기를, 예언자들을 보내는 목적은 하나님의 종들(백성)이 세속적인 집착을 하지 못하게 하여 내세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حب الدنيا راس كل خطيئة

"세상에 대한 사랑(세속적 집착과 얽힘)은 모든 죄의 근원이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컬렉션 *이븐 아비 알-둔야* 그리고 *바이하키*)


ان الدنيا حلوة خضرة وان الله مستخلفكم فيها فناظر كيف تعملون ان
بني اسرائيل لما بسطت لهم الدنيا ومهدت تاهوائى الحلية والنساء والطيب والثياب

"세상은 달콤하고 푸르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안에서 대리인으로 만들어 네가 [여기서] 어떤 행동과 행위를 하는지 보게 하신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세상이 확장되었을 때, 그들은 보석, 여성, 향수, 옷에 놀랐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는 아부 사이드 알-쿠드리(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의 권위에 따라 티르미디*와* 이븐 마자를 *모았* 다. 그 이야기 에는 하산의 권위로 *이븐 아비 알-둔야*가 전한 이스라엘 자손 부분이 없었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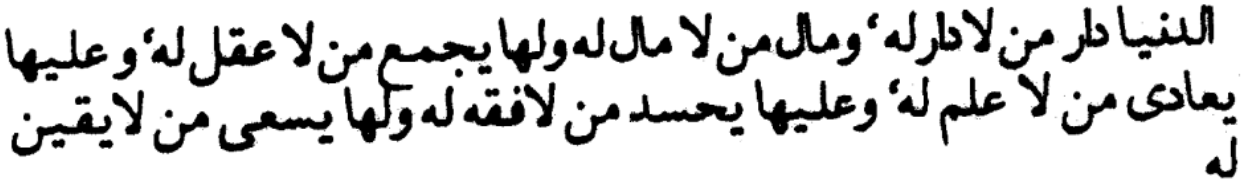
예수님(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주인으로 삼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그 종으로 삼으리라. 보물을 낭비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줄 사람에게 신탁으로 보관하세요. 세속적인 보물을 가진 자는 항상 도둑질을 두려워한다. 보물을 하나님과 함께 가진 자는 어떤 두려움도 없으니 말이다." 한 번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오, 제자들이여! 나는 너를 위해 세상을 뒤집었다. 내 뒤에서 주워 넣지 마. 인간은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악들 속에서 비롯된다. 다만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내세를 얻지 못한다. 내세를 원한다면, 세상이 단지 통로일 뿐인 것처럼 살고 그 안에 거주하지 말고, 모든 죄의 뿌리는 세상의 사랑임을 아세요. 때로는 욕망의 순간이 오랜 시간 슬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수(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찾는 자이자 동시에 구하는 자이다. 내세를 찾는 자는 세상이 그들의 영양분을 완전히 얻기 위해 찾는다 [하나님께서 이미 신성한 명령으로 각 개인에게 분배하신 것]. 세상을 찾는 자는 저승에 의해 쫓겨나다가 죽고 그 목을 타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예언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예언자가 그의 군대와 함께 한 예배자를 방문했다는 전통에 따라 전해졌습니다. 그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진과* 인간이 줄지어 서 있었고, 새들은 위에서 그를 가리고 있었다. 예배자는 말했다: "오 다윗의 아들이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지배권을 주셨다." 예언자 솔로몬(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은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의 행동에서 받은 신성한 기억의 묵주 한 통은 다윗의 아들에게 주어진 온 세상보다 더 낫다. 그것은 다윗의 아들이 가진 것이 끝나고, 신성한 기억이 [영원히] 지속될 때입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الهاكم التكاثر يقول ابن آدم مالى مالى وهل لک من مالک الا ما اكلت
فافنيت اولبست فابليت او تصدقت فابقي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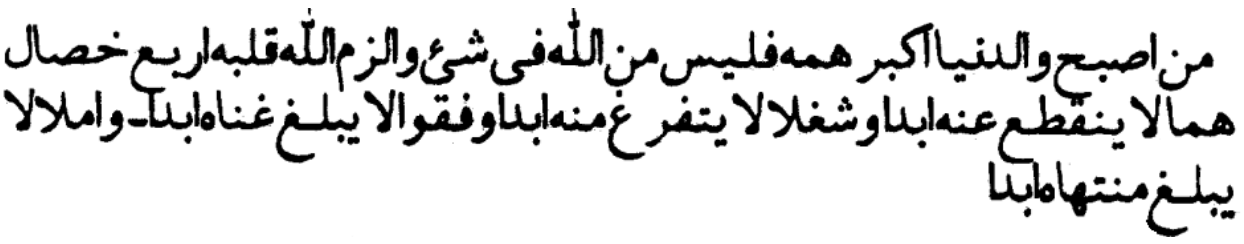
"과잉의 탐욕이 너를 [하나님]의 무관심과 무관심 속에 두었다. 아담의 아들(인간)이 말하길, '내 재산이야! 내 재산이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당신에게 속한 것은 당신이 먹었거나 착용해 늙게 만들었거나 자선으로 나눠준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보존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압둘라 이븐 알-샤키르의 권위에 따라* 무슬림 사히흐 *하디스* 모음 집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الدنيا دار من لا دار له، ومال من لا مال له ولها يجمع من لا عقل له، وعليها يعادي من لا علم له، وعليها يحسد من لا فقه له ولها يسعى من لا يقين ل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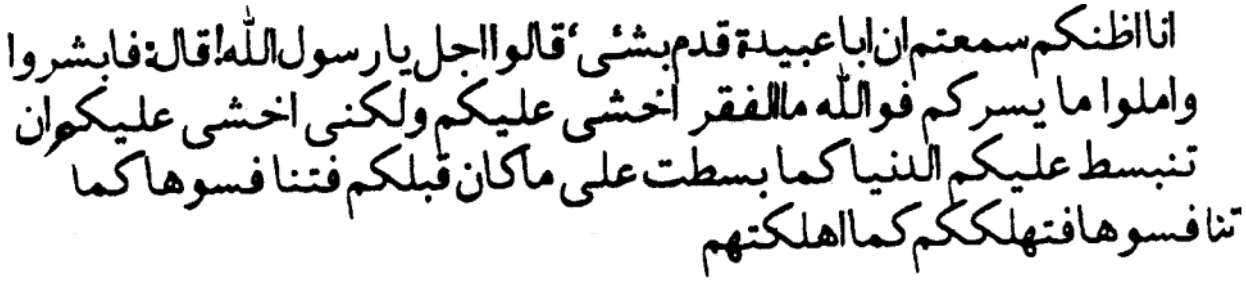
"세상은 집이 없는 자의 집이다; 영적 탁월함에서 소유하지 못한 자의 물질적 소유. 세상을 축적하는 자는 지성이 없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두고 싸우며(논쟁), 지성을 갖지 못한 자와 질투를 하며, 확신이 없기에 지성을 추구하는 자이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아이샤의 권위에 따른 *무스나드 아흐메드* 하디스 *모음*집 [신께서 그녀를 기뻐하시길])

예언적인 내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من اصبح والدنيا اكبر همه فليس من الله في شيء والزم الله قلبه اربع خصال هما لا ينقطع عنه ابدا وشغلا لا يتفرغ منه ابدا وفقرا لا يبلغ غناه ابدا وأملا لا يبلغ منتهاه ابدا

"세상(세속적 물질적 야망과 목표)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는 [내면] 상태인 사람은 경건함이 결여되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네 가지 특성을 요구하신다: 결코 분리되지 않는 슬픔, 휴식을 허락하지 않는 끊임없는 세속적 활동, 부에 도달하지 못하는 가난(충분히 갖지 못한다는 감각)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긴 희망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에는 아부 다르(Abu Dharr)의 권위에* 따른 타바라니 아우사트(Tabarani Awsat)와 *아나스 빈 말릭(Anas bin Malik)의 권위에* 따른 이븐 아비 알-둔야(Ibn Abi al-Dunya)가 모여 있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길])

마리아의 아들 예수(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있기를)는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죽음에 대해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임수에 속아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고 죽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세상은 사람을 굴욕스럽게 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두려움 없이 그것을 의지한다; 큰 불행은 속은 이들, 세상이 그들이 보기 싫어하는 것을 보여주고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떼어놓는 자들에게 찾아온다. 후회는 세상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 그들의 행동이 죄이며, 그들의 죄 때문에 얼마나 굴욕을 당할 것인지에 해당한다." 신성한 계시가 예언자 모세에게 전해졌습니다(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오 모세여! 당신은 억압자들의 거처(세계)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 집은 분명히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당신의 생각과 상상력의 중심(중심)으로 삼지 마세요. 마음을 떼어내고, 그곳이 당신의 집이라는 지성에서 거리를 두세요. 하지만 누군가 이 집에서 의롭게 행동한다면, 그런 집은 좋은 집이 될 것입니다. 나는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 복수할 때까지 [항상 주시한다"고 말했다. 예언자 전통에 따르면,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가 아부 우바이다 이븐 알자라(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를 바레인으로 세금 징수를 위해 여행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당시 널리 사용되던 금화와 은화 형태의 돈도 가지고 왔다. 안사리 동료들(메디나와 그 인근의 원주민)은 아부 우바이다 이븐 알자라(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의 귀환과 그가 약간의 돈을 가져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모두 평소처럼 예언자와 함께 이른 아침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그의 길을 막았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는 그들을 보고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انا اظنكم سمعتم ان ابا عبيدة قدم بشئ قالوا اجل يا رسول الله! قال: فابشروا
واملوا ما يسركم فوالله ما الفقر اخشى عليكم ولكنى اخشى عليكم ان
تنبسط عليكم الدنيا كما بسطت على من كان قبلكم فتنافسوها كما
تنافسوها فتهلككم كما اهلكتهم

"아부 우바이다가 뭔가를 가져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야." 동료들은 "예, 하나님의 사도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없애주셨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맙소사! 나는 당신이 빈곤해지는 것이 두렵지 않지만, 그 세상이 [당신이 부유하고 부유해진다는 점에서] 이전의 사람들처럼 확장되어 서로 경쟁하기 시작해 [세속적 이익을 놓고] 세상(세속적)이 그들을 파괴했던 것처럼 당신을 파괴할까 두렵습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암르 바드리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를 *모은 사*히흐 부카리*와* 사히흐 무슬림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예수님(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의 파도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세상도 바다의 파도와 같으니, 그것을 당신의 거처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동료들 중 일부(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는 그에게 행동한 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조언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부 다르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لو تعلمون ما اعلم لضحكتم قليلا ولبكيتم كثيرا ولهانت عليكم الدنيا ولاثرتم الاخرة

"내가 아는 것을 네가 안다면, 너는 덜 웃고 더 많이 울 것이고, 세상은 너에게 작아져 너는 저승을 더 좋아할 거야."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집 *티르미디*와 *이븐 마자*)

그 후 아부 다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 세속을 포기한 예언자 동료)은 스스로 덧붙였다: "내가 아는 것을 알았다면, 너는 울고 울면서 산으로 떠나고 모든 재산과 재산을 버리고 도망쳐 극도의 필요 없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세는 너희 마음에서 사라졌고, 세속 재산과 재산에 대한 탐욕은 항상 너희 마음속에 남아 있다.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의로운 행위]는 세상을 위한 것이며,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과 같아졌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악을 저지르기 전에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가축보다 더

나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딘)의 길에서 형제애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사랑이나 진실성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내면의 악이 목표에 차이를 만들었고, 길이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모두가 의로움에 동의했다면, 서로 사랑했을 것입니다. 세속적인 일에서는 서로에게 진실하지만 내세와 관련된 일에서는 진실하지 않은 일이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세와 관련된 일에 대해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앙의 약함을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세상의 확신처럼 내세의 선과 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모든 일에서 선을 위해 싸웠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까운 것(세속 생명)을 먼 것(내세의 삶)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세상은 눈앞에 있고 내세는 당신의 눈에서 숨겨져 있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것은 사랑받고 없는 것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을 위해 세속적인 것들을 떠난다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 열심히 일하고 눈앞에 없는 일들도 있지만, 그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의 빛이 있다. 그들을 위해 여러 종류의 고난과 걱정을 감당한다. 여러분은 믿음의 완전함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가 가져온 신성한 법에 대해 의심이 든다면,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킬 [영적] 현실을 보여주겠습니다. 맹세코, 당신들은 잘못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에 우리는 당신들을 [옳고 그름을 구별할 도덕적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일에서는 당신의 의견이 확고하고, 세상의 작은 부분을 알면 행복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잃어버릴 때, 당신의 슬픔 상태는 볼 가치가 있습니다 - 당신의 얼굴은 마음의 반영이 되고, 당신의 혀는 마음속 마음을 표현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중에는 종교(*신*앙, 신으로 가는 길)와 작별을 고한 이들이 많 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후회하지도 않고 얼굴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상한 둔감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불쾌해하신 것 같아. 서로 만날 때,

무례하면 상대방도 똑같이 대할까 봐 두려워서 억지로 행복을 표현하려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죽음(삶의 끝)을 잊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로부터 편안함을 주시길(나를 너와 분리시키게 하소서), 대신 내가 간절히 원하는 만남을 가진 이들(즉,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 그의 고귀한 동료들, 그리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진실한 하나님을 찾는 이들과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만약 그들이 지금 살아 있었다면, 당신에게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선한 면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이루고 싶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세상에 만족하라, 네 종교의 안전에 안주하라. 마치 세상의 사람들이 작은 종교와 세상의 안전을 다루는 것과 같다." 알리(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말했다: "내면에 여섯 가지 자질을 심어주고, 천국에 도달함으로써 나타나는 신의 수용을 얻고, [지옥으로 나타나는 신의 반대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 자: 첫 번째 자질은 하나님을 인정한 후에 그분을 순종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탄을 인식한 후 불순종한 것, 셋째는 진리를 인식한 후 따랐다는 것, 넷째는 거짓을 인식한 후 거짓을 피한 것, 다섯째는 세속성을 인식한 후 거부한 것, 여섯째는 그것을 인식한 후 내세를 찾았다는 것이다." 루크만(그에게 평화가 있기를, 예언자 다윗 시대의 현자였다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현명한 자가 아들에게 꾸짖으며 말했다: "오 아들아!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익사한 깊은 바다와 같다; 신의 두려움의 배를 타고 그 길을 여행하며, 믿음을 여행의 동반자로 삼고, 신을 돛으로 신뢰하라. 아마도 이렇게 하면 익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네 생존의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아부 술레이만 알-다라니(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찾는 자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 얻지 못하며, 사랑으로 내세를 찾는 자는 자신의 의도와 욕망 이상을 얻는다 - 끝도 한계도 없다." 압둘라 빈 마수드(신께서 그를 기쁘시길)는 말했다:

"모든 인간은 손님이며, 자신이 가진 모든 물질적 소유와 부는 신탁이다; 손님은 떠나고, 신탁은 [진정한] 주인[이 땅과 그 너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상속자이신 하나님]에게 돌아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브라힘 빈 아드함(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구절로 답했다:

نرقع دنيانا بتمزيق ديننا فلا ديننا يبقى ولا ما نرقع
فيا طوبى لعبد اثر الله ربه وجاد بدنياه لما يتوقع

"우리는 세상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가는 길(*딘* 또는 신앙)을 파괴하지만, 길(신앙)도 세상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기쁜 소식은 주님께 가는 길을 택하고 기대되는 것(내세의 신의 보상)을 위해 세속 생명을 희생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것입니다."

압둘라 빈 압바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말했다: "신은 세상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 한 부분은 믿는 자를 위한, 한 부분은 위선자를 위한, 또 다른 부분은 불신자를 위한 것이다.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내세의 길에 대한 의지(공급)를 얻고, 위선자는 이 세상의 외적 장식에 주의를 집중하며, 불신자는 물질적 성취, 권력, 명예, 부의 측면에서 세속적 성공을 이룬다."

하산 알-바스리(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는 [칼리프] 우마르 빈 압둘 아지즈(신의 자비가 있기를)에게 편지를 썼다. "세상은 [영원으로] 여정의 목적지이며,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다. 아담(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은 벌로 세상에 보내졌으니, 그러니 그 속임수와 함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 오, 신자들의 지휘관이여! 그것을 버리는 것(즉, 세속적 함정과 그 모든 덫)은 내세의 공급이며, 그 안에서 적은 것으로 살며 불필요한 욕구를 버리는 것이 바로 개인에게 진정한 부치입니다. 항상 매 순간을 망쳐버려요.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은 굴욕을 당한다. 그것을 축적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의존하게 됩니다. 마치 무의식적으로 먹히는 독과 같아 죽음의 품에 이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라. 즉, 부주의가 질병의 심각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치료 중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와 예방을 고수해야 합니다. 환자는 질병의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 약물의 쓴맛과 강렬함을 견디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영원하지 않고, 불충실하며, 교활하고, 속임수에 찬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세요. 그 장식에는 속임수를 숨겨 있었다. 그 아름다움의 그물에 사람들을 가두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며, 그 연인들은 그 혼란과 고난 속에서 쫓겨나 의식을 잃고 완전히 그 안에 속하게 되고, 자신의 최후를 신경 쓰지 않는다. 마치 신부의 아름다움이 시선을 눈부시게 하고, 마음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며, 한 번이라도 보는 것에 당황하지만, 연인들에게 최종 결말을 전하는 전령이다. 그 가까움을 찾는 자는 파괴가 자신의 운명이 된다. 슬프게 도! 이제 사람들은 과거에서도, 현재에서도 교훈을 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들도 세상과 관련된 어떤 조언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어느 정도 그 일부를 얻으면 자부심을 느끼고, 신의 명령에 반항하며, 내세를 잊고 너무 몰입해 실수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의식을 되찾으면 부끄러움과 후회가 마음을 끌어당기지만, 이때는 임박한 죽음의 시간이다 - 한편으로는 죽음의 강렬함에 직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치심과 후회의 고통을 견뎌야 한다. 세상에 기울어진 개인(세속적)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거나 고난에서 자신을 위로할 수 없으며(*나프스*), 아무런 준비나 준비 없이 [최후의 고향]에 도착한다. 오, 신자들의 지휘관이여! 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 점점 더 행복해질 때는 더욱 조심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느 정도 행복에 만족하면 그들을 고난에 휩싸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게 머무르는 사람은 속는다. 오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내일은 상실을 견뎌야 한다. 세속적 삶의 광범위함은 멸종으로 끝나면 고통과 생존의 전조이다. 그 모든 행복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그곳에서 멀리 가는 자는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안에 사는 사람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기다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인간은 여기서 살아가면서 두 가지 위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이 사라질 위험이고, 두 번째는 고난이라는 위험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의 [해로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본보기로 현실을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사람이 마주한 상황은] 부주의한 사람을 잠에서 깨우기에 충분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도움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을 꾸짖는 이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언자 무함마드(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세계 보물의 열쇠를 받았다; 만약 그가 그들을 받아들였다면 그의 계급은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는 여전히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전통은 하산 알-바스리가 쓴 이 편지와 답장으로 전해졌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자비로 여기시길) *이븐 아비 알둔야*)

세상의 해악에 빠져든 후 보호하기

세속적 해악에 빠져든 후 그 해악을 막는 것은 어렵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 무함마드 예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انما مثل صاحب الدنيا كالماشي في الماء هل يستطيع الذي يمشي في الماء ان لا تبتل قدماه

"이 세상의 사람의 닮음은 물 위를 걷는 사람과 같다. 물 속을 걷는 사람이 발에 젖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는 아나스의 권위에 따라 이븐 아비 알-둔야*와* 바이하키를 *모* 았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이 예언적 전통의 빛 아래에서, "우리 몸은 세속적 쾌락에만 빠져들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우리 마음은 몸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의 무지가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러한 쾌락에서 멀어지면 그것과의 분리에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즐거움들이 그들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이 슬픔의 의미는 무엇인가? 물속을 걷는다는 의미가 발이 반드시 젖는다는 뜻처럼, 세속적 쾌락에 빠진다는 의미는 심장이 반드시 영향을 받고, 이러한 [신체적] 쾌락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영향이 반드시 심장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마저도 신성한 예배의 달콤함을 빼앗기게

됩니다. 예수님(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병든 사람이 음식을 즐기지 못하는 것처럼, 세속적인 사람도 [신성한] 예배의 달콤함을 맛보지 못하느니라. 또한 진실로 말씀드리자면, 더 이상 타지 않는 말이 반항적으로 변하고 성격이 나빠지듯,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숭배의 고난으로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그 안에는 단단함과 가혹함이 태어납니다. 또한 용기가 젖음에서 분리되어 말라버릴 때까지는 꿀을 저장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마음은 욕망과 분리되어 탐욕에 오염되고 쾌락으로 단단해지지 않는 한 지혜와 영지로 가득 차 있다."

세상에서의 방탕과 내세의 방치에 관한 비유: 세상 주민들이 내세에 대해 방치하는 비유는, 외딴 섬에 도착하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과 배의 선장이 그들에게 내릴 것을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그곳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오래 머무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서두르지 않으면 배가 목적지로 항해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는다. 이제 사람들은 섬에 내려 흩어집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필요를 충족하자마자 바로 배로 돌아와 넓고 적합하며 매력적인 자리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섬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경치, 매력적인 꽃들, 웅장한 정원, 새들의 아름다운 노래, 섬에 속한 보석과 광물에 매료됩니다. 하지만 배가 떠날까 두려워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 마지못해 그들은 배로 돌아오지만, 이미 좋은 자리가 차지되어 좁은 곳을 발견해 어쩔 수 없이 차지해야 한다. 몇몇 사람들은 돌아왔고; 하지만 섬에서 얻은 보석과 아름다운 꽃, 맛있는 과일을 너무 좋아해서 그것 없이는 돌아갈 수 없었다. 그들은 이 중 일부를 모아 함께 가져왔습니다. 우주선 내 공간은 이미 좁았고, 그들이 가져온 물건들은 수용할 수 없었다. 그들은 모은 물건들을 머리에 얹고 우주선 내 남은 좁은 자리에 앉아야 했다. 그들은 불필요하게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는 사실에 마음속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승객들 중 일부는 눈이 부시고 마음이 섬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풍경과 과거의 보석들에 매료되어 배를 완전히 잊고 섬 깊숙이 들어가 선장의 목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과일을 먹고, 꽃 향기를 맡으며, 무성한 정원을 둘러보는 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선장의 목소리가 들렸더라도 들을 수 없었고, 들었다 해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사나운 짐승들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섬에는 시련과 걱정,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았다. 가시가 옷을 찢고, 나무가 몸을 다치게 하며, 공포와 끔찍한 소리가 마음을 떨게 했고, 만약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생각에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그들은 배 안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급히 음식과 보석을 싣고 배로 향했지만, 그때쯤 배는 닻을 올리고 배에서 내려 항해를 시작했다. 이 사람들은 해안가에 실망하고 낙담한 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들 중 일부는 선장의 부름조차 듣지 못했고, 일부는 짐승들의 먹이가 되었고, 일부는 걱정과 혼란 속에 방황하며 죽었다. 어떤 이는 늪에 빠져 목숨을 잃었고, 어떤 이는 뱀에게 물렸습니다.

이제 배 승객들의 상태를 들어보세요. 섬에 모은 물건을 들고 배에 탔던 몇몇은 계속 머리에 짐을 얹고 앉아 있었다. 배 안에는 앉을 공간도 부족했고, 게다가 불필요한 물건을 놓을 공간은 더더욱 부족했다. 여정은 길었다. 그들이 수집한 것들의 최종 결과는 꽃이 시들고, 열매가 썩고, 보석이 색이 변하고, 뇌가 악취로 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안전하게 가져갈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자 모든 것을 바다에 던졌지만, 악취가 너무 심해 집에 돌아가기가 어려워졌다. 그들이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배에 늦게 탑승한 사람들은 공간이 부족해 약간 걱정했지만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 제시간에 배에 도착해 편안한 자리를 찾고, 여행 내내 평화롭게 지내며 무사히 집에 도착한 이들은 이것은 일시적인 쾌락에 빠져 자신의 초점과 삶의 목적, 그리고 천국의 기원(진정이자 최종 목적지)을 얼마나 잊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예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최종 결말을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가올 일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부와 물질적 재산을 모은 후 자신이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나쁜 일인가? 그들은 그것들이 세속적인 장식품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을 때는 그 어떤 것도 함께 있지 않으며, 오히려 고통과 고난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죽음 전, 그들로 인한 고난은 결코 덜하지 않으며, 그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그 부족에 대한 슬픔에 끊임없이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피난처와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마음이 울게 만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는 동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너희, 그리고 세상에 대한 비유는 사막을 여행하는 어떤 사람들의 비유입니다. 그들은 너무 많이 걸어서 자신이 이동한 거리가 [남은 거리]보다 더 길은지, 아니면 더 많은 거리인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을 위한 준비]는 모두 끝났고, 용기도 사라졌다. 식량도 없고 말도 못 한 채, 그들은 황량한 사막에 머물렀고,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갑자기, 그들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멋진 옷차림의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 남자가 비옥한 지역 출신이라 생각했고, 그곳이 확실히 그들과 가까울 거라고 생각했다.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의 상태를 물었다. 그들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막 도착한 남자가 말했다: '내가 너를 달콤한 물과 무성한 정원으로 데려간다면, 뭘 하겠니?' 그들은 '우리는 당신들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하나님께 맹세하여 약속을 굳건히 하라(네가 말한 대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맹세하며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약속대로 그는 그들을 달콤한 물샘과 푸른 정원으로 데려가 며칠간 함께 지냈다. 그 후 그는 '여행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죠?'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물보다 더 달콤한 물과 이 정원보다 더 푸른 정원을 향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아마도 다른 곳에서는 그 이상을 찾기 어려울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편안한 삶도 아마도 그 이상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제 네 약속을 지켜라, 그가 첫 번째 약속을 지켰듯이, 그는 다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그와 함께 떠났고, 나머지는 남아 뒤처졌다. 아침에

적군이 매복 공격을 감행해 일부는 죽였고, 일부는 포로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는 압둘라 빈 아바스의 권위에 따라 *이븐 아비 알둔야, 아흐메드, 바자즈, 타바라니* 를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انما مثلی و مثلکم و مثل الدنیا کمثل قوم سلکوا مغازة غبراء حتّٰی اذا لم یدروا ماسلکوا منها اکثر اوما بقی انفدوا الزاد و خسروا الظهر و بقوا بین ظهرا فی المفازة ولا زاد و لا حولة فایقنوا بالهلکة فبینما هم کذلک اذ خرج علیهم رجل فی حل تقطر راسه فقالوا هذا قریب عهد بریف فلما انتهی الیهم قال: یا هؤلاء فقالوا: یا هذا فقال: علام انتم فقالوا علی ماتری فقال! ادائیتم ان هدیتکم الی ماء رواء و ریاض خضر ما تعملون' قالوا لا نعصیک شیئا' قال: عهودکم و مواثیقکم باللّٰه فاعطوه عهودهم و مواثیقهم باللّٰه لا یعصونه شیئا' قال: فاوردهم ماء رواء و ریاضا خضرا فمکث فیهم ماشاء اللّٰه' ثم قال: یا هولاء قالوا! یا هذا قال الرحیل' قالوا! والی این؟ قال الی ماء لیس کمائکم والی ریاض لیست کریاضکم فقال اکثرهم واللّٰه ماوجدنا هذا حتّٰی ظننا انا لن نجده وما نضع بعیش خیر من هنا وقالت طائف وهم اقلهم الم تعطوا هذا الرجل عهودکم و مواثیقکم باللّٰه ان لا تعصوه شیئا وقد صدقکم فی اول حدیثه فو اللّٰه لیصدقنکم فی آخره فراح فیمن اتبعه و تخلف بقیتهم فبدرهم عدو فاصبحوا بین اسیر و قتیل

이 예언적 전통은 두 집단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신의 명령에 따르는 자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에 반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바로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입니다. 세상은 캐러밴 사람들이 긴 여정 끝에 지쳐 누워 있는 황량한 사막이며, 그 달콤한 샘과 무성한 정원은 내세의 샘과 정원입니다.

세속적 쾌락과 추구에 빠져드는 비유, 그리고 그것들과의 이별의 고통: 세속적 부와 소유물을 가진 사람들의 비유는 집을 짓고 풍성하게 꾸민 뒤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오고 있어. 집에 들어서면 주인은 꽃과 향수가 담긴 금쟁반을 손님에게 건네주어 손님이 향기를 맡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다음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을 위해 접시를 남겨둡니다. 하지만 손님이 주최자가 접시를 손님에게

선물했고 손님이 그 손님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여 접시와 향수에 마음을 붙이게 된다면, 접시가 손님에게서 빼앗기면, 손님은 꽃과 향수가 단지 즐기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소유자가 되기 위해 제시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손님의 고통과 슬픔, 절망은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실수는 손님이 주최자의 예절과 전통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와는 달리, 다른 손님이 들어와 주최 전통과 예절을 잘 알고 접시를 가져가 잠시 즐기며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쾌활하고 열린 마음으로 접시를 돌려주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대의 세계관을 아는 이들의 상태입니다. 이 세상은 여행자들에게 헌정된 게스트하우스이며, 여행자들이 잠시 머물며 다음 목적지를 위한 식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 여행자가 게스트하우스(또는 모텔)를 이용하듯, 그들도 세상으로부터 혜택을 받고(즉, 이 세계라는 게스트하우스를 영원한 거처로 여기지 않으며, 마음이 너무 깊이 얽혀 있어서 이별의 시간이 오면, [그것과 헤어지고, 작별하고] 떠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그 고통과 해악의 본보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인간에게 존재하는 세상의 현실과 본질

세상의 어떤 측면이 해로운지, 어떤 측면을 피해야 하고 어떤 측면을 피해야 하는지 알기 전까지는 세속적 해악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그것(세상의 해로운 측면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의 적이자 진리로 가는 길을 도둑으로 삼는 자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상과 내세는 당신의 마음의 두 상태, 가까운 상태와 멀리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상태, 즉 죽음 전의 상태는 세상이라 불리며, 두 번째 상태, 즉 죽음 이후의 상태는 '이후'라고 불립니다. 이로부터 죽음 이전에 인간의 욕구, 욕망, 쾌락과 관련된 것들이 하나의 세계이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내 세에도 남을 것들을 포함하며, 그 열매는 죽음 후에 드러나며, 지식과 [선하고 경건하며 의로운 행위]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하나님의 존재, 속성(특성)과 행동, 천사, 신성하게 계시된 책들, [신성하게] 정한 예언자, 하늘과 땅의

지배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위는 순전히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위해 행하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학자가 어떤 지식에 너무 집착하게 되어 그것이 가장 사랑받고 즐거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쾌락을 더 우선시하지 않는다. 먹고, 마시고, 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이 지식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지식에서 느끼는 기쁨이 그 [다른] 것들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받아야 할 세속성을 언급할 때는 그것을 세속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오히려 내세의 것들 중 하나로 간주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자는 예배에 너무 집착하고 큰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만약 예배를 중단당한다면 아마도 그것이 가장 가혹한 벌이 될 것입니다. 한 현자는 이렇게 간청하곤 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 무덤 안에서도 기도하고 절하며 엎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그는 기도가 자발적인 [내면의 영적] 기쁨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간구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쾌락은 세속적 쾌락(이세계적 쾌락과 함께)으로도 간주될 수 있지만, 비난받을 만한 세속적 쾌락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한 유명한 예언적 서술 [*하디스* 모음집 *나사이* 와 *하킴*에 관한 아나스의 권위(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에서]에서,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세 가지 중 하나로 기도를 세었습니다. 기쁨은 느낄 수 있고 관찰할 수 있으며, 기도도 감각적이고 관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절과 절의 동작을 통해 얻는 기쁨도 세속적인 쾌락이지만, 비난받을 세속적 행위는 아니므로 우리는 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형: 저 승에서 이익이나 결과가 없는 완전히 반대되는 취향과 쾌락을 포함하며, 예를 들어 죄에서 쾌락을 얻거나, 낭비와 오만의 범주에 속하는 필요 이상으로 허용되는 것을 즐기는 것. 예를 들어, 금과 은 더미, 말(자부심의 상징인 이동 수단), 가축, 하인, 궁전, 값비싼 옷, 맛있는 음식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것을 즐기는 것은 비난받을 세속적인 존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 순수하게 세속적이거나 내세에 속하지 않는 즐거움을 포함합니다. 대신, 필요에 따른 음식, 필요에 따른 의복 등 내세와 관련된 행위를 돕고, 이는 인간이 생존이나 건강을 위해 얻는 모든 즐거움을 포함합니다. 이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그에 따른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승리를 이루는 데 필요한 지식과 행위를 달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러한 쾌락은 첫 번째 유형과는 다르지만, 첫 번째 유형을 돕고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가 지식과 [선한 의인] 행위를 이어가기 위해 먹는다면, 이 [먹는 행위]는 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며 세속적인 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하지만 식사의 동기가 일시적인 쾌락(요리의 쾌락에서)이라면, 이 쾌락은 세속적인 쾌락이 되어 두 번째 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인간과 함께 남는 것들: 죽음 이후, 하나님의 종에게 남는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 세속적 얽힘과 집착으로 인해 영적 영역으로 날아오르지 못하게 한 오염에서 깨끗해진 마음, 신성한 기억에 대한 애착과 사랑, 그리고 마음의 정화와 맑음. [모두] 이 모든 것은 신성한 기억과 인내의 풍요로움을 통해 이루어지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영지(Gnosis)를 통해, 영지(Gnosis)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 특성 모두가 죽음 이후에 인간이 구원받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수단입니다.

세속적 욕망에서 마음을 정화하는 것은 신의 응징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되기 때문에 구원적입니다. 하나님과의 집착과 신성한 사랑은 영원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은 신성한 환상과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의 기쁨을 주며, 이 큰 행운은 죽음 직후에 이루어지며, 이 상태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얻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무덤은 아름다운 낙원의 정원이 되며, 무덤의 거주자가 단 한 명의 사랑하는 사람(즉,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면 왜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사랑받는 이를 만날 수 없었을 텐데,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그 장애물을 제거했고, 이 세상의 감옥에서 해방되었어요 - 사랑받는 이와 자신 사이에 있던 장애물이었던 벽이 제거되었죠. 이제 모든 위험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한 채 기꺼이 저승에 발을 들일 것이다. 세상을 찾는 자는 무덤에서 벌을 받으며, 왜 그럴 수 없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하나의 [대상]이었고, 그것이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이가 빼앗기고, 무덤의 벽은 사랑하는 사람(즉, 세상) 사이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멸종이나 인간 존재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죽음은 사랑하는 것과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 사이에 분리를 일으키며, 신성한 법정에 인도된다. 이로부터 내세의 길을 걷는 여행자는 신성한 기억과 관조에 끊임없이 몰두하며, 세속적 욕망과 욕망을 없애는 행위를 철저히 지키며, 이를 포기하는 것은 건강 없이는 불가능하며, 건강은 음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복과 거주지(거주지)를 갖추었다. 이 모든 것을 달성하는 것은 [세속적인] 수단(예: 무역이나 고용)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옷, 음식, 거처를 얻는 자는 세속적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며, 오히려 그런 이에게 세상은 내세의 농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하하] 자아(*나프스*)의 쾌락이나 방탕함을 위해 이룬다면, 그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 세속적 쾌락에 관심 있는 자 중 하나로 간주될 것이다.

세속적 쾌락의 방탕한 종류: 세속적 쾌락의 사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탐닉자가 신의 징벌의 대상이 되는데, 이를 신성하게 금지된 것에 대한 방치(*하람*)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유형의 면죄는 탐닉하는 사람이 높은 성취와 신의 수용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며, 대신 심판의 날에 긴 책임을 지게 합니다. 이 면죄부의 이름은 '허용되는 사안'(*할랄*)입니다. 지혜와 내면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은 오랜 시간 머무르며 장기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신의 응징 형태임을 알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삶에서 욕망이 충족되는 곳이지 욕망이 충족되는 곳이며, 욕망이 충족되는 장소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책임이 없고 낙원에서의 높은 지위가 하락하고, 하층 자아의 덧없고 소멸적이며 낮은 욕망으로 인해 높은 [영적] 지위를 박탈당하는 마음의 슬픔만 있다 해도, 그 자체가 벌과 다름없다.

이 [내세에서]의 상태를 이 세상에서의 당신의 상태에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동시대인들과 동등한 계급의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고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 당신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뒤처질까 봐 마음이 얼마나 걱정되는지 알게 됩니다. 비록 이 세속적 지위와 축복이 일시적임을 알면서도요. 불안과 고난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영속성과 생존을 갖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 축복을 받지 못해 너무 슬프고 슬퍼할 때, 당신의 동시대인들이 내세에서 당신을 앞서고, 당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을 빼앗긴다면 어떤 상태일까요? 내세에서 질문에 답하는 것은 굴욕, 두려움, 위험, 고난, 기다림을 수반하며, 이 모든 일들은 내세의 성취를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마르 빈 알-카타브(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가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자] 차갑고 달콤한 꿀 섞인 물 한 잔이 그에게 바쳐졌다. 그는 한동안 컵을 손에 쥐고 돌리며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다시 진행자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اعزلواعنی حسابها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지 않게 하소서".

결론은 부족함, 풍요, 허용 가능함과 금지 모두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오직 그 정도만이 경건한 경외심과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속적 축복을 멀리하는 것은 자신의 영지(마리파)의 힘에 비례합니다. 예수님(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이 잠들기 위해 땅에 누워 머리를 바위에 얹으셨습니다. 사탄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너희는 세상에 기울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머리를 땅에 올려놓기 위해 쓰던 돌]을 가져와 버렸습니다 [사탄에게 행동으로 세상에서 그만큼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마찬가지로 예언자 솔로몬(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은 땅의 보물과 세속 지배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리빵을 직접 먹으며 훌륭한 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제공하곤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층 자아(*나프스*)를 억누르고 통제했는데, 이는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다채롭고 풍성한] 식사를 얻는 능력이 있어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은 극심한 고난과 영적 노력으로, 평범한 인간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의 뜻에 따라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에게 세속적 축복이 가라앉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는 며칠 연속으로 배고팠습니다. (이 전통은 다음 전통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디스*는 압둘라 빈 압바스의 권위에 따라 *티르미디*와 *이븐 마자를* 모았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때때로 배고픔의 극심함 때문에 그는 배에 돌을 묶곤 했다.

예언자와 친구, 하나님의 가까운 이들(성인들)이 끊임없이 겪는 고난과 시련의 이유는, 그들이 내세에서 최대한의 몫을 가질 것이며, 세속적 쾌락 때문에 그 몫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정한 아버지가 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병에 대해 치료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구두쇠나 냉정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안녕을 위해 아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에 이끌려 그렇게 한다. 이로부터 이제 분명해졌다.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은 세상이 아니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은 세상(또는 세속성)이다.

세상의 현실과 인간이 우주의 창조자이자 자신의 종말을 잊게 만드는 사치들

세상은 인간이 존재하고 즐기며, 그 개선에 참여하는 것들의 이름임을 알아야 한다. 이건 세 가지 문제야. 때로는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세상(세속성)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إِنَّا جَعَلْنَا مَا عَلَى ٱلْأَرْضِ زِينَةً لَّهَا لِنَبْلُوَهُمْ أَيُّهُمْ أَحْسَنُ عَمَلًا

"우리는 선행을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그 장식 때문에 많은 것을 만들었다." (꾸란 18장 7절)

지구는 침대, 거처, 그리고 일시적인 휴식처와 같으며, 그 위에 있는 것은 옷, 음식, 교미를 포함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광물, 식물, 그리고 생명체. 인간은 식물에서 음식과 약을 얻고, 구리와 강철 같은 광물로 도구와 도구를 만들거나, 금과 은화 같은 현금이나 장신구를 만들어 보관합니다. 생명체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 인간과 동물. 고기, 승마, 장식용으로 동물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그들의 봉사에 필요하다 [인간은 모든 것에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에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배우자의 경우처럼 동반자, 혹은 단순히 마음을 자신에게 기울이기 위한 목적, 즉 명성에 대한 욕망이다. 이것들이 바로 '세계'(*두냐*)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한 구절에 다음과 같이 결합하셨습니다:

زُيِّنَ لِلنَّاسِ حُبُّ ٱلشَّهَوَٰتِ مِنَ ٱلنِّسَآءِ وَٱلْبَنِينَ وَٱلْقَنَٰطِيرِ ٱلْمُقَنطَرَةِ مِنَ ٱلذَّهَبِ وَٱلْفِضَّةِ وَٱلْخَيْلِ ٱلْمُسَوَّمَةِ وَٱلْأَنْعَٰمِ وَٱلْحَرْثِ

"사람들은 여성들 사이에서 사랑스러운 물건, 아들들, 금과 은 보물, 표시된 말, 가축, 그리고 경작 [인간이 하는 다양한 직업]을 즐깁니다." (꾸란 3장 14절)

이 구절에서 여성과 아들은 인간을, 금과 은은 광물과 보석을, 말과 가축은 동물을, 경작은 식물을 의미합니다.

종과 세속적인 것과의 관계: 하나님의 종, 즉 인간은 세속적인 것들과의 두 가지 관계 영역을 가집니다. 첫 번째 영역은 마음과 함께하며,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이용하며, 그 성취에 대한 생각을 사로잡아 마음이 그 죄수가 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는 오만함과 같은 세상과 관련된 마음의 모든 [바람직하지 않고 부정적인] 특성들이 들어옵니다. 구색함, 질투, 허세, 명성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나쁜 평가, 불화, 칭찬을 좋아하기, 자랑, 우월감 등 다양한 성격이 있습니다. 이 영역을 내면 세계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영역은 물리적 성격을 가진 외부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 몸을 즐겁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여하고 바쁘게 참여하는 모든 산업과 직업을 포함합니다.

이 두 영역 – 앞서 설명한 사랑의 마음의 영역과 몸의 탐닉의 영역 [다양한 직업과 산업에서]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나프*)와 삶의 목적을 소홀히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자신, 즉 주님을 인식하고 알며, 세상 창조의 비밀과 지혜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이라 부른 것들(인간, 광물, 동물, 식물)이 당신이 타고 있는 탈것의 먹잇감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탈것이 저승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탈것이 바로 당신의 몸이며, 몸은 음식, 물, 옷, 그리고 거주지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낙타가 하*즈*(인류가 혜택을 받기 위해 지상에 세워진 신성한 상징의 집으로의 순례)를 위해 길을 떠날 때 풀, 곡물, 물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난 후 자신의 [나프스]와 삶의 목적을 소홀히 해왔습니다. 마치 순례자가 목적지로 가는 길에 정거장에 멈춰 낙타에게 넉넉히 먹이를 주고, 잘 돌보고, 목욕시키고, 장식하고, 다양한 풀을 모으고, 찬물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캐러밴은 앞으로 나아가고 낙타 포로는 뒤에 남는다. 이 순례자는 낙타를 섬기는 데 너무 바빠서 이 여행의 목적을 깨닫지 못했고, 캐러밴이 한 명을 뒤에 남겨두고 떠난 후 어떻게 여정을 계속할지에 대한 깨달음도 남아 있지 않았으며, 이 공포로 가득한 정글이 자신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남아 있지 않았다. 야생 짐승들은 한 마리도, 낙타도 용서하지 않는다. 지적인 순례자는 오직 자신의 목적만을 염두에 두며, 낙타에게 제공하는 봉사의 양은 낙타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데 필요한 양만큼만 이루어지며,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탈것이 힘이 남아 기수를 최종 목적지까지 데려다줄 수 있을 때만 그 말을 돌보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저승의 길을 걷는 지적인 여행자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필요한 정도만 봉사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화장실에 가지 않는 것처럼, 몸을 불필요하게 섬기지도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음식을 위에 넣는 것과 거기서 빼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신체의 필요입니다. 음식이 불필요하게 몸에서 빼내지 않는 것처럼, 불필요하게 섭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을 하나님과 심판의 날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위입니다. 음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옷과 거주 문제는 위장에 비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열린 하늘 아래서 옷 없이 살 수는 있지만, 배고픔과 목마름은 견딜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알게 되면, 필요한 양만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세속적인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현실과 지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일에 너무 깊이 갇혀 자신의 [진정] 목표를 잊고 오직 자신이 하고 있는 일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속적인 참여에 대한 설명과 사람들이 왜 그것을 필요로 느끼는지, 그리고 그것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인간의 필요: 세속적인 활동에는 사람들이 바쁜 모든 산업과 직업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교류가 많은 이유는 인간이 세 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음식, 옷, 그리고 거처. 음식은 생존을 위한 것이고, 옷은 열과 추위를 막으며, 거처는 열, 추위, 비로부터 보호하고 아내와 자녀, 소지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신, 존귀하신 분은 이 세 가지로부터 어떤 산업이나 직업과도 무관한 무언가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동물의 경우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풀을 먹고 요리할 필요가 없고, 열과 추위가 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옷이나 거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옷은 피부와 머리카락이고, 거처는 정글과 사막이다. 그들은 탁 트인 하늘 아래에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다. 삶의 필수품을 위해 다섯 가지 기본 산업과 직업이 필요하다: 농사, 방목(가축 목재), 사냥, 직조, 건설. 건축은 집을 짓고, 직조와 그에 따른 의류 작업, 방목, 승마용 탈것, 고기 얻기 위한 것, 농사와 식량 경작, 사냥은 사냥(물고기와 동물), 광물, 풀, 나무, 천연 자원 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얻 는 것입니다.

직업 분배: 농부는 작물을 생산하고, 목동은 동물을 보호하고 번식하며, 사냥꾼(또는 천연자원 탐험가이자 채집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얻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산업과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의 산업은 고유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 도구들은 식물(나무)이나 광물(철, 구리 등), 또는 동물의 털로 만들어집니다. 이는 다시 세 가지 산업, 즉 장인정신, 철공, 가죽 세공을 필요로 합니다. 이 모든 직업은 도구 제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기술과 직업이며, [다른 모든 직업들은 이 기본 직업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인간의 창조와 집단 존재: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같은 종족과 함께 집단적 존재를 강요받도록 창조되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 인류의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이는 남녀의 결합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먹고, 마시고, 옷 입히고, 아이를 키우는 등 이런 일들은 타인과의 협력의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아이들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태어나며, 한 사람이 양육부터 음식과 의복 제공까지 모든 책임을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배우자와 자녀만으로 집단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인원이 많아 각자가 다른 직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없는데, 농사에는 철공과 장인 없이는 만들 수 없는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작물로 음식을 준비하려면 곡물을 갈아주는 사람과 빵을 굽을 빵사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도 혼자서 옷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면화를 재배한 후 직조와 바느질 도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구는 너무 많고, 한 사람만으로는 이 모든 도구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은 불가능하며, 집단적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이 집단이 사막이나 탁 트인 하늘 아래 맨땅에 있다면 더위, 추위, 비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도둑과 도둑들에게 괴로워할 것이다. 그래서 집을 짓는 것이 필요해졌고, 모든 가정이 자신의 집을 갖고 안전하게 소지품과 함께 살며, 더위, 추위, 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생계 수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도둑과 도둑들이 견고한 주택에 침입해 거주자를 괴롭히고, 그들의 소유물과 생계 수단을 약탈할 수 있기 때문에, 집 주위에 높은 경계벽을 세워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필요가 도시와 정착지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집과 도시에서 모여 서로 교류할 때, 그로 인해 상호 분쟁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집단적 삶에서 상호 차이도 생겨났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책임이 있고,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는 약하고 부모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책임과 보호는 갈등과 분쟁을 낳지만, 동물에 대한 보호는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억압이 가해져도 동물은 분쟁과 저항의 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성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남편과 다투고 맞서 싸울 것입니다. 아이들은 결국 부모와 다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또는 가족 내)의 상태입니다. 도시 사람들은 상호 거래를 하며, 그 결과 차이와 갈등을 겪게 됩니다. 혼자 남겨지면 서로 싸우며 죽일 것이다. 목동과 농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들이 목초지, 농지, 개울, 우물 같은 공유된 [자연] 자원의 혜택을 누리고 그 자원들로부터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면, 상호 간의 차이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함, 질병, 노령 또는 기타 이유로 농사를 짓거나 산업에서 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력해지면, 그들은 죽거나 파괴될 것입니다. 만약 돌봄 책임이 모두에게 전해진다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누군가에게만 맡긴다면 왜 혼자 그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설득력 있는] 이유와 장애물 때문에 많은 다른 산업들이 탄생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측정 능력이며, 이를 통해 토지의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법 집행이라는 직업은 분쟁이 발생할 때 모든 정당한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탄생했습니다. 이 직업에 능숙한 이들은 무기로 도시를 지키고 도둑과 적으로부터 도시 주민들을 보호합니다. 한 가지 기술은 행정과 거버넌스이며, 이를 통해 도시 주민들 간의 상호 분쟁이 해결됩니다. 그 중 하나는 신성한 법(*Fiqh*)으로, 즉 창조물의 삶에 규율을 심어주고 신의 한계를 익히기 위해 사용되는 신의 명령과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안에 있어 신의 법의 경계 안에 머물며 분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량은 시 행정과 관련이 있으며, 그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식, 분별력, 지도력 등 자질을 갖춘 특정 사람들만이 이러한 기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기술과 직업에 종사한다면,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생계를 유지해야 하고, 도시 주민들은 행정을 위해 그들이 필요하다. 만약 도시의 모든 사람이 전쟁에 휘말린다면, 모든 산업이 중단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군인이 생계를 위해 산업과 직업에 종사한다면, 도시(및 국가)는 [침략군에 대한

방어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게 되고, 주민들의 생명은 항상 위협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개인이 소유하지 않는 공공 자금(공공 자금)에서 이런 사람들의 소득과 생계를 위한 지출이 필요해졌습니다. 도시 주민들은 자원을 지원해 도시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금 필요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금 관련 문제로 인해 많은 다른 필요도 생겨났다. 예를 들어, 농민과 부유한 개인에게 공정하게 세금을 임명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와 함께 징수된 세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세금 징수관과 재무관의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세금 분배 기관도 불가피했다. 이 모든 요구는 자격을 갖춘 인재에게 책임을 위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세금을 징수하고, 공익을 위해 분배하며, 전쟁 시 군인을 동원하고, 방어할 무기를 제공하며, 군대 지도자를 임명하고, 국가 운영을 위해 수많은 인물을 임명하는 정의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공직 임명자들)은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 다른 직업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급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행정 관련 활동]에는 세금과 같은 수단으로 얻을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음식, 옷, 거주지에 대한 필요는 수많은 다른 필요를 낳았다. 이것이 모든 다른 세상의 현상입니다. 한 문이 열리면(인간의 필요와 노력을 위해) 많은 다른 문들이 자동으로 열리며, 이 사건의 연쇄는 마치 세계가 깊이 없는 구덩이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도랑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면, 두 번째 도랑에 빠지고, 거기서 세 번째 도랑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것들은 창조물들의 참여, [다양한] 노력,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의 몇 가지 예시입니다. 사람들은 밤낮으로 이러한 활동에 바쁘게 움직입니다. 모든 사람은 돈을 버는 데 집착하며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활동과 다양한 세속적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감각도, 자신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나 사후 삶에 대한 고찰도 전혀 느끼지 못한다.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위해 투쟁하며 혼란스러워하며 [그 투쟁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잊어버릴 정도]. 세속적인 얽힘이 그들의 약한 지성과 불완전한 마음에 너무 지배적이어서, 심지어 그들의 생각조차 혼란과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세상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유형: 세상에 몰두한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하거나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집단 중 일부는 무심함과 무지의 두꺼운

장막에 가려져 있어, 그들의 눈(통찰)은 마지막 결말을 볼 능력조차 남아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며칠(짧은 기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영양을 얻고, 먹고, 먹으며 힘을 얻어 다시 영양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먹는다. 이것은 수련자, 전문가, 그리고 세속적 안락함이 많지 않고 종교 내에서 지위(많은 수행)가 없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그들은 낮에도 열심히 일해서 밤에 배불리 먹고, 밤에도 먹기 위해 낮에도 열심히 일합니다. 이것은 죽음으로만 끝나는 여정이자 순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것의 목적을 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신성한 법의 목적이 인간에게 [의의]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세속적 쾌락에서 어떤 쾌락도 누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대신 인간의 성취(*사아다*)의 절정은 인간이 위와 성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나프*)도 소홀히 했고, 육체적 쾌락과 맛있는 음식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다른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동물처럼 살기 시작했고, 게다가 욕망(즐거움과 육체적 쾌락)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성한 기억과 내세에 대한 생각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인간 성취(*사아다*)의 진정한 정점이 풍요로운 부와 보물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장거리 여행을 떠나 물질적 재산과 부를 모으느라 밤잠과 평화를 망치고, 모든 고난과 굴욕을 겪어도 부를 위해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벌고 축적하는 데 몰두하며, 최소한의 필요 양 이상을 먹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의 인색함 때문에 아무것도 쓸 수 없어 자본이 줄어들었다. 마치 부의 축적이 그들에게 쾌락의 원천이 되었고, 생의 마지막 숨결까지 그 쾌락에 몰두하다가 죽음이 오고 그 모든 보물이 땅속에 묻히거나(혹은 몰래 보관한 곳) 다른 이들의 손에 들어가 욕망과 쾌락에 빠져 소비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 자신은 고난 외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내세의 결과도 그 위에 있었으며, 그들의 노력으로 혜택을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쾌락을 얻었다. 사람들이 구두쇠와 저장강박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도 여전히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진정한 성취(*사아다*)가 칭찬받아 [많은 명성을 얻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아름다운 옷과 흠잡을 데 없고 우아하며 장식된 외모를 감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밤낮으로 돈을 벌기 위해 바쁘지만, 먹고 마시는 것(음식)에는 제한을 두고 모든 돈을 좋은 옷과 교통수단 구입에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의 문과 외벽에 [아름다운] 페인트를 칠해 눈을 부시게 하여 사람들이 집주인이 얼마나 부유한지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칭찬은 그들의 기쁨이자 취함이며, 그들은 밤낮으로 이 즐거움을 얻으며 힘들게 번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 성취(*사아다*)의 진정한 정점이 명성과 지위를 얻는 데 있다고 생각했으며, 모두가 존경하고 겸손과 경의를 표하며 복종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추종자를 얻기 위해서는 지위(높은 사회적 지위와 권력)와 명성(명성)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들은 정부 내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오르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복종을 얻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런 점은, 사람들의 따르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대부분의 무심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며, 그들의 순종(혹은 어떤 일에서든)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과 예배, 그리고 내세를 상상하는 것을 무지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세속적인 일에 몰두한 사람들] 일부입니다. 그 외에도 70명 이상의 인원을 가진 다른 종파(집단)도 있습니다. 이 모든 집단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이들을 진리의 길에서 오인도합니다. 그들이 이런 잘못된 길을 끄는 진짜 이유는 세속적인 삶에서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음식, 옷, 집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 세 가지 [물건]에서 얼마나 많은 양이 [진정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필요한 양 이상의 욕구와 욕구가 그들을 밀어붙이고 밀어붙여 세상이 그들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었고, 그들은 자신의 최종적인 결말을 잊어버린 방식으로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갔다. 삶의 수단인 음식, 옷, 거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 몰두하여 창조의 목적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든, 그 목적과 그 일에 대한 자신의 몫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 투쟁의 목적은 음식과 의복을 통해 몸을 보호하여 몸이 죽지 않도록 하며, 몸이 창조된 목적인 '숭배'를 달성하는 데 있음이 분명하다. 세상에서 자신의 몫을 덜 얻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일에 무관심해져 내세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신성한 기억과 자신의 죽음(불가피한 죽음의 형태로서)에 대한 묵상이 지배적이며, 매 순간 다가오는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필요)의 경계를 넘는 사람들, 그들의 세속적인 행동과 노력은 그들이 평화롭게 살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세속적인] 교류가 두 번째 교류를 낳고, 이 [교전의 연쇄]는 끝이 없게 됩니다. 세속적인 과도한 참여는 걱정을 키우고 마음과 정신을 불안에 가둡니다. 항상 세상에 마음이 빠져 있고 마음이 세상에 가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에 몰두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이 현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을 피하지만, 사탄은 그들을 질투하며 그들이 피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이끕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것을 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많은 그룹이 형성되었습니다. 한 집단은 세상이 고난과 고난을 위한 곳이며, 내세는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의 거처라고 생각했습니다(*사아다*). 그러므로 누구든 [성공적으로] 내세에 도달한 자는 이 세상에서 신성한 예배(*이바다*)를 행했든 아니든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을 받아들였다. 그 때문에, 그들은 올바른 길은 세속적 고통을 없애기 위해 인간이 스스로를 파괴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불에 빠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속적인 고통과 슬픔을 없애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집단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의미가 없으며, 대신 인간의 특성(본성)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세에서 인간의 성취(*사아다*)의 절정은 분노와 욕망을 자아(나프스)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데 있다. 이 집단은 인간 본성을 없애기 위해 치열한 영적 투쟁을 벌였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서 영적 투쟁 중에 죽었고, 어떤 이들은 정신과 감각을 잃고 병에 걸려 영적 투쟁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 투쟁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성을 없애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 신성한 법칙(도덕적, 윤리적, 영적 가르침에 관한 명령)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며, 신성한 법은 단순한 속임수이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비종교적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길로 들어섰다. 한 집단은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 행해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으시며, 죄인의 불순종이 그분의 신성한 위대함을 줄이지 않고, 의인을 숭배하는 것도 그분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높이지 않는다. [이 잘못된 믿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욕망에 빠져 모든 것을 정당하다고 선언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선악, 도덕적이든 부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비윤리적이든, 의롭든 악든]. 그들은 신성한 법과 그 명령을 뒤집어 모든 것을 정당하고 공정한 게임으로 간주하는 것이 신성한 일체성(*타우히드*)에 대한 그들의 신념의

명확성과 명확성의 증거라는 타락한 추측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이 자신의 종들(인간)으로부터 숭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한 그룹은 신성한 예배의 목적이 영적 노력으로, 하나님의 종이 예배 속에서 노력함으로써 신성한 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노시스를 얻는다는 것은 목적이 달성되었고 더 이상의 영적 노력이 필요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영적 투쟁과 예배를 떠나 하나님의 영지가 자신들을 갈망의 경계에서 해방시켰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오직 평신도만이 신성한 법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집단이 셀 수 없이 많고, 그들의 잘못된 신념이 너무 많아 서면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이 집단들 중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은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와 그의 고귀한 동료들(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길)의 방식을 따르는 집단입니다. 즉, 그들은 세상을 완전히 떠나지도 않고, 욕망(여기서 '인간 본성'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된 단어)을 완전히 없애지도 않을 것이며, 세상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빼앗을 것입니다 이는 내세의 길에서 의지하거나 필요한 것(여정에서 취하는 기본적인 필수품)이 되고, 신의 법을 준수하는 경계에서 제외된 욕망들은 떠날 것입니다.

올바른 신념을 가진 신자는 모든 욕망을 따르거나 모든 욕망을 떠나서는 안 되며, 대신 절제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을 떠나거나 모든 것을 이루지 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신성한 예배를 위해 힘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음식의 양을 가져야 합니다(예배의 범위는 기도와 신성한 기억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여가하는 등 아무리 평범한 행위라도 하나님을 위해 이루어지고 그분께 이르는 길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는 신성한 예배의 행위입니다), 도둑과 덥고 추운 날씨의 혹독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집을 마련하고, 몸을 가리고 변하는 날씨에도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입어 마음이 육체적 책임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신성한 기억과 묵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신의 욕망(열정과 물질적 야망)을 엄격히 감시하여 그것이 의와 신을 두려워하는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고귀한 동료들의 길을 따르는 구원자 집단을 따라가면서 알 수 있습니다(신께서 모두에게 기뻐하시길), 무함마드 선지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가 자신의 길을 걷고 있으며, 동료들의 길을 걷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온건한 길을 걷고 있었으며, 앞서 자세히 설명한 명확하고 빛나는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딘)으로 가는 길을 위해 세상에 도달했으며, 은둔 생활을 하지도 않았고 세상의 필요를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제에는 과잉도 부족도 없었고, 오히려 신께서 사랑하신 절제와 과잉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는 [모든 극단을 피하는 절제의 길이었다].

7장- 인색함과 물질적 소유에 대한 사랑의 해악

가잘리의 대작 『Ihya al-Uloom ad-Deen』 *또는 "하나님의 길에 대한 지식의 부흥"의 세 번째 권 또는 4분의 1에 속한 일곱 번째 책*은 영적 길의 두 가지 다른 장애물을 다루는데, 둘 다 탐욕, 인색함, 그리고 물질적 소유에 대한 사랑과 집착에 의해 움직인다. 물질주의적 삶의 관점은 자신이 속한 더 넓은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한 관대함을 저해하고,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찬탈하는 탐욕을 조장합니다. 탐욕과 물질주의에 의해 촉진되는 이기심은 개인, 사회, 공동체를 사회 질서의 하위 계층의 고통으로부터 면역하게 만들고, 이는 부자와 무지한 자 간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한다. 가잘리는 이 두 병을 진단하고, 영적 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며, 내면의 영적 탁월함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해방시키는 치료법을 처방합니다. 가잘리의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되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13]:

세속 삶의 시련과 고난: 세상의 시련과 고난은 매우 광범위하며 가지가 이어지며 셀 수 없이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큰 것은 물질적 소유이며, 어떤 개인도 이를 모를 수 없으며, 만약 달성된다 해도 그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을 빼앗기는 것은 때때로 불신(쿠프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난이며, 부유함은 신의 명령에 반항하는 원인이 되어 결국 손실만을 초래합니다. 결론은 부는 이익과 해를 동시에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점은 구원적인 특성 중 하나이고, 해로운 점은 파괴적인 내적 특성 중 하나입니다. 부는 선과 악, 두 가지 측면을 가집니다. 두 종교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서, 전통 학자나 속임수에 사로잡힌 종교 엘리트들과는 달리, 지식에 깊이 뿌리내린 지식과 깊은 통찰을 가진 학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와 물질적 소유의 해악을 별도로 언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장에서 설명된 내용은 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덧없고 덧없는 쾌락은 '세상'이라고 불립니다. 이 점에서 부도 세계의 한 구성 요소이며, 부만을 '세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한 요소는 명성과 명예이고, 한 요소는 배와 사적인 부분의 욕망이며, 한 요소는 분노에 눌리는 것, 한 요소는 질투, 또 하나는 오만함과 위대함이다. 인간이 쾌락을 느끼는 요소와 부분은 많습니다.

부의 시련: 이 책에서는 물질적 소유와 부만을 다루는데, 이는 인간에게 더 많은 시련과 해악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소유가 부족하면 개인에게 빈곤(영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필요함도 의미함)의 질을 만들고, 빈곤이 존재한다면 부유함의 질을 만듭니다. 이 두 상태 모두 재판과 시험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물질적 소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성, 즉 만족과 탐욕이 태어난다. 그 중 하나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다른 하나는 (만족감)은 바람직하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또한 두 가지 추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하나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감시하며 그것을 빼앗으려는 것; 둘째는 물질적 소유를 얻고자 하는 욕구로, 무역, 고용, 산업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탐욕은 최악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또한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 인색함과 남에게 아껴주는 성격 [인색한 성격 때문에 정당하게 주어야 하는 것일지라도], 그리고 지출입니다. 이 중 하나는 바람직하고, 다른 하나는 비난받아야 할 특성입니다. 지출하는 사람은 낭비적인 지출과 절제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절제는 칭찬받을 만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호하고 미묘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들은 다음에서 설명될 것입니다. 첫째, 부의 해악을 설명하고 그 이익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 후 그 이점과 해로움에 관한 세부 사항이 제시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탐욕을 비난하고, 그 치료법이 설명될 것입니다. 관대함은 관대한 사람들의 전통으로 설명되고, 그 후에는 인색함이 비난되며 구두쇠에 관한 전통이 제시될

것입니다. 그 후에는 탁월함과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시하는 우월함이 설명될 것입니다. 구두쇠와 관대함에 관한 신의 법의 한계가 다뤄질 것입니다. 구두쇠 치료법이 제시된 후 부에 대한 집단적 책임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부의 해로움과 그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반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يَٰٓأَيُّهَا ٱلَّذِينَ ءَامَنُواْ لَا تُلۡهِكُمۡ أَمۡوَٰلُكُمۡ وَلَآ أَوۡلَٰدُكُمۡ عَن ذِكۡرِ ٱللَّهِۚ وَمَن يَفۡعَلۡ ذَٰلِكَ فَأُوْلَٰٓئِكَ هُمُ ٱلۡخَٰسِرُونَ

"믿는 이들이여! 물질적 재산(부)과 자손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런 짓을 하는 자는 패배자가 될 것이다." (꾸란 63장 9절)

إِنَّمَآ أَمۡوَٰلُكُمۡ وَأَوۡلَٰدُكُمۡ فِتۡنَةٞۚ وَٱللَّهُ عِندَهُۥٓ أَجۡرٌ عَظِيمٞ

"당신의 물질적 소유(부)와 자손은 당신에게 시련과 시험의 원인이며,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삶의 진정한 목적에 집중하며 노력하며, 세속적 책임을 최선의 방식으로 완수한 것에 대한 엄청난 보상]." (꾸란 64장 15절)

مَن كَانَ يُرِيدُ ٱلۡحَيَوٰةَ ٱلدُّنۡيَا وَزِينَتَهَا نُوَفِّ إِلَيۡهِمۡ أَعۡمَٰلَهُمۡ فِيهَا وَهُمۡ فِيهَا لَا يُبۡخَسُونَ

"이 세상의 삶과 그 화려함과 화려함을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원하는 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선행에 대한 보상을 주며, 세상에서 그들에게 결코 부족하거나 물질적 이익이 줄어들지 않는다." (꾸란 11장 15절)

كَلَّآ إِنَّ ٱلْإِنسَٰنَ لَيَطْغَىٰٓ ٦ أَن رَّءَاهُ ٱسْتَغْنَىٰٓ ٧

"인간은 스스로를 자급자족하고 부유하다고 보기 때문에 [품위, 도덕성, 선행의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다." (꾸란 96장 6-7절)

أَلْهَىٰكُمُ ٱلتَّكَاثُرُ

"부의 풍요가 너희를 [네 삶의 진정한 목적과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올바른 행동]을 무시하게 만들었다." (꾸란 102장 1절)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ماذئبان ضاريان ارسلا فى زريبة غنم باكثرا فسادا فيها من حب الشرف والمال والجاه فى دين الرجل المسلم

"두 마리의 사나운[그리고 배고픈] 늑대가 염소 떼에 몰입한다 해도, 부와 명예(명예와 권력)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무슬림 신앙에서 발생하는 혼란(피해)만큼 크지 않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는 카브 이븐 말릭의 권위에 따라 *티르미디*와 *나사이* 를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يقول ابن ادم مالى مالى وهل لک من مالک الا ما اکلت فافنيت او لبست فابليت او تصدقت فامضيت

"아담의 아들(인간)이 말하길, '내 재산이여, 내 재산이여!' 당신의 재산 중에서 당신이 먹고 다 먹었거나 입고 늙게 만든 것 외에 진짜 당신 것인 것이 있나요?"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아부 후라이라와 압둘라 빈 알-샤크헤이르의 권위에 따라* 무슬림 사히흐 *하디스* 모음 집 [신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길])

اخلاء بنى آدم ثلاثة واجد يتبعه الى قبض روحه والثانى الى قبره والثالث الى محشره فالذى يتبعه الى قبض روحه فهو ماله، فالذى يتبعه الى قبره فهو اهله والذى يتبعه الى محشره فهو عمله

"아담의 자녀들(인간)에게는 세 명의 친구가 있다. 처음에는 영혼이 붙잡힐 때까지 그들과 함께 머무릅니다(죽음). 두 번째는 매장(매장)까지 한 명과 함께 있습니다. 서드는 심판의 날까지 한 명과 함께 있다. 영혼이 빼앗길 때까지 도움이 되는 것은 부입니다. 죽을 때까지 도움이 되는 사람은 친구, 가족, 친척입니다. 심판의 날까지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고귀한] 행위입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는 나우만 빈 바시르의 권위에 따라 *타바라니 아우사트, 타바라니 카베이르, 아흐메* 드를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길])

예수님의 제자들(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물 위를 걷고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 이유가 뭐야?" 그는 "디*르함*과 *디나르*(옛날 화폐로 사용된 금화와 은화)의 중요성은 무엇인가?"라고 답했다. 그들은 "우리는 그것들을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둘 다 나에게는 작은 조약돌과 같으며, 그래서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한 [아랍] 시인이 [시에서]라고 말했습니다:

لا يغرنك من المرء قميص رقعه او ازار فوق عظيم الساق منه رفعه
او جبين لاح فيه اثر قد خلعه او الدرهم تعرف حبه او ورعه

"가난의 표시인 패치, 발목 위로 올린 바지(신의 명령 준수의 표시), 이마에 있는 경건한 예배의 표시인 [하나님 앞에서] 절하는 표시가 있는 옷에 속지 말아야 한다. 디*르함*(금화나 돈)을 보여주면 부에 대한 사랑이나 금욕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 금욕은 종교성과 영성의 진정한 표시이지, 종교성과 경건함의 외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부에 대한 칭찬과 비판 간의 갈등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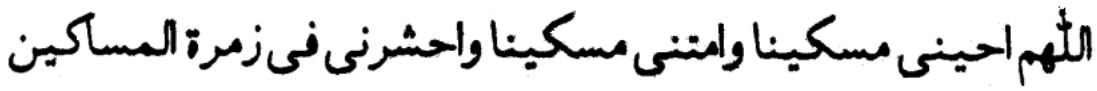
신성한 법은 때때로 이를 사탄의 전술이자 모든 죄와 악의 근원이라고 비난하고, 때로는 이를 칭송하며 다양한 [신성한] 예배 행위를 이루는 수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겉보기] 상충하는 구절과 전통들 사이에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겉보기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부의 지혜, 목적, 그리고 해악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후에야 부가 한 가지 이유로 좋고 다른 이유로 나쁘다는 현실이 드러난다. 그것은 좋다는 점에서 칭찬받을 만하고 나쁘다는 것은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부가 순수한 악도 순수한 선도 아니며, 선과 악을 위한 수단이며 두 가지를 모두 얻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감사에 관한 장(가잘리의 『하나님으로 가는 길의 지식 부흥』 4권과 이 저작 12장)에서 우리는 선과 축복의 정도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유일한 의도는, 현명하고 신비로운 통찰을 가진 자들의 목적은 내세의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사아다*)이며, 이는 지속적이고 지속적인 [신성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지적인 사람들만이 이 축복을 이루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승리를 얻는 방법:

이 세상에서 내세의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사아다*)은 세 가지 근원 없이는 얻을 수 없습니다: 첫째, 지식과 선한 태도, 성격, 기질, 성격(이흘락) 같은 자아의 탁월함(나프)입니다. 둘째, 건강과 개인의 웰빙과 같은 신체적 우수성입니다. 셋째, 부와 세속적 자원처럼 자신과 몸에 불필요한 탁월함입니다. 이 중 가장 좋은 수단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사아다*)을 얻기 위한 것]이며, 그 다음이 신체적 우수성이며, 결국 몸과 자아 모두에 불필요한 우수성들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종이기 때문에 가장 지위가 낮은 부와 돈이 포함됩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얻기 위해 원하며, 스스로를 위해 원하지 않는다. 이는 자아(*나프스*)가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승리를 바라는 매우 미묘한 존재이기 때문이며, 지식, 신성한 영지, 그리고 높은 성격 특성을 위해 봉사하여 이러한 특성들이 자아의 내재적 특성이 되도록 합니다. 그 후에는 몸, 감각, 팔다리가 자아를 돕습니다. 음식과 옷은 몸에 봉사합니다. 이전에 먹는 것은 몸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결혼은 인류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몸의 목적은 자아의 완전성과 완성을 이루는 데 있다; 영혼의 정화, 지식, 선한 인격은 자아의 정원을 향기롭게 하는 목적입니다. 이 순서나 질서를 아는 사람은 부의 진정한 지위[부가 모든 탁월함 중 가장 적은 것이며 인간 존재의 더 높은 목적과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이 무엇이 좋은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 소유는 자아에게 중요하지만,

자아는 존재의 진정한 핵심입니다. 어떤 물건의 이점을 이해하고, 그 진정한 목적을 알게 된 후 그것을 사용하며, 그 진정한 목적을 염두에 둔 사람이라면, 그 사용은 더 나고 유익할 것입니다. 부가 올바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듯이, 잘못된 목적과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으며, 이는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과 충돌하여 지식과 [의의] 행위의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물질적 소유)는 칭찬받을 만할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다 - 칭찬받을 만한 목표에 귀속될 때는 칭찬받을 만하고, 비난받을 만한 목적에 귀속될 때는 비난받을 만하다. 이는 예언적 내레이션(*하디스*)에서 말하듯, 진정한 필요보다 더 많은 물질적 소유를 취하는 자는 실제로는 자신의 파멸을 간청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기질이 욕망에 끌리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며, 이러한 욕망이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을 막고, 부는 이러한 욕망을 얻는 큰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취하는 것이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언자들은 부와 물질적 소유의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피난처를 구했습니다 [잘못된 목적에 사용되면 잘못되고 악한 길로 유인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간구는 [신께] 무함마드 선지자에게 귀속된다(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오 신이시여! 가난한 사람으로 살려 두시고, 가난한 상태에서 죽음을 허락하시며, 가난한 자들 중 [심판의 날에] 일으켜 세워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아나스 빈 말릭의 권위에 따른* 하디스 *모음 집* 티르미디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부의 해와 이익

부는 뱀처럼 독과 해독제를 모두 가지고 있다. 해독제는 그 이점에서, 독은 해로움에서 나옵니다. 그 해와 이익을 모두 잘 아는 사람만이 그 독으로부터 자신을 구하고 해독제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의 혜택은 종교적이면서도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세속적 이익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하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왜 사람들은 부를 위해 자신을 위험과 파괴에 내몰았을까요? 하지만 종교적(영적) 이점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부의 종교적 이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성한] 예배든, 순례(하즈)와 같은 예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든, 부(재정적 수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원칙 중 하나이며, 가난한 사람은 순례를 수행하는 이 탁월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음식, 옷, 거주, 결혼에 지출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삶의 기본적인 필수품이기 때문이며, 이들이 충족될 때까지 마음은 그것에 몰두하여 하나님께 가는 길(딘)과 관련된 일에 자유롭게 풀리지 않습니다. 또한 예배에 필요한 것들도 예배에 포함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정의] 필요에 따라 세속적 자원을 얻어 종교적 필요와 책임이 충족되고, 마음이 영적 노력에 집중되도록 돕는 것도 세상의 종교적 이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과시적 소비, 호화, 물질적 즐거움, 그리고 세속적(육체적) 쾌락으로 간주되는 진정한 필요를 넘어서는 양은 포함하지 않는다. 둘째, 타인에게 쓰이는 부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자선, 환대, 명예 보호, 그리고 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 자선에 관해서는, 그 신성한 보상은 누구에게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선한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과 신의 명령을 어긴 종에 대한 불쾌함을 없애줍니다. 이전 장들에서는 자선의 우수성이 열거되었습니다. 여기서 환대란 부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고 선물을 주는 데 돈을 쓰는 것을 의미하며, 자선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환대를 통한 지출도 친구와 형제를 사귀는 수단이기 때문에 종교적 이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대함의 성격으로 자신을 꾸미면, 관대함과 이타심은 엄청난 영적 덕목이므로 관대한 사람들 중 하나가 됩니다. 사람을 탁월하고 환대하는 태도를 보여야 관대하다고 불릴 자격이 없다. 이 행위는 또한 큰 신의 보상 수단이기도 합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한 지출도 종교적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시에서 나쁜 말을 하거나 모임에서 조롱하는 시인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 마찬가지로, 자존심과 존엄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그들의 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출이다. 명예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지출은 신의 보상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 뒷담화의 죄에서 구원받고, 말과 글쓰기를 통해 혼란(*핏나*)이 퍼지지 않으며, 무슬림은 적대감을 품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뒷담화를 당하는 사람은 복수심에 이끌려 신의 법칙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되돌려 않는다. 다른 이들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보상을 지불하는 것도 신의 보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수많은 것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직접 그것들을 시작하면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내세의 길을 걷기 어려워지며, 신성한 기억을 위한 시간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여행자들에게 가장 높은 위치는 바로 이 신성한 기억과 묵상입니다. 재산(재정적 수단)이 없는 사람은 모든 일을 혼자 하게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곡물을 사서 갈고, 요리하고, 집을 청소하며, 심지어 필요한 책을 직접 준비하는 일까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타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일은 결국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단점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그런 보호를 받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모든 것을 혼자 하기 시작해도, [의로운] 행위, 지식, 신성한 기억, 그리고 묵상을 박탈당할 것입니다.

셋째, [종교적 또는 영적 이익 지출의 이익은] 특정 개인이 아닌 공공의 공익이나 봉사에 부를 지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모스크(신을 숭배하는 장소), 다리, 여행자를 위한 숙소, 의료 클리닉, 학교, 영적 학습 장소(*마다리스*)를 건설하고, 공공 신탁(와크프)을 설립하기 위해 토지와 재산을 헌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죽은 후에도 이익이 되는 지출입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오랫동안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보다 더 큰 의로운 행위가 있을까요. 부의 종교적 이점 외에도, 그것들은 많은 [명백한] 세속적 이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병을 가진 사람은 가난의 굴욕과 필요함의 오점에서 구원받습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의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부유한 사람이 환대에 지출하면 친구 관계가 늘어나고, 사람들은 형제애를 맺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필요할 때 도와줍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부유한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깊은 마음으로 존경받는다.

부의 해 로움: 부의 해로움에는 종교적 해악과 세속적 해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적 해악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부와 물질적 소유가 인간을 죄의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욕망이 끊임없이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부의 박탈과 겸손(빈곤과 궁핍 상태에서 비롯됨)을 통해, 죄를 저지를 수 없을 때 그 죄(또는 타인에게

해롭거나 악한 행위)에 대한 동기(도발)가 마음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욕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 생기면, 마음속에서 그 행위를 하도록 도발이 생깁니다. 부의 존재는 [죄, 인간 규범 위반, 억압 등]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 욕망에 따라 행동하면 파괴되고, 인내와 자제를 발휘하면 고난을 견디게 됩니다.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앞에서는 인내심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의 해악(*Fitna*)은 빈곤의 해악(*Fitna*)보다 크다. 두 번째로 부가 종교나 영성에 끼치는 해로움은 부의 존재가 부유함, 사치, 허용되는 일에 대한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 부의 첫 번째 오용 수준입니다. 이는 부유한 사람이 보리빵을 먹고, 거친 옷을 입으며, 예언자 솔로몬(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맛있는 음식을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의 왕국이 광대하고 지배하며 땅의 보물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로 인해 삶의 여유와 폭넓은 성향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사치와 낭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잘 먹고, 좋은 옷을 입으며, 그것에 익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화려함, 사치, 낭비에서 쾌감을 찾는다면,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습관화는 합법적(할랄) 방법으로 자신의 호화, 사치, 낭비가 충족되지 않으면, 부를 얻기 위해 금지된(불법 또는 *하람*)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고집, 거짓, 위선, 그리고 다른 나쁜 도덕과 습관들이 마음속에 자리를 내도록 허용하여, 자신의 세계를 조직(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자신의 뜻대로 유지되고, 자신의 사치, 낭비, 낭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며, 위선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승인을 얻기 위해 불순종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창조물에 대한 필요와 의존은 우정과 적대감을 모두 낳고, 이는 질투, 원한, 과시, 오만, 거짓말, 험담, 뒷담화 등 마음과 혀에 특유의 모든 죄가 번성하도록 허용한다. 또한 이러한 죄가 심장과 혀를 넘어 다른 [신체적] 기관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와 물질적 소유에 대한 불길한 예감입니다.

세 번째 해로는, 부유한 사람이라면 부를 축적하고 보호하는 데 빠지면 신의 기억을 소홀히 하게 되며, 그로 인해 보상할 수 없는 손실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신성한 기억의 부주의는 치유 불가능하고 치명적인 병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배의 핵심이자 목표가 신의 존재와 속성 안에서의 신성한 기억과 묵상이기 때문이며, 이는 다시 자유로운

마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농업용]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농업과 관련된 문제로 밤낮으로 바쁘게 움직인다. 때로는 회계를 하고, 때로는 공동 공유자와 논쟁하며, 때로는 농지에 대한 물(공급)과 경계에 관한 의견 충돌, 때로는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관리들과 다투기도 한다.

때로는 건설업자와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사업가는 사업 파트너가 이익의 절반을 가질 권리가 있으면서도 일에 동등하게 참여하지 않는다는 슬픔에 괴로워합니다. 때로는 파트너가 절도와 부정직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꾸며내기도 합니다. 가축 소유주들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모든 종류의 소유물과 재산에 대해 소유자들은 하나님의 기억 대신 자신의 소유물에 관여하며 그 증가와 안전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상태에 거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신성한 기억과 묵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산(재산)을 보호하는 데 대한 걱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세속적인 걱정과 교류는 셀 수 없이 많고 한계가 없습니다. 하루치 음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걱정에서 보호받으며, 모든 일에서 안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종교적 해악입니다. 여기에 더해, 부유한 사람들은 부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한다. 부를 얻으면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존재 깊숙이 동요한다. 질투하는 사람들의 질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그 위에 있습니다. 항상 많은 노력과 고난으로 얻은 부가 허무해질까 봐 걱정됩니다. 이것만 봐도 부는 독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오직 생계 수단으로 간주될 때만 해독제이며, 초과 재산은 신의 길을 따라 자선(이타적 기부)으로 사용되어 신의 기쁨과 친밀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탐욕의 치료와 만족을 키우는 약법

이 약은 인내, 지식, 그리고 올바른 지식에 따른 행동 세 가지 재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다섯 가지 문제를 낳는다: 첫째, 행동; 정확히 말하면, [행동은] 경제 문제에서의 절제와 [불필요한] 지출의 감축을 의미합니다. 만족의 존중을 원하는 사람은 지출을 위해 자신의 문(*나프*)을 닫고, 오직 자신의 [진정한] 필요에만 지출해야 한다. 그 이유는 지출의 원이 계속 늘어나는 사람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고 있을

때는 거친 옷과 적은 음식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식단에서 카레를 빼고 빵만 먹는 식단 없이 카레 없이 먹는 데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있다면, 가정 구성원 모두에게 평범한 옷과 음식을 갖도록 설득하고, 자신의 색깔로 색칠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량의 모든 것을 적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욕구가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삶은 절제되어 보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족의 현실입니다. 지출이 적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ان الله يحب الرفق في الامر كلة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각각) 문제에 있어 온화함과 자비를 사랑하십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는 아이샤의 권위에 따라 *사히흐 부카리*와 *사히흐 무슬림* 을 모았 다 [신께서 그녀를 기뻐하시길])

ماعال من اقتصد

"온건한 사람(삶의 모든 일에서 절제를 실천하고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로 가지 않는 사람)은 결코 가난해지지 않는다(즉, 번영하며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는 압둘라 빈 마수드의 권위에 따라 *아흐메드*와 *타바라니* 를 모 았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ثلاث منجيات خشى الله في السر والعلانية والقصد في الغنى والفقر والعدل في الرضا والغضب

"세 가지가 구원의 본질을 지닌다: 경건한 경외심, 경외심, 그리고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경외(*타크와*), 부유하든 가난하든 절제, 그리고 행복이든 분노든 정의와 공정함."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아나스 빈 말릭의 권위에 따라 *바자즈, 타바라니*, *아부 나임 하*디스 *모음*집이 있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الاقتصاد و حسن السمت والهدى الصالح جزء من بضع و عشرين جزا من النبوة

"절제, 신체적 구성의 아름다움, 그리고 의로움은 [집합적으로] 예언자의 20개 이상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압둘라 빈 압바스의 권위에 따라* 아부 다우드 *하디스* 모음 집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둘째, 당분간은 최소한의 생필품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미래에 대해 너무 걱정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과 열망을 짧게 하고, 탐욕이 있든 없든 신의 계명을 통해 반드시 자신에게 주어진 양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마음에 굳게 새기면, 미래에 대해 걱정과 걱정으로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탐욕이나 희망으로는 생계를 찾지 못한다. 신자(*무민*)는 자신의 창조주, 존귀하신 분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신성한 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وَمَا مِن دَآبَّةٍ فِي ٱلْأَرْضِ إِلَّا عَلَى ٱللَّهِ رِزْقُهَا

"지구상에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 생명체는 단 한 명도 없다." (꾸란 11장 6절)

탐욕은 사탄의 악한 행위의 결과입니다. 그는 인간이 가난과 기아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들이 잘못하고 악한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푸키릇*) [또는 신의 명령에 어기는 잘못된 행위로 나타나는 행위, 즉 인간의 품위, 문명, 공정, 정의의 규범에 반하는 잘못된 악한 행위의 형태로 나타난다]. 사탄은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부를 쌓고 물건을 쌓지 않으면 미래에 걱정이 생길 것이고, 병들고 겸손해질 수 있다(필요해진다). 그럴 경우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에 굴욕을 겪게 되고, 구걸 그릇을 들고 한 문에서 다른 문으로 돌아다녀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특히 노년과 어려운 시기에 예상되는 미래의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평생 부를 추구하는 고난을 견디게 만듭니다. 사탄은 이런 사람이 이 투쟁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고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너무 많은 고난을 겪고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의 기억을 무시하고 있다. "자신이 미래에 대해 품고 있는 불안이 실제로 일어날지 아는 게 있을까?"

인간 마음속의 탐욕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계신 분배의 운명과 그분이 고안하신 계획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자신의 생계를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이해가 있다면, 탐욕의 악이 마음을 떠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종은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꾸란이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에서 영양분을 제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وَمَن يَتَّقِ ٱللَّهَ يَجۡعَل لَّهُۥ مَخۡرَجٗا ۝٢ وَيَرۡزُقۡهُ مِنۡ حَيۡثُ لَا يَحۡتَسِبُۚ

"경건한 경외심과 경외심, 경외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상상조차 못한 곳(즉, 매우 예상치 못한 신의 도움)에서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벗어나는] 길과 양식을 주십니다." (꾸란 65장 2-3절)

아부 하짐(신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길)는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나를 위한 것이고,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도 제때 이전에 얻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과거에도 받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닿지 못하게 지키는 존재(즉, 신)가 다른 사람의 물건이 나에게 닿지 못하게 막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 두 가지 때문에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게 무슨 소용이야?" 이것이 사탄이 인간의 마음에 빈곤과 빈곤에 대해 심어주고 병과 의존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암시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과 그 치료법]을 아는 의학입니다.

셋째, 만족은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엄성을 지니며, 탐욕은 다른 사람에게 구하거나 구걸하거나 의지하는 굴욕을 가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존엄과 굴욕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자아(*나프스*)가 만족으로 향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그 안에는 고난과 굴욕만이 숨겨져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고난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뿐입니다. 반면, 탐욕은 인간의 눈에 숨겨지지 않으며, 누구나 특정 사람이 탐욕스럽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굴욕을 더하는 것은 내세의 벌을 견뎌야 하고, 자존심은 별도로 상실되며, 진리를 따를 능력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탐욕이 더 많은 자는 사람을 더 필요로 하며, 그 필요 때문에 진리를 초대하거나 실수를 꾸짖지 못합니다. 굴욕은 기질이 되고, 잘못은 더 이상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생각해도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이유 없이 신앙이 파괴되고, 내세도 망가진다. 자존심을 배의 욕망보다 선호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고 신앙이

약합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عز المئومن استغناءه عن الناس

"신자의 존엄성은 사람들로부터 얻는 이*스티그나*에 있습니다 (즉,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바라보거나 원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가진 것을 무시하며, 모든 희망과 열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모든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만 맡기며, 그것을 존엄하고 자존심 있게 이루어주기 위해 인간적으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는 사흘 이븐 사아드의 권위에 따라 *타바라니*와 *하킴* 을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만족에는 자유와 존엄한 자존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지하게 있으면(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당신은 그 사람과 동등해진다고 말합니다; 만약 네가 필요해지면, 너는 그 사람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 사람의 리더이자 안내자가 될 수 있다.

넷째, 얼마나 많은 바보, 무지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부유한지 이 현실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예언자, 의롭고 올바르게 인도된 칼리프들, 예언자 동료들, 그들의 직계 추종자들은 소박한 삶을 살았다. 이 두 집단을 비교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연구한 뒤, 지성에게 어떤 집단을 본받고 닮을지 선택권을 줘야 한다 - 세상의 쓰레기들인지, 아니면 예언자와 경건한 자들인가. 부족함에 인내심을 발휘함으로써 만족이 쉬워지길 바란다. 신앙인은 [신과 경건함, 도덕적 올바름, 의로움의 삶을 믿는] 음식에 풍요로움을 채택하는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 당나귀가 인간보다 더 많이 먹는 것처럼. 교미가 많다는 것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돼지가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복장과 승마에서 화려함을 입는 것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비종교인들 중에도 잘 차려입고 승마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적은 것에 만족하고 평화롭다면, 이는 분명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것에 만족하고 적은 것에 평화롭게 느끼는 것이 선지자와 성인들의 특징(타고난 성격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부와 물질적 소유의 해악에 관한 부분에서 설명된 대로 부와 소유물 축적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게다가 도난과 손실의 위험도 있습니다. 부와 소유물이 있을 때는 그것이 낭비될까 두려워하며, 빈손일 때는 부와 소유물의 안전에 얽매인 어떤 슬픔도 마음에 없습니다. 또한 생각해야 한다, "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500년 동안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재판의 날 시작 이후 그 재산 획득 방식에 대한 긴 책임 때문에], 만약 내가 부를 얻는 데 있어 필요를 넘어서면 부유한 집단에 속해 가난한 명단에서 제외될 것이다(*후카라*가난한 자들은 부유한 자들보다 500년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가난과 빈곤, 역경 속에서도 믿음과 의로움으로 인내와 굳건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열등한 존재를 [물질적 소유, 부, 사회적 지위, 권력 측면에서 바라보고,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히 여기며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을 [앞서 언급한 동일한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상관을 [세속적 화려함, 화려함, 부, 권력, 명성, 명예 면에서] 우월한 모델로 제시하여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며, 따라서 질투, 증오, 적대감, 물질적 경쟁의 악순환에 빠뜨려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한다]고 말한다(마음속에 암시하며): "왜 그렇게 게으르냐? 부자들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인생을 즐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맛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멋진 옷을 입는다"고 말했다. 종교 문제에 있어서, 사탄은 보잘것없는 모범을 제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왜 스스로를 제약(제약과 고난)에 두는가? 종교적인 지식이 당신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좋은 삶을 즐기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들과 다른가요?"

이 다섯 가지 문제는 만족감의 질(마음의 특성과 내면의 성향)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 안에서 근본적인 중요성은 인내와 [세속적 문제와 관련된 것]에 대한 희망 감소에 있다. 인내를 실천할 때, 며칠 가치 있는 이 세속적인 삶에서 인내를 실천하여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삶의 끝없는 승리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건강과 신체 건강을 얻기 위해 약물의 쓴맛을 견디는 병든 사람과 같습니다.

관대함의 탁월함: 부와 물질적 소유물이 없다면 만족하며 탐욕을 삼가야 합니다. 부가 있다면 이타적이어야 하며(자신보다 타인을 더 선호), 관대해야 하며, 타인을 잘 대하고

구두쇠를 피해야 합니다. 관대함은 예언자들 [하나님의 성격] 중 [고귀한] 성품 특성 중 하나이며, 구원의 기초에서 나오는 기초 중 하나입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السخاء شجرة من شجر الجنة اغصانها متدليته الى الارض، فمن اخذ بغصن منها قاده ذلك الغصن الى الجنة

"관대함은 낙원의 나무 중 하나야. 가지는 땅까지 매달려 있습니다. 이 가지들 중 하나를 잡는 자가 그 가지를 천국으로 끌어들인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에는 *아이샤의 권위에 따른* 이븐 히반(신께서 그녀에게 기뻐하시길)과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른* 이븐 아 *디와* 다락타니 가 모아져 있다 [신께서 그에게 기뻐하길])

قال جبرئيل عليه السلام قال الله تعالى: ان هذا دين ارتضيته لنفسي ولن يصلحه الا السخاء وحسن الخلق فاكرموه بهما ما استطعتم

"가브리엘은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스스로 선택한 [신성한] 길(*딘*)이다. 관대함과 아름다운 도덕, 예절, 인격, 내면적 성향(*후스른 울-쿨크*)을 통해서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가능한 한 이 두 가지 [고귀한 내면의 자질]을 통해 [신이나 종교로의 길]을 존중하라'"고 말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 집 *다락타니 필 무스타자드(Daraqtani fil Mustajad*)는 자비르의 권위에 따라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ما جبل الله تعالى وليا له الا على حسن الخلق والسخاء

"존경하신 하나님은 아름다운 도덕, 예절, 성격, 내면적 성향(*후스른 울-쿨크*)과 관대함으로 그분의 친구이자 친밀한 이들(*아울리야*)을 창조하셨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 *집 다락타니 필 무스타자드*(Aisha)의 권위에 따라 [신께서 그녀를 기뻐하시길])

خلقان يحبهما الله عزوجل وخلقان يبغضهما الله عزوجل' فاما اللذان يحبهما الله تعالى فحسن الخلق والسخاء واما اللذان يبغضهما الله فسوء الخلق والبخل واذا اراد الله بعبد خيرا استعمله في قضاء حوائج الناس

"두 가지 습관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두 가지 습관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름다운 도덕, 예절, 성격, 내면의 성향(*후스 울-쿨크*)과 관대함이며, 그가 싫어하는 것은 나쁜 도덕성, 예절, 성격, 내면의 성향(*수 울 쿨크*)과 인색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에게 선을 원하시면, 그분의 종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이루어 주십니다." (내레이션 *압둘라 빈 우마르의 권위에 따라* 아부 만수르 아-다일라미 *하디스* 모음 집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한 예언적 서전에서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내 민족(*움마)의* 압달*(성인과 영지주의자들의 고위 계급*)은 기도와 금식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대한 증오, 분노, 질투, 적대 등 마음속의 감정, 기질, 성향, 그리고 무슬림에 대한 진심"이라고 말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아나스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 집 *다락타니 필 무스타자드(Daraqtani fil Mustajad*)가 있습니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아부 사이드 알-쿠드리(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 기를)로부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흐산(이흐산*은 단순한 '선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생각, 감정, 말, 행동에서 탁월함을 넘어서는 것)을 위해 여러 형태의 이흐산*을 만들었다 . 첫째, 그들은 *이흐산*을 사랑합니다. 둘째, 이흐산을 행하는 자들의 사랑 이 그분의 창조물들의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셋째, 신 은 *이흐산*을 찾는 이들을 이흐산*의 소유자들에게* 인도하셨습니다. 넷째로, 그분은 이흐산을 행하는 이들에게 세상(그리고 세속 삶)을 매우 쉽게 하셨 *습니다* (즉, *무흐시닌* 또는 생각, 감정, 말, 행동에 탁월함을 지닌 이들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감사 인사조차 기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선을 행하는 이들) 마치 구름이 마른 황량한 땅 위에

물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와 그 생명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 *집 다락타니 필 무스타자드*)

인색함에 대한 비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وَمَن يُوقَ شُحَّ نَفْسِهِۦ فَأُو۟لَٰٓئِكَ هُمُ ٱلْمُفْلِحُونَ

"영혼의 인색함에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꾸란 59장 9절)

وَلَا يَحْسَبَنَّ ٱلَّذِينَ يَبْخَلُونَ بِمَآ ءَاتَىٰهُمُ ٱللَّهُ مِن فَضْلِهِۦ هُوَ خَيْرًا لَّهُم ۖ
بَلْ هُوَ شَرٌّ لَّهُمْ ۖ سَيُطَوَّقُونَ مَا بَخِلُوا۟ بِهِۦ يَوْمَ ٱلْقِيَٰمَةِ ۗ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혜로 주신 것을 인색한 자는 이 인색함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매우 나쁘게 작용할 것이라 믿어야 합니다. 심판의 날에는 그들이 인색하게 썼던 것들로 만든 족쇄를 차게 될 것이다." (꾸란 3장 180절)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اياكم والشح فانه اهلك من كان قبلكم حملهم على ان يسفكوا دماء هم
ويستحلوا محارمهم

"인색함에서 스스로를 구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 앞서의 사람들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피를 흘리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허용한다고 선언하라[예를 들어 도둑질, 약탈, 기만, 사기, 찬탈, 부당함, 차별, 억압을 통해 사람들의 재산과 정당한 권리를 불법적으로 빼앗는 것]." (내레이션 *하디스*는 자비르(신의 기쁨이 그를 기뻐하길)의 권위에 따라 *무슬림 사히흐*를, 압 둘라 빈 우마르의 권위에 따라 *아부 다우드*와 *나사이*(신의 기쁨이 있기를)를 모았 다.

لا يدخل الجنة بخيل ولا خب ولا خائن ولا سيئ الملكة

"인색한 자도, 교활한 자도, 부정직한 자도, 예의 없는(성격 나쁜) 자는 낙원에 들어가지 않는다." (내레이션 *아부 바크르의 권위에 따른* 무스나드 아흐메드 *하디스* 모음 집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ثلاث مهلكات شح مطاع وهوى متبع واعجاب المرء بنفسه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세 가지가 있다: 인색함이 따르고, 하위 자아(*Nafs*)에서 나오는 욕망이 복종되며, 자기 자만심(자기 과시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부심)".

اياكم والظلم، فان الظلم ظلمات يوم القيامة، واياكم والفحش فان الله لا يحب الفاحش ولا المتفحش واياكم والشح فانما اهلك من كان قبلكم الشح، امرهم بالكذب فكذبوا، وامرهم بالظلم فظلموا، وامرهم بالقطيعة فقطعوا

"억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 잔인함과 억압은 심판의 날에 어둠으로 변할 것이고, 천박함과 방탕함을 피하라. 하나님은 천한 사람과 천박함을 좋아하지 않으시며, 인색함은 바로 너희 앞에 있는 사람들을 파괴한 바로 그 것이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명령했고, 그들은 거짓말을 했으며, 억압하라고 명령했고, 억압했으며, 가족 관계와 친족 관계를 끊으라고 명령했다. (내레이션 *압둘라 빈 암르의 권위에 따라* 하킴 하디스 모음 집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전통에 따르면,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를 방문하러 온 대표단의 일원들이 질문에 그들의 [부족] 지도자가 자드 이븐 카이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예언자는 "어떤 근거로 그가 당신의 지도자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는 우리 중 가장 부유하지만, 인색함의 비난에서 멀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예언자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큰 병이다. 인색함보다 더 큰 병이 어디 있겠느냐? 그는 당신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지도자로 선출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예언자는 대답했다: "너희 지도자는 [지금부터]은 바슈르 이븐 알-바라다." [이 전통은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가 부족의 인색함 때문에 부족장을 바꾸고, 인색한 사람은 어떤 지도자로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관대한 사람으로 교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레이션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하킴 하디스 모음 집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خصلتان لا يجتمعان في مؤمن البخل وسوء الخل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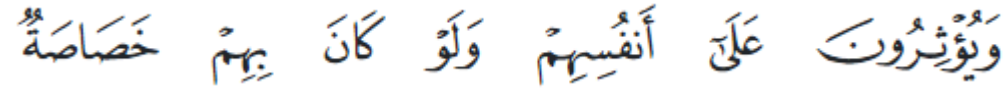
"[진한] 신앙인에게는 두 가지 특성이 쌓이지 않는다 - 구두쇠와 나쁜 도덕성, 예의, 성격 특성, 내면의 성향이다." (내레이션 아부 사이드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수집 *티르미디*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이맘 아부 하니파(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두쇠는 공정하고 공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신의 정당한 몫 이상을 가져가거나, 패배를 두려워해 자신의 몫 이상을 차지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정직할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예언자 자카리야의 아들 야히야(요한, 자카랴의 아들 - 두 사람 모두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는 사탄의 원래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에게 물었다: "사람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나는 인색한 신자를 가장 좋아하고, 죄인이지만 관대한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 이유를 물었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구두쇠는 구두쇠 때문에 누군가를 오도하는 고생에서 나를 구해준다 [그것은 불순종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길로 이끌기 때문이다], 나는 죄를 짓지만 관대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관대함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두렵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인도의 길로 인도하실까 두렵다, 신의 은혜와 은혜로 이루어진 정직함과 개혁]". 그 후 사탄은 떠나면서 "만약 요한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질문을 했다면, 나는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타주의의 현실과 그 탁월함

관대함과 구색함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타주의는 매우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타주의의 의미는 자신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며, 관대함은 필요로 하든 아니든 자신의 소유물과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자선이나 타인을 돕는 것]을 쓰는 것은 어려운 단계이며, 이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자신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 최고의 관대함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구두제함은 자신의 정당한 필요를 위해 자신을 위해 지출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로 가득 찬 금고를 가진 구두쇠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자신의 치료에 쓸 용기를 내지 못해 고통 속에 죽었다. 마음은 먹고 싶어 하지만 용기가 없어 돈을 쓰지 못하고, 공짜로 먹으면 먹는 것은 개의치 않는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큰가요? 아름다운 도덕성, 예절, 내면의 성격 특성, 성향, 그리고 자질(*후스 울-쿨크*)은 신이 원하시는 이에게 주시고 그분이 원하는 이에게 빼앗으시는 신의 선물입니다. 관대함의 가장 큰 수는 이타심입니다. 하나님은 무함마드 예언자의 동료들을 다음과 같이 찬양하셨습니다(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



"그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스스로도 도움이 필요한]지만 자신보다 타인을 더 선호한다." (꾸란 59장 9절)

아이샤(신께서 그녀를 기뻐하시길)는 말했다: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는 죽을 때까지 3일 연속으로 배불리 먹지 않았다. 원했다면 배불리 먹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자신보다 타인을 더 선호했다." (내레이션 *하디스* 모음 *집 바이하키*)

한 남자가 무함마드 예언자의 손님이 되었습니다(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그 당시 그의 집에는 그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 *안사리* (메디나 시의 거주자로, 박해를 피하기 위해 메카에서 도망친 이들을 많은 주민들과 함께 접대한 인물)이 예언자를 방문하러 왔고, 예언자는 그 손님을 집으로 데려가 그때 집에 있던 음식을 가져와 제공했으며, 손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여 주인이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는 [빈] 접시에 손을 내밀고 먹는 척하곤 했다. 호스트 동료가 그렇게 했고, 게스트는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침에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손님과 한 일을 좋아하셨다고 말하며 꾸란의 이 구절을 예언자에게 계시했습니다:

وَيُؤْثِرُونَ عَلَىٰ أَنفُسِهِمْ وَلَوْ كَانَ بِهِمْ خَصَاصَةٌ

"굶주림에 시달리더라도 자신보다 타인을 더 선호한다." (꾸란 59장 9절) (내레이션 *하디스* 컬렉션 *사히흐 부카리* 그리고 *사히흐 무슬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대함은 신의 자질(신성한 속성)에서 나온 자질이며, 이타심은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가 평생 동안 바랐던 최고의 관대함입니다. 신은 이 위대한 자질과 그의 모든 고귀하고 숭고한 자질을 다음과 같은 말로 찬양하셨습니다:

وَإِنَّكَ لَعَلَىٰ خُلُقٍ عَظِيمٍ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오 무함마드!) 모든 인류가 자신의 선과 복지를 위해 영원히 본받아야 할 고귀하고 숭고한 성격의 중심에 서 있다." (꾸란 68장 4절)

사흘 빈 압둘라 알투스타리(유명한 성인이자 영지주의자)는 예언자 모세(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가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말했다: "오 하나님!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와 그의 민족의 계급 중 몇 가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했다. [모세, 예수, 그리고 무함마드 선지자 이전의 많은 위대한 예언자들은 무함마드 예언자의 도래를 예언받았으며, 이는 때때로 여러 신성하게 임명된 예언자들에게 보내져 각자의 나라에 신성한 인도와 도덕적 올바른 길을 걷도록 돕기 위해 그 시대에 전해졌다; 이 신성한 인도는 무함마드 예언자로 절정에 달했다. 온 인류에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 모세여! 그 환상을 견딜 수 없을 거야. 그러나 나는 그의 위대한 학위 중 하나(나와의 근접성) 중 하나를 보여주겠다. 그 덕분에 나는 내 모든 창조물 중에서 그에게 가장 높은 등급을 부여했다." 그 후 예언자 모세의 눈에서 장막이 걷혀져 하늘의 경이로움을 볼 수 있었고, 그는 무함마드 예언자의 고귀한 지위와 신성한 근접성의 빛나는 경이로움을 목격하여 눈을 매겼습니다. 예언자 모세가 물었습니다: "오 하나님! 무함마드는 어떻게 이 정도 학위에 오르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특별히 그를 특징지은 성격과 자질을 통해, 그 자질은 이타심입니다 [그가 평생

지녜 최고의 성격]입니다. 오 모세여! 누군가가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타심을 보인다면, 나는 책임을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그런 사람을 아무런 계산 없이 천국에 들어가 마음이 원하는 곳 어디든 살게 할 것이다." 전통에 따르면, 압둘라 빈 자파르(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자신이 소유한 먼 땅을 방문하러 갔다고 합니다. 여행 중에 그는 한 부족이 소유한 난초에 머물렀습니다. 그 난초에서 일하는 에티오피아계 [무슬림]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예의 음식이 도착했다. 그때 개가 난초 안으로 들어와 그 근처에 앉았다. 노예는 개 앞에 [자신의 접시에서] 빵을 놓았다. 그는 두 번째 빵을 개보다 먼저 먹었다. 그는 세 번째 빵을 개에게 먹였고, 개도 그 빵을 먹었고 자신의 음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압둘라 이븐 자파르가 노예에게 물었다: "당신의 일상 식단은 무엇입니까?" 그는 "방금 본 바로 그거야"라고 답했다. 압둘라는 놀라서 물었다. "그럼 왜 [전부] 음식을 개에게 먹였나요?" 노예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실 우리 난초는 개가 살 곳이 아닙니다. 이 개는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 개가 계속 배고픈 동안 내가 먹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 압둘라는 물었다: "그럼 하루 종일 뭘 할 거야?" 그는 "굶주리겠다(배고프게 지내겠다)"라고 대답했다. 압둘라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관대함을 가진 노예(이타주의)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은 자신보다 더 관대했다. 압둘라는 즉시 그 난초 주인을 찾아가 노예와 모든 도구와 함께 난초를 구입해 그 노예를 해방시키고 해방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난초를 전 노예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는 인내심과 이타심 더불어 노예 속에서 끊임없이 봉사한 신 앞에서 높은 지위를 인정하며 신 앞에서 높은 지위를 인정한 것].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예언적인 동료가 염소 머리를 선물로 보냈다고 전합니다(머리는 고기 소비에 사용되는 가축 중 가장 사소하고 저렴한 부분으로, 선물을 준 사람은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 그것을 얻을 수 있었지만, 광범위한 빈곤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받는 동료는 자신의 형제(예언자 동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선물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네 번째에게

선물했고, 이런 식으로 일곱 명에게 보내졌다가 다시 첫 번째 사람에게 돌아왔다 [원래 선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받는 모든 동료는 완전한 이타심에서 서로를 더 도움이 필요한 수혜자로 생각했다].

비참함의 치료법

인색함은 부와 물질적 소유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며, 이 사랑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를 사랑하는 첫 번째 이유는 빈곤 함으로 이어지는 것: 부를 얻지 않고서는 이를 이룰 수 없는 욕망과 [물질적] 욕망에 대한 사랑이다. 또한 긴 삶에 대한 희망도 포함되는데, 인간이 언젠가 이 임시의 거처(세상)를 떠날 것을 알면 구두쇠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 달, 1년에 충분한 금액이 적기 때문에, 남은 자본을 [특히 하나님께 가는 길로 이끄는 모든 가치 있는 의로운 일에 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긴 희망을 원하지 않지만, 자녀가 긴 희망의 대체물이 되고, 자식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듯 자신의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الولدمبخلةمجبنةمجهلة

"[두려움, 불안, 불안, 미래에 대한 계획] 아이들은 구두쇠, 비겁함, 무지를 낳는다." (내레이션 *하디스* 수집 *이븐 마자* 야리 이븐 마라의 권위에 따라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여기에 가난에 대한 두려움과 신의 섭리와 관대함에서 오는 생계에 대한 신뢰 부족이 있다면, 구제심은 더욱 심해집니다. 이는 타인의 공정하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모든 합법적, 불법적, 윤리적, 비윤리적 수단을 동원해 저장, 축적, 찬탈로 이어집니다.

부를 사랑하는 두 번째 이유는 부를 사랑하여 불행함을 이루 기 때문이다 [자손을 보존하거나 노화 재정 위기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생 쓸 자본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지출 후에도 충분한 자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손이 없고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지만, 자*카트*(자카트(자카트 는 1년간 가치의 2.5% 가치가 지속된 가축과 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해야 하는 의무적 자선; 가축, 농산물 및 기타 자산도 신의 법에 따라 의무적 자선의 대상이 된다)을 꺼내는 것을 꺼내어 심지어 돈을 쓰려는 의지조차 하지 않는다 자신의 병에 대한 의료 처치를 받는다. 대신 그들은 디*르함*과 *디나르*(옛날 사용된 금과 은화)를 사랑하며,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고 통제권을 갖는 것을 즐긴다. 그들은 언젠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몰래] 땅속에 묻습니다. 죽은 후에는 이 보물이 모두 사라지거나 적들[또는 그들과 전혀 관련 없는 낯선 이들의 손에 들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정당한 필요에 대해 소량조차 먹거나 소액을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질환은 심장의 엄청나고 치명적인 질환이며, 특히 노년에는 불치병이 되기 때문에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의 비슷함은 연인이 누군가를 사절로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사절을 사랑하게 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것과 같습니다. 부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사절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를 사랑하고 그로부터 쾌락을 얻으며, 쾌락의 수단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다 때로는 필요가 잊혀지고 부가 진정한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오도입니다. 금과 돌의 차이를 아는 사람은 무지한 것이지만, 필요는 금(부)으로 채워지고, 욕구를 채운 후 남는 것은 돌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양한 치료 방법: 다음과 같은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상태는 그 반대 질환에 의해 치료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욕망에 대한 사랑의 치료는 적은 것에 만족하고 인내하는 데 있습니다. 장수에 대한 희망을 치유하는 방법은 풍부한 기억(자신의 죽음과 이 세상을 떠나는 여정의 끝)과 동시대인들의 죽음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부를 축적하려는 욕구를 줄이는 것은 축적된 부의 낭비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었을 때 남겨두고 곧바로 다른 이들에게 넘어가는 것]. 마음이 자손에 대한 성향을 치유하는 것은 창조주께서 한 가지 양분을 주셨듯이, 아이가 태어날 때도 양육이 만들어진다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모든 아이는 하나님께서 정한 양분을 함께 가져옵니다]. 아버지의 유산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지만 더 번영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사람은 자녀에게 부를 남겨 잘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부를 얻은 후에는 (특히 상속을 통해) 악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자손이 경건하고 의로우며 경외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족시키고 아버지의 유산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악하고 잘못된 행위자라면, 그들의 악을 돕기 위해 유산을 남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악을 가진 사람을 돕는 것은 자신이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구두쇠를 비난하고, 관대함을 칭찬하며, 구두쇠에게 가해진 고통에 관한 전통을 주시하며 그것을 사색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부와 물질적 소유의 목표에 대한 사색을 확장하고, 그것들이 왜 만들어졌는지 생각함으로써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 하나, 부와 물질적 소유가 삶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에 필요한 만큼의 부만 사용해야 합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길에서 사용되고 이렇게 저장되어야 하며, 이는 내세를 위한 보물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기 위해 인도적이고 자선적이며 고귀한 노력에 쓴 부는 하나님의 길에서 사용된 것으로 불멸화되고,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보상으로 보답하듯 영원한 생명의 보물이 됩니다. 상상할 수 없고, 영원하며, 경이롭고 영원한 보상]. 이것들은 지식과 신성한 영지에 속한 약입니다.

고귀하고 인도적이며 자선적인 노력에 스스로 돈을 쓰도록 강요하여 구두 쇠를 완화하기: 구두쇠라는 특성은 지출 없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끝나지 않는 한 사랑하는 대상과 거리를 두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헤어지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매우 힘든 일이긴 하지만(*Nafs*). 하지만 이 고난을 한 번 견디면, 떨어져 지내면서 마음을 위로하는 어떤 방법이 생겨난다. 마찬가지로, 구두쇠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 활동에 쓰여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분리하도록 강요해야 합니다. 구두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좋은 전략은 스스로를 속이고, 명성과 사람들이 말하는 관대함을 얻기 위해 관대하게 쓰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 행위가 과시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명성과 명성을 바라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싶어 하는 기질의 일부가 됩니다. 이 전략으로 인해 마음이 과시의 악으로 오염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시를 없애는 것은 구두쇠를 없애는 것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명성과 명성은 부의 쇠퇴 후 마음을 위로하는 수단이다. 마치 새들이 새들로

주의를 돌려 젖을 끊게 되면서 젖을 끊게 되고, 아기가 놀이에 몰두하게 되어 우유를 잊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유에 신경 쓰지 않게 되면, 그들도 연극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악한 습관들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예를 들어 욕망은 분노의 강도를 줄이기 위해 강요되고, 분노는 욕망의 심각성을 줄이기 위해 강요되지만, 이 전략은 명성과 과시에 대한 사랑보다 구두쇠가 지배적인 성격을 가진 개인에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강함은 약한 [습관 또는 질]으로 대체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인색함만큼이나 명예를 좋아한다면, 과시로 인색함을 끝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한 악은 끝나지만 같은 정도의 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구두쇠나 과시라는 지배적인 특성을 가졌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는 그 사람이 과시를 위해 돈을 쓰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과시가 지배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와 같은 사랑하는 것을 과시(명성과 명성)를 위해 기꺼이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과시를 위해 지출하기 어렵다면, 구두쇠가 지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시를 위해 쓰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특성을 타인을 통해 제거하려는 예는 죽은 시체의 일부가 [무덤에 묻힌 것]이 곤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곤충들이 먹을 것이 무덤에 남지 않으면, 이 곤충들은 서로를 잡아먹다가 수가 [계속] 줄어들어 결국 두 마리의 큰 곤충만 남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서로 공격하고, 우세한 쪽이 다른 쪽을 잡아먹습니다. 나중에 우세한 곤충은 먹을 것을 찾지 못해 굶주림으로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특성에서는 약한 특성이 강한 특성의 먹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에 대해 음식을 중단하는 의미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특성 자체가 약해지고 결국 끝이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구두쇠의 목표는 부가 소비로 사라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부를 쓰는 것이 매우 어려울지라도 그 요구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인색함의 질은 끝나고, 마음은 소비를 원하게 되며, 기질에 부담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인색함의 지식 기반 및 행동 기반 치료: 인색함의 지식 기반 치료는 인색함의 해악과 관대함의 이점을 이해하는 것이며, 행동 기반 치료는 자신의 기질(스스로)을 자선 활동에 쓰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구두쇠의 특성이 너무 지배적이고 압도적이어서 귀머거리와 눈이 멀게 만들고, 구두쇠 안에서 악을 못하게 만들고, 관대함에서 선함을

못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관대함의 정신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해와 이해를 얻지 못하며, 이는 결국 이 구두쇠의 성질이 죽을 때까지 영원히 남게 만듭니다. 약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부와 물질적 소유가 자신의 실제 필요를 넘어서는 상태입니다. 세계(그 가장 중요한 상징은 세계의 부와 물질적 소유)는 하나님의 적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적이며, 또한 하나님의 친구와 가까운 이들에게도 적인데, 그들은 그것을 참으려는 고난을 견뎌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종들(인간)이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적이기도 합니다. 부를 보호하는 것은 보호자와 다양한 보호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보호자들은 부의 소비를 필요로 하며, 이는 스스로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스스로를 소멸한다. 사실 세계(물질적 소유)는 세상이 끝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세상을 지키는 데 쓰인다. 물질적 소유의 해악을 인지하고 익숙해지지 않고, 그것을 얻은 것을 축하하지 않으며, 실제 필요 이상을 가져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필수품에 만족하는 자는 구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필요만큼의 부와 물질적 소유를 저축하는 것은 구두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키며 고통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웃 인간을 위해 자선적이고 유익한 노력에 쓰며, 이로 인해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승리를 얻는 데 사용한다].

부와 물질적 소유에 관한 인간의 의무: 아래에서 설명하듯, 부는 한편으로는 선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악하다. 비슷한 점은, 독과 해독제를 모두 가진 뱀과 비슷하며, 그 독은 치명적이지만 [해독제는 생명을 구한다]. 마찬가지로, 부는 독과 해독제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독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의 의무[부와 그 획득에 관한]를 주의 깊게 감시하는 사람이다.

첫 번째 의무: 그 목적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부와 물질적 재산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왜 인간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후에는 자신의 필요에 맞는 만큼 벌고, 필요한 것 이상을 지키지 않으며, 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세상 생활의 화려함과 화려함을 더하는 낭비 활동보다는 고귀한 일에 쓸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무: 신 성한 법에서 순전히 금지된 [갈취, 뇌물, 고리대금, 절도 등]이나 통치자로부터 얻은 부와 같이 대부분 금지된 소득원을 피하기 위해 수입원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뇌물이 섞인 선물이나 굴욕이 담긴 다른 사람에게 부탁(또는 구걸) 등 자신의 인격의 순수를 더럽히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도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의무: 개인 경제(재정적 필요)에 필요한 금액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 이상을 얻어서는 안 되며, [맹목적으로 물질주의적이고 탐욕스러워져 영성과 영적 노력을 즉시 죽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필요보다 적은 양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 필요는 세 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음식, 의복, 그리고 거주. 각 등급은 세 가지 등급을 가집니다: 평범함, 우수함, 그리고 중간(보통과 우수함의 중간 단계). 인간이 더 적은 것을 선호하지 않는 한, 자신의 진정한 욕구의 한계에 가까워지고, 그것을 넘으면 끝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속성에 대한 금욕의 책(14장)에서 이러한 학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했습니다.

네 번째 의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고귀하고 자선적인 목적에 지출할 기회를 주시하는 것입니다. 지출에는 절제가 있어야 하며, 과도하거나 [절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번 만큼 합법적인 목적에 투자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다른 사람에게서] 재산과 재산을 빼앗는 것이 죄인 것처럼, 부당하게 지출하는 것도 죄입니다.

다섯 번째 의무: 부와 물질적 소유물을 취하고, 주고, 멈추고, 소비할 때 올바른 의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법적·윤리적 수단으로 물질적 소유를 취할 때, 그 의도는 신성한 예배에서 그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질적 소유를 남겨두고 떠날 때는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부의 존재는 해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하길)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개인이 세상의 모든 보물을 소유하게 되고, 그 목표가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것(*리다*)이라면, 그 사람은 금욕자(세속적 기쁨)라고 불리며, 만약 누군가가 모든 부를 쓰고 하나님의 기쁨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러면 금욕자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모든 움직임과 휴식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신성한] 예배이거나 예배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셔츠, 잠옷, 침대, 냄비 등 하나님께 가는 길(*딘*)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작은 것들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삶에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넘어선 것을 보관하기보다는, 다른 하나님의 종들이 그것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의 필요를 가지고 왔고, 그것이 당신의 필요를 초과하는 것이라면, 도움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원칙을 따르는 자는 뱀에서 해독제를 추출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뱀의 진정한 가치이자 독으로부터 보호됩니다. 그런 사람은 부의 풍요로움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 칭호는 종교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얻는 것입니다. 부를 축적하고 그런 사람이 부를 가진 예언자 동료(*사하바*)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해가 부족한 아이와 같다. 마치 뱀 주인이 뱀을 조종하는 것을 본 후, 뱀 조종사가 뱀을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뱀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 아이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둘(부를 가진 예언자 동료와 자신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뱀에게 물린 사람은 명백하지만, 부에 물린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선배들(*살라프 살리힌*)과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몇 예언자 동료들은 부를 가지고 있어 구걸하거나 구걸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길에서 지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허용된(*할랄*) 음식을 먹고, 적당히 소비했으며, 이를 내세에서 성공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권리도 빼앗지 않았고, 구두쇠를 실천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재산과 물질적 재산을 하나님의 길에 쏟았고, 일부는 자신의 재산을 자선에 쏟아 타인의 필요를 자신보다 우선시하며 [진정으로 이타적인 방식으로]. 내가 묻지, "너도 그런 사람이니?"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경건한 선배들과 조금도 닮지 않았다.

예언자 동료들은 어땠나요? 예언적 동료들은 영적 풍요로움과 함께 오는 [물질적] 가난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 자신들의 생계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에 만족하며, 견뎌야 했던 고난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가난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를 실천했다. 그들은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낮추었고, 오만함, 우월감, 풍요로운 물질적 소유에 대한 교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허용되는 부분만을 세상에서 가져갔고, 자신들의 진짜(인지된 필요와는 달리) 그에 상응하는 양을 받아들였으며, 세상(세속적)을 거부했고, 그 고난을 인내하며 견디고, 쓴맛을 맛보고, 위로와 축복을 거부했습니다. 네가 그런 사람이라고 맹세할 수 있니? 세상이 그들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두려움에 떨었고, 자신들이 즉각적인 죄를 지었으며, 그 즉각적인 벌이 세상(물질적 성취)의 형태로 내려진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이 닥쳤을 때, 그들은 그것을 환영하며 의로운 길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예언적인 동료들에 관한 전통을 전해왔는데, 아침에 집에서 무언가를 보면 지나치게 슬퍼하고, 아무것도 찾지 못하면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에 놀라며 "사람들은 집에 부가 있는 것을 보면 기뻐하지만 슬퍼한다"고 말하면, 그들은 "내가 가족과 함께 무언가를 보면 슬퍼하는 이유는 내 집이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의 가문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답하곤 했습니다. 어떤 예언적인 동료들에 대해, 그들이 번영을 경험할 때 슬픔의 상태를 볼 가치가 있었고, 그들이 "세상(세속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고난이 그들에게 쏟아지고 제약이 집에 들어오면, 그들은 기뻐하며 그것을 좋은 징조로 여기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운 시선을 드리셨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들은 경건한 선배들(*살라프 살리힌*)의 상태와 특성이다. 그들 관점에서 보면, 부가 더 낫거나 빈곤이 더 나은지 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맹세하고 같은 [내면의 영] 상태를 가졌다고 확언할 수 있나요? 당신은 이 신성하고 신성한 사람들과 조금도 닮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이제 나는 너희 상태를 이야기하고, 경건한 선대들의 조건과 자질과는 전혀 맞지 않는 너희의 성격을 밝히겠다. 부에 반항하고, 번영에 자부심을 느끼며, 편안하고 기쁨으로 춤을 춥니다. 당신은 가난을 증오하지만, 그것이 신의 예언자들에게는 자부심의 수도였다. 그들의 자존심의 수도가 싫어. 당신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를 축적하지만, 이는 하나님에 대한 나쁜 인식을 품고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뢰 부족의 증거입니다. 이 한 가지 일은 당신의 [임박한] 불길한 결말을 보여주는 정당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단지 세속적 축복과 욕망, 위안,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부를

축적한다는 것, 우리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شرار امتی الذین غنوا بالنعیم فربت علیه اجسامهم

"우리 나라에서 가장 나쁜(악한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호화로운 음식을 먹고 몸이 그것으로 영양분을 얻는 사람들입니다(즉, 세상의 안락함, 사치, 좋은 삶에 익숙하며, 하나님의 수용과 승인을 받기 위한 영적 길에서 뛰어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노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한 학자는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선한 경건한 행위를 찾으러 올 때,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준다고 말했습니다:

أَذْهَبْتُمْ طَيِّبَٰتِكُمْ فِى حَيَاتِكُمُ ٱلدُّنْيَا وَٱسْتَمْتَعْتُم بِهَا

"너는 이미 세상에서 좋은 일들을 이루었어 [너희가 사치스럽고 화려한 삶을 살았으니 내세에 너희를 위한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 (꾸란 46장 20절)

무심한 잠에서 일어나라! 만약 이 세상의 축복 때문에 저승의 축복을 빼앗긴다면, 그곳은 큰 고난과 슬픔, 고난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부를 축적하여 풍요로움에 대해 자부심을 표현하고, 그 위에 자신이 우월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과잉과 교만을 쌓는 자는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이 불쾌해하실 상태라는 전통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은 하나님의 불쾌함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상태에 몰입해 최후의 결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가까이 가는 것보다 세상에 사는 것이 더 사랑스럽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당신의 결핍감은 볼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상태는 종교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상(세속적 재산)을 축적하고, 그것을 이루면 행복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من احب الدنیا وسر بها ذهب خوف الآخرة من قلبه

"세상을 사랑하고 그것을 이루면 행복한 자는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그런 자의 마음에서 떠난다."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로, 내세와 관련된 일에는 같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은 세상(화려함, 화려함, 영광, 부, 물질적 소유)을 얻지 못하는 고통만큼 크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를 잃는 것만큼 죄(잘못)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명성과 권력을 얻기 위해 자본을 전부 쓸 수 있지만, 고통받는 사람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창조물을 행복하게 하여 존엄과 명예를 얻을 수는 있지만, 신의 승인을 받을 시간은 없습니다. 부가 당신의 결점을 숨기고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진정]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언제 하나님의 지식과 인식에 관심을 가지나요? 너는 이 세상의 굴욕을 참지 않지만, 내세에서 마주할 굴욕은 준비되어 있다. 이 [하나님의 종들](창조물)은 하나님보다 당신에게 더 사랑받으십니다. 만약 이것이 무지가 아니라면, 그게 무엇일까요? 당신의 내면은 셀 수 없이 많은 더러움으로 더럽혀져 있고, 셀 수 없이 많은 결점의 원천이지만, 당신은 당신의 부를 하나님의 의로운 종들의 재산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슬프게 도! 경건한 선배들의 [행동과 성격]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맹세코, 그들은 허용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신이 허용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절제했습니다. 그들은 사소한 실수(하나님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를 당신이 큰 죄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성격이 그들과 맞지 않는 우리(경건한 선배들)는 이 세상에서 그들과 같지 않으며, 내세에서도 그들의 동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집단 간의 차이는 매우 뚜렷합니다.

만약 당신이 경건한 선배들의 본보기로 본다면, 적은 것에 만족하고, [허용되고 합법적인] 물질적 소유물로도 금욕하며, 하나님의 길에서 가능한 한 많이 소비하고, 이타적이어야 하며,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에 대한 탐욕을 증오하며, [물질주의]와 [그에 따른 고난]을 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난함에 만족하고, 겸손을 좋은 것으로 여기며, 오만함과 높은 지위 추구는 경멸로 바라보며, 자신의 일에 강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마음은 인도를 싫어하지 않으며, 당신은 하나님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스스로에게 책임을 졌을 것이고, 하나님의 승인과 수용의 틀에 맞춰 모든 상태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심판의 날에 책임을 지지 않고, 경외하는 자로 간주될 것입니다.

예수 전통에서 부에 대한 탐욕의 예: 자리어는 '레스(Laith)'에서 한 남자가 예수님의 곁을 받아들였다고 전합니다(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둘은 어딘가로 가다가

시냇가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함께 그 옆에 앉아 식사를 했다. 빵이 세 개 있어서 둘 다 하나씩 먹었고, 세 번째는 남았다. 예수께서 물을 마시러 개울가에 가셨는데, 돌아오셨을 때 세 번째 빵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여행 동료에게 물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예수님은 조용히 계시고 여정을 재개하셨습니다. 그들은 암컷 사슴과 그녀의 두 마리 아기 사슴을 발견했다. 예수께서 아기 사슴 중 한 마리를 부르셨고, 그 새끼가 와서 그 사슴을 도살하여 고기를 요리하고 먹어 여행하는 동료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기 사슴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고, 새끼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여행 동료에게 말했다. "이 기적을 보여주신 존재(하나님)께 맹세하여 묻습니다. 세 번째 빵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는 "모르겠어"라고 대답했다. 그 후 두 사람은 시야가 닿는 곳마다 물이 가득한 계곡에 도착했다. 그는 손을 잡고 물 위를 걸어 그 계곡을 건넜다. 그들이 마른 땅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다시 물었다. "이 기적을 보여주신 존재(하나님)께 맹세하여 묻습니다. 그 빵을 가져가신 분이니까요?" 그는 다시 "모르겠어"라고 대답했다. 여정이 재개되었고 이번에는 정글에 도착했을 때 멈췄다. 예수님은 흙과 벽돌, 돌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흙더미와 돌, 벽돌이 금으로 변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내 것이고, 하나는 네 것이고, 하나는 세 번째 빵을 받은 자를 위한 것이다." 그의 여행 동료는 즉시 "내가 세 번째 빵을 가져간 자다"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그에게 거기에 있던 모든 금을 주시고 그와 떨어져 나가셨습니다. 그 남자는 정글에서 금 더미와 함께 앉아 있었고, 두 남자가 도착했다. 이 부를 본 그들은 탐욕스러워져 그 남자를 죽이고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는 간청했다. "날 죽이지 마세요, 우리 모두 이 부의 동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중 한 명은 근처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야 해. "우리가 먹으면 그 모든 것을 우리끼리 나눌 것이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음식을 사러 갔고, 마음속으로 '음식에 독을 섞으면 이 둘이 죽고 내가 이 재산의 유일한 주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반면, 정글에서 기다리던 두 사람은 그가 음식을 가져온 후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며, 금을 두 반으로 나누어 나누려 했다. 세 번째 남자가 마을에서 음식을 가져왔을 때, 그들은 그를 죽였고, 그 후 자신들도 독성 음식을 먹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금 더미는 그곳에 남아 있었고, 세 명의 시체는 독수리와 개가 먹은 금 주변에 누워 있었다. 며칠 후, 예수님(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이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가 그것을 보고 여행 동료들에게 말했다. "보라,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다. 그러니 조심해야 한다!"

8장- 명성과 찬사를 추구하는 해악

가잘리의 대작 『Ihya al-Uloom ad-Deen』*의 세 번째 권 또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여덟 번째 책* 은 명성과 인기를 추구하는 데서 오는 해악을 다룬다. 이러한 문제들은 너무 자기 파괴적이어서 삶을 사로잡고 영적 길에서 벗어나게 하며, 이 논문의 첫 부분에서 이미 설명한 영적 길에서 벗어나게 하며, 내면의 평화와 평온을 빼앗는다. 가잘리는 이러한 병들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하며, 그 기원과 함께 마음에서 이를 없애는 방법을 처방하여 내면의 평화와 평온으로 채워줍니다. 명성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주의와 그로 인한 오만함을 조장하며, 자아에 대한 집착(*나프스*)과 그 단점에 대한 맹목을 조장하여 자기 개혁의 모든 가능성을 말살하고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 합니다. 칭찬을 구하는 것은 또 다른 해로운 특성으로, 선한 인간의 행동에서 진정성을 빼앗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자기 과시적이고 숨은 의도로 오점이 생깁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 가치를 진정한 실체와 의미가 결여된 허위 있는 허세로 축소시킵니다. 가잘리는 내면의 평화와 평온을 방해하는 이러한 내면의 병에 대한 치료법을 제공합니다. 가잘리의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제시된다 [14]: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إني أخوف ما أخاف على امتي الرياء والشهوة الخفية التي هي اخفى من
دبيب النملة السوداء على الصخرة الصماء في الليلة الظلماء

"나는 [두 가지 해로운 내면의 특성인 과시와 명성, 명성, 인기를 추구하는 은밀한 욕망]을 가장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검은 밤에 검은 바위 위를 기어다니는 검은 개미보다 더 은밀하다 [감지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묻혀 영적 길을 피하게 하는 이 두 가지 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내레이션 이*븐 마자*와 *하킴의 하*디스 *모음* 집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그래서 위대한 학자들(스콜라 신학자들)조차도 과시와 은밀한 욕망의 해악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비학자이자 평신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 지식을 갖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과시는 자아(나프스)의 내면적 해악 중 마지막 중 하나이며, 그 은밀한 속임수와 특히 이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스콜라 신학자, 예배자, 그리고 내세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자들이다. 이는 이들이 어려운 영적 투쟁 후 하위 자아(*누푸스, 즉* 나프스*의 복* 수형)를 복종시키며, 의심스러운 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금지된 것이나 명백한 것뿐만 아니라 보기 어려운 것들] 그리고 신성한 숭배에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산만함과 혼탁함 없이 영혼이 맑고 명료하게 변모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는 지금까지 영적 노력으로 인해 신체 장기에서 노골적인 죄를 저지를 수 없게 됩니다.

이 내면의 자제심 고난에서 조금이나마 긴장을 풀기 위해, 그들은 선한 선행을 보여주고 [결과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와 존경을 얻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다. 이러한 인기는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본질적으로 어려운 영적 노력 때문에 벗어나기 힘든 고난의 강도를 줄여줍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며, 창조물(동료 인간)이 그들의 숭배와 노력을 인지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께서 그들의 예배 행위와 영적 노력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을 찬양하는 데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욕망과 정망을 거부하고, 의심스러운 것을 멀리하며, 신성한 예배의 엄격함을 멈추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혀는 우리를 찬양하는 데 분주할 것이고, 우리의 찬양을 과장하며, 그들의 눈에

우리를 존경하고 존엄하게 여길 것임을 안다. 그들은 우리를 만나 바라보는 것을 큰 영광과 자부심의 원천으로 여길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기도를 이용하고, 우리의 의견을 따르며, 우리를 섬기고, 인사와 경례에서 주도하며, [사교] 모임에서 우리를 존중하고 존중하며, 사고파는 것에서 양보를 해주고, 모임에서 우리를 [모두] 앞서 나가게 하며, 음식, 음료, 옷차림에서 자신보다 우리를 우선시할 것입니다. 그들은 겸손함을 유지하며 우리에게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숨은 동기와 목적]에 복종할 것입니다. 하위 자아(*Nafs*)는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쾌락을 얻어 죄를 버리기 어렵지 않고, 예배의 규칙성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낮은 자아가 [앞서 언급한 모든 이익에서]의 쾌락을 인지한 것이 모든 쾌락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에 몰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그런 사람은 강하고 건전한 지성만이 인식할 수 있는 숨겨진 욕망에 빠져 있지만, 이는 진리와 올바른 이해에 단단히 뿌리를 둔 강한 지성만이 지각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금지한 것들(하람)에서 제지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낮은 자아는 욕망과 정망을 스스로 자리 잡아 하나님의 종들(인간) 앞에서 예배가 과장되고 사람들의 거짓 찬양에서 행복을 찾게 한다. 이로 인해 신의 순종과 예배에 대한 신의 보상이 무의미해지고, 그들은 의로운 행위의 축복을 박탈당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친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위선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명성과 인기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비난

인기(명성과 팔로워를 추구하거나 추구하는 욕망)는 비난받으며, 익명성은 선호되고 선호됩니다. 아나스 빈 말릭(신께서 그에게 기뻐하시길)은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가 이렇게 말했다고 말했다:

حب المرء من الشر الا من عصمه الله يشير الناس اليه بالاصابع في دينه و دنياه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을 제외하면 한 사람 안에 충분한 악이 있어서,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나 세상(세속적 지위, 명성, 능력, 재능, 권력 또는 부에 의한 인기)에 대해 손가락으로 한 사람을 가리키게 한다." (내레이션 *하디스* 모음 *집 바이하키 피 알-슈압*)

바샤르(신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길)는 "인기를 좋아하고 신앙(종교)이 파괴되고 모욕당하지 않은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명예를 추구하는 자는 내세의 즐거움을 누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익명의 우수성: 무함마드 예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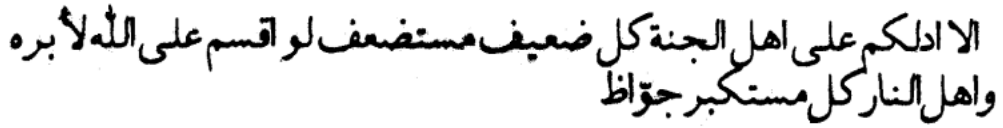
رب اشعث اغبر ذي طمرين لا يؤبه له لو اقسم على الله لأبره منهم البراء بن مالک

"헝클어진 머리와 먼지 쌓인 숄을 두른 이들이 많으며, [가난하고, 하찮아 보이며, 겸손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아 세속적 지위가 없어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이 신에게 맹세한다면, 신은 그들이 맹세한 것을 반드시 실현시켜 줄 것이다 [그들은 영지로 인해 신 앞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친밀함] 그리고 바라 이븐 말릭(예언적 동료)도 그 중 하나이다." (내레이션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무슬림 사히흐 *하디스* 모음 집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압둘라 빈 마수드(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가 이렇게 말했다고 말했다:

رب ذي طمرين لا يؤبه له لو اقسم على الله لابره' لو قال: اللهم اني اسالک الجن لاعطاه الجن ولم يعطه من الدنيا شيئا

"숄 두 개만 두르는 사람들 [가난함을 드러내는 옷은 그게 전부인가] 아무도 그들에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만약 그들이 무언가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맹세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실 것이다. 만약 그들이 이렇게 간청한다면, '오 하나님! 나는 주님께 천국을 구하노니, 하나님께서 세상 어디에도 아무것도 주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레이션 *하디스* 모음집 *이븐 아비 아드 둔야*와 *아부 만수르 아드-다일라미*)


الا ادلكم على اهل الجنة كل ضعيف مستضعف لو اقسم على الله لأبره
واهل النار كل مستكبر جوّاظ

"천국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말아야 하나? 하나님께 맹세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맹세를 이행할 것이라면, 지옥의 사람들은 모두 오만하고, 미개하며, 무례하고, 불쾌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내레이션 *하디스* 모음집: *사히흐 부카리*와 *사히흐 무슬림*)

푸다일(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는 말했다: "네가 모르게 지낼 수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라. 명성과 인기를 얻고, [전국 각지에서]의 칭찬을 모으는 것이 꼭 필요할까요? 만약 당신이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면, 사람들의 눈에 미움을 받아도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전통들은 명성에 대한 비난(바람직하지 않음과 낙담)과 익명성의 우수성(알려지지 않음)에 대해 빛을 비춘다. 명성과 인기가 그 자체로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명성(사회적 지위)의 획득이 목표이며, 권력과 명예를 좋아하는 것이 모든 혼란의 근원이다. 명성과 인기를 추구하는 것은 비난받지만, 그것을 원하거나 추구하거나 노력하지 않고 오로지 신의 은총만으로 얻는다면 비난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정신적, 감정적, 심리적,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핏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 문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약하다는 예시는 손과 발을 움직일 줄 알지만 수영은 모르고 익사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익사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손과

발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을 모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익사하지 않으려 애쓰며]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런 사람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 스스로도 익사하게 되고, 시도하는 사람도 익사하려 합니다. 하지만 권력자에게는 명성이 해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익사할 위기에 처한 이들은 숙련된 수영 선수를 잘 알고 있어야 그 명성을 잡아 [안전] 해안에 도달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에 대한 사랑을 정죄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تِلْكَ ٱلدَّارُ ٱلْأَخِرَةُ نَجْعَلُهَا لِلَّذِينَ لَا يُرِيدُونَ عُلُوًّا فِى ٱلْأَرْضِ وَلَا فَسَادًا

"우리는 자기 과시(위대함)와 지상의 혼란을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세의 거처를 주리라." (꾸란 28장 83절)

이 구절에서는 혼란과 위대함과 영광을 추구하는 의도와 욕망이 한 곳에 함께 언급되며, 내세는 의도와 욕망이 모두 없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혼란을 퍼뜨리고 위대함을 추구하는 자들, 이 둘 다 영적 열망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حب المال والجاه ينبتان النفاق في القلب كما ينبت الماء البقل

"부와 명성에 대한 사랑은 물이 식물을 키우듯 마음속에 위선을 키운다."

명성의 의미와 현실: 명성과 부는 세상의 두 가지 요소입니다. 세상의 의미는 [물질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명성의 의미는 존경받고 복종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유자(포로이자 복종자)가 되는 것이다. 부유한 사람이 돈을 소유하게 되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하위 자아(나프)의 욕망과 쾌락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처럼, 유명인이 마음의 소유자(포획자이자 복종자)가 된 후에는 자신의 이익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합니다. 부가 다양한 산업과 직업을

통해 얻는 것처럼, 아름다운 행동과 자비로운 행위로 마음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지식과 믿음을 통해 정복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누군가에게 어떤 특성이나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은 그 마음에 정복당하고,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의 질과 능력에 대한 믿음의 힘과 강도에 상응하여] 그 사람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추구하거나 존경받는] 특성이나 능력은 그 자체로 완벽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찬양자의 마음속에서 완벽함으로 인식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것(감탄자의 마음)은 때때로 현실의 완벽함이 아닌 어떤 것을 완벽함으로 인식하고, 그 마음이 감탄받는 사람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마음의 복종은 조건(상태)이며, 마음의 상태는 그 믿음, 지식, 상상에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부와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는 기질이 사람들을 통제하려 하듯,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인간의 목에 노예 족쇄를 채워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통제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려 합니다. 명성을 추구하는 자가 추구하는 노예제(통제)는 부를 추구하는 자가 추구하는 노예제보다 훨씬 큽니다. 이는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강제로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단 한 순간도 복종하지 않을 사람들을 통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명성을 추구하는 자는 자신의 자유 의지와 선택으로 [자유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사람들이 그런 자발적이고 기꺼이 복종하기를 바라며, 이 복종과 복종이 그들의 제2의 본성이 되길 바란다. 이로부터 명성을 추구하는 자의 목표가 부를 추구하는 자의 목표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매우 잘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성의 의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즉, 탁월함, 구별, 완벽함 중 하나(내면의 특성)가 존재한다는 마음의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완벽함에 대한 이 믿음의 강도에 비례하여 [사람들에 의해] 추종의 과잉이 있을 것이고, 그에 비례하여 명성을 추구하는 자가 마음의 통제와 복종을 추구하며, 이 마음의 통제와 복종에 비례하는 것은 명성과 그로 인한 행복에 대한 사랑이 될 것이다. 명성에는 결실과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칭찬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 누군가의 완전함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가만히 하지 않고 [인식된]

완전함을 칭찬한다. 명성과 명예의 열매 중에서, 명예를 가진 자에게 봉사하는 것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명성을 가진 자에게 봉사하며 그를 위해 복종하며, 명성을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자에게 복종한다. 마찬가지로, 명성을 가진 자에게 이타적이고, 의견 차이를 드러내지 않으며, 먼저 존중하고 인사하고 경례하며, 모임에서 주빈이 되고, 모든 일에서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마음에 자리를 주고 완벽함을 믿을 때 얻는 명성의 열매 중 하나이다 - 그것이 지식 때문이든, 숭배, 아름다운 습관, 외면의 아름다움, 혈통, 정치적 권위, 권력, 또는 사람들이 완벽하다고 여기는 다른 어떤 측면들. 이 모든 [개인적] 속성들은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그 소유자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왜 명성이 그렇게 좋아할까요? 왜 어떤 사람들이 명성을 그렇게 좋아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관해서는, 명성이 없는 마음은 거의 없으며, 강한 영적 노력 없이는 명성을 없앨 수 없습니다. 명성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과 은을 소유함으로써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소유하고 정복함으로써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도 얻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부와 명성)를 사랑하는 원인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부와 명성에 대한 사랑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명성이 부보다 더 낫기 때문에 명성에 대한 사랑이 부보다 더 큽니다.

왜 명성이 부보다 우선할까요? 명성은 부보다 선호되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 명성을 통해 부를 얻는 것이 부를 통해 명성을 얻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속적인 것을 피하는 자 *히드(Zahid*)나 존경심이 마음에 깊이 박힌 스콜라 신학자(*'알림*)'가 있다면, 존경하는 마음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재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부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완벽함의 어떤 특성도 결여된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명성을 잃고 부를 통해 명성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로부터 명성을 통해 부를 얻을 수는 있지만, 부를 통해 명성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점에서 명성이 더 사랑받는다.

두 번째 이유: 부는 도둑맞고 납치될 수 있으며, [정부] 관리와 억압자들이 그것을 탐내기 때문에 낭비될 수 있습니다. 보호와 경비, 안전한 보관이 필요합니다. 사실, 부는 많은 해로움을 동반합니다. 반면, 마음의 소유자가 된다면, 심장에는 너무 깊이 숨겨진 보물이 있어 도둑맞거나 약탈자들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의 보물들은 그 자체로 보호되며, 그런 점에서 명성은 압수와 도난으로부터 스스로 보호된다. 하지만 마음의 보물에는 누군가가 오도(환멸)을 일으키거나 명성을 가진 자를 비방하여 [명성의 완벽함에 대한 믿음]을 지워버릴 위험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위험은 거의 직면하지 않으며, 둘째로(존경받는 사람의 완벽함에 대한 믿음)는 큰 어려움 없이 방어할 수 있으며, [셋째] 이 믿음은 일반적으로 마음속에 너무 깊이 뿌리내려 악의자의 노력이 [대개]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틀렸거나 근거 없어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 하트의 소유권은 무한하고 문제없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음이 존경으로 가득 차 있고 자신의 지식과 선행을 믿을 때, 혀는 반드시 그 사람을 찬양하고 영광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스스로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도 같은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질은 인기와 명예를 좋아하는데, 누군가의 언급이 흔해지면 명성이 도시에서 도시로, 나라에서 나라로 퍼지면서 마음이 존경과 명예를 얻게 됩니다. 이 명성의 전승 사슬은 계속해서 이어지며 끝도 한계도 없습니다. 부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고난과 사랑 없이는 부를 늘릴 수 없습니다. 명성은 끊임없이 변하며 멈추지 않습니다. 부는 한 곳에 머물며 증가하려는 노력에 따라 증가합니다. 그래서 부는 명성보다 열등하다.
이것들은 부보다 명성을 선호하는 몇 가지 고위적인 이유들이며, 더 자세히 설명하면 무수히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와 명성에 대한 사랑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유는 명백하고 모두가 알고 있으며, 두 번째 이유는 숨겨져 있는데, 그게 가장 큰 이유지만 매우 미묘합니다. 둔감하거나 지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이해심이 있는 사람도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이 [미묘하고 위대한] 이유가 하위 자아(*Nafs*)의 내면의 혈관과 인간 기질의 비밀스러운 요구에서 도움을 받으며, 이 바다에 깊이 잠입하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 - 두려움 제거: 이 이유의 결론은 인간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를 탐욕스럽게 탐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나쁜 생각(불안)은 인간을 탐욕스럽게 만든다. 비록 충분한 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지만 인간은 장수를 원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욕망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마음속에는 자신이 가진 부가 끝나고,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궁핍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생각]이 마음에 일어나면 두려움이 마음을 감싸고, 그 두려움은 다른 부가 생기지 않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으며, 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첫 번째 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강한 사랑은 자신이 오래 살 것이라고 추정하게 만듭니다. 이와 함께, 수명이 길어질수록 욕구도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또한 "내 재산은 해악과 고난으로 얼마 안 됐고 언제든 헛되이 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 생각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데,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점점 더 많은 부를 얻어 일부 부가 낭비되면, 두 번째 부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는 일을 없애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고정된 부의 양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며, 대신 세상 전체의 주인이 되기를 바란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منهومان لا يشبعان منهوم العلم ومنهوم المال

"두 명의 탐욕스러운 사람은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 한 명은 지식을 탐하고, 다른 한 명은 부에 탐욕스럽다." (내레이션 *아부 마수드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 집* 타바라니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이것이 명성을 사랑하는 이유와 거의 같습니다. 먼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높은 존경과 가치를 인정하고자 하는 개인은, 실제로 언젠가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하거나, 어떤 이유로 그 사람들이 고향에 와서 살게 될까 봐 두려움에 얽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들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능성은 존재하며, 멀리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의 높은 존경과 가치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일은 매우 즐겁고 즐거운 일입니다.

두 번째 이유: 이것은 더 강력한 이유이며, 그 결론은 영혼이 신성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꾸란은 영혼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وَيَسْـَٔلُونَكَ عَنِ ٱلرُّوحِ ۖ قُلِ ٱلرُّوحُ مِنْ أَمْرِ رَبِّى

"그들은 영혼에 관해 묻는다. 그 영혼이 주님의 명령에서 온 것이라고 전하라." (꾸란 17장 85절)

영혼이 "주님"(신의 명령에 속함)이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드러난 지식(*울룸 알-무카샤파*)의 비밀과 관련이 있으며, 그 비밀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신성한 지혜로 인해 그 신성함을 보존하기 위해 대중이 이해와 감사를 하지 못해 그 신성함을 보존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으로 빛나는 영혼들, 즉 모든 지식 중 가장 높은 지식을 추구하는 영적으로 빛나는 영혼들을 위해 그것을 남겨두는 것]. 이는 만약 그 폭로가 허용되었다면,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가 분명히

영혼의 실재를 드러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논의하기 전에, 영혼은 네 가지 유형의 특성(내적 특성과 기질의 성향)에 경향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먹고 교미하는 것과 같은 동물적인 특성들. [둘째,] 살인, 때리기, 고통 주기와 고난과 같은 야수적인 특성들. [셋째,] 사탄의 특성, 예를 들어 속임수, 교활함, 그리고 올바른 인도와 올바른 길에서 사람들을 만류하는 것. [넷째,] 오만함, 명예, 우월함 같은 신성한 특성들. 마음이 이러한 다양한 특성을 선호하는 이유는 인간이 설명하기 어려운 원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그래서 기질적으로 주권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주권의 의미는 완전함에서의 독특함과 존재의 인내입니다. 이는 존재를 공유하는 것이 불완전함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완벽함은 존재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다른 태양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는 태양이 유일하고 유일한 완전함이라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완전했을 것입니다. 존재에서 유일무이한 것은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전능함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이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 존재합니다. 존재 속의 공존은 계급의 평등을 요구하며, 계급의 평등은 탁월함과 완벽함의 불완전함이다. 완성된 자는 자신의 계급에 모범(공동 공유자)이 없는 자만을 뜻한다. 태양의 빛은 온 세상을 밝히며, 그것은 그 불완전함이 아니라 그 완전함의 표시입니다. 불완전함은 같은 지위와 계급의 다른 태양이 있었을 때 두 번째 태양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때일 것이다. 신을 제외한 모든 존재의 상태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또한 진짜 태양(신)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찾은 후에도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존재들은 실재(신)에게 종속되어 있으며, 그들에게 복종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권(*Rububiyah*)은 존재 자체에서 유일무이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은 기질적으로 완벽함 속에서 독특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영적 지도자들(성인과 영지주의자들)은 바로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설명한 내면의 내면을 가진 인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أَنَا رَبُّكُمُ الْأَعْلَى

"나는 당신의 주군, 최고 주인이다." (꾸란 79장 24절)

하지만 인간은 우월하고 최고가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완벽을 원하지만 완벽해질 능력이 부족합니다. 신(*우부디야*)의 노예 상태(노예 상태)는 하위 자아(나프스)에 강력한 권력을 가하며, 지배권(*루부비야*)은 기질적으로 사랑스럽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암시된 [신성한] 주권과 맺어진 이 연결 때문에, 그 영혼이 나의 주님의 명령에서 온 것이라고 말하라"는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사랑과 완전함에 대한 열망은 끝나지 않으며, 인간은 그 [단순한] 상상력에서 기쁨을 얻지만, 인간은 완성의 절정에 도달하지 못한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존재와 그 존재의 완전함을 사랑하며, 존재의 종말과 [인식되고 추정된] 완전함의 질을 잃게 하는 죽음을 증오합니다. 존재가 끝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함으로 간주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다른 존재들보다 우월하고 지배적인 위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권위, 우월감, 그리고 자신의 기질에서 지배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의도와 욕망에 따라 변화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며, 그 대상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종속될 때, 그것은 사물에 대한 지배로 간주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자신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 것이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존재의 종류: 존재하는 존재들은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어떤 존재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처럼 어떤 변화나 영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존재들은 변화를 받아들이지만, 인간 같은 창조물들은 천국, 별, 천상의 지배자, 천사 존재, *지상*에 존재하는 초자연적이고 보이지 않는 존재인 진(Jinn), 악마 등으로 변화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종류는 인간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들, 예를 들어 땅의 구성 요소, 광물, 식물, 동물 등을 포함한다. 이 존재들 중에는 변화와 영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으며, 이는 몸과 마찬가지로 동물의 몸에 존재하는 변화와 영향의 능력과 같습니다.

지식에 기반한 지배욕: 존재를 가진 존재들의 구분은 어떤 존재는 지구에 속한 것들처럼 인간의 영향력을 가진 존재이고, 어떤 존재는 신, 천사, 천국(하늘과 우주 너머, 심지어 그 너머)처럼 인간의 영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늘(우주와 그 너머)을 지배할 수 없으니, 지식을 통해 지배를 이루고 그 비밀과 미묘함을 이해해야 한다고 원했으며, 이것이 지배의 한 형태입니다. 지식으로 포괄된 사물이 지식에 들어가고, 학자는 그것에 대한 지배자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지식 때문에 물리적 지배는 없지만]. 지배에 대한 욕망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천사, 우주, 별, 산, 바다의 경이로움과 신비를 익히도록 강요했습니다. 지식 또한 지배의 방식이며, 지배는 또한 일종의 완벽함입니다. 지식의 완성은 인간에게 행복을 불어넣는다.

첫 번째 유형은 [지식에 기반한 지배]와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찾지 못하지만, 통제와 영향의 지배를 원하여 원하는 대로 영향과 변화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것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몸과 영혼. 몸에는 금, 은, 물질적 소유물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에서 인간은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영향을 미치고, 원하는 곳에 두고, 원하는 사람에게 주고,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지배와 권력을 갖는 것을 '능력'이라고 부르며, 능력은 완벽함입니다. 완벽함은 주권의 특성이며, 주권은 인간의 기질에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필요하든 아니든, 옷, 먹기, 마시고, 욕망 충족과 같은 욕망을 채우는 데 부를 사랑합니다. 몸과 영혼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마음은 완벽함에 대한 믿음 없이는 정복(또는 복종)되지 않기 때문에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완벽함을 대신하게 됩니다. 분노와 권력에서도 쾌락을 찾는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도 통제와 특권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유형[지식에 기반한 지배]에는 인간의 자아(*누푸스*)와 마음(*쿨룹*)이 포함됩니다. 지구상에서 그것만큼 고귀하고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자아와 마음을 지배하고,

정복하며, 원하는 어떤 변화든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의 이유는 마음을 정복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지배의 완성이며, 신성한 주권(*루부비야*)의 특성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음이 사랑 없이는 정복되지 않고, 사랑은 자신의 완전함에 대한 믿음 없이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며, 모든 완전함은 신성한 속성과 관련되어 사랑받고 사랑스럽고, 신성한 속성은 신성한 명령(영혼)과 얽혀 있기 때문에 사랑스럽습니다 [주권 쪽으로 기울어짐] 인간은 죽음에 의해 소멸될 수 없고, 죽음 후 땅에 묻힐 때 흙에 삼켜지지 않는 신성한 명령(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영혼인 신성한 명령]은 신성한 존재, 현실, 빛, 인도, 명령에 대한 믿음과 영지, 신성한 친밀감, 근접성의 거처입니다. 바로 이 존재(영혼)는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수단이며, 신성한 비전의 원인입니다.

지금까지 쓰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명성의 의미는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다. 마음을 정복하고, 지배와 통제를 얻으며, 지배는 완전함이며, 이는 다시 신성한 주권의 속성이다. 그래서 [인간] 기질은 지식과 권력을 사랑합니다. 부와 명성은 권력의 이유다. 지식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지식과 권력의 경계 밖에 머무르기 전까지는 그것에 대한 욕망과 열정이 충족되지 않고, 인간의 완전함에서의 결핍도 제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지식을 탐내는 사람과 부를 탐하는 사람에 대해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증명된 것은 완전함이며, 완전함은 지식과 권능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차이는 무수히 많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가진 완벽함의 정도만큼 쾌락과 행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욕망이 충족되더라도 명성과 부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는 이유입니다. 즉, 욕구가 충족되더라도 명성과 부에 대한 사랑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식에 관해서는, 인간은 그것이 어떤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목표 달성에 장애물이 되더라도 그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질은 길의 고난을 견디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다채된] 지식의 경이로움으로 마음을 장식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지식의 주체에 대한

지배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며, 이 지배는 완전함이며, 완벽함은 신성한 속성(질)이기에 본질적으로 사랑받고 탐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완벽함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그분의 행위, 하늘과 땅, 세상과 저승에서의 지혜, 그리고 그들에 속한 중요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진정한 완전함입니다. 이 완전함을 부여받은 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지(*마리파*) 상태에서], 이 자아의 완전함(*나프스*)은 죽음 이후에도 남아 있으며, 꾸란이 말한 것처럼 [신성한 영지의 빛으로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으로 이끄는 빛나는 빛]이 될 것입니다:

يَسْعَىٰ بَيْنَ أَيْدِيهِمْ وَبِأَيْمَٰنِهِمْ يَقُولُونَ رَبَّنَآ أَتْمِمْ لَنَا نُورَنَا

"그들의 빛은 앞과 오른쪽으로 뻗어 나가며 기도할 것이다, '오 우리 주님! 이 빛(조명)을 영원한 상태로 우리를 위해 완성하소서'." (꾸란 66장 8절)

다시 말해, 이 영지(그노시스)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지식도 알려질 만큼 자본(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은 마치 심지와 기름이 들어간 작은 램프를 가진 사람이 약해진 빛을 가진 다른 램프(조명)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램프조차 없는 사람은 다른 램프를 켤 수도 없고 원래 조명을 완벽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노시스(신성한 지식, 친밀함, 신성과의 친밀함)를 잃은 자는 빛나는 등불을 잃은 자와 같습니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كَمَن مَّثَلُهُۥ فِى ٱلظُّلُمَٰتِ لَيْسَ بِخَارِجٍ مِّنْهَا

"[신성한 빛으로 빛나는 자, 영지의 상태에서] 어둠 속에 잠겨 [어둠 위에] 빠져나올 수 없는 자와 같을 수 있는가?" (꾸란 6장 122절)

대신, 자신이 있는 어둠의 유사성은 다음과 같다:

أَوْ كَظُلُمَٰتٍ فِى بَحْرٍ لُّجِّىٍّ يَغْشَىٰهُ مَوْجٌ مِّن فَوْقِهِۦ مَوْجٌ مِّن فَوْقِهِۦ سَحَابٌ ۚ ظُلُمَٰتُۢ بَعْضُهَا فَوْقَ بَعْضٍ

"또는 깊은 바다의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다. 큰 파도가 덮이고, 그 위에 또 다른 파도가 덮이고, 그 위에 어두운 구름이 덮여 있으며, 그 위에 더 많은 어둠이 [그래서 어둠의 층에 둘러싸여 빛을 볼 수 없고 이 절대적인 어둠에서 나올 수 없는 존재]." (꾸란 24장 40절)

이를 통해 그노시스(*마리파*, 신성한 지식과 친밀함)가 모든 선과 영원한 행복, 끝없는 승리(사아다)의 근원임을 알게 된다. 다른 것들에 대한 지식의 상황은 시와 족보 지식처럼 완전히 쓸모없는 것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것은 신성한 영지(Gnosis)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영혼의 정화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영지(Gnosis)에 대한 인도와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지식은 신성한 그노시스(Gnosis)를 얻기 위한 자원과 같습니다. 완전함은 신성한 영지와 신성한 속성과 행위를 인식하는 데 있으며, 그 안에 모든 존재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실제로는 신성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의도, 능력, 지혜와 통합된 신의 행위로 보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신성한 영지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 설명은 [지금까지] 지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권력에 대해 들어보세요. 무언가에 대한 권력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종(인간)은 진정한 완전함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오직 신에게 속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능력, 움직임의 종으로부터 존재하는 행위들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설명의 요약은, 지식의 완전함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종]과 함께 남아 하나님께 이르게 하지만, 능력의 완전함에서는 하나님의 종 안에 능력의 완전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신체적 능력)은 지식의 완전성을 달성하는 수단입니다. 모든 신체 기관, 능력, 능력은 그 힘을 통해 지식의 완성의 현실에 도달하게 한다. 이 기관들과 능력에 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부와 명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음식, 의복, 거주지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신성한 영지(Divine Gnosis)를 얻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런 개인은 좋은 통찰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유일한 장점은 언젠가 끝나게 될 쾌락을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덧없는 쾌락을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완전한 무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깊은 무지의 구렁텅이에 빠지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신체에 대한 권위를 얻고, 부의 확장을 얻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명성을 통해 위대함을 이루는 것이 완벽함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지가 믿음으로 변하면, 그들은 그것을 사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이루는 데 몰두하며 죽고, 하나님과 천사에게 더 가까워지게 하는 진정한 완전함을 소홀히 합니다 [순수하고 죄나 흠집이 없는 천사의 특성 때문에]. 그 완전함은 지식과 자유의 완성입니다. 지식에 대한 논의는 이전에도 이미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자유와 해방의 의미는 욕망과 세상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천사들이 이겨낸 것처럼 그것을 극복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천사들은 욕망에 의해 잘못 인도되지 않고 분노에 의해 자극받지 않는다. 욕망과 분노의 영향을 자아(*나프스*)로부터 제거하는 것이 완전함이며, 이것이 실제로 천사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 속성의 특징은 쇠퇴나 변화가 없으며, 어떤 영향도 그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개인이 [세속적인] 장애물(산만함, 얽힘, 속임수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변화하지 않는 한, 신과 더 가까워지고 천사와 닮아 신 앞에 있는 계급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지식과 권력의 완성과는 별개의 세 번째 완전함입니다.

낮은 자아의 칭찬에 대한 사랑과 비판에 대한 증오

하위 자아에서 칭찬을 사랑하는 이유: 하위 자아(Nafs)*가 경험하는 이 쾌락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가장 강력한 이유는 칭찬이 자신에게 완벽함을 타고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며, 이전에도 설명된 바 있듯이, 완벽함은 사랑받는 것이며 사랑받는 모든 것을 얻는 데서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아가 자신의 완벽함을 깨달을 때마다, 그것에 대해 매우 기뻐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쾌락을 얻는다. 자신의 완벽함을 깨닫는 것은 다른 사람이 칭찬할 때 일어납니다. 칭찬받는 특성은 때로는 명백하고 때로는 의심스럽습니다. 그 특성이 명확하고 실현된다면, 그 칭찬에서 오는 즐거움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키가 크고 피부가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것은, 그 점이 분명하고 느껴지며 칭찬받는 사람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항상 그런 특성을 인지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다소 소홀한 면이 있는 경우입니다. 누군가의 칭찬 덕분에 그런 특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면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의심스러운 [칭찬받을 만한] 특성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특성에 대해 받는 칭찬은 다른 어떤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칭찬할 때 "당신은 위대한 학자입니다" 또는 "당신은 매우 경건하고 의롭다" 또는 "당신은 매우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지식, 경건함, 아름다움의 완전함에 의심을 품고, 그 의심을 어떻게든 해소하여 이러한 특성들이 확실해지길 바란다(이 특성들에 완벽함을 확신하게 됨), 그 어떤 사람도 그 특성에서 자신과 비교할 수 없다. 누군가가 이런 특성들을 언급(칭찬)할 때, 그 특성들이 자신 안에 존재한다는 만족과 확신을 얻고, 이로 인해 이 기쁨이 더욱 커집니다. 이 기쁨은 지식의 아름다움, 경건함, 양심의 비밀을 알고 있으며, 연구 없이 무언가를 말하지 않는 지적이고 현명한 사람에게 칭찬받을 때 더욱 커집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의 지능과 이해력을 칭찬하면 학생은 매우 만족합니다.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지능과

인식이 부족한 다른 사람이 칭찬을 과하게 한다면, 그 기쁨은 줄어든다. 자신의 비난(또는 비판)을 싫어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지적해주기 때문에 자아의 결점(*Nafs*)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결점을 깨닫는 고통을 느끼며, 지적이고 현명한 사람이 자신의 결점을 지적할 때 이 고통은 더욱 심해집니다.

두 번째 이유: 찬양은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이 찬양받는 이에게 복종하며, 찬양받는 사람의 의지와 욕망에 복종하는 사람임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매혹시키고 복종시키는 것은 인간에게 사랑받는 일입니다. 이제 마음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깨달을 때, 쾌감을 느끼고, 그 칭찬이 권력과 통제의 넓은 그물망을 가진 사람의 혀에서 나올 때 그 쾌감은 더욱 커진다. 그 이유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왕이나 권위자, 혹은 저명한 인물들처럼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아무런 중요성도 없고(사회적 중요성도 없으며), 자신의 영향권에 아무것도 없거나 개인적으로 누구에게도 이익이 될 수 없을 때 이 즐거움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런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하찮고 하찮은 것을 통제하는 것과 같다.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로부터 오는 고통은 비난자의 사회적 중요성이 높거나 낮은지에 따라 다르거나 적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칭찬은 칭찬받는 사람의 마음을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그 칭찬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찬양받는 사람에게 복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그 사람들의 칭찬(칭찬 발언)은 매우 효과적이며, 그들의 발언은 주의 깊게 듣고 칭찬과 비난이 믿음을 받습니다. 그 후 이 찬양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공개 모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중 수가 많고 찬양하는 사람의 인격이 중요할수록 그 찬양에서 오는 기쁨이 커지고, 그만큼 저자아(Nafs)가 견딜 수 없는 비난의 고통*도 함께 겪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 칭찬을 통해 칭찬받는 사람이 인상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사람들은 자유 의지든 [강요된 내면의 강박이나 힘이든] 그런 사람을 열심히 칭찬하는 데 안절부절못합니다. 인상적인 성격을 가진 것은 지배와 권력을 의미하는 장식품이기도 합니다. 이 칭찬은 칭찬하는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칭찬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해 좋은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즐거움이 결연히 존재한다. 이 경우, 한 사람은 타인의 동요와 두려움, 그리고 타인에 대한 지배와 권력에서 쾌락을 얻는다. 상대방이 얼마나 약하고 동요하느냐에 따라 한 명은 그에 비례하는 쾌감을 얻게 됩니다.

때로는 이 네 가지 이유가 한 사람에게 쌓여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타인의 칭찬에서 얻는 즐거움은 훨씬 더 커집니다. 이 모든 이유가 한 사람 안에 [동시에] 합쳐지지 않는다면, 칭찬에서 오는 기쁨은 비례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랑 찬양의 이유에 대한 치료: 찬양받는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이 자신의 말이 진실하지 않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첫 번째 원인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너는 고귀한 혈통 출신이고, 관대하며, 학자이며, 악행을 삼가라"고 칭찬하는데, 칭찬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임을 알면, 그 칭찬과 함께 마음에 태어나는 기쁨은 끝나게 된다. 오직 누군가의 마음이나 혀를 지배하고 통제할 때 얻는 쾌감만이 남을 것입니다. 만약 찬양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 즉 그의 마음이 실제로는 그 믿음이 결여되어 있고, [게다가 나도 [찬양하는 사람이 언급한 것]의 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마음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두 번째 즐거움도 끝나게 됩니다. 이 후에 남는 쾌락은 단 하나 [사람의 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쾌락]. 다시 말해, 남을 유일한 즐거움은 칭찬하는 사람이 내 두려움과 경외심 때문에 내 찬양에 입을 열어야 한다는 깨달음이다. 칭찬에 진지하지 않고 단지 농담처럼 칭찬하는 사람은, 모든 즐거움(혀를 통제하는 마지막 남은 즐거움을 포함해서)이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 중 어느 것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을 통해 지금쯤 하층 자아(*나프*)가 칭찬에서 기쁨을 얻고 비난에서 고통을 느끼는지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칭찬의 이유)은 명예에 대한 사랑과 칭찬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을 치유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언급되었습니다. 질병이나 병의 원인이 이해되기 전까지는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치료는 질병의 원인을 끝내는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명성을 사랑하는 치료법

명성에 대한 사랑이 마음을 지배하고, 창조물을 기쁘게 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그들과 우정을 쌓는 데 바쁘고, 말과 행동에 매우 신경 쓰는 사람, 사람들이 한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을 보며 점점 더 존경하는 모습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는 위선의 바다이자 혼란의 근원입니다. 예배는 예배에서 게으름을 낳고, 때로는 마음을 가두기 위해 금지되고 부도덕한 행동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부와 명성에 대한 사랑과 그것들이 신앙에 미치는 파괴성을 두 마리 [풀려난 양 떼]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또한 부와 명성에 대한 사랑이 위선을 키우며, 물이 식물을 키우듯 말했다. 위선은 외면과 내면의 차이, 말과 행동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존경과 존경의 정도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는 결여된 훌륭한 습관과 특성을 보입니다. 이건 순전히 위선입니다. 명성에 대한 사랑은 치명적인 병이다. 신자들의 마음에서 그 고치와 근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병은 부를 사랑하는 병처럼 마음의 핵심에 스며들어 내면의 특성이 됩니다. 그 치료법은 지식과 행동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명성에 대한 사랑의 지식 기반 치료법: 명 성에 대한 사랑의 병에 빠지게 된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영혼과 몸을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설령 그 목표를 이룬다 해도, 그 최종 목적은 결국 올 개인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의로운 행위 [*알-바키야트 우스-살리하트*]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만약 지구의 모든

사람이 당신 앞에 엎드리고 50년 동안 당신 발에 이마를 박고 있다면, 절하는 자들도 남지 못할 것이고 당신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며, 당신의 최종 결말은 당신 앞에 수많은 영광과 영광, 명예를 가진 이들에게 내려진 것과 같을 것입니다. 신앙의 축복(하나님과 그분께 이끄는 고귀한 영적 길)을 떠나는 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인기와 존경처럼 덧없고 덧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완전함과 [거짓] 상상된 완전함의 현실을 모두 아는 사람은 [명성] [와 인기]를 갖는 것에 아무런 중요성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저승을 주시하는 자는 먼지 입자에 부여되는 중요성조차 주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눈앞에 죽음을 상상하며 세상(세속적)을 천한 것으로 여깁니다. 과거의 의인들은 내세에 모든 관심을 기울였고, 그들이 한 일은 경건한 경외심,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타크와*)였습니다. 그들은 이 점을 [확신하게] 알았다. 내세는 경건한 경외심과 경외, 그리고 하나님(타크와)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며, 그들에게는 명성과 부보다 더 천한 것은 없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력이 약하고 오직 세상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 신성한 말씀에 의해 설명된 것처럼 모든 사물의 현실과 최종 종말을 바라보는 데 미치지 못한다:

"대신 너는 세속적인 삶을 선호하지, 비록 내세가 세상(세속적 삶과 그 세속적 삶)보다 훨씬 더 낫고 오래 지속되는(영원한)" (꾸란 87장 16-17절)

명예를 추구하는 데 이렇게까지 빠진 사람은 세속적 고난과 상상으로 마음을 치유해야 하며, 즉 세계 유명인들이 겪는 위험을 주시해야 합니다 - 명성과 명성,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과 친구가 있는 사람은 적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항상 해를 끼치기 좋은 타이밍을 노리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대감을 폭발시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자신도 자신이 가진 지위를 잃거나, 존엄과 존중을 받는 마음이 바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좋아하고 존경하는 대상]을 존중하는 것과 [싫어하고 혐오하는 대상] 사이에서 갈등한다. 심장에 기초를 세운 건물이 바닷물 위에

세워진 궁전보다 더 견고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대한 양보, 명예와 명예 보호, 질투하는 자들의 음모, 적의 해악에 저항하는 것 등은 명성의 쾌락을 쓰라린 세속적 해악과 고난으로 삼는 것이다. 명예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내세의 벌은 그와는 별개입니다. 명성을 추구함으로써 기대되는 세속적 이익을 얻지 못하고, 대신 명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쌓여가는 수많은 고난이 쌓여 있습니다. 명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지력(신비한 통찰이나 베이스라)을 고쳐야 합니다. 통찰력(신비적 통찰)과 신앙의 힘을 가진 자들은 세상(세속적)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명성에 대한 사랑의 실질적 치료법: 이 병의 실질적인 치료법은 자신의 명성을 없애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남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기의 감정은 사라지고, 은둔과 익명성의 삶에 익숙해지며, 오직 신과의 인기만을 겨냥하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명예가 없는 행동 중에 행동하는 것만은 허용된다. 왕이 경건한 신도와 가까워지려 했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예배자가 왕이 자신의 모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고 큰 한 입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그가 그렇게 먹는 모습을 보자, 그는 그에 대한 좋은 평가를 유지할 수 없었고, 그 숭배자는 그의 눈에 타락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와 가까워지고 영적 길에서 그의 추종자가 되려던 의도를 포기했습니다. 신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때때로 이러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치유하며, 이를 마음에 [영적 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측면에서]에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그들은 내면의 상태를 바로잡고 내면의 과잉 [또는 절제, 균형, 조화에서 벗어나는 부분]을 제거합니다.

명성에 대한 사랑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치료법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격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현대적 수단이든 전통적이든 모든 형태로, 필요와 긴급함을 제외하고] 알려지지 않거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집에서 은둔하는 것도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영적 여행자가 신에게 집착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은둔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마을 전체(또는 시)에서 유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둔조차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믿음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은둔을 실천하는 사람이 명성에 대한 사랑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이 마음 한구석에 숨어 있을 수도 있지만, 하위 자아(*나프스*)는 자신의 목적[은둔을 취하면서도 유명해지는 것]을 달성하는 데 만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의 팬과 찬사가 아니거나,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나쁜 말을 돌리게 된다는 확신에 이르면, 그 사람의 [내면] 만족감(*나프*)은 끝나고,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마음에서 제거할 방법을 찾으려 할 만큼 동요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속임수에 의존해야 한다 해도. 이 경우 이 사람은 과시를 위해 은둔을 택했음이 분명해질 것이다. 사실 마음속에는 명성과 명예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다. 이 사랑은 부에 대한 사랑과 같지만, 명성이 초래하는 시련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악을 낳습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경외와 존경에 대한 탐욕]가 있는 한,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자리를 만드는 데 안절부절못한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손으로 벌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지켜보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중요성을 잃게 된다. 동서양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볼 수도 없고 탐욕이나 기대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탐욕과 기대는 오직 만족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습니다. 만족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며, 무지한 사람은 사람들과 마음을 비비며, 다른 마음에 자신에 대한 존경과 지위가 있다면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명성을 추구하는 포기는 만족과 탐욕의 근절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경건한 선배들(*살라프 살리힌*)의 상황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존엄보다 겸손을 중시했고, 세속적 부보다 저세의 신성한 보상을 얻었습니다.

칭찬을 위한 치료법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며 칭찬과 찬사를 갈망하며 고통받았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모든 움직임과 행동은 사람들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고,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파괴적인 특성에서 비롯되며, 그 점에서 치료는 의무적입니다. 치유 방법은 칭찬에 대한 욕망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들을 숙고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 [칭찬을 사랑하기 위함]: 앞서 언급했듯이, 찬양자의 말은 존경받는 이로 하여금 자신이 완벽함을 가졌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 점에서 사람은 찬사를 믿기보다는 자신의 지성에 의존해야 하며, 자신에게 부여되는 자질이 정말 존재하는지 마음에서 의문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부여되는 특성은 지식, 신에 대한 두려움처럼 진정으로 칭송받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부, 명성, 세속적 재산처럼 칭송받아야 할 가치가 없는 것인지? 만약 칭송받는 어떤 특성이 세속적 수단과 관련이 있다면, 그것에 만족하는 것은 곧 마를 풀이 바람에 날려 가는 가벼운 가닥이 될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행복은 지성 부족에 대한 애도일 것이다. 인간이 세속적 부와 소유물에 만족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 기뻐하고 싶다면, 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 만족해야 합니다. 즉, 칭찬 이후에 생겨난 것이지만, 누군가가 칭찬한 후에야 행복해졌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만약 그 특성이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기뻐할 권리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기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최종 목적이 영원한 구원과 행복을 얻거나 영원한 슬픔과 저주를 얻는 것에 관해서는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칭찬받을 만하고 고귀하는] 특성이 지속될지 아닐지는 알 수 없다. 지식과 금욕(세속적 삶으로부터)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속적 존재의 종말이라는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인생의 나쁜 결말을 두려워한다면, 세상 어떤 것에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세상은 슬픔과 비탄의 장소이며,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행복과 만족의 장소가 아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좋은 삶의 마무리를 희망한다면, 숭배자의 칭찬에 기뻐하기보다는, 지식과 금욕(세속적 은혜)의 형태로 주어진 신의 은혜와 축복에 만족해야 합니다(*주흐드*). 그 이유는 쾌락이 완전함의 실현 결과이기 때문이며, [만약 완전함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존재는 숭배자의 칭찬이 아니라 신의 은총에 의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이 신의 은총에 종속됩니다. 그래서 칭찬에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칭찬은 당신의 탁월함을 높이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경건함과 세속적인 절제를 칭찬하는데, 그 칭찬이 현실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이 기뻐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질과 내면의 더러움을 잘 알고 계시고, 이것은 거짓 찬양일 뿐이며, 그것에 만족하는 것은 무지의 극치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진실하더라도, 찬양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에 기뻐해야 합니다. 거짓된 칭찬은 당신에게 슬픔의 원천이 되어야지, 행복의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 찬양을 통해 찬양을 쌓아주는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점입니다. 그 목적은 명예에 대한 사랑과 같으며, 명성에 대한 치료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백성으로부터 탐욕을 품지 말고, 신의 지위와 감사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창조물(모든 인간)로부터 지위와 감사를 구하는 것이 신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그들의 칭찬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이유: 행복의 세 번째 이유는 칭찬을 통해 칭찬받는 사람의 영광과 지배적인 성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이 역시 영속성을 가지지 않는 일시적 특성입니다. 이렇게 덧없는 일에 만족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칭찬은 슬픔의 이유가 되어야 하며, 칭찬하는 사람을 나쁘게 여겨야 한다. 이런 칭찬은 고난과 재앙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불쾌해해야 합니다. 한 영지주의자는 "누군가의 칭찬에 기뻐하는

자는 사탄에게 내면으로 들어갈 기회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영지주의자는 "누군가의 입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면, 실제로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언 전통에 따르면,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ألا لا تمادحوا فإذا رأيتم المادحين فاحثوا في وجوههم التراب

"조심해! 서로를 칭찬하지 말고, 칭찬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에 먼지를 뿌리세요(즉, 속담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말고, 그들의 칭찬은 영성에 해롭고 자존심과 자기 의로움을 부추기는 데 해롭기 때문에 무시되거나 공개적으로 거부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적 동료들은 찬양을 매우 두려워했고, 그 혼란(*핏나* 재앙적 영향)과 그로부터 오는 내면의 쾌락과 만족을 두려워했다. 그의 찬양을 들은 예언자 동료가 말했다, "오 하나님! 이 종은 주님을 불쾌하게 하는 무언가로 나에게 가까이 다가가길 원합니다. 내가 그에게 불쾌함을 증인으로 삼는다." 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찬양에 적대적이었던 바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된] 내면의 상태와 진정한 실재를 알고 계시며, 그들의 결점도 [완전히] 알고 계시다는 영원한 깨달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칭찬이 자신의 결점을 줄이거나 증가시키지도 않는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입니다. 찬양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쁘고 그 거처가 지옥이라면, 누군가의 찬양에 기뻐하는 것은 극도의 무지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천국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다른 종들의 찬양을 받아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관대함 속에서만 행복해야 합니다. 개인의 일은 하나님의 종들, 즉 동료 인간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생존과 죽음은 모두 하나님의 권한과 특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어떤 창조물로부터의

칭찬도, 비난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찬양에 대한 사랑이 마음을 떠나기 시작하고, 영적 길의 고된 여정 속에서 몸과 영혼을 온전히 탐닉하게 될 것입니다.

비판과 비난에 대한 혐오를 치료하는 법

인간이 정죄를 혐오하는 이유는 그들이 칭찬을 사랑하는 이유와 반대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이미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는 찬양에 대한 사랑의 치유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은 세 가지 상태 중 어느 하나도 결코 결여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진실한 사람일 수도 있고, 진실한 진술이나 목적이 진실함과 사랑일 수도 있고, 비난하는 데는 진실하지만 목적이 진심이 아니라 해를 끼치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 관해서는, 비난을 듣고 화내거나, 비난을 받거나 보복으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당신의 결점을 알려주는 사람은 실제로 당신의 파괴적인 내면을 목격하게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고 조언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기뻐해야 하며, 자신의 비난받을 만한 [내면의 특성이나 특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비난에 대해 후회하거나 싫어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을 나쁘다고 부르는 것은 무지입니다. 만약 두 번째 경우라면, 비판자가 단지 적대감과 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당신을 비판한 것이라도, 그 때문에 자신의 결점을 인식하게 되었기에 기뻐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그것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그 전에 부주의했기 때문에 자신의 결점을 떠올리게 했거나, 그 전에 좋다고 생각했던 당신의 [나쁜 내면] 특성들이 나쁘게 느껴졌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사아다*)의 원인이며, 그 수단을 갖추면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는 더럽혀진 옷을 입고 왕의 궁정에 가려 하지만 옷에 더러움이 묻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게다가 이 상태에 들어가면 왕이 매우 화를 낼 것이고, 이 모욕(행동 위반)에 대해 모범적인 처벌을 받아도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오, 더러워! 오, 더러워! 옷을 깨끗이

닦아라"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니 기뻐하실 겁니다. 모든 악하고 해로운 도덕, 예절, 성격 특성, 내면의 성향은 내세에서 파괴의 원인입니다. 인간은 적을 통해 파괴적인 도덕성, 예절, 성격 특성, 내면의 성향을 알게 되는데, 적들이 당신을 비난하고 그들의 비난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운명에 그런 적이 있다면,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만약 적이 당신의 원한을 노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가는 길에 위험하며[누군가의 적대감이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키울 수 있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신에게 축복입니다. 이 축복(자신의 결점을 인식하게 된 것)에 기뻐하고 그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적이 스스로 불타버리려 한다 해도(비유적으로) 왜 신경 쓰겠습니까?

세 번째 경우는 비난자가 거짓말쟁이이며, 당신이 하나님께 무죄로 인정받는 무언가를 비난하는 경우입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조금도 신경 쓰지 말고, 보복으로 한 명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세 가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당신이 연루되었다고 선언된 과실에서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연루된 이런 다른 잘못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순수한 신의 관대함과 관대함으로 그 위에 가려진 장막을 드리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대신, 당신이 용서받은 한 가지 잘못을 그들에게 넘어갔다는 점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의 잘못 찾기는 결국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한 속죄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에게 존재하지 않는 잘못을 돌리는 사람들은 당신이 실제로 연루된 많은 다른 잘못들로부터 당신을 면죄하는 셈입니다. 당신을 험담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롭고 선한 행위를 당신에게 선물로 주고, [험담은 그 선행이 그 사람의 계좌로 넘어가는 결과를 낳으므로], 당신을 칭찬하는 사람은 당신의 등에 치명타를 가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일이 참 이상하네요. 등에 난 상처를 받고도 기뻐하면서도 선행을 받은 선물에 슬퍼하면서도, 이 선행이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는데도 말이죠. 세 번째는, 그 불쌍한 사람이 당신에게 잘못을 찾으면서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을 훼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게 하며, 거짓 고발로 인해 고통스러운 벌을 받아야 마땅해졌습니다. 이미 [악행에 상응하는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할 인물에게 억압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왜 사탄에게 자신의 파멸과 신의 진노를 위해 기도하며 행복할 기회를 주나요? 이런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그런 자를 개혁하고, 회개를 받아들이며, 자비를 베푸라"고 말했다. 이것은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가 우하드 전투에서 자신의 이를 부러뜨리고 얼굴을 다치게 하며 삼촌 함자를 죽인 이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간청하셨습니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메카 군대가 메디나에서 예언자와 그의 추종자들을 공격해 죽이고, 그가 공동체를 방어해야 했을 때]:

اَللّٰهُمَّ اغْفِرْ لِقَوْمِيْ اَللّٰهُمَّ اهْدِ قَوْمِيْ فَاِنَّهُمْ لَا يَعْلَمُوْنَ

"오 신이시여! 내 나라를 용서해 주세요. 오 신이시여! "그들이 무지로 인해 저지른 잘못을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내 민족을 인도하소서"라고 말했다. (내레이션 *하디스* 모음집 *바이하키 달라일 알-나부와*)

만족을 실천하고 사람들의 부에서 나오는 모든 탐욕을 끝내는 사람들에게는 비난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 칭찬과 감사를 포함해서] 무지해지면, 그들이 아무리 나쁘게 말해도 당신의 마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현실, 즉 신에 이르는 길(*딘*)은 부와 명성에 대한 탐욕을 끝내는 만족입니다. 탐욕이 남아 있는 한, 당신은 탐욕과 기대를 품는 사람이 당신의 사랑과 높은 지위를 마음속에 품고 칭찬받길 원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위한 마음속 공간을 만드는 데 바빴고, 그것은 신앙이나 신앙(딘)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양과 명성을 원하며, 예배에서 과시하는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끌고 자신을 칭송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그들은 종교적으로 금지된 일(하람)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파괴의 길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그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금지된 행위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명성과 찬양을 추구하기 위해 [종교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락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 말이나 행동에 한계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칭찬을 위해 모든 한계를 미묘하게 넘고 결국 스스로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사람들과 매우 가까운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하지도, 노력하지도 않지만, 칭찬을 받으면 마음속에 행복을 느낍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영적 투쟁을 겪지 않고 찬양에 대해 혐오감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찬양받는 내면의 기쁨 때문에 두 번째 그룹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영적으로 노력하며 칭찬과 그 파괴성에 대해 혐오를 표현하고, 마음이 그것을 기뻐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영적 노력의 위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패배할 운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들을 때 기쁘지 않거나, 칭찬이 자신에게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처럼 괴로워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진심이 아니더라도 존중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싫어하지만, 칭찬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칭찬을 금지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 [다양한 집단의 반응과 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은 칭찬이 나쁘다고 간주되어야 하며, 진정한 혐오감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면의 만족감을 느끼면서도 외부에서 싫어하는 것]. 진심으로 혀에 화를 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칭찬으로] 기뻐하는 것은 순전한 위선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실성과 진실성을 표현하지만, 내면에는 진실함이나 진실함이 없다. 이러한 다양한 정도의 [찬양을 싫어하는 것]을 통해, 칭찬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상태도 분명해졌다. 첫 번째 단계는 혐오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단계는 자신을 비난하는 데서 행복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비판하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신의 하위 자아(*Nafs*)와 적대감을 가진 사람뿐입니다. 이 하위 자아는 매우 반항적이며, 수많은 결점이 있으며, 약속을 어기는 것은 유명하고, 그 속임수는 명확합니다. 적에게 가해질 만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적의 결점을 듣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인간 본성의 약점이다. 자신의 하위 자아(*나프*)의 적이 되었을 때, 그

결점을 듣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비난한 사람에게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공동체적 의무(*파르드 알-키파야*)를 다하고 내 결점을 알려주기 위해 영리함과 지성을 발휘했다. 이러한 비난은 사람들의 눈에 비하해지고 명성의 해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집니다. 더불어, 인간은 많은 선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이 선행이 되고, 자신이 없앨 수 없는 잘못에 대한 속죄가 되어도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 여행자(*무리드*)가 찬양과 비난이 평등하게 보이도록 평생을 이 일에 바친다면, 이 계약은 다른 어떤 일에도 어떤 휴식이나 휴식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 여행자의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사아다*)의 길에는 위험하고 고된 협곡들이 많으며, 이곳이 그 중 하나입니다. 이 협곡들은 가장 어려운 영적 노력(무자하다)을 하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다.

9장- 과시와 과시의 해악

가잘리의 대작 『이히야 알울룸 앗딘』*(신으로 가는 지식의 부흥) 3권 또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아홉 번째 책*은 과시의 해악과 물질적 소유물, 뛰어난 자질, 재능, 기술 측면에서 자신이 가진 선함을 과시하는 해악을 다룬다. 이러한 병들은 너무나 자기 파괴적이어서 삶을 사로잡아 이 논문 초반부에서 설명한 영적 길에서 벗어나게 하며, 내면의 평화와 평온을 빼앗는다. 가잘리는 이러한 병폐와 그 기원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마음에서 이를 근절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내면의 평화와 평온으로 채웁니다. 명성 추구와 마찬가지로, 과시는 이기주의와 그로 인한 오만함을 조장하며, 자아에 대한 집착(*나프스*)과 자아의 단점에 대한 맹목을 조장하여 자기 개혁의 모든 가능성을 죽이고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게 한다. 과시는 모든 일에 진실성을 없애며, 심지어 선한 행위와 행위로 인해 태어나는 빛을 마음에 비워버린다. 가잘리의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되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15]:

과시에 대한 비난

과시나 과시, 허세 부리는 행위는 신의 법에서 금지되며, 신의 불쾌을 살 만한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세가 없고 허세를 부리는 진실한 종들을 인용하며]:

إِنَّمَا نُطْعِمُكُمْ لِوَجْهِ ٱللَّهِ لَا نُرِيدُ مِنكُمْ جَزَآءً وَلَا شُكُورًا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신의 수용, 친밀함, 친밀함을 은유함)을 위해 음식을 제공하며, 그 보상이나 감사를 바라지 않습니다." (꾸란 76장 9절)

فَمَن كَانَ يَرْجُواْ لِقَآءَ رَبِّهِۦ فَلْيَعْمَلْ عَمَلًا صَٰلِحًا وَلَا يُشْرِكْ بِعِبَادَةِ رَبِّهِۦٓ أَحَدًۢا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의로운 행위를 행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어떤 동반자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창조물의 기쁨과 승인, 찬양을 구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예배에 포함시키고 하나님의 경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꾸란 18장 110절)

한 남자가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에게 물었습니다: "오, 하나님의 사도여! 어떤 행동이 구원적인가요?" 그는 이렇게 답했다: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 [또는 그들이 그들로부터 존경, 감사, 감사, 칭찬, 금전적 또는 물질적 이익, 명예, 양보 등을 얻기 위해 제공하는 어떤 것도]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순종 속에서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내레이션 *압둘라 빈 아바스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 집하킴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예수님(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은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할 때는 머리(두피)와 수염에 [머리] 오일을 바르고 기름진 손을 입술 위에 올려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 [마른 입술은 금식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오른손으로 [자선으로] 줄 때는 왼손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베푸세요. 기도할 때는 문에 커튼을 쳐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칭찬과 찬양을 얻기 위해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그분의 창조물에게도 영양분을 나누어 주시는 것처럼] 찬양을 나누어 주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لا يقبل الله عزّ وجلّ عملا فيه مثقال ذرّة من رياء

"신은 과시가 담긴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언적 서술에 따르면, 심판의 날, 하나님의 그림자 외에는 아무 그림자가 없을 때, 신성한 보좌의 그늘에 자리를 찾을 자들 중 오른손으로 자비를 베푼 자가 있다. (내레이션 하*디스*는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사히흐 부카리*와 *사히흐 무슬림*을 모았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또 다른 *하디스*(예언적 전술)에 따르면, 비밀스러운 [의인] 행위는 공개적으로 행하는 [의인] 행위보다 70배 더 탁월하다. (내레이션 아부 다르다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 집 *바이하키(Bayhaqi)*가 있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날, 과시적인 사람이 이렇게 불릴 것입니다: '너희의 [선의] 행위는 헛되이 되었고, 신성한 보상도 끝났다. 네가 처음에 그 행위를 해준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으러 가라'"고 말했다. (내레이션 자발 알-야흐사비의 권위에 따라 이*븐 아비 앗-둔야* 의 하디스 *모음* 집(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이 있습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고, 그 땅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떨리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산을 창조하여 땅을 멈추게 하기 위해 말뚝으로 만들었습니다. 천사들은 서로 하나님께서 산보다 더 어려운 것을 만드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신은 산을 베는 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다 철을 녹이는 불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후 불을 끄는 명령으로 물을 사용했다. 바람이 명령되어 물을 거꾸로 만들었다. 그 후 천사들의 의견이 바뀌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볼까 생각했다. 그들은 '당신이 만든 작품들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인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담의 아들(즉, 인간)의 마음보다 더 단단한 것을 만들지 않았다. 오른손으로 자비를 베풀 때는 왼손으로는 그 자비를 숨겨야 합니다(즉, 모든 과시를 피하기 위해 완전한 비밀 속에 이루어지며, 이는 영적 변화를 위한 용감한 노력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높은 진실성을

요구합니다)'". (내레이션 아나스의 권위에 따라 *티르미디* 하디스 *모음*집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압둘라 빈 무바라크(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는 칼리드 빈 마단(그에게 신의 자비가 있기를)로부터 전해주며, 그는 위대한 예언자 동료인 무아드 빈 자발(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에게 하*디스*(예언자 무함마드의 전통 [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를 전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그 어렵고 엄격함 때문에 매일 기억하고 연습했다고 전한다. 무아드(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동의했지만 오랫동안 울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얼마나 간절히 예언자와 만남을 갈망하는가(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 한 번은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낙타를 타고 있었고, 나를 데리고 그의 뒤에 앉았다. 우리가 진행하자 예언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찬양은 그분의 피조물들을 그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나를 향해 말했다: '내가 말하는 게 있다. 네가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잊으면 고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논쟁할 수 없다. 오 무아드! 천국을 창조하기 전에, 고귀한 신은 각 천국을 위한 일곱 천사를 창조하고, 각 천문마다 한 명의 천사를 경비원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이는 문의 크기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두 명의 수호천사 '*키라만 카티빈*(모든 인간의 두 어깨에 올라 선악 행위를 기록하는 두 천사)이 하인들의 행위와 함께 일어날 때; 그들 안에는 태양빛과 같은 빛이 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천국의 문에 도착하자, 그곳을 경비하는 천사는 '*키라만 카티빈*(모든 인간의 수호천사)에게 이 행위를 하나님의 종(즉, 하나님께 행하는 인간)의 얼굴에 행위를 내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천사가 말한다: 나는 '뒷담배'의 천사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배신자의 악행이 퍼지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키라만 카티빈'*은* 다시 한 번 하인의 행적을 통해 두 번째 하늘로 올라가 햇살처럼 빛난다. 천사는 그들을 멈추고 그 행위를 종의 얼굴에 내밀어 달라고 요청한다. 왜냐하면 이 행위의 목적은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한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외의 사람을 위해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의 행위를 인정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저녁*까지 그 사람에게* '라나'*(아랍어* '라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주지 말라고 부르는 뜻)를 보내 그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 후 천사들은 하인의 자선, 금식 등 매우 덕 있고 가치 있는 선행을 하여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 번째 천국에 도착하자, 수호하는 천사가 그들을 멈추고 행위를 행한 자의 얼굴에 내밀라고 요청한다. [수호] 천사는 자신이 '자존심'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행위가 올라가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행위를 통해 자만과 교만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키라만 카티빈'*은* 별처럼 빛나는 이 신의 종의 선행으로 다시 일어난다. 여기에는 기도, '*하즈*'(순례), '*타스비*'(하나님을 기억하고 영광시킴), 금식 등과 같은 아름다운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그들이 4천국에 도달하자, 지키던 천사가 그들을 멈추고 행위를 행한 자의 얼굴에 내밀라고 요청합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자만심'의 천사이며, 주님께서 자만심으로 행위를 더해진 행위가 하나님께 더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 후 천사들은 신부처럼 '*하즈*'(순례), 신의 길을 걷는 등 태양처럼 빛나는 다른 의로운 행위들을 장식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다섯 번째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지키는 천사는 [다섯 번째 천국의 문에서], 그들을 멈추게 하며 말합니다: 나는 '질투'의 천사입니다. 행위자는 하나님께서 자비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들을 질투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른 인간에게] 주시는 관대한 선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신의 행위가 더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후 천사들은 세정, 완전 정화, 기도, 금식, '하즈'(순례) 등과 같은 행위를 행하며 여섯 번째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배치된 경비 천사가 그들을 멈추게 하며 말한다: 나는 '자비'의 천사다. 이 사람은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푼 적이 없으니, 그 행위를 하인의 얼굴에 내세우세요. 다른 이들이 곤경과 불운에 처한 모습을 보며 기뻤습니다. 주인께서 저에게 이 죄를 저지른 자의 행위가 더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후 '*키라만 카티빈*'은 자선, 기도, 금식, 신의 길을 따르는 노력, '*타크와*'(경건한 경외, 경외, 경외심 등)를 통해 일곱 번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행위들은 천둥 소리와 번개 같은 소리로 크게 울려 퍼진다. 일곱 번째 천국의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명성과 과시'의 천사입니다. 이 사람은 '*울레마*'(학자)와 신분과 존엄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과 집회에서 활동하는 업적을 통해 명성을 얻으려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의 행위가 더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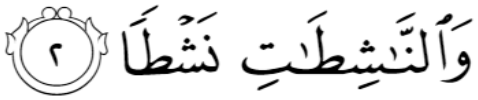
따라서 고귀하신 하나님을 위해 순전히 행해지지 않은 행위는 '*리야*'(과시, 과시, 타인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한 행위)이며,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 후 천사들은 기도, 금식, '*자카트*'(의무적 빈민 납부, 자선), '*하즈*'(순례), '*움라*'(소규모 순례), 우호적인 성격, 침묵, 신을 기억하는 등 선행으로 일어납니다. 일곱 천국의 천사들이 그들을 배웅하며 신성한 법정에 도착할 때까지 배웅하며, 그곳에서 모든 장막이 벗겨지고, 이 종의 행위가 오직 신을 위해 행해졌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언합니다.

지금 이 순간, 고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리라: 너희 천사들은 [외부에서] 종들의 행위를 돌보지만, 나는 그들의 마음을 돌본다. 이 행위들이 나의 기쁨을 구하려 한 것이 아니며, 오직 나를 위해서만 행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서 진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나의 '*라나*'(나의 자비로부터의 박탈)가 그런

자에게 있길, 그가 너와 백성을 속였으니. 그러나 나는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것을 아주 잘 알기 때문에 나를 속일 수 없다. 아무리 나에게서 멀어지려 해도 나에게서 숨을 수 없고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과거에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제 지식은 이미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과 앞으로 올 모든 이들을 아우릅니다. 나는 모든 비밀과 그 모든 세부사항을 완전히 알고 있다.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나를 속일 수 없다. 나의 종은 무지한 자를 속일 수 있으나 나를 속일 수 없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런 자비를 잃으신 나의 '*라나*'를 보냅니다. 일곱 천사(일곱 천국의 문을 지키는 천사)와 3,000명의 천사들은 모두 '*라나*'(하나님의 자비를 빼앗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는 것)을 한 천사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하늘의 수감자들은 그런 자에게 '*라나*'가 있다고 말하며, 그런 속임수에게 '*라나*'를 보내는 모든 이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예언자의 이야기를 전하던 무아드(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가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다: '오, 하나님의 사도여! 이 재앙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인가?' 무함마드 예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말했습니다: '오, 무아드! 너희 예언자를 온전한 믿음과 확신으로 따르라'. 무아드(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말했다: '당신은 신의 사자이며 나는 무아드 빈 자발이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가 말씀하셨습니다: '오 무아드! 만약 당신의 행동이 충분하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다른 이들, 특히 형제들과 그 사람들의 명예를 모욕하지 않도록 입을 조심하세요.*후파즈*'(꾸란 전체를 암기한 자들)를 말합니다. 형제들과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악한 하한 자아를 허락하세요 (*나프스*타인을 모욕하지 말 것을 삼가라. 무슬림 형제들을 헐뜯으며 자신을 칭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며 우월함을 세우려 하지 마세요. 명성을 얻기 위해 과시하지 마세요. 세상의 일에 너무 몰두하여 내세의 일을 완전히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옆에 앉아 있다면, 제3자에게 몰래 [또는 속삭이기] 말하지 마세요. 남에게 백성 중 우월함을

과시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업적이 세상과 내세에서 망가질 것입니다. 집회에서는 부끄러움(저속함)과 음란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피할 것입니다. 혀로 타인의 명예를 상처 입히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개들이 너를 산산조각 낼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꾸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뼈에서 살을 찢어낼 때.' (꾸란 79장 2절)

나는 그때 말했다: '오, 하나님의 사도여! 이 모든 금지명령에 대해 행동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편안을 주시는 종에게는 행동이 쉽다.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자신을 싫어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당신이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행하는 행동은 당신에게 구원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하피즈 이라키는 수십만 개의 예언 전 해와 전승 연쇄를 외운 위대한 예언 전승의 대가로, *가잘리의 『*이히야 울룸 앗딘』(신의 길에 대한 지식의 부흥)에 수록된 모든 *하디스의 하*디스 *진위* 여부는 이 예언적 전통의 출처 참고를 '*이*븐 알무바라크의 저급한 욕망 절제서'와 '*이븐 알자우지 피 알-마우두아트*'라고 명명했다.

칼리드 빈 마단(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은 무아드(신의 기쁨이 있기를)가 성스러운 꾸란을 낭송하기보다는 이 *하디스*(예언적 전승)를 낭독했다고 말했다. 그는 모 임에서 이 *하디스*에 대해 자주 이야기 했다.

전통: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가 목에 절하는 남자를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그에게 말했다: "오, [숙인] 목을 숙인 너! 목을 들어 올려. 겸손은 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말했다. 아부 우마마 알-바힐리(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모스크에서 누군가가 [노예 신분, 필요함, 신 앞에서의 겸손의 표시로 하나님께 절하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네가 집에서 이걸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무도 네가 그렇게 하는 걸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진심을 가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알리(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이렇게 말했다: "허세 부리는 사람의 세 가지 징후가 있다 - 혼자 있을 때 게으르게 된다; 사람을 보면 활동적으로 변하고; 누군가가 칭찬하면 더 많은 [의의] 행위를 하게 되고, 누군가가 나쁘게 말하면 선행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한 남자가 사이드 이븐 알-무사야브(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에게 물었다: "우리 중 한 명은 선행을 한 후 신의 보상과 감사를 원한다. "이런 행동이 옳은가?" 그는 그에게 물었다: "네가 하나님의 불쾌을 원하느냐?" 그 남자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는 "선행을 할 때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순수하고 전치적으로] 행하고 진실하라"고 답했습니다. 카타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이 과시할 때 신은 말씀하신다: '내 종을 보라! 그런 사람이 나랑 농담하는 거야!'" 이브라힘 빈 아드함(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은 "명성을 추구하는 자는 신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시의 현실과 그 발생 문제들

과시란 좋은 습관과 노력을 보여주고, 예배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인정과 명성을 얻으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시하는 사람 또는 숭배자이며; 둘째는 과시를 받는 사람, 즉 과시를 하는 사람이다; 셋째는 과시가 이루어지는 특성들이다; 네 번째는 과시적인 표현 자체입니다.

과시하는 것들: 과시하는 사람은 다섯 가지를 통해 과시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명성을 추구합니다: 몸, 외모, 말, 행동, 추종자와 외부 대상. 세속적인 사람들도 이 다섯 가지를 통해 명성과 지위를 추구합니다.

신앙에서 몸을 과시하는 방법: 몸에 대한 과시는 몸에 약함과 창백함을 드러내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종교적인 일에 매우 열심히 일하고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지배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약함은 덜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창백함은 신성한 예배를 위해 밤늦게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흐트러진 머리는 종교에 대한 관심과 걱정을 주장하며, 항상 예배에 바빠서 머리를 빗을 시간조차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징후들이 [공공장소에서] 보일 때, 사람들은 자신의 거룩함에 대해 논쟁하고, 이것이 하위 자아(*Nafs*)를 기쁘게 만듭니다. 비슷한 것으로는 목소리를 낮게 유지하거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거나, 입술이 건조해지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 결과는 이 사람이 항상 금식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에 목소리가 낮아졌거나 배고픔 때문에 목소리가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빗질하고, 눈에 안티몬을 넣고, 기름진 손으로 입술을 문지르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금식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라. [마른 입술은 금식을 의미하니까]." 비슷한 조언은 예언자 동료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에게서 전해집니다. 이 성인들은 과시의 죄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을 이런 방법으로 이끌었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길들을 통해 [하나님의 종]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종교적이고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몸을 통해 과시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은 건강한 몸, 외모, 키, 균형 잡힌 장기, 아름다운 피부로 과시합니다.

외모와 복장에서의 과시: 머리를 흐트러뜨리 기, 수염을 면도하거나 다듬기(종교적 명령에 따라), 고개를 숙이고 걷기, 천천히 [품위와 품위를 가지게], 이마에 절의 표시를 유지하기, 거칠고 거친 옷을 입기, 양모 로브를 입기, 발목까지 오는 긴 셔츠 착용, 소매를

작게 유지하는 것, 옷을 더럽고 찢어진 상태로 유지하는 등 이 모든 행동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언의 길(*순나*)과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한 과시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영적 길의 현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도 수*피*(영적 여행자)처럼 보이게 하는 패치와 파란색 옷을 입는 것도 포함됩니다 . 긴 셔츠에 숄을 두르고 가장자리를 눈 위로 걸치는 것도 과시에 포함되는데, 이런 외모로 인해 당신은 관심의 중심이 되어 사람들이 당신이 길을 먼지로부터 눈을 보호하며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을 감탄하게 됩니다. 무식한 사람이 스콜라 신학자(*울레마*)의 복장을 입고 외모를 취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를 학자로 인식하고 존경과 존경을 갖게 하는 과시이기도 하다. 결론은, 그들 중 [옷차림으로 과시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인기와 명성을 높이는 것에 더 적든 더 많은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신성한 법칙상 허용될 수도 있다 해도. 이것이 종교적 [마음가짐]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값비싼 옷, 좋은 승마구니, 고급 숄, 셔츠, 가운, 그리고 값비싼 물건으로 과시를 합니다. 즉, 집에서는 평범한 옷을 입지만, 집 밖으로 나설 때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화려하고 화려하게 외출해 사람들이 자신들을 부자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말로 과시하기: 종교인이나 영적 길을 가진 사람들은 조언과 설교를 취미로 삼아 과시를 가집니다. 그들은 지혜와 신중함을 지어내고, [성인과 종교인들]의 전통을 암기하여 일상 대화에 활용되어, 상대방이 자신의 풍부한 지식과 경건한 선조들의 국가와 전통에 대한 광범위한 애착을 고백하게 만듭니다(*살라프 살리흔*). 그들은 일반 모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입술을 움직여 사람들이 자신들이 매우 경건하고 신성한 예배에 몰두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선(의)을 권고하고 악을 금지하며, 악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보는 큰 고통을 표현하며, 말할 때 목소리를 크게 낮추고, 꾸란을 감동적이고 감동적으로 암송하여 신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을 분명히 하며, 예언 기록을 암기하고 그 학자들과의 만남을 주장합니다. 예언 전통의 해설자들의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가 그들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그 결함을 찾아내고 즉시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의견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역에 대한 지식에 감탄하고,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긴 연설을 하며, 꾸란과 예언 전통을 언급해 지식을 표현합니다. 종교인들을 위한 말을 통한 과시는 무수히 많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시와 예시를 외우고, 단어의 유창함과 웅변에 특별히 신경 쓰며, 독특한 문장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단어를 외워 부유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우정을 표현해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끌려 나아갑니다.

행동으로 과시하기: [행동에서의 과시는 의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여러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기도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기도하거나, 절과 절을 길게 하거나, 목을 숙이거나, 예배 외의 다른 것에 주의를 포기하거나, 평온과 품위를 보여주거나, 손과 발을 함께 묶거나, 겸손과 기도에 관대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 등. 이러한 과시적인 행위는 금식, 순례, 의무적 자선(*자카트*), 그리고 기도 외에도 내외적 노력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겸손하게 걷고 머리를 숙인 채, 평온과 존엄을 지키는 말투 등 이런 행동들도 과시할 수 있습니다. 과시적인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지만, 종교인이 다가오면 속도를 바꾸고 천천히 걷기 시작하며, 턱이 가슴에 닿을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서두르는 걸음을 내딛어 사람들이 성급하고 품위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서 그 [종교인]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지면 다시 서둘러 걷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보면 다시 겸손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겸손을 취하지 않고, 오직 동료 인간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 경건한 하나님의 종 중 한 명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만 그렇게 합니다. 비교적 조심스러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걷는 것처럼 혼자 걷기도 합니다. 그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속도가 혼자 있을 때의 속도와 반대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속도를 바꿀 필요가 없도록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과시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 과시가 더 커질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건,]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서만 자랑을 했는데, 이제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사람들이 행동으로 과시하는 것은 자부심을 가지고 걷고, 걸을 때마다 손을 끊임없이 움직이며,

어깨를 깡충깡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신과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친구나 지인과의 과시: 학자가 만나러 오길 바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매우 중요해서 어떤 학자나 어떤 숭배자가 그 사람을 알고 만나러 오거나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왕(국가 권위)이나 고위 왕실(정부) 관리와 만나 일반 대중이 자신의 종교적 위대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 안내자(*슈유크*)를 자주 언급하여 많은 이들을 만나고 영적 혜택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그들과의 만남과 특히 토론이 있거나 상대를 제압할 필요가 있을 때 영적 이익을 얻는 데 자부심을 표현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사람들은 누구 어떤 학자를 봤고, 어떤 학자에게서 들었으며, 여러 나라를 여행했고, 많은 영적 지도자와 스승을 섬기며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시하는 사람들이 과시를 실천하는 다섯 가지 이유이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물들 사이에서 명예와 지위를 얻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창작물에 대한 좋은 평가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승려들이 예배 장소에 가서 수년간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신도들이 산 정상에 올라가 오랫동안 머물며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실종은 사람들이 그들을 좋게 평가한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더 이상 자신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지 않거나 어떤 범죄가 자신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의 내면의 평화는 모두 무너지고, 고독을 받아들이기 위해 의지했던 자신에 대한 좋은 평가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내면의 동요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잘못 귀속된 것들로부터 용서받았음] 알게 된 후에도 끝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의 내면의 혼란과 슬픔은 볼 가치가 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명성과 지위를 되찾기 위해 수천 가지 변명을 할 것이다. 그들은 부에 대한 탐욕이 없지만, 명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더 큰 손실입니다.

명성은 지금 달성되는 완벽함의 유형으로, 비록 오래가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수많은 명성을 추구하는 이들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자신의 서열에 만족하지 않고, 마음 외에도 혀가 자신을 칭찬하고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 곳에서 명성을 얻어 사람들이 먼 거리를 와서 만나러 오길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왕들과의 명성을 원하여 그들의 중재가 받아들여지고, 필요가 충족되며, 일반 대중 사이에서 명예와 신뢰를 얻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아, 빈곤층, 기부(*와크프*), 또는 타인의 개인 재산일 수 있더라도 이를 통해 부를 벌고 축적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과시적인 집단 중에서 이 다섯 가지 수단으로 과시를 실천하는 집단이 가장 심각합니다.

과시의 약과 이 병에 걸린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

이제 과시는 선행을 무효화하고, 과시하는 사람은 신의 불쾌감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치명적인 병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 병에 걸리면 어떤 고난과 영적 투쟁이 있더라도 치료와 약이 필요합니다. 이 약의 쓴맛과 매료함은 회복을 보장한다. 이것은 비록 아이일지라도 모든 개인이 필요로 하는 영적 투쟁입니다. 이는 아이가 지성과 이해력을 결여받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본다. 아이들이 서로에게 허세, 허세, 인위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 허세, 허세, 인위성에 대한 사랑이 태어나 모든 감각을 감싼다. 이 습관의 파괴성은 지성과 분별력을 얻었을 때 드러나지만, 그때쯤이면 이 습관은 너무 깊이 뿌리내려 치열한 영적 투쟁(*무자하다*)과 극심한 고난 없이는 없애기 불가능하다. 결론은 모두가 이 영적 투쟁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안도가 찾아옵니다.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과시의 나무를 키우는 원칙과 원인들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둘째, 과시의 위험성(침습적 사고)이 제거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치료법 - 원리와 원인의 근절: 이 방법은 원칙과 원인이 알려지면 실용적이 된다. 이 점에서 과시의 기초이자 기원은 명성과 명예에 대한 사랑임을 기억해야 한다. 자세히 설명하면 과시의 세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는 칭찬의 기쁨, 둘째는 비난으로 인한 슬픔에 대한 증오, 셋째는 남의 소유물에 대한 탐욕이다. 이런 것들이 과시의 원인이며, 과시를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때로는 칭찬을 원하지 않고, 비난의 슬픔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두쇠인 사람이 하나님의 길에서 점점 더 많은 돈을 쓰는 관대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버리게 됩니다 [예: 자선 활동에 쓰인 돈]. 그런 인색한 사람은 구두쇠라는 욕을 피하기 위해 자선에 돈을 쓸 것이다. 그런 사람은 칭찬을 원하지 않고, 오직 구두쇠의 불명예를 피하고자 할 뿐이었다. 또 다른 예로는 용감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 겁쟁이로 낙인찍히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겁쟁이가 용감하다고 불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밤늦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부르지 않도록 밤에 몇 주기 기도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비난을 경계하며 칭찬을 원하지 않는다. 때로는 찬양의 기쁨에는 인내할 수 있지만, 정죄의 고통에는 참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더라도 질문하지 않거나, 지식 없이 종교적 칙령[*파트와*]을 내리거나 예언 전통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면서도 비난이나 비판을 피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과시적인 사람이 과시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과시의 구체적 치료법: 인간은 이익이나 쾌락이 즉시 나타나든 나중에 기대되든 간에 그것이 이익이 되고 즐거움을 느낄 때만 무언가를 원한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대상의 이익이나 쾌락이 일시적이며 나중에 해로울 것임을 알게 된다면, 그 대상에 대한 욕망을 끊거나 피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꿀의 맛은 익숙하지만 독과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욕망과

성향을 쉽게 없애는 방법은 일시적이고(덧없음) 이익을 무시하고, 그 미래의 해악을 눈앞에 두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종, 즉 인간이 과시의 해를 알게 되고, 과시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선행을 할 능력이 없으며(영원한 생명의 자본이 됨), 그리고 내세에서 하나님의 가까움을 박탈당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심판의 날에 고통스러운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불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불리며, 공개적으로 '죄인'과 '속임수자'라는 칭호를 받아 굴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순종(예배)을 대가로 세속적 재산과 재산을 얻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들을 [그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행동하며] 생각했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예배를 농담으로 삼았다. 당신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종들(즉, 동료 인간)들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해 자신을 과장했고, 결과적으로 더러움으로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그들의 가까움을 찾았다. 당신은 종들로부터 찬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을 하찮게 여겼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종이 이 굴욕을 생각하고 [덧없는, 단명한] 세속적 이익과 내세에서의 손실을 비교할 때, 사람은 조금도 과시하려는 경향이 없습니다. 과시로 인한 [의의] 행위의 손실은 결코 작은 손실이 아니다. 진심 어린 행위가 선행의 저울에서 무겁게 차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과시와 섞이면 죄에 포함되어 죄의 척도가 더 무거워집니다. 과시가 단 한 번의 예배만을 잃게 한다 해도, 그것이 덜 큰 해가 아닙니다. 만약 선행에 무게가 큰 의미가 있다고 가정해도, 한 번의 과시적인 행위가 다른 모든 의로운 행위와 무관하게 예언자, 성인, 영지주의자로 분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나 신에 이르는 길에서의 상실에 대한 설명이었으며, 세속적 상실도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고려하는 것은 어쨌든 걱정과 불안의 원인입니다. 사람들의 승인은 쉽게 도달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행동에 만족한다면, 같은 행동에 대해 당신에게 화를 내는 다른 누군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하나님)의 반대보다 창조물에 대한 불만을 선호하는 자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불쾌감을 느끼고 다른 이들도 한

사람을 불쾌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창조물로부터 찬양받는 것이 어떤 이익인지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찬양을 하나님의 비난보다 선호하는가? 그들의 찬양이 영양을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는데도.

사람들의 부와 소유물에 대한 탐욕에 관해서는,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정복되고 복종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어떤 마음이든 주는 것을 기울이고, 어떤 마음도 주는 것을 멈추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권능에 복종하며, 생계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창조물로부터 생계를 탐욕하는 자는 굴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호의의 부담에서 보호받지 못한다. 거짓된 희망과 공허한 생각에 대해 하나님의 가까움과 신성하신 존경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더불어, 반드시 자신의 탐욕에 따라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패를 만나게 됩니다. 설령 성공하더라도, 성공의 기쁨은 이 호의로 인한 굴욕의 고통에 비하면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들의 정죄로 인한 손실이 증가하나요? 운명의 창조주께서 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비난은 죽음을 앞당기거나 영양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천국에 합당하다면,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하나님께 미움받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이익을 얻거나 해칠 수 없으며, 삶과 죽음에 대한 권력도, 사후 삶에 대한 권력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과 정신이 이 숙고와 사색의 방향으로 향한다면, 그 마음이 과시하려는 경향이 남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적인 사람은 이익보다 해가 더 많은 일에 대한 성향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과시하고 싶어 하지만 혀로는 진심을 표현하는 과시적인 사람의 내면 상태를 알게 된다면, 그런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비밀을 열어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과시와 굴욕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과시만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도 드러나며, 하나님은 그 진실함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받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며, 그들의 혀에 찬양을 말할 힘을 주십니다. 비로소 사람들의 찬양에는 완벽함도, 비난에도 결점이 없습니다 [전체 틀에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세의 삶과 끝없는 행복, 그리고 그 삶에서 이룰 높은 계급을 영원히 의식에 간직하는 자는 고난과 탁함이 섞인 세속적 삶의 축복을 하찮게 여기며, 모든 관상과 행동의 힘을 하나님께 집중할 것입니다. 과시와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굴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진심의 빛이 반사되어 마음의 광활함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의 확장은 미묘한 영적 드러남(*무카샤파*)의 문을 열어주어 신에 대한 애착과 창조물과의 거리감을 높여줍니다. 세상과 내세의 위대함에 대한 혐오가 마음속에서 커질 것이며, 마음속에 창조물을 위한 공간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과시하려는 동기는 마음속에서도 생기지 않고, 진실성의 길은 점점 저절로 열릴 것입니다.

행동을 통한 과시의 치유

과시의 실질적인 해결책은 예배 행위를 숨기고 죄가 숨겨지듯 숨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지식과 인식만으로 만족하고, 하한 자아(*나프스*)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의 지식과 인식도 필요 없게 됩니다. 전통에 따르면, 아부 하프스 알-하다드(신의 자비가 그에게 가득하길)의 동료가 세속적(*둔야*)과 세상 사람들을 비난하자, 그는 "너희는 숨겨야 할 것을 드러냈다."라고 답했다. 오늘 이후로 나와 함께 앉지 마라". 아부 하프스가 세속적인 정죄를 주장하는 것은 세속적 정죄(*주흐드*)와 신에 대한 경건함, 경외심(*타크와*)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사실조차 드러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시를 숨기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치료법은 없습니다. 영적 투쟁(*무자하다*)의 초기 단계에서는 [예배]를 숨기는 행위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억지로라도 그 [숨기기를] 습관으로 삼는다면, 이 행동의 부담은 무효화되고, 끊임없는 신의 은총과 축복, 능력, 지원 덕분에 편안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노력의 결실이 [행동 측면에서]입니다. 노력 부족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إِنَّ ٱللَّهَ لَا يُغَيِّرُ مَا بِقَوْمٍ حَتَّىٰ يُغَيِّرُوا۟ مَا بِأَنفُسِهِمْ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내면] 상태를 바꾸기 전까지는 한 민족의 상태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꾸란 13장 11절)

إِنَّ ٱللَّهَ لَا يُضِيعُ أَجْرَ ٱلْمُحْسِنِينَ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행위에 뛰어난 자들에게 신의 보상을 헛되이 두지 않으십니다." (꾸란 9장 120절)

두 번째 방법 - 위험과 장애물의 제거: 즉, 예배 중에 마음에 스며들어 신 이외의 사람에게 빠져드는 암 시(*와스와스*)와 불안한 생각(*카와티르*)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없애는 방법은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낮은 자아(*나프*)와 싸우며 만족과 탐욕 끊기, 창조물의 눈에 자신을 낮게 보이고, 그들의 칭찬과 비난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과시를 뿌리 뽑는다. 사탄은 예배 중에도 그들을 따라다니는 것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과시에 대한 생각으로 그들을 괴롭히게 만든다. 그들의 하위 자아(나프)에서 오는 암시적인 생각과 욕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영적 투쟁을 통해 제압됩니다. 외부 요인이 그들을 다시 활성화시키면, 그들은 다시 활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시의 위험과 원인을 제거하고 그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시의 위험성: 과시에는 세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여기서 '위험'이라는 단어는 침투적이고 불안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 하나의 위험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점차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나타난다. 첫 번째 위험[과시의 징후]는 예배자가 [자신의 예배에 대해] 알기를 바라고, 자신이 자신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되길 바라는 것이다. 그 후 하위 자아는 사람들의 칭찬, 존경, 지위, 그리고 명예에 기울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그 후 하위 자아는 이를 [사람들의 칭찬과 감탄으로 인해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알고 있다'고, 두 번째는 '상태'로, '욕망과 성향'으로도 불릴 수 있으며, 세 번째는 '결정과 의도'라고 합니다. 첫 번째 위험(침습적 불안 사고)을 제거하려면 더 많은 힘(힘과 노력)이 필요하며, 두 번째 위험이 닥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따라서 만약 마음이 창조물의 지식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그 지식을 알리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면, 스스로에게 묻고 "당신은 창조물로부터 도대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라고 물으며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예배를 알고 있든 아니든, 그것이 [신성한] 당신의 예배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현실]을 아시며, 그분은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권능이 있으니,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예배하는 자각이 무엇을 얻으시겠습니까?" 찬양에 대한 욕구가 마음에서 태어난다면, 과시의 해악을 성찰하여 이 욕망을 없애야 하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심판의 날에 신의 불쾌과 진노를 받을 자격이 생기고, 신의 기쁨과 수용을 얻는 [선하고 의인] 행위를 박탈당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를 인지하는 것이 과시에 대한 욕망과 성향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과시의 해악을 언급하는 것은 [허세 부리는 행위에 대해] 혐오와 혐오를 불러일으킵니다. 성향은 수용을 초대하고, 혐오는 과시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하위 자아(*Nafs*)는 더 강하고 지배적인 초대를 받아들입니다.

과시의 위험 제거: 이를 통해 과시의 위험(침습적 사고)을 제거하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 지식, 혐오, 거부. 하나님의 종, 즉 인간은 결단력과 진실성으로 예배를 시작하지만, 그때 과시의 위험이 [마음에서] 발생하고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때는 마음속에 있던 그 지식과 [과시에 대한 혐오]를 기억하지 못한다. 과시와 저세상 파괴에 대한 이해가 이전에 존재했던 해악은 완화된다. 이 비유는 인내의 생각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분노를 나쁘게 여기며, 분노의 원인이 나타나면 인내를 하겠다는 결심을 유지하는 개인의 비유입니다. 하지만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는 원인이 나타나 이전의 결의가 마음에서 떠나며 분노의 해악이 시야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욕망의 달콤함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마음이 달콤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노시스의 빛은 숨겨진다. 갑자기 활력을 얻은 모든 욕망들도 마찬가지이며, 그것이 신앙과 영적 길(이만)에 끼치는 해악은 [그때]에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그노시스가 남아 있지 않으면, 악에 대한 혐오는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혐오는 그노시스와 깊은 이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인간이 마음속에 태어난 위험(위험하고 침습적인 불안한 생각)이 과시의 위험임을 기억하고 알게 되며, 이는 신의 불쾌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욕망이 너무 지배적이어서 깊은 이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집하고, *낮은 자아*(나프스)의 변덕과 고집스러운 어리석음(*하와*)은 지성을 흐리게 하며, 얻는 쾌락을 떠날 수 없고, 마음을 달래기 위해 [완전히 쾌락에 빠진 후에] 회개를 핑계로 삼거나, 쾌락의 결점(해로운 결과)을 곱씹을 기회를 주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일부 학문 신학자나 종교 학자(*울레마*)는 과시가 없는 단어를 한 단어도 내지 않으며, 그들도 이를 인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고집한다. 이 주장은 그들이 파괴적임을 알면서도 과시를 행하기 때문에 [심판의 날] 그들에 대한 부정행위의 엄청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지식과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와 함께 과시에 대한 혐오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해와 혐오를 동시에 갖지만, 과시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시에 대한 혐오감이 욕망의 힘에 비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혐오감은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혐오의 본질은 그런 행위를 중단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익은 오직 이해, 혐오, 거부라는 세 가지 요인의 결합 효과에서만 나타납니다. 거부는 혐오의 결실(결과)이고, 혐오는 깊은 이해의 반응이다. 신앙과 지식의 빛(내면의 빛)의 힘에 따라, 영지와 영적 빛(*마리파*) [신성한 현존으로 이끄는 것]은 강할 것입니다. 마음에 세상에 대한 사랑(세속됨)을 가진 정도에 그대로, 내세에 대한 무심함이 생긴다. 신성한 은혜를 외면하고 세속 삶의 해를 무시하는 정도라면,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은혜를 피하게 되고, 그 결과 영적 계의(*마리파*)가 약해집니다. 이것은 서로 연결된 연결고리를 가진 체인입니다. 어떤 것은 다른 이들의 열매이자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원은 세속적인 사랑과 욕망의 지배에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죄와 실수의 근본입니다. 명성과 지위, 세속적 풍요에 대한 사랑의 쾌락이 인간의 마음을 빼앗고 신앙의 내면적 깨달음의 힘을 말살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내세를 묵상의 주제로 삼지도, 신성한 책(*꾸란*)과 예언의 길(*순나*)*의 빛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진실성과 진실성의 징후

종교 학자들과 설교자들이 과시하지 않고 지식과 설교를 과시하지 않는다는 진실성, 진실성, 그리고 과시에서 멀어진 징후는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몇 가지 징후가 있다는 점은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징후는, 누군가가 자신보다 설교를 더 잘하고, 더 학자이며, 사람들 사이에서 더 인기가 많다면 기뻐해야 하고 질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경외심 어린 존경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경외심은 자신도 비슷한 지식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징후는 저명한 인사들이 모임에 와도 설명 방식을 바꾸지 않고 이전처럼 계속 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징후는 사람들이 시장이나 길에서 그 뒤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없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진심과 과시를 아는 징후는 무수히 많으며, 이를 나열하기는 어렵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종의 내면 상태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징표와 징후입니다. [종교적] 학자들이 서로를 질투하고 적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내세와 맞바꾸어 지상의 생명을 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과 하위 자아로부터 오는 암시에 대한 치료법: 이 모든 것은 사탄과 하위 자아(*Nafs*)로부터 나온 암시입니다. 그들의 치료법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사색에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사람들이 자신의 위선과 의식 상태를 인식하게 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을 미워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종들(즉, 인간)의 상태가 이렇다면, 모든 것을 인식하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내면의 모든 상태를 인지하는 하나님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تَعَوَّذُوا بِاللهِ مِنْ خُشُوعِ النِّفَاقِ

"위선에서 비롯된 겸손으로부터 하나님의 피난처를 구하라." (내레이션 *아부 바크르 알-시디크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수집* 바이하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위선에서 태어난 겸손은 신체 기관이 [허세를 부리듯 떨리지만] 마음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으며[진정한 겸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적 훈계]는 하나님의 벌과 진노로부터 피난하고 회개하는 것에 관한 것인데, 이 행위는 때로는 하나님의 두려움과 자신의 죄, 후회에 대한 기억, 때로는 과시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서로 다른 암시적인 생각들이 마음속으로 내려와 서로 닮았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마음에 내려앉을 때, 그 생각이나 암시가 왜 생겼는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어떤 생각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면, 그것이 일어나게 두되, 과시는 너무 조용히 공격해서 종종 자신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시작한 행위(행동, 행위, 노력, 특히 하나님의 기쁨과 승인을 구하는 의로운 행위)가 과시로 더럽혀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상태와 상태를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하세요. 만약 당신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과시와 섞여 있다면, 당신은 신의 분노와 불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신의 자비, 친절, 용서, 관대함의 화신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복지에 해로운 고의적 위반, 과잉, 잘못, 억압, 해로운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신의 자비와 정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알리 빈 알후세인(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은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오 신이시여! 나는 사람들 눈에는 내 외면이 선하고, 내가 그들과 떨어져 혼자 있을 때는 내 내면이 주님 앞에서 나쁜 일로부터 피난을 구합니다. 나는 [더 나아가 당신께 피신하려 한다],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내 행위를 보호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하는 행위를 파괴하며, 내 가장 나쁜 행위를 저지르며 선한 행위를 통해 사람들과 가까워지려 하며, 악행으로 당신 앞에 나와 당신의 분노를 얻으려 한다. 오 신이시여! 이 과시와 위선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줘."

이것이 바로 과시의 해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러한 해악을 주시하고 익숙해야 합니다. 예언적 서술에 따르면, 과시의 문은 70개가 있으며, 여러분도 읽었듯이 어떤 문은 다른 문보다 더 미묘하고 은밀하며, 어떤 형태의 과시는 매우 은밀하며, 예를 들어 개미가 [예언적 서화에 따르면 어두운 검은 밤에 어두운 검은 바위 위를 움직이는], 어떤 것은 개미의 움직임보다도 더 은밀합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그걸 알아챌 수 있지? 그러려면 지속적인 주의와 집중이 필요합니다. 과시의 해로움을 알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찰과 하위 자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께서 우리를 이 해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과시와 관련해서는, 사탄으로부터 암시(*와스와스*)와 속임수가 너무 많아 글로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이런 암시를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과 당신의 삶 외에는 마음에서 모든 것을 제거하고, 자신(*나프스*)이 신의 벌에 휘말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모든 세속적 축복과 쾌락을 누리면서도 몸이 병에 시달리고, 이런 [세속적] 쾌락에 빠지면 파멸을 초래할까 항상 두려워하는 왕처럼 살아야 합니다. 반면에, 하층 자아에 맞서

예방하고 영적 투쟁을 벌여 욕망을 통제한다면, 오래 살 수 있고 왕국도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의사와 향수 판매상과 함께 하층 자아가 쓴 약을 복용하는 데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비록 음식 부족으로 몸이 약해지지만, 예방에 대한 규율과 지속적인 약물 사용은 감염된 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설령 하위 자아가 욕망을 요구한다 해도, 죽음으로 최종 끝나는 모든 병들은 육체화된 형태로 그 앞에 나타날 것이다. 쓴 약을 복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힘들 때면, 그 약으로 인해 건강이 보장되고 몸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마음이 걱정에서 해방되는 편안하고 번영하는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내세를 갈망하고 저승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것과, 세속적(세속적이거나 육체적인) 쾌락과 욕망보다 더 파괴적인 것을 피하는 신자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신자는 세속적인 쾌락을 피하고 약간의 양에 만족합니다. 사람은 약함, 우울, 외로움, 슬픔, 두려움, 그리고 신의 진노가 내리지 않게 하고 파괴가 운명이 되지 않도록 창조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속적(세속적이거나 육체적인) 쾌락에 무관심함으로써 구원을 얻기를 기대한다. 이 두려움과 기대는 세속적 쾌락을 피하는 데 인내심을 가질 힘을 주며, 남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수용과 승인임을 안다(*Rida*). 또한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자비로우시며, 신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종들을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원한다면 모든 슬픔과 고난을 모르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성한 지혜로 그들을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의 길로 이끌며] [시련과 시련, 고난으로 인간을 시험하며] 신성한 지혜와 정의로 그들의 의도와 진실성을 시험합니다.

인간이 신성한 임재로 이끄는 영적 길의 고난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전적인 도움을 받아 그 고난이 쉬워지고, 인내의 힘이 생기며, [신성한] 순종은 사랑받는 행위가 되어 [하나님]을 간청하고 [신성한] 순종의 행위에서 오는 단 하나의 기쁨을 얻게 되어, 그 한 가지 기쁨을 얻어 모든 다른 [세속적·육체적] 쾌락을 하찮게 만듭니다. 그리고 몸은 세속적 쾌락을 모두 없애는 힘을 얻는다. 자비로우신 분(하나님)은 구하는 자의 노고를 헛되이 두지 않으시며, 간청하는 이도 빈손으로 그분의 문을 떠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전통에 따르면(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라고 말합니다. "내게 한 손 길이로 다가오는 자는 나도 팔 한 팔 길이 내게 다가간다. 걷고 나에게 오는 자가 나에게 달려가라." 하나님은 [또 다른 예언적 이야기에 따르면] "사람들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니 나도 그들과 만나기를 더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영적] 투쟁에서 진실성과 진실성을 보여야 하며, 그러면 자비로운 주님께서 얼마나 가까이와 사랑,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10장- 오만함과 자만심의 해악

가잘리의 대작 『Ihya al-Uloom ad-Deen』 *또는 "하나님의 길에 대한 지식의 부흥"의 세 번째 권, 즉 4분의 1의 열 번째이자 마지막 책*은 개인, 공동체, 그리고 전체 국가를 괴롭히는 가장 파괴적인 영적 병 두 가지인 오만과 자기 의로움(또는 자기 의로움)을 다룬다. 오만함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거짓 우월감을 확신하게 하여, 그 소유자와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이념, 물질적 소유, 기형, 결점, 불이익, 사회적 지위 등으로 무시받는 사람들 사이에 장벽을 만듭니다. 오만함은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관점을 배우려는 시도를 완전히 차단하고,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하는 악감정, 적대감, 공개적인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한 무질서로 이어집니다. 자기 의로움이나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이 옳다고 높이 평가하는 것은 오만함의 또 다른 가지로, 진리를 찾는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그 결과 온 존재를 감싸고 나면 점점 더 뿌리치기 어려운 거짓 상태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오만과 자기 의로움의 병폐는 진리를 찾는 데 필요한 숭고한 내면의 겸손과 어긋납니다. 가잘리가 이러한 부정적 성향과 그 치유법을 능숙하게 다루며, 겸손, 자기 개혁,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건강한 상태를 이끌어 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6]:

오만함(*키브르*)과 자기중심('*우주브*' 또는 자기 의로움)은 치명적인 병입니다 [이들은 내면의 존재와 영적 열망에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만하고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적이자 그분의 진노 아래 있는 병든 환자들입니다. 이 [세 번째] 권 ["하나님의 길에 이르는 지식의 부흥"]에서는 내면의 파괴적인 성격 특성, 자질, 성향, 기질이 설명되고 있으므로, 오만함과 자기주만에 대해 조명을 비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은 [인간의 내면과 영혼]에서 가장 파괴적인 특성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이 책(가잘리의 4권짜 리 *대작* 『하나님으로 가는 길의 지식 부흥』 중 40권 중 하나)은 두 장으로 나뉘어 있다.

오만함의 해악

하나님은 꾸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سَأَصْرِفُ عَنْ ءَايَٰتِيَ ٱلَّذِينَ يَتَكَبَّرُونَ فِي ٱلْأَرْضِ بِغَيْرِ ٱلْحَقِّ

"나는 내 구절(표호와 진리)을 이해하는 데서 부당하게 오만함을 행하는 자들을 막으리리라(즉, 오만은 내면의 맹목과 심한 정신적 장벽을 초래하여 실천자들이 진리의 빛을 못하게 하며, 그 결과 그들은 온몸을 감싸는 거짓의 완전한 어둠에 빠지게 한다)." (꾸란 7장 146절)

كَذَٰلِكَ يَطْبَعُ ٱللَّهُ عَلَىٰ كُلِّ قَلْبِ مُتَكَبِّرٍ جَبَّارٍ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든 오만하고 억압적인 사람의 마음을 봉인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올바른 인도와 진리의 길을 인식할 수 없게 되게 하는]." (꾸란 40장 35절)

إِنَّهُۥ لَا يُحِبُّ ٱلْمُسْتَكْبِرِينَ

"진실로, [하나님은] 오만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꾸란 16장 23절)

لَقَدِ ٱسْتَكْبَرُوا۟ فِىٓ أَنفُسِهِمْ وَعَتَوْ عُتُوًّا كَبِيرًا

"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오만하며[위대함과 자기 과시에 대한 생각을 품고 타인을 깔보며] [인간의 품위와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을 취하라고 권고하는 하나님의 한계]의 한계를 넘었다." (꾸란 25장 21절)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لَا يَدْخُلُ الْجَنَّةَ مَنْ كَانَ فِي قَلْبِهِ مِثْقَالَ حَبَّةٍ مِنْ خَرْدَلٍ مِنْ كِبْرٍ وَلَا يَدْخُلُ النَّارَ
مَنْ كَانَ فِي قَلْبِهِ مِثْقَالَ حَبَّةٍ مِنْ خَرْدَلٍ مِنْ إِيمَانٍ

"겨자씨 크기만큼의 오만함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겨자씨 크기의 믿음조차 마음에 가진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레이션 *압둘라 빈 마수드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 집 샤*히흐 무슬림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لَا يَدْخُلُ الْجَنَّةَ بَخِيلٌ وَلَا جَبَّارٌ وَلَا سَيِّئُ الْمَلَكَةِ

"인색하거나 오만하거나 신하(책임을 맡은 자들)를 학대하는 자는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다."

"최악의 종[즉, 인간]은 잔혹함과 억압을 풀어놓고 가장 강력하고 최고의 통치자(하나님)를 잊는 자이다; 최악의 종은 억압하고 자만하며 위대한 돌보자(하나님)를 잊는 자이다; 최악의 하인은 무덤 속에서 부패하는 현실을 잊고 무책임하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에 빠지는 자입니다; 최악의 종은 반역, 원한, 적대감에서 경계를 넘고 인간 존재의 시작과 끝을 잊는 자입니다." (내레이션 *아스마 빈트 아미쉬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수집* 티르미디 [신께서 그녀를 기뻐하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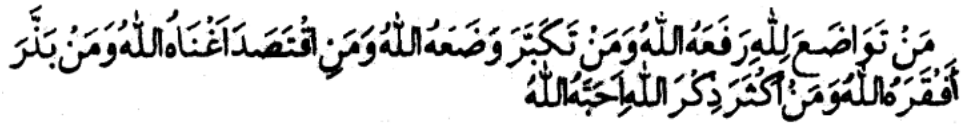
예수님(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책을 알려주시고 오만으로부터 보호받은 자에게 주어진다." 무함마드 이븐 후세인 이븐 알리(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마음속 오만함의 정도에 비례하여 지성도 감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살만 알-파르시(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에게 선하고 정의로운 행위가 없는, 그 악에 대해 물었다. 그는 "오만함이다"라고 대답했다. 한 번은 멋진 옷을 입은 젊은 남자가 하산 옆을 지나갔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그는 그 젊은이를 불러 자신에게 오라고 말했다. "사람은 자신의 젊음과 잘생김에 자부심을 표현하는데, 비록 네 몸이 무덤에 가려져 있고 네 행위가 네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죽음 이후의 상태]. 가서 네 마음을 고쳐라. 하나님은 오직 종들의 마음이 개혁되기를 원하십니다." 전승에 따르면, 무트라프 이븐 압둘라 알-샤키르(신의 자비가 그에게 가호를 베푸시길)는 비단 옷을 입고 자랑스럽게 걷는 고위 정부 관리인 물흘럽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에게 말했다, "오 아부 압둘라! 이 행보는 하나님과 그의 사도를 불쾌하게 하신다"고 말했다. 뭘럽은 그에게 "아마도 당신은 내가 누군지 모를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왜 안 되겠어? [당신이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네 기원에서), 넌 그저 더러운 정자 한 방울이었고, 결말에는 더럽고 [썩어가는] 시체가 될 거야. 그리고 지금 [시작과 끝의 두 상태 사이에서], 당신은 배 속에 더러움을 안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현실을 알기에 인간은 겸손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야 하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 물럽은 떠나서 그 [거만하고 자존심 강한] 걸음걸이를 떠났다.

겸손의 탁월함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مَا زَادَ اللّٰهُ عَبْدًا بِعَفْوٍ إِلَّا عِزًّا وَمَا تَوَاضَعَ أَحَدٌ لِلّٰهِ إِلَّا رَفَعَهُ اللّٰهُ

"하나님은 용서하여 종의 존엄과 명예를 높여 주신다. 하나님을 위해 겸손을 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더 높은 [영적] 지위로 올려주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레이션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무슬림 사히흐 *하디스* 모음 집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하나님을 위해 겸손을 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은 지위로 올리고, 거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너뜨리며, 낭비하는 자는 [겸손한 경험으로] 하느님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낭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런 거지로 만드셨고, 하나님을 많이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 만드신다." (내레이션 *탈하 이븐 야히야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 집* 바자르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무함마드 선지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나는 [하나님께의] 신의 노예이자 예언자가 될지, 아니면 왕이자 예언자가 될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받았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천사들 중에서 [대천사] 가브리엘은 나의 친구입니다(예언자는 23년에 걸쳐 꾸란의 신성한 계시의 주요 수단인 가브리엘이 자주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주님을 위해 겸손을 취하라'고. 나는 '나는 [하나님의 노예]이자 예언자가 되는 것을 좋아한다(하나님께 노예 상태가 되는 것은 영성의 정점이며, 노예 상태의 계급은 겸손을 통해 얻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다)'라고 말했다. (내레이션 *하디스*는 *아이샤의 권위에 따라* 아부 야라(하나님께서 그녀를 기뻐하시길)와 *타바라니* 의 권위에 따라 모아, 아브둘라 이븐 압바스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를 모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뻐하길])) 하나님께서 예언자 모세에게 신성한 계시를 계시하셨다(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나는 내 위대함에 굴복한 자의 기도만을 받아들이겠다, 나의 종들보다 우월하지 않고, 나의 두려움을 마음에 두며, 하루 종일 나를 기억하며 보내고, 나를 위해 하위 자아의 욕망을 자제하는 자"라고 말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اَلْكَرَمُ التَّقْوٰى وَالشَّرَفُ التَّوَاضُعُ وَالْيَقِيْنُ الْغِنٰى

"고귀함[그리고 숭고함]은 신에 대한 경외, 경외, 경외심(*타크와*)을 가지는 데, 존경은 겸손(*타와두*), 부는 확신(*야킨*) [신과 신의 영원한 진리]에 있다." (내레이션 이*븐 아비 알-둔야*와 *하킴 의 하디스 모음* 집은 숨라흐의 권위에 따라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예수님(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은 심판의 날에 설교단에 앉을 겸손한 자들을 위한 것이고, 기쁜 소식은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중재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며, 심판의 날에 천국의 상속자가 될 것이니, 기쁜 소식은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마음에서 깨끗이 지키며 하나님의 시야에 이르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심판의 날". 예언적 이야기에 따르면, 무함마드 선지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하나님께서 친구로 삼으신 사람들만이 얻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예배의 시작인 침묵,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셋째는 겸손, 넷째는 세상에 대한 소중함(세속적 기쁨, 쾌락과 얽힘)". (내레이션 하*디스*는 아나스의 권위에 따라 *타바라니*와 *하킴* 을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아이샤(신께서 그녀를 기뻐하시길)는 "너희 사람들은 가장 훌륭한 예배인 겸손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수프 이븐 아스바트(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많은 의로운 행위를 행하는 것에 비하면 약간의 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충분하며, 많은 영적 투쟁에 비하면 작은 겸손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푸다일 이븐 아야드(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에게 겸손에 대해 물었고,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겸손이란 진리 앞에 고개를 숙이고, 진리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심지어 아이에게서 진리를 얻더라도 받아들이고, 무지한 사람에게서 들으면 말이다. "넌 받아들여." 압둘라 이븐 무바라크(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진정한 겸손은 세속적 축복에서 덜 운이 좋은 자를 자신보다 더 선호하는 것이며, 그런 사람이 세상(세속적 수단, 지위, 권력) 때문에 당신이 우월하지 않다는 확신을 얻는 것이다.

[더불어,] 겸손이란 세속적 축복이 더 많은 사람보다 자신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다가, 세속적 수단으로 인해 우월함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자신을 못하게 여긴다."

전통에 따르면, 예수께 계시하신 계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보내면 겸손하게 받아들이라, 내가 그 축복을 너희에게 완성하리라"고 말했다. 카압(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은 말했습니다. "만약 개인이 [신성하게] 축복을 받고 감사를 표하며 겸손하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이익을 이 세상에 주시고 내세에서도 계급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개인이 [신성하게] 축복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 근거하여] 사람들보다 우월함을 표현했다면, 그 사람은 그 축복의 이익(이익)을 박탈당하며 내세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솔로몬 선지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는 매일 아침 부유층과 엘리트들과 간단한 만남을 갖고, 그들과 대화를 마친 후에는 가난한 이들의 모임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고 가난한 자는 평생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내 가난과 하나님께 필요한 마음 때문에, 내 세상이 아무리 넓어도 [내 가난과 하나님께 필요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와 비교할 수 없는 왕국]". 지야드 나메이리는 "겸손 없는 금욕하는 사람은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만한 사람들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는 이유는 좋은 도덕, 예절, 인격, 내면의 성격과 자질(*이흘락*)이 오만과 과도한 자존심(자존심)으로 인해 닫히는 낙원 입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오만함으로 인해 빛나는 도덕, 예절, 성격, 내면의 성품, 그리고 자질 등을 박탈당하며, 특히 경외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자 그들의 [숭고한] 성격 특성의 근간인 겸손을 [결핍] 합니다. 겸손 외에 다른 좋은 도덕성, 예절, 성격, 내면의 성향, 그리고 오만함 때문에 다른 좋은 도덕성, 예절, 성격, 내면의 자질이 박탈된 상태로 남는다. 예를 들어, 적대감과 오만함을 버릴 수 없고, 누구의 조언에도 귀 기울이지 못하며, 누구에게도 진실성을 가질 수 없고, 사람들을 모욕하고 모욕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뒷담화와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사실, 모든 좋은

도덕성, 예절, 성격, 내면의 성향, 그리고 자질은 끝나고, 나쁜 도덕성, 예절, 성격, 내면의 성향, 그리고 자질이 태어날 것입니다. 오만한 사람에게는 나쁜 도덕, 예절, 성격, 내면의 성향,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자질들이 없으며, 오만한 사람은 모든 악과 나쁜 성격 특성에서 지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된 자존감과 잘못된 자존심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개인이 잃지 않는 좋은 자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좋은 도덕성, 예절, 성격, 내면의 성향, 자질이 그 [잘못 인식된] 존엄감과 존중을 빼앗는다고 생각(믿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만한 사람이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이며, 많은 나쁘고 악한 도덕, 예절, 성격, 내면의 성향, 자질이 오만함과 함께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 가지 악한 특성은 다른 많은 악의 특성과 성격 특성의 전조이기도 합니다.

최악의 오만은 지식(특히 영원한 진리)으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장애물이 되며, 진리를 따르는 것을 빼앗는 오만이다. 이런 오만함에 대해 꾸란의 많은 [성성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وَٱلْمَلَٰٓئِكَةُ بَاسِطُوٓا۟ أَيْدِيهِمْ أَخْرِجُوٓا۟ أَنفُسَكُمُ ۖ ٱلْيَوْمَ
تُجْزَوْنَ عَذَابَ ٱلْهُونِ بِمَا كُنتُمْ تَقُولُونَ عَلَى ٱللَّهِ غَيْرَ ٱلْحَقِّ
وَكُنتُمْ عَنْ ءَايَٰتِهِۦ تَسْتَكْبِرُونَ

"[거만한 자들이 죽을 때] 천사들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너희 영혼을 꺼내라! 오늘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구절에 대해 오만했기 때문에 굴욕적인 벌을 받을 것이다.'" (꾸란 6장 93절)

سَأَصْرِفُ عَنْ ءَايَٰتِىَ ٱلَّذِينَ يَتَكَبَّرُونَ فِى ٱلْأَرْضِ بِغَيْرِ ٱلْحَقِّ

"나는 부당하게 오만함을 행하는 자들을 내 구절(꾸란)에 대한 진정한 이해로부터 멀리할 것이다 [오만함이 신의 인도를 이해하고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봉인하듯이]." (꾸란 7장 146절)

꾸란 주석학자들은 이것이 꾸란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라고 썼다. 어떤 해석에서는 이것이 천상의 지배를 목격하는 심장을 막는다는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이븐 자리(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는 그들이 구절을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며 교훈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예수님(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작은 바위에 심지 않고 부드러운 땅에 심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혜는 겸손한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거만한 마음은 조금도 영향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무함마드 예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오만함을 진리의 거부와 필연적으로 연관지어 있다고 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اَلْكِبْرُ مَنْ سَفِهَ الْحَقَّ وَغَمَصَ النَّاسَ

"오만한 자는 진실을 거부하고 사람들의 결점을 찾는 자다." (내레이션 *압둘라 이븐 마수드의 권위에 따라* 무슬림 사히흐 *하디스* 수집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오만함이 드러나는 것들

오직 그 사람이 오만하고 자신을 높이 평가하며,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완벽함의 특성 중 하나를 주장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함은 세속적이고 종교적이다. 종교와 관련된 완전성의 특성은 지식과 행동이다. 세속적인 완벽함의 특성은 혈통, 아름다움, 권력, 부, 그리고 풍부한 지지자입니다. 다음은 오만의 일곱 가지 유형과 원인입니다:

오만의 첫 번째 원인 - 지식: 오만의 첫 번째 원인은 지식입니다. 학자들(스콜라 신학자들)은 오만함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처음에 학자는 마음속에서 자신의 지식이 완성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면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고 타인을 열등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축처럼 않는다. 사람들은 그들을 무지하다고 여기며, 그들이 가장 먼저 인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만약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인사하거나 인사와 인사에 친절하게 응답하거나 일어나 인사하거나 초대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자신이 그들에게 베푸는 은혜로 여기며, 비록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대우를 통해 다른 사람을 존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만한 학자들은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러 가지만, 실제로 아무에게도 가지 않는다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플 때는 사람들이 방문하지만, 아픈 사람은 방문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좋은 태도가 없어요. 그들은 그들을 섬기게 하고 실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여기며, 지식을 전수했으니 그들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속적인 일에서 그들의 실천은 저승과 관련된 일에서 그들의 기질 타락이 극에 달한다. 이른바 '학자들'은 지식이 자신들을 신 앞에서 높은 지위에 올려놓았으니, 이제 신의 징벌과 책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해] 평신도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개혁에 대해 걱정하지 않지만, 평신도들의 개혁에 대해서는 불안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학자가 아니라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들이 지식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신의 하위 자아에 대한 깊은 영적 통찰을 얻으며, 자신의 [불가피한] 종말의 위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강한 책임이 학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겸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이 지식을 얻은 자는 [신의 은혜와 은총으로] 자신의 하위 자아(*나프스*)를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보다 더 많은 질문을 받기 때문에 모두를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지식은 엄청난 축복이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부 다르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에 대해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는 고통이 더 많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지식이 오만함의 근원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종, 즉 인간]이 왜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하는지 동기를 탐구하기 위함이다; [이 경우] 내면의 존재는 [내면의] 악의 중심이었고, 저속한 자아(*나프스*)는 더러움의 거처였으며, 도덕, 예절, 성격, 내면의 성향(*이흘락*)이 나쁜 상태입니다. 지식의 골짜기에 발을 들이기 전에, 하층 자아(나프)를 문명화하고 마음과 영혼을 정화하기 위한 다양한 영적 투쟁을 거쳐야 하며, 하층 자아가 주님을 숭배하도록 훈련시켜야 했다. 이런 상황(마음과 영혼을 문명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첫걸음)에 있어, 지식은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마음에 존엄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지식)은 더러운 곳에서 살도록 강요받으며, 그 열매는 유익할 수 없으며, 선한 징후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와합 이븐 무나베(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는 최고의 본보기를 보여줬다. 그는 "지식은 구름에서 내려오는 물과 같아서 본질적으로 순수하고 깨끗하며 달콤하다. 나무는 그것을 혈관에 흡수해 현재의 모습으로 변환합니다. 나무의 잎과 열매가 쓴 것은 물의 맛도 쓴맛이 되고, 달면 물의 맛도 여전히 달콤하지만 오히려 더 달콤해집니다. 지식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 사람들은 그것을 흡수하고 한 번 한 잔씩 마시며, 원하는 대로 의도와 결단력에 맞게 만듭니다. 거만한 사람은 더 거만해지고, 겸손한 사람은 더 겸손해진다. 오만하려 했던 사람이 무지했으나 지식을 얻었고, 이제는 오만함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오만함이 더욱 커졌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지식을 얻었고, 그 두려움, 신의 행위에 대한 강한 불안, 겸손과 겸손이 더욱 커졌다. 왜냐하면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의 경외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결론은 이것이 오만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만의 두 번째 원인 – 경건한 행위와 신성한 숭배: 숭배와 [경건한] 행위는 오만의 두 번째 원인입니다.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경건한 사람도 명예, 명성, 오만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기울이려는 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세속적, 종교적 문제에서도 이러한 악을 표현합니다. 세속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방문하는 것이 자신들의 방문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존중하며, 모임에서 공간을 마련하고, 꼼꼼함과 경외심의 자질로 언급하고, 모든 일에서 우선권을 주길 원합니다. 마치 그들이 신에 대한 예배와 영적 투쟁을 창조물에 대한 은혜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종교적 문제에서는, 그들의 상태가 자신을 제외한 모두를 비참하다고 여기지만, 자신들이 비참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비참합니다. 사람들의 비참함을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타락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말로 사람들을 경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벌과 위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숭배하는 사람이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창조물을 굴하하는 사람과, 숭배와 순종 때문에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신이 기대하지 않는 신 앞에서 기대하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얼마나 엄청난가요?

전통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에는 두 명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격동적인 성격과 악행으로 반항적인 인물로 유명해졌고, 두 번째 사람은 열렬한 숭배로 숭배자로 유명해졌다. 그는 너무 많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기에 항상 구름이 그를 가렸다. 반항적인 남자는 생각했다. "나는 매우 평판이 좋지 않고, 이 예배자는 매우 경건하고 경건한 사람이다. 내가 그 근처에 앉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배자는 생각했다. "나는 예배자다. "어떻게 이 나쁜 사람이 내 옆에 앉을 수 있지"? 따라서 반역자가 신봉자 가까이에 앉으려 할 때, 그는 그를 증오한다고 표현하고 그가 가까이 앉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예언자(역시 이스라엘 자손 출신)에게 신성한 계시를 보내셨는데, 그분은 반역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예배자의 모든 [경건한] 행위를

무효화하셨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에게 다시 경건한 행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구름이 [이전에] 반항적이었던 남자를 가리기 시작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의 마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지한 죄 짓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위엄에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표시입니다. 대신, 오만한 종교 학자이자 자랑스러운 신도보다 더 큰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로움은 극소수의 신자들과 세속적인 절제자들이 스스로를 구하는데, 누군가가 경멸하거나 상처를 주면 그것을 용서할 수 없는 죄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대우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진다면, 그들은 이런 못마땅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높은 지위와 지위를 주장하기 때문인데, 이 주장은 오로지 무지에 기반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누구누구가 나쁜 결말을 맞을 거야" 혹은 "누구누구가 벌을 받는다" 같은 주장을 하게 만듭니다. 만약 우연히 범죄자가 치명적인 병에 걸리면, 그것을 기적으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복수하셨다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사도들을 저주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해치고 심지어 죽였다는 사실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부분의 범죄자들에게 안식을 주셨고 세상에서 어떤 벌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많은 이들이 [신성하게] 진리로 인도되었고, 세상에서 벌을 받지 않았으며 내세에서도 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무지하고 오만하며 자기기만적인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수를 하셨다고 생각하는가? 어쩌면 우리는 이 오만함과 자기 의로 인해 하나님께 비난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며, 자신의 [영적] 파멸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은 지성을 박탈당한 오만한 사람들의 것이다. 두 사람 사이의 차이는 얼마나 큰가요? 한 사람은 내면과 외면 모두에서 경건한 경외심과 경외심, 경외심을 가지고 있으며, 낮은 자아를 두려워하며(그 부정적이고 해로운 성향 때문에), 겸손에서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하찮게 여기며, 그것을 개혁하기 위한 투쟁에 끊임없이 바쁩니다.

두 번째 사람은 과시, 오만, 질투, 속임수의 더러움을 숨겨 사탄의 장난감이 되었고, 게다가 자신의 [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사람은 이 무지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자본을 낭비한 것입니다. 무지는 가장 큰 죄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결정하는 것은 단지 어리석음과 무지이며, 하나님의 책임감에서 나오는 두려움 없음의 표시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فَلَا يَأْمَنُ مَكْرَ ٱللَّهِ إِلَّا ٱلْقَوْمُ ٱلْخَٰسِرُونَ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마크르*) 단, 충격적인 패배 직전의 사람들 그룹을 제외하고는." (꾸란 7장 99절)

요컨대, 오만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종들만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재앙이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흔히 이 재앙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만의 세 번째 원인 – 혈통(인종, 민족, 국가, 부족, 공동체): 높은 혈통을 가진 사람(좋은 가문 출신, 존경받는 가문 출신)은 이 높은 혈통을 박탈당한 사람들을 깔보는데, 그들이 지식과 의로운 행위에서 더 뛰어나더라도 말이다. [이 논의는 인종, 민족, 종교, 종파, 부족, 공동체, 언어, 정치, 이념, 민족주의적 자부심, 오만, 우월감 및 그로 인한 증오, 또는 이러한 특성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을 깔보고 열등하다고 여기는 모든 형태에 적용됩니다. 진정한 종이자 하나님의 친밀한 존재는 자신의 색깔이 없으며, 사랑, 연민, 자비, 정의, 평등, 진실, 이타심, 이타적 봉사, 타인을 돕는 등 수많은 신성한 특성으로 표현되어 하나님의 색을 채택하는 자입니다. 등등. 때로는 이 사람의 오만함이 너무 심해서, 겸손한 출신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노예나 하인으로 생각하고, 그들과 어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을 혐오스럽게 여깁니다. 자신의 혈통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모욕적인 이름으로 부르거나 "당신은 누구죠?", "아버지는

누구였나요?", "나는 어떤 [위대한 사람]의 자녀나 손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찮은 사람이 어떻게 나와 말하거나 심지어 쳐다볼 수 있지?" 모든 선적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 하위 자아에 이 비밀스러운 신경이 [미묘하거나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를 가지고 있지만,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이 신경의 얼어붙은 피가 녹고 내면의 빛이 꺼지면, 자신의 혈통과 족보를 언급하며 [모욕적이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이런 [모욕적이고 모독적인 행동]은 겸손한 [하나님의 종]에게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부 다르(하나님께서 그를 기쁘시길)가 전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가 [내 곁에서] 함께 계셨을 때, 나는 한 남자와 말다툼을 했고, 분노에 휩싸여 그를 '흑인 여성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طَفِ الصَّاعَ طَفِ الصَّاعَ لَيْسَ لِابْنِ الْبَيْضَاءِ عَلَى ابْنِ السَّوْدَاءِ فَضْلٌ

'두 저울은 같다. 백인의 아들은 흑인의 아들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신의 눈에서 평등하므로 인종적 자부심과 오만함을 표현할 필요는 없다]'.

예언자에게서 이 말을 듣고 나는 땅에 누워 그 남자에게 일어나 내 뺨을 밟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 갈등 상황에서 드러난 내 인종적 자존심과 오만함을 없애기 위해], 나는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서서 이 죄를 속죄하여 내가 이런 방식으로 모욕한 남자에게 속죄하려 했다]". (내레이션 *하디스* 모음집: *사히흐 부카리, 사히흐 무슬림*, *무스나드 아흐메드*)

예언자 무함마드(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가 아부 다르에게 자신의 백인성을 우월성의 원인으로 여기며 이 잘못을 알렸다는 것을 보십시오. 무함마드 예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슬람에서 백인과 흑인이 모두 평등하다고 말하며(인종과 피부색에 따라 누구도 우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나 상상력조차

죄와 무지라고 알려주었다. 또한 예언자의 경고가 아부 다르(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바라며, 예언자의 영적 감시와 훈련 아래 있었으며 그 훈련을 통해 스스로를 배우고 개혁하고 있던 예언자 동료)에게 얼마나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보라.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실수를 부끄러워했다. [즉시] 회개하고, 그 나무가 '오만함'이라 부르는 그 나무를 그의 마음 표면에서 그 사람의 발바닥으로 제거했다. 그는 바로 그 순간 명예(이 경우 교만과 오만함)의 근절은 오직 굴욕을 통해서만 달성된다는 것을 배웠다. 비슷한 전통에 따르면, 두 사람이 예언자 앞에서 자부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다른 이에게 말했다. "나는 누구누구,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네 엄마가 죽길, 너는 누구니?" 무함마드 선지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예언자 모세(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앞에서 자랑스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나는 누구누구,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며 아홉 조상의 이름을 세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모세에게 계시를 보내셨습니다(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 그 아홉 조상들이 지옥의 주민이며, 당신이 열 번째 주민이라 [그러니 당신과 조상들의 오만함이 여러분 모두를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했습니다]." (내레이션 *무스나드 아흐메드* 하디스 *모음*집)

오만의 네 번째 원인 – 아름다움과 외모: 아름다움을 통한 오만은 보통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의 결점을 드러내고 그들을 비난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아이샤(예언자의 아내, 신께서 그녀를 기뻐하시길)는 이렇게 전합니다. "한 여자가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를 찾아왔다 [영적 조언].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손짓으로 그녀가 얼마나 작은지 가리켰다. 예언자는 내게 말했다: '너는 그녀를 험담했다'." 그녀가 비판한 목적은 비밀스러운 오만함이었는데 [그녀 자신도 깨닫지 못한 숨겨진 오만함] 자신이 키가 작았다면 상대방을 그렇게 키가 작다고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마치 그녀가 키가 크다고 생각하고 다른 여성을 '난쟁이'라고 부르는 것 같았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사랑하는 아내의 부정적인 생각을 즉시 바로잡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아내도 이 어리석음을 즉시 깨닫고

마음에서 이 잘못된 생각을 제거했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이 예언적 가르침을 정직하게 보고하여 영원히 사람들의 개혁을 위해 전했다. 그들 자신의 영적 고양, 개혁, 변화를 위해].

오만의 다섯 번째 원인 – 부: 이 오만은 왕들이 보물, 사업가들의 사업물과 자산, 농부의 농부들, 그리고 옷과 탈것을 가진 부유한 자들에 의해 행해집니다.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천하게 여기며 거만하게 대하며 "너희는 거지이자 빈민이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다. 원한다면 너 같은 사람을 사서 내 하인으로 만들 수 있어. 당신은 누구고,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내 집에 네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물건이 있어. 나는 하루에 너희가 1년 동안 쓸 수 없는 만큼 많이 쓰는 거야." 부유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부의 중요성과 위대함을 지니고 가난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빈곤의 우수성과 부의 해악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알고 있었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만의 여섯 번째 원인 – 권력: 이 오만함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위에 대해 행하는 것이다. [이 오만의 근거가 되는 권력은 신체적, 정치적, 물질적, 영적, 지적 권력을 가질 수 있으며, 신성한 법칙에서도 똑같이 비난받아야 한다].

오만의 일곱 번째 원인 – 도우미, 지지자, 숭배자, 친척의 풍부함: 많은 학생, 도우미, 친척, 추종자, 지지자, 존경자 때문에 오만해를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들은 군대의 규모 때문에 오만하고, 스승들은 학생이 많아 오만합니다.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은, 오만함의 원인(예: 아름다움, 권력, 부) 자체가 현실에서 완전하든 아니든 간에 완전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동시대인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성관계를 갖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이는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형태의] 완벽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무지에 기반한 믿음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만의 원인이며, 이러한 특성이 없거나 비교적 덜 가진 사람들에게 가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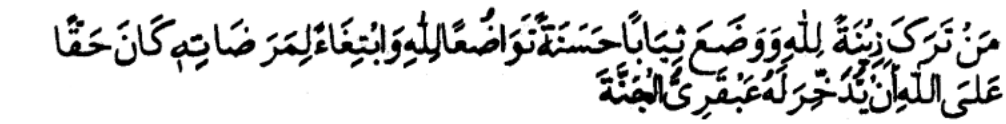
도덕, 예절, 겸손한 사람의 성격 특성과 내면적 성향, 그리고 오만함이나 겸손의 영향을 보이는 행동의 설명: 오만함은 개인의 습관과 태도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경멸하거나 화난 표정을 짓기, 눈치채기, 가슴에 머리를 기대는 것 등이 있다. 베개를 들고 앉아 있거나, 목소리의 톤, 글자와 단어의 전달, 그리고 사람들에게 답하는 방식 등 발화에 나타납니다. 오만함은 걷기, 일어설 때, 앉는 것, 그리고 신체 움직임과 제스처에도 나타납니다. 자신의 상태나 표현을 바꾸는 것은 오만함의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들 중에는 모든 행동과 말에 오만함을 드러내는 이들이 있고, 어떤 오만한 사람들은 어떤 일에서는 거만하지만 어떤 일에서는 겸손하다. 다음에서는 몇 가지 습관[그리고 오만함의 표현]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손이 묶인 채 앞에 서길 원하거나(존경, 명예, 권위자에 대한 복종의 표시로) 다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일어나길 원합니다. 알리(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지옥의 사람을 보고 싶다면, 앉아 있는 사람을 보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정중히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나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예언자 전통에 따라, 예언자 동료들이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를 다른 누구에게도 느끼지 못한 만큼 큰 사랑을 가졌다고 전합니다. 그들이 그를 볼 때, [사랑과 존경심 때문에] 그를 위해 나서지 않았어요. 그가 자신을 위해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어떤 거만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따라올 때까지 걷기 시작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부 다르다(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누군가 뒤에 걷는 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예언자 무함마드(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가 동료들과 함께 걸을 때, 그는 그들에게 앞서라고 요청했고, 자신은 그들 뒤를 따랐습니다. (내레이션 *하디스* 모음집 *아부 만수르 알-다일라미* 와 *무스나드 알-피르두스*)

이 계획의 목적은 예언자 동료들을 교육하거나, 이로 인해 자신의 오만과 자기 과시에 대한 사탄적 암시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Nafs*). 또한 오만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 옆에 앉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들이 정중하게 앞에 앉기를 원한다는 습관도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태도에도 반합니다. 아나스(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메디나의 어떤 어린 소녀가 와서 무함마드 예언자의 손을 잡고(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 그가 길을 걷는 동안 서 있었다면, 예언자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스스로 손을 놓고 떠날 때까지 그 손을 놓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절대적인 겸손함으로] 예언자는 자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습관은 오만한 것으로, 환자 가까이 앉는 것을 피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오만함입니다. 한 남자가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에게 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닭 상자 여드름이 가득하고 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예언자 옆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자 예언자는 일어나 그를 옆에 앉히게 했고 [그의 병에 대해 혐오감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의 영혼을 치유하고 마음을 달래는 애정과 공감을 보여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집안일을 직접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겸손에 대한 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오만한 사람들은 자기 물건을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 방법은 겸손한 사람들의 습관에도 반합니다. 옷을 입고 입는 것은 겸손과 오만함을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옷의 화려함은 마음에 자부심을 심어준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장식, 장식, 화려한 장식(*지나*)을 남기고, 겸손함으로 인해 신의 승인을 구하기 위해 고운 옷을 남기는 자는, 그런 사람을 위해 천국에서 온 최고의 옷을 보관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 (내레이션 *압둘라 이븐 압바스의 권위에 따른* 아부 나임 *하디스* 모음 집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كُلُوا وَاشْرَبُوا وَالْبَسُوا وَتَصَدَّقُوا فِي غَيْرِ سَرَفٍ وَلَا مَخِيلَةٍ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과도함(낭비)이나 오만함으로는 자비를 베풀지 말라."
(내레이션 *암르 이븐 슈아이브의 할아버지로부터 권위에 따라* 하디스 *수집* 티르미디)

예수(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동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너희는 승려 복장을 입고 가슴에 짐승의 심장을 품고 있어! 왕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마음(하층 자아)을 죽여라". 겸손의 한 습관은 누군가가 저주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권리를 빼앗을 때 관대하고 관용적이며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는 이를 요약하기 위해 언급하는 것은, 아름다운 도덕성, 예절, 특성, 내면의 특성과 성향(*이흘락*), 그리고 겸손(모든 인류를 위해)의 정점이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의 아름다운 행동 양식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의 아름다운 본을 따르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들은 영적 길에서 스승이자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만함의 치료법과 겸손을 얻는 방법

앞서 언급한 내용을 통해 오만함은 치명적인 병이며, 이 병으로부터 보호받는 사람은 창조물에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병은 단순한 의도와 바람으로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와 이러한 약물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오만함의 치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된다. 한 가지 방법은 이 병의 뿌리를 심장에서 뽑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오만함을 저지르게 만드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만함을 치유하는 첫 번째 방법: 이 치료법은 지식 기반과 실용적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이 치료법의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완전한 치유(회복과 그에 따른 건강)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지식 기반 치료: 인간이 자신의 자아(Nafs)와 자아의 창조주(즉, 신)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인식(Gnosis)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지(*마리파*)를 얻으면 오만함의 병이 사라지길 바란다. 이는 인간이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자아가 극도로 굴욕적이고 천한 존재라는 결론에 반드시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어울리는 것은 겸손, 굴욕, 그리고 온순함뿐이다. 만약 누군가가 주님의 영지에 도달한다면, 위대함과 위엄 같은 특성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할 뿐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인간에게 가장 좋은 행동과 존재 상태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위엄에 순종하는 것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지와 그분의 위대함과 고상함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있습니다 [가잘리의 지혜 모음집 『하나님의 길에 대한 지식의 부흥』]. 자기 인식이라는 주제가 결코 덜 세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겸손과 온유의 특성을 키우기에 충분한 만큼만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 위엄 앞에서]만 씁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긴 토론 대신 꾸란 한 구절만을 논의 주제로 삼겠습니다:

قُتِلَ ٱلۡإِنسَٰنُ
مَآ أَكۡفَرَهُۥ ﴿١٧﴾ مِنۡ أَيِّ شَيۡءٍ خَلَقَهُۥ ﴿١٨﴾ مِن نُّطۡفَةٍ خَلَقَهُۥ فَقَدَّرَهُۥ ﴿١٩﴾ ثُمَّ
ٱلسَّبِيلَ يَسَّرَهُۥ ﴿٢٠﴾ ثُمَّ أَمَاتَهُۥ فَأَقۡبَرَهُۥ ﴿٢١﴾ ثُمَّ إِذَا شَآءَ أَنشَرَهُۥ ﴿٢٢﴾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에게 화가 있나! 하나님은 무엇으로 한 사람(인간)을 창조하셨나요? 정자로 창조되고, 자신의 형태를 만들고, 측정된 장기를 만들고, 태어나 세상에 오도록 길을 쉽게 만들었으며, 한 번의 죽음을 주고 무덤으로 데려가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부활시키리라." (꾸란 80장 17-22절)

이 구절에서는 인간의 시작, 끝, 그리고 그 사이의 상태들이 암시되어 있다. 인간이 자신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사이의 삶의 상황을 한 번 바라본다면, 이 신성한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시작은 [태어나기 전에] 멸종되어 오랫동안 [영원히] 멸종의 장막 속에 머물러 멸종의 시작조차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멸종 상태에 처해 존재조차 없는 것보다 더 굴욕적이고 비열한 일이 있을까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매우 비열하고 더러운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먼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정자로 창조한 뒤, 피로 만든 뒤 피로 응고된 형태를 만들고, 뼈를 만들고, 그 뼈에 살을 얹어 [어머니의 자궁에서]. 이것이 바로 인간 창조의 시작이다. [최초] 창조 이후에도 하나는 완전히 창조되지 않았고, 듣고, 보고, 움직이고, 지각하고, 알고, 이해할 힘과 능력이 없는 생명 없는 돌과 같았기 때문에 나쁜 구성에 머물렀다. 사람은 먼저 죽음(멸종)에서 삶의 여정을 시작했고, 능력과 권능보다 약함을, 지식보다 먼저 무지를, 보기 전에 눈먼을 앞서, 청각 전에 청각을 잃었고, 말하기 전에 어리석음을, 인도보다 오해를 이끌었고, 부보다 가난을 앞서, 힘과 능력보다 무력과 무능력이 먼저 시작되었다.

그 후 하나님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신체 기관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장기들이 부족했을 때, 절실한 필요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를 하셨습니다 [요청할 능력도 갖기 전에 놀라운 신체적, 정신적, 지적, 영적 능력을 부여하셨고], 배가 고팠지만 하나님께서 위를 위한 영양을 주셨고, 벌거벗었지만 하나님께서 몸을 덮어주셨으며, 잘못 인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인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계획으로 창조하시고 진리를 찾으신 이들을 인도하셨는지 보고, 인간의 반항을 보라!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는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한 번 바라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인간을 굴욕과 천박, 더러움에서 끌어내어 고귀하고 위대함으로 승천하셨는지에 대해[영혼의 고상함을 통해 인간 존재의 핵심이자 영지에 도달하고 진리를 얻으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기원이신 하나님께 도달하는 주요 도구], 멸종에서 존재를 허락했다. 무(無)와 무존재보다 더 하찮고 비참한 것이 있을까? 절대적 멸종(무존재)보다 낮은 정도가 존재하나요? 하나님은 한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생명이라는 선물로 모든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 먼저 자신의 존재의 비참함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지키기 위해 발밑에 짓밟힌 천한 흙에서 시작하셨습니다(*나프스*). 그 후 하나님께서 은혜를 완성하셔서, 이 신성한 은총들 안에서 자신의 주님을 인식하고 알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 위대함을 깨닫게 하여 위대함과 위대함이 오직 그분에게만 어울리며(그 외에는 누구에게도) 어울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배우자는 인간 세대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상태가 이런 시작(기원)이고 상황이 이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자랑스럽고, 거만하며, 자존심 강하고, 오만할 권리가 있겠는가? 한 명은 확실히 하찮은 자들 중에서, 그리고 약한 자들 중에서도 극히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찮고 낮은 사람(자신의 낮은 출신 때문에 명성, 부, 권력 등으로 인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으면서) 자신을 위대하다고 상상하기 시작하는 습관이 있다. 비록 자신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타락이다. 권력, 힘, 명예, 위대함은 모두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인간이 완전히 창조되었고(신의 개입 없이) 모든 일이 자신에게 맡겨졌으며, 자신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반항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시작과 끝을 소홀히 할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상실을 받아들이든 동의하지 않든, 사람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병에 걸리고, [이 세상 존재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손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선도 악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대해 알고 싶어도 무지만 얻고, 기억하고 싶지만 잊어버리고, 중요한 일로 마음을 바쁘게 하고 싶지만, 암시들이 사람을 사로잡아 걱정과 불안의 끝없는 바다에 깊이 빠지게 만듭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도 없다. 그것은 항상 자신의 파괴가 내재된 것들을 바라고, 자신의 생명과 연관된 것들을 미워하는 마음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음식을 즐기지만, 이 음식들은 치명적이고, 약은 병에서 벗어나 몸의 건강을 돕는 것을 싫어합니다. 낮과 밤의 어느 순간에서든, 청력이 빼앗기거나 시력이 빼앗기거나 장기가 마비되거나 지성이 파괴되거나 영혼이 사라져 세상에서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모든 것이 빼앗기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불쌍한 인간은 절망적인 무력감의 화신이다! 만약 존경하신 창조주(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휴식을 주며], 그 사람은 머무르고, 만약 생명을 빼앗기면 멸종하게 됩니다. 한 명은 구매된 노예와 같아서 통제할 수 없고 타인의 행동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겸손한 일이 있을까? 그런 자만함에 어울리는 오만함이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결론은 죽음이다. 즉, 영혼이 인간에게서 빼앗긴다는 뜻입니다. 청각, 시각, 지식, 권력, 감각, 지각, 움직임 등 모든 능력과 능력이 박탈될 것입니다. 사람은 돌처럼 변해 이전과 똑같아질 것입니다 [즉, 무(無)과 멸종 상태의 생명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장기의 형태는 [처음에] 유지되지만 움직임이나 감각은 없을 것입니다. 그 후 무덤 흙에 안치됩니다. 그 후 태어나기 전과 비슷한 더럽고 악취 나는 시체가 되어, 더럽고 굳은 살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장기는 썩고, 그 구성 요소들이 흩어지며, 뼈는 입자로 분해됩니다. 곤충이 몸의 모든 살을 먹어치웁니다. 먼저 눈구멍에 들어가 마무리한 뒤, 볼을 공격해 깨끗이 만듭니다. 이 곤충들의 위로 들어가면 몸의 어떤 부위도 오염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더 나은 상태는 썩고 부패한 후 다시 흙이 되는 예전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존재한 후에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시 멸종된다.

땅의 한 조각이 된 후에는 이 상태에 머무르지만, 심판의 날에 부활이라는 또 다른 혁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흩어진 모든 신체 입자는 다시 몸으로 합쳐지고, 한 사람은 무덤에서

일어나 심판의 날의 공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장면들을 보면 경악할 것입니다 - 심판의 날이 시작되고, 우주는 솜뭉치처럼 흩어져 있으며, 지구는 모두 변했고, 산들이 날아다니고, 달과 태양, 별들은 빛을 잃었으며, 사방은 어둡고 사방에 선정 천사들의 날개가 보입니다. 지옥은 모든 주민을 불러들일 것이고, 범죄자들은 (범죄, 과잉,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천국을 유감스러운 그리움으로 바라볼 것이며, 모든 인간을 위한 행위 기록부가 열리고, 범죄자들은 모든 행위를 기록하는 기록부를 읽으라고 지시받을 것이다 [선악을 포함해서, 인간이 지상 존재 중에 행한 일들]. 그들은 "그 등기부에는 뭐가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우 행복하고 자랑스러웠던 세속 생활에서, 두 명의 천사가 각자에게 지정되어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을, 크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일어나고 앉는 것, 모든 것이 이 행위 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당신은 잊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움직임과 모든 일들을 [이 행위 기록부]에 담아 두셨습니다. 와서 책임을 지고 [네 행동에 대해] 책임질 준비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아직 기록 기록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마음이 두려움에 떨릴 것이다. 그들이 그들을 보면, "아, 아! 이 등기부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어! 크든 작든, 모든 죄가 여기 열거되어 있어!"

이것이 인간의 최종 종말이다! 이 상태에서 오만함과 우월감을 갖는 것이 용납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존재 초기와 중간 시기 상태[이 세상에서의 삶이라 불림]는 알려져 있다. 만약 끝 상태가 자신에게 알려진다면, 인간이 아닌 돼지나 개가 되어 심판의 날에 그 연설을 듣거나 어떤 형벌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실은,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면, 돼지는 돼지보다 훨씬 낫습니다 - 이전에는 먼지였고 다시 먼지가 되었으니, 책임의 단계를 거치지 않거나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결말을 가진 사람, 무슨 자격이 있겠어? 어떻게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울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때는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우월함과 탁월함을 확신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종 중 죄를 짓지 않고 신의 응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없으며,

하나님께서 관대함과 친절로 용서하시는 경우를 제외하면 없습니다. 그분의 자비로 용서하시길 바란다. 사람은 자신의 최종 결말이 무엇일지 모른다. 심판의 날에 대한 책임에 대해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그날의 굴욕과 굴욕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만함을 지식 기반 치료법으로 해결한 세부 사항이었습니다.

오만함의 실질적 치유: 오 만함의 실천적 치유는 하나님을 위해 겸손한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하는 것을 본받아야 하며, 이 겸손의 특성에 충분한 빛이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의 상태를 언급하는 데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살만에게 물었어요(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왜 새 옷을 입지 않나요?" 그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께] 해방(자유) 선언을 받는 날, 나는 새 옷을 입을 것이다." 그는 내세의 자유를 가리켰다 [삶의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고 신의 책임이 끝난 심판의 날에 성공으로 선언됨]. 겸손은 [겸손의 행동]을 통해 완성(주입)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만한 아랍인들이(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 시절 무지의 시대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은 상태였으며, 완전한 영적 변화로 인도하던 시기에 [신성하게] 신을 믿으라고 명령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기도가 하나님으로 가는 길의 기초라고 들었습니다(*단*). 기도에는 특정한 비밀과 신비가 있으며, 그런 점에서 기도를 믿음의 기초로 삼는 것이 옳습니다. 이 비밀 중 하나는 기도가 겸손의 가장 좋은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을 묶고 기도 상태에서 서서 절하고 엎드리는 모든 행동은 겸손함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마음도 함께 있을 때]. 예언자 무함마드(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가 오기 전, 아랍인들은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에게 기도의 모든 행위는 굴욕과 천한 행위의 상징이었다. [이교도] 아랍인들은 [기도 상태에서 신께 절하는 행위]를 굴욕(겸손)과 천천한 행위의 극치로 여겼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신앙 후에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 기도 행위가 그들의 교만과 오만함을 깨뜨려 겸손이 마음에 태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은, 신으로 가는 길에 대한 지식과 이해(그노시스)를 얻은 자는 오만함을 암시하는 모든 사안과 원인을 주시해야 하며, 그 반대되는 행동을 행동하며 인내하며 겸손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지식과 행동의 샘으로 관개될 때까지 아름다운 도덕, 예절, 성격 특성, 내면의 성향(이흘락)의 정원이 되지 않는다. 이는 [신체] 기관이 보이는 영역('*알람 알-자히르*, 즉 가시적인 세계)과 관련되어 있고, 심장 [또는 영혼]은 천사의 영역('*알람 알-말라쿠트*', 즉 영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두 영역 사이에는 비밀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들의 행동은 분명히 심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심장이 인간 존재의 지배자이기 때문].

오만을 고치는 두 번째 방법: 앞서 언급한 일곱 가지 원인과 관련된 오만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정한 완전함은 지식과 [선하고 경건하며 의로운] 행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이외의 것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여도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지식과 행동을 제외하고, 모든 완전함은 상상된 완전함입니다. 오만의 일곱 가지 원인을 모두 지식 기반으로 하고 실천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만의 첫 원인 - 혈통: 혈통이나 족보 때문에 오만해지는 자는 두 가지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마음을 치유해야 한다. 이런 자존심과 오만함의 의미는 누군가의 [인식된] 완벽함에서 명예를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혈통 때문에 오만한 사람이 자신의 인격적 자질이 부족하다면, 조상들의 완벽함과 위대함으로 자신의 결핍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는가? 둘째, 자신의 진짜 혈통을 알아야 합니다. 즉, 아버지와 할아버지와의 진짜 소개를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더러운 정자 한 방울로 만들어졌고, 할아버지(또는 증조할아버지)는 이제 먼지가 됩니다. 인간의 기원은 발밑에 짓업된 흙입니다. 흙(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오만함을 실천해야 할까요? 만약 인간을 흙에 귀속시키는 것이 매우 먼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당신이 귀속된 정자방울을 매우 면밀히

봐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사람은 자신을 천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도 귀족 혈통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어! 그들의 자손들 중 [현재 존재하는 분들]의 귀족 기질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람의 기원은 흙이고, 또 다른 사람은 정자에서 왔어요. 만약 이것이 진짜 혈통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 한 쪽(흙)은 발밑에 밟히고, 다른 쪽(정자)은 몸에 닿으면 씻어야 합니다. 이 혈통의 현실을 아는 자는 결코 오만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흙과 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보다 더 비열한 것이 있을까요?

오만의 두 번째 원인 - 아름다움: 두 번째 오만의 원인은 아름다움[또는 잘생김]입니다. 그 치료법은 동물처럼 외면을 바라보지 않고 내면을 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신의 결점, 비난받아 마땅한 특성, 그리고 외면의 아름다움에 흠집을 남기는 결점들을 인지한다. 게다가 인간의 장기는 오염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중간 존재 부분[즉 태생 이후의 세속적 삶]의 상태입니다. 이미 정자와 생리혈의 조합으로 시작되었다고 설명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매우 겸손한 기원임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더러움에서 태어나고, 존재 속에서 더러움과 함께 살며, 죽은 후에는 더러워질 것이라는 현실을 주시하는 자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스러워할 수 없다. 인간의 아름다움의 유사성은 겉으로는 보기 좋지만 근원이 더러운 쓰레기 더미 위에 자라는 식물과 같다. 또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닮은 것은 야생의 꽃과 식물들로, 겉보기에는 보기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른] 바람이 불면 조각조각 흩어지는 마른 수염과 같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이 평생 지속되고 영원하며 흠집이 없었다 해도, 아름답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자랑스럽고 거만할 권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름다움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듯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 부족도 개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못하고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항상 여드름, 부상, 혹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 그 부위가 사라지거나 사라질까 봐 걱정됩니다. 우리는 매일

밤낮으로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잃은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처럼 덧없고 덧없는 것에 대해 자존심과 오만함을 갖는 것은 어리석고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오만의 세 번째 원인 – 권력과 힘: 권력과 힘도 오만의 또 다른 원인입니다. 그 치료법은 인간에게 강요된 질병과 병에 대해 숙고하는 것이다. 인간의 무력감을 보려면, 작은 신체 기관이 고통에 시달리는 순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 무능력한 사람들보다 더 무능해지고, 절박한 사람들보다 더 절박해질 때입니다. 인간의 무력함 상태는 파리가 무언가를 빼앗아가도 되찾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찮은 곤충, 모기, 개미가 귀나 코에 들어오면, 죽지 않고 죽일 수 있습니다. 가시가 발이나 몸의 다른 부위에 박히면 걷지 못하게 됩니다. 하루만 지속되는 열은 너무 많은 힘을 잃게 하여 수년간의 영양으로는 이를 보완할 수 없습니다. 가시도 못 견디고, 모기와 싸우지도 못하고, 파리도 막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힘과 힘을 자랑하고 자랑해야 하니? 아무리 강한 인간이라도 당나귀, 소, 코끼리, 낙타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동물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특성에 대해 자부심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만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원인 – 부의 풍요와 많은 지지자, 조력자, 추종자, 추종자: 오만의 한 원인은 부의 과잉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친구, 도와주는 사람, 팔로워, 그리고 팬의 풍부함입니다. 또한 왕(정부 당국)이 부여하는 계급에 따른 오만함도 포함된다. 이 오만함은 아름다움과 힘에 대한 오만과는 다릅니다. 아름다움과 힘은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의 일부이지만, 부와 많은 친구는 그 특성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만함은 마치 자신의 말이나 집에 대해 오만함을 표현하는 것처럼 매우 나쁩니다. 이제 말이 죽거나 집이 무너지면 이 오만함은 끝나고, 사람은 굴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재된 개인적 특성이 박탈되어 더 덧없기 때문입니다]. 왕에게서 지위나 명예를 받은 후 오만함을 표현하는 자는 내재적 자질이 박탈되고, 끓는 냄비보다 더 동요한 마음에 의존하게 된다. 왕들의 마음은 매우 빠르게 변합니다. 누군가에게 환멸을 느끼면, 그 사람을 끔찍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어떤 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성이 아닌

것에 대해 오만하는 사람은 순수한 무지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 부는 본질적인 특성이 아니며, 도둑이 순간적으로 훔쳐 부유한 사람을 굴욕적이고 의존하게 만들 수 있는 구분입니다. 본질적으로 내재되지 않은 특성들은 영구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내세에서 고통과 벌의 원천이 됩니다. 이런 자질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무지입니다. 더불어, 이 성질들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원한다면 그것들을 너를 위해 보관할 수 있고, 원한다면 그것들을 붙잡을 수 있다. 당신은 단지 매수된 노예일 뿐이며,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들을 잘 아는 사람은 오만함을 저지를 수 없다. 그 상태에 있는 사람(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은 자신의 능력, 부, 권력, 완벽함에 대해 자부심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굴욕당한 존재로 여길 수 있을까요? 이것이 통찰력을 가진 모든 지성인의 상태입니다(*Baseerah*). 그런 사람은 자신도, 몸이나 장기, 부의 소유자도 아님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악, 욕망, 고통, 그리고 끊임없이 파괴를 위협하는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 본성에 내재되지 않은 오만의 원인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오만의 여섯 번째 원인 – 지식: 자신이 가진 지식에 대해 오만하는 것은 치명적인 병이다. 때로는 치료가 매우 어려워지며, 이 병에서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지식의 명예가 하나님과 함께하듯,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에 비하면 부와 아름다움은 하찮은 지위를 가지며, 오히려 지식과 행동의 빛(지식에 기반한)이 그것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부여한다.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학자의 실수는 대중을 오도한다"고 말했다. 신법에는 너무나 많은 뛰어난 지식이 나열되어 있어, 학자가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무지한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를 여기지 않을 것이라 상상하기 어렵다.

지식에 대한 오만함의 치료법은 학자가 두 가지를 고려하고 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하나님의 증명이 학자(또는 스콜라 신학자)에게 더 완전하고 확고하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무지한 자의 10분의 1조차도 학자에게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영지(Gnosis) 후에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의 축복을 누리지 않는 최악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꾸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وَٱتۡلُ عَلَيۡهِمۡ نَبَأَ ٱلَّذِيٓ ءَاتَيۡنَٰهُ ءَايَٰتِنَا فَٱنسَلَخَ مِنۡهَا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구절(신의 징조, 하나님의 영지에서 나오는 지식과 지혜)를 허락했으나, 그런 사람이 [자신에게 신의 축복을 감사하지 않고 일시적이고 짧은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는 저속하고 저속한 욕망을 쫓아다닌 사람]의 조건을 되새기세요." (꾸란 7장 175절)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은 같은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فَمَثَلُهُۥ كَمَثَلِ ٱلۡكَلۡبِۖ إِن تَحۡمِلۡ عَلَيۡهِ يَلۡهَثۡ

"그래서 이 사람의 상태는 마치 강아지처럼 공기를 헐떡이고, 때리면 숨을 헐떡이고, 내버려 두면 여전히 숨을 헐떡이는 개처럼 변했다." (꾸란 7장 176절)

압둘라 빈 압바스(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위 두 구절 설명에서] 발람 바우라(예언자 모세 시대 이스라엘 자손 중 높은 영적 수준의 성인)가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받았으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세속적 욕망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모든 상황에서 숨을 헐떡이는 개와 닮았다. 발람은 또한 개처럼 행동했는데, 지혜의 보물이 신의 은혜와 관대함으로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도 욕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위험 자체가 학자에게 가장 큰 문제인데, 학자는 자신의 행위와 악행에 대해 더 많은 책임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 시대가 끝난 후 선지자들의 후계자로서 진리와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으로 이끄는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어떤 학자가 사람들에게 의를 권면하지 않았고, 자신은 그 의를 박탈당하지 않은 사람인가? 자신의 지위를 무지한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학자는 자신의 지위가 무지한 사람보다 높다고 해도, 그런 사람에 비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대중보다 도덕적 기준이 높고 대중을 위한 더 높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기대 때문에]. [깨달음] 이 위험 자체가 오만함에 걸림돌이 된다.

다가올 위험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만함은 조금도 남지 않고, 창조물 중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이 영화의 우화는 주인에게 몇 가지 임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노예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노예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매우 적절합니다.]. 그는 그 일들을 시작했지만 일부는 남겨두었다. 그 중 일부는 완수되었지만 부족한 방식으로 수행되었고, 일부는 완료되었지만 그는 자신이 스승의 뜻에 따라 해냈는지 계속 의심했다. 그 사이, 한 정보원이 그에게 알렸다. "네 주인이 너를 부르셨고, 네 소유물을 빼앗고 굴욕을 줄 것이다. 그는 당신이 강렬한 햇빛과 열기 아래 그의 문 밖에 서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극도로 괴로워하고 무력해질 때, 그는 당신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당신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거나 전혀 수행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 그는 이에 대해 심문하고 처벌에 대한 결정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어두운 감옥에 갇혀 평생 살게 될 거고, 조금도 쉴 수 없을 거야." 그 노예는 또한 주인이 많은 노예들에게 같은 대우를 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비록 일부는 용서받았지만.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어떤 노예 집단에 속하는지 알지 못한다 - 혹독한 처벌에 연루된 노예인지, 용서의 선언을 받은 노예인지. 이 현실을 숙고하는 것은 하위 자아를 겸손한 상태로 유지할 것입니다. 오만함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눈에 하찮아질 것이다. 슬픔과 두려움이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며, 창조물 중 어느 누구에게도 겸손하고 하찮은 사람에게 오만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상대방이 [잠재적인] 신의 응징 시기에 중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두를 겸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깊은 숙고의 문은 학자에게 열려 있다. 죄를 지으며 신의 계명을 위반한 횟수를 보면 - 외부 기관을 죄를 저지르는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내면은 과시(*리야*), 질투(*하사드*), 자기자만(*'우주브*), 위선(*니팍*) 등 죄와

위반의 중심이 되어 왔다). 표면적으로, [이런 학자나 스콜라 신학자의 최종적으로] 결말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자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오만함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학자가 생각해야 할 두 번째 점은 오만함(위대함과 위엄)이 오직 신에게 어울리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거만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노예로 불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서 겸손을 원하십니다. 신성한 말씀 중 하나에 있습니다. "네 마음에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한, 네 가치는 나와 함께 있다. "네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내 곁에서는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로부터 학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위(행위)만을 자신으로부터 가져가야 하며[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을 연구하는 학자는 대중보다 더 높은 도덕적·윤리적 기준을 가져야 하므로]. 이 현실을 숙고하는 것은 오만함을 없애는 것으로 기대되지만, 학자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거나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해 오만의 어둠을 마음에서 제거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숙고와 통찰, 숙고는 선지자들의 오만함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영광, 위대함, 위엄이라는 속성에서 신과 경쟁하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 강등(낮아진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낮은 자아들을 낮고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 근처의 계급이 올라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만의 일곱 번째 원인 – 신의 두려움: 신의 순종과 숭배에 대한 오만은 엄청난 고난(*핏나*)이며, 치유 방법은 모든 창조물에 대해 겸손을 갖도록 스스로에게 강제하며, 지식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행동하더라도 오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قُلْ هَلْ يَسْتَوِي ٱلَّذِينَ يَعْلَمُونَ وَٱلَّذِينَ لَا يَعْلَمُونَ ۗ

"말하라(O Muhammad)! 아는 사람들(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무지한 사람들)이 [언젠가] 평등할 수 있는가?" (꾸란 39장 9절)

이 구절 외에도 지식의 탁월함을 증명하는 많은 구절과 예언 전통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성한 지식]. 만약 경배하는 사람이 이 구절들이 자신의 지식에 따라 행동하는 학자에 관한 것이지, 죄를 짓는 학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이에 대한 답변은 당신이 이 구절(꾸란 구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إِنَّ ٱلْحَسَنَٰتِ يُذْهِبْنَ ٱلسَّيِّـَٔاتِ ۚ

"정말로, 선한 의로운 행위가 악행을 지운다 [신성하신 지시가 가르치신 방법은 자신의 잘못, 악, 잘못, 죄를 지우는 것이므로, 삶을 바꾸어 그것들을 지우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함의에 따라 선하고, 의롭고, 고귀하며, 진실하고, 도움이 되고, 유익한 노력을 함으로써 가능한 모든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함으로써 일어납니다]." (꾸란 11장 114절)

학자가 자신의 지식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처럼, 지식이 학자에게 구원의 수단이자 죄에 대한 속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자가 학자에게 가해질 대우, 책임 추궁이 있을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자가 학자를 폄하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학자가 가진 지식을 존중하여 학자에게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지식 소유자([종교적] 학자나 학문 신학자)에게 예배자보다 우월함을 유지하고 오만함을 저지를 기회가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식이 예배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숭배자가 학자에 대해 오만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학자들도 오만하지 않아야 하며, 둘 다 자신의 낮은 자아(*나프*)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인간은 [신성하게] 자신의 하위 자아를 감시하는 자로 임명되어 올바른 훈련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하위 자아를 경계하는 것이 적절하며, 타인과

관련된 일에서는 희망과 긍정적인 생각이 지배적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외부 신체 장기로만 예배하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숨겨진 죄가 태어나 신의 응징을 받을 자격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끔] 어떤 개인은 겉보기에는 악에 연루되어 있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진실함, 경외심, 존경의 등불이 빛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죄를 속죄하는 것으로 바꾸십니다. 그 결과는 심판의 날에 드러날 것이며, 그때는 많은 공개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많은 [독실한] 예배자들보다 훨씬 나은 상황을 살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서는 먼 가능성을 가까운 가능성으로 생각해야 하며, 그 상태는 당신이 자신의 하위 자아를 두려워할 때 형성됩니다.

지능은 다른 사람에게 가능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자신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을 받기 때문이며, 더불어 다른 사람의 신의 응징 때문에 신의 응징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채택하면 자신이 누구보다 우월하거나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 어떤 사람은 당신보다 더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탁월함과 내면의 자질]에서 당신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이 두 집단 모두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면의 성격, 개인적 자질, 선함, 의로움, 영성에서 당신보다 낫다면, 그런 사람을 만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만드셨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더 나쁘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내면에서 선한 일을 해서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회개를 받아들이시며 아름다운 행동으로 좋은 결말을 내릴 수 있는 좋은 습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의로운 행위는 단지 외면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성 부족으로 인해 내면의 탁월함이 없는] 저에게 좋지 않으며, 대신 이러한 예배 행위들 [예: 겉으로 종교성이나 가식으로 세속적 이익을 과시하거나 얻으려는 것]에 잠재된 해악이 있어 어떤 보상(신성한 용서에 따른 신의 보상)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 숭배의 수용과 근접성. 이런 다양한 집단을 다룬 후에야 비로소 지성이 완성되고, 선함에서 뛰어나면서 [도덕적] 리더십 역할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의 작가(하나님)가 자신의 운명에 비참함을 썼을 것처럼, 패배할 가능성을 의식하는 자는 결코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 두려움이 그런 사람을 지배하여 다른 모든 사람을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만심과 그 해악에 대한 비난

자기중심[또는 자기 의로움]의 악은 하나님의 책과 예언적 이야기에서 증명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وَهُمْ يَحْسَبُونَ أَنَّهُمْ يُحْسِنُونَ صُنْعًا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선한 일을 해왔고, 아무 잘못도 할 수 없다는 착각(망상)에 머물렀다." (꾸란 18장 10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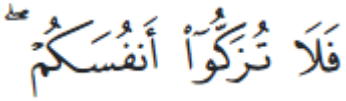
이 구절에는 인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항상 선한 생각과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 때로는 잘못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언적 이야기에서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ثَلٰثٌ مُهْلِكَاتٌ شُحٌّ مُطَاعٌ وَهَوًى مُتَّبَعٌ وَإِعْجَابُ الْمَرْءِ بِنَفْسِهِ

"파괴적인 세 가지가 있다 - 자신이 추종하는 구두쇠, 자신이 따르는 하위 자아의 저급한 욕망,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대하다고 여기는 사람 [자만심 상태에서]."

압둘라 이븐 마수드(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파괴는 절망과 자기 의로움, 두 가지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하셨는데, 사 *아다*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는 노력과 추구, 노력 없이는 달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망한 사람은 노력도 노력도 하지 않고 고군분투도 하지 않는다. 자기 의로움에 찬 사람은 자신이 이미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믿으며, 그 믿음 때문에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하거나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찾지 않고, 불가능한 것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찬 사람은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절망한 사람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한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면의 순결과 거룩함, 경건함을 스스로에게 돌리지 말라." (꾸란 53장 32절)

누군가가 아이샤에게 물었어요(신께서 그녀를 기뻐하시길), "언제 나빠지나요?" 그녀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할 때라고 답했다. 자기 의로움의 해악은 셀 수 없이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그 오만함은 오만함을 낳고, 오만함에서 많은 해악이 발생합니다. 이 해악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자기 의로움이 상대적으로 더 해롭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의로움에 빠지면 죄를 잊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죄는 완전히 잊게 되고, 그 중 일부가 기억에 남더라도 "나는 오직 의로운 행위를 할 뿐이다. 내 '죄'는 죄가 아니야. 만약 존재한다면, 그것은 너무 미미해서 수정이나 속죄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대신, 크고 작은 죄가 하나님께서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예배와 의로운 행위를 높이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 자부심과 오만함을 표현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덕분에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기 의로움을 표현할 때, 그 해악을 외면하는 것은 모든 노력이 헛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외부 행위가 정화되지 않고 모든 오염이 없지 않으면(악으로부터) 그 이익은 매우 적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자기 의로움의 해악을 알게 됩니다. 자기 의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은 자신의 낮은 자아(*나프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함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벌로부터 안전하고 보호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은혜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른바 하나님께 베푼 은혜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자기 의로움은 자신을 칭찬하고 내면의 순수함을 인정하도록 강요합니다.

자신의 의견, 행동, 지능에 대해 자기 의로움과 과시를 가질 때, 다른 사람에게서 이익을 얻거나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며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묻는 것을 [자기 자신에 대해] 모욕으로 여긴다. 때로는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의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옳고 그름을 고집하며 어떤 훈계자의 조언도 듣지 않고, 설교자의 설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을 무지한 사람처럼 바라보며 자신의 실수를 고집하게 됩니다. 세속적인 일에서 잘못된 의견이 표현되면 자신의 목적을 잃게 되고, 신념과 관련된 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영원히 해를 입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된 의견] 신뢰하지 않고 꾸란의 빛에서 깨달음을 얻었으며, 종교 학자들의 도움을 구하고, 지식 연구와 지혜의 모임을 꾸준히 수행하며, 법률 문제(*마사일* 또는 학문 신학)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지식과 지혜를 가진 이들에게 답을 구하는 행위를 계속했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진실에 도달했을 것이다. 자기 의로움의 가장 큰 해는 성공에 대한 추측(가정이나 환상)에 빠져 게으르게 노력하고 노력하는 데 게을러지며, 영적 길에서 모든 [의의] 행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의] 행위를 무지한 것은 아니며, 확실한 파멸이 운명이다. 우리는 신으로부터 신의 능력 부여(*후스른 알-타우피크*)의 아름다움을 구하며, 그분께 복종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의로움의 원인과 그 치유

오만의 원인은 자기 의로움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오만함의 원인은 이전에도 설명된 바 있다. 때로는 자기 의로움이 오만을 초래하지 않는 원인, 예를 들어 자신의 무지 때문에 좋게 여겨지는 잘못된 의견에 대한 자기 의로움에 의해 생겨난다. 자기 의로움과 자기존경의 원인은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 신체의 아름다움(신체 구성), 외모, 건강, 힘, 장기의 균형, 얼굴미, 목소리의 아름다움 등과 같은 신체적 특성과 특성에 대해 자기 의로움과 자기존경을 갖는 것이며, 그 결과 신체적 아름다움은 결국 쇠퇴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게 된다. 그 치료법은 오만함에 관한 장에서 쓴 것과 같다. 아름다움에 오만한 사람은 자신의 시작과 끝의 더러움을 상상하고, 얼마나 많은 아름답고 잘생긴 이들이 죽은 후 무덤에 묻혀 잠들었고, 꽃 같은 얼굴이 무덤 속 더미가 되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 원인: 자신의 힘과 권력에 대한 자기 의로움과 자기 감탄이 전쟁에서 먼저 공격하고, 자신을 파괴하며, 적을 가장 먼저 죽이고자 하는 욕망을 심어준다. 그 치료법은 이전에 언급된 바로, 열병이 하루 동안 모든 과대함을 잃게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다니게 하는 모든 힘을 소모시킨다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힘과 힘에 대해 자기 의로움과 자기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개인(또는 전체 집단, 국가)에게 재앙을 부과하여 그들의 오만함을 부추긴 힘과 권력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 자신의 지성, 지혜, 통찰, 선견지명에 대해 자기 의로움과 자기존경을 갖고,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일들 뒤에 숨겨진 미묘함과 내면의 지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의견에 집착하며(자신의 의견에 집착하며)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과 의견이 다른 모든 사람을 완전한 무지자로 생각한다. 그런 사람은 지식과 통찰을 가진 사람들과는 거의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나는 내 의견과 지성이 완전하며 누구의 인도도 필요 없으며, 오히려 모든 지식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열등하고 낮고 타락하다"는 말을 증명하기 위해 주의 깊게 듣지도 않는다. 이 [오만함, 자기 의로움, 자기 과잉]의 치유는 하나님께서 한 지성과 이해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신 질환에 걸렸을 때 자신이 지적이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염되어 모든 의식과 인식을 잃게 될 수도 있고, 그 결과로 거리를 어린아이처럼 돌아다니면 어린아이들이 그 행동을 재미있다고 생각하며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지성에 대한 자기찬과 오만함을 가지고, 지성의 부여자(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지성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신자는 통찰력 있고 지적이며 교육받았고 넓은 정보의 범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의 지식과 지성을 적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인간이 풍부한 지식과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이며, 그 외의 정보(알고 있는 정보)는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라는 점도 사실입니다. 다른 인간과 비교해 자신의 지식 상태가 이렇다면, 그 지식의 광대함이 끝없이 넓은 바다보다 훨씬 넓은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 사람의 지식 상태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지성을 부족하다고 여기고, 지식이 매우 적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일견

다른 이들이 자신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바보들에게, 비웃는 이들에게. 스스로 자기 의로움과 자기존경을 실천하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명단을 늘리지 마십시오. 지적으로 결핍된 사람은 자신의 지적 결핍을 인지하지 못하고, 어리석음 때문에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지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낫다. 특히 친구들의 의견을 믿지 말고, 그들의 거짓 칭찬으로 인해 자신의 의로움과 자기존경을 키우는 것을 믿지 말아야 한다.

네 번째 원인: 하슈미 혈통의 일부 사람들처럼 자기 의로움과 자기 숭배를 갖는 것입니다(바누 하심은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가 속한 부족입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자신의 혈통의 위대함이 구원의 보증인이며, 경건함과 도덕적 탁월함의 모범이었던 조상들 덕분에 용서받을 것이라는 자기기만적인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귀족 혈통의 일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자신의 하인이자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는 조상들의 본보기(행동 양식)에 반하여 조상들에게 반대했고, 어리석음에 의해 내가 그들과 동등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이것이 내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그들과 닮을 수 있지만, 따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은 자기 의로움을 실천했나요? 그들은 어디에 자기 의로움이 있었을까? 오히려 그들은 완전한 겸손의 화신이었다. 신에 대한 두려움은 그들의 혈관과 존재의 섬유에 깊이 박혀 있었다. 그들은 가장 천한 존재들을 자신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겼다. 그들 자신(*나프*)은 혈통 때문이 아니라 지식, 신성한 복종, 겸손함, 그리고 그들처럼 아름다운 내면의 속성 때문에 영적 지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눈에는 낮고 타락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들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그들을 따르고 그들의 좋은 습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혈통과 족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يَٰٓأَيُّهَا ٱلنَّاسُ إِنَّا خَلَقۡنَٰكُم مِّن ذَكَرٖ وَأُنثَىٰ

"오, 여러분!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즉, 아담과 이브로부터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들 둘 다에게 있기를])로부터 여러분 모두를 창조했으니, 인류라는 존재는 시작부터 끝까지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꾸란 49장 13절)

즉, 여러분 사이에 혈통(인종, 민족, 피부색, 족보, 부족, 공동체, 국가)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모두 평등하며, 인종, 피부색, 지역, 문화, 국적 등 다른 속성에 따라 누구도 우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 [구절] 이후, 하나님은 혈통의 유익(지혜)을 설명하십니다:

وَجَعَلْنَٰكُمْ شُعُوبًا وَقَبَآئِلَ لِتَعَارَفُوٓا۟ ۚ

"그리고 너희를 서로 알아보고 알아가게 하려 다른 나라와 부족으로 만들었지." (꾸란 49장 13절)

[인종, 민족, 피부색, 지역, 부족, 민족주의적 차이 뒤에 있는 신성한 지혜는 서로를 알고, 감사하며, 존중하고, 사랑하여 정의와 평등을 바탕으로 한 우호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은 구분과 존경이 혈통이 아니라 경건한 경외, 경외, 경외(*타크와*)에 기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إِنَّ أَكْرَمَكُمْ عِندَ ٱللَّهِ أَتْقَىٰكُمْ ۚ

"하나님 앞에서 너희 중 더 큰 존경을 받는 자가 더 큰 경외와 경외, 경외를 가진 자이다 [하나님이 그 판단을 내리는 자이니 너희는 아니라]." (꾸란 49장 13절)

다섯 번째 원인: 잔인한 통치자(권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조력자와 지지자들에게 자신을 돌리며, 신앙과 [영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과의 혈연 관계나 영적 연결에 아무런 중요성을 두지 않음으로써 자기 의로움과 자기존경을 갖는 것이다. 그 치료법은 잔인한 통치자들과 그 동료들의 굴욕적인 행위를 살펴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억압을 가하며, 그들이 하나님(딘)으로 가는 길에 얼마나 부끄럽게도 혼란을 뿌리는지 보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신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옥에서 그들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더러움과 악취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혐오와 혐오감을 느끼게 되어 그들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의 모든 연관을 끊고 그들과 어울리는 자를 비난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이 잔인한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얼마나 많은 굴욕을 겪는지, 천사들이 그들의 얼굴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개와 돼지에 자신을 속이고 싶지만, 악하고 교활한 내면의 존재를 가진 인간들에게 자신을 귀속시키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잔인한

사람들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억압으로부터 보호하신다면, 신께서 하나님께 가는 길(*딘*)의 안전함에 감사하고, 신앙인이라는 조건으로 조상들의 용서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인: 메카의 불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손, 종, 친척, 친구, 도우미, 추종자의 풍요에 대해 자기 의로움과 자기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 치유는 자신과 풍요로움을 자부심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약점을 고려하는 오만함에 대해 언급된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개인은 자신의 이익도 손실도 아닌 필요하고 하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게다가, 죽음과 함께 분리될 사람들 때문에 자기 의로움과 자기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무슨 이점이 있을까요? 한 사람은 혼자 무덤으로 가게 될 거야. 친구도,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동정심 어린 친숙한 사람도, 아버지도, 자손도 없으며, 자신의 민족이 직접 무덤에 묻고 벌레, 뱀, 전갈에게 넘길 것이다. 그때가 바로 모두가 필요할 때이지만, 소용이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심판의 날에는 눈을 돌리고, 대신 한 심판으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날의 풍경은 꾸란에 의해 다음과 같이 그려졌다:

يَوْمَ يَفِرُّ ٱلْمَرْءُ مِنْ أَخِيهِ ﴿٣٤﴾
وَأُمِّهِۦ وَأَبِيهِ ﴿٣٥﴾ وَصَٰحِبَتِهِۦ وَبَنِيهِ ﴿٣٦﴾

"그날, 형제,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 자식들로부터 도망칠 것이다." (꾸란 80장 34-36절)

절실히 필요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가장 필요할 때 피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부심을 표현하거나 환희하는 것이 무슨 이점이 있을까요? 무덤 안에서, 심판의 날에, 그리고 *시/랏* 다리 위에서(지옥 위의 좁은 다리로, 그 반대편에는 천국이 있는데, 이 다리는 머리카락보다 가늘고 칼보다 날카로우며, 예언적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심판의 날에 그 다리를 건너야 한다) 인간은 오직 자신의 [경건하고 의로운] 행위와 신의 은총으로부터만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손실에 대한 권력도, 자신의 생사에 대한 통제권도 없는 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일곱 번째 원인: 자신의 부와 물질적 소유물에 대해 자기 의로움과 자기존경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 치유는 부와 물질적 소유의 해악과 가난한 자들의 탁월함과 그들이 낙원에 들어가는 우선순위에 대해 한 번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는 오고 가는 것이지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부는 신자들만의 특징이 아니며, 많은 비신자들이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부 다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와 함께 모스크에 들어갔고 그에게 말했다고 전한다: "오 아부 다르! 머리 들어!" 그가 돌아갔을 때, 매우 잘 차려입은 남자가 보였다. 잠시 후 그는 다시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매우 오래된 옷을 입은 남자를 발견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هَذَا عِنْدَ اللهِ خَيْرٌ مِنْ قِرَابِ الْأَرْضِ

"이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온 세상보다 더 낫다." (내레이션 *아부 다르의 권위에 따른* 하디스 *모음 집 이*븐 히반 피 사히하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이러한 전통과 이전 책들(장들)에서 언급된 세속적 절제, 세속적 해악, 부의 해악에 관한 모든 유사한 전통들은 부유층의 낮은 지위와 가난한 자의 명예심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전통을 고려할 때, 무슬림이나 누구에게서도 자신의 부에 대해 자기 의로움과 자기존경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대신 신자가 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부를 가진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자기 의로움과 자기존경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부를 스스로에게 굴욕으로 삼을 뿐입니다.

여덟 번째 원인: 자신의 잘못된 의견에 대해 자기 의로움과 자기존경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يَحْسَبُونَ أَنَّهُمْ يُحْسِنُونَ صُنْعًا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은 일을 해왔다고 생각하지만(잘못된 추측)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꾸란 18장 104절)

무함마드 선지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는 자기 의로움과 자신의 의견에 대한 자기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심판의 날 전 마지막 세계의 단계)에 대해,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에 대해 자기 의로움과 자기존경을 갖는 경향이 [아무리 틀렸더라도]이 지배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전 국가들은 [종파] 집단에 휘말리는 경향 때문에 파괴되었고, 모든 민족(*우마*)은 여러 종파로 나뉘었으며, 각 종파는 자신들의 신념이 옳다고 믿었다." (이 전통은 하*디스*는 아부 타라바의 권위에 따라 *아부 다우드*와 *티르미디* 를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종교적 문제에 있어 혁신적(*비다*)과 오해(*달랄라*)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의로움과 자기존경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고집한다 [이 오만함이 종파적 분열을 초래]. 종교적 문제에 대한 자기 의로움과 자기존경('*우주브*)'의 의미는 '비*다*'에 관한 것으로, 그 행위가 더 낫다고 여기며, 자신의 욕망(하층 자아에서부터)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고, 사상 속에서 옳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이런 자기 의로움을 치료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의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익힐 수 없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과는 병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지는 아직 이해되지 않은 병입니다. 하지만 영지주의자(신을 아는 자)는 무지한 사람에게 자신의 실수를 알릴 수 있고, 이 병을 제거하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무지한 자가 자신의 무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그 영지주의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영지주의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병을 퇴사시킬 수 있는 영지주의자에게조차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서 영지주의자를 탓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된 의견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 파괴적인 재앙을 내렸지만,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데 기뻐합니다. 이런 병에 대한 치료법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에게 구별의 원천이라고 여기는 것을 어떻게 혐오할 수 있겠는가? 그 고수준 치료법은 항상 자신의 의견을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의견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의 진실성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생 모든 시간을 교육과 교육에 바칠 수 없는 사람은 종교적 문제(*마사일*이나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법적 입장)에 얽힐 필요가 없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단일성에 대한 믿음만 가져야 하며, 그분은 동반자가 없으며, 누구도 그와 같지 않다는 것,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진실한 예언자이며, 그가 온 [전 인류를 위한 신의 인도 측면에서] 가져온 것은 진리입니다. 더 나아가, 경건한 선조들[예언자들의 계승자]의 방식을 따라 행동하고, 꾸란의 명령과 예언적 길을 논쟁과 논거 없이 받아들이며, 의심 없이 경건한 경외심과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경외심을 갖고 [자신과 타인에게 해롭거나 해로운 모든 것을 중단하고], 죄에서 멀리해야 한다, 그리고 선한 의로운 행위에 빠져들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깊은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종교 토론에 빠져들고, 신념의 편견과 혁신(*비다* 또는 기존 원칙을 위반하는 종교적 신기술), 오해(*달랄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물질적 존재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미묘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지식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의 책임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우선, 논점과 조건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 친숙함을 쌓는 단계는 너무 세밀하게 지향되어 있어서, 진실을 아는 것이 때로는 어려워질 때가 있다 [진리의 길에는 평생의 끈질긴 노력이 필요한 미묘한 차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오직 지식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들만이 이 끝없는 바다의 해안에 도달할 수 있으며, 신성한 지식의 빛을 가진 자들만이 [그들의 내면의 영혼을 깨우치고 내면의 모든

어둠을 제거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자의 외모를 취하지만, 내면에는 무지가 지배한다.

교만과 경솔함에 대한 비난

영혼 속 모든 악의 침입에 대해 경계하고 경계하는 것은 인간에게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의 원인이며, 자만과 무심함에 빠져 있는 것은 영원한 슬픔과 저주를 초래합니다. 신의 노예(인간)에게 신앙과 영지(*마리파*, 즉 신과의 친밀함)보다 더 큰 축복은 없 으며, 이 축복을 얻는 수단은 마음의 확장(*샤라 사드르*)이다 [이는 내면의 빛을 통해 일어나며, 이는 내면의 존재를 정화하려는 영적 투쟁의 결과이다]. 반대로, 불신과 위반(죄 또는 하나님의 한계를 넘는 행위)보다 더 나쁜 것은 없으며, 이 악은 무지와 마음의 어둠 속에 잠긴 사람들만의 운명이 됩니다.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내적 깨달음)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ٱللَّهُ نُورُ ٱلسَّمَٰوَٰتِ وَٱلۡأَرۡضِۚ مَثَلُ نُورِهِۦ كَمِشۡكَوٰةٖ فِيهَا مِصۡبَاحٌۖ ٱلۡمِصۡبَاحُ فِي زُجَاجَةٍۖ ٱلزُّجَاجَةُ كَأَنَّهَا كَوۡكَبٞ دُرِّيّٞ يُوقَدُ مِن شَجَرَةٖ مُّبَٰرَكَةٖ زَيۡتُونَةٖ لَّا شَرۡقِيَّةٖ وَلَا غَرۡبِيَّةٖ يَكَادُ زَيۡتُهَا يُضِيٓءُ وَلَوۡ لَمۡ تَمۡسَسۡهُ نَارٞۚ نُّورٌ عَلَىٰ نُورٖۗ يَهۡدِي ٱللَّهُ لِنُورِهِۦ مَن يَشَآءُۚ وَيَضۡرِبُ ٱللَّهُ ٱلۡأَمۡثَٰلَ لِلنَّاسِۗ وَٱللَّهُ بِكُلِّ شَيۡءٍ عَلِيمُۢ ٣٥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빛이시다. 그분의 빛의 본보기는 그 안에 등불이 있는 벽감과 같으며, 등불은 유리 안에 있으며, 유리는 마치 축복받은 올리브 나무의 기름으로 빛나는 진주빛 별과 같다. 이 나무는 동서양의 기름이 아니며, 불에 닿지 않아도 거의 빛나고

있다. 빛 위에 빛.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의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꾸란 24장 [빛], 35절)

경솔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이 구절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أَوْ كَظُلُمَٰتٍ فِي بَحْرٍ لُّجِّيٍّ يَغْشَىٰهُ مَوْجٌ مِّن فَوْقِهِۦ مَوْجٌ مِّن فَوْقِهِۦ سَحَابٌ ۚ ظُلُمَٰتُۢ بَعْضُهَا فَوْقَ بَعْضٍ إِذَآ أَخْرَجَ يَدَهُۥ لَمْ يَكَدْ يَرَىٰهَا ۗ وَمَن لَّمْ يَجْعَلِ ٱللَّهُ لَهُۥ نُورًا فَمَا لَهُۥ مِن نُّورٍ ﴿٤٠﴾

"또는 [그것들은] 헤아릴 수 없는 바다 속의 어둠과 같다. 그 바다는 파도에 덮여 있고, 그 위에는 파도가 있고, 그 위에는 어둠의 구름이 있고, 어떤 구름은 다른 이들 위에 있다. 손을 내밀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주지 않으신 자에게 - 그런 자에게는 빛(마음과 영혼의 내면의 빛)이 없다." (꾸란 24장 [빛], 40절)

통찰력과 선견지명을 가진 사람들(신비로운 눈으로 모든 사안에 대한 깊은 내면의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를 내리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그분께 순종하는 상태로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무심한 사람들(삶의 진정한 목적과 영원한 진리에 대한 무관심과 무관심)은 하나님께서 오인도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자신의 영혼 안에 어둠이 깃들어 자신에게 해를 끼치도록 선택한 어둠 때문에] 진리와 인도를 위해 마음을 조이게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신의 빛으로]. 그들은 통찰의 문이 열리지 않는 불운한 사람들이며, 대신 낮은 근본적인 자아(Nafs)에서 나오는 자신의 욕망과 사탄적 사색, 생각을 안내자이자 지도자로 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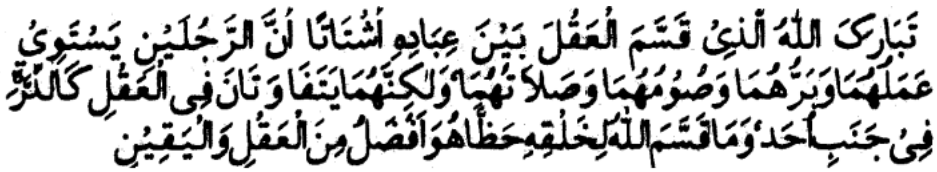
왜 교만과 부주의함에 대한 비난이 필요한가? 그것은 교만과 무심함이 모든 영원한 슬픔과 저주, 모든 파괴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들어갈 기회를

제공하는 길들을 설명하고, 자만이 풍부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길을 걷는 자가 신성한 영지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고, 하위 자아(*나프*)가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집단의 무책임함을 밝힐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많지만, 이와 유사한 다른 유형에 대한 경고를 받을 수 있도록 예시로 언급하겠습니다. 자존심과 무심함에 빠진 집단이 많습니다. 하지만 네 개의 그룹이 모든 그룹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학자이고, 세속적인 것을 피하며, 영적 여행자이자 엘리트(부유하고 권력 있으며 영향력 있는 계층)입니다.

실수와 망상을 피할 수 있다: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영적] 길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바른 의도를 가진다면 길의 숨겨진 장애물을 발견하고 이를 극복할 전략을 찾습니다. 사람이 원한다면, 몇 마일 떨어져 있어도 하늘을 나는 새를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다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산을 파서 금, 은 등 귀금속을 추출할 수도 있고, 정글에서 야생 짐승을 가둘 수도 있으며, 사자, 코끼리 등 사나운 짐승을 물리칠 수도 있고, 뱀과 비단뱀을 조종해 입에서 독을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뽕나무 잎으로 비단을 만들 수 있고, 지구에 서서 수치로 별의 수와 길이, 너비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전략의 저장소입니다. 인간의 전략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은 없으며, 인간이 전략으로 복종시키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창조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말을 타기 위해, 개를 사냥에, 매를 새를 사냥할 때, 그물을 낚아채기 위해 그물을 사용하며, 이와 같은 전략들은 이 세상에서 매 순간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략은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인간이 세속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전략을 사용할 때, 마음의 개혁(인간 존재의 무조건적인 지배자)에도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저 인간의 미신일 뿐이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은 없으며, 유일한 조건은 용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투쟁의 가시 같은 길에 발을 디딘 채 물러서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심장의 개혁을 불가능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여기지 않았고, 그것에 의해 패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경건한 선구자'(*살라프 알-살리힌*)로 불렸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의 발자취를 따랐고 성공을 유지한 추도자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확고한 결단력과 확고한 의도, 완전한 용기를 가지고 이 가시밭길을 [그 엄청난 과제에 좌절하지 않고] 건너는 성공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사람들이 세속적 임무를 위해 사용하는 전략과 계획의 양, 그리고 그에 대한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주면서도, 그 중 10분의 1조차 내세와 관련된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세속 삶의 진정한 목적과 다가올 영원한 삶에 대한 무관심과 무관심함을 보여줍니다].

실수와 망상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인간이 실수와 망상을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성, 지식, 그리고 영지(*마리파* 또는 깊은 통찰, 명확한 시야, 신성한 근접과 친밀함에서 오는 모든 의심과 모호함의 제거). 지성이란 원래의 빛과 타고난 순수한 인간 본성을 의미합니다 [탁하거나 탁한 상태에 빠지지 않고, 신이 원래 형태로 창조한 것]을 통해 인간이 사물의 현실을 인식합니다. 지능과 날카로움도 인간 본성과 관련이 있고, 어리석음과 둔감함도 본래의 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둔한 사람은 망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본래 지능적이고 날카로워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지능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원래의 지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지능을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럴 경우 경험으로 지능이 향상되고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모든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의 기초가 지성과 지능에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تَبَارَكَ اللهُ الَّذِي قَسَّمَ الْعَقْلَ بَيْنَ عِبَادِهِ أَشْتَاتًا أَنَّ الرَّجُلَيْنِ يَسْتَوِي
عَمَلُهُمَا وَبِرُّهُمَا وَصَوْمُهُمَا وَصَلَاتُهُمَا وَلَكِنَّهُمَا يَتَفَاوَتَانِ فِي الْعَقْلِ كَالذَّرَّةِ
فِي جَنْبِ أَحَدٍ وَمَا قَسَّمَ اللهُ لِخَلْقِهِ حَظًّا هُوَ أَفْضَلُ مِنَ الْعَقْلِ وَالْيَقِينِ

"하나님의 존재는 복되시다. 그분의 종들 사이에 지성을 다양하게 나누어 주셨다. 두 사람은 행위에서 평등하다 - 경건한 행위, 금식, 기도는 모두 같지만, 지성적으로는 여전히 매우 다르다. 마치 우후드 산 옆에 있는 입자처럼 지적 차이가 매우 다르다(즉, 입자와 거대한 산을 비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성과 확신보다 더 큰 축복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한 진리와 모든 진리의 문제에서]." (이 전통은 타우스가 전하고 하킴 티르미디가 전한다. *나와디르 알-우술*)

지능, 이해력, 타고난 지성은 모두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 [신성한] 축복이 주어지지 않고,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인간의 본성에 부여된다면, 그 부분을 완화할 수 없습니다. 실수와 망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두 번째 것은 그노시스(*마리파*)입니다. 그노시스는 네 가지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아를 아는 것(***Nafs***), 하나님을 아는 것, 세상의 실재를 아는 것(*듄야*), 그리고 내세를 아는 것(***Akhirah***)[이 책 1부에서 설명됨]. 자아를 아는 것은 자신의 종 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신의 명령이 지배하는 전체 틀 속에서 자신의 본질적인 무능력함과 무력함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나는 이 세상을 여행하는 사람이다 [신성한 임재 안에서 영생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이 욕망들(하위 자아에서부터)은 내 기질과 양립할 수 없다. 내 성격에 적합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지와 신성한 비전뿐이다." 이 현실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즉, 인간)이 자신과 주님에 대해 깊은 내면의 이해를 갖게 될 때입니다. 이 그노시스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영혼의 신비"(1장)와 "신의 감사"(12장) 장에서 자세히 논의된 주제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들에서는 하위 자아와 그 특성들이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지침을 제공한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노시스의 완전함(*카말*)의 단계는 그 다음에 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아니지만, 영적 드러나는 지식(*'일름 알-무카샤파*)과 관련이 있습니다(영적 드러남에 관한 신비주의 지식은 루미와 이븐 알-아라비 같은 다른 위대한 영적 스승들에 의해 다뤄집니다. 가잘리는 주로 평범한 사람들이 내면의 영적 정화와 변화로 이끄는 실천적 영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이는 영적 여행자의 내면 탐구의 진실성과 신의 은혜 덕분에 영원한 진리의 영적 드러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과 내세의 현실을 알기 위해서는 "세속성으로부터의 금욕"(14장)과 "자신의 죽음에 대한 성찰"(20장)에 관한 장에서 도움을 구해야 하며, 그래야 세상이 내세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배워야 한다). 네 가지 주제 모두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착각과 실수로부터 보호할 기회가 더 밝아집니다. 신성한 영지(Gnosis)는 신성한 사랑을 [마음과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내세가 사람을 그것(내세)으로 기울일 것임을 알고(내세) 알기에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 행위를 하나님께 이끌고 내세에서 이익을 주는 가장 위대한 행위로 여겨질 것입니다. 이 의도가 마음을 지배할 때, 모든 일에서 그 의도가 옳다. 인간의 모든 필수품을 돌보고, 음식을 먹고, 옷을 입는 등 모든 것을 통해 영적인 길을 저승으로 가는 데 도움을 구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모든 망상은 의도의 건강을 통해 제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망상과 실수는 부, 명예, 명예에 대한 숨은 동기에서 매력을 느끼고 기울어져 의도와 결심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내세보다 더 선호하고, 신의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할 때까지, 이 망상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영적 길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지성을 통해 하위 자아(나프스)와 자아의 창조주(신)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얻*는다. 이 이해는 신성한 사랑이 마음을 지배하게 만들고, 영적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아는 세 번째 것이 필요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게 만드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저승의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몇 개의 고된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이 어려운 단계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 모든 질문들은 [가잘리의 걸작] "*이히야 알-울룸 앗-딘*" 또는 "신으로 가는 길의 지식의 부흥"에서 답을 얻었다. 신성한 예배의 조건은 [이 편에는 포함되지 않은 "하나님의 길에 대한 지식의 부흥" 책 1권 또는 4분의 1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지키고, 올바르게 하지 않을 때의 해로움을 연구하여 신의 수용과 근접을 얻어야 하며, 이를 피해야 합니다. [사회적·공공적] 장들은 [이 편찬집에 포함되지 않은 "하나님의 길에 대한 지식의 부흥" 2권 또는 4분의 1에 수록되어 있으며, 생계 유지와 경제와 관련된 법률 문제를 공부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신성한 법에 따라 얻어야 하며, 불필요한 것은 신성한 법에 따라 자제해야 합니다. 내면의 파괴적 특성에 관한 장들 [이 책 "하나님으로 가는 길의 지식 부흥"의 3권 또는 4분의 1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 모든 내용은 이 편찬본의 2부에 간략히 포함되어 있다]에서,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신성한 임재에 도달하는 데 장애물은 비난받을 만한(부정적인, 악한, 파괴적인) 내면의 특성, 특성, 기질, 성향, 성향 및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인식하고 그들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이 편찬본에는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으나, 가잘리의 원서에서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건설적이고 회복력 있는 자질에 관한 장들 [이 책 "하나님의 길에 대한 지식의 부흥" 4권 또는 4분의 1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이 편찬 3부에 간결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에서, 긍정적인 내면의 칭찬받을 만한 특성, 성질, 기질, 성향 및 성향에 대한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비난받을 만한 특성이 마음에서 지워지면, 그것을 찬양받을 만한 좋은 내면의 특성으로 대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언급한 모든 종류의 실수와 망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가는 지식의 부흥"이라는 책에서). 여기서 진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적 여행자(살릭)의 마음을 지배해야 하며, 세상에 대한 조금의 기울임(세속성)도 없어야 하며, 자신의 의지는 강해야 합니다 [신성한 수용, 근접, 현존이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여 회복력을 이끌어내는 것, 긍정, 낙관, 내면의 평화, 영원한 행복, 그리고 영원한 성공], 의도는 건강(확고)해야 하며, 우리가 [여기서]에 쓴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3부: 내면의 건설적이고 회복력 있는 특성- 회복력, 긍정, 낙관, 내면의 평화, 행복, 영원한 행복, 끝없는 성공을 포함시키는 긍정적 내면 특성들이 개인과 집단의 영원한 성공을 이끈다

엄청난 선의 원천은 긍정적인 내면의 특성, 성향, 성향을 갖추어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불어넣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며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이전 8장에서 부정적인 내면의 특성을 더 깊이 살펴보고 그것들을 없애려는 관점에서, 이제는 개인과 전체 민족을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내면의 특성들을 살펴볼 때입니다. 가잘리가 초기 설명에서 '영원한 행복의 연금술'이라 부르는 특성들, 즉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선함의 전형으로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체라고 부릅니다. 가잘리가 언급한 "*Ihya al-Uloom ad-Deen*" 또는 "하나님의 길에 이르는 지식의 부흥" 네 번째이자 마지막 권에 수록된 열 개의 장 또는 책들은 개인과 집단의 부흥과 변화에 필요한 이러한 긍정적인 내면의 자질들을 설명합니다. 이 매우 유익한 10개의 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제시되어 있습니다.

11장 – 자신의 잘못과 과잉을 깨닫고 회개와 용서를 구하며 저지른 잘못에 대한 보상

가잘리의 대표작 『이히야 알울룸 앗딘』*('신의 길에 대한 지식의 부흥') 4권 또는 4분의 1의 첫 번째 책*은 자신의 결점, 부족함, 잘못, 그리고 동료 인간에게 저지른 과잉을 깨닫고, 그들에게 저지른 잘못을 회개하며 보상하는 데 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 맞서. 타인에게 저지른 잘못은 자신의 마음과 영혼에 해를 끼치며, 영성을 빼앗고 자신에게 무거운 짐을 줍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인내는 그것에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져, 결국 자신의 파괴와 내면의 의식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 감정들은 내면 깊숙이 무겁게 짓누르며,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을 빼앗는다. 우리가 있는 우주는 인과관계로 표시되어 있으며, 모든 행동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행동의 방대함에 상응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과 그것이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깨닫는 것은 감정적, 심리적, 정신적, 영적 모든 존재 단계에서 자신의 안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가잘리는 이 자기 개혁의 첫걸음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제시하며 더 깊이 있게 살펴본다 [17]:

죄에서 회개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잘못을 숨기는 자(하나님)에게 돌아서는 것은 영적 길의 첫걸음이며, 영적 길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이들의 소중한 자산이다.

신성한 영지의 길을 여행하는 영적 여행자들은 먼저 회개의 길을 택합니다. 회개는 삶의 일상적인 일상에 몰두하고 내면의 어둠에 빠져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잃은 이들에게 인내의 열쇠입니다. 이는 하위 자아의 굴하지 않는 영향력으로 인해 말입니다. 신성한 임재에 가까워진 이들은 회개를 통해 [신성함]과의 친밀함과 친밀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이를 통해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승리(*사아다*)를 얻습니다. 특히 우리 아버지(온 인류의 아버지) 아담(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을 위해, 그것은 구원의 수단이자 영적 길에서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자손이 조상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떠나기 전까지 해온 모든 선한 일]을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중 한 명(모두)은 잘못을 저지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그러나 아버지가 회개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 속죄했으므로, 아들과 딸은 두 가지 면에서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 아담(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은 실수를 했지만, 오랫동안 후회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를 오직 실수를 저지르는 데서 그를 지도자로 여기고 회개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인도된 것이고,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며, 자신을 아버지(아담)에게 귀속시키고 그의 추종자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 사실 선하고 고귀한 것과 완전히 일치하고 [완전히 그것에 몰입]하는 것이 천사들[하나님의 것]의 특징이며, 완전히 악에 몰두하는 것은 사탄의 [영원한] 직업입니다.

악에 빠지거나 우연히 빠져들다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선으로 돌아서는 것은 인간의 일(본성이나 독특한 특성)이며, 인간은 본성 안에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되거나 악마(사탄)에게 귀속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죄를 지은 후 회개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인간성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공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반항을 고집하는 자(인간의 품위를 넘어 개인적 및/또는 집단의 복지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고집하는 자는, 그런 자에 대해 자신을 사탄에게 돌리려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천사에게 자신을 귀속시키는

문제에 관해서는, 인간의 가능성의 원에서 선행만 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배제됩니다. 인간의 구성[또는 타고난 인간 본성]에서는 선과 악이 너무나 단단히 섞이고 융합되어 있어, 후회의 열기나 지옥의 불길을 통해서만 분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질(*자우하르*)을 사탄의 교활함과 악으로부터 정화하려면, 반드시 두 열 중 하나에 담가야 합니다. 이제는 어떤 열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열기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 그곳에서는 천국이나 지옥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회개는 *딘* (신으로 가는 길)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3부(현재 작업 3부이자 가잘리의 "하나님으로 가는 길의 지식 부흥" 4권)에서 구원의 특성에 관한 부분에서, 먼저 언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야 그 실재, 조건, 징표, 원인, 징후, 열매와 결과, 해와 장애, 영적 여행자를 위한 치유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됩니다. 모든 것이 [영적 여행자에게]의 명확함이 드러난다. 이 모든 내용은 네 개의 장(섹션)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설명될 것입니다.

회개의 현실과 정의

회개는 이 순서로 발견되는 세 가지의 이름이다: 첫째, 지식; 둘째, 존재 상태; 셋째, [결과] 행동. 여기서 첫 번째는 두 번째 목표에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세 번째 목표에 필요합니다. 이 순서와 질서는 보이는 영역(*물질*)과 보이지 않는 영역(*말라쿳*)에서의 신성한 길에 부합합니다. 세 가지 모두 다음과 같이 설명될 것입니다.

지식이란 죄가 본질적으로 엄청난 해악을 내포하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해는 죄가 종(인간)과 사랑받는 자(하나님) 사이의 장막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현실이

인간이 사랑하는 이와 만나는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마음을 지배할 때, 이 깨달음은 고통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어떤 식으로든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인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장막이 된 사람에게서 나온 [죄된] 행위에 대해 후회를 표명한다. 이 후회를 수치심이라고 하며, 이것이 회개의 두 번째 것, 즉 존재 상태입니다. 이 후회가 마음을 지배할 때, 그것은 특정 행동을 하려는 의도라고 불리는 또 다른 상태를 불러일으킨다. 이 행동은 과거, 현재, 미래의 세 시기 모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 현재는 이전에 저지르던 죄를 벗어나게 하는 시간; 미래란 그 죄(또는 부정적이거나 해롭거나 해롭거나 악하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를 내세의 삶에 [확고히] 버리기로 결심하는 의미로, 이는 사랑하는 이와 만나는 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과거와 함께 죄가 가해진 피해에 대해 속죄해야 한다면 속죄할 수 있습니다.

의도와 행동의 상태의 근원은 믿음(*Iman*)과 확신(*Yaqeen*)이라고 불릴 수 있는 지식이다. 믿음은 죄가 치명적인 독이라는 현실을 확신하는 것이며, 확신은 이 확신을 마음에 굳게 새겨 의심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믿음과 확신의 빛이 마음의 지평선을 덮을 때, 후회와 슬픔, 수치심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빛의 빛 속에서 특정한 [죄된] 행위로 인해 사랑하는 이와 멀어졌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새벽빛이 나타나거나 구름이 걷히고 해가 뜨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 직전의 모습을 보인 것과 같다. 그것을 보면 사랑의 불꽃이 마음속에 타오르고, 그 열기는 분명히 어떤 전략을 써야 [사랑하는 이를 구하기 위해] 하도록 설득합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파괴를 가까이 가져올 때, 믿음과 확신의 빛이 나갈 길을 보여줍니다. 요컨대, 지식, 수치심,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서 죄를 버리고 과거의 실수를 속죄하며 속죄하려는 의도가 결합된 것을 회개(*타우바*)*라고 부른*다.

회개의 의무의 의미: 처음에는 필수적이고 의무적이라는 것은 오직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사아다*)을 얻는 수단이며, 영원한 파괴로부터의 구원의 수단임을 알게 된다. 그것은 무언가를 할지 말지, 영원한 행복(*사아다*)이나 영원한 저주(*샤카와*)와 관련이

없다면, 의무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목표와 관련 없는 것에 빠져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배운 것은 오직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의무의 의미를 알게 되고, 심판의 날에 신성한 환상보다 더 큰 행복과 성공은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더불어, 신성한 시야를 이루는 이 최고의 성취를 박탈당한 개인은 그 사람의 불운과 실패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성한 비전이라는 최고의 성취를 박탈당한 자는 낮은 근본적인 자아(*Nafs*)의 욕망에 갇힌 죄수이자 인질이며, 이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장막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별의 불[사랑하는 이와의 불길, 마음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불로, 내면의 고통과 슬픔 때문에 평화를 허락하지 않는 불] 그리고 지옥의 불로도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 시점에는, 종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분의 환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하층 자아의 욕망에 얽매이고, 일시적인 영역(세계)에 집착하며, 구원을 위해 피해야 할 것들에 빠질 때입니다. 신성한 비전에 더 가까워진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이 세상의 반짝임과 맺는 관계를 끊고, 하나님께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기억에 애착을 가지려 노력하며,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신성한 위엄과 아름다움의 영지를 찾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자신도 죄인, 불순종자, 저주받은 사탄의 추종자로 불리게 되며, 같은 이유로 신성과의 만남을 가릴 자격이 있고, 진리로 가는 길을 잃은 자로 불릴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신성한 친밀함을 위해 그것을 멀어지게 하는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현실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과의 먼 거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지식, 수치심(후회이나 후회), 결단력이라는 세 가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죄가 사랑하는 이와의 거리를 두는 이유임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후회가 일어나지 않고, 멀어진 길을 걷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며,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의 고통을 느끼는 길을 걷기 전까지는 신성한 친밀함의 길로 돌아갈 것조차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길로 돌아간다는 것은 죄를

버리겠다는 결의를 의미합니다. 이로부터 이 세 가지 수단(지식, 수치심, 결단력)이 사랑하는 이에게 다가가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능은 언제 완성되나요? 지성의 현실은 욕망, 분노, 그리고 사탄이 인간을 오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든 비난받아 마땅한 내면의 특성들이 완벽에 도달할 때까지 완성되지 않는다. 인간의 지성은 40세에 완성되지만, 지성의 기원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완성된다. 그 징후는 일곱 살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욕망은 사탄의 군대이고, 지성은 천사의 군대입니다. 이 두 군대가 한 장소에 모이면, 서로 충돌하여 한 군대가 다른 군대를 앞에서 버티지 못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둘은 서로 정반대입니다. 낮과 밤처럼 빛과 어둠은 함께 모이지 않는다 - 한쪽이 지배하면 다른 쪽의 존재는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지 않다. 욕망은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 지성이 완성되기 전부터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에, 사탄의 발은 [인간 초기 단계에서]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사랑과 욕망의 집착에 굴복되어 그것을 떨쳐내기 매우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나중에 지성이 나타나면, 이는 하나님의 당이자 군대이며 하나님의 친구들(영지주의자)에게 구원적이며, 점차 그들을 하나님의 적들의 손에서 구원합니다. 그래서 만약 지성이 힘과 완벽함이 부족하다면, 사탄은 [그가 결심한 것]을 수행하며 이 싸움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لَأَحْتَنِكَنَّ ذُرِّيَّتَهُۥٓ إِلَّا قَلِيلً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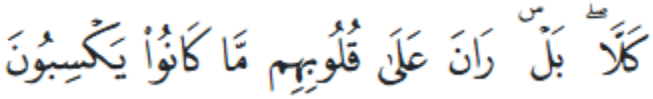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 나는 그의 (아담의) 후손들을 모두 복종시킬 것이다(사탄이 하나님께 반역적인 동기로 아담의 자손, 즉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자신의 반역적 동기를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까지 그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만함 때문에 아담에게 굴복하지 않고 신의 임재에서 쫓겨났다. 질투와 이기심)."
(꾸란 17장 62절)

지성이 확고하고 완전해지면, 그 첫 번째 임무는 욕망의 굴착을 깨고, [오래된 굳어진 나쁜] 습관을 버리며, 기질을 신성한 숭배로 강제로 기울여 사탄 군대에 참담한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인간은 사탄이 그 길을 이끌고, 욕망이 인도하는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이끄는 길을 걷게 됩니다.

욕망이 지성을 능가한다: 모든 인간 안에는 욕망이 지성이 있기 전에 존재한다. 지성의 귀중함은 [인간 기질에게] 욕망의 귀여움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욕망을 따르는 모든 행위에 대해, 모든 인간은 그로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 예언자든 평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가 아담(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만의 특이한 특성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인류 모두에게 쓰인 영원한 계명입니다. 신성한 길이 변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가정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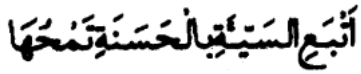
성인이 되어 불신하거나 무지한 상태였다면, 그 상태에서 회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개인이 부모 때문에 무슬림이고, 이슬람의 현실(평화와 신의 뜻에 대한 복종의 길, 즉 자신의 영적 갱신과 변화를 위한 길)을 알지 못한다면, 무지와 소홀함을 회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회개는 이슬람의 현실을 이해하고, 자신이 무슬림이 되어야 부모의 이슬람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되면, 욕망과 경솔함에 대한 집착에서 회개하고 올바른 길[도덕적 올바름과 신의 인도]을 걸어야 한다. 즉, 신성한 법칙의 정당한 행동의 한계를 준수하고, 기도, 금식, 자선 같은 의무(*파라이드*)를 이행하는 것, 즉 [타인에게] 주거나 받는 것,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단계가 회개의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회개할 수 없어 파괴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로부터 회개는 모든 개인에게 개인적으로 의무임이 증명됩니다. [이후부터] 어떤 인간도 그것을 모른 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담(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처럼 결연한 예언자들도 [무지할 수 없는], 영적 성취가 훨씬 낮은 다른 이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욕망은 마음에 녹을 만든다: 어떤 욕망에 연루되든, 입에서 나오는 김이 나오는 거울에 드리운 어둠과 같은 일종의 어둠이 마음에 드리워진다. 욕망을 계속 쫓으면 마음의 어둠은 층층이 쌓여 더 깊어지고, 철 위에 녹이 녹슬 정도로 생깁니다. 욕망으로 인한 심장에 녹이 생기는 것은 꾸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대신, 그들이 저지른 일들 때문에 [그들의 악랄하고 추악한 행위에 관해서] 그들의 마음에 녹슬기가 자리 잡았다." (꾸란 83장 14절)

녹이 더 깊어지면, 이는 마음을 봉인(잠그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거울에 녹이 생기면 광택을 낼 수 없게 되어, 다시 복원할 수 없으므로 무용지물로 선언됩니다. 하지만 거울을 닦는 것만으로는 추가 녹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듯, 과거에 이미 생긴 녹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미래의 욕망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과거에 저지른 죄들도 [속죄, 속죄, 속죄, 속죄, 잘못을 바로잡고 되돌리는 것]을 회개하여 과거 죄의 어둠을 지워야 합니다. 마음이 죄로 어두워지듯, 마음도 의로운 행위로 밝아지고 빛나게 됩니다. 신성한 순종은 죄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퍼진다. 이것이 바로 다음 예언적 서술에서 암시된 현실입니다:



"죄 짓고 나서 의로운 행위를 해야 한다; 의로운 행위는 그 죄를 지워줍니다(이 관대한 양보는 살인, 절도, 타인의 정당한 권리 침탈 등 중대한 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속죄와 속죄가 그들이 신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는 속죄와 속죄가 필요하며, 이는 신의 용서의 원에서 어떤 죄도 적절한 속죄로 제외되지 않은 관대한 신의 자비입니다)." (아부 다르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 집 티르미디*에 의해 전해* 짐 [신께서 그에게 기쁨이 있기를])

회개의 수용은 그 조건의 충족에 달려 있습니다

회개의 의미를 이해했다면, 이 문제에 대해 모든 올바른 회개가 [신성한] 수용을 받는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깊이 통찰하는 빛(*바세라*)으로 바라보고 꾸란의 빛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건전한 마음(모든 흠집과 추잡한 내면의 상태가 없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안다. 내세에서 하나님의 가까움에서 기쁨과 기쁨을 찾으며, 영원한 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것입니다 [이는 내세에 주어져 인간의 눈을 세속 존재에서 대체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모든 마음이 그 기원부터 건전하게 창조되었으며 [세속적 삶을 거치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얻는 모든 흠집이나 추잡한 내면의 상태가 없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 예언적 서화에서 모든 아이는 '*피트라*(신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인간의 진정한 타고난 원래의 본성) 위에 태어난다고 언급된다. 신성한 실재와 영원한 보편적 진리를 믿으며, 인간이 명확히 부여된 신성한 신뢰, 즉 일신교와 하나님의 영지에 전향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언적 이야기 모음으로 전 해집니다*사히히 부카리*와 *사히흐 무슬림*은 예언자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마음의 건전함은 죄의 어둠과 잘못의 먼지 때문에 사라집니다. 또한 수치심과 후회의 불꽃이 이 먼지를 재로 태워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의의 빛은 죄의 어둠을 마음의 얼굴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죄의 어둠은 의로운 행위의 빛을 견딜 수 없다. 마치 밤의 어둠이 낮의 빛 앞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처럼, 더러운 것이 비누 앞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처럼, 황제가 자신을 위해 더러운 옷을 고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진짜 황제(신)도 자신과의 친밀함과 친밀함을 위해 더럽고 더러운 마음을 선택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일을 할 때 옷을 입는 것처럼, 그것들은 더럽혀지고, 비누와 뜨거운 물로 씻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욕망에 마음을 사용하면 너무 더럽혀져서 눈물과 후회의 물이 없으면 깨끗해지고 정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화되고 정화된 모든 마음은 깨끗한 옷처럼 신성한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영혼의 정화가 신성한 운명에 따라 신성한 수용의 존경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 수용은 꾸란에서 구원이라고 불립니다:

قَدْ أَفْلَحَ مَن زَكَّىٰهَا

"확실히, 그것을 정화한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즉, 영혼)." (꾸란 91장 9절)

회개란 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함을 알리라.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은 이해를 얻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회개가 의무이기 때문에, 회개를 이루는 수단도 의무적입니다. 이로부터 죄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의미는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말라는 신의 명령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 종류의 죄와 그것들의 상호 연결에 대해 언급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비와 관대함을 통해 인도를 얻으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십니다.

인간 특성에 따른 죄의 유형: 인간은 영혼의 신비 설명(1장)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수많은 특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잘못을 유발하는 [인간의] 특성과 내면의 특성은 신성한 특성, 사탄적 특성, 야수적 특성, 그리고 동물적 특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구성이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각 요소가 인간 안에 고유한 영향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특성은 인간 내에서 각각 별개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신성한 특성은 오만함, 교만, 강인함, 칭찬, 부, 명예, 영향력, 권력을 갈망하며, 모든 창조물보다 우월해지고자 하는 욕망을 포함한다(이 특성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자 창조주에게 어울린다). 이는 인간 존재가 그 상태의 언어에서 외친다:

أَنَا رَبُّكُمُ الْأَعْلَى

"나는 당신의 주군, 최고 주인이다." (꾸란 79장 24절) (일부 영적 지도자, 성인, 영지주의자들은 위의 구절에서 언급된 바로가 선포한 것을 내면에 없는 인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특성에서 너무 큰 죄가 태어나서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로 간주하는데, 그 죄들은 매우 파괴적이며 수많은 다른 죄를 낳습니다. "*이히야 알-울룸 앗-딘*" 또는 "하나님의 길에 대한 지식의 부흥" 또는 본 저작 1-10장 3권에서 이 죄들이 매우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두 번째 특성은 질투, 반항, 변명, 속임수, 사기, 분쟁, 혼란을 낳는 사탄적 성격입니다. 이 특성에 근거해 인간은 [자신과 타인]에게 종교적 문제에서 악, 위선, 혁신, 새로움(*비다*)을 명령합니다 [신성하게 정해진 것이 아닌 일, 주로 자아와 하위 자아에서 비롯된 것], 부정직함 및 기타 내면 존재의 전복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특성은 동물적으로, 탐욕, 욕심, 배와 성기에 대한 욕망, 도둑질, 고아의 재산 횡령, 신의 법에 부를 따르지 않는 활동에 쓸 부를 축적하려는 욕망 등 수많은 잘못을 낳습니다. 네 번째 성은 야수적이며, 분노, 원한, 사람을 때리기, 저주, 살인, 소유물 파괴 등 수많은 혐오스러운 문제를 조장하며, 이 죄들은 수많은 다른 죄로 확장됩니다.

네 가지 [인간] 특성의 자연스러운 순서: 출생 측면에서 이 네 가지 특성은 점진적으로 태어납니다. 첫째, 동물적 특성이 지배적이고, 그 다음에는 야수적 특성이 지배적입니다. 그 후 두 가지 특성이 결합되어 지성을 사기, 기만, 변명의 길로 이끕니다. 이 시점에서 사탄적 특성이 솟아오르고, 결국 군주권(신성한 특성)이 떠오릅니다(신성한 특성은 오직 하나님, 숭고하신 분에게만 속하며, 세속 생활에서 겸손하고 낮게 지내야 할 노예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즉, 인간은 모든 창조물에 대한 우월성과 지배를 얻으려는 의도를 갖기 시작한다. 따라서 매번 잘못된 자만심을 표현하고, 우월감과 오만함을 과시하며, 자신의 명예와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해 타인을 모욕한다. 요컨대, 모든 죄의 근원과 근원이 바로 이 네 가지 자질이다. 죄악은 그들로부터 나와 [인간의] 팔다리와

장기 전체로 퍼집니다. 불신, 신성하게 정해진 일에 대한 혁신, 위선과 같은 죄가 마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는 원한과 질투 같은 눈과 귀와 관련이 있고, 어떤 죄는 위와 사적인 부위와 관련이 있으며, 어떤 죄는 손, 발 및 기타 신체 기관에 의해 저지릅니다. 이 모든 죄가 명백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대한 죄의 분포: 신성한 법의 증거와 영적 빛(영적 깨달음을 가진 이들이 소유한 빛)을 통해 신의 법 전체의 목적은 창조물을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고, 영혼의 눈으로 신성한 시야를 얻는 영광으로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까움과 시야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성경(원래의 변하지 않은 형태로)과 예언자들로부터 신성한 존재와 속성(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꾸란은 다음 구절에서 이 현실을 암시합니다:

وَمَا خَلَقْتُ ٱلْجِنَّ وَٱلْإِنسَ إِلَّا لِيَعْبُدُونِ

"나(즉, 하나님)는 창조하셨습니다 *진(Jinns)* 그리고 인간으로서 오직 나를 숭배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꾸란 51장 56절)

즉, *지상에 존재하는 초자연적이고 보이지 않는 존재*인 진(Jinn)과 인간의 창조 목적은 그들이 신의 종이 되는 데 있습니다. 종은 자신의 주님의 주권과 자신에 대한 종 의식(*Nafs*)을 깊이 이해하고, 주님이 누구이며 자아가 무엇인지 이해할 때까지 진정한 종이 되지 않습니다(*Nafs*). 예언자들은 이 매우 고귀한 목적을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인간이 주님과 하나님에 대한 종 됨과 그에 따른 의무와 의무에 관한 자아의 실재를 익숙하게 하기 위함]. 그러나 이 목적은 이 세속적인 삶이 끝난 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숭고한 목적은 이 세속 존재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 그리고 그 안에서의 영원한 성공이 그것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언적 서술(무함마드 선지자의 하디스(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에서 세상은 내세의 농지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이 농경지의 경작은 좋든 나쁘든 내세에서 수확되어

경작자의 기쁨이나 불쾌함을 줍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신성한 명령을 따르는 목적은 세속적인 삶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내면의 평화와 행복, 충만함으로 표시된 건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속적인 삶은 하나님(딘)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세와 관련된 두 가지는 부와 자아입니다. 이와 같이 이 덧없는 세속적 삶에서 인간의 성취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마리파* 또는 그노시스)과의 [획득] 및 친밀함의 정도로, 이는 인간 성취의 정점이자 완성입니다. 둘째는 신체(인간의 물리적 존재)와 관련된 자아의 보호이다; 셋째는 인류와 관련된 부와 물질적 소유의 보호이며, 이는 인류 문명이 생존하고 번영하는 데 필요한 상업과 경제의 형태로 이루어진 그들의 집단적 복지입니다.

죄의 분류도 비슷한 관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큰 죄는 신성한 영지(*마리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큰 죄는 사람들의 삶을 어렵고 답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큰 죄는 경제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의로운 행위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 하나님의 지식과 친밀함을 마음속에 보호하는 것, 몸속의 생명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즉, 인간)과 함께 있는 재산의 보호(그들의 경제적 이익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함). 이 세 가지 모두 신성한 법(*샤리아*)의 목표입니다. 이 세계에서 인종, 민족, 문화, 종교적 다양성을 가진 어떤 국가도 이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지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딘*)과 그들의 세계(세속적 삶)와 관련된 피조물의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어떤 예언자를 보내고, 그들에게 그분과 그의 예언자들을 아는 데 장애물을 만들거나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라고 명령한다는 사실조차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들의 재산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지가 감각의 영역에서 배제된다: 만약 당신이 오감을 통한 진리 확인이 오감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한다면, 당나귀와 당나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당나귀조차도 다섯 가지 감각으로 사물을 인지합니다. 당신(오 인간이여!)은 당나귀와

구별되는 이유로, 당나귀와 구별됩니다 [신이 원래 창조한 선천적이고 순수한 형태로, 신이 창조한 '*피트라*' 상태로, 신성한 의지, 신성한 실재, 신의 현존, 영원한 보편적 진리와 완전히 일치하는 인간의 고유한 본질이며, 인간이 명확히 부여받은 신성한 신뢰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즉, 일신교와 하나님의 영지(Gnosis of God)를 의미한다. 이것은 하늘과 땅, 산에 처음 제시된 미묘함과 같으며, 그들은 이 미묘함에 따르는 짐을 책임지지 못한다고 표현했다. 이 미묘함은 인간에게 제시되었으며 [인간은 세속 체류 전에 영혼의 영역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꾸란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إِنَّا عَرَضْنَا ٱلْأَمَانَةَ عَلَى ٱلسَّمَٰوَٰتِ وَٱلْأَرْضِ وَٱلْجِبَالِ فَأَبَيْنَ أَن يَحْمِلْنَهَا وَأَشْفَقْنَ مِنْهَا
وَحَمَلَهَا ٱلْإِنسَٰنُ ۖ إِنَّهُۥ كَانَ ظَلُومًا جَهُولًا ﴿٧٢﴾

"우리는 하늘과 땅과 산에 신뢰를 바쳤으나, 그들은 그것을 지니기를 거부하고 두려워하였다; 분명히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 신탁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무지한 인간이 그것을 짊어졌다." (꾸란 33장 72절)

이것은 감각의 원(영역)에서 제외된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미묘함과 같습니다. 동물과 짐승은 이러한 미묘함이 없으며, 따라서 영지(Gnosis)나 신성한 지식과 친밀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미묘함을 사용하지 않고 낭비하며, 지식과 정보의 한계는 감각이 인지하는 것뿐이며, 동물과 짐승의 같은 범주에 포함된다고 선언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인간의 의미를 충족하지 못했고, 자신의 삶의 진정한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성취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으로 이어진다].

이슬람의 형제들이여! 특히 너는 [무모하고, 무심하고, 쾌락적인 행동을 하며]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감각으로만 사물을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가 감각을 통해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는 자는 신(다시 하나님)을 잊게 되며, [그 결과 이 세속적 존재와 물질적 고난의 황야에 빠져 내면의 평화와

충만함이 결여되어 자신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그에 따른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을 완전히 무지하고 무지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최고의 지평선'(신성한 현존)에 오를 수 없고, 부주의와 부주의로 인해 영적 영역에서 동물의 지위로 내려가 이 [낮은] 지위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신의 신탁을 횡령하는 자이며, 신의 축복을 거부하거나 거부하는 자이며, 신의 응징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의 상태는 동물보다 더 나쁩니다. 동물은 죽음 시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지만, 인간은 죽음 이후에도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신, 인간에게 [신성하게] 부여된 신뢰는 주인(하나님)에게 되돌아가야 하는데, 이 [신성한] 신뢰는 스스로 그분에게 끌려가 오직 그분과 함께하는 거처를 찾게 될 것입니다. [신성한 신뢰는 신이 모든 인간, 즉 영혼에게 부여한 미묘함으로, 이 세속적 여정이 끝날 때 원래 가졌던 순수한 형태로 주인(신)에게 돌려줘야 하며, 세속 생활에서 얻어야 할 영지(영지)를 추가로 부여받아야 한다. 그것은 창조주를 사랑하는 이와 완전한 조화, 평화, 친밀함 속에서 아는 형태입니다. 영혼은 이 세상에 보내져 천상의 기원, 즉 창조주에게 돌아가기 위해 보내졌다. 그것은 영혼이 세속 생활에서 얻은 모든 형태의 저귀함, 악, 부정적인 것들을 정화할 때, 신성한 영지로 부여된 순수하고 숭고한 상태로 다시 변화시키기 위한 용감한 영적 투쟁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신성한] "신뢰"란 어떤 것일까요? 이 신뢰는 영원의 지평선에서 솟아올라 이 인간의 육체에 지은 찬란한 태양과 같으며, 인간이 진리를 찾고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 끈질긴 투쟁을 시작하여 신성한 임재로 승천하도록 하여 재발견할 것입니다. 이 몸의 체계가 [죽기 직전]에 뒤집힐 때, 이 태양은 서쪽에서 떠오를 것입니다(심판의 날이 도래하는 가장 큰 징후 중 하나는 태양이 동쪽이 아닌 서쪽에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이자 창조주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거나, 그 빛과 빛이 더욱 빛나고 빛나는 상태였다. 찬란한 태양이 어떤 장막도 없이 주님의 궁정에 닿을 것이다. 어둠에 휩싸인 태양도 신성한 임재에 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모든 것의 최종 귀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아래를 향해 닿을 것입니다. 그

방향은 '아알*라 일리예*엔'(인간 성취의 정점을 의미하는 최고층)의 정점이 아니라, '*아스팔루스 사필렌*(최저 중 최하위)을 향해 아래로 향할 것입니다. [인간은 도덕적·영적으로 최저 상태에서 자신을 지워버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وَلَوْ تَرَىٰٓ إِذِ ٱلْمُجْرِمُونَ نَاكِسُوا۟ رُءُوسِهِمْ عِندَ رَبِّهِمْ

"보면 이상한 상태가 보일 거야. 이 범죄자들은 신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할 것이다." (꾸란 32장 12절)

이 신성한 구절은 심판의 날에 죄인들도 신성한 법정에 함께 있으나, 하나님의 순종하는 종처럼 보이지 않고 얼굴이 뒤로 향하며, 영적 계급과 그에 따른 신적 근접성에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대신, 욕망과 바람을 쫓는 세속적 삶의 하락 경로에 따라 땅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고집스럽고 잘못된 어리석음으로 나타나는 하위 기초 자아의 이야기입니다.]. 종은 그것에 대해 아무런 권력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지상에서 저지른 일에 대한 신의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의 권한을 박탈된 자(*타우피크*)는 신의 인도의 길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방식으로 신의 계명을 실천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길을 잃고 오해의 골짜기로 헤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로부터, 그리고 무지한 사람들의 대열에 속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피난처를 구합니다.

구원의 성취자(진정한 성공): 이들은 신성한 지식과 친밀감(그노시스)을 얻은 이들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최고"(*무카라비 알-사비킨*, 즉 인류 최고의 성취자들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승리의 삶을 시작한 인류 최고의 성취자)이다. 의로운 자들(*무칼라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도 영지주의자들처럼 의로움의 길에서 뛰어나지 못한 이들도 성공할 것이지만[비록 최고 성취자의 영적 지위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오른손의 사람들"(*아샤브 알-야민*)으로 불릴 것이다. "가장 위대한 자" 중 가장

뛰어난 자에게 주어질 신성한 보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꾸란에서 우화적 언급으로 언급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فَلَا تَعْلَمُ نَفْسٌ مَّآ أُخْفِىَ لَهُم مِّن قُرَّةِ أَعْيُنٍ

"어떤 영혼도 [하나님께서] [의로움에 뛰어나고 하나님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은 자들의 차가운 눈빛을 위해 [하나님께서] 비밀로 지켜온 것들을 알지 못한다." (꾸란 32장 17절)

이는 "*하디스 쿠드시*"(예언자 무함마드의 전통)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그가 신으로부터 전해준 내용입니다:

أَعْدَدْتُ لِعِبَادِيَ الصَّالِحِينَ مَا لَا عَيْنٌ رَأَتْ وَلَا أُذُنٌ سَمِعَتْ وَلَا خَطَرَ عَلَى قَلْبِ بَشَرٍ

"나는 의로운 종을 위해 아무도 못했고, 듣지 못했으며, 심지어 그 생각조차 인간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을 준비하였다."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마음에 전혀 떠오르지 않은 바로 그 상태를 찾는 이들이다. 그들은 어떤 천상의 배우자, 과일, 우유, 꿀, 와인, 보석, 의복 등 천상의 물건들을 탐내지 않습니다. 설령 이런 것들을 받았다 해도,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승리(*사아다*)의 절정이자 기쁨과 기쁨의 정점인 신성한 환시의 기쁨을 추구할 것입니다. 라비아 알-바스리(신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길 - 모든 여성 성인과 영지주의자 중 가장 뛰어난 분)은 누군가에게 "하늘에서 무엇을 원하시거나 원하시나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집의 주인, 그다음에 거처의 주인"이라고 대답했다. 이들은 [천상] 거처(즉, 하나님)의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거처(즉, 낙원)에 대한 사랑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그분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무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비유는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연인의 비유와 같으며, 그 안에 몰입해 마음속에 다른 관심이나 생각, 욕망이 없었던 것과 같다. 심지어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대신, 모든 것을 무시하고 사랑하는 이의 얼굴에서 장막이 걷히길 기다리게 됩니다. 이 상태를 '사랑의 소멸'(*Fana fi al-Hubb*)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사랑하는 이의 사랑에 너무 깊이 빠져서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상상의 초점은 단 하나의 초점일 뿐입니다. 마음과 머리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조차 남아 있지 않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그런 [내면의 영적] 상태를 가질 때, 내세에서 신의 자비와 관대함으로부터 나오는 너무나 많은 은물들을 받게 되어, 그 생각조차 인간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마치 귀머거리와 눈먼 사람이 색의 형태와 소리의 본질을 모르는 것과 같지만, 눈과 귀의 장막이 올라가면 색과 소리의 형태와 본질을 알게 되고, 그때 자신의 마음속에서 상상조차 못했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장막이 걷히는 날] 이 세계도 장막이다. 세상 생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들어 올려질 때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순수하고 아름다운 삶의 기쁨을 얻게 되고, 이 구절의 주제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وَإِنَّ ٱلدَّارَ ٱلْأَخِرَةَ لَهِىَ ٱلْحَيَوَانُ ۚ لَوْ كَانُوا۟ يَعْلَمُونَ

"그리고 만약 그들이 알았다면 오직 저승의 생명만이 지속되고 영원하다." (꾸란 29장 64절)

사소한 죄가 어떻게 중죄가 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소한 죄가 중죄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 - 고집과 끈기: 첫 번째 이유는 사소한 죄에 대해 고집하고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속담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집하면 어떤 죄도 작지 않고, 회개로 인해 큰 죄가 남지 않는다 [용서와 속죄, 속죄를 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속담의 핵심은, 누군가가 큰 죄를 지은 후 멈추고 또 다른 큰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 죄가 용서받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소한 죄와 관련된 문제는 어렵고, 그에 대한 인내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현상은 마치 바위에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과 같다 [오랜 시간에 걸쳐 바위에 자국이나 구멍이 생기며] 그래서 무함마드 예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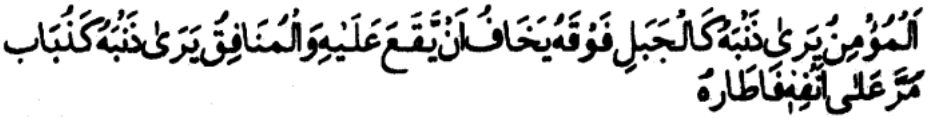
خَيْرُ الْأُمُورِ أَدْوَمُهَا وَإِنْ قَلَّ

"최고의 일은 수가 적더라도 끈기와 끈기로 진행되는 일이다." (내레이션 하*디스*는 아이샤의 권위에 따라 *사히흐 부카리*와 *사히흐 무슬림* 을 모았 다 [신께서 그녀를 기뻐하시길])

그것은 사물이 그 반대되는 것들에 의해 인식되고 그 중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빛은 어둠 때문에 감사받고, 선은 악으로, 지식은 무지로, 정의는 억압으로, 친절은 가혹함으로, 아름다움은 추악함 때문에 등] 따라서 이 예언적 전통은 꾸준히 행해지는 소수의 [의의] 행위가 더 유익함을 증명합니다. 또한 한 번에 행하는 많은 [의로운] 행위가 자아 개혁과 마음의 정화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비록 그 수가 적을지라도 오랜 기간 지속하는 것]. 마찬가지로, 작은 죄를 끈질기게 저지르면, 그 죄들은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데 더 강력하고 치명적이 됩니다. 이는 이전에 작은 죄를 지었다면 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간통자가 갑자기 간통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간통하려는 의도가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살인자가 갑자기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적대감과 원한이 생긴다. 모든 중대한 죄는 경미한 죄가 그 전조로 발견된다는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갑자기 발생한 중대한 죄가 사소한 죄 없이 그 전조라고 가정할 수 있다면, 평생 지켜온 사소한 죄와 비교해 그 죄가 용서받을 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 죄를 작고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 사소한 죄가 크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죄를 사소한 것으로 여기며[신경 쓸 가치가 없다]. 하나님의 종(즉, 인간)이 마음속에서 크게 여기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는 작아지고, 하찮다고 여겨지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죄를 크게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자신의 행동을 잘못되었다고 여기고 혐오스럽게 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닮지 않음과 혐오감 때문에(자신이 저지른 죄와 잘못에 대한 혐오) 그 죄의 많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반대로, 죄를 하찮게 여긴다는 것은 죄를 사랑하고 그에 대한 성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죄에서 오는 많은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모든 양심적인 인간의 목표는 신의 순종을 통해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죄로 마음을 어둡게 하고 오염시키는 것은 신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죄를 머리 위에 매달린 산처럼 여기며, 위선자는 자신의 죄를 코 옆을 지나간 파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내레이션 *압둘라 빈 마수드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 집* 사히흐 부카리(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신자는 작은 죄도 크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 능력에 대한 지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예언자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선물의 부족함을 말고, 오히려 너희에게 선물을 보내신 분의 위대함을 보라; 당신의 죄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대신 당신이 죄와 경쟁한 그분의 위대함과 위대함을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의 일부 동료들(신께서 모두에게 기뻐하시길)은

그들의 추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타바이안*). "너희는 머리카락보다 더 고운 행을 저지르는데(즉, 하찮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우리는 무함마드 예언자 때(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의 당시에는 치명적이라고 여겼다." 그 이유는 동료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의 위엄에 비하면 사소한 죄조차도 그들의 눈에는 큰 죄 못지않게 여겨졌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은 사소한 것(중요하지 않은)을 무시하지만, 학자(지식인)는 같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무시하는 것들이 영지주의자에게도 용서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 – 죄를 지은 행복: 세 번째 이유는 작은 죄가 큰 죄가 되는 이유로, 죄를 지은 후 행복함을 느끼고 자랑스러워하며, 자신이 한 일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관대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행위가 결점이며 신의 불쾌감과 행위자에게 악의 징조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다. 그에 걸맞은 기쁨에 걸맞게, 작은 죄가 커지고, 그 어둠이 마음속에 스며든다. 일부 죄인(잘못한 자)은 자신의 죄(잘못)에 대해 칭찬을 구하고, 자부심을 표현하며, 자랑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은 "내가 그를 어떻게 망쳤는지 못 봤어?"라고 말한다. 토론자나 논거가 "내가 상대를 어떻게 굴욕 주는지 봤어? 나는 그의 결점을 드러내며 그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는 가득 찬 관중 앞에서 굴욕을 당했다. 그리고 나는 토론에서 그가 상상조차 못할 방식으로 속였다"고 말했다. 한 상인이 말합니다, "내가 위조 지폐를 주어 그를 속였고,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가 속아 패배를 겪은 게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런 강연들과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은 사소한 죄조차도 큰 죄로 바꾸게 합니다. 죄는 파괴적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런 것에 빠져들고, 사탄의 영향에 휘말려 죄와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면, 이곳은 슬픔과 후회의 장소이지 행복과 교만의 장소가 아닙니다. 적에게 굴복하는 것을 위대함으로 여기고 패배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더 나아가, 양심적인 인간이 사랑받는 하나님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행동을 한 후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의 유사성은 약병이 깨지자 기뻐하는 환자와 같습니다. 그런 환자가 약물 없이도 회복 대상이 될까요?

네 번째 이유 – 신의 계명에 의한 지지를 받기: 사소한 죄가 중대한 이유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와 잘못을 가리게 하여 순전히 신의 자비로 인해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을 지지하거나 이용하기 위함, 인내와 느슨한 족쇄를 이용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느슨한 족쇄를 악용하는 것이 신의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죄나 잘못을 신의 섭리와 자비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지, 교만을 표현할 적절한 장소와 시기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의 손아귀와 손아귀를 두려움 없이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기질에 대한 비유는 다음 구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وَيَقُولُونَ فِيٓ أَنفُسِهِمْ لَوْلَا يُعَذِّبُنَا ٱللَّهُ بِمَا نَقُولُ

"그리고 그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분은 벌하지 않으시는가?'" (꾸란 58장 8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잘못과 죄에 대한 벌이 즉각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니, 무엇을 하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용기와 면허로 받아들여, 결국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잡힐 때까지 잘못된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다섯 번째 이유 – 죄의 표현과 선포: 사소한 죄가 중죄가 되는 한 가지 이유는 누군가가 죄를 짓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자신이 한 일을 말하거나 행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의 자비로 죄를 덮으신 장막을 찢어버리고, 그 죄를 알게 되었거나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저지르도록 선동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이전부터 있었던 죄가 하나 있었고, 두 개가 더해져서 이 죄가 큰 죄가 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 외에 같은 죄[또는 악행]를 하도록 도발한다면, 그것은 네 번째 죄가 되어 매우 치명적일 것입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كُلُّ النَّاسِ مُعَافًى إِلَّا الْمُجَاهِرِينَ وَإِنَّ مِنَ الْمُجَاهَرَةِ أَنْ يَبِيتَ أَحَدُهُمْ عَلَى ذَنْبٍ قَدْ سَتَرَهُ اللَّهُ عَلَيْهِ فَيُصْبِحُ فَيَكْشِفُ سِتْرَ اللَّهِ عَنْهُ

"모든 사람은 [신성하게] 용서받을 것이며, 죄를 드러내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이 죄를 지은 후 침대에 누워 하나님은 그 죄를 밤의 어둠 속에 숨기신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숨기신 죄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내레이션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와 사 히흐 *무 슬림 하디스를*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하나님의 신성한 특성과 은혜에 포함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서 선한 자질을 드러내시고 악한 행위를 숨기며 누구의 비밀도 드러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결점과 죄를 드러내는 사람은 이 신성한 축복에 감사하지 않고 행동을 통해 이 신성한 성질을 거부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한 영지주의자는 "첫째, 하나님의 종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 죄를 짓는다면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 죄를 짓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위선자들은 서로를 설득해 악행을 저지르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ٱلْمُنَٰفِقُونَ وَٱلْمُنَٰفِقَٰتُ بَعْضُهُم مِّنۢ بَعْضٍ ۘ يَأْمُرُونَ بِٱلْمُنكَرِ وَيَنْهَوْنَ عَنِ ٱلْمَعْرُوفِ

"위선적인 남녀,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을 악으로 이끌고 서로의 선행을 막는다." (꾸란 9장 67절)

여섯 번째 이유 – 지도자나 저명한 인물이 죄를 저지 르는 경우: 어떤 죄는 종교적 법률 문제에서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 저질렀기 때문에 중대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단을 입고 금도금된 마차를 타고 왕이나 관료,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의심스러운 재산을 빼앗거나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지 않고 도우며, 명예를 위해 지식을 탐닉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죄들은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따르는 죄입니다. 그런 학자들은 언젠가 죽겠지만, 그들의 악은 [그들이 떠난 후에도] 전 세계에

계속 퍼질 것입니다. 죽을 때 죄가 묻힌 사람은 얼마나 행운일까요? [종교] 학자(또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추종자를 가진 지도자나 선도자)와 관련된 문제는 위험합니다. 그들은 큰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선행을 하거나 사람들 사이에 좋은 흐름을 만들면, 누군가가 그들을 따르면 신성한 보상이 증가합니다. 만약 학자가 세속적인 화려함을 버리고 혐오감을 느끼며, 필요한 것에만 만족하고, 무한한 신의 힘에 의지하며, 자신을 위해 낡은 옷을 선호하고,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따랐다면, 그 학자는 자신의 [선의] 행위에 대해서만 신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행을 한 모든 이들에게도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보상도 한 명에게도 주어질 것이며 [신의 보상을 줄이지 않고]. 만약 누군가가 세속적인 화려함과 화려함에 집착한다면, [세속적·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그를 닮으려 할 것이지만, 재정적 상황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왕들[또는 정치적·경제적으로 권력자들]을 섬기고, 불법적인 부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도록 강요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직 한 사람만이 모든 [악하거나 해로운 경향에 있는 추종자들의 행동]의 존재 이유로 선언될 것입니다. 두 국가 모두에서, 학자[또는 리더, 트렌드 세터]의 존재가 이익을 가져오듯 해로움도 존재하며, 이 두 가지 모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친다.

죄의 어둠은 어떻게 마음에서 제거되나요? 죄(저지른 잘못)의 어둠은 두 가지에서 제거됩니다: 첫째는 후회와 수치심의 불꽃이고, 둘째는 영적 투쟁의 강도입니다 [미래에 잘못을 버리려는] [이 두 가지 모두 회개를 포함한다]. 회개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초기 학위 과정도 혜택이 풍부합니다. 후기 학위들은 매우 뛰어난 수준에 있습니다. 사흘 빈 압둘라 알-투스타리(신의 자비가 그에게 가득하길)는 "노예(인간)는 어떤 상황과 상태에서도 주님을 필요로 한다. 좋든 나쁘든 모든 상태에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다면 '오 하나님!'이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 죄에 베일을 씌워 주세요. 죄가 끝나면 기도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내 잘못을 용서해 줘. 회개한 후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선한 일을 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내 작품을 받아들여라'".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어떤 회개가 죄를 용서하게 하는가?" 그는 대답했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께] 회개이며, 그다음 그분께 돌아가는 것, 그리고 회개입니다. 참회는 신체의 사지의 행위를 의미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마음의 행위를 의미하며, 하나님께 회개는 창조물에 대한 인식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신의 축복을 거부하거나 감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후 용서받아 모든 우주의 주님께 안식처를 찾기를 바란다." 회개 이후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고독, 그 다음 인내, 그 다음 지식을 찾고, 그 다음에는 묵상, 그리고 [하나님께] 간청, 그리고 승천, [신성한 현존으로] 그리고 조화, 그리고 [신성한 존재와] 그리고 비밀스러운 대화(신성함)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태는 노예의 마음에 내려앉으며, 그 노예의 영양은 [신성한] 지식이고, 유지는 신의 기억이며, 의존은 신의 승인이며, 동반자는 [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그것을 왕좌로 들어 올려 신성한 왕좌를 지닌 자들 사이에 자리 잡게 합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무함마드 예언자의 다음 말씀(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에 대해 물었습니다:

اَلتَّائِبُ حَبِيْبُ اللّٰهِ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다."

그는 "회개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질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اَلتَّـٰٓئِبُونَ اَلْعَـٰبِدُونَ اَلْحَـٰمِدُونَ اَلسَّـٰٓئِحُونَ
اَلرَّٰكِعُونَ اَلسَّـٰجِدُونَ اَلْـَٔامِرُونَ بِاَلْمَعْرُوفِ
وَاَلنَّاهُونَ عَنِ اَلْمُنكَرِ وَاَلْحَـٰفِظُونَ لِحُدُودِ اَللَّ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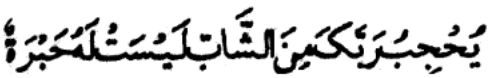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복종과 경배로 절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고, 선하고 고귀한 것을 권면하며, 악행을 막고, 하나님의 한계를 지키는 자들입니다(신이 정한 도덕, 예의, 품위의 경계를 넘지 말라)." (꾸란 9장 112절)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무 순종해서 사랑받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과는 전혀 다가가지 않을 때 '사랑받는 자'라고 불립니다. 이 설명의 목적은 회개가 두 가지 이점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첫째, 죄가 지워지고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변한다는 점; 두 번째 이점은 신의 가까운 경지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속죄와 속죄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 어떤 죄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워지고, 어떤 죄는 회개에 상응해 줄어들지만, 죄를 없애는 데는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파르 알-사디크(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하나님께서 네 가지 다른 것에 네 가지를 숨기셨습니다 - [신성한] 복종에 대한 신의 승인입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순종 행위조차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승인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신성한] 죄 속의 진노, 그래서 사소한 죄조차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죄 자체가 신의 진노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안의 영지(영지)는 어떤 종(인간)을 하찮거나 경멸받는 존재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경멸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까운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신성한] 간구를 [하나님께]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간구(기도)를 하나님께 남겨두지 마세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수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의 약과 죄에 대한 고집 치유법

사람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악에 대한 성향이 전혀 없고, 선과 고귀함 속에서 자라며, 악을 멀리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질(본성이나 내면의 구성)에 있는 것입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폐하께서는 악에 성향이 없는 젊은이에게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드물다"고 말했다. (내레이션 *하디스*는 '우트바 이븐 아미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의 권위에 따라 *무스나드 아흐메드*와 *타바라니* 를 모았 다.

두 번째 유형은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회개하는 자들과 죄를 고집하는 자들입니다. 이 장에서는 죄를 고집하는 치료법과 이 질병을 근절하고 회복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의학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회개는 회복이며, 이 회복은 약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의학에 익숙해지려면 질병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의학이란 질병의 존재를 초래한 원인에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질병을 치료하고자 한다면, 그 질병을 일으킨 원인을 근절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그 반대에 의해 무효화된다는 것도 확립된 사실입니다. 이 원칙에 비추어 보면, 죄를 고집하는 원인은 부주의(태만)와 욕망이다. 무주의의 반대는 지식이고, 욕망의 반대는 인간이 [열정과] 욕망을 유발하는 요인들에 인내심을 갖는 것이다. 태만(또는 부주의)은 죄의 근원입니다. 부주의를 치료하기 위해 준비될 약은 지식의 달콤함과 인내의 쓴맛이 섞인 재료가 될 것이다.

종교 학자의 의무: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거나 알면, 학자(인류를 괴롭히는 내면의 영적 병과 병에 대해 잘 아는 영적 스승)의 손에 의해 치유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병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학자가 대신 진단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은 한 학자가 한 나라, 도시, 동네, *마스지드*(사람들이 신과의 연결과 관계를 찾기 위해 찾는 신을 숭배하고 찬양하는 장소), 또는 한 집단을 책임지게 하여 신으로 가는 길(딘)에 대해 교육하고, 그들에게 해로운 것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들에 대해 알리고, *사아다*(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와 *샤카와*(영 원한 저주와 완전한 실패)로 이끄는 요인들을 자세히 설명하라. 학자는 사람들이 묻기도 전에 인도해야 하며, 대신 사람들에게 찾아오거나 방문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학자들과 영적 안내자는 예언자들의 후계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시대가 끝난 후] 인도와 교육에서 [참된]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항상 자신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부르고, 모든 가정을 방문해 진리의 길로 초대하며, 각자 찾아가 하나님께 가는 길(딘)에 대해 꾸짖는 것이 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병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끌어야 합니다. 외부 [신체] 질환과 관련된 경우, 예를 들어 백반증(피부 반점이 있는 피부 질환)이 있거나 얼굴에 자국이 있다면 거울을 통해 자신의 병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거울을 가진 것은 아니며, 누군가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자신의 병을 알지 못합니다. 이는 모든 학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의무인 (*파르드 알-아인*)로서 [사람들이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인도하는 것].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지하기 때문에, 신성한 길(딘)의 원칙과 세부 사항에 대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세상은 병든 자들의 거처와 같다 - 지구 표면 아래에 있는 자는 죽은 것이고, 그 표면에 있는 자는 병든 것이다. 심장병은 신체병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 세상 병원에서는 영적 병 환자가 신체 병 환자보다 많습니다. 학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은 이 병원의 의사이며, 정부 관계자들은 이 병원의 조직자이자 관리인입니다. 만약 어떤 환자가 의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사가 처방한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환자는 정부 당국에 인도되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감염성] 질병으로부터 구해야 합니다. 예방을 지키지 않는 환자가 미쳐버리거나 감옥 관리인에게 넘겨져 감옥에 가두고 자신과 타인을 [감염성]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심장병이 더 많은가요? 신체 질환과 비교할 때, 심장 질환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환자가 자신이 감염된 질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심장병의 결과가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신체 질환의 결과는 이 세상에서 나타나 때로는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체 질환을 두려워하는데, 만약 자신이 치료받지 못하면 죽음이 자신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심장의 죄(질병)의 결과는 심장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세상(세속 생활)에서는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증오가 적습니다. 인간은 죄를 알지만, 자신의 죄에 큰 중요성을 두지 않고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지만 신체 질환에 대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대신 한 의사에서 다른 의사로 뛰어다닙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으로, 심장 자체가 불치병이며 심장 의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질병에 대해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종교 학자들이지만, 그들 자신도 오늘날 최악의 [영적] 질병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들 자신도 영적 완전성과 그로 인한 영적 병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치료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적] 마음의 병들은 만연해 거의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이 잘못이 드러나지 않고, (학자들은) 창조물들을 [영적 길에서] 만류하며 이 병을 악화시키는 것들을 말리게 됩니다. 이 병들 중 가장 파괴적인 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세속성)이며, 이는 하나님으로 가는 길의 의사들(딘)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이들을 치료하려 하지만, 자신들은 이 질병에 빠져 이 질병이 너무 널리 퍼지게 만들었고, 오히려 전염병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영적 병에 걸린 의사의 부족은 창조물들이 파괴를 겪게 하고 있습니다. 의사이자 치료사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단순한 창조물들을 약탈하고 여러 방법으로 오도하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을 행하지 못한다면 부정직해서는 안 되고, 개혁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적어도 더 악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그들이 입을 열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목표는 용서에 대한 거짓 희망을 주고, 하나님(*리자*)에 있는 희망의 원인을 선호하며, 신의 자비를 주장할 때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진노(악과 악에 대한 진노)를 언급함으로써 신의 벌을 두려워하게 된 전통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설교에서 큰 만족을 느끼며, 이런 설교들은 귀에 달콤함을 주고 마음에 자산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이 이른바 '학자'들의 모임에서 돌아오면, 그들의 죄를 저지르는 대담함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존도도 더욱 커집니다. 의사가 무지하고 부정직하다면, 건강을 제공하는 대신 환자를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는 치명적인 약을 투여하게 된다는 것은 확립된 사실입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받지 못하고, 그 약을 제대로 투여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원인에 대한 치료법: 이제 죄의 원인(악과 잘못)에 대한 치료법을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인 '죄에 대한 벌은 즉각적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는 첫 번째 원인의 치료법은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지연되고 세속 생활 중에 못할지라도] 그리고 그 날이 멀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누군가에게는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죽음은 신발끈처럼 인간과 매우 가까운 존재입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사후 세계의 시작이자 심판의 날로 가는 여정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몇 분 후에 곧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예를 들어 바다를 통한 여행(무역, 상업, 교육 등을 위한 길고 힘든 여정)을 견디며, 사막을 돌아다니며 그 여행에서 얻는 이익이 미래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게다가 누군가가 아프고 믿지 않는 의사가 찬물이 건강에 해롭고 심지어 죽음에 가까워진다고 알려주면, 찬물이 매우 진정되지만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비신자의 조언에 따라 세속적인 기쁨(차가운 물을 마시며 목을 해소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의사가 훌륭할 수는 있지만, 의사가 항상 옳을 만큼 의료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기적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진실한] 예언자들의 진실성에 관한 기적들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비신자는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예언자가 인류의 발전을 위해 신의 인도를 통해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인도 비슷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죄의 쾌락에 대한 집착이 지배적이라면, 의도적으로 그것을 버리고 며칠 가치 있는 세속적 삶의 쾌락을 떠날 수 없다면 영원한 삶의 즐거움을 어떻게 떠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며칠 값진 이 삶에서 죄의 기쁨을 피하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 작은 고난에도 인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지옥의 고통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불쾌한 후유증이 따르는 세속적 축복과 쾌락에 인내할 수 없다면, 어떻게 내세의 순수하고 깨끗한 축복에도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원인의 치유, 즉 회개를 받아들이길 바라며 회개를 미루는 것에 관해서는(나중에 죄를 완전히 즐기고 나이가 들었거나 노년이 된 후에) 지옥 거주자들이 비명을 지르는 바로 그 이유가 [회개의 지연]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는 죽음으로 끝나는 죄에 대한 회개를 지연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망 시점은 모든 기대수명과 달리 알 수 없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죽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는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설령 살게 된다 해도 지금 죄를 버릴 수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날 존재하는 죄를 버리지 않는 이유가 나중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습관이 생기지 않은 사람은 원한다면 버리는 것이 더 쉽지만, 확고히 자리 잡은 습관이 있다면 욕구에도 불구하고 버리기 어렵습니다. 프리바리케이터의 예는 나무를 제거하고 싶지만 나무가 튼튼해서 쉽게 제거할 수 없고, 그 일을 내년에 하기로 하는 경우입니다. 나무가 오래 머무르면 뿌리가 확장되고 강해지며,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체적 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나무를 제거할 수 없는데, 약한 상태에서 더 강한 나무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네 번째 원인, 즉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다리는 원인에 대한 치유는 이전에 설명된 바 있습니다. 그 본보기는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자선으로 나누어 주고, 가족을 빈곤하게 만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의 양식을 보내주시거나 [외딴 황량] 땅에서 보물을 주시길 기다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죄가 용서받을 가능성은 [회개, 속죄, 속죄 없이] 보물을 찾는 것과 같다; 또는 그런 사람의 비슷한 표현은, 도시에서 물건이 대낮에 약탈당하는 곳에서 앞마당에 물건을 두고 와서, 자신의 물건을 안전한 곳에 보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물건을 보호해 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예들에서는 보물을 찾거나 도둑으로부터 자신의 물건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신뢰(또는 잘못된 기대)로 생계 수단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물건을 [위험한 장소에]부주의하게 두는 사람은 큰 바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용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속 죄를 지키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극도의 무지입니다.

다섯 번째 원인, 즉 [진정]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치유가 예언자들의 진실성과 진실성을 증명하는 요소들입니다. 의심하는 인간은 "기적을 행한 예언자들이 진리에 있음을 증명하며, 이 세계(세계나 물리적 영역)와 별개의 내세의 영역이 존재하며, 죽은 후에는 그 영역과 연관된다고 알려주었다. 이 소식의 진실에 대해 확신이 있나요, 아니면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없다는 건가요?" 만약 누군가가 [예언자들이 진리에 있었다는 것]가 불가능하다고 답한다면, 그런 사람과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만약 누군가가 의심이 든다고 말하면, "낯선 사람이 당신이 집을 떠나 준비된 음식을 남겼을 때 뱀이 당신의 음식에 입을 넣고 독과 섞었다고 말한다면, 이 낯선 사람의 진실성을 믿는다면, 그 음식을 먹을지 아니면 그냥 두겠습니까, 아마도 그게 가장 맛있었을지도 모르지만요?" 누군가는 이에 대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 낯선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해도, 나는 예방 차원에서 먹지 않을 것이다. 최대한, 그 음식은 [낯선 사람이 거짓말을 할 경우] 아무리 낭비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 낯선 사람이 진실을 말한다면, 이 음식을 먹는 것은 나에게

치명적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낯선 사람을 믿고 이 소식을 믿으며 음식을 버리는데, 그 낯선 사람이 아무런 근거나 증거도 없는데, 누군가가 질투심에 이런 말을 했거나 당신을 걱정시키기 위해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적으로 입증된 예언자들의 말씀들도 있고, 성인과 학자들, 현명하고 지적인 이들 사이에 합의가 있지만, 당신은 예언자들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그들이 전하는 소식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중 중 무지한 이들은 이 논의의 주제가 아닙니다. 심판의 날을 믿지 않거나 상벌에 확신하지 못하는 지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외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지성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식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영원히 지속될 [신성한] 벌에 가까워진 것이고, 설령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도 큰 손실은 없으며, 유일한 손실은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만약 응답자가 조금이라도 지성이 있다면, 회개를 조금도 미루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삶이 아무리 길어도 영생과 동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이 곡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리고 새가 백만 년 후에 한 곡식을 몰래 먹고 멈췄다가 백만 년 후에 또 다른 곡식을 훔친다고 가정한다면, 그 경우에도 모든 곡식은 [하루] 다 먹어버리지만 영원한 생명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성을 가진 사람이 이 며칠 가치 있는 이 [덧없는] 삶의 즐거움에 인내하며 영원한 생명(*사아다*)의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승리를 얻는 데 게으른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알리(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이런 문제를 조사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지성을 가진 남자에게 말했다. "만약 네가 진실을 말한다면(내세는 없고 이 삶이 우리가 가진 전부라면) 너와 나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진실을 말한다면(내세의 존재와 영원한 행복 또는 영원한 저주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 너희는 [내세에서] 멸망할 것이지만,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인 인간은 모든 상황에서 평화와 조심의 길을 걸어야 한다.

12장 – 역경과 시련, 고난 앞에서 인내를 통한 회복력, 그리고 축복과 모든 선함에 대한 감사

기복은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개인적·집단적 비극, 사고, 전염병, 재난, 사랑하는 이들의 상실, 물질적 손실, 인생의 좌절과 도전, 질병, 슬픔, 고난, 전쟁, 기아, 빈곤, 실업, 혼란, 사회적 혼란과 불안, 절망, 내외의 평화 결여, 불안, 위험, 타인의 과잉에 대한 분노 등은 이 세상 존재에서 인간 경험의 불가피한 일부입니다. 이러한 불쾌하고 불편한 상황들은 아무리 예방하려 노력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최선의 행동을 유지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수 있어 분노, 갈등, 그리고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과 내면과 외면의 인간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굴복해 상심하고, 절망하며, 무너지고, 부정적인 감정, 분노, 슬픔, 절망, 우울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이런 불쾌한 상황이 시작될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내와 인내심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미덕은 무수히 많으며, 이는 개인과 집단의 인간 복지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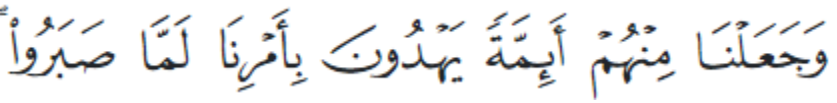
인내의 거울상은 감사로, 음식, 공기, 호흡, 건강, 번영, 평화, 안전, 행복, 입을 옷과 지붕이 있어 극한 기상 조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 우정, 관계, 가족, 그리고 정신과 마음, 지성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조차도 자신의 축복을 세는 것입니다. 감사함은 자신이 가진 모든 좋은 것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마찬가지로 감사와 감사는 개인과 집단의 인간

복지에 엄청난 영적 이익을 제공합니다. 가잘리가 그의 *대작 『이히야 알-울룸 앗딘』* 또는 "하나님의 길에 이르는 지식의 부흥" 4권 2권 2권에서 발췌한 이 거대한 인간적 특성들을 능숙하게 다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18]:

믿음(*이만*)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 절반은 인내, 반은 감사(감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신성한 성질에서 나온 두 가지 특성이며, 신성한 이름에서 유래한 두 가지 이름입니다 - *사부르* (완전한 인내를 가진 자)와 *샤쿠르* (완전한 감사를 가진 자)입니다. 인내와 감사의 현실을 모른다는 것은 신앙의 두 부분을 모두 모른 것이며, 하나님의 두 가지 성질[또는 신성한 속성]에 대해 무지한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신성한 근접성에 도달할 수 없으며, 믿음의 길은 믿음을 가져야 할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걸을 수 없습니다. 이로부터 인내와 감사라는 신앙의 두 측면에 빛을 비추는 것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신앙의 부분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부분은 같은 책에서 7개의 장으로 설명될 것입니다.

인내심의 설명

인내의 탁월함: 하나님께서 인내심 많은 사람들의 자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꾸란은 70곳이 넘는 곳에서 인내를 언급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많은 고귀한 [영적] 지위와 선함이 인내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발휘하여 우리 명령에 따라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많은 지도자들(본보기)을 만들었습니다." (꾸란 32장 24절)

وَتَمَّتْ كَلِمَتُ رَبِّكَ ٱلْحُسْنَىٰ عَلَىٰ بَنِيٓ إِسْرَٰٓءِيلَ بِمَا صَبَرُوا۟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말씀(약속) [오 무함마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은 그들의 인내 덕분에 이루어졌다." (꾸란 7장 137절)

وَلَنَجْزِيَنَّ ٱلَّذِينَ صَبَرُوٓا۟ أَجْرَهُم بِأَحْسَنِ مَا كَانُوا۟ يَعْمَلُونَ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는 이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그들의 선행에 대한 보상을 주리라." (꾸란 16장 96절)

أُو۟لَٰٓئِكَ يُؤْتَوْنَ أَجْرَهُم مَّرَّتَيْنِ بِمَا صَبَرُوا۟

"그 사람들은 인내심 덕분에 두 배로 보상을 받을 거야." (꾸란 28장 54절)

إِنَّمَا يُوَفَّى ٱلصَّٰبِرُونَ أَجْرَهُم بِغَيْرِ حِسَابٍ

"인내하는 백성에게는 무한한 [신성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꾸란 39장 10절)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내에 대해 무한한 신의 보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의로운 행위 중에서 이 인내만이 신의 무한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적 근접 상태와 함께의 다른 의미들]:

وَٱصْبِرُوٓا۟ ۚ إِنَّ ٱللَّهَ مَعَ ٱلصَّٰبِرِينَ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과 재난, 역경 앞에서도 인내를 베푸고 그 상태로 인내하시는 자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도와 탈출구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라고 말했습니다. (꾸란 8장 46절)

한 곳에서 자비, 축복, 인도의 특성이 인내하는 사람들을 위해 결합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성이 결합되어 다른 어떤 예배자에게도 귀속되지 않았습니다:

أُوْلَٰٓئِكَ عَلَيْهِمْ صَلَوَٰتٌ مِّن رَّبِّهِمْ وَرَحْمَةٌ ۖ وَأُوْلَٰٓئِكَ هُمُ ٱلْمُهْتَدُونَ

"그들(인내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인사와 자비가 내려지며, 그들은 [신성하게] 그들의 주님께 인도받는 자들이다." (꾸란 2장 157절)

인내의 덕과 탁월함에 관한 예언적 전통이 매우 많습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اَلصَّبْرُ نِصْفُ الْإِيْمَان

"인내는 믿음의 절반이다." (내레이션 하*디스*는 압둘라 이븐 마수드의 권위에 따라 *아부 나임*과 *카티브* 를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한 전통에서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너희에게 덜 많은 것들이 주어진 것들에는 확신(*야킨*)과 인내(*사브르*)가 있다. 밤(*타하주드*) 기도와 초과 의식(선택적) 금식에서 큰 몫이 없더라도 두 가지 모두에서 더 많은 몫을 받은 사람은 [확신과 인내가 크게 유리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늘날 여러분이 처한 [가난과 필요]의 상태에서, 인내심을 발휘한다면, 여러분이 함께 행한 많은 선행을 가져오는 것보다 저에게 더 나은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떠난 후, 세상이 [권력, 부, 세속적 부와 부] 열려 서로를 나쁘게 여기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때 천상의 존재들(천상의 존재들)은 당신을 나쁘게 여길 것입니다. 이 [가난, 필요, 고난과 역경의 상태]에서 인내를 발휘하고, 스스로를 책임지고(모든 잘못에 대해 자기 성찰과 책임을 지는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후 그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낭송했다:

مَا عِندَكُمْ يَنفَدُ ۖ وَمَا عِندَ ٱللَّهِ بَاقٍ ۗ وَلَنَجْزِيَنَّ ٱلَّذِينَ صَبَرُوٓا۟ أَجْرَهُم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멸망할 운명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리고 진실로, 인내하는 자에게는 그들이 지금까지 베푼 최고의 보상에 걸맞은 큰 보상을 주리라." (꾸란 16장 96절)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 다윗에게 계시를 보내셨습니다(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내 성품을 따르시고, 나의 성격 특성 중 하나는 매우 인내심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압둘라 빈 압바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 를)가 *안사르*(메카에서 도망친 무슬림들을 박해를 피하기 위해 머무르던 메디나 원주민)를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너희는 신자냐?"라고 물었다고 전한다. 모두 조용히 있었다.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언자는 "당신의 믿음(이만)의 징조(징표)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안사르는 "우리는 번영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역경에 직면할 때 인내하며, [하나님] 결정(신의 명령)을 받아들인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카바의 신이시여! 여러분은 신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자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내레이션 *하디스* 모음 집 *타바라니*) 예수(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는 "싫어하는 것에 인내심을 발휘할 때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마르 빈 알-카타브(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아부 무사 알-아샤리에게 상세한 편지를 썼으며, 그 안에서 "인내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는 다른 것보다 우수하다. 재난에 인내하는 것이 더 우수하며, 하나님이 금지한 일에 인내심을 행사하는 것(행동을 자제하는 것)보다 더 우월하다 인류의 발전을 위한 신성한 지혜, 비록 그것들이 바람직하고 즐거워 보일지라도]. 인내가 신앙의 핵심임을 알아야 하며, 이는 *타크와*(경건한 경외, 경외, 경외심)가 모든 의로운 행위 중 가장 우월하며 인내에서 비롯된다(*타크와*는 인내에서 유래)"라고 말했다. 알리(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신앙의 기초는 네 가지 기둥 위에 있습니다: 확신, 인내, 투쟁[특히

내면의 영적 투쟁 측면에서] 그리고 정의(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대한 공정함)."
지적으로는 인내심이 여전히 좋은 자질이지만, 인내의 현실과 그 의미를 설명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내의 현실과 의미

인내심 - 하나님께 가는 길(딘)의 정착지, 영적 투쟁의 목적지(*술룸*): 인내는 하나님으로 가는 길의 여러 정거점 중 하나의 정착점이며, 영적 여행자들의 목적지 중 하나의 목적지임을 알아야 합니다. 신으로 가는 길의 모든 단계는 세 가지 주제에 있습니다: 첫째, 이해 또는 영지(*마아리프*); 둘째, [내면의 영성] 상태; 셋째, 행위 또는 [외형] 신체 행위입니다. 그중 이해는 [영적] 상태를 낳고, 다시 [고귀한] 행위를 낳는 근본적인 물질이다. 이 세 가지 중 이해는 나무를, 상태는 가지를, 행동은 열매를 닮았다. 영적 여행자들의 모든 목적지는 이렇습니다. 인내는 이해와 [내면의 영성] 상태가 결합된 것의 이름입니다. 행위는 이 두 가지(이해와 내면의 영적 상태)의 존재에서 비롯된 열매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 밝혀 보겠습니다.

영지(Gnosis) 또는 이해: 천사, 인간, 동물 사이에 존재하는 순서(순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내심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인내는 인간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전체 세계관에서 다른 어떤 창조물과도 공유하지 않는 것]. 인내는 동물과 천사에게서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 동물은 본질적인 결함 때문에, 천사는 본질적인 완벽함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세부 사항은 욕망이 동물들에게 강요되었고, 그들은 그 욕망에 의해 지배당하여 그들의 움직임이나 정지의 원인이 단지 욕망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 욕망을 억제하거나 그 목적을 막을 내면의 힘이 없습니다. 욕망과 싸우는 데 있어 절제와 반대의 힘을 유지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천사들은 위엄 있는 주님(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과의 가까움과 친밀함에 만족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욕망이 심어져 신성한 근접과 위대한 주님의 존재에 대한 갈망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했다. 또한 신성한 존재를 막는 세력을 압도하고 복종시킬 군대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신성한 임재를 막는 힘은 욕망이기 때문이며, 욕망은 그 안에 창조되지 않았다. 반면, 인간은 욕망과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았다. 창조의 초기에 인간은 동물처럼 결점(결점, 결점, 약점)을 가지고 창조되어 음식에 대한 욕망 외에는 다른 욕망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이 발전하면서] 놀이(스포츠), 장식, 미화에 대한 욕망이 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후 [인생이 더 발전하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결혼에 대한 욕망이 생겼습니다. 이 욕망들은 특정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인내심을 갖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인내란 한 군대가 서로 목표와 목적 간의 갈등으로 인해 전쟁이 벌어질 때 굳건히 버티고 견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 안에 존재하는 유일한 군대는 동물에게도 존재하는 욕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의 관대함과 자비로 인간의 계급을 [다른 모든 창조물]보다 우월하게 만들었고, 동물보다 더 높은 계급으로 유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완성될 때(인간은 사춘기에 성숙과 신체 발달 연령에 도달하지만, 정신적, 심리적, 감정적, 지적 발달의 완전한 단계는 40세경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두 명의 천사를 지정하십니다 - 한 명은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다른 한 명은 올바른 길을 걷도록 도와줍니다. 이 두 천사(그리고 그들이 맡은 사람과 함께 하는 일) 때문에 인간은 동물보다 구별됩니다. 그 외에도, 인간은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지와 그분의 예언자(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와 그가 전한 신성한 메시지, 즉 인류 역사상 모든 신성하게 정봉된 예언자들이 전한 메시지의 정점이라는 점입니다. 둘째는 모든 사안의 전개와 그 최종 결말과 관련된 [신성한] 지혜와 이유를 이해하는 특성이다. 이 두 가지 특성 또는 특성은 인도와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천사에게서도 얻어집니다. 동물들은 하나님과 예언자의 영지도 없고, 자신의 최후를 알지도 못합니다. 대신, 그들은 특정 시간에 원하는 길만 보고, 자신이 맛있다고 느끼는 것들을 기다리기만 합니다. 이런 상태가 너무 심해서, 아프고 유익한 약을 받아도 받아들이지도, 그 혜택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내면의 신성한] 인도의 빛으로부터 욕망을 따르는 것이 최종적인 결말(끝) [그로 인해 불쾌한 상황에 처하게 됨] 측면에서 해롭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단순히 [욕망을 따르는 것이 인간에게 해롭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모든 해로운 것을 버릴 힘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에 익숙하지만, 질병과 건강에 해로운 쾌락 음식, 음료, 물질과 같은 것을 버리거나 예방할 힘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욕망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필요하며, 그와 함께 많은 영적 투쟁을 하여 하위 자아(Nafs)와의 마찰, 논쟁, 적대감을 끝내고[결과적으로 하위 자아는 모든 선한 것에 종속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도의 길에 머무르시고, 못하는 신성한 군대와 함께 도와주고 지지하는 천사를 임명하셨습니다. 이 군대의 임무는 욕망의 군대와 싸우고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다. 때로는 이 [천사들] 군대가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들의 약점이나 강함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에게 인도의 빛의 강점이나 약점과 같습니다.

신성한 길의 힘과 욕망의 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인간이 욕망을 굴복하는 동물보다 우월함을 주는 특성을 "하나님으로 가는 길의 힘"으로, 그 함의를 추구하는 욕망을 "욕망의 힘"이라고 부르겠다. 이제 우리는 신성한 길의 힘과 욕망의 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때로는 첫 번째 [힘]이 두 번째 힘을 이기고, 때로는 두 번째 힘이 첫 번째 힘을 물리칩니다. 이 전쟁의 전장은 [인간의 심장]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의 힘은 하나님의 당을 돕는 천사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욕망의 힘은 하나님의 반대자들을 돕는 사탄과 그의 일행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인내란 하나님께 가는 길의 힘이 욕망의 힘에 맞서 견고하고 끈질기게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즉, 인간)이 인내하여 상대(욕망의 힘)를 이기고 항상 반대하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당을 돕는 것과 같으며 인내심 있는 집단에 포함된다. 하지만 욕망의 힘이 자신을 굴복시켜 인내심을 잃고 굴복한다면, 그 사람은 사탄의 일원이 됩니다.

영적 상태와 그 열매: 이 설명의 결론은 욕망을 버리는 행위가 인내의 상태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내의 열매는 욕망을 버리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인내는 욕망의 힘에 맞서 신성한 길의 힘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는 길의 힘의 지속과 영원함은 욕망과 그것에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함으로써 달성되는 상태입니다. 욕망이 하나님의 적이자 [신성한] 인도의 길에서 도적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신성한 길의 힘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 확신은 '믿음'(이만)으로 해석되는 이해입니다. 신성한 길의 힘이 강할 때, 인내를 굽히거나 약해지지 않으며, 욕망의 파장에 반대하는 행동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로부터 성욕의 버림 단계는 성욕의 힘과 반대되는 신성한 길의 힘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

우리의 목표로 돌아가자: [요약하자면] 인내는 신성한 길의 힘이 낮은 자아로부터 나오는 욕망의 힘과 싸우는 인내입니다. 이 싸움[몸싸움과 끊임없는 투쟁]은 인간의 독특한 특징이다. 그래서 '*키라만 카티반*'(각 인간의 두 어깨에 앉아 그 개인의 모든 행적, 선악을 상관없이 평생 동안의 인간 행위 기록 기록에 기록하며, 심판의 날 신의 심판을 받아 그 개인에 대한 신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행운을 얻거나 영원한 저주를 받는 자)은 정신 이상 상태인 자들(즉, 정신 능력을 잃었고 의학적인 의미에서 아무것도 감각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들(사춘기에 도달하지 않은 이들, 사춘기가 분별력을 얻고 자신의 행동에 신성하게 책임지게 되는 시점)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천사들이 그들로부터 이익을 얻는다고 주의를 기울인다면(모든 일에서 선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의 결과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관해) 그것을 선한 행위로 기록하며, 만약 천사들이 어떤 일에서 악을 행하기로 양심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피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악으로 적어 [평생 행한 기록부]. 정신 나간 아이들은 그들로부터 (천사의 힘이나 신으로 가는 길의 힘) [모든 일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천사의 힘이나 신성한 길의 힘]을 주의 깊게 듣거나 회피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주의를 기울이거나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의 행위만 기록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도의 빛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수치심의 것을 알기 시작할 때] 이 빛은 분별의 나이(사춘기)에 완성되고 완성됩니다. 이는 이른 아침 빛이 희미하지만 해가 뜨면 완성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인도는 완성되지 않았으며, 그 함의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내세에는 해가 없지만, 세속적인 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보호자이자 책임자(부모처럼)이면서도 친절하고 애정 어린 아이에게 있으며, '*키라만 카티반*'처럼 본질적으로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아이의 마음에 선과 악에 대한 모든 상상력(기준이나 고려사항)을 책에 새겨야 한다. 그 후 이 책이 펼쳐지는데, 아이가 선을 행하면 칭찬하고, 아이가 나쁜 일을 하면 꾸중과 꾸중을 듣습니다. 자신의 보호와 훈련 아래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나 책임 있는 사람은 천사적 습관을 물려받은 자이며, 그들의 [고귀한] 성격 특성을 신뢰할 수 있는 계승자입니다. 천사의 성격, 특성, 습관을 자녀의 이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개인은 천사처럼 하나님의 가까움을 얻게 되며, 예언자와 하나님의 친밀한 이들(*시디킨*, 성인, 영지주의자) 중 하나로 포함될 것입니다.

인내의 세 단계: 욕망이 끝나고 하나님께 가는 길의 힘이 지배적이며, 끊임없는 영적 투쟁과 오랜 인내를 거쳐 인내가 쉬워지면, 하나님의 종은 "*리다*" 즉 신의 뜻을 받아들이는 [영적] 지위에 도달합니다. 이 내용은 "신의 뜻의 수용서"(16장)에서 자세히 설명될 것입니다. 일부 영지주의자들은 인내심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 단계는 욕망의 버림, 즉 회개의 정도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정도는 신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것[재앙이 닥치는 것처럼]이며, 이는 자히딘이라고도 불리는 하위 자아의 욕망에 대한 금욕의 정도 입니다. 세 번째 정도는 [가장 높은 등급이기도 함]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내리시는 대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든 나쁘든, 바람직하든 바람직하든 바람직한가, 편안하든 고난이든, 번영이든 역경이든]. 이것이 바로 하나님(시디킨)의 친구와 가까운 이들의 정도입니다. [신성한] 사랑의 책(16장)에서 우리는 [영적] 사랑의 [신의 위치]가 신의 뜻을 받아들이는 [영적] 위치보다 우월하며, 그 역시 인내라는 [영적] 위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인내는 신성한 법의 명령에 따라 의무적(*파르드*), 초고등성(선택적 또는 *나필/나필라*), 바람직하지 않은(*마크루*), 금지된 (*하람*) 등 여러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의 법에서 금지된 것들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초월적이거나 선택적인 것들에 대해 인내를 발휘할 의무가 있다 [*마크루흐* 그러나 금지되지는 않다]. 신성한 법에서 금지된 고통을 가하는 것과 같은 것에 대해 인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한다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인내심을 갖지 말고 [그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에 대해 인내하는 것은 불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아내를 괴롭히거나 성추행하여 그의 분노와 명예감을 자극하지만, 인내심 때문에 표현하지 않고 아내에게 일어나는 일을 조용히 지켜보는 관객이 된다면, 이 인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의 법에 따르면,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분류의 목적은 인내에 관한 신의 법칙의 기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의 예언 전통에서, 인내는 신앙의 절반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모든 종류의 인내가 칭찬받을 만하다는 뜻은 아니며, 단지 인내가 신의 법 눈에서 선한 것임을 의미할 뿐이며, 그렇지 않으면 이유 없이 몸에 고통을 가하는 데 신성한 보상이나 보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상태에서 하인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인생에서 마주치는 상황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어야 합니다 - 욕망에 부합하는 경우,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아 싫어하는 경우입니다. 종은 이 두 상태 모두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상태에는 건강, 부, 명성, 친척, 친구, 도우미, 추종자의 풍요로움, 과잉의 부와 소유,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축복이 포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인은 인내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층 자아(*나프스*)를 억제하지 않고 세속적 쾌락과 즐거움 속에서 해방시키면, 비록 그 쾌락들이 허용되더라도, 하층 자아가 반항적이고 자랑스러워질까 두려워지기 때문이다. 꾸란에 따르면, 번영할 때 반역에 몰두하는 인간 기질의 특이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كَلَّآ إِنَّ ٱلْإِنسَٰنَ لَيَطْغَىٰٓ ٦ أَن رَّءَاهُ ٱسْتَغْنَىٰٓ ٧

"진정으로, 인간은 자신을 번영하고 자립적이며 자립적이라고 볼 때 [품위와 도덕적 올바름의 경계를 넘음으로써] 반항에 빠진다." (꾸란 96장 6-7절)

그래서 일부 영지주의자들은 신자는 어려움 속에서 인내를 베푸지만, 하나님의 가까운 사람(싯디크)은 평화와 번영 속 행복 상태에 인내한다고 말합니다. 사흘 빈 압둘라 알-투스타리(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는 "복지(평화와 번영)의 상태에 인내하는 것이 고난에 인내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다.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의 예언자 동료들에게 세속적 부와 재산의 문이 열렸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난과 가난에 시련을 겪었을 때, 우리는 인내하며 견뎌내어 그 시련과 시련에서 성공했다. 이제 우리는 부와 번영으로 [신성하게] 시험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갖지 못할 수도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시험에서 실패할 것입니다." [예언자 동료들은 예언자의 죽음 이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번영에 빠지지 않으려 애쓰는 데 실패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그들은 역경과 번영 모두에서 인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자신의 욕구와 맞지 않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행과 악행 등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경우, 둘째는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이나 사고(재난)와 같은 경우, 셋째는 처음에는 통제할 수 없지만 나중에 행동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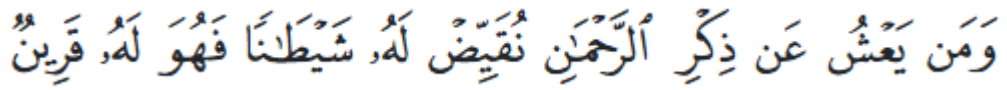
자신의 고난과 고난을 숨기는 것이 인내의 완성이다: 인내의 완성은 자신의 병, 빈곤, 그리고 모든 역경을 [모든 사람에게] 숨기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인내의 분류를 통해 인내는 모든 상태와 행동에서 의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고독을 선택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정도와 상관없이 인내심을 모를 수 없다. 이는 사탄의 암시(*와스와스*)가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암시로 인한 혼란과 고통이 고독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또는 마음의 평화]를 갖게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는 두 가지 유형의 생각이 일어납니다 -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되찾거나 보상할 방법이 없는 것에 대한 생각이거나,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생각은 과거에 잃어버린 것들에 관한 것이든, 미래에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들이든, 두 경우 모두 시간을 낭비합니다. 마음은 인간의 도구이며, 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이며, 한 사람의 평생은 그 자산입니다. 만약 마음이 잠시라도 신성한 기억(*디크르*)과 명상(*피크르*)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큰 손실이 될 것이다. 기억은 하나님(모든 인간의 최종 목적지이시신 분)에 대한 갈망과 그분과의 친밀함을 키우는 마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관상은 하나님의 영지에 도달하는 마음의 행위를 의미하며, 그 영지를 신성한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와실라*)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생각이 허용되는 사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세속적인 삶에 필요한 생계 수단이나 그것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마음의 생각은 욕망과 그것을 얻기 위한 전략을 포함합니다 [그 생각들의 중심입니다]. 이 사람은 한 번이라도 자신의 뜻에 반한 행동을 한 사람들과 항상 다투는 상태에 있으며,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반할 수 있다는 미신(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매우 진실하고 헌신적이며 이타적인 사람들, 평생 선의를 얻기 위해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적수로 여기고 그들을 굴복시키고 마음속에서 반대하는 생각을 지우려는 전략을 고민한다. 요컨대, 이것은 그들의 영원한 탐닉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 있고] 낮과 밤을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사색에 빠져 있어 영적 길과 안녕에 해롭습니다.

두 군대 오브 사탄: 이 모든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실제로 사탄은 두 개의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하나는 날아다니는 군대, 다른 하나는 걷는 군대입니다. 날아다니는 군대는 암시를, 걷는 군대는 욕망을 가리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불에서 창조되었고 인간은 흙(먼지)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토양에는 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의 기질은 평온하며, 불의 기질은 움직임입니다. 따라서 불길이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본질에 따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로 창조된 저주받은 사탄은 고요함과 평화의 상태를 얻고, 먼지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물] 앞에 엎드리라는 명령을 받았다(즉, 인류의 아버지 아담이 대표하는 인간 앞에 엎드리기를). 그러나 사탄은 신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만하고 불순종했으며, "나는 불로 창조되었으니 아담[인류의 아버지]은 먼지로 창조되었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보다 우월하며,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에게 겸손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자(저주받은 사탄)가 우리 아버지 아담(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에게 엎드리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후손들(인류)에게 엎드릴 수 있을까요? 후손 앞에 엎드리는 목적은 그가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암시(*와스와스*)를 자제하는 것이다. 만약 사탄이 자신의 행동을 멈춘다면, 그것은 인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두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절의 영혼(본질)은 순종과 복종입니다. 이마를 땅에 대는 [절하는 것]은 그 몸(외부 세블런스)입니다. 이마를 땅에 대는 행위를 절(proceration)이라고 합니다. 이 행위가 겸손과 천박함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이 행위가 상상한 것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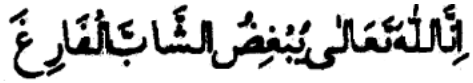
[핵심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껍데기 때문에 진주를 방치하거나, 몸에 대해 영혼을 소홀히 하거나, 껍질(껍질) 때문에 진주(핵 또는 정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외부 세계(사물과 사물의 외관)에 갇혀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을 소홀히 하여 모든 것과 모든 것의 본질을 알지 못하게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외부(가시된) 영역에만 갇혀 보이지 않는 영역을 방치하게 되는 것은 옳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사탄이 당신의 영원한 적이며, 당신을 오인도할 수 있는 휴식을 허락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생각과 관상이 한 곳에 집중되어 하나님의 묵상에 완전히 몰입할 때만 당신의 순종을 받아들이거나 마음에 암시를 심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저주받은 사탄은 분명히 당신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지 못할 것이고, 당신은 진실한 하나님의 노예들 중 하나로 포함될 것이며, 이 저주받은 자의 지배 밖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신성한 묵상이 없거나 사탄의 암시가 전혀 없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탄은 혈액 순환처럼 인간의 정맥을 순환하는 유동 원소입니다. 액체 물질로 가득 찬 컵과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컵에 액체와 공기를 모두 담아야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며, 컵 안에 공기도 없고 액체도 없어야 합니다. 그것도 표면적으로는 불가능하며, 액체 물질이 컵에 없으면 공기가 컵을 채웁니다. 그것이 바로 심장의 상태입니다. 만약 마음이 선한 묵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탄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성한 관상에 대한 태만이 있을 때, 그 정도에 사탄이 개입하게 됩니다. 이는 잠시라도 과실을 저지르면, 그 과실 순간에 사탄 외에는 동반자가 없게 되는 정도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자비로운 하나님(하나님)을 기억하다가 눈이 멀게 되는 자는 그런 자에게 사탄(악마)을 강요하여 항상 사탄과 함께 살게 하는데, 악마는 모든 선함을 막고 모든 부정적인 형태로 인도하는 암시하는 동반자가 된다." (꾸란 43장 36절)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게으른 청년들(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는 젊은 남녀)을 싫어하십니다 [그들의 시간과 젊은 에너지가 잘못된, 부정적인, 비생산적인, 게으름 있고 시간 낭비하는 일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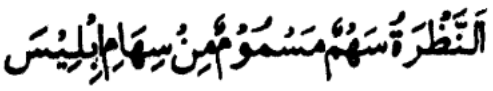
게으른 청춘을 싫어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허용되는 일(예: 공부나 생계 유지)에서 마음을 바쁘게 하지 않거나, 신성한 길(딘)과 관련된 사색에 빠지지 않을 때, 겉으로는 게으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탄이 자신의 마음에 거처를 마련하고 [번식지에서] 자손을 늘리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청년들의 심장]. 모든 동물과 비교했을 때, 사탄이 가장 번식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본성에는 불이 포함되어 있고, 마른 것이 불을 가로막으면 [격렬하든 아니든] 불은 빠르게 팽창합니다. 젊은이의 마음속에 욕망이 존재하는 것은 마치 불 앞에 마른 풀이 다가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불을 위한 음식(연료)(마른 장작)이 존재하지 않아 조용해지듯, 마찬가지로 욕망이 사라지면 사탄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의 거처(인간의 마음 속에서)를 스스로 불태워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신의 가장 큰 적은 당신이 욕망이라 부르는 마음의 특성임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인내의 약과 도움을 받는 방법

이 병을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그 약을 알려주시고 회복을 약속하셨음을 알리자. 인내는 매우 어려운 행위이지만, 지식과 행동의 결합(마그마)을 통해 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과 행동은 [지식에 따라], 심장의 모든 질병에 대한 약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는 두 가지 약입니다. 질병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지식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이유는 그 반대 면에 의해 치유됩니다. 질병을 일으킨 원인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몇 가지 예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은 간음의 욕망에서 인내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적인 성기를 통제할 수 없거나, 사적인 성기를 통제할 수 있어도 눈은 통제하지 못한다 [욕구를 자극하는 모든 곳을 살펴봐서], 혹은 눈을 통제하는데 마음은 통제하지 못한다. 마음은 항상 욕망의 중심으로 남아 신성한 기억을 멀리하게 한다, 선행에 대한 숙고와 끈기. 이것은 병이며, 그 치료법의 세부 사항은 앞서 설명했듯이, 인내는 신성한 길의 힘과 욕망의 힘 사이의 싸움의 이름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성공하려면, 그 세력을 강화해 우세하게 만들고, 다른 세력을 약화시켜 지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문제(예시)에서 우리는 신성한 길의 힘이 지배적이고 욕망의 힘이 약해지길 원합니다.

욕망의 힘은 어떻게 약해지는가? 욕망의 힘을 약화시키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그 진정한 힘을 살펴보고 어디서 힘을 얻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힘이 풍성한 음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치유는 끊임없이 금식하는 것이며, 금식을 깨는 시점에는 욕망을 자극하지 않는 소량의 [간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기는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즉시 욕망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망은 눈에서 [보통 금지된 것들을 보며 열정을 자극하며]에서 촉발되며, 눈은 심장의 움직임을 일으키고, 심장은 욕망을 자극하고 동기부여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야를 제한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는 방법은 고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직접 만난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는 것], 아름다운 얼굴을 볼 기회가 있는 순간은 피하는 것입니다. 무함마드 예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되고 금지된] 시선은 독에 담긴 사탄의 화살 사이에서 나온 것이다."

사탄은 이 화살을 절대 빗나가지 않도록 쏘아요. 이 화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도 없으며, 눈을 감거나 목표에서 떨어져 서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아름다운 얼굴(외모, 생생한 이미지, 디스플레이)을 통해 이 화살들을 쏜다. 이런 시선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독화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허용되는 수단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간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쉬운 방법은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과는 결혼에 집중하고 충성하는 것]. 이렇게 하면 하위 자아(*Nafs*)는 만족하여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위 자아가 원하는 것은 이미 허용되는 것(즉, 이 예의 결혼)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금지된 수단을 채택할 필요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치료법은 가장 유익한 방법인데, 좋은 음식 섭취를 중단하고 다른 필수 식품을 줄이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일을 게을러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치유는 음식을 줄이는 것으로, 반항적인 동물의 먹이를 끝내어 약해지고 힘이 약해지고 사라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치료의 예시는 개 앞에서 고기를 제거하고, [농장] 동물 앞에서 사료를 제거해 개가 고기를 볼 때, 동물이 사료를 볼 때 내면에서 자극이 없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치료법은 개가 만족할 만한 무언가를 주는 것과 같아, 개가 충분한 힘을 남겨 훈육과 훈련에 인내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의 힘을 강화하기: 앞서 논의한 내용은 욕망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신성한 길의 힘 강화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신성한 길의 힘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투쟁의 이익과 그 열매(긍정적 함의)에 대해 하위 자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탁월함에 명시된 전통을 통해 인내를 유도하고, 세속적인 문제의 최종 결론의 탁월함과 하나님께 가는 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우리가 쓴 내용을 더 깊이 숙고하는 것입니다. [예언적] 전통에 따르면, 신의 보상과 보상은 역경에 대한 [불평과 불평 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견뎌야 한다면], 그

역경으로 인해 잃은 것보다 더 크다. 따라서 통찰력과 내면의 눈(또는 지혜)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역경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고통받는 사람이 잃은 것은 내일(미래에도) 사라질 것이고, 오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머무르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을 대신해 그런 것을 얻었고, 그것은 영원히 곁에 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함 있는 제품을 팔고 좋은 것을 얻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이 나쁜 제품의 종말을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후회와 후회를 초래하는 현실에 대한 관점]은 신앙(*이만*)에서 유래한 영지(*마리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영지가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강하다. 강하면, 하나님께 가는 길의 힘도 강하고 크게 활력을 얻습니다. 약하다면, 하나님께 가는 길의 힘도 약합니다. 이 영지(Gnosis) 또는 신에 대한 믿음의 힘은 확신(certitude)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확신이 흔들림 없는 인내심의 동기입니다. 그러나 세계 사람들 중에서 확신과 인내의 끈기와 결연함을 부여받은 이는 매우 드물다.

두 번째 방법은 점차 신성한 길의 힘이 욕망과 하위 자아의 욕망을 지배하도록 만들고, 승리의 맛을 보면 즉시 대담해져 지배력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 지배는 어렵지 않다 [욕망의 힘과 하위 자아에 대해] 격렬한 작업과 지속적인 연습에 익숙해지면 일을 하는 장기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중량을 드는 사람, 농부, 군인들은 재단사, 향수 판매상, 학문 신학자(*푸카하*), 영적 여행자(*수피*)보다 더 강한데, 그들의 팔다리는 지속적인 [육체] 노동에 익숙하지 않아 약해져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인내심이 없고 영적 고통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신성한 길의 힘이 너무 약해져서 욕망을 지배하기에는 너무 약해집니다. 반면, 욕망에 맞서는 데 익숙한 하위 자아를 만드는 자는 원할 때마다 그것을 지배한다.

세상과 내세의 지배: 토라, 복음, 시편, 꾸란, 모세와 아브라함의 두루마리(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들 모두에게 있기를) 그리고 모든 천상의 책들은, [신성하게] [원래

형태로] [하나님의 창조물](인류)을 영원한 지배로 초대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왕으로서 살고 내세에서도 왕이 되도록 권고하기 위해 [신성하게] 계시되었다. 세계의 왕권은 금욕(*주흐드*)[세속적 현상과 가진 모든 것에 대한 분리]을 채택하고, 물질적 소유가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내세의 왕권은 *신의 가까움에 도달한 후 소멸되지 않는* 생존(*바카*)을 이루고, 굴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명예이며, 이 영역(세상)에 숨겨져 있어 아무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냉정한 눈빛을 얻는 것이다. 사탄이 창조물(인류)을 이 세상의 지배권으로 초대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지배권을 쫓는 사람들이 내세의 지배권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저세는 두 명의 공동 배우자와 같아서 한 명은 다른 한 명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사탄은 누군가가 세상(세속적 부, 소유물, 화려함, 권력)을 얻으면 그것이 머무르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인간에게 유인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세상을 얻으면 평화롭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 그는 한 명을 질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걱정하게 만들며, 새로운 분쟁을 일으킨다. 이것이 모든 세속적 부와 재산의 현실입니다. 첫째, 얻기 어렵고, 만약 얻는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많은 전략을 고안해야 하며, 극심한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만약 유지된다면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멸종(끝)을 맞이할 것이며, 통치자든 피하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금욕이 지배인가? 금욕의 의미는 자신의 욕망과 분노를 통제하게 되고, 둘 다 신성한 길의 힘과 신앙의 제스처(*이만*)에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진짜 도미니언이야. 진정한 지배의 의미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분노와 욕망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때 인간은 '자유'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욕망의 포로가 되면 때로는 자신의 사적인 부분의 노예가 되고, 때로는 타인의 목표에 노예가 되는 것이다. 오히려 한 동물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힘이 없는 동물이 되고, 대신 목에 목걸이를 채우고 원하는 대로 빼앗아 가는 타인(인간)의 손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속임수인가? 하층 자아로부터 나온 저급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 동물적이고 야수적인 성격을 가진 욕망의 노예가 된 후, 자신이 자신의 운명과 존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욕망의 노예가

된 후에는 주인의 특성이 자신 안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저승에서도 굴욕을 당합니다. 현실은 금욕이 진정한 지배이며, 이 지배를 통해 내세의 [영원한 성공과 영원한] 지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은 사람들은 세상과 내세 모두에서 상실을 겪었고, 신성하게서 부여받은 인내의 능력(*타우피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과 저승에서 성공을 유지했습니다.

감사의 설명

이 장(감사에 관하여)은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첫째는 감사의 탁월함, 그 실재성에 대한 설명, 유형과 명령; 둘째는 특별한 축복과 그 유형의 현실성, 즉 특별 또는 공통적인 것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는 인내와 감사에서 무엇이 우월한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소 - 감사와 그 탁월함: 한편으로 꾸란은 신의 기억을 다음과 같이 찬양했습니다:

وَلَذِكْرُ ٱللَّهِ أَكْبَرُ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꾸란 29장 4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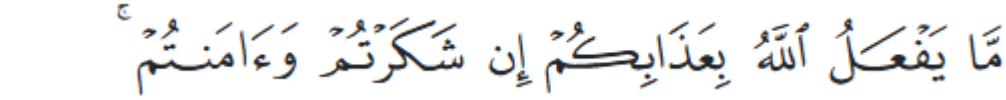
반면, [신성한] 감사는 [신성한] 기억과 함께 언급되어 큰 영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فَٱذْكُرُونِىٓ أَذْكُرْكُمْ وَٱشْكُرُوا۟ لِى وَلَا تَكْفُرُو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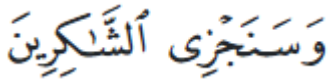
"나를 기억하라. 나는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네 모든 고난과 고난 속에서]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셀 수 없는 축복에 감사하며, [네가 요청하지 않아도 내가 주신 무한한 축복에 대해] 감사하지 말라. [나를 거부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꾸란 2장 152절)

감사함을 신성한 기억과 함께 언급하는 것은 그 탁월함의 완성을 주장합니다.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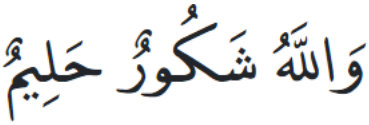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하시는 것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꾸란 4장 147절)



"하나님은 감사하는 백성들에게 빠르게 보상을 주십니다." (꾸란 3장 145절)

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이 축복의 [보존과 증가]로 이어진다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외는 없지만, 번영을 주거나, 기도를 받아들이거나, 먹을 수 있게 하거나, 용서를 전하거나, 회개를 받아들이는 등 다른 축복들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합니다. 이 구절들로부터 감사가 훌륭한 것임을 알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의 뜻에 부합시키지 않으시고, 진심 어린 감사를 통해 축복을 더하겠다고 확고히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이 좋은 [내면] 특성이라는 데 의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신성한 특성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이 자질을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감사하시며(비록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우리가 선과 의의 길에서 행하는 작은 일들조차도 감사하십니다) 인내심을 가지십니다." (꾸란 64장 17절)

아타(신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길)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죽음 후 아이샤(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의 아내인 아이샤를 방문해 예언적 지식을 찾았다고 전합니다. 그녀는 이 말을 듣고 울며 말했다. "그의 상태가 이상하지 않았던 게 뭐야? 어느 날 밤 그는 내게 와서 내 이불 속에 누워 몸이 내 몸에 닿았다. 그 후 그는 말했다, '오 아부 바크르의 딸이여! 제발 나를 떠나 줘, 내가 주님을 숭배할 수 있게 해줘.' 나는 말했다, '오 하나님의 사도여! 나는 당신의 가까움을 원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허락을 줬다. 그는 물통으로 가서 많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세정을 했습니다. 그 후 그는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그는 울기 시작했고, 눈물이 가슴 위로 흘러내렸다. 그는 기도하며 절을 했고, 절하며 울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엎드리고 울었다. 그는 엎드린 자세에서 고개를 들고 다시 울었다. 그는 새벽이 될 때까지 계속 울었고, 빌랄(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이 와서 이른 아침(*파즈르*) 기도에 대해 알렸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오, 하나님의 사도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왜 그렇게 많이 울고 있나요?' 그는 '내가 완전한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꾸란의 아래 구절을 계시하셨을 때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إِنَّ فِي خَلْقِ ٱلسَّمَٰوَٰتِ وَٱلْأَرْضِ وَٱخْتِلَٰفِ ٱلَّيْلِ وَٱلنَّهَارِ
وَٱلْفُلْكِ ٱلَّتِي تَجْرِي فِي ٱلْبَحْرِ بِمَا يَنفَعُ ٱلنَّاسَ وَمَآ أَنزَلَ ٱللَّهُ
مِنَ ٱلسَّمَآءِ مِن مَّآءٍ فَأَحْيَا بِهِ ٱلْأَرْضَ بَعْدَ مَوْتِهَا وَبَثَّ فِيهَا
مِن كُلِّ دَآبَّةٍ وَتَصْرِيفِ ٱلرِّيَٰحِ وَٱلسَّحَابِ ٱلْمُسَخَّرِ
بَيْنَ ٱلسَّمَآءِ وَٱلْأَرْضِ لَءَايَٰتٍ لِّقَوْمٍ يَعْقِلُونَ ١٦٤

'진실로, 하늘과 땅의 창조와 밤낮의 교대, 인류의 이익을 위해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항해, 하늘에서 내리신 물(비)과 그가 죽은 땅에 가져오신 생명 속에서, 그분이 땅에

흩뿌리신 모든 종류의 동물들과, 하늘과 땅 사이를 자유롭게 떠도는 바람의 변화와 구름 속에서 이들은 지성, 이성,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진정한 징표입니다.'" (꾸란 2장 164절) (내레이션 아이샤의 권위에 따른 *무슬림 하*디스 *모음* 집 [신께서 그녀를 기뻐하시길])

이 [예언적] 전통에서 배운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인(인간)의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하며, 오히려 그 단단함이 더 강하다 [과잉과 억압을 명령하기 때문에]. 이 단단함은 오직 울음으로써만 사라질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감사해서 우는 것인지에 관계없이 말이다.

감사의 실재: 감사는 영적 여행자들(살리킨)의 정거장 중 하나인 [영적] 정거장입니다. 이 정거장은 지식, 행동, 그리고 내면의 영적 상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지식이 이 역의 기원입니다. 지식은 [내면의 영적] 상태를 낳고, 상태는 [고귀한] 행동을 낳는다. 지식의 의미는 주는 이로부터 받은 축복을 인식하는 것이고, 상태는 그 축복을 얻은 후 얻는 행복이며, 행동은 축복을 주는 이의 승인(신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심장, 신체 팔다리와 장기, 혀 - 이 세 가지 모두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 - 지식: 이 점에서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 하나는 축복에 관한 것; 둘째는 이 축복이 자신에게 유리한 축복임을 깨닫는 것; 셋째는 주는 자의 존재와 보상을 주고 그것을 완성하는 [신성한] 특성에 대한 지식이다 [섬세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에 관해서는 모든 축복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분이 진정한 주신이시고, 모든 중간 수단(주는 자와 받는 사람 사이)은 하나님의 통제와 복종 아래에 있습니다. 이는 *신성한 영광*(타크디)*과 신성한 일체성*(타우히드) 다음으로 오는 가장 높은 영지(*마리파*)이지만, 계급상 가장 높습니다. 믿음의 영지(Gnosis) 중 첫 번째는

신성한 영광으로, 하나님이 모든 결함[한계, 약점, 결점, 결점, 흠집] 위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성한 일체성이야. 모든 결함에서 자유로워진 존재가 하나이며, 동반자나 공동체가 없음을 아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존재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존재의 창조물임을 아는 것이며, 그 중 하나에게 부여된 것은 그로부터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 영지가 앞선 두 영지[신성한 영광화와 신성한 일체성] 다음에 온 것이 명백하며, 그래서 그 지위가 앞의 두 것보다 높은데, 신성한 영광과 일체성에 대한 고백과 내적 수용 외에도, [신성한] 능력의 완전성과 발명, 창조적 섬세함의 완전함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간 수단은 신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강요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누군가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도를 강요하셨고,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도록 강요한 모든 요소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이 이 축복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은 마음에 "세상과 내세의 모든 선함과 안녕은 한 사람에게 주는 데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속에서 태어나면, 그 생각의 함의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무언가를 준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주는 데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면, 그 사람도 당신에게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익이 당신의 혜택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런 혜택은 결코 당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원한다는 뜻이며, 그는 당신의 진정한 은인이나 주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자신에게 기대되는 축복을 위한 통로(수단)로 만든 것입니다. 진정한 주는 사람은 당신을 위해 명백한 주는 사람을 굴복시키고, 그 마음에 그런 믿음과 의도를 심어주어 그 축복을 당신에게 전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이 문제들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의 영지에 도달할 것이며, 일신교자가 될 것이며, [신성한] 감사에 대한 권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 당신은 "탁월한 하나님의 충실히 감사하는 종"이라 불릴 것입니다. 감사함에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영지가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그 [신성한] 축복의 권리도, 그 축복을 주는 자의 권리도 모두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명백한 주어진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그것을 자랑하거나 자랑하면서(축복)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의 부족이 될 것이고, 지식의 부족은 올바른 행동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 상태: 이 [내면의 영적] 상태는 축복의 기원에 대한 영지(*마리파*)에 의해 달성됩니다. 이는 축복을 주는 이에게 겸손과 겸손함,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는 또한 감사함입니다. 마치 영지가 감사의 상태라고 불리는 것처럼, 상태는 모든 조건을 포괄할 때 감사라고 불립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조건은 축복이나 보상이 아니라 오직 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시를 통해 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왕이 있다. 그는 누군가에게 보상으로 말을 주었다. 이 사람은 말을 얻은 후 세 가지 이유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말이라는 보상만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소중한(비싼) 보상이기 때문에 자신의 바람에 맞는 좋은 승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런 [종류의] 행복은 왕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만이 경험하며, 오직 말만이 목표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말을 숲에서 발견했다면, 똑같이 기뻤을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단순히 말을 얻은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왕의 자비와 친절의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마음속에 한 명을 위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누군가가 이 말을 숲에서 발견했거나 왕 외의 다른 누군가에게 주었다면, 말이 필요 없거나 왕의 마음에 자리 잡는 것 같은 욕망이 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조금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말을 타고 왕을 섬기기 위해서이거나, 여행의 고난을 견디고 왕과 가까워지기 위해 말을 타고

싶어서 기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을 거쳐 [왕의 궁정에서] 대신이 되기 위해 진전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마음속에 자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으며, 오히려 왕이 백성에게 주는 모든 것이 중개자로 삼아 중개자로 삼아 [이 중개자를 통해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다]. 물론 이러한 지위는 매우 가까운 신뢰받는 자에게만 주어지며, 게다가 장관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왕의 근접성, 왕의 신뢰, 그리고 왕의 지속적인 비전이라는 명예만을 원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목사와 왕과의 근접성 중 선택해야 한다면, 가까운 거리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세 단계입니다. 그 점에서 1등급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모든 주의가 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받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며, 왕이든 하급이든 주는 사람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축복을 받고 자신의 목표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후 축복에 빠져드는 사람은 감사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사의 의미에 포함되는데, 축복을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에게 만족하는 것이지만, 이 행복은 주는 사람의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많은 축복을 베풀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형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보상을 바라며 감사를 표현하는 경건한 종들의 상태입니다. 완전한 감사는 3단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축복을 받는 사람은 축복을 하나님의 가까움에 도달하는 수단으로 만들 것이라는 생각에 만족합니다. 그 징표는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삶을 돕고, 예배를 소홀히 하게 만들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세속적 축복에 대해 후회하는 정도만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그 자체의 즐거움 때문에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며, 마치 말을 받는 사람이 튼튼하고 빠르게 달려서 기뻐하지 않고, 왕의 앞에 다가가 왕의 비전과 근접성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블리(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는 "감사는 축복을 주는 이의 환상이지, 그 축복의 환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높은 [영적] 지위는 세상의 모든 쾌락이 위와 사적인 부위에만 국한된 사람에게는 얻을 수 없으며, 지각의 영역이 색과 소리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대신] 마음은 모든 [물질적] 쾌락이 없고 모든 [육체적] 지각에 익숙하지 않아야 한다. 마음이 온전하다면, 오직 하나님의 기억, 영지, 그리고 [신성한] 현존에서만 기쁨을 찾습니다. 그 마음은 나쁜 습관에 의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신성한 기억, 영지, 현존 같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그 [최고의] 감사함이 없다면, 두 번째 정도로 감사해야 한다. 1등급의 중요성은 없습니다. 또한 2단계와 3단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등급의 목적은 왕으로, 왕이 말을 주고, 세 번째 등급에서는 말을 왕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수단으로 삼기 위한 목적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주실 수 있도록 구하는 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복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두 가지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세 번째 원칙 – 자신의 행복에 따른 행위: 세 번째 원칙은 기부자의 영지(마리파)*로부터 받은 행복의 함의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심장, 혀, 신체 기관 모두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의 행위의 의미는 하나님의 종이 선을 의도하고 모든 창조물을 위해 선함을 마음속에 숨기고 (내재)했다는 것이다. 혀를 통한 행동의 의미는 감사를 나타내는 신의 찬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체적] 기관을 통한 행동의 의미는 하나님의 복을 순종 속에서 사용하고 죄를 버리는 데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통한 감사는 신자의 모든 결점을 숨기는 것이며; 귀를 통한 감사는 귀로 알게 되는 신자들의 모든 결점을 가리는 것이다; 혀를 통한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장기가 그렇게 사용된다면, 그것은 신성하게 정해진 이 장기들을 가진 [신성한] 축복에 대한 감사가 됩니다.

신성한 일체성(타우히드) 또는 *자아* 의 소멸(*파나*) 이데올로기: 이에 대해 두 가지 신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성한 일체성(또는 통일성)의 이데올로기라고 불린다. 이 점에서

완성된 이들은 감사하고 감사하는 연인과 사랑하는 사람이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두 가지 이름이라고 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신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كُلُّ شَيْءٍ هَالِكٌ إِلَّا وَجْهَهُۥ

"모든 것은 멸망하고 있는데, 그분의 존재만이 [그분은 영원하고 영원하며 시작과 끝이 없는 유일한 존재이시며, 다른 존재 없이 존재하며 모든 다른 존재들이 그를 통해 존재하므로]." (꾸란 28장 88절)

이 선언은 그들의 마음의 목소리입니다. 이 이데올로기는 현실에 기반하며, 시작이 없는 영원한 '시작'과 끝없는 영원한 '끝'에 관한 진리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 외에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며, 오히려 신 외에는 누구나 어떤 것도 그런 존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재는 그 자체를 통해 존재하는 것이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무언가의 존재는 자신의 존재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대신 다른 [존재]와 연관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존재가 다른 어떤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의 존재는 불확실해질 것이다. 현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며, 그 존재는 다른 모든 존재가 사라져도 그 존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만약 어떤 존재가 자기 존재로 존재하고 다른 모든 존재들도 자기 존재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카윰*"(자아 존재)이라 불리며, "*카윰*"은 이 하나의 존재 외에는 다른 무엇일 수 없으며, 그 존재는 "*하윰 카윰*"(살아 있고 자존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특성은 오직 그 한 존재만의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의 근원과 의존은 오직 그분, 즉 유일한 존재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감사하는 분이고, 오직 그분만이 감사의 받는 분이며, 오직 그분만이 사랑하는 분이고, 오직 그분만이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빕 이븐 하빕(하빕 하빕)이 이 구절을 낭송할 때:

إِنَّا وَجَدْنَٰهُ صَابِرًا ۚ نِّعْمَ ٱلْعَبْدُ ۖ إِنَّهُۥٓ أَوَّابٌ

"진실로, 우리는 그를 찾았다(예언자 아이윱 또는 욥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신이 정한 재앙에 시달렸을 때] 인내했고, 매우 훌륭한 종이었으며, 자주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의지하셨다." (꾸란 38장 44절)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 구절에 전해진 이 말이 얼마나 경이로운가! 그분은 [예언자 욥에게 인내의 힘을 주시며] 그분을 찬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자신을 찬양하신 것처럼 찬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고, 사랑받는 분이시다. 이것은 매우 높은 계급입니다. 당신의 지능 한계에 가까운 예시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예는 작가가 자신의 글을 좋아할 때, 즉 자신을 좋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자가 자신의 창조물을 좋아할 때, 그것은 마치 자신을 좋아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아버지가 자식을 좋아하는 것은 그 아이가 자신의 자식인 것처럼, 마치 자신의 존재를 좋아하는 것과 같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록과 창조물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글이나 창조물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마치 자신의 존재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신성한 일체성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수피*(영적 여행자 또는 진리를 찾는 자들)는 이를 "자아의 소멸(*파나*)"으로 해석합니다. 그 의미는 종이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에서 멸종되었고, 오직 어디서나 유일한 참된 존재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를 부정하며 "4야드 길이의 그림자가 있고 하루에 밀가루 한두 킬로그램을 먹는데 어떻게 인간이 멸종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무지 때문에 무지한 자들은 자아의 소멸(*파나*)이라는 주장을 비웃는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으며, 조롱의 화살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운명을 가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목적으로 돌아가자: [참된]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오는 목적은 사람들이 신성한 일체성의 완성에 이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성한 일체성의 완성으로 이끄는 길은 수많은 장애물이 있으며, 길고 고된 여정으로 표시된다. 신성한 법은 이 어려운 길을 걸으며 이 힘든 여정을 완수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어떤 이익이

되는지에 관한 질문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이익을 얻지 않으시며, 오직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답이 있습니다. 이 점을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왕이 먼 곳에 사는 하인에게 차와 옷, 그리고 여행에 대한 의지품을 보내 여행 후 왕에게 가까이 가게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왕이 하인을 더 가까이 끌어들이려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왕이 하인을 더 가까이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하인이 왕을 섬기게 하는 것이며, 원정에 참여함으로써 하인이 왕국의 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왕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고, 하인도 왕을 모든 걱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인은 왕의 영토가 부족하든 증가하든 상관없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존재입니다. 만약 왕이 하인에게 승마, 옷, 여행 준비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왕의 왕실 영부(관대함과 관대함)입니다. 그곳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하인이 이 자원을 이용해 왕에게 가까워지고 왕실 앞에 있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킹 자신의 이익이 목표는 아니다. 하나님의 종들, 즉 인간의 상태는 동일하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받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예의 첫 번째 경우에서, 하인이 왕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하인이 왕에게 마땅히 해야 할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감사할 수 없다. 두 번째 경우, 하인은 감사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감사의 표현은 왕이 베푼 은혜를 왕이 좋아하는 일에 사용하고, 그것을 원하는 대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거절의 방법은 이 축복을 왕이 싫어하는 것에 쓰거나, 하인을 왕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여행에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인이 옷을 입고 말을 타고, 왕이 보낸 여행 준비물을 왕에게 보내는 데 사용했다면, 하인은 왕에게 감사를 표한 것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하인이 왕이 하사한 모든 것들을 왕의 좋아하는 일에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인이 왕복을 입고 말을 타지만 왕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을 택해 왕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더 멀리 떨어뜨린다면, 하인은 축복을 거부하고 왕에게 대항해 사용했다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왕의 선물을

이용하지 않고, 왕이 보낸 옷을 입지 않고, 승마를 타지 않으며, 여행자의 준비를 받지 않는 사람(하인)도 축복을 거부하는 데 관여합니다. 이 사람의 거절은 첫 번째보다 더 적습니다.

이것이 창조물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완전히 발달하기 위해 욕망을 사용해야 합니다. 욕망의 사용은 그들을 신성한 근접성에서 멀어지게 하며,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사아다*)이라는 그들의 행복(최고의 성취)은 오직 신성한 근접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인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축복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꾸란은 인간이 신과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멀리 있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했습니다:

لَقَدْ خَلَقْنَا ٱلْإِنسَٰنَ فِىٓ أَحْسَنِ تَقْوِيمٍ

"우리는 인간을 최고의 틀로 창조했습니다." (꾸란 95장 4절)

ثُمَّ رَدَدْنَٰهُ أَسْفَلَ سَٰفِلِينَ ٥

إِلَّا ٱلَّذِينَ ءَامَنُوا۟ وَعَمِلُوا۟ ٱلصَّٰلِحَٰتِ فَلَهُمْ أَجْرٌ غَيْرُ مَمْنُونٍ ٦

"그 후 우리는 신앙과 신앙의 일부인 영원한 진리를 믿고 선하고 경건하며 의로운 행위를 행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자로 내려간다. 그들에게는 결코 멈추지 않는 강력한 신의 보상이 있다." (꾸란 95장 5-6절)

이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그러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종이 가장 낮은 사람에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사아다*)의 행복의 지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위해 이 도구들을 창조하셨으며,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종은 [신성한] 순종이나 죄(불순종)를 돕기 위해 이 도구들을 사용할 특권을 가집니다. 복종하면 주님의 승인을 원했기에 감사하다고

불립니다. 불순종하면 거부자나 감사할 줄 모르는 자로 불리는데, 이는 주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종이 하나님의 은혜(축복)를 [신성한] 순종이나 불순종 중 어느 쪽에서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중단된 상태로 유지했다면, 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불순종 경향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것].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종들(인간)을 위한 도구이며, 그 수단을 통해 종은 영원한 행복과 사아다(*사아다*)라는 영원한 행복과 사후세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가까움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순종하는 종은 자신의 순종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이 축복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위해 그것을 사용한 모든 죄인은 감사할 줄 모르는 거부자이며 하나님 이외의 사랑에서 경계를 넘는 자입니다.

감사할 만한 축복

감사의 두 번째 요소는 감사할 만한 축복입니다. 여기서는 축복의 실재, 그 종류, 그리고 등급(등급)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특별한 축복으로 간주되는 것과 공통의 축복으로 간주되는 것들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은 축복을 하셔서 셀 수 없을 정도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وَإِن تَعُدُّواْ نِعۡمَتَ ٱللَّهِ لَا تُحۡصُوهَآ

"그리고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무한하고 셀 수 없는]을 세기 시작하면, 그 축복들을 어떤 숫자로도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꾸란 14장 34절)

축복의 실재와 그 유형: 모든 선함, 모든 기쁨, 모든 행운, 모든 추구하는 것,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은 축복이지만, 진정한 축복은 내세의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사아다*)임을 알리자. 영원한 행복과 내세에서의 영원한 성공을 제외하면,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정확하거나 '축복'이라는 용어의 우화적 사용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내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세속적 축복은 축복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이 용어는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에 도달하는 원천인 모든 것에 적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을 얻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을 이루거나 그것을 돕는 수단인 축복과 기쁨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의 분할: 모든 것을 우리 자신에게 돌린다면, 우리와 관련된 네 가지 종류의 사안이 생깁니다: 첫째, 세상과 내세에 유익한 지식과 아름다운 도덕, 예절, 성격, 내면의 성향(*후스른 울-쿨크*); 둘째, 무지와 나쁜 도덕처럼 세상과 내세 모두에 유익하지 않은 사안들, 예절, 성격, 내면적 성향; 셋째, 세상에는 유익하지만 내세에는 유익하지 않은 일들, 예를 들어 욕망에서 쾌락을 찾는 것; 넷째, 세상에는 해롭지만 내세에는 유익한 일들, 예를 들어 욕망을 통제하고 하한 자아에 반대하는 것들. 세상과 내세에 유익한 첫 번째 유형은 진정한 축복, 예를 들어 지식과 아름다운 도덕, 예절, 성격, 내면의 성향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무지와 반대되는 지식의 반대이며, 아름다운 성격 특성의 반대인 나쁜 성격 특성입니다. 세상에는 유익하지만 내세에는 무유익한 [세 번째] 유형은 통찰력과 지혜를 가진 자들은 이를 순수한 고난이라 부르고, 무지한 자들은 이를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 비유는 독이 든 꿀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 독에 익숙하면 꿀을 재앙으로 여기지만, 익숙하지 않으면 축복으로 여깁니다. 세상에는 해롭지만 내세에는 유익한 네 번째 유형은 지성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를 축복으로 여기고 무지한 것을 고난으로 여깁니다. 그 비유는 쓴 약처럼 맛이 나지 않고 일시적이지만, 이를 통해 얻는 건강은 환영받고 오래 지속됩니다. 아이에게 쓴 약을 주면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며 강제로 먹지 않는 한 복용에 동의하지 않지만, 잘 알고 문명화된 인간은 기꺼이 쓴 약을 마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약이나 재료를 제공하거나 준비를 돕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빚을 지으며 가까워지고 싶어 하며 선물을 쏟아붓습니다. 현실은 무지한 친구가 지적인

적보다 더 해롭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하위 자아의 친구이지만, 그것은 무지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적조차도 자신을 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두 번째 축복 분할: 세속적인 의미에는 선과 악이 섞여 있습니다. 악이 존재하지 않는 선만이 존재하는 수단은 매우 드물다. 부, 명성, 자녀, 친척 그리고 모든 [세속적] 수단은 선과 악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은 세 가지 유형으로 다시 세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부와 명예 등 해악보다 이익이 더 큰 원인이다. 두 번째 유형은 많은 부, 널리 알려진 명성 등 대다수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이익보다 더 큰 원인들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익과 해가 동등한 원인들이다. 이런 점들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경건한 사람은 자선과 나눔로 하나님의 길에서 많은 부를 써도 좋은 부를 누리는 것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신성하게 부여받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풍요로운 부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불운한 사람들은 소액의 부에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즉,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항상 주님께 불평하며, 더 많은 것을 탐욕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부는 분명히 굴욕과 고난의 원인입니다.

세 번째 축복 분할: 선과 관련된 모든 일(의행과 행위)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그 자체로 구하는 것; 둘째는 다른 것들을 위해 구하는 것들(자기 자신이 아닌 것들); 셋째, 그 자체와 다른 것들을 위해 모두 구하는 것들이다. 첫 번째로 추구되고 사랑받는 유형은 신성한 환시의 기쁨과 그분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사아다*)의 기쁨이며,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의 행복은 다른 수단으로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해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를 위해 추구되며, 그 자체가 목표입니다. 두 번째 유형이나 예시로 다른 목적으로 찾는 것은 *디르함*과 *디나르*(금과 은화로, 즉 옛 화폐, 즉 돈과 부)입니다. 만약 세속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다른 무언가가 지정되었다면, 금, 은, 돌 사이에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 가치와 중요성이 같았기 때문], 하지만 이들(돈과 부)은 [세속적] 쾌락을 얻는 수단이기 때문에 세속적 안락함이 쉽고 신속하게 얻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지한 이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무지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돈을 쌓고, 땅에 묻으며(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 여러 곳에 비밀리에 안전하게 쌓아두고), 과시적으로 소비하며, 돈과 부가 그 자체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의 비유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로 인해 서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령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이 만나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전령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져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잊게 되고, 평생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대신 전령에 대한 사랑과 그를 섬기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것은 극도의 무지와 노골적인 오도입니다. 세 번째 유형에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건강 및 안전과 같은 다른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안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건강을 회복한 후 신성한 기억과 관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 하나님께 이끄는 능력을 얻기 때문에 이들이 선호됩니다. 더 나아가, 인간은 그들의 수단을 통해 세속적 쾌락도 얻는다. 건강 자체도 중요한데, 때로는 보행을 원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놀이기구나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발은 괜찮기를 원합니다. 두 발의 안전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것이 걷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전 자체가 사랑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선호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에서 진정한 축복은 첫 번째 유형, 즉 그 자체로 추구하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의 행복입니다. 그 자체로, 그리고 다른 일들에 의해 추구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첫 번째 축복에 비하면 계급이 낮습니다. 그 자체로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부와 같은 다른 것을 위해 추구되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수단이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이 선물들은 오직 그 없이는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자에게만 축복이 주어집니다. 만약 개인의 목표가 지식과 숭배이며, 필요에 따라 부(재정적 자원)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금과 돌은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그들의 존재에 관심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 데에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들은 고난의 전조가 될 것이며 축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 축복 분할: 선과 관련된 모든 일(감사할 만한 축복)은 다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선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익한 것, 즐거운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 즐거움은 그 이점이 즉시 알려진 것입니다. 유익하다는 것은 최종 결말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선한 것은 아름답다. 악은 또한 손실을 초래하는 것, 추악한 악, 해로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선의 경우, 세 가지 선이 모두 하나로 축적된 것은 지식과 지혜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유익하고 즐겁고 아름답습니다. 악의 예시는 무지입니다 - 손실을 초래하고, 추악하며, 해롭습니다. 무지한 사람은 "나는 무지하지만 이 사람은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순간 자신의 결점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느낍니다. 이 시점에서 지식에 대한 쾌락에 대한 욕구가 고개를 들지만, 질투, 오만, 육체적 욕망이 길을 가로막는다. 그 결과, 두 개의 상반된 힘이 사람을 두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두 상황 모두에서 고통을 겪으며 영혼이 조여진다. 지식을 얻으려면 오만함을 버리고 교육의 굴욕을 견뎌야 한다 [교육은 매 순간 무지를 공격하며] 무엇보다도 욕망을 버려야 한다. 지식을 얻지 못하면, [무지를 깨달은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결핍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일종의] 처벌을 견뎌야 합니다.

다섯 번째 분배: 이 축복은 모든 즐거움에 적용됩니다. 쾌락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지적, 일부 동물에게 공통적인 신체적 쾌락, 그리고 모든 동물에게 공통적인 신체적 쾌락. 지적 쾌락의 예로는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이 쾌락은 눈, 귀, 코, 미각, 위, 사적인 부위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에서만 인지되는데, 이는 지성이라 불리는 인간의 특성(특이성)에 특수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쾌락 중에서, 이것이 가장 뛰어난 쾌락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게 발견된다. 그 부족한 이유는 지식의 기쁨은 오직 학자(지식 소유자)만이 느낄 수 있고, 지혜의 즐거움은 오직 지혜로운 자(내면의 깨달음 또는 그노시스를 가진 자)만이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모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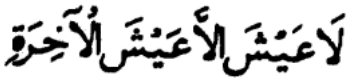
지식과 현명하다고 주장하거나 소문이 난 사람들]은 학자이며 이름과 외모만 지혜롭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지식과 내면의 깨달음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지식의 탁월함과 명예의 이유는 그 기쁨이 항상 한 사람과 함께 남아 있으며, 이 세상이나 내세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동반자가 되어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즐거움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배불리 먹으면 몸이 게으르게 되고, 성관계가 끝난 후에는 피로와 무거움을 느끼지만, 아무리 깊은 곳으로 헤엄치고 잠수해도 기질에 무거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몸도 피로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토록 독특하고 우월한 것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등한 것에 안주하고 며칠간의 쾌락 뒤에 무력하게 헤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의 광기와 불행을 의심할 수 있겠는가? 평신도들이 지식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그들이 지식에 대한 애정(*다우크*)조차 없고, 애정이 없는 사람은 이해와 강한 욕망(*쇼크*)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렬한 욕망은 애정에 종속됩니다. 애정이 없다면, 욕망조차 없을 것이고, 욕망을 따르는 것이 그들의 기질에 변화를 일으키고 마음에 병을 일으켰다 [지식과 내면의 깨달음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두 번째 쾌락은 지배, 우월감, 우선순위에 두는 쾌락과 같은 신체적 쾌락과 일부 동물과 공유됩니다. 이러한 쾌락 속에서 사자, 치타 등 강력한 동물들도 인간과 함께 나눕니다. 세 번째 쾌락은 모든 동물과 공유되는 신체적 쾌락으로, 위(음식과 식사)와 사적인 부위의 쾌감을 포함한다. 이러한 쾌락은 가장 널리 퍼져 있고 흔하지만, 가장 낮고 저렴한 쾌락입니다. 따라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인간과 함께 이 생물을 공유하며, 심지어 작은 곤충들조차 그것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최저한] 쾌락을 넘어서는 사람은 지배와 권력(타인에 대한 통치나 권위)의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이 쾌락을 [심지어 뛰어넘는] 자는 세 번째(이 설명에서 첫 번째) 쾌락에 빠져들며, 지식과 지혜의 기쁨, 특히 *하나님의 존재*(다트)의 영지(*마리파*)와 성질(*시파트*)이 다른 어떤 것에서도 찾을 수 없는 쾌락을 준다. 이는 신에게 가까워진 자들(*시디킨* 또는 영지주의자)의 계급입니다.

네 가지 심장 유형: 이 설명에 따르면 심장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지가 계속 증가할 때까지 평온을 찾지 못합니다 [끊김 없이] 둘째, [유형] 마음은 하나님의 영지에 존재하는 쾌락의 종류조차 모릅니다. 오직 명성, 통제(권위와 권력), 부, 그리고 모든 육체적 쾌락과 기쁨에서만 쾌락을 찾습니다. 세 번째 마음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신성한 기억(*디크르*), 관상(*피크르*), 영지(*마리파*)를 통해 신과의 친밀함을 찾지만, 때로는 인간의 특성이 영향을 미칩니다. 포스 하트는 종종 인간적인 특성을 지배하지만, 때로는 지식의 샘과 그노시스의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그중 첫 번째 유형의 심장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매우 적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세상에는 두 번째 유형의 심장이 가득하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유형의 심장이 존재하지만 수는 적으며, 대신 희귀하다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는 그런 마음들이 넘쳤습니다. 예언 시대가 점차 멀어지면서 이런 종류의 마음의 수도 줄어들었고, 이 과정은 심판의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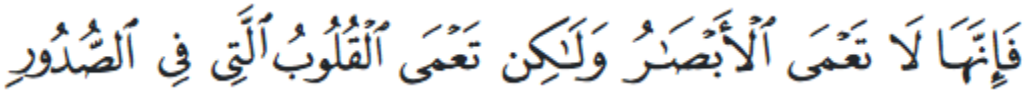
제6 계급: 이 계단은 모든 [종류와 구분] 축복에 대해 우위를 점합니다. 이 구분의 요약은 축복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자신의 목표 자체의 정점인 축복이고, 다른 하나는 내세의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사아다*)이며, 여기에는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코 멸종하지 않는 존재와 생존(*파나*)슬픔이 섞인 행복, 무지와 함께하지 않는 지식, 가난이 전혀 없는 부와 부와 부를 의미합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승리의 상태에서 신성한 임재 안에서 내세의 생명과 위로만이 있다". (내레이션 아나스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와 사히흐 부카리*와* 무슬림 사히 *흐를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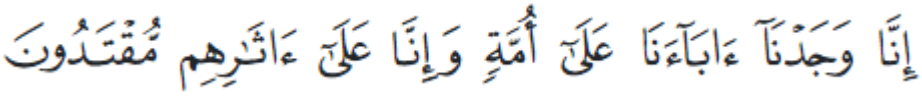
그는 행복의 자리에서 이 말을 하여, 하위 자아(*나프*)가 세속적 행복에 만족하지 않고, 이 삶 이후에도 끝이 없는 삶이 있으며, 오직 슬픔으로 변하지 않는 행복만이 있을 것임을 생각(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의 단계: 진리와 영원한 진리를 향한 인도는 없이는 누구도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을 추구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사아다*). [인도는 감사할 만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한 인간은 내세의 행복이 내재된 무언가를 원할 수 있지만, 자신의 구원이 어떤 물질에 내재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내면과 외적 세계 모두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일들을 자신의 [개혁] 행위로 생각한다면, 단순한 선을 행하려는 의도만으로는 이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인도가 없다면, 자신이 가진 선한 일을 하려는 의도, 능력, 수단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도는 행복, 구원,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의 길로 나아가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필수적이다]. 지침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선과 악의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들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일부에게는 지성을 부여하셨고, 이 능력은 전 세계 인간들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천상의 책들 [원래의 순수한 형태로], 고귀한 예언자들 [하나님과 그들의 가르침], 그리고 신성하신 인류 전반에 내려진 내면의 통찰과 지혜가 인도의 수단입니다. 이런 수단으로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만함, 질투, 세상에 대한 사랑이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러한 수단을 얻기 위해 행동한다. 오만함, 질투,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거나, 눈이 밝아도(볼 수 있음) 지성을 가리는 속에 갇힌 자들, 꾸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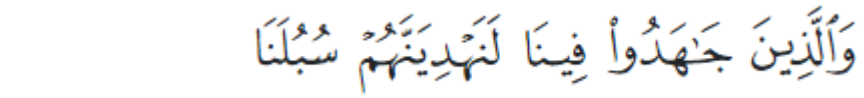
"사실 눈은 진리를 보는 데 눈이 멀지 않고, 가슴 속에 있는 마음이 눈이 멀어 [이성과 지각의 능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꾸란 22장 46절)

지성과 인식에 가려지는 요소로는 습관, 자신의 전통과 성장 배경에 대한 집착, 조상들의 [지적·이념적] 유산을 안전하게 지키거나 붙잡으려는 욕구 등이 있습니다. 꾸란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방법(삶의 방식이나 사고방식)에서 조상들을 찾았고, 그저 그들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그 뒤에 아무런 이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 (꾸란 43장 23절)

오만, 질투, 우월감 같은 것들은 마음을 가리고 인도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입니다. 두 번째 지도 단계는 첫 번째 단계 이후에 나타나며, 영적 투쟁(*무자하다*)의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인도로 그것을 주시고(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외 없는 모든 인류에 약속의 의미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길에서 [힘차게 노력하며] 노력하는 자들이여,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우리의 길(인도의 길)으로 인도할 것이다." (꾸란 29장 69절)

세 번째 단계의 안내는 두 번째 단계 이후에 있습니다. 이 인도는 영적 노력의 완성 이후에 예언자의 영역과 [신성한] 인도의 영역에서 빛나는 [영적이고 내면의] 빛(조명)입니다. 이 빛(내면의 빛) 덕분에, 사람은 지성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 지성은 신성한 법과 명령, 금지가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식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이 지침을 절대 지침이라고 합니다. 그 외의 모든 지침은 서문(초기 단계)과 실제 지침으로부터의 장막일 뿐입니다. 이 인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히

귀속하셨으며, 모든 인도의 근원은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قُلْ إِنَّ هُدَى ٱللَّهِ هُوَ ٱلْهُدَىٰ

"말하라(O Muhammad!) 의심할 여지 없이, 인도의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길이다.' (꾸란 2장 120절)

이 [하나님의 인도]를 "삶"이라고 부릅니다:

أَوَمَن كَانَ مَيْتًا فَأَحْيَيْنَٰهُ وَجَعَلْنَا لَهُۥ نُورًا يَمْشِى بِهِۦ فِى ٱلنَّاسِ

"마음과 영혼의 죽음으로 인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게 하였고, 그 빛(내면의 영적 빛)을 주어 그 빛을 가진 사람 사이를 걸다니게 하셨다." (꾸란 6장 122절)

다음 구절도 같은 의미를 가리킵니다:

أَفَمَن شَرَحَ ٱللَّهُ صَدْرَهُۥ لِلْإِسْلَٰمِ فَهُوَ عَلَىٰ نُورٍ مِّن رَّبِّهِۦ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열어주신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빛(내면의 빛)을 받고 있습니다." (꾸란 39장 22절)

영혼 - 더 큰 축복: 신체 장기와 팔다리, 지각, 힘의 이점이 심장을 중심(거처)하는 미묘한 증기에 의존하며, 그 증기는 확장된 정맥을 통해 몸 전체를 순환합니다. 빛이 신체의 어떤 기관에 도달하면, 그 기관 안에서 감각, 지각, 움직임, 힘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빛을 내는] 램프가 [어두운] 집 안에서 옮겨지고, 이 램프가 닿는 곳마다 빛이 닿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램프가 닿는 집의 어느 구석이라도 빛이 그곳에 도달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발명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램프를 그 원인으로 하셨고, 그분의 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미묘한 증기는 의사들이 용어로

'영혼(soul)'이라고 부릅니다. 그 거처는 심장이다. 마음과의 비유는 영혼이 등불의 불꽃과 닮았다는 것이고, 마음은 그릇과 같으며, 마음의 검은 피는 심지와 같으며, 음식(음식)은 등불에 기름과 같고, 온몸에 생명이 그 덕분이라는 것이다. 램프 때문에 집 안의 빛과 비슷합니다. 등불 속 기름이 소비되면 등불도 꺼지고, 영혼의 등불도 공급이 중단되면 꺼집니다. 더 나아가, 등불이 기름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심지가 재로 타버려 기름을 흡수할 수 없게 되면, 심장의 열로 인해 심장에 있는 피가 타버릴 수 있으며, 공급이 있어도 영혼의 등불은 공급을 받아들일 수 없어 영혼의 지속적 존재를 보장하는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꺼집니다. 더 나아가, 램프가 때때로 기름이 소모되거나 심지가 타버리는 등 내부 원인 때문에 꺼지는 것처럼, 바람 같은 외부 요인으로도 꺼집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은 때때로 내부 이유 때문에 멸종되기도 하고, 때로는 살인 같은 외부 이유로 멸종해 멸종하기도 했습니다. 등불이 기름을 소비해서든, 심지가 타버리든, 누군가가 불어서 꺼지든, 바람에 불어와서 꺼지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신의 명령에 의해 존재합니다.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멸종하든, 어떻게 소멸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 안에 있으며 그분의 영원한 명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보존된 석판(과거, 현재, 미래의 지식을 담은 하나님의 기록서)에는 모든 영혼에게 최종 정해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 끝나고, 이 종말은 운명의 기록자(하나님)가 기록하신 대로만 일어납니다.

등불이 꺼지면 집이 어두워지듯, 영혼이 몸에서 나오면 어둠이 온몸에 퍼지고, 이전에 영혼에서 얻었던 빛나는 과정, 즉 '삶'이라는 용어가 포괄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감각, 지각, 의도, 그리고 빛이 중단된다. 영혼은 또한 비밀이며 신성한 축복을 명확히 암시하는 것이고, 이 주제의 진실성을 신성하게 선언하는 것이다:

قُل لَّوۡ كَانَ ٱلۡبَحۡرُ مِدَادٗا لِّكَلِمَٰتِ رَبِّي لَنَفِدَ ٱلۡبَحۡرُ قَبۡلَ أَن تَنفَدَ كَلِمَٰتُ رَبِّي وَلَوۡ جِئۡنَا بِمِثۡلِهِۦ مَدَدٗا

"말하라(오 무함마드여!) '만약 바다가 나의 주님의 말씀을 쓰기 위해 잉크가 된다면,

우리가 보충으로 가져왔다 해도 바다는 주님의 말씀이 다 빠지기 전에 고갈될 것이다.'" (꾸란 18장 109절)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신의 축복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불운하고 신의 자비와 멀리 떨어져 있으며 신의 벌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

지적인 인간의 시선이 무언가에 닿거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무지와 부주의(경솔함) 때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지와 방치의 두꺼운 장막으로 마음과 눈을 가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축복도 축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축복조차 모른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축복을 이해한다면, 그들이 아는 감사의 방법은 단지 혀로 *알-함둘릴라*(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있기를)나 *알-슈크랄라*(모든 감사가 하나님께 있기를)라고 말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의 의미가 축복을 그 축복과 관련된 지혜(목적과 의도)의 완성에 사용하는 것이며, 지혜가 하나님의 순종임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이해를 가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사탄과 욕망의 지배 때문일 뿐입니다.

축복과 함께하는 과실의 원인: 축복과 함께하는 과 실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 중 한 가지 원인은 사람들이 무지함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가진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모두가 특별할 수 없는 권리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축복은 특별해야 하며, 특히 누군가에게 주어져야 하며, 모두나 대다수에게 공통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즉, 누군가가 특별히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음식과 음료, 혹은 신체 시스템의 우수성(다양한 신체 기관의 능력과 유용성, 그리고 그것이 모든 개인을 어떻게 돕는지에 관한 것)에 관해서는, 크고 작고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저명하거나 사회적으로 하찮은(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개인]은 이 점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들의 잘못된 관점에서] 축복일 수 있을까? 그래서 신선한 공기를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입니다. 비록 신선한 공기가 엄청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요. 누군가의 목이 잠시 조여져 신선한 공기가 [몸 안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신선한 공기를 받지 못하면 죽음을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공중목욕탕(*함묘*)이나 뜨거운 공기만 통과하는 곳, 혹은 습기로 인해 공기가 무거운 깊은 우물에 빠지면 질식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뜨거운 공중목욕탕이나 깊은 우물의 가둔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당신이 그에게 신선한 공기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 묻는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큰] 축복으로 여기며 감사함을 표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축복을 빼앗길 때만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은 극도의 무지입니다. 때로는 그 축복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부족하든 풍요롭든, 갖고 있든 없든, 오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내일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큰 축복이지만요. 하지만 눈빛이 사라지고 눈이 멀게 되면 이 축복을 소중히 여깁니다. 만약 다행히 시력을 되찾으면 감사함을 표현하지만, 시력을 갖기 전까지는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세상에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흔한 일이 어떻게 축복일 수 있겠는가? 이 영화의 우화는 예절이 없는 건방진 노예의 비유로, 무례함 때문에 자주 맞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구타가 잠시 멈추면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완전히 멈추면 오만해져서 감사함을 버리게 됩니다. [이 비유는 모두에게 해당되며, 모두가 신의 노예로서 예절과 충실함을 필요로 하는 주인이신 숭고하신 하나님께 충실함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의 상태는 오직 주변 사람들보다

구별되는 그 부(또는 특이함)에만 감사하는 상태입니다. 그 부가 더 많든 적든 상관없이요. 그 외에는 다른 모든 축복을 소홀히 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빈민의 불평 이야기: 한 가난한 남자가 마음이 깊은 사람(영지주의자이거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가난과 [부양해야 할 큰 가족을 부양할 수 없지만 충분한 형편이 없다]에 대해 불평하며 "나는 나쁜 상황 때문에 매우 걱정되고 괴로워한다"고 말했다. 영지주의자는 그에게 물었다. "만 디*르함*(오래된 금화폐이며 이 금액이 엄청나다)을 가져가서 눈이 멀 수 있느냐?" 그는 아니라고 했어요. 영지주의자가 다시 물었다. "만 디*르함*을 받고 바보가 되겠다고 동의할 수 있겠느냐?" 그는 아니라고 했어요. 영지주의자가 물었다, "만 디*르함*을 가져 가서 절름발이가 되는 걸 좋아하느냐?" 그는 다시 거절했다. 영지주의자가 물었다, "만 디*르함*을 가져 가서 손을 잃고 싶으신가요?"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지주의자가 물었다, "만 디르함 때문에 정신을 잃고 싶으신가요?" 그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때 영지주의자가 말했다, "당신의 주님께서 당신에게 5만 디*르함*의 부를 주셨는데, 그것조차도 당신은 가난과 궁핍한 처지에 대해 울고 있구나!"

이븐 사막(신의 자비가 그에게 가득하길)은 당시 물 한 잔을 들고 있던 *칼리프*(정치 권력자)에게 갔다. *칼리프*는 그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극도로 목이 말랐고 이 물잔이 빼앗기고, 당신이 모든 재산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물을 구할 방법이 없을 때까지] 돌려주지 않겠다고 들었다면, 한 잔의 물 때문에 모든 재산을 포기할 수 있겠니?" 그는 "틀림없이, 모든 재산을 포기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븐 사막이 물었다. "만약 조건이 네가 네 영토 전체를 포기하라는 거라면?" *칼리프*는 "그 상태에서 나는 내 모든 영토를 주저하지 않고 포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신이 가진 영토의 상태가 물 한 잔을 위해 포기할 정도라면, 그것에 대해 너무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목마름 때는 물 한

모금이 너무나 큰 축복이기 때문에, 심지어 전 세계의 지배조차도 그것을 얻기 위해 희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인간] 기질은 그런 축복을 자신만의 특별하고 특이한 축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일반적인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당신에게 특이한 축복들을 언급합니다. 이 축복들이 몇 가지 없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이는 한 사람에게 특유이며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거나 극소수만이 그 축복을 공유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특이성과 특수성을 확신하고 그것을 칭찬하는 세 가지 사안이 있다. 지능, 내면의 특성(성격 특성, 버릇, 내면적 성향 등), 그리고 지식입니다.

지성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매우 지적인 사람으로 만드셨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점에 만족합니다. 기도와 간구에서 하나님께 지성을 구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며, 그렇지 않으면 대체로 자신이 가진 지성의 양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지성의 특성은 지성이 결여된 사람이 만족하는 듯 보이고, 그것을 내재한 사람도 행복함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어떤 개인이 자신이 모든 사람 중 가장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현실이라면, 이 가장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만약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지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이 축복이 자신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성격 특성의 상태는 주변 사람 중 누구도 타인의 결점을 주시하지 않고 그에 대한 혐오감(혐오감)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이며, 비록 같은 결점이 존재할 수 있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의 잘못을 비난한다. 만약 개인이 실제로 다른 이들이 겪은 잘못이 없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걸 자랑하며 자랑하고 오만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이 다른 이들이 그 악에 연루된 동안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지식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비밀스러운 상태(타인에게 숨겨진 것)와 마음속 숨겨진 생각(차라리 숨기는 것이 낫다)을 알고 있다. 그런 상태와 생각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모든 명예가 파괴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점을 덮어주시고, [오히려] 그 사람의 좋은 자질을 [그리고 공개적으로] 두드러지게 하셨다는 점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특이성과 특수성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주제이다.

믿음과 확신이 진정한 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내면의 통찰(*베이스라*)*을 부여하신 자는 오직 영지*(마리파)*, 확신*(야킨) *[신과 영원한 진리에 대하여], 그리고 믿음*(이만)*의 부로만 행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방에서 동방으로 통치자들을 통제하는 모든 부와 조력자, 추종자를 주고, 그들의 지식을 대가로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학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모든 지식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그 중 일부만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의 축복이 내세에서 하나님의 가까움과 가까움을 가져오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만약 그들이 "당신이 내세에서 기대하는 완전함은 결국 당신이 이룰 것이며, 그 점에 대한 감소는 없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지식에 빠져들면서 얻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세속적 쾌락을 대신 가져가길 바란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런 교환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식의 즐거움이 영원하며, 결코 멈추지 않고 영원히 남으며, 훔칠 수도, 빼앗길 수도, 축소될 수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쾌락임을 알기 때문이다. 반면 세속적인 기쁨과 쾌락에는 단점이 있다. 그들은 흐릿함과 걱정을 가지고 있으며, 두려움은 그들 안에서 얻는 만족감보다 더 크고, 슬픔은 쾌락보다 크며, 그들의 슬픔은 편안함보다 더 큽니다. 이 [세속적인] 쾌락은 우리가 묘사한 그대로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세속적인 쾌락과 쾌락은 결함 있는 지성을 가진 자들이 그들의 그물에 빠져 속임수에 빠지도록 만들어졌으며, 속임수에 빠지면 그 기쁨과 쾌락은 그들로부터 도망쳐 가까이 오지 않는다. 이 모든 걱정과 고난이 공격한다, 왜냐하면 그 광경의 속임수에 속았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가 지성을 사용하고, [세상의 화려함과 화려함 같은 불필요한 것들을 않기 위해 시선을 낮추며], [불필요한 것들]을 보는 즐거움을 천천히 여겼다면, 평생 안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세상(세속적 쾌락, 기쁨, 내면의 모든 존재를 소모하고 삼키는 사치)을 피하는 사람들이 인내심의 고통에 시달리는 것(세속적 쾌락에서 멀리하는 것)을 겪는다는 말도 전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세상(세속적)에 기울어진 이들은 극심한 고통(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심리적, 영적 고통을 겪었다). 때로는 세상(세속적 안락함, 기쁨, 즐거움)을 원하지만, 세상은 멀리 도망가버립니다. 때로는 엄청난 투쟁과 노력 끝에 세상(세속적 안락함, 기쁨, 쾌락, 물질적 성공)을 이루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 세상을 피하는 이들이 이 고난 후에 인내의 고난을 견뎌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왜 그 위안을 잊는 걸까요? 세속적 쾌락을 쫓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내세의 고통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위 자아(*나프스) 위에 다음 구절을 낭송해야* 합니다:

وَلَا تَهِنُوا۟ فِى ٱبْتِغَآءِ ٱلْقَوْمِ ۖ إِن تَكُونُوا۟ تَأْلَمُونَ فَإِنَّهُمْ يَأْلَمُونَ كَمَا تَأْلَمُونَ ۖ
وَتَرْجُونَ مِنَ ٱللَّهِ مَا لَا يَرْجُونَ ۗ

"그리고 적대 국가(집단)를 공격하는 용기를 잃지 말라 [그들의 공격을 막으려고]. 당신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들도 당신이 고통받는 것처럼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이 바라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는구나." (꾸란 4장 104절)

부주의하고 부주의한 마음의 치료법: 이 세부 사항에서 알 수 있듯이, 감사의 길이 외부와 내면, 그리고 공통적이고 특별한 축복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제기된다: 이 부주의와 부주의를 치료할 방법은 무엇인가?

반드시 처방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어야 하며, 그 방법으로 부주의한 마음들의 부주의를 제거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 이후에 그들은 [신성한]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내면의 통찰(*바지라*)을 결여하지 않은 마음들이 치유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언급한 [다양한] 공통 축복 유형에 대해 묵상하는 것입니다. 둔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자신에게 특정한 축복이 있거나 빼앗겼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은 그들이 항상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세속적 지위와 물질적 재산에서 열세)을 바라보고, 수*피*들(내면의 완성과 진정한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성한 길을 걷는 영적 여행자)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수피들의 일상은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묘지와 감옥. 그들은 병원을 방문해 치료받는 환자들을 보고, 그들의 병에 대해 알아보며, 그들 안에 같은 병이 있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마음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도]. 스스로 찾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안전과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에서 구원받은 죄수들에게 감사하기 위해 교도소를 방문해 죄에서 구원한 것에 대해 감사하곤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감옥에 있는 죄수들 대신 자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묘지(묘지)를 방문하곤 했는데, 그곳에 있는 무덤을 보면서, 그곳의 주민들이 하루라도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소망을 품고 있다고 상상하곤 했습니다. 죄를 짓고 더 이상 세상에 없는 자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세상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순종했던 자들(더 이상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종들)은 심판의 날이 상실의 날이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가 더 많아지길 원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그날 자신이 이룬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 상실을 깨닫게 됩니다. 슬프게 도! 그들은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고, 수천 시간의 소중한 시간을

단지 허용되는 일에 쏟았다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과의 가까움과 영지를 높이기 위해 의로운 행위에 뛰어나지 않았다]. 심판의 날에 죄인의 상실은 자명합니다.

묘지에 가서 고인의 무덤을 방문할 때(경의를 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사후에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그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 세상으로 돌아가 잘못을 속죄하거나 선행을 늘리고자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고 순종의 행위를 더 많이 할 기회를 계속 주셔서 행운이다.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순종 속에서 보내야 합니다. 내 숨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는 이 축복을 감사히 여기며, 신성한 영지와 이 지상의 삶에서 그분께 가까워지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이라는 삶의 목적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주님께 기쁨을 주는 행위에 이 축복을 사용함으로써 행동해야 한다."". 인간은 축복을 이해한 후에야 감사함을 갖습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진정으로 삶을 축복으로 이해한다면, 분명히 남은 인생의 모든 날을 자신이 창조된 목적에 헌신하는 데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생명은 내세에 대한 의지나 규정(자드)을 얻기 위해 창조되었다. 인간이 이 [생명]의 축복을 감사한다면, 결코 그 목적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오직 의로움만을 가질 것이다].

세속적 고난의 다섯 가지 측면: 빈곤, 질병, 두려움과 같은 세상에 존재하는 고난과 재앙이 무엇이든, 지적인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다섯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측면 중 하나는 이 시기에 닥친 훨씬 더 심각한 재앙이나 치명적인 병이 신성하게 정해진 운명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분이 재앙의 강도를 두 배로 늘리거나 병의 심각성을 증폭시킨다면, 누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막거나 그분의 길에 장애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의 자비와 자비로 인해 더 큰 재앙을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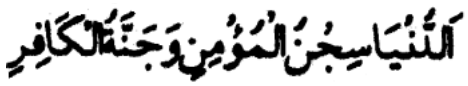
두 번째 측면은 이 고난이나 재앙이 세속적인 문제에서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또한 당신의 신앙에 재앙이 엄청난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있었다. 그래서 한 남자가 사흘 빈 압둘라 알-투스타리(신의 자비를 베푸시길)에게 도둑들이 그의 집에 들어와 그의 재산을 약탈한 뒤 도망쳤다고 말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약 사탄이 도둑 대신 들어와서 집이 아닌 네 마음에 들어와 하나님과 그의 유일성(*타우히드*)에 대한 믿음을 망쳤다면, 너는 어떻게 했겠느냐?" 그래서 예수(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는 이 말씀 속에서 신의 보호를 구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내 믿음과 관련된 재앙을 내게 하지 말아 주세요." 우마르 빈 알-카타브(신께서 그를 기쁘시길)는 "네 가지 신성한 축복이 없는 고난은 내게 닥치지 않는다. 첫째, 그것은 내가 신께 가는 길(딘)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둘째, 그 금액이 실제 양보다 많지 않다는 점; 셋째,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 넷째, 나는 신의 보상을 기대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견뎌낸 것에 대해]."

고난에 대한 감사의 세 번째 측면 또는 이유는 모든 죄에 대한 벌이 내세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상하기 위해 세상에 고난을 보내신 자비입니다. 그러면 세속적 고난은 때때로 작고 가벼워지지만, 내세의 벌은 영원하며, 영원하지 않더라도 그 형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단이 여전히 있지만, 내세에서는 세속적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사람들의 모든 만족 수단이 끊기므로, 그곳에서는 [신의 응징]이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예언적 이야기에서도 세상에서 [신성한] 벌을 겪는 사람이 내세에서는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고난에 대한 네 번째 감사의 측면 또는 이유는 "내게 닥친 고난은 신의 명령으로 정해진 보존된 석판에 기록되어 있었고, 반드시 올 운명이었으니 왔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재앙이 지금까지 일어난 것보다 더 컸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일은 저에게 축복이며, 그 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측면 또는 이유(고난에 대한 감사의 이유)는 신의 고난에 대한 보상이 고난 자체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앙과 고난은 [성공의 수단] 또는 내세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고난은 두 가지 이유로 [성공의 수단 또는] 내세로 가는 길입니다. 첫째, 환자에게 쓴 약을 주고 아이들이 놀지 못하게 하는 근거는 쓴 약이 환자에게 축복이 되어, 이 고난 후에 위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항상 놀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이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마음껏 놀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주면, 지식과 예절을 배울 수 없고 평생 아무것도 모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 재산, 가족과 친척, 친구, 기관 등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에게 사랑받는 것이죠. 때로는 그들 때문에 파괴되기도 하지만, 지성은 매우 귀중하고 훌륭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파괴를 겪어야 한다. 심판의 날에는 미쳐버리거나 어린아이가 되길 바랐고, 그래야 지성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오염시키지 않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단에 악의 측면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신성한 길(딘)과 관련하여 인간에게 더 나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부, 재산, 가족과 친척, 친구, 장기 등)이 하나님께 가는 길에서 더 나은 길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엄청나고,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에게 무엇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에서 겪은 고난과 재앙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난과 재난은 올바른 예절과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베푸시는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친절과 자비보다 훨씬 크며, 훨씬 더 완전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세상의 고난이 내세로 가는 길이 되는 이유에 관해) 인간의 치명적인 실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세속적 집착과 얽힘)이고, 구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마음을 세상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속적 축복이 그것을 구하지 않고도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고난도 없었다면, 마음은 세상 쪽으로 기울었을 것이고, 세상이 그들에게 낙원과 같아질 정도로 세속적 수단에 집착했을

것입니다. 죽음과 세상과의 이별의 순간들이 가까워졌을 때, 마음은 그것과의 분리를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계속 찾아오고 걱정이 계속해서 해결된다면, 마음은 세상에 지루해져 애착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고난은 세상을 감옥으로 여기게 만들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죽음 시점에] 감옥에서 풀려나고 해방을 찾는 것과 같다. 따라서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믿는 자의 감옥이고, 불신자에게는 낙원이다." (내레이션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무슬림 사히흐 *하디스* 모음 집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하나님을 피하고 오직 세상을 찾으며, 그것을 이루는 데 만족하며 그 기쁨을 찾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합니다. 신자는 세상과 소외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며, 이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바쁘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불신(*쿠프르*)은 명백하면서도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 남아 있는 한, 하나님과의 연관성(*쉬르크*)을 부여하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비밀(숨겨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절대적 일신론자는 절대자(하나님)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는 자입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서도 행복을 가져야 하는 이유들입니다. 고난에 대해 후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비유는 주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자격이 있는 사람이 무료로 투여하거나 환자가 쓴맛 나는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당연히 주사를 맞는 것과 쓴맛 있는 약을 복용하는 데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사를 놓는 사람과 의사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고난 옆에 행복도 있기 때문이며, 즉 병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사와 쓴 약을 먹고 나면, 아픈 곳에 행복도 함께 찾아온다. 세상의 고난도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들은 쓴 약과 몸에 대한 수술과 닮았다. 그들로 인해 일시적인 고통이 생기지만, 결국 안도와 위안을 얻는다.

인내와 감사의 정도: 인내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는 고난을 나쁘게 여기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인내의 정도가 높고 낮은 정도를 아우르는 다음에는 신의 뜻을 받아들이는 정도(*리다*)가 있으며, 그 다음에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내심 속에는 고통의 감정이 있기 때문이며, 신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서 고통이나 행복을 느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리다*). 반면 감사함은 행복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인내심이 무수한 단계가 있듯이, 감사도 무수한 단계를 가집니다. 우리는 그 최고 정도만 언급했습니다. 인내심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최고 정도만 설명했습니다. 이 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축복은 정당한 권리 없이 하나님께 얻어지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한 축복임을 알고,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감사의 마음이며 서로 정도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사물에 덜 반대하거나, 기부자를 아름다운 예절로 대하거나, 모든 축복을 잘 받아들이거나, 작은 축복을 크게 여기는 것 등도 모두 감사의 뜻입니다. 요약하자면, 모든 행위(행위)와 영적 상태는 인내와 감사에 포함되며, 이들은 무수하고 서로 정도가 다릅니다.

13장 – 하나님을 모든 잘못에 대한 단호한 자제로 두려움을 가지고, 긍정과 낙관주의의 도구로서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다

인간의 행동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개인, 동료 인간, 그리고 전 세계에 고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통제되어야 합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 할 수 있는 잘못에 대한 내면과 외적 제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음 깊이 뿌리내려 있으며, 생각과 말, 행동 속 모든 형태의 잘못과 부정성에 대한 엄청난 내적 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의 모든 섬유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까지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언제든 막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부정적인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도덕적 제약으로, 모든 부정적인 것들—생각, 말, 감정, 행동 등에서 우리를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상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거울상은 하나님 안에서의 희망입니다. 절망과 슬픔 속에서 엄청난 내면의 힘과 힘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큰 격려와 영감의 원천이며,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데 이끕니다. 두려움과 희망은 한 쪽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억제하는 반면, 다른 한 쪽은 긍정적으로 이끄는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가잘리는 그의 *대표작* 『*Ihya al-Uloom ad-Deen*』 또는 "하나님으로 가는 길의 지식 부흥" 4권 3권에서 이 핵심 주제를 훌륭하게 다루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다 [19]: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카우프*)과 희망(하나님 안에서) (*리자*)은 두 개의 날개임을 알리라. 그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친밀한 이들이 날아올라 높은 [영적] 지위로 올라간다. 이 두 가지 놀이기구는 타는 것으로, 타면서 저승의 위험한 길을 지나간다. 하나님의 친밀함과 천국의 거처가 닿는 곳은 매우 [영적] 거리 내에 있으며, 그곳으로 이어지는 길들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어 이 길을 걷는 [영적] 여행자들을 지치게 하고, [신체적] 장기와 팔다리에 고통을 겪게 합니다. 희망의 여정은 [하나님과의 함께] 이 목적지와 [끝내림] 여정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의 끔찍한 불길과 자신의 잘못에 대한 비극적 형벌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의 현실, 그 우수성, 두 가지 사이의 [명백한] 모순과 결합이 설명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두려움과 희망에 대하여)은 두 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선 희망의 상태를 설명하고, 두 번째 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상태를 설명할 것입니다.

희망의 현실, 그 탁월함, 희망을 위한 약과 그것을 얻는 방법

희망의 현실: 희망은 *영적 여행자와 노력하는 자들(*살리킨)의 정거점(*마캄*)이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상태에서 오는 상태임을 알리라. 사람의 [내면의] 특성이 머물며 [영혼 속에] 자리 잡으면 그것을 "스테이션"(마*캄*)이라 부르고, 그 특성이 일시적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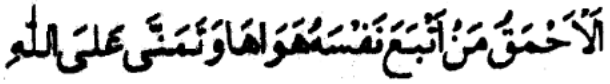
빠르게 사라진다면 그것을 "상태"(Haal)라고 부른다. 마음의 내면적 특성들은 [영성의 중요한 용어인 역과 상태]로 나뉩니다. 상태는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상태'라고 불리며, 이는 마음의 모든 특성과 함께 경험됩니다. 희망은 [내면의 영적] 상태, 지식과 행동—이 세 가지 모두—을 통해 완성된다. 왜냐하면 지식은 상태의 원인이고 상태는 [올바른 영적·신체적] 행동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희망은 국가의 이름일 뿐이다. 이 과정의 세부 사항은 당신이 싫어하는 것(바람직하지 않음)으로 느끼거나 사랑받는 것(바람직함)은 세 가지 상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 그것은 현재에 존재하거나 과거에 존재했거나, 미래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존재에 대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기억하거나 언급한다고 합니다. 현재 존재한다면 그것을 지각이라고 부르고, 미래에 존재할 것으로 기대되고 마음을 지배한다면 기대와 기다림이라고 부릅니다. 미래에 기대되거나 기다려온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마음에 아픈 것을 두려움(*Khawf*)이라고 하며, 바람직하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는다면 그것을 희망(*Rija*)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희망(*리자*)은 미래에 기다리며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의 이름이며, 당신에게 사랑받는 것임을 배웁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얻는 생각에 행복함을 느낀다면, 분명히 그 방법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이렇다면, 그것은 희망(*리자*)이고, 당신이 그것을 얻을 수단이 없고 단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기대하거나 원하는 것을 찾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기만과 어리석음입니다. 수단의 존재 여부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그러한 기다림은 이유 *없는 기다림이 발견되기 때문에 소원 또는 헛된 욕망(*Tamanna)이라고 불립니다.

희망은 어디에 적용되나요? 희망과 두려움은 존재가 확실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것들에는 적용되며, 희망은 존재가 확실한 것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출에 대해 "나는 일출을 희망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일출과 일몰의

존재는 확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비를 희망하거나 미래의 가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옳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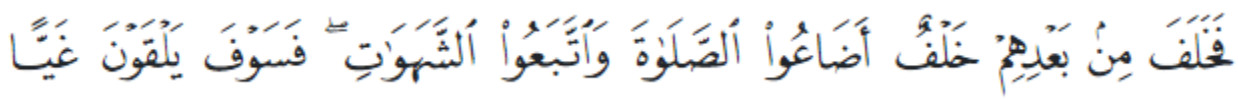
이 현실은 마음의 사람들(깨달음을 얻고 깨달은 이들)에게 분명히 드러난다. 세상은 내세의 농지이며, 마음의 비유는 땅과 같고, 믿음은 씨앗과 같으며, 신성한 순종은 땅을 갈고 잡초처럼 원치 않는 자라기를 제거하여 정화하는 것과 같다. 수로를 파고 농장에 관개하는 일; 세상에 잠기고 그 기쁨에 빠진 마음은 씨앗을 유지하지 못하는 척박한 땅과 같다. 심판의 날은 수확을 거두는 날이다. 왜냐하면 그날 당신은 세속 삶에 뿌리거나 심은 것을 바로 수확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세의 [선수] 수확은 신앙의 씨앗 없이는 불가능하며, 마음의 악과 나쁜 도덕, 예절, 성격 특성, 내면 성향 앞에서는 믿음이 거의 이득을 얻지 못한다. 아무리 물을 많이 주도 씨앗이 불모의 땅에 머무르거나 발아하지 않는 것처럼, 만약 하나님의 종, 즉 인간이 [신의] 용서를 희망한다면, 그 희망을 농부의 희망에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좋은 (비옥한) 땅을 선택해 좋은 씨앗을 심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씨앗이 지하에서 [건강한 식물 또는 작물] 형태로 자라나도록 하고, [농지]를 제때 양육하거나 관개(물을 주며) 잡초를 제거하고 식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작물에 해를 끼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그 후 농부는 신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재앙으로부터 자신의 농작물을 보호해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런 기다림과 기대를 희망이라고 부른다. 만약 누군가가 관개할 방법이 없는 고지에 씨앗을 뿌렸다면, 물이 닿을 수 없었고, 더 나아가 씨앗을 키우지 않고 수확을 기다리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정당한 기다림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과 어리석음이며, 희망이 아닙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희망]. 마찬가지로, 좋은 [비옥한] 땅에 씨앗을 뿌렸지만 이후 모든 경작 단계에서 소홀히 물을 주지 않고 비가 오기를 기다리며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만 농업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상 조건이나 장소에서 비를 예상했다면, 이런 기다림은 [헛된] 욕망(*타만나*)이라 불리며, 희망(*리자*)이 아니다.

이 세부 사항에서 알 수 있듯이, 희망이라는 용어는 사랑하는 [또는 바람직한 것]의 기다림에만 적용되며, 종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수단이 사용되며, 종의 관할 밖에 남은 수단들만이 남아 있고, 그 수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약 모든 일에 포함된다면, 모든 장애물과 스포일러는 [그 부분]에서 피하세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종인 [하나님의 종]의 상태입니다 - 만약 누군가가 마음의 땅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신성한] 예배의 물로 그것을 관개하며, 나쁜 도덕, 예절, 내면의 성격 특성과 성향(*수 울-쿨크*)의 가시로부터 그것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믿음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면, 심판의 날에 마음의 곡물이 수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기다림은 진정한 의미의 희망(*리자*)이며 훌륭한 자질(내면의 특성)입니다. 이 희망은 신앙을 지키게 하며, 신앙을 신성하게 키우도록 하여 신성 영지의 시기에 구원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양육 수단을 끊임없이 실천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마음의 땅에 씨앗을 뿌렸지만 그 후에 돌보지 않고, 물을 주지 않아 땅이 말라버리거나, 과도한 비나 잡초, 가시로 인해 자신의 나쁜 도덕, 예절, 내면의 성격과 성격에 걸려 작물을 덮치거나 세속적 쾌락의 해충이 공격했다면, 그리고 이 모든 부주의와 결점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은 그 기다림과 기대가 어리석고 오만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무함마드 예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낮은 욕망에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기대를 갖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예언자들과 그들의 진실한 추종자들) 이후에는, 영적 지식과 지혜의 예언적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태어났고, 그들은 기도를 망치고 낮은 자아의

저급하고 낮은 욕망을 따랐다. "그런 사람들은 곧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잘못을 깨닫게 될 것이다." (꾸란 19장 5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순종을 위해 노력하고 죄를 삼는 종(즉,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와 관대함으로 [신성한] 축복이 완성될 희망을 가질 자격이 있으며, 축복의 완성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속죄하며 속죄하는 죄인은 자신의 회개를 받아들일 희망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회개 전에 자신의 죄를 나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선행에 기뻐하며, 낮은 자아(*나프스*)를 정죄하고(그 안에 도사린 악과 악함 때문에), 회개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신성하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나쁘게 여기고 회개를 원하는 것은 회개로 나아가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단계는 꾸란이 말한 것처럼 수단[희망]의 완성 이후에 찾아온다:

إِنَّ ٱلَّذِينَ ءَامَنُواْ وَٱلَّذِينَ هَاجَرُواْ وَجَٰهَدُواْ فِي سَبِيلِ ٱللَّهِ أُوْلَٰٓئِكَ يَرْجُونَ رَحْمَتَ ٱللَّهِ

"진실로, 믿음을 가진 자와 이주한 자들(이주는 외부와 내면이 모두 존재하며, 내면의 이주는 악에서 선으로, 낮은 성격에서 고귀한 성격으로, 물질주의에서 비물질적 또는 영적 인격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향해 노력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희망의 후보자이다." (꾸란 2장 218절)

이 구절의 의미는 바로 이들이 신의 자비에 대한 희망의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이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 외에도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희망을 가질 권리는 그들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혐오스러운 것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신을 나쁘다고 여기지 않고,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갈 결심도 없다. 만약 그런 사람이 [신성한] 용서를 바란다면, 그것은 불모의 땅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도 청소하지도 않기로 결심하는 바보와 같다.

야히야 이븐 무아드(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나에게 가장 큰 자기기만(망상)은 한 사람이 용서를 바라며 부끄러움과 후회 없이 계속 죄를 짓고, 어떤 [신성한] 순종 행위 없이 신과 가까워지길 기대하며, 불씨앗을 심은 후 천국의 열매를 기다리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의 거처를 구하는 것이다(즉, 악과 잘못을 통해 천국을 구하며, [그럴 자격이 있는 행위 없이] 신의 보상을 구하며, 억압과 과도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빼앗는 것에 관해] [잘못된]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대우를 원한다."

희망을 추구하다: 우리는 희망의 현실에 대해 많은 빛을 비추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핵심은 대부분의 수단이 발생한 후에 지식에 의해 발생하는 상태라는 점이다. 이 상태의 요구는 아직 충족되지 않은 수단들을 모든 방법으로 완성(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사의 예시에서, 비옥한 땅에 좋은 씨앗을 뿌리고 필요에 따라 관개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의 희망은 진실하며, 그 땅(농장)에 자란 잡초와 가시를 청소하고 정기적으로 물을 주며 수확 전까지 소홀하지 않도록 설득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희망의 반대가 절망과 무희라는 점입니다. 무언가에 절망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고생함으로써 자신을 고난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오직 희망을 가진 사람만이 힘들어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땅이 비옥하지 않고, 씨앗이 쓸모없으며, 물이 그 땅의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땅을 관리하는 일을 피할 것입니다. 희망은 행동을 촉구하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하며, 절망은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희망의 반대가 아니라, 영적 노력(*술룩*)의 여정에서 동반자이며, 오히려 행동의 주체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다릅니다 - 희망은 [무언가를 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두려움은 [잘못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자신 안에 희망의 상태를 가진다면, 그것은 내면의 영적 상태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에 더 많은 노력과 신성한 순종의 끈기를 요구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영적 노력과 선한 행동에서의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 간청하는 데서 기쁨을 느끼고, 겸손과 연결감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구하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상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 희망의 [하나님 안에서] 자리에서 멀어져 오만함과 [헛된] 욕망(*타만나*)의

협곡에 갇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들은 희망에 관한 세부 사항, 희망으로 이어지는 지식, 그리고 희망에서 태어난 행동들입니다.

희망의 탁월함과 희망을 갖는 설득: 희망과 함께 하는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는 행동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리라. 왜냐하면 오직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우며, 더 사랑하는 사람이 희망과 함께 사랑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 비유는 두 왕의 비유와 같다. 한 명은 그의 관대함에 대한 희망으로, 다른 한 명은 두려움에서 섬겨진다. 첫 번째 작품이 두 번째 작품보다 더 사랑받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신의 법에는 죽을 때 희망(*리자*)과 신에 대한 좋은 평가(*후스른 알둔*)를 가지라는 여러 설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ا تَقْنَطُوا مِن رَّحْمَةِ ٱللَّهِ

"하나님의 자비를 절망하지 마라!" (꾸란 39장 53절)

이 구절에서는 절망이 [이 신의 계명에 의해]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언자 야곱(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왜 너와 요셉(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 사이에 갈라놓았는지 아느냐?"라고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그의 형제들에게 [그들이 조셉(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이 그들과 함께 놀러 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순전히 질투심에 그를 영원히 추방하려는 계략으로 말했기 때문이야]:

وَأَخَافُ أَن يَأْكُلَهُ ٱلذِّئْبُ وَأَنتُمْ عَنْهُ غَٰفِلُونَ

'너희 모두가 [놀이 때문에] 그를 방치하는 동안 늑대에게 잡아먹힐까 두렵다.' (꾸란 12장 13절)

왜 늑대를 두려워하고 나에게 희망을 품지 않았느냐? 너는 조셉의 형제들의 부주의를 보았는데, 왜 내 보호는 않았느냐?"

하 *디스 쿠드시*(무함마드 예언자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의 전통에서 하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أَنَا عِنْدَ ظَنِّ عَبْدِي بِي فَلْيَظُنَّ بِي مَا شَاءَ

"나는 내 종이 나를 생각하는 대로 내 종과 함께 있다 (내가 인간과 맺는 것은 나에 대한 생각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을 좋게 보고 그분께 최선을 기대해야 하되, 하나님에 대한 좋은 평가를 그분께 기쁘시게 하는 노력과 노력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러니 나에 대해 원하는 어떤 의견이든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와틸라 이븐 알-아스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의 권위에 따른* 이븐 히반 *하디스* 모음 집]

한 번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가 죽음의 고통에 빠진 한 남자에게 가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드고, 주님의 자비를 바라라며"라고 답했습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희망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결합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희망에 따라 그에게 주시고, 두려워하는 것들로부터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아나스의 *권위에 따라* 티르미디, 나사이, 이븐 마자를 *모 은* 하디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한 남자는 과도한 죄로 인해 극심한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알리(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자비를 절망하는 것이다." 예언적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다윗 선지자에게 계시하셨습니다(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시며, 백성 중

사랑받는 이로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는 물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받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잘 언급하시고, 나의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시며, 그들을 상기시켜 그들이 오직 내 은혜만을 알게 하소서." 어떤 사람들은 야흐야 이븐 악탐(신의 자비가 그에게 가득하길)을 꿈에서 보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죽음] 당신을 어떻게 대하셨나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오, 나쁜 노인이여! 너는 이런저런 죄를 저질렀다!' 내가 평생 동안 했던 내 행적 기록을 들었을 때, 나는 신성한 경외심에 압도되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오 신이시여! 하 *디*/스 (예언자 무함마드의 전승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에 이렇게 전해지지 않았던가?'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전해지셨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압둘라자크가 내게 전해주었고, 그는 무아마르에게서 전해주었고, 모아마르는 제흐리에게서 전해주었고, 제흐리는 [예언자 동료] 아나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로부터 전해졌고, 아나스는 무함마드 예언자에게서 들었고(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대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네가 말했다,

أَنَا عِنْدَ ظَنِّ عَبْدِي بِي فَلْيَظُنَّ بِي مَا شَاءَ

'나는 내 종이 나를 생각하는 대로 내 종과 함께 있으니, 사람은 나에 대해 원하는 어떤 의견이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는 주님에 대해 나를 벌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추측(의견 또는 기대)을 가졌다. 위엄 있으신 존경받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브리엘이 진실을 말씀하셨고, 나의 예언자가 진실을 말씀하셨으며, 아나스, 모아마르, 제흐리 모두 진실을 말씀하셨으니, 당신도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나는 명예의 예복을 받았고, 천상의 종들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했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게 바로 행복이다!'"

희망을 얻는 방법과 방법: 희망은 두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세요. 첫째는 슬픔과 절망에 지배당해 [그 결과로]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사람으로, [그 결과로] 예배에 너무 오래 머물러 가족도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절제의 한계를 넘어섰으며, [두 가지 정반대] 극단에 기울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절제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성한] 순종을 버리고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신성한] 용서를 갈망하는 자기만적인 죄인은 희망이 치명적이다. 꿀이 차가운 성격의 사람들에게는 치료제지만, 뜨거운 성격의 사람들에게는 해롭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이 그런 사람이나 두려움을 일으키는 수단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조언하고 조언하는 사람은 병과 그 원인을 주시하고, 병을 악화시키는 치료가 아니라 모든 병의 반대 치료법을 투여해야 합니다. 목표는 절제이기 때문이며, 모든 [인간] 특성과 특성에서 절제의 정도가 좋아지며, 이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만약 어떤 [인간의] 특성이나 특성이 과도하거나 부족한 정도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다시 절제의 수준으로 돌아가도록 치료가 필요합니다. 조절 정도에서 더 벗어나게 만드는 치료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리(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학자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비를 절망시키지 않고, 신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희망의 원인을 이야기하는 데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절망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을 위한 것입니다. 꾸란과 예언적 이야기는 두려움과 희망에 기반한 가르침을 포함하며, 이는 다양한 유형의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 동일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 방법들과 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은 [신성하게] 예언자들의 후계자인 학자들에게 전해져, 그들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현명하고 경험 많은 의사들처럼 이 방법을 사용하여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약이 모든 질병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의사가 아니라, 그 병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공포의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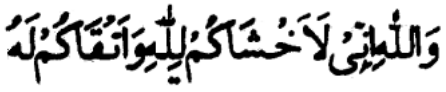
두려움의 현실: 두려움이란 미래에 예상되는 고난에 대한 생각에서 비롯된 마음속 고통과 짜증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희망의 설명에서 두려움의 현실도 명확히 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친숙함을 가진 사람은 진리가 마음을 지배하며 항상 신성한 아름다움을 목격하는 데 몰두하여 미래에 집중하지 않으며, 따라서 두려움이나 희망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과 희망의 상태보다 더 우월해집니다. 이 두 상태(두려움과 희망)는 두 개의 고삐와 같아서 하위 자아(*Nafs*)의 야생마가 절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며, 마음속에 두려움과 희망이 없으면 하위 자아가 [하나님]에게 복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와스티(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두려움은 신과 그의 종 사이의 장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진실이 마음에 드러난다면, 희망이나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는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연인의 마음이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있다면, 사랑하는 이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없고 시야는 결핍될 것이다. 비록 모든 [영적] 지위(*마카마아트*)의 정점은 영원한 [신성한] 시야를 가지는 것이고, 이익(이익)에 대한 희망과 해악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을 끊는 것이다.

두려움의 구성 요소: 희망과 마찬가지로 두려움도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지식, [내면] 상태, 그리고 행동. 지식이란 해를 끼치는 원인에 대한 인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왕에게 무례함을 표하거나 왕의 명령에 반항하여 체포되어 왕 앞에 나갔다.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죽임을 당할 두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왕이 용서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석방할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그 살인을 정당화할 만한 이유의 강도에 비례하여 강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의 심각성, 왕이 적대감과 질투를 품고 있거나, 왕이 복수심에 불타는 성격을 가졌거나, 왕을 복수하도록 선동할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거나, 중재자를 잃은 경우, 혹은 킹의 분노를 끝내거나 마음속 복수의 불꽃을 꺼뜨릴 모든 자원을 빼앗기는 것. 이 모든

이유가 일치하고 피고인도 이에 대해 알고 있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매우 강하게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약하거나 적을수록 두려움의 고통은 줄어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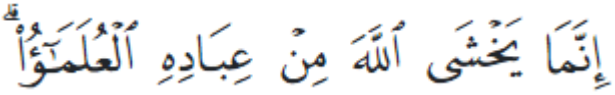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두려움 대상의 어떤 특성이 두려움을 심어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사나운 짐승의 발톱에 갇히면, 그 짐승의 야수적 본성과 특성을 알고 있고, 수간이 그 동물의 사랑받는 특성임을 알기 때문에 그 짐승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비록 이 특성은 때때로 먹잇감을 해치지 않고 지나가기 때문에 강박적이지 않지만, 때로는 자율적이지 않은(강박적) 특성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빠르게 흐르는 물에 빠지거나 불에 갇히는 것처럼 두려움의 본질에 내재된 것이죠. 인간은 물과 불을 두려워하는데, 물의 본질은 익사하는 것이고, 불의 본질은 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악의 원인에 대한 깊은 이해는 마음에 짜증과 짜증을 주고 내면에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 짜증과 내면의 고통을 두려움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영지(*마리파*)와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킨다 해도 아무도 그것을 막거나 그 멸망을 비난할 수 없다는 지식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종, 즉 인간이 자신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 두려움의 상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확고해질 때,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을 비판할 사람은 없습니다. 반면 종들(인간)은 모든 상황에서 [신성한] 책임 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그만큼 두려움이 커질 것입니다. 이로부터 자신을 더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그래서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맙소사! 나는 너희 중 가장 두려워하는 자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아나스의 권위에 따른* 하디스 *모음 집* 사히흐 부카리(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이것이 꾸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된 이유입니다:



"오직 지식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경건한 경외심, 경외심, 그리고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며, 이는 신의 영지에 대한 진정한 지식이 신성한 현존을 부여하여 그 소유자가 그 숭고한 영적 상태에 적대되는 생각, 감정, 말, 행동, 존재 상태에 빠질 수 없게 하는 것처럼]." (꾸란 35장 28절)

두려움의 영향 [하나님에 대한]: 이 영지(*마리파*)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그리고 자신의 죄에 관한 것]이 완성되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내면에 자극이 생기며, 그 영향이 심장에서 신체의 다른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이 짜증과 두려움은 신체적 약화, 창백함, 울음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이 상태의 열기가 너무 큰 영향을 미쳐 절망과 절망의 상태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신체 기관은 죄를 막고 과거의 실수를 속죄하고 미래를 위해 도덕적·윤리적 올바름을 위해 잘 준비하기 위해 복종 행위에 복종하는 두려움의 효과를 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신성한] 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부 알-카심 하킴(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은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자는 도망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분의 자비로운 품 안에서 피신하라"고 말했습니다. 둔 눈 알-미스리(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는 "종이 언제 [신]을 두려워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질병이 위험한 환자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해로운 음식을 예방하는 경우[해로운 것에 대한 예방 부족으로 인해 질병이 악화됨]"이라고 답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개인의 특성(특성과 내면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욕망이 사라지고 세속적 쾌락이 [사람 눈에] 하찮아져서 이전에 사랑했던 모든 죄가 나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마치 꿀을 좋아하지만 독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혐오로 바뀌는 사람처럼, [신] 두려움의 열기가 욕망을 태우고, [신체] 장기가 [문명인] 예절을 발달시키며, 마음은 겸손, 겸손, 경건함 같은 특성을 갖추고, 오만, 적대, 질투 같은 비난받아야 할 성격은 사라집니다. 온전히 자신의 [신]에 대한 두려움에 집중하고, 다른 곳을 바라볼 감각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영적 투쟁(*무자하다*), 자기 성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묻는 것(*무하사바*), 그리고 신성한 것을 묵상하는 데 항상 몰두하게 됩니다. 한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마디가 너무 소중해서 낭비하지 않는다. 대신, 잃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매우 보호하게 됩니다. 사람의 상태는 사나운 짐승의 발톱에 갇혀 잠시라도 방치를 이용해 탈출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발톱에 죽고 먹이가 될지 모르는 사람과 같다. 그런 상황에 갇혀 있다면 마음과 정신, 그리고 내면의 외적 존재들은 오직 자유를 찾는 방법에만 집착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는 다른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일부 예언적 동료들(*사하바*)과 그들의 추종자들(*타백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온몸의 모든 혈관과 섬유에 지배하는 정확히 같은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동에서의 신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두려움이 강한 경우, 신의 위엄성에 대한 영지(*마리파*)와 하위 자아의 결점에 대한 이해가 존재하며, 그 정도로 영적 투쟁(*무자하다*), 자기 성찰 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 추궁(*무하사바*), 신성한 성찰(*무라카바*) 등이 포함됩니다) 더 강합니다. 두려움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낮은 등급은 신성한 법의 명령으로 금지된 일(*하람*)을 피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법의 금지 조항을 피하는 것을 '철저함(*Wara'*)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확고하다면, 신성한 법에서 금지될 가능성이 있는 일조차도 멀리하게 됩니다. 즉, 확실히 금지된 것이 아니고 의심스러운 일들조차도 영향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정도의 [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타크와*"(경건한 경외, 경외, 경외심)라고 불리며, 이는 의심스러운 사안을 포기하고 확실히 허용되는 일에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일들을 떠나지만, 의심스러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것들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

정도의 [신-경외]는 "*Sidq fi al-Taqwa*"(경건한 경외, 경외, 경외심 속에서의 내면의 진실성과 진실함)이라고 불립니다. 이 정도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려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을 사용한다면, 예를 들어 살지 않을 집을 짓지 않고, 소비하지 않는 음식을 축적하지 않으며, 세속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이 결국 자신과 분리될 것임을 알고, [결과적으로] 신 외의 어떤 생각에도 한숨도 낭비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는 "*시/드크*"(진실성 또는 진리에 대한 완전한 헌신)라고 불립니다. 그런 사람을 '*시/딱*'(진리의 사람, 영지주의자, 친밀하고 하나님의 친구)이라고 부르는 것이 충분히 적절하다. 이 합의에 따르면, 진실성(*시/드크*)은 신의 두려움(*타크와*)에 포함되고, 신에 대한 두려움은 양심(*와라*)에 포함되며, 양심심은 정절과 순결(*이파*)을 포함하는데, 이는 욕망을 부추기는 자를 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목적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목적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목적이 [그의 종들이] 자신의 존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종들이 죄를 짓도록 압도하지도, 그들이 쉽게 죄를 짓도록 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신의 자비에서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종은 [첫 번째]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그 죄를 근거로 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선언되고 죄의 수단이 쉽게 지어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순종의 첫 행위 이전에는, 종은 더 의로운 행위를 할 자격이 있거나 의로움의 길을 밝힐 수 있는 의로운 행위가 없었다. 이 모든 것은 동의하든 아니든 신성하게 정해진 운명의 비밀입니다. 그 존재의 어떤 것에도 무소속을 두지 않아 아무런 사전 이유 없이 인간에게 부여된 가장 높은 계급을 예언자 무함마드(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에게 부여하였으며, 이는 창조물 중 누구도 그와 경쟁할 수 없도록 하였다. 반면, 그는 아부 잘을 아무런 잘못 없이 가장 낮은 계급 중 최하위로 올려놓았다. 무지한 상태[그리고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존재는 폐하와 위엄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 권고의 탁월함: 하나님 에 대한 두려움의 탁월함은 논리적 추론(*카야스*)뿐만 아니라 꾸란 구절과 예언 전통에서도 입증됩니다. 어떤 사물의 탁월함을 보는 논리적 연역의 방식은, 그것이 신성한 환상의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승리(*사아다*)로 나아가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의 믿는 종의 진정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정도는 탁월함의 수준을 갖추게 됩니다.

앞서 설명된 바에 따르면, 내세에서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사아다*)을 얻는 것은 그분에 대한 사랑과 갈망 없이는 불가능하며, 사랑은 신성한 영지(***Ma'rifa***) 없이는 달성될 수 없으며, 신성한 영지(Ma'rifa) 없이는 달성되지 않습니다. 신성한 기억(*Dhikr*)과 묵상(*Fikr*)으로 인내하기 위해서는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종이 세속적 쾌락과 욕망을 버릴 때만 마음이 세상에 묶여 끊어집니다. 욕망을 없애려면 두려움의 불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욕망을 재로 태우는 불입니다. 오직 두려움만이 욕망을 태우고, 죄로부터 보호하며, 신성한 순종을 권면하는 두려움만이 더 우월합니다. 그러면 욕망이 타오르고, 죄가 줄어들며, [신성한] 순종이 나타나(증가하는) 정도로 그만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이 더 우월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경외의 정도 차이의 현실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월한가요? 종이 이를 통해 성취하기 때문에, 그 성격은 정결, 순결, 양심, 겸손, 영적 노력과 같은 특성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인격 특성의 탁월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려움의 탁월함은 논리적 연역뿐만 아니라 [신성한] 구절과 전통에서도 증명된다.

두려움의 탁월함에 관한 구절과 전통: 두려움의 탁월함에 관한 수많은 [예언적]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탁월함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끄는 네 가지 [영적] 계단 모두, 즉 [신성한] 인도, [신성한] 자비, [신성한] 지식, 그리고 [신성한] 승인을 이 세 구절에서 모두 모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هُدًى وَرَحْمَةٌ لِّلَّذِينَ هُمْ لِرَبِّهِمْ يَرْهَبُونَ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주님께서]의 인도와 자비를 주셨다." (꾸란 7장 154절)

إِنَّمَا يَخْشَى ٱللَّهَ مِنْ عِبَادِهِ ٱلْعُلَمَٰٓؤُا۟

"오직 [하나님의 종]만이 지식을 가진 자를 두려워한다." (꾸란 35장 28절)

رَّضِىَ ٱللَّهُ عَنْهُمْ وَرَضُوا۟ عَنْهُ ۚ ذَٰلِكَ لِمَنْ خَشِىَ رَبَّهُۥ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뻐하시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한 것이다." (꾸란 98장 8절)

첫 번째 구절에는 인도와 자비가 담겨 있고, 두 번째에는 지식이 담겨 있으며, 세 번째 구절에는 하나님의 승인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신성함]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예언자 모세(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최고 동반자(*라피크 알-알라*, 즉 신)의 동반자를 가질 것이며, 아무도 그들의 [고귀한 영적] 계급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동반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두려움은 [신성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즉, 지식이 없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잘못을 무죄하게 저지르는 사람들)만이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예언자들의 후계자로서 이 동반자를 누릴 권리가 있고, 예언자들은 최고 동반자의 동반자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는 이 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원한다면 세상에 머무를지,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갈지 선택할 선택권을 주었고,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اسالكالرفيقالاعلى

"나는 최고의 동반자를 간구합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를 간구합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는 아이샤(신께서 그녀를 기뻐하시길)의 권위에 따라 *사히흐 부카리*와 *사히흐 무슬림*을 모았 다.

푸다일 이븐 아야드(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는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면의 모든 종류의 발전으로 이끈다"고 말했습니다. 시블리(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내가 신을 두려워할 때마다, 이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지혜와 객관적 억지력('*이브라*')의 문이 열렸다"고 말했다. 예언자 모세(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말씀하시리라: '오늘 내가 책임지지 않을 사람은 없으니, 모든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에 대해 스스로를 책임지는 양심심 있는 사람들은, 이 일에서 면제된다. 그들의 책임과 심판(무하사바)을 대신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속적인 삶 동안 스스로 책임을 넘어섰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양심과 경건한 경외심,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합니다.

두려움의 지배, 희망의 지배, 혹은 둘 다의 중간 정도 수준이 더 우수한가?

희망(하나님에 안에서)과 두려움(하나님에 대한)은 마음을 치유하는 두 가지 약입니다. 이 약들 자체는 칭찬할 만한 특성이 없지만, 질병 치료에 유익한 한에서 탁월함을 지닙니다. 따라서 마음이 두려움 없는 병(하나님에 대해)을 앓고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벌로부터 보호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세속적인 쾌락과 기쁨에 빠져 있을 위험이 있다면, 이 경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우월하다. 만약 마음이 실망과 절망으로

지배된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희망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이 죄에 지배당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우월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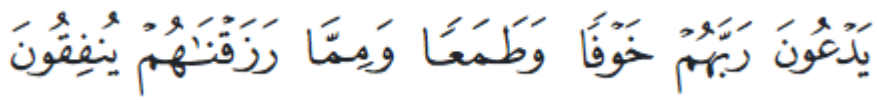
두려움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빵이 레모네이드(*전통 의학에서 레몬, 식초, 꿀, 그리고 다른 천연 허브로 만든 약용* 인 '시칸자빈')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빵은 배고픔을 치료하는 반면, *시칸자빈*은 간에서 담즙을 치료합니다. 배고픔의 병이 우세한데, 빵이 레모네이드보다 더 필요하기 때문에 빵이 더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배적인 필요 때문인데, 사람들은 죄와 자기기만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희망의 근원을 살펴보면, 희망이 우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의 근원은 [신성한] 자비이고, 두려움의 근원은 [신성한]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친절과 관대함을 지지하는 이러한 [신성한] 특성들을 숙고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키우며, [신성한] 사랑의 지위보다 더 높은 [영적] 지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 종의 초점은 그분의 진노와 불쾌함에 대해 논쟁하는 신성한 특성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특성들로 인해 경외심이 커지며, 희망을 통해 얻는 것보다 신성한 사랑과 갈망을 얻는 것이 더 크다.

우월함이 아닌 개혁적 대상: 실제로 두려움과 희망은 그 자체로 필요하지도 목적도 아니며, 다른 무언가를 위해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우수'보다 '교정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원칙이 받아들여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은 희망보다 더 개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에 지배당하고 있으며, 두려움의 채찍 없이는 죄를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그들을 [더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대담하게 만들 수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은 내면과 외면에서 정화되었으며, 두려움과 희망 사이의 절제와 균형은 개혁적입니다. 그래서 이 명언이

매우 유명합니다. "믿는 자의 두려움과 희망을 저울질하면 두 가지는 평등하게 나온다". 알리(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아들 중 한 명에게 말했다. "하나님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라. 세상의 모든 선행을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라. 그리고 많은 희망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모아도 큰 희망을 가지라, 그는 여전히 당신을 용서할 거예요."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만약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발표된다면,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내가 그 사람이 될 희망이 있을 것이고, 만약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발표된다면, 나는 그 사람이 될까 두려워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오직 우마르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만이 동등할 수 있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죄를 짓는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선언을 듣고 단 한 명만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자기기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강한 마음을 가진 이들은 영지(*마리파*, 신성한 존재와의 친밀함)에서 완벽함을 지니며 , 두려움과 희망이 평등하며, 희망에만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매우 [놀라운 영적] 상태에 있어서 항상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고, 자신의 심장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병을 찾아내기 위해 매우 신중하게 여겨 후다이파(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에게 "내게 위선의 징후가 보이지 않았나요?"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는 무함마드 선지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가 위선의 징후를 자신에게 알렸기 때문이라고 요청했다. 오늘날 누가 위선과 숨겨진 다신교(*쉬르크*, 신과의 동반자 귀속, 신 외의 것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귀속되어야 할 것을 다른 것에 귀속하는 것)에서 마음을 정화하고 정화하는 사람인가요?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이 [모든 악과 잘못에서] 정화되었다고 결정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과 더러운 내면의 상태에 대한 신의 응징으로서 마음속에 [내면의] 정화를 심으셨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일 수도 있을까요? 설령 누군가가 정화를 지녔다 해도, 어떻게 평생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움 없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자는 두려움과 희망을 모두 가져야 하며, 두 가지 사이에 균형과 평등이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에게 희망이 지배당하는 것은 그들의 이해와 지식 부족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꾸란은 [신의 종들]의 [숭고한] 성품이 언급된 두 가지 특성을 결합했다:



"그들은 주님께 희망과 두려움으로 간청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제공한 양으로 [자선 활동에 사용]합니다." (꾸란 32장 16절)

하지만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처럼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은 [영적] 결의를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 때문에 오늘날에는 두려움이 절망에 빠지거나 [의로운] 행동을 포기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는 한, 사람들에게 더 적합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두려워하며 용서받을 희망이 없다는 이유로 [의로운] 행위를 버리고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은 오히려 해롭다. 유익한 두려움은 경건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게 만들고, 욕망에 혐오감을 주며, 세상에 가깝게(세속성) 기운을 주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다.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장기에 영향을 주지 않아 악행에 대한 증오를 일으키거나 선한 행위를 하도록 설득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절망을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말씀을 요약하자면, [희망과 두려움의 특성]이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오기 전까지는 두려움이 더 유익하고 적절하며, 죽음 때에는 희망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좋은 기대가 더 적합하다. 두려움은 종에게 [바로]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채찍과 같지만, 죽음에 임한 자는 더 이상 [경건하고 의로운] 행동을 할 능력이 없으며, 두려움이 [죽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죽음에 가까워지게 하는 두려움을 견디는 것도 불가능하며, 희망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존재의 모든 혈관과 섬유에 불어넣는다. 하나님의 종(즉, 인간)에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사아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등불이 마음을 비추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사랑, 그리움,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을 바라는 것, 신성한 환시, 지식, 그리고 [의로운] 행동을 바라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지(*마리파*)이며, 그 결실(결과)은 사랑입니다. 영혼을 가진 모든 사람(인간)은 죽음 후에 그분께 돌아가야 하며, 그곳이 최종 거처이자 목적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에 걸맞은 행복의 정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사람은 사랑에 상응하는 고통의 정도를 경험한다. 만약 누군가의 마음이 배우자, 자녀, 집, 땅, 재산, 친구, 친척에 대한 사랑으로 지배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사랑하는 모든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 사람의 낙원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결합한 특정 장소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죽음은 낙원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아서, 죽음이 사랑하는 것과 사이의 장막이 되어, 고난 속에서만 견딜 수 있는 고통입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삶을 떠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오직 신성한 기억과 관조, 하나님의 영지에 대한 집착과 갈망만을 가지고 세속적 장애물과 연결(집착)을 자신에게 해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감옥이라면, 이곳에서는 잠시나마도 평온을 찾지 못하고 항상 이 감옥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제 죄수가 감옥에서 해방될 때 사랑하는 이를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종이 육체의 감금에서 해방된 후 가장 먼저 찾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위해 따로 마련하신 신성한 보상과는 별개입니다. 이 신의 보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아무도 본 적도, 듣지도 못한 것, 심지어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은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삶보다 내세의 삶을 더 선호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만족을 찾는 이들을 위해 이 신성한 보상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떠날 때 불신자가 겪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종들에게 내리신 벌과는 별개입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고통, 사슬, 함정, 굴욕과 경멸의 수단이 존재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분이 선택한 때, 이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인 죽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상태로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받아들일 희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지 않고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이외의 사랑이 마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 획득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예: 재산)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명성, 고향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시점에 희망이 지배하는 것은 [신성한]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욕망의 불꽃을 꺼지며 세상의 사랑을 마음에서 빼앗기 때문에 개혁적입니다.

불길한 결말에 대한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두려움

모든 구절과 전통을 듣고 나면, 두려움 없는 사람은 어리석거나 무지한 사람뿐일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마음을 희망의 부드러운 바람으로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불타올랐을 것이다.

나쁜 결말이나 불길한 결말의 의미: 나쁜 결말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단계는 죽음의 고통과 속에 마음이 지배당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품거나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며 그 상태로 죽는 경우입니다. 이 의심과 거부는 하나님과 한 사람 사이에 영원한 장막을 만드는 매듭이며, 이런 영구적인 장막은 하나님과 내세의 벌을 멀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 나쁜 결말은 첫 번째보다 더 낮은 단계로, 죽음 시점에 자신의 마음이 세속적인 일에서 나오는 모든 물질이나 세속적 욕망에서 나오는 욕망에 지배되어 마음과 정신을 흐리게 하여 모든 감각이 그 안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마음과 마음 속에] 욕망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영혼이 그 상태로 납치(죽음)된다면, 마음이

세속적 욕망과 바람에 빠져 하나님 이외의 것에 집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과 한 사람 사이의 장막 같은 형태입니다. 베일(하나님과의 먼 상태를 상징하는 것처럼)은 하나님께서 피우신 불꽃이 베일(신성한 먼 것)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성한] 벌을 초대합니다. 내면의 영적 병이 없는 건전한 마음을 가진 신자, 세상(세속적)에 무지하고 [자신의 책임만 제외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자라면, 이 불꽃은 그런 사람에게 말합니다. "오, 믿는 자여! 나를 지나가게 해 주세요 [평화롭게]. 당신의 빛이 내 불꽃을 껐습니다."

나쁜 결말의 원인: 나쁜 결말로 이끄는 원인들은 셀 수 없이 많으며 모두 포괄할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이 집단적으로 암시할 수 있다:

첫 번째 원인 - 의심과 거부: 하나님과 그분의 예언자들, 그리고 그분의 [계시된] 책들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박탈당하고 논쟁과 논쟁에 빠진 자는 우리가 암시한 [불길한 결말]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닮음은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전복되어 반항하는 파도에 휩싸인 사람과 같습니다. 이 파동들은 어디서든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사히 해안에 도착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사(익사) 사망합니다. 그래서 신성한 존재와 속성의 실재를 찾는 것은 순수한 무지이며, 위험을 바다에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지성의 한계에서 벗어나 예언자와 영지의 지평선에 비치는 영적 드러나는(조명) 빛에 접근할 수 있는 자들은 [성공적으로 안전의 해안에 도달한다]. 모든 일반인이 이 완벽함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토론과 논거의 길에는 수많은 위험이 가득합니다. 지옥의 불을 두려워하는 단순한 사람들이 이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면, 신성한 순종에 몰두하세요. 그들은 불필요한 토론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의심과 거부로 인한 [나쁜] 결말의 두 번째 형태는 현실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세상에 대한 사랑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약함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약해지지만, 그 정도에 따라 세속적인 사랑은 강할 것입니다. 이 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을 여유가 없을 정도이며, 오히려 잠시 태어나다 끝나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의 지위를 취할 것입니다. 그 영향력은 하위 자아에 반대하거나 사탄적 길에서 벗어나게 할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의 자연스러운 결과는 인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망에 빠져 마음이 굳고 어두워지는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 어둠과 마음의 단단함은 죄에 비례하여 희미하게 빛을 내뿜던 믿음의 등불이 갑자기 꺼지고, 마음에 믿음의 빛이 남아 있지 않다는 느낌조차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둠은 사람의 본성, 기질, 목적이 된다. 죽음의 고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약함은 더욱 커집니다. 왜냐하면 세상, 즉 사랑하는 이가 마음을 지배하는 임박한 이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별이 다가온다는 깨달음은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그때 마음속에 죽음 때문에 세상과 자신이 이별할 것이라는 생각이 생기며,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생각이 생깁니다. 따라서 죽음을 나쁘게 여기며, 세상을 사랑하는 열정 속에서 하나님과 적대감을 갖기 시작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 예는 아들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의 재산에 대한 큰 사랑을 가진 남자의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재산을 낭비하면, 그가 가진 작은 사랑이 증오로 바뀌어 아들을 적으로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오나 적대감이 마음속에서 치솟는 순간에 영혼이 빼앗긴다면, 불길한 결말을 맞이하고 영원히 파멸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세부 사항에서 증명되듯, 이 상황에서 나쁜 결말을 맞은 이유는 마음이 세상에 대한 사랑에 지배당했고, 세속적 수단에 기울어 믿음이 약해져 하나님의 사랑도 약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배운 것은, 만약 세상에 대한 사랑이 굴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 지배적이라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 존재하더라도, 그 위험은 [나쁜 결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인 - 죄: 이제 나쁜 결말의 두 번째 원인을 언급하겠습니다. 이 원인은 의심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죽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볍고, 영원히 지옥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유형의] 끝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강할 때 죄가 많고, 둘째는 죄가 적은 반면 믿음이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부] 원인인 죄의 풍요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욕망에 지배당하고 욕망과 습관 때문에 욕망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평생 익숙해져 온 것들이 바로 그 순간 떠오른다. 따라서 누군가가 [신성한] 순종에 기울어져 있다면, 죽음 순간에도 [신성한] 순종에 주의를 기울이며, 기억하고 언급한다. 죄에 기울어진 자는 죽음 순간에도 마음을 지배합니다. 또한 마음이 세속적인 욕망이나 죄에 지배당할 때 영혼이 그런 상태로 끌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베일링을 받게 되고, 불길한 결말을 맞이할 위험이 큽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면, 그 이유는 잘못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에 욕망과 갈망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은 하위 자아(*Nafs*)의 욕망에 복종하며, 불운이 [자신의 부주의와 잘못 때문에] 지배적이며, 마음의 무심함을 목격하지 못하게 합니다. 죽음에 가까워도 깨어나지 않으며, 죄가 많아도 내면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떨는 [하나님의 종들]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은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나쁜 결말에 대한 두려움이 죄를 지르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세상의 부를 축적하고 싶을 때, 우리는 경작하고, 묘목을 심고, 사업을 하고, 바다에서 배를 타고, 사막에서 말을 달리며, 여행의 고난과 고난을 견뎌내며 [세속적 이익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상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적 지위를 원한다면 지식을 추구하고, 밤새 [지식의 포인트]를 반복하고 암기하며, 우리의 영양분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고군분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양을 주실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집에 앉아 영양분을 기다리지 않으며, 단순히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오 신이시여! 우리에게 음식을 줘!" 그러나 영원한 지배에 관한 질문이나 낙원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 우리는 단지 입으로 "오 하나님! 용서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신뢰하는 고귀한 존재는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وَأَن لَّيْسَ لِلْإِنسَٰنِ إِلَّا مَا سَعَىٰ

"인간은 자신이 노력한 것만을 얻는다." (꾸란 53장 39절)

وَلَا يَغُرَّنَّكُم بِٱللَّهِ ٱلْغَرُورُ

"속이는 자(사탄)가 너희를 하나님에 대해 망상에 빠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꾸란 35장 5절)

[안타깝게도,] 이 모든 구절들은 우리를 예고하지도, 오만함과 [단지] 소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하지도 않는다 [우리 스스로의 무지함 때문에]. 실제로 행동 없이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갖고, 필요한 행동을 한 후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은 큰 손실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노, 욕망, 적대감, 질투, 오만, 자기 의로 가득 찬 다양한 야생 동물과 독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내면의 특성(성격 특성과 내면의 성향)은 무관심한 상태에서 항상 공격하는 야수들이다. 하지만 인간은 이러한 내면의 짐승과 해로운 동물들의 수간 간 고통을 느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죽음 때 장막이 걷히면, 이 [내면의] 짐승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왜 내면의 짐승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는 훈계를 받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내면의] 짐승들을 통제하거나 해로운 동물들을 죽이고 싶다면, 죽기 전에 그들을 통제해야 하며, 당신이 세상에서 멸종하기 전에 그들을 박멸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이 당신을 집어삼킬 것임을 기억하세요.

14장 –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필요를 담는 겸손, 가난 견습, 세속적 및 물질적 집착으로부터의 금욕

탐욕과 물질주의는 우리 시대의 두 가지 전염병으로, 개인과 국가 차원 모두에서 존재합니다. 이 두 내면의 병은 개인과 국가를 끝없는 탐욕으로 몰아넣어 영혼의 공허함을 초래하고, 부당하게 타인의 소유를 빼앗아 빼앗는 갈등과 전쟁을 초래하며, 상호 적대감과 증오, 박탈을 조장하여 개인 차원의 내적 평화와 평온, 집단 차원의 국가와 공동체 간의 우호를 허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탐욕은 일부에게는 빈곤과 절망을 조장하고, 다른 이들은 사치를 즐긴다. 이 두 가지 개인적, 집단적 쇠약한 병에 대한 치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필요함을 깨닫고, 은혜와 인내로 가난을 견디며, 세속적 지배와 물질주의로부터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절대 필요를 가진 겸손, 가난을 견디며 인내와 인내, 우리 자신의 발전을 위한 인내, 세속적 집착과 물질적 집착을 멀리하는 것은 위대한 내면의 덕목이자 영적 덕목이며, 영혼의 관대함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누구에게서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모든 의미에서 엄청난 나누기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타인이 가진 것에 대한 무지함은 진실성, 진실, 관대함, 가난이나 결핍에 대한 두려움 없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 특히 가난 속에서 인내와 정직한 노력, 민족과 국가 간의 내면과 외면의 평화, 그리고 수많은 긍정적인 내면의 자질로 이어집니다. 가잘리는 그의 *대작*『*Ihya al-Uloom ad-Deen*』 또는 "하나님의 길에 대한 지식의 부흥"의 네 번째 권에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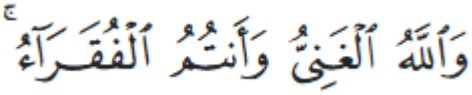
핵심 주제에 대해 탁월하고 통찰력 있는 접근을 제공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다 [20]:

세상(세속적)은 하나님께 적대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속임수에 빠져 잘못된 길로 인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속임수에 빠져 넘어졌습니다. 그 우정은 죄와 악의 근원이며, 이에 대한 반대가 모든 선행과 선행의 근원이다. 여기서는 세속에서 멀어지고 절제하는 것의 탁월함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는 개인과 집단 차원에서 긍정적인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는 내면의 건설적이고 회복력을 부여하는 특성(*문지야트*)의 핵심입니다. 마음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될 때까지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문제들로부터] 해방의 희망이 없으며(세속적 집착), 그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세상이 가난이라 불리는 가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아니면 자발적으로 세속에서 벗어나는 금욕(*주흐드*)이다. 이 두 형태는 영성에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승리(*사아다*), 세속 생활에서의 성공, 그리고 사후 세계의 구원에 도움을 주는 데 있어 서로 다른 정도를 지닙니다. 먼저, 빈곤[영적·물질적]과 금욕[세속적]의 현실, 그 유형, 조건, 그리고 [신성한] 명령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빈곤에 대해 논의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금욕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신 앞에서의 가난 또는 물질적·영적 절대적 결핍의 현실과 영적 여행자의 내면 상태

빈곤은 필요한 것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빈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 존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가난하다고 불리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이해했다면,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는 가난하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할 필요가 있고, 어떤 것의 존재나 존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뜻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존재의 영역에 있고 그 존재를 위해 다른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부유하다 [또는 모두와 모든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급자족자]이며, 그런 존재는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의 존재뿐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자급자족하며, 그분의 존재는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그분을 제외한 모든 것은 이 한 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위해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꾸란에서 바로 이 현실을 가리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자급자족하시며(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시지만 그런 것들은 필요 없으시니까요), 여러분 모두는 가난한 빈곤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고, 여러분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의존할 정도로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십니다]." (꾸란 47장 38절)

여기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빈곤이나 결핍의 절대적 의미를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부와 물질적 소유의 빈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종은 셀 수 없이 많은 필요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부로 충족될 정도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나 물질적 소유물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갖지 못했지만 필요한 물질에 대해 가난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간은 다섯 가지 빈곤 상태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 이 주가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 부를 얻으면 그 존재에 대해 나쁘게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며, 받아들이기를 망설이고, 나쁘다고 여기며, 그 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이 상태를 세속적 절제(*주흐드*)라고 하며, 이 상태를 가진 사람은 금욕(*자히드*)*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상태: 부를 얻는 것에 대해 너무 큰 욕구가 아니라서 그것을 얻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얻는 것에 대해 고통스러울 정도로 부를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용기가 너무 커서 그것을 얻으면 떠날 수 있다. 그러한 상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자라고 불린다.

세 번째 상태: 마음이 부를 얻는 것보다 부를 얻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 마음이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 만큼 강하지 않은가? 대신, 고난과 노력 없이 그것을 얻으면 만족하지만, 그것을 얻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는 탐닉을 멈춥니다. 그런 상태를 가진 사람은 현재 존재하는 것에 만족하며, 더 많은 [부]를 얻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얻으려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불립니다.

네 번째 상태: 부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과 약함 때문이며, 그렇지 않으면 부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마음에 존재하며, 부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전략을 실행하는데, 이는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도 부를 추구하거나 노력해도 부를 얻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상태를 가진 사람은 탐욕스럽다고 불립니다.

다섯 번째 상태: 부와 물질적 소유가 필요로 하지만 박탈당한 경우입니다. 배고프지만 빵이 없는 사람이나 옷이 없는 사람처럼요. 이 상태를 가진 사람은 욕구가 약하든 강하든 필요에 의해 강요받는 자라고 불립니다. 필요에 의해 강요당하는 상태에 있어서 강제로 추구되는 것에 기울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것이 [인간의 빈곤 상태]의 다섯 가지입니다. 이 중 가장 높은 상태는 절제(*주흐드*)이며, 필요에 의한 강박과 금욕이 결합되면 물질적 소유에 대한 매우 높은 영적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다섯 상태 모두보다 더 높은 국가가 있는데, 그것은 하인이 부와 물질적 소유의 존재 여부를 동등하게 여기는 상태입니다. 부를 얻으면 마음은 행복하지도 아프지도 않고, 재산을 얻지 못하면 마음도 행복하지도 아프지도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세상의 모든 보물을 모아 한 사람에게 넘기는 상태라면, 그 보물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해하기 때문에 해를 입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들이 자신의 소유(소유) 하에 있더라도 — 오늘은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내일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두 [물질적 소유를 가진 상태와 없는 상태]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그런 사람은 부와 물질적 소유를 가지고 있든 없든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다고 불립니다. '무지하다'와 '부유하다'는 두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 [단어] 부유하거나 자급자족하는 것은 하나님께 적용되며, [훨씬 덜하지만] 많은 부를 가진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들은 부의 풍부함에 만족하는 이유가 그 부를 자신들과 함께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가난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지한 사람은 그 재산이 자신의 소유에 들어오는 것도, 그 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는 부를 가졌을 때 느끼는 고통을 느끼지 않아 그것을 없애야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유지할 만큼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며, 부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에 대해 무지한 사람을 부자이거나 자급자족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에 대한 무지함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하나님의 도움 같은 것들].

금욕과 무지함: 금욕(세속적)은 엄청난 [영적] 정도로, 의롭고 경건한 자들의 최고 등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를 갖는 것과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의 가까운 존재들(영지주의자)입니다. 이 점에서 금욕은 무지한 자에게는 해롭다. 왜냐하면 [속담에 따르면] "경건한 자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의 가까운 이들에게 죄와

동등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세상에 대한 혐오(세속됨)가 금욕에서 발견되며, 이는 금욕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빠져들고,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한 탐닉은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장막입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없으니 이 거리를 '베일'이라고 부를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경동맥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또한 하늘과 땅이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장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장소나 장소에서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과 다른 것과 관련된 당신의 약혼과 집착은 바로 베일입니다. 자신의 낮은 자아와 욕망에 빠지는 것은 신 이외의 것에 대한 탐닉과 같다. 왜냐하면 당신은 항상 자신(*나프스*)과 욕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자기 사랑(*나프스*)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며, 마찬가지로, 자신을 미워하는 데 몰두한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비유는 연인과 사랑하는 사람이 모두 모인 모임에서 경쟁자가 들어오는 모임에 관한 것입니다. 연인의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의 경쟁자에게 집중되어 경쟁자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연인이 경쟁자를 원망하는 상태에서는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는 즐거움을 빼앗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인이 사랑하는 이의 사랑에 몰두해 있었다면, 경쟁자에게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고, 경쟁자의 방해에도 신경 쓰지 않았으며, 경쟁자에 대한 싫어함을 표현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사랑받지 않는 사람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거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사랑하는 파트너(*Shirk*)를 귀속시키는 것과 같으며 연인의 잘못입니다. 사랑의 완전함은 사랑받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데 있습니다. 두 사랑이 동시에 마음속에서 결합될 수 없는 것처럼, 적대감과 사랑도 동시에 결합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무관심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먼 거리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즉, 세속적)은 신과 가까워지는 길을 걷고 있으며, 그렇게 하여 신성한 임재의 상태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에 따라 걷고 있습니다.

이 세부사항들로 보아, 인간의 빈곤 등급은 총 여섯 단계에 달하며, 그 중 가장 높은 정도는 무지하다가 금욕하다가 동의하고 만족하다가 결국 탐욕스러운 자에게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강제받는 사람, 즉 금욕, 신의 뜻에 동의하고 만족하는 것은 모두 상상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강제된 사람의 정도는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난하다'라는 단어는 다섯 가지 등급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무지한 사람을 물질적인 의미에서 가난하다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지만, 무지한 사람은 모든 일반적인 문제, 특히 물질주의에 무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이 용어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 무지한 사람을 가난하다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됨을 이해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비록 '종'이라는 단어는 모든 창조물에 적용된다는 뜻이지만.
가난하다는 단어를 '가난하다'는 말을 쓰는 것이 더 적절하며, 모든 무책임하고 무심한 개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난과 절대적 필요함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 이 이름에 더 합당합니다. 따라서 가난하다는 단어는 물질적 소유의 부족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 양쪽 모두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영적 가난의 탁월함 또는 절대적 필요

압둘라 빈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가 동료들에게 사람들 중 누가 선한지 물었고, 그들은 "자비로 베푸는 부와 신성한 길에서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리를 다루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전했다. 예언자는 "그런 사람은 선하지만 내가 묻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다, "오 하나님의 예언자여! 그럼 누가 더 나은가?" 예언자는 "열심히 일하다가 포기하는 가난한 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내레이션 아*부 만수르 앗-*

다일라미 하디스 *모음*집). 유명한 전통에 따르면,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يدخل فقراء امتي الجنة قبل اغنيائهم بخمس مائة عام

"우리 나라의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보다 500년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부자들은 신의 책임 때문에 그들의 재산과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 말이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수집* 티르미디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이 전통은 금욕하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부를 갈망하며 천국에 들어가기 500년 전에 진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대천사 가브리엘은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를 방문하여 하나님께서 "오 무함마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인사를 보내며 묻습니다. '내가 산을 금으로 바꾸어 당신이 사는 곳마다 함께 움직이길 원하십니까?'"라고 말합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고개를 숙이고 말씀하셨습니다:

يَا جِبْرَئِيلُ إِنَّ الدُّنْيَا دَارُ مَنْ لَا دَارَ لَهُ وَمَالُ مَنْ لَا مَالَ لَهُ وَلَهَا يَجْمَعُ مَنْ لَا عَقْلَ لَهُ

فَقَالَ يَا مُحَمَّدُ ثَبَّتَكَ اللّٰهُ بِالْقَوْلِ الثَّابِتِ

"오 가브리엘! 세상은 집이 없는 자의 집이며, 부가 없는 자의 부이며, 지성이 없는 자가 축적한다"고 말했다. 가브리엘이 말했다, "오 무함마드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만드셨다"고 말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아부 우마마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티*르미디를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이 이야기는 하*디스* 모음집 *무스나드 아흐메드에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은 여행 중에 땅에서 잠든 한 남자를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는 그를 깨우며 말했다, "오, 잠든 너!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억해!" 그는 "나한테 뭘 원하느냐?"라고 대답했다. 나는 세상을 떠나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왔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친구여! 계속 자고 있어." 하나님께서 무함마드 선지자께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وَلَا تَمُدَّنَّ عَيْنَيْكَ إِلَىٰ مَا مَتَّعْنَا بِهِۦٓ أَزْوَٰجًا مِّنْهُمْ زَهْرَةَ ٱلْحَيَوٰةِ ٱلدُّنْيَا لِنَفْتِنَهُمْ فِيهِ ۚ وَرِزْقُ رَبِّكَ خَيْرٌ وَأَبْقَىٰ

"그리고 우리가 여러 집단의 사람들에게 주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들을 보려고 눈을 들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세속 삶의 반짝임일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양분은 훨씬 더 좋고 영원합니다." (꾸란 20장 131절)

특정 유형의 가난한 사람들의 우수성 – 동의하고, 논쟁하며, 진실성: 무함마드 예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طُوبَى لِمَنْ هُدِيَ إِلَى الْإِسْلَامِ وَكَانَ عَيْشُهُ كَفَافًا وَقَنَعَ بِهِ

"기쁜 소식은 신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인도된 자를 위한 것이며, 그의 경제가 자신의 필요에 맞춰져 있으며, 그것에 만족하는 자이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파달라 이븐 우바이드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수집* 티르미디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يَا مَعْشَرَ الْفُقَرَاءِ أَعْطُوا اللَّهَ الرِّضَى مِنْ قُلُوبِكُمْ تَظْفَرُوا بِإِثْوَابِ فَقْرِكُمْ وَإِلَّا فَلَا

"가난한 무리여!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일치하여 가난의 신성한 보상을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얻을 수 없다." (내레이션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아부 만수르 아다일라미 *의 하디스* 모음 집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스마엘(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에게 신성한 계시를 계시하셨습니다. "상심한 백성들이 나를 찾아라." 그가 물었다, "그들은 누구야?"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절망적인 절박함 속에서]인 가난한 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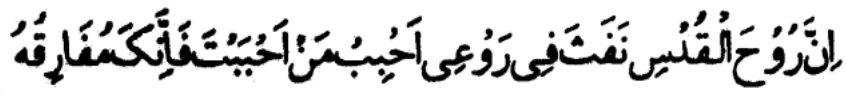
만족의 반대가 탐욕이라는 사실은 숨겨지지 않았다.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쁘게 하시길)는 "탐욕은 사실 가난이며,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는 실망은 부입니다. 사람들의 부와 재산에 대한 기대가 없고 만족을 취하는 자는 그것들에 대해 무지(무관심)하게 남는다"고 말했다. 아부 마수드(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매일 천사가 [신성한] 왕좌 아래에서 부르신다, '아담(인간)의 아들이여!' 네가 만족하는 작은 것이, 반항적으로 만드는 많은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아부 다르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말했다, "지성에 결함이 없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자신의 세계(세속적 재산과 부)가 늘어날 때, 밤낮이 자신의 시대(삶)의 궁전을 허물느라 바쁘고 그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더라도 매우 기뻐합니다. 이 불운한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남은 수명이 줄어든다면, 물질적 소유를 늘리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을지 모른다." 어떤 현명한 사람이 "부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그 사람은 "[부는] 당신의 소망과 욕망을 줄이는 행위이며,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만)에 만족하는 것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빈곤과 부의 우월함의 현실: 인내에 관한 논의에서 언급한 이 원칙은, 그 자체로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인 것, 그 탁월함과 완전성은 그 목적의 탁월함과 완전성으로부터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같다. 그래서 세속적인 부와 소유는 하나님의 종(즉, 인간)이 하나님께 닿는 것을 막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난 역시 그 자체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르는 것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추구됩니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들의 부는 신과 멀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예언자 솔로몬(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 [예언자

동료들] 우스만 빈 아판(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압둘 라흐만 빈 아우프(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가 그렇다. 반면, 가난으로 인해 진정한 목표[하나님을 찾는]에서 벗어난 가난한 이들도 많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애착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오직 신의 그노시스(신성한 근접, 친밀, 지식)에 도달할 때만 달성될 수 있으며, 그노시스의 영역에 발을 들여 그것을 건너는 것은 [세속적] 얽힘과 얽힘 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부가 장애물이 될 수 있듯이, 가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길을 걷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지와 신성한 친밀감에 도달하는 진짜 장애물은 세상에 대한 사랑[그리고 세속적]이며, 이는 신성한 사랑과 결합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무언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몰입하며, 분리에 몰두하든 그 존재에 몰두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리에 더 몰두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물의 존재] 속에 있는데, 이는 모두 그들의 상황과 성향의 차이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존재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지 못한 무책임자들]의 사랑받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와의 친밀함]에 대한 관상에 몰두하며, 사랑하는 이와의 친밀함에 도달한 이들은 그 보호에 몰두하며 가능한 한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대천사 가브리엘)께서 내 마음에 이것을 심으셨다: 원하는 사람(또는 무엇을)을 사랑하라면, 반드시 그것과 분리될 것이다."

이 예언적인 서술에서는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이 [항상] 가슴 아프고 극도로 강렬한 사건(경험)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떨어지지 않을 분을 사랑해야 하며,

그 사랑받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그리고 다름 아닌 하나님)일 수 있으며, 절대 당신과 떨어지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과 분리될 운명인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을 사랑했다면, 내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죽음은 당신이 그것을 나쁘다고 여기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죽음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결(세상, 세속적인 것들, 애착, 관계, 부, 소유물)이 [영구적으로] 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마음이 그 사랑에 대한 애착과 갈망, 사랑을 가질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세속적 수단과 자원)을 가진 자는 그것에 집착합니다. 세상(세속적 수단과 자원)조차 갖지 못했지만 여전히 탐욕스러운 사람과 비교하면, 그런 사람은 세상과 분리될 때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의도는 이제 가난이 우월하며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창조물에 더 적합하다는 상세한 설명으로 명확해졌어야 한다: 첫째, 한 사람의 무지함은 부의 존재 여부가 모두 하나와 같다는 점이다; 둘째, 가난할 때는 삶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만을 구합니다. 이것은 빈곤과 부유함 사이에서 무엇이 우월한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빈곤 상태에서의 빈민의 예절: 가난한 사람들은 내면과 외면의 예절이 있으며, 이는 자신의 행동과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이러한 예절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면의 예절: 내면의 예절은 자신이 겪은 가난한 상태를 경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행위(가난 상태에 관한)를 하나님이 그 행위를 하신 것에 비하면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층 자아(*Nafs*)는 가난을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신의 행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의 예절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가난한 자가 이를 준수해야 하며, 신성하게도 그 반대 행동을 하는 것은 신의 보상을 낭비하게 되므로 신성하게 금지된다.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은 자신의 가난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은 가난을 추구하는 사람이며, 재앙과 부의 해악을 잘 알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며, 반드시 [신성하게 정해진]영양분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필요 이상을 원하지도, 필요한 양 이상을 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가난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알리(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통해 벌을 주고 보상하신다. 신의 보상(보상)을 누군가에게 주려는 것이라면, 이는 그 사람이 좋은 성격, 도덕, 예절, 내면의 성향을 지녔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의 가난한 상태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불평하지 않고, 대신 가난하게 만든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난으로 벌을 받고 있다면, 그 징후는 성격이 나쁘고 성격이 급해져, 주님의 순종을 버리고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 불평하며, 하나님의 결정에 불쾌하고 싫어함을 표현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로부터 모든 가난한 사람이 좋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가난에 불만을 느끼지 않고 그 혜택에 만족하고 행복한 가난한 사람이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이 증명된다. 하나님의 종이 물질적 재산이나 부와 관련해 무언가를 허락받았을 때, 그것을 세 가지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면죄부, 걱정과 걱정, 그리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확장된 책임입니다.

외적 예절: 가난한 사람이 지켜야 할 외적 예절에는 누구 앞에서도 손을 내밀지 않기, 외모를 최대한 좋게 유지해 사람들이 자신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게 하는 것, 자신의 상태를 누구에게도 불평하거나 가난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 오히려 가능한 한 비밀로 유지하고 가난을 숨기는 것이 포함됩니다. 행동의 예절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 앞에서 겸손을 표현해서는 안 되며, 부자 앞에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가난한 사람은 부자와 함께 앉거나 그들과 나란히 앉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탐욕과 탐욕을 낳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속성으로부터의 금욕에 대한 설명

금욕의 현실: 금욕(주흐드)[물질주의와 세속성으로부터]는 영적 여행자와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여러 정거점에서 중요한 [영적] 정거점임을 *알리고*자 한다. 이 정거장은 다른 정거장들과 마찬가지로 지식, [내면] 상태, 그리고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금욕이라고 불리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의미는 어떤 [세속적이거나 물질적]에도 더 나은 성향이 남아 있지 않고, 그보다 더 나은 무언가에 대한 성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끝난 성향에 관해서는 금욕이라 부르며, 지금 욕망하고 성향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상태를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즉, 금욕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 하나는 벗어나야 하고, 두 번째는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기울어지는 것이 금과 은처럼 기울어질 수 있어야 하며, 돌이나 벽돌 같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것이 첫 번째보다 더 나아야 성향이 우세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내세를 위해 팔아먹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금욕하는 것이고, 내세를 위해 팔아먹는 자는 내세에서 금욕하는 것이다. 하지만 '절제'라는 단어는 세상으로부터 금욕하는 사람에게만 쓰는 것이 관례입니다. 금욕이 사랑하는 것을 떠나는 것이라고 증명되면, 그 사랑하는 것을 떠나는 사람이 그보다 더 큰 것을 이룬다는 것이 자동으로 증명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더 사랑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금욕의 여러 정도: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과 분리되어 천국에 대한 탐욕조차 없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금욕자'(*자히드 무틀락*)라고 불립니다. 모든 세속적 쾌락을 멀리하고, 천부, 땅, 시내, 과일 등 내세의 쾌락에는 끌리는 사람으로, 역시 금욕이지만 첫 번째보다 덜 정도입니다. 세상의 일부 즐거움을 포기하고 일부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 부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명성에 대한 탐욕이 있고, 많이 먹지 않고 자신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절대

금욕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금욕자 중 그런 정도는 회개하는 사람이 어떤 죄는 회개하지만 다른 죄는 회개하지 않는 정도와 같다. 이런 종류의 금욕도 유효합니다. 마치 회개가 신의 법에 따라 금지된 것을 버리는 것이고, 금욕은 하위 자아에게 위안과 쾌락을 주는 허용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지된 것을 남기는 것이 이해 불가능한 일이 아니듯, 허용되는 것들은 포기하고 다른 것들은 포기하지 않는 것도 지성에 반하지 않는다. 하지만 금지된 것들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정착하는 사람은 절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허용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로부터 금욕이란 용어적으로 자신의 성향(욕망)을 세상에서 제거하고 내세로 향하거나, 하나님 이외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직 하나님과 맺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는 전에 원하는 것이 금욕자가 버린 것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버리는 대상에 대해 통제권(권력, 능력 또는 관할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한다는 의미가 없으며, 욕망의 쇠퇴는 오직 그것을 버릴 때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븐 알-무바라크(신의 자비를 베푸시길)에게 그를 금욕자라고 부르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금욕하는 자는 우마르 빈 압둘아지즈(거대한 정치적 권력과 권위를 지녔음에도 경건함과 절제로 알려진 의로운 칼리프)로, 세상이 손을 모으고 [복종하는] 그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는 얼굴조차 돌리지 않았다. 내가 무슨 금욕을 했는가?"

지식의 의미: [앞서 논의했듯이, 금욕은 지식, 내적 상태, 그리고 행동으로 구성됩니다.] [내면의 영적] 상태의 원인이자 그 열매인 상태는 금욕하는 사람이 버려지는 것이 욕망받는 것에 비하면 하찮다는 현실을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하고 내세가 더 낫고 지속적임을 아는 자는 말해, 그 기쁨이 그 자체로 선하고 영원합니다. 마치 귀한 보석이 아름다운 얼음 조각보다 좋고 더 오래 지속되며, 얼음

조각의 주인이 그것을 보석과 바꾸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즉, 얼음 소유자가 보석과 맞바꾸어 얼음 조각을 기꺼이 주겠다고 제안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내세의 비유입니다. 세상은 태양(햇빛)에 놓인 얼음과 같아서 점차 녹아내리며 거의 멸종에 가까워졌고, '이후'는 멸종하지 않은 보석과 같아요. 세상과 내세의 차이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정도로 영원하고 영원한 것(내세)을 갈망하게 됩니다. 금욕에 대해 이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충분하다. 즉, 내세가 더 낫고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때로는 지식과 확신이 약하거나 욕망의 지배, 사탄의 지배, 거짓 약속에 속은 사람들조차도 이 현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이 세상과 그 안의 삶에서 데려갈 때까지 세속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길은 후회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애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생전에 누리지 못한 기회 면에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그에 따른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승리].

행위의 의미: 이제 그 행위가 금 욕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행동의 핵심은 한 가지를 뒤로하고, 남겨진 것보다 더 나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금욕은 금욕하려는 대상이 완전히 버려지는 것을 요구하며, 절제해야 할 대상은 세상과 그 모든 수단과 징후를 포함한다. 금욕자는 세상에 대한 사랑(세속적 사랑)을 마음에서 빼내고, 그 대신 신성한 순종의 사랑을 그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다음 마음에서 꺼내는 것과 같은 것을 눈, 손, 그리고 남은 모든 [신체] 기관에서도 제거하고, 이 장기들을 신성한 순종의 끈기와 인내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랑을 마음에서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신성한 순종도 필요합니다.

금욕의 우수성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금욕을 찬양하시고, 그분의 종들(인간)들이 이를 채택하도록 설득하셨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وَقَالَ ٱلَّذِينَ أُوتُواْ ٱلْعِلْمَ وَيْلَكُمْ ثَوَابُ ٱللَّهِ خَيْرٌ لِّمَنْ ءَامَنَ

"그리고 인식과 이해를 부여받은 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 하나님께서 주는 보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부와 물질적 재산을 쫓는 것보다]훨씬 낫다.'" (꾸란 28장 80절)

이 구절에서 절제는 학자(진정한 학식과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여되고, 절제는 지식의 질(속성과 내면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건 정말 큰 칭찬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أُوْلَٰٓئِكَ يُؤْتَوْنَ أَجْرَهُم مَّرَّتَيْنِ بِمَا صَبَرُواْ

"이 사람들은 인내심 덕분에 두 배의 보상과 보상을 받을 것이다." (꾸란 28장 54절)

꾸란 해석학자들은 이것이 금욕에 인내심을 발휘하여 두 배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한 곳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إِنَّا جَعَلْنَا مَا عَلَى ٱلْأَرْضِ زِينَةً لَّهَا لِنَبْلُوَهُمْ أَيُّهُمْ أَحْسَنُ عَمَلًا

"우리는 이 땅의 사물을 꾸며내고 장식하는 원인으로 삼아 세상 사람들이 누가 선하게 행동하는지 시험하려 했다." (꾸란 18장 7절)

꾸란 해석학자들은 이를 세상에서 더 많은 절제를 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그 절제를 '선한 행위'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다. 또 다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وَلَا تَمُدَّنَّ عَيْنَيْكَ إِلَىٰ مَا مَتَّعْنَا بِهِۦٓ أَزْوَٰجًا مِّنْهُمْ زَهْرَةَ ٱلْحَيَوٰةِ ٱلدُّنْيَا لِنَفْتِنَهُمْ فِيهِ ۚ وَرِزْقُ رَبِّكَ خَيْرٌ وَأَبْقَىٰ

"그리고 우리가 여러 집단의 사람들에게 주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들을 보려고 눈을 들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세속 삶의 반짝임일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은 훨씬 더 좋고 오래 지속됩니다(영원하게)." (꾸란 20장 131절)

ٱلَّذِينَ يَسْتَحِبُّونَ ٱلْحَيَوٰةَ ٱلدُّنْيَا عَلَى ٱلْءَاخِرَةِ

"그들은 세상의 삶을 저승보다 더 선호하는 자들이다." (꾸란 14장 3절)

이 구절에서는 불신자들의 성격 특성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로부터 믿는 자는 세상과 반대되는 성격(질)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وَمَنْ أَصْبَحَ وَهَمُّهُ الدُّنْيَا شَتَّتَ اللهُ عَلَيْهِ أَمْرَهُ وَفَرَّقَ عَلَيْهِ ضَيْعَتَهُ وَجَعَلَ فُقْرَهُ بَيْنَ عَيْنَيْهِ وَلَمْ يَأْتِهِ مِنَ الدُّنْيَا إِلَّا مَا كُتِبَ لَهُ وَمَنْ أَصْبَحَ وَهَمُّهُ الْآخِرَةُ جَمَعَ اللهُ لَهُ هَمَّهُ وَحَفِظَ عَلَيْهِ ضَيْعَتَهُ وَجَعَلَ غِنَاهُ فِي قَلْبِهِ وَأَتَتْهُ الدُّنْيَا وَهِيَ رَاغِمَةٌ

"아침에 일어나 세상의 걱정과 집착에 빠져드는 자는 [세속적인] 일들을 흩어주셔서 [모든 것을 묶어두지 못하고 걱정과 불안에 잠기게 하여] 경제적 문제가 어려워지고, [그것들이] 그 사람의 필요와 빈곤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신성하게 운명지어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뿐입니다. 그리고 내세에 대한 묵상 속에 몰입한 상태로 깨어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용기를 모으으셔(용기와 결단력으로 영감을 주십니다), 경제(경제 문제)를 보호하시며, 마음에 풍요로움(자신감과 충분함)을 심어주며, 세상은 그런 사람에게 굴욕을 느끼게 됩니다." (내레이션 자 *이드 빈 타빗의 권위에 따른* 이븐 마자 *하디스* 모음집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إِذَا رَأَيْتُمُ الْعَبْدَ وَقَدْ أُعْطِيَ صَمْتًا وَزُهْدًا فِي الدُّنْيَا فَاقْتَرِبُوا مِنْهُ فَإِنَّهُ يُلَقَّى الْحِكْمَةَ

"하나님의 종이 침묵을 부여받고(조용히 있고 수다 떠들거나 많이 말하지 않으며) 세상에서 금욕을 부여받은 자를 보면,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지혜로 [신성하게] 가르침받고 계십니다." (내레이션 *이븐 칼라드의 권위에 따라* 이븐 마자의 *하디스* 모음집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존경받는 신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وَمَن يُؤْتَ ٱلْحِكْمَةَ فَقَدْ أُوتِيَ خَيْرًا كَثِيرًا

"[신성한] 지혜를 부여받은 자는 엄청난 선을 받았다." (꾸란 2장 269절)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40년간 금욕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에서 지혜의 샘을 내며, 같은 지혜의 말씀이 혀에서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몇몇 예언자 동료들은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에게 이렇게 요청했다고 전합니다: "오, 하나님의 사도여! 누가 더 나은 사람일까?" 그는 이렇게 답했다:

كُلُّ مُؤْمِنٍ مَخْمُومُ الْقَلْبِ، صَدُوقُ اللِّسَانِ

"정결하고 마음에서 정화된 모든 신자(누구에게도 증오, 적대, 질투와 원한을 품지 않는 정한 마음을 가진 자)와 입으로 진실하는(오직 진실을 말하는 자)".

우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 하나님의 사도여! '마음이 정화된 자'라는 말은 누구인가요?" 그는 "부정직함, 배신, 속임수, 거짓, 인위성, 반항심, 질투가 전혀 없는 경건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답했다. 우리는 물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는 이렇게 답했다:

ٱلَّذِي يَشْنَأُ الدُّنْيَا وَيُحِبُّ الْآخِرَةَ

"세속적인 것을 싫어하고 저승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금욕자]." (내레이션 이븐 *마자의* 하디스 *모음* 집 사흘 이븐 사아드의 권위 로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또 다른 전통에서는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إن أردت أن يحبك الله فازهد في الدنيا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길 원한다면, 세상에 살면서 절제해야 합니다." (내레이션 이븐 *마자의* 하디스 *모음* 집 사흘 이븐 사아드의 권위 로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이 예언적 서술에서 금욕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원인으로 선언되었으며,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높은 [영적] 계급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금욕은 하나님께 가는 길에서 가장 높은 [영적] 계단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전통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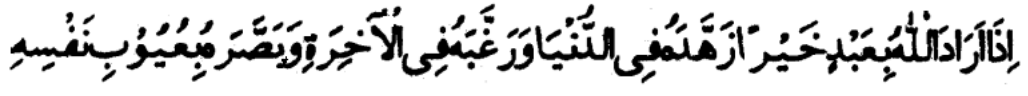
مَنْ آثَرَ الدُّنْيَا عَلَى الْآخِرَةِ ابْتَلَاهُ اللهُ بِثَلَاثٍ هَمًّا لَا يُفَارِقُ قَلْبَهُ أَبَدًا وَفَقْرًا لَا يَسْتَغْنِي أَبَدًا وَحِرْصًا لَا يَشْبَعُ أَبَدًا

"내세보다 세상을 더 선호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세 가지를 주신다: 마음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슬픔, 결코 풍요로움으로 변하지 않는 가난, 그리고 결코 채워지지 않는 탐욕." (내레이션 *압둘라 이븐 마수드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수집* 타바라니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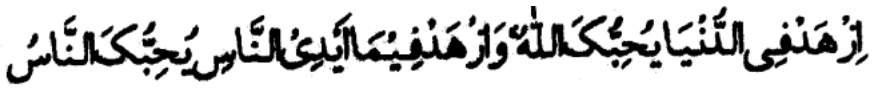
또 다른 전통에서 그는 "종의 신앙은 익명성이 명성보다 더 사랑받고, 무언가의 부족이 풍요보다 더 사랑받기 전까지는 완성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내레이션 알*리 이븐 탈하*(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 집* 무스나드 알-

피르두스(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하나님께서 내게 선택권을 주셨다. 내가 원한다면 메카의 베트하 계곡 전체가 금으로 변할 수 있다. 나는 신께 간청했다, '오 신이시여! 하루는 배고프고 또 다른 날에는 배부르게 먹고 싶다. 내가 배고픈 날에는 주님 앞에서 울고 간청할 것이며, 그날에는 배부히 먹고 감사하고 찬양하리라'"고 말했다. 압둘라 빈 압바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어느 날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가 어딘가로 가고 있었고 대천사 가브리엘이 함께 있었다고 전했다. 그가 메카의 카바 근처 사파 산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말했다. "오, 가브리엘이여! 진리를 보내신 존재 앞에서 맹세하노니, 무함마드 가족은 빵을 만들 보리나 밀가루 한 줌조차 없을 정도로 저녁을 시작했다." 그가 거의 말하지 못했을 때, 하늘 너머에서 큰 천둥 소리가 들려 그를 두렵게 만들었다. 그는 가브리엘에게 물었다. "이 소리는 뭐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의 도래를 명령하셨나요?" 가브리엘은 "아니요, 당신의 말을 듣고 내려온 것은 *이스라필*(심판의 날을 알리기 위해 나팔을 불 천사)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스라필*은 예언자에게 와서 말했다. "네가 한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땅의 열쇠를 가지고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땅의 모든 보물을 너희에게 내려주라].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내가 티하마* 산(아라비아 반도의 홍해 연안 평야)을 에메랄드로 바꾸겠다고 명령하셨다. 베릴, 금, 은은 어디든 갈 거예요. 그리고 원한다면, 예언자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예언자 다윗과 솔로몬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들에게 있기를]) 또는 원한다면 하나님의 예언자 노예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예언자에게 하나님을 위해 겸손을 계속 지키라고 손짓했다. 무함마드 선지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세 번이나 [강조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이자 노예로 남고 싶다(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지위와 존경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는 하나님과의 가장 높은 친밀함과 친밀감의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무함마드 예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선을 의도하실 때, 그는 그 사람을 세상에서 금욕시키고 내세로 기울이게 하며, 하층 자아의 결점(내면의 결점, 결점, 잘못과 악)을 알려주시며"라고 말합니다. (내레이션 *하디스* 모음집 *무스나드 알-피르두스*)



"세상에서 금욕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실 것이고, 사람들이 가진 것에서 금욕하라, 사람들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즉, 마음이 세상에서 분리되면 신성한 사랑을 얻고, 마음이 사람들이 가진 것에서 분리되어 기대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를 사랑하게 된다)."

삶의 필수품에서 금욕에 관한 세부사항: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중 일부는 쓸모없고, 일부는 미신적이지만[다른 것들은 필요하거나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음식과 음료입니다. 쓸모없는 것에 관해서는 무수히 많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필요한 것들은 쉽게 셀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의 양, 종류, 시기에는 쓸모없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금욕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여섯 가지입니다: 음식, 의복, 주거, 가족 생활 수단, 가족, 그리고 재산.

첫 번째 필수품 - 음식: 첫 번째 필수품은 음식입니다. 신체의 힘과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은 그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금욕은 그 길이와 너비를 줄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기간은 나이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동안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탐욕스럽게 여긴다는 것이 관찰되어 왔습니다. 폭은 음식의 양, 종류,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음식을 저장하는 기간은 장수에 대한 희망을 줄여 줄일 수 있습니다. 음식에서 가장 적은 절제는 배고픔을 완화하고 병에 걸릴 위험이 있을 때 필요한 양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인 사람은 낮에 먹은 음식에서 밤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이는 매우 높은 [음식 절제]의 수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한 달 또는 40일 동안 음식을 모으는 것입니다. 3단계는 최대 1년간 음식을 축적하는

것이며, 이것이 가장 약한 금욕자의 상태입니다. 1년 이상 금주한 사람은 어떤 정도의 금욕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이는 1년 이상 살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며, 이는 장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이고, 이는 사람들이 저장하고, 훔치고, 횡령하고, 종종 타인의 희생을 대가로 모으는 영적 병 중 하나입니다. 오랜 희망을 가진 사람은 금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받는 데 관심이 없다면, 1년 이상 부를 저장하는 데 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조건으로 금욕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필수 - 의복: 두 번째 인간의 필요는 의복이며, 가장 낮은 의복 수준은 추위와 열로부터 보호하고 몸을 가리는 드레스입니다. 어떤 현자들은 "옷은 평범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단순한 옷이어야 하며, 유명해지거나 사람들이 당신을 쳐다보게 하는 옷은 입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부 술레이만 알-다라니(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는 "옷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오직 신을 위한 옷으로, 신성한 법에 따라 법적으로 몸을 덮는 옷이다; 둘째는 부드러움을 위해 입는 드레스입니다; 셋째는 외관과 장식을 목표로 하는 드레스입니다. 한 영지주의자는 "옷이 얇은 자는 신께 가는 길도 얇다(얇은 옷을 입으면 종교성과 영성이 결여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 번째 필수 요소 - 주거: 요약하자면, 필요에 맞는 주거를 찾는 사람은 필요 범위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필요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가는 길(*딘*)의 도구이며 그 길에 수입이 되며, 필요를 초과하는 것들은 하나님으로 가는 길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앞두면, 주거 목적은 더위, 추위, 비로부터 보호받고, 사람들의 눈에서 멀리 떨어져 [사생활 보호]하며, 그들의 해로부터도 보호받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이 필요하다는 정도가 알려져 있다면, 그 이상은 쓸모없으며, 모든 쓸모없는 것은 세속성의 명령 안에 있다. 쓸모없는 것을 찾거나 그것을 추구하는 자는 금욕과는 거리가 멀다.

네 번째 필수품 – 가정용품: 이 부분에는 여러 단계의 금욕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은 예수님의 상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로, 그가 가진 것은 빗과 그릇 하나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한 남자가 손가락으로 수염을 빗는 것을 보고 빗을 버렸다. 두 번째로 그를 봤을 때, 그는 맨손으로 개울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손으로 컵을 만들며].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릇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필요와 관련된 모든 재화의 현황입니다. 모든 것은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 필요합니다. 어떤 것에 목적이 없고 그 없이도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과 내세 모두에서 고난의 원천이 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목적에 충분한지 확인하는 낮은 정도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 중 가장 높은 단계는 각 작업마다 별도의 도구를 갖추는 것이지만, 그 도구는 평범한 품질이어야 합니다. 같은 것에 여러 도구가 있거나 품질이 높다면, 한 사람은 모든 금욕 범주에서 제외되고 쓸모없는 일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섯 번째 필연성 – 가족과 결혼: 사실 어떤 상황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점이 있다. 이는 [가잘리의 *대작* "*Ihya al-Uloom ad-Deen*" 또는 "하나님의 길에 대한 지식의 부흥"에 수록된 사회적 교류에 관한 두 번째 권의 "결혼의 책"에서 설명되어 있다. 이 책은 본 저작에서는 생략되었다. 이 경우 결혼하지 못하는 것은 금욕입니다. 하지만 욕망이 지배적이고 결혼 없이는 완화할 수 없다면 결혼은 의무가 됩니다. 이 경우 결혼하지 않는 것은 금욕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결혼으로 인해 재앙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배우자에게 기울고, 마음이 배우자에게 집착하며, 하나님의 기억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결혼하지 않는 것은 금욕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하나님의 기억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서도 동반자와 성관계를 피하기 위해 결혼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히 금욕이 아닙니다. 자손은 인류의 생존과 예언자 증가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숭배 행위이며, 교미에서 얻는 쾌락은 해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쾌락만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면 [그 외의 목적으로는 죄에서 멀리하고 정절을 지키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겸손과 영성, 신성한 예배의 힘을 찾고, 죄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가족을 섬기며 하나님께 가는 길을 걷는 것]. 마치 먹고 마시는 데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을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금욕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금욕은 인간의 몸을 낭비(해롭게)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결혼하지 않는 것이 인류를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멈추면 인류는 멸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관계의 즐거움을 피하기 위해 결혼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나이드(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나는 초보 영적 여행자라면 마음을 세 가지에 두지 않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태가 변한다: 하나는 직업에; 둘째, 예언적 이야기를 추구하는 데 있어 [이 지식은 역사적으로 명성과 명성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 결혼".

여섯 번째 필수 – 부와 명성: 이 두 가지는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수단입니다. 명성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즉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그들이 자신의 행동과 목표를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명성이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내야 할 필요성은 이익을 얻거나 해악을 제거하거나 누군가의 억압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이익을 얻는 데 관해서는, 부가 있다면 명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중하든 아니든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를 막는 문제에 관해서는, 즉 예상되는 손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태도가 필요하며, 정의가 준수되지 않거나 억압적인 이웃들로 둘러싸인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명성을 추구하는 자는 파괴의 길을 걷는 여행자다. 금욕자의 방식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끊임없이 예배에 몰두하고 신(딘)으로 가는 길을 걷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명예와 명예를 심어주며, 사람들의 해악과 억압으로부터 보호받고,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정 수준의 부와 명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금지된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많은 부와 명성이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점은 필요 범위를 넘지 않을 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딘*)을 순수하게 지키고 의심스러운 것을 피하며, 자아의 심리를 행동하며 필요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자는 신중함과 신중함의 길에 있으며, 분명히 구원을 받을 운명에 속합니다.

제15장 – 인간이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통일성, 전능함, 절대적 권능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발전시키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전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지전지, 전적으로 듣고, 전지사랑하시고, 모든 친절하시고, 전지자비하시고, 전지배심을 주시며, 전적으로 포괄하시며, 동시에 억압받고 약해지고 겸손하며 부당한 이들을 위해 합당한 응징과 정의를 실현할 능력이 충분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결국에는 신의 보호와 포용에 있다는 엄청난 자신감과 자기 믿음을 줍니다. 비록 절망적이고 절망적이며 낙담스러워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신의 자비 덕분에 최선으로 잘 풀릴 것입니다. 섭리와 관대함. 이러한 자기 확신과 자신감은 악당한 자들과 억압자의 겉보기에는 권력이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시험하기 위해 내놓으신 목줄에 불과하며, 결국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인식에 의해 더욱 강화됩니다. 그들의 손으로 고통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존경하고 힘을 얻으실 것입니다. 이 생에서는 아니더라도, 이 생에서 시작될 다음 생에서 곧바로 하나님의 통제와 권능이 영적 맹목으로 인해 세상에서 많은 이들에게 명백하지 않았던 것이,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물에 잘못과 과잉을 저지르도록 용기를 얻었던 모든 이들에게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 내면의 맹목 때문에 명백히 면책받는 듯한 태도였다.

이 신성한 통일성과 권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겸손을 가져다주며, 이는 동료 인간을 대할 때 온화한 자질이며, 사람과 국가 간의 관계를 해치는 오만함을 근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상호 존중, 상호 권리와 책임의 인정, 그리고 공동의 선을 위해 평화롭고 조화롭게 일하려는 동기를 촉진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절망, 우울, 슬픔, 낮은 사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장애물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인내심을 심어줍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보여주며, 자신의 삶과 사회 전반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의 최종 결과에 대해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역경 앞에서도 굳건하게 하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슬픔과 좌절을 막아줍니다. 모든 일의 최종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최종 권위와 결정자이십니다.
가잘리가 그의 *대작 『Ihya al-Uloom ad-Deen』* 또는 "하나님의 길에 대한 지식의 부흥" 4권 또는 4분의 1 권 다섯 번째 책에서 이 핵심 주제를 탁월하고 통찰력 있게 다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제시된다 [21]:

하나님에 대한 신뢰(*타왁쿨*)는 *하나님께 가는 길(*딘)의 목적지들 중 하나인 만 *질(Manzil*)이며, 하나님 안에서 확신하는 사람들의 자리 중 하나인 [영적] 정거장(*Maqam*)임을 알리라. 오히려 신성한 영지(*Ma'rifa*, 즉 신과의 친밀함과 근접성)를 가진 사람들의 높은 도수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지식 면에서 깊고 광범위하며, 행동 측면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해 측면에서 보면, 물질적 수단에 중점을 두고 그것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은 신성한 *통일성과 일치*(타우히드)에서 신과 동반자(*쉬르크*)를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무관심하는 것은 예언적 길과 신의

법을 비판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단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서도 동시에 무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가능한 모든 물질적 수단을 사용하고 그것을 계획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 신뢰와 의지하는 것이 그 결실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의미를 이해하여 그것이 신성한 일체성의 요구에 부합하면서도 지성과 신의 법에 반하지 않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미묘합니다. 그 미묘함과 은밀함 때문에, 오직 지식을 부여받고 진리의 빛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러한 문제의 현실을 인식할 능력이 없습니다. 현실은 신비로운 영적 통찰을 가진 진정한 학자들에게 계시되고, 그들은 이를 다른 하나님의 종들에게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탁월함을 소개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신성한 일치성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데 어떤 함의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탁월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وَعَلَى ٱللَّهِ فَتَوَكَّلُوٓاْ إِن كُنتُم مُّؤۡمِنِينَ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꾸란 5장 23절)

وَمَن يَتَوَكَّلْ عَلَى ٱللَّهِ فَهُوَ حَسْبُهُۥٓ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충분하리라." (꾸란 65장 3절)

إِنَّ ٱللَّهَ يُحِبُّ ٱلْمُتَوَكِّلِينَ

"진실로,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꾸란 3장 159절)

누구든 도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된다는 [영적] 지위의 위대함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충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분은 매우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하나님께서 [신성한] 벌을 받지 않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충분함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린 사람입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وَمَن يَتَوَكَّلْ عَلَى ٱللَّهِ فَإِنَّ ٱللَّهَ عَزِيزٌ حَكِيمٌ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은 압도적이고 지혜롭다." (꾸란 8장 49절)

다시 말해, 그분은 너무나 강력하셔서 그분의 보호를 받는 자는 그런 자가 굴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분의 법정에서 간청하는 자는 그의 간청을 거절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전략을 신뢰하는 자는 실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신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들은 그분께 의존하며, 당신처럼 그분 앞에서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 구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إِنَّ ٱلَّذِينَ تَعْبُدُونَ مِن دُونِ ٱللَّهِ لَا يَمْلِكُونَ لَكُمْ رِزْقًا فَٱبْتَغُوا۟ عِندَ ٱللَّهِ ٱلرِّزْقَ وَٱعْبُدُوهُ

"네가 신 외에 숭배해온 이들은 너에게 어떤 영양을 제공할 힘도 없어. 그러니 그분께서 양을 구하고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라." (꾸란 29장 17절)

وَلِلَّهِ خَزَآئِنُ ٱلسَّمَٰوَٰتِ وَٱلْأَرْضِ وَلَٰكِنَّ ٱلْمُنَٰفِقِينَ لَا يَفْقَهُونَ

"하늘과 땅의 모든 보물이 하나님께 속하되 위선자들은 모른다." (꾸란 63장 7절)

꾸란에서 신성한 일체성에 대한 설명에서는, 신 외에는 의지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하나와 저항할 수 없는 자(모든 것을 굴복하는) 신만이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고 경고되었습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모든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에서 영양분을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세상에 넘기신다 [죽을 때까지 괴롭히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우울하고, 안절부절못하게 만드는 자]"라고 말한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 모음 집 *『타바라니 사기르』*는 임란 이븐 알후사인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가장 부유해지고 싶은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한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디스*는 *압둘라 이븐 압바스의 권위에 따라* 하킴*과* 알-바이하키를 모았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하나님께서 다윗 선지자에게 계시를 보내셨습니다(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내 종이여, 창조물 대신 내 밧줄을 쥐는 자여, 하늘과 땅의 속임수로부터 단 한 번의 구원을 허락하노라." 이브라힘 빈 아담(신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길)는 "나는 [기독교인] 수도승에게 물었다, '어디서 먹느냐?' 그는 대답했다. '이것은 내 두통이 아니다. 주님께서 어디서 나를 먹이셨는지 물어보라!'" 한 영지주의자는 "내가 하나님을 내 돌보는 자(와킬)로 삼았을 때, 나는 모든 선으로 가는 길을 찾았다"고 말했다.

신에 대한 신뢰의 기원, 즉 신성한 일체성의 실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지식, [내면의 영적] 상태, 그리고 행동으로 이루어진 신앙의 문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바로 이 세 가지에서 얻어진다: 기원인 지식, 열매(결과)인 행동,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목적인 상태.

지식: 지식은 원초적인 것이며, 신앙(*Iman*)이라 불리는 용어입니다. 믿음은 확신을 의미하며, 마음의 모든 확신은 지식이라고 불리며, 이 지식이 강해지면 확신(*Yaqeen*)이라고 합니다. 확신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의존하는 유형, 즉 신성한 일치와 일치(*타우히드*)에 대해서만 논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진술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لَا إِلَٰهَ إِلَّا اللَّهُ وَحْدَهُ لَا شَرِيكَ لَهُ

"하나님 외에 신은 없으며, 그분은 유일이시며 동반자가 없다."

이 진술에는 하나님의 일치성에 대한 고백이 있고, 이 유형의 [확신성]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에 대하는]을 확증합니다. 이 증언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기초가 되는 믿음이 완전해집니다. 믿음의 완성이라는 의미는 이 진술이 마음의 필수적인 특성이며, 그 후 지배적인 특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심어줌으로써 - 자신의 생각, 감정,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것]. 신성한 통일성과 일체성에 관해서는, 그것이 진정한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신성한 일체성의 네 단계: 신성한 통일성과 일체성(*타우히드*)에는 네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급은 핵(핵), 두 번째 계급은 핵의 핵, 세 번째는 내피, 네 번째는 외부 껍질입니다. 호두의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껍질은 두 겹이며, 그 사이에 알이 있고, 알과 알이 안에 기름이 들어 있는데, 이를 알갱이의 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신성한 일체성의 첫 번째 단계는 종이 말하는데 لَا إِلَٰهَ إِلَّا اللَّهُ (하나님 외에 신은 없다) 말하는데, 이는 위선자들의 신적 일체성의 증언처럼 말한다.

두 번째는 일반 무슬림들이 하는 것처럼 이 진술(신성한 일치와 일치의 확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신도와 그들의 믿음의 신성한 일치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빛으로 그 의미가 드러나 [내면의 신비로운 영적 확신의 눈을 가진 이가 목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신과 가까워진 자들(*무카라빈*, 영지주의자, 신의 친구이자 친밀한 이들)의 [영적] 위치입니다. 이 드러나는 의미는 많은 것을 보고 지식을 얻지만, 모든 것의 근원과 기원을 하나, 저항할 수 없는, 전능한 존재(신)로 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오직 그 유일한 존재(하나님)의 존재를 [영혼의 내면의 눈으로] 목격하며, 오직 모든 것에서 그분의 존재만을 본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들(영지주의자)의 신성한 일체성입니다. *수피(* 신의 길을 걷는 영적 여행자)들은 이를 "*파나 피 알-타우히드*"(신성한 통일성과 일치 속에서 하위 자아의 소멸)라고 부르며, 즉 자신들의 하위 자아(*나프*)와 모든 창조물을 신의 존재 앞에서 멸종하고 멸종시켰다고 여긴다. 1인칭은 오직 혀에 의한 신성한 통일성과 일치를 믿는 사람입니다. 둘째, 신성한 통일성과 일치를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마음이 이 확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그것과 상반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일치에 대한 믿음은 마음의 매듭처럼 마음을 깨닫고 확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 계급은 신성한 일치와 일체성을 믿으며, 오직 한 명의 행동자만을 목격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과 주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즉, 이 진리의 문제가 명확해지고 오직 한 분의 행동자만을 보기 시작하며, 모든 사안의 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지혜의 문과 새로운 빛의 시야가 열리며]. 네 번째 계급은 오직 한 존재만을 목격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않으며, 풍요와 다성으로 세상의 사물을 않고 통일성을 통해 [하나님의 행위로] 보는 사람이다. 이것이 신성한 통일성과 일치의 최고 등급(*타우히드*)이다.

이들은 신성한 통일성과 일치를 믿는 자들의 네 가지 계급과 [영적] 지위입니다. 네 번째(가장 높은) 등급에 관해서는, 외부 지식(외적 지식 또는 "*일름 무암라*")의 지식 영역 밖에 있으며, 오히려 신비주의 지식("*일름 알-무카샤파*" 또는 영적 드러난 지식)의 영역에 들어가므로,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 책의 목적이 아니므로] 신을 신뢰하는 것(*타왁쿨*)는 이에 근거하지 않으며, 대신 신에 대한 신뢰 상태는 세 번째 유형의 신적 통일성과 일치에 의해 달성된다. 첫 번째 유형은 위선이고, 두 번째는 단순한 확인이며, 이제 세 번째 유형만 남았는데, 신에 대한 신뢰가 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는 단순히 마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영적 드러내기(*카슈프*)와 증언(*무샤하다*)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통일성과 일체성의 세 번째 계급은 이 문제가 당신에게 드러난다. 하나님 외에 행하는 자는 없다는 것과, 창조물, 영양, 주어주기, 은밀하기, 물질적·비물질적 축복, 생명, 죽음, 풍요, 가난 등과 같은 것들은 어떤 이름으로도 붙일 수 있으며, 그 창조자이자 창조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며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 이 일이 너희에게 드러나면, 너희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아무것도 않을 것이며,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희망을 가질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신뢰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신뢰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동하는 자이시고, 창시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은 발명가이다. 그분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 정복되고 복종당하며, 창조주의 뜻에 반하여 하늘과 땅의 지배 속에서 하찮은 입자조차 움직일 힘이 없다. 영적 드러남의 문이 누군가에게 열리면, [영적] 증언으로 더욱 명확해집니다.

마음을 가진 자와 펜의 대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타왁쿨)를 *설명하기 위해 펜의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마음이 빛나는 영적 여행자(살릭)는 이전에 하얗었지만 나중에 검게 변한 종이를 보았다 [그 위에 적힌 글로 인해 말이다]. 그는 신문에 "왜 얼굴이 검게 변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그 위원회는 "이 질문은 공정성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혼자서 얼굴을 검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잉크에게 물어보세요. 그것은 그 머무니가 있는 잉크병 안에 머물고 있었다. 그 후 잉크는 그 땅을 떠나 내 얼굴을 목적지로 삼아 억압과 힘으로 내게 자리 잡았다." 영적 여행자가 말했어요, "당신은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잉크에게 물었다. "왜 종이를 검게 만들었나요?" 그 말은 "너는 나에게 정의를 이루지 못했다. 나는 잉크병 안에 앉아 평온하게 앉아 있었고, 그 안에서 나올 생각이 전혀 없었다. 펜은 악한 탐욕 때문에 나를 억압했고, 내 나라(집이나 거주지)를 떠나게 했으며, 집을 잃게 했고, 내 단결을 흩뜨리고, 이 하얀 들판(종이)에 흩어뜨려 나를

파괴했다. 그러니까 나 대신 펜에 물어봐야 해." 영적 여행자는 "당신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뒤, 펜의 억압에 대해 질문하며 "왜 잉크를 그 나라에서 쫓아내고 사랑하는 이들과 분리시켰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손과 손가락에 물어봐야 해. 저는 그냥 초록 갈대(줄기) 형태의 개울 옆에 서 있었어요. 한 남자가 칼을 들고 와서 내 피부를 벗기고, 옷에서 벗겨내고, 뿌리에서 끌어내어 조각조각 냈다. 그 후 그는 조각을 가져와 조각하고, 머리를 좁게 잘라낸 뒤, 쓴맛과 검은 잉크에 나를 담갔다. 그는 내 서비스를 빼앗고 머리 위로 걷게 강요해. 내 온몸이 이미 그의 손에 다쳤어. 이제 당신은 내 부상에 질문을 뿌려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서 떨어져서 이 질문을 나를 발과 손 없이 만든 사람에게 해." 영적 여행자도 펜의 진실성을 확인한 뒤 손에게 물었다. "왜 네 뜻을 무시하고 네 뜻을 위해 펜을 그렇게 억압하느냐?" 핸드가 대답했다. "나는 단지 살과 뼈, 피의 조합일 뿐이야. 억압할 수 있는 살덩어리나 스스로 움직이는 몸을 본 적 있나요? 저는 단지 라이더가 올라타는 라이딩 마운트일 뿐입니다. 그 기수를 능력(*Qudrah*)이라고 부릅니다. 그 라이더는 저를 이리저리 움직이게 하고, 지구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게 만듭니다. 나무와 바위가 누군가가 옮기기 전까지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보시나요? 내 손과 죽은 사람들의 손은 모양과 형태가 똑같다. 그럼 죽은 사람의 손이 펜을 집지 않는데 내 손이 펜을 집는 게 무슨 문제야? 이걸로 내가 펜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어. 이 질문은 능력(ABILITY)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단지 기수가 채찍의 힘으로 움직이도록 강요하는 승마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영적 여행자는 손의 답을 믿고 능력에 묻습니다. "당신이 손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까? 왜 네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왜 억지로 움직이게 하지?" 능력이 대답했다. "나를 탓하지 마. 종종 비난하는 사람이 스스로 비난받아야 하고, 비난받는 사람이 무죄로 증명됩니다. 내 상태는 너에게 공개되지 않았어. 내가 손을 타고 나서 뭔가 잘못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움직이기 전부터 손을 타고 있었지만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내 침묵과 잠의 상태는 사람들이 나를 죽거나 멸종한 것으로 여길 정도였다. 즉, 저는 혼자서 활동하지도 않았고, 다른 일을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한 명의 전령(주도자)이 와서 저를 움직이게 했고, 당신이 저를 비난의 대상으로 만드는 일을 강요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명령에 반항할 힘이 없었다. 나는 그것의 뜻에 따라 일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자의 이름은

의도(*Iradah*)입니다. 나는 그 이름과 행동으로만 알고 있다. 어느 날 그것이 나를 공격해 깊은 잠에서 깨우고 손을 움직이게 했다. 나는 그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 외에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영적 여행자가 말했어요, "당신은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어서 의도를 묻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는 잠들어 있던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능력을 방해하고, 그것을 움직이게 만들어 네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가?" 인텐트가 대답했다. "너무 쉽게 나를 탓하지 마. 어쩌면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당신이 아무 이유 없이 저를 탓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혼자 일어난 게 아니었지만, 억지로 일어나야 했다. 나는 스스로 깨어난 것이 아니라, 거대하고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 깨어났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매우 평온했고 내 자리에 머물렀다. 지성의 언어로 지식을 전하는 사자가 마음의 궁정에서 내게 와서 그 능력을 깨우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강박에 의해 그 능력을 깨웠다. 나는 지식과 지성에 정복당하고 복종당했으며,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식과 지성에 복종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종속되고 복종하는 존재로 선언되었다. 이 강력한 사자가 내게 오기 전까지는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이제 이 지배자가 내 통치자이다. 정의롭든 억압적이든 나는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무언가를 명령할 때, 나는 저항할 힘이 없다.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건대, 어떤 일에 대해 걱정하고 망설일 때는 침묵하지만, 내 관심은 그것에 집중되어 있다. 그것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 나는 내 본성의 요구에 의해 그것을 따르고 깨어나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제 지식을 묻고 비판은 저에게서 멀리해야 합니다."

영적 여행자는 "당신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말한 뒤, 지식, 지성, 마음으로 돌아서서 의도를 굴복하고 능력을 부추기는 것에 대해 꾸짖었습니다. 지성은 "나는 나 자신이 밝혀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밝힌 [빛을 내는] 램프다"고 답했다. 하트는 "나는 스스로 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펼친 태블릿이다"라고 답했다. 지식은 말했다, "나는 지성의 등불이 켜진 후 마음의 하얀 판에 새겨지는 글자이다. 나는 나 자신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새긴다. 그래서 내게 새겨진 펜에 물어봐야 해." 이 고난 후, 영적 여행자는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 못해 만족할 수 없다. 따라서 영적 여행자는 혼란스럽고 동요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길을 걸어왔고, 많은 목적지를 거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마다 저도 같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모두가 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이 고난에 만족했던 이유는 모든 답변이 합리적이고 마음을 설득했기 때문이지만, 이 마지막 답변은 이해를 넘어섰습니다. 지식은 '나는 펜끝 아래에서 생겨난 비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펜은 갈대로 만들어졌고, 판은 철이나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비문은 검은 또는 붉은 잉크로 되어 있고, 등불은 불로 밝혀집니다. 여기서 나는 석판, 등불, 그리고 비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중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식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자본(부)은 적고, 여행에 대한 준비는 제한되며, 승마는 약하며, 당신이 가는 길에는 무수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떠나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당신에게 더 낫습니다. 당신은 그 길을 선택할 자격이 없으니까요.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받습니다. 이 길을 정말로 완수하고 싶다면, 이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세 영역: 이 여정에는 세 영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는 '*알람 알-물크 와 아스-샤하다('Alam al-Mulk wa as-Shahada*)'의 영역으로, 신 성한 전능과 능력의 현현의 영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종이, 잉크, 펜, 손 등도 같은 영역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에서 점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쫓아오는 천사의 영역('*알람 알-말라쿠트*', 즉 지식)이다. 나를 넘어서면 이 영역의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어떻게 그 안에서 안전을 지킬지 모르겠어요. 셋째는 절대적이고 신성한 광대함 또는 주권의 영역('*알람 알-자바루트*)이다. 당신은 그 첫 세 가지 목적지, 즉 능력, 의도, 지식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이 영역은 첫 두 영역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합니다. 지상을 걷는 자는 '*알람 알-물크 와 아스-샤하다('알람 알-물크' 와 아스-샤하다*, 즉 신성한 전능과 능력의 현현의 영역)를 걷는 것입니다.

천사의 영역(*알람 알-말라쿠트*) 의 시작: 천사의 영역의 시작은 마음의 석판에 글씨를 쓰는 펜을 목격하고 물 위를 걷는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말씀(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을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가 물 위를 걸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لَوْ إِزْدَادَ يَقِينُنَا لَمَشَى عَلَى الْهَوَاءِ

'그가 더 확신이 있었다면, 그는 공중을 걷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식의 말을 들은 영적 여행자는 "나는 내 상태가 혼란스럽다."라고 말했다. 당신이 지적한 길의 위험성에 내 마음이 떨립니다. 당신이 지적한 광활하고 위험한 지형을 제가 건널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펜에 대한 어떤 흔적이 있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지식은 말했다, "그 징후(징후)가 있는데, 그것은 네가 눈을 뜨고 그들의 빛을 모아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마음의 판에 문구를 쓰는 펜을 본다면, 당신은 천사의 영역(*'알람 알-말라쿠트*)에 자격이 있다고 선언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신의 광대함이나 신성한 주권의 영역(*'알람 알-자바루트*)에서 천사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자가 그 펜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언자의 초기에 무함마드 선지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에게 다음과 같은 성스러운 구절이 계시되었을 때, 그는 펜을 목격했습니다:

'읽으라, 그리고 너희 주님은 위엄 있고 명예로우시며, 펜으로 가르치셨으며, 인간에게 알지 못했던 것을 가르치셨다.'" (꾸란 96장 3-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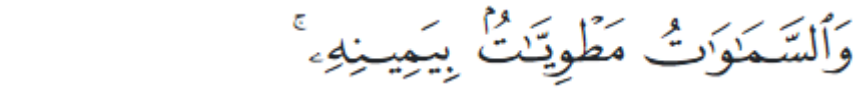
영적 여행자는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서 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그 펜도, 태블릿도 못했다."고 말했다. 내가 본 펜은 글쓰기에 쓰는 외부 펜이다"라고 말했다. 지식이 말했다, "네가 하는 말은 이상하다!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집 안의 물건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말을 못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존재가 다른 어떤 존재와도 닮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가? 그의 손은 다른 어떤 손과도 다르고, 그의 펜은 다른 펜들과 닮지 않았으며, 그의 말투는 다른 어떤 말과도 닮지 않았다. 이것들은 신성한 문제이며 천사의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몸도 아니시고 장소 안에 계신 것도 아니며, 다른 모든 것은 몸이면서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의 손은 살과 피, 뼈가 섞인 다른 손들과 달리 살도 피도 뼈도 아니다. 그의 펜은 갈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의 석판도 나무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분의 말씀은 글자와 소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그분의 표식은

자국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잉크는 염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사안을 있는 그대로 못한다면, 당신은 부족한 것입니다. 실제로 완전한 인간은 하나님을 어떤 육체보다 우월하고 정화된 존재로 여기며, 신을 닮은 몸을 가진 자는 결함이 있다. 당신은 두 [집단] 사이에 있으며, 어느 쪽도 여기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육체와 [인간] 특성에서 제외시켰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분의 말씀이 글자와 소리가 전혀 없다고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당신은 그분의 손, 펜, 그리고 태블릿에 대해 망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시적인 몸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지 닮은 것일 뿐이며, 그것을 통찰의 눈으로만 목격할 수 있는 내면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이러한 [인간] 유사성 위에 있는 존재로 여기며 신성한 영광과 찬양의 길을 걷는 여행자임을 나타냅니다. 이제 그 길을 걸으며 마음 깊은 마음으로 신성한 계명을 들으라, 어쩌면 신성한 빛의 번개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영적 여행자가 이 통찰력 있는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실수를 알게 되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육체를 닮은] 것과 신의 영광 사이에서 매달려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자기 자신에게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마음의 [빛내는] 등불은 불 없이도 타올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지식의 불이 닿았을 때 빛 위에 빛이 되었다. 이를 본 지식은 영적 여행자에게 "이 기회를 활용하고 눈을 떠라, 아마도 인도를 찾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눈을 뜨고 하나님의 펜이 그 모든 특성을 가진 자가 신성한 영광을 위해 필수적인 자에게 드러났습니다. 갈대도, 나무도, 날카로운 날로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계는 인간의 마음에 다양한 종류의 지식을 쓰는 데 분주하다. 그 끝은 모든 심장의 표면에 있지만, 겉으로는 끝이 없어 보입니다. 영적 여행자는 이를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사실 지식은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지식 없이는 우리 모두 무지하니까요]. 신께서 최고의 보상을 내리시길. 펜이 알려준 모든 특성들이 모두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 펜은 더 이상 다른 펜들과 다르게 느껴져." 그 후, 영적 여행자는 지식과 작별을 고하고 감사하며 "오랫동안 당신과 함께 있었으니, 이제는 우리로 가서 그 상태를 묻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여행자와 펜의 대화: 그래서 영적 여행자는 펜으로 와서 "오 펜이여! 왜 항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식을 적어두고, 그 지식이 의도를 자극하고 능력이 솟아올라 자발적인 행동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는 거야?" 펜이 의지했다, "신성한 전능과

권능('*알람 알-물크 와 아스-샤하다*)의 영역에서 본 것을 잊었니? 펜에서 들은 답변을 무시한 적 있나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교회는 [마음에] 쓰는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에게 맡겼다"고 말했다. 영적 여행자는 "나는 그것을 잊지 않았고, 펜의 반응도 무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펜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인류의 아버지)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듣지 못하셨나요? 왕의 오른팔에게 내 상태를 물어봐야 한다. 나는 그분의 통제 아래 있고, 그분이 나를 움직이는 분이며, 나는 그분의 통제 아래 있다. 즉, 하나님의 펜과 인간의 펜 사이에 둘 다 복종당하는 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단지 외관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영적 여행자가 물었다, "왕의 오른손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펜이 대답했다. "그 의미는 아래 구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이 그분의 오른손에 감싸일 것이다." (꾸란 39장 67절)

마찬가지로, 펜도 그분의 오른손에 있으시고, 그분은 원하시는 대로 펜을 움직입니다.

영적 여행자의 오른손을 향한 여정: 이 대화 후, 영적 여행자는 오른손[신성한 섭리의 손]으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경이로움을 목격했습니다. 펜은 그 중 일부도 없었다. 이 경이로움들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으며, 수천 권의 책에 설명된다면 그 중 백 분의 1조차도 설명할 수 없다. 요컨대, 그건 오른손이지만 다른 오른손과는 다릅니다. 팔이 있지만 다른 팔과 다릅니다. 손가락이 있지만 다른 손가락과는 전혀 닮지 않았다. 영적 여행자는 오른손으로 펜을 움직이는 것을 보고 펜이 표현한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오른손의 게임이다. 그래서 영적 여행자는 오른손에게 왜 펜 주위를 움직이는지 물었고, 오른손은 "내 대답은 신성한 전능과 능력의 영역(*'알람 알-물크 와 아스-샤하다*) [또는 이 가시적인 물질 세계]에서 나온 손이 제공한 것과 같다. 즉, 이 움직임을 능력(*쿠드라*)에 귀속시켰다). 저도 같은 말을 합니다 - 이것이 바로 능력의 게임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영적 여행자는 능력으로 갔고, 그곳에서 그는 이전에 본 적 없는 경이로움들을 목격했다. 겁에 질린 사람이 물었다, "왜 오른손을 움직이나요?" 능력은 "나는 단지 특성일 뿐이다. 이 특성의 소유자에게 물어봐야 한다 - 이 특성으로 특징지어진 전능한 분. 이 특성을 가진

사람만이 그 이유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특성은 단지 소유자에게 복종할 뿐이다." 이 대답을 들은 영적 여행자는 절대 권력자(하나님)에게 묻다가 발이 휘청일 뻔했지만, [진리의 길에서] 단단한 발걸음을 얻었고 절대 권능자의 법정에서 부름을 들었다:

لَا يُسْئَلُ عَمَّا يَفْعَلُ وَهُمْ يُسْئَلُونَ

"그가 무엇을 하든, 누구도 그분을 의심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질문받을 수 있다." (꾸란 21장 23절)

이 말을 들은 영적 여행자는 떨림과 경외심에 휩싸여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 명은 오랫동안 그 병에 걸렸다. 의식을 되찾으면 "오 신이시여! 당신은 모든 결점, 부족함, 결점, 약점 위에 높이 평가받아요. 당신의 영광은 장엄합니다! 나는 당신께 회개하고 오직 당신만을 신뢰하며, 당신이 유일무이하고 저항할 수 없고 지배적이며 압도적인 이 현실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당신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당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희망이 없다. 나는 당신의 자비로서, 당신의 진노로부터 당신의 수용 안에서 피난을 구합니다. 내 앞에 길은 없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을 알 수 있게 하소서. 내 혀의 매듭을 풀어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하게!'" 이 간청(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신성한 임재로부터 선언이 왔습니다. "조심하라! 더 이상 진행하지 마세요! 미화와 찬양에 탐욕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도[무함마드](그분께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의 예배에 가서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고, 그분이 당신을 막는 것은 그만두세요! 그리고 그가 말하라고 하는 대로 말해. 그가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이 신성한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간청하셨다:

سُبْحَانَكَ لَا أُحْصِي ثَنَاءً عَلَيْكَ أَنْتَ كَمَا أَثْنَيْتَ عَلَى نَفْسِكَ

'영광이 당신께 있기를! 당신은 모든 결점, 부족함, 결점, 약점 위에 높이 평가받아요. 당신을 완전히 칭찬할 수도 없어요. 너는 스스로를 찬양하신 대로다!'"

영적 여행자가 간청했다, "오, 모든 우주의 주님! 혀가 이 한계를 넘지 못한다면, 마음이 당신의 그노시스에 대한 탐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왔다. "영지주의자들을 능가하고 싶으니! 가장 위대한 영지주의자(*시디크 알-악바르*) [아부 바크르(신의 기쁨이

있기를), 모든 예언자들 다음으로 신의 근접과 영지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이에게 가서 그를 따르라. 그가 한 말 못 들었어?

'인식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식이다'.

너희가 나의 임재로부터 나누는 몫은 나의 임재를 빼앗긴다는 것이다. 너는 [신성한] 엄격함(*잘랄*)과 [신성한] 아름다움(*자말*)을 목격할 힘이 없다."

이 말을 들은 영적 여행자는 자신이 걸었던 길로 다시 걸어갔다. 펜에서 어떤 질문을 하든, 지식, 의도, 능력 등에 대해 사과하고 무지를 고백하며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 길에 낯선 사람이었어요. 낯선 사람은 [새로운 영역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널 거절했어, 그건 전적으로 내 잘못이고 무지한 거야. 나는 이제 당신의 변명을 알게 되었고, 모든 영역 [신성한 전능과 능력의 현현 영역('*알람 알-물크 와 아스-샤하다*), 천사 영역('*알람 알-말라쿠트*), 그리고 절대적 광대함 또는 신성한 주권의 영역('*알람 알-자바루트*")이라는 현실을 잘 알게 되었다.)], 저항할 수 없는 자의 명령만이 실행된다. 여러분 모두는 그분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며, 그분의 전지하신 힘에 의해 정복되고 복종합니다. 그는 첫 번째(*알-아왈*), 그는 마지막(*알-아키르*), 그는 명백(*알-자히르*), 그는 숨겨진 자(*알-바틴*)이다.

첫 번째와 최후, 현현과 숨겨진 것의 갈등: 영적 여행자가 신성한 전능과 능력('*Alam al-Mulk wa as-Shahada*)'의 출현 영역 또는 가시적 세계의 주민들에게 이 세부사항을 설명했을 때, 그들은 놀라며 "이 두 특성이 서로 반대인데 어떻게 그분이 처음이자 최후, 숨겨진 자이자 명백자일 수 있는가?"라고 묻기 시작했다. 첫째인 자는 마지막이 아니며, 숨겨진 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 답은 "그는 모든 존재 위에 있는데, 모든 존재는 그분의 명령에 의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마지막이시다. 왜냐하면 [영적] 길을 걷는 이들에게 그분은 그들의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길을 따라 한 목적지에서 다음 목적지로 나아간다면, 그들의 길과 여정의 절정은 그분의 존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목격되는 존재이지만, 존재 자체에서 가장 먼저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숨겨진 상태이자 명백한 상태입니다. 보이는

세계(제1계)에 거주하며 오감을 사용해 그분을 인식하고자 하는 이들은, 그분은 그들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마음의 빛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이여, 그분은 그들을 위해 현현하십니다." 이것이 신성한 통일성과 일체성(*타우히드*)의 실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실질적 함의입니다. 즉, 진정한 행위자는 단지 하나의 존재임을 깨달은 이들에게 이것이 신성한 통일성과 일체성을 얻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상태와 행동

하나님에 대한 [영적] 신뢰의 위치는 지식, 상태,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식은 이미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상태에 대해 들어보세요. 지식은 그 기원이고, 행동은 그 열매(결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신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맡긴 사람이 수탁자이며, 일을 넘기는 사람은 위임자라고 하지만, 조건은 위임자가 맡은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무능력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맡은 사람, 즉 신탁에 대한 마음속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세속적 분쟁에 임명된 변호사들도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거짓 고발로 당신을 고발하거나 부당하게 당신의 소유물을 빼앗으면, 당신은 이 억압을 끝내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사가 판사의 법정에서 당신의 목소리가 되어 고발자(원고)의 부당함과 기만으로부터 당신을 구해주려 합니다.

당신은 네 가지 사항을 믿지 않는 한 변호사(수탁자)를 신뢰하고 수탁자에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첫째, 수탁자가 [당신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안내]를 가지고 있다는 것, 둘째는 [수탁자가 당신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셋째는 [당신의 사건을 옹호하는 데 있어 높은 수준의 웅변력]입니다. 넷째는 [수탁자의] 당신에 대한 완전한 애정과 자비입니다. 신탁 관리자가 명확하지 않은 미묘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기만의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능력과 강인함은 신탁자가 진실을 온전히 용기 있게 선언하고, 맡은 사안과 관련된 어떤 일도 주저하지 않으며,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피하지 않으며, 겁쟁이도 없어야 합니다. 종종 수탁자는 상대방의 속임수의 이유를 알게 되지만, 두려움, 겁쟁이, 수줍음 또는 기타 이유로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진실을 말하는 데 약해집니다. 웅변은 수탁자가 효과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하며, 이는 언어와 관련된 능력의 한 종류이기도 합니다. 웅변을 통해 인간은 마음의 문제를 표현하여 청자가 감동할 수 있게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속임수를 발견한 후 반드시 폭로할 필요는 없으며, 청자를 설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실을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 애정은 수탁자(변호사)가 위임하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필요한 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만적인 주장을 인지하고, 진실을 표현하며, 웅변의 진주를 퍼뜨리는 것만으로는 사건의 성공(위임된 임무)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수탁자가 위임자의 존재와 상황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사안을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기 전까지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수탁자는 위임자가 승리하든 패배하든, 권리를 얻든 잃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만약 위탁자가 이 네 가지 사안 중 하나라도 의심하고, 그 사안에서 신탁인을 약하다고 여기거나, 상대방의 수탁자가 자신의 수탁자보다 네 가지 사안 모두에서 더 강하다고 판단한다면, 자신의 수탁자(변호사)에 대해 완전한 만족과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항상 의심과 망설임을 유지하며, 상대방의 이익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수탁자의 잘못을 제거하려 합니다. 맡기는 사람이 네 가지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의 수탁자를 신뢰한다면, 그 정도로 마음속에 자신감과 만족감을 갖게 됩니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사람들의 신념과 추측에 관해서는, 강점과 약점이 같지 않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신탁 관리자를 맡기는 사람들이 신념(또는 신뢰 수준)과 그로 인한 신뢰 및 만족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신탁 관리자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지만, 다른 사람의 신뢰는 약점이 없는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설명을 통해 신뢰의 현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하나님(타왁쿨)에 대한 신뢰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티카드*)과 영적 드러내기(*카슈프*)를 통해 하나님 외에 행하는 자는 없다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의

상태와 상황을 잘 알고 계시며, 그들에게 충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분의 자비는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물과 입자를 포괄하며, 그들을 포괄합니다 [어떤 배제도 없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에 한계가 없고, 지식에 한계가 없으며, 자비와 관대함에도 한계가 없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너머에는 자비와 관대함이 없습니다. 만약 이 모든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당신 안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분을 신뢰하게 될 것이며, 모든 상황과 상태에서 그분께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나 자신의 힘과 힘 외에는 누구에게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신 이외의 움직임과 힘.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의 이유: 만약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상태가 없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 네 가지 문제 중 하나 이상에 대한 확신이 약하거나, 그 이유가 마음의 약함, 비겁함, 걱정하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확신이 약하지 않지만, 미신이 마음을 지배하여 내면의 기질에 혐오감과 결핍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 예를 들어, 지적인 사람이 죽은 시신을 무덤 안이나 방, 침대에 누우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죽은 시체는 돌처럼 생명도 움직이지 않으며 해를 끼칠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죽음 이후에 다시 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도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요. 이는 마치 신이 작가의 손에 든 펜을 뱀으로 바꾸지 않거나, 고양이를 사자로 바꾸지 않는 것과 같다. 물론 펜을 뱀으로, 고양이를 사자로 변할 수는 있다. 이로부터 알게 된 것은 지적인 사람은 죽은 자가 해를 끼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지만, 다른 생명 없는 물질적 물건에 대한 두려움이 없더라도 죽은 시체와 함께 침대에서 자거나 무덤에서 단둘이 밤을 보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비겁함과 두려움이며 일종의 약함입니다. 이런 약점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점 더 겁쟁이가 되어 그 비겁함이 병의 형태를 띠고, 혼자라는 상상만으로도 공포에 질려요. 죽은 사람과 단둘이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만족과 확신: 이 논의의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완성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과 확신의 힘이 모두 필요하며, 그때 마음이 만족과 평화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마음이 힘을 갖기 전까지는 만족의 원천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마음의 만족감과 확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확신은 있지만 만족감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확신은 있지만, [직접 진리를 목격함]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평온함은 없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만족을 가져오지 않지만, 점차 평화로운 영혼(*나프스 알-무트마인나*)[즉, 저속한 욕망과 부정적인 특성을 가진 하층 자아가 하나님과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든 선과 평화로운 자아로 변화하는 것]을 형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신은 없지만 만족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확신이 없는 잘못된 해로운 믿음을 따르면서도 고집과 자신의 잘못된 해로운 신념에 반하는 모든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 등이 그렇습니다. 이로부터 겁쟁이와 대담함은 인간의 기질이며, 그들 앞에서는 확신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며, 이는 신뢰에 필요한 네 가지 사안 중 하나 이상에 대한 확신성이 약하다는 점과 같습니다. 확신과 만족의 모든 원인이 결합될 때[신뢰에 필요한 네 가지 사항을 포함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형성되어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세 단계: 이전 페이지들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현실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상태가 설명되었습니다. 이제 이 상태의 정도를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총 세 단계로 나뉘며,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강도나 약함에 따라 달라집니다. 1급은 방금 설명한 것으로, 즉 하인(인간)의 신뢰는 신뢰하는 사람이 신탁인(또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갖는 신뢰와 같습니다. 첫 번째보다 더 높은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기와 어머니를 신뢰하는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기는 어머니 외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며, 어머니 외에는 누구에게도 간청하거나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어머니를 보면, 아기가 때려도 꼭 붙잡고, 아기는 여전히 어머니에게 피신하며, 아기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의 이름만 아기 입술에 나오고(즉, 아기는 오직 어머니를 위해 울음), 오직 어머니의 생각만이 아기의 마음에 닿고, 어머니의 품이 아기의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아기는 어머니의 돌봄, 충분함, 그리고 인식이 없는 애정에 대해 완전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가 분별력을 가진 정도라면, 아기는 그것을 인지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아기의 본성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아기가 이 습관이나 본성에 대해 묻는다면, 설명할 수도 없고 그 세부사항을 떠올릴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된 이라면, 그런 분을 보는 것은 오직 그분의 친절 때문이며, 그분의 베푸림과 관대함에 신뢰를 가질 것입니다. 사람은 아기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분에 대한 강렬한 사랑(*이쉬크*)을 가질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입니다. 아기도 어머니를 신뢰합니다. 이 (두 번째) 신에 대한 신뢰의 단계와 이전의 (첫 번째) 등급의 차이는,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너무나 수행하는 사람이어서 이 신뢰 안에서 소멸(소멸)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실재에 기울지 않고, 오히려 신뢰가 부여된 존재에게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분 외에는 누구도 설 자리가 없다는 점에 기울어집니다. 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사람은 노력과 투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2차 신은 타고난 본성에 따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1차 신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데,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기울어 있고 의식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며, 이는 신뢰받는 분(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신뢰의 가장 높은 단계는,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움직임과 고요함 속에서 목욕하는 사람의 손에 있는 죽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하위 자아를 죽은 자아로 생각하며, 이는 영원한 능력(하나님)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마치 죽은 몸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목욕하는 사람. 이런 신뢰하는 사람은 움직임, 능력, 의도, 지식 및 모든 특성의 근원이 단지 하나의 존재이며 모든 것은 [창조주의 의지에 의해] 의지 없이 태어난다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어머니를 쫓아가 옷을 잡아당기고 애원하는 아기와는 다르다. 반면 이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어머니가 옷을 잡지 않으면 혼자 찾아 나가길 기대하는 아이와 같다, 아이가 음식을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아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이가 먼저 음식을 주려 합니다. 이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의를 신뢰하는 신뢰하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지 않아도 주실 확신을 갖는 것을 요구합니다. 오히려 요청받는 것에 대해 하나님 자신이 그보다 더 잘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그것을 구하거나 받을 자격이 없으면서도 이미 수많은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높은 수준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요구이며, 두 번째 등급은 하나님 외의 누구에게도 묻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세 단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1등급은 영적 엘리트와 영지주의자들에게 속하며, 이들은 어떤 식량도 받지 않고 험준하고 버려진 곳과 정글을 돌아다니며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동안 정글에서 배를 채울 만한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신성한 뜻에 따르며 인내심을 유지할 것입니다. 때로는 식량을 가져가도 굶주리기도 하는데, 그 식량은 잃어버리거나 다 먹히거나, 잘못된 길로 빠져 보급품이 다 떨어지기도 합니다. 죽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것은 구비가 있는 자와 없는 자에게 오므로, 하나님의 구합에 의지한 후 죽는 것이 더 낫다.

두 번째 단계는 사람이 거주하는 도시나 마을의 집이나 장소에 머무르며, 그곳에 거주하는 동안 신성한 기억과 관상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첫 번째 등급보다 낮지만,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와 생계의 외부 수단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숨겨진 수단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도시나 마을의 사람들이 아니라 도시 사람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존재를 바라본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이 그런 존재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돌보게 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가정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이며, 대신 밖으로 나가 생계책(가잘리의 *대작* "*이히야 알-울룸 앗-딘*" 또는 "하나님의 길에 대한 지식의 부흥" 2권)에 언급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충분함, 권력, 지위,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신뢰의 경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눈은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생계 수단을 쉽게 만들어 주신 진정한 공급자에게 향합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면, 자신의 충분한 능력, 돈벌 능력, 힘을 왕의 손에 든 펜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왕의 측근들의 시선은 그의 펜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가 어떤 생각을 할지, 누구에게 주목하고 결정할지 말이다.

자녀를 위해 벌거나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돈을 벌는 사람은 몸으로 벌지만 마음과는 분리되어 [세속적 얽매임이나 어떤 형태로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태는 집에만 앉아 있는 사람보다 더 낫고 칭찬받을 만합니다. 이 주장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신에 대한 신뢰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집착과 탐욕에 빠지지 않고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친밀함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사건 전염병에서 신에 대한 신뢰에 관한 이야기

여기서는 우마르 빈 알-카타브(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의 역사적 사건을 소개하여 신에 대한 신뢰를 더욱 명확히 할 것이다. 한 번은 다른 예언자 동료들과 함께 시리아로 여행을 떠났다. 그가 다마스쿠스 근처 자비야에 도착했을 때, 시리아가 전염병(흑사병 - 전염성 또는 전역성 전염병으로, 치명적이고 치명적인 질병)의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들이 시리아에 들어와야 하는지 여부가 제기되었다. 이 질문 때문에 예언적 동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해서]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그룹은 "흑사병 때문에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가는 것은 불길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다른 그룹은 "우리는 가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며, 우리에게 [신성하게] 운명지어진 일은 피하지 않을 것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의 집단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أَلَمْ تَرَ إِلَى ٱلَّذِينَ خَرَجُواْ مِن دِيَـٰرِهِمْ وَهُمْ أُلُوفٌ حَذَرَ ٱلْمَوْتِ

'죽음을 피하기 위해 수천 명이 집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르십니까?'" (꾸란 2장 243절)

두 그룹 모두 우마르에게 찾아가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시리아에 들어오기를 고집한 그룹은 "우리는 하나님의 운명에서 도망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운명으로 도망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후 그는 예를 들며 이렇게 말했다.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가 염소와 그들을 데리고 방목할 두 개의 계곡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계곡 중 하나는 무성한 푸르르고, 다른 하나는 건조하고 황량하다. 이 사람이 푸르고 무성한 계곡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운명과 명령에 따라 염소들이 풀을 뜯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만약 그가 마르고 황량한 계곡으로 간다면, 다시 하나님의 운명과 명령에 따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예언자들은 그 말의 진실을 확인했다. 그 후 그는 사자를 통해 압두르 라흐만 이븐 아우프(신의 기쁨이 있기를)를 데려오라고 요청했다. 그는 하루 뒤에 도착했고, 이 의견 차이가 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제시되었다. 압두르 라흐만 이븐 아우프(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이 문제에 관해 내 의견은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의 언어에서 들은 것과 같다"고 말했다.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말했다,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를! 이 문제에 대해 무함마드 선지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의 가르침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이견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가 뭐라고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압두르 라흐만 이븐 아우프(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나는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의 언어로부터 이렇게 말했다고 말했다:

إِذَا سَمِعْتُمْ بِالْوَبَاءِ فِي أَرْضٍ فَلَا تُقْدِمُوا عَلَيْهِ، وَإِذَا وَقَعَ وَأَنْتُمْ بِهَا فَلَا تَخْرُجُوا فِرَارًا مِنْهَا

'어딘가에서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으면 그곳에 가지 마세요 [그로 인해 감염될 위험이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더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전염병이 이전에 당신이 있던 장소에서 발생한다면(시작) 도망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는 전염병이 널리 퍼져 통제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이 예언적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하며, 자신의 의견이 예언적 인도에 부합해 주셔서 감사함을 표했고, 전염병 지역에 들어가지 않고

자비야에서 모든 예언자 동료들을 데려왔습니다. (이 전통과 전체 사건은 다음과 같이 전 해졌습니다.*하디스* 모음집 *사히흐 부카리*)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모든 예언자 동료들이 타*왁쿨*(신에 대한 신뢰)을 하지 않기로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만연한 전염병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그들이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한 뒤 전염병 지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언자의 인도를 통해 알려진 최선의 방법을 사용해 전염병 지역에 들어가지 않아 확산을 막고, 그 성공을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부터 배운 것은, 이런 경우 에는 *타왁쿨*(즉, '나는 신을 신뢰한다'고 말하고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생명과 인간의 복지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후 그 성공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전염병 지역에서 탈출하지 말라는 명령: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해로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즉, 필요한 행동 없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왜 거주하는 땅에서 탈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는가? 의학에서는 전염병의 원인이 공기라고 선언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기가 해롭고 해로운 것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법이라는 것이 명백한데, 왜 전염병 지역에서 탈출 허가를 받지 않은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해로운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학문적] 합의에 의한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은 해로운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하지만 전염병 지역에서 탈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염병의 원인이 공기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외부 몸에 부딪히는 공기만으로는 그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 부패하고 나쁜 공기가 호흡을 통해 몸에 들어오면 심장, 폐, 내부 막에 해로운 영향을 남깁니다. 이로부터 전염병은 외부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내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전염병이 발생한다면, 그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또한 전염병이 한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염병에서 벗어나는 것은 미신적인 보호 명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전염병 지역을 벗어난 유일한 이유였다면

여전히 괜찮았겠지만, 금지된 데에는 다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전염병 지역을 떠날 수 있게 된다면, 도시에는 아픈 사람과 환자만 남게 되고, 그들에게 음식, 물, 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며, 그들 자신의 질병 때문에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이유도 포함된다. 그럴 경우, 건강한 사람들이 도시에서 탈출하는 것은 병든 사람과 아픈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슬림은 [예언적 전통에서]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지탱하는 건물로 묘사되기도 하며, 그 결과 건물 전체가 서 있는 건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또는 몸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한 부분이 고통받으면 몸의 다른 모든 부분이 그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의 평가에 따르면, 탈출이 금지된 이유는 바로 이 상호 협력, 연민, 애정, 형제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다른 이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나 역병,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부패하고 독성이 있는 공기가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고, 도시의 병든 사람들도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지역에 들어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아픈 사람들과 환자들)은 이미 그들을 돌볼 사람들이 이미 존재해 있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하지만 도시에 환자를 돌보고 음식, 물, 약품을 돌볼 사람이 없다면, 일부 사람들이 도시나 전염병 지역으로 들어와 그들을 도울 수 있고, 이런 행위가 칭찬받을 만한 행위로 평가받는 것도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미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하는 일은 [따라서 생명을 구하는 것]은 확실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필요하니까요]. 이것이 흑사병과 전염병에서 탈출하는 것이 전장에서 도망치는 것이라고 선언된 이유입니다(*하디스* 모음 집 *무스나드 아흐메드*에 따르면, 아이샤 [신께서 그녀를 기뻐하시길])는 전염병에 걸린 도시나 지역에서 도망치는 것이 생명을 파괴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들이다. 이를 무시하고 예언적 이야기의 겉모습과 의미만 보는 사람은 종종 이런 문제들에 대해 오류와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예배자와 [세속적 섭외] [반드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지식 부족과 근시안적 성향으로 인해 실수를 자주 겪습니다. 지식의 명예는 이런 문제에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시각의

속임수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겉보기에는 다른 것들을 결합해 모든 상황에서 올바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16장 – 사랑, 그리움, 신성과의 친밀함, 그리고 신의 뜻과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면의 평화, 평온, 행복을 키우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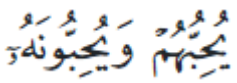
모든 고귀한 내면의 인간 특성 중에서 사랑이 가장 뛰어납니다. 이 특성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부정적이고 악랄하며 파괴적인 모든 것을 뿌리부터 지우고 근본적으로 없애는 특성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해방시키는 내면의 특성이며, 깊은 영적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하는 사랑, 즉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는 신성한 사랑, 즉 신성한 사랑 또는 신성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신성한 사랑은 모두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동료 인간과 동료 피조물들의 사랑에 스며듭니다. 오로지 육체적 욕망에 대한 사랑은 그런 지위에 오를 수 없다. 사람들과 국가 간에 상호 사랑이 있을 때 정의와 갈등 해결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부여되고 선물된 신성한 속성으로, 부정적이고 악랄한 모든 것을 제압하고 영혼이 영적 상승의 가장 높은 높이로 날아오르는 것을 억제하는 모든 족쇄를 끊어내기 위해 부여된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과 내면과 평화로운 상태는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랑은 증오를 이기고, 영혼을 억누르는 손아귀에서 해방시켜 신성한 임재로 승천하게 합니다. 신성한 사랑이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변모하면, 영혼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내면과 외적 평화와 평온을 이끕니다. 사랑은 모든 선한 것을 위한 길을 밝혀줍니다. 신성함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쇼크*와 *언스*)은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승리로 이끄는 영적 길의 큰 추진력입니다. 비록 마음에 들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결정(*리다*)에 동의하는 것은 모든 불안, 걱정, 슬픔, 절망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이 작품은 인류가 직면한 개인적·집단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찾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해내고, 틀을 깨는 사고를 사용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가잘리는 그의 *대표작* 『*이히야 알울룸 앗딘*』(신의 길에 대한 지식의 부흥) 4권 6장 또는 책에서 신성한 명령과의 평화에 대해 깊고 통찰력 있으며 뛰어난 해설을 제공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제시한다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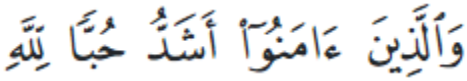
사랑은 [영적] 지위에서 매우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데, 사랑 이후의 모든 경례(예: 갈망(*Shawq*), 친밀감(*Uns*), 신성한 것에 대한 수용(*Rida*) 등이 그것에 종속되어 있고, 그 이전의 모든 성과들, 예를 들어 회개, 인내, 금욕(세속적)으로부터의 금욕 등이 [신성한] 사랑으로 이끄는 모든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스콜라 신학자들은 신의 사랑이 실제로 신성한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하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따르면 신의 사랑의 의미는 단지 신성한 순종과 예배를 인내하는 것이며, 진정한 [신성한] 사랑에 관해서는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런 사랑은 오직 같은 동족(예: 다른 인간)에게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 스콜라 신학자들은 [신성한] 사랑을 얻을 가능성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친밀감, 갈망, 신성(마나자트)에게 간청하는 기쁨과 같은 사랑의 다른 주요 요소들도 부정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바로잡고] 이 문제의 현실(진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합리적으로 모든 오해와 지식 부족을 제거하여 모두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책에서는 먼저 신성한(신성한) 법칙에서 [신성한] 사랑의 증거를 제시하고, 그 현실과 원인에 대해 밝히고, 사랑의 권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며, 가장 큰 기쁨은 신성한 환시(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의 기쁨임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 기쁨은 신성한 영지(*마리파*)를 가진 이들에게 훨씬 더 큰 혜택을 줄 것입니다 - 세상에서(세속적 삶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함, 지식, 친밀함.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화하고 촉진(힘을 주는)이유, 사람들이 왜 다르게 보이는지 설명하고, 왜 사람들이 신성한 영지(Gnosis)를 얻지 못하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끝난 후, 우리는 신성에 대한 갈망(*Shawq*)의 의미와 종(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징후를 설명한 후,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의 의미(*Uns billah*)를 설명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신의 뜻(리다)을 받아들이는 것의 의미와 탁월함이 언급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그들의 말씀에 관한 전통이 언급될 것입니다.

신성한 법에서 신성한 사랑의 논증과 증거: 무슬림들 사이에는 신의 종이 신과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를 사랑할 의무가 있다는 완전한 합의가 있습니다. 질문은: 사랑이 의무라면, 어떻게 그 존재를 거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당신이 [신성한] 사랑을 신성한 순종의 인내로 해석(해석하는) 사람들은, 순종은 사랑의 열매(결과)이며 사랑에 종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옳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먼저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이의 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논증을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꾸란 5장 54절)



"그리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강렬하다." (꾸란 2장 165절)

이 두 구절 모두 사랑의 존재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강렬함과 부족함을 증명합니다. 많은 예언 전통에서 무함마드 선지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신앙의 조건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선언했습니다(*이만*). 한 전통에서 아부 자린 아켈리(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오 하나님의 사도여!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답했다:

أَنْ يَكُونَ اللّٰهُ وَرَسُولُهُ أَحَبَّ إِلَيْهِ مِمَّا سِوَاهُمَا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가 종들에게 더 사랑받으신다, 그들 외의 모든 이들보다 더 사랑받는다는 것이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무스나드 아흐메드 하디스 모음*집)

유명한 예언자 전통에 따르면, 예언자 아브라함(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은 죽음의 천사에게 자신의 영혼을 데리러 왔을 때 "친구가 친구를 죽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성한 계시를 보내셨습니다. "오 아브라함이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연인을 본 적 있나요?" 예언자 아브라함(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은 죽음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영혼을 데려가라!" 그러나 이 문제는 오직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종들만의 마음에 드러난다. 죽음이 사랑받는 이와 만난 원인임을 알게 되자, 그들의 마음은 그에게 끌립니다. 그들은 끌림과 매력을 느낄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무함마드 예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간청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اَللّٰهُمَّ ارْزُقْنِي حُبَّكَ وَحُبَّ مَنْ أَحَبَّكَ وَحُبَّ مَا يُقَرِّبُنِي إِلَى حُبِّكَ وَاجْعَلْ حُبَّكَ أَحَبَّ إِلَيَّ مِنَ الْمَاءِ الْبَارِدِ

"오 신이시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 그리고 나를 주님의 사랑에 더 가깝게 이끄는 것들의 사랑을 주시고, 가장 필요한 차가운 물의 사랑보다 더 사랑받아 주시길"이라고 말합니다.

사막에 사는 한 사람이 [보통 유목민이나 외딴 사막 마을 출신으로, 삶과 생계에서 고난을 견뎌온 평범한 사람들이며, 도시 사람들이 익숙한 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이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에게 찾아가 "오, 하나님의 사도여! 심판의 날은 언제 올까?" 예언자는 그에게 물었다. "심판의 날을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느냐?" 그는 "기도도 많이 하지도, 금식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사자를 사랑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اَلْمَرْءُ مَعَ مَنْ اَحَبَّ

"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거야."

아나스(하나님께서 그분을 기뻐하시길) [이 이야기를 전한 이들]은 예언자들이 그날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사도에 대한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받아들임에 따라 영원히 함께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기쁨의 원천이었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아나스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와 사히흐 부카리*와* 무슬림 사히 *흐를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아부 바크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얻는 기쁨은 그들을 세상(세속성)을 찾지 못하게 하여 모든 인간과 분리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아부 술레이만 알-다라니(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는 "신의 창조물 중에는 낙원과 그 축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세상이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예수(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몸이 약하고 창백해 보이는 세 사람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물었다. "이 증상은 무엇으로 인해 생겼나요?" 그들은 "지옥의 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길을 따라 다가가며 앞의 세 명보다 더 약하고 창백한 세 사람을 보고 물었다. "이 상태가 어떻게 생겼나요?" 그들은 "천국에 대한 욕망과 갈망이 이런 일을 일으켰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걸어가면서 이전에 만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약하고 창백한 세 사람을 더 보았다. 그는 그들에게 물었다. "이 증상은 무엇으로 인해 생겼나요?"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잊게 되었다.]" 그는 "너희는 하나님의 친밀한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친밀한 자들이다!"

하렘 이븐 하얀(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가 자신의 주님을 인식하고 사랑하며,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께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되며, 그 집중과 관심에서 달콤함을 발견할 때, 세상을 욕망으로 바라보거나 내세를 스쳐 바라보지도 않는다. 그런 자는 육체와 함께 이 세상에 살고, 영혼을 내세(신성한 임재 안에서)에 산다"고 말했다. 야히야 빈 무아드(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신의 용서(*우푸*)는 모든 죄를 포함하는데, 그분의 수용 상태는 어떠한가? 그분의 수용(*리다*)은 모든 희망을 포함한다. 그분의 사랑은 어떤 상태일까? 그분의 사랑(*허브*)은 지성과 의식을 무시하게 만든다면, 그분의 사랑하는 애정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분의 사랑 어린 애정(*무와다*)은 신 외에는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데, 그분의 자비로운 온화함(*루트프*)의 상태는 어떠할까?" 야히야 빈 무아드(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내 생각에는, 신의 사랑의 작은 조각이, [신성한] 사랑이 없는 70년간의 숭배보다 낫다"고 말했다. 이제 사랑의 현실을 설명하겠습니다. 그 의미에는 다소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현실, 그 원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을 사랑하시는 의미

이 주제는 사랑의 실재가 무엇인지, 그 원인과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되기 전까지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사랑의 현실성: 첫째, 깊은 이해와 인식이 있어야 사랑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인지할 수 있는 것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특성은 무생물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각이나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인지적 존재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 이후, 지각은 지각 존재(사람 또는 개인)의 기질에 유리하고 적합하여 한 가지 쾌락을 주거나, 기질에 반대되어 지각 존재에게 쾌락이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각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지각하는 존재의 기질에 부합하며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쾌락을 주는 지각;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혐오하는 통찰력 있는 존재에게 싫어하는 자들; 그리고 쾌락도 고통도 주지 않는 인식들은 사랑받지도 혐오도 하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즐거운 것들은 사랑받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사랑받는다는 의미는 [인간] 기질이 그쪽으로 기울어진다는 뜻이고, 무언가가 혐오하는 것은 그 기질이 그것을 혐오하거나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인간] 기질이 자신이 즐거움이나 기쁨을 느끼는 것에 대한 성향입니다. 이 성향이 확고하고 강렬해지면 이를 강렬한 사랑(*Ishq*)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혐오감 [또는 싫어하거나 혐오감]은 기질이 고통을 주는 대상에 혐오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증오가 심해지면 혐오감이 됩니다.

감각과 사랑의 지각: 두 번째는 사랑이 지각과 이해에 종속될 때, 그 분할은 지각과 감각에 대한 분열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감각에 대해 지각되는 것들 중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지각이 있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눈에 존재하는 시각은 물체의 형태와 형태를 인지합니다). 모든 감각은 자신에게 특유하고 유리한 지각에서 기쁨과 기쁨을 찾으며, 이 기질은 기질을 그 쪽으로 기울이게 하며, 건강한 기질에게는 그런 지각이 사랑받는다. 예를 들어, 눈의 기쁨과 즐거움은 아름다운 것들이나 아름다운

얼굴과 같은 눈으로 인지되는 인식에 있습니다. 귀의 기쁨과 즐거움은 감각적인 노래와 상쾌한 소리 같은 귀가 인지하는 데 있습니다.

코의 즐거움과 즐거움은 코를 통해 인지되는 쾌적한 향기와 같은 지각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혀가 인지하는 미각의 기쁨은 음식에서, 촉각의 기쁨은 부드럽고 매끄러운 것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지된 것들은 감각에 쾌감을 주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으로 여겨지고, 건강한 기질은 그것들에 대한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감의 기쁨과 즐거움에 관해서는, 동물들도 인간과 함께 그것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사랑을 오감의 인식에만 국한하고, 하나님이 오감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우리가 가정(가정하는) 인간의 특이성(특별함)은 잘못되고, 인간이 다섯 가지 외감 외에 가진 여섯 번째 감각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인간이 동물보다 구별되고 우월하다는 근거가 생기며, [여섯 번째 감각]은 지성으로 해석(유사하거나 비교)될 수 있다. [내면] 빛, 마음, 아니면 그런 다른 단어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섯 감각으로 인식되지 않으니] 내면의 통찰[그리고 깨달음]이 외적 이해보다 더 강력하고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눈과 비교했을 때, 마음은 더 많은 것을 지각하며, 지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미의 아름다움 지각은 눈이 인지하는 외적 형태의 아름다움을 훨씬 더 잘 지각합니다. 따라서 신성한 신성한 일에 대한 마음의 인식은 오감의 경계나 한계에서 제외된 완전한 쾌락과 기쁨을 제공하며, 건강한 기질과 올바른 지성은 그것들에 더 강하게 기울어지며, 사랑의 본질은 그 인식이 즐겁고 즐거운 대상에 마음이 기울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곧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오직 동물 수준에 머물며 [다섯 가지 외감] 지각을 넘어설 수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이유: 세 번째는 인간이 자신의 하위 자아(*Nafs*)를 사랑하고, 때로는 자신의 하위 자아를 위해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자신의

하위 자아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존재(Dhat)를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약한 자들에 관해서는 이 질문에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에게 인간이 타인의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사랑은 자신의 존재와는 무관하다(즉, 아무것도 돌려받지 않고 사랑하는 것). 사실 그런 사랑은 가능하고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의 이유(원인)와 그 유형을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에게, 첫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그 자신과 자신의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사랑은 자신의 존재가 영원히 존재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자신의 무존재와 죽음에 대한 혐오감을 향해 기울어진다는 뜻이다. 본질적으로 사랑받는 것은 연인에게 적합한 것뿐이며, 그 영원한 존재보다 자아에게 더 유리한 것이 무엇이고, 자신의 무존재와 죽음보다 더 불리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인간은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미워합니다. 이 증오의 주된 이유는 아무도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음을 나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견뎌낸다면, 죽음으로 고통이 끝나는 것을 괜찮게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은 죽음이 귀엽다고 느껴서가 아니라 고통과 고난이 끝나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죽음과 무존재를 증오하고, 존재의 영속성을 사랑합니다. 영원한 존재가 사랑받는 것처럼, 존재의 완전함도 사랑받는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자는 완전함이 없기 때문이며, 심지어 상실조차도 완전함에 비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비존재는 [내면] 성질이든 존재하든 간에 증오받을 만하다. 존재의 영원함이 사랑받는 것처럼, 완전함의 질의 존재도 사랑받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면의 인간 성향에 부여하신 본성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변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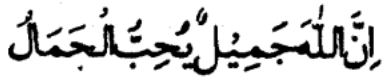
결론은 인간의 첫 사랑이 바로 그 자신의 존재이고, 그 다음에 신체 기관, 부, 자손, 가족, 친척의 안전이 사랑받는다는 것입니다. 장기의 안전은 존재의 완벽함과 영원함이 그것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사랑받으며, 부는 존재의 영속성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나머지 모든 것은 그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로부터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고난을 견뎌야 한다. 왜냐하면 아이가 죽은 후 내 자리를 대신할 것이고, 그 후손들은 내가 떠난 후에도 이어진다. 이는 곧 자신의 존재를 이어가는 것과 같으며, 그 안에서 영원한 존재를 찾는다. 자신의 완벽함 때문에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가족과 친척을 사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들의 완벽함이 자부심의 원천이 됩니다. 부, 관계, 외부 요인은 인간을 완성하는 팔과 같습니다. 따라서 존재, 완전함, 영원함은 모두에게 사랑받으며, 혐오스럽다고 싫어하는 모든 것들에 반대되는 것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완전함과 영원함].

사랑의 두 번째 이유는 호의입니다. 인간은 은혜나 선행을 사랑하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신성한 본성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은인의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호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호의는 은혜자의 행위이며, 사랑이 머무르지 않으면 사랑도 지속되지 않지만, 은인의 존재는 남아 있는데, 사랑의 풍요와 부족이 은혜의 풍부함이나 부족성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이유는 어떤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 존재에서 오는 이익이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이익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진정하고 영원한 사랑이며, 이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존재로부터 오는 어떤 이익이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이익입니다. 이것이 진짜 영원한 사랑이며, 이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강한 성격은 아름다운 꽃, 그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밝은 색의 새 등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즐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즐겁고 즐거우며, 그런 모든 것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모든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것은 즐거움이다. 만약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그분의 위엄과

아름다움이 드러난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은 아름답고 아름다움을 사랑한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압둘라 이븐 마수드의 권위에 따라* 무슬림 사히흐 *하디스* 수집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네 번째 사랑의 이유는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은 사랑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그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모에 신경 쓰고 감정과 인식의 죄수인 사람들은 아름다움이란 인간이 균형 잡힌 장기, 좋은 얼굴 생김새, 붉거나 밝은 피부, 그리고 좋은 키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눈으로 보는 특성들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불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생각에 휩싸이지 않으며, 좋은 피부색과 특징이 결여된 무언가가 아름답지 않고, 닮았거나 매력적이지도 않다고 추측합니다. 비록 이것이 잘못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요. 아름다움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신체 구성의 균형, 또는 연한 붉은 피부색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글씨가 아름답고, 이 소리가 아름답고, 이 말이 좋다고 말하며, 오히려 이 천이 아름답고 이 도구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정도로 가기도 합니다. 목소리, 글쓰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만약 아름다움이 얼굴에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눈이 아름다운 글씨(서예)에서 즐거움을 찾고, 귀는 아름다운 노래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인식은 선하거나 악이다. 그렇다면 모든 것에 공통적인 아름다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좀 더 밝힐 것입니다.

모든 것의 아름다움은 그것에 적합하거나 가능한 완벽함이 그 안에 축적된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그 모든 가능한 완전성이 한 사물에 축적된다면, 그것은 아름답다고 불릴 자격이 있고, 어떤 완벽함이 있고 어떤 것은 없다면, 그 사물은 그 사물이 가진 [그 고유한

완전함]의 정도만큼 아름답게 여겨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말이 아름답다고 부를 수는 없으며, 외모, 구성, 색상, 속도, 고삐에 대한 반응 등 좋은 말에 필요한 모든 특성을 가진 말만이 아름답다고 불립니다. 아름다운 글쓰기는 글자와 단어의 균형, 흐름, 배열, 조직의 아름다움 등 글쓰기와 관련된 모든 완벽함이 축적된 글쓰기입니다. 모든 것은 그 자체만의 완벽함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다른 것에 특이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그 완벽함이 부재하는 것을 다른 것에 대한 아름다움이라고 부른다. 이로부터 모든 것의 아름다움은 그 자체에 고유한 완전함 속에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말이 선하다고 평가되는 근거는 인간이 선하다고 판단되는 근거와 같지 않고, 글을 선하다고 부르는 특성도 말을 선하다고 부르는 데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모든 사안은 이 원리에 근거해 추론할 수 있다.

여기서 방금 언급한 것들은 눈으로만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귀를 통해 인지됨)와 미각과 같은 다른 감각들에 의해서도 인지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름다움이 감각과 감정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다섯 감각 중 어느 것도 지각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지각입니다. 말이 안 돼. 그 답은 아름다움이 감각과 감정의 인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느낄 수 없거나 인지할 수 없는 것들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성격 특성이 좋고, 이 지식이 좋으며, 이 자질이 좋고, 이 버릇들이 좋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성격 특성은 지식, 겸손, 용기, 경외심, 친절, 사려 깊음, 배려심 등 좋은 성격 특성, 내면의 성향, 기질을 의미합니다. 이들 중 어느 것도 오감으로 인지되지 않고, 대신 내면의 통찰(바세라)의 빛이나 빛으로 인지됩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성격 특성들은 사랑받으며, 그것을 가진 사람도 이 성격 특성에 익숙한 사람에게도 사랑받습니다. 그 증거는 인간의 기질에 예언자와 예언자 동료들[그리고 고귀한 성격을 가진 다른 의로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비록 그들이 그들을 본 적도 없고, 그들의 모습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 역사의 종교 지도자들을 매우 사랑하며, 그들을 옹호하는 데 모든 재산을 쏟아붓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비록 한 번도 본 적 없고, 만약 보게 된다 해도 외모조차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부터 배우는 것은 외모나 외모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즉, 지식, 이해, 고귀한 성격, 하나님과의 친밀함 등)을 목격함으로써 강렬하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형은 [무덤에서] 먼지와 섞여 먼지가 되었지만, 신앙, 신에 대한 두려움, 지식의 폭넓은 성격, 종교의 미묘한 부분에 대한 친숙함, 신성한 길의 지식을 전파하려는 투쟁 등 내면의 성격과 특성 때문에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름답고, 모든 특성은 훌륭합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것은 오직 내면의 통찰의 빛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감각은 그들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부 바크르 알-시디크(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뼈, 살, 피부, 장기, 형태와 외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것들이 멸종되었거나 [다른 무언가로 변했기 때문]이라서, 그 [비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것들이 남아 있어서 아부 바크르 알-시디크(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가 신의 친밀함, 근접성, 친밀함, 그리고 신의 영지(*마리파* 또는 *시디키야*)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즉, 그의 고귀한 성격 특성과 아름다운 내면의 자질을 의미합니다. 그에 대한 사랑은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이지만, 겉으로는 사라졌다.

이 모든 아름다운 내면의 성격의 기원과 이유는 지식과 능력(*쿠드라*)입니다. 즉, 이 고귀한 사람들은 사안의 현실을 알게 되었고, 낮은 자아의 욕망과 욕망을 통제한 후 아름다운 내면의 특성, 기질, 성향으로 자신을 꾸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내면의 특성은 바로 이 지식과 능력에서 비롯되며, 이 두 가지는 외부 감각으로 인지되지 않으며, 눈에 드러나 사랑받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외형, 형태, 색깔이 없습니다. 결론은 아름다움이 내면의 성격과 습관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식과 능력이 아름다운 내면의 근원이 아니었다면, 이 일이 사랑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부터 진정한 사랑받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성격과 아름다운 특성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내면의 성격의 표현이며, 그 근원은 지식과 능력임이 증명된다. 이 표현은 인간 본성에서 사랑받지만, 외부 감각으로는 인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팀 알타이의 관대함과 칼리드 빈 왈리드의 용기 이야기를 들으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통제할 수 없고 미묘하게 그들을 사랑하게 된다. 하팀의 관대함은 눈으로 인식되지 않고, 칼리드의 용기의 질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이 사랑은 그들의 외모를 보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기대하는 이익 때문도 아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사람들. 이로부터 사랑이 반드시 사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연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으로 사랑받는다. 비록 사랑하는 사람의 호의가 연인에게 닿지 않더라도 말이다. 사랑받는 존재는 사랑받는 이유가 모든 아름다움이 사랑받기 때문입니다. 형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외부 형태와 내부 형태. 외적 형태나 외형은 눈으로 보고, 내면의 형태는 내면의 통찰(*바세라*)으로 인지됩니다. 내면의 통찰이 결여된 사람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로부터 기쁨이나 기쁨을 얻지도, 사랑하거나 성향을 느끼지도 않는다. 내면의 통찰이 외부 감각보다 강한 사람은 외적 의미보다 내면의 의미를 선호하며 그것을 사랑하는 존재로 여깁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한 사람은 벽에 걸린 그림을 외관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하고, 다른 한 사람은 예언자의 내면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합니다.

다섯 번째 사랑의 이유는 연인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비밀스러운 적합성(궁합)입니다. 때로는 두 사람 사이에 아름다움이나 다른 이점 때문이 아니라 영혼의 궁합 때문에 강한 연결이나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애정과 형제애의 책』(알-*울파 와 알-아쿠와*)에서 밝힌 바 있다 [가잘리의 *대작* "*이히야 알-울룸 앗-딘*" 또는 "신의 길에 대한 지식의 부흥" 2권 5권에 수록되어 있으나].

이 [사랑의 이유에 대한 전체 설명]의 요약은 사랑의 이유가 다섯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 인간은 자신의 존재와 영원함, 그리고 완전함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은혜를 베푸는 이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존재와 영원한 삶을 돕고, 무지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은혜를 베푼 적 없지만 다른 이들이 혜택을 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존재 속에서 아름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모든 내면이든 형태든 의미든 상관없이요. 다섯째는 비밀스러운 궁합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사랑의 이유]가 한 사람에게 모두 축적된다면, 그 사람의 사랑은 완전하고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자녀가 아름답고, 예의 바르며, 지식이 풍부하고, 현명하고, 사람을 잘 대하며, 잘 섬기고, 순종적이라면, 부모는 그 아이를 향한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 성격 특성들이 완성될 만큼 더 강하고 넓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다섯] 이유의 완전함과 축적은 오직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만 가능하며, 실제로는 그분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임을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신에게 기울지 않고 신 이외의 것에 기울어진다면, 이는 그 사람이 신성한 그노시스와 멀리 떨어져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깊은 내면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며, 사랑받는 자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주장은 증거가 없지 않으며, 앞으로의 글에서 사랑의 다섯 가지 이유가 결합되어 오직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사랑의 이유를 한두 가지 정도 가지고 있으며, 그것도 우화적인 의미에서, 오히려 단순한 추측과 사고의 의미에서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이 다섯 가지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 누적되고 결합되는 것은 실재합니다. 이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면, 통찰력 있는 이들에게 어리석고 멍청한 이들의 하나님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와는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사랑받지 못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의 다섯 가지 이유]를 각각씩 따로 살펴볼 것이다 [이 다섯 가지 사랑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첫 번째 이유: 설명된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이 자신을 사랑받는 존재로 여기고 그 영속성, 영원한 존재, 완전함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파괴, 존재하지 않음, 결함, 완벽함의 장애물을 증오합니다. 이것들은 살아있는 인간의 본질에서 발견됩니다. 자기 자신(*나프스*)을 알고 주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 영원함, 완전함,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그분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존재의 창조주이시며, 존재를 유지하시는 분이시고, 완전한 성질을 창조하고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완전한 인물로 이끄는 수단을 창조하시고,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도록 인도하는 인도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인간)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며, 단지 무존재에 불과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로 하나를 창조하지 않으시고, 창조하신 후에 은총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멸망할 것이고, 만약 그분의 은혜를 완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핍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이 살아 있고 자존하는 신에 의해 존재하며, 그 존재는 그분의 존재에 의해 이루어진다. 만약 하나님을 아는 자(*아리프* 또는 영지주의자)가 자신의 존재를 사랑한다면, 그 존재가 의존하고 이익을 얻으며 존재하는 존재에 대한 사랑도 가질 것입니다. 단, 그분을 창조주이자 존재, 진화자, 모든 창조물과 존재의 수호자,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의해 존재하는 존재로 간주한다면 말입니다. 그런 존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주인도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 또는 신성한 영지(*Ma'rifa*)를 아는 열매(결과)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노시스도 없고, 이 영지가 약할 정도로 사랑도 약해지고, 영지가 강할 만큼 사랑도 강해집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햇빛의 고난을 견디는 자도 그늘을 사랑하고,

그늘을 사랑하는 자도 그늘이 자리 잡고 존재하는 나무를 사랑한다. 현재(존재한) 모든 것과 하나님의 능력의 관계는 나무와 그늘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늘의 존재는 나무를 통해 이루어지고, 빛의 존재는 태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그늘은 나무의 존재에 종속되고, 빛의 존재는 태양에 종속된다.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는 그 유일한 존재에게 종속되어 있다. 모든 것은 그분의 능력과 창의성의 본보기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존재를 받은 존재를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자신의 현실, 내면의 특성, 내면과 외적 존재, 내면의 의미와 물리적 구성에서 영속성을 얻었다 [이 생 이후에 시작되는 영원한 생명의 형태로]. 하지만 이 사랑은 위에서 설명한 현실을 아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위 자아의 욕망에 빠져 창조주와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없고, 욕망과 외모만 주시하는 자는 구별이 없는 가시적 세계(물질계)의 영역에 갇힌 죄수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동물들도 그 일에 참여합니다. 천사와 닮은 사람은 오직 그 천사(*'알람 알-말라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동물의 영역에 속해 이 영역에서 낮게 내려가는 자는 천사 영역에서 거리를 두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 사랑의 두 번째 이유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돈으로 도와주며, 모든 일에 도움을 주고,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질투하는 자들의 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자신, 자손, 가족, 친척과 관련된 모든 목표를 돕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보통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 [사랑의 이유]는 또한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사랑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발전한다면, 은혜를 베푸는 분은 오직 그분임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베푸신 은총에 관해서는 글로 담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셀 수 없이 많습니다:

وَإِن تَعُدُّواْ نِعۡمَتَ ٱللَّهِ لَا تُحۡصُوهَآ

"하나님의 축복을 세기 시작하면, 그것은 셀 수 없고 셀 수 없기 때문에 셀 수도 없습니다." (꾸란 14장 34절)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총은 셀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하나님의 종들, 즉 인간은 비유적인 의미에서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은혜로만 언급될 수 있다. 진정한 은인은 오직 하나님만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모든 보물을 주고 쓸 완전한 권리를 부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누군가가 보물을 넘겨주고 쓸 권리를 준 것이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먼저 네 가지 문제를 숙고해야 하며, 그러면 호의의 현실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첫째는 보물을 주는 사람의 존재입니다. 둘째, 부의 존재가 한 명과 함께하는 것. 셋째,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것. 넷째, 마음속에 있는 마음속 생각은 부를 당신에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나요? 누가 부를 주고 그 부를 통제하고 권한을 부여했나요? 누가 마음에 당신을 선택해 부를 넘기려 했나요? 누가 네 사랑을 마음에 넣었어? 어떻게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자신의 발전과 행복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사람은 마음의 요구에 따라 부나 재산을 주려 하며, 그것에 반대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숙고하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은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강요하고, 마음을 복종시키며, 은혜를 베풀게 하는 요인들을 강요한 하나님임을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손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종들에게 전달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 점에서, 사람은 마치 수로가 물을 흐르게 하도록 강요받는 것과 같다. 중개인을 은인으로 여기고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현실에 익숙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인간이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 때는 자신에게 하는 것이고, 신의 어떤 창조물에게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호의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그 보상을 이전의 것에서 찾는다. 예를 들어 세상이 정복당하든, 그에게 복종하며 열렬히 찬양하든, 관대함의 이야기가 널리 퍼지고, 사람들이 순종과 사랑의 꽃을 뿌리기 시작한다. 또는 내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의 보상(신의 보상)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유 없이 자신의 부를 강에 넣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손에 자신의 부를 맡기는 데에는 아무런 숨은 의도(목적)가 있다. 그 동기가 바로 목표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부를 주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목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 목표가 이 세상에서의 언급, 명성, 명예, 위대함, 위대함이든, 내세에서의 명예, 위대함, 신의 보상이든요. 이 [당신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는 당신의 재산을 넘겨줌으로써 당신의 목표를 완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은 당신의 은인이 아니라, 자신 자신(*Nafs*)의 은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부에 대한 대가를 얻고 싶어 한다. 더 나아지 않았다면, 당신에게 재산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누군가는 당신의 감사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게 하는 요인들이 부과된 후, 그 재산이나 물질적 소유를 당신에게 주어야만 했고 이를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왕의 재무관이 왕의 상을 내리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보상을 받은 사람은 회계관을 은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명령을 받은 후 회계관은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왕이 재무관의 의사에 따라 보상 문제를 미룬다면, 재무관은 보상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하나님께서 은인을 자신의 뜻에 맡긴다면, 당신은 위조 동전조차 쓰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마음에 재산을 나누는 이유와 동기를 심어주셨고, 그 후 부를 나누는 것이 이세상과 이세계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마음에 심으셨습니다. 이 기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부를 나누고, 그 대가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부보다 더 나은 것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의 예는 상인이나 사업가인이며, 상인은 부를 나누어 주는 대가를 받기 때문에 수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보상으로 칭찬이나 신의 보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금전적 또는

물질적 보상을 받는 대신]. 보상이 반드시 느껴지거나 보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쾌락과 이익이 부를 대신해 보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때로는 부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호의는 보상을 받지 않는 것으로, 즉 주는 사람이 그것을 통해 쾌락을 느끼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 주는 것이며, 인간에게 이런 호의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은혜의 근원이자 주신자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들에게 베푼 수많은 은혜들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 은밀한 이익이 있지 않으며, 모든 이익은 창조물에 의해 얻어집니다. 이 세부 사항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이외의 존재에게 '호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거짓이거나 단순한 우화적 언급일 뿐이다. 하나님 이외의 은총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어둠과 밝음이 결합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성한 속성(특성)에서 유일하고 유일하십니다. 이는 다른 모든 속성들처럼 말입니다. 이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아리프* 나 영지주의자)은 진정한 은혜를 베풀 능력조차 없는 겉보기의 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진정한 은인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그분만이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는 은혜에 근거한 사랑]. 만약 하나님 이외의 은인을 고려하는 사람이 그런 은총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무지이며 은총의 의미와 주장에 익숙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이유: 인간은 은인을 사랑하기 때문이지만, 그 은혜는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기질에서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정의를 실현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친절과 관대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리더에 대해 들었다면, 그 지도자가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어도(세계 다른 곳, 다른 나라에 있어도) 마음속으로 그 지도자를 사랑하게 된다면, 반면에, 억압으로 악명이 높고, 오만하며, 악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당신과 가장 먼 나라의 지도자에 대해 듣는다면, 그 지도자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 두 리더에 대해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차이가 매우 두드러집니다; 당신은 한쪽에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증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과 증오의 상태는 한 지도자의 후대를 빼앗기고 다른 지도자의 억압으로부터 안전하며, 그 정의로운 지도자나 부정의한 지도자가 지배하는 곳에 갈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의로운 지도자를 사랑하는 이유는 단지 그 지도자가 은인이기 때문이지, 당신이 어떤 호의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이 이유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 외에 누구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단, 하나님 이외의 연결을 가질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창조물에 은혜를 베푸고 은혜와 관대함으로 신의 은혜를 베푸는 자는 오직 그분만이기 때문이다. 먼저 그들에게 존재의 부를 주셨고, 그 다음에는 장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수단을 주어 은혜를 완성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그들에게 필요의 원(영역)에는 없는 안락함과 안락함을 주셨고, 그 안에 약간의 필요가 남아 있었으며, 필요로 간주되지 않는 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체에 필요한 것의 예로는 심장, 간, 머리가 있고, 필요한 장기는 눈, 발, 손이며, 미용을 위한 추가 요소로는 아치형 눈썹, 입술, 뺨, 아몬드 모양 눈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으면 인간의 필요나 필수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오직 인간의 외모 미용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비신체적 것들 중에서는 물과 음식이 필수적이며, 필요한 것은 약, 고기, 과일이고, 추가적인 것으로는 나무의 푸르름과 아름다움, 꽃과 꽃봉오리의 아름다움, 음식과 과일의 맛이 포함됩니다. 이것들은 [추가적인] 것들이며,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필요나 필수품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신성한] 축복은 필요하고 필요하며, 부가운 [아름다움] 것들은 모든 생명체에 존재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구의 입자부터 신성한 왕좌의 고귀함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조물에 존재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은인이고, 그분 외에는 그 누구도 은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은인이라면, 그 은혜는 하나님의 창조물들 중 좋은 것들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분은 아름다움의 창조주이시고, 은인의 창조주이시며, 은혜의 수단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 이외의 사랑은 단지 무지와 어리석음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유: 어떤 것을 사랑하는 이유는 단지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이며, 사랑의 다른 목적은 [그 본질적으로] 아름다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것은 타고난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눈으로 인지되는 아름다움이고, 둘째는 반드시 내면의 통찰을 밝혀야 하는 아름다움이다. 첫 번째 유형의 아름다움은 아이도 인지할 수 있으며, 오히려 동물이나 새도 인지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유형의 아름다움은 '마음의 사람'이라 불릴 만한 사람들에게만 인지됩니다. 그 외 사람들은 이 칭호를 그들과 공유하지 않으며, 그들은 세속 삶의 외적인 측면만 보고 겉으로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그것을 인식하는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마음에서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마음에서 사랑하는 존재로 여깁니다. 예시는 예언자들과 진정한 학자들(성인과 영지주의자들)이 그들의 고귀한(숭고한) 성격 특성과 아름다운 자질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음속에 있지만, 얼굴과 겉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감각으로는 인지되지 않는 내면의 아름다움이지만, 고귀한 성격을 가리키는 징후는 인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그것을 확신하면, 마음은 그들에게 기울고 사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가의 글, 시인의 시, 예술가의 그림, 건축가의 작품을 볼 때, 그 작가, 시인, 예술가, 건축가의 내면적 특성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작품의 핵심은 지식과 능력입니다. 그에 대해 알려진 위대함, 아름다움, 우월함의 범위에 따라 그들의 지식은 더 우수하고 완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을 가진 사람의 상태입니다. 능력을 가진 존재의 높은 명예와 지위가 있는 한도에 따라, 그 능력은 더 우수하고 완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알려진 것들 중에서 가장 높고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존재(하나님)와 관련된 지식은 모든 지식 중 가장 높고 위대한 것, 즉 하나님의 영지(*마리파*)에 대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급별로 보면, 그 존재들은 신의 영지에만 있거나 그에 더 가까운 명예와 우월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 하나님의 영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 정도는 위대함과 명예, 그리고 구별성을 갖게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아름다운 성격 특성, 내면의 특성, 성향, 기질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들은 하나님, 천사들, 계시된 [신성한] 서적들, 그리고 신성한 법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자신과 하나님의 다른 종들을 개조하고 정화하며, 영적으로 개혁하고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악과 내면의 결함, 욕망이 정화되어 인간이 선과 의의 길을 멀리하게 되고, 대신 악의 길을 걷도록 강요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예언자, 그 후계자, 신성한 길의 학자들, 그리고 공정하고 관대한 지도자들을 사랑합니다.

지식, 능력, 순수성: 이제 신성한 속성(특성)과 관련하여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의 상태는 이전에 왔고 지금 여기 있으며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의 모든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분의 지식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며,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전방적인 지식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لَا يَعْزُبُ عَنْهُ مِثْقَالُ ذَرَّةٍ فِي ٱلسَّمَٰوَٰتِ وَلَا فِي ٱلْأَرْ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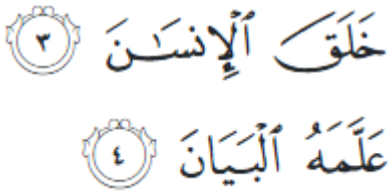
"그분과 그의 지식으로부터 하늘과 땅에서 단 한 입자도 결여된 것이 없다." (꾸란 34장 3절)

한 구절에서는 전체 창조가 다뤄졌습니다:

وَمَآ أُوتِيتُم مِّنَ ٱلْعِلْمِ إِلَّا قَلِيلًا

"그리고 너는 그 지식을 받았지만, 그것은 매우 적다." (꾸란 17장 85절)

대신,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개미나 모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분의 지식을 포괄하기 위해 하나가 되더라도, 그들은 그분의 지식의 아주 작은 일부조차 도달할 수 없으며, 그분이 원하는 만큼의 지식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물이 가진 거의 아는 것은 그분의 교육 덕분입니다.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인간을 창조하고 말하기(웅변, 자신을 설명하는 능력, 복잡하고 미묘한 사안의 표현, 타인의 말과 표현에서 배우는 것)을 가르쳤다." (꾸란 55장 3-4절)

결론은, 지식의 아름다움과 구별이 사랑받거나, 그것을 가진 자에게 그 자체로 장식과 완전함이라면, 그런 점에서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지식은 그분의 지식에 비하면 단지 무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모든 창조물의 지식을 합친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우월함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에는 한계가 없고, 창조물에 대한 지식은 한계가 있고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쿠드라,* 즉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실현할 수 있는 능력, 수단, 노하우)도 완벽함의 속성이며, 그에 비하면 무능력은 단점이나 결함입니다. 모든 완벽함, 위대함, 구별, 우월함은 사랑받으며, 그 인식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알리(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와 칼리드(신께서 그에게 기뻐하길)가 동시대인들보다 용기와 탁월함을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행복의 감정이 마음을 흔든다. 그들의 용감한 모험담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진다면, 만약 직접 그들의 모험을 목격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능력과 용기를 하나님의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창조물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넓은 지배력과 권력을 지녔으며, 모든 인간 중 가장 낮은 자아의 악을 근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택해 보세요. 자기 자신과 타인의 자아(영혼과 관련된 숨겨진 문제)에 대해 가장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면, 엄청난 힘과 권력, 광범위한 통제력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 생애, 죽음 이후의 부활, 이익, 손실을 막는 데는 전혀 통제하지 못하며, 심지어 시력과 청력을 잃는 것조차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십시오. 혀의 언어와 신체의 질병. 자신의 능력과 관련된 일에서 인간이

자신과 타인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관련 없는 일은 파리 날개 크기만큼 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게 가진 능력은 자신의 행위도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셨듯이, 하나님도 자신의 능력과 수단을 창조하여 자신의 능력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능력, 정치, 지배, 통치, 권력의 완성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 중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권력과 힘은 오직 가장 지배적이고 위대한 하나님에게만 어울리지만요. 그는 모든 지식의 압도자이자, 전지전해, 모든 능력을 가진 소유자입니다. 천국은 그분의 오른손에 감싸여 있으며, 땅 위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의 통제 하에 있으며, 모든 창조물의 고삐는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을 파괴하신다면, 그의 지배에서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종들 중에서, 능력이나 힘이 있는 자는 모두 그분의 최고 능력과 권세의 징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름다움, 위엄, 위대함, 지배, 우월성, 우월함은 그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의 능력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로 간주할 수 있다면,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은 모든 능력을 가진 신, 숭고하신 분입니다.

하층 자아(*Nafs*)를 모든 흠, 결점, 악으로부터 정화하고 정화하는 것은 그것을 가진 자를 사랑하도록 강요하는 속성(특성)이다. 이것 또한 아름다움이며 내면의 형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예언자와 영지주의자들이 결점, 죄, 악 위에 있었지만, 정화의 신성함과 완전함은 오직 위엄과 위엄, 위엄, 명예를 소유하는 그 한 존재에게만 가능하다. 다른 모든 창조물들도 결점이 있는데, 대부분의 창조물은 결점과 결점의 화신처럼 보이며, 오히려 그들이 창조물이고, [많은 것을] 할 수 없으며, 신성한 권능에 의해 복종당하고,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결점과 결점이다. 따라서 완전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허락됩니다. 하나님 외에 누군가 완전함을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완전함의 정점에 도달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함의 최저 수준은 하나님의 종이 더 이상 신의 권능에 복종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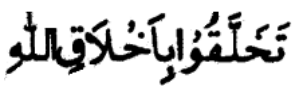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 외에는 이 속성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외의 누구도 이 속성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분은 이 구분을 완전하게 지니는 유일한 분이시며, 모든 결점이 없으시고, 모든 악에서 정화되신 분이십니다. 만약 성스러움과 모든 결점에서의 정화가 아름다움과 완전함, 그리고 이것이 사랑의 원인으로 여겨진다면, 실제로 이 속성은 오직 하나님만의 전유적인 속성입니다. 만약 하나님 이외의 누군가가 이 속성의 몫을 받았다면, 그것은 다른 [창조물]과 비교했을 때만 완전하다고 불린다.

다섯 번째 이유: 사랑의 다섯 번째 이유는 서로 닮은 무언가가 그런 성향을 갖기 때문에 호환성과 유사성입니다. 따라서 아이는 아이에게 기울고, 어른은 어른에게 끌리며, 모든 동물은 자기 종족에게 끌려 다른 종족을 피해 도망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지식 있는 사람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더 끌리고, 목수는 농부보다는 다른 목수에게 더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증명이 필요하지 않지만, 경험과 관찰이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궁합이 사랑의 중요한 원인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궁합은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고, 때로는 반드시 인지하지 못하는 숨겨진 문제에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우연히 어떤 문제로 하나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본 적도 없고 서로의 부에 대한 탐욕도 없지만, 예언자 무함마드(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가 말했습니다:

اَلْأَرْوَاحُ جُنُودٌ مُجَنَّدَةٌ فَمَا تَعَارَفَ مِنْهَا ائْتَلَفَ وَمَا تَنَاكَرَ مِنْهَا اخْتَلَ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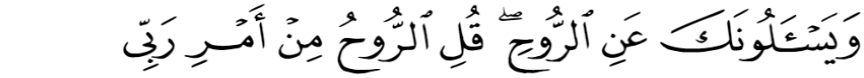
"영혼은 연합된 군대(집단)입니다. 이 세상에 오기 전 영혼의 영역에서 서로를 알고 있었던 이들은 모여 [이 세상에서도 잘 지내며]. 영혼의 영역에서 낯선 존재였던 이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영적 평원에서 양립하지 못해 물질계에서 결합하거나 만나거나 모이지 않는다]".

이 전통에서 '익숙함'은 '궁합'을, '낯선 사람'은 '부적합'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합은 하나님의 종(즉,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궁합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둘 다 같은 얼굴과 외모를 가지며, 대신 내면의 궁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궁합은 때로는 책에 적을 수 있는 사안에서, 때로는 책에 기록하거나 기록할 수 없는 사안에서 나타나며, 신성한 질투(*가이라*)의 장막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낮은 영적 야망으로 인해 신성한 비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영적 길에서의 실수, 그리고 신성한 현존으로 나아갈 올바른 의도와 높은 결의가 없으며] 그 은폐는 올바르게 이루어져, 그노시스의 길을 걷는 여행자들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신성한 은총으로 스스로 이 비밀들이 드러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양립이 가능하고 책에 기록될 수 있는 사안들은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의 예언 전통에 명시된 대로 따르도록 명령받은 내면의 성격과 속성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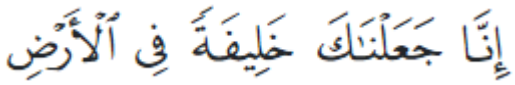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신을 꾸미라(즉, 진정으로 경건하게)".

다시 말해, 의로움, 지식, 타인에게 선하고 자비를 베풀기, 관대함, 친절, 좋은 조언, 인도의 길을 보여주기, 악을 막는 등 신성한 특성 중 하나인 아름다운 성격, 내면의 기질, 성향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신성한 법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은 그것들을 얻음으로써입니다. 이 가까움은 장소와 몸의 가까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식하신 내면의 특성과 속성의 근접성입니다. 책에 적어서는 안 되는 일들은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암시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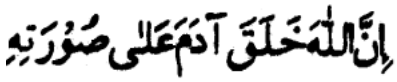
"그들은 영혼에 관해 묻는다. 그 영혼이 주님의 명령에서 온 것이라고 전하라." (꾸란 17장 85절)

이 구절에서는 영혼이 신성한 물질이며 인간의 지성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탁월한 설명은 이 책 1장 "영혼의 신비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때문에, 천사들은 꾸란에 명시된 대로 아담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우리는 너희(인간)를 [하나님의] 이 땅에서 대리인으로 만들었다." (꾸란 38장 26절)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호환성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이 될 자격이 생겼다. 무함마드 예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그리고 확장하여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다. 아담은 온 인류의 아버지이시며]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전통에 근거해, 지능이 낮은 일부 사람들은 형상(또는 이미지)이 감각이 인지하는 외적 형태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추측 때문에 그들은 신의 몸과 기관을 [잘못] 상상하고, 감각으로 인지되는 다른 것들과 비교했다. 하나님께서 이 지적 부족으로부터 우리를 피난처로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인간과 신 사이의 호환성]은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의 전통에서 암시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모세(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병들었으나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방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처음부터 당신이 아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이 병들었는데도 너희는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 네가 그를 방문했다면, 나를 그 근처에 발견했을 거야."

그러나 이러한 호환성은 인간이 [먼저 의무적] 신성한 예배 행위를 수행하고, 그 후에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로운 행위와 길에서 뛰어난 성과(선택적) 예배 행위를 수행할 때 나타납니다. 하*디스 쿠드시*(신에게 출처로 귀속된 예언적 서사)에서, 무함마드 예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신이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내 종은 신성한 의무에 따른 초과 행위(선택적이고 추가적이며, 신성한 의무를 넘어서는) 행위로 나에게 가까워지다 [예배, 헌신, 봉사]를 통해 내가 사랑할 때까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나는 그 사람의 듣는 존재가 되고, 그 사람의 눈이 되고, 말하는 혀가 된다(즉, 신의 도움, 위로, 가까움은 신성한 길을 진심과 단호함으로 노력하는 결과로 삶의 모든 측면에 포함된다)". (이 전통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 사히흐 부카리(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이 설명의 요약은, 사랑의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가 궁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이유이긴 하지만, 그 존재는 매우 드물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다섯 가지 이유(사랑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만 결합되어 있으며, 우화적·은유적 의미나 암시적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들은 하나님 안에서 매우 높은 수준에서 결합되어 있습니다. 내면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합리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만이 오직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근시안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이 어떤 특별한 이유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같은 이유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일종의 결점이며, 사랑하는 사람이 완벽함의 수준에서 벗어났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독특할 수 있고,

다른 누구도 그 특성을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존재할 수도 있고, 미래에 그런 특성이 다른 사람 안에서 존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모든 속성과 특성은 최고 수준과 등급에 있으며, 신성한 위엄과 아름다움의 속성에 공동으로 공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그런 존재는 없고 미래에 그런 존재가 존재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는 나눌 수 없으며, 그래서 그분은 결점이 없으며, 그분의 고귀한 속성들에 공동으로 나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사랑과 사랑의 완성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 [신성한] 권리는 누구도 그 안에 공동으로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신성한 영지와 신성한 비전의 기쁨

이 제목 아래에서, 우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쾌락이 신성한 영지와 신성한 얼굴의 환상이며, 이 쾌락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선호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영지와 신성한 비전의 쾌락보다 세속적 쾌락을 선호하는 것]은 오직 이 [최고의] 쾌락을 박탈당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인간의 기질과 그 쾌락: 모든 쾌락은 인간 안에 축적된 지각과 여러 힘과 기질에 종속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모든 힘과 기질에는 별도의 쾌락이 있다. 이 쾌락의 의미는 모든 성향이나 기질이 창조된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기질은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기질은 그 목적을 위해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분노의 기질은 만족과 복수를 위해 만들어졌다; 분명히 그 즐거움은 지배를 찾거나 복수를 요구하는 데 있다. 이 복수와 만족이 그 목표입니다. 먹고자 하는 욕구의 기질은 음식을 얻기 위해 만들어졌고, 그와 함께 [육체적] 존재의 지속을 찾기 위해;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즐거움은 그 목적인 음식에 있다. 듣고, 보고, 냄새 맡는 기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질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서 기쁨을 느낀다.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서 기쁨을 느끼지 않는 기질은 단 한 명도 없다. 마찬가지로, 마음에는 신성한 빛나는 기질이 있습니다. 이 기질은 내면의 통찰, 믿음의 빛, 확신성으로도 불립니다. 하지만 용어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의미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은 의미를 인지하는 속성(사물의 실재성)으로 인해 다른 모든 신체 기관과 별개의 지위를 가진다. 이 의미들은 상상력이 풍부하지도 않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의 창조와 영원하고 지혜로우며 신성한 속성으로 장식된 창조주에게 우주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기질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성을 이런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토론과 논증과 관련된 방법에서 사용하는 힘이나 능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에서 지성이라고도 불립니다. 실제로 지성은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특성이며, 그 수단을 통해 신성한 영지(Gnosis)를 인지합니다. 이것이 훌륭한 품질임은 분명합니다.

마음의 기질: 이 기질은 모든 사안의 현실을 그 수단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질의 목표는 지식(*'일름*)과 신성한 영지(*마리파*)이며, 그 즐거움은 다른 기질들처럼 그들의 목표에 있는 것들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데 있다. 지식의 즐거움과 신성한 영지에 관해서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사소한 것을 이해하거나 알게 되면 기뻐하고, 사소한 일이라도 낯선 사람은 슬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것들을 이해하게 된 것에 자부심을 표현하고, 그들의 혀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그 지식에서 큰 기쁨을 얻고, 그것을 자신의 존재의 완전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신성한 주권(*루부비야*)의 속성 중 가장 위대한 속성이며, 완전함의 정점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지식 때문에 칭찬을 받으면, 매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자신의 존재와 지식의 완전함에 대해 듣고, 그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국가 운영(국가 행정)과 정치 전략에 대한 지식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농업과 농작에 관한 지식에서는 그만큼 얻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천사, 천지의 비밀에 대한 지식에서 얻는 즐거움의 양은 문법과 시에 대한 지식에서 얻는 것과 같은 수준의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지식의 즐거움은 그 명예와 탁월함과 상관없다는 점입니다 [관련된 것에 관해서] 지식의 명예는 그 주제에 대한 명예에서 인정됩니다. 지식과 이해에서 가장 뛰어난 이해나 지식은 가장 큰 쾌락을 주는 것이며, 그 명예는 그 지식과 이해의 주제에 대한 명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존경받고, 우월하며,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완성하시고, 아름다움을 부여하시며, 한 번 인간을 존재하게 하셨다가 그들의 멸종을 초래하시고 다시 부활시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계획자이자 작곡자입니다. 지배, 아름다움, 완벽함, 위엄의 모든 고지를 아우르는 신성한 법정 이외의 궁정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신의 위엄의 원인을 상상하는 것도, 국가들의 경이로움을 포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찬양하는 이들의 혀는 침묵하고, 펜은 지쳐 보인다(신성한 경이로움에 대해 쓸 수 없어 보인다). 이 진리에 의심이 있다면, 신성한 주권의 비밀과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신성한 사물의 조직에 대한 지식이 모든 이해 중 가장 우월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순수하다는 점에 대해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지식을 얻는다면, 자신의 존재가 탁월함과 완전함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할 정당한 권리가 생깁니다. 이로써 지식은 즐거움이며, 가장 즐거운 지식은 하나님의 존재, 속성, 행위, 그리고 땅과 신성한 보좌 사이에 퍼진 무한한 지배의 지혜와 행정에 대한 지식임을 알 수 있다. 영지의 쾌락(그 지식에 아주 적은 부분을 가진 것)은 모든 쾌락 중 가장 크며, 욕망, 분노, 그리고 다른 감각의 모든 쾌락에 비해 가장 효과적이고 단단하며 지속되는 쾌락이다.

현실은 세속 존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내세에서 그분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영지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자는 내세에서 신성한 환시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세속 생활에서 [영적 노력, 노력,

그리고 그에 따른 신성한 영지의 획득 측면에서] 무언가를 가져갈 수 없다면, 내세에는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기 전까지는 어떻게 [수확을]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심판의 날에] 죽었던 상태와 같은 [영적] 상태[또는 그 부재]에서 부활할 것이며, 한 사람은 평생 살아온 상태에서 죽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성한 그노시스에 의존(공급)하는 정도에 따라 기쁨을 찾게 되며, 같은 영지가 신성한 환상으로 절정에 이르러 쾌락을 배가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기쁨이 배가되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생각에 잠겨 즐거움을 느끼다가, 갑자기 사랑하는 이의 얼굴이 눈앞에 나타나고, 지금 느끼게 될 쾌락은 수십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오히려 이 환상이 쾌락의 절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낙원의 상태는 누구나 들어가면 원하는 모든 축복을 받지만,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그 외에는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합니다. 요약하자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나고 사랑이 신성한 영지(Gnosis)에 부합할 때 천국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사아다*)의 진정한 원인이 하나님의 영지(Gnosis)임을 의미합니다. 신성한 법은 이를 신앙(*이만*)으로 해석했지만[신앙은 실제로 영지(Gnosis)를 가리킨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완성하는 방법: 내세에서 가장 행복하고 번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굳건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세의 의미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는 영광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만남을 갈망하다가 사랑하는 이에게 찾아가 영원히 환상의 행복을 얻는 것이 더 큰 축복이 있을까? 그 상태에서 장애물도, 기쁨을 망칠 것도 없으며, 적도, 질투하는 사람도, 상대도 없으며, 이 환상이 끊길까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이다. 하지만 이 축복은 사랑의 힘(강도)에 비례할 것입니다. 사랑의 정도는 쾌락의 정도일 것이다. 하나님의 종(즉, 인간)은 세상 생활에서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데, 이는 신앙인이라면 사랑이 결여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렬한 사랑'(*Ishq*)이라 불리는 것은 모든 개인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대다수 사람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신성한] 사랑의 정점은 두 가지 방법으로 달성됩니다:

첫 번째 수단 - 세속적 집착과 얽힘을 끊는 것: 첫 번째 수단은 종이 세속적 집착과 얽힘에서 벗어나 하나님 이외의 사랑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입니다. 심장은 용기와 같아서, 물이 빠지지 않는 한 식초를 넣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서]과 세속적인 집착과 공존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슴에 두 개의 심장을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완전함이란 마음 깊은 곳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계속 마음을 기울이기 전까지는, 마음의 한 부분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에 빠져들면, 그 정도의 사랑은 결핍됩니다. 모든 악을 마음에서 정화하고 모든 종류의 사랑을 비우라는 명령이 신성하신 명령입니다.

신의 일치와 일체성의 증 لَا إِلَٰهَ إِلَّا اللَّهُ 언(하나님 외에 신은 없다)은 하나님 외에는 숭배할 자격이 없으며, 하나님 외에 사랑받는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받는 자가 우연히 하나님(또는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종(또는 노예)의 의미는 감금된 사람이고, 주인은 연인이 감금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연인은 사랑하는 이의 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أَرَءَيْتَ مَنِ ٱتَّخَذَ إِلَٰهَهُۥ هَوَىٰ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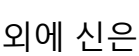
"자신의 욕망으로 신을 만든 자를 본 적 있나요? [하위 자아에서] 그리고 그것을 쫓고 있는 분이요?" (꾸란 25장 43절)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أَبْغَضُ إِلَهٍ عُبِدَ فِي الْأَرْضِ الْهَوَى

"지상에서 숭배되는 최악의 신은 하위 자아의 욕망이다 [그것이 지상의 모든 악, 고난, 갈등, 혼란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

또 다른 전통에서는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외에 신은 없다  '고 말하는 자는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진실성의 의미는 종이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바치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만이 예배할 자격이 있는 신이 되고, 마음의 사랑받는 자가 되며, 마음의 목표가 되는 하나님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세상(세속적 집착, 얽힘)은 감옥과 같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받는 이의 환시와 자신 사이의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한 명뿐이고, 오랫동안 사랑하는 이를 만나고 싶어 안달이 났으며, 그 사람의 환영을 간절히 기다려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감옥의 벽과 철제 격자가 오히려 방해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감옥에서 해방된다. 그렇다면 행복의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생각은 [그 자유와 해방의 상태에서] 정말 위안이 되고 상쾌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사랑(세속적 집착과 세속적 집착)의 강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지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에는 배우자, 자녀, 친척, 땅, 동물, 정원, 오락 등에 대한 사랑이 포함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사랑에 갇혀 그 축복을 향해 기울어져 있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상실을 겪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갈망이 많아도,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은 줄어들 것입니다. 세상에서 몫을 얻는 정도가 되면, 그 정도로 내세에서의 몫은 줄어들며, 마치 동쪽에서 멀어지는 것과 서쪽에 가까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과 저승은 동서와 같아. 마음을 가진 사람들(영성)은 세속적인 사랑을 마음에서 없애기 위해서는 금욕(*주흐드*, 세속적으로부터)의 길을 택하고, 인내(*이스티카마*)를 가지며, 두려움과 희망을 가진 신성한 순종을 가져야 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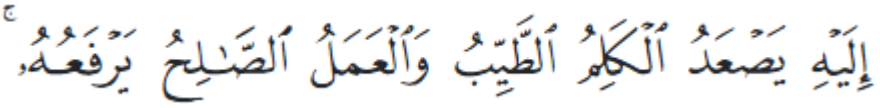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전 장들에서 우리는 회개, 인내, 금욕, 경외(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희망(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단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신성한 사랑을 얻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이며, 그것은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이나 누구의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것(즉, 내면의 변화)은 하나님, 심판의 날, 그리고 두려움과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후에는 [잘못에 대해] 회개와 [의와 영적 노력의 길을 걷다 마주한 역경에 대한 인내]가 태어납니다. 점차 마음의 상태는 변화하여 부, 물질적 소유, 세속적 쾌락에 대한 조금의 성향조차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모든 악과 탁함을 정화하며, 신성한 사랑의 정화된 등불이 마음에 빛나면서 신성한 영지(*마리파*)와 신성한 사랑(*마하바*)의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회개와 인내와 같은 영적 정착은 마음의 정화를 촉진하는 초기 촉진자입니다. 이 정화는 신성한 사랑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방법 – 신성한 영지(Gnosis) 강화: 신성한 영지(*Ma'rifa*)를 굳건히 하거나 강화하여 마음속에 잘 퍼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서 강화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마음이 세속적인 모든 집착과 관념에서 정화될 때 가능해집니다. 그 비유는 씨앗을 뿌리기 전에 땅에서 잡초를 뽑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사랑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이 신성한 영지의 씨앗이 심어지고 [끊임없는 물 주기, 잡초 제거, 날씨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등]이 뿌려지고 돌봄을 받으면, 사랑과 신성한 영지의 묘목이 점차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크고 튼튼하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나무로 자라며, 순수함의 고귀한 표현(*칼리마 타이이바*)으로 불립니다. [마음속에 단단히 박히는]. 꾸란은 이렇게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ضَرَبَ ٱللَّهُ مَثَلًا كَلِمَةً طَيِّبَةً كَشَجَرَةٍ طَيِّبَةٍ أَصْلُهَا ثَابِتٌ وَفَرْعُهَا فِى ٱلسَّمَآءِ

"신은 고귀한 순수함의 비유를 전하셨는데, 그것은 단단하고 깊은 뿌리를 가진 고귀한 나무와 같으며, 그 가지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다." (꾸란 14장 24절)

이 고귀한 진술은 꾸란에서 다음과 같이 더 암시된다:



"선한 말씀이 그분께 전해지고, 선한 의로운 행위가 그분께 [신성한 임재 안으로]로 올라가게 한다. (여기서 우리는 신성한 임재로 승천하며 의로운 행위에서 뛰어나고 노력하는 비밀과 지혜를 배우며, 행인의 영적 지위와 지위를 높이고, 신성한 영지와 진정한 삶의 목적을 달성하며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에 이르는 과정을 배운다)." (꾸란 35장 10절)

"고귀한 순결의 진술"은 그노시스(*Ma'rifa*)를 가리키며, 선한 의로운 행위는 그 전달자이자 종과 같습니다. 마음은 선한 의로운 행위로 정화되며, 이 내면의 순수함과 명료함은 영생의 성취로 이어집니다. 선한 선행이 멈추면, 마음의 순수함도 끝나게 됩니다. 선한 의로운 행위(신성한 길에서의 영적 노력을 포함하는)의 목적은 이 영지이며, 지식은 이러한 행위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이는 지식이 신성한 영지(Gnosis)를 얻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이고 최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첫째 지식은 외부 사물에 대한 지식(외적 지식 또는 "*일름 무암리*")이며, 그 목적은 행동과 행동이다. 이 지식을 통해 마음은 모든 악과 불순물을 정화하여 진리의 빛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신성한 영지의 지식으로 장식됩니다. 신성한 영지에 대한 지식의 또 다른 명칭은 '영적으로 드러난 지식'(*'Ilm al-Mukashafa*)'이며, 이는 신성한 현존으로 인도하는 영적 깨달음에 필요한 두 번째 지식입니다.

신성한 영지에 대한 지식을 얻으면, 반드시 [신성한] 사랑[신이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이 신을 사랑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마치 온건한 기질의 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것에 마음을 끌고 그 [탐닉]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쾌락은 본래 사랑에 종속되고, 사랑은 영지에 종속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세속적 얽힘과 집착과의

관계를 끊을 때만 이 영지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 관계의 단절은 명확한 사고, 신성한 기억의 영원함,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속성, 지배 및 신의 모든 창조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 [영적 성취와 완전함]에 도달한 사람들은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강인한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영지에 도달하고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을 인식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의 영지가 [선한 의로운] 행위와 행동에서 시작되어 그로부터 발전하여 모든 것을 실천하는 자에 이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두 번째 유형]에게는 이 방법이 더 쉽습니다. 꾸란은 많은 구절에서 사람들에게 묵상, 숙고, 검토, 그리고 [전 세계에 퍼진 하나님의 징조에서 얻은 교훈을 도출하라] 하도록 초대했으며, [인류가] 진리에 도달하는 이 방법으로 인도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 두 가지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고 더 쉬운 방법을 듣고 싶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창조물을 이해하는 첫 번째 방법이 실제로는 일반인(평신도)에게는 어렵고 미묘하며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남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두 번째 길뿐입니다. 사람들이 이 [더 쉬운] 방식을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진짜 이유는 그들이 깊이 생각하거나 숙고하지 않고, 세속적인 욕망과 하층 자아의 육체적 쾌락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 자세히 논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광범위하고 헤아릴 수 없는 주제이며, 셀 수 없는 여러 유형(하위 가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높이에서 땅 깊은 곳까지, 어떤 입자도 하나님의 능력의 완성, 지혜의 완성, 위엄의 정점에 대해 논쟁하지 않는 입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정점; 이들은 셀 수 없는 입자들이며, 각 입자는 자신 안에 그분에 대한 셀 수 없는 증명을 내재하고 있다:

قُل لَّوۡ كَانَ ٱلۡبَحۡرُ مِدَادٗا لِّكَلِمَٰتِ رَبِّي لَنَفِدَ ٱلۡبَحۡرُ قَبۡلَ أَن تَنفَدَ كَلِمَٰتُ رَبِّي وَلَوۡ جِئۡنَا بِمِثۡلِهِۦ مَدَدٗا

"말하라, [오 무함마드여!" 인류에게 가르치는 의미로], '만약 바다가 나의 주님의 말씀을 쓰기 위해 먹물이 된다면, 우리가 보충으로 가져왔다 해도 주님의 말씀이 다 빠지기 전에

바다가 고갈될 것이다.'" (신은 헤아릴 수 없는 영적 지식과 경험의 바다를 암시한다.) (꾸란 18장 109절)

이 [신비적 영성] 지식에 빠지는 것은 "*일름 알-무카샤파*"('*일름 알-무카샤파*') 즉 영적 드러남에 대한 지식의 바다에 잠수하는 것과 같으며, 이를 외면적 지식('*일름 알-무암라*)'이라는 분류로 부적절하게 쓰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비유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성한 행위를 이해하는 수단을 통한 창조주의 영지: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방법 중 더 쉬운 방법은 신의 행위를 이해함으로써 신의 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행위들, 특히 다른 많은 신성한 행위들에 비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쿠드라*)의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구와 그 위에 거주하는 창조물들은 천사들과 천상의 지배자들에 비해 매우 작고 하찮습니다. 지구의 질량과 크기를 보면, 지구는 분명히 엄청나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작아 보이는 태양은 지구보다 수천 배나 큽니다. 한편으로는 태양의 광대함을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태양이 속한 우주의 광활함을 보라. 태양의 광대함과 우주의 광대함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늘의 한계이며, 이 하늘은 그 위의 하늘에 비해 매우 작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곱 천국은 신성한 자리(위엄, 권능, 지배, 지배, 주권의 자리)와 비교하면 광활한 사막에 놓인 철 조각과 같고, 신성한 자리(*아르쉬*)와 비교하면 신성한 자리에 비하면 일곱 하늘과 같습니다. 태양, 우주, 신성한 자리와 신성한 왕좌의 광대함을 들여다보고 지구와 비교해 보세요. 이 지구가 얼마나 작고, 하찮으며, 하급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구(지구 위의 육지)는 지구의 바다에 비해 매우 작습니다.

인간이 신성한 경이로움을 곰곰이 생각한다면, 앞서 언급한 방법들보다 더 쉽게 얻기 쉬운 영지(Gnosis)를 얻게 됩니다. 영지가 증가하면 [신성한] 사랑도 함께 증가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갈망하며 신성한 환상의 영원한 행복을 원한다면,

세속적인 화려함, 화려함, 집착과 얽힘 같은 세속적 추구를 삼가고, 신성한 기억과 묵상을 스스로에게 의무화하세요. 끊임없는 영적 노력을 통해 신성한 영지와 사랑의 나눔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쾌락을 떠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고 영원한 지배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신성한 사랑에서 사람들 간의 차이 이유: 모든 신자는 모든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기본적인 사랑을 함께 공유합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다양한 정도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사람들이 이해와 영지, 그리고 세상에 대한 사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물들 간의 차이는 그 사물들 뒤에 있는 [기원] 원인 때문입니다. 신성한 사랑의 원인은 영지(Gnosis)입니다. 그노시스가 더 많거나 적다면, 사랑이 증가하거나 부족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각 이름은 신성한 특성을 나타내며)과 속성에 관해 들은 것과 암기한 것 외에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지 못하며,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하나님이 자신들보다 훨씬 위에 있다고 상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신성한 이름과 속성의 현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잘못된 의미를 상상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신앙의 문제로 듣고 받아들이며, 토론이나 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신성한 예배에 관여하는 행동에 몰두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른손'의 사람들이며, [안전과 궁극적인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의미를 상상하는 자는 오도의 길에 있으며, 신성한 이름과 속성의 현실을 아는 자는 신의 친밀한 존재이며, 신성한 근접성과 영지에서 인류 전체의 최우선입니다.

사람들은 예시를 통해 사물을 이해하므로, 먼저 같은 것에 대한 사랑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자가 있는 책 때문에 작가를 높이 평가하고, 작가의 탁월함과 완벽함을 믿으며, 같은 작가의 또 다른 책이 첫 번째 책보다 더 나은 책이 나온다면, 분명히 그 작가에 대한 사랑은 더욱 커지고 그 작가의 탁월함과 완벽함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식과 기술은 그 상태에 있습니다. 영지(Gnosis)를 가지고 그 점에서 사랑이 증가하는 사람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반면에, 악한 행위자(좋은 것에 관심이 없고 나쁜 일에 기울어지는 사람)가 있는데, 그 사람이 좋은 책을 쓴 저자라는 것만 듣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 책들에 숨겨진 지식을 알지 못하며, 저자가 책을 이해하는 것은 피상적일 뿐이며 사랑도 미미합니다. 내면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듣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작가의 책을 읽으며 빛나는 지식의 진주를 찾고자 노력하며, 이 책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경이로움을 익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성공하면 창조물이나 글이 창조자의 탁월함과 완전함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랑은 배가로 커집니다. 저자. 이제 다른 예시를 통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이자 저작된 책입니다. 평범한 인간은 이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피상적이고 피상적일 뿐이며, 내면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그 세부사항을 알고 싶어 하며, 지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소한 것들 속에서 경이로움을 찾으려 할 정도로 깊이 고민한다. 이 상세한 연구는 신성한 위엄, 위엄, 완전함을 더하며, 그 점에서 그분의 마음에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영지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함께 증가합니다.

신성한 경이로움의 바다는 해안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바다입니다. 따라서 이 영지의 소유자들이 [그분에 대한] 사랑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수준] 사랑은 또한 우리가 이전에 설명한 다섯 가지 이유로 [사람마다 다르게] 다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상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분명히 이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기에 약하며, 약함의 징표는 하나님께서 받는 은혜의 변화로 인해 그들의 사랑의 정도도 변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역경의 순간과 편안함과 편안함의 순간의 사랑 상태는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거나 그분이 그분의 완전함, 아름다움, 질투(*가이라*)로 인해 그분을 사랑하는 자[낮은 영적 야망, 영적 길에서의 실수, 그리고 신성한 임재로 나아갈 올바른 의도와 높은 결단력이 없는 자들로부터 신성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함], 그리고 위엄과 신의 은총의 차이로 인해 이 사랑에는 차이(변)가 없다. 이것이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수준이 차이나는 이유이며,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도 [신성한] 사랑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점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성함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의 의미: 사랑받는 것이 목적일 때 갈망이 필요한 특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제에서는 영지주의자가 분명히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사랑받는 자)을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주장을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것이다: 첫째, 경험과 관찰에 근거하고, 둘째, 전통을 통해 증명할 것이다.

경험과 관찰을 통한 첫 번째 방법: 이 부분에 대해 많이 말할 필요는 없으며, 우리가 사랑에 대해 쓴 내용만으로도 충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서 사라졌다면,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 앞에 있거나 사랑하는 이의 존재에 도달했다면, 그리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움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이름이고, 얻은 것은 찾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오래 갈라질 수 없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를 본 적도 없거나 들어본 적도 없다면, 그런 사람을 그리워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지각은 시각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시야에 있다면,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시를 통해 설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진다면, 그 생각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환상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완성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서 사라지고 잊어버리면, 그리움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본 후 다시 그리움이 생길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리움의 의미는 환상을 통해 마음속 생각을 완성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이를 어둠 속에서 보면, 빛 속에서 사랑하는 이를 보며 자신의 비전을 완성하고자 하는 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만 머리카락이나 다른 특징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전에 못했던 사랑하는 이의 더 아름다운 특성을 보고 싶은 갈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의 경우, 두 경우 모두 상상할 수 있으며, 오히려 영지주의자들은 두 가지 이유로 반드시 신을 갈망한다. 그노시스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신성한 현상들은 겉보기에는 명확하고 밝지만, 실제로는 매우 미묘하고 복잡하며, 얇은 장막 뒤에서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안은 숨겨져 완전한 시각이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비전은 상상과 뒤섞여 영지주의자들의 마음속에 탁하고 흐릿함을 초래했다. 게다가, 세속적인 삶(모든 문제와 얽힘이 포함된)이 그림자를 드리우면, 이 영지의 모든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명확한 시야의 완성은 비전(*무샤하다*)과 영적 빛의 번개(*타잘리*)의 조합에서 일어날 것이며, 이는 내세가 오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영지주의의 목적은 신성한 시각과 영적 빛의 번개를 얻는 것이므로, 마음이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세속 생활에서 이룬 주도적 요인들의 이해를 이룬 사물(그노시스)의 완성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신성한 것에 의해] 갈망을 위한 첫 번째 필수 조건이었다. 두 번째 필수 조건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는 특정 것들을 본 후 특정 것에 대한 갈망을 갖는 것이며, 이는 신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신성한 일들은 무수히 많으며 한계가 없습니다. 모든 [신성한] 사안이 하나님의 종, 즉 인간에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드러나고, 복잡하고 미묘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은 가려져 있거나 은폐된 상태로 남겨진다. 영지주의자는 그런 문제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자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영지주의자는 남은 사안들을 자신의 지식 영역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다. 하나님의 영지에 완전한 명확함과 깨달음으로 도달하는 첫 갈망은 내세에서 완성(완전한 성취)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갈망이 "환상", "만남" 또는 "신성한 것을 보는" 의미로, 이 세상(세속적 삶)에서 이 갈망이 완성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갈망의 두 번째 필수 조건은 이 생도, 내세에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갈망의 완성(완전한 성취)은 종이 신성한 아름다움과 관련된 모든 것을 드러내는 방식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웅장함, 속성, 지혜, 그리고 행동들이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종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많은 것들이 남아 있음을 항상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갈망은 완성되지 않을 것이며, 특히 현재의 [영적] 관점에서 더 높은 [영적] 차원을 보고 더 많은 [영적] 차원을 원할 수 있다.

전통을 통한 두 번째 방법: 신성함에 대한 갈망을 확인하는 두 번째 방법은 전통을 통해서입니다. 이와 관련된 많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 선지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간청 속에서 하나님께 간청하곤 했습니다:

اَللّٰهُمَّ إِنِّي أَسْأَلُكَ الرِّضَا بَعْدَ الْقَضَاءِ وَبَرْدَ الْعَيْشِ بَعْدَ الْمَوْتِ وَلَذَّةَ النَّظَرِ إِلَى وَجْهِكَ الْكَرِيمِ وَالشَّوْقَ إِلَى لِقَائِكَ

"오 신이시여! 주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것에 대한 만족, 죽음 이후의 [주님의 사랑하는 품 안에서] 안락한 삶, 주님의 축복된 얼굴을 바라보는 기쁨,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갈망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부 다르다(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카압 아흐바르(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에게 토라 구절을 낭독해 달라고 요청했다(두 사람 모두 무함마드 선지자의

훌륭한 동료였으며, 카압 아흐바르는 예언자 동료가 되기 전 토라 학자이자 랍비였다) 토라 구절을 낭독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은 나를 만나기를 크게 갈망하니 나도 그들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카압 아바르(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같은 주제에 관한 토라의 또 다른 구절을 전했습니다. "나를 찾는 자는 나를 찾고, 나를 찾는 자는 나를 찾을 것이다." 아부 다르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나는 무함마드 예언자의 언어에서 같은 주제를 들었음을 증언한다(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라고 말했다. 예언자 다윗(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 다윗! 내 메시지를 지구 사람들에게 전하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이고, 나의 동반자이며, 나는 내 기억의 친밀한 이의 친밀한 사람이며, 나는 나의 친구가 되는 사람의 친구이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리고 나는 나를 순종하는 자에게 복종한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며, 그런 사람을 나를 위해 받아들이고, 내 창조물 중 누구도 그런 사람을 더 선호하지 않을 만큼 사랑한다. 오, 지구의 사람들이여! 세속적인 오만함의 장막을 벗고 나의 경이로움과 동반자, 나와 함께하는 데 한 걸음 내딛어 나아가라, 나와 친밀함을 나누라, 나는 너와 친밀함을 나누고 너를 사랑하는 데 있어 가장 앞장서리라. 나는 친구 아브라함, 내가 대화한 모세, 그리고 정화한 무함마드의 성향과 기질에서 내 친구들의 내면적 성향과 기질을 창조했다. 나는 나를 그리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내 빛으로 창조하여 폐하와 함께 일으켰다."

한 영지주의자는 하나님께서 친구 중 한 명에게 계시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내 종들 중 일부는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은 나를 갈망하고 나도 그들을 그리워한다. 그들은 나를 기억하고 나도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도 그들을 바라본다. 네가 그들의 길을 걷는다면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고, 그들의 길에서 벗어나면 나는 너에게 불쾌할 것이다." 그가 물었다, "오 신이시여! 그들의 징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염소를 지키는 자비로운 목동처럼

낮의 그늘을 지켜본다(그들은 하루의 모든 순간을 지키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헛소리나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지 않도록 한다). 그들은 저녁에 둥지를 그리워하는 새처럼 해질녘을 갈망하며, [경건한 신심으로 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밤이 팔을 뻗고 어둠이 내려앉으며, 침대가 펼쳐지고, 비밀이 드러나며, 연인이 사랑하는 이의 품에 안기고, 그들은 나를 위해 걸음을 옮기고, 내 앞에 머리를 엎드리며, 나의 대화(*칼람* 또는 신성하게 계시된 책)로 나에게 속삭이고, 나의 보상(물질적·비물질적)을 통해 나에게 간청한다. 어떤 이들은 비명을 지르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울며, 어떤 이들은 [나와의 이별에 슬퍼], 어떤 이들은 [나와의 이별에 대한 슬픔으로] 나 앞에 서서 [나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어떤 이들은 앉아 있고, 어떤 이들은 서서, 어떤 이들은 절하고, 어떤 이들은 엎드려 있다. 그들의 모든 불평, 간청, 노력은 내 눈에 엄청난 존경을 받는다. 나는 먼저 세 가지를 주리리다: 첫째, 나는 내 빛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그들이 내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의 소식을 [천상의 존재들에게]. 둘째로, 그들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무언가가 [전투에서] 그들에게 맞서면, 나는 그들을 위해 그것을 천한 존재로 간주할 것이며 [어떤 형태로든 그들에게 해를 끼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셋째, 나는 내 신성한 얼굴을 그들에게 돌릴 것이며, 내가 누구에게 내 얼굴을 돌리는지 너도 알겠다!"

하나님의 종에 대한 사랑: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즉,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은 세속적인 함정과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세속적 불순물(악, 잘못, 결점, 결점)에서 내면을 정화하시며, 마음의 장막을 걷어 그분과 더 가까이 이끌어 종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자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자신이 결핍된 [내면의 영적] 완전함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빼앗긴 것은 분명하며, 그것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며, 그것을 얻은 후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사랑이 의심스러운 문제라고 말하고, 종이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알 수 있는지라고 말한다면, 그

답은 사랑의 징후들이 그 사랑을 뒷받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إِذَا أَحَبَّ اللَّهُ عَبْدًا ابْتَلَاهُ فَإِذَا أَحَبَّهُ الْحُبَّ الْبَالِغَ اقْتَنَاهُ

"하나님께서 종을 사랑하실 때, 그에게 고난을 주시고, 깊이 사랑하실 때는 그 종을 자신을 위해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다."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إِذَا أَحَبَّ اللَّهُ عَبْدًا جَعَلَ لَهُ وَاعِظًا مِنْ نَفْسِهِ وَزَاجِرًا مِنْ قَلْبِهِ يَأْمُرُهُ وَيَنْهَاهُ

"하나님께서 종을 사랑하실 때, 그 사람 안에 꾸짖는 자(조언자)를 정하시고, 마음속에 막는 장치를 만들어 악행을 막으신다. 그들은 한 사람을 명령하고 [모든 악과 악으로부터 한 사람을 막는다]". (내레이션 *아나스 빈 말릭의 권위에 따른* 하디스 *모음 집* 무스나드 알-피르두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إِذَا أَرَادَ اللَّهُ بِعَبْدٍ خَيْرًا بَصَّرَهُ بِعُيُوبِ نَفْسِهِ

"하나님께서 종에게 좋은 것을 의도하실 때, 자신의 하위 자아의 결점 중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제거하느라 분주하게 하여 내면의 정화와 영혼의 정화를 통해 더 높은 영적 경지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여]." (내레이션 *아나스 빈 말릭의 권위에 따른* 하디스 *모음 집* 무스나드 알-피르두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모든 표두 중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징조는 종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며, 이 표징에서 하나님께서 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종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행위는 오직 하나님만이 종의 모든 외안과 내면, 숨겨져 있고 열린 일들을 돌보는 분이며, 그분은 [종에게], [종에게], [종의 마음에 최선의 방식으로 삶을 이끄는 길]을 주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름다운 성품과 성품의 장식으로

장식하시는 분이시고, 경건한 행위로 사람의 장기를 분주하게 하시시며, 내면과 외면의 존재를 올바른 길로 이끌 분이시고, 모든 생각을 중심점에 집중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그분이 아닌 다른 사람을 부인하게 하시며, 고독 속에서 그분께 간청하는 기쁨을 주시며 그분과 그분의 영지(Gnosis) 사이의 장막을 걷어내는 분이십니다. 이와 유사한 표지들은 종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결정, 그 현실, 탁월함에 동의하기: 하나님의 결정(*리다*)에 동의하는 것은 [신성한] 사랑의 열매(결과)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대다수는 그 현실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 의미에 존재하는 의심과 모호함은 오직 신성하게서 해석의 지식(*타윌*)과 하나님께 가는 길(*딘*)을 이해한 사람들만이 그것을 인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에 반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합의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리다*)과 동의하지 않는다고 부정합니다. 또한 모든 명령, 모든 결정,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종도 죄와 불신(하나님에 대한 거부)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부 단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결정에 동의하는 거부자의 말씀에 속아, 죄와 악에 동의하는 것이 신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결정에 동의하는 [영적] 위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들]은 신성한 비밀입니다. 만약 신의 길의 비밀이 외적 인간 행위와 관련된 [신성한] 계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드러나거나 [꾸란]을 암송함으로써 명확해진다면,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는 압둘라 빈 압바스에게 다음과 같은 간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اَللّٰهُمَّ فَقِّهْهُ فِي الدِّيْنِ وَعَلِّمْهُ التَّاوِيْ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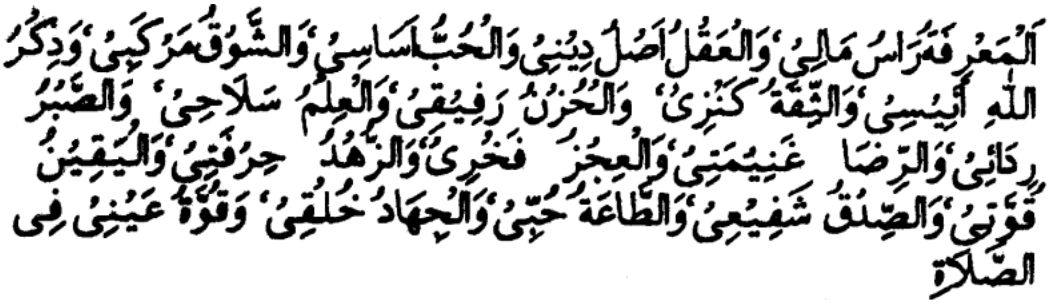
"오 신이시여! 그에게 당신의 길을 이해하고 해석(타윌)의 지식을 부여하라!" (내레이션 *하디스* 모음집: *사히흐 부카리, 사히흐 무슬림*, *무스나드 아흐메드*)

욕망에 반하거나 고난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인내만이 가능하며, 하나님의 결정에 동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신성한] 사랑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고, 인간이 온 용기로 하나님의 사랑에 몰입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을 때, 연인이 사랑하는 이의 모든 행동과 말에 동의하도록 강요받는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는다. 이 합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첫째, 슬픔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아 부상이나 고통을 입더라도 조금의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비유는 한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일에 몰두하여 다른 것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환영이나 사랑에 완전히 빠져들면서도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는 연인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연인은 그 행위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누구나 무엇일 때 고통을 깨닫지 못한다. 이로부터 추측할 수 있듯이,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연인의 존재에게 어떤 고통을 가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마음이 사랑에 빠지는 것은 중요한 탐닉이다. 평범한 사랑에서는 약간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데, 큰 사랑 속에서도 어떻게 큰 고통을 느낄 수 있겠는가? 고통의 강도가 가능하듯, 사랑의 강도도 가능하며, 오감이 인지하는 아름다움이 강하듯, 사랑도 내면의 통찰을 통해 내면의 아름다움을 목격함으로써 강하게 나타납니다. 신성한 아름다움과 위엄은 다른 어떤 아름다움과 위엄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신성한 아름다움과 위엄의 일부가 드러나고, 감각과 의식을 잃으며, 그것에 취해 자신의 모든 상태[고통과 고난을 포함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

사랑하는 이의 행동에 동의하는 두 번째 방법은 고통과 고난을 인지하지만, 그것들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그것에 동의하는 것이며, 오히려 그것들을 원하고 의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 이익을 위해 여행의 고난을 견디고, 기대되는 이익이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에 고난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의 상태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상태는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재앙을 겪을 때, 그들이 얻을 신의 보상이 그들 대신 저장되어 있다고 확신하며, 따라서 이 확신으로 인해 [신성하게 정해진] 재앙에 동의하고 그 쪽으로 기울어진다,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재앙에 대한 신의 보상을 염두에 두는 한 일입니다. 신성한 보상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사랑이 지배적이어서 사랑하는 이의 승인을 얻는 것이 유일한 목표이며, 오직 그분만이 원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남으며, [신성한] 보상을 원하지 않거나 심지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이의 수용을 얻는 것이 유일한 목표이자 목적이 된다.

하렘 이븐 히반(하렘 이븐 히반, 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은 "신자가 자신의 주님을 알고 인식할 때,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께 집중하게 되며, 그분께 집중하는 데서 기쁨을 느낄 때, 세상을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지도, 저세를 게으른 눈으로 바라보지도 않는다. 그런 자는 자신의 몸과 영혼을 가지고 세상에 살며, 천상과 영적 영역에 있다"고 말했다. 알리(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무함마드 예언자에게 그의 삶의 방식을 묻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신성] 영지는 나의 자본(자산), 지성은 나의 신앙의 기초이며, [신성] 사랑은 나의 기초이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나의 탈마(내 영적 탐구를 이끄는 수송), 하나님의 기억은 나의 친밀한 친구이며, 신성한 길에서의 단단한 발걸음은 나의 보물이며, 슬픔은 나의 동반자이며, 지식은 나의 무기이다 [무지와 악의 어둠에 맞서는], 인내는 나의 숄이고, 겸손은 나의 자부심이며, 금욕은 [세속적에서]의 일이고, 확신은 [하나님과 영원한 신성한 진리로] 나의 능력이며, 진실함은 나의 중재자이며, [신성한] 순종은 나의 사랑이고, 신성한 길을 걷는 것이 내 내면의 성격과 성향이며, 내 눈빛의 차가움은 [하나님께] 기도 속에 있다."

둔 눈 알-미스리(신께서 그를 자비로 여기시길)는 말했다. "영혼의 군대를 창조한 존재는 영지주의자들의 영혼을 위엄 있고 천상적으로 만들었고, 그들은 신을 갈망하며, 신자들의 영혼을 영적으로 만들었으며, 그들은 천국을 향하게 되었고, 삶의 진정한 목적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승리를 추구하는 무관심한 자들의 영혼을 육체적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그들은 세상(세속성)에 기울어 있으며, [그들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세상에 잠기고 잠기게 한다]"라고 말한다. 또한 [신성한 분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께서 친밀한 친구들(영지주의자, 진정한 신의 탐구자)의 마음에 불을 지르시는 [거룩한] 불꽃으로, 그 마음속에 존재하는 다른 이들의 의도, 생각, 갇힘, 필요를 태워버리며, 그 존재(흔적)가 그들의 마음에 남아 있지 않다고도 합니다. 사랑, 집착, 갈망, 신성한 수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것으로 충분하며, 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과 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제17장 – 이기적인 동기가 없는 순수한 의도를 주입하고, 모든 일에 진실하며, 진리에 대한 헌신

숨은 의도가 없는 순수한 의도,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용과 도움을 받아 일을 올바르게 이루는 데 강력한 요소이며, 모두에게 엄청난 유익과 축복의 원천입니다. 세속적 이익을 위한 숨은 이기적인 동기로 행하는 일들은 그 안에서 의도된 결실과 이익을 거의 가져오지 않는다. 이것은 신성한 비밀이며, 가잘리가 다음에 설명할 때 가장 잘 설명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진실성, 즉 세속적 이익 없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행위—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간에—는 영적 길에서 승천으로 이끕니다. 순수한 의도와 진실성은 행위와 축복, 그리고 결과의 큰 증가를 신성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작은 성취조차도 장기적으로 엄청난 이익과 선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순수한 의도와 진실성)는 모두 신성한 영지(*마리파*)로 이끄는 영적 길의 정착지이며, 그 결과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영적 길에 깊은 함의를 가지는 것 외에도, 이러한 특성들은 삶에 엄청난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풀어줍니다.

진리에 대한 헌신(*Sidq*)은 일시적이든 영원적이든 모든 것에 대해 그것을 찾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영적 여행자의 필수적인 자질이며, 세속적 존재와 동료 인간과의 관계에 큰 함의를 지닙니다. 가잘리가 이 숭고한 내면적 특성에 대해 깊이 분석한 내용은 그의 *대작* "*이히야 알-울룸 앗-딘*" 또는 "하나님의 길에 대한 지식의 부흥" [23]의 4권 7장 또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제시된다:

믿음의 내적 통찰과 꾸란의 깨달음을 통해, 마음의 사람들에게 지식과 행동 없이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사아다*)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라. 모든 사람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 직전에 있기 때문이다. 지식의 사람들만 예외이며, 모든 지식의 사람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 직전에 있으며, 행동하는 사람들도 돌이킬 수 없는 손실 직전에 있기 때문이다. 단,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들, 이기적이고 사악한 숨은 의도, 순전히 신성한 면모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모든 진실한 사람들은 [고귀한 영적 길에 갇힌 하위 자아와 사탄의 함정으로 인해 큰 위험에 처해 있다]. 의도 없는 행동은 [단지] 고난일 뿐이며, 진심 없는 의도는 허세, 위선, 죄이며, 진실을 검증하고 조사하지 않는 진실함은 시각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꾸란에서 하나님 이외의 의도가 섞인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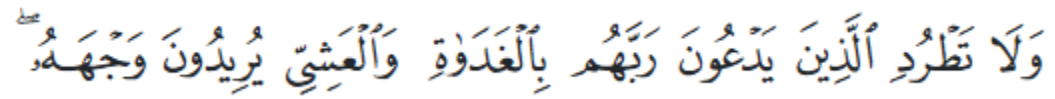
وَقَدِمْنَآ إِلَىٰ مَا عَمِلُوا۟ مِنْ عَمَلٍ فَجَعَلْنَٰهُ هَبَآءً مَّنثُورًا

"우리는 그들이 세속에서 행한 일을 돌아서, 먼지처럼 쓸모없게 만들 것이다." (꾸란 25장 23절)

우리는 의도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의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의도를 고치지만 진실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의 의미를 모르는 하위 자아에게 어떻게 진실을 요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종은 먼저 올바른 의도를 갖는 지식을 얻고, 그 다음에 구원과 안전의 원인인 진실성과 진실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고, 그 다음에는 진실한 행동으로 의도를 바로잡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안은 세 개의 별도 섹션으로 나누어 논의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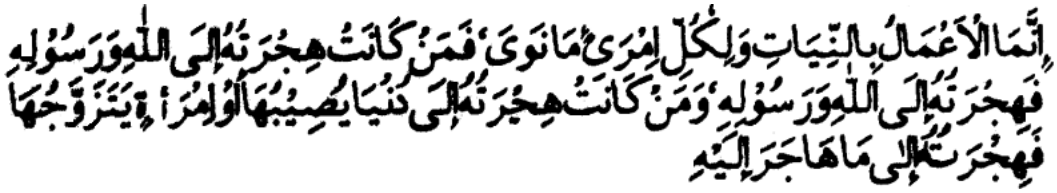
탁월함과 의도의 현실

의도의 탁월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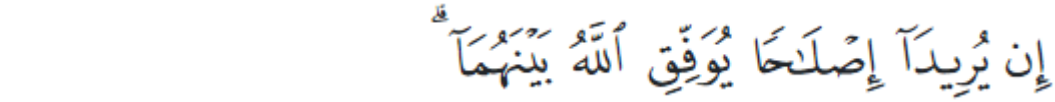
"아침저녁마다 주님께 그분의 얼굴(신성한 가까움, 친밀함, 수용)을 구하고 원하며 부르는 이들을 밀어내지 말라." (꾸란 6장 52절)

이 구절에서 '찾기'와 '욕망'은 그들의 [고귀하고 단호한] 의도를 의미합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은 의도에 달려 있어. 모든 개인은 자신의 [진정한 내면] 의도에 따라 신의 보상을 받게 된다 [행동의 겉모습과 그 선함과 고귀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그의 예언자[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를 위해 이주한 자는 하나님과 그의 예언자를 위한 것이고, 세상(세속적 이익, 이익, 부적절한 동기)이나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이주한 사람은 실제로 그 이주를 향해 이주한 것이다." (내레이션 우마르의 권위에 따라 사*히흐 부카리*와 *사히흐 무슬림 하*디스*를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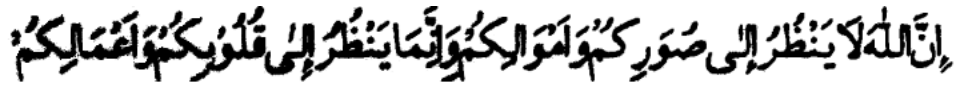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꾸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 쪽과 아내 쪽 두 사람이 분쟁과 차이로 인해 결혼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진심으로 바라며 [부부의 상황 개혁과 평화롭고 우호적인 화해]를 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해를 시도하는 두 사람의 고귀하고 경건한 의도의 축복으로] [그들의 결혼을 구하고 평화와 조화, 상호 사랑과 존중 속에서 다시 만나게 함으로써]" (꾸란 4장 35절)

이 구절에서 [순수함과 고귀함] 의도는 [신성한 은혜로 인해 화해를 이루는 데 성공한 원인]으로 불렸다. 한 전통에서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얼굴과 재산을 않으시고, 오히려 너희의 마음과 행동을 보시신다 [마음의 상태에 의해 지배되는]." (내레이션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무슬림 사히흐 하*디스* 모음 집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하나님은 마음을 바라보시는 이유는 그것이 의도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압둘라 빈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가 전한 전통에 따르면,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찾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신이 가난을 두 눈 사이에 두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 더 가까워지면서 세상과 분리된다. 내세를 의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풍요로움을 창조하시고 부를 거두시며, 그런 자는 세상을 금욕으로 떠나며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난다"고 말했다. (내레이션 자 *이드 빈 아슬람의 권위에 따른* 이븐 마자 *하디스* 모음 집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의도의 현실: 의도란 두 가지 문제, 즉 지식과 행동으로 둘러싸인 마음의 상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식은 이 상태(마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행동이 옵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열매(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행동—자발적 움직임이든 정지이든—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지식, 의도, 그리고

능력.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것에 대해 의도할 수 없고,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도란 자신의 상태나 물질적 소유에 적합한 일에 대해 마음속에 움직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어떤 것들은 적합하고, 어떤 것은 [인간의 기질과 행복에 적합하지 않은]도록 창조되었다. 따라서 적합한 사안을 달성하는 데 기울고, 인간의 복지에 반하거나 부적절한 사안은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합한 것과 부적합한 것을 구분하려면 사물과 사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음식은 섭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해와 인도,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을 창조하셨는데, 이를 외부 감각과 내면 감각이라고 부르십니다.

음식에 대해 알고 적합성을 인지하거나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음식에 대한 욕구, 하위 자아의 성향, 그리고 그에 대한 욕망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픈 사람은 음식을 보고 자신에게 적합하다는 것을 알지만, 내면의 원동력의 힘이 없고 마음이 병으로 인해 욕구가 부족해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욕망과 동기 [혹은 욕망]도 충분하지 않고, 때로는 음식을 보고 먹고 싶지만 어떤 장애[또는 무기력, 능력 없음]로 인해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 섭취 과정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과 활성 기관이 [신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장기는 능력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며, 능력은 지식과 이해, 또는 의견과 믿음에 종속하는 내면의 동력에 기다린다. 즉, 어떤 사안이 자신에게 적합하고 그것을 해야 하며, 반대 세력이 없을 때 의도가 생기고 성향이 나타납니다. 의도가 있을 때, 능력은 마치 그 능력이 의도의 하인인 것처럼 기관을 움직이며, 의도는 믿음과 이해의 명령에 종속된다. 이 세부 사항으로부터 의도는 중간 특성의 이름이며, 그 핵심은 자신의 목표와 일치하는 일에 대한 자아의 기울기와 마음속 성향의 탄생에 대한 성향을 갖는 것임이 증명된다. 이 문제들이 현재든 끝에든(미래든 사후든) 적합하든 상관없다. 여기서 첫 번째 동력은 추구하는 목표이며, 이를 '원인' 또는 '동인'이라고 하며, 이 목적이 의도된 목적이며, 일어나는 행위를 '목적'과 '의도'라고 부릅니다. 능력이 장기를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행동'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행동 수행 능력은 때로는 한 원인이나 동력에 의해 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두 원인에 의해 동시에 휘저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두 원인 중 하나만으로도 능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하고, 때로는 한 원인만으로도 [능력을 행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두 번째 원인이 그 조력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유형의 의도가 설명됩니다:

첫 번째 유형 - 순수 의도: 첫 번째 유형의 의도는 행동의 원인이나 동인이 단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야생 짐승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갑자기 떠오른다. 여기서는 야수를 보고 자신에게 해롭다고 생각해 도망치는 것 외에는 동기가 없다. 따라서 짐승을 보면 마음속에 탈출 동기가 생기고 욕망(성향)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와 욕구는 능력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 사람은 오직 짐승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의도가 있을 뿐, 일어나는 데는 다른 의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를 '순수한 [의도]'라고 하며, 이 의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진정성'이라고 합니다. 즉, 단 하나의 의도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포함하거나 참여하거나 결합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유형 - 두 개의 동력 또는 원인의 결합: 두 번째 유형의 의도는 두 개의 동력 또는 원인이 결합되어 각각 고유한 활동적 원인이며 한 원인이 다른 원인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가시적 영역의 예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친척이 가난과 가까운 친족 유대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요청자가 가난하지 않았다면 친족 관계 덕분에 필요를 충족했을 것이거나, 요청자가 친족 관계와 밀접하지 않았다면 도움을 청하는 경우입니다. 요청자의 가난 때문에 여전히 필요를 충족시켰을 것입니다. 동시에, 마음속에는 부유한 친척이 부탁했다 해도 분명히 도와주었을 것이고, 가난한 낯선 사람이 부탁했다면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마음에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 원인이나 원인이 우연히 결합되어 한 명이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원인은 다른 원인의 도움을 주므로, 우리는 이를 '두 동력의 결합'이라고 부른다.

세 번째 유형 - 파트너십: 세 번째 유형의 의도는 두 가지 원인이나 동인만으로는 어떤 행동을 촉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두 가지 조합이 능력을 활성화시킵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의 예로, 두 약한 사람이 서로 도와 각자가 최선을 다해 들 수 없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누군가의 부유한 친척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지만 자신이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불쌍한 낯선 사람이 와서 내가 또 거부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그 후, 가난한 친척이 와서 거절하지 않는 금액을 요구한다. 마치 두 가지 원인이나 동력, 즉 친족과 가난의 유대가 결합되어 행동에 나서게 된 것과 같다. 이러한 의도는 두 개 이상의 동력이나 원인의 동반자(파트너십)라고 합니다.

네 번째 유형 - 협력: 네 번째 유형의 의도는 두 원인 중 하나만 신뢰할 수 있을 때 행동의 시작자가 되지만 두 번째 원인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원인이 첫 번째 원인과 결합된다면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더 쉽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의 예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권력 있는 사람이 혼자였다면, 약한 사람이 혼자 들 수 없더라도 힘은 들어 올릴 수 없었을 것이다. 비록 그런 사람이 힘을 얻는 사람을 돕고 [들기 쉽게 해주기 위해] 말이다. 또 다른 예로, 기도를 드리고 자선을 베푸는 일과가 있는데, 그 시간에 누군가가 방문하더라도 한 사람은 일상에 따라 계속 신심을 진행합니다. 만약 방문객이 없었다면, 그때조차도 다소 무거운 기분을 안고 일상을 수행했을 것이고, 방문객들이 도착해 그들을 바라보면서 무거운 감정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그 일상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워졌다. 방문객들이 오지 않았다면 제때 일상을 수행했을 것이고, 이 일과가 없었다면 경건함을 위해 방문객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의도] 유형을 '협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2세부터 4호까지)의 구분의 결과는 두 번째 원인이 동반자, 파트너, 도우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도의 유형을 열거하는 이유는 행동이 의도에 종속되어 있고, 예언적 전통에서 "행동은 의도에 의존한다"고 전해지듯, 행동이 의도에 종속하는 것과 같아, 종속(행동)의 중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지위는 지휘관(의도)에게 속해 있으며, 모든 행동의 주된 동력으로서 지위는 지휘관(의도)에게 속해 있다.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는 마음에 먹이이자 영양분이 됩니다. 이 영양의 목적은 오직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이 생존(*바카*, 즉 영원한 존재)과 내세의 안전을 찾으며,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축복과 영원한 행복, 영원한 성공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목적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사아다*)의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영지로 죽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노시스를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풍부하게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Uns)에게 집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애착은 신성한 기억의 영원함을 통해 얻어지며, 영지(Gnosis)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사랑의 영원함을 통해 얻어집니다. 마음은 세속적 관념(함정)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신성한 기억과 관조에 영원히 참여할 자유가 없으며, 하층 자아의 욕망이 끊겨져 선과 의로움에 기울고 그에 대한 의도를 갖고 악을 혐오하게 될 때까지 세속적 관여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

모든 선행과 순종 행위에서 추구하는 것은 내세이며, 모든 악에서 추구하는 것은 내세가 아니라 세상이다. 자아가 모든 선에 기울고 모든 악에서 벗어나는 것은 마음을 신성한 기억과 묵상에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선행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를 꾸준히 행할 때 영구적이며, 신체 기관은 장기와 심장 사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죄를 피합니다. 이 관계 때문에 한쪽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와 심장의 차이점은 심장이 통치자이자 지휘관의 역할을 맡고, 기관은 신하나 하인과 같아 그들의 봉사와 복종을 통해 마음의 특성이 확고히 각인되고 굳어진다는 점이다. 요약하자면, 마음은

목적이며[의도는 주된 동력인 마음에서 태어난다]이고, 기관은 도구이며, 그 두 수단을 모두 통해 [의도된] 목적에 도달한다.

탁월함, 현실성, 그리고 진정성의 정도

진실성의 탁월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وَمَآ أُمِرُوٓاْ إِلَّا لِيَعۡبُدُواْ ٱللَّهَ مُخۡلِصِينَ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진실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꾸란 98장 5절)

أَلَا لِلَّهِ ٱلدِّينُ ٱلۡخَالِصُۚ

"기억하라, 예배와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꾸란 39장 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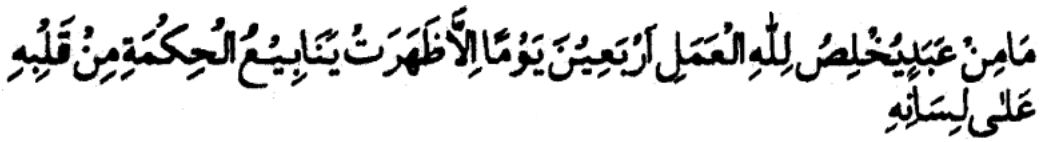
فَمَن كَانَ يَرۡجُواْ لِقَآءَ رَبِّهِۦ فَلۡيَعۡمَلۡ عَمَلٗا صَٰلِحٗا وَلَا يُشۡرِكۡ بِعِبَادَةِ رَبِّهِۦٓ أَحَدَۢا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진심으로 의로운 행위를 계속해야 하며, 예배에서 어떤 동반자도 하나님께 귀속하지 말아야 한다." (꾸란 18장 110절)

이 구절은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의행을 하면서도 [동시에] 신성하신 명령에 반하는 신성한 진실성을 어기는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인정, 그리고 그에 따른 세속적 물질적 이익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계시되었습니다. 하산(하산, 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은 이 *하디스 쿠드시*(기원으로 하나님께 귀속된 예언적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로부터 전해졌으며, 무함마드는

"진실성(물질적·세속적 동기 없이 순수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행하는 것)은 나의 비밀 중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내가 사랑하는 종들 중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 전합니다." (이맘 아불 카심 알-쿠샤리가 그의 저서에서 인용한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의* '알-리살라 쿠샤이리야'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행위를 40일 동안 정화하면, 이 진실성의 결과로 마음에서 혀로 지혜의 샘이 쏟아져 나온다". (내레이션 아부 무사의 권위에 따른 이*븐 아디*스 하디스 *모음* 집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이스라엘 자손 전통에 따르면, 한 예배자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예배에 몰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여기 신 대신 나무를 숭배하는 나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배자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나 도끼를 들고 나무 뿌리를 베기 위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사실은 변장한 사탄인 노인을 만났고, 그는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었다. 그가 말했어요, "이 나무를 베고 싶다"고요. 사탄이 대답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당신은 이유 없이 예배를 떠나고 [경건한] 약혼을 끝냈다"고 말했다. 예배자가 말했습니다, "이것도 예배입니다." 사탄이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나무를 베는 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자신을 땅에 내던지고 가슴 위에 앉힌 숭배자와 씨름을 시작했다. 사탄이 말했어요, "제발 저를 보내주세요. 당신이 놓아주면 이득이 될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요." 예배자는 일어섰다. 사탄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베는 것을 당신에게 부여하신 것도 아니며, 이 나무를 숭배하는 이 나라를 인도하는 책임도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많은 예언자가 있으니,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자든 보내서

이 나무를 베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자는 "반드시 이 나무를 베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협상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전투(전투)를 선언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싸움이 시작되었고, 숭배자는 그를 다시 쓰러뜨리고 땅에 납작하게 눕히고 그의 가슴 위에 앉혔다. 사탄이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보고 "너에게 훨씬 더 좋은 말을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예배자가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탄은 예배자에게 먼저 가슴을 털어놓으라고 했고, 그는 따랐습니다. 사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가난한 인간이다. 넌 아무것도 없어! 당신은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람들에게 짐이 됩니다. 네 마음은 형제들을 돕고, 이웃을 잘 대하며, 배불리 먹어 더 이상 백성이 필요 없고 그들의 자급자족을 원한다." 예배자는 "그것이 분명히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말했어요, "이게 문제라면 그냥 집에 가라. 매일 밤 침대 옆에 두 *디나르*(금화)를 놓아둘게요. 그 돈을 자신과 가족에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나무를 베어 제자리에 남는 것보다 여러분과 다른 무슬림들에게 제가 제안한 것이 더 나은 제안입니다. 이 나무를 베는 것은 신도들에게 아무런 손실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다른 나무를 찾아 숭배할 것이므로] 그리고 그 나무를 보존하는 것은 무슬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예배자는 사탄의 이 제안을 곰곰이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이 노인이 옳다! 저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므로, 이 나무를 베어야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제가 베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도록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노인이 제안한 게 더 유리하니까!" 그래서 그는 노인(사탄으로 변장한 사람)과 거래를 하고 나무를 베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아침에 그는 약속대로 침대 옆에 두 *개의 디나르를* 보았 다. 둘째 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셋째 날,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는 매우 화가 나서 도끼를 어깨에 메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같은 노인으로 변장한 사탄을 만났고, 그 노인은 "어디로 가려는 거냐?"라고 물었다. 예배자는 "저 나무를 베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말했어요, "맹세코! 넌 거짓말쟁이야!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저 나무도 베어낼 수 없어!" 이 말을 들은 신도는 노인을 붙잡아 땅에 내던지려 했습니다. 사탄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후 사탄은 숭배자를 붙잡아 땅에 던지고 가슴 위에

앉혔고, 숭배자는 두 다리 사이에 갇힌 새처럼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숭배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자유로워지지 못했다. 그는 포기하며 말했다. "내가 가서 전에 어떻게 너를 이겼고, 이번에는 어떻게 나를 이겼는지 말해줄래?" 사탄은 말하길, "처음에 너는 하나님을 위해 분노로 나아갔고, 네 의도는 내세였다 [세속적 이익이나 이익이 아니라]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너에게 복종시키셨다. 이번에는 네 낮은 자아와 세상(세속적 이익)을 위해 화를 냈으니, 내가 너를 이겼어!" 이 사건은 하나님의 다음 말씀을 확인시켜 줍니다:

وَلَأُغْوِيَنَّهُمْ أَجْمَعِينَ ﴿٣٩﴾

إِلَّا عِبَادَكَ مِنْهُمُ الْمُخْلَصِينَ ﴿٤٠﴾

"[사탄이 말하더라:] 나는 그들 중 진실한 종들 외에는 모두를 함께 인도하리라." (꾸란 15장 39-40절)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 진심을 바탕으로만 사탄과 그의 함정, 암시, 음모, 인간 생명 파괴를 없애려 합니다.

진실성의 현실: 모든 것에는 다른 것들이 섞여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공허하고 다른 것들로부터 정화될 때 그것을 '순수'라고 하며, 그 정화를 초래하는 행위를 '진실성'(*이클라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의도의 현실을 설명했으며, 그 논의의 핵심은 의도란 자신의 목적에 적합한 원인(또는 유발자)의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원인이 하나이고 그 행위가 오직 이 하나의 원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그 원인이 자신의 목적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그것을 진정성이라고 한다. "진실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가까움을 구하기 위해 행해진 행위를 특별히 가리며,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의 불순물이 완전히 없고 정화된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동 대의가 과시하는 사람이라면 [영적] 파멸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려는 의도(*니야*)로

인해 움직이는 원인(또는 유발자)이 [그러다 다른 원인(첫 번째 원인)이 섞인다는 점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두 번째 원인이 과시(*리야*)에서 비롯된 것이든 아니든요.

예시는 신의 가까움을 구하기 위해 단식하지만, 목적이 [건강 관련] 예방을 지키거나, 순례(*하즈*)를 하는 사람이다. [신체적] 움직임 때문에 [건강 관련 이유로] 순례의 온건한 기질을 기르기 위해서, 또는 [순례]를 하여 자국에서 위험에 처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멀리하기 위해 순례를 하는 사람이다 적으로부터 왔거나,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쳐 순례 때문에 그들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하거나, [순례를 수행하는] 긴 업무 관련 업무에 지쳐 위안을 얻고자 하거나, 집을 지키기 위해 늦은 밤이나 새벽(새벽) 기도(*타하주드*)를 하는 경우, 또는 지식을 얻는 경우도 [역시 하나님의 가까움을 구하는 의도로, 그러나 자신의 재산과 재산을 보호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또는 가르침과 설교의 모임을 조직하는 경우, [역시 하나님의 가까움을 구하는 의도에서, 그러나 또한 지루함 때문에 말하는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것] 또는 영적 여행자(*수피*)와 학자들을 지지하여 그들이 마음속에 존경하고, 일반 사람들도 신앙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관대하게 대하거나, 꾸란을 쓰는 것은 글씨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거나 정면을 행하기 때문이다(*우두*).) [하나님의 가까움을 구하는 의도로, 그리고 또한] 몸을 진정시키기 위해 씻거나, 목욕을 하기 위해 [역시 신체의 순결로 하나님의 가까움을 구하려 하지만] 몸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또는 예언적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가까움을 구하는 의도로] 그리고 높은 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게 하기 위해, 또는 모스크(*이티카프*)에서 [하나님의 가까움을 구하려 하지만 집세를 아끼기 위해] 또는 단식을 하거나, [하나님의 가까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리하는 힘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또는 먹는다고 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없을 거라 생각하거나, 거지의 필요를 채우는 것(하나님의 가까움을 구하기 위해서이지만) 지쳐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지가 아픈 사람을 찾아가거나, 아플 때 방문하기 위해 그 사람이나 친척이 찾아오게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해서 사람들이 그 업적을 언급하고 칭찬하며 그 덕분에 명성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만약 의도가

하나님의 가까움과 이 [다른 것들] 중 누구에게도 함께 있으려는 것이라면, 그 행위는 진실함의 정의에서 벗어나게 되며(즉, 행위가 더 이상 진실하지 않게 됨), 그 행위가 순전히 하나님을 위해 행해졌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신교나 신 이외의 다른 종교와 섞일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세속적 쾌락에서 얻는 어떤 쾌락이 하층 자아가 그것에 기울고, 그것을 갈망하며, 어떤 행동에 자리를 찾는다면, 이 쾌락 때문에 진정성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 항상 하층 자아와 욕망의 쾌락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나 숭배에도 이러한 쾌락과 욕망이 전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와 예배는 진실하다고 선언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진심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 그런 순간을 단 한 번이라도 얻는다면, 그 순간이 그 사람의 구원과 안전을 위해 충분하다고 말해집니다 [이 세상과 내세의 고난 속에서]. 이는 진실성의 존재가 매우 드물기 때문인데, 하층 자아로부터 불순물과 쾌락을 정화하고 정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순수하고 진실한 행위는 그 원인과 동기가 신의 가까움을 구하는 데 다름없다. 만약 이러한 쾌락과 욕망이 이러한 행동의 유일한 원동력이자 원인이라면, 그 행위를 하는 자는 그 행동들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이는 명백하지만, 이러한 행위의 의도가 하나님의 가까움에 도달하는 것이고, 그 쾌락에 대한 욕망도 섞인다면, 그 행위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순수하지 않게 됩니다. 순전히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행동에 세속적 쾌락을 더하는 것은 세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합, 파트너십, 협력의 형태이며, 이 형태들은 이미 설명된 바 있습니다.

진실성의 의미는 행동에 어떤 불순물(이기적이거나 악하며, 잘못된 의도와 동기)이 없으며, 적든 많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가까움 때문일 뿐이며 다른 원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수하고 진실한]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세를 위한 노력에 몰두하며, 세상에 대한 사랑(세속성)을 마음에 담을 자리가 없어 먹고 마시는 것조차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먹고 마시는 성향은 인간의 몸이 필요로 하는 자연의 부름을 충족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는 것도 인간의 필요이자 인간으로서의 요구입니다. 음식이 음식이기 때문이나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음식이 몸에 에너지와 힘을 주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음식에 끌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고픔의 악을 없애고자 하기 때문에 먹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불필요한 필요에 대한 경향이 없으며, 오히려 필요한 양에 만족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가는 길의 필요로 여깁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 예를 들어 먹거나 자연의 부름에 응하는 것처럼 행동이 순수하고 모든 움직임과 정지 속에서 의도가 옳다. 따라서 이 사람은 힘을 얻고 예배하며 앞으로 순종할 행위를 위해 몸을 쉬게 하기 위해 잠을 잔다. 그럴 경우 잠도 숭배 행위가 되어 진실한 자(*무클라신*)의 지위를 부여받으며, 이 상태가 아닌 자는 행동의 진실성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진심은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모든 예배는 세속적인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세에 대한 사랑이 우세한 자는, 그 효과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모든 움직임과 정지가 진실함이 되며, 모든 행동이 진실하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적 권력과 통치가 [내면에서]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 대한 전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내면의] [하나님 이외에 대한 갈망]이 모든 움직임과 고요함을 지배하며, 기도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금식과 자선은 그로부터 보호받는다.

성실함 부족의 치료법: 이 세부 사항에서 성실함 결여는 병이며, 그 치료법은 낮은 자아(나프)의 쾌락을 없애고, 세상과의 탐욕을 끊으며, 내세에 집착하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임을 배웁니다. 이렇게 하면 진심이 쉽게 나아질 것입니다. 인간이 피로와 고난을 견디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러한 자기기만의 이유는 이 전복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을 모든 기질에서 정화된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지주의자는 어느 날 모스크에 도착했을 때 이미 회중 기도가 시작되어 있었고, 첫 번째

줄에 자리를 찾지 못해 두 번째 줄에서 기도해야 했고 부끄러워서 30년간 기도를 반복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신을 보기 때문에 1줄에 앉아 기도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때문에 [기도의 중심에 있다]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었고, 그래서 한 번 늦어서 2열에 서 있을 때 부끄러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생각과 함께 그는 30년간 [모스크에서] 기도가 헛된 것이었음을 깨달았고, 이번에는 오직 신을 위해, 다른 의도 없이,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진심으로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미묘한 재앙이며, 모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경건한] 행위에서 기형으로부터 보호받는 경우는 드물며, 오직 신성하게서 선을 행할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만이 기형을 인식하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생각한다. 태만한 자는 그들의 선행이 저승에서 헛되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꾸란의 다음 구절은 이를 가리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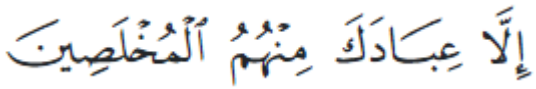
قُلْ هَلْ نُنَبِّئُكُمْ بِٱلْأَخْسَرِينَ أَعْمَٰلًا ﴿١٠٣﴾

ٱلَّذِينَ ضَلَّ سَعْيُهُمْ فِى ٱلْحَيَوٰةِ ٱلدُّنْيَا وَهُمْ يَحْسَبُونَ أَنَّهُمْ يُحْسِنُونَ صُنْعًا ﴿١٠٤﴾

"그들에게 말씀하라(오 예언자 무함마드여!) '행동에 완전히 잃은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까? 이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한 것이 헛되이 되었고, 자신들이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가정과 추측]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꾸란 18장 103-104절)

이 재앙의 가장 큰 대상은 [종교적] 학자들이나 학문 신학자(*울레마*)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신앙을 전파하는 데 힘쓰고, 다른 사람들보다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데서 기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지고 따르는 데서 행복이 있습니다. 칭찬과 감사는 마음을 기쁨으로 뛰게 합니다. 사탄은 이 [설교] 문제를 그들에게 의심스럽게 만들며, [마음속 암시를 통해 그들에게 사회 내 위치에 대해 자부심과 오만함을 갖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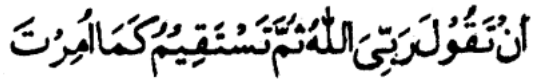
만들며], "너희의 목적은 하나님의 길을 전파하고,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에게 계시된 신성한 법을 수호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많은 설교자들은 대중과 정부 지도자들의 개혁을 위해 일하는 것을 자신의 은혜로 여기며,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조언을 실천할 때 그들의 행복은 한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과 창조의 개혁을 돕기 위해 자신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상태는 단순한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학자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다면 슬픔과 질투가 그들을 죽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속담적으로 말하자면]. 만약 그들의 목적이 진정으로 사람들을 훈계하고 조언하는 것이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 구원하셨고, 섬세하고 위험한 의무로부터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시점에서도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말합니다. "너희가 후회하는 진짜 이유는 신성한 길의 전파, 지식의 보호, 창조물의 개혁이라는 신성한 보상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이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결정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창조물을 인도함으로써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신성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오직 사탄과 하위 자아의 속임수를 인지하고 하위 자아를 계속 시험하는 사람들만이 이 시험을 견딜 수 있습니다 [존재 여부 여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성(*이흘라스*)의 현실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익사하고 거의 구출받지 못합니다. 다음 구절에서 예외적으로 언급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대화하며, 아담의 창조 이후에 모두를 오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하나님이 천사들과 사탄에게 절하라는 명령, 사탄의 노골적인 거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인 사탄을 영원히 자비에서 멀어지게 하라는 명령에 따르면,] 진실한 자들(순전히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는 자들)만은 예외입니다 하위 자아로부터 오는 숨은 의도나 욕망) [나(사탄)가 영향을 줄 수 없는 유일한 종들]". (꾸란 15장 40절)

하나님의 종은 이러한 미묘한 문제들을 깊이 관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주의한 상태에서 사탄의 추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흐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에게 진심에 대해 물었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신성하게 명령받은 대로 이 확신을 굳건히 지키며 인내하라." (내레이션 *하디스* 모음집 *티르미디*)

즉, 당신은 낮은 자아(*나프스*)로부터 원하는 것을 숭배하지도, 하위 자아를 숭배하지도 않으며, 오직 오직 주님만을 숭배하며 신성하게 명령받은 대로 인내심을 가지고 굳건히 견뎌야 합니다. 이 예언적 전통은 하나님 외의 모든 희망을 끊는 것을 암시하며, 실제로는 이것이 진실성(*이클라스*)입니다.

진정성을 흐리게 하는 위험과 장애물: 진정성을 흐리게 만드는 위험(스포일러 포함)은 많습니다. 이 중 일부는 드러나고, 일부는 숨겨져 있으며, 일부는 약함과 함께 나타나고, 일부는 강함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정도 차이는 예시 없이는 이해할 수 없으므로, 먼저 과시에서 나온 예를 언급한다. 진실성은 과시나 과시로 인해 더 위험해집니다. 예를 들어, 예배자가 기도로 바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몇 명이나 누군가가 기도하는 곳에 왔다. 사탄은 이를 좋은 기회로 여기고 그곳에 도착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기도하라 너를 보는 사람들이 너를 의롭게 여기며 경멸하거나 험담하지 않도록 좋게 기도하라." 이 말을 들으면(마음속 암시를 통해) 사탄으로부터 듣고, 기관에 [외면] 겸손함을 갖고 더 평온하게 기도하며 기도 속에 더 많은 외적 아름다움을 창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보 영적 여행자들에게도 분명히 드러나는 외적 과시입니다. 이것이 1단계의 과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영적 여행자(예배자)가 이 위험을 인지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여행자는 [이 경우] 사탄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대신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처럼 기도에 몰두한다. 사탄은 선함과 의로움의 복장을 입고 다가와 말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따르고,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며,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당신의 모든 행동을 본받을 가치가 있다고 상상합니다. 당신이 잘하면 그들의 선한 행위에 대해 신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동에 게을러지면,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도 당신에게 지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하게 행동해야 해. 그들이 겸손하게 당신과 그들의 [의로운]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데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학위는 첫 번째 학위보다 더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때때로, 첫 번째 사탄 창조에 속지 않은 사람들이 두 번째 창조에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것 역시 진정성을 무효화하는 과시의 한 형태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눈에 겸손과 [신성한] 예배의 아름다움에 선함이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기지 않길 원한다면, 왜 이 [예배 행위]를 고독 속에서 하지 않는가? 더불어, 다른 사람의 자신이 자신의 것보다 더 매력적이며, 자신의 것보다 다른 사람의 발전을 원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단지 사탄의 권고일 뿐이며, 그가 추종자를 얻도록 속이고 [결과적으로] 과시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갈 수 있는 자, 자신의 잘못에 굴복하지 않는 자, 마음이 비추고, 그 빛줄기가 다른 이들에게 닿아 그들도 [내면에서] 빛나게 하는 자. 그럴 경우, 따르는 것에 대해 신의 보상을 받을 것이지만, 앞서 언급한 사탄적 설득은 단지 기만적인 권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신의 보상을 받게 되고, 따르는 사람은 이 권면에 부당하게 굴복한 책임을 지며, 심지어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특성을 [기만적으로] 보여준다는 이유로 [신성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3단계는 2급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복잡한데, 이는 자신의 낮은 자아를 시험하고 사탄의 속임수를 인지하며, 사적인 상태와 공적인 상태(내면과 외면) [영적] 상태의 차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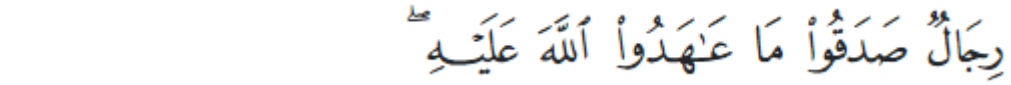
단순한 과시임을 아는 것이며, 사적인 기도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과 같아야 하며, 시도할 때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겸손을 취하는 것이 평소와 다르게 드러난다. 대신, 고독 속에서 자신에게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 만드는 것과 같은 선함과 아름다움을 기도 속에서도 창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은밀한(비밀) 과시의 한 형태이지만, 겉으로는 잘 인식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기도를 잘 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적이든 공적이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진심은 사람과 동물이 한 사람의 눈에 동등해질 때 존재하므로, 동물 앞에서 예배를 미화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과시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물에 대한 성향이 돌에 대한 성향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장소든 사적이든 그렇지 않으면 두 상태(상황)에서 창조물에 빠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사탄에 대한 매우 미묘한 속임수이며, 이에 대해 거의 알려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단계, 즉 가장 미묘한 수준은, 공공장소에서 기도할 때 사탄이 겸손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임수에 빠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 사탄은 말합니다. "네가 예배 앞에 서 있는 신성한 위대함과 위엄, 그리고 그분의 신성함을 곰곰이 생각하라. 그리고 네가 그분을 무시하는 동안 그분이 네 마음을 들여다보실까 두려워하라." 이 말을 들으면 즉시 마음에 집중하고 겸손과 낮음을 내밀어 이 행동이 순수한 진실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순수한 속임수입니다. 이는 고독 속에서 겸손과 마음의 존재를 받아들였고, 그때 신성한 위엄을 깊이 생각했을 것이지, 공개 모임에서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속임수를 막는 한 가지 방법은 공적 모임에서처럼 고독 속에서도 마음이 신성한 기억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마음의 상태가 고독 시절과 달라져서 그때까지 진실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사람이 바라볼 때 마음이 동물이 볼 때와 달라지는 한, 진실성의 명확함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내면은 숨겨진

다신교로 더럽혀지는데, 이는 검은 개미가 검은 밤에 검은 바위 위를 기어가는 것보다 더 숨겨져 있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전통에 언급된 것처럼(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오직 통찰력이 깊고 신성하게서 보호와 성공, 인도를 받은 사람만이 사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신성한 예배를 행하기로 결심한 자들을 파괴하려 하며, 단 한 순간도 그들을 방심하지 않고, 그들에게 과시를 강요할 때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큰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의 모든 행동을 엄격히 감시하여 심지어 평범한 일조차도 예외 없이 [그들을 과시하도록 속이기 위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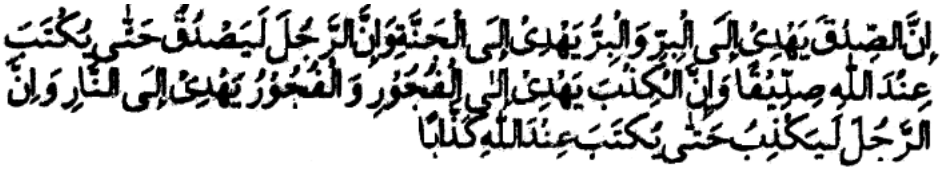
탁월함과 진실성의 현실

진실성의 탁월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결의가 높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을 문자와 정신으로 진실하게 이행하는 것이었다." (꾸란 33장 23절)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성(*시/드크*)은 사람을 의로 이끌고, 의로움은 천국으로 이끈다. 그리고 결의가 높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Siddeeq)으로 기록될 때까지 [말, 생각, 행동에서] 진실하다.

거짓은 악으로 이끌고, 악은 지옥으로 이끈다. 그리고 사람은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신 앞에서 거짓말쟁이로 기록된다"고 말했다. (내레이션 압 *둘라 이븐 마수드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를 *모은 사*히흐 부카리*와* 사히흐 무슬림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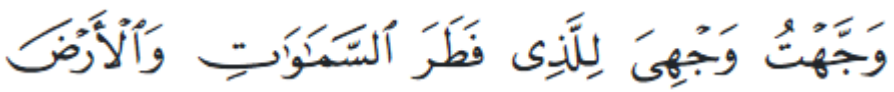
압둘라 이븐 아바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한 가지 자질을 갖추면 구원을 얻게 하는 네 가지 자질이 있다 - 진실함, 수줍음(겸손함), 아름다운 내면의 성격과 자질, 그리고 감사함이다."라고 말했다. 무함마드 이븐 알리 카나피(신께서 그를 자비로 여기시길)는 "우리는 신으로 가는 길이 세 가지 요소에 기반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 첫째는 진실성, 둘째는 진리, 셋째는 정의와 공정함입니다. 정의는 마음에 관한 것이다; 진실은 기관에 해당하고, 진실성은 지성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윗(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내면으로 나를 확인하시는 자(*바틴*)는 내가 그 사람을 모든 창조물 앞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하라." 시블리(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 모임에 있던 한 남자가 와*즈드*(영적 황홀경) 상태에서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 잠시 후 티그리스 강으로 달려가 뛰어들었습니다. 시블리(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길)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예언자 모세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그에게도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그리고 만약 그가 거짓말쟁이라면(세속적인 동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영적 황홀경 상태를 가장한 것이라면) 신은 그를 파라오가 익사시켰듯이 그를 익사시킬 것이다." 와후브 이븐 무나베(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나는 이스라엘 자손 의인들이 함께 읽던 토라 각주에 스물두 문장을 보았다. 그 문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보물도 지식보다 더 유익하지 않고, 어떤 소유도 지식보다 이익이 없으며, 어떤 혈통도 분노보다 더 타락하지 않으며, 어떤 동반자는 [의로운] 행동보다 더 아름답고, 어떤 친구도 무지보다 더 잘못을 돌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큰 명예는 없으며, 어떤 친절도 변덕을 버리는 것보다 크지 않으며, 어떤 행동도 묵상보다 우월하다, 어떤 경건한 행위도 인내보다 우월하며, 어떤 악도 오만보다 더 굴욕적이고, 어떤 약도

부드러움(관용)보다 더 부드럽고, 어떤 병도 어리석음보다 더 고통스럽고, 어떤 예언자도 진리보다 더 정의 지향적이고, 어떤 논쟁도 진실보다 더 교훈적이며, 어떤 가난도 탐욕보다 더 굴욕적이고, 어떤 부유함도 저장보다 더 굴욕적이다, 어떤 삶도 건강한 사람보다 더 좋고, 어떤 경제도 순수보다 더 즐겁지 않으며, 어떤 예배도 겸손보다 낫지 않고, 어떤 금욕도 만족보다 더 낫고, 어떤 보호자도 침묵보다 더 보호하며, 어떤 부재도 죽음보다 더 가까이 있다"고 말했다.

진실성의 실재, 그 의미와 정도: 진실성(*Sidq*)이라는 단어는 여섯 가지 의미에 적용됩니다: 말의 진실성, 의도의 진실성, 결의의 진실성, 결단력의 진실성, 결심을 완성하는 것의 진실성, 행동의 진실성, 그리고 신*성한 길*(딘)의 모든 영적 정직(마카맛)을 탐구하는 것의 진실성입니다). 이 여섯 가지 의미에서 진실성을 부여받는 자는 진실(*시디크*, 영지주의, 신과 친밀한 존재)입니다. [이 설명은 진실성의 전체가 이 여섯 가지 문제에 대한 고수로 인간의 성취의 정점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지위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거짓말과 그 모든 형태인 속임수, 부정직함, 부정의, 증오 등에 집착하는 것은 사람을 최저 최악의 최저 어둠과 완전한 실패로 이끕니다. 그렇다면 진실성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진실한 자는 그 안에 진실이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 진실하다고 불립니다. 이제 이 모든 유형을 설명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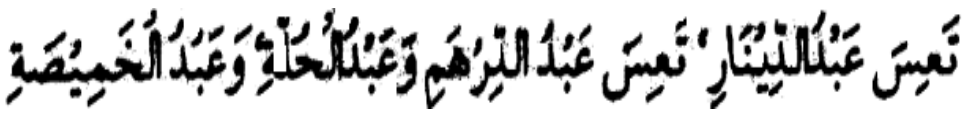
1등급의 진실성은 말로 이루어집니다: 이 진실성은 소식을 전달하는 데 있으며, 소식(또는 사건)을 전달하는 말에 관한 것입니다. 뉴스는 과거와 현재, 미래와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모든 종(즉, 하나님의 종, 즉 인간)은 자신의 말을 지킬 책임이 있으며, 어떤 말을 혀로 말할 때는 반드시 진실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밝고 명확한 진실성의 형태입니다. 자신의 혀를 [거짓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리고 현실에 반하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진실하다"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 진실성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암시를 피하는 것으로, 일부 사람들은

암시를 통해 전달되는 거짓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암시를 피하는 것은 이런 진실성의 완성도이며, 거짓말을 대신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거짓말이 금지된 이유는 거짓말 속에서 사실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혀(단어)를 통한 진실성의 완성은 노골적인 거짓말과 암시(의도적으로 이중적 의미를 전달하고 사람들을 오도하는 미묘한 거짓말)에서 멀리하는 것이며, 두 번째 완벽함은 무엇을 말하든 의미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 구절을 읽는다면: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을 향해 얼굴을 돌렸다(온전한 집중을 가진 존재로서)." (꾸란 6장 79절)

그러나 [위 구절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라면] 만약 마음이 하나님과 일탈되어 세속적인 욕망과 희망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오직 당신만이 우리가 숭배하니라"(꾸란 1장 5절)라고 말하거나 "나는 당신의 종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 대한 종이라는 의미가 없으며, 대신 자신의 하등자아나 세상, 세속적 욕망을 자신의 신으로 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는 것의 의미에서],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진실한 말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언가에 종속하는 자는 그 종이 되어 [그 결과로 진정한 자유를 잃는다]. 예수님(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은 자신의 나라의 반역자들을 "세상의 종들이여!"라고 부르곤 하셨습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괴는 *디나르*(금화)의 종에게, 디*르함*(은화폐)의 하인에게, 옷을 사는 하인과 음식의 하인에게 파괴는 있다." (내레이션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 사히흐 부카리(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이 예언적 서술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복종하는 대상에 속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로부터 처음으로 해방을 얻는 자입니다. 이 자유를 얻은 후에는 하나님 외의 마음이 비워지고,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믿음이 그 안에 깊이 뿌리내려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신성한 사랑에 몰입하게 하며, 하나님 외의 모든 감금과 함정에서 해방된 후 외면과 내면의 존재가 신성한 순종에 몰두하게 되고, 목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적 경지에 도달하면 '해방'이라 불리는 더 높은 영적 경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신에 대한 어떤 의도도 스스로 품지 않고, 신이 의도하시는 것, 즉 친밀함이든 멀어지든, 만족하게 되어 자신의 의도가 소멸됩니다(*파나*)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그런 사람은 두 번 해방됩니다: 첫 번째는 신 이외로부터, 두 번째는 자신의 하위 자아(*나프스*)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자신의 하위 자아에 대해* 멸종(파나)되고, 주님에 대해 생존(*바카* 또는 존재)한다. 즉, 주님이 움직이실 때 움직이고,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면 가만히 있다. 만약 그분이 재앙을 내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떤 것을 찾거나 원하거나 간청하거나 반대할 능력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만족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서 목욕하는 사람의 손에 시신이 놓인 것과 같습니다(죽은 시신을 묻기 전에 씻는 의식을 치르는 책임자가 된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섬기는 진실성의 강도(***Sidq fi al-'Uboodiyyah***)입니다. 진리의 인격은 존재가 주님을 위한 것이며 하층 자아를 위한 것이 아닌 분입니다. 이는 영지주의자들, 즉 신의 친구이자 친밀한 이들(*시디킨*)의 정도이며, 신 이외로부터의 해방은 신의 친구와 친밀한 이들 중 하나이며, 이후 신에 대한 종속이 이루어진다. 이 학위 이전에는 누구 도 *사디크*(진실하거나 진리에 헌신적)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진실성은 의도와 의도에 있습니다: 의도와 의도의 진실성의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종은 오직 모든 행동과 움직임, 정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도만을 가집니다. 하층 자아(*나프*)의 쾌락이 그것과 섞이면, 의도의 진실성이 무너지고,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예언자 무함마드(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의 진정성에 관한 이야기에서 학자가 심판의 날에 자신의 지식에 따라 행동했는지 묻는다고 하며, 이에 대해 학자는 여러 가지를 인용합니다 내가 이룬 일들. 하나님은 이에 대해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당신을 '학자'라고 부르길 원했던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학자의 행동은 반박되거나 부정되지 않고, 오히려 의도가 반박된 것이다 [순전히 신을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영지주의자는 신성한 통일성의 건강(완전한 현존)이 의도 속에서 [순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세속적이거나 숨은 이기적인 동기를 위한 것이 아님] 진실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성의 한 가지 의미의 결론은 의도가 순수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진실함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성의 세 번째 단계는 결의에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에 결심이 있고, 예를 들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부를 주신다면, 나는 그 모든 것을 자선에 나누거나 절반을 하나님의 길에 쓰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정부] 권한을 주신다면, 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공식 책임을 수행할 것이며, 억압을 저지르거나 창조물(백성)에 대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결의의 진실성(*Sidq fi-al-'Adhema*)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결의에 강하며, 의도에 확고함을 가집니다. 여기서 '진실하다'고 말할 때, 이는 선과 관련된 일에 대해 완전하고 강한 결의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그 안에 일탈(흔들림), 약함, 망설임이 전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진실성은 결정의 성취에 있습니다: 때로는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 결정을 내리지만,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할 때가 되었고,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있을 때, 하위

자아(Nafs)에서 나오는 욕망과 욕망이 힘을 얻습니다. 모든 결정이 무효화되었다. 이 상황은 결정 이행의 진실성에 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رِجَالٌ صَدَقُوا۟ مَا عَٰهَدُوا۟ ٱللَّهَ عَلَيْهِ ۖ فَمِنْهُم مَّن قَضَىٰ نَحْبَهُۥ وَمِنْهُم مَّن يَنتَظِرُ ۖ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행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 약속에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서약을 완수한 이들과, [때가 되면 서원을 이행하기를 기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꾸란 33장 23절)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다른 이들도 있으며, 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절이 계시되었습니다:

وَمِنْهُم مَّنْ عَٰهَدَ ٱللَّهَ لَئِنْ ءَاتَىٰنَا مِن فَضْلِهِۦ لَنَصَّدَّقَنَّ وَلَنَكُونَنَّ مِنَ ٱلصَّٰلِحِينَ ﴿٧٥﴾

فَلَمَّآ ءَاتَىٰهُم مِّن فَضْلِهِۦ بَخِلُوا۟ بِهِۦ وَتَوَلَّوا۟ وَّهُم مُّعْرِضُونَ ﴿٧٦﴾

فَأَعْقَبَهُمْ نِفَاقًا فِى قُلُوبِهِمْ إِلَىٰ يَوْمِ يَلْقَوْنَهُۥ بِمَآ أَخْلَفُوا۟ ٱللَّهَ مَا وَعَدُوهُ وَبِمَا كَانُوا۟ يَكْذِبُونَ ﴿٧٧﴾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부터 [많은 부]를 주신다면 자선에 아낌없이 쓰고 그 재산으로 많은 의로운 일을 행하겠다고 맹세하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들은 인색해졌고, 맹세를 어기는 이런 일탈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벌로 그들의 마음에 위선을 심어주셨고, 그 위선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후 하나님께 돌아갈 때까지 그 안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꾸란 9장 75-77절)

여기서 결정은 언약으로, 언약 위반은 거짓말로, 언약 이행은 진실성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진실성은 3차 진실성보다 강한데, 때로는 하위 자아(*나프스*)가 결정을 내리지만, 행동할 때가 되면 욕망의 자극과 수단의 가용성이 결심을 이루고 실행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부 사이드 알-하자즈(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길)는 꿈에서 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물었다. "진실함이란 무엇인가(*시드크*)?" 그는 "언약을 이루는 것이 진실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천사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다섯 번째 진실성은 행위와 행위에 있습니다: 행위(또는 행위)에서의 진실성은 자신의 외적 행동이 내면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거짓으로] 지지하지 않는 상황을 끊임없이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행동의 진실성은 행동(또는 행위)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진정한 내면 현실과 비교해 위선을 두려워해서], 오히어 내면의 존재(*바틴)가 외적 존재(*자히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외면] 행동이 보여주는 것에 근거해 칭찬받을 만한 내면의 자질을 지닌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정받길 원하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목적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마음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것들을 관찰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기도 중에 겸손하고 신의 위엄 앞에 있는 상태로, 비록 내면의 시장에서 서 있고 어떤 욕망에 잠겨 있더라도 말이다. 그들의 존재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과 행위는 그들의 내면의 [지각된] 상태를 반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그들의 내면의 [진정한]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거짓에 깊이 빠져 있으며, 행동에서 진실성을 요구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면에는 품위나 평온함이 없지만, 매우 침착하고 평온하며 품위를 지니고 걷기도 합니다. 이들은 또한 창조물에 관심이 없고 과시적인 과시가 목적이 아니지만, 행동에 진실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만이 내면과 외면이 같거나 내면이 외면보다 더 나은 행동의 거짓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러한 [위선과 과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겉모습을 나쁘게 유지하고 옷은 먼지가 쌓여 있어 아무도 자신의 내면의 선함을 주장할 수 없게 합니다. 내면이 외모에 비해 좋지 않고, 사람들이 그들을 좋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만약 외적 존재가 의도적으로 내면과 반대되는 것이라면(즉, 겉으로 보기엔 좋지 않은 내면의 현실과 어긋나게 보이는) 그것은 과시로 불리며, 의도치 않게 그렇게 한다면 진실성이 사라진다. 진실성이란 외면과 내면이

조화롭고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 세부 사항에서 외부 존재와 내면 존재 사이의 조화가 진실성의 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6차 진실성은 영적 정직에 있습니다: 이는 매우 높고 드문 진실성의 정도입니다. 이는 신성한 *길*(딘)의 영적 위치(*마카맛*)와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신에 대한 두려움과 희망(신에 대한 희망), 신성한 존재의 신성함, 세속적 삶에서의 금욕, 신의 뜻 수용, 신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사랑 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안에 진실성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요소들이 [영적 지상의 실재를 얻는 형태로] 드러날 때, 이 용어(영적 정지에서의 진실성)가 그들에게 적용된다. 이 요소들 외에도, 이 영적 정거지들에서 진실성에 관한 몇 가지 함의와 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현실에 도달하는 사람은 진실하고 완벽한 사람이다. 어떤 것이 한 사람 안에서 지배적이 되고 그 현실성이 완성될 때, 그것을 부여받은 자는 진리라고 불린다. 예를 들어, 누구누구가 영적 노력에서 진실하다고 말하는데, 즉 영적 노력이 한 사람 안에서 지배적이다. 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실하다고 말하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현실이 한 사람 안에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لَّيْسَ ٱلْبِرَّ أَن تُوَلُّوا۟ وُجُوهَكُمْ قِبَلَ ٱلْمَشْرِقِ وَٱلْمَغْرِبِ وَلَٰكِنَّ ٱلْبِرَّ مَنْ ءَامَنَ بِٱللَّهِ وَٱلْيَوْمِ ٱلْءَاخِرِ وَٱلْمَلَٰٓئِكَةِ وَٱلْكِتَٰبِ وَٱلنَّبِيِّۦنَ وَءَاتَى ٱلْمَالَ عَلَىٰ حُبِّهِۦ ذَوِى ٱلْقُرْبَىٰ وَٱلْيَتَٰمَىٰ وَٱلْمَسَٰكِينَ وَٱبْنَ ٱلسَّبِيلِ وَٱلسَّآئِلِينَ وَفِى ٱلرِّقَابِ وَأَقَامَ ٱلصَّلَوٰةَ وَءَاتَى ٱلزَّكَوٰةَ وَٱلْمُوفُونَ بِعَهْدِهِمْ إِذَا عَٰهَدُوا۟ ۖ وَٱلصَّٰبِرِينَ فِى ٱلْبَأْسَآءِ وَٱلضَّرَّآءِ وَحِينَ ٱلْبَأْسِ ۗ أُو۟لَٰٓئِكَ ٱلَّذِينَ صَدَقُوا۟ ۖ

"의는 의식이나 기도나 신심에서 얼굴을 동쪽이나 서쪽으로 돌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의란 하나님과 심판의 날, 천사들, [신성하게] 계시된] 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인도주의적 노력과 자선으로] 부를 친척, 고아, 궁핍한 여행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과 재산에서 멀어져 여행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요청자(필요에 의해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는 감금된 이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잘못한 사람들에게 보상하여 그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후로는 악을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조건으로 말이다], [이런 경우]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고, 강제적인 빈곤 납부(*자카트*)를 납부하며, 자신의 언약(약속)을 이행한다. 서약, 약속) 언약이 맺힐 때 말이죠. 그리고 이들은 가난(고난), 병, 전쟁 속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침략자들에 의해 강요될 때] 이들이 진실한 사람들이야." (꾸란 2장 177절)

진실성의 정도: 이 전체 설명의 결론은, 이 [다양한] 영적 정거점들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진실의 정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종이 어떤 일에서는 진실성을 지녔지만 다른 일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모든 사안에 진실하다면, 그 사람은 현실에서도 진실(*Siddeeq*)이다.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 모세에게 계시하셨다고 전해지며(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내가 내 종이여, 내 사랑하는 이를 삼으니 나는 그 고난과 시련을 산으로 보내면 견딜 수 없을 고난과 시련을 그에게 보내리라. 그때 나는 나의 시련에 대해 진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된다. 인내심을 발휘하면 나는 그것을 친구이자 사랑하는 사람으로 삼고, 누군가가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며 나에 대해 불평하면 나는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여 그런 자를 신경 쓰지 않는다." 진실성의 표시는 시련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가 사람들의 눈과 지식으로부터 숨겨져 있으며, 창조물이 그것을 인식하는 것을 나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18장 – 모든 결점, 부정성, 악덕에 대해 스스로를 책임지기 위한 자기 성찰과 자기 평가

자신의 행동을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저지른 과잉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신성한 인도, 정의, 공정, 자기 개혁, 영혼의 정화를 구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는 인간의 본질을 완성하는 영적 길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성찰하지 않은 삶은 같은 실수와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는 모습을 본다. 반면, 자신의 결점, 부족함, 실수, 잘못을 찾아내는 비판적 자기 평가는 먼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동료 인간을 위해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상호 관계를 개혁하고 강화하며, 민족과 국가 간의 조화와 평화를 증진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평화는 내면에서 시작되고, 자기 평가는 자기 안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평가와 스스로를 책임지는 것은 진리의 길을 걷는 영적 여행자들에게 필수적인 자질이며, 개인적·집단적 차원 모두에서 개혁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가잘리는 네 번째 권의 8장(8장)에서 이 주제에 대해 통찰력 있는 해설을 제공한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제시한다 [24]:

자기 성찰(*무라카바*)과 자기 평가(*무하사바*) 설명

존경받는 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وَنَضَعُ ٱلْمَوَٰزِينَ ٱلْقِسْطَ لِيَوْمِ ٱلْقِيَٰمَةِ فَلَا تُظْلَمُ نَفْسٌ شَيْـًٔا ۖ وَإِن كَانَ
مِثْقَالَ حَبَّةٍ مِّنْ خَرْدَلٍ أَتَيْنَا بِهَا ۗ وَكَفَىٰ بِنَا حَٰسِبِينَ

"심판의 날에는 균형의 저울이 세워져서 누구에게도 부당함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한 사람의 [선하고, 경건하며, 의로운] 행위가 겨자씨 크기만큼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곳에 제시하여 [세속 생활에서의 선한 업적이 모인 악행보다 크는지 판단하기 위해 그것을 저울질하며],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세속 생활 중 행하거나 잘못을 지었음에도 책임을 묻고 절대적인 정의와 공정성으로 그에 맞게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꾸란 21장 47절)

وَوُضِعَ ٱلْكِتَٰبُ فَتَرَى ٱلْمُجْرِمِينَ مُشْفِقِينَ مِمَّا فِيهِ وَيَقُولُونَ يَٰوَيْلَتَنَا
مَالِ هَٰذَا ٱلْكِتَٰبِ لَا يُغَادِرُ صَغِيرَةً وَلَا كَبِيرَةً إِلَّآ أَحْصَىٰهَا ۚ
وَوَجَدُوا۟ مَا عَمِلُوا۟ حَاضِرًا ۗ وَلَا يَظْلِمُ رَبُّكَ أَحَدًا

"분별의 나이에 도달한 모든 이에게 끊임없이 모아지는 행위 기록이 [심판의 날] 앞에 놓일 때, 범인들은 그 안에 적힌 내용을 두려워하며 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가 있을지! 이 행위 기록은 너무 이상해서 크든 작든 기록되는 것을 막지 않았으며, 그들이 세속 생활에서 무엇을 했든 그 안에 있을 것이며, 주님께서 누구도 부당하게 하거나 억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꾸란 18장 49절)

يَوْمَ يَبْعَثُهُمُ ٱللَّهُ جَمِيعًا فَيُنَبِّئُهُم بِمَا عَمِلُوٓا۟ ۚ أَحْصَىٰهُ ٱللَّهُ وَنَسُوهُ ۚ وَٱللَّهُ عَلَىٰ كُلِّ شَىْءٍ شَهِيدٌ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실 때[세속에서 죽은 후 모두 다시 살게 하여] 그때 그들이 한 모든 일을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세속 생활 동안 저지른 행위와 악행에 관해서]를 잊어버린 모든 것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증인이십니다 [선하든 나쁘든, 세상에서 비밀리에 행하든 공개적으로든]." (꾸란 58장 6절)

يَوْمَئِذٍ يَصْدُرُ ٱلنَّاسُ أَشْتَاتًا لِّيُرَوْا۟ أَعْمَـٰلَهُمْ ﴿٦﴾

فَمَن يَعْمَلْ مِثْقَالَ ذَرَّةٍ خَيْرًا يَرَهُۥ ﴿٧﴾

وَمَن يَعْمَلْ مِثْقَالَ ذَرَّةٍ شَرًّا يَرَهُۥ ﴿٨﴾

"그 [심판의 날]에 사람들은 무리로 돌아와 모두 자신의 행한 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속 생활에서]. 따라서 작은 입자 [무게 값]의 선행을 한 자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작은 입자 [무게 값]의 악을 행한 사람도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선악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아무렇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한 모든 행동은 즉시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정도의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꾸란 99장 6-8절)

ثُمَّ تُوَفَّىٰ كُلُّ نَفْسٍ مَّا كَسَبَتْ وَهُمْ لَا يُظْلَمُونَ

"그럼 모두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전액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떤 부당함이나 불공정도 겪지 않을 것이다." (꾸란 2장 281절)

يَوْمَ تَجِدُ كُلُّ نَفْسٍ مَّا عَمِلَتْ مِنْ خَيْرٍ مُّحْضَرًا وَمَا عَمِلَتْ مِن سُوٓءٍ تَوَدُّ لَوْ أَنَّ بَيْنَهَا وَبَيْنَهُۥٓ أَمَدًۢا بَعِيدًا ۗ وَيُحَذِّرُكُمُ ٱللَّهُ نَفْسَهُۥ ۗ

"그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은 앞에서 행한 선행과 악행을 발견하고, 그날과 자신 사이에 엄청난 거리를 두고자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강력하고 압도적이며 전역적인] 존재를 두려워하게 하여 [모든 잘못과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 (꾸란 3장 30절)

وَٱعْلَمُوٓا۟ أَنَّ ٱللَّهَ يَعْلَمُ مَا فِىٓ أَنفُسِكُمْ فَٱحْذَرُوهُ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묻힌 비밀을 아신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라. 그분과 그분이 너희 마음에 묻힌 비밀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이 너희를 막고 그들을 대가로 삼으실 수 있는 능력을 두려워하라." (꾸란 2장 235절)

이 고귀한 구절들에 비추어 내면의 통찰을 가진 사람들(*바세라*)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분의 종들(인간)을 감시하시며,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세속적인 삶에서 한 모든 작은 일에 대해 질문을 받을 것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 위험들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층 자아(*Nafs*)[모든 생각, 감정, 의도, 말, 행동, 존재 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행동을 진실되게 감시하며 하층 자아를 모든 숨결과 움직임에 책임지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심판의 날에 하위 자아의 책임을 [신성한] 책임보다 먼저 지을 수 있다면, 심판의 날에 대한 책임이 줄어들고, [그날 던져진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이 미리 마음에 존재하며, 신의 심판에 근거한 최종 결말이 최선이 될 것입니다. 하층 자아(나프)를 책임지게 하지 않는 자는 [생각, 감정, 의도, 말, 행동 등 모든 것에 대해] 항상 후회에 갇히게 되며, 심판의 날에 책임을 지는 기간이 길어지며, 자신의 죄(악과 잘못)에 대한 굴욕에 빠져 신의 불쾌감을 얻게 됩니다. 내면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은 심판의 날의 굴욕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에 대한 신의 순종이며, 하나님께서는 역경과 욕망에 대한 인내와 모든 악과 부정, 잘못에 대한 경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들(내면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층 자아를 조건에 가두어 지켜보고, 그 상태를 [엄격한] 감시했으며, 책임을 묻고, [잘못에 대해] 벌을 주고, 영적으로 [개혁, 정화, 정화, 신성한 임재로의 승천]을 위해 노력했고, 그 다음에는 [그 죄에 대해] 엄격히 다뤄왔다. 따라서 이들은 여섯 단계의 감시 단계(자기 성찰과 자기 평가)를 거쳤다. 이 여섯 개의 방송국을 설명하고, 이러한 경계심의 현실성과 우수성,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설명해 봅시다. 이 모든 경지의 기원은 하위 자아(Nafs)를 그 상태에 대한 조건과 경계에 복종시킨 후 달성되는 자기 책임성에 있습니다. 만약 책임성이 하위 자아가 저지른 과잉이나 잘못과 그로 인한 영적 삶, 신성한 길, 하나님 앞에 선 피해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불쾌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올바른 길로 되돌리기 위해서, 인도, 정제, 그리고 내면의 깨달음].

하위 자아의 첫 번째 감시 지점 - 조건 설정: 사업과 거래에 종사하며 사업 상품의 파트너인 이들의 목표는 오직 이익뿐이다. 사업가가 먼저 사업 파트너에게 사업 상품을 건네 후 회계를 하는 것처럼, 지성은 내세의 사업가이며, 그 목적은 이익이라 불리며 영혼의 정화이며, 구원과 성공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قَدْ أَفْلَحَ مَن زَكَّىٰهَا ﴿٩﴾

وَقَدْ خَابَ مَن دَسَّىٰهَا ﴿١٠﴾

"진실로, 성공을 이루었으니 [구원과 모든 해악과 상실로부터의 구원]을 얻었고(즉, 자아, 확장해서 마음과 영혼까지), 낙담한 패배자가 [죄와 악, 악덕, 잘못,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형태로 그것을 파괴한 자]." (꾸란 91장 9-10절)

자아는 의로운 행위를 통해 성공하고 구원을 얻으며, 지성은 이 사업에서 자아로부터 도움을 받아 사용하고, 정화에 의존하는 일에 복종시킵니다. 이는 사업가가 사업 거래를 책임지는 사업 파트너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사업 파트너가 이익을 추구하는 욕구에서 먼저 조건을 부과하고, 그 다음 감시한 뒤 회계를 하고, 회계에서 불일치나 부정직함을 발견하면 처벌을 부과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지성도 자아로부터 이 네 가지 문제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지성(지성)이 자아(자아)에게 조건과 의무를 설정하고, 성공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며, 이미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라고 지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언제든 자아(자아)를 감시하는 태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부주의를 취하면 자기 자신이 맡은 임무에서 벗어나 부정직함을 저지르게 되며, 실제 [사업 투자] 자본조차 낭비하게 됩니다. 자아는 사업재를 맡은 부정직한 직원과 같아서, 혼자 물건을 다룰 때는 부정직함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셋째, 자기는 모든 조건을 충족했는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거래는 천국과 예언자들과의 동반자 로서 보상을 받을 것이며, 이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영적 상승의 최고 지점인 *시드라툴 문타하*에서 이루어진다 . 이 거래의 회계(책임성)는 모든 세세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하며, 세속적 이익보다 이익을 더 주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속적 이익은 이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세속적 이익은 아무리 많아도 머무르지 않는다. 선함에 영원하지 않은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마지막 날(심판의 날)을 믿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모든 움직임, 성향, 생각, 쾌락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엄격함을 행사해야 합니다. 인간 생명의 모든 숨결은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보석이기 때문이며, 그와 함께,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귀중한

보물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숨(순간들)을 낭비하거나 파괴적인 행동에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중대한 손실이라 지적인 사람도 견딜 수 없습니다. 아침 의무를 마친 후 잠시 혼자 시간을 가지며, 사업가가 사업 파트너와 만나 상품을 넘기기 전에 조건을 정하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조건을 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회의에서 지성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평생 외에는 자본이 없고, 그것이 낭비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고, 나는 빈곤하고 박탈된 상태로 남을 것이며, 사업을 하거나 이익을 얻을 희망도 남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제 삶에 더 많은 시간을 주셨으며, 그로 인해 저에게 큰 보상을 주셨습니다. 만약 내가 죽었다면,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선한 일을 하고 [내 잘못을 속죄하게] 하루만 더 세상으로 돌아오길 바랐을 것이다. 그러니 너 [오 자아!]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난 후] 세상으로 다시 보내졌다고 생각해야 해. 조심하다! 이 날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잘못되거나 헛된 노력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제가 내쉬는 모든 숨결은 정말 값진 우아한 보석 같아요! 오 자아! 낮과 밤(낮 동안) 스물네 번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예언적 서술에서 스물네 개의 보물이 낮과 밤에 [한 명 앞에] 펼쳐진다고 전해집니다. 이 보물 중 하나가 눈앞에 열리면, 그 보물은 그 순간 행한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찬란하게 빛나는 빛으로 가득 채운 채로 가득 찬 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빛나는 목격은 주권 위엄 있는 통치자(신)와 가까워지는 수단으로서 엄청난 행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다 악취와 강렬한 어둠을 가진 이마를 위한 어두운 보물이 열립니다. 그것은 죄를 짓고 그 보물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의 보물입니다. 그다음 잠들었거나 부주의했거나 세속적인 일로 바빴던 또 다른 보물이 열립니다. 그 보물이 비어 있는 것을 보며 후회와 박탈감을 느끼고, 마치 큰 사업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은 듯한 후회를 느끼지만, 원했다면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인생의 순간들의 보물들은 평생 동안 열려 있으니, 스스로에게 말해야 한다. "오늘의 보물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라. 그리고 선한 행행의 소중한 보석을 잃지 말라. 이 보석들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승리로 이끄는 신성한 전능의 영역에서 영원한 지배를 이끄는 수단이다. 게으름, 무기력, 위안을 찾는 태도를 뒤로하고, 당신의 지배권이 빼앗겨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게 하여 후회만 남지 않도록 하세요. 설령 낙원에 도달하더라도, 게으름으로 인한 손실 때문에 평화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이 불안함이 지옥의 불안함보다는 덜할

것이다." 한 영지주의자는 "우리는 죄가 용서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죄가 용서된 후에도 의인의 높은 영적 지위와 지위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현명하게 유용한 일에 쓰라는 자기 자신에게 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눈, 귀, 혀, 위, 사적인 부위, 손, 발 등 일곱 개의 [신체] 기관 모두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 기관들의 통제권을 자기 자신에게 넘기고 "이 기관들은 당신이 다스리는 신하이며, 이 거래에서 당신의 종이며, 이 거래의 절정은 그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문은 일곱 개이고 모든 기관은 한 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문들은 이 기관들을 통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를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데 사용된 문에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양한 죄악과 악행, 잘못을 저질러서]. 이 장기들을 죄와 잘못으로부터 보호하라고 자기 자신에게 조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눈이 볼 수 없거나 잘못된 것을 말라고 말해야 하며, 누군가의 사적인 부위를 말고, 신자를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필요하지 않은 것은 [세속적이거나 내세적인 이익을 위해 허용될 수 있더라도]을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시선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책임지게 하실 것이고, 쓸데없는 말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선을 막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 업계에 유용한 일에 집중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교훈을 얻는 눈으로 바라보거나, 선한 의로운 행위를 따르며 하나님의 책과 예언의 길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 즉 선한 의로운 행위를 관찰하며 하나님의 책과 예언적 길을 바라보고 그것들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 지혜의 책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관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의무를 알게 되어야 하며, 신성한 길(딘)과 관련된 무역에 해를 끼치는 일에 관해서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혀와 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혀는 자연스럽게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며, 종종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 동작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뒤에서 비방, 불평, 내면의 순결 주장, 동료 창조물에 대한 비난, 비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길 바라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길 기도하며, 욕설과 저속함 등 이 모든 문제에서 혀의 죄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혀의 해책"(4장)에서 설명되어 있다. 혀는 보통 이런 문제들을 쫓지만, 그 창조의 [신성한] 목적은 신성한

기억이며, 창조물들에게 신성한 기억에 참여하도록 조언하고, 교육 토론에 참여하며, 신의 종들에게 신으로 가는 길(*딘*)을 교육하고 인도의 길을 보여주며(*히다야*), 상호 적대감을 가진 두 무슬림[또는 누구든지]을 화해시켜 [상호 평화와 사회적 조화를 촉진], 그리고 [혀를 통해 악하고 해로운 일을 하지 않고], 유사한 의로운 일을 행한다. 이것은 또한 자기 자신이 하루 종일 신성한 기억 외에는 어떤 것도 입을 움직이지 않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신자의 말은 신의 기억이며, 시야는 우리가 서로 교류할 때 세상 곳곳에 흩어진 하나님의 표적에서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안에서], 그리고 [신자의 침묵]은 [신성한] 예배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مَّا يَلْفِظُ مِن قَوْلٍ إِلَّا لَدَيْهِ رَقِيبٌ عَتِيدٌ

"빠른 감시자가 근처에 있을 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키라만 카티빈* 또는 사춘기에 이르면 모든 인간과 함께하는 두 명의 하나님의 천사가 있으며,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위를 자신의 행적 기록부에 기록할 책임이 있으며, 심판의 날에 그 사람을 지상에서의 삶의 시험에서 성공 여부로 판단하고 영원한 생명에서 그에 따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꾸란 50장 18절)

위는 탐욕을 버리도록 꾸중받아야 하며, 허용되는 (*할랄*) 음식을 적게 먹도록 훈육받아야 하며, 의심스러운 음식은 자제하고, 욕망을 억제하며, 폭식하는 대신 필요한 양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자아는 위장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면 위장의 모든 욕망을 멈추고, 이런 방식으로 얻은 욕망과 그 이상을 잃게 될 것이라고 위협받을 수 있다. 모든 장기는 자신에게 적합한 유사한 조건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여러 기관의 죄는 숨겨지지 않으며, 그 [신성한] 순종의 행위도 숨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조건을 쉽게 설정할 수 있고, 모든 기관은 죄를 버리고 의로운 행위의 규칙성에 따라 규율을 갖추고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 후, 하루에 여러 번 [신성한] 순종의 행위를 상기할 수 있으며, 그때는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초과 자력적(선택적) 예배 행위(나와필)에 대해 자아에게 꾸짖어야 합니다. 초고력적 예배 행위의 본질과 수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자기 자신을 위해 명확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매일 필요합니다 [올바른 길 위에 있기 위해] 하지만 인간이 이에 익숙해지고 자아도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데 협력할 때, 더 이상 이 조건들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아는 태만과 게으름을

두려워하게 되어야 하며, 반역적인 사람처럼 꾸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본질적으로 반항적이며, 신의 복종을 경멸하며, [신성한] 복종에서 벗어난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꾸짖고 징계하는 것은 효과적입니다. 그런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자아를 양육하고 양육하는 시작의 단계입니다. 이는 행동 전에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고, 때로는 행동 후에 책임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익 또는 손실과 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평가를 책임성(*무하사바*)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이 누군가의 행동을 감시하여 부족했거나 과잉(잘못)을 저질렀는지 판단한다면 이는 자기 책임에 포함된다.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기 전에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고, [네 행위를] 평가받기 전에 [네 행위를] 저울질하며, 네가 영원한 구원을 얻었든 영원한 저주를 얻었든, 너에 대한 위대한 심판을 위해 [심판의 날에 신성한 법정에서]에 나타날 대[법정] 출현을 준비하라"고 했다. 모든 사안을 저울질하고 신중히 숙고한 후 [최종 결과를 바라보며] 행동해야 합니다.

하한 자아 두 번째 감시의 자리 - 관상: 인간이 자 기 자신을 꾸짖는 것을 마치고 위에서 말한 조건을 정한 후에는 명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즉, 자신의 행동을 깊이 숙고하고 깊이 들여다보며, 모든 잘못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엄격히 감시해야 합니다. 자아가 [자신의 변덕에 맡기면] 반항적이 되어 해롭고 해로우며 쇠약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관상에 대한 추가 논의 전에, 그 탁월함을 설명해 줍시다.

관상의 탁월함: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대천사 가브리엘에게 *이흐산*(탁월함, 아름다움, 완전함)에 대해 물었고, 그는 이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أَنْ تَعْبُدَ اللَّهَ كَأَنَّكَ تَرَاهُ

"하나님을 마치 그분을 보는 것처럼 예배하라[아직 진정으로 못하더라도]". (내레이션 우마르의 권위에 따라 사*히흐* 부카리*와 사히흐* 무슬림 *하디스를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이흐산" 또는 영성은 예언자의 말씀으로 상징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예배하라. 그러나 아직 그분을 보는 것은 아니니 [살아있는 영원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당신을 보고 계시다." 즉, 완성된 인간은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상태에 있거나, 그런 고귀한 영적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시야 안에 있다는 영원한 묵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영성은 분노, 증오, 질투, 질투, 오만, 탐욕, 부당함, 조급함, 자기중심, 인종차별, 광신, 극단주의, 자기 의로움, 복수심, 완고함, 무지, 겁쟁이, 악한 생각을 품고 명성/통제/권력에 대한 욕망,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성향과 경향을 제거함으로써 영혼을 아름답게 하려는 노력을 통해 달성됩니다; 그리고 사랑, 인내, 감사, 용서, 친절, 연민, 관대함, 겸손, 고귀함, 하나님과 모든 인간에 대한 진실, 신에 대한 신뢰, 신의 기억, 내면의 순수함, 모든 긍정적인 특성과 경향과 같은 선한 [내면의] 특성을 심어줌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삶의 모든 일에 신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는 영혼 안의 어둠을 완전히 제거하고 신성한 지혜의 빛을 받아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하는지와 같은 삶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도달하려는 인간 성취의 최고 수준입니다.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과 성공이란 무엇인지. 이 지점에서 진실한 신을 찾는 이들은 신의 깨달음, 즉 영적 성취의 정점에 도달하여 완전한 내면의 평화, 끝없는 행복, 그리고 영원한 성공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أَلَمْ يَعْلَم بِأَنَّ ٱللَّهَ يَرَىٰ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면과 외면의 모든 순간에 그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가]?" (꾸란 96장 14절)

إِنَّ ٱللَّهَ كَانَ عَلَيْكُمْ رَقِيبًا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를 온전히 알고 있으시고 항상 감시하고 계십니다." (꾸란 4장 1절)

아부 우스만 알-마그리비(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는 "영적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상, 자기 책임, 그리고 정치(즉, 올바른 지식에 따라 행동을 관리하는 현명한 행동)"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람들 사이에 앉을 때는 자기 자신과 마음을 꾸짖어 [잘못된 생각, 감정, 말과 행동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사람들이 당신의 모임에 찾아와도 [그들이 당신을 영적 스승으로 생각하면서] 속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을 외면으로 보기 때문이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내면(내면)을 들여다보시는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무함마드 이븐 알리 티르미디(신께서 그를 자비하시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라지지 않은 존재를 묵상하고, 축복이 끊기지 않는 분께 감사하며, 당신이 모를 분과 순종의 관계를 유지하고, 피할 수 없는 지배와 권능을 가진 분께 겸손을 가지라." 한 영지주의자는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지키고, 자신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지며, 내세로 가는 여정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실 것이다." 둔 눈 알-미스리(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는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천국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다섯 가지를 통해 말했다: [영적 노력에서] 어떠한 일탈도 없는 인내, 부주의 없는 노력, 공적·사적 모두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시선을 느끼는 관상, 그리고 [필연적인] 죽음을 기다리며 [신성한 길을 진심으로 노력함으로써], 그리고 자신이 [신성하게] 책임을 지기 전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상의 현실과 그 정도

관상의 현실은 감시자(하나님)를 돌보고 온전히 그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수피*(영적 여행자이자 신성한 길을 걷는 이들)에 따르면, 관상(*무라카바*)은 일종의 그노시스(신성한 지식과 근접성)를 통해 얻어지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일부 행동은 장기에서 나오고, 일부는 심장에서 태어납니다. 상태는 마음이 끊임없이 감시자(하나님)를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에 대한 기울임을 가지고, 그분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이해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비밀과 숨겨진 일들을 알고 계시고, 종들의 행동을 항상 감시하시며, 그들 자신에게서 비롯된 모든 행동을 인지하신다는 지식과 인식입니다. 마음의 비밀은 그분께 분명히 드러나며, 이는 인간에게 외모가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분명합니다.

이 이해가 모든 의심이 없는 확신이 되면, 그것은 마음을 지배하고 감싸게 됩니다. 이 확신의 지배는 중요합니다. 인간이 확신을 가진 많은 사안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의 확실성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깊은 이해(그노시스)가 마음을 지배할 때, 감시자(신)를 존경하게 만들고 온 존재의 방향을 감시자를 향하게 됩니다. 이 영지에 확신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친구이자 가까운 이들이다.

신의 친밀한 자들의 등급(영지주의): 신의 친밀한 자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딕*(영지주의)과 *아샤브 알-야민*(오른손 또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색도 두 단계에 있다. 한 등급은 영지주의자(***Siddiqeen***)인 하나님의 친밀한 자들에게 속합니다. 이것은 신성한 위대함과 위엄에 대한 묵상이다. 이 묵상의 결과는 마음이 신성한 위엄을 증언하는 데 몰입해 그분의 경외심에 부서지며, 그분을 향해 마음을 기울일 여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관상의 행위는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있으며, [신체] 기관에 관해서는 허용되는 쾌락과 위안의 것조차 성향이 없는데, 어떻게 금지되고 불법적인(비윤리적이고 잘못된) 것에 기울 수 있겠는가? 기관들이 신성한 순종의 행위에 참여할 때, 그것은 훈련받고 [영적 길에서 뛰어날 준비가 된 것]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전략이나 노력은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인이 스스로 개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인간 존재의 주인]이며, 주님 안에 잠기면 장기들이 노력 없이 그분의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의 상태는 아니며, 이 상태는 단 하나의 걱정만 가진 분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걱정에서 구원한 분의 것입니다. 이 정도에 도달한 사람은 창조물에 대해 너무 무지해져서, 눈을 뜨고 있어도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없고, 귀머거리가 아님에도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세계의 왕들(정치 권위자)을 존경하는 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왕실 하인들은 왕을 존경하고 섬기는 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것도 깨닫거나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오직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일에 완전히 몰두해 있거나 어떤 생각에 몰두해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다가 길을 잃거나 목적지에서 멀리 벗어나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무엇을 위해 나갔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영지주의자는 "활을 사용하는 화살을 쏘는 사람들을 지나쳤다(활을 스포츠로

삼았다)"라고 말했다. 한 남자가 그들로부터 꽤 떨어진 곳에 혼자 앉아 있었다. 나는 그와 대화하려고 다가갔다. 그는 [내 의도를 감지하여] '나는 너와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억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너 혼자 앉아 있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나의 주님과 두 명의 [수호] 천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행동을 기록하는 책임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화살을 쏘는 사람들 중 누가 이길 수 있느냐?' 그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도시로 가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하늘을 가리키고 일어나 걸어가며 말했다, '[오 주여!] 당신의 창조물 대부분은 당신에게 무관심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데 몰두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말하며, 오직 하나님에 대해 듣는 사람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혀와 장기를 구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는 심장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2등급은 오른손 백성 중 양심심 있는 사람들(의)에게 속한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외적 및 내적 상태를 알고 계시다는 확신을 지배하지만, 신성한 광채와 위엄을 목격한다고 해서 취하지 않고(감각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절제(감각 인식과의 절제) 수준에 머물며 행동과 상태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행동에 집요하며 사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수줍음이 그들 안에 여전히 지배적이며, [결과적으로] 그들은 잠시 멈춰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를 할 용기도 없고, 의롭고 경건한 행위로서 해야 할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 더불어, 심판의 날에 굴욕을 당할 모든 행동을 자제합니다. 그들은 심판의 날을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마지막 날의 들판으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 종들(인간)들 사이에서 관상하는 다양한 정도입니다. 이 학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모든 움직임, 정지, 생각, 순간, 능력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 관람은 두 번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액션 전, 두 번째는 액션 이후입니다. 행동 전에 자신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하위 자아의 욕망을 따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탄을 따르기 위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진실의 빛으로 올바른 것이 드러날 때까지 숙고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움직임(행위)이 하위 자아의 욕망을 위한 것이라면, 신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그것에 빠진 것을 그만두고, 그 행동에

대해 자신을 꾸짖으며, 그 행동을 나쁘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굴욕 주려는 시도를 정죄해야 합니다.

하위 자아에 대한 세 번째 감시 지점 - 행동 후 자아의 책임성: 마이문 이븐 아비 무흐란(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은 말했습니다. "신의 종은 사업가가 사업 파트너에게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책임을 지기 전까지는 신을 두려워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두 파트너가 사업을 수행한 후 회계를 하여 손익을 산정한다"고 말합니다. 하산 알-바스리(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는 "신자는 자신을 지키고 신을 위해 책임을 진다. 심판의 날에 책임을 지는 부담은 세상에서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는 이들에게 가벼워질 것이며, 이를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자기 책임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자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나는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신과 나 사이에는 신중함과 책임감이 있는 장벽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임감은 행동 전에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신자가 실수를 저지르면 다시 자신에게 돌아와 묻습니다. '이 행동(또는 행위)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맙소사! 너희에게서 어떤 변명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다시는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래 구절을 설명하며 덧붙였습니다:

وَلَآ أُقۡسِمُ بِٱلنَّفۡسِ ٱللَّوَّامَةِ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자로!' (꾸란 75장 2절)

신자는 스스로를 꾸짖고 비난하며 '이 말을 한 의도는 무엇인가? 이걸 먹을 때 무슨 의도였어? 이 술을 마신 목적이 뭐였나요?' 반면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각기 다른 것] 자신을 비난하지 않으며, 옳든 그르든, 유익이든 해롭든, 합법이든 불법이든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고 말한다. 말릭 빈 디나르(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하나님께서 자기 종(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느냐? '너는 어떤 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뒤, 그것을 꾸짖고 목줄을 채우며 신성한 책에 복종시키고 그것을 인도자로 삼는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꾸짖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위 자아에 대한 네 번째 심찰 역 - 잘못을 저지른 후 자아를 벌하는 것: 하나님 의 종이 자신의 자아에 책임을 묻고, 자신이 죄(잘못)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권리를 완전히 다하지 못했음을 보고,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고 할 때, 만약 그 상태로 두면 죄(잘못)를 짓는 것이 더 쉬워지고, 자아는 죄에 익숙해져서 그것으로부터 멀리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파괴와 같으며, 자기 자신이 죄의 습관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그 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예를 들어, 허용 여부가 의심되거나 명백히 금지된 음식을 욕망으로 먹는다면, 그 자아의 벌은 배고픔을 유지하는 것이다. 누군가나 사물을 쳐다보면 아무것도 않는 것이 눈을 벌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신체 기관을 그들의 죄에 대해 벌함으로써, 그들의 욕망을 멈추게 해야 한다. 이것이 저승을 향해 여행하는 영적 여행자들의 방법론이었습니다. 하산 이븐 아비 시난(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은 새 건물을 지나가다가 누군가에게 "언제 지어졌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쓸데없는 질문을 했군요. 너에게 1년간의 금식을 선고하겠다!" 그래서 그는 1년 내내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했다. 말리크 이븐 다이감(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은 "라바 알-카이시(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가 아*스르*(해질 무렵 전 늦은 오후) 기도 후에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 물었다. 우리는 그가 자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그는 '이제 잘 시간인가?'라고 물었다. 왜 이 시간에 자고 있는 거지?' 그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우리는 한 남자를 급히 데려가 아버지를 깨우겠다고 말했다. 그 남자는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그(라바 알-카이시)는 어떤 생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내가 한 말을 듣지 못했지만, 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그를 따라갔다.' 그가 묘지(묘지)에 가서 스스로를 꾸짖으며 '왜 이 시간에 자고 있다고 했니? 그렇게 말할 의무가 있었나요? 사람은 언제든지 잠들 수 있어. 그걸 의심할 자격이 있나? 지금이 잘 시간인지 아닌지 아닌지 아세요? 당신은 잘 모르는 주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너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고, 나는 반드시 너를 벌할 것이다. 그 벌은 내가 병에 걸리거나 정신을 잃지 않는 한 등을 바닥에 대지 못하게 잠들게 하는 것이다. 당신에게 불행하길! 부끄럽지 않아? 언제까지 사람들을 꾸짖고 자신의 오해를 무시할 거야?' 그는 이 말을 한 후 울기

시작했다. 그는 저를 전혀 못했어요. 나는 그를 그 상태로 두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말했다.

와합 이븐 무나베(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는 오랫동안 신을 예배해온 사람이 있었고, 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70주 동안 영적으로 고생하셨고, 일주일에 말린 대추 7개만 먹으며 밤낮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70주 후, 그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그것은 [신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때 그는 [현실을 깨닫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네 안에 선한 것이 있다면 네 간청은 분명히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때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그에게 와서 말했다. "아담의 아들이여! 이 순간 [깨달음과 자기 잘못을 꾸짖는 순간]은 과거의 모든 숭배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과 책임을 제자리에 두어서] 당신의 필요를 이루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부 탈하(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메디나의 과수원에서 기도하던 중 아름다운 지저귐을 듣고 새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속죄로 과수원을 자선으로 나누어 주었다. 이성적이고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들은 [범죄, 악행, 잘못에 대해] 스스로를 이렇게 벌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과 잘못에 대해 벌을 주고, 용서하면 반항적이고 통제 불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놀랍지만, 반면에 당신은 자아를 그 변덕에 맡겼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장 큰 적이고, 그 반항심은 훨씬 더 크며, 반항이 초래하는 피해도 훨씬 큽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껏해야 당신의 세속 삶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당신 자신은 당신의 [내세의 영원한 생명]을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성의 풍요를 부여받았다면, 당신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세의 [영원한] 생명 외에는 [진짜] 생명은 없으며, 그 생명은 영원하고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 자신] 자신이 이 생명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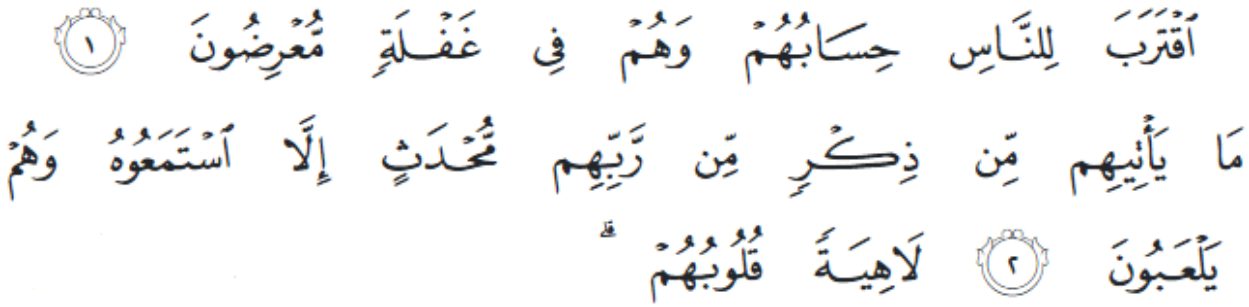
하위 자아에 대한 다섯 번째 감시 역시 영적 투쟁: 영적 투쟁(*무자하다*)은 자신의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아가 죄(잘못)를 저질렀음을 알게 될 때, 앞서 언급한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만약 자아가 영적 일과(*아우라드* 와 *와자이프* - 신성한 기억, 기도, 초능력적 기도, 신성한 책 암송, 신의 가까운 이들의 지혜와 가르침 공부, 기타 예배와 신심 행위)를

게으르게 하는 것을 본다면, 더 많은 영적 일에 무게를 주고 다른 기도와 기도(*아우라드*)에 헌신하게 하세요과거의 실패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노력한 이들은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신이 당신을 따르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연도기도, 기도, 영적 노력을 수행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영적으로 노력하는 이들의 탁월함을 설명하는 전통을 가르치는 것이며, 가장 유익한 치유는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열심히 예배하는 종과 함께 일하고, 그런 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그 행동을 관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위 자아 감시의 여섯 번째 역 - 자아를 비판하기: 당신의 가장 큰 적은 당신 안에 있으며, 바로 자아입니다. 그것은 창조와 본질적으로 악을 명령하고, 악으로 기울며, 선함에서 도망친다는 [신성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신성하게] 그것을 개혁하고 정화하여 그 왜곡을 제거하고 억압과 혐오스러운 것으로부터 막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목줄을 느슨하게 하면 반항적으로 변해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그러면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계속 꾸짖고 하나님의 응징을 두려워하게 하면, 같은 자아는 하나님이 맹세한 자아를 자책하는 자아가 되어버립니다(*나프스 알-라와마*). [점진적인 개혁과 변형의 과정을 통해] 이 자아가 더 진화하여 신성한 명령으로 신의 진실한 종 범주에 포함되도록 평화로운 자아(*나프스 알-무트마인나*)가 되기를 희망할 수 있다. [이 모든 단계는 반항적인 존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앞서 언급한 영적 노력으로 변형된 자아의 진화와 변형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방치하지 말고, 대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조언하며, 꾸짖으세요. 스스로에게 꾸짖고 설교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꾸짖고 설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신성한 계시를 보내셨습니다(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오 마리아의 아들이여! 먼저 스스로에게 조언하고, 끝나고 나서야 사람들에게 조언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함께 부끄러워하세요."

그 방법은 당신이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가, 자신을 똑똑하고 신중하며 현명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다가올 [영원한] 삶에 대해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이 당신 앞(당신을 마주보고 있어요)에

있고, 곧 당신은 그 중 하나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행복해지고, 크게 웃으며, 헛된 노력에 빠지지만, 곧 위험한 시기(세상의 종말)를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이나 내일 당신을 그 손아귀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는 한 아는 죽음이 매우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 갑자기 당신을 붙잡을 거라는 걸 모르나요? 사자도 오지 않을 것이고, 어떤 사전 정보도 없을 것이다. 또한 특정 날짜와 시간에 약속이 없고, 죽음의 도래에 특정한 계절도 없습니다. 밤이나 낮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청년이나 노년에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모든 숨결이 마지막이 될 수 있고, 매 순간이 죽음의 전조가 될 수 있다.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으면 갑자기 병이 발생해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왜 네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거냐, 네 경동맥보다 더 가까운데도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의 책임 추궁의 시대가 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태만에 빠져 있으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조언을 듣고, 그들은 그것을 조롱하며 마음이 [심지어] 기울이지도 않는다.' (꾸란 21장 1-3절)

만약 당신(오 자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동을 지켜보지 않으신다고 믿어 감히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불신(*쿠프르*)이며, 그분을 당신의 행동을 지켜보는 자라고 생각하면서도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큰 수치와 수치의 일입니다! 오 자아! 하인이나 동생이 당신의 명령을 어기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나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불쾌과 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신의 벌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절대로 안 돼! 이건 당신의 오해입니다. 우리(가잘리)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직접 경험해 보세요. 뜨거운 태양 아래 잠시 서거나 뜨거운 공중목욕탕에 잠시 들어가거나, 불꽃 위에 손가락을 대어 이 고통을

견딜 힘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당신이 신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악행과 상관없이)이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가 필요 없다는 믿음에 속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왜 세속적인 일에서 신성한 은총에만 의지하지 않고, 왜 세속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적인 전략과 계획, 노력을 세우는지 묻습니다. 돈 없이는 불가능한 세속적인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느냐고, 그분이 어떤 [숨겨진] 보물의 정보를 주시거나, 당신의 노력 없이도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실 하나님의 종 중 한 명을 복종시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승에서만 친절하고 관대하시고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방식에는 변화가 없으며(이 세상과 저승 간 행위의 차이에 관해서), 세상의 주인과 내세는 하나입니다. 또한 인간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 고소된 자아! 당신의 위선은 이해할 수 없고, 거짓 주장은 놀랍습니다! 당신은 혀로 믿음을 주장하지만, 위선의 영향이 당신에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제 당신은 뼈를 씹느라 바쁜 개처럼 세상을 찾는 데 몰두해 주변 환경에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거짓된 자만심으로 내세를 완전히 무시하며, [불가피한] 죽음 이후의 [위대한] 사건들을 하찮게 여기며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징표(징후)가 아닙니다. 당신은 심판의 날에 대한 믿음이 없고, 죽은 후 모든 감금과 고난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추측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أَيَحْسَبُ ٱلْإِنسَٰنُ أَن يُتْرَكَ سُدًى ﴿٣٦﴾
أَلَمْ يَكُ نُطْفَةً مِّن مَّنِىٍّ يُمْنَىٰ ﴿٣٧﴾ ثُمَّ كَانَ عَلَقَةً فَخَلَقَ فَسَوَّىٰ ﴿٣٨﴾ فَجَعَلَ مِنْهُ
ٱلزَّوْجَيْنِ ٱلذَّكَرَ وَٱلْأُنثَىٰٓ ﴿٣٩﴾ أَلَيْسَ ذَٰلِكَ بِقَٰدِرٍ عَلَىٰٓ أَن يُحْۦِىَ ٱلْمَوْتَىٰ ﴿٤٠﴾

'인간은 세상에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고 혼자 남겨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사람은 단지 자궁 안의 정자 한 방울이 나중에 응고된 피 조각이 된 것이 아니었나요? 그 후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으로] 만드셨고, 장기를 만들었으며,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없는가?' (꾸란 75장 36-40절)

만약 당신이 혼자 남겨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무지와 불신입니다. 지금의 당신이 항상 그랬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현실은 어땠나요? 넌 그냥 정자 한 방울이었어! 네 존재는 그 [정자 방울]에서 얻었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심판의 날에 다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요? 만약 당신이 사후 세계를 믿는다면, 왜 그것에 대비하지 않나요? 아이가 옷에 전갈이 있다고 말하면 그 순간 옷을 꺼내 버리고, 증거를 요구하거나 논쟁을 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예언자들, 학자, 현명한 이들, 영지주의자들의 말씀조차도 당신 눈에 아이의 말(전갈에 관한 이야기)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를 경험 없고 완전한 지성이 부족하다고 부르는 그를 말입니다. 이것이 지능인가, 그리고 이것을 합리적인 인간의 행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만약 당신의 상태가 동물들에게 드러난다면 그들은 당신을 조롱하고 당신의 지성과 인식을 애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불운한 자아! 이 모든 것을 믿고 진실로 본다면, 죽음이 매복에 숨어 있음에도 왜 행동을 망설이는가?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당신을 낚아채 올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확신이 있고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왜 손을 맞잡고 가만히 앉아 있는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백 년의 생명이라는 형태로 당신에게 휴식을 주셨다고 받아들인다면, 이 백 년이라는 긴 기간을 고난 없이 끝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하지 않고도 무언가가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영적 노력과 노력이 인생의 마지막 시기(노년에)에 유익하다고 인정한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 남은 생명이 남아 있을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당신이 욕망을 멈추고 싶지 않으며, 욕망을 멈추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욕망에 맞서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날을 창조하신 적도 없고 창조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낙원은 불쾌하고 싫어하는 것들, 고난과 고통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에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 자아! 당신은 [당신의 경건한] 행위를 내일로 미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내일이 오고 오늘로 변했는데도, 당신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데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내일의 약속에 여전히 매달려 있나요? 우리는 내일에 행동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어떤 [의로운] 행위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뿌리가 날마다 강해지는

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작은] 식물이나 약한 나무일 때 뿌리째 뽑혀 버려질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나무가 되어 뿌리가 흙 속에 퍼지고 가지가 넓고 높이 하늘을 향해 뻗으면 더 이상 뿌리째 뽑기 쉽지 않다. 마치 젊은이가 나무를 뽑으려고 매일매일 미루다가 나이가 들 때까지 미루고, 나이가 들어서 나무를 뽑으려 하면 그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고, 둘째, 나무가 땅에 단단히 뿌리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젊었을 때 뽑지 못했던 나무는 나이가 들 때도 뽑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노년의 영적 투쟁이 엄청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오 자아! 이 명확한 문제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루기(미루기)를 습관으로 삼지 못한다면, 왜 스스로를 현명하다고 생각하는가? 명확한 문제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어리석음이 있을까요? 아마도 당신은 '나는 욕망의 쾌락에 대한 탐욕이 있어 고난과 고통에 인내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네 말은 정말 어리석다. 만약 당신이 욕망과 쾌락에 대한 탐욕이 있다면, 왜 영원히 남아 있고, 더군다가 그 욕망과 쾌락은 모든 불순물과 탁함이 없는 것을 찾아 나가지 않는가? 하지만 이 욕망들은 세상이 아니라 낙원에 존재하며, 그것을 얻는 방법은 세상의 욕망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한 조각 때문에 많은 것을 빼앗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세상의 생명은 저승의 무한한 영생에 비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피난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의 피난처입니다. 만약 구원으로 가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구원자입니다. 그분만이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며, 당신의 간청에 응답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겸손과 낮음을 가지십시오. 무지와 죄[및 잘못]가 있는 정도까지, 그분 앞에서 우세요. 왜냐하면 그분 앞에서 울고 겸손히 하시는 사람이 바로 그분의 자비를 베푸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도움을 구하는 자를 돕고, 강요받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간청을 받으십니다. 오늘 당신은 [어려운 상황과 삶의 도전들로 인해 그분께 이끌리며] 그분의 자비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길은 막히고 모든 길이 좁아졌다. 자신을 꾸짖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구하는 분은 친절하고 자비로우십니다. 그의 자비는 무한한 광활함을 지니고 있다. 그분의 관대함은 끝이 없으며, 용서는 전인입니다. 이제 두 손을 벌리고 간청의 뜻으로,

'자비로운 자비로운 자비로운 분이시여! 오, 자비로운 자여! 오, 관용자여! 오 위엄 있는 존재여! 오 친절하신 분! 나는 죄인이고, 악행을 저지르고, 실수를 저지르는 자입니다. 내 반항심은 모든 한계를 넘어섰고, 나는 부끄러움 없이 죄를 저지르는 데 대담하다. 오 신이시여! 어디서나 절망당한 후, 나는 당신의 궁정에 서서 겸손하고 비열하며 간절하고 가난하게 울고 있습니다. 제발 저에게 당신의 도움을 주시고, 제 고난을 덜어주시며, 주님의 자비의 징후를 보여주시고, 용서를 주시며, 주님의 보호의 힘을 주소서!' 오 자아! 아버지 아담(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을 따라 울고 수치심과 후회를 표현하라"고 말했다.

이것이 경건한 선배들이 따랐던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방법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목적은 신의 수용을 얻기 위함이었고,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목적은 자기 자신에게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것을 소홀히 하는 자는 자아를 돕는 자가 아니며, 이에 대한 신의 불쾌감도 곧 드러날 것입니다 [보통 어려운 상황과 견디기 힘든 도전의 형태로]

19장 – 깊은 내면 성찰과 숙고는 내면의 평화와 영적 변화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성찰은 자기 인식과 내면의 평화로 이어지는 또 다른 필수적인 영적 특성입니다. 알려진 것에 대한 성찰과 사색은 미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시야를 열어주며, 그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발전시킵니다. 진리가 밝아오면서 성찰 상태에서 영적 문제는 명확해진다. 성찰은 깊은 내면의 인식, 지식, 이해, 지혜를 키워줍니다. 성찰하는 사람은 매 단계마다 신중하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함의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가잘리의 이 주제에 대한 훌륭한 해설은 그의 *대작*『*Ihya al-Uloom ad-Deen*』 또는 "하나님의 길에 대한 지식의 부흥" 4권 9권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제공된다 [25]:

깊은 내면 성찰(*타파쿠르*)과 숙고(*타다부르*)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의 전통에 따르면, 잠시 깊은 내면의 성찰과 숙고가 1년간의 예배보다 더 낫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 은 *피크르* (Fikr, 깊은 내면 성찰 또는 어떤 주제에 대해 깊고 체계적이며 상세하게 생각하는 것, 마음의 빛이자 영혼의 영양분, 영적 변화와 상승의 길을 밝히는 지식의 본질), *타다부르(Tadabbur*,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거나 깊이 들여다보는 것), 증언을

크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신. 성찰이 [영적] 깨달음의 열쇠이자, 내면의 통찰(*바세라*)의 출발점이며, 지식을 포획하는 그물이며, 영적 보석(*마아리프*)과 깊은 내면의 의미(*마아니*)를 찾는 수단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성찰해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왜 성찰하는지, 성찰에서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것이 그 자체로 추구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결과를 위한 객관적인 것인지 잘 모릅니다. 만약 그것이 결과를 위해 필요하다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이 지식인지, 내면의 [영적] 상태인지, 혹은 둘 다인지. 이 모든 사실을 밝히는 것은 탐험과 같습니다. 먼저 심의의 현실을 설명한 뒤, 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한 뒤, 반성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조명할 것입니다.

성찰의 탁월함: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책 여러 곳에서 숙고와 성찰을 명령하셨고, 성찰의 사람들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ٱلَّذِينَ يَذْكُرُونَ ٱللَّهَ قِيَـٰمًا وَقُعُودًا وَعَلَىٰ جُنُوبِهِمْ وَيَتَفَكَّرُونَ فِى خَلْقِ ٱلسَّمَـٰوَٰتِ وَٱلْأَرْضِ رَبَّنَا مَا خَلَقْتَ هَـٰذَا بَـٰطِلًا

"그들은 서서, 앉아서,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데 신중히 생각하며[이 성찰의 열매를 얻었을 때] 확신과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오 우리 주님! 너희는 헛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창조 이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강력한 목적과 신성한 지혜가 있다.'" (꾸란 3장 191절)

압둘라 빈 압바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어떤 사람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물을 곰곰이 생각하라.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레이션 *하디스* 모음집 *아부 나임 피 알-힐야*)

오바이드 이븐 우마이르(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아이샤(신께서 그녀를 기쁘시길) [예언자의 아내]에게 "예언자 무함마드에 관한 가장 이상한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라고 물었습니다. 아이샤(신께서 그녀를 기뻐하시길)는 이 말을 듣고 울기 시작하며 말했다, "그에 관한 모든 것이 이상했어! 어느

날 밤, 그는 내 몸이 그의 몸에 닿을 때까지 내게 다가왔고, 그가 말했다, '오, 아이샤! 나를 떠나서 내가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줘.' 그 후 가죽 가방에 담긴 물로 씻기고 기도하며 일어나 너무 많이 울어 수염이 [눈물로 젖었고]. 그 후 그는 땅이 젖을 때까지 엎드리며 울었다. 그 후 [기도를 마친 후] 그는 옆으로 누워 [휴식을 취하려고] 빌랄(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이 [그의 문] 문을 두드리러 이른 아침(새벽 후이지만 해 뜨기 전) 기도에 대해 알렸습니다. 그가 물었다, '오 하나님의 사도여! 왜 우는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는 대답했다. '오, 빌랄! 왜 울지 말아야 하지? 오늘 밤, 하나님께서 [신성한 계시를 통해] 나에게 이 구절을 계시하셨습니다:

إِنَّ فِي خَلْقِ ٱلسَّمَٰوَٰتِ وَٱلْأَرْضِ وَٱخْتِلَٰفِ ٱلَّيْلِ وَٱلنَّهَارِ لَءَايَٰتٍ لِّأُو۟لِى ٱلْأَلْبَٰبِ

진실로, 하늘과 땅의 창조와 밤낮의 교차 속에 지성의 사람들에게 징조(증거)가 있다.' (꾸란 3장 190절)

그는 이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자에게는 큰 손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레이션 라바의 권위에 따른 *하디스* 모음 집 *사히흐 이븐 하반*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푸다일 이븐 아야드(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는 "반영은 당신이 경건하고 악한 행위를 보는 거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브라힘(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은 "많이 생각하고 반성하는구나"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색은 지성의 핵심이다"라고 답했다. 수피얀 이븐 아이예니야는 "인간이 성찰을 가진다면, 모든 것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타우스(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예수님의 제자들(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오 하나님의 영이여! 오늘날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그는 '네. 그 사람은 나와 같아, 말은 신성한 기억이고, 침묵은 반성이며, 시야는 교훈(*'이브라*)'을 얻는 것이다. 바샤르(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사람들이 신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결코 신에게 불순종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산 알-바스리(신의 자비가 그에게 가득하길)는 "지성인들은 신의 기억을 통해 성찰에 익숙해지고, 성찰을 통해 신의 기억에 익숙해져 지혜가 마음에서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주나이드(신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길)는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모임은 성찰의 말들이 신성한 일체성(*타우히드*)의 들판을 달리고, 신성한 영지의 바람을 즐기며, 신성한 사랑의 바다에서 사랑의 포도주를 마시고, 좋은 의견(*후스른 알둔*)을 마시는 모임이다)는 하나님께 던져진다"고 말했다. 이맘 샤파이는 "사물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은 실수에서 벗어나게 하며, 사실에 기반한 확고한 의견은 후회에서 구해주며, 성찰과 숙고는 [그것을 사용하는 자의 지혜와 신중함]을 보여주며, 지적인 사람들과의 상의는 인내와 확고한 통찰을 키우므로, 결심하기 전에 반성하고, 행동하기 전에 숙고하며, 성취하기 전에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찰의 현실과 그 열매: 성찰의 의미는 두 가지 이해가 마음에 존재하여 세 번째 이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속적인 삶을 선호하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낫다는 이해를 원한다면(세속 삶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 그 이해를 얻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누군가가 세상보다 내세를 선호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런 것을 따르며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것을 확인하며, 자신의 행동을 통해 단지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신뢰하여 [결과적으로] 내세에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따르는'(*타클리드*)이라 부르며, '이해하다'(*마리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남을 것(지속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 내세가 [영원히] 남을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해를 바탕으로 세 번째로 얻게 될 이해는 내세를 선호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이해는 처음 두 가지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 두 [이해]를 마음속에 제시하여 세 번째 이해를 만들어내는 것을 "성찰", 믿음, 잠시 멈추어 숙고, 숙고라고 부릅니다. 숙고, 멈춤, 성찰에 관해서는 이 단어들은 같은 의미를 내포하는 다른 단어들입니다. 성찰의 이점은 이전에는 없던 지식을 확장하고 이해를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점들이 마음속에 모여 일정한 순서로 모일 때, 그것은 새로운 이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즉, 한 이해는 다른 이해의 열매나 결과이며, 새로운 이해가 다른 [이전의] 이해와 결합되면 또 다른 새로운 이해가 탄생합니다. 이러한 결과와 열매, 지식, 이해, 성찰은 죽음이 그것을 끝내거나 이 길을 막는 장애물이 생길 때까지 이런 방식으로 증가합니다. 이 방법은 지식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성찰의 방식을 잘 아는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이 없기 때문에 풍부한 지식을 갖지 못합니다. 즉, 그들은 다른 [새] 이해를 낳는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사업재가 없어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의 자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올바른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거나 다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올바른 순서로 정리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따라서 자본을 늘릴 수 없어 [정체되는 경우]. 이 자본을 사용해 한 이해를 다른 이해에서 추론하는 방법은 예언자들에게도 계시된 것처럼 신성한 빛을 통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지만, 요즘은 드물어졌습니다. [이해의 자본을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 때로는 연습과 학습을 통해 생기고, 지금은 이것이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때로는 반성하는 사람이 이해와 그 결과, 결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얻는 감정을 알지 못하고, 표현할 능력이 없어 타인에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찰의 결실과 결과: 이 논의의 요약은 성찰의 의미가 두 가지 이해를 마음에 담아 세 번째 이해를 이루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관상의 열매(결과)는 지식, 내면 상태, 또는 [선하고 고귀하며 의로운] 행동, 혹은 이 세 가지 모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한 결과는 오직 지식뿐입니다. 분명히, 지식이 마음에 의해 얻어지면 마음의 상태가 변하고, 심장의 상태가 변하면 [신체] 기관에서 나오는 행동도 변한다. 마치 행위가 [내면] 상태에 종속되고, 상태가 지식에 종속하며, 지식이 반성에 종속하며, 성찰이 모든 선과 그것들을 열어주는 열쇠의 기원인 것처럼 말이다. 이는 성찰의 탁월함을 증명하며, 성찰이 신성한 기억보다 우월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찰에는 신성한 기억과 추가적인 무언가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성한 마음의 기억은 [혀뿐만 아니라]가 팔다리의 행동보다 더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모든 행동보다 우월하므로, 한 순간의 성찰이 1년간의 예배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성찰하는 사람이 마음을 비난받아 마땅한 것(특성과 성격 특성)에서 칭찬받을 만한 것(특성과 성격 특성)으로 옮기고, 탐욕에서 절제(세속적 성격에서)와 만족으로 돌려놓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관상이 [마음의 눈으로 신을 목격하는 것](*무샤하다*)과 경건한 경외, 경외, 경외심(*타크와*)*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반사를 통해 상태 변화의 조건을 알고 싶다면, 그 예시는 앞서 언급한 내세와 동일합니다. 그 본보기를 곰곰이 생각하며 배운 것은, 내세를 더 선호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 이해가 우리 마음에 확고히 새겨지면, 그들 자신도 내세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서의 금욕으로 기울게 됩니다. 우리는 이 경향을 [내면의 영] 상태와 함께 해석해 왔습니다. 이 이해 이전에는 마음의 상태가 일시적이고 덧없는 세계를 좋아하며 그것에 기울었고,

저세상에 환멸을 느끼며 그것에 대한 성향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 이해가 이루어지자 심장의 상태는 완전히 변했고, 의도와 성향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 후 의도의 변형이 기관들을 세상을 제쳐두고 내세의 행위에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다섯 차원의 성찰

성찰에는 다섯 단계가 있습니다 - 첫째는 즉, 이전의 두 가지 이해를 마음속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둘째는 첫 두 이해에서 새로운 이해를 얻는 성찰이다; 3단계는 원하는 이해를 얻고 그것을 마음에 비추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깨달음을 받은 후 마음이 이전 상태에서 변화하고 변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신체] 기관이 변형된 상태에 따라 심장을 섬긴다는 것이다. 돌을 철에 부딪히면 불이 나서 어두운 곳을 빛으로 밝히고, 이전에는 못했던 눈이 그것을 보기 시작하며 장기들이 깨어나 행동하는 것처럼, 불돌도 이해의 빛을 비추는 상태입니다. 이 불돌의 이름은 두 가지 이해를 결합한 반영입니다. 불과 돌의 결합과 두 가지 사이에 특정한 조합이 사용되듯이, 철이 돌로 특정 방식으로 부딪혀 이해의 빛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불이 철에서 나오고 마음이 그 빛으로 변해 이전에 가리지 않았던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이 불빛 속에서 눈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찰의 결실은 지식과 국가 모두입니다. 지식에는 한계가 없으며, 마음에 내려오는 [내면의 영성] 상태에도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여행자가 성찰의 여지가 있는 그런 문제들을 포괄하고 싶다면, 성찰의 기회가 무수히 많고 그 열매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성한 길(딘)에서의 노력과 관련된 모든 순간들을 간략히 글로 기록하여 성찰의 순간들에 대해 정보를 얻으려는 시도가 될 것입니다.

성찰의 기회나 경로: 성찰은 때로는 신성한 길(딘)과 관련된 일에서, 때로는 신성한 길과 연결되지 않은 일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알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신성한 길과 관련된 것이므로, 다른 문제들은 무시합니다. 신성한 길은 종과 주님 사이의 문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한 모든 반영은 자신의 내면이나 내적 상태와 관련되어 있거나, 하나님이나 그분의 신성한 속성과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을 걷고 있으며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이들의 상태는 연인의 상태와 더 닮아 있습니다. 진정한 연인을 가정해 봅시다. 사랑에 완전히 잠긴 사람이 그 사람의 반영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성찰할 때, 그 사람은 사랑하는 이의 아름다움을 성찰하거나, 그 존재 자체를 성찰하여 그 성찰에서 기쁨을 얻거나, 사랑하는 이의 선함과 완벽함으로 여겨지는 특성들을 성찰하여 반성의 즐거움을 더욱 증대시킨다.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면 두 가지 상태가 결여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 근처에서 좋지 않아 사랑하는 이의 눈에 굴욕과 모욕을 주는 [개인적] 특성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여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특성들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 외의 어떤 것에 대해 사색하는 것은 사랑에서 제외되며 상실의 원인이 됩니다. 진정한 연인은 사랑하는 이의 사랑에 완전히 몰입하여 마음에 다른 생각이나 성찰의 여지가 남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이와 같아야 하며, 자신의 시선과 반영이 사랑하는 이를 능가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의 성찰 - 자아와 관련된 것: 하나님 의 종(즉, 인간)의 성찰이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유형에 집중되어 있는 한(모든 인간의 성찰은 자신의 내면의 특성이나 상태와 관련되거나 하나님 또는 신성한 속성과 행위에 관한 것임), 신성한 사랑의 목표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제 네 가지 유형을 각각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자신의 상태와 특성(내면의 성격 특성)을 반성하여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모든 것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신성한] 순종과 죄와 같은 외적 행위, 그리고 구원적인 내적 성품이나 파괴적인 내적 성질(마음의 성격 특성)과 같은 내적 행위입니다. 이 모든 내면의 특성의 중심은 바로 마음입니다. 순종과 죄의 행위 중에는 일곱 기관과 관련된 행위도 있고, 부모의 명령을 어기거나 허용되지 않는 곳에 거주하는 등 온몸과 관련된 행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지 아닌가요? 때로는 어떤 [나쁜] 것에 대한

혐오감이 즉시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서, 사물을 세밀하게(깊이) 바라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둘째로, 만약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면,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야 합니다. 셋째, 지금 자신이 가진 싫어하는 특성, 그것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혹은 미래에 가질 것이라면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혹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점을 반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것들을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이 [첫 번째] 자기 관련 성찰 유형을 네 가지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순종, 죄, 파괴적 성질, 그리고 구원적 성격입니다. 모든 종류를 예시로 설명하여 영적 여행자들이 다른 모든 유형을 추론할 수 있도록 하여 성찰의 문이 넓고 광활한 영역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종류 - 죄: 매일 아침, 인간은 일곱 개의 장기와 신체 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한다; 어제 죄에 연루되었다면, 그것을 보상해야 한다 [속죄를 통해]; 그리고 내일 이 일에 관여할 사람이라면, 이를 막을 준비를 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혀의 행동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뒷담화, 거짓말, 자기 과시(자존심, 교만, 자기 과시, 자기 투사는 자존심, 오만, 이기주의, 자기 의로움의 모든 요소), 타인을 조롱하고, 대화를 끊고, 나쁘다고 부르며, 쓸데없는 일에 간섭한다고 상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극도로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굳게 새겨야 하며, 그 다음에는 신의 징벌에 대해 경고하는 꾸란 구절과 예언적 이야기를 숙고하고, 자신의 죄로 인해 신의 응징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따라서 누구도 탓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후에는 이러한 죄에서 자신을 구하는 방법을 되돌아보고, 고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든 발언에 대해 비난하는 경건하고 경건한 분과 함께 있는 것 외에는 이 죄를 지키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성한 길(딘)에서 들리는 귀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 그 귀는 뒷담화, 거짓말, 쓸데없는 말, 저속한 말, 그리고 신성한 길(*딘*)*에서 비*다(Bid'a*) 또는 진정한 전통에서 벗어*난 혁신들로 들려진다. 이런 대화는 매우 흔하며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으므로, 고독을 하거나 옳은 것을 훈계하고 악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혜, 부드러움, 아름다움으로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필수적이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가혹함과는 다릅니다]. 위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죄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습니다. 때로는 더 많이 먹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탐식을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허용되는 음식이지만, 욕정은 하나님의 적 사탄의 무기이며, 때로는 금지되고 의심스러운 것을 먹어 죄를 짓기도 합니다. 식사 전에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순수하고 합법적인 방법인지, 불순하고 불법적인 것인지]. 이것은 음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장과 거주지를 되돌아보아 합법적인 수단으로 제공되었는지, 금지되거나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제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원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불법이거나 사기, 절도, 기만, 도둑질과 같은 비윤리적이라면, 합법적인 소득 창출 수단에 대해 성찰하고 금지된(*하람*) 일에 거리를 두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모든 [신성한] 예배가 금지된 음식을 먹거나 불법 수입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스스로 설득해야 합니다. 예배의 기초는 허용되는 음식을 먹거나 허용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관을 비슷한 방식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설명한 내용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찰을 통해 이 상태들을 정확하고 진정하게 이해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이 장기를 감시하며, 이 감시가 장기를 죄로부터 보호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류 - 순종의 행위: 신을 찾는 자나 영적 여행자(*살릭*)는 의무적으로 요구된 행위를 곰곰이 생각해야 하며, 즉 그것을 어떻게 수행하고 결점과 결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잘못이 생긴다면 초능력적 예배 행위(*나와필*모든 기관과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어떤 행위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그 눈은 보는 것에서 교훈을 배우고, 하늘과 땅의 신성한 영광을 목격하며, 하나님의 책과 무함마드 선지자의 말씀(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을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기관, 자신의 육체, 소유물, 재산, 하인, 자녀 등을 비슷한 방식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성찰을 통해 신성한 순종(섬김과 경심)의 길을 찾고, 그 문제를 찾아 신성한 예배에 기울여야 합니다. 그 후 의로운 행위가 모든 면에서 순수하고 깨끗하도록 의도의 진실성을 성찰해야 합니다.

제3류 - 파괴적 특성: 제3류는 심장에 중심을 둔 위험한 특성들(내면의 성격 특성, 기질, 성향)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욕망과 탐욕의 지배, 분노, 인색함, 오만, 자기 의로움, 과시, 질투, 타인에 대한 악의적 품기, 방치, 자존심 등이 포함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이러한 [비난받아야 할 부정적 특성]이 마음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심장이 이러한 특성들로부터 정화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심장을 검사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 평가를 입증할 징후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겸손과 오만함에서 면제된 자라면, 시장에 가서 머리에 장작 한 꾸러미를 씌워야 합니다(옛날에는 겸손과 겸손함의 표시)하여 그 겸손함을 시험해 보세요. 예전에는 영적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시험하곤 했습니다. 이 성찰의 목적은 마음이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과 연관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징후가 이러한 [비난받아야 마련한] 내면의 특성의 존재를 드러낸다면, 우리는 이러한 특성들이 자신에게 나쁘게 보이게 만드는 일들을 반성해야 하며, 그 특성들의 근원이 무지, 경솔함, 내면의 악임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에게 오만함을 깨달았다면, 그 어리석음을 알리고 "너는 자신(*나프스*)을 [존엄과 명예로] 크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크며, 이는 죽은 후에야 하나님 앞에서 [존엄과 명예] 큰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해야 한다. 오만함이 치명적이며 그 기원이 어리석음임을 알게 된다면, 그 치유법을 되돌아보고 겸손한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는 이 치유 전략을 채택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누군가 자기 안에 탐욕과 음식에 대한 욕망이 있다면, 이것이 짐승의 특성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만약 음식에 대한 욕망이나 교미에 대한 욕망에 완전함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천사들의 지식과 능력 같은 속성이었을 것이고, 동물들은 그런 특성을 부여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 욕망이 지배적일 때, 그 사람은 동물과 닮아 하나님과 가까운 천사들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제4류 - 구원적 특성: 구원적 특성(고귀한 내면의 성격, 기질, 마음에 중심을 둔 성향)은 회개, 죄에 대한 후회와 수치심, 역경 속에서의 인내, 축복보다 감사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희망, 세상에서의 금욕, 진실함, 신의 순종에서의 진실성,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신의 행위를 받아들이기, 신성한 것을 갈망하는 것, 겸손입니다. 겸손함 등등. 하나님의 종, 즉 인간은 매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자질 중에서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특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운다면, 그 특성들은 [내면] 상태이고 상태는 지식의 열매(결과)이며, 지식과 이해는 성찰의 열매라고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스스로를 위해 회개와 후회의 상태를 가지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모든 죄를 살펴보고 성찰하며, 모두

자신에게 합쳐 마음속에서 크게 여겨야 합니다. 그 후 신성한 법에서 죄에 관한 질책을 한 번 살펴보고, 그 죄의 지속적인 존재와 끈질기함 때문에 하나님의 미움을 곧 받을 것임을 마음속에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성찰을 계속하다가 마음속에 수치와 후회의 상태가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서 감사의 상태에 이르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깊이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아름답게 덮어주셨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더러운 상태가 대중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며, 이 깨달음은 신성한 감사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신성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상태를 발전시키고자 할 때는 신성한 아름다움과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고귀함에 대해 성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바라보며(우리 주위, 삶, 창조물, 자연, 그리고 우리 내면의 모든 것에 드러나는) 그분의 아름다운 신성한 특성(속성)을 바라보고, 그분의 위엄과 아름다움에 대해 숙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를 원한다면, 먼저 내면과 외면의 죄를 살펴보고 나서 죽음을 성찰하고, 죽음 후에 마주칠 사건과 시각을 [예언 전통에서 명확히 상세히 설명된 것들]을 반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죽기 전에 죽음의 고통을 다뤄야 합니다, 죽은 후 방문하는 천사들(*문키르 나키르*)에 대한 심문, 무덤의 벌, 그 무덤의 뱀, 전갈, 곤충을 만난 것을 되돌아야 하며, 나팔이 울리고, 마지막 날의 들판이 펼쳐지며, 그날의 공포와 책임의 강도를 되새겨야 한다. 세상에서 하찮다고 여겼던 모든 입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때의 끔찍함과 강도를 되새겨야 한다 소저른). 꾸란이 지옥에 대해 전한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희망의 상태를 원한다면, 천국의 축복과 안락함, 그 정원, 나무, 시냇물, 그리고 그 주민들을 되새기며 이 모든 축복과 안락함이 영원하다는 것을 되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외면적 지식(*울룸 알-무암라*)과 선악한 내면의 성찰 방법입니다. 초보 영적 여행자는 자신의 마음이 고귀하고 숭고한 내면의 특성, 특성, 기질, 성향으로 장식되고, 고귀한 영적 지위로 빛나며, 내면과 외면이 모든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에서 정화될 때까지 이러한 성찰에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러한 문제들을 성찰하는 것이 훌륭한 예배이지만, 이것이 진정한 목적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영지주의자들과 신의 가까운 이들의 진정한 목적은 신성한 위엄과 아름다움을 성찰하고, 그 성찰에 몰입하여 자신조차도 자아로부터도 소멸(*파나*)하게 되는 것이다 [즉, 자아의

흔적이 남지 않고 신성한 현존에 이르게 됨], 즉 그들은 자신의 자아를 무시하는 것이다. 각자의 상태, 각자의 영적 지위, 각자의 내면의 특성, 그리고 모든 것. 사랑하는 이의 반영 속 그들의 상태는 진정한 연인이 사랑하는 이를 목격하는 상태와 같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상태를 한 번도 살피거나 자신의 특성을 주의 깊게 살피는 의식조차 없고, 오히려 멍해져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하는 이의 연인들에게 최고의 쾌락이다.

여기서 논의하는 성찰은 마음에 숭고한 내면의 특성, 특성, 기질, 성향을 부여하여 [신성한] 친밀함과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의 기쁨에 이르게 하는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평생을 마음의 개혁에 바친다면, 언제 친밀함과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의 소멸(*파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진정한 목적이며, 영지주의자들과 하나님의 가까운 이들에게 쾌락의 정점이다. 영적 여행자는 앞서 설명한 대로 성찰을 일상으로 삼고 밤낮으로 행동해야 하며, 항상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비난받아야 할 내면] 특성,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내면의 영적] 상태에 대해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모든 영적 여행자는 자신의 선한 점과 나쁜 점, 죄, 그리고 [신성한] 순종의 행위를 기록하는 노트를 가지고 매일 그것을 살펴보며 자신을 시험해야 합니다 [나쁜 성격을 길들이고 없애며 마음과 영혼을 모든 선한 성으로 장식하는 데 나아지고 있는지 확인].

파괴적이고 구원적인 내면의 특성: 수많은 파괴적 특성이 있지만, 구원적인 특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열 가지 파괴적 특성과 열 가지 구원적 특성을 면밀히 관찰한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 열 가지 파괴적인 특성은 구두쇠, 오만, 자기 주만, 과시, 질투, 분노, 탐식, 과도한 욕망, 부에 대한 사랑, 명성과 권력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모든 악과 악덕, 부정적인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이 이 열 가지 혐오스러운 특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특성들 [긍정, 고귀함, 숭고함, 평온함, 선함, 성공을 부여하는 것]은 죄와 잘못에 대한 수치심과 후회, 역경 속에서의 인내, 선악에 관계없이 신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모든 축복에 대한 감사, 하나님 안에서의 두려움과 희망의 균형, 세상에서의 모든 세속적 현상에서의 금욕, 행동에서의 진실함,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에 대한 좋은 대우, 신성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겸손. 이 스무 가지 특성이 영적 여행자의 노트에 적혀 있다면, 치유는

여전히 어렵지 않습니다. 치유 방법은 이 20가지 문제 중 하나에 대해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나쁜 성격이 사라지면, 노트에 그것을 지우고 걱정을 멈추며, 하나님께서 그 악으로부터 구원을 주시고 마음을 정화하셨다는 감사를 드리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도움으로 그 악을 정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스스로 맡기셨다면, 마음속 악의 조금도 지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는 남은 문제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각각을 반성하여 제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모든 파괴적인 성질에서 벗어날 때까지 노트북에 지워야 합니다. 그다음 구원적인 내면의 성품들도 똑같이 하여 이 숭고한 성들을 하나씩 받아들이고 그때 노트에 지워 모든 숭고한 내적 성향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활동적인 영적 여행자(무리드)의 일상이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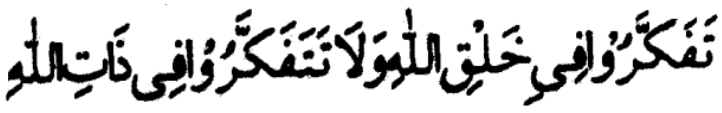
이것이 신앙심과 학자들이 채택한 외적 지식(울룸 알-무암라)*에서의 성찰 방식이었다*. 이 방법을 마치고 나면 그들은 자신에 대한 어떤 의식도 남지 않고, 대신 이 성찰을 통해 신성한 영광과 위엄을 성찰하며, 마음의 눈으로 신성한 아름다움을 목격하는 기쁨을 되새겼습니다. 그러나 이 성찰은 인간이 모든 파괴적 성질에서 분리되어 모든 구원의 숭고한 성품으로 장식될 때만 이루어진다. 설령 그 이전에 (목격하는) 나타난다 해도, 번개가 번쩍였다가 [바로 그 직후에] 사라지는 것처럼 결함 있고 덧없는 것일 것입니다. 파괴적인 성격을 버리지 않고 신성한 성찰에 참여하고, 구원하는 [특성]을 가진 내면을 숭배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고독을 찾으면서도 그 순간 뱀과 전갈이 옷 속에 기어 다니며 물어버리는 연인과 같습니다. 분명히, 이 해로운 생물들의 물린 고통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이 고독의 모든 즐거움을 잃게 만들고, 모든 즐거움을 망가뜨리게 만듭니다. 파괴적인 특성도 뱀과 전갈처럼 해롭고, 신성한 아름다움을 목격하는 즐거움을 파괴합니다. 이 파괴적인 특성들로 인해 [이 세상에서 불가피하게 죽은 후] 무덤에서 경험하게 될 [영혼 깊은 곳에서] 고통은 뱀과 전갈에 물린 [신체적] 고통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이 세부 사항은 하나님의 종이 자신의 바람직한 특성과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을 어떻게 성찰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유형의 성찰 - 하나님의 위엄, 위대함, 위대함 속에서: 두 번째 유형의 성찰은 종이 하나님의 위엄, 위대함, 위대함에 대해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 성찰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성한 존재와 속성에 대해 성찰하고, 신성한 이름의 의미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각 신성한 이름은 존재의 모든 영역에 스며든 하나의 특정 신성한 특성이나 속성을 나타내며, 그 모든 면과 현현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은 [평신도들에게] 금지된 곳으로, [예언적 기록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에 반영하라, [그분의 존재 안에는 반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지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반영하는 것]에 놀라기 때문에 금지되었다. 오직 영지주의자들과 신의 가까운 이들만이 감히 그것을 향해 시선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이 광경이 영원히 지속될 용기는 없다. 신성한 위엄의 상태는 창조물의 눈과 비교하면, 박쥐의 눈과 태양빛의 상태와 같습니다. 박쥐는 태양빛을 견딜 수 없으며; 그래서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는 남은 햇빛 속에서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과 신의 가까운 자들(꾸란 명령에 따라 예언자 다음으로 가장 높은 [영적] 지위를 가진 시디퀸)의 상태는 태양을 볼 수 있는 평범한 태양 아래 있는 사람과 같지만, 이 시야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계속해서 태양을 바라보다가 시력을 잃을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의도적으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이나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지성은 동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성한 존재와 속성을 자신의 성찰의 중심으로 삼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많은 지성은 이 성찰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명확히 허용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성찰의 소량은 하나님은 장소, 주변, 방향에서 자유로우시며, 우주 안에 계시지도 없고 우주 밖에도 계시지 않으며, 우주에 붙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지성은 이 문제에 너무 놀라고 혼란스러워져서, 이런 것들을 듣거나 이해할 힘이 없어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보다 낮은 수준의 설명조차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 발, 손, 눈 또는 다른 [인간과 비슷한] 기관이나 일정 크기에 맞출 수 있는 신체를 가졌다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은 그것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이 신성한 위대함과 위엄의 결점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위대함과 위대함이 [인간과 같은] 기관을 가진 데 있다고 믿었어요. 이 [잘못된 믿음]의 이유는 인간이 자신의 몸을 알고 그것을 위대하다고 여기며, 자기 자신과 동일하지 않은 것들은 그것을 위대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지성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억압적이고 무지하며 감사할 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종들에게 내 속성을 말하지 말라. 그들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라." [하나님에 대한] 존중, 신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인류)의 개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쫓아가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제한된 지성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하나님의 위엄, 위대함, 위대함에 대한 성찰)는 하나님의 행위, 그분의 능력, 능력, 창의성의 경이로움, 그리고 그분의 창조물에 대한 놀라운 거래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 폐하의 위대함, 위대함, 위엄, 그리고 우월함을 증명합니다. 또한 그분의 지식 완성, 지혜의 완성, 능력의 완성, 그리고 그분의 뜻의 실현에 대해서도 논쟁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속성들이 나타나는 효과와 현현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양을 [계속]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분의 속성을 바라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빛은 태양빛의 효과 때문이며, 효과는 영향을 주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실제로 영향을 주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영향이나 표시이며, 그분의 존재를 비추는 빛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무존재나 무(無)보다 더 큰 어둠은 없으며, 존재보다 더 명확한 빛도 없다. 만물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의 빛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우연적 존재)은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존재하는 것들의 빛이 태양 덕분인 것처럼(태양빛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어둠에 잠겨 있을 것이고), 태양도 스스로 빛나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서 더 밝아지면, 그 모습이 용기에 담긴 물에 보이게 됩니다. 눈이 그 모습을 계속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에 의해 태양의 밝기가 다소 약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신의 행위는 그 행위를 하는 자(하나님)를 증언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목격하며 그분의 존재가 빛나는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성찰하되 그분의 존재를 반영하지 말라".

욕망과 자만심에 갇혀 천지의 지배를 못했고, 이제 당신 눈에는 지배의 주인이자 주인(신)의 아름다움조차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비유는 마치 화려한 궁전에

집을 마련한 개미(개미굴)와 같습니다. 그 궁전은 높고 아름답고 강합니다. 아름다운 부분에는 하인들이 서 있고 귀중한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그 개미가 구멍에서 나와 자매 개미를 만나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어둡고 좁은 집, 적은 음식 공급, 경제 상황 외에는 어떤 주제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그 거처가 아름다운 궁전에 있긴 하지만. 그것이 자매에게 말했어야 할 것은, 자신이 금으로 벽을 쌓고 바닥은 은으로 만든 웅장한 궁전에 살고 있으며, 아름답고 귀한 물건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불쌍한 개미는 궁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근시안적이어서 그 외에는 자신의 거주지와 음식 외에는 시야가 없다. 그런데 당신의 강박은 무엇인가요? 왜 당신은 좁고 초라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넓고 광활한 궁전, 높은 지붕, 아름다운 물품과 장식품들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분의 천사들이 하늘에 사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개미가 자신의 거처 천장에 대해 아는 것만큼이나 천국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천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개미가 당신이나 집의 다른 거주자들과 친숙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개미는 그 이상을 이해할 수 없고, 작은 지능으로는 궁전의 경이로움을 이해할 수 없다. 그와는 달리, 당신은 천상의 지배에서 반성의 말을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경이로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잘 활용해 보는 게 어때?

이제 우리는 반성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주제는 한계가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오랜 생애를 그 언급(설명)에 쏟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지(*마리파*)를 명확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학자들과 하나님의 측근들의 지식에 비하면 매우 작고, 하나님의 학자들과 측근들이 아는 것은 존경받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지식에 비하면 매우 미미합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예언자들이 가진 것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천사들의 영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든 천사, *진,* 인간의 모든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 앞에 놓는다면, 그것을 지식이라고 부르기조차 옳지 않으며, 오히려 당혹감, 놀라움, 결점, 부족함, 그리고 실체 부족 외에는 아무것도 불릴 수 없을 것이다. 모든 불완전함 위에 숭고되는 존재는 그분의 [선택된] 종들에게 그노시스(*마리파* - 지식, 친밀함, 신의 근접함)를 부여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주신 분이다:

وَمَآ أُوتِيتُم مِّنَ ٱلْعِلْمِ إِلَّا قَلِيلًا

"당신들[인간]은 지식을 받았지만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꾸란 17장 85절)

이것은 사람들이 반성해야 할 방법에 대한 간단한 논의였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찰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창조물의 반영만을 언급하여 창조주(하나님)의 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하여 [다시 마음에서] 하나님의 위대함, 경외심, 능력을 이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장공의 경이로움에 대한 영지가 커질수록, 그만큼 그분의 위대함과 위대함의 영지도 높아질 것입니다. 마치 학자를 자신의 지식과 그 지식을 이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 학자에 대한 다른 지식이나 독특한 시, 아름다운 책, 혹은 새로운 연구를 접하게 된다면, 그 학자에 대한 사랑은 더욱 커지고 존경과 명예는 더욱 배가될 것입니다. 한 문장, 시의 한 구절, 그리고 그런 연구는 마음속 명예와 존경을 더욱 높이고 자신의 지위를 더욱 높여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물들도 성찰해야 합니다. 이 천국(우주와 그 너머)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책이자 글이며, 방대한 저작입니다. 평생 공부할 수 있지만, 끝나지 않을 것이며, 매일 새로운 계시와 이해의 문과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누신 [신성한 아름다움의 영광]에 대해 [노력, 영적 노력, 진실,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신성한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최고의 지혜로부터 [신성한 아름다움의 영광]에 그만큼의 몫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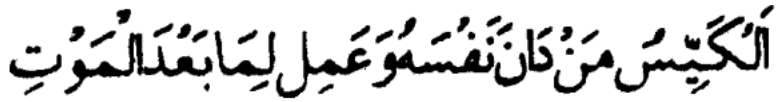
이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의 책"(12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관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분의 은총과 보상, 은혜라는 사실에 관한 것이었고, 여기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행위이며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찰한 것들은 철학자도 반영되지만, 신성하게 부여된 능력과 성공(*타우피크)을 받은 사람의 반영은 인도(*히다야)*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사아다)의 *통로가 된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서 일부를 인도하고 다른 이들을 오인도하지 않으신 입자는 단 한 조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행위와 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숙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함에 대한 영지를 받고 그로부터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다른 것을 원인과 결과(원인과 결과의 사슬) 보면서 모든 원인, 결과, 수단의 창시자(*무사빕 알-아스바브*)와 무관하게 보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인도된다. 우리는 오해로부터 하나님의 피난처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친절과 은혜로, 무지한 자의 발이 휘청여 심연으로 흔들리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0장 – 자신의 죽음과 세상의 종말을 결코 잊지 않고 숙고하며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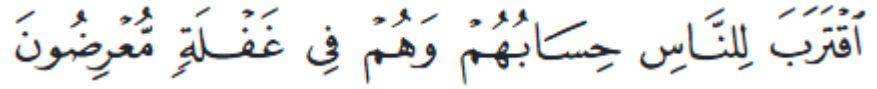
이 세속적인 삶이 단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통로일 뿐임을 깨닫고, 자신의 죽음과 오류, 그리고 결국 필연적인 종말을 인식하는 것은 부주의, 태만, 인생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무지함과 부의 축적, 물질주의적 집착, 부의, 타인에게 가해진 악, 그리고 덧없는 세속 생활 동안 동료 인간과의 갈등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때로는 이기심과 억압이 이타심으로 가해져서, 우리 후대를 위해 행해지는 것처럼 포장되기도 합니다. 그것 또한 오류이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에도 같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귀한 목적은 고귀한 수단으로만 달성될 수 있고, 고귀한 목적은 불명예한 수단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종 귀환은 오직 영원의 거처에서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며, 그곳의 상태가 세속적 삶의 일시적 존재에서 자신의 행위나 악행에 상응할 것임을 깨닫는 것은 모든 형태와 현상의 악에 대한 강력한 제약이다. 자신의 끝을 염두에 두는 것은 장수에 대한 희망을 줄여 이 생이 끝난 직후 시작되는 영원한 생명을 해치게 하여 올바른 관점을 갖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현재의 순간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돕고, 올바른 길과 자기 개혁의 길 위에 우리를 이끌게 합니다. 가잘리의 이 주제에 대한 해설은 그의 *대작* "*이히야 알-울룸 앗-딘*" 또는 "하나님의 길에 대한 지식의 부흥" 4권의 열 번째이자 마지막 권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다[26]:

죽음에 의해 패배할 자, 그의 마지막 안식처는 무덤이 될 것이며, 그곳에는 뱀, 전갈, 곤충이 동반자이고, 약속의 장소가 심판의 날이며, 그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천국 아니면 지옥일 것이다(즉, 이 땅의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해당된다). 그런 사람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죽음은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끝], 스스로에게 언급하며 [사물을 올바른 관점에서 보라는 상기로], 준비하고 숙고하며 그리워하는 것이 적절하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마주할 필연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없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 여파를 마주했고, 지금 그 여파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그것은 영원으로 가는 여정이며, 사랑하는 이와 만남을 갈망하고 노력하며 고군분투했다면 그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생애 동안 자신의 자아(*나프스*)를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한데, 곧 올 것은 가까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능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쫓아다니지 않고,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 일하는 자이다."

어떤 일이 반복해서 기억되거나 언급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복적인 언급은 죽음을 상기시키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 그에 대한 준비, 그와 관련된 일들, 내세, 그리고 지옥과 낙원의 조건에 대해 언급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정의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신의 명령에 따라 우리 각자에게 할당된 시간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짧은 삶이 남아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 시기가 가까워졌지만, 그들은 부주의와 방임에 빠져 있다." (꾸란 21장 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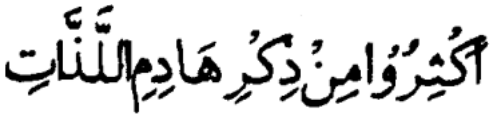
먼저, 죽음과 관련된 것들을 나팔이 울리기 전까지의 생일부터 설명할 것입니다. 이 주제는 여덟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 여행의 결말을 준비하며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고 풍성하게 기억하기: 세상에 빠져 속임수에 빠져 욕망에 빠진 자의 마음은 분명히 죽음을 무시하며, 죽음에 대한 언급은 결코 입에 오지 않으며, 마음속에도 죽음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누군가 그 이야기를 한 사람 앞에서 언급하면, 그 사람은 증오와 혐오로 얼굴을 돌리고, 그 언급을 몹시 싫어한다. 그 후 개인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어떤 이는 세상에 완전히 몰입한 사람, 어떤 이는 회개하는 사람, 또 어떤 이는 강한 영지와 이해를 가진 사람입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만약 언급한다 해도 세상과의 이별에 대한 후회와 연결해 [자신의 삶을 활용해 죽음에 더 몰입해 최대한의 즐거움을 얻음으로써]. 이런 식으로 죽음을 언급하면 그들을 하나님과 더 멀고 멀어지게 만든다. 회개하는 사람들(두 번째 유형)은 자신의 죽음을 충분히 기억하여 두려움과 두려움이 마음에서 사라지고, 회개를 완성합니다 [잘못을 속죄하고, 죄를 속죄하며, 신성한 예배에서 뛰어나고, 생의 끝 전에 신성한 길을 걸음으로써]. 때로는 죽음을 싫어하지만, 그저 회개가 완성되기 전에, 그리고 창조주께 돌아가는 여정을 위해 하나님의 길에 선한 의행을 모으기 전에 죽음이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길 바라는 마음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단순히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잘못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만남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바람에 맞게 자신을 꾸미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지 않으며, 이는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을 준비하느라 바쁘다는 신호이며,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 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영지주의자나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는 항상 죽음을 기억하며, 죽음 이후에 사랑하는

이를 만나게 될 것임을 [완전히 알고]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연인은 사랑하는 이와 만난 순간을 결코 잊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종종 죽음이 더 빨리 오기를 원하며, 죄의 거처에서 벗어나 모든 우주와 존재의 주님(*랍 알-알라민*)의 가까이 이래길 바라는 것을 기뻐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죽음을 원하더라도 면책되고, 이 사람은 죽음을 좋아해도 용서받습니다. 이 두 사람 중 가장 높은 분은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분입니다. 즉, 사람은 죽음이나 생명 중 어느 쪽도 선호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사랑하는 것만이 사랑받는 것입니다. 신성한 사랑의 강렬함 때문에 그런 사람은 신의 뜻을 받아들이는 고귀한 [영적] 지경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하는 목표이자 성취의 정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는 데에는 큰 탁월함과 신성한 보상이 있습니다. 세상에 잠긴 사람조차도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세상(세상)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이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이 기억은 쾌락에 대한 환멸을 초래하며, 쾌락과 욕망을 망치는 것이 구원과 해방의 수단 중 하나이다.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는 탁월함: 무 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말씀하셨습니다:



"쾌락(즉, 죽음)의 지우개를 더 기억하라."

즉, 기쁨은 죽음을 기억하며 흐려져야 하며, 마음이 그것들을 피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신자에게 감옥이며,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자기 훈련, 사탄에 대한 저항, 욕망과의 거리 유지 등 다양한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도전을 겪는 것 외에]. 죽음은 이러한 고난에서 해방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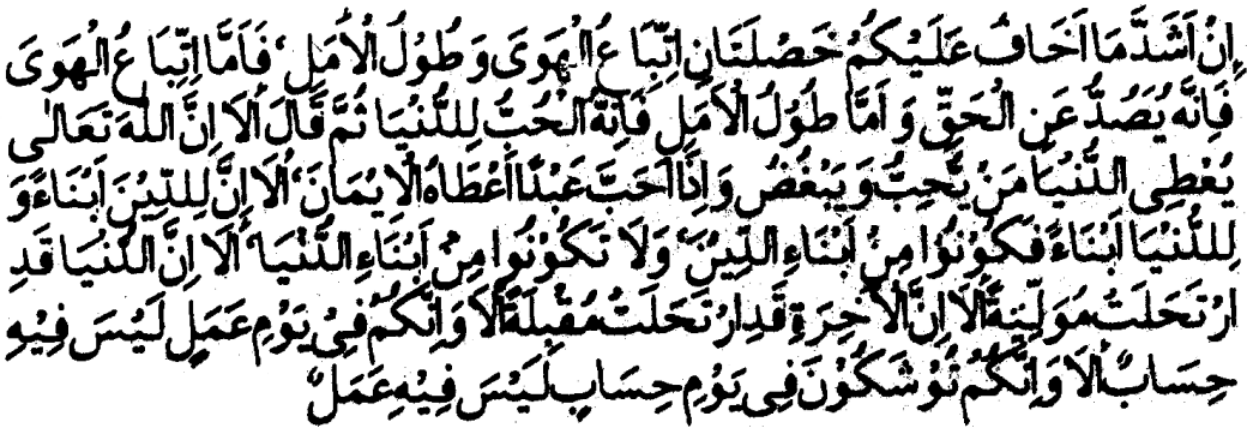
자신의 죽음을 굳게 기억하는 방법: 사람들은 그것을 성찰하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하고 무관심하다. 설령 언급한다 해도 마음이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속적 욕망에 빠진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급하는 것은 심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굳게 기억하는 방법은 이 기억 외에는 모든 것에서 마음을 비우고, 항상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이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마치 위험한 계곡을 지나거나 바다를 항해하는 여행자처럼 여정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끝을 기억하는 것이 마음에 그렇게 남아 있다면, 그것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 죽음을 기억하는 유익한 방법 중 하나는 같은 또래였고 그들과 비슷하며 삶의 활동에 몰두해 보였지만 지금은 흙바닥(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높은 계급을 가졌는지, 얼마나 번영했는지 알았지만, 흙이 그들의 모든 계급과 칭호를 지워버렸고, 배우자들은 과부와 홀아비가 되었으며, 자녀들은 부모를 잃었고, 그들의 재산과 재산은 모두 사라졌으며, [사회적] 모임에도 그들을 언급하지 않아 마치 태어나지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만약 모든 사람이 그렇게 조사되고, 그들의 상태, 죽음의 상황, 외모와 외모, 활동, 그리고 삶에서의 다른 과업들을 마음에 새겨 보고, 그들이 어떻게 삶에 몰두했는지, 죽음을 잊었으며, 자신이 모든 수단을 갖췄다고 [잘못] 생각했다면, 성공하고 번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과 힘과 젊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끝이 없어. 그래서 그들은 스포츠, 연기, 오락에 몰두하며 빠르게 다가오는 죽음을 무시했다 [그 모든 것과 그들이 믿었던 오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끝을 맞이했고 더 이상 여기 없다]. 그런 한 사람을 보면, 그는 쾌락과 쾌락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 [무덤에서] 발이 부러지고 몸은 산산조각 났다. 예전에는 말이 많고 웃음을 퍼뜨렸지만, 이제는 벌레들이 혀를 먹고 흙이 이빨을 삼켰다. 사람은 자신을 위해 좋은 [미래]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10년 동안은 필요하지 않게 되는 더 나은 준비를 하곤 했다. 죽음과 죽음 사이에 단 한 달의 차이가 있었고,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지만, 죽음이 예상치 못한 한 순간에 한 명씩 덮쳤다. 갑자기 죽음의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나 천국이나 지옥을 귀에 알리며 [영혼을 데려가기 전].

이 시점에서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도 그들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 중 동시대인] 자신의 부주의와 방주의 상태가 그들과 똑같으며, 자신도 그들과 같은 결말을 맞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압둘라 이븐 마수드(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행운과 성공을 가진 사람은 타인과 그들의 삶에서 교훈을 얻는 자"라고 말했다. 이러한 생각과 성찰과 함께, 묘지에 가서 병자를 방문하는 것을 일상으로 삼는다면, 자신의 불가피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오히려 그 생각을 지배하여 행동과 존재 전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물을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이 상황에서는 죽음을 준비하고 속임수로 특징지어진 세상을 제쳐두기를 바란다. 죽음을 단순히 언급하고 피상적으로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좋은 무언가가 태어날 때마다, 언젠가는 그것과 분리될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장수에 대한 희망, 짧아지는 희망, 오랜 희망의 이유, 그리고 치료법: 알리(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إِنَّ أَشَدَّ مَا أَخَافُ عَلَيْكُمْ خَصْلَتَانِ اتِّبَاعُ الْهَوَى وَطُولُ الْأَمَلِ، فَأَمَّا اتِّبَاعُ الْهَوَى
فَإِنَّهُ يَصُدُّ عَنِ الْحَقِّ وَأَمَّا طُولُ الْأَمَلِ فَإِنَّهُ حُبُّ الدُّنْيَا ثُمَّ قَالَ أَلَا إِنَّ اللَّهَ تَعَالَى
يُعْطِي الدُّنْيَا مَنْ يُحِبُّ وَيُبْغِضُ وَإِذَا أَحَبَّ عَبْدًا أَعْطَاهُ الْإِيمَانَ أَلَا إِنَّ لِلدِّينِ أَبْنَاءً وَ
لِلدُّنْيَا أَبْنَاءً فَكُونُوا مِنْ أَبْنَاءِ الدِّينِ وَلَا تَكُونُوا مِنْ أَبْنَاءِ الدُّنْيَا أَلَا إِنَّ الدُّنْيَا قَدِ
ارْتَحَلَتْ مُوَلِّيَةً أَلَا إِنَّ الْآخِرَةَ قَدِ ارْتَحَلَتْ مُقْبِلَةً أَلَا وَإِنَّكُمْ فِي يَوْمِ عَمَلٍ لَيْسَ فِيهِ
حِسَابٌ أَلَا وَإِنَّكُمْ تُوشِكُونَ فِي يَوْمِ حِسَابٍ لَيْسَ فِيهِ عَمَلٌ

"나는 너에게서 두 가지를 가장 두려워한다: 하나는 자신의 변덕(낮은 자아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고, 둘째는 긴 희망[또는 장수에 대한 기대]을 갖는 것이다. 변덕을 따르는 것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긴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가 말했다] 하나님은 사랑하든 싫어하든 [자신의 악한 행위 때문에] 세상을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믿음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성한 길(딘)의 아들들(완전한 헌신을 가지는)이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신성한 길의 아들이 되어라, 세상의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명심하세요, 내세가 정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잘 준비할 수 있는 날이고, 그 안에 책임이 없습니다. 곧 당신은 책임의 날(심판의 날)에 접어들게 될 것이며, 그 날에는 아무런 행동도 없을 것입니다 [세속 여정의 끝에서 행동할 시간이 만료되었기 때문]." (내레이션 *하디스 모음 집 이븐 아비 알-둔야*)

긴 희망(또는 장수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지이고,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세속적 관심)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의 의미는,

사람이 자신의 욕망, 쾌락, 그리고 관여에 익숙해지면,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매우 커지고, 이는 죽음이 [임박한] 죽음에 대해 성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자신과 세상 사이의 분리]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싫어하는 대상과 거리를 둡니다. 인간 본성은 항상 거짓된 희망과 욕망에 시달리는 것이며, 이는 자신의 욕망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머무는 것은 자신의 욕망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그 점을 생각하며, 배우자, 자녀, 집, 친구, 친척, 탈 교통수단, 그리고 세상의 모든 수단 등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은 이 걱정에 너무 몰두해 죽음을 무시하고,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싫어한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고 그에 대비해야 할 때, 얼버무리며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고, 자라서 회개하겠다고 약속한다. 사람이 자라면 노년으로 미루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집을 짓거나 여행에서 돌아오거나 아이의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하거나 적을 상대할 때 회개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과 그렇게 회개를 계속 미루고 끝없는 사슬로 미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관여하는 일이 열 가지 새로운 것들을 낳고, 지연이 점점 길어지고, 새로운 교제가 생기며, 그것을 완수하려는 동기가 강하게 높아지며, 약속된 최종의 시간이 오고 죽음이 상상도 못한 시간에 세속적인 삶에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후회와 슬픔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바쁜 사람은 분명히 언젠가 자유 시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단지 오해일 뿐이며, 자유 시간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될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무지는 젊은 시절에 큰 자신감을 가지고 죽음이 젊은 시절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는 순전히 어리석고 무지한 태도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노인들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년 이전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죽음의 문을 두드릴 때쯤이면, 수천 명의 청소년과 아이들이 이미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관점에서 죽음을 멀리 있는 것으로 여기며(좋은 건강은 노년 전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속임수로 만듭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의 가능성에 큰 중요성을 두지 않습니다. 서든 데스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면, 갑작스러운 병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병이 갑자기 나타나고, 아플 때 죽음이 먼 일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부주의하고 경솔한 사람이 죽음에

특정한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어린 시절, 청년기, 노년, 겨울, 여름, 봄, 가을, 낮이나 밤 어디든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한다면, 죽음이 자신의 눈에 중요해지고 그 준비를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에 대한 낯설음과 세상에 대한 사랑이 눈앞에 놓여 있고,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에 가도 언젠가 사람들이 자신의 장례식에 그렇게 걸어갈 거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죠. 실제로 장례식에 가는 것은 습관이 되었고, 죽은 사람을 너무 많이 보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장례식을 보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자각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죽음은 단 한 번,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을 사용하는 것은 단지 무지와 어리석음일 뿐이다.

자신의 죽음을 멀게 여기는 이유가 무지와 세상에 대한 사랑(세속적)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을 때, 그 치유법을 아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질병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무지의 치유는 정화된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사고의 명료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치료법은 어렵습니다. 이 병은 치료가 첫 번째와 마지막 세대(이전 세대와 후대 현자들)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 치유는 단지 하나님의 종이 마지막 날(심판의 날)과 그 안에 있는 보상과 형벌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확신이 완성되면 세상에 대한 사랑이 마음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월한 것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서 열등한 것에 대한 사랑을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세상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섬세함과 아름다움, 영광이 가득한 저승이 있다. 인간이 두 가지를 마음의 명료함, 명료함, 명료함으로 성찰할 때, 동서에서 정부가 부여받더라도 세상에 대한 조금의 귀감(세속성)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넓은 세상의 작은 부분을 받는다면, 그것 역시 흐릿함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세에 대한 믿음이 굳건히 새겨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사랑을 마음속에 굳건히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팔다리를 바라보며 얼마나 아름답고 생기 넘치며 강한지 되새겨야 하지만, 곧 무덤 속 곤충들이 그것들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곤충이 먹지 않는 신체 부위는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지식과 내가 세속적으로 행한 의로운 행위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성찰과 함께, 무덤 처벌, 천사들(*문키르 나키르*), 심판의 날, 부활, 최후의 날의 사건들, 그리고 그

위대한 날에 법정 출석과 신 앞에서의 책임 추궁 등 다른 관련 사항들도 함께 성찰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죽음의 기억이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준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

사람들의 장기와 짧은 희망의 정도: 이 점에서 사람들은 다르다(장기나 짧은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 측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생계를 원하며 영원히 세상에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يَوَدُّ أَحَدُهُمْ لَوْ يُعَمَّرُ أَلْفَ سَنَةٍ

"그들 중 일부는 천 년의 삶을 원한다." (꾸란 2장 96절)

어떤 사람들은 노년까지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되는 극단적인 나이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강렬한 사랑에 갇혀 있습니다. 따라서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اَلشَّيْخُ شَابٌّ فِي حُبِّ طَلَبِ الدُّنْيَا وَإِنِ الْتَفَّتْ تَرْقُوَتَاهُ مِنَ الْكِبَرِ إِلَّا الَّذِينَ اتَّقَوْا وَقَلِيلٌ مَّا هُمْ

"노인은 세상을 찾거나 쫓는 사랑이 젊지만, 나이가 들어 팔다리가 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경건한 경외심과 경외심, 경외심을 가진 사람들 수는 매우 적다." (내레이션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와 사히흐 무슬림 하디스를*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어떤 사람들은 1년 이상 기대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겨울에는 여름을 위해 모아두고, 여름에는 겨울을 위해 모아둡니다. 따라서 생존 기간 1년간 물건을 모으면 신성한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 미만으로 살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들은 현재 시즌에 다음 시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상 살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만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위한 양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이 네 삶에 온다면 내일의 양도

함께 올 것이다. 만약 네 삶에 내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오늘 쌓아온 것을 남겨두고 내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사라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삶과 삶에 대한] 기대가 단 한 순간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가 말했듯이, "오 압둘라 [빈 우마르]! 아침이 되면 저녁을 걱정하지 말고, 저녁이 되면 아침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단 한 순간도 의지하지 않았기에,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자연의 부름을 이룬 후 즉시 먼지로 정욕(*타얌무* - 물이 없거나 멀리 있을 때 먼지로 외부 순결을 위해 행하는 정액으로, 예언자는 항상 외부와 내면의 순결 상태를 유지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물이 너무 멀지 않고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정화를 행했습니다 "아마도 나는 물에 닿지 못할 것이고, 내 영혼은 그 전에 빼앗길 것"이라고 말하며, 마치 죽음이 눈앞에 있고 곧 그에게 다가오려는 것처럼 말했다. 그런 사람은 마치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신께] 기도합니다 [이는 신 앞에서 진심과 마음의 존재를 담아 하는 것]. 무아드 이븐 자발(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도 같은 상태였기에,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가 그에게 믿음의 현실에 대해 묻자, 그는 "나는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았는데,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고 답했다. (내레이션 하*디스* 모음집 *아부 나임 피 알-힐야*) [위대한 아프리카 성인] 아스와드 합시(신의 자비가 그에게 가득하길)에 대해 밤에 기도할 때 여기저기서 둘러보았다고 전해집니다. 누군가 왜 그랬냐고 물었고, 그는 "나는 죽음의 천사가 어디서 오는지 보기 위해 주위를 둘러본다"고 답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장수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 따라 다양한 계급과 등급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급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한 달 동안 희망과 기대를 가진 사람과 하루가 더 많더라도 한 달 이상인 사람은 다르며, 두 사람은 같은 등급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정의와 공정함이 있으며, 하나님은 그것들을 동일시함으로써 부정의를 저지르지 않으십니다 [이 문제에서 그들은 평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فَمَن يَعْمَلْ مِثْقَالَ ذَرَّةٍ خَيْرًا يَرَهُۥ

"원자 무게만큼 선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꾸란 99장 7절)

희망과 기대가 짧아지는 효과는, 선한 행위를 진지하게 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능력과 성공의 징표는 [하나님께서](*타우피크*)의 죽음이 눈앞에 있어야 하며, 단 한 순간도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최후의 끝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녁까지 살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순종할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하고, 하루가 헛되이 되지 않은 것에 기뻐해야 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길에서 신의 순종과 의로운 행위의 몫을 얻었고, 그 몫도 얻었으니, 내세를 위해 보관(안전 보관)되었다. 그리고 아침을 같은 감사함으로 시작하며, [인도와 올바른 조언]과 신성한 순종을 듣습니다. 오직 내일을 위한 걱정, 불안, 계획과 전략에서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내일을 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은 후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승리(*사아다*)를 얻으며, 생생 동안 사후 세계를 준비하고 신께 간청하는 기쁨(마나자트)을 누리며 행복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죽음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사아다*)을 얻는 수단이며, 삶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을 증대시키는 수단이다. 오 인간이여! 항상 네 끝을 생각하고 싶어. 인생은 당신을 세상에서 멀리 날아가게 하고, 당신의 자신은 세상에 대한 방치에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 세상을 통한 삶의 여정]이 곧 끝나가고 [최종의] 목적지가 가까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선함, 경건함, 고귀함, 의로운 행동으로 나아가야만 목적지의 안락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함마드 선지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구도 반역하게 만드는 부유(풍요나 번영)를 기다리지 않고, 신성한 복종을 소홀히 하게 하는 가난을 기다리지 않으며, 신체적으로 무력해지게 하는 병, 지성을 무효화하는 노년을 기다리지 않는다, 또는 곧 다가올 죽음을 위해, 혹은 *다잘*(적그리스도)을 위해서인데, *다잘*은 사라져서 가장 기다리는 존재이며, 심판의 날과 심판의 날은 매우 힘들고 쓰라린다." (내레이션 아부 후라이라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티*르미디를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압둘라 빈 압바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اِغْتَنِمْ خَمْسًا قَبْلَ خَمْسٍ شَبَابَكَ قَبْلَ هَرَمِكَ وَصِحَّتَكَ قَبْلَ سُقْمِكَ، وَ غِنَاكَ قَبْلَ فَقْرِكَ وَفَرَاغَكَ قَبْلَ شُغْلِكَ وَحَيَاتَكَ قَبْلَ مَوْتِكَ

"다섯 가지보다 다섯 가지를 소중히 여기고, 올바른 일에 현명하게 사용하라: 노년 이전의 젊음, 병 이전의 건강, 가난 이전의 번영, 약속 전의 자유 시간(분주한 시간), 그리고 죽기 전의 삶." (내레이션 *하디스* 모음 *집 이븐 아비 알-둔야*)

또 다른 이야기에서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نِعْمَتَانِ مَغْبُونٌ فِيهِمَا كَثِيرٌ مِنَ النَّاسِ اَلصِّحَّةُ وَالْفَرَاغُ

"두 가지 축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건강과 자유 시간(휴식 또는 휴식)"입니다. (내레이션 *하디스* 수집 *사히흐 부카리* 압둘라 이븐 압바스의 권위에 따라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이 예언적 서술의 의미는 인간이 이 두 축복을 모두 [신성하게] 받으셨지만 두 가지를 모두 누릴 수는 없고, 그것들이 사라지면 그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ٱلَّذِى خَلَقَ ٱلْمَوْتَ وَٱلْحَيَوٰةَ لِيَبْلُوَكُمْ أَيُّكُمْ أَحْسَنُ عَمَلً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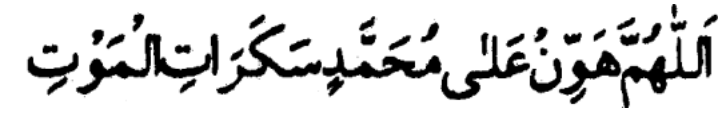
"[하나님은] 죽음과 생명을 창조하여 여러분을 시험하여(그 길과 도전으로 시험하여) 누가 더 선하고 의로운 행위(노력, 노력, 성취)를 행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볼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꾸란 67장 2절)

죽음의 고통: 죽음의 고통은 이 단계를 거친 사람만이 정확히 추정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이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때때로 겪는 고통과 역경을 추론할 수 있고,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의 강도를 관찰함으로써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 추론에 따르면 영혼이 없는 [신체적] 기관이나 팔다리는 고통을 느끼지 않으며, 영혼이 존재한다면 고통의 감각도 함께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고통이

영혼에 의해 인지된다는 것을 배운다. 따라서 부상을 입으면 그 충격이 영혼에 닿고, 그 정도에 따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살, 피, 그리고 신체의 다른 부위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덜 고통을 경험하지만, 만약 고통과 불편함의 중심이 영혼 자체에 있고 오직 영혼만이 그 자체라면, 고통의 심각성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은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영혼의 존재에게 내려앉아 모든 구성 요소를 통해 퍼져나가, 이 고통이 침투하지 않고 닿지 않은 영혼의 어떤 부분도 남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죽음의 고통은 영혼의 존재를 공격하며 모든 부분으로 퍼집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모든 정맥, 관절, 신체의 모든 부분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에서 영혼이 꺼내져 [신의 명령에 의해] 각 사람의 필연적인 끝에 맞춰 정해진 시간에 의해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혼이 견뎌야 할 고통과 괴로움의 양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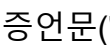
질문에 관해서는, "인간은 다치거나 맞으면 많이 비명을 지르지만 죽을 때는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비록 당신은 죽음의 고통이 더 크다고 말하지만요. [그 이유가 뭘까?]" 답은 과도한 충격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의 혀가 막혀 말을 할 수 없게 되어 비명을 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심장, 뇌, 몸 모두 이 공격으로 인해 기능을 잃게 됩니다. 모든 힘이 사라지고, 모든 장기가 약해지며, 간청할 힘이 남지 않고, 지성은 분리되고, 말은 혀에서 빼앗기고, 장기는 움직이지 않고, 마음속에 쌓인 감정을 쏟아내고 고통과 슬픔에서 위로를 찾기 위해 소리 지르고 싶지만, 소리칠 수 없다. 왼쪽에 어떤 힘이 있다면, 영혼이 떠날 때 목과 가슴에서 억눌린 [꿀꺽거림 또는 덜컹거림] 소리가 나고, 색깔이 먼지의 색으로 변하는데, 그 먼지가 인간의 기원인 것처럼 나타나고, 모든 혈관이 당기기 시작한다. 안팎으로 고통이 온통 있기 때문이다, 눈이 위로 올라가고, 입술이 움츠러들고, 혀가 안으로 들어오고, 손가락이 초록색으로 변한다. 모든 혈관이 뽑히는 몸의 상태에 대해 무엇을 묻나요? 몸의 한 혈관이 당겨지면, 통증의 강도 때문에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정맥이 당겨지고, 점차 모든 장기가 죽기 시작합니다. 두 발 모두 죽고, 먼저 두 발이 차가워지고, 그다음 정강이, 허벅지가 차갑고, 그 다음 모든 장기에 반복되는 아픔이 반복되고, 그 다음에는 영혼이 끌려가는 길에 목구멍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강렬함을 마주합니다. 그때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눈을 돌리고, 회개의 문은 닫히며, 슬픔과 수치심이 흐려진다. 요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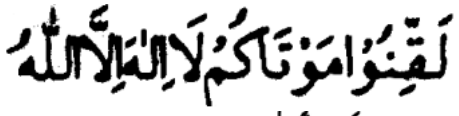
죽음의 고통과 고통과 쓰라림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또한 전 인류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오 신이시여! 무함마드가 죽음의 고통을 쉽게 겪게 하소서!"

평범한 사람들(평신도)은 이러한 고통에 아무런 중요성을 두지 않으며,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예언자(*나부와*)의 빛과 신성한 친밀함(*윌라야*)의 빛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의 피난을 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언자들과 신의 측근들(영지주의자들)은 죽음에 대해 더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죽음이 무엇을 수반하는지 미리 알고 있지만, 나머지 인류는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몰라서 알지 못합니다].

사망 시점에 어떤 행동이 더 좋은가요?죽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은, 임종하는 사람이 평화롭고 증언문("신 외에 신은 없다  []")이 입에 남아 마음이 신에 대한 좋은 감정과 감정을 품게 된다는 것이다(*후스른 알둔*). 이 증언 진술이 발언된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아부 사이드 알-쿠드리(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가 이렇게 말했다고 말했다:



"죽어가는 너희 이들에게 '하나님 외에 신은 없다'를 암송하라고 권권하라( )'".

우마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말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이 당신이 직접 목격하지 못하는 일들을 목격하니 조언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외에 신은 없다'고 권면하라." 권면하는 사람은 권고를 강요하거나 부드럽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죽어가는 사람의 혀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의 결론은, 인간이 죽음을 받아들일 때 마음속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다면, 그 사람의 죽음은

[신성한 사랑의 상태로 사랑하는 이에게 가고, 그 안에 감싸여 영원으로 가는 여정을 경이로운 경험으로 만드는 방법]이며, 사랑하는 이에게 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마음이 세상에 몰두하고 즐거움과의 분리로 슬퍼하며, '신 외 에 신은 없다'는 말을 낭송하는 것이 단지 입에 맴돌고 마음이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일이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고 단지 한 사람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점만 빼고는 말이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 좋은 평가를 갖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죽음을 앞둔 젊은이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물었다. "이 시간에 어떻게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된 거죠?" 그는 "나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내 죄를 두려워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무함마드 선지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하나님의 종 안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서 기대하는 것을 주시고,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때 종(임종)의 선행을 언급하는 것이 더 좋으며, 이는 인생 여정의 끝에 하나님께 희망을 품는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고통과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상태, 매장 전과 매장 후 사망자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간결함을 위해 가잘리의 일부 설명은 여기서 생략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고인이 자신의 잘못과 그 심각성으로 인해 신의 분노를 받을 자들 중 하나라면, 무덤의 어둠과 벌레, 무덤 속 천사들의 심문, 그리고 무덤의 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신의 징벌에서 더 어려운 단계는 무덤 이후에 마주하게 될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나팔 불기(마지막 날의 도래를 알리는 것), 심판의 날에 부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시되는 것(신의 정의와 공정함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 신의 법정에서 정의롭고 공정하게 행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질문하는 것들 등이 있습니다. 행동의 저울에서 선악, 실체나 허세로 판단하고, 얇은 시랏의 다리를 건너 *며,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사아다)*이나 영원한 저주와 실패*(샤카와)*) 중 어느 쪽을 얻을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기다*린다). 이러한 위험과 위협을 이해하고, 이를 확고히 인식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진 후, 오랜 성찰과 숙고를 통해 신뢰를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이러한 [임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할 동기와 추진력이 마음속에 태어납니다.

신의 환상과 신의 얼굴을 증언하는 [천국에서]: 신은 꾸란에서 말씀하신다:

لِّلَّذِينَ أَحْسَنُوا۟ ٱلْحُسْنَىٰ وَزِيَادَةٌ ۖ

"선한 행을 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로운 행위에 관해서] 선함(천국과 영원히 줄어들지 않는 풍요함)과 함께 추가적인 선함이 있습니다." (꾸란 10장 26절)

이 추가적인 선함은 하나님의 환시이자 그분의 축복된 얼굴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극도의 기쁨이기 때문에, 낙원의 주민들은 다른 모든 즐거움과 축복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신성한 사랑의 책"(16장)에서는 이 신성한 환시의 현실이 설명되었고, 신성한 책과 예언적 길에서 나온 증거를 통해 전통적 방법론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자들의 신념을 부정하는 내용이 제시되었다(*아흘 알-비다*). 자리르 이븐 압둘라 알-바잘리(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우리는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와 함께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열네 번째 밤(보름달)의 달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는 이 달을 보는 것처럼 너희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달을 보기 위해 서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기도 전, 해가 뜨기 전, 해가 지기 전에 지치지 말고, 기도를 [경계심과 완전한 헌신으로]" 그는 다음 구절을 낭송했다:

وَسَبِّحْ بِحَمْدِ رَبِّكَ قَبْلَ طُلُوعِ ٱلشَّمْسِ وَقَبْلَ غُرُوبِهَا ۖ

'그리고 해가 뜨기 전과 지지 전에 주님을 찬양으로 영광스럽게 하라.'" (꾸란 20장 130절) (내레이션 *하디스* 컬렉션 *사히흐 부카리* 그리고 *사히흐 무슬림* 라바다의 권위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이맘 무슬림의 하디스 *모음* 집 『사히흐 무슬림』*에 따르* 면, 수하이브 알-루미(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에서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가 위의 구절을 낭송했다고 전해집니다. "선한 행을 행한 자들은 선(천국과 영원히 줄지 않는 풍요함)과 함께 추가적인 선함(하나님의 환시)이 있다"고 말하며 말했습니다, "천국의 사람들이 낙원에 들어갔고 지옥의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갔을 때, 외치는 자가 외칩니다, '낙원의 주민들이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을 이루고자 하신다!' 천국의 사람들은 '그 약속이 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행의 무게]를 [균형의 저울]에서 무겁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우리 얼굴을 비추지 않았느냐? 그분이 우리를 낙원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 후 장막이 걷히고 그들은 고귀하신 하나님의 축복된 얼굴을 바라볼 것이다.' 그는 이어서 '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것은 (신성한 환시)'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예언 전통은 많은 예언자 동료들에 의해 전해져 왔습니다. 신성한 비전의 명예는 모든 선함, 모든 탁월함, 모든 축복의 정점이자 정점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생략된 낙원의 축복이 언급된 이전 페이지들에서는 이 최고의 축복에 비하면 미미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행복과 신성한 비전의 영원한 행복, 그리고 끝없는 승리(*사아다*)는 그들이 얻을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천국의 쾌락과 이 광대함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는 "신성한 사랑, 갈망과 신성한 의지의 수용"(16장)에서 자세히 다뤄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천국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의 목적은 그곳에서 진정한 주인이자 사랑받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원의 다른 축복들에서는, 목초지에서 풀을 뜯는 동물들조차도 당신의 함께자이자 함께 나누는 존재입니다.

책의 결말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확장성을 기쁜 소식으로 언급하는 것들

무함마드 선지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좋은 결말을 허락해 주시길 바라야 합니다. 이 책("하나님께 이르는 길의 지식의 부흥")을 신성한 자비의 확장성에 대한 기쁜 소식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قُلْ يَٰعِبَادِيَ ٱلَّذِينَ أَسْرَفُوا۟ عَلَىٰٓ أَنفُسِهِمْ لَا تَقْنَطُوا۟ مِن رَّحْمَةِ ٱللَّهِ

إِنَّ ٱللَّهَ يَغۡفِرُ ٱلذُّنُوبَ جَمِيعًا ۚ إِنَّهُۥ هُوَ ٱلۡغَفُورُ ٱلرَّحِيمُ

"그들에게 말하라(오 무함마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오, 그들의 영혼을 잘못한 내 종들이여! 하나님의 자비를 절망하지 마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진실로, 그분은 용서하심이 많으며 엄청난 자비를 지니신다." (꾸란 39장 53절)

وَمَن يَعۡمَلۡ سُوٓءًا أَوۡ يَظۡلِمۡ نَفۡسَهُۥ ثُمَّ يَسۡتَغۡفِرِ ٱللَّهَ يَجِدِ ٱللَّهَ غَفُورٗا رَّحِيمٗا

"잘못을 저지르거나 자신의 영혼을 억압하는 자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매우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꾸란 4장 110절)

우리는 이 책과 다른 책들에서 펜으로 저지른 모든 실수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행동과 맞지 않는 말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해와 지식에 대한 우리의 주장, 하나님의 승인을 받으려 했지만 그 의도 속에 하나님 이외의 모든 지식과 행동이 섞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 약속(개혁하고 정화하겠다면서) 그것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어진 모든 축복을 죄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연루되었지만 그것을 명시적이든 우화적으로 다른 탓으로 돌렸고, 그 생각이 어떤 책이나 연설, 가르침을 쓰는 동기가 되었지만, 그것은 단지 사람들에게 과시하거나 인위적이거나 순진한 이유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책을 읽고 쓰거나 듣는 사람들에게 용서와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외적 죄와 내면의 죄에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친절이 널리 퍼져 있고, 자비가 넓으며, 모든 창조물이 그분의 은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관대함과 관대함 외에는 [시련과 시련, 그리고 생사의 큰 도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함마드 선지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는 "하나님께서 백 가지 자비와 축복의 부분을 가지고 있으십니다(하나님께서 자비를 백 부분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들 중에서 하나님 께서 진과 인간, 동물, 새, 곤충, 기어 다니는 동물들에게 [백 가지 자비 중 하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신성한] 자비의 한 부분 [이 땅에 존재]로 인해 그들은 사랑과 나눔로 서로를 대합니다. 그리고 아흔아홉 부분의 자비를 자신과 함께 보관하였으며, 심판의 날에 그분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사용하리라"고 말했다. (내레이션 아부 후라이라와 살만 알-파르시의 권위에 따른 *무슬림 하디스 모음* 집 [신께서 두 분 모두를 기뻐하시길]) 예언적 전통에 따르면, 그분이 신성한 보좌 아래에서 글을 꺼내실 것이라 전해지는데, 그 안에는 '나의 자비가 내 진노를 넘어서며 나는 모든 자비로운 자 중 가장 자비로우신다'라고 적혀 있다. 그 후에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두 배나 많은 지옥에서 제거될 것이다." (내레이션 하*디스* 모음 집 *사히흐 부카리*와 *사히흐 무슬림*) 신은 심판의 날에 신자들에게 묻습니다. "나와의 만남이 너희에게 사랑하느냐?" 그들은 "예, 우리 주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묻실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우리는 당신의 관용과 용서를 희망했습니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내가 내 용서를 내 탓에 두었느니라." (내레이션 무*스나드 아흐메드*와 *타바라니* 하디스 *모음*집)

예언적 전통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명령하실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나를 기억하거나 어디선가 나를 두려워한 모든 사람을 지옥에서 데려가라." (내레이션 아나스 빈 말릭(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 *티르미디*(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자식에게 가지는 애정보다 자신의 종들(인간)에게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레이션 우마르의 권위에 따라 사*히흐 부카리*와 *사히흐 무슬림 하*디스 *모음* 집(하디스)은 "심 판의 날에, 선행을 한 자는 책임 없이 낙원에 들어가며, 선행과 죄가 동등한 자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게 되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무함마드 선지자의 중재(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스스로를 파괴하고 그 죄의 무게로 등받치리(무겁게 굴리는)자를 위한 것이었다."

오랜 예언 전통의 끝에,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심판의 날과 *시랏 다리를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디*나르(금화) *크기의 선함을 가진 자를 지옥에서 데려오라고 명령하실 것이다* . 천사들이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고,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천사들은 말할 것이다, '오 하나님! 당신이 명령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아무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음속에 입자 크기만 한 선함이 있는 자는 지옥에서 누구든 데려가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창조물(사람들)이 지옥에서 나올 것입니다. 천사들은 말할 것이다, '오 하나님! 네가 명령하던 사람들은 지옥에 남아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부 사이드 알-쿠드리(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이 전통을 전한 후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전통에 대해 나를 알지 못하면 이 구절을 읽어보라:

إِنَّ ٱللَّهَ لَا يَظۡلِمُ مِثۡقَالَ ذَرَّةٖۖ وَإِن تَكُ حَسَنَةٗ يُضَٰعِفۡهَا وَيُؤۡتِ مِن لَّدُنۡهُ أَجۡرًا عَظِيمٗا

'진실로 하나님은 입자 크기만큼의 억압을 저지르지 않으실 것이며, 만약 누군가가 의로운 행위를 행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 배로 늘리실 것이다 [오직 신의 관대함과 관대함으로]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더 큰 보상을 주실 것이다.'" (꾸란 4장 40절)

압둘라 빈 압바스(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어느 날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가 예언자 동료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내 앞에 민족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한 예언자가 많은 추종자들과 함께 지나가는 것을 보았으며, 또 다른 예언자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또 다른 예언자는 열 명(인격)만 데리고 지나갔고, 또 다른 예언자는 다섯 명(위격)과 함께 지나갔으며, 또 다른 예언자는 [단 한 명의 추종자도 없이] 혼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아마도 그들이 제 민족(*우마*) 출신일까 기대했지만, 이곳은 예언자 모세(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의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라고 했다. 수평선을 가득 채우는 엄청난 인파가 보였다. 계속 그렇게 보이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거대한 창조물을 보았다. 나는 '저 사람들이 너희 추종자들이고, 그 앞에 있는 7만 명은 그들의 회계를 결코 인정받지 못하고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들었다." 사람들은 떠났고, 무함마드 예언자(신의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는 이 7만 명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동료들은 서로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신교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과 그의 사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 우리의 자녀일 것이다 [믿지 못하며 태어나지 않은 자들]." 예언자는 이 대화 소식을 듣고, 아무런 심판과 책임 없이 낙원에 들어올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추측에 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들은 자신을 낙인(지혈)으로 대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악한 주문을 걸어 해를 끼치려는 강령술(마법) 주문을 외우지 않았으며, 사물에서 악한 징조를 않았으며, 오직 주님께만 신뢰를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우카샤 빈 미산은 일어나서 (예언자에게) "신을 불러서 나를 그들 중 하나로 만들어 주소서"라고 말했다. 그가 말했어요, "오

신이시여! 그를 그들 중 하나로 만들어 줘." 그때 또 다른 남자가 일어나서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저도 그들 중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부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우카샤가 너보다 먼저 왔다"고. (내레이션 *압둘라 이븐 압바스의 권위에 따라* 하디스 *모음 집* 사히흐 부카리(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아부 다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예언자 무함마드(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가 말했다고 전했다. "[대천사] 가브리엘이 하라(북서 아라비아의 휴화 사막 지역) 방향에서 나에게 와서 말했다. '하나님과 어떤 짝도 맺지 않은 상태로 죽는 자가 너희 민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도둑질과 음란을 저질렀는데도?' 가브리엘은 '도둑질과 간음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했다. 이 질문과 답변은 세 번 반복되었습니다. (내레이션 *하디스* 모음집 *사히흐 부카리* 와 *사히흐 무슬림*) 아부 다르(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의 이야기에서,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낭송했습니다:

وَلِمَنْ خَافَ مَقَامَ رَبِّهِۦ جَنَّتَانِ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한 자는 두 개의 낙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꾸란 55장 46절)

또 다른 예언 전통에 따르면, 원정 중에 야영지를 마련해 나중에 어린 소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정말 더웠어요. 갑자기 한 여자가 텐트에서 나와 그가 서 있던 아이에게 달려갔다. 가족들이 바로 뒤에 있었다. 여자는 아이를 들어 꼭 껴안았다. 그녀는 바위 위에 누워 다시 아이를 안아 열기로부터 보호하며 말하기 시작했다. '내 아들! 내 아들!" 사람들은 이 [강렬한 모성애와 애정]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후 떠났다. 한편, 예언자 무함마드(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가 와서 사람들이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그들의 자비와 자비에 기뻐했다. 그는 기쁜 소식을 전하며 말했다. "이 여자가 아이에게 쏟아내는 연민과 자비에 놀랐나요?" 사람들은 "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이 여성이 자식에게 그러는 것보다 여러분 모두에게 더 자비롭고 자비로우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엄청난 행복과 위대한 기쁜 소식을

들으며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모두에 대한 신의 사랑, 자비, 자비에 관한 것]. (내레이션 우마르의 권위에 따라 사*히흐 부카리*와 *사히흐 무슬림 하*디스*를 모았* 다 [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

이 전통들과 우리가 "희망의 책"(13장)에서 설명한 내용은 신성한 자비의 광대함과 광범위함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우리의 결점, 약점, 잘못, 잘못, 과잉, 억압 때문에] 대우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위대함과 위엄에 걸맞은 자비와 은혜, 자비, 관대함으로 우리를 대하신 것을 희망합니다.

21장 – 시간, 장소, 상황에 상관없이 내면의 평화와 평온, 행복을 찾기 위한 해방의 지혜

가잘리의 대작 "이히야 알-울룸 앗딘" *또는 "하나님으로 가는 길의 지식 부흥" 네 번째이자 마지막 권의 마지막 권의 결말에서*, 회복력, 긍정성, 내면의 평화, 평온,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승리를 이루기 위한 내면의 변화를 위한 영적 투쟁의 핵심 지점들을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이를 위해 가잘리의 시대를 초월한 지혜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설명하는 중요한 내레이션의 형태로 다시 활용될 것이다. 가잘리는 자신의 저서 "*아이유할 왈라드*" 또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데, 이 책은 가잘리의 3권짜리 단편집 "*마즈무아 라사-일 이맘 가잘리*" 또는 "이맘 가잘리 단편집" 에 수록되어 있다 [27]:

학생들과 *무리드(제자들)들 사이에서, 모든 악한 욕망과 경향으로부터 영혼을 정화하여 영적 완성과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제자들이 영적 지도자의 인도 아래, 훈련과 인도를 통해 영혼의 정화와 신 앞에 높은 지위를 완전히 이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적 지도자가 가까이 있었던 것은) 샤이크 샤키크 발키(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기를)의 제자였으며, 하팀 알-아스므(하팀 알-아스므, 그가 하여금 자비를 베푸시길)라는 이름의 제자였으며, 그는 이후 샤이크 샤키크의 영적 훈련과 지도를 통해 위대한 영적 스승이 되었다. 어느 날 샤이크 샤키크 발키(신의 자비가 그에게 있길)가 그에게 말했다:

"오 하팀! 얼마나 오랫동안 내 곁에 있었고(영적 근접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나요?

하팀 알-아스므(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대답했다: "서른셋이요!"

샤이크 샤킥 발키가 물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나에게서 어떤 이익을 얻었나요?"

하팀 알-아스므(하티메 알-아스므)는 이렇게 답했다:

"[나는] 당신에게서 여덟 가지 혜택을 받았습니다."

샤이크 샤키크 발키(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이렇게 답했다:

"*인나 릴라히 와 인나 일레이헤 라지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분께 돌아갈 것이다(이는 상실과 슬픔의 시기에 꾸란에서 나오는 간구문이다)."

샤이크 샤킥 발키(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 하팀! 나는 평생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데 바쳐왔는데, 너는 나에게서 여덟 가지 혜택을 얻었어?"

하팀 알-아스므(하느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이렇게 답했다:

"오, 나의 스승님! 만약 당신이 나에게 진실을 물었다면, 현실은 내가 방금 말한 것이야. 나는 더 이상 [이익]이 필요 없으며, 지식에서 얻는 이 이익들만으로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는 이 여덟 가지 혜택을 통해 이 생과 내세에서 구원과 성공을 얻을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샤이크 샤키크 발키(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가 그에게 물었다:

"좋아! 말해봐, 그 여덟 가지 이점이 뭐야?"

하팀 알-아스마가 내레이션하는 혜택

"오, 나의 스승님! **첫 번째 이점**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백성의 사랑하는 이들은 어떤 이들(즉, 사랑하는 이들)이 죽음을 가져올 병이 올 때까지 곁에 있고, 어떤 이들은 죽을 때까지 곁에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무덤에 도달할 때까지 함께하며, 장례 후 모든 사랑하는 이들이 그곳에서 돌아옵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은 무덤에 함께 가서 함께 살거나 [무덤의 어둠, 고독, 좁음, 공포 속에서], 함께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하며 오직 그들만이 무덤에 함께 가고 연인과 함께 살며, 동반자가 되어주고, 무덤을 밝히며, 심판의 날과 그 목적지(장례 후 심판의 날까지 거치는 역들)에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런 [선한] 자질을 가진 유일한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선한 (경건하고 의로운) 행위임을 알았다. 이 [결심과 자각] 이후, 나는 내 선행을 내 사랑으로 삼아 죽을 때 내 무덤에 함께 가고, 나와 함께 있어주며, 내 무덤 속에서 빛나는 촛불이 되고, 내세의 모든 단계에서 나의 동반자가 되고, 결코 나와 떨어지지 않게 했다."

샤이크 샤킥 발키(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오 하팀! 정말 좋은 말씀을 하시네요. 이제 두 번째 자선 행사를 이야기해 주세요."

"오, 나의 스승님! **두 번째 이점은 세상 사람들을 살펴보니 모두가 나**프(악을 행하라고 지시하는 하위 자아)*의 쾌락과 욕망을 따르고* 있으며 , [모두가] 하위 자아의 욕망에

복종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다음과 같은 성스러운 구절(꾸란에서)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وَأَمَّا مَنْ خَافَ مَقَامَ رَبِّهِۦ وَنَهَى ٱلنَّفْسَ عَنِ ٱلْهَوَىٰ ﴿٤٠﴾

فَإِنَّ ٱلْجَنَّةَ هِىَ ٱلْمَأْوَىٰ ﴿٤١﴾

'그러나 자신의 존재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내면을 저급하고 악한 욕망으로부터 억제한 자는 천국이 [그 사람에게]의 안식처가 될 것이다.' (꾸란 79장 40-41절)

저는 현명한 꾸란이 옳고 하나님의 책이 진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Nafs*(하위 자아)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것(즉, 내 하위 자아)을 그 어떤 욕망도 충족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그것이 하나님, 숭고하신 분을 숭배하며 평화와 만족을 찾기 시작할 때까지 그 어떤 욕망도 충족시키지 못했다."

샤이크 샤키크 발키(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이렇게 답했다:

"존경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행에 축복을 내리시길. 이제 세 번째 자선 행사를 내레이션해라."

"오, 나의 스승님! **세 번째 이점** 은, 제가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모든 사람이 큰 고통과 노력으로 이 인간 세계의 재산(돈, 부, 재산)을 축적하는 데 바쁘고, 많은 재산과 물질적 소유물을 가진 것에 매우 기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꾸란의 다음 성스러운 구절을 곰곰이 생각할 때:

مَا عِندَكُمْ يَنفَدُ ۖ وَمَا عِندَ ٱللَّهِ بَاقٍ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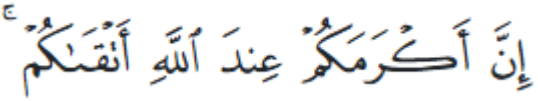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것은 끝이 오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다.' (꾸란 16장 96절)

그리고 내가 세상에 축적한 [물질적 재산]을 경건한 가난한 자들과 거지들에게 나누어 주어 하나님의 길로 모두 사용하여, 내가 하나님의 길로 나누어 준 물질적 재산이 하나님께 맡겨져 엄청난 선과 몸값의 원천이 되도록 했다(즉, 내세에 구원을 주고받는 것."

샤이크 샤킥 발키(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보상(그분의 방식으로 쓴 것에 대한 보상)을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아주 좋은 말을 했고, 실제로 아주 좋은 일을 해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자선 행사를 이야기해 주세요."

"오, 나의 스승님! **네 번째 이점**은, 전 세계 사람들을 살펴보니 그들 중 일부는 위대함과 명예가 크고 강력한 국가나 부족(집단)에 속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부족(국가 또는 집단)에 자부심을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풍요로운 부, 물질적 소유, 가족, 친척을 통해 위엄을 얻는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자녀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 구타, 살인, 살인, 약탈에서 자신의 위대함과 명예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에 자부심을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위대함이 낭비적인 지출에 있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그 낭비를 명예의 원천으로 여기고 자부심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 구절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 구절에서 존경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귀한 자가 그분을 가장 깊이 의식하고 두려워하시는 자이다.' (꾸란 49장 13절)

따라서 이것은 옳고 진실이며, 창조물들의 생각은 거짓이고 잘못된 추측이다. 그래서 나는 *타크와* (경건한 경외, 의식, 경외, 신에 대한 두려움)를 채택하여 신, 즉 존경하신 분께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자로 인정받기 위함이다."

샤이크 샤킥 발키(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팀! 신께서 당신을 기뻐하시길.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이제 다섯 번째 자선 행사를 이야기해 주세요."

"오, 나의 스승님! **다섯 번째 이점** 은 서로를 불평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질투, 질투, 적대감 때문이며, 그 주된 원인은 위대함, 웅장함, 물질적 소유, 부, 지식에 대한 욕망과 경쟁이었습니다. 나는 꾸란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곰곰이 생각했다:

نَحْنُ قَسَمْنَا بَيْنَهُم مَّعِيشَتَهُمْ فِي ٱلْحَيَوٰةِ ٱلدُّنْيَا ۚ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들의 생계 수단(생계)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꾸란 43장 32절)

그때 저는 하나님, 축복받고 존귀하신 분께서 창조 초기부터 소유와 계급을 정하셨고, 이 문제에 대해 아무도 통제하거나 발언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와도 경쟁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세속적 은혜를 분배하신 것]과 [그분이 정하신 운명]에 동의했으며,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에 대한 모든 질투와 적대를 버림으로써 온 세상과 잘 지냈다."

샤이크 샤킥 발키(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팀! 당신은 진실을 말하고 있고,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자선 행사를 낭독해 주세요."

"오, 나의 스승님! **여섯 번째 이점**은, 사람들을 훑어보니 모든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다른 사람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다음 구절에 대해 숙고했습니다:

إِنَّ ٱلشَّيْطَٰنَ لَكُمْ عَدُوٌّ فَٱتَّخِذُوهُ عَدُوًّا

'진실로 *샤이탄* (사탄)은 너희의 원수이니 그를 적으로 대하라.' (꾸란 35장 6절)

그 후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샤*이탄*(사탄) 외에는 누구와도 적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탄을 적으로 여기고 그의 명령에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하나님께 순종을 키우고 하나님, 존경하신 분의 계명을 따르며 오직 그분의 예배와 섬김만을 받아들였습니다. 올바른 길은 신이시, 즉 비틀림 없는 신의 인도의 곧은 길(*Sirat al-Mustaqeem*)입니다. 이는 존경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أَلَمْ أَعْهَدْ إِلَيْكُمْ يَٰبَنِىٓ ءَادَمَ أَن لَّا تَعْبُدُوا۟ ٱلشَّيْطَٰنَ ۖ إِنَّهُۥ لَكُمْ عَدُوٌّ مُّبِينٌ

'내가 너희로부터 이 약속을 받지 않았느냐, 오 아담의 자손들이여! 절대 *샤이탄*(사탄)에게 복종하지 마십시오 .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너희의 공개적인 적이고, 오직 나만을 경배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곧은 길이기 때문이다.'" (꾸란 36장 60절)

샤이크 샤킥 발키(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말했다: "오 하팀! 당신은 정말 좋은 일을 했고,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이제 일곱 번째 자선 행사를 낭독해 주세요."

"오, 나의 스승님! **일곱 번째 이점**은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계와 생계를 찾는 데 몰두하며 치열한 투쟁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할 *랄*(허용)과 *하람*(금지)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 라, 의심스러운 수입과 *금지*된 수입으로 굴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후 다음 구절에 대해 숙고했습니다:

وَمَا مِن دَآبَّةٍ فِى ٱلْأَرْضِ إِلَّا عَلَى ٱللَّهِ رِزْقُهَا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 생명체는 없다.' (꾸란 11장 6절)

그때 나는 현명한 꾸란이 진리이며 옳으며, 나도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 중 하나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예배에 몰두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양분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영양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샤이크 샤킥 발키(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주 좋은 일을 했고, 아주 좋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이제 여덟 번째 자선 행사를 낭독해 주세요."

"오, 나의 스승님! **여덟 번째 이점** 은, 제가 사람들을 살펴보았을 때, 모든 사람의 의존(또는 신뢰)이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물질적] 소유물을 신뢰하거나 의존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거나 의존합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받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한 구절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وَمَن يَتَوَكَّلْ عَلَى ٱللَّهِ فَهُوَ حَسْبُهُۥٓ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이에게는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그분]으로 충분하다.' (꾸란 65장 3절)

'*와 후와 후스비 와 나이말 와켈*.'

'그분은 나에게 충분하시며 최고의 도우미시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완전한 의지와 신뢰를 갖게 되었다.]"

샤이크 샤킥 발키(신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길)가 이 [여덟] 혜택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팀! 하나님께서 당신 께 그분의 *타우피크*(즉, 의로운 행위를 행하고 그분의 길을 걷게 하신다)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나는 *타우랏*(토라), *인질*(예수 복음[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자부르*(시편), 그리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칭찬할 만한 책들(즉, 성스러운 꾸란)에서 이 모든 책들이 이 여덟 가지 혜택을 언급하는 것을 보았다. 즉, 네 권 모두 가르침에서 이 여덟 가지 혜택을 우리에게 말했다. 이 [여덟 가지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자는 마치 네 [성서]를 모두 행한 것과 같다."

4부: 루미의 세 왕자 우화를 통한 내면의 완성과 삶의 목적 실현으로 가는 영적 길

마울라나 잘랄루딘 루미(1207-1273년), 흔히 루미로 알려진 그는 6권짜리 페르시아어 시집 『*마트나비-에-마나비*』 또는 '깊은 영적 의미의 쌍', 즉 '마*트나비*' 또는 '*마스나비*'로 널리 알려진 영성, 내면의 영적 길, 영적 사랑에 관한 걸작을 썼다이 주제에 관한 가장 서사적인 시는 인류 문명 전체에서 가장 서사시다. 이 걸작의 후반부에서 그는 세 왕자가 중국 황제를 만나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딸과 결혼하기 위해 여행을 떠난 우화로 전체 영적 길을 요약했다. 루미는 첫 두 왕자의 이야기를 전했고, 세 번째 왕자의 이야기는 미완성으로 남겨두어 "*마트나비*"를 미완성으로 남겼다:

해가 심장 지평선에서 질 때 [1]

마트나비 는 *[*미완성*]*으로 끝났고, 신만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루미는 추가로 다음과 같이 예측했다:

[1] 이는 이 걸작 "*마트나비*"의 주제가 루미의 마음에 신성하게 영감을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6권을 쓰고 나서 그것이 중단되었으니, 그에게 책을 미완성으로 남겨두라는 신성한 신호다. 이 내용은 그의 아들 마울라나 바하울밀랏(본명은 바하 알딘 왈라드였으나 대중적으로는 술탄 왈라드로 알려짐)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으며, 책 마지막에 자신의 시를 마무리하는 시를 덧붙였으며, 아버지가 예언했다고 전했다: "[세 왕자의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올 것이다, 말을 걸지 않고도 살아있는(깨달은) 영혼을 가진 자"라고 말했다. 루미의 예언에 따라, "마트나비"의 결말에 여러 깨달음을 얻은 영혼들이 영감을 받았다. 그중 인도 출신 성인 마울라나 일라히 박쉬 칸델라비의 결론은 이 위대한 걸작과 가장 가깝게 평가받는데, 루미가 6권으로 이어진 것과 같은 맥락으로 결말을 맺고 세 왕자의 이야기와 루미가 미완성으로 남긴 세 형제의 아버지 가 카*디*에게 유산을 남긴 이야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했다 (판사) 가장 게으른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루미가 세 군주에 관한 미완성 이야기, 그의 아들 마울라나 바하울밀랏이 아버지가 왜 '*마트나비*'를 미완성으로 남겼는지에 대한 결론, 그리고 마울라나 일라히 박쉬 칸델라비가 루미가 예언한 대로 신의 영감을 받아 이야기와 책을 마무*리하며* '*마트나비*'의 마지막 결론을 담을 것입니다.

*[*세 왕자의 이야기*]*의 나머지는 말없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올 것이다,

살아 있는*(*깨달은*)* 영혼을 가진 자.

"마트나비"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세 왕자의 이야기*와 루미가 예언한 이 이야기의 완성을 여기서는 내면의 완성, 영적 변화, 인생의 진정한 목적 달성, 그리고 그에 따른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승리를 위해 가야 할 길을 요약하기 위해 제시된다 [28]:

황제의 전통과 세 아들에게 도미니언 각지를 여행하며 행정과 준비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고, 특정 성에 가지 말고 그 성은 돌아서지도 말라고 조언했다

세 아들이 있는 황제가 있었다

세 사람 모두 현명하고 현명했다.

그들 모두가 칭찬받을 만했다

관대함, 전쟁, 그리고 위엄 속에서.

모두가 황제 앞에 섰다

그것은 황제의 차가운 눈동자였다.

아들의 눈에는 비밀스러운 길이 있다

아버지의 대추야자나무가 그 비밀 길에서 물을 끌어서 관개해.

아들의 개울에서 나오는 물의 정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원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부모 식물의 정원은 여전히 신선하고 관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손들의 눈에서 비밀스러운 시냇물이 흐른다.

이 시내가 *[*자손에서 부모로 흐르는*]* 자손의 병으로 인해 약해질 때

대추야자나무의 가지와 잎은 말라버립니다.

대추야자의 건조함이 분명히 말해준다

나무는 자손으로부터 *[*생명과 안녕의 물*]*을 추출합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비밀 하천들도 있습니다

오, 부주의자*!* 당신의 영혼에 붙어 *[*당신의 존재의 나무를 관개하기 위해*].*

여기 호칭받은 당신이여*!* 천지에서 재료가 뽑아왔다

당신의 몸이 그들로 만들어진 정도로요.[2]

당신은 세상의 구성 요소들로부터 몸을 훔쳤습니다

여기저기서 조각조각 잘라냈죠.

땅과 태양, 하늘에서

당신은 그 *[*세상에서*]* 그 조각들을 몸과 영혼에 붙였어요.

경고하세요*!* 그걸 공짜로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이것저것 돌려받을 수 없겠지*?*

도난품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도둑들을 교수형에 처하는 곳으로 데려갈 수 있어.

이 *[*몸*]*은 빌린 재료로 이루어져 있으니, 발을 땅에 땅에 박지 말아야 한다 *[*몸이 영구적인 것처럼*]*[3]

[2] 인체의 구성은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재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 생명이 끝날 때 몸은 땅에서 빌린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땅으로 돌아와야 하며, 빌린

빌린 돈은 돌려줘야 하니까요.

"나는 내 영혼을 인간에게 불어넣었는데 [4] "(영혼)는 하나님께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 영혼에 속하는 것, 다른 모든 것은 쓸모없으니까.

저는 그것들을 영혼과 관련해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몸이나 물질적 존재 역시 강력한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5]

세 왕자는 아버지의 영토 내 여러 나라로 향하고 있었으며, 아버지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 놀라운 성에 들어가지 말라는 조언을 반복했다

세 아들 모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아버지 황제의 나라들로.

도시와 성을 순회하는 동안

행정을 감독하고 수입 증대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역할입니다.

그들이 *[*험난한*]* 길을 걷기로 했을 때, 황제의 허락을 구했다

그들에게서 확고한 결의를 보았기에, 그는 허락을 거칠게 허락했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한 황제의 손에 입맞춤했다

그때 황제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마음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로 가든, 그곳에 가겠다는 의도를 정하세요

물질은 반드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단, 빌린 물질로 이루어진 영혼은 천상의 신성한 기원을 가진 영혼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4] 꾸란(15:29)의 구절로, 영혼의 천상적 기원과 하나님과의 밀접한 연결을 가리킵니다.

[5] 따라서 몸은 쓸모없지 않으며, 이 지상 존재에서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 영혼이 천상의 기원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가까움과 사랑, 친밀함 속에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의 삶을 살도록 돕는 신성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앞으로 나아가세요.

'정신을 잃는다'고 불리는 한 성만 빼고요

왕위 후보자들의 삶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제발, 이 그림들로 가득한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위험을 두려워하세요.

앞면, 뒷면, 아치, 천장, 바닥에

모두 그림, 판화, 형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줄라이카의 집처럼 그녀의 사진들로 가득했죠

그래서 *[*예언자*]* 요셉이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보게 만들었죠.[6]

조셉이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교묘하게 집 안 곳곳에 자신의 사진들을 가득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얼굴*(*조셉*)*이 어디를 바라보든

무심코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깨달은 눈을 가진 자들에게 유일하고 유일한 하나님

여섯 방향을 만들었는데, 이는 그분의 증거*[*존재, 광대함, 위엄, 위엄*]*의 현현이었다.

그래서 자라는 동물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은 신성한 아름다움의 정원에서 영양분을 찾을 것입니다.[7]

그래서 그는 이 *[*깨달은 눈과 영혼들*]*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6] 줄라이카는 예언자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자신의 사진을 붙였고, 요셉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강제로 쳐다보게 만들었다.

[7] 성인, 영지주의자, 그리고 하나님의 가까운 이들이 우주에서 신성한 완전함과 탁월함을 목격할 때, 그들의 영지와 신성한 지식은 의심과 불신의 그림자를 넘어 확신을 깊게 하여 더욱 깊어지게 합니다. 이는 어둠을 없애는 떠오르는 태양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든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목마른 커피 한 잔에서 물을 마신다면,

그들은 물 속에서 신을 본다.

물 속에서 보는 사람은 연인이 아닙니다

통찰이 있는 당신이여*!* 자신의 얼굴.

연인의 얼굴이 그분 안에서 소멸할 때

물속에서 그런 사람을 보니*?*

천상의 동반자의 얼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

물에 비친 달의 반사처럼, 사랑에 빠진 공동체를 좋아하지 않는 분의 걸작[8]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람을 싫어하시는 것은 오직 사랑하는 자와 진실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다

이 혐오는 사탄과 가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연인*]*이 되더라도, 내기에서 이길 것입니다

그분은 *[*대천사*]* 가브리엘이 될 것이고, 사탄은 죽을 것입니다.

"사탄이 무슬림이 되었다"는 말이 그곳에서 나타났다

야지드는 그의 친절과 관대함으로 바야지드가 되었다[9].

이 일은 끝이 없어 *[*영원한 보물*]*이여, 오 깨달은 눈과 영혼을 가진 이들이여*!*

---

[8] 진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아름다운 천상의 동반자를 원하지 않으며, 그 아름다움 속에서도 신성한 아름다움을 목격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며, 어떤 공동체와도 순수한 사랑에 있습니다. 영지주의자이자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이므로, 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싫어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바라보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9] 무함마드 예언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사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 다른 사람들처럼 나와 함께 사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그래서 그는 무슬림(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이 되었다"고 말했다. 루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적 전통은 사탄이 회개하더라도, 잔인한 억압자 야지드가 회개하면 바야지드[알-부스타미 – 위대한 성인이자 영지주의자이며 하나님과 가까운 인물]처럼 영지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심하다*!* 그 *[*충격적인*]* 성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해.

조심하다*!* 탐욕에 휩쓸리지 마라

그래서 네가 영원한 저주에 빠지게 만들었어.

모든 사람이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 진심 어린 조언을 들어봐.

편안함을 추구할 때는 머리의 지성이 날카로워지는 것이 더 낫다

예방이 시련의 좁고 어두운 은신처보다 낫다.

그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가 그 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고 부탁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직접 그 성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 자신의 성향은 그런 쪽으로 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은 알려지지 않았고 버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성들과 길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가 그들을 금지했으니, 그 말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다

탐욕에 빠져 생각의 골목에 빠졌다.

이 금지는 그들의 마음속에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그 비밀의 현실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누구야, 멈춘 대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대신 인간은 금지된 것들에 탐욕을 부린다.

경건한 경외심과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금지된 것들을 혐오하게 됩니다

하위 자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금지는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길을 잘못 이끈다"고 말합니다.

깨어난 자들이 그것에 의해 인도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10].

왕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들었고 복종했다'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명령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그들은 "인샬라"(하나님의 뜻이라면)라고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의존했기 때문에 신의 은총은 그들과 분리되었다.

모든 길의 목적은 하나의 집일 뿐입니다

이 수천 개의 곡물은 한 알갱이에서 나왔습니다[11].

다양한 종류의 음식

깊이 들여다보면 모두 하나의 개념입니다.

한 가지 음식에 배가 부를 때

*50*가지 다른 음식 아이템이 당신에게 쓸모없어집니다.

당신의 갈망 속에서, 당신은 한 가지에서 다중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개라고 생각하는 것[12]들.

---

[10] 꾸란은 어두운 마음을 가진 많은 이들이 그것에 의해 오도되고, 깨어나고 지식이 있는 마음을 가진 이들은 꾸란 자체가 증명하듯 그것에 의해 인도받는다.
[11]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도를 위해 카바에 오기 때문에, 그들의 최종 목표는 같아 그들 안에 단합이 있습니다. 수천 개의 곡물이 한 곡물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어 이들 사이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12] 우리 주변에 흩어진 신성한 창조물들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들은 다중성으로 보이지만 유일무이한 창조주, 즉 현실을 볼 내면의 눈이 없는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황제의 아들들은 금지된 것에 대해 탐욕을 부리는 것이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성으로 향한다. 그들은 아버지의 조언을 완전히 무시하고 시련의 구랑에 빠졌으며, 자책하는 자신들은 "선행자가 너희에게 오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울고 부끄러워하며 "우리가 듣고 이해했다면, 지옥의 주민들 사이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주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아들들*]*

*[*금지된*]* 성으로 가는 길을 택했다.

그들은 금지된 나무 근처에 도착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람들의 원에서 나왔다.

존경하는 황제의 명령을 위반하여

그들은 인내심을 무너뜨리고 감각을 뒤흔드는 성으로 향했다.

그들은 조언 지식인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도착했다

그들은 낮에서 어두운 밤으로 돌아섰다.

아름다운 사진들로 가득한 성 쪽으로

다섯 개의 문은 바다를 향했고, 다섯 개의 문은 육지를 향하고 있었다.

다섯 개는 색과 냄새에 대한 외부 감각과 같았다

다섯 명은 진실을 찾는 내면의 감각과 같았[13]다.

수천 장의 사진과 예술 작품 덕분입니다

그들은 기쁘고 충동적으로 *[*예술적 걸작을 연이어 보러 다녔다*]*.

와인잔에 담긴 사진에 취하지 마세요[14]

[13] 다섯 개의 외부 문은 다섯 가지 외부 인간 감각과 같고, 다섯 개의 내부 문은 다섯 가지 내감과 같습니다. 이러한 감각의 영향 아래, 인간은 때때로 지성을 잃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을 통해 성에 들어간 자들은 정신과 지능을 잃었다. 이것이 바로 이 놀라운 성으로 이어지는 문들의 특징이었다.
[14] 외부의 눈에는 보이지만 실체를 알지 못하는 외형과 형태들.

그래서 당신이 외모에만 신경 쓰는 우상 제작자나 숭배자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사진과 형태의 와인잔을 넘어서, 그것들에 멈추지 마세요

와인은 와인잔 안에 있지만 와인 잔에서 나오지 않습니다[15].

이 포도주를 내린 분께 귀를 크게 열어 보라

그래서 거기서 목소리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형상 없는 분은 당신 안에 놀라움을 창조합니다

도구가 없는 사람은 무수한 도구를 만듭니다.

손이 없는 자는 손을 만든다

영혼의 영혼은 인간을 예술가로 만듭니다[16].

영향력자*(*신*)*가 영향력과 닮은 점이 있나요*?*

소리와 울음이 슬픔과 닮았을까요*?*

울음은 형태이고, 슬픔*(*울음을 낳는*)*은 형태가 없다

남자는 손이 없는 슬픔에 손을 깨물었다.

증거의 해설자여, 당신이여*!* 이러한 예시들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두에게 설명하려는 약한 시도일 뿐[17]입니다.

형태 없는 하나의 창조 능력은 형태를 창조한다

---

[15]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러한 외적 형태의 아름다움은 와인 같은 취기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빌려온 것이다. 당신은 진정한 아름다움, 즉 이 형태들에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분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외형의 와인잔 안에는 신성한 아름다움의 와인이 담겨 있습니다. 그 점에 주의를 기울이면 마음에 영적인 깨달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신성한 사랑의 포도주를 찾으면, 우주의 모든 원자가 신의 현현이 되기 때문에 외형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16] [신성한] 존재는 도구와 형태가 없으니, 무수한 형태와 도구를 창조합니다 [우리 주변의 창조물의 형태로]. 육체적인 손을 가진 존재가 무수한 손을 창조했다. 모든 영혼의 영혼이신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 안에 예술가를 창조하셨으며, 따라서 그는 진정한 분이시며, 형태를 가진 모든 것의 기원이자 기원자이다.

[17] 영향력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향력을 주는 우주, 이것들은 단지 몇 가지 예일 뿐입니다. 형태 없는 분은 형상을 가진 수많은 창조물을 창조합니다.

감각과 도구로 몸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몸을 *[좋은]* 상태든 나쁘든 상태로 이끌 수 있죠[18].

만약 그것이 축복의 형태라면, 감사하게 됩니다

축복을 받는 데 지연이 있으면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비와 친절의 형태라면 행복해집니다

슬픔의 형태라면 슬퍼집니다.

도시의 형태라면, 그 방향으로 이동한다

화살의 형태라면 방패를 집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형태라면, 그것을 즐긴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온 형태라면,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필요 형태라면, 생계나 기술을 얻는 데 사용됩니다

만약 그것이 신체적 힘의 형태라면, 그것은 빼앗기고 찬탈하는 행위를 만듭니다.

이는 어떤 한계와 추정도 벗어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생각을 통해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드는 것[19].

수많은 종교와 직업

모두 생각과 아이디어의 형태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한 그룹이 건물 상층에 서 있다

[18] 하나님은 형태와 얼굴을 창조하셔서, 그 내면의 상태와 조화를 이루며 몸에 선하거나 악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19] 수많은 종류의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다양한 인간의 행동, 노력, 그리고 선악을 이끄는 동력과 동력이 되는 것은 어떤 평가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땅에 드리운 그들 한 명의 그림자를 보라[20].

생각의 형태는 높은 상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오는 행동은 마치 그들의 그림자가 사지에 나타나는 것과 같다.

행동은 사지에 있지만, 사지를 움직이는 생각들은 숨겨져 있다

하지만 두 작품은 동시에 그 효과를 끌어내는 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 형태의 결과들

형태가 없는 힘과 힘이다.

이 형상들이 형상 없는 하나에게 종속될 때

왜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거부하는 데 몰두하고 있는가*?*

이 형상들은 형태 없는 하나 덕분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왜 형상을 가진 자가 처음에 존재를 창조한 이를 거부하는가*?*

모든 집의 천장과 벽의 형태

건축가의 사색의 그림자입니다.

비록 그곳이 생각과 사색이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건물의 돌, 나무, 벽돌에서는 뚜렷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절대적 실행자는 분명히 형태가 없다

형태는 그분의 손에 든 도구와 같습니다.

형태 없는 분, 때로는 장막 뒤에서

신의 은혜로 형체를 가진 이들에게 자신을 드러낸[21]다.

---

[20] 생각이 원인이고 행동이 그 원인의 결과임을 이해하기 위해, 건물 상층에 서서 그 아래 바닥에 그림자를 드리운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의 형태는 상위 수준에 위치하며, 행동은 인간의 팔다리에 드리운 그림자와 같습니다.

[21] 신성한 빛이 번개처럼 일부 수용적인 마음에 번쩍인다.

모든 형태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라.

그의 완벽함, 아름다움, 전능한 힘을 통해서.

형상 없는 분이 *[*형상을 가진 모든 이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셨을 때*]*

그 사람들은 자선단체로서 색과 향의 수준으로 떨어졌[22]다.

형체 없는 분을 겸손히 간청하고 울음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존재 안에서 소멸을 통해 찾으라

생각을 통해 형태만 떠오르기 때문이다.

형태 없이 내면의 행복이 없다면

그러면 당신이 인식하는 형태가 당신에게 더 낫습니다[23].

네가 향하는 도시

오 여행자여*!* 당신은 형태 없는 욕망에 의해 그쪽으로 끌립니다.

내면에서는 시간, 장소, 형태가 없는 욕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욕망의 충족에서*]*, 당신이 이 목표를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시간과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이의 주님이십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은 욕망 때문입니다[24].

하지만 일부는 테일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

[22] 신성한 빛이 멈추면,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본질로 돌아갑니다. 완전함은 형태 없는 오직 하나로부터만 얻어진다. 한 형태가 다른 형태로부터 [영적] 완전성을 이루려는 시도는 오해입니다. 단, 하나님께서 인류를 인도하도록 선택한 영지주의자들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태 자체가 필요하다; 다른 형태에 필요를 제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23] 영적 노력 후에 형태 없이 그분을 불러낼 수 없다면, 상상력 없이 그분을 나타내는 어떤 형태든 대안으로 활용하세요. 형태 없이 그분을 불러낼 수 있을 때까지 말이죠.

[24] 앞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욕망이 모든 인간 노력의 목표이며, 모든 길을 걷는 것은 욕망에서 비롯되며, 욕망을 주는 것이 신의 역할임이 증명되었으므로, 신은 모두의 주님이시다.

머리가 진짜이고 모든 것이 달려 있지만 머리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잘못된 길로 이끄는 이에게는 머리를 잃는다

그러나 그는 머리로 주어야 할 것을 꼬리를 통해 주신다.

하나는 머리로, 다른 하나는 꼬리를 통해 부여됩니다

다른 이들은 발과 머리를 모두 잃었다.

모든 것이 사라졌으니, 그들은 모든 것을 찾았다

이 상실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향해 달려갔[25]다.

그 사진으로 가득한 성에서 왕자들은 중국 황제의 딸 사진을 보았고, 모두가 의식을 잃으며 시련과 고난을 겪으며 그 사진이 누구의 것인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일은 끝이 없어요, 이 *[*세 왕자*]*

아름답고 장엄한 사진을 봤어요.

그들은 더 아름다운 것들을 보았다

하지만 *[*그 사진과 함께*]* 그들은 끝없는 사랑의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잔을 통해 아편을 받았기 때문이다

컵은 보였지만 아편은 숨겨져 있었[26]다.

---

[25] 신을 숭배하는 이들과 찾는 이들은 각기 다르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일부는 진정한 목적이 신의 존재(다트)임에도 불구하고 신의 행위에 관심을 돌렸는데, 그것이 진정한 존재이며 우연한 존재의 기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그분의 존재로부터 혜택을 받으며, 그들의 관심도 신성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또 다른 예배자 집단은 진리와 의로운 행동을 통해 진리를 찾고 추구합니다. 이것이 일반 예배자들의 수준입니다. 여기서 '꼬리'는 신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성질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숭배자 집단(더 높은 영성의 단계)은 여기서 '머리'라고 부르는 신성한 특성을 통해 영적 이익을 얻습니다. 이 단계는 [영적] 엘리트들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 상위 영성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 혹은 가장 높은 계층(*꾸란의* '알-와키아' 장(56:10)에서 언급된 '*아스-사*비쿤' 아스-사비쿤)에 속한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존재에만 주의를 기울이며 수단 없이 직접 그분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그들은 신성한 행위나 특성을 목표로 삼지 않고, 대신 신성한 존재를 목표로 삼았고, 따라서 신성한 존재에 도달했다.

[26] 아름다움은 여기서 아편과 닮았다. 여기서 컵은 외형이나 외형을 의미합니다. 형태는 보이지만, 그 아편(매혹적인 영향력)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성은 세 왕자를 고난에 빠뜨리는 역할을 했다.

이 놀라운 성은 제 역할을 다했다

그들을 깊은 고난의 우물에 빠뜨렸다.

아름다움과 스타일의 화살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었다

평화의 은혜자여*!* 이 끝없는 고통에서 우리에게 피난처를 허락해 주소서.

생기 없는 그림이 그들을 내면부터 태웠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과 마음에 불타는 불꽃을 지폈다.

만약 이 영화에 영혼이 있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 고난은 매 순간 다른 종류였을 것이다.

왕자들의 마음속에 그림을 사랑하게 된 이후로

칼에 꽂힌 듯한 아픔을 느꼈다.

모두가 구름처럼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각자 손을 깨물며 "아, 아쉽다*!*"라고 말했다.[27]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황제가 이미 본 것이었다

그 비할 데 없는 책은 우리에게 수많은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우리에 대해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에 따른 모든 결과를 명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뿌리는 것은 가시뿐 아무것도 자라지 않을 거라고

지금 당신이 날아가는 곳에는 날아갈 곳이 없을 거[28]예요.

---

[27] 그들은 그때 보고 경험한 것을 깨닫고 후회로 가득 찼고, 이미 황제가 이 성에 가지 말라고 강력히 꾸짖었다.

[28]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이미 우리에게 낮은 자아(나프스)의 욕망, 열정, 정욕을 따르면 가시(불행, 고통, 고난)만 자랄 뿐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의 방향과 속도는 세속적인 방향으로 향하며, 그 안에는 구원도, 진정한 성공도, 진정한 행복도 없습니다.

내 씨앗을 가져가서 풍성한 수확을 얻으세요

내 날개로 날아가 환난의 화살이 떨어지게 하라[29].

그들을 따라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결국, 당신은 그것이 필요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너"라고 말할 때, 몸은 너지만 "너"는 아니야

대신, 물질 영역 위에 있는 '너'가 진정한 '너'입니다[30].

당신이 생각하는 '너'라는 외면의 '너'

*[*여섯*]* 방향에서 왔지만, 진짜 '너'는 모든 방향 위에 있습니다.

오 진주여*!* 왜 껍데기 때문에 떨고 있어*?*

"당신"을 당신 자신으로 말고, 그 안에 담긴 것을 진짜 "당신"으로 생각하세요[31].

자신을 무지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너"를 이루고 *[*자신 안의 이중성*]*을 넘어가세요[32].

당신의 진짜 '당신'이 겉모습보다 우선해요

경고하고 신성한 가까움에 도달하기 위해 왔다.

당신의 진짜 '당신'은 다른 '당신' 안에 묻혀 있습니다

나는 진짜 '나'를 보는 사람의 노예다.

우리는 아버지의 명령을 제쳐두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끝없는 관대함에 반항하게 되었습니다.

---

[29] 예언자들은 우리가 그들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알려주었는데, 그렇게 하면 무수한 [물질적, 비물질적] 이익이 있으며, 시련과 고난의 화살은 너희를 향해 결코 미치지 못할 것이다.
[30] "당신"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 하나는 당신의 몸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의 영혼입니다. 선지자들을 따르는 것이 유익한 것은 몸의 기능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선 영혼의 기능입니다.
[31] 몸의 끝(죽음)을 보고 떨리게 되는데, 그게 겉모습일 뿐이에요. 진짜 '너'는 껍질 속 진주인 영혼입니다.
[32] 당신의 진정한 '당신', 즉 영혼에 도달하고, 몸을 현실로 여기는 이중성을 멈추세요.

우리는 천황의 조언을 하찮게 여겼다

그리고 그의 비할 데 없는 후원도 함께였다.

우리는 모두 이제 도랑에 빠졌다

우리는 전쟁이 없으면 낙담하고 다쳤습니다.

우리는 지성과 지혜에 의존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겪기 전까지는.

*[*영적*]* 안내자의 그림자가 신성한 기억보다 낫다

한 번의 만족이 수천 가지 식사와 요리보다 낫[33]습니다.

시야는 삼백육십 개의 막대기보다 낫다

이런 눈은 진주와 조약돌을 구별합니다.

슬픔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투쟁*]* 안에 휘말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멋진 사진은 누구의 것인가*?*

그들은 *[*이 내면 상태로*]* 여정을 계속 나아갔고, 많은 고난 끝에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깊은 통찰력을 가진 영적 안내자가 이 비밀을 그들에게 밝혀주었습니다.

안내자는 소문으로 현실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내면의 신성한 깨달음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은 몇 개의 장막을 벗긴다고 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사진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에게도 부러워할 만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공주를 그린 사진입니다.

---

[33] 영적 안내자와 함께하는 것은 진실성과 진실한 목적 의식을 키우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영적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또한 신성한 기억을 효과적으로 하고 영적 여행자에게 만족과 인내를 심어주는 조건이며, 수천 끼의 신성한 기억보다 더 낫습니다.

중국 왕에게는 비할 데 없는 딸이 있다

개인적인 특성, 탁월함, 그리고 외면의 아름다움에서.

그녀는 요정과 영혼처럼 숨겨져 있다

그녀는 성의 은폐된 장막 속에 있다.

남자도 여자도 그녀에게 다가갈 방법이 없다

왕은 그녀를 모든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숨겼다.

누구의 입에서 그녀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왕은 흥분한다

공주가 사는 곳에서는 새조차도 깃털 하나 뒤집을 수 없었다.

그런 사랑을 받는 그 무리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음의 씨앗을 뿌린 자에 대한 벌이다

그리고 건전한 조언은 가짜이고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졌다.

그런 것은 자신의 전략에 달려 있었다

자신의 지성으로 *[*모든 상황*]*을 헤쳐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영적 안내자의 주의의 반 입자가 더 낫습니다

이를 통해 지성의 계획이 *300*배로 보호된다.

오 리더*!* 스스로 계획하지 마세요

집중하며 기꺼이 영혼을 내어주세요[34].

이것은 당신의 지성이 내놓은 몇 가지 심사숙고와 같지 않습니다

[34] 스스로 계획을 내려놓고 영적 안내자의 관심을 받으며 앞으로 나아가세요.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인도 아래 자신의 계획을 없애라(*Fana*)하라. 그의 관심은 제한된 계획보다 훨씬 유익하다.

영적 안내자의 존재 안에서 소멸되지 않는 한, 이러한 숙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 안내자의 존재 안에서 소멸되지 않는 한, 영적 안내자를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소멸을 찾아 영적 안내자의 존재를 이용하세요.

사건을 더 조사하는 세 왕자와 맏형의 대화

이 고난을 겪은 세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고통과 슬픔, 슬픔을 담고 있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사색과 사색의 동반자였다

세 사람 모두 같은 병과 슬픔으로 병들었다.

세 사람 모두 침묵 속에서 같은 생각을 했다

대화 중에 세 사람 모두 같은 논거를 벌였다.

때로는 세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다

환난의 상에서는 피를 뿌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세 가지 모두, 마음의 불길 때문에 그렇다

벽난로의 타는 듯한 숨을 쉬었다.

맏이가 말했다: 오 형제들이여!

서로를 꾸짖는 것이 남자가 아니었나?

우리 영토 백성들 중에서 우리에게 불평하는 자는 누구든

고난, 두려움, 빈곤, 지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제약에 낙담하지 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인내심을 기르세요. 인내심이 확장의 열쇠입니다.

이 인내의 열쇠는 어디로 간 걸까*?*

아쉽게도 놀랍네요*!* 법이 폐지된 것일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는 분쟁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불 속에서도 크게 웃으세요.

우리는 전투에 참여하는 모든 병사들에게 조언을 했다

조심하다*!* 얼굴 색깔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병사들을 지휘했다

창처럼 앞으로 나아가 지배하는 것.

우리는 전 세계에 인내의 행방을 알렸다

인내는 언제나 빛나는 등불과 길잡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차례가 왔을 때 *[*인내심을 발휘하라*]* 어떻게 그렇게 놀랐을까*?*

못생긴 사람들처럼, 우리는 숨는 시트가 되었다.

오 마음이여*!* 모두를 현역으로 만들었죠

지금 스스로 활동적으로 행동하고, 그런 행동을 부끄러워하세요.

혀 좀 마다*!* 당신이 모두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조언한 사람이었죠.

왜 당신이 스스로에게 조언할 차례인데 침묵했나요*?*

오, 지성이여*!* 네 달콤한 조언은 어디 갔어*?*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 *[*그리고 당신의 계획*]*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오, 지성이여*!* 당신은 마음에서 끝없는 고통을 제거하곤 했습니다

네 차례가 왔어, 지금 우리가 겪은 고통을 없애라.

당신이 다른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존재였을 때

손님으로서 고통이 찾아왔을 때, 당신은 침묵했다.

그게 군대에 도전하는 방식이었죠

이제 누가 당신의 도전과 목소리를 붙잡았나요*?*

*50*년 동안 지능으로 엮어온 것들

그 직조에서 나온 옷 중 하나만 입어.

넌 항상 머리였으니, 이제 꼬리를 만들지 마

발, 손, 콧수염, 수염을 잃지 마세요.

체스판 위의 수는 당신의 권리입니다

지금 좋은 기질과 흥분을 가져가 *[*다음 수를 이기기 위해*].*

논거를 마치고 마음의 상태를 밝힌 후, 세 왕자는 사랑하는 이와 목표인 중국 영토로 향하는 대서사시적인 여정을 시작했다. 비록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길이 닫혀 있었지만, 목표에 최대한 가까워지는 것이 여전히 좋았다

세 왕자가 사랑에 의해 무력해진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 사랑은 그들을 크게 굴욕시켰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즉시 진행했습니다

오, 내 친구여*!* 무슨 일이 일어나야 했든 이미 일어났다.

인내심을 갖고 진실한 자들, 하나님의 친밀한 이들 사이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후 중국 도시들을 향해 이동했다.

그들은 부모와 나라를 떠났습니다

숨겨진 사랑하는 이에게 가는 길을 택했다.

이브라힘 아드함처럼, 왕위에서 *[*그들은 상속받을 예정이었다*]*

사랑은 그들을 무력하고 가난하게 만들었다[35].

또는 위대한 예언자 아브라함처럼

그는 스스로 불에 빠졌어.

또는 거룩하고 인내심 있는 이스마엘처럼요

그는 강렬한 사랑과 날카로운 칼날 앞에 머리를 땅에 대었다.

중국의 도시 중에서도 수도인 도시 중의 도시에 머물며 인내심이 바닥나자, 장남은 참을성을 잃고 중국 왕에게 항복하려 했으나, 두 형제가 하지 말라고 조언해도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했다

내 발걸음이 내 목표를 이끌어줄 것이다

아니면 내 머리를 심장처럼 거기에 묻어 *[*이루지 못한 사랑을 위해 내 목숨을 희생하려고*]*.

내 발이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또는 심장처럼, 나는 내 손으로 머리를 숙일 것이다.

연인들을 비난하는 너*!* 이 그룹을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 잘못 인도된 분을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맏이가 말했다*:* 오, 나의 형제들이여*!*

기다림 때문에 내 영혼이 입술에 닿았다.

[35] 이브라힘 빈 아드함은 위대한 성인이자 영지주의자이며 신과 친밀한 인물로, 중앙아시아의 중세 왕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진리,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신성과의 친밀함과 가까움을 찾기 위해 왕국을 떠났습니다. 그의 자기희생은 신성하게 받아들여졌고, 그는 자신이 세운 목적을 달성하여 가장 위대한 영지주의자이자 신의 친밀한 신자 중 한 명이 되었다.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아요, 인내심이 남지 않았어요

이 인내심 때문에 나는 불길 속에 앉아 있는 기분이었다.

이제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은 내 힘을 넘어선 일이다

내 이야기는 연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인생에 지쳤어요.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 있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이 이별의 고통이 나를 얼마나 죽일까*?*

내 머리를 제거해 사랑이 내게 새 머리를 내릴 거[36]야.

내 믿음은 내 사랑 덕분에 살아 있는 거야

이런 삶과 머리를 안고 사는 것은 나에게 모욕이다[37].

몸의 먼지가 제거되면, 내 달이 빛났다

내 영혼의 달은 맑은 물을 마셨[38]다.

내 영혼은 자신이 드레이크라고 주장했다

언제 폭풍과 허리케인에 대해 호소하나요*?*

왜 오리가 배가 부서지고 침몰하는 걸 두려워할까*?*

물 위의 배는 그의 발*(*안전하게 헤엄쳐 나가는*)*입니다.

이 주장이 내 영혼과 몸을 지켜주었다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조용히 있을 수 있을까요*?*

---

[36]하나님(파나*)에서의 소멸 이후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생존 상태(*바카*)가 오는데, 즉 사랑하는 이(하나님)의 사랑과 뜻 속에서 하위 자아의 욕망이 사라지면 끝없는 영원한 생명이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루미는 영적 길과 그 함정, 그리고 성공의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37] 저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삶을 얻고 싶습니다. 물질계의 외적 삶은 저에게 다루기 어렵습니다.

[38] 영혼이 육체적 제약에서 해방된 후, 영혼은 빛을 얻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다른 두 형제는 맏형에게 조언하려 했다

그런 위험성을 모르는 자신을 숨기지 않으려는 것.

상처에 소금을 뿌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들도 사랑에 젖어 있었고, 그 후에는 맏형과 헤어질 것이기 때문에*]*

서두르고 의심 때문에 이 독을 먹지 말라는 것.

인식하는 영적 지도자의 지혜 없이

보는 마음이 없으면 왜 그 길을 걷나요*?*

지성은 개인에게 날개와 같으며, *[*그들이 영적인 경지로 오르도록 돕습니다*]*

지성이 없다면 영적 지도자의 지성을 사용하세요.

*[*두 동생이 맏형을 나무랐다*]* 조심하다*!* 두려움을 안고 이걸 봐

그런 주장을 하거나 행동하지 마세요.

너희는 우리 삶을 괴롭게 만들 거야

오 형제여*!* 누가 당신을 설득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요*?*

길을 모르는 자는 백 년 동안 끊임없이 여행할 수 있다

아무 의미도 없을 거야*!*

무기 없이 전장에 가지 마라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처럼 자신을 파괴에 빠뜨리지 마세요.

그들은 이 모든 말을 했지만, 그 참을성 없는 맏형이 말했다*:*

당신이 방금 말한 것들에 혐오감을 느낍니다.

내 가슴은 벽난로처럼 불꽃으로 가득 차 있어

작물이 준비됐으니 수확할 시간이야.

가슴 속에 인내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없다

강렬한 사랑이 인내를 불꽃으로 대체했다.

이 강렬한 사랑이 시작된 그날 밤, 내 인내심은 사라졌다

죽었지만 생명이 축복받길 바랍니다.

위험에 대해 말하는 너

저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차가운 철을 망치로 두드리지 마세요
*[*소용없으니까요*].*

나는 거꾸로 뒤집혔어, 조심해, 발을 놓아줘

내 몸의 일부 부분에는 이해가 남아 있지 않았을까*?*

내 깃발을 땅에 꽂겠다

목숨을 잃거나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찾게 될 거야.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으로 새로워지지 않는 눈

그런 눈은 차라리 눈이 멀어지는 게 낫다.

형제들이 다시 맏형에게 조언했지만 그가 견디지 못하고, 미친 연인이자 미친 사람으로 왕의 궁정에 가서 사랑의 강도 때문에 허락을 구하는 모습

두 형제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별들처럼 *[*당신의 고난에 대한 해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너한테 불공평했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 네 마음이 아파.

그는 일어나서 말했다*:* 오, 내 자여*!* 작별

이 세계와 그 안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다.

그는 활에서 화살처럼 빠져나왔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통제할 수 없이 중국 왕 앞에 섰다

그는 충동적으로 왕 앞에 있는 땅에 입을 맞췄다.

그의 모든 상태가 왕에게 명백히 드러났다

슬픔의 시작이자 끝, 그리고 그의 망설임.

양들은 목초지에서 분주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셰퍼드는 이 상태를 알고 있다.

"너희 모두가 목동이다"라는 말 때문에 그는 무리 속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풀을 뜯는 동물이고, *[*무리 내 다른 동물들과 싸우는 [39]사람*]*입니다.

그*(*왕*)*는 이 집단의 고통과 고난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신중함 때문에 그는 침묵을 지키며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을 밝히지 않았다.

그 존경받는 분은 그들의 영혼 사이에 있었다

하지만 일부러 자신을 바보로 만들었죠.

불의 형태는 냄비 아래에 있습니다

불의 내면 현실은 그 냄비 안에 있다.

그 형태는 외부에 있지만, 내면의 현실은 내부에 있습니다

연인의 내면 현실, 즉 영혼은 피처럼 혈관 속에 흐르고 [40]있습니다.

---

[39] 맏형과 왕의 상태는 양과 그 목동의 모습과 같았는데, 양치기는 일에 바쁘게 움직이지만 목자는 그것을 면밀히 지키며 조금도 방치하지 않았다. 무함마드 선지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목자이며, 심판의 날에 자신의 무리(신하들과 그들의 복지와 돌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심문받고 책임을 질 것입니다." 목동은 무리 중 누가 풀을 뜯고 있고 누가 싸우는지 인지합니다.

[40] 소울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아. 몸과는 별개이지만, 그 영향은 혈관 순환처럼 정맥에 있습니다.

왕자는 공손히 왕 앞에 앉았다

소개자는 왕자를 왕에게 소개하려던 참이었다.

왕이 이전에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하지만 소개자는 여전히 소개할 수 있게 했다.

내면 존재 안의 그노시스를 조명하는 입자

오, 존경하는 이여! 백 명의 소개자보다 낫[41]다.

소개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야

이는 가려져 있고 추측하는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마음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

그런 눈은 면밀히 살펴볼 [42]것이다.

그런 소식은 전해지는 소식과 맞서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확신은 마음의 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소개하는 인사가 언급되었다

왕자의 상태.

그가 말했다: 폐하! 그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가 모든 희망을 당신에게 걸었으니, 당신의 명예에 걸맞은 왕실 대접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가 너와 연관되어 있었어

그가 괴로워하는 상태에서 그의 머리에 친절한 손을 얹어 주세요.

---

[41] 마음속에 영지의 작은 조각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가져오는 영적 드러남(*카슈프*)은 소개자나 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42]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현실을 인식하고 문제의 진상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왕은 말했다: 어떤 위치와 땅이든

그가 요청했으니 나한테서 받을 거야.

그가 떠난 나라를 스무 배는 허락하겠다

그걸 인정하고 그 위에 저의 친절도 더해져요.

소개자는 말했다: 당신의 위엄이 그에게 강렬한 사랑의 씨앗을 심은 이후로

당신을 원한다는 것 말고, 그에게 남은 욕망이 또 뭐가 있겠어요?[43]

노예 상태는 그에게 너무나 적합했어

지배하려는 욕망이 그의 마음에서 사라진다.

그는 왕족과 왕자의 삶을 잃었다

당신을 위해 그는 여행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적 황홀경에 빠져 누더기를 벗어던진 수피

그가 또 다른 잡지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어디인가?[44]

연인으로서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머리에 먼지를 뿌려야 한다.

육체를 숭배하는 이들에게 땅의 지배권은 허용된다

우리는 사랑의 무한한 지배의 노예입니다.[45]

그는 사랑의 지위를 지키는 사람이니, 제발 그를 밀어내지 마세요

---

[43] 왕자는 부와 권력, 지배 등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난을 받아들였고, 그의 마음에는 오직 당신에 대한 욕망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이것은 물질적 이익이나 손실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자신의 운명을 진심으로 연관시키는 노예의 사랑에 관한 비유입니다.

[44] 왕자는 자신의 왕국을 떠났으며, 이곳에서는 이를 '수피' 라그에 비유합니다. 한 번 버리면 절대 돌려받지 않을 것이다. 한 걸레를 버리고 나중에 후회하며, 다른 사람의 걸레를 받아들이고 열심히 바라는 것은 영적 황홀경을 위해 헝겊을 잃는 것을 손실로 여기는 것과 같다. 이 영적 황홀경(*와즈드*)은 값을 매길 수 없으며,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45] 연인들은 신성한 사랑의 무한한 지배를 원합니다.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를 바쁘게 하지 마세요.

왕자는 내면의 혀로 말하고 있다: 네 시야에서 나를 막는 그 자리

사실상 진술 행위이며, 이름만 있는 직책입니다.

그가 너에게 오는 데 늦은 이유

그것은 *[*영적*]* 능력의 부족과 몸의 약함이었습니다.

준비 없이 광산에 간다면

단 한 입자도 잡을 수 없을 거야.

그런 것은 기름과 심지 없는 등불과 같을 것입니다

그 빛은 작지도 크지도 않을 것입니다.

마치 바다 속 땅에서 온 새 같아요

상실과 파괴 외에 무엇을 발견할까요*?*[46]

마치 밀을 갈지 못한 제분소에 도착한 사람과 같다

수염과 머리카락이 먼지투성이에 흰머리가 생기는 것 외에는 보상이 없을 거예요.

밀이 없는 자들, 하늘의 분쇄소

머리카락의 희색과 허리의 약함을 전해줘.

하지만 밀을 가진 이들을 위해, 이 제분소는

지배권, 신성한 일, 왕권의 전달자가 된다[47].

---

[46]소개자는 왕자에게 왕자가 당신의 앞에 오지 않은 것이 사랑의 강도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영적 능력을 키우는 데 바빴고, 게다가 약했다. 그 상태에서는 영적 이익(*파이드*)을 얻을 수 없었고, 육체적 엄격함과 힘이 필요한 봉사를 수행할 수도 없었다. 영적 능력이 생기지 않는 한, 그리고 그 노력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영적 여행자는 영적 길로 나아가 궁극적으로 신성한 임재 안에 있기 위해 영적 능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이 역시 신성한 현존 속에서 영지(Gnosis) 상태, 즉 신성과의 친밀함 상태에 있어야 할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47] 영적 능력이 없는 영적 여행자나 영적 길을 걷는 초보자가 영적 지도자를 찾아간다면, 이는 밀이 없는 방앗간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먼지로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때 돌아올 거예요. 영적 능력이

이 일에는 끝이 없으니 찾지 마세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얻으세요.

그는 능력에 도달하기를 기다렸다가 당신에게 다가왔다

그의 열망은 *[*당신의 비전*]*을 넘어섰지만, 그 역량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능력도 왕을 통해 얻어진다고 말했다

영혼이 없으면 몸은 언제 능력을 갖게 될까요*?*[48]

왕의 친절이 그의 슬픔을 접어 주었다

그는 왕을 사냥하러 왔지만 결국 쫓기고 말았다.

네 함정에 빠져서 쫓기게 됐어

먹잇감을 잡지 못함으로써, 그 자신도 먹잇감이 되었다.

분명히 부를 갈망하는 사람

먼저 그걸 통해 감옥에 갇히세요[49].

세상의 얼굴에 있는 표식을 겉보기와는 반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노예의 이름은 '세상의 주인'이라 불린다.

오, 이해가 부족하고 반대되는 방향을 가진 몸이여*!*

당신은 수백만 명의 자유로운 영혼들을 가두었습니다[50].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 들고, 희끗희끗해지고, 약해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천상의 분쇄소는 올바른 믿음과 의로운 행동의 밀을 가진 자에게만 이익이 됩니다.

[48] 소개자는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너와 떨어져 있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키우려고 했기 때문이다.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는 당신에 대한 사랑의 강렬함 때문에 강요되고 무력해졌다. 그는 이제 능력의 획득이 왕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완전한 능력의 획득은 영혼이 몸에 들어온 후에 일어나며, 이것이 바로 당신(즉, 왕)이 부여할 것입니다. 분명히, 당신을 사냥하려는 자는 결국 자신도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9] 사랑하는 것의 규칙은 인간이 그것을 얻는 대신 먼저 사랑하는 것에 자신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들을 겉보기와는 반대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의 포로인 자는 세상의 부자라 불린다.

[50] 육체는 수백만 명의 자유로운 영혼들을 가두었다.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모든 핑계는 잠시 접어두세요

죽기 전에 몇 시간 동안 자유로운 삶을 살라.

오, 참견꾼*!* 혼자 있고 싶어요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다른 사람을 찾아[51].

중국 왕이 외국 왕자에게 영예를 수여하다

결과적으로 왕은 그에게 현상금을 내주곤 했다

그 태양 속에서 그는 달처럼 녹아내렸다.

연인들의 감정은 더욱 커진다

마치 환원의 위상을 가진 달처럼 신선함 속에서.

모든 병든 희망은 약을 얻는다

이 병든 이들은 *[*신성한 사랑으로*]* 이 병이 더 심해지도록 기도합니다.

모든 환자가 회복을 위한 약을 찾고 있으며, 이 약은

더 많은 슬픔과 고통, 그리고 울음을 추구합니다 *[*신성에 대한 강렬한 사랑에서*].*

이 술보다 더 좋은 독은 본 적이 없어

이 병보다 건강이 더 좋은 건 없을 거예요.

그는 그렇게 왕 앞에 서 있었다

마음은 불타버렸고, 영혼은 *[*왕에게 바쳐질 접시*]* 위에 올려졌다.

그는 왕이 딸을 원한다고 표현한 자의 목을 베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왕 때문에 매 순간 희생되고 있어.

[51] 루미는 자신의 죽음을 정확히 예측하고 예언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유(이 세상에서의 죽음)의 시간이 왔다. 날 해방시키고 다른 사람을 찾아 감옥에 가두세요.

사랑의 밭에서는 두 발만으로는 달릴 수 없다

사랑이라는 체스판 위에서는 한 개의 머리만으로는 수가 될 수 없다.

모두가 두 발과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발과 머리가 있는 시체가 불타버렸다.

이 사랑의 목적은 끝이 없으니까요

이 사랑의 열기의 강렬함 앞에서는 지옥의 열기가 아무것도 아니다[52].

지옥의 선언, 그 위에 가늘고 날카로운 다리가 있어 모두가 그 위를 걸어 영원한 거처에 도달할 것이라는 이야기, 믿는 이에게 서둘러 그 다리를 빠르게 넘으라고 하며, 믿는 자의 광대한 빛이 그것을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과 그 진술, "오 믿는 자여! 나를 지나쳐! 진실로, 당신의 빛이 내 불을 껐습니다."

오, 존경하는 이여*!* 그래서 믿는 자의 깨달음이

지옥을 약해지고 꺼버리게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 존경하는 이여*!* 빨리 지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신성한 사랑의 불꽃*]*이 내 불을 꺼버릴 것입니다.

불신은 *[*세속 생활에서의 추악한 행위로 나타난다*]*는 지옥의 화약일 뿐이다

신자의 내면의 빛에 의해 꺼지는 모습을 보라*(*세속적 체류에서 고귀한 행위로 나타난다*).*

화약을 신속히 *[*영적 가이드나 완성된 안내자에게 넘기세요*]*

[52] 왕자는 말했다: 나는 이미 이 사랑을 얻기 위해 내 재산과 머리를 희생했다. 하층 자아(파나)로부터 자아와 욕망이 소멸되고 소멸된 후, 신의 존재(*바카*)를 통해 생존에 이른다. 평범한 사람들은 두 발과 머리만 있어서 신성한 사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을 빼앗깁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즉,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은 두 발과 머리가 사라질 때(즉, 생명이 끝날 때) 끝나는 소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즉, 신성한 사랑)에 대한 소란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집니다. 이 사랑의 최종 결말과 목적지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무한하며, 영원하기 때문에, 이 진정한 사랑의 열기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강렬하며, 견딜 수 없는 강렬함으로 알려진 지옥의 열기조차도 압도한다.

그러니 지옥은 너나 그 불꽃들을 짓밟지 못할 [53]거야.

그런 자가 하늘에 묻는다: 바람처럼 나를 지나가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것이 위조품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농지의 소유자이고, 나는 그 곡식을 따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상일 뿐이고, 너희는 중국의 영토야[54].

오 신봉자여, 당신과 함께하오! 지옥은 두려움에 빠져 있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너와 평화롭지 않아, 이것도 저것도 마찬가지야.

세 왕자 중 장남이 사망하고 둘째 형제가 왕의 동료를 받아들였다

그는 치료를 받을 시간을 찾지 못해 생을 마감했다

인내는 너무나도 쇠약하게 만들었고, 그의 영혼은 그것을 견딜 수 없었[55]다.

오랫동안 그는 두려움에 떨며 그것을 견뎌냈다

삶은 목적과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끝났[56]다.

사랑하는 이의 얼굴이 그에게서 사라졌다

그는 죽었고, 사랑하는 이의 내면 현실의 동반자가 되었다[57].

---

53 심판의 날에 지옥을 지나칠 때 지옥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 화약(부정적이고 악하며, 추악한 성향과 성향, 더러운 행위로 이어지는 것)을 내면에서 제거하세요. 이 총력 재료를 내면 깊은 곳에서 완성된 인간, 영적 안내자, 영지주의자, 신성한 사랑의 소유자에게 건네줘, 그래야 지옥의 불과 분노를 끌어당기는 영혼 속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하라. 인간은 자신의 저주와 구원의 씨앗을 내면에 품고 있습니다. 영원한 슬픔과 고통의 형태로 된 저주와,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승리의 형태로 된 구원.

54 신자이자 진실한 신성한 연인의 고귀함과 지위는 하늘보다도 높으며, 그런 이의 마음은 신성한 존재가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천국에는 이런 특성이 없기 때문에, 지위가 낮은 자는 더 높은 신분에 대해 수줍음을 느낀다. 요컨대, 신자는 영적 지위에서 천국과 지옥보다 더 높다.

55 맏형이자 왕자는 사랑하는 이를 만날 방법을 찾지 못했고, 그 상태로 생을 마감했으며, 그는 이별을 견딜 수 없었고 목표를 향해 끈질기게 노력할 인내심도 유지하지 못했다.

56 오랫동안 그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결국 사랑하는 이를 만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났다.

57 신성한 사랑의 화현이었던 사랑하는 이는 그의 죽음과 함께 시야에서 사라졌고, 그 현현에 드러난 신성한 아름다움과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그는 더 이상 신성한 아름다움과 신성한 실재를 창조물 안에서 볼 필요가 없었고, 어떤 장막이나 분리 없이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는 말했다: 사랑하는 이의 옷이 비단으로 만들어졌음에도

장막과 분리 없이 신성한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나는 육체를 잃었고, 육체는 *[*세속적인*]* 사랑하는 이의 생각을 잃었다

이제 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진짜 만나는 길을 꾸준하고 부드럽게 걷고 있어.

이 논쟁들은 지금까지만 언급할 것이다

그 이후에 올 일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58]한다.

말과 고삐 경주는 강까지 이어집니다

그 후에는 나무로 만든 놀이기구가 됩니다.

나무 놀이기구*(*보트*)*는 육지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특히 강을 좋아하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이 침묵이 나무 놀이기구입니다

신성한 사랑의 바다 사람들에게는 침묵이 요구되어 왔습니다[59].

당신을 화나게 하는 침묵

*[*신성한*]* 사랑의 구호를 내세웁니다.

저는 그 슬로건 소음 때문에 귀가 멀었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세속적인 문제에 대해 예민한 청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귀가 멀다.

한 사람이 꿈속에서 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수만 번의 강연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

[58] 이 정도만이 대화에서 말로 표현될 수 있으며,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진정한 사랑받는 분(하나님, 존귀하신 분)과의 만남이며, 그것은 오직 경험적인 것일 뿐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59] 말하는 사람들(평신도)은 내면의 영적 상태를 설명할 수 없으며, 이는 오직 내면의 영적 상태의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육지에서 쓸모없는 배처럼 말이다. 침묵은 내면 영적 상태의 사람들에게는 말이 나오며, 그들이 이 내적 상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신성한 사랑의 슬로건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첫 번째 사람 바로 옆에 앉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사람은 잠들어 있고, 첫 번째가 듣는 소리와 비명 때문에 귀가 멀어집니다[60].

나무 놀이기구*(*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전복된 사람

물속에 가라앉아 물고기가 되었다[61].

결과적으로 *[*장남*]* 왕자가 세상을 떠났다

그가 떠날 때 그의 영혼은 고통스럽고 슬프고 따뜻했다[62].

둘째 형은 장남의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막내 동생은 병으로 누워 있었고, 왕이 둘째 형에게 후하게 하사했고, 왕의 눈을 통해 수십만 안외의 재산을 얻었다

막내는 아팠고, 중간 아이는 아팠다

방금 맏형 장례식에 왔어.

왕은 그를 보고 일부러 물었다*:* 저 사람은 누구냐*?*

그가 같은 바다에 속했고 역시 물고기이기 때문이다.

소개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 형은 죽은 형보다 어리다.

왕은 관대하게 그에게 *[*후대함*]*을 주며 말했다*:* 당신은 독특하다

그는 후한 것으로 그를 착취했다.

그 독특한 왕의 기분 때문입니다

---

[60] 세속적인 삶에 빠진 사람들은 내면의 영적 상태를 가진 자가 경험하는 신성한 사랑의 소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귀를 닫습니다. 이 비유는 꿈에서 많은 것을 듣지만 옆에 앉은 사람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61] 지금까지는 진정한 내면의 영적 경험을 가진 사람(*다우크(Dhawq)*이나 *자우크(Zauq)*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신성한 존재(*파나*)에 의해 소멸되어 깊이 몰입한 자는 내면의 경험 역시 소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 존재는 이 끝없는 바다의 깊고 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와 같아서 배가 필요 없어요.

[62] 맏형의 상태를 요약하자면, 그는 [이루지 못한] 사랑의 고통과 슬픔을 안고 이 세상을 떠났다.

그는 그에게서 다른 삶 외의 삶을 보았다.

그는 마음속에 웅장한 소리와 흥분을 보았다

수피가 수백 번의 영적 노력에서도 찾기 힘든 것[63]이죠.

그는 마음속에 *[*영지와 신성한 친밀함*]*의 장엄한 세계를 발견했다.

영적 노력을 위해 백 번의 고독을 거쳐도 그것은 달성할 수 없습니다.

들판, 성벽, 산, 바위들이 찬란하게 빛났다

그 앞에서는 마치 잘 익은 석류가 갈라진 듯했다.

그 앞의 모든 입자는 태양과 같았다

매 순간, 백 가지 방식으로 영적인 열쇠를 제공하곤 했습니다.

문은 때로는 열리는 공간, 때로는 빛줄기 같았다

먼지가 때로는 밀이 되었고, 때로는 큰 영양분이 되었다.

눈앞의 천국*(*하늘*)*은 마치 오래된 말라버린 고기 같았다

그의 눈앞에는 항상 새로운 창조물이 있었[64]다.

아름다운 영혼이 *[*몸의 감옥*]* 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의 운명을 가진 그것에는 눈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온 수십만 가지의 것들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

[63] 왕의 영적 관심으로 둘째 형의 마음에 집중하자, 그의 내면 상태는 극적으로 변했고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이 생겼다. 그는 *수피*(영적 길에서 노력하는 자)가 수백 번의 영적 엄격함과 노력(주로 오랜 시간 은둔하며 신성한 기억과 묵상을 하는 것)에서도 찾기 힘든 신성한 사랑에 대한 흥분과 활력을 마음속에서 보았다

[64] 신성한 빛의 풍부함으로 인해 온 세상이 빛나고 영적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모든 것이 신성한 성질과 완전함의 현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입자는 영적 계시(카슈프)의 원천이 되었고, 지식과 내면의 영적 의미가 문과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 지식의 문은 때로는 지식의 원천이 되었고, 때로는 지식 그 자체가 되었다. 이제 물질적인 물질적 영역(*'알람 알-나수트*)은 천사들의 영역('알람 알-말라쿠트*) 만큼이나 무가치하게 여겨졌*다.

비밀을 아는 이들의 눈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그가 보았다.

책에서 읽은 모든 것을

그는 그들의 내면 현실을 바라보았다.

그 위대한 왕의 행렬의 먼지 속에서

그는 시야를 맑게 하고 시야를 향상시키는 콜을 찾았다.

그는 그런 정원에서 옷을 끌고 다니곤 했다

그의 온몸의 섬유가 울부짖으며 "더 있나*?*"라고 외쳤다.

꽃으로 자란 정원이 끝나다

마음에서 자라는 정원은 영원히 지속됩니다[65].

우리는 한두 송이 꽃다발에 너무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정원의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66].

이런 열쇠는 항상 빵과 맞바꾸는 거야

아, 오 내 영혼이여*!* 손가락에서 떨어지고 있어.

한동안 빵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된다면

옷, 육체적 사랑, 여성에 집착하게 되죠.

욕망이 당신 안에 올라올 때

---

[65] 둘째 왕자의 영적 계시는 놀라거나 놀라워할 일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영혼이 육체의 감금에서 해방될 때, 이는 지속적인 영적 투쟁(*무자하다*)으로 해방되거나, 저급한 하위 자아를 제압하는 것(*나프스*)으로서, 완성된 영적 지도자(*샤이크 알-카말*)와 함께 지내는 어떤 형태로든 모든 종류의 영적 계시를 얻는다. 군주는 완벽한 영적 지도자에 대한 우화인 왕과의 교류를 통해 이 고귀한 내적 상태에 도달했으며, 이는 자신의 존재 내면 핵심에 거대한 영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이 있다. 왕자는 모든 내면의 지식의 정원을 거닐며 영적 길을 이룬 다른 이들처럼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물질적 지식은 그노시스(마리파)의 정원에서 나온 몇 개의 꽃다발에 불과 *합니다.*

[66] 우리는 현실과 영적 영역에 대한 지식에 대해 무지하게 되어 물질적 지식에 매료되었습니다.

나라 전체와 도시가 여자들과 빵으로 가득하길 원[67]하지.

너는 한때 뱀이었지만, 아마 지금은 용이 되었을지도 몰라

너는 한때 한 머리 뱀이었는데, 이제는 일곱 머리가 됐어.

일곱 머리 용은 지옥이다

당신의 탐욕은 곡물과 같고, 지옥은 당신을 위한 함정 같은 그물 설치와 같습니다.

그물을 찢고 곡식을 태워라.

이 집의 새 문을 열어라[68].

오, 뻔뻔한 거지여! 넌 연인이 아니니까

당신은 산처럼 알 수 없는 소리를 가지고 있[69]어요.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개혁한다면

신의 응징이 당신 앞에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두 세계(이 세계와 다음 세계)에서 주인이자 판단자가 됩니다.

영원한 왕국이 당신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틀 정도의 시간, 빌려 쓴 시간, 삶의 병들로 가득 찬 게 아니야.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너는 스스로 왕이 되어 스스로 나팔을 불게 될 [70]것이다.

---

67 배가 가득 차면 사적인 부위의 욕망에 매료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탐욕이 더 커져, 부와 수단으로 가득 찬 나라와 도시를 쫓아 끝이 없는 욕망과 탐욕을 채우려 한다.

68 가로잡기 위한 곡식과 그물처럼 탐욕과 정망에서 벗어나세요. 그래야만 깊은 내면의 영적 의미와 신성한 지식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69 만약 그런 신성한 지식과 함께 오는 신성한 사랑이 없다면, 당신은 소리를 튕겨내는 산과 같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이 상태에서의 물질적 지식은 산에서 튕겨 나온 소리와 같습니다.

70 신의 벌이 분노와 함께 당신 앞에 닥쳤을 때, 회개하고 속죄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신의 응징이 숨겨져 있었고 못했을 때 자신을 개혁하고 바로잡는다면, 그 사람은 왕과 같아 아무도 그런 왕을 귀찮게 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까지 존재할 때, 영원한 왕국을 얻게 되고, 노예 생활을 그만두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입과 목의 맛과 쾌락은 우리에게 치명적입니다. 신의 응징 시기에는

목이 우리를 조여 죽게 만들 때

슬프게 도*!* 목과 입은 먼지를 먹는다.

이 입은 먼지를 먹는 자다

하지만 그 먼지는 이제 다채롭게 변해 있었다.

이 카밥, 와인, 설탕

오, 아이야*!* 그저 다채롭고 장식된 먼지일 뿐이다.

네가 먹고 나서 그게 네 살과 피가 되었을 때

살의 색을 얻었고, 그것도 골목의 먼지입니다.

지구의 색칠은 먼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먼지가 됩니다[71].

인도인, 킵차키 터키인, 로마인, 에티오피아인

그들의 무덤 안에서도 같은 색이 되세요.

모든 색과 자국이

베일, 속임수, 빌린 것들.

왜냐하면 오직 오직 하나님의 색만이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소 속 동물에게*]* 종처럼 묶여 있다고 생각[72]하세요.

후회하며 차라리 먼지를 먹고 싶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먹는 모든 음식, 맛있는 것들까지도 모두 색으로 덮인 먼지일 뿐이며, 세상의 모든 진미는 색칠되고 장식된 먼지입니다.

[71] 처음에는 이 먼지가 음식과 과일의 색을 띠었고, 그 후 먹혀 살과 피의 형태로 몸의 일부가 되었고, 결국 그 살과 피는 땅의 먼지가 된다. 몸 자체가 먼지로 영양을 얻고, 결국 무덤에 도착하면 다시 먼지가 된다.

[72] 인간은 어디 출신이든, 덧없는 지상 생활 동안 피부색이 어떻든 죽은 후에는 같은 색의 먼지가 됩니다. 모두에게 같은 결말을 주는 목적은 피부색, 인종, 문화, 국가의 차이가 모두 일시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실제로 인간의 기원과 최종 종말은 동일하다. 영원히 남는 것은 이 덧없는 지상 존재에서 의로운 행위를 통해 얻는 하나님의 색깔뿐입니다. "킵차크"는 유라시아 사막으로, 일부 유목 터키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축이나 가축에 묶인 종은 그 종의 소유가 아니라 빌린 물건입니다.

진리의 색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신의 확신의 색

하나님의 종들과 예배자들 곁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의심, 불신, 위선의 색깔

불순종하는 영혼 위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교활한 파라오와 그의 어두운 악행 같은 거야

그들의 색은 남아 있지만, 몸은 사라졌다.

진실한 이들의 아름다운 얼굴에 비친 장엄함과 빛남

몸이 사라졌어도 심판의 날까지 버틸 것이다.

하나님은 먼지에 색깔, 기술, 유머를 주시고

그들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는 이들은 유치한 기질을 가진다.

밀가루로 만든 낙타와 사자 모양의 빵을 구워 구운다

아이들은 탐욕스럽게 그것들을 핥는다.

사자와 낙타는 입 안의 빵이 된다

이것은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아이들처럼, 우리는 먼지로 가득 채워졌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수단과 수단을 채택하려는 시도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어리석음, 추측, 의심에 빠져 있다

신께 감사드리며, 아이는 신체적 힘이 거의 없다[73].

[73] 만약 누군가가 어린 아이들에게 밀가루로 만든 낙타와 사자가 진짜 낙타와 사자가 아니라고 설명하려 한다면,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아이들처럼 먼지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후회는 노년과 노년을 견디는 아이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들은 절뚝거리는 개미들이며,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백 번의 싸움과 다툼을 겪는다

신께 감사드리며, 아이는 전략도 무기도 없고 *[*따라서 누구에게도 실질적인 해를 끼칠 수 없다*]*.

후회는 무례하고 예의 없는 아이들이 성인이 된 어른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들이 가진 힘과 통제력 때문에 지켜보는 모두에게 고통의 원천이 되었고, *[*실제로 해를 끼치고 세상을 무력화시키는 갈등을 조장한다*]*[74].

무지와 무기가 결합될 때

폭정과 억압으로 인해 세상을 파괴하는 파라오가 됩니다.

불쌍한 사람*!* 이 부족한 부의 부족함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이 당신을 억압과 불신에서 구해준 것이라고.

억압받는 존재이지 억압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당신은 폭정과 모든 악의 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빈속이 신격을 주장하지 못했다

이 불꽃은 연료에 의해 도우려지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강도가 증가한다*]*.

빈 배는 사탄의 감옥이다

빵을 찾는 걱정이 교활함과 속임수를 막기 때문이다.

과일이 오래되었다면, 날것이 될 때까지 보관합니다

[74] 아이의 무지와 어리석음은 해롭지 않습니다. 아이는 힘과 힘이 많지 않고, 만약 싸움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작은 싸움일 뿐 실질적인 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어른 어른들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절뚝거리는 개미들이며, [사회정치적] 권력과 부를 지니고 있으며, 그들의 무지는 우리 주변과 세상에 막대한 피해와 파괴를 초래합니다.

나무에 오래 머물러도 익지 않다고 불립니다.

그 원초의 *[*사람*]*이 백 살이 되더라도

이해심 많은 사람에게는 아이이고 생생한 상태입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이 희끗희끗해져도

한 명은 여전히 같은 어린 시절, 두려움과 희망 속에 있다[75].

이 물질계 위의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다

요약의 요약이며, 신성한 것입니다.

*[*아우터*]* 형상은 그림자이고, 내면의 의미는 *[*빛이 태양을 내비치는 것처럼*]*

그림자 없는 빛은 오직 버려진 곳에서만 발견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벽돌 위에 벽돌이 쌓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에게는 나쁜 그림자가 전혀 남지 않았다.

벽돌은 금으로 만들어졌지만 제거되어야 합니다

벽돌 대신 *[*영적*]* 계시와 깨달음이 있습니다[76].

---

[75] 세속적인 물질주의자들의 노년은 그들을 어린 시절(미성숙함과 무지)에서 끌어내지 못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이가 들어서도 [성숙함, 신중함, 지혜, 그리고 삶의 진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면에서] 똑똑해지지 못하면, 머리카락이 나이로 희끗희끗해져도 그 유치한 행동 때문에 여전히 아이로 남는다. 두려움과 희망은 두 종류의 사람에게 속합니다: 첫째, 신성한 법의 목적은 영적으로 완성된 자들입니다. 현실은 신성한 법을 준수하고 그 명령과 금지를 성실히 지키면서, 자신의 선행이 신성한 인정을 받을 만큼 작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의 자비를 주시하며 신의 수용 후보로 남아야 합니다. 그 비유는 마치 땅을 경작하고 씨앗을 뿌리고 신의 자비로 비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의 두 번째 인격은 유치한 사람으로, 아무런 일(의로운 행위)을 하지 않고 수확을 위한 경작이라는 신의 자비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실 오만과 속임수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유치적 두려움과 희망에 관한 또 다른 비유는, 하나님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행위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며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이것은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과 희망이며, 단지 유치한 행동일 뿐입니다.

[76] 모든 행동의 요약은 영적 길(*타리카*)에서의 투쟁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시면(*자드브* 또는 *자즈브*), 신 안에서 멸망(*파나*)을 이루고, 그 후 하나님 안에서 생존(*바카*)을 얻게 됩니다. 몸의 외형이나 행동은 그림자와 같고, 그 행동의 영적 의미는 태양처럼 빛납니다. 사람은 하나님(*파나*)에서 소멸에 이르며, 즉 하위 자아(나프스)의 욕망과 특성을 제거할 때 그림자 없는 깨달음에 도달한다. 인간의 성향, 약점, 낮은 자아의 벽돌 그림자가 제거되면, 영적 빛은 더 이상 그림자에 의해

시내산은 그림자를 제거하기 위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신성한 빛을 위해 조각조각 나누는 것은 작은 일이다.

하나님의 빛이 산의 외곽 *[*시내산*]* 외곽에 내려앉았을 때,

그 나무는 갈라져 하나님의 빛도 그 안으로 닿을 수 있게 했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이 빵을 손에 넣을 때

탐욕 때문에 입을 벌리고 눈을 크게 뜨는 [77]것.

시나이산은 수십만 조각으로 쪼개기에 적합하다

오 지구여*!* 천국 사이에서 벗어나세요.

그래서 천상의 빛이 그림자를 태워버리게 하라.

오, 오 오늘의 적이여*!* 밤이 있는 건 네 그림자 때문이야.

이 땅은 아이를 키우기 위한 곳이야

어른들에게는 좁은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아이들을 일으킬 것이라고 정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아이들을 위해 우유를 날렸[78]다.

요람이 너무 많아 집이 좁아졌습니다

가려지지 않습니다. 벽돌을 제거할 때 조명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이 벽돌들을 제거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77]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이 빵 한 덩어리를 집어 입을 크게 벌리고 급히 큰 한 입씩 먹을 때. 이집트 시내산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언자 모세(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께 있기를)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신성한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셨고, 하나님은 "너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신성한 빛 중 단 한 번의 빛을 시내산에 보여주셨고, 그 빛은 산산조각 났으며 모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78] 인간의 몸은 지구와 같아서 그림자가 생기고 태양빛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밤이 찾아옵니다. 몸과 물질 세계는 세상 물유(물질주의)의 사람들에게는 요람이며, 그들은 아이들과 같으며, 그 요람은 성인 어른에게는 너무 작다. 따라서 영적으로 완성된 사람들은 세속적인 삶에서 제약과 좁음을 느낍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물질적·육체적 존재에 집착하는 이 아이들에게 땅은 여기서 '우유'라고 부르는 물질적 이익을 제공합니다.

오 신이시여*!* 이 아이들을 빨리 어른으로 만들어 주세요.

조심하라, 요람아*!* 공간을 좁고 좁게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어른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아이를 키우기 위한 집을 답답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어른들이 확장성을 찾을 수 있도록요.

제2왕자가 자립하고 싶다는 감각과 영적 계시로 인해 생긴 은근한 생각은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 했고, 왕에게 배은망덕하게 행동했다. 왕은 마음의 계시를 통해 이를 알게 되었고, 그 마음은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상처받아 왕자는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사고팔지 않고 영구적으로 사라졌을 때

왕자의 영혼을 위한 대가로 왕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는 왕의 영혼에서 빛을 받아 영적 영양을 얻곤 했습니다.

그의 영혼의 달, 태양에서 빛을 받는 달처럼.

모범 없는 왕으로부터, 영적 임금이

항상 그의 영혼에 닿았다.

평범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사들이 먹는 영양분이었다.

왕자는 *[*잘못하게*]* 자신 안에 독립과 자급자족을 보았다 *[*왕으로부터 *]*

이 독립은 *[*왕에게서*]*의 반란을 불러일으켰다.

즉, 나는 나만의 권리로 왕과 왕자가 아닌가*?*

왜 내가 이 왕에게 *[*내 인생을*]* 맡겼는가*?*[79]

[79] 둘째 왕자는 왕(완성된 영적 안내자)으로부터 영적 은혜와 축복을 받곤 했는데, 마치 달이 태양에서 빛을

내 밝은 달이 수평선에 떠올랐을 때

그렇다면 왜 내가 먼지에 굴복해야 하는가*?*

내 시냇물에는 물이 있고, 이제 *[*내가 누구인지*]* 자랑스러워할 때입니다.

이제 독립했는데, 왜 남의 자존심을 참아야 하죠*?*

두통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왜 머리에 밴드를 감아야 하나요*?*

눈물을 젖히고 창백한 얼굴을 즐길 시간은 아직 남아 있다.

지금은 달처럼 달콤한 입술과 볼을 가졌을 때

나도 *[*내 가게*]* 하나 더 열어야 해[80].

그의 하위 자아가 자아주의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내뱉기 시작[81]했다.

왕의 바다, 모든 물*(*강과 시냇물*)*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왜 흐름과 흐름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를 수 있을까요*?*

그의 생각은 왕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영적 은혜와 기부에 대한 감사하지 않음 때문이다.

왕은 *[*혼잣말로*]* 말했다*:* 오, 비열하고 무례한 자들이여*!*

놀랍게도, 이게 내 후대에 대한 벌이야*!*

얻듯이. 그의 영혼은 매일 왕으로부터 일정량의 영적 영양을 받았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받는 영양이 아니라, 천사들이 받는 영적 영양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받은 영적 혜택과 축복 덕분에, 왕자는 자신이 영적 완전함에 도달했으며 더 이상 왕을 섬기고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과 암시(사탄과 하위 자아로부터)의 결과는, 그가 왕을 통해 받아왔던 모든 영적 혜택이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반란이 일어난 것은 자신이 왕이자 군주라는 암시, 즉 영적 완전함을 얻었고 더 이상 왕이 필요 없으며 왕에게 고삐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암시에서 비롯되었다.

[80] 내가 완벽해졌는데, 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겠는가. 더 이상 내면의 영혼 병이 없는데 왜 영적 안내자와 함께 있어야 하는가? 이제 나도 영적 안내자가 되어야 해.

[81] 이 시기에 자기 의로움과 자아주의가 그의 영적 상태에 태어나면서, 그는 영적 상태에 해로운 잘못된 말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결국 퇴보와 쇠퇴를 초래했습니다. 내면의 영적 변화와 개혁에 도달한 후에도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들로 인해 퇴행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좋은 보물로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에 대해*?*

그리고 네가 나한테 한 짓은 네 악한 습관 때문이야*?*

나는 네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가 되었다

너는 나와 함께 싸우기 위해 활과 화살이 되었다*!*

향의 고통이 왕에게 나타났다

왕의 고통이 그의 내면에 스며들었다.

부의 새는 그의 분노로 인해 경련을 일으켰다

그것은 배제를 계획하던 이의 장막을 산산조각 냈[82]다.

그 젊은이가 자신의 내면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어두운 행위가 미치는 영향을 보았다.

그 친절과 축복의 대가가 사라졌다

그의 행복한 거처는 슬픔으로 가득 찼다.

사랑하는 이의 길을 자신을 바라보는 자는

알갱이를 남겨두고 겉껍질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너 안을 들여다보게 하지 않으시길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게서 기대되는 것은 혼란과 파괴뿐이기 때[83]문이다.

술은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즉시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상 속에서, 당신에게 오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

[82] 왕은 왕자가 후원을 베푼 후에도 반항하는 것을 보고 상처받았다. '부의 새', 즉 왕자의 내면의 영적 상태는 왕을 배제하려는 그의 계획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다.

[83] 루미는 영적 완전성과 영지의 길에서 오만한 자는 영적 길의 실재성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 큰 손실과 파괴로, 나는 내 적조차 원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하위 자아에서 당신 안에서 태어납니다[84].

오, 너! 자신의 하위 자아*(Nafs)*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세요

언제까지 그것에 갇혀 있을 것이다.

오, 사랑하는 이여! 사랑하는 이에게 영혼을 넘겨

네 마음을 괴롭히는 친구를 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이에게 영혼을 넘기고 해방되세요

옳은 일을 하고 행복을 얻으세요[85].

낮은 자아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세요

젖을 끊으세요.

모든 것은 취하게 만드는 효과를 준다

우유든, 와인이든, 꿀이든 상관없습니다.

오 인간이여! 밀의 취함을 알아라

그것이 아담을 알게 만들었죠 *[*신성하게 깨달음을 받은 후에*]*[86]

왕자는 아담처럼 하늘에서 떨어졌다

황소와 함께 밭을 갈아 농사를 짓던 사람.

그는 *[*내면의 상처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오, 강력한 도둑이여*!*

---

[84] 술이 금지된 이유는 꾸란이 "사탄은 술과 도박으로 너희 사이에 무질서와 불화를 심으려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적대감의 원인은 보통 이기주의, 자기 의로움, 그리고 자신을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알코올은 그 해로운 내면 상태에 기여합니다. 그게 바로 왕자에게 일어난 일이야.

[85] 가진 모든 것을 사랑하는 분(하나님)께 맡기면 [영혼의 눈으로]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위 자아에 굴복하지 말고 그 욕망을 빼앗지 마세요.

[86] 자신을 감탄하며 바라보는 취기는 해롭다. 허용되든 금지되든 원인이 무엇이든 피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개인의 영적 여정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할 취하게 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아담이 천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밀을 먹으면서, 아담이 깨달음을 알게 된 후 속아 천국에서 온갖 안락함을 누리던 곳을 잃고 땅으로 내려가 엄청난 고난과 투쟁을 겪게 된 것을 보십시오.

너는 사자를 황소 꼬리의 포로로 변하게 했어.

오, 악하고 차가운 자아여*!* 했어요

친절한 왕에게 부적절한 태도가 있었다.

밀에 대한 탐욕 속에서 당신은 *[*가두는 그물*]*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미끼로 쓰인 밀 알갱이 하나하나가 전갈이 된 거예요.

자아주의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이제 네 발에 *50*톤짜리 사슬이 걸려 있는 걸 봐.

왕자는 그렇게 자신을 위해 울고 있었다

왜 내가 왕의 적이 되었을까*?*

그는 무지와 오만함에서 의식을 되찾고 회개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의 고통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불치입니다.

오 신이시여*!* 인간의 처지가 나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상태가 끝나면, 우리는 자아와 두드러짐을 발견하게 된다.

인간이 해를 끼칠 힘을 갖지 못하게 하라*!*

그때는 신앙이나 자기 개혁의 길에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시달리는 인간이 더 낫다

왜냐하면 하위 자아는 *[*신성한*]* 축복을 거부하며, 해악과 악으로 기울어 올바른 삶의 길에서 잘못된 길로 인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겪는 인간이 더 낫다

그런 사람은 굴욕을 당하고, 겸손하며, 무력하기 때문에 *[*따라서 억압받지만 스스로 억압자가 되지 않는다*]*.

반란으로 인해 큰 상실과 상처를 입은 왕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영적 길을 완수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왕자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눈먼 하위 자아의 의견

*1*년 만에 왕자를 무덤으로 데려갔지.

왕이 영적 흡수*(수크르)*에서 회복*(사후)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화성 같은 분노는 이미 피를 흘렸다[87].

이 비할 데 없는 화살 컬렉션을 보았을 때

화살 하나가 빠진 것도 발견했다.

그는 그 화살이 어디 있냐고 물으며 하나님께 물었다

그에게 들은 말은 '그를 쏘는 자가 네 화살이다.'

관대하고 풍성한 왕은 이미 그를 용서했다

하지만 화살은 이미 꽂혀 피를 흘렸다.

그는 죽었고 왕은 그의 죽음을 한탄했다

그는 전부다; 그는 생명을 빼앗고, 또한 *[*보호하는*]* 친구이기도 하다[88].

만약 둘 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창조물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애도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89].

---

87 왕이 영적 흡수의 내면에서 돌아왔을 때, 왕자가 분노로 인해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화성은 붉은 색 때문에 분노의 우화로도 사용됩니다. 예언자이자 영지주의자의 분노는 그들을 위한 신의 징벌 사유가 됩니다. 킹이 내면의 상태에서 회복하자 분노가 가라앉았다.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 분노가 가라앉을 이유를 간청했다. 그는 신성한 통보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의 분노 때문에 보복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88 왕자는 죽었고 왕은 울기 시작했다. 비록 그가 죽음의 원인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친구이자 조언자, 수호자였고, 내면의 영성을 이용해 왕자의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89 하나님의 완전함은 생명을 빼앗는 자질과 보호하는 친구이자 도우미가 모두 갖추지 않는다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순교자*(*왕자*)*는 신께 감사하곤 했습니다

그*(*왕*)*는 영혼이 아니라 몸을 공격했다[90]고 말했다.

결국 외부 몸은 *[*운명된 때에 *]*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은 살아 있으며 끝없는 영원 속에서 영원히 행복할 것입니다.

그 분노가 행동으로 옮겨졌다면, 그것은 오직 피부에만 작용한 것이다

아무런 고통과 고난 없이 친구가 친구에게 돌아왔다.

왕자가 영적 길을 걷기 위한 수단으로 왕을 만들었음에도

악한 눈은 그의 길을 막았다 *[*신성으로의 영적 상승*]*.

그리고 셋째 왕자는 두 형에 비해 느렸다

그는 *[*성공적으로*]* 영적 길의 외적 형태와 내적 의미를 모두 달성했다.

공주, 지배, 통치, 그는 모두 빼앗았다

그 점에 대해 놀라고 당황하는 것이 당연하다[91].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 게 답답해요

나는 깊은 영적 의미의 바다에 잠겨 있는데, 너는 성급하다[92].

그리고 그때 *[*하층 자아*]*의 굴욕, 겸손, 그리고 완성된 영적 안내자에 대한 엄격한 충실함을 통해,

셋째 왕자는 우리의 일을 해내고 목표를 이루게 하는 친절한 자에게서 목표를 찾았[93]다.

---

[90] 사후 세계에서 왕자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벌이 오직 자신의 몸에만 적용되어 영혼과 신앙이 어떤 보복도 받지 않도록 감사했다. 몸은 일시적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죽거나 다쳤다면 완전한 파괴였을 것입니다. 분노가 몸에 내려앉았고, 그의 영혼은 영혼의 영혼으로 돌아갔다.

[91] 세 왕자 중 막내는 영적 길에서 사랑하는 이와 만나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으며, 첫째 형처럼 완벽함을 주장하지도 않았다.

[92] 루미가 말하길: 이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에 답답하다. 이 이야기의 모든 부분이 저를 그 부분의 깊은 내면의 의미와 영적 비밀로 이끌고, 저는 그 안에 몰입하게 됩니다.

[93] 인내심, 영적 노력, 굴욕을 견디는 인내, 절대적인 겸손, 진정한 진실, 목적의 단호함, 어떤 상황에서도 최종 목표에 집중하는 태도, 그리고 영적 길을 걷는 학생과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다른 훌륭한 자질들로

루미의 *마트나비* 결말 – 깊은 영적 의미의 연[94]

나는 인내를 영적 경지로 오르기 위한 사다리로 삼는다

그래서 내 노력 속에서 성공의 고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다.

모든 인내심의 최종 결과는 성공입니다

쓴맛 뒤에는 달콤함이 찾아온다.

그분의 임재 중에 내 마음에 무언가가 떠오를 때

시나 세속적인 것과 관련 없는 어떤 시도 포함된다.

나는 그것들이 그분께서 내게 보내신 것이라 생각한다

예멘에서 보이는 빛나는 별 같은 그분의 마음에서.

나는 그분의 위대함과 거룩함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께 감사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 이 일은 오직 그분에게서 오신 일입니다 *[*오직*]*

왜냐하면 한 마음에서 다른 마음으로 가는 구멍*(*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마음의 창문에서 영적 영감의 태양이 지었으니

인해, 그는 다른 두 형제가 영적 투쟁에서 부족과 실수로 실패한 곳에서 최종 목표를 이루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한 점도 있었지만, 신성하게 인정받았다. 막내 왕자는 신성한 근접, 친밀함, 그리고 수용의 부를 얻었다. 이 영예는 신의 관대함과 관대함으로만 가능하다.

[94] 루미는 이 마지막 구절들로 그의 위대한 걸작을 갑작스럽게 마무리했지만, 세 번째 왕자의 이야기와 영적 길의 결실을 어떻게 깨달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살아있는 영혼이 자신을 따라올 것이라 예언했는데, 그 이야기와 함께 세 게으른 형제의 아버지가 유산을 판사에게 맡겨 누가 가장 게으른지 결정하고 그에게 유산을 넘겨주려 한다는 이야기를 완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마트나비*)*은 끝났고, 신은 최선을 아십니다[95].

루미의 아들 영지주의자이자 완성된 영적 지도자 마울라나 바하 울밀랏은 아버지와의 대화와 자신이 한 말을 보고한 후 마*트나비*(깊은 영적 의미의 연)를 결론지었다[96]

아버지*(*루미*)*가 오랫동안 이 마트나비와 함께 있었을 때

침묵하며 나는 그에게 말했다*:* 오, 살아있는 영혼이여*!*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오신 지식의 문을 마음 속에 닫았느냐*?*

왕자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제*3*왕자의 진주는 실에 묶이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루미가 말했다*:* 그 후로 내 말하는 능력은 낙타처럼 잠들었다

심판의 날까지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트나비*"와 세 왕자 이야기에 대해*]*

그 해명은 남아 있지만, 내 안에 있다

닫혀서 나오지 않아.

그곳의 제 말하기 교수진은 낙타처럼 잠들었어요

---

[95] 저는 신성함에 집중하며 영적인 묵상 상태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것들이 신성하신 마음으로 보내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분의 의식이 내 마음에 비칠 때, 나는 그분의 위대함과 신성함을 확신하게 되고 감사하며, 마음속 생각들이 그분에게서 온 것임을 생각한다 [참된 사랑의 상태에서 연결된 마음에서 다른 마음으로 가는 길이 있다면]. 이 시점에서, 신성한 실재를 향해 열린 창문에서 내 마음으로 들어오던 '*마트나비*'(깊은 영적 의미의 연문)에 대한 영감의 태양이 이제 졌고, 이 주제들은 더 이상 오지 않는다. 그 결과, 저는 이 책을 여기서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 뒤에 있는 그분의 지혜를 아십니다. 루미는 이 걸작의 원천으로서 신성한 영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이 작품은 영적 길을 걷고 그 결과 신성한 사랑을 영원히 얻는 것에 관한 최고의 책이며, 이는 전 인류 문명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다룬다. 또한 이 책은 앞으로도 인류 전체를 위해 꾸란의 의미와 메시지의 핵심을 가장 잘 해명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96] 루미의 아들인 마울라나 바하 울밀랏(본명은 바하 알딘 왈라드)은 아버지가 이 위대한 책을 갑작스럽게 끝내고 세 번째 왕자의 이야기는 미완성으로 남겨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이 "*마트나비*"의 결말을 썼다. 루미는 그에게 살아있는 영혼이 자신을 뒤쫓아 이야기와 책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교수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영원한 생명의 흐름에 뛰어들 때가 왔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멸망하고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나머지는 입으로 말하지 않고 전해질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의 마음 속에서[97].

이 일은 끝났고 내 삶도 끝났다

내 사랑하는 이로부터 몸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나는 영혼의 영역의 광대함에 도달할 것이다

나는 이 수분 한 방울을 지나 끝없는 바다에 도달할 것이다[98].

이 세계는 이 습기 때문에 살아 있고 쾌적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 수분은 바다에서 온 것이고, 그래서 바다는 좋고 행복합니다.

영혼이 흙과 습기 사이에 살아 있을 때

생각해보세요, 바다 세계에서는 어떨까요*?*[99]

바다는 도시와 같고, 수분은 *[*그 도시로 가는 문*]* 같아요.

수분을 한 방울로 생각하면 바다는 끝이 없고 끝이 없다[100].

이 생명 같은 습기를 통해 안으로 들어오세요

---

97 여기서 루미는 아들에게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와 이야기를 완성할 것이고, 그로 인해 책도 완성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것은 살아있는 영혼, 즉 신성한 존재와 그노시스를 가진 영혼을 가진 자가 수행할 것입니다. 이전에 루미는 자신이 이 덧없는 지상 체류를 떠날 것임을 놀랍게도 예언했고, 영원한 존재에서 사랑하는 이와 만날 것에 대한 간절함을 표현했다.

98 이제 나는 영혼의 영역(*'알람 알-아르와*)'에 도달할 것이다. 이 바다와 비교하면, 우리가 있는 물질계(*'알람 나수트*')는 단지 한 방울의 수분에 불과하며, 그 안에서는 영혼의 영역의 영향력이 거의 없습니다.

99 이 영혼은 흙과 먼지, 그리고 물질계의 소량의 수분 사이에 살아 있다. 영혼의 영역에서 그 생명이 얼마나 엄청날지 짐작할 수 있다.

100 물질계(우리가 있는 이 세계)는 영혼의 영역과 천사의 영역(*'알람 알-말라쿳*)'의 도시로 이어지는 문과 같으며, 전자는 물방울과 같고 후자의 두 영역은 바다와 같습니다.

사랑받는 이들의 바다로 들어가, 끝 없는 생존을 이루게 하라[101].

이쪽 *[세속 존재]*에는 생명의 바다에서 나온 수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함을 영혼을 통해 추구하는 거죠.

먼지 입자의 모든 부분이 사람을 무덤으로 데려갑니다

영혼의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는 사랑하는 이에게 데려간[102]다.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을 마음과 영혼으로 찾아

혀와 입술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네 마음을 통해*).*

그래서 당신은 이 *[*몸의 감금*]*과 덧없는 세상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영혼의 영역에 머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씨앗, 척박한 땅에 뿌려진 그 씨앗

결국 네 끝을 가져오게 하는 네 죽음을 맞이[103]하는 거야.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

왜 *[*좋은*]* 보상 없이 그걸 허비하는 거야*?*[104]

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여*!* 상실을 견디지 않겠습니까*?*

정원을 포기하고 가시밭을 차지할 때*?*

네가 한정된 삶을 바칠 때

하나님을 위해 노력하는 길에서, 그것은 무한해질 것입니다.

무수하고, 무한하며, 셀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

101 영혼의 존재와 생존은 그것이 사랑받는 이의 바다와 융합되는 데 달려 있습니다.
102 먼지로 이루어진 인간의 몸은 결국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영혼은 사랑하는 이(하나님)에게 인도합니다.
103 몸만 돌보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파멸을 초래할 것입니다.
104 영원한 필요를 돌보지 않고 세속적인 집안일에만 보내는 삶의 일부가 허물어졌습니다. 세상의 한정된 생명을 하나님을 찾는 데 쓰인다면, 그것은 영원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끕니다.

신성한 섬김 속에서 보내는 열흘간의 삶.

조심하다*!* 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세요

가시 하나와 맞바꾸면 수십만 송이의 꽃을 가져가라.

씨앗 한 개에 대해 얻게 될 거예요

풍요로운 분의 축복으로 수십만 곡물이 나왔다.

카운트는 끝이 있는 곳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신 쪽에는 무한한 존재가 있습니다.

오, 분리된 부분*!* 네가 온 네 전체로 가라.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피난처로 달려가세요.

인간의 행동과 말에서

영혼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해집니다.

영혼이 어떤 영적 수준에 도달하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 불신자, 영지주의자*?*

바다의 도움 없이 물통에 물을 저장하지 마세요

달물이 맛없게 되지 않도록[105].

고요한 물은 아무런 도움 없이 나빠집니다

좋은 색, 냄새, 맛이 사라집니다.

무함마드 선지자*(*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틀이 같은 날인 사람은

손실에 빠져 있고 의심스러운 상태입니다.

내 어리석음 속에서 나는 확신 없이 살고 있다

[105] 영혼의 물은 영혼의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고요한 물은 불쾌해집니다.

공기로 가득 찬 빈 가방 같[106]았다.

그 슬픔은 매 순간 커지고 있다

매 순간 점점 더 악화되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신성한 존재로부터 거부당한 이, 지옥으로 향하는 자였다

달콤한 바다가 없으면, 그것은 불과 벌로 향한다.

당신의 일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기 전에*]*

그리고 방치의 숨 한숨 하나가 뒤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예언자 아브라함처럼, 본래로 돌아가라.

별과 푸른 하늘을 넘기세요.

용기를 발걸음 내딛어, 태양과 달 위에 올려

신의 뜻에 순종하는 상태로 그 법정에 머리를 대세요.

자아를 하나님께 봉사하는 데 쓰세요

그래서 당신이 사탄처럼 *[*신의 자비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영혼의 바다에서, 네 영혼의 물을 비워라.

그래서 해안 없는 끝없는 바다가 되게 하려고.

이야기를 간단히 하자.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에 *]* 커튼 뒤로 들어갔다

그래, 조용히 해, 그리고 신이 가장 잘 아는 거야.

감사합니다*!* 이 책은 주제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현금은 잃어버리지 않았고, 형제들에게 전달되었다.

[106] 영원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는 영적 길에서 계속 퇴행하며, 신성한 아름다움의 바다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영혼의 물이 더러워집니다.

이 시집은 *[*마트나비의 지혜와 신성한 영지의 시*]* 하늘로 가는 사다리와 같다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지붕에 도달할 거야.

초록빛 천국의 지붕이 아니라요

오히려 천국보다 더 높은 지붕입니다[107].

이 천상의 지붕은 신성한 존재로부터 영양을 얻는다

그 영원한 순환은 그 끝없는 사랑을 찾고자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108].

루미의 마트나비의 끝의 시작 – 깊은 영적 의미의 연들, 루미가 예언한 대로 살아있는 영혼에 의해 완성될 것이며 마울라나 일라히 박쉬 칸델라비가 완성했다[109]

마울라나 후사무딘의 영성과 열망의 강렬함에 대한 매력[110]

저를 *[*쓰는*]* 마트나비*의 결말로 이끌고* 있습니다.

"깊은 영적 의미의 시련"을 결론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곧은 길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시의 구절들은 *[*내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입술에서 미세하게 흘러내린다 *[*내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오 후사무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

[107] 신성한 임재.

[108]루미의 아들이 쓴 "*마트나비*"(깊은 영적 의미의 연)의 결말은 여기서 끝난다. 루미가 예언한 대로, 다음은 인도 영지주의자 마울라나 일라히 박쉬 칸델라비가 완성한 이 위대한 책의 결론이다.

[109] 이 시점부터 *마트나비*의 결말은 마울라나 일라히 박쉬 칸델라비가 제공하는데, 그는 루미가 미완성으로 남긴 *두 개의 마트나비* 이야기 , 특히 세 군주의 결말을 마무리했다.

[110] 마울라나 지아울 하크 후사무딘은 루미의 제자였으며, 루미가 생전에 완성된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루미 에게 *『마트나비』* 를 쓰도록 설득했고 , 루미가 계속 글을 쓸 수 있도록 종이, 펜, 잉크를 제공했으며, 이 위대한 걸작을 편찬해 최대한 널리 퍼뜨린 사람입니다. 루미 는 *마트나비* 6권 각각을 마울라나 후사무딘의 영성을 칭찬하며 시작했으며, 그가 *마트나비*를 쓰게 된 영감을 그에게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울라나 일라히 박쉬 칸델라비는 마울라나 후사무딘의 영혼의 끌림이 마*트나비 결말을 집필한 원동력으로 언급하고* 있다.

내 지성의 고삐가 네 손에 달려 있으니

원하는 곳으로 당겨, 내 영혼이 너와 취했어.

태양의 반사가 물 위에 비쳤을 때

워터는 이 엄청난 선물에 대해 태양에게 감사했다.

마울라나 잘랄루딘 루미의 영혼

지식의 바다이자 그노시스의 달이다.

그가 내 마음속 시내산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었을 때

먼지와 물로 이루어진 내 몸이 빛났다.

그 높은 하늘의 달은 매 순간

내 마음의 문에 신호를 보내고 있어.

마트나비의 종말을 시작하라

봉인된 봉투를 열어봐.

말하지 않고 *[*미완성*]* 남은 이야기를 전해 주세요

실에 걸리지 않은 진주를 끈으로 묶으세요.

빠르게 실에 묶어

우리의 영적 연결은 분명히 당신에게 닿을 것입니다.

내 영적 수준을 못해 침묵했다

나는 그의 문에 머리를 대었다.

왕의 명령을 깨는 것이 진주를 깨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저 없이 그의 명령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

둘째 형이 죽은 후 왕과 가까우고 친밀하며 영지에 이르게 된 삼왕자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

다른 건 제*3*왕자 때문에 그만두자.

둘째 형의 죽음을 들었을 때.

왕의 궁정에 왔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강렬한 욕망을 가진 탐색자로서.

예전으로 소개자는 *[*왕에게*]*라고 말했다*:*

이 셋째 형제가 더 자비를 베풀 자격이 있어.

그의 두 팔은 당신의 사랑 때문에 약해졌다

패배 시 붕대가 필요해.

왕은 그를 자비로 여기며 나오라고 요청했다

왕실의 친절로 그에게 왕좌 옆에 앉으라고 요청했다.

그는 영적 영감을 통해 왕자의 *[*내면*]* 상태를 알았지만,

이상한 방식으로 그의 상태를 계속 물었다.

그의 친절함이 그를 위로해 주었다

그 고통과 슬픔을 영혼에서 지워버렸다고.

그는 죽은 형을 묻었다

자신의 영혼을 살아있는 영혼과 연관 짓고 있었다.

며칠 후, 왕실 일행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왕의 마음이 그에게 부드러워졌다.

그는 크고 작은 금고를 모두 그에게 넘겼다

왕실 환대를 열어줬지.

영혼의 관대함의 바다에서 나누는 왕의 후원에서

그의 마음 한켠에 꽃봉오리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많은 *[*영적*]* 비밀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둘째 형처럼 빛의 화신이 되었다.

신성한 근접과 영지의 단계에서

그의 학위는 둘째 형제보다 더 많이 올랐다.

그는 영적으로 노력하며 영적인 길을 걸었어요

그는 *[*진심으로*]* 노력했고 내면의 깨달음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자신은 교훈을 배웠다

그는 두 형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그는 영적인 길의 협곡에 익숙해졌다

그는 매우 조심스럽고 조심스러웠으며 매우 쾌활했다.

그는 첫째 형제가 영적 길에서 성급해 목숨을 포기한 것을 보았다

두 번째는 자만심,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때문에 무덤으로 보내졌다.

인간은 사랑하는 이의 길에 있어야 한다

점진적이고 인내심 있으며 관대하게 노력하세요.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젊음이여*!* 부드럽고 느리며 점진적이고 인내심 있는 접근법*(Rifq)*은 지혜의 뿌리입니다.

이븐 마수드는 무함마드 예언자*(*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로부터 전해주었습니다*:*

오 경건한 사람이여! 인내는 믿음의 절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이의 아름다움은 완전한 빛입니다

마음의 눈은 그분의 아름다움 속에서 산산조각 난다.

너는 갑작스러운 신성한 환상을 견딜 수 없어

당신의 마음의 거울을 점차 닦아내어 무지, 경솔함, 악의 먼지를 모두 제거하고 내면의 성격과 존재의 아름다움으로 빛나게 하세요.

이러한 점진적인 접근법은 영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드러난 아름다움은 언제 문을 닫았나요?

사랑하는 이는 하늘 한가운데 있는 태양과 같다

하지만 오 박쥐! 태양을 볼 수 있는 당신의 눈은 어디에 있나요?

가서 먼저 네 눈을 낳아

그다음 사랑하는 이를 향해 열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 눈부신 빛과 빛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태양이 당신의 별을 질 것입니다.

죽거나 미쳐서 완전히 정신을 잃을 거야

이 때문에 많은 이 들이 마*즈후브(*신성한 아름다움을 목격하다가 정신을 잃은 이들*)*가 되었고, 이는 영적 견디기 능력을 먼저 키우지 않은 이들입니다.

짚은 산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

이 슬픔과 슬픔을 위해서는 영적 완전함을 이룬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의 첫 형은 서둘렀다

그는 두려움과 경련 속에서 사랑하는 이와 누가 없는 만남을 가졌다.

사랑하는 이와의 순수한 만남은 그에게 적합하지 않았다

그는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부서져 죽었다.

이 몸의 장막이 벗겨지지 않을 때까지는

언제 사랑하는 이와 공개된 만남을 가질 수 있나요*?*

하지만 강렬한 사랑의 사자가 갑자기 달려나갈 때

연인은 날고기처럼 희생양이 된다.

강렬한 사랑의 흔들림은 사람을 서두르게 만든다

마치 바다 밑에 떨어진 조개껍데기처럼, 입을 벌려 *[*빗방울*]*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비가 오기 전에 입을 열어야 했다

고통과 고난 외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생리도 하지 않고 사춘기를 겪지 않은 여성

정자를 둘러싸서 번식할 수 없습니다.

삼왕자의 상태와 그가 내면과 외면의 완벽함을 달성하고,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인내심을 발휘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세 번째 대가는 백 가지 예방과 인내로 해결된다

예전에는 그노시스의 바다에서 비구름처럼 파생되곤 했지.

매일 밤 왕의 영적 동행을 통해

매일 아침 하나님의 유일함에 대한 빛이 그의 마음속을 흐르곤 했다.

영적 능력의 획득과 지혜의 활기찬

왕의 곁에 있어 매 순간 그를 위해 나타났다.

항상 달 방향에서 왕처럼 마음속에 있었다

아침과 저녁마다 새로운 빛들이 그의 마음에 내려앉았다.

그는 목적 외에는 숨조차 쉬지 않았다

그는 자비로운 왕의 마음속에 불꽃을 간직하고 있었다.

친절과 관대함이 가득한 그런 왕이네요

왜 내 필요를 그 앞에 말해야 하지*?*

묻지 않아도 그의 은혜는 수많은 축복을 내린다

어떻게 내 마음이 감히 뛰어올라 부탁할 수 있겠는가*?*

우리 왕은 맑고 닦인 거울 심장과 같다

왕의 마음속에는 나에게도 위험한 곳이 있다.

내가 정말 그 소중한 진주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왕께서 자신의 은혜로 그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는 영적 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허락을 주십니다

정말로 자신의 내면의 영적 상태에 부합합니다.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

왕의 은사는 왕에게서 묻지도 않고 내려진다.

바늘 머리조차 숨기지 않는 왕

왜 내 목표를 찾기 위해 다른 길을 가야 하는가*?*

왜 내 쓸모없는 걸 그에게 보여줘야 하지*?*

왜 내 필요를 그에게 털어놓아야 하지*?*

우리 왕은 밝고, 의식이 있으며, 의식이 있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다.

오 마음이여*!* 인내심을 가지세요, 그것이 행복의 열쇠니까요

그 안에는 많은 편안함과 행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말했다*:* 오, 친절한 영혼이여*!*

너는 인내와 인내의 바다이자 자비의 광산이다.

저는 지배와 제국의 *[*책임*]* 때문에 답답합니다

제 마음은 신성한 일치*(*하나*)*의 높은 왕좌와 정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후계자가 되어 *[*제국의 일을 하라*]*

내 마음을 괴롭히는 걸 없애기 위해서.

나는 고독한 곳으로 가고 싶다

대화에서 조용해지고 싶을 거예요.

내 마음은 걱정이 사라질 거야

그것은 신성한 빛의 현현이 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는 것이 *1*년의 예배보다 낫다

이 묵상은 신성한 아름다움에 대한 경이로움입니다.

왕자가 이 일을 들었을 때

예의와 존경심으로, 그의 머리를 발에 올려놓으세요.

제발 그런 일이 없길*!* 언젠가 당신이 그 권력을 내려놓는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외딴 방에서 고독을 취할 수도 있다.

내 머리에 네 그림자가 있길

심판의 날까지 은신을 유지하라.

오 신이시여*!* 내 삶이 너무 무거워지지 않게 해

나는 왕의 통치가 끝나는 것을 본다.

이런 주제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왕자를 시험하며 진실을 찾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명성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또는 왕처럼 제국과 지배의 위엄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오만함과 자부심이 있는가*?*

아니면 그의 내면이 신성함을 갈망하는 와인에 취해 있을까요*?*

왕은 왕자가 머릿속에서 어떤 아이디어도 꾸미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그의 존재의 나무에서는 순종과 진실의 열매 외에는 익지 않았다.

지위와 지배에 대한 사랑, 탐욕과 욕망 등 무엇이든

머릿속에서는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하나님과 그분의 특별한 종들에 대한 사랑 외에는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갈 길이 없다.

왕은 영적 길의 요구에 따라 내면의 상태를 찾았다

그는 신성한 법의 길 위에서 자신의 모든 걸음을 발견했다.

그의 마음에는 지배에 대한 기운이 전혀 없다

그는 바다를 찾는 자이며, 세속적인 수단과 목적의 배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는 여러 척도의 시험에서 그를 많이 시험했다

순금만 있었다.

왕은 동료들과 조수들에게 이 청년이

영혼 같은 소녀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

달과 태양의 조합이 더 좋습니다

몸과 영혼의 연관성이 더 좋아졌다.

그와 그녀는 서로에게 자격이 있고 잘 맞는다

각각은 동료들보다 *[*내면의 탁월함*]* 우월합니다.

그런 여자는 그런 남자에게 어울린다

그런 보석이 그 반지에 어울린다.

왕의 모든 백성들이 그런 의견을 칭찬했다

모두가 말했다*:* 제발 서둘러 주세요, 완벽한 기회입니다.

왕이 명령했고, 그들은 아름다운 모임을 마련했다

훌륭한 결혼식 모임이 준비되었습니다.

서로를 영원히 갈망하는 마음과 영혼

그들의 관계를 허용하겠다는 수용 서약이 이루어졌다.

그들의 축복받은 결합은 이루어졌다

영혼과 영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었다.

점진적인 인내로 두 세계의 일은 질서 있게 유지된다

왜냐하면 서두름은 사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대한 결단의 근원으로 인내를 선언하셨습니다

분명히 인내심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뎌낸 자는 보물을 얻었다

게으른 사람도 비참하게 죽었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는, 세상을 위한 게으른 사람이 더 낫다

세속적인 일에서 성급한 것은 나쁘다.

인내심을 가지고, 세상을 그분께 맡기세요

그는 당신보다 당신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더 잘 압니다.

세상을 위해 게으른 자는 신성한 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 번째 왕자처럼.

세 군주 이야기의 해석과 의미, 그리고 이를 해석하고 신성한 지식의 단계(*이르판 / 마리파*)와 연결하는 세부 사항, 즉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고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승리로 이끄는 근접성, 친밀함, 그리고 신성에 대한 지식의 상태와 연결

이 이야기에서 완전한 교훈을 얻으세요

이 이야기를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요.

인간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야기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평생을 이야기 속에 쏟고 낭비해 왔습니다

아침이 다가오니, 잠에서 깨어나.

노년의 아침이 찾아왔고, 떠날 시간이다

아무런 진전도 없는 이야기에 빠지지 마세요.

영원으로 가는 여정의 길을 위한 준비가 될 일을 하세요.

네 무덤의 어둠과 외로움 속에서 달처럼 밝게 빛날 일을 하라.

저녁이고 해는 졌다

이제 늦었으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

오랫동안 빵과 단 것을 먹어왔다

그걸로 인해 내면에서 보물창고를 본 적 있나요?

당신은 낮은 자아를 들어 올렸고 그것은 황소가 되었습니다

최종 목적지를 향해 언제 한 걸음 내딛으셨나요*?*

그러니 이제 피할 수 없는 출발을 준비하세요

물질계에서 내면의 현실로 향하세요.

마음의 빛을 더 밝게 할 수 있는 음식을 먹으세요

그것이 다른 세계로 가는 창을 열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삶은 게으름으로 끝났습니다

며칠이 남았지만, 너는 여전히 무심하다.

무슨 일이 있었든 이미 일어났으니, 여전히 친구에게 갈 수 있어

친구의 골목에서 발걸음을 더 빨리 내딛으세요.

남은 것은 절대 낭비하지 마세요

머리로 걷어야 하더라도, 사랑하는 이의 발에 머리를 얹으세요.

오, 너*!* 설령 백 년 동안 그분께 불순종하더라도요

문을 두드리면 문은 아직 열려 있어.

소울이란 무엇인가*?* 신성하고 고귀한 특성을 지닌 새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존재와의 근접*(*그노시스*)*을 얻기 위해 *[*육체의 새*]* 안에 갇혀 있다.

소울이란 무엇인가*?* 신성한 *[*신성한*]* 혈통의 새입니다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한 감옥 안에 있다.

앵무새는 가르침을 위해 새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목소리로 휘파람을 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혼은 무에서 무에서 나와 거래를 위해 나왔다

그 방향은 언제나 영원을 향해 있습니다.

당신의 하인 자아는 훈련에 있어 *[*세 왕자의 아버지*]*

그 덕분에 그 놀라운 성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악에 기울어진 낮은 자아가 당신을 죄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을 악, 신성한 실재로 가는 길에 대한 불신, 그리고 반역으로 이끕니다.

이 때문에 사진이 가득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속적인 지성을 말살시키기 때문입니다.

성은 무함마드 예언자의 길에서 신성함을 지닌 성입니다

인생에서 배운 교훈들 때문에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에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성에는 왕과 그의 딸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천상의 동반자, 천국, 아름다운 사랑이 언급됩니다.

"우리는 큰 눈을 가진 천상의 동반자를 결혼으로 주었다"가 신성하게 선포된 이후로

마음의 진주는 탐욕의 끈으로 묶여 있다.

인간은 영원히 창조되어 왔다

*[*그들은 성향이 있다*]* 이익을 얻고 모든 해를 막기 위해 *[*본질적으로*]*

그래서, 신성한 법의 성에서

그림은 인간에게 욕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탐욕 때문에 *[*신성한*]* 길을 걷도록 강요받는다 *[*천상의 축복과 동료, 지배권 등과 같은 보상을 위해*]*

때로는 지옥의 심연을 두려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항적인 하위 자아들, 두려움을 통해

강제로 왕에게 끌려간다.

그래서 악행을 저지르려는 이 낮은 자아*(Nafs)*는 기쁘든 강제든

왕과 그의 딸에게 익숙해진다.

하지만 세 왕자처럼, 다시 말해 인간들

볼 눈이 있는 자여*!* 영적 길 측면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한 명은 자신의 영혼을 억압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스펙트럼의 두 끝 중간*]*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와 선행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첫번째 왕자가 자신의 삶을 망쳤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억압하는 집단에 속해 있었다.

그의 인생의 진주가 *[*강렬한 사랑의 열기*]* 때문에 손에서 벗어났다.

그는 영적 노력의 올바른 길과 영지*(Gnosis)*에 큰 중요성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왕의 자비가 그를 도왔고

*[*결국*]* 그는 *[*생애가 끝난 후*]* 신성하게 받아들여진 자 중 한 명이 되었는데, 이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께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으로부터 그런 한 생명을 주십니다

에메랄드 하나를 주면 광산 전체가 *[*에메랄드로 가득 찬*]* 것을 받게 됩니다.

불나방처럼 불에 타 죽었어

그는 미친 사람처럼 우물에 빠졌다.

사랑의 싸움에는 용감한 이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랑으로 충만해지도록 합니다.

죽음을 통해 친구를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길은 매우 쉬웠을 것입니다.

*[*신성한*]* 사랑 안에서는 매 순간 다양한 종류의 죽음이 존재합니다

누구의 쓴맛으로 죽음은 백 가지 위험을 느낀다.

둘째 왕자가 영적 노력과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만함과 내면의 혼란에 휘말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태양의 공동체*(*완성된 영적 안내자*)*로 만들었다

"나는 진실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 후 그는 장애물에 부딪혔다

죽음의 목적지가 그의 앞에 있었다.

그는 이 길의 완성 때문에 멈췄습니다 *[*내면의 악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길이*]*

그는 여전히 길의 아름다움에서 한 모금을 마셨다.

왕의 자비로 인해 그의 영혼은 신성하게 받아들여졌다 *[*실수를 하기 전까지는 길을 계속 걸었기 때문*]*

그는 여전히 사랑하는 이를 만났습니다 *[*세속적인 삶이 끝난 후에*]*.

그것은 그의 능력이나 권리 때문이 아니었다

모든 것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왕의 친절과 자비의 덕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대가는 *[*그의 영적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두 형을 능가했다.

그는 그노시스로 가는 길을 인지했다

그는 왕의 현실과 함께 있는 동반자가 되었다.

그는 영적 노력과 노력을 했고, 신성한 지식이 그에게 찾아왔다

매 순간, 신성한 가까움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신앙인들은 동기를 부여받으면 길을 걷는다

그들은 왕의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왕에게 달려간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왕 자신에게 향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는다

그들은 숨겨진 딸에 대한 사랑을 왕에 대한 사랑으로 복종시켰다.

왕께서 그에게서 완전한 *[*영적*]* 능력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길의 완전함에 도달하는 것에 관해서*]*

그 사실을 가지고 딸을 결혼시켰다.

다른 두 왕자는 신의 은혜로 받아들여졌음에도

하지만 그 *[*영적*]* 학위는 어디에 있었고, 막내 군주가 받은 신성한 근접성의 수준은 어디에 있었나요*?*

불완전한 자들도 왕이 왕좌에 앉히며 존경받았다

그는 그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부르며 부를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나이 든 왕자 자신도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한다

그는 왕좌에 앉아 슬프고 부끄러워한다.

자신의 실수와 실수로 인해 그의 마음에는 가시가 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고통을 견디고 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 중 가장 뛰어난 존재*(*예언자 무함마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는 슬픔이 없으며, 오직 *[*신성한 기억과 신성한 길을 걷는 것*]*의 부주의가 있다.

죄인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 제공된다면

왕궁과 로브를 허락받는다면.

그들은 못생긴 발을 보고 공작새처럼 쳐다봅니다

고개를 숙이고 *[*후회하며*]* 부끄러워합니다.

못생긴 사람에게 유리 궁전의 이점이 무엇인가*?*

그런 사람에게는 어디에나 질투하는 거울이 있어 *[*자신의 추함의 현실을 보여주며*].*

오 삼촌*!* 이 사안의 방대함은 끝이 없습니다

*[*세 왕자*]*와 합류한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왕국을 떠나 세 왕자의 여정에 합류한 전통

오, 지아 울 하크 후사무딘 하산*!*

*[*이야기 속 네 번째 인물*]* 왕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가 왕국을 포기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왕자들과 함께 가난한 상태로 남았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떠나 그들의 중대한 투쟁에서 동반자가 되었다

그는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일체적으로 섬기는 데 적극적이었어요

모든 위선을 씻어낸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의 *[*신성한*]* 사랑이 *[*그의 영혼에 비친*]* 모습에 그를 사로잡았다

여정 중에 그는 세 *[*왕자*]*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렬한 사랑은 그런 많은 영향을 줍니다

자유를 가진 마음을 묶는 사슬입니다.

연인과 함께하는 것이 당신을 연인으로 만듭니다

죄인과 함께 있으면 죄인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타인에게서 도덕과 인격을 얻는다

멜론은 다른 멜론에서 *[*달콤한*]* 향을 얻습니다.

*[*타인의*]* 회사의 영향력을 부정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좋은*]* 회사에서 도망치는 사람은 과실입니다.

멜론은 다른 멜론에서 색을 얻는다

왜 다른 인간과 함께 있는 것이 효과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 개는 동굴 사람들의 동반자가 되었다

하지만 개들의 특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요.

경건한 백성의 발밑 먼지가 되어라

그래서 그들의 달로부터 빛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빛나는 내면의 특성처럼*]*.

그래서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인격과 경건함을 가진 사람*)* 외에는 누구와도 교류하지 마십시오.

향기는 용기를 향기롭게 만듭니다

거름은 땅에 악취를 퍼뜨립니다.

꽃에 기름이 다 써버렸을 때

꽃의 향기가 담긴 용기가 되었다.

그 왕은 왕자들과 함께 있었다

세 형제 중 두 명이 목숨을 바쳤을 때.

그는 세 번째 왕의 동료가 되었다

그는 진정한 신도처럼 항상 그의 앞에 있었다.

세 번째가 중국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는 그의 특별 엘리트 중 한 명이었다.

중국 왕이 그의 엄청난 사랑과 헌신을 보았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

그는 두 사람 모두를 발견했다. 하나는 영혼이고 두 개의 몸이었다

중국 왕은 그에게 우정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마음으로 왕자에게 말했다:

이 동료는 모든 하인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분은 오직 당신을 섬기고 싶어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마음이나 열망이 없습니다

그는 당신의 생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낮은 자아의 욕망을 소진시키는 자.

자신의 욕망을 네 욕망 속에서 잃은 사람

그런 사람은 상당히 보상받아야 합니다.

왕자는 그의 발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우리에게 숨겨진 것이 너희에게는 분명히 드러난다.

당신의 회사를 찾기 위해 희망을 가질 때

나는 고향을 떠나 여행을 시작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나라에서 매우 성공한 왕이었어요

우리 회사 인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나라와 부를 떠났다

그는 우리를 향한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지지로 마음속에 깃발을 들었다.

우리 덕분에 그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

그는 고국을 떠나 우리의 친구가 되었어요.

폐하의 자비가 요구합니다

관대함과 자비를 위한 곳입니다.

왕은 그에게 또 다른 나라를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지위에 걸맞은 방식으로 부여될 것입니다.

왕은 그에게 이전에 추정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성과 국가를 하사했다

셋째 왕자를 위해 그를 위해 나왔다.

그의 눈이 못한 것들이 그에게 주어졌다

그의 귀가 듣지 못했던 소리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그 네 번째 사람도 목표를 달성했다

변호사와 함께하는 의뢰인처럼, 주최자와 손님 같아

그 고귀한 부유한 이*(*즉, 영적 부를 가진 예언자 무함마드*(*그에게 평화가 있기를*)*는 말했다*:* 이 나라는 그들의 동료조차도 결코 박탈당하지 않는 [111]나라다.

마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그것이 당신을 봉사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성공을 가져다줍니다.

특히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데 있어

탁월한 신성한 수용을 부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가까움을 받은 사람들과 가까워지도록 얻는 사람

[111] 무함마드 예언자의 예언적 서사(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나 영지주의자의 친구와 가까운 사람들은 그들의 교류를 받아들이는 자가 영적 길의 혜택을 박탈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친한 이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친절이 사용된다.

하나님의 가까움을 받은 사람들과 가까워지도록 얻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와 관대함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친구들과 하나님의 가까운 이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

그들은 그들의 봉사에 성실해졌다.

신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

그런 사람은 신의 지지와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다.

이븐 마수드*(*신께서 그를 기뻐하시길*)*는 무함마드 예언자의 말을 전했다*(*그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

오, 경건한 사람이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거야.

한 나라를 사랑한 사람은 그 나라에서 *[*세어진*]*

하나님의 친구들과 친밀한 이들의 사랑은 영혼의 빛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랑하고 싫어하는 것을 당신의 존재 일부로 삼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의 문 앞에서 받아들여지게 하라.

그들의 동료 왕이 영적 고난을 겪지 않았을 때,

정화된 자들의 사랑이 그의 길에 등불을 비추었다.

영적 노력, 능력, 노력이 없는 아이

영적 길을 걷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그의 도움이 되었고, 그게 전부였다.

스스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또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영적*]* 길을 걷는 노력자가 되거나, 그 길의 노력하는 사람들 주위를 돌 수 있습니다

작은 보물과 큰 보물 모두가 그 독특한 인간에게서 찾아올 것입니다.

오 영혼이여*!* 만약 당신이 그 둘 중 하나에 속하지 않는다면

너는 심판의 날에 굴욕을 당하며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꾸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도에 관해서는, 당신 스스로가 그 길을 찾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누가 트레이너 없이 과일 잼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처음에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죠*]?*

말해봐, 날개 없이 새는 어떻게 날았을까*?*

인간 정글은 피와 함정, 그리고 *[*사나운*]* 야생 짐승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방향에서 오류와 오도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정글은 뱀이 가득하고 곳곳에 푸른 식물이 있습니다

마법의 보호의 말을 외우는 자의 도움 없이 밟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짜증이 나서 *[*밟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무성한 초록 땅이며, 하위 자아*(Nafs)*는 뱀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위험으로 가득한 정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뱀에게 물리면, 너는 부서지고 후회하게 될 거야

마법의 말을 외우는 사람 없이도 만족한다면, 당신은 바보다.

만약 당신의 마음의 발이 가시에 찔려 들어간다면

바늘 끝이 없으면 어떻게 빼겠어*?*

바늘 끝을 걱정하고, 마법의 말을 외우세요

*[*완성된 영적*]* 안내자를 찾아서 힘든 길을 *[*어려움 없이*]* 실수하지 않고 걸어가세요.

정글은 가시가 가득하고 사방으로 길이 있습니다

봐, 매 발걸음마다 도랑이 있어.

정글은 무섭고 강도들이 매복 속에 숨어 있다

*[*완성된 영적*]* 안내자를 찾아 그런 안내자를 따르세요.

*[*영적*]* 길은 매우 험난하며, 빠른 발걸음의 초자연적 존재*(*사탄*)*가 도처에 있습니다

길에서 수백 대의 하프와 탬버린을 연주하며 *[*당신을 신성한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주의를 돌리려 한다*].*

길은 험난하고 앞에는 어두운 밤이 기다리고 있어

누구의 손도 잡지 않으면 당신은 사라질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이여*!* 이 사안의 방대함은 끝이 없습니다

"*마트나비*"는 이제 끝나야 한다.

오, 아이야*!* 하나님의 일에는 끝이 없습니다

"*마트나비*"는 끝나야 한다.

"깊은 영적 의미의 연" 완성

이제 마울라비*(*루미*)*로부터 받은 영적 은사로 이루어졌으며, 그에게 귀속되어 탁월한 영지주의자로 여겨진다.

결론 구절

진리를 찾는 사람은 진리에 몰입하여 그 화신이 된다

그런 것은 신성한 자비의 화신이며 신성한 바람입니다.

악한 사탄의 행위를 하지 말고, 스스로 사탄이 되지 말라.

누군가의 영혼의 먼지에 *[*지혜와 신성한 영지의 물*]*를 부어 *[*정화되고 정화하게*].*

진리와 그곳으로 이끄는 영적 길 외에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배를 채우고 영혼이 굶주리게 하지 마세요.

그분의 다른 모습*(*마음속에*)*은 진리로부터 가려지는 장막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그분 외에는 *[*실재 존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소멸되는 자가 되어라*(*하층 자아의 특성을 제거함으로써*)*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하고 끝이 없는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아침의 주님이 네 영혼 안에 나타날 거야.

*6*권에 걸쳐 "*마트나비*"는 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질은 신의 존재*(*파나*)*에서 멸망의 바다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끄는 길을 찾고 있다면, 경계하세요

내면의 무관심과 무관심에서 벗어나고, 깨어 있으세요.

먼저 신성한 법을 인내하여 *[*신의 명령과 함께 예배 행위와 동료 인간과의 선한 교류와 함께 외적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영혼을 개혁하고 정화하기 위한 노력과 노력을 통해 영적인 길을 걸어가세요.

첫 번째 단계로, 신성한 법 위에 단단히 발을 디디세요

그 후에는 영적 투쟁의 길을 걷세요.

"타리카 *"(아름다운 내면의 질을 얻기 위한 영적 노력의 길, 영혼의 모든 낮고 악한 성질, 결점, 흠집, 부정적이고 악한 성향을 정화하는 길)*을 통해 영혼을 장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그노시스, 근접성, 친밀감, 지식*(*마리파*)*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광대함, 중요성, 그리고 인류 모두에게 진정한 평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성공을 주는 관련성 때문에*]*

그래서 연설을 간결하게 하고*[*여기서 "*마트나비*"를 마무리합니다*]*. 신성하게 내려주신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112]

[112] 이 시점에서 루미의 위대한 걸작 "*마트나비*" 또는 "깊은 영적 의미의 쌍둥이"는 마울라나 일라히 박쉬 칸델라비의 결말이 추가된 후 끝났다.

결론

인간 존재의 핵심은 우리 삶 속에서 모든 부정성과 긍정, 행복과 슬픔, 비참함과 편안함, 성공과 실패, 제한과 확장, 어둠과 빛의 근원과 근원입니다. 이 핵심은 강렬한 내면의 영적 투쟁을 통해 변화가 필요한 인간의 '심장' 또는 '영혼'이라 불리며, 회복력, 긍정, 낙관, 내면의 평화, 평온, 행복, 영원한 행복, 끝없는 승리를 발산합니다. 이 논문은 인류 문명 전체의 가장 뛰어난 지혜 중 한 명의 영원한 지혜에 기반하며, 회복력, 긍정, 낙관, 내면의 평화, 평온, 행복의 달성을 향해 인간 존재의 핵심 내 모든 장애물을 체계적으로 해체하며, 불안의 시대에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승리라는 인류 성취의 정점에 도달하도록 이끕니다. 난기류와 혼란.

주변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다양한 상황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내면 영적 자원의 저장소를 더 깊이 끌어들여 자신의 고유한 상황과 도전을 활용하여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변화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긍정적인 면을 다양한 형태로 불어넣어 개인들의 최선을 끌어내어 인생의 도전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 내면의 변화는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을 풀어주고, 그 결과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먼저 자신을 돕는 것은 결국 타인을 돕고, 개인의 내면의 빛과 빛이 강해질 때, 그것은 주변 격동하는 세상에서 선함을 위한 멈출 수 없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천 리에 달하는 여정은 어디선가 시작되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당신이 자기 실현,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고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밟아야 할 한 걸음입니다. 이 책은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을 자기 실현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한 걸음은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열망이며, 이를 위해 열린 마음과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 미지의 영역을 탐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결과에 만족할 것입니다.

이 끝없는 진리의 폭풍우 치는 바다를 헤쳐 나가며, 진정한 자아실현, 삶의 진정한 목적 달성, 그리고 그 결과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성공을 향해 나아가며 신성한 보호와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불멸화하길.

추가 학습을 위해 추천하는 도서

이 논문은 삶의 진정한 목적과 그것을 이루는 길을 간결하게 다루었으며, 이는 회복력, 긍정성, 낙관주의, 내면의 평화, 평온, 행복, 영원한 행복, 그리고 불안, 혼란, 혼란의 상태와 상관없이 끝없는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주제의 방대함과 강도는 지난 세기 동안 영원한 진리를 아는 위대한 이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이 이를 설명하고 인류의 길을 밝히기 위해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해 왔습니다. 이 논문은 인류가 만들어낸 이 지식의 가장 위대한 옹호자 중 한 명인 무함마드 알-가잘리(신께서 그분의 엄청난 축복을 내리시길)의 영성과 빛나는 저작을 통해 그 방대함을 엿보려 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가장 위대한 저작들을 나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모든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깊은 관련성과 이익을 모두에게 제공합니다. 이 시점에서 "삶의 목적과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에 도달하는 방법에 관한 관련 지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야 길을 걷고자 하는 이에게 길이 명확하고 밝아지며 넓어지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행동함으로써 실제로 자신의 삶의 목적에 도달하여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의 상태에 잠길 수 있는가?" 다행히도, 오늘날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훌륭한 지식은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를 진정으로 추구하는 이들에게 길을 밝히는 다음 추천 훌륭한 저작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일. 가잘리가 그의 저서 『꾸란의 보석들』*에서 설명한 꾸란의 열 가지 목적에 비추어 꾸란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훌륭한 해석의 도움을* 받아 이 과정을 통해 이 책을 다룹니다. 이 10가지 목표를 공부하고, 이를 이해하며, 내면화하며, 이 10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꾸란을 공부하는 것은 새로운 이해의 시야와 내면의 영적 깨달음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가잘리의 저서 "*Minhaj al-Abideen ila Jannatu Rab al-'Aalameen*" 또는 "모든 우주와 존재의 주님의 천국으로 이끄는 신을 숭배하는 이들을 위한 최고의 길" 또는 줄여서 "예배자들을 위한 최고의 길". 이 책은 삶의 목적과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을 얻는 길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삼. 가잘리가 페르시아어로 쓴 『키미야-에-사아다트』*(또는* '키미야 아스-사아다*다)라는 책의 놀라운 서문*은 영원한 행복, 불멸,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성공을 설명합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이 길을 나아가는 데 필요한 40단계를 간략히 배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의 놀라운 서문은 이 논문의 첫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다뤄진다.

사. 가잘리가 쓴 4권짜리 지혜 집집 『*이히야 알-울룸 앗딘*』 또는 '신으로 가는 길의 지식 부흥', 또는 '종교 과학의 부흥'이라고도 불린다. 이 방대한 책은 40권의 짧은 책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은 신성한 영지(Ma'rifa)로 가는 영적 길의 한 단계를 나타내며, 인간 삶의 목적과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훌륭한 책의 3권과 4권은 이 논문의 2부와 3부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오. 마지막으로, 동서양 모두에서 베스트셀러 시인 마울라나 잘랄루딘 루미(일명 '루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 신성한 영지와 신성한 사랑에 관한 시인 '*마트나비-에-마나비*' 또는 '깊은 영적 의미의 쌍'을 썼습니다. 최대한의 효과를 위해 좋은 번역과 학술적 설명을 함께

> 공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훌륭한 책은 꾸란의 깊은 내면의 지혜를 끌어냅니다. 그 도움으로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에 따른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훌륭한 책의 결말은 이 논문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다.

추천 도서 목록은 방대할 수 있는데, 영원한 행복의 대가들—영지주의자들, 영원한 진리와 신성한 지혜를 아는 자들—이 남긴 영원한 지혜의 보물들도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 리의 여정은 어디선가 시작되어야 하며, 이 짧은 목록은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을 향한 이 위대한 여정의 시작점이자 정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 책들은 이 끝없이 거대한 영원한 진리의 바다의 폭풍우 치는 바다를 헤쳐 나가며, 내면의 깨달음, 자기 실현, 삶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고 그에 따른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승리를 향한 여정을 돕습니다:

타프시르 알-투스타리(성스러운 꾸란 위대한 주석) 저자: 살 이븐 압둘라 알-투스타리(저자), 유세프 메리(편집자), 애너벨 킬러(번역가), 알리 킬러(번역가)

출판사: 폰스 비테 (2011년 4월 13일)

ISBN-10: 1891785192; ISBN-13: 978-1891785191

이 꾸란 선별된 구절 해석은 신성한 계시의 깊은 의미를 파고들어 그 안에 깊이 박힌 보석들을 드러낸다.

꾸란의 메시지: 계시된 아랍어 원문에 대한 완전한 기록과 무 함마드 아사드(편집자, 번역가)의 병행 음역과 함께.

출판사: 도서 재단; 개정판 (2008년 12월 1일)

ISBN-10: 1904510353; ISBN-13: 978-1904510352

이것은 꾸란에 대한 완전한 해석 또는 해석입니다.

이맘 가잘리의 『만물의 주님의 정원(민하즈 알-아비딘)으로 가는 경배하는 종들의 길』

출판사: 알-바즈 퍼블리싱 USA (2011)

ISBN-10: 1882216261; ISBN-13: 978-1882216260

이맘 가잘리의 마지막 저서로, 영적 완성과 깨달음을 위한 7단계 길을 제시합니다.

알-가잘리 행복의 연금술 2권 이맘 무함마드 알-가잘리(저자), 제이 R. 크룩(번역가), 라일레 박티아르(서문)

출판사: 카지 퍼블리케이션즈, Inc. (2007년 1월 1일)

ISBN-10: 1567446744; ISBN-13: 978-1567446746

이맘 가잘리의 걸작 "*키미야-에-사아다트*"는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의 변혁적 주체를 그려낸다.

종교 과학의 부흥 (이히야 알-울룸 앗-딘) 4권 세트: 이맘 무함마드 알-가잘리 (저자), 무함마드 마흐디 알-샤리프(번역가)

출판사: 다르 알-코토브 알-일미야, 베이루트, 레바논 (2011)

SKU 1010021; ISBN: 9782745159458

http://jamalon.com/en/1010021.html

이맘 가잘리의 4권짜리 지혜 집은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에 따른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으로 이어지는 영적 길의 모든 측면을 해부합니다.

마울라나 잘랄루딘 루미의 『마스나비』 (6권). R.A. 니콜슨 (번역가)

http://www.dar-al-masnavi.org/about_nicholson.html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시인 루미(Rumi)의 『*마트나비에 마나비(Mathnavi-e-Ma'navi*)』 또는 『깊은 영적 의미의 연(Couplets of Deep Spiritual Meanings)』은 꾸란의 깊은 내면의 지혜, 삶의 깊은 의미와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한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을 끌어내는 훌륭한 6권짜리 책입니다. 이것은 영적 스승이 영적 스승이 쓴 영적 시중 가장 뛰어난 영적 시로, 영적 스승은 앞으로도 인류 전체를 이끄는 빛이며, 신성한 사랑의 끝없는 바다에 잠기고, 잠기고, 익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지학

[1] 알-가잘리, 무함마드. 우르두어 번역: 나크슈반디, 무함마드 사이드. *키미야-에-사아닷*(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성공을 위한 변화의 연금술 또는 변화의 주체). 파키스탄 라호르: 프로그레시브 북스, 1999. 33-37쪽. *우르두어에서 영어로의 번역 및 편집자 발췌*.

[2] 알-가잘리, 무함마드. 영어 번역: 무함마드 아심 빌랄. *키미야이사아닷* (영원한 행복의 연금술). 파키스탄 라호르: 카지 출판사, 2001. 1-47쪽. *컴파일러가 요약하고 설명했습니다*.

[3] 알-가잘리, 무함마드. 영어 번역: 무함마드 아심 빌랄. *키미야이사아닷* (영원한 행복의 연금술). 파키스탄 라호르: 카지 출판사, 2001. 48-68쪽. *컴파일러가 요약하고 설명했습니다*.

[4] 알-가잘리, 무함마드. 영어 번역: 무함마드 아심 빌랄. *키미야이사아닷* (영원한 행복의 연금술). 파키스탄 라호르: 카지 출판사, 2001. 77-90쪽. *컴파일러가 요약하고 설명했습니다*.

[5] 알-가잘리, 무함마드. 영어 번역: 무함마드 아심 빌랄. *키미야이사아닷* (영원한 행복의 연금술). 파키스탄 라호르: 카지 출판사, 2001. 91-140쪽. *컴파일러가 요약하고 설명했습니다*.

[6] 알-가잘리, 무함마드. 영어 번역: 무함마드 아심 빌랄. *키미야이사아닷* (영원한 행복의 연금술). 파키스탄 라호르: 카지 출판사, 2001. 141-142쪽. *컴파일러가 요약하고 설명했습니다*.

[7] 알-가잘리, 무함마드. 우르두어 번역: 알-와지디, 나딤. *이히야 알-울룸 앗-딘*(신으로 가는 길의 지식 부흥). 파키스탄 카라치: 다룰 이샤트, 1999. 3권 1권, 16-34, 38-43, 51-87쪽. *우르두어에서 영어로의 번역 및 편집자 발췌*.

[8] 알-가잘리, 무함마드. 우르두어 번역: 알-와지디, 나딤. *이히야 알-울룸 앗-딘*(신으로 가는 길의 지식 부흥). 파키스탄 카라치: 다룰 이샤트, 1999. 3권 2권, 87-133쪽. *우르두어에서 영어로의 번역 및 편집자 발췌*.

[9] 알-가잘리, 무함마드. 우르두어 번역: 알-와지디, 나딤. *이히야 알-울룸 앗-딘*(신으로 가는 길의 지식 부흥). 파키스탄 카라치: 다룰 이샤트, 1999. 3권 3권, 133-135, 137, 139-147, 157, 158, 160-164, 172쪽. *우르두어에서 영어로의 번역 및 편집자 발췌*.

[10] 알-가잘리, 무함마드. 우르두어 번역: 알-와지디, 나딤. *이히야 알-울룸 앗-딘*(신으로 가는 길의 지식 부흥). 파키스탄 카라치: 다룰 이샤트, 1999. 3권 4권, 174-258쪽 발췌. *우르두어에서 영어로의 번역 및 편집자 발췌*.

[11] 알-가잘리, 무함마드. 우르두어 번역: 알-와지디, 나딤. *이히야 알-울룸 앗-딘*(신으로 가는 길의 지식 부흥). 파키스탄 카라치: 다룰 이샤트, 1999. 제3권 5권, 258-260, 262-264, 266, 268-269, 271-274, 277-279, 284-287, 291-292, 294-299, 302-314쪽. *우르두어에서 영어로의 번역 및 편집자 발췌*.

[12] 알-가잘리, 무함마드. 우르두어 번역: 알-와지디, 나딤. *이히야 알-울룸 앗-딘*(신으로 가는 길의 지식 부흥). 파키스탄 카라치: 다룰 이샤트, 1999. 3권 6권, 361-364, 319-320, 323-324, 326-327, 333, 340, 342, 344-348, 352-356, 358-361쪽. *우르두어에서 영어로의 번역 및 편집자 발췌*.

[13] 알-가잘리, 무함마드. 우르두어 번역: 알-와지디, 나딤. *이히야 알-울룸 앗-딘*(신으로 가는 길의 지식 부흥). 파키스탄 카라치: 다룰 이샤트, 1999. 3권 7권, 361-364, 367-371, 373, 375, 377-382, 383, 392-397, 399-401, 403, 405-410, 418, 423쪽. *우르두어에서 영어로의 번역 및 편집자 발췌*.

[14] 알-가잘리, 무함마드. 우르두어 번역: 알-와지디, 나딤. *이히야 알-울룸 앗-딘*(신으로 가는 길의 지식 부흥). 파키스탄 카라치: 다룰 이샤트, 1999. 3권 8권, 425-426, 430-435, 438, 442-449, 451-452쪽. *우르두어에서 영어로의 번역 및 편집자 발췌*.

[15] 알-가잘리, 무함마드. 우르두어 번역: 알-와지디, 나딤. *이히야 알-울룸 앗-딘*(신으로 가는 길의 지식 부흥). 파키스탄 카라치: 다룰 이샤트, 1999. 3권 9권, 452-456, 457-460, 475-480, 502-507, 512쪽. *우르두어에서 영어로의 번역 및 편집자 발췌*.

[16] 알-가잘리, 무함마드. 우르두어 번역: 알-와지디, 나딤. *이히야 알-울룸 앗-딘*(신으로 가는 길의 지식 부흥). 파키스탄 카라치: 다룰 이샤트, 1999. 3권 10권, 513-520, 522-534, 536-541, 544-559, 561-577, 627-629쪽. *우르두어에서 영어로의 번역 및 편집자 발췌*.

[17] 알-가잘리, 무함마드. 우르두어 번역: 알-와지디, 나딤. *이히야 알-울룸 앗-딘*(신으로 가는 길의 지식 부흥). 파키스탄 카라치: 다룰 이샤트, 1999. 제4권 1권, 17-18, 21, 27, 29, 33, 37-38, 41, 56, 60-64, 75, 85, 88, 90, 99, 101-103쪽. *우르두어에서 영어로의 번역 및 편집자 발췌*.

[18] 알-가잘리, 무함마드. 우르두어 번역: 알-와지디, 나딤. *이히야 알-울룸 앗-딘*(신으로 가는 길의 지식 부흥). 파키스탄 카라치: 다룰 이샤트, 1999. 제4권 2권, 104-108, 113, 118, 126-129, 130, 133, 136-139, 141, 142, 144-145, 148, 165-167, 169-170, 177-179, 188-189, 201, 202, 204-205, 209, 211-212, 227. *우르두어에서 영어로의 번역 및 편집자 발췌*.

[19] 알-가잘리, 무함마드. 우르두어 번역: 알-와지디, 나딤. *이히야 알-울룸 앗-딘*(신으로 가는 길의 지식 부흥). 파키스탄 카라치: 다룰 이샤트, 1999. 4권 3권, 228-234, 245-247, 251, 253, 258-262, 270-271, 274-277, 288-290쪽. *우르두어에서 영어로의 번역 및 편집자 발췌*.

[20] 알-가잘리, 무함마드. 우르두어 번역: 알-와지디, 나딤. *이히야 알-울룸 앗-딘*(신으로 가는 길의 지식 부흥). 파키스탄 카라치: 다룰 이샤트, 1999. 4권 4권, 290-297, 302-303, 306-307, 311-312, 328-331, 333-335, 339-340, 349, 351, 355, 357, 359, 360쪽. *우르두어에서 영어로의 번역 및 편집자 발췌*.

[21] 알-가잘리, 무함마드. 우르두어 번역: 알-와지디, 나딤. *이히야 알-울룸 앗-딘*(신으로 가는 길의 지식 부흥). 파키스탄 카라치: 다룰 이샤트, 1999. 4권 5권, 366-380, 391-395, 404-405, 437-438쪽. *우르두어에서 영어로의 번역 및 편집자 발췌*.

[22] 알-가잘리, 무함마드. 우르두어 번역: 알-와지디, 나딤. *이히야 알-울룸 앗-딘*(신으로 가는 길의 지식 부흥). 파키스탄 카라치: 다룰 이샤트, 1999. 4권 6권, 441-462, 470, 472-476, 482-486, 492-493, 516, 521-522, 541-542쪽. *우르두어에서 영어로의 번역 및 편집자 발췌*.

[23] 알-가잘리, 무함마드. 우르두어 번역: 알-와지디, 나딤. *이히야 알-울룸 앗-딘*(신으로 가는 길의 지식 부흥). 파키스탄 카라치: 다룰 이샤트, 1999. 4권 7권, 542-550, 563-565, 567-570, 572-573, 577-586쪽. *우르두어에서 영어로의 번역 및 편집자 발췌*.

[24] 알-가잘리, 무함마드. 우르두어 번역: 알-와지디, 나딤. *이히야 알-울룸 앗-딘*(신으로 가는 길의 지식 부흥). 파키스탄 카라치: 다룰 이샤트, 1999. 4권 8권, 587-596, 603-605, 606-610, 622-626, 631-632쪽. *우르두어에서 영어로의 번역 및 편집자 발췌*.

[25] 알-가잘리, 무함마드. 우르두어 번역: 알-와지디, 나딤. *이히야 알-울룸 앗-딘*(신으로 가는 길의 지식 부흥). 파키스탄 카라치: 다룰 이샤트, 1999. 4권 9권, 632-642, 645-646, 665-666쪽. *우르두어에서 영어로의 번역 및 편집자 발췌*.

[26] 알-가잘리, 무함마드. 우르두어 번역: 알-와지디, 나딤. *이히야 알-울룸 앗-딘*(신으로 가는 길의 지식 부흥). 파키스탄 카라치: 다룰 이샤트, 1999. 4권 10권, 666-668, 670-671, 676-681, 683-684, 688-690, 749-750, 789-794쪽. *우르두어에서 영어로의 번역 및 편집자 발췌*.

[27] 알-가잘리, 무함마드. 영어 번역 (우르두어 번역에서): 하산, 이르판. *아이유할 왈라드*(나의 사랑하는 아들 혹은 딸). *마즈무아 라사-일 이맘 가잘리* (이맘 가잘리 단편집): 파키스탄 카라치: 다룰 이샤아트, 2004. 1권, 13-17쪽. 영어 번역은 다음 출처에서 가져 온 http://www.ghazali.org/books/My%20Dear%20Beloved%20Son.doc

[28] 루미, 마울라나 잘랄루딘 무함마드. 우르두어 번역: 후세인, 카지 사자드. *마트나비에 마울라비에 마나비*(깊은 영적 의미의 쌍) 6권. 파키스탄 라호르: 알파이살 북 퍼블리셔스; 출판일 미상; 우르두어 번역은 1974년에 완성되었습니다. 6권, 342-344, 347-363, 373-374, 381-382, 389-391, 421-426,

441-442, 443-460, 466-467, 472-478, 505-506, 508-511, 520-526, 530. *우르두어에서 영어로의 번역 및 편집자 발췌*.

회복력, 긍정, 내면의 평화,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승리, 불안과 혼란의 시대 속에서

이 책은 무력한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처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며, 절망, 우울, 슬픔, 좌절, 내면의 공허함 등 내면의 고통에 빠진 이들에게 안도감이 될 것이며, 어둠에 둘러싸인 이들에게 빛이 되고, 진리와 목적, 삶의 의미를 찾는 이들에게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지고자 하는 이들이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세상을 위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